

# 남북정상회담 국내신문기사집

(정상회담기간)

2000. 6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민족분단사에 있어 역사적 전기가 되는 쾌거였습니다.

나아가 남북정상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천과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7천만 민족에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쌍방 정상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해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불신과 반목의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 그리고 통일방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쌍방의 정상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으며, 인류문명사와 오늘날 세계적 흐름에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벽을 쌓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멀리만 느껴졌던 남과 북이 마음을 트고, 하늘길을 열고 땅길과 바닷길도 열어,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발표(2000. 4. 10)부터 준비접촉, 선발대 방북, 정상회담까지의 국내 신문 기사를 정리하여 「남북정상회담 국내신문기사집」을 3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권 : 정상회담 발표(4.10)부터 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 타결(5.18)까지

II 권 : 실무절차합의서 타결 이후부터 선발대 방북활동(6.12)까지

III 권 : 정상회담 시작(6.13)부터 종료 익일(6.16)까지

기사집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편집하였습니다.

- ① 회담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일자, 조석간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② 신문기사는 10개 종합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순서는 스트레이트, 스케치, 해설 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문기사가 많은 날은 신문사별(가나다 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0. 6

정  
상  
회  
담

추  
진  
일  
지

- 4.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4.8합의서) 발표
  - 박재규 통일부장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공동 발표
- 4.18(화) 우리측, 정상회담 준비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 4.22(토) 판문점 [평화의 집]
- 4.19(수) 북측, 우리측 제의에 동의
- 4.21(금) 정상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교환
- 4.22(토) 제1차 정상회담 준비접촉(평화의 집)
- 4.27(목) 제2차 정상회담 준비접촉(통일각)
- 5. 3(수) 제3차 정상회담 준비접촉(평화의 집)
- 5. 8(월) 제4차 정상회담 준비접촉(통일각)
- 5.13(토) 통신·보도분야 제1차 실무자접촉(평화의 집)
- 5.16(화) 의전·경호분야 실무자접촉(통일각)
- 5.17(수) 통신·보도분야 제2차 실무자접촉(통일각)
- 5.18(목) 제5차 정상회담 준비접촉(평화의 집)
- 5.27(토) 선발대 명단(30명) 통보
- 5.31(수) 선발대 방북(판문점 경유)
  - 경호·통신·의전·보도분야 세부실무절차 합의 및 현장답사

- 6. 5(월) 우리측 대표단 명단 대북통보
- 6. 9(금) 북측 총리명의로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
- 6.12(월)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정상회담 하루 연기 발표
- 6.13(화)-6.15(목) 정상회담

## 6. 13

- 09:18 대통령 내외분 및 대표단 서울공항 출발
- 10:35 대통령 내외분 및 대표단 평양공항 도착
- 11:45-12:10 남북정상회담(백화원 초대소)
- 15:20-15:5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례방문(만수대의사당)
- 16:05-17:15 만수대 예술극장 공연 관람
- 19:08-21:4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 6. 14

- 09:40-11: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공식면담(만수대의사당)
- 15:00-17:20 남북정상회담(백화원 초대소)
- 18:05-18:50 남북정상회담(백화원 초대소)
- 20:15-22:30 대통령님 주최 답례 만찬(목란관)
- 23:20-23:25 남북공동선언 서명

## 6. 15

- 12:00-13:30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백화원초대소)
- 16:00-16:20 평양공항 환송행사
- 16:20 서울항발



# 오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 분단을 넘어 화해로

# 새 길을 여는 새 날이 열렸다

## 김대통령 방북...이산·경협 논의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가능성도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13일 평양에서 열린다.

김대중(金大宇)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李喜浩) 여사와 함께 13일 오전 항공편으로 서울을 출발해 1시간여 비행 끝에 평양에 도착, 2박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김대통령은 방북 첫날 오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1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준영(朴準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김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해 '남북의 온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찾자'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평양 체류기간 중 김위원장과 2회 이상 단독회담을 갖고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 해소, 신뢰회복 및 교류증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김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두 정상간에 '한반도 평화선언' 등이 공동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특히 김위원장과 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비롯해 협도·도모 등 북한의 사색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북측과 확대정상회담도 갖고 단독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당국간 대화문제와 부차보장협정 등 김일성의 재도적 정치이권에 대해서도 협

의를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체류기간 동안 김대통령 내외는 고구려시대의 문화유적지와 각종 시설, 북측의 공연을 관람하는 한편 오·만천행시를 통해 남북화해할 도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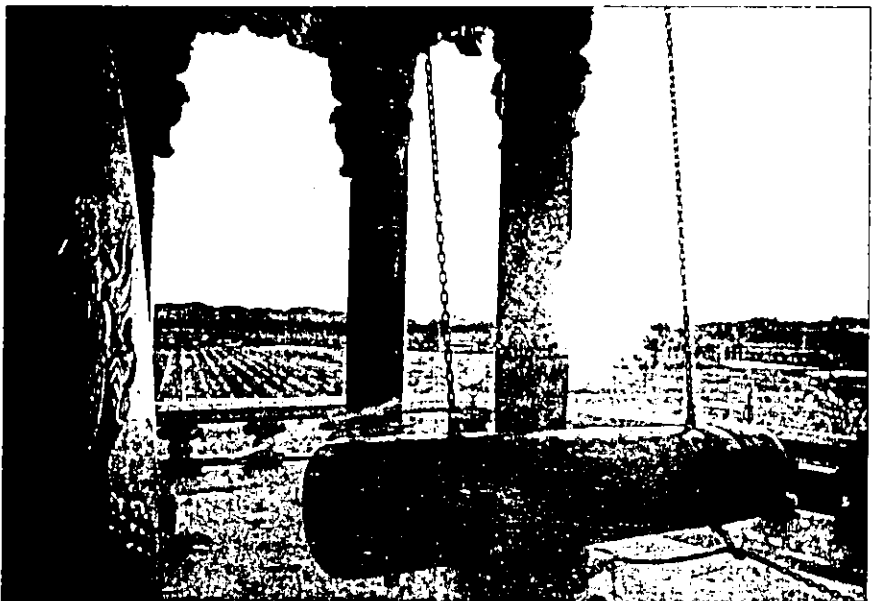
이번 방북에는 이한재(李煥宰) 재경·박재규(朴在圭) 통일·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광국(韓光國) 비서실장·박준영 공보수석 등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관, 일반수행관 등 130명이 동행한다.

또 신문·통신·방송사의 취재기자 및 중계요원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50명도 별도의 특별기편으로 함께 방북길에 올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한다.

참회취기자  
de@korea.net, arg.com

### 정상회담 지면안내

|                    |    |
|--------------------|----|
| 김대통령 출발 구상.....    | 3  |
| 방북단 소감과 각오.....    | 4  |
| 미리보는 정상회담.....     | 5  |
| 방북길로 어떻게.....      | 6  |
| 김대통령-김위원장 비교.....  | 7  |
| 탈북 N세대의 기대.....    | 13 |
| 진도 실랑이 마음 표정.....  | 18 |
| 김규홍시인의 시모곡.....    | 19 |
| 귀순 연예인 3인의 감회..... | 27 |



'평화의 종' 너머 서광이...

평안도/김승근기자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 압록강에 있는 '평화의 종'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타종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www.korea.net

# 평화의 큰걸음

6·13~15 남북정상회담



남북두 정상 스타일 비교

|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
|------------|--------------|
| 173cm      | 키 160~165cm  |
| 73kg       | 몸무게 80~88kg  |
| 학교 최고      | 학력 김일성종합대학   |
| 국내 방송언론    | 언론에 출연한 빈도   |
| 영어·일본어     | 외국어구사능력 러시아어 |
| 82년 만일대 5명 | 남북           |
| 백수인명       | 주황           |
| 고향(북·산구사)  | 여향곡          |
| 취향         | 홍이하는 음식      |
| 인생기·손속     | 홍이하는연예인      |
| 특사·영국관광    | 취미           |
| 논리·실용성     | 언어습관         |



## '분단서 화해의 큰길로...' 포용

### 남북 두 정상 비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전세계의 이목이 남북정상회담의 두 주역에게 쏠리고 있다. 두 정상이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통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남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13~15일의 2박3일 동안 정상회담이 열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만큼 개인취향과 정치적 견해 등 거의 모든 점에 있어 이질적이다.

김대중집이 자유·김금 등 험난한 길을 걸어온 '저수성가향'인데 비해 김위원장은 '재향학교'를 밟아왔다. 김대중집이 논리로 무장한 실용주의라면 김위원장은 빠른 말씨를 구사하는 다변형으로 버려졌던 것이 빠르다는 점이다.

55년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터잡은 이념적 토양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두 정

▶ 김대통령 논리무장 설득형

▶ 김위원장 빠른말씨 다변형

상이 다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두 정상은 협력점을 찾고자하는 성격이어서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일과 업무처리에 관한 한 철저가라면 서로워할 정도로 엄정적이며 완벽주의자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두 정상이 신뢰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기존 관행이나 방식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도할 줄 아는 실용주의자라는 점도 남은 꼽는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면서도 몇몇차례를 통해 공감할 갖고 서로 신뢰를 쌓아온 사실도 긍정적이다. 이제 역사의 날은 밝았다. 분단과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두 정상에게 달려있다. 정길근기자 [ren@kyunghyang.com](mailto:ren@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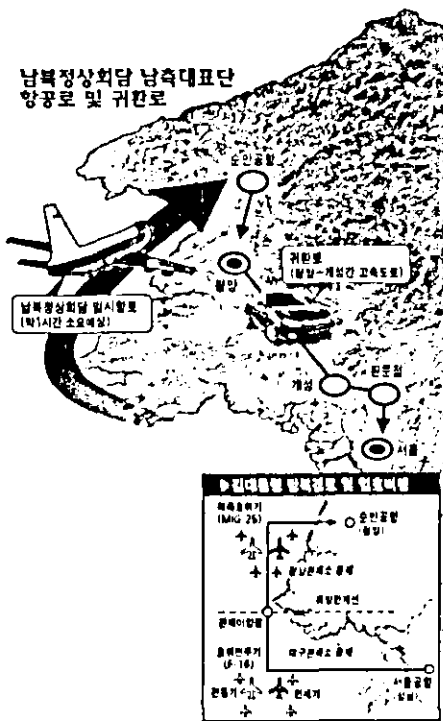
### 각종 현안에 대한 주요 발언

|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
|--|---|
|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안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해야한다  | 통일권   |
| 북한국기연발, 연방체제에 대해 지지치. 안전통일 단계 중 한단계 3단계 통일을 지향한다   | 통일방안  |
|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을 막을 수 없다                                      | 이산가족  |
|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농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민간경협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 남북경협  |
| 북한을 해지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을 원시 단계로 되돌려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을 돕고 싶다                               | 군사문제  |
|  | 조국통일은 미룰수 없는 민족적 과업으로 민족분열의 비극과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한다            |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실현방안을 위한 실재도이다                      |
|  | 통일과 사이의 내항과 민족 실현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 대안교를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
|  | 남한이 대결정세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아무때나 만나 협상할 것이다              |
|  | 세계 존재하는 것은 남북위협이 아니라 북침 위협이다. 북침위협이 없으면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소될 것이다 |

(좌) 김대중 대통령, (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 “양보와 배려로 ‘통일물꼬’ 기대”

남북정상회담 남측대표단 항공로 및 귀환로



## 1시간거리 서해항로 개착 호위 남북공군기 첫교신도

### 방북항로 어떻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남북정상회담의 남측 대표단을 태운 항공기는 서해 상공을 거쳐 울진과 순안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거리 700km, 비행시간 1시간의 임시항로를 새로 개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서울~베이징(北京) 항로와는 다른 새로운 노선이다. 대표단 항공기는 서해상공 출항 후 일단 베이징으로 향하는 CGAT(중화항공)을 통해 서해 상공으로 접어들 뒤 일정 지점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게 된다.

대표단 항공기로는 대부분 전세기인 공군 1호기와 아시아나항공에서 전세낸 보잉 737 편 등이 동 2대가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공항과 순안공항에는 대표단 항공기의 무사도착을 위해 여관차와 고신호출 등 12편행 시나리오

항공기2대 서울공항 이륙  
베이징항로 타다 北으로  
이륙 20분께 관제권 이양 시나리오

13일 오전 5시 남 서울공항에서 출항 예정인 임시편 편으로 항공기 2대가 서울공항 관제소의 관제권 받아 순차적으로 기동할 것을 항공기 2대가, 서울 상공에 들어갈 항공기 2대는 이륙 후 20분쯤 후 서해 상공으로 기수를 돌린다. "우리측 대표단을 태운 여객기 2대가 그쪽 지역으로 넘어간다. 관제권을 이양한다." 항공기들이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대구항공관제소 담당자가 주한미군을 이용해 관제권으로 관제권을 넘긴다. 같은 시각 우리 공군 F16 순찰 전투기와 민항기 2대 북쪽 공군기물간의 사상 첫 교신도 있게 된다. 이 스킵도 비행 임무를 인계할까 의문적이다. 대표단 비행기는 20여분간 더 비행한 뒤에 일단 순안공항에 역사적인 첫 착륙을 한다. 이주승기자 as@kbs.co.kr

## 하루공백...막바지점점 분주 '전략재손질 기회로'

### 관련부처 표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진반인 12일 각 부처별로 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해 가지 보고 점검한다.

○...중앙정보당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정상회담 전략을 다시 한번 손질하고 각종 자원을 점검하면서 하루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느라 온종일 바쁜 손길을 보인다. 서울 잠실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북측회담으로 자리를 옮긴 정상회담 선협상은 분당 백현동 소재 최후전선회담 장소인 고대 5만 평 부지를 통해 대표단 체류장소를 만나거나 잡아 가지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담장소에 들른 첫 여객을 출발 전 관공 접견장에 머물며 정상회담 전략을 점검하고 각종 자원을 점검한다. 박정호는 "이번 장관제 북측은 북측을 접견할 수 있게 돼 외교관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회담장

장소와 관련된 사전준비를 최종 점검하며 민간업 기리는 모습이었다. 이 정반대 13일 회담장 전략을 1시간 단위로 점검한 채로 일몰에 유합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다. 외교부엔 이날 하루종일 정상회담 열기 때문에 대한 주한 외국 대사관들과 문의 점검이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들도 남북회담 방인일 중점전반의 비호를 했다. 조경부는 회담에 대한 비호 태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교섭국은 국토해양부 해안공 도대로 북한지역 사후관할 하인 중점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정상회담이 집회권 확보와 북측 동쪽도 참여자 초청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북한과 남북관심 분야 등을 총 7개 팀 21명(남측 10명, 북측 11명)을 파견했다. 기타 조항 검토도 마쳤다. 조경부는 앞으로 우리 국경과 북측지역에 출입할 것으로 보고 북한 근무자의 출입준비를 하느라 이틀이 넘는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회담장소에 들른 첫 여객을 출발 전 관공 접견장에 머물며 정상회담 전략을 점검하고 각종 자원을 점검한다. 박정호는 "이번 장관제 북측은 북측을 접견할 수 있게 돼 외교관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회담장

장차·김부·서호부

## 미리 본 평양 '2박3일'

13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두 정상에게 쏠려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 그 자체일 수 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공개된 일정은 바탕으로 13~15일 정상회담 시나리오를 구성해본다.

### '55년분단' 넘어 두정상 굳은 악수

# 13일

#### ● 출발

오전 상남 서울공항. 김대중 대통령은 출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임무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분단 사상 최초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하고 남과 북

의 민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대통령과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3부요인 등 출연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광군 1호기에 탑승한다. 김승연(金承淵)의원 등 세 이들도 공행에 출연하여 환영한다.

일반 수경원과 취재진들은 어시어나 항공 전세기인 보잉 737-400기에 탑승한다. 취재진이 탄 비행기가 먼저 출발한다.

앞서 김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비서관들과 일일 악수를 나눈 뒤 승용차에 올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도열한 비서관 및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다.

김대통령은 청와대 앞 효자동 서양방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마중 나온 인근 주민들로부터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받으며 이틀째도 임박이 악수를 나눈다. 김대통령은 연도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서울공항으로 이동한다. 이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 도착 이날 오전 광군 1호기와 전세기가 남한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김대통령 내외는 도착 직후 회동(花童)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북한 교위 인사로부터 영접을 받는다. 남과 북의 운거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싶어한다. 이 장면은 남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상봉 발표 후 곧바로 북측이 제공한 승용차에 올라다 평양 시내로 향한다. 평양 동부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백화연초대소에 도착, 1각에 여정을 끝낸 김승식사를 한다.

● 상봉과 정상회담 김대통령은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진 뒤 평양 모처에서 김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남북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대면해 인사를 나눈다. 두 정상은 이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는 양쪽에서 2명의 비서사와 기록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과 주변정세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분체를 남북한이 주도해 풀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

또 휘파와 남해, 가족사 등 가벼운 화제를 입에 올리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과정을 밟는다.

● 환영만찬 김정일 위원장이 주최하는 김대통령과 대표단의 방북 환영만찬이 밤에 개최된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해례의 환영사와 담사를 발표하고 '해례와 평화의 견해'도 한다. 만찬 후반부에 남북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도 보여진다.

두 정상은 만찬 동안 내내 자리를 함께 하며 양쪽의 각료들 시모 소개한다. 만찬 후 김대통령과 대표단은 숙소로 돌아와 평양에서 첫 밤을 보낸다.

## "이산가족 悲願 품시다" 잇단 논의

### ●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 14일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오전 2차 남북정상회담 혹은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산가족문제, 당국대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김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김연·이산가족 등의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남한에는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만 26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비환(悲願)을 하루

라도

빨리 풀어주

는 것이 남북화해와

평화를 앞당기는 일임을

강조한다. 또 남북화해와

수단으로 당국대화의 정례화가 필요하

다고 역설한다.

김위원장은 이산가족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시사한다. 김위원장은 또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통일로 이어져 있다며 평화적인 통일이 최우선적 현안이라고 말한다. 김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중요성과 정상회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요청한다.

양측 각료들이 제시하는 확대정상회담에선 남북회담에서 거론된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논의된다. 이산가족 분야에선 변호사 설치문제와 교행방문단 운영문제 등이, 김연 분야에선 정보통신 교류나 전력난 지원, 농업 협력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 등이 언급된다. 남북연락사무소 복원문제도 거론된다.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 답례 만찬과 관람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 대한 답례 만찬에서 회담에서 다루지 못

한 문제들

을 논의할 수 있

다. 특히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남북간 신뢰회기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서울방문을 요청한다. 남북한

각료들도 상견례에 그쳤던 첫 날 만찬과는 달리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김대통령과 이어지는 바쁜 일정을 쫓게 민경대 학생소년공정원 찾는다. 평양 남쪽 20km 떨어진 평안남도 중화군 소재 동명왕궁이 나 경양지하철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어지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평안산인(산부인과 병원)과 참관유치원을 찾는다.

### '다시 만남시다' 승용차로 판문점통과

### ● 평양 출발과 판문점 도착

# 15일

정상회담 경과에 따라 김대통령은 아침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선언을 발표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김위원장이 백화연초대로 찾아가 떠나기 직전 두 정상이 다시 회동을 가진 뒤 함께 평화선언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두 정상은 "다시 만나자"는 인사와 악수를 나눈 뒤 작별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후 김대통령은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승용차 편으로 평양을 떠난다. 귀환은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오후 4시쯤 판문점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북측 적십자 연락관의 안내로 판문점통과, 남쪽으로 넘어온다.

판문점을 통과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어 김대통령은 방북 경쾌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조호연기자 chy@yngjywg.com



6·13~15 남북정상회담

## 정상회담에 바란다

'작은 것'에서부터 '소박하게',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각계의 기대는 하지만 한결같이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간 대결구도가 종식돼 평화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에 대한 선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다.



한인상씨

### 통일문제 남북주도로 풀길

▲한인상 전 통일부총리=냉전종식과 회개·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한다. 통일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천명하기 바란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도 자양해야 한다. 안보와 배려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을 더 이상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협상의 내용 등남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박원순씨

### 상호간 불신해소 가장 중요

▲박형규 목사=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972년 남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쟁유하지 않자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전쟁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군비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이산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줬으면 한다.



한석영씨

### '한반도 평화선언' 재확인 필요

▲한석영씨(작가)=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밑그림은 9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재확인하고 실천한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의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경제교류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문화교류 등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의 길로 향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장대스님

### 종교교류도 큰 진전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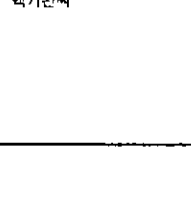
▲장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민족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기념비적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협력 강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 확대 등으로 분위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 한다. 종교 교류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소망한다. 민족문화유산과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및 복원사업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인덕씨

### 회담 잘못됐 남북관계 후퇴

▲한인덕 고려대 정외과 교수=김정일을 원죄하는 김지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제와 이산가족 상봉은 간절히 원망 바란다. 더불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회담이 잘못되면 두분간 정상회담이 이뤄져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



박기완씨

### 일방 지원보다 공동발전 모색을

▲박기완 고려대 대표이사=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 모두 공동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해 질적·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면 남북한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서로 거리 좁히는 '작은걸음'부터

▲손욱씨(영국인)=가시적인 성과보다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는 작은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 남한이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

### 외교적인 성과보다 분단의 역사 만나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외교적으로 만나지 않고 분단의 역사를 만나고 또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의 역사를 만나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경제 확대 등도 좋지만 민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군사력 대결을 피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 만남 자체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통일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만남 자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뢰가 쌓이면 교류가 확대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겠는가. 남북이 만나는 데는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총부리 잘리는 기여만큼 간직하는 것은 냉정을 절기화할 뿐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훈 방문을 기대한다.

### 경험확대 우리경제 돌파구로

▲엄기용 대한상의 조사본부장=경협 확대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과 심장이 온 남북경협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보장, 2중과세방지 협정 등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대해야 한다. 업계도 과당 경쟁, 중세 투자금 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 / 이종근기자 [hardkank@www.dn.com](mailto:hardkank@www.dn.com)

# 경향신문

2000. 6. 13 (화)

## '兩金' 단독정상회담 취재 미지수

### 보도진 50명 공동취재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할 남북 보도진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1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합동에 들어간다. 보도진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과거보다 줄어든 50명이며 인건지의 경우 17명, TV 및 라디오 방송은 7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신문사진 및 방송 카메라 기사, 방송 기술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보도진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경쟁체제

보다는 공동취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평양 취재단의 본부는 평양 고려호텔 2층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로 24시간 가동될 예정이다. 고려호텔은 평양에서 가장 현대적 시설을 갖춘 45층짜리 쌍둥이 빌딩의 특급호텔로 김대중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인 초대소는 차량으로 20분 거리이다.

프레스센터에는 남북과의 직통전화 12회선, 국제전화 12회선이 설치돼 있으며 브리킹실 등 급대 등 편의시설이 준비돼 있다. 1조 2~3인으로 구성된 '참 기자팀'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도착행사와 유적지 관람 등 주

## 1조 2~3인 '참 기자팀' 구성 유적지 관람 등 실시간 송고

요 행사를 취재하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단독정상회담 등을 평양취재단이 취재할 수 없을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기자들은 기사의 성격별로 나누어 실시간에 기사를 작성한 뒤 팩시밀리와 전화를 통해 서울 롯데호텔에 설치된 서울 프레스센터로 송고한다. 서울 프레스센터로 보내진 기사는 각 사 기자들이 수신해 신문 제작에 활용하게 된다. TV의 경우도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위성 등을 통해 서울로 보내져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장화경기자 chjangh@k.yunghyang.com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2000. 6. 13 (화)

## "김정일, 1국2체제에 큰관심" NHK

## "50년갈등 뛰어넘는 첫걸음" CNN

### 남북회담 해외시각

남북간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세계 언론의 눈길이 한반도로 집중된 가운데 일본의 NHK TV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1국2체제'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김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체제가 다른 홍콩 마카오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또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만과 통일했을 경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뉴스 전문방송 CNN은 웹사이트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역사적 만남이 50년 갈의 다리갈 놓는다'는 타이틀로 특별사이트를 신선했다. CNN은 이 특집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대화하면 수십년간 계속된 외교 노력의 절정을 이룰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치관계의 새 시대를 열고 50년 갈등을 뛰어넘는 일보통 디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반도에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는 있지만 분단

55년 만의 첫 정상회담은 남북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수많은 이산가족 중 일부라도 상봉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임에 동의하고 있으며 낙관주의자들은 궁극적 재통일을 위한 일보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북한 관련 학자들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표출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와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킬리는 "북한이 경제 파탄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코카콜라와 펄시 등 미국기업들이 이미 대(對)북한무지에 관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대 희망은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서 전문기술을 얻고 옛 공독이 서독의 지식을 이용했던 것처럼 북한은 '돈줄'인 한국으로부터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지 토폰 남가주대 명예교수(정치학)는 11일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은 1945년 분단 이래 궁극적 재통일을 위한 첫 디딤돌을 놓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워싱턴·로스앤젤레스=한경

# 전국 곳곳서 '한마음 성공기원'

## · '남북정상회담' 표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서울 서초동 신당연예원은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날부터 15일까지 예정으로 무궁화꽃을 하기 시작했다. 밤인 줄은 "정상회담 첫날인 13일은 병원에서 한밤중, 산해진미 등을 차려 놓고 혼자, 직간접과 함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귀촌자 김양씨가 운영하는 평양냉면집인 모란각도 이날부터 서울 17개 지점 등 전국 63개 지점에서 삼향민 1세에게 평양냉면 한 그릇씩을 무료로 대접하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15일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시간에 맞춰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길이 38m "대형 락(휴전선 상징) 자르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 시민대표 50명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전오 삼천동 종각에서 매계집 시장과 현승수 국회의원(민주당)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통일 기원 퍼포먼스'를 개최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이북5도민회 회원 100여명이 12일 오전 구미 시민복지회관에서 경의대회



SBS 제공

## '회담축하' 쌍무지개

12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북부·경기지역 하늘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내린 뒤 쌍무지개가 피었다. 마치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는 듯하다.

를 갖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8백만 인산가족 재회, 북한 고향 방문, 남북 주민간의 감동 해소 등을 기원했다.

우리나라 최남단 군(郡)인 제주 남제주군 청년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독도에서 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치·치여 방위경사들 찾기로 했다.

○...강원 동계시의 동해화력발전소는 12일 오후 6시30분 높이 150m의 굴뚝에 삼차한 '연꽃 무궁화'를 불을 밝혔다. 동계시의 한국전력 동해발전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연꽃 무궁화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밤 11시까지 주변 지역을 대낮처럼 환히 비추게 된다. /전국종합

## '남북정상회담 축하'

### 서울 하늘에 쌍무지개

12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북부지역의 하늘에 소나기가 내린 뒤 남북정상회담 축하하듯 삼차로 된 쌍무지개가 나타나 제1남 새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장면은 북부권 새민들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새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며 쌍무지개가 마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경향신문

또다른 새민들 옛날날 쌍무지개는 회담과 앞으로의 기쁨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남북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상징으로 칭찬도 하고 축하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쌍무지개는 비가 그칠 때와 번개에서 공기층에 남아 있는 양전압에 대안받이 공기 또는 번개에 나타나는 비 오는 오후 서늘한 분위기를 내어준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최석영기자

sochi@sedu.com

## 한국일보

2000. 6. 13 (화)

## 世界日報

2000. 6. 13 (화)

# 정상회담뒤 '핑퐁교류'

## 삼성탁구팀 월말 방북

남북정상회담이 끝난후 남북간에 '빙간' 분위기가 완화된다.

삼성 관계자는 12일 "정상회담의 남한 대표단이 이번엔 67명의 북한 방문을 방문, 북원주과 1-2시에 경기로 가기 예정"이라며 "상대단 등 최후적인 사항은 남북 정상회담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대표단 규모는 남과 북

측과 북한에 남자 10명, 여자 9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탁구팀은 남한 각기 2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한 국내 최강 수준이어서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국가대표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북 평화 게임을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에 전경변화 무상기증, 평안남도 여주 행사에 입학"이라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m

# 남북 탁구단일팀 제안

## 국제탁구연맹 "내년 오사카대회때 구성"

국제탁구연맹(ITTF)의 예단 사장과 회장은 12일 내년에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할 것을 남북한 양측에 제안했다고 보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사카리회장은 "내년은 단일팀 구성에 성공한 자비(千禧)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10년째 되는 해"라며 "단일팀의 재구성을 실현시켜 1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며 강연 기대감을 표명했다. 사카리

회장은 ITTF가 오는 7월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미 한 국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일팀 구성의 성사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제정이나 대회 규약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탁구협회는 이날 남북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쿄/연합

# '이산상봉 꼭 해결' 뜨거운 바람

## 해외교민들 한마음 한뜻 성공기원

미국·일본·중국 등 우리 교민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번보다 하루가 늦어지는 듯했지만 무난히 열리게 될 것이라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북측이 고향인 미국 교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천만 이산가족의 상봉이 본격화 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미국 교민들은 11일(현지 시간) 남북정상회담을 반기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왕래도 재림이 고인인 송대경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은 "연세나 개국되어온 적대관계와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내린 데 내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급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희성군 "생애이 허무 연가된 데 대해 워싱턴 교민들 사이에도 많은 수직들이 있었다"면서 "하루 이산에 보는 것이 되리라고 보지 않은 만큼 투명하게 인내를 갖고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기상 교수(미 가톨릭대·정치학)는 "하루 이산 연가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회담을 계속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회담을 격려했다. 이원상 목사

## 민단-조총련계 제일 상공인 대구모 '화합의 골프' 첫 개최 LA교민방송은 '생중계' 계획

(워싱턴 중앙장교교회)는 "정상회담이 발효된 후 매우 예제시간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특별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의 재일동포 상공인들이 남북을 초월,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골프 행사를 열었다. 나라(奈良)현 코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6·13 정상회담 성공기원 재일동포 상공인 골프 행사'에는 재일한국 오사카(大阪)상공회와 조총련계인 일본 조선인 오사카상공회 주최로 약 100명씩 참석, 50개조로 나눠 친선 게임을 가졌다.

조국 분단 이후 재일동포사회는 민단과 조총련계로 나뉘며 그동안 이렇다할 교류가 없었으나 양측의 상공인들이 현지에서 모여 대규모 친선 행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를 준비한 재일한국최신상공장우회 회장(曹甲勳) 회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둬 재일동포들끼리도 분단의 벽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 TV방송인 KTE와 KTAN이 남북정상회담 실행을 위한 생중계한다. 이날 방송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서울공방 출범, 평양 도착, 김정일(金正日) 총애시와의 정상회담 모습 등을 본국의 KBS와 MBC로부터 직접 영상 수신에 비추 눈앞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상당소(소장 송순영)와 연변족연구회(회장 유상준) 등 한인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은 지난 9일 남북정상회담에 보내는 격려문을 제막, "조국 분단 50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민족 통일과 국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회장 조근태)와 6·25 전쟁동지회(회장 김병문) 등 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이산 계속 주는 ▲국가보안법 정개 반대 ▲동포사회내 친북세력 확대지시 등을 배대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sk@kandy.com 로스앤젤레스·도쿄/연합



임진각 취재열기

일본 방송 기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임진각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해방 기대감" 관문점發 보도

### 해외언론들 반응

11일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데 대해 속각을 관망해왔던 외국 정부나 언론들은 12일 임진각 회담이 곧 여파없는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아사히 매거진(朝日新聞) 편집진은 이날 중에 회담에서 "남자국간 대립 완화와 한반도 평화로 하루 연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회담 개최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들은 진문개방의 의미나 관문점(元門) 보도가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번이나 북측을 통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반도 해방에 대한 기대감 높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김대중은 이진과 김장길에 보낸 서한 55만 4천 건을 소개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의 하루 연기도 미루

잠지내(DMZ) 대치상황 및 군사적 동요 상세히 전해면서 최근 북측은 대남 비방방송을 줄이고 대외 화상기법 통해 가요를 대보내는 등 진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서울의 20대 초·하교 교사인 전기병역외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사업들이 대폭로 이뤄질 북한 사업들을 친구로 여기게 됐다고 전했다.

신중한 견해도 있다=AFP통신은 북측 문제에 침묵한 평화가 있을 인방. 북측의 최근 외교적 호화가 경제개혁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불변한 증거는 없다며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 관련 퀴즈도 마련=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 방송,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유럽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퀴즈를 개설, 속보할 전망이라고 있다. 한편 CNN 한국 사이트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퀴즈를 마련, 이형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인표기자 in@kookjeil.com

### 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 CNN선 한국전쟁 퀴즈도

## "헤어진 부부 재회같이 흐뭇 두개의 조국 가슴앓이 해소"

### 연변동포들 반응

중국 연변(延邊)자치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느끼는 감회는 여느 해외 교포들과 다르다. 그동안 남북한 2개의 조국남 놓고 속앓이를 많이 하던 터서 이번 회담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 조선족 동포는 본사외의 국제 전례를 통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하루 빨리 조국이 통일됐으면 하는 것이 연변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선족의 현재가 이혼 부부의 권모 속하라고 할 만 하다"며 "이번 회담은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나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동포들은 정상회담을 반기면서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성국 연변대 민족연구소 교수는 "서로 만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을 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완의 연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내무인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에 남북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경제발전이 보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았다. 이명환 본지 기자는 한 교수는 "남북간의 정상이 바뀌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있다"는 말을 인상하면서도 "북측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 남북간의 정상회담으로 위급 풀어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남북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었다는 설명이다. 홍인표기자

# “어머니, 꿈에만 다녀가시나요”

이산 시인 김규동용 '눈물의 사모곡'



북녘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편지에 옮긴 김규동 시인의 이산가족의 한이 물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규동용 제공

29년전 어느날 시인은 꿈에서 북녘의 어머니를 만났다. 당신과 무릎에 쓰러져 뽀뽀만 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캐실캐실한 손으로 쓰다듬고 보듬었다. 별다른 잡에서 깨어난 시인은 무엇이든 흥명한 어머니 육성을 단숨에 빼내려갔다.

“꿈에 내가 왔더라/스물 세살 때 홀로 떠난 내가/마흔살쯤살 나그네 되어/내가 왔더라/나는 울기만 하더라/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손마디 닿도 없이/어린 애처럼 그자 울기만 하더라/내가 어찌면 그렇게 아파 앓는다/...다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노라고/눈물 어린 두 눈이/그렇게 말하더라 말하더라”(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

52년 동안 고향을 그리며 호연의 삶을 살아온 시인

## 문학 수업길이 생이별 52년 “살아서 기다려 주신다면...” 9권 시집마다 그리움 절절

김규동용(75)은 12일 남북정상회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경기 남양주시 작업실에서 올해 112세가 되었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29년전 어머니가 현경(鮮景)하면서 들려준 육성 편지에 대한 답장이기도 했다. 꿈은 눈물방울이 맺히고 있어 읽기 어렵게 번지면 그 위에 어머니 얼굴이 부풀게 나타난다.

1951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김용은 경성고 보통 졸업하고 연변대 의학부에 진학했다. 골프장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김용은 47년 김일성대학 여론학부 2학년에 편입하면서 시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로부터 1년 후 23살 되던 해 고교 스승이던 김기림

선생에게 시를 배우기 위해 38선급 넘어 서울을 찾았고 중학교 영어교사였던 지내던 50년 6·25 한국전쟁이 나면서 본업과 학생장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따뜻한 반상 한번 차려 드리지 못했으니 인연은 배반하고 하늘은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눈물 감으면 떠오르는 어머니의 눈물짓면 모습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시를 썼다. 고한산천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실망이 북받쳐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들안배를 고향다. 육적 북녘의 가족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생사확인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밀려드는 고통을 더이상 참아낼 수 없을 때는 북반구 어머니의 명칭만 사전을 가슴에 품고 남산으로 올라가 소주를 병병로 들이켠 채 잠이 들기도 했다.

김용이 70·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중 헌신서 모진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길 조국’에서 어머니를 기릴 수 만나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쓰인 9권 시집과 600여편의 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통일조국과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그는 3년전부터 은봉암·김기림·이상화·임화 선생의 시를 소나무 밑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시인은 “백두산과 현라산의 삼유담 다 팔아버릴 때까지 시를 쓰겠다”며 “통일 조국에서 내무관 시(29)진지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48년 ‘예술조선’을 통해 등단한 그는 55년 첫 시집 ‘나비와 관창’을 출간했으며 이후 ‘현대의 신화’ ‘같은 달에도’ ‘개똥한 희망’ 등의 시집을 잇따라 펴냈다. 자유문학상을 받았으며 현미축제출판 총연재, 민족문학작가회의 고연 등을 지냈다.

정유미기자 yuemi@kukminilbo.com

### 북녘 어머님 앞에

어머니, 제 글입니다. 어머니 큰 아들 김규동용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52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받으소서 나의 어머니 김옥갑(金玉甲)입니다.

23살때 당신 곁을 떠난 날, 눈이 이렇게 붉은 동구밖 다리까지 나와 한 차마를 걸어올라 눈물을 닦으시던 나의 어머니, 그 때 어머니는 말하셨어요. “나는 품도 약한데 3년을 격지 나가 공부하길노라지만 아야 죽을 켜다, 배고다 죽을 켜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 흔으셨지요.

그런데 여섯째 죽지 않고 살아서 어머니 앞에 이 글을 올립니다. 벽세를 활인 넘기신 어머니가 어찌 아직 생존해 있겠느냐구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선가 제 말에서부터 품소리가 들립니다. 남북계계가 이제는 서로 만나 함께 살게 된다는 그 희망의 종소리, 아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곁으로 이 아들이 갑니다. 평생을 일만 하면서 옥수수대같이 가는 어머니를 알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만세를 부르겠어요. “3천리 강토 만세!” “7천만여 하나만 이 위대한 남만세!” 아! 그리고 “나의 어머니 만세 만만세!” 이렇게 목이 터져도 토할 때까지 만세 부르겠습니다.

남녘에서 제일 높은산 본과 북녘에서 가장 높은산 두 분,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님이 평양에서 손 마주잡고 회담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꺾음이다. 그러나 형제같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믿으며 고후 잘 사는 길을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두 분 사이에서 나누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이다, 물결이 흘러가이다. 고향은 어느만큼이나 변했으며 두 누님과 아우는 다 잘 있는지요. 7천만 겨레가 손잡고 공리는 저 빛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들이 보여주고 있나이다, 저 눈에는 오늘 그것이 보입니다.

현경음복 현경음복 남북관공이 현경어리가 되는 위대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통일의 새벽날 저는 재갈 먼저 깨어난 불로 함과 다음을 뜻고 당신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골이간아 주셔요, 안아주셔요, 이 불츠자식들, 날아 카릭 존 어미를 버리고 남북한을 이해서 멋대로 돌아버린 한들 아래 물도 없을 불요한 이질들, 오! 나의 어머니시여,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인합니다.

# 반세기 분단을 넘는다...

## ‘서울-평양’의 역사적 만남

# 남북 오늘 정상회담

### 김대통령 방북... 김위원장과 민족 공동번영 논의

#### 이산·경협등 의제로... 김대통령 “할말 다하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산가족 상봉, 경협 확대 방안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

김대통령은 이희호(李姬嬪)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서울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13일까지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김대통령은 평양 체류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과 2회 이상의 단독 정상회담과 최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순안공항에 도착한 후 상영을 통해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을 찾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앞서 서울공항에서 이만삼(李萬宰)국회의장, 최종영(崔鍾榮)대법원장, 이현동(李顯東)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국무위원, 이산가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발행사를 갖는다.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쳐 남과 북이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朴俊榮)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김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지금까지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 긴장속에 대립하며 살아온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번영과 통일의 먼 길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 평양 표정·브리핑 채널   | 2면  |
| 김대통령 마무리 구상    | 3면  |
| 서울출발서 평양도착까지   | 4면  |
| 정부·프레스센터 최종준비  | 5면  |
| 임진각·오두산 전망대 표정 | 26면 |
| 이산가족동 전국 스케치   | 27면 |
| ‘회담’이후 한국교회 방향 | 29면 |

박대변인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첫째,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며 둘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셋째,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기자 jhkum@kmb.co.kr

### ▶ ‘남북회담’ 1면서 계속

김대통령 내외는 평양체류기간 중 문화유적지와 문화공연 등을 관람하고 오·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김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공항에서 이륙할 때까지와 순안공항 도착 행사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된다.

한편 김대통령의 방북에는 이현재 재경경제, 박재규 통일, 박지원 문화관광장관과 한광욱 청와대비서실장, 이기호 경제수석, 황원택 외교안보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등 공식수행원 및 경호요원과 특별수행원 등 130명이 동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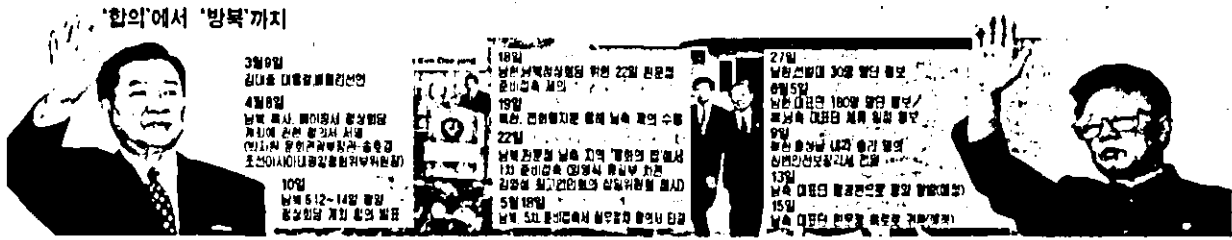
신문·통신·방송사 취재기자 및 통계요원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50명도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한다.



미리보는 역사의 순간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1시간의 비행 끝에 평양에 도착 남북겨레의 기원속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55년 분단의 벽을 허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촬영된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 24시간 특별근무 돌입... 핫라인등 점검



## 訪北 하루전 각부처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와 각부처 1층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별가에 있는 농안 담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휘하고 대자재야 할 페이스 캠프로서 어떤 눈앞 변수에도 중심을 지키야만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관외방문 하루전인 12일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세기획수석실내 기획조정비서관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신직장근은 김대중 대통령이 귀하는 15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하며 수석비서관실별로 남작자가 전화로 근무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기간내 내 청와대는 밤새 불을 키고 있게 된다.

종합상황실의 주임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기간 국내 상황을 전방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대표단과의 핫라인도 24시간 열려 있어 평양에 체류중인 김대중에게 긴급하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지시받게 된다.

한광옥(韓光玉)비서관장이 김대중 대통령 수석에게 따라 김성재(金聖在)기획기외수석이 비서관장 대행으로서 청와대내 총지휘하게 되어 종합상황실장은 고재범 기획조정비서관이 맡는다.

반종영(韓鍾榮)대변인은 "북한이 그간 심의와 주의깊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남북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해서 비정례 대입 떠나게 될 것을 전 세계가 생각된다"고 박측에 감사를 표했다.

△총괄부-차별한 분위기 속에 준비작업은 최종 점검했다. 정상회담수석비서관이 박재규(朴在圭)비서관 장관은 오전 서울 조광동 롯데호텔 3층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 회견실에서 대외 기자들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임정리(林正利)비서관 차관 등 관

계지들과 회담기간 동안 프레스센터 운영 분제 등을 논의했다.

박정관은 "그동안 각종 정상회담 준비로 바빴던 시간을 보내왔다"며 "하루간의 워킹 타임으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점검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차게 무뎠 수 있게 됐다"고 여유있는 표정을 지었다.

반면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4층과 5층에 위치한 통일부 각 부서 사무실은 오히려 평안한 분위기. 대표단에 포함된 일부 직원들은 13일 평양행길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또 상당수는 삼정동 남북대화사무국에 마련된 서울 상황실과 프레스센터에 배정됐다.

서울 상황실은 평양에 체류중인 한반도와 직통전화로 평안 순안경향 상태 등 계속 준비상황을 체크하면서 민익의 사내에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유지했다.

△방북대표단 특별수행원-새계와 민간 인사들은 차분한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기다렸다.

구분부 LG회장은 12일 LG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점검하는 등 긴장적인 업무에 몰두했다. 또 손길승 SK회장, 윤종봉 삼성

## 청와대 돌발상황 대비 칠야대기 긴장 통일부 일정 하루 순연되자 되레 여유 수협원 LG·SK회장등 업무보며 소일

전자 부회장도 남초 여직에는 없던 사내 사업 보고 등들을 받으며 평소보다는 다소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이원호 중소기업진흥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방북에서 남북작업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하 민주평통수석부회장은 "정상회담은 김대중령이 오랫동안 지도이념으로 다짐어는 통일철학의 결실체이자 포용정체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으며 민회협 상임 의장인 김만길 고려대 교수도 "회담은 남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구도로 돌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남 대한직업지사 사무총장은 "고향이 남북 의주라서 이산의 아픔을 잘 안다"면서 "의제가 확장되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축곡협회장 정몽주 의원측은 유림박 숙구단원일이다 오는 10일 재미에서 열리는 어시안컵 남양주 구경도 생각 중이며 북한 체육계인사와 접촉이 가능하면 남한대표단과 친선경기 등을 논의해 볼 계획이다.

김진홍-정진영-정수아-김재중-강영수기자



생중계 준비 TV 서울 롯데호텔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일본 후지TV가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인물 나란히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여름기자

## 무궁화위성서 SNG영상 수신 지구국-방송사-안방 '릴레이'

### 北시설 이용편 '편집' 가능성 생중계 어떻게 하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도착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장면은 어떤 길로써 거쳐 우리 안방에 전달될까. 한반도의 영상신호 시용속출 결과로 미뤄볼 때 두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첫째, 우리측 위성생중계장치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반도가 반양해 평양에 설치한 SNG 2대를 이용, 영상신호를 포아올리면 우리 무궁화위성이 이방방에 서울생중계위성지구국에 보내주게 된다. 이는 다시 한국통신 권회동 ITC(International TV Center)를 거쳐

각 방송사에 전달된다.

둘째, 북한측 TV중계시설을 이용, 평양 위성지구국에서 영상신호를 인도양 상공의 인텔샷(International Satellite)에 포아올리면 우리 금산지구국에서 이방방이 각 방송사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북한의 합력TV 방송인 PBI(백식에서) 무리측 NTSC방식으로 편역시켜주는 컨버터(전환기)가 필요하다.

우리측은 역사적인 장면의 생생한 전달을 위해 SNG방식을 주장하고 북측은 인텔샷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G방식은 촬영시 동시에 영상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편역이 어려운 반면 인텔샷 방식은 북한측 중계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측이 중간 편역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중기자



김대통령의 2000.6.13



청와대 출발

서울공항 승국인사

국회입법당국인공회동차

남북정상회담

# 북녘땅 첫발 '南北 함께 잘살자'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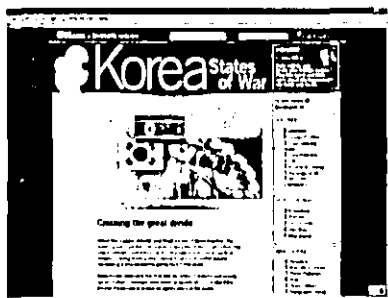
평양서 첫날밤 맞이까지의 김대통령 여정  
서울공항 도착 조출한 출발행사  
평양속소서 오찬후 첫 정상회담  
이여사는 별도일정따라 움직여  
인민문화궁전 환영만찬에 참석  
순안공항 도착까지 전국 생중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남북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념 갈등 없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대담했다.

방식 뒤인 김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부인인 이희호(李希好)여사와의 식사를 하고 본관으로 가 수석비서관들의 인사말 받은 뒤 이희호의 배웅 속에 승용차에 오른다. 남측 김홍일(金弘一)의원등 비롯한 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할 예정이었다가 공화에서 이희호의 인사말 받기로 했다. 이어 본관 앞부터 청와대 정문 앞에서 걸어갈 차와 대 비키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김대통령은 청와대 일출시동 차량에서 잠시 차를 멈춰 비추는 차량을 청와대 일출 주변과와 약속하며 인사말 나누어준다.

김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 이만희(李萬熙) 국회의장, 최소영(崔素英)대법원장, 이현동(李顯東)총리서리 등 3부 요인과 국무위원, 일반 시민들이 김석한 가운데 조촐한 출발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북녘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청문을 통해 김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남과 북 우리 민족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여의 비행 끝에 김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통령은 도착 청문을 통해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되고 행복하



CNN의 특별사이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다룬데 이어 미국 CNN방송 홈페이지에 12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사이트가 개설된다.

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호소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도착 행사를 마치고 북측이 제공한 승용차와 이희호 1차에 달하는 순안~평양간 고속도로를 함께 벽화원대로 소로 추정되는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공식 수석비서관 회담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단독회담을 갖는다. 장소는 벽화원호텔소나나 만수대의사당이 거론된다.

이희호(李希好)여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정상회담 이후 김대통령 내외와 남측 대표단 장원을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 주최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김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나서면서부터 서울공항 출발 때까지 그리고 김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 장면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된다.

청와대측은 "가족·지우주변·서울시민·국민"으로 이어지는 집권적인 동선과 함께 김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것은 조망해볼 것도 의미 있는 방북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jhkim@kmb.co.kr

## "北지도자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자"

기독교의원들 '춧불에매' 이모저모

여이 기독교의원 2명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춧불에매' 갖고 장미꽃 초롱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의 소원"을 부르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박종화 목사는 설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헌신도 동일의 새 언약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평양의 첫 김일성이 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100명의 여이 기독교의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 의원들은 2m짜리 대형 찬반도 지도에 찬양이 촛불을 점화했다. 국회조찬기도회장 김경진 의원은 평안, 부회장 박명환 의원은 개성, 안대환 의원은 함흥에 각각 촛불을 붙였으며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에서 속해 있는 북도에 촛불을 점화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한의 크리스천들은 그동안 국내 정치지도자들에 위해서 기도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과 체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 정권담당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강조하자 김대가 숙연했다.

이런데 이찬주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찬반도 평화로 바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기원된 진화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일 내에 통일된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이날 정상회담 성공 기원 촛불에매가 강동적으로 진행되지 앞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불일련 연애는 촛불에 매로 드린 것을 제안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15일 오후 3시 안간에서 한국교회 대표들이 모여 한차례 촛불에매를 가집 것을 약속에서 결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촛불에매를 드린 이유를 묻는 로이더장진 기자의 질문에 대해 "춧불에는 자기 몸을 희생하며 주위를 밝히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남과 북의 모든 동포가 불입을 위해 서로 화해하지는 못해서 촛불에매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참조 이날 예배는 여이 기독교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회의실에서 조촐하게 치러 예정이었으나 예상 외로 많은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즉석에서 정소를 대외적으로 비웠다.

이태형기자 ihlee@kmb.co.kr

## 北 '회담순연' 왜 보도안하나

김정일 動線 노출우려 침묵... 北주민 '동요' 예방 시각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순연시절을 전 해 보도하지 않고 있어 평양을 떠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중앙국제비밀방송은 12일 저녁 보도에서 허케드 일에서 또 시리아 내전의 사망 소식과 김기영 노동당 공비자가 라식아 국공립을 맞아 12일타이보 후니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 시정을 중성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한 순간 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북측이 지난 12일13일 정상회담 순연발표에서부터 공개적으로 회담이 비

교적 강하게 보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적이다.

회담연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보안상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 북측은 그동안 남한 언론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대 판사의 재유일정파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동선(動線)이 노출된다며 우려 속에 여러차례 최면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에게 남측대표단

의 방문일정이 하루 순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대한 안락이불 깨뜨리는 방편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회담준비 분위기를 흐뜨러뜨리지 않기 위한 것 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관광객을 받지 않고 평안 시대엔 새로 단장하는 농 간경감 속 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 연기시장이 발표된 경우 주민들의 동요가 예상되고 더욱이 연가 사유가 우리측 발표대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북측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기에 부처정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홍기자 jhkim@kmb.co.kr

# 두정상 악수? 포옹?

## 김정일위원장 회담장입구서 먼저 반갑게 인사 김대통령 '1시간거리 반세기 걸렸다' 화답할듯



### 미리보는 '의미'있는 첫인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첫 만남은 13일 오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 같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직접 순안비행장까지 나오는 문제는 김대중에게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외국과의 정상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수인사인 김위원장이 회담장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김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허식의 첫 상봉이 낄 것이 확실하다. 세계인의 관심은 두사람이 무슨 말로 첫인사를 나누는 것이냐는 점이다.

김대통령은 외국정상과 만날 때 항상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의례적인 말로 첫인사를 붙인다. 의미있는 인사말은 자리

에 앉아서 하는 것이 김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공개하는 회담 '오프닝'을 신 채로 끝내는 게 북한측과의 관례여서 사정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면서 많은 인사말을 교환할 수가 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악수할 허브사 어떤 말을 건넨 것인가에 대해 청와대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권역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말은 김위원장이 먼저 건넨 것으로 예상된다. '어서 오십시오' 혹은 '먼길에 고생했었습니다'라고 인사할 허브 김대통령이 참으로 반갑다는 뜻의 화답을 할 것 같다. 이 부분에서 김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가 관심인데 '1시간 거리를 오는데 무려 반세기나 걸렸습니다' 등의 의미있는 멘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김위원장은 이를 받아 '북조선 인민들이 대통령 각하의 평안방문을 환영해 환영하고 있다'는 종류의 환영 인사말 할 수도 있다.

두사람은 첫 만남에서 악수에 이어 포옹하는 포즈를 취할 수가 있다. 김위원장이 포옹을 원할 경우 김대통령도 이를 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간단한 인사말 끝낸 뒤 지리에 앉아서도 두사람은 환담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성기훈기자 kcsung@kmb.co.kr

# '나는 청와대'를 호위하라

## 南北공군기 NLL서 임무교대

### 김대통령 '하늘길' 여는날

#### 공군1호기 역사적 越境비행 남북관제소도 '안전' 교신 기자단 특별기로 먼저 출발

김대중 대통령의 평안행에는 비행기 2대가 동원된다. 김대통령과 공직 수행원 등은 대통령 전용기인 특별수행원 및 일반수행원 기자단은 아시아나항공의 특별기종 각기 이용하게 된다.

2대의 비행기는 모두 서울공항을 이륙, 곧바로 관북관제소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서울공항에서 서해상공으로 넘어가 다시 북쪽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포 항공기 기지 평안 순안비행장에 착륙하는 '다'지선 비행을 하게 된다. 비행기에는 70여명, 비행시간은 1시간 정도로 각각 추정된다.

김대통령 전용기는 서해공항 이륙직후부터 두라 공군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비행하게 된다. 북방한계선을 넘으면서는 곧바

로 북한 공군기의 호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가 북방한계선에 근접하게 되면 우리측 대공관제소와 북한의 평안관제소는 서로 교신을 통해 전용기의 원만한 월경(越境)을 돕게 된다. 또 북한은 정상회담 기간을 전후해 전용기 및 특별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평안 순안공항의 기상상황과 예보발행상황 교정통신방을 이용, 김대통령 전용기로 보내기로 돼 있으며 이미 11일부터 기상정보가 오고 있다.

김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전용기에 고성능 통신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만에 하나 갑작한 상황 발생시 공중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의 특별기는 대통령 전용기보다 20~30분 일찍 이륙해 김대통령을 거쳐 북한에 먼저 도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은 영국 국기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남북 합의에 따라 항공기 표기된 개 부분의 태극기만 지우고 운항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현수기자 hschol@kmb.co.kr

# 반세기 분단을 넘는다... '서울-평양'의 역사적 만남

## 경호·안전에 각별히 신경 “귀한손님 온다” 도시 새단장

외신이 전하는 평양 표정  
중학생 고적대 연습 분주  
남북화해 상징 화보발간도  
주민들, 차분함속 큰기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의 평양은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날씨 속에 온 도시가 녹음에 싸인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오후 평양 현지발로 보도했다.

다음은 신화통신이 전한 정상회담 진여의 평양 현지 표정이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민족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 중대 문제들을 협의한다. 한반도가 분열된 지 반세기 만의 첫 정상회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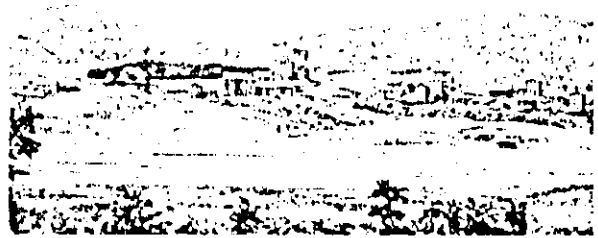
평양은 한반도의 유명한 고도이다. 시기 427년 고구려가 이곳에 수도를 정한 후 이미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평양은 중후한 역사적 유물과 새로운

현대적 분위기를 혼연인체가 돼 ‘화원의 도시’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전세계가 평양을 주목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왕래가 드물었던 한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선측은 5월말부터 각종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측과 평양을 방문한 한국측은 치밀한 협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체류시 머무는 숙소와 교통노선, 관광 장소 등을 결정했다.

역사적인 회담의 안전과 경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 조선측은 각종 안전조치들을 취했으며 한국측에 한국대표단의 신분 안전을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손에 잡힐듯한 북녘 개성직할시 관문인 임허리에 위치한 북한의 ‘선전마을’이 눈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고 있다.

보장하는 비망복도 진단했다.

평양시 각계 각층은 최근 대대적으로 환경 정리에 나서 시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김대통령이 도착할 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김.개성~평양 고속도로도 이미 깨끗이 개보수했으며 김가의 기드레일들도 새 페인트로 신뜻하게 단장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평양의 조용한 분위기에 최근 몇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더해졌다. 거리의 여자 교통 경찰관들이 하얀 색의 여름 복장으로 갈아 입었으며 금수산기념궁에서 밀치 않은 곳에 위치한 고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는 영생탑 아래에서는 중학생들로 구

심한 고적대가 손님 맞이 음악들을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다.

또 평양체육관 등 수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바쁜 모습으로 단체체조를 연습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조선화보’는 남북한의 화해를 상징하는 한편의 그림을 게재했다. 이 작품에서 한 조선 소년과 한국 소녀는 각자 손으로 주진자를 잡고 있었다. 그림은 백두산 천지의 철과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한반도 인민들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심원히하는 감원한 열망을 은유하고 있었다. 또 그들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베이징=

## 고려호텔 1차발표후 별도 설명 혼선 피하기 위해 梁차관 전담

### 브리핑 어떻게 하나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는 13일부터 하루 두번씩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불분 수시 브리핑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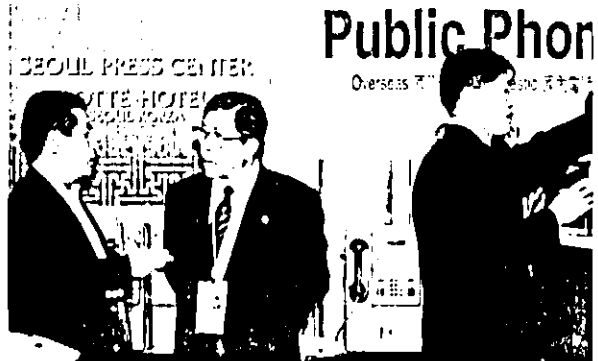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 및 김 대통령 의 북한내 동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평양 고려호텔에 설치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수행기자들에게 1차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번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내외신기자들에게 별도

의 설명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 총책임자는 양영식 통일부차관이다. 정상회담 준비진척 때 남측 수석대표를 받아 남북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차관이 기본 브리핑을 전담하게 된다. 김 대통령을 수행하는 박준현 청와대 대변인과 발표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도 양차관 몫이다. 양차관은 프레스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롯데호텔에 24시간 상주할 예정이다.

양차관은 영남용 재경, 반기문 외교, 김순규 문광차관 등 새명의 차관으로부터 브리핑 보조를 받게 된다. 정상회담에서 경제·외교·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여용기자

회관관 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관이 양차관과 함께 나와 모순 설명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브리핑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내 사

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남극자도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모든 발표는 한국어로 하되 외신기자들을 위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기철기자 kcsung@kmb.co.kr

이 의 나 루

야당의 남북정상회담 고민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김강산 온정리에서 이산가족 50쌍의 상봉이 추진되고 있다”.

인듯 듣기에도 놀라운 소식이다. 사실이라면 지난 85년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고향방문 이후 북한평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상봉인 셈이다. 마치 정부 당국자가 공개한 말처럼 놀란다. 하지만 발언의 주인공은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그는 12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신빙성은 지켜두더라도 야당 대변인이 왜 이같은 얘기를 한 것일까. 이는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복잡한 심리와 연관이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도 물론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이구동성이다. 비록 대한민국 경제성 훼손 학과의 상호주의 원칙 교수들 전제조건을 지키는 했지만 이총재는 여러 차례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져오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당으로서

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정상회담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다. 권대변인의 이산가족 상봉 발언도 맥을 같이한다. 권대변인은 “온정리에서 50쌍이 만나고 이후 관문집에서 만나고 서울·평양을 오가며 또 만난다면 정국은 온통 어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집권측은 이같은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드러난 이총재의 노기도 이같은 야당내 기류를 집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총재는 김창희 원내총무로부터 민주당이 당초 1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16일로 연기하자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고 “입법부인 국회 일정을 대통령이 북한 간다고 해서 연기할 수 있는가”며 버럭 화를 냈다. 이어 “언론 지면이 온통 정상회담 기사로만 채워져 있고 국민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돼 있지만 우리 당은 개의치 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내심 한나라당은 이담말쯤 실시법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국내 정치 현안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신은 못하겠다는 눈치다. 권대변인의 추정대로 온정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굵직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남과 북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경우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잠깐 삼신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민수기자 mshan@kmb.co.kr

“남북문제는 자주 왕래하면 해결될 것”

올해로 100세 생일맞은 황해도 출신 최태영 翁

한 세기를 살아온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 최태영(崔泰永·100·진 서울법대 학장)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르다.

황해도 은율군(현 장천군) 출신으로, 지난 3월 100번째 생일을 맞은 최씨는 “떠난 지 오래지만 고향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나를 알아볼 사람 하나 없어도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민족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상회담에서 신히만 정시를 이해하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로운 서신 왕래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또 “남북 문제는 자주 왕래하는 것 만큼 현실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관북 이후 최초의 법학 교수로, 대한민국 관련 법률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6·25 직후 북한군

에 잡혀 동대문 경찰서로 끌려갔지만 탈출했다. 이후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반쪽사탕 복원하기 위해 상고사 연구에 뛰어들었다.

1908년 인천대 한국역사 강의팀 마지막 교단에서 은퇴했다. 지금은 인천 중구 유곡동 주택을 찾아오는 제자들과 지난 세월을 반추(反溯)하고 있다.

/글=鄭禹善기자 bschung@chosun.com

/사진=鄭漢植기자 hschung@chosun.com

## 미디어 읽기

### 남북교류시대의 언론 보도

김정일남 준비에서 남북한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갖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던 부분이 바로 취재 및 보도 부분이다. 실무협약에서 취재활동에 대해 남북한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남측 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뿌리깊은 불신감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막판까지 걸림돌이 되었던 기자단 규모와 관련해 북한은 "남측 언론이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는 사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내측 감축을 주장해 결국 50명으로 합의되었다. 이처럼 정상회담 실무협약의 핵심쟁점이 취재진 문제였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언론보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은 민주화해와 평화공존에 이바

각해 할 수 있다.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난과 대량살상무기일 것이다. 과연 이 두 가지에 대한 보도가 전체 북한에 대한 개관성을 주정할 수 있을까. 기아와 관련해 몇개비 보도, 인국을 먹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부분별하게 보도되었다. 북한관련 보도는 가난하고 열등하고, 호전적인 부정 인연도의 북한이미지를 전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언론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선에서는 갑자기 태도변 바꾸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보도를 비롯하면 내 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어떤 것이 북한의 모습인지 담담스런고, 혼란스



이 우 승

## 주변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민족화합이란 큰 목표위해 노력해야

지해야 하고 객관적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민족화해와 객관성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은 사안에 따라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야기한다. 객관성은 개별 보도내용의 객관성, 그리고 북한 관련 전체 보도상의 객관성, 즉 보도가 형성하는 북한이미지의 객관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개별 보도내용상의 객관성은 정보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가 정확할지라도 남북한의 단순비교를 통해 남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비하시킬 때 민족화합 정신과 충돌하게 된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보도에서 요구되는 객관성은 일반 사건보도에서 사상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의 객관성보다는 한사위 높은 건설적인 객관성, 즉 상호이해와 남북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새로운 의미의 객관성이 감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관련 전체 보도상의 객관성, 즉 언론이 형성하는 북한이미지의 객관성과 민족화합 원칙을 연결시켜 생

리유 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관련 보도 전체 내용상의 객관성은 다양한 북한 이미지를 제공할 때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이 상대방을 정직한 경 변화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리한 이해와 인정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을 조명해야 하고 이것이 보도의 객관성을 담 이낼 것이며 나아가 민족화합에 기여 할 것이다.

13일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언론에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거나 비교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데 있지 않고 민족화해를 위한 언론보도는 무엇인가 성찰해 보는 일이다.

이제 언론은 소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남북화해 시대답 여는대 겸양함이 무엇인지 거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존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문화진흥회원 책임연구원

# 國民日報

2000. 6. 13 (화)

## 남북교류대비 도로망 확충

경기도, 자유의 다리~판문점간 왕복4차로 등

경기도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국도 1호선 자유의 다리와 판문점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등 집 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계획을 최근 통일부에 건의했으며,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우선 남북간 국도연결을 위해

1번 국도 자유의 다리~판문점 구간(6.4km)을 4차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3번 국도 신탈리~월정리(10.7km) 구간과 43번 국도 철원~금화읍(8km) 구간도 각각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끝 지점인 일산에서부터 퇴계원까지 36.3km를 연장하고, 서울~문신간(53km), 퇴계원~연천간(50km), 양평~포천간(9.1km)에 8차로를 각각 신설할 예정이다. 수원=김도영기자

doyoung@kmb.co.kr

현대 **대북사업 '주도권 다툼'** 삼성

현대, 계열분리·자금난으로 주춤하자  
삼성, 전자단지 조성등 실속·틈새전략

현대와 삼성이 대북사업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다. 그동안 현대는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대북사업을 주도해 왔으나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삼성이 대규모 전자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뺏겨갈 행보가 보이고 있는 것.

현대와 삼성은 진회장이 대북사업에 관여키로 한 만큼 주도권 위사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에 1억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2000년까지 3억60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2000만평 규모의 사해인공탄 외에 간양 동천과 고성지대에 각각 3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와 영동단지 조성도 추진중이라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객 수송을 위한 철도는 물론 시베리아 철도 건설도 염두에 두고, 남한에서 현직사

키는 사업도 구성중이다.

그러나 세계 일각에서는 말쑥하게 돌아가고 있는 삼성에 비해 현대의 대북사업이 최근 저조한 이후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장주영 진범에 회장과 정몽헌 진회장의 경영 퇴진으로 그들이 계열사업 독립체로 가면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은 이 틈을 노려 넘치는 자금만 삼켰던 대북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뺏겨나가기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투자보장조건 등의 진전도에 따라 투자단계와 수익률 조성이 함께 진행되는 등 차명하게 계산한 투자전략이라는 방침이다.

삼성은 우선 육포를 이용한 허두에 분유업종이 가능하도록 해수나 개성, 또는 남포 지역에 50만평 규모의 전자공단을 조성, 10년 동안 5억~10억달러 정도만 투자하면 연간 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방침을 그치고 있다.

이런 정상회담에 삼성전자 유통부 부회장이 수행하는 것도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은 아예 앞서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함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체'를 출범시켰다.

삼성 관계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최근 중국을 방문할 때 정보통신업체가 맡길 한중관중(中關)을 둘러싼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가 갖고 있던 남북협력의 주도권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정진평에 회장과 삼성 이견의 회담 중에 누가 먼저 발목을 잡힐지도 관심거리다. 두 사람은 모두 정상회담 이후 방향을 계획중인 데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종과 세명사입금 등이 이뤄질 경우 두 기업의 대북사업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홍수기자

“투자위험 최소화” 공동진출 모색을

대기업-공단조성, 중소기업-설비투자 시너지 극대화  
섬유·신발등 유망업종부터 단계적 확대 바람직



■ 전문가들이 본 對北 경험

경제전망개선은 남북경제의 원상회복을 위해 초가 투자자로서는 30억은 기업간 2000년 3월 회담이후에 비로써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해관영영외장(장영)장 회담에서 남북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비추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개편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밝히고,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 제도, 변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개편 전략 및 대북투자제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공동진출이 투자위험 줄여려  
정진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대북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있는 대북사업은 생태계 조성으로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요 노동집약 산업의 대북진출 전략

| 업종 | 교역요소                                    | 유망분야   |
|----|---|--|
| 섬유 | - 의복가공 장산업의 경쟁력 제고<br>- 용제기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 | - 면복, 모의, 인조 등 남용의 싼비용이 인건<br>- 편직, 세직 분야로 투자 확대 |
|    | - 단순 임금구조를 워터가공으로 전환                    | - 가공업체와의 협력, 해외 수출 확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 동남           |
| 신발 | - 패션제품 부이에서 우선 협력                       | - TV, 오디오, 냉장고 등 가전제품                            |
|    | - 동북지역으로 북중국 진출                         | - 합제 가죽제품, 안경, 패션잡화                              |
| 조선 | - 건조는 남한, 수급은 북측에 의존                    | - 선박제조부터 우선 추진<br>- 선박수리 및 개조부품우려 확대             |

리제 사업 추진에 가장 불안정한 경제전망에 직면해 있다. 대북사업에 대한 비호적인 태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있는 대북사업은 생태계 조성으로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으로 확대할 것이 바람직하다. ★표집조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 투자에 나  
서야-대북 사업은 투자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업은 미국의 대북경제개편 완화 수준에 맞춰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업체를 확대할 것이 기대.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있는 대북사업은 생태계 조성으로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대에, 자동차, 농기계등을 제조업 분야의 투자에 특화된 제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달라...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남북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과 협력사업(SOC) 지원과 투자유치,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협력사업(SOC) 지원과 투자유치,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있는 대북사업은 생태계 조성으로  
정진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북사업에 진출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세기反目的의 역사... 응어리진 이산의恨...

# “이젠 끝내자” 한민족 대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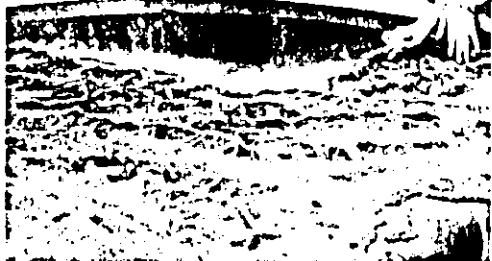
## 기대와 주문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번 회담이 평화통일의 초석이 돼 그동안 쌓인 민족의 한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 최시원 김양수씨(29·서울 강천동)는 “공주리고 있는 북한 농부

역사를 만드는 자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해병 체육생 회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 통일운동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북한 학생들과 자유롭게 만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고향과 가족을 둔 심정민과 탁복자씨는 “꿈만 같다”며 허탈하게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했다. 심정민 1세대인 이창민씨(65)는 “심정민 1세대들은 반세기가 넘게 복讎하느라 바리바리 새장을 띠고 있다”며 “최소한 가족들의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화합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가 내 고향” 이북 출신 심정민들이 12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에서 북한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을 가리키고 있다. 최홍익기자

## 평화통일 초석 마련 큰걸음돼야 실향민들 ‘혈육상봉’ 마지막 소망

들과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민세가 넘게 쌓여온 민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남북정상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송민 사무차장은 “그동안 반세기가 넘게 계속된 집시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해 온기가 왔다”며 “김정화회담을 전례화하는 등 남북이 자주 만나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단순한 외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의

서와 북한을 만나는 길에 거주하는 비전향 장기수인 김석형씨(87)도 “당연히 유 것이 있는데도 가슴이 아프다”며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속초시 칠곡동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은 들은 마음으로 아산가족 상봉 등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12일 오전 청호동 노인장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0여명의 실향 1세대 노인들이 모여 “이번 반쯤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고향방에 돌아가고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만난 기대감으로 반쯤을 실한다”며 이번 회담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습이었다.

북한 해주시의 장안군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사는 인천시 동진군 백령면 주민들도 이날 고향 알바다인 장산곶을 바라보며 남북정상

회담이 성립을 맺길 기원했다. 백령면 북포리에서 잠비식남을 운영 하는 장관식씨(73)는 “실향민들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죽기 전에 고향방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며 있다”며 “백령면이 예전에는 황해도 잠연군이었다”고 회고했다. 사회부 전국부

## “經協이 우선” 34% “이산상봉이 우선” 23%

### 남북정상회담 과제 관련 서울대생 통일외교조사

서울대생들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이산가족이나 평화통일보다는 경제교류협력 참여 인도적 문제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을 꼽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내 시사결정지인 ‘우리세대’가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서울대생 2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9%가 남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2.4%인 반면 78%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란 성과는

“만남 자체에 의미” 78%  
“상당한 성과 기대” 12%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5.7%나 나왔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39%가 ‘남북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이산가족상봉(5%), 평화 정착(10.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상봉(22.5%)이나 군비축소(17.2%)보다는 남북경제협력(31.4%)을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정보포기 사업이나 통일운동에 대해 10.7%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85.4%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해 통일운동에 대해 그리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수기자 nomad@kimb.co.kr

# “온 겨레 평화·행복 길 찾자”

## 金대통령 오늘 訪北…남북정상 첫 對坐

### 두차례 이상 정상회담…經協등 4개항 집중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당초 워싱턴보다 하루 늦은 13일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남북 화해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李姬鎭)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 1시간여 동안 비행한 뒤 1시간후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2시간의 동안의 방북 임장을 시작한다.

김 대통령은 방북 첫날 오후 김 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평화정책 방안을 핵심대화하게 논의, 1차로 남북 양측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두 정상간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 도착 즉시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 왔다'는 취지의 상봉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박준영(朴俊榮) 청와대대변인이 12일 전했다.

김 대통령은 체류기간 동안 김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이상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 남북 당국자간 대화, 철도·도로·항만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안 등 배럴선언 4개 항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측에 투자보장

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경험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일관된 북한 해문제와 미사일 문제, 북·미, 북·일관계개선에 대한 남측의 입장과 지원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과 이 여사는 아울러 과거 고려시대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시설과 북측의 공연을 관람하고 북한 주민들의 표정과 현지 분위기도 살핌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출발성명을 발표, "북측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통령의 본관 출발 및 공항 출발행사, 평양 도착행사 등은 국내 TV로 생중계된다. 이번 방북에는 이현재(李憲宰)재경·박재규(朴在圭)통일, 박지원(朴智元)문화장관과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 이기호(李起浩)경제·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박준영(朴俊榮)공보수석 등 공직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등 대표단 130명이 동행한다. 또 신문·방송사의 취재기자 및 중계요원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50명도 함께 방북, 취재활동을 벌인다.

●양승현기자 yangbek@kdaily.com



평양회담 구상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 화해·협력 염원안고 평양으로

“조용하고 의미있게” 출발전날 담담히 마음정리  
서울공항서 “서로 더 이해 노력” 출발성명 예정

## 남북 정상회담



### 김대통령 북북길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오전 55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 방문길에 올라 남북 화해·협력의 첫발을 내디딘다. 13일부터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전수도 해체를 통한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게 된다.

●**평화 도착** 김 대통령은 평양으로 대략 1시간 가량 비행 끝에 북한 순안비행장에 내리 강기적인 도착성명을 발표한다. 본란 이후 남북간 첫 직항로가 열리는 셈이다. 김 대통령은 도착성명을 통해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평화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북측 지도자들과 온 민족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북측은 순안공항에 김용순(金容淳) 이대령과의 위원장을 보내 김 대통령을 영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안회담은 평성에서 개최된 김 대통령은 속도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수행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김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강안회담은 평성에서 개최된 김 대통령은 속도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수행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김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서울 출발**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의 평화 행방’이 기본 구상이다. 먼저 13일 아침은 관저에서 김용일(金泓一) 의원등 두 아들이 내외의 배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본관 집무실에 도착, 간단한 상봉직행사를 갖고 수석비서관들의 인사말 받은 뒤 승용차에 올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도 열린 비서관 및 직원들의 성원을 기원하는 환송박수를 받는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 앞 효자동 사람방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마중 나온 청와대 이웃 주민들과 인사말 나누고 곧바로 서울공항으로 이동한다. 동원인라는 진해 없지 만, 자람 이동속도를 조절할 계획이어서 연도 및 건물 안에서 열리는 시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대통령은 공항에 도착해 3부요인과 장남대표, 국무위원, 시민들로부터 공식 배웅을 받게 된다.

이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출발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은 ‘북쪽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 전날** 11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문 김 대통령은 12일 아침 원거리편의와 오후에 간단한 관련보고를 받은 것 말고는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낮시간 동안 잠시 부연 이희호(李熙浩) 여사와 복지민 및 딸 꽃동산을 신책하고 연못의 위와와 처음, 나라 등 진토에게 먹이를 주는 방중간의 시간을 가졌다.

박 내연인은 “꽃, 나무, 새들을 보고 이 여사와 얘기도 나누고 깊은 성명에 참가기도 했다”며 “북한의 방북연기 요청 등에 전혀 개의치않은 채 담담하고 차분하게 무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여사가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낮 평양에 녹지원 길을 신책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의대시진기자단

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 호텔에서 연성문 정리를 마무리지은 뒤 오후에 공보수석실로 최종언을 내려보내고 각종 자료를 통해 북한의 역사·생태·지형·인물을 익히는 일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박 내연인은 “김 대통령의 기년 생력은

한미대로 지금까지 한민족이 잘로 나뉘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행하고 긴장된 속에서 살아온 것을 청산하고 갈라진 두 민족이 처음으로 화해와 협력, 장기적으로는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고 전했다.

●양승환기자 yangbak@kdsahy.com

## 냉전해체 포괄적으로 거론

### ■ 회담의제와 전망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에 한 번의 모든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남인산언의 4대 과제에 현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중점으로 거론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 것일 전망이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만남에 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이라고 보고 있다. 본담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교류협력의 속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

히나기겠다는 자세다. 서로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논의범위** 양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방안을 커다란 틀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정상 회담은 공동선언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남북이 대담·대치상태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場)을 열어나간다는 합의의 단계 될 것”이라고 내다뒀다.

●**냉전해체** 남북이 냉전·대치상태에서 벗

## 離散·경협 심층 논의할듯 대화 창구 상설화도 타진

어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겠. 원칙적이고 포괄적이지만 냉정한 입장표명을 통해 서로의 원칙을 확인하지는 것이다. 통일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게 될 ‘코할 수 없는 문제’다. 두 정상에 각자의 입장을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문제** 정부는 남북간에 하루미비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로 보고 있다. 생사확인·시신 및 고향방문단 교환·면화소

심지 등을 북측에 제의해 놓은 상태다.

●**경제협력** 경협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불교를 떠나가겠다는 것. 정상간에는 원칙적인 언급만 가능하지만 후속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마련해놓은 각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회담하고 있다.

●**당국간 대화** 남북언덕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평양과 서울에 상호 연락대표부를 설치, 당국간 대화창로를 상설화하지는 않겠. 교류협력에 따라 대표부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경제협력 등 교류확대는 물론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창구 상설화는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승무기자 gwob@kdsahy.com

# “北 생존위한 개방의 첫걸음”

## 남북 정상회담



### 美 전문가 배경 분석·전망

워싱턴 AP 특파원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경제를 개혁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와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킬리시는 “북한이 경제파탄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것도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한 걸음 나아가 서방 세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활발한 외교적 행보를 경제개혁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직결시킬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편집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정부가 경제개방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제와 완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의 개혁이 국민상태에 처한 국민들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 지,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정치에 종속돼 질식상태에 빠져 있는데다 미숙련 노동력과 전무하다시피 한 인프라, 사업상 거래를 관리하는 법률적 구조의 부재 등으로 중

## 파탄경제 출구... 다음단계는 서방투자 유치 개방이의 깨닫게되면 더이상 고립 없을것 “경제회복이나 군사력 강화나” 목적 불분명

국과 베트남, 옛 소련 등의 중앙계획시스템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펜스필드 공공문제연구소의 폴턴 플러이크 연구원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남한 기업들이 북한의 각종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 낙후된 제반 사정 때문에 상당수가 사업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절차가 전무하고 투자한 돈과 사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뒷받침이

갖추지 않는 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신중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킬리비아대학의 노정호 법학과 교수는 “(북한의)법률체계는 매우 정적적이며 서방 세계에서도 같은 법규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투자대상국이 있는데 왜 북한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개혁에 따른 잠재적 댓가는 엄청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카콜라와 펩시 등 미국 기업들이 이미 대(對)북한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최대 희망은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서 전문기술을 얻고 옛동독이 서독의 지식을 이용했던 것처럼 북한은 ‘돈줄’인 한국으로부터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평양측이 개혁조치를 취하고 그동안의 총물지향적인 정책을 순화시킬 경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쉬워질 것이며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을 시행하는 댓가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북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제시한다면 북한이 예전과 같이 고립정책을 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



킬리비아대사

노정호 킬리비아대 교수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원

# 대한매일

2000. 6. 13 (화)



## “北이 원한다면 정상회담 용의” 金대통령 (98.2.25)

## “金대통령 訪北결정 긍정 평가” 金위원장 (2000.5.29)

### □ 金대통령·金위원장 남북관련 발언록

13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 (金正日) 북한 국 방위원장과의 남북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한다.

#### 金大中대통령

- 14 남북정상회담
  -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위해 차사교환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97. 12. 19 대통령실 기자회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핵사교환을 재이하며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98. 2. 25 대통령 취임사)
  -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남북간 공동경제의 상호협력에 대한 문제들 논의하도록 재의하였다(2000. 1. 20 민주당 청문대회 치사)
  - 남북문제 풀어나가려면 김정일 총비서와의 대외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김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000. 2. 9 일본 도쿄방문 회견)
  - 과거 없이 차분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단단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목표할 것이며, 한반도에 화해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이 할 안도 생각하면서 해나갈 것이다(2000. 4. 17 대 국민담화문)
  - 민족적 대과업 앞에 아기가 따로 없으며 나와 내가 닮고 있을 수 없는 민족 초당적이고 범 국민적인 연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000. 4. 19 1·19지방 10주년 기념식)
  - 차라 보면 문제를 가려내어 논쟁해 가능한 일부터 청사도라도 하겠으며 합의 안일 것? 2차, 3차회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2000. 6. 5 16대 국회 개원연설)

#### 김 위원장

- 핵문제에는 유회합력이 아니며 북한의 어필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화해와 협력을 하는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감격제어에게는 가장 고등스런 정책이다(98. 6. 30 고려대 인촌기념관과 특연강연)

#### ● 金대통령

“남북문제 풀어 나가려면 金총비서와의 대화밖에 없어” (2000.2.9)

“모든 문제 격의없이 논의 가능한 일부터 성사되게 노력” (2000.4.19)

- 안보장색의 복고와 기본방향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등이다(99. 1. 4 제1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 연방제안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결코 단순한 유회정책이 아니라 굳건한 안보의지와 능력에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정책이다(2000. 2. 29 학군정교 입관식)

#### □ 남북대화

- 평화공존·개화교류 그리고 적자의 평화공 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98. 3. 1 79주년 3·1절 기념사)
- 북한의 침투사, 그러나 정부지도자, 내외는 물론 김정일에게도 정·외담 등 어떤 레벨

에서도 대화할 양 생각이 있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임(99. 3. 24 통일부 국정개회과제 보고시)

#### □ 남북교류협력

- 우리는 북한에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 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98. 2. 25 대통령 취임사)
- 경제협력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

#### ● 金위원장

“우리 세대가 남북간의 벽 허물어야” (90.10.13)

“조선이 자랑할만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 (99.10.1)

다(2000. 5. 9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 □ 이산가족문제

-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심방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지사 또는 정부기관협의 등 어떤 방식도 좋으나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98. 3. 1 79주년 3·1절 기념사)
- 북한이 비정당 장기수 17명을 송환요구한 데 대해 이해하지만 우리 역시 북한에 국군 포로나 남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힘 바라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김정일 대외가 있기를 희망한다(99. 2. 21 취임주년 대외선 기자회견)

#### 金正日국방위원장

- 우리 세대가 북한인과 백을 허물어야 한다. 현재는 물론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미군이 나가야 한다. 그들 때문에 봉위에 지장이 있다(90. 10. 13 평양을 방문한 김정일 당시 제국부장관과의 대화)

-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다 보니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하고 있다. 남조선에 비견할 장기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외로 이룬다(94. 10. 16 노동당 중앙위 책임위원들과의 대화)
-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청산하고 전국적 범위에 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여 갈라진 민족의 한뼘을 다시 엮고 하나의 민족적 단위를 실현하는 문제다. 앞으로 남조선 남북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날의 반민족적이거나 반공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질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97. 8. 4 노작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의 조국통일 유언을 읽기'에 관한 담화문에서)

● 민족간 협상을 갖고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한 내오에서 손 잡고 나갈 것이다. 남조선의 김정은총애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내각원, 군정실들도 민족공성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달 바란다면 그들라도 민족대 단결의 가치관에 단결할 것이다(98. 4. 18 민주대년결 5

#### 대 방관)

● 나로 영화화 통해 서울을 보았는데 원년의 도쿄보다 웅장한 도시로 서울은 조선의 자랑할만한 세계도시다. 단지 공해가 심하고 도시계획이 조금 잘못해서 북받았다. 남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활력있는 유지였기 때문이다. 원년도 활력있는 유지 후 경제 발전을 했다. 천나. 요즘 백정희(崔正熙) 대통령이 좋게 인식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유신이라 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초기 제1차 5개년 계획을 한 덕분에 경제발전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틀림없다(99. 10. 1 연대 장수영 명예회장 및 정문회 회장 오찬)

● 북한 김정일상을 위해 금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 평가한다(2000. 5. 29 중국 방문시 정무원 주석과의 회담에서)

● 한중(대지) jhan@daily.com

## 치밀한 논리 뛰어난 설득력 **김대통령**

## 매우 빠르고 거침없이 말해 **김위원장**

### ■ 남북정상 비교

13일 오후 밤양 7,000만 한반도와 세계의 이목이 쏠린 회담장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뺀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어떤 말투로 환영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멀리 떨어진 수행원에게도 들릴 만큼 웅장했다. 연시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김 대통령은 김화에 잦은 응시로 차분하게 낄낄 이진, 남북이 공유했던 역사이기도 할 어리둥 꺼냈다.

남북 정상들의 첫 대화는 기승해 꾸민 것이지만 성장과정, 성격, 정치 스타일 등 다른 점도 많고 비슷한 점도 직감은 두 정상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지 초마의 관심사다.

### 재치있는 답변형 공통점

●대화 스타일 김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논리적 실득형'이다. 밌하고 싶은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그만큼 사전공부가 철저하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나뉜 논리를 전개한다. 말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실득하는 대화법은 유명하다. 재스처도 풍부해 대화도 손쉬운 위 아래로 많이 흔드는 면이다.

김 위원장은 매우 빠르고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다.

지난달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영어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거침없이 연시만을 건넸다. 당사위안(商家讓)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에 대해 "두뇌회전이 빨랐고 시름에 대한 반응도 민첩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들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대화중 유머를 잘 구사하며 재치있는 답변형이라는 점은 닮았다.

토론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두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얼마나 개성을 발휘할지, 또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가운데 회담의 '얼매' 밝 내뿜을지가 제의의 관심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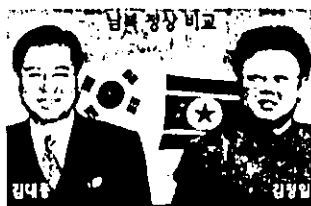
### 인생역정은 편이하게 달라

●성장과정 정상의 자리에 서있는 집안 길을 편 인생역정은 편이다. 김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외딴 섬 허의도에서 태어나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지역으로 해운회사와 신문사를 경영한 자수성가형.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힘겨운 야당의 길을 걸어 수차례 투옥, 연금 등 탄압을 받았으며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반면 김 위원장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아들로 혁명투쟁전선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김일성총합대학 등 엘리트코스쿨 거쳐 22세에 노동당 지도원으로 권력에 입문, 큰 걸림돌 없이 승승장구했다.

두 정상들의 인생역정은 다르지만 일에 대한 집념은 꼭 빼놓았다.



| 김대중  | 김정일   |
|--|---|
|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대 국무총리 겸 최고인민회의장 겸 총리   |
| 1925년 12월 31일 (74세)  | 1942년 2월 16일 (58세)  |
| 전남 신안군 허의도   | 평안남도 회령시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평안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고 주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li> <li>•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li> <li>•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군공립학교</li> <li>•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당 부총재 겸 부시장</li> <li>• 국회의장 (99-12, 00-04)</li> <li>• 대통령 후보 (71, 87년)</li> <li>•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 (80-10월)</li> <li>• 미국 망명 (82년 12월)</li> <li>• 대통령 취임 (88년 2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각파당에서 (80년)</li> <li>• 남조선노동당 부위원장 (72년 1월)</li> <li>• 남조선혁명위원회, 임시총비서, 후계자선언 (80년 10월)</li> <li>•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80년 12월)</li> <li>• 2번 인공적으로 사망한 (원인 미상)</li> <li>• 특수활동 수배 (82-04월)</li> <li>• 국장명칭 변경 (87-04월)</li> <li>• 노동당 총서기 (87년 10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북특별위원회, 수발, 회담가두기, 특사</li> <li>• 논리적이고 직설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감성, 용어, 수모, 사적</li> <li>• 대담성과 자질이 돋보이는 말투와 언어</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리적 언어 능력, 수줍기는 약하며 우렁차고 신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격과 자신감, 거침없는 화제전환, 과묵하지만 수모를 유머 화제로 전환</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시절 3년 강제징역</li> <li>• 만주</li> <li>• 소련 (2년, 소련 2년)</li> <li>• 173cm, 73kg</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에서 1년 4개월</li> <li>• 최근 운동 (비거간 운동)</li> <li>• 운동수 1년 (7개월간 운동 금지)</li> <li>• 165cm, 65kg</li> <li>• 11-12 구공시 (간헐적)</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일어 능통</li> <li>• 정부시절</li> <li>• 상용어휘 1만여</li> <li>• 국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수모</li> <li>• 영어, 일어 능통</li> <li>• 만 11세 - 6세 5세 사이 입문</li> </ul>   |

### 이산가족 왕래 허용 여부 주목

●한반도 현안인정 두 정상들의 연설, 저술로 볼 때 주요 현안에 대한 두 정상들의 입장은 다른 점이 더 많다.

먼저 남북 대화와 관련, 김 대통령은 당국간 대화를 중시하는 반면 김 위원장은 특정계급의 독점물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방안도 다소 달랐다. 김 대통령은 3단계 통일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고려민 주연방공화국 창립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두 정상들의 생각은 크게 달리지 않다. 김 대통령은 남북간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해야 할 중점이라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동포들 사이의 왕래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 결연의 경우 김 대통령이 민간 차원뿐 아니라 정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남북 당국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연세라도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 통일기 기자 mary01@kdaily.com

# 차분함속 긴장의 최종점검

## 남북 정상회담



### 청와대·각부처 표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와 정부 관련부처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비상근무제에 최종 점검하는 등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회담 준비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김 대통령의 북한 체류 일정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북한 방문 기간동안 펼쳐질 상황변화에 대비, 미리 마련한 시나리오를 재확인하는 등 마지막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박종현(朴鍾顯)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정상회담 합의 이후 65일 동안 남북 북한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면서 '북한도 합의의 주의깊은 노력을 해왔으며 남북의 준비하는 데 있어 충분한 협의와 토론, 서로간 협의의 이뤄 내일 마다게 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밤(한국시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상회담 환영선물을 발표할 때 대개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교황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오기를 바란다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어느 청와대 협시차드는 물론 각 수석들과 공동취재단에 개연 기자들에게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준비와 해외동료들의 아낌없이 알려졌다.

●통일부 박재규(朴在圭) 장관은 평양이 산

## 상황변화에 대비 시나리오 재확인 청와대 선발대와 통화... 평양날씨등 체크 통일부 '군무기강 확립 특별지침' 거듭 강조 국방부

평양이 보내 오는 상황보고를 받고 정상회담 진척을 기다리면서 방북 진여를 보였다. 박 장관은 "북에 하루의 여유가 생기면까지 생각해 볼만 있을 것"이라고 일단 장담했다.

정부중앙청사 4~5층의 통일부 각 사무실은 직원 대부분이 정상회담 상황실 등에 파견나가 텅 비었다. 반면 서울 초청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산회장은 평양의 선별대와 직원 진화로 평양의 기상상태와 북한측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이밖에 이현재(李顯宰)재경, 박자권(朴子權)외교통장부 장관 등 김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는 장관들도 다른 일정을 생략한 채 김부실에서 관련자료와 서적을 챙기며 평양행에 만전을 기했다.

●외교통장부 역사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남긴 김교과외교교를 통한 각국과의 협조 방안 마련 등을 차분하게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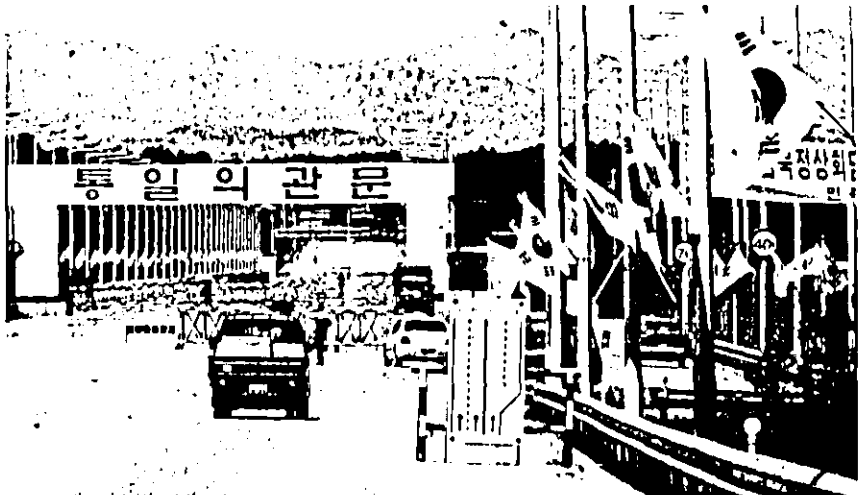
이장현(李長顯)장관은 김-국영 회의실 주

재한 자리에서 "국제 직원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각국의 반응 등을 주시하고, 각자 본연의 업무에 초중점이 없도록 해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상회담 기간 중 박기문(朴基文)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산회장을 편성, 외교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스 센터에서 내외산 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브리핑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이미 허남원 '군무기강확립 특별지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움직였다. 조성태(趙成台) 장관은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차관보급 및 분부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병행하고 있어 주재하면서 각종 국방 현안을 점검

●진경호 오일민기자 jck@daily.com



송대통령 귀로 통일대교 김대중대통령이 오는 15일 2400명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의 경기 문산 통일대교에도 12일 태극기가 내걸리는 등 환영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호경기자 hojung@daily.com

■ **金대통령 맞는 평양 표정**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의 평양은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날 속에서 온 도시가 녹음에 싸인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오후 평양 현지발로 보도했다.

다음은 신화통신이 전한 정상회담 전야의 평양 현지 표정이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다. 역사적인 회담의 안전과 경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 조선측은 각종 안전조치들을 취했으며 한국측에 한국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비망록도 전달했다.

평양시 각계 각층은 최근 대대적으로 환경정리에 나서 시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도착할 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길과 개성~경양 고속도로도 이미 깨끗이 개보수됐으며 길가의 가드레일들도 새 페인트로 산뜻하게 단장됐다.

**대통령 숙소·교통노선 완벽한 안전조치**

**시내 대대적 환경정비... 말끔히 단장**

**귀한 손님 맞을 고적대·단체체조 맹연습**

을 갖고 민족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 중대 문제들을 협의한다. 한반도가 분열된지 반세기여만의 첫 정상회담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유명한 고도이다. 서기 427년 고구려가 이곳에 수도를 정한 후 이미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평양은 중후한 역사적인 유물과 새로운 현대적 분위기가 혼연일체가 돼 이 '화원의 도시'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평양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변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왕래가 드물었던 한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선측은 5월말부터 각종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측과 평양을 방문한 한국측은 치밀한 현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체류시 머물 숙소와 교통노선, 참관 장소 등을 결정했

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평양의 조용한 분위기에 최근 몇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더해졌다. 거리의 여자 교통경찰관들이 하얀 색의 여복 복장으로 갈아 입었으며, 금수산기념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는 영생탑 아래에서는 중학생들로 구성된 고적대가 손님 맞이 음악들을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다.

또 평양체육관 등 수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바쁜 모습으로 단체체조를 연습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견된 '조선화보'는 남북한의 화해를 상징하는 한편의 그림을 게재했다. 이 작품에서 한 조선 소년과 한 한국 소녀는 각자 손으로 주건자판을 잡고 있었다. 그림은 백두산 천지의 물과 한리산 백록담의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 khkm@kdaty.com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2일 북한 학생들이 울리후프를 이용, 단체체조 연습을 하고 있다.

● MBC TV 촬영

# 평양상황 24시간 체크 '불야성'

## 남북 정상회담



### 롯데호텔 서울상황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사파이어룸)은 요즘 일반인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양복 치림의 경찰 20여명이 길을 막고 선다. 지난 11일 남북

곳으로 옮겨졌다. 따라서 정상회담 기간 중 롯데호텔 3층은 '호텔 속의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이종열(李鍾喆·1급)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위원이 맡았으며, 양연식(梁榮植) 통일부차관도 상황실 바로 옆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전채적인 지휘감독 업무할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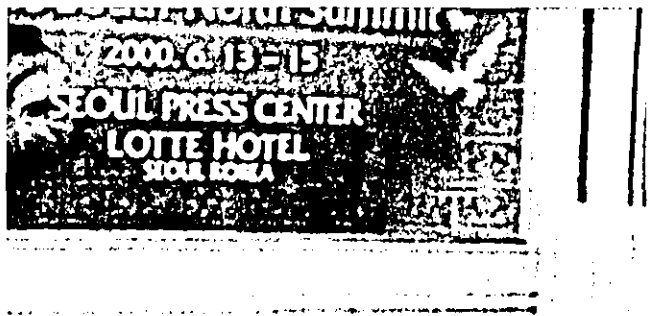
이밖에 통일부의 청와대 등에서 차출된 50~60명의 요원들이 상황실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광양과의 직통전화 10여회선과 팩스, TV 모니터 등 시설이 구비돼 있다.

자리할 바를 수 없는 이 실장 등 상황실 요원들은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귀가하지 못한다. 아전참대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교대로 호텔 객실에 올라가 눈을 붙이고 있다. 양 차관도 24시간 롯데호텔에서 상주한다는 계획이다.

브리핑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 된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 기자나 관료들의 질문과 답변을 동시통역 이어폰을 통해 영어로

듣게 된다. 그러나 외신 기자들의 영어 질문에 대한 한국어 통역은 없다.

●김삼연기자 carlos@kdaily.com



## 철통보안속 차출요원 50~60명 비상대기 北 백화원초대소와 시시각각 정보 교환 梁榮植통일차관 임시집무실서 종합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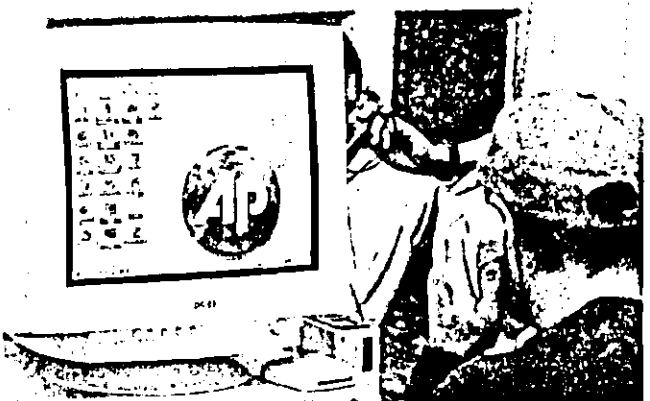
정상회담 서울 상황실'이 이곳에 설치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서울 상황실 중앙 백화원초대소에 설치된 우리측 상황실과 직통전화로 연결된 곳으로, 시시각각 민감한 중요 사안이 통보되기 때문에 활동같은 보안을 요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상황실은 원래 보안 유지가 쉬운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으나, 11일 롯데호텔 2층에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가 개설된 이후 신속한 내·외국 언론 발표를 위해 이

재경부 등 6개 부처의 차관급 공직자는 상황실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회담 기간 중 24시간 호출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이들은 평양의 우리측 대표단이 급하게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상황실로 즉시 호출된다.

●프레스센터 점예브리핑 회담기간중 서울 프레스센터의 정규 연설 브리핑은 매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3시 2차례이며, 돌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 브리핑이 있다. 브리핑은 주로 양 통일부차관이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부처 차관급이 대신 나선다.



본국으로 기사 송고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외국 통신 기자들이 본국으로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김관국기자 deunsu@kdaily.com

# 대한매일

2000. 6. 13 (화)

## 남북 정상회담



각계 기대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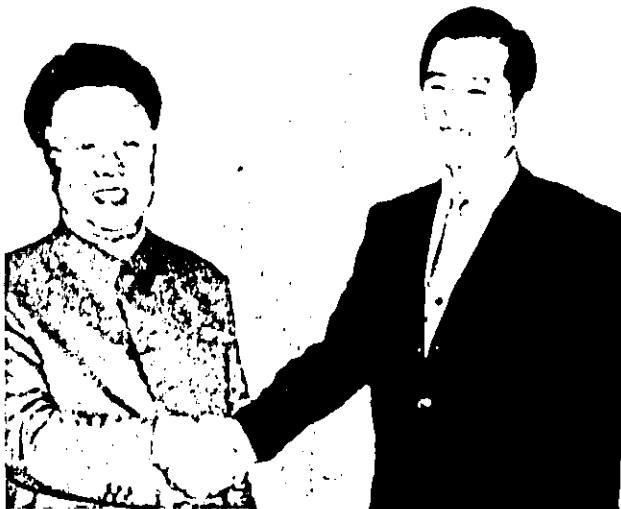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다. 반세기 넘게 처음이다.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저 밑바닥에는 언제나 민족이라는 뜻을 묶어서 애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남북 사람과 북쪽 사람들을 대표해서 정상들이 만납니다. 그냥 왔다. 몇번이나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해버린 적이 있었다. 일정이 하루 늦춰지면서 가슴이 열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 무언가 이룩할 것 같은 여감이 든다.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앞서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봤다. (기니다 순)

●최우영 (남북지가족모임 총무·30·여) 남북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회담에 가는 기대와 실망은 누구보다 크다. 아버지는 지난 87년 1월 부산에서 출발한 동진호 탐 탐과 조업을 하다 남북되었다. 올해 54세가 되었지만 생사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두 정상이 만나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 남북지 문제도 다루주시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꼭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회담의 성사는 지속적인 '햇볕정책'의 결과이듯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북지들의 복구를 원하는 미전함 장기수에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과 함께 남북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일단 결실을 기원하며 여러 민선 컴퓨터 그래픽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한반도 지도를 배경삼아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후에도 그래픽에서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

●태진아 (가수) 지난해 12월 평양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나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 놀라고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그때 만나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북한 친을 평양교예단 공연장에서 만나보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평양 공연때 부활을 불은 채 '사모곡'을 부르며 평양을 울렸던 기억이 난다. 김담순 이대법



## 배달민족 사랑 나누는 계기되길

회외인들이 "왜 그렇게 울었나"고 물길래 "나보다 더 평양을 그리워했을 실향민들을 생각하느라 그랬다"고 대답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들의 50년 숙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아가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문화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배달민족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만드러졌으면 한다.

●한필성 (목축업·67·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품에 그러던 고향방 문갑이 꼭 열릴 것 같다. 90년 2월 월면 싹으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 스케이트 코치로 참가한 여동생 필화(50)를 상봉한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최인희)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71년 일면 싹으로 동계올림픽에 북한 스피



## 동생 필화 꼭 만나고 싶어

드 스케이트팀 대표선수로 참가한 필화와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지 못했던 때를 돌이키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생전에 그렇게도 보고 싶던 어머니가 98년 4월 19일 94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방문길이 열리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찾아가 볼출에 대한 용서를 빌겠다. 이번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 정부 對北정책에 신뢰감 갖자

●유경래 (주부·44·인천시 김희군 송해면) 내가 사는 길에는 북한과 밀접해 있어서 길안까지 대남방송이 다 들린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회담을 접하는 느낌은 되레 담담하다. 다만 아들이 최근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이번 회담을 방해할까 무는 도발이라도 할까봐 가슴이 떨



때기 많다. 남북한 정상이 만난 이후 처음 만나는데 모든 일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김대중總統께서는 너무 회담 성과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은 정부가 소신껏 대북정책을 펴는데 신뢰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붙여보면 좋겠다. 남한에서 뛰어나 비료도 지원해 주는데 왜 자꾸 판소리같은 하는지 모르겠다. 이산가족도 만나게 해주고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티놓고 상대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한정희 (한국마사회학자구단 코치·전 국가대표) 91년 남북탁구단일담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당시엔 당시 통일이 될 것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통일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이 너무 기쁘지만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10년간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했으면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이분회선수 다시 만나고파

우승을 확인한 순간 같이 부둥켜안고 울던 북한의 이분회가 무척 그립다. 방 동묘 김성희와 결혼해 여까지 낳았는데 아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탁구단일담 구성은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마음껏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1년에 느꼈던 '적은 통일'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 남북 방위비 줄여 교육비 지원을

●이남은 (인천 부평구 부평여고 3학년·18) 우리 국민과 북한 동포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방위비할 줄이면 교육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불쌍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사실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여겨왔는데, 정상회담이 잘 돼 교류가 늘면 한반도라는 생각이 짝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곧 평일이 온다고는 믿지 않는다. 50여년 동안 다른 사상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우선 평양교예단이나 학생예술단처럼 문화 방영단이 서로를 번갈아 찾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공연은 보면 북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궁금하다. 많은 일왕 하시는 대중들에게는 다음 회담을 위해서라도 몸 건강하길 바란다.

●황석영 (작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들 하지만 비긴을 갖고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한다.



## 문화교류 전담기구 구성을

평화선언이라도 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화외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강화가 되길 바란다. '두부미와 여우'의 만남처럼 서로의 이상관을 부각시켜주는 안된다. 통일 문화강화 협정한다는 의도된 목표 아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기획위원회 같은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북쪽이 궁금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서부전선 도라전망대에서 국내외 보도진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부전선 이호정기자 hojeong@kdaily.com

## 성공기원 네티즌 편지 쇄도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네티즌들의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편지들' '정상 회담에 바란다'는 코너를 개설한 뒤 하루 30여 건씩 접수되던 편지가 회담이 가까워지면서 하루 평균 100여통으로 늘어났다고 공보수석실이 밝혔다.

특히 정상 회담 연기발 표가 있던 지난 11일에는 150여통의 편지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네티즌 김종선씨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77명의 연대서명을 보내왔으며, '북녘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에서는 부인 이희호(李姬嬪) 여사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평양 주요기관에 대한 방문기를 참고자료로 보내왔다고 한다.

또 단독정상회담 시작전 김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나눌 덕담(德談)을 보낸 이도 있다. 회사원 금동수(44)씨 같은 이는

소학(小學)에 나오는 '골육수분 본생일기 비지 어목 동근이지 일배지수 필분이음(骨肉雖分 本生一氣 比之於木 同根異枝 一盃之水 必分而飲,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본래 한 기운으로 나무에 비하면 같은 뿌리에 다른 가지라 한 잔의 물일지라도 나눠 마시는 게 도리)'를 인용하도록 청했다.

특히 일본 나가노의 미사와 사토시(三澤聡·56·회사원)씨는 "한국 분단은 과거 일본

**청와대 홈페이지 하루 100여통씩  
77명 연대서명... 참고자료도 보내와  
日 회사원 "한국분단 日 잘못탓" 사죄도**

의 잘못 때문"이라고 사죄의 뜻을 전한 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들 홈페이지에 보내왔다고 한다.

이밖에 브라질에 사는 김용민씨,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최린씨 등 해외교포들과 일본의 미시와씨, 영국 리드 대학의 아이단 교수 등도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보수석실은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bak@kdaily.com

# 남북 대중문화 교류 물꼬 트였다

## ■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본 현황과 과제

정상회담을 즈음해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고 있다. 1994년, 판문점에선 서울공연에 이어 연극, 연극, 춤, 가요 등 전방위적 교류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를 높고 있다. 판문점에선 서울공연에 이어 연극, 연극, 춤, 가요 등 전방위적 교류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 문화교류 작업의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은 무엇보다 대중문화부문이다. 영상과 디지털 방송 분야부터 극장공연, 허가지기, 북한 '붉은 장미꽃' '물가지리' 등 다양한 방송에 접어들었다. '물가지리'와 '극장·비디오' 판권 도입을 포함하여 판권·비디오 판권은 '여유문화사'에 맞춰 공동 제작·포인팅에 시공을 하고 있다.

민간 수업체에서는 모처럼 활기가 돋는다. NS21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보에도 '홍길동', '아리랑'이 차이나오지 않는 문화 영상에 대한 기대나 수출 및 국경선에서 각자 신동·노인, 김, 제이다.

문화 분야는 전방위적으로 국내에 수입이 있는 분야는 18,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이해 북한 노래 '백강남'도 팔 부리거나 피리는 예전과 다르다. '아리랑'이란 북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수상한 사람' 취급 받는 세상이 됐다. 북한에서도 제3국에서의 실적이 늘어났지만 남북 노래 '사랑의 미로'나 '그대 그 사랑'을 출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 가수들과 관계하는 "그동안 부총리 박지현, 김철, 북한 가요를 국내 음반에 수록할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영상에 대해 남북 교류를 추진해 화수출입사, 북한비디오회사, 조선아시아태평양개발위원회 등 3군 북한계 영상물 교역기관이 설립되도록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자들이 개별기관을 계속 다룬 중북계약으로 인한 관공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다.

향후 저작권 분쟁도 마찬가지. 북한에 배연 초안에 기입하지 않은 영상은 관련단체에 일어나는 국제권 계약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미래에도 청강사업



다들들 '물가지리'와 '극장·비디오' 판권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북한영화물 '물가지리', 홍길동, 홍길동

## 평양교예단·소년예술단 서울공연 기폭제 영화·방송·출판·가요 등 전방위 본격 타진

### 창구 분산돼 수입 리시팬 판권분쟁 불보듯 ... 일원화 필요

남북문화교류의 첫 출발은 여차 업 '예수'으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교류사업에 있어서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영상물 도입이 가속 되고, 수입시간 권권분쟁이 한 민권 분산돼 대응할 조이다. 그 밖에는 예기 감속되고 있다. '연말 간' '사랑의 미로' '홍길동' '연말 간' 등 인기작품은 집중투자 판권분쟁의 초지점 회연고 있다. '연말 간'과 '사랑의 미로' 출간 시 수입계는 NS21엔터테인먼트와 DMS는 상대로 판권분쟁에 들어가 있다.

당장 불모는 있지만, 장원 의미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최근 남북영상 교류협력을 추진한 한국방송진흥원의 어우송 계약은 규약은 '다매체 사용'에 진정한 문화교류는 TV가 아닌 컴퓨터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쪽 작품도 북에서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지금까지 민간 차원의 세련된 교류협력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상호 교류를 대담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못 기대가 큰 분위기다.



## "첫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올 가을 크랭크인"

### ■ NS21 엔터테인먼트 김보에 대표 인터뷰

NS21엔터테인먼트 김보에 대표(69)는 지난 10일(화) '대한매일' 심리상담센터에서 '아리랑' 제작을 하다가 말았다. "역사적 남북 정정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제작 중인 '아리랑'을 남북에 차라내 목적 기했다"는 그는 북은 영상물 국내 도입에 최안에서 뛰어난 영웅이 되고 있다. NS21은 100억 원에 투자한 '아리랑'을 '물가지리'도 고가다"고 말했다.

수용하고 즉 독입이 여기저기서 지지개를 꺼고 있다. 소회기 합니다

것 같다. 기자회견 자리 여 사업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판권분쟁도 예외는 없다. 이번 공연에도 조선-태평양의 관계지남과 방정요래하며 그 유행 중용이다. 남북합작영화 1호기 '물가지리' '아리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판권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공연에도 조선-태평양의 관계지남과 방정요래하며 그 유행 중용이다. 남북합작영화 1호기 '물가지리' '아리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술·K-TV서 투자... 양측서 로케이션 전제  
북영화 TV 방송만으로는 교류합성화 어려워

경연이 끝나는대로 통일부로부터 사업수용을 받기로 되었다. 이번 공연에도 조선-태평양의 관계지남과 방정요래하며 그 유행 중용이다. 남북합작영화 1호기 '물가지리' '아리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억2,000만 원이다. 국감상되거나 비디오 배포없이 지급적인 공동과 영웅에게 영웅하는 소 1억 2,000만 원은 교류합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물가지리'를 계기로 많은 영웅들이 다양한 장르로 영웅에 선보일 수 있었으면 한다.





‘통일로 가는 길’ 할 말도 많고 바람도 많아...

## 북한 관련 사이트 클릭 ‘붐물’

###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심사할 기원하는 인터넷 행사가 인기몰이 되고 있다.

북한 관련 사이트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북한 법규를 소개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대화방 전문검색사이트인 챗파인드(www.chafind.co.kr)가 지난 연휴 동안 인터넷에서 실시한 정상회담 기념행

사에는 500여명의 네티즌이 몰렸다.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는 주제로 남북 정상에게 바라는 네티즌들의 마음을 전하는 이번 행사에서 네티즌들은 정치와 교육, 환경, 청소년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렸다. 챗파인드는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모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평양화자동차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김주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사이트를(www.dprk.co.kr)를 열었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최근 서울 공연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는 7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 네티즌 소망전달 행사에 500여명 참여 평양학생예술단 사이트 7만여명 방문 북한 바로알기·북한법소개 코너도 등장

엔타임닷컴(www.ntime.com)

도 14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기념 ‘북한 바로알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사이트 방문, 북한 관련 문제 8개달 차례로 맞추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준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는 지난 3일 남북 정상회담 코너가 개설된 이후 이 분야 조회건수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심사를 기원하는 각종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관련 사이트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kdaily.com

계획이다.

북한 영화와 북한 법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주)무비랜드가 11일 문을 연 북한 영화 사이트(www.dprkfilm.com)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영화의 흐름을 시원기와 보존기, 화려급중기, 전성기 등 시기별로 정리한 ‘북한 영화사’를 비롯, 북한의 영화 제작시스템과 장르별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와 감독, 작가 등 영화인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법률 포털사이트 나라이넷(www.yeslaw.com)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12~17일) 동안 북한법과 북한 관련 법을 담고 있는 ‘북한법과 북한 관련 법’ 코너를 신설, 서비스에 들어갔다. 북한 법은 기본적인 사회주의 헌법과 북한에서 사업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개방 관련 법률로 구성됐다.

●김재천기자 patnck@kdaily.com

3,000여건을 넘었다. 국정원은 청와대와 통일부 등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부자료들 재분류, 정리해 놓고 있다.

인터넷 자동차 도매 서비스업체인 카마스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13~17일 전국적으로 ‘실정민을 위한 자동차 무료 점검 및 엔진오일 보충·교환서비스’를 갖는다. 카마스는 남북 정상회담 기간인 13~15일 업진각 주치장에서 무료 점검을 해주고 행사기간 중 본사(02-838-5611)나 인터넷(www.camasa.co.kr)으로 신청받아 전국 300여개 지점을 통해 무상 점검해줄

# 한핏줄 다시 확인 평화통일 디딤돌 놓길...

## 농구도 단일팀 구성됐으면

●김동희(프로농구 기아 엔터프라이즈 선수)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명훈 등 북한 선수들과 경기할 하면서 우정을 나눠왔다.

그러면서 분단된 남북만이 하루빨리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 특히 지난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농구대회를 치르면서 통일의 필요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스포츠 류가 농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프로농구(KBL)에 북한의 비리팀이나 우회팀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 축구, 탁구에서도 같이 농구에서도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기를 바란다.

## 아버지·동생 생사 확인이라도

●김은선(실형인·76·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1년 전 북한 아내와 함께 남한에 내려와 23년 뒤 두고 열차공 기습을 당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지 50년째다. 북에 두고온 아버지와 여동생의 생사 한번 확인하지 못하고 한달에 1~2차례 영전장에 가서 고향땅을 바라보며 한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우리같은 실형민의 마음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단지 생전에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김대중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른 것보다도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식량이라도 많이 가져가 나눠줬으면 좋겠다.

## 조급한 마음 갖지 말자

●박종환(승민원더스여자축구단 단장) 90년 통일축구대회를 위해 대표팀을 이끌고 북한에 갔을 때의 감회가 새롭다. 당시 15만명이 입장한 경기장에서 경기할 뻔했는데 운동장 시설에 놓였던 기어이 난다.

현재에서 느꼈던 것은 북한 사람들이 남쪽과 모든 것을 성사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또 칭찬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러



나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으면서도 1단계, 2단계 하는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 일을 미루곤 한다.

그들과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때보다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으니 북한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기대가 된다.

## 적대관계 풀릴 방안 나왔으면

●신우성(미 8군사령부 병장·24) 남북만이 화해부드 속에서 상사된 회담이라 국민적인 기대감이 무척 큰 것 같다. 회담 성사 사실을 발표하면 남을 생각하면 여안이 뱅뱅해집 정도로 회담 성사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런 평화·화해 무드에 도취돼 느슨한 생각으로 북한을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역 군인으로서 돌발적인 사태



에 대비, 긴장감을 풀지 않고 국가방위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건우들도 미친가지다. 양측의 적대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전쟁을 피한다는 국제적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측은 경제위기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벗장을 연 것으로 여겨진다.

## 남북종교계 화합·일치 토대 마련

●신현균(서울 성민교회 목사) 지난 부활절,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 성수교회에서 열린 남북 합동연합예배에 남한 개신교를 대표해 참석했다. 감회가 새로웠다. 당시 북한 기독교계의 달라진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종교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교류가 많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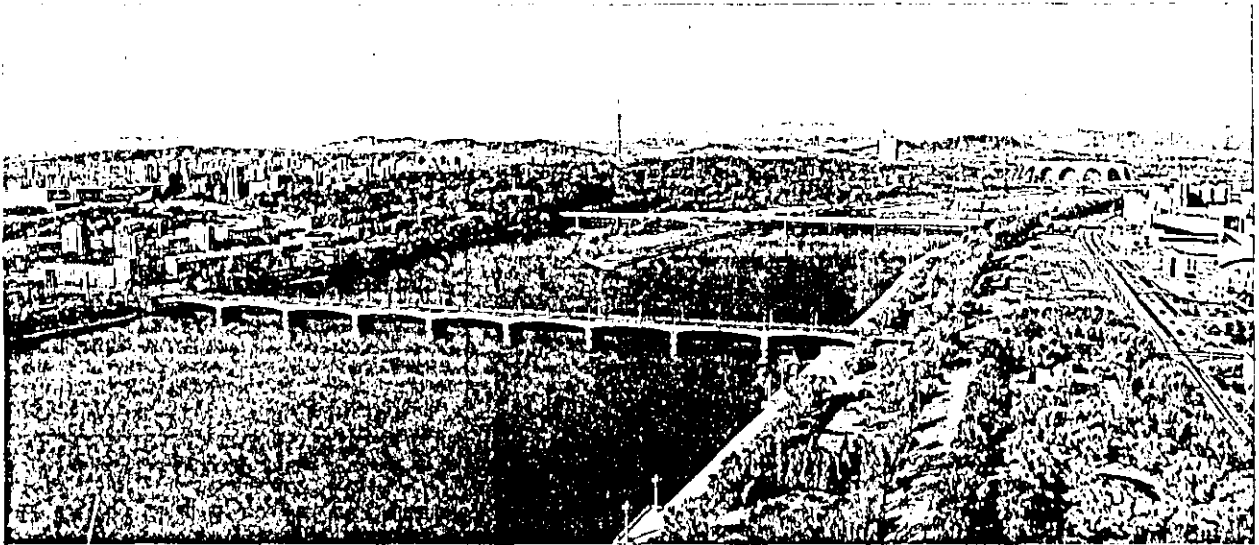


된다. 지금 우리 종교계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의 종교계에서도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난 부활절의 남북 합동예배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직접 실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종교계가 명실상부한 화합과 일치될 이룰 수 있도록 회담이 탄실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 55년만에 分斷을 넘는 날... 歷史를 새로 쓴다



사진제공 박대식

“여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평양시 전경.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대동강물이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는 듯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흰색의 건물들과 숲이 청정한 하늘과 잘 어울린다. 강 건너 멀리 농라도의 '5·1 경기장'도 보인다. 사진은 호주 교포 사진작가 백남익씨가 북한 해외동포지원위원회 김용순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최근 방북해 촬영한 것이다.

## 離散상봉-金正日답방 중점 논의

### 金대통령 오늘 평양行- 金위원장과 첫 회담 核-미사일 經協등 모든 현안 폭넓게 거론 北 電力시설 건설에 한국기업들 참여 유력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분단 55년의 벽”을 넘어 13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이회호(李會好)여사와 함께 전용기편으로 서울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2차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낮 김국방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갖고 분단 55년의 내분과 반목을 벗어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내전 해설패안을 본격 논의하고 이어 11일에도 남북회담 및 회담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13. 14일 공식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교포의 유적과 북한에 주유시설을 들여오고

공인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어 임시 13일 서울 공항에서 “중상상봉”을 통해 “북한에 가서 김적위국방위원장을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자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의 우리 민족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또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도착선인”을 통해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평화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취지로 북측 지도자들 및 주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또 박준연(朴俊彦)대통령권보수처 미사일이 전했다.

공식수레질 10만을 비롯한 130명의 수레꾼과 풍선 방송사의 취재기자 등 500여명의 50명도 별도의

특별기편으로 김대중과 함께 방북한다.

**회담구상**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간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남북 정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합의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불신의 벽을 허무는 한편 △남북간 이질성이 크지 않은 실천가능한 현안부터 합의해 나간다는 3대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고 박준연 수석이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어 따라 화해 불가 점 교류협력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북한 핵 미사일 등 남북간 모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산가족상봉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이산가족문제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도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인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전망**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제교류 관련해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의 건설 풍선 도로 철도 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시

|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A3          | 평양회담 열 논의하나  |
| A4          | 정치권 정상회담 표명  |
| A5          | 한반도 전문가 5인   |
| A6          | 경협문제 이렇게 풀어야 |
| A7          | 평양 상행실 점검    |
| A8          | 정전선대주교 특별기고  |
| A30         | 초등학생들의 소망면지  |
| A31         | 어느 이산가족의 기원  |
| B1          | 對北 경제 투자기대   |
| B3          | 中企 남북경협 실문조사 |
| C1          | 체육교류 어떻게 되나  |

한다. 전문가들은 또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경우 서해안에 나진 산방지구와 비슷한 성격의 경제특구개발 건설하는 방안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경협의 큰 원칙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성과는 후속 실무접촉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화영목·이병기기자) myook@donga.com

# “신뢰구축부터” 脫냉전-화해 논의

남북한 주요 협의사안에 대한 입장비교

| 남측               | 주요협의사안 | 북측(예상)            |
|------------------|--------|-------------------|
| 합의후 방향 결정        | 경제협력   | 합단산업 대북투자SOC 등 지원 |
| 생사확인 및 종래적인 상황   | 이산가족문제 | 일부 수용가능           |
| 서울정상회담.당국간대화 정례회 | 남북대화   | 당국간대화 정례회         |
| 체육 및 문화분야 상호교류   | 사회문화교류 | 시도에 따라 수용         |
|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평화구축 | 예상경쟁   | 주한미군.국가보안법 문제 제기  |
|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답방    | 2차정상회담 | 원칙적으로 합의          |



정상회담 주요의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 여부를 떠나 한반도 사의 새 장(場)을 여는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세기 가 넘는 동족간의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놓을 계기가

다. 김대중씨가 '베트남 신안' (3월 9일)을 통해 밝힌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개최 등 4대 화제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개여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김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의도가 예상되는 김집권제도 주요 의제 중의 하나다. 임각의 비관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집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남북을 공동공영으로 이끄는 '매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김집에 앞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양측의 심의있는 해결의지가 이번에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주된 의제 중의 하나다. 물론 회담에서 북측은 '기회'

## 김대통령 무력배제등 통일 3원칙 강조

### 이산가족 문제 성의있는 해결책 기대

### 경험 어떤 형태로든 합의 끌어낼듯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민족을 위한 한판 '빚길'을 언상케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반세기동안 커가아 찢어진 적대감을 잠재내고 남북이 상호인정,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많아 보인다.

두 정상은 우선 첫 내면인 반남 상호인정을 쌓는 데 주력해야 하며 또 그밖에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 게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화해 협력 추구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화해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고 있다

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 등 의제외의 협조 중지 △국가보안법 연방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등 쟁점있는 문제들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번 입장엔 내부정치외도 연계돼 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許文榮)통일정책실장은 "북한은 80년대말 공존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세계각국의 변화에 대처하고, 10여 년 동안 55주년 기념행사와 제7차 당대회 등 통해 세계를 경비하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정례화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새천년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기틀이 반쯤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회담구상에 몰두

김대중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분단 55년을 회고하며 회담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 시리아에 아사드 弔電- 평소대로 집무

### 金正日위원장 어제 동경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고 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의 후계자 바샤르에게 조전을 보내는 한편 국가 기념일을 맞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방송을 전문적으로 침투하는 일본 도쿄(東京)의 라디오 프레스(RP)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라디오 프레스는 김 국방위원장이 아사드대통령 시거와 관련, 아들 바샤르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연합뉴스로 보도했다.

## 西海 거쳐 1시간 비행

## 평양 순안공항 도착

### 김대통령 평양첫날 일정

역사적인 평양행 첫날인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긴긴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는다. 관저에서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 차남 종업(弘業)씨, 손자 손내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잡 다니오 시라"는 가족들의 환송을 뒤로 하고 청와대 본관으로 향한다.

본관 김무실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잠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읊던 뒤 시골에 잔류하는 수석비서관들에게 만반의 근무태세를 당부한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곧바로 3부요인과 전 국무위원 및 일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발시명을 발표하는 등 간단한 행사를 갖는다.

이어 김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해삼공을 거쳐 평양으로 향한다. 그 앞을 수현원들이 탄 아시아나 특별기가 선도한다.

1시간여의 비행 끝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북측의 김용순(金容淳)아대평화위원장의 인접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공항에서 도착시명을 발표한다. 김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 장면도 TV로 생중계된다.

김대통령은 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한다. 여장을 쓴 김대통령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의를 갖는다.

이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단독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재로서는 1시간 정도가 예정돼 있으나 분위기가 좋을 경우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김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상봉 장면은 아쉽게도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숙소로 돌아와 북한 고위인사를 접견한뒤 북측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김대통령은 만찬에서 북한 지도자들과 상견례 겸 친교의 시간을 갖게된다.

〈최영욱기자〉

ymook@donga.com

김 국방위원장은 조선에서 "아사드 각하를 끌어버린 것은 시리아의 이집인민을 포함해 세계평화 애호 인민의 큰 손실"이라며 "아사드 각하는 조선(북한)과 시리아 양국민민의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조선인민의 친밀한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 이날 국가주권선언 채택 기념일을 맞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는 축전을 보내 "양국의 우호관계는 역사가 깊고, 오늘날 이 관계는 새로운 발전관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도쿄=김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 大事 앞두고 정치권 '休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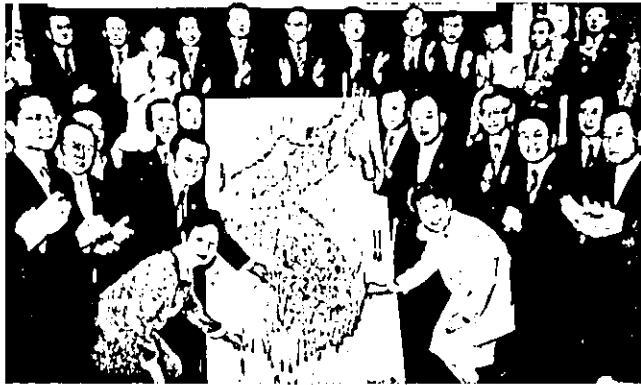
## 여야 초당적 협력 분위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여야 정치권도 마치 '휴전(休戰)'이라도 선언한 듯 티끌을 그치고 그동안 공작했던 국회를 16일부터 경산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김대중정부의 남북 한총연세에도 단적자를 보내기로 했다.

## 회남후 국회입장 쉽게 합의

그동안의 진상화 합의는 그동안 상임위 입장 배분분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측과 합계투표를 받아들인 자민당이 강경입장을 굽으면서 쉽게 풀렸다. 자민당이 유리특권 위원을 자리를 수용한 것은 자민당의 '목나' 때문에 국회 과정이 잠기지만 경우 여야의 비전공 분야 안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깊고 유리특 권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

이에 따라 자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이번 회기 내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약속 받은 한편 비정당특위 위원장을 추가로 앉혀받는다는 조건으로 상임위위원 배분 분제를 타결, 우후에 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총무회담에서도 순조롭게 국회 경산화합정에 합의했다.



## 평화의 촛불 집회

12일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회장 김영진의원) 소속 여의의원 20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마친 후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대형 패널에 평화의 촛불 밝히는 촛불 집회식을 갖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13일 오전 서울공화에서 열리는 김대중정부 남북 한총연세에 참석자를 보내 환송기로 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다짐. 민주당은 여남 연세에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시켜 가담적인 환송을 하기로 했고 자민당은 김종호(金宗鎭)총재직무대행과 당 중앙이, 한나라당은 김기배(金起培)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 野 당직자 보내 환송기로

특히 민주당을 정상회담 기간 중 평을 비하 지원체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조재환(趙在煥)사무부총장을 심장으로 하는 상화상을 당내에 설치, 또 김경희(金敬喜)프레스센터와 정부 상화상에 당직자를 파견, 회남 김경희(金敬喜)를 수시 김경희(金敬喜)였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 소속 여의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촛불예배를 가졌다. 예배에는 민주당 김영진(金英鎭) 현

## 여야 국회 의사일정 합의내용

|           |   |
|-----------|---|
| 6월 16일    | 상임위원회 심문<br>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위구성                   |
| 17~18일    | 상임위 및 특위(문명위, 17일 인사청문회법안 심의)                 |
| 19일       | 인사청문회법안 처리                                    |
| 20~28일    | 상임위 및 특위(26~27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 29일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
| 30일~7월 2일 | 상임위   |
| 7월 3~4일   | 안건처리 및 폐회                                     |
| 5일~       | 입시국회 재소집<br>대법관 6인 인사청문회<br>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통령실문 |

정배(金正培)의원,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박명환(朴明煥)의원, 자민당 황신재(黃信宰)의원 등 20여명이 참석, 남북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선언문을 채택, <이철희기자> kllmt@donga.com

# 세계 주요언론 '코리아 특집' 경쟁

## CNN-NYT 인터넷서 속도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는 인터넷판에 '한국 특집'을 마련, 속보와 경쟁하고 있다. 특히 공개 투쟁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미국의 약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국 등 주변 강대국이 입장에 대한 평가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네티즌 공개토론 코너도 마련

CNN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 미국인은 "회담이 남북 통일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라며 "남북한 내부 분위지만 아니라 외부여건도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일방의 네티즌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또는 한국조차도 통일보다 한 상 황을 더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과의 우방관계를 유지해 동북아시아의 사방세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며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고자 할 것이라는 주장.

그는 다만 미국은 한국이 통일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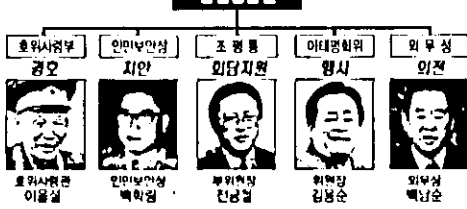
CNN 웹사이트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조사 결과 참여자

의 53%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한반도 변화, 손세계에 영향"

뉴욕타임스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분단 후 첫 정상회담은 어떤 합의를 이룰지 모르나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변화는 전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눈에 띄었다. 제너타스라는 ID를 가진 사람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 논의과정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도 이제는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kgedy@donga.com

북한 상황실 예상도



평양선 경호 어떻게 하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안 방문을 앞두고 북한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 사람들은 누구일까. 남측과 마찬가지로 상황실 관계자들일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4월15일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상황실인 '기초문제실'을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측도 비슷한 준비를 해왔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진언.

金容淳 상황실업무 총괄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남측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손님을 맞는 북한으로서는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나중 의제를 김정은의 앞에서 남측 손님에게 김대중 회담의 내용을 말하는 제2차 남북회담까지 모두 북측 상황실의 소관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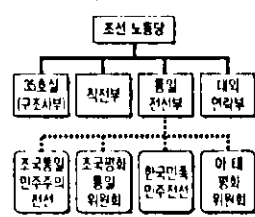
북한전문가들은 대남관계에 남다른 김용순(金容淳)가 회담 준비와 진행에 관한 업무 진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의 이대평화위원장 겸 김용순부장은 남측의 준비상황을 책임지는 박계규(朴在圭)북인부장과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상황실은 통일부(북측의 지휘 아래 김대중의 공안 관공사 및 김성회(金成會)비서관 등)에서 김용순과 함께 북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용순은 '김정일'도 우익을 것이라는 게 남북측자들의 실망.

여기에는 북한 최고의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우리의 김철조(金哲朝)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등의 회장에 인원이 배치됐음은 물론이다. 북한 상황실 운영을 구분해 보면 김호

북한 대남정책 결정과정 기구도



남측의 호위사령부나 치안을 담당하는 인민보안성은 하드웨어에 속하고 다양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와 조평통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2총국서 頂上 근접경호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연기한 이유 중의 하나로 김호문제가 등장한 것도 북측 경호팀으로서의 부담. 이윤실(李允實·원수)사령관이 이끄는 호위사령부로서는 이 때문에 일이 두 배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김성회(金正會)의 경호는 조위사령부 참모장인 윤정민(尹正敏)의 소관(해당)의 지휘 아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김호를 직접 담당하는 제2총국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金日成)주석 생전에 김호를 맡았던 제1총국은 이제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등을 경호하고 있으며 제3총국은 정치국 위원과 주요 인사의 가족 경호를 맡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접경호를 맡는 부서는 제2총국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

호위사령부 행사장의와 맡아

그러나 최근 김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시 인민군 보위사령부(사령관 원은희·元恩熙 대장)가 김호를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보위사령부도 정상회담 준비 경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북측 두 집단의 동반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서는 우리 김호팀이 김대중의 근접경호를 담당한다. 북측 호위사령부는 김대중이 체류하는 행사장 외곽을 경호한다는 게 남북간의 합의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

sprr@donga.com

대한매일

‘대통령 권한대행’ 싸고 논란

金대통령 訪北계기 쟁점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는 2박3일 동안 이관동(李灌東)총리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이 언뜻 비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아담은 위헌성을 앞세워 ‘총리서리제’에 대해 헌법소원에 청대의와 총

직무대리’를 맡는 것에 대해 문제삼는 정도 정도의 상 출지 않는다. 임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 총리서리가 실질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에서 문제삼는 것은 정쟁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유고시 총리서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의 합헌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김부 당국자는 “총리서리가 비록 헌법에 없

“서리가 代行 헌법에 없는 제도”

한나라, 재경장관으로 교체 요구

민주 “실질적 총리... 정쟁적 발상”

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제기한 총리서리 위헌신청을 기각한 만큼 총리서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법적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민연도 여권 변을 들고 나섰다. 김희원(金學元)대변인은 “총리서리제는 우리 헌정의 오랜 통치관행”이라며 “이남은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일민기자 oimn@kdaily.com

與 대다수 의원 金대통령 배웅

정치권 움직임

정치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찬기도회를 여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국회 조찬기도회 소속 여의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관에서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가졌다.

민주당은 당내에 남북정상회담 상황실을 설치하고 통일부 상황실 및 대외협력부 프레스센터와 상호연계, 정상회담 소식을 국내외 언론에 시비 스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당직자들은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출국하는 시종 상황에는 시영운(徐英勳)대표 이연재(李仁濟) 상임고문 김국우(金國宇)사무총장 등 당지도부

를 비롯, 현역의원 대다수가 헌당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등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 김대중(金大中) 총리서리가 생가 및 묘소 등을 참배·조의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공명에

이희창(李希昌)총재는 나가지 않고 대신 김기배(金起培)사무총

장이 나간다. 지민연 김동원(金東源)등도 김남 전화로 한대통령에게 인사했다. 김동호(金東鎬)총재권안대행과 합석재(咸錫宰)사무총장 등 53명은 원정연시를 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이만실(李萬實)의상이 참석한다.

●최광숙기자 bon@kdaily.com



평양으로 떠나며-4인의 포부

“南北 화해 협력 새길 열겠다”



최재소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려 최고난국자가 북쪽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에 직접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지난 반세기동안 불행했던 민족사를 청산하고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동안 역사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다. 수행된 친선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대동심을 충실히 보좌함으로써 정상회담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천길 같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긴세월 평화와 남북 공동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문화체육교류 활성화 계기로”



최현원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께서 평소 주강한 대로 이제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없이 서로 교류, 협력함으로써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과거 뇌손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을 만났을 때나, 동서독 정상들이 만났을 때도 그 당시에는 큰 성과가 없었으나 오늘의 중국, 북유럽 동서독에 이르렀다. 두 정상이 악수하며 웃

는 사진 한 장이 새겨진 회담의 광화문시대가 될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체육 관광 연교교류가 다량 성취돼 통일의 길에 기여하겠다. 상호주의는 고집하지 않겠다. 북한측 과다나와 북한의 요구를 문명화 발전에 대한 보전과 방금도 추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상호경복사를 다시 만나 회담 이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추진 지원하고 있다.

“南北문학전집 공동간행 추진”



표병국 예술원위원장

“동일문화전집”의 공동간행을 북한측과 협의하고 있다. 남북 북의 인연뿐 비롯한 문화 교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학전집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년부터 문예진흥위원 중심으로 작업에 들어갔지만 남북간 공동작업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문화예술은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편이 아니다. 신대방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남북간 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편에서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의 남북교류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연극협회와 협회내에 남북 연극교류특별위원회를 두고 북한 연극인의 시골연극제 참여와 화승삼로지인의 참가 등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공연 예술계의 이같은 계획을 진

단하였다.

“민간교류 확대 힘쓰겠다”



표희길 민회협공동위원장

방북 대표단 중에서 역사와 전공자는 나 혼자 밖에 없다고 한다. 학자가 학문적 심정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역사적인 경험을 후학에게 전파하길 바란다. “평화를 향한 여정”이 후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민간인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인역에서 교류

와 협력이 활발하면 양측의 통일장세도 그 모양 위에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다. 이를 위해 “민회협” 공동의장으로 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만 배후남적으로도 독립적으로도 오지 않는다.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차츰차츰 올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시대의 역사적 중점시대의 역사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다. 이를 시점으로 통일만 한반도를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

한겨레

2000. 6. 13 (화)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여

수행하는 박재규장관 기고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장으로 오셨다. 이번 방문은 분단 이후 최초로 우리측 최고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임 뿐 아니라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친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평화와 민족대단위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개성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불행했던 민족사를 청산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동안 천 길 같은 역사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참무량사들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대동원은 직접 친척 대동원 등 가계 연대와 의견

을 나누는 동안 이번 정상회담이 법국민적인 지지와 협력의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제 시작이라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간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화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우리 수행된 친선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동원을 충실히 보좌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박재규 통일부장관

# “한반도 취재라면 내가” 베테랑 기자들 서울 집결

## 2000.6.13

### 평양가는날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본대출판)로 모이는 외신기자들 중에는 내로라 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많았다.

12일 현재 프레스센터에 등록된 외신기자는 26개국 507명. 이중 외신으로 평양에 들어가 첫 TV 중계를 했던 미국 CNN방송의 마이크 치노이와 평양에서만 10년 이상 상주했던 중국 신화통신사의 가오하오롱(高浩榮) 등은 손꼽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 “최담연기 놀람 일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자 뉴스행운이 대단히 높은 회담”이라고 평가하면서 관심분야에서는 자극 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신화통신사의 가오하오롱은 북한을

오래동안 취재해 배타적으로 회담연기에 대해 “진짜 놀람 일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회담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가장 먼저 입국한 외신기자 가운데 한사람인 CNN의 치노이 기자는 한때 지인과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현상들을 찾아다니며 외곽을 취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AP통신사 자회사인 APT뉴스 아시아담당 편집인으로 5년 이상 아시아지역을 누빈 덴 피너드는 12일 “미국은 안보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문제와 남한 기업과의 기업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지도 그의 정상회담 관련 포인트.

일본 아사히신문의 사이토 준(齋藤 純) 기자는 현재 일본에서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꼽고 있는 북한 핵 및



마이크 치노이



가오하오롱



덴 피너드



“여기는 서울”

12일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한 일본 방송기자가 남북정상의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사이토 준



마크 피로

미사일 문제와 남북 일본인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일본입장에서는 두 정상회담이 이산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에 맞 미사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도적 측면에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의욕으로 남아있는 남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년만 남게 출간에 상주하고 있는 영국 BBC의 아시아지역장 마크 피로는 회담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 강국 사이에 미갈 연합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 4핵과의 역학관계 주목

그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BBC로서는 이산가족 재회와 남북간 경제협력문제 외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반도의 경제 변화가 국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식·선대인기자) kimg@donga.com

## 회담성과파라 ‘보안법 논란’ 불거질듯

### 법규범과 현실사이 괴리

### “대통령 訪北은 문제안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원천 국가보안법상 “국가안전에 현 위해”라는 김정은(金正恩)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를 “국가보안법상”인 김정은(金正恩)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 약속을 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또 자라에서 인사로 북한 주민들의 순수한 모습과 한국을 방문했던 고대(高代)의 뛰어난 기술을 “감탄”했다.

국가보안법을 직접 논리적으로 적용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외국 통신과 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명목으로 했다고 따지는 것은 합리대로 난센스다. 기본적으로 이번 방북은 “법”을 초월한 “외교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고 통수권자의 방북행위가 사법 심판의 대상이나 이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 이의가 없다. 그러나 “보안법”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국정감사위원회 국면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하면 법의 잣대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 공평한 의견이다.

물론 현행 법률에 따라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법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국의 허가를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북한 권력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어 서울을 방문해 “국가인수”의 내습을 받고 거리거리에서 환호 인파가 몰리게 되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으로 내포되는 ‘규범’이 서로 충돌을 겪는 상황이 “하기 때문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 민간 통일운동 발걸음 빨라진다

### 종교계 재야-시민단체

### 남북 공동행사등 추진

정상회담을 맞는 민간단체들의 발걸음도 부산하다. 가장 활발한 쪽은 재야에 뿌리를 둔 자주평화 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통일운동 단체들.

해마다 8월15일을 즈음해 통일운동을 벌여왔지만 이보다할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들 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화협 김창수(金昌洙) 정책실장은 “6월21~25일 제1회 청소년 통일원마당과 6월25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7개 종단과 민화협이 공동개최하는 ‘온가네 평화대행진’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이들은 나아가 남북이 함께 개최하는 통일맞이 행사들을 추진중이다. 7월1일 7·4남북공동성명 채택 2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8월12~15일 ‘2000 온가네 통일대동제’(가칭)를, 8월15일경 남북정당 사회단체 공동회의를 남북합의하에 없기 위해 준비중이다.

여성단체연합은 6월16일 전국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입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 8월~9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한과 일본이 함께하는 여성단체 활동을 펼친다. ‘평화야 만드는 이심화’도 남북 화해를 위한 여성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민화협 박용삼(朴容三)고문은 “북한에서 만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도 통일에 선전의 뜻으로 반기고 있었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믿는다”며 “남은 것은 국민의 통일인식”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e@donga.com

### 연설문-北자료 최종 검토 李여사와 뜰 거닐며 사색

金대통령의 출발전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방문을 하루 앞둔 12의 청와대 내 녹지원을 산책하며 구한말 선조들의 잠복된 신념이 후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겼는지를 생각하며 삼남에 갔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이번 평양강에서 무엇을 해야 민족과 후손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민족 융합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는 것이 박승연(朴勝彦)정보수석비서관의 설명이다.

이번 방남이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고 민족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각오도 다졌다는 것.

김대통령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를 김대통령이 그만큼 성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이희호(李姬鎭)여사와 함께 김대중 산책하며 삼남의 시간을 가진 것도 그 때문.

연못에 둘러 불고기 먹이줄 주기도 했고 오랜만에 녹지원 벤치에 앉아 관지에서 키우는 진돗개 치용과 나리들 쫓다들어주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오후에는 각종 연설문들을 다시 한번 숙독하고 북한의 봉봉이나 지집, 주요 인물들에 관한 자료도 재검토하는 등 심무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한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평소보다 배가 넘는 하루 평균 100~150건이나 올라왔다. 한 일본인(50)은 "한국의 분단이 과거 일본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사죄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영목기자〉  
ymook@donga.com

### "55년만의 남북정상 만남 민족 장래에 大轉機돼야"

金대통령 무슨 연설할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 그의 최근 발언과 정부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DJ의 평양 발언을 미리 들여 보았다.

▽단독 정상회담(13일) 일리는 단독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한 '기조연설'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연설에서 김대통령은 "55년의 적대와 민족을 돌아볼 때 남북의 장상이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역사적 대전기"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희생과 손상을 생각할 때 이번 회담이 민족의 장래에 봉사하는 길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란 게 정부관계자의 전언. 각본번호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98년 대통령 취임사와 3월 베를린자유대학 연설 등에서 방한 대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상봉과 생사확인을 시급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및 단독정상회담(14일) 13일 회담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지만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게 시골 방문을 제의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 관측. 아종리 이남 회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경감시키는 것이 남북관계 등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수사법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우려를 진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의 행사 13일로 예정된 북측 주최 만찬과 14일 김대통령 주최 만찬에서는 '적대와 민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선언적인 화명을 구사할 것이란 게 정부 의전관계자들의 예측.

〈박재균기자〉  
phark@donga.com

### "역사적인 날" 관심 2배

DJ가방송속엔?

### 北정보 메모 노트-위성통신장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들고 갈 가방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 대통령들은 해외 출장시 '해가방'을 들고 다닌다. 10~20kg짜리 해가방을 들고 요원이 2시간 동안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전방에도 임박에서 대기한다. 비산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해가방을 열고 압도에 따라 핵안수를 누르는 것이 이들의 임무.

물론 비핵보유국인 한국의 김대통령엔 해가방은 없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불확적인 중대 사태에 대비한 '비상수단'을 가지고 갈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와 직결 관련이 있는 곳과 언제든지 비상 연락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통신 장비는 대통령의 필수품이 될 것 같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이 위성통신이 2400여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우리 원공위성 '아리랑 1호'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김대통령은 또 평소 가방에 한두 권의 노트는 꼭 챙겨 다닌다. 평소 '메모록'인 김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정상회담 준비를 할 때에도 깨끗한 글씨로 꼼꼼히 노트했었다는 전언이다. 북한 관련 각종 수칙과 과외 수업 내 용까지 적혀 있는 이 노트가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의 '지혜 보따리'가 될 전망이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비행기 조종사는?

### 영관급 '탑진' 추정- 신원은 극비

"탑진이후 처음 북한 영공에 침범적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누군까."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로 평양에 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대통령이 아니다. 바로 김대통령과 수행원 및 기자단을 태우고 비행금지구역 을 넘게 되는 비행기 조종사다. 이는 비행기 조종사가 탑승해 귀서보다 앞에 있기 때문.

이번에 북측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공군 1호기와 아시아 민간 항공기 등 2대. 김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수행원 및 기자단은 아시아나 항공기를 이용한다. 하지만 항공기와 조종사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안에 가려져 있다. 다만 공군 1호기의 경우 공군대 최고의 비행시간을 자랑하는 영관급 '탑진'(최우수 조종사)이 분담하고 아시아나기도 '노드 1' 임무를 전담해온 베테랑 조종사가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일체의 세부 사항은 김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북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이 된 상태.

따라서 어느 비행기가 먼저 '비행금지라인'을 넘게 될지도 현재로서는 비밀에 해당한다. 분명히 사실은 두 비행기의 조종사 중 한 사람이 맨 먼저 북한 영공에 진입할 것이라는 사실. 정부 관계자는 "조종사의 신원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즉시 교체된다"고 말했다.

〈윤영천기자〉  
yyell@donga.com



# “공동투자 즉각가동 제도정비 차근차근”

金鍾國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도로연결 물류비용-시간 절감



우선 국내적으로 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임부에서는 김계를 북한에 대한 우편적 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김계는 상호 이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초국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상호주의로 김계협력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대북 사회경제협력(SOCC) 김계에는 상당한 공간 제원이 필요하지만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적 측면과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도로나 철도가 연결되면 유입이나 내수가 왕래는 물론이거니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담에 투자인강, 이강과 새, 천강조점, 대금강계 방식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 남북협은 92년 교역협력 투자협약이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계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후 경제협동의 가능성 등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전기가 마련되면 미국도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남북 관계의 수순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룬다고 나가면 한반도 경제협력의 동력이 김계협력의 중추적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희철 수송업은행 선임연구원

## 러·中·日 商圏 연결망 구축을



남북협정의 필요성 드러면 우선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5월 북한이 개성공도 '외국인투자법'을 적용 대상으로 남한노동의 해외노동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처럼 '대만노동 투자장려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든지, 기본법에서 제재를 대상으로 한 범위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의 위계는 북한이 전역이나 예외지역(사단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쪽은 동북 SOC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철도연결이 가장 현실적이다. 특히 북한과 남한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한반도의 협력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일본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외자유치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자본주의의 구 사회주의 상권의 연결 고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다.

북한 돈이 적게 되고 북한에 체제 개혁과 연결성이 낮은 사업부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쪽은 때가 날아오고 북한은 때가 있어 고기잡이할 때가 있다. 수산협력을 통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0. 6. 13



## 남북 경제협력 이렇게 풀이라

北경제 전문가 5인 조언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의 북한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남북경제협력에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긴장한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SOC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어떤 협력에 가능하고 그것이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들어왔다. <경제부·금융부>

金丁均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실장

## 서해안에 특구설치 바람직



긴장한 의미에서 김계의 불을 날기만 사회주의 체제내의 '자본주의 싹'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진 실험특구는 진정한 경제특구라고 말할 수 없다. SOC 시설이 부족하다. 자본주의의 이해하면서 권한을 갖고 기업

의 애로점을 개선해주는 북한측 카운터 퍼드너가 없기 때문에 상해였다.

중국의 선전(宣傳)특구가 왜 성공했는지 연구해보면 경제특구의 조건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역 도로 등 SOC가 갖춰져야 하고 확실한 배후지대와 수송망이 있어야 하며 경제단구의 확실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는 서해안에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해안에 특구가 설치되면 한국관광과 토지공사 등 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관광조선 및 SOC를 건설해야 한다.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에 상생의 생산,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특구를 만들 때 대민기업용 임대용이 위해 제정한 '대민노동 우대법'처럼 북한이 한국기업용 임대용이라는 단 하나의 정책이 필요하다.

洪之博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실장

## 정부-민간 역할구분 확실하게



우선 북한의 SOC에 대한 원조성 경제협력에 이루어져야 남북간 수평적 협력에 가능하므로 SOC 투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전방되어야 한다.

남북협정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구분이 명확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원성 사업과 프로젝트형 사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형 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총체적 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거의 형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남한의 시장수요를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지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통합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평선이 되어야 한다.

사회 내각 진출 기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명하는 변치 중의 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적으로 남북협정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대북 변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黃義正 금융통화위원

## 경공업 이전-관광사업 협력을



남북협정의 내일적은 남북한 상호 이익성이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는 사양산업이지만 북한에는 값싼 소비재 위주의 경쟁력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본체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두번째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가공무역의 확대하는 것이다.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공 무역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발전과 위해 불유용을 시장이 화충이 불가피하다. 일반 불유용의 이동만 아니라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장과 중도 시장이다.

넷째, 남북한을 연계하는 경제프로젝트의 개발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등이 남한의 관광지와 결합되지 못했다. 북한의 묘안 산 백두산 금강산 등을 남한의 기업이 협력한 관광산 등과 연계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김계에 앞서 우리가 북한에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투자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재원조달-SOC지원 급선무

## 남북교섭 잘 진행하려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는 정상회담 기간 중 남북정상회담을 촉진하는 단초로 중요적으로 논의될 핵심 화두다. 경제 분야는 남북간 교류 확대의 성과가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때문이다.

남북 모두 김정은 가는 기세가 크지만 과실을 나누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김정은은 '남'과 '재', '도', '사'의 문제를 귀찮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남북 상생(相生)의 역사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3대 과제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재원 조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패자가 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채택한 '마셜플랜'의 한국판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 마셜플랜식 지원 자생력 키워야

▽김정일 당원 목표는 '북한 경제 기력 되살리기' 북한 경제난의 특징은 각 분야의 낙후성이 원인이지만 경제 전체의 긴장감이 반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 에너지 식량 교통 통신의 총체적 난국이어서 어느 한쪽만 손을 쓴다고 해서 순회해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내 전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 생산 가능성은 30%에 불과하다. 북한의 전력 시설 생산용량은 총수요와 맞먹었던 630만kw에 이르지만 실제 발전소 가동률은 20~30%선.

따라서 북한 경제난을 푸는 해법도 단순한 각 분야의 연결 고려만을 찾는 유효성 요인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허무

조류 한꺼번에 치유하는 종합적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자금흐름사 홍시선 북한상정장은 "남북 농업의 이익을 노리는 응급 처치 개념의 지원으로는 남북교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마셜플랜의 예를 본따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중과세-분쟁 방지 협정 필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북한은 지난해부터 외국투자관련법을 본격적으로 개편해 9년여만 11개의 규정을 고쳤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임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내 기관에서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북한이 투자 유치에 발맞고 나섰지만 이미 개혁의 외채를 제때 감지 못한 '전과(前科)'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 한국은행 김주원 북한경제팀장은 "최근 들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회원국이 되면 미국 일본 유럽의 민간 기업들도 대북한 투자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쟁은 국제기구의 경우 자금 제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북한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단기 자금 공급처로는 적당치 않다는 점, 이에 따라 SOC 투자의 대가로 원물 등을 환물로 받거나 자금 제공업체가 관공지 압정료 수입을 일정기간 받아 회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안정하고 투자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분쟁조정절차 투자보장협정 등의 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원재기자) parkwj@donga.com

# 도로보수·건물벽 색칠 평양시내 대대적 정비

"정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은 북측의 준비상황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은다. 북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소한 것까지 챙기면서 갖은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임박을 하루씩 순연한 것도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라는 얘기다.

북측은 우선 평양시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파인 곳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은 북측 건물의 마감벽을 새로 칠하고 간선도 정비하는 등 깔끔하게 단장했다고 최근 평양을 다녀온 인사들은 전했다.

평양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정상회담 기간에 평양비탈을 떠나도록 하고 지방주민들의 평양출입도 통제한다는 전언이다. 김대중 대통령 원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문제를 고려한 조치인 듯하다. 북한은 또 남북 대표단이 귀국에 이르기 전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도 일제강점기 보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기념주목처럼 깨끗하게 정비했다.

남측 대표단을 위한 배려도 세밀하다. 우선 안내명석을 1대 1의 맞춤감시원에서 집단안내방식으로 비웠고, 남북 대표단이 작은 상의표시로 신발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맞게 받았다.

## 北 준비 어떻게-

외국인·지방민 출입 통제  
경호에도 세심하게 신경  
박대변인 "정성다하는듯"

다. 남측 인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부드러워졌다. 대표단이 북측 숙소에는 방마다 비탄 여장을 깔고 살롱(스킨소프) 장크림(명크림) 등 세면용품

일체 갖춰놓았다. 신발대로 평양을 다녀온 시영과 몽골부 국장은 "신발대가 평면한 길을 이어가하면 북측은 즉각 이를 시정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매우 우수적이고 적극적이었던"고 밝혔다. 회담장과 관공지 등을 모두 북측이 세심하게 단장한 실태를 밝혔다.

북측이 이처럼 정성을 쏟는 것은 이번 회담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굳다는 것을 입증한다. 남북교섭의 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회복이나 국제무대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김 국방위원장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의 언론매체들이 회담개최 발표에서부터 준비·실무자 접촉은 물론 교섭본 진담대원의 시찰 도착시점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소상히 전한 정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 김의남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반 외교통부 장관도 "신방대의 말을 들어보면 의견에 있어서도 국제적 관례에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의 취지를 맞춘다는 마음이 감탄을 분발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김 대통령의 회담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회담개최 전날인 12일 "북한도 심의할 차례 회담을 준비해왔다"며 북측의 성의에 감사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성은 지난 4월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이후 65일 동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남측은 그동안 실무회담과 실무자 접촉 신방대파견 남북관공의 대외 대응 등에서 회담을 준비해왔으며 (가짜)이러한도 고성을 많이 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과 북은 회담 준비를 위해 긴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임박을 준비해왔으며 준비가 탄탄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 "北 근로자와 신뢰쌓아 사업 성공"

## 유원임 IMRI 회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침중어 말했다.

그는 남북교섭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쌓여야 할 과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북방에서 만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교섭이 표면화돼 남-북자원에서 적극 지원 제공 것과 북한도 기업의 자생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유회장은 "남북교섭의 코스트(비용) 가운데 불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며 "업무에서 겪어낸 점도 북한 등 거창한 구상들이 나오지만 시장은 판문점 을 통해 회담만이라도 자유롭게 이르면 남북교섭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북한 진출 기업인으로서 기대하는 것이 오직 많습니까. 그러나 욕망을 버려야죠.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만 확인하더라도 회담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유원임(俞元任·37·사천)은 IMRI회장의 겸직은 새롭다. 그는 남북이 모두 참여하려는 남북협력사업에 "고집"하라는 지명과 3년 만에 남북교섭의 심판관으로 떠올랐다. 98년 평양 현지에 김유니를 끌어들여 남북 협력사업(FCB) 생산공장을 설립해 지난해에는 120억원의 매출을 올려 눈부신 성장을 이룬 뒤이다.

유회장은 "IMRI의 성공비결은 북한 근로자들과의 신뢰감에 있었다"며 "적당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이점이 가장

# “우리나라 지도 한 색깔로 칠하고 싶어요”

## 초등생들 정상회담 하루전 대통령에 편지

“저는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마다 남한은 파란색, 북한은 빨간색으로 칠해요. 한 색깔로 우리나라 지도를 색칠할 수 있으면 해요. 가서서 북한 내 풍광에게 말씀 잘 하세요. 그리고 2박 3일이어서 피곤하신 테니 약간약간 쉬면서 하세요.”(유여진)

### “북한말 배웠으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경동 덕수초등학교 5학년 1반 국어시간.

고사리 손에 인quil을 아무지 게 쥔 어린이들이 13일 평양길에 오를 대통령께 크고 작은 바람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있었다.

어린이는 최근에 재미있게 보았던 평양 교예단 얘기를 꺼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문화를 신기해 하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문화를 신기해 한다...”

지명이는 “남한은 북한말을,

북한은 남한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봉인이 돼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라고 했다.

같은 시간 4학년 3반 아이들도 지우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며 또박또박 편지를 써내려갔다.

주로 북한의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혜진이와 준성이는 “북한에 틀과 만나 좋은 친구로 같이 공부도 하고 놀고 싶다”고 썼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편지쓰기 시간을 가진 6학년 2반 학생들은 교학년답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떠올렸다.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전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전망대에 다녀오셨는데 힘들게 가신 할아버지는 안개 때문에 북한 땅을 못보고 돌아오셔야 했어요...”

(이소정)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의 친척들을 만나길 빌어



요.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만나다면 회복되실 거예요.”(이현진)

### “신의주 가는 꿈꾸요”

윤준이는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2009년 어느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형 테제베를 타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달리고 있다. 경의선이 다시 연결된 것이다. 나는 꿈꾼다. 끊어진 철도가 이어지고 기차가 다시 달리는 꿈을...”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 오늘 평양 흐리고 바람분다

### 조선중앙TV 일기예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평양의 날씨는 남서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예보했다.

중앙TV는 이날 일기예보에서 “내일(13일)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에 있는 고기압과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약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면서 “평양시는 남서풍이 3~6m로 불고 점차 흐려지겠다”고 말했다. 또 평양시의 최고기온은 29도, 최저기온은 15도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시해는 북서풍이 불다가 다시 남서풍이 5~8m로 불고 물결은 1~1.5m가 될 것이라고 중앙TV가 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65세이상 실향민 무료진료

### 고려대 구로병원 13~15일

“고향 땅 밟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박용균·朴容均)은 13~15일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65세이상의 실향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행사를 펼친다.

이 병원 진료의뢰회송센터(02-818-6488)로 호적등초본 등 실향민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와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는 환자는 병원 내 각 과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진료받을 수 있다. 박원장은 “조만간 고향땅을 밟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복讎 가족들을 만나길 기원하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 온겨레 “함께 땀시다”

## 부담적은 분야라 정상회담서 합의땀 금물살 탈 듯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그러나 그 ‘한걸음’은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첫발을 딛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스포츠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이미 남북한은 90년 통일축구와 91년 세계탁구선수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각각 이뤄낸 바 있다. 그만큼 남북경상이 합의만 한다면 손쉽게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김대중정부는 남북체육교류에 있어 철저히 ‘민간 당사자 교류’를 원칙으로 해왔다.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지는 것보다는 체육단체나 민간인들끼리의 교류를 권장하고 돕는 입장.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그러나 남북경상이 체육교류에 합의한다면 이후부터는 정부가 전면으로 나선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체육분야에서 남북이 쉽게 의견 접근이 가능한 사안은 △중독병 교환경기 △단일팀 구성 △2002월드컵 분산 개최 등이다.

▽단일팀 구성=10월 아시안컵 축구가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 북한은 예선 탈락했으나 이와 관계없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승인한 바 있다.

### 기대 큰 남북 스포츠교류



11월 열리는 아시아청소년(19세 이하) 축구선수권대회도 예선 통과를 전제로 비슷한 경우다. 2001년 오사카세계탁구선수권 단일팀 구성은 이미 91년 지바세계선수권대회 사례가 있어 그 가능성이 크다. 2002월드컵 단일팀 구성도 변수.

▽교환경기=통일축구와 경평 축구 부합, 통일농구의 대표간 경기 등이 꼽힌다. 대한유도회는 이미 12월에 개최되는 서울크리아컵에 북한을 초청했고 탁구협회도 8월 제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호프스대회에 북한을 초청했다. 이밖에 농구협회도 올 농구대잔치에 북한팀을 초청할 예정.

▽2002월드컵 분산 개최=한국

에서 열린 2002월드컵 32경기 중 2경기를 북한에 배정한다는 것이나 현재까지 북한은 소극적이다.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한국 일본자본의 북한 유치와 연계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동시 입장=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최근 남북 두 정상에 서한을 보내 동시 입장을 제안했다.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타=육상 사이클 등 남북을 오가는 역전경주대회와 서울 사람들의 평양시내 걷기대회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마라톤선수의 합동훈련을 여름 개마고원, 겨울 제주훈련 식으로 가 잡 수도 있다.

▽정부 입장=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체육분야의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으며 모든 것을 백지에서 출발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특히 협상 상대인 북한의 생각을 들여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가일부한다는 것은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김화성·김상호·주성원기자〉  
mars@donga.com

### 특이일보 자료사진

‘이 감격을 다시 맞볼 수 있을까.’ 91년 지바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벤치에 앉아 있던 남북 선수단이 환호하고 있다.

### 남북 체육교류 현황

|          |                                   |
|----------|-----------------------------------|
| 90년 10월  | 남북 통일축구대회(평양-서울 교환경기)             |
| 91년 3~4월 | 세계탁구선수권대회남북단일팀구성-참가(일본 지바)        |
| 91년 5~6월 |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구성-참가(포르투갈 리스본) |
| 99년 8월   | 남북 노동자축구대회(평양)                    |
| 99년 9월   | 남북 통일농구대회(평양)                     |
| 99년 12월  | 남북 통일농구대회(서울)                     |

# 남북정상 오늘 드디어 평양대좌

## 金大中대통령-金正日위원장 분단 55년만에 정상회담 金대통령 오전 출발 "한민족 공동번영 길 찾자"성명

세계의 이목이 온통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분단 55년만에 민족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12일 평양에서 열린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李喜德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서울을 출발

관련기사 3-4-5-6-10-21-22-23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 2933일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정일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1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순안 공항에서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

자"는 내용의 평양 도착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앞서 방북한 서울 공항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북측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 그래서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박준경 朴俊卿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황정미기자) **오늘 남북정상회담→2면 계속**



12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김대중 대통령 원측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과 만남이 민족의 숙원의 평화통일을 향한 이정표를 세우기를 바라는 기대가 간절하다.

### 지금 평양은 모든 준비 끝내고

#### 신화통신이 전한 회담전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의 평양은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날씨가 온 도시가 녹음에 빠진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다음은 신화통신이 전한 정상회담 전야의 평양 현지 포경. 같은 민족이면서도 원래가 드

똘었던 한국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 조선 북반쪽은 5월말부터 각종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조선측과 한국측은 치밀한 협상을 통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 체류시 머물 숙소와 교통노선, 참관 장소 등을 결정했다. 역사적인 회담의 안전과 경호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 조선측은 각종 안전조치를 취했다.

평양시 각계각층은 최근 대대적으로 환경정비에 나서 시가 더

#### 대대적 환경정비 - 도로 곳곳 새단장 "귀한 손님맞이" 고직대응 연습한창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김 대통령이 도착할 비행장과 평양시내를 연결하는 길과 개성-평양 고속도로도 이미 깨끗이 개보수됐으며 길가 가드레일도 패인대로 신뜻하게 단장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평양의 조용한 분위기에 최근 몇가지 새로운 모습이 더해졌다. 거리 외 여자 교통경찰관들이 하얀 색의 여름 복장으로 길어 입었으

며, 금수산기념궁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는 영생탑 아래에서 온 중학생들로 구성된 고직대가 손님맞이 음악을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조선선화'는 남북한의 화해를 상징하는 한편의 그림을 게재했다. 이 작품에서 한 조선 소년과 한 한국 소녀는 각각 손으로 주선지를 잡고 있다. 그림은 박두산 한지의 물과 한라산 백담당의 물이 만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배이징=연합)

오늘 남북정상회담→1면서 계속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이번 평양 길에 지금까지 한 민족이 물러 나버려 긴장 속에 대립하다 살아온 관계를 정상하고 민족이 처음으로 화해, 협력, 번영과 풍요의 길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 일정이 비행기를 통해 방북함에 따라 남북간 첫 직행로가 열리게 된다.

김 대통령은 평양 체류기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회 이상의 단독회담을 갖고 3경제협력 스이신가족 상봉 2차 분과 교류 확대 3당국간 대화 3북측 역사 일 문제 등 양측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초빙할 예정이며 이번 첫 정상회담이 순조로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연내에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이 여사는 호담 일대에서 평양 시가지와 고구려 시대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보고 공연도 관람할 예정이며 오찬과 만찬 행사를 통해 북측 고위급 인사들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에는 이현재 李喜載 재경 경제, 박재규 朴在圭 통일, 박지환 朴智煥 문화관광장관과 한광록 韓光祿 청와대비서실장, 이기호 李基浩 경제, 홍인락 洪仁洛 외교안보, 박준경 朴俊卿 공보수석등 공식수행원 및 경호요원, 정부부처 관계자, 재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들 대표단 130명이 동행한다. 신문-통신방송사 취재기자 및 중계요원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 30명도 대표단과 별도의 특별기편으로 방북길에 오른다.

한편 북측측이 외국기자들의 입국허제를 완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취재기자 400여명이 서울로 몰려들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서로 다가서서 '새로운 시작'으로

## 김대통령 회담 구상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씨앗을 뿌린다' 마침내 남측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화해와 평화의 약속을 나누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김대통령은 지난 4월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뒤 85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평양회담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 공존공영·이산상봉 최우선 과제로 제시

### "하고픈애가 다할것" 경험外 교류도 거론

김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구상의 열거는 ▲한반도 평화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한국 대외 등 배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근간으로 김대통령은 그동안 다각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할 내용을 마무리했다.

우선 김대통령은 두차례 이상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준연(朴俊演) 청와대 대변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한 것도 김대통령이 남북의 어두웠던 과거는 물론 미래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모두 털어놓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대통령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우리 민족은 1,300여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다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분단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이질화돼 공영(共有)과 동화(同化)가 어렵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태디 엔드 스타일' 방식으로 정점을 찾아 분단 종식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김위원장과 인식의 접점이 찾아지면 평양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등을 내놓음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천명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간의 정황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포괄적 언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최근 열린 미국 대통령과 모라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의 회담을 통해 북·미, 북·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 것도 김위원장에겐 한반도 주변정세를 심도있게 전하기 위한 예비단계였다.

또한 김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단계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통일을 위한 3단계 방안에서 밝혀왔던 남북연합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통일방안에 대한 양측의 인정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과거 몇차례의 남북대화에서도 선언만 있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에서 기인한다.

그서 김대통령은 인사구서(人事求取)적 접근



통일씨앗 뿌리듯

김대중 대통령이 내외가 12일 청와대 경내 연못에서 남북통일의 씨앗을 뿌리듯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장희경기자

## 긴장풀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 방북전야 청와대 표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평양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인 12일 청와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담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면서 지냈다.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다각도로 해 온 김대통령이지만 53년만에 남북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측을 방문하는 만큼 설레기도 하고 어깨를 누르는 부담

### 이회호여사와 편안한 대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들어

김대통령은 앞서 11일 저녁 부인 이회호(李熙鎬) 여사와 함께 시내 모처에 머물면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생각을 기다렸다. 평양 출발을 하루 앞둔 김대통령의 심경은 "담담하고 차분하다"고 박준영(朴俊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번날 새벽 도착 성명파만한 연성문 등의 손잡을 붙이고 버서실에 넘겨주는 등 의형적인 준비를 마무리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40여분간 김대통령은 이여사와 함께 녹지원을 산책하며,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도 주고 이여사와 남씨, 꽃 등을 화제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관저에 있는 치공과 나라 등 진동계들에게 물과 먹이를 준 뒤 관저로 들어가 이여사와 오찬을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밤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마도 숙면을 취하기에는 너무나 긴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기자

법을 통해 얽힌 남북의 매듭을 풀어나가자는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방문과 문화 체육 종교 언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확산하고 북한측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들부터 논의해가자는 것이다.

교류협력의 중대는 남북간에 공존공영 인식증진과 파시키면서 나아가 전쟁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면서도 김대통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민남' 그 자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상징만큼 비롯해 국민들이 가장 과도한 기대를 수위조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큰 성과가 없더라도 정상이 왕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시지만 뿐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구상에 비해 여전히 북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통령은 분단과 냉전을 넘어 평화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있다.

장희경기자 chwangh@kyunghyang.com

# “하고싶은 얘기 터놓고 다 하겠다”



## 김대통령 '평양구상'은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대통령은 12일 차분한 심정으로 '평양 구상'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구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9일 방북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남 자체는 그동안 상대를 부인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던 관계를 바꾸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분단 55년만에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정상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

### 당국간 대화 정리화 쉬운 의제부터 합의 불신 씻는것이 중요

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설뿐이다. 회담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 놓고 어떤 성과를 얻는다는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동서독간 첫 정상회담 등 과거 역사적 회담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전례와 기대치를 높게 잡았을 때 따라오는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의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요 의제로 내세운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신뢰구축 방안 등 배움된 선언 기초뿐 아니라 핵-미사일 문제 등 미일 관심사항까지 포괄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영(朴準榮) 청와대대변인은 “남북이 모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신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통해 쉽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현이 이뤄지지 않았던 친선을 받지 않고 문화·체육 교류, 경험 등을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부터 합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단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통일 사색’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행길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관을 용서하며 회담 구상을 기다리는 듯 사색에 잠겨 있다. (청와대 제공)

### 정상회담 추진일지

|          |                    |
|----------|--------------------|
| 2000.3.9 | 김대통령 방북선언          |
| 3.17     | 박지현-송호경 특사출발       |
| 4.6      | 정상회담 합의서 서명(베이징)   |
| 4.10     | 평양 정상회담 개최 발표      |
| 4.15     | 정상회담 추진예, 준비위원회 발표 |
| 4.22-5.8 | 1-4차 준비접촉          |
| 5.18     | 5차 준비접촉 실무접촉 합의서서명 |
| 5.31     | 선발대 평양파견           |
| 6.5      | 대표단 명단 발표          |
| 6.9      | 백, 신변안전보장장서 전달     |
| 6.13     | 대표단 방북             |

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쉬운 것부터 접근하겠다는 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겨냥하고 있다. 회담을 2-3차례 이어가면서 성과의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평양회담에 임하는 각오와 소회를 13일 방북전 대국민 성명과 평양 도착 성명문을 통해 천명한다. (최정미기자)

### ●김대통령 제류일정

- 성남 서울공항 출발(출발성명)
- 평양 순안공항 도착, 환영식(TV 중계)
- 평양시내거처 백화원 초대소 도회(기자단은 고려호텔)
- 단독정상회담
- 김정일위원장 주최만찬(대표단, 기자단 전원초청)

13일(화)

- 확대/단독 정상회담(오전-오후)
- 김대통령 평양시내 주요시설과 관림지 방문
- 이희호 여사, 평양신문 돌 방문
- 김대통령 주최 만찬(대표단)

14일(수)

- 평양신문이나 공동성명 발표예정(14일 회담후 발표 가능)
- 김대통령 평양출발(개성-평양 고속도로)
- 판문점 도착(도착성명)

15일(목)

### 13일 평양도착...역사적 첫 정상회담 14일 단독-확대회담...유적지등 방문 15일 합의문 발표...판문점통해 귀국

### ■평양2박3일 일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제류 일정은 평양 도착→회담→만찬→관람→관문장 귀환의 단계로 구분된다.

○방북 첫날(13일)=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효일(金孝一) 의원 등 가족에 이어 청와대 수석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공항으로 떠난다. 공항에 도착해 출발행사를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대통령 등이 탄 특별기 2대가 공항에서 이륙하는 것으로 평양방문 일정은 시작된다. 김대통령은 1시간여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탄다. 이희호(李姬好) 여사와 함께 트랩을 내려오면서 엄접나온 북쪽 고위인사와 반갑게 인사할 나이다.

김대통령은 순안공항에서도 성명문을 발표, 남북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북쪽 지도자에게 호소한다. 이 장면은 남과 북쪽 시청자에게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대통령 일행은 환영행사 후 북쪽이 제공한 차양을 타고 평양 중심부를 지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향한다. 이장을 풀고 북쪽 영접인사와 함께 오찬을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한다.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첫 단독회담은 오후에 열린다. 회담장은 만수대의사당이 유력하다.

이때 우리 국민은 두 정상간 역사적 상봉과 김위원장의 모습을 TV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통령은 단독회담 후 남북 수행인, 취재진과 함께 북쪽이 인민문화공전에서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김대통령은 공식일정을 끝낸 뒤 숙소에서 평양의 첫밤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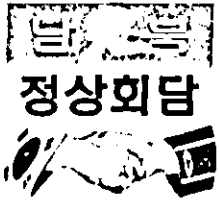
○이튿날(14일)=2차 단독-확대정상회담, 평양 시가지 관람, 유적지 방문 등이 중점일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오후 2차 단독-확대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순서가 유동적이다. 확대정상회담에는 우리측 장·차관급 공식수행인과 북측 각료급이 배석한다. 김대통령은 회담 사이 짬을 내 평양학생소년공전, 평양교에 단 등을 참관하고 공연도 관람한다. 시간대에 따라 평양 근교의 고구려 유적지들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생면으로 유명한 육류관에서 점심을 들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저녁에 북쪽을 위해 닭레민찬을 배운다. 만찬에 김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와 장소는 미정이다.

○사흘째(15일)=남북은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담은 평화선언 또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결과에 따라 발표 여부가 유동적이다. 김대통령 일행은 오찬을 한 뒤 귀경길에 나선다. 2시간만 동안 평양~개성간 고속도로(170km)를 달려 관문장에 도착한 뒤 김에서 남쪽으로 들어온다. (허범구기자)

# 공개석상 동행안해 실제 베일에



金正日부인 김영숙은 누구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李喜浩) 여사의 방북으로 카운터파트로 뜨거워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 위원장 김영숙(金英淑)에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에 관

단상군의 위엄만 장엄한 가운데, 현재의 부인 김의숙의 재혼해 13남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선대의 부인과의 방오, 김정은(金正恩) 조장지도부 간부들과 동기임으로, 김정은의 김정은 김의숙의 방에 들어 전각 김정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의숙은 당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 오는 김정은 부인이 모았으며, 변치한 원로에게서 새운 양이를 먼저 김정은이 지켜보는 듯하다.

지금까지 김의숙의 부인을 보았다는 외부인사는 78년 북한에 남지않아, 황후인 영의숙(金英淑)과 김의숙(金英淑) 등 김소수에 불과하

## 노동당 조직지도부 근무중 결혼- 1남1녀 뒤 李姬鎬여사 카운터파트로 전격등장 가능성도

신이 추리고 있다. 김의숙이 아직까지 공개석상에 부인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김의숙의 모습을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1970년대 초 선전선동부 간부로 김의숙(李姬鎬) 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선전선동부(李姬鎬)는 1981년 지방에 출근에 따른 김의숙(李姬鎬)은 65년 김의숙(李姬鎬)과 연애경험에 첫 딸을 낳았으나, 후일 김의숙(李姬鎬)은 동거생활에 차이로 66년 이혼했다.

은자 생활하던 김의숙(李姬鎬)은 73년 노동당 조직비서가 된 뒤

다. 최씨는 평양 대동강구역의 압록에 있는 김의숙의 사택으로 초창기였을 때 김의숙을 만났다. 최씨는 김의숙의 부인에 대해 '163cm정도의 키에 약간 뚱뚱한 체격으로, 얼굴은 둥글고 청정한 편이었다. 부끄러워하던 케머러에 김의숙이 비위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91년 캐나다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에 김의숙(李姬鎬) 주석 후 김의숙(李姬鎬) 전 여김의숙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김의숙이 지방이나 군 현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 기자단과 수평권이 크게 될 북한 고려호텔 2층이 보인다. 평양의 관공에 위치한 이 호텔 안에 정상회담 진행 소식을 남측에 시시각각 전달할 프레스센터가 설치돼 있다.

지도부 때 부인을 동행했다는 김의숙(李姬鎬)이 부부동반으로 만난 김소수의 증언도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상환기자)

### ■회담입장 보도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방북하는 우리측 기자단이 북측은 고려호텔은 평양에서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특급호텔이다.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창광거리 평양의 왼쪽에 자리잡은 고려호텔은 1985년 8월 연건평 8만4000㎡에 45층짜리 2개의 쌍둥이 건물로 준공됐다. 두 건물 뒷부분은 복도로 연결돼 있다. 객실은 510개, 지하에는 수영장과 회의실, 초음파욕탕, 안마실, 한증탕 등이 있다.

국제전화와 팩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에서는 신선로와 소고기불고기, 평양냉면을 비롯한 조선요리와 동식양식을 맛볼 수 있다. 호텔 마당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 '평양 프레스센터' 고려호텔 2층 직통-국제전화 완비

### 이동 위성중계장비 SNG이용 송수신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원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도 마련돼 있다.

호텔 2층에는 기자단의 정상회담 취재편의를 위해 북측이 설치한 프레스센터가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련 소식은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로 전해지게 된다. 평양 프레스센터는 남측과의 직통전화선(12회선)과 국제전화선(12회선), 브리킹실, 음표대 등을 갖췄고 남북 기자단을 기다리고 있다. 층내에는 식당, 단구장 서점, 영화관, 간담회, 정경명답살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평양 프레스센터와 함께 우리측 이동 위성중계장비인 SNG는 정상회담 주요 장면을 남측으로 생생하게 전달, 우리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선배대는 5일 평양~서울간 SNG 시험방송을 실시하는 등 TV 생중계를 위한 기술적 검증을 마무리했다. 우리측 중계요원이 평양에서 생방송중계를 직접 제작, 무궁화위성으로 초파송하면 서울 평양위성지구국에서 이를 수신, 각 방송사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규기자)

### ■남북회담 수평대표단 소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을 수평하는 공식 대표단과 수평대표단은 12일 첫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 이정표가 되길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기획재정 통일부 장관=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지난 반세기 상호 대립과 불신의 길목을 배우는 절경(絶景)을 놓는 마음으로 지기가 한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

△외교통일 문화관광부 장관=회담 성공을 위해 정상회담 성사의 북측 파트너였던 송호경(宋浩景)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다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이 행사한다면 문화부 장관으로서 북측 파트너로서 만나 관심사를 논의하고 싶다.

△한정국(韓定國) 청와대 비서실장=정상회담이 이념가족의 아픔을 풀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황원태(黃元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국유어양 어가에 부러 있었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기하겠다.

△김민하(金敏夏) 민주평화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두 정당의 민담은 세계사의 진보를 위해 이

## “민족화해 이정표되길” 한목소리

차용일 “가시적 성과에 급급 안해”

차문화 “문화교류 등 관심사 논의”

민족사의 암흑한 소명이다. 두 정당은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은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기대하는 우박이다.

△김용운(金用雲) 대한체육회장=회담성공에 따라 시도나 지방자치 등 주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김만길(金萬吉) 민회협 상임의장=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지 않으면서 양국 국민 사이에 불의의 연기가 확산돼야 한다. 기회가 있다면 평화 재구 기간을 북의의식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겠다.

△이해찬(李海燾) 민주총 정책위의장=회담을 지킴으로 주주 정책적 차원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관심을 가졌다.

△이만구(李萬九) 시민연 의장=남북 국민이 부끄러워 할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무엇이 이익일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정몽준(鄭蒙準) 대한축구협회 회장=기회가 되면 시도나 올림픽과 10일 레바논에서 열린 아시아잔 축구선수권대회 등 양국 구단들을 논의할 수 있고, 대표팀간 친선경기나 국동 4개국 축구대회 합동훈련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인호(李仁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이 안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종석(李鍾錫)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민족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북측 연구자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대의의 장이나 포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은(高恩) 민족문화추진회의 상임고문=분단 50년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그날' 역사적 안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것이다.

△차범석(車範錫) 여운회 회장=평양제류 기업을 남북한 통일문화의장의 공동관장은 북측과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양국 교류와 화해에 공동 협력, 남북 인종차와 배우의 교류 촉진, 남북 합동공연등을 추진하겠다. (특별취재반)

# 가슴 벅차도 '벽돌 쌓듯 차근차근히'

## 정상회담 수행단 소감과 각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향하는 남북정상 회담 대표단은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실망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회계와 문화계 대표들이 강한 희망을 나타낸 반면 정부와 재계 대표들은 비교적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은 "남북정상 회담의 비밀북사로 지금까지 준비가 순조롭게 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 세계 '돌아와 소회 말하겠다' 신중 학계 '문화교류등 추진' 강한 희망

정대통령 수행원들도 입장 모아 "두 정상아 만나는 게 의미가 가장 크고, 비서진이 김대중(金大中)이 어떤 모습으로 상봉할 수 있느냐와 입체 상을 다할 것"라며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재부처 장관으로 처음 벼락치는 이명재(李鳴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대는 기대감보다 무거운 부담감이 없었나"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협력도 성급한 기대보다 하나의 배움을 받아가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며 "민심을 나쁘게 하면 불어는 신뢰의 두께만다 강하게라도 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민주남 김민해(金敏海)상임고문은 "인심이 너무 좋지만 북측의 통일·교육 관계자들과 북남교류 교류해보고 싶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회계·예술계 인사들은 기대가 크다. 차범석(車凡錫) 예술원 회장은 "북측 문화·예술관련 인사는, 특히 연희신용 봉기생원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서, 함께 연주를 하면 매우 진부함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는 평양에서 남측이 작곡 50명씩으로 구성된 '남원문화신선'의 관중 간담 및 연극 교류를 추진하는 막안담 갖고 있다.

## 이해한 민주 집회위의장

## 정상회담 지켜본 뒤 후속정책 마련 최선

개혁과 교육과 고용 등 고적극 보고 싶지만 기업이 돌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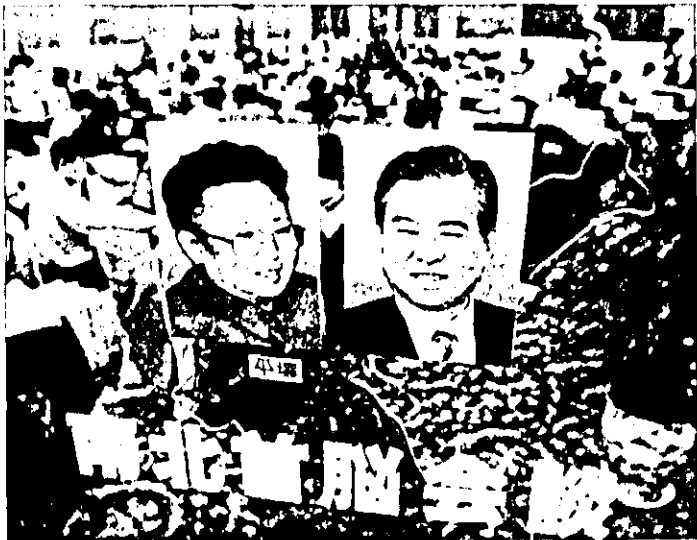
재정연구소 이사장(李錫熙)남북경제발전연구소 "북남문제, 남북경제협력 구원 역사로서 많이 보고 보고 돌아와 국민에게 제대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문정인(文正仁)노동문제연구소장은 "분단 50년만의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계기를 보는 것은 큰 과제"이라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인사장 장문현(張文顯)이사, 삼성 윤종현(尹宗顯)부회장, LG 구본무(具本武)회장,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李在德)고인 외계 회장 "돌아와 뒤에 소회를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재철(金在哲)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부회장(孫炳斗)부회장도 "가시적 성과는 현장에서 회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호(李元浩)사무총장은 "회담을 통해 남북 중소기업의 북해 진출이 이뤄져 향후 경제협력의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남북 중소기업 기술력과 북측 인적자원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식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주남 여대원(李有蘭)상설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의 50년만 기대한다는 소감이 가장 잘 나타났나"며 "회담을 잘 지켜보고 정책시각의 후속 조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만원(池元完)이원(元完)의장은 "경제 개방과 북한 개방을 직접 보고 얘기하고는 좋게 돼 긴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기회"라며 심해를 감추지 않았다.

최우규·이명복기자 (우측)02-820-4000



4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향하는 남북정상 회담 대표단.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이 주위 의 시선을 끌고 있다.

## 南 SNG이용 무궁화호 위성생방송

### 정상회담 방송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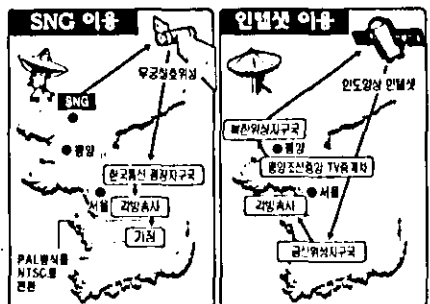
北중계차 촬영·편집  
인도양 인텔 셋 송출  
2가지방식 안방전달

역사적인 장면 남북정상회담은 부분적으로 생중계된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는 어떤 경로로 잘지를 거쳐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될까.

이미 방송관련 인력 5명은 선별되어 포항에 평양에서 촬영중이다. 한국통신과 KBS 등의 기술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위성생중계 장비인 휴대용 SNG(Satellite News Gathering)와 생중계 거대 위성 회선용 송출용 녹화기, 한반도 주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이미 설치했다.

또 지난 5일 SNG를 이용한 시험방송을 성공했다. KBS, MBC, SBS, YTN 등의 수신신선은 안착했다. 평양에는 안도와 생중계 파이프는 인텔넷(International satellite)을 이용한 시험방송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외방송의 생중계 장비는 두가지 경로로 나눠 방송에 전달된다. 하나는 평양에 설치한 SNG 2대를 이용해 무궁화호 위성에 신호를 보내올리는 방식, 이걸 한국통신 공평지구국에서 받아 관화부의 한국통신 PAL/ITC(International TV Center)를 거쳐 각 방송사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한 회선인 이 독자적으로 회선과 편집, 송출



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측은 특히 편집과정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방식은 국내용 TV중계차가 촬영·편집한 것을 북한의 위성지구국에서 안도와 생중계 인텔넷으로 보내주면, 남한지구국에서 받아 각 방송사로 전달하는 경우다. 현재 북한의 TV방송은 PAL 방식, 우리는 NTSC방식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생중계하기 어렵다. 생중계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광수기자 (우측)02-820-4000

# 연설문 손질 준비심혈 청외대 경협자료등 최종 점검 통일부

## ■정부-정치권 표정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행을 하루 앞둔 12일 최종 점검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청외대** 11일 시내 한 호텔에서 북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오전 부인 이희호(李姬浩) 여사와 40여 분간 녹지원을 산책하며 마음의 긴장을 풀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관저에서 진돗개 치롱과 나리에 먹이와 물을 주며 모처럼 여유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어 수석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연설문과 북한 풍물 인물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전날 외부 숙소에서 최종 연설문을 청외대 실무진에게 넘겼으나 이를 다시 꼼꼼하게 손질하는 등 회담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종영(朴政榮)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민시대와 분단, 전쟁 등 민족사를 돌아보면서 이번 평양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과 후손에게 가장 봉사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서실 직원은 특방근무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각 및 서울 상황실과 연락을 취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행을 준비했다. 청외대 홈페이지에는 정상회담 연기가 발표된 지난 11일 150여건의 전자편지가 접수되는 등 네티즌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내외국인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 문제점·보완책 면밀검토

**정상회담 대표단** 사회 각계 대표로 선출된 특별수행원은 북한과 분야별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활발한 대북시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를 행기미 대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했다.

정몽준(鄭夢準) 대한축구협회장은 김평축구대회와 내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등 남북 체육교류의 필요성을 짚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

**통일부** 정상회담에 배석할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 김형기(金炯基) 통일정책실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방북에 필요한 준비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자문과 조언에 즉시 응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남북경제협력, 북한 사회경제상황 등의 각종 자료를 최종정리하고 주요 수치는 알기했다.

정보분석국은 북한 TV와 라디오 방송을 수신해 분석하는 등 북한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양영식(梁榮植) 차관과 이관세(李寬世) 대변인 등 주요 당국자와 대부분 직원이 뭇대호텔 프레스센터 3층 상황실에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중앙청사 4·5층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 소장병에 대기태세 지시

**관련부처** 재경부는 남북경협 주무부인 국제경제과 직원을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로 파견,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 전원에 대해 정상회담 기간동안 매일 오후 10시까지 정상근무토록 지시했다. 대형사고·화재예방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비상근무를 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무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전 장병에 대해 근무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대기태세를 유지토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또 전 장병의 유류업소 출입과 사형성 오락, 각종 모임과 회식도 금지시켰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국장급을 반장으로 남북정상회담상황실을 구성, 정상회담 기간 동안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박지원(朴智元) 장관은 정래연 부회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됐지만 회담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민약에 있을수록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회담성공기원 촛불예배

**국회** 국회 조찬기도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명은 이날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촛불예배를 가졌다. 여의의원은 남북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립을 극복하고 북한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인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리에 아라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예배에 참석, "세계의 모든 유대인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박명환(朴明煥)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

대표단 北체류일정 엿보기

평양도착 金대통령 영접  
김용순 아태위원장 유력

남북정상회담 남북 대표단의 북한 체류일정은 상당 부분이 배일에 싸여 있다. 공극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요건인 경호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해 북한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선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딛을 김대중(金大) 대통령을 북측의 누가 영접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대통령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맞는다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지만 국제적인 외교관례나 북한의 관행과 상충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을 영접할 북측 인사로는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변관실에서 김 조선아·대변회의 위원장이 유력하다. 김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워낙 준비물도 많은 인물이다. 부총리급으로 북한의 대외관계를 주무르는 심재로 알려져 있다.

북한내 시영로 따르면 김 국방위원장에 이어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4위 총리(鄭成勳) 내각 총리가 나갈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형식상 국가원수이고 총리는 내각 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치열에서 김대통령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희호(李姬鎭) 여사를 김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가 영접할 것인 것도 관심사이다. 1994년 정상회담 때는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를 당시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부인 김성애씨가 안내하기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금까지 공식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

추여사 영접도 관심사  
확대정상회담 배석자  
박 문화부장관등 예상  
평양명소 방문도 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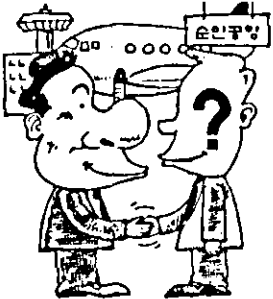
려져 있어 영접이부는 불투명하다. 북측은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정상회담 때에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대통령을 예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역시 성사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두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차례 확대정상회담에 누가 배석할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 남북회담에서 한두명이 배석하게 된다면 남측은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왕권(黃源) 외교안보수석이 유력하다. 북측은 김용순 아태총리와 위원장, 조병옥(趙炳勳)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예상된다.

확대회담에는 박지인(朴智仁) 문화관광장관 등 남북 공식수행권과 북측 총성남 내각 총리, 연영복(延英福) 지경도당 책임비서, 송호경(宋浩景) 아태변회의 부위원장, 한성철 당검재비서, 김능수 내각 문화상 등이 배석할 전망이다.

변화와 이산가족문제, 경제협력 확대, 당국간 대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 가운데 어떤 분야가 최우선 의제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통일완성, 평양지하철, 묘간선, 평양신원, 장강유치원, 평양소년궁전 등 평양의 여러 명소 가운데 김대통령과 이여사가 어느 곳을 둘러볼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입화기자 李在圭 2000.6.13



“평양은 지금 꽃물결”

시민들 서울손님 맞이 진분홍 造花준비

평양주재 러시아특파원

“평양 시민들이 진분홍색 조화(造花)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평양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알렉산드르 발리에프 러시아 이타르타스 평양주재 특파원은 12일 현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직전의 평양 거리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발리에프 특파원은 “평양 시민들은 이 진분홍색 조화를 흔들며 순안 국제비행장에서 평양 중심가로 이르는 기도(街道)에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그동안 손님이 오기만은 준비로 분주하던 평양 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리에프 기사는 “11일 저녁 북한 주요 언론기관들은 남북정상회담 연기 소식을 물론,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서울발 이타르타스 통신 뉴스들 통해 남북정상회담 연기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발리에프 기사는 일요일인 11일 남북정상회담 연기 사실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접촉했으나 북한당국은 연기 사실을 즉각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11일 내내 “관 알려주겠다”고만 할 뿐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12일 오전이 돼서야 “남북정상회담이 13일로 연기됐다”고 이타르타스에 공식 확인해 왔다는 것이다. 또 발리에프 기사는 북한 당국은 연기 사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은 불

문, “북한 측이 24시간 연기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는 서울발 발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번 평양 정상회담 취재가 공식 허락된 외국 기사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1명, 중국 신화사 통신 2명, 중국 인민일보 1명 등 모두 4명뿐이다. 이와 관련, 발리에프 기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비해 외국 기자 수가 적은 사실이다. 이는 ‘기술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답변했을 뿐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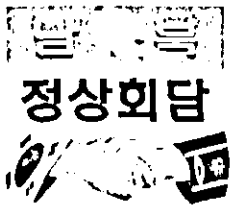
발리에프 기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이 만수산 박물관에 보관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만수산 박물관 개제자와 인터뷰를 12일 보도했다. /모스크바=黃麗華기자

shwang@chosun.com



○지는 11일 중국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한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서신 중 외부에 공개된 최근 사진이다. /韓華 社 資料 사진

# 가는 곳마다 위성전화... 공백 없어



우리 대표단이 돌 선물은-  
DJ, 은제거북선 준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월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을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은제 거북선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이 유람선상 3월째 이탈리아 프 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에게 준 선물이다. 은제 거북선은 가로 10cm X 세로 20cm 크기로 시가 60만~70 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단법인 국민행동회가 김 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선물로써 김대중에게 기증한 진돗개 두마리가 선물되길 관심사다. 진돗 개는 양수 한쌍의 두마리 어린 강아지. 이름은 암컷 '평화', 수컷 '통일'이다. 김대중이 남한의 대표적 명진인 진돗개를 주고 김정일

진돗개 입수 2마리도

문배술 이미 500세트 보내

위원장 북한 국산 풍산개 한쌍을 김대중에게 담배로 내주는 장면이 연출되면 회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차관 등 공식수행원과 문배술 행로도 별도의 선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담배 문배술 농은 평양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평양으로 간 문배술은 총 500세트, 선물용으로 쓰일 것은 100세트(400 개)로 두번씩, 나머지 400세트 (700개)는 1명씩은 우리측이 수 취하는 2차 민찬에 사용된다. 민찬 행사에 참석하는 남북정상과 참석 자 등 200명은 우리 전통 민속주인 문배술로 회담의 성공을 기리게 되는 것이다. 가자나이 공식적으로 북측 안내알에게 줄 선물은 구급 의약품 세트, 의약품 세트는 북한 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인기가 높다는 전언이다. 일부는 개인적인 선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엄청난 선물인 사탕을 마련했다는 후문이 다. (허범구기자)

평양저류기간 내리집 어떻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평 양에서 13~15일 기간 동안 국 정을 어떻게 생각까. 김대중은 남북사에도 각종 침략준비와 관련하여 상황을 염문, 국정공백 을 최대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은 가는 곳마다 그림 자치집 떠나다니는 '지휘봉산' (위성전화)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 준비 장소에서 '에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며 10여회선의 지휘통신 개량 운영에 합의했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 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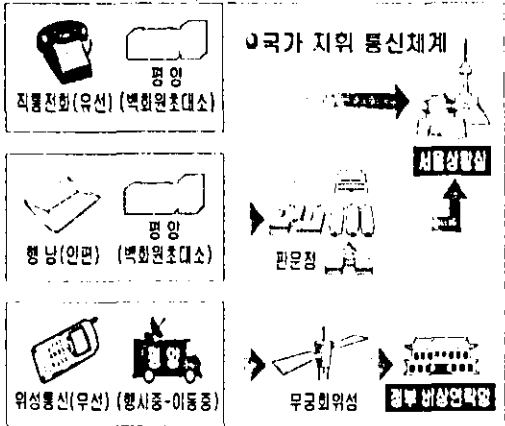
보고-지시 평소와 같아- 국정 전혀 차질없어

속소 백화원초대소는 '간이 청와대' 역할도

화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 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평양~ 서울을 잇는 첫 위성전화기 되는 셈이다.

지휘통신망은 청와대와 총리 실은 물론 국방·안보 분야 관계 지와 군사 비밀통화가 가능한 체제로 알려져 있다.

가스폭발 다리붕괴 등 대형재 난과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김대 중은 즉각적으로 지휘통신을 이용, 관련 부서 장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수립을 지



시할 수 있다. 김대중이 청와 대에 있을 때 다음없는 국정 수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속소로 예상되는 백 화원초대소는 '간이 청와대'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원 초대소에 위기초차원에 해당하 는 '평양 상황실'이 설치된다. 평양 상황실에는 청와대를 연결 하는 직통전화기 운영된다.

현재 북한은 직통전화 회선은 남북직접시지자간 직통전화 회선 을 비롯, 2회선이다. 국제전화

도 개설해 있으나 중국 베이징 을 감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위성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 도 걱정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개인용 위성전화는 북한에 가져갈 수 없다. 인편을 통한 행남으로 보안을 요하는 보고나 지시를 주고 받는 게 유일한 길. 행남편은 관문집을 통해 하 루에 두번 운영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방북기간 중 청와대 와 총리실, 각 부처는 비상근무 상태.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인력 명을 갖추고 특별근무를 하고 총리실과 각 부처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갖추 게 된다.

(허범구기자)

## 역사의 한획... 세계 이목집중

두정상 첫만남 인사법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처음 만났을 때 하게 된 인사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의 인사법은 대중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악수를 하는 경우다. 최근 일본에서 한일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와 김대중은 서로 반갑게 덕담을 나누 며 악수를 했고, 모리 총리가 반갑게 인사할 때 두 정상은 가 비운 인사를 주고 받으며 손 을 잡았다.

김정일 끌어안는 스타일

포옹장면 연출 할수도

두번째로 끌어안는 기법에 맞춘 뒤 악수를 나누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맞을 때는 가볍게 악수만 했다. 세번째로 포옹을 하는 경우 다. 이는 사회주의국가 정상 까리 만났을 때 그런 예가 가 름 있다.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 했을 때 장쩌민(江澤民) 국 가주석과 김위원장이 포옹으

로 우의를 확인했 다.

이밖에 끌어안 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사나 이뤄지는 인사법이나, 외교장관의 관계자는 "그 동안 '직접적인 관계'였던 정 으로 미뤄볼 때 두 장상이 악 수를 하고 가볍게 인사만을 나누는 형식이 되지 않았는 나'면서도 "역사의 한획을 긋는 명사이다. 김위원장이 끌어안는 스타일에서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했다.

(옥영대기자)

# “기체 이상무... 이륙명령만 남았다”



## 정상회담

평양가는 아시아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발족길 특별전세기로 신청된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은 D데이를 하루 앞둔 12일 긴장된 가운데서도 사뭇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대통령 일행은 태우고 평양

## 보안 또 보안- 특별기 내부 극비개조 탑승승무원 이달초부터 격리교육 DMZ피해 서해로 돌아 북상할듯

으로 한화 아시아나항공 특별기는 이미 기체 정비와 내부개조 작업을 마치고 철통같은 보안유지하는 가운데 '이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주일째 김포공항 격납고에서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보잉 737-400기종(사진)의 최종 재배치 작업과 보안-통신시설 설치 등 내부 개조 작업을 바깥에 진행해 왔다.

김대통령이 이용하게 되는 공

군1호 전용기와 북방 전세기에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승무원 20여명은 이달초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청와대 김호담에게 보안교육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특별 전세기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를 번갈아 이용해 왔는데 이번은 아시아나항공 차례라는 것.

그간 경호관계자들이 하도 '극비 보안'을 강조해 아시아나 측은 전세기로 선정된 사실조차

발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아시아나 관계자는 "전 세계에 태극기를 게양한지 어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정보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북으로 가는 첫 직항로는 서해를 돌아 북상하며 관제 인수인계는 서해상공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직선항로도 없지만 서해 항로를 택한 것은 북측이 꺼릴 수 있는데다 화력이 집중된 정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사 관계자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반복하는 대표단을 수혜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 안전운항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구기자)

## 통일독일까지 20년 이상 걸려 한국국민 인내하는 자세 필요

정상회담 취재차 서울에 온  
獨 슈피겔誌 바그너 특파원



가 동방정책을 펼친지 한참 뒤인 1990년에 통일은 이뤄진 데.

△ 독일

"분단후 50여년만에 남북정상이 처음 만나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단번에 큰 진전이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12일 방한한 독일 '슈피겔'지의 국동특파원 비란트 바그너(사진)씨는 분동특정을 설명하며 언론의 보도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국을 10여차례 취재해 한국풍으로 불리는 바그너씨는 주로 도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슈피겔은 1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유럽의 정상급 주간지이다.

다음은 바그너씨와의 원문일단.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언론의 역할과 비교해 이번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한국언론은 어떤가.

△한국언론은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너무 높이기보다 차분하게 국민에게 안내하도록 게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대를 높여 놓고 회담 후 가사적 성과가 없으면 국민은 실망하게 되니까 때문에 '어제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

통일과정을 지켜보면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 왕래, 서신교류 등 인적 통합을 이룬 뒤에 제도과 국가통합을 추구했다. 20년이상 걸렸지만 그것도 반년 통일후 비용이 너무 높았고 사회혼란도 극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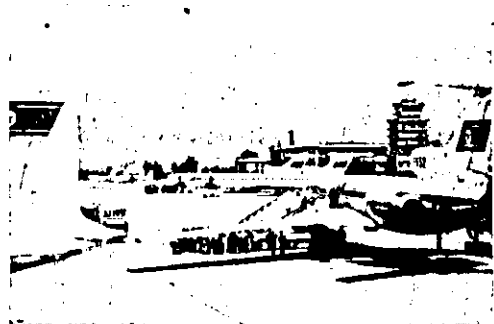
-회담 후 한반도 주변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북한통합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주변국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나라의 언론인으로서 한국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내하는 것을 배우려고 권하고 싶다. 인간적 교류와 이해를 중심으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 및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간 10여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김대통령은 1998년 1월과 9월 2월 두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김용출기자)



## 첫 발 딛는 順安공항 관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남북간 최초의 직항로'를 통해 첫발을 내딛게 될 평양 순안(順安) 공항(사진)은 북한 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평양시에서 북쪽으로 22km쯤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와 경의선으로 평양과 연결돼 있다.

순안공항의 국제선은 1959년 2월 평양~모스크바 노선 개설

을 시작으로 △ 평양시 북쪽22km 거리 위치 평양~베이징 △평양~하바로

프스크 △평양~모스크바~소피아 △평양~모스크바~베를린 노선 등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평양~벨라디보스크 △평양~마키오~방콕 노선을 최근 개설했으나 탑승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93년 3월 개설한 평양~방콕 노선은 승객 감소로 부정이 운항을 하고 있다.

순안공항은 서울의 김포공항처럼 국내 항공노선의 중심축인데 평양~성덕~청진 노선이 유일한 정기노선이며 해산 개천 심지연 여왕 등으로 소형 항공기와 헬기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안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아직까지 완주로는 두개, 재프키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관주장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은 97년 10월 남한 항공사가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할 때 순안공항의 관제를 받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이후 처음으로 98년 3월 대하항공 보유 747호출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위해, 순안공항에 관제대 받은 바 있다. (김형구기자)





# “상호신뢰속 경제논리로 풀어야”

## 전문가 5인이 말하는 남북경협전략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북한진출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분주하기 짝이 없다. 북한진출의 전초적인 중국 베이징 주재원과 북한전담팀 요원을 대폭 늘리고 북한투자 타당성조

사도 광범위하게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북한투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간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무모한 북한투자론 경계해야 하며 남북경협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박상권 평화자동차사장



이탈리아 피아트사와 합작으로 북한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협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을 흡수통합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남북경협에서 탈피, 밀접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 차원의 다양한 경험모색이 절실하다. 남북기업간의 경쟁 유발과 경험 향구 다단계로 인한 시간지체와

과다한 경비가 문제다. 정부는 대북사업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한 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보장장치가 마련되고 이종과 세방지협성, 대금결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 이같은 장치를 밑 바탕으로 남북경협시대가 열릴 것이다. 북한투자는 남북한간 신뢰가 쌓일 때까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추진돼온 위탁가공산업을 확대하고 상호이해도가 높아지면 대규모 직접투자에 나서야 한다. 남북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

### 대기업위주 탈피 중소기업의 청구 다양화 필요 위탁가공업 확대- 투자 보장장치 빨리 마련돼야 육로 경비절감 효과-北산업 지역특화 관심율

내로 들어오거나 제3국에 수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수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 장경욱 주대우 이사



북한이 구 매력은 충분치 않은 만큼 초기에는 원조차원의 지원이 주류일 것이다. 임가공산업도 유망하다. 남북경협은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경험향구를 일반화하고 무모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정보를 공유, 북한

현지의 경영환경에 대한 실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북한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 박영화 삼성전자 부사장



지난해 11월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삼남-조선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협이 성공하려면 육로수송이 가능해야 한다.

### 조영철 前 김일성대학교수



북한은 현재 사회간접자본이나 에너지, 전력 등 생산기반과 통신, 노동력, 제도 등에서 투자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투자를 원하는 업종은 중공업과 기간산업, 컴퓨터 집적회로 IC, 자동차산업,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산업 등이다. 반면 남한에서 제시하는 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노동집약산업이다. 북한 산업은 화학, 합성, 철강-금속-정진, 경공업 신의주-동 지역별로 특화가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호원·류영현·민병오기자)

## 대한매일 2000. 6. 13 (화)

### “회담내용 정확히 전달되도록 최선” “통일의 주춧돌 역할할 것”

#### ■ 吳弘根 국장총보처장 문답

#### 내외신 취재 편의 위해 평양상황 수시로 발표

오승근(吳弘根) 국장총보처장은 12일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대규모 기자단의 보도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우리의 바람이 전 세계에 정확히 전달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 상주하며 1,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느라 취임이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대규모 취재진을 맞아 어떤 준비를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프레스센터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창



구이다. 내외신 취재진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다. ● 외신기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외신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문 데 대한 반응은. 외신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연거푸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고 있다. 정부가 감추는 것이 없다. 전부 얘기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 이도은기자 dawn@daily.com

#### ■ 방북 수행단 소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하는 방북 대표단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얼굴들이다. 이들은 회담이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북 소회를 밝혔다.

#### 사명감 갖고 대통령 보좌

●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 이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통일을 위한 회담과 협력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7,000만 겨레와 함께 내딛는 첫 걸음인 만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갑동서 화해로 전한 노력

● 황원탁(黃源卓)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55년만에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립에서

회해·협력 관계로 바뀌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함으로서 우리 국민이 두 어깨에 달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대통령을 바로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

● 이해찬(李海瓊) 민주당 정책위의장 55년만의 만남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이 가장 적절하다. 정상회담을 잘 지켜보고 두분의 회담이 잘 되도록 뒷받침할 뿐이다. 귀환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 단일팀 구성 타진할 생각

● 정몽준(鄭夢準) 대한축구협회 회장 수행권으로 평양에 가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 북측이 필요로 할 경우 협력이 있을 수 있어 준비는 하고 있다.



한광옥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몽준 축구협회장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기회가 된다면 시드니올림픽과 10월 레바논에서 열릴 아시안컵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팀간 친선경기나 국동 4개국 축구대회합성 등을 타진할 생각이다.

● 주현진기자 jh@kdaily.com

#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이문지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내외신 기자 1300여명이 몰려들어 본격적인 회개경쟁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로 전파할 서울 프레스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컴퓨터 단말기, 전화선, 팩스 등 통신 기자재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프레스센터 로비에 비치한 한국 홍보용 책자와 그간의 남북관계 현황 등을 다룬 보도자료들이 쌓여놓기 무섭게 사라질 정도로 외신기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외신기자들을 위해 연문으로 작성한 이 홍보물은 특히 남북교류현황과 역사,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외신기자들은 2000년 한국의 모습을 소개한 CD롬과 한국의 홍보용 비디오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프레스 센터에는 경찰특공대 요원 2명과 폭발물 탐지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정상회담 관련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사를 쓰고 있다. (서상배기자)

## “여기는 서울” 速報타전 불꽃경쟁

스넥코너에서 판매되는 샌드위치와 음료수 값이 턱없이 비싸 취재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스넥코너에서는 시중에서 2000원 정도 하는 샌드위치를 5000원에 팔고 커피를 제외한 오렌지 주스 등 음료수류 2000원에 팔고 있는 것. 더구나 호텔식당이 매우 비싸 식사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재진은 “국정홍보처가 반값에 팔겠다고 해놓고서는 시중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면 어떻게 하느냐”며 크게 불평. 홍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텔측이 샌드위치를 원래 1만 5000원에 팔아 더 이상 싸게 공급할 수가 없었다”며 프레스센터가 호텔안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

○...롯데호텔 노조원 60여명은 과일 4일째를 맞은 이날도 호텔 본관 앞에 천막을 쳐놓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프레스센터와 관련한 업무에는 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 (이천중기자)

남북관계 보도자료 내놓기 무섭게 동나  
경찰특공대 24시간 순찰- 유사시 대비  
“스넥코너 너무 비싸다” 취재진들 불만

1마리가 조를 이뤄 매시간 행사장 곳곳을 순찰하며 폭발물 테러 동맹단의 불발사에 대비하는 모습. 경찰특공대 파병근 42 계대장은 “10일부터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돌입, 22명의 경찰특공대가 호텔에 상주하며 탐지견과 함께 순찰한다”며 “서울 프레스센터는 전세계에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기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스센터 입구에 마련된

### “한국인 좋은 인상 심겠어요” 프레스센터 ‘침입점’ 도우미 이동국군

“본단 55년만에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해외각지에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2일 내외신 기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서울 롯데호텔 3층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의 외신기자 지원 도우미 26명중 침입점인 이동욱 李東旭·22·한양대 영문학과3 세도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이씨는 외신기자들에게 프레스카드를 나누어 주고 통역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교환학생으로 기었던 미국에서 지난 1일 귀국. 해외지원팀

도우미로 지원한 이씨는 영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을 인정받아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뽑혔다. 컨설팅 사업을 하는 아버지 광훈 49·씨를 따라 어려서부터 대만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덕분이었다. 어린용 적 외국생활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씨는 “여러 나라에서 온 취재진이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향에 따라 통일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중기자)



○유일한 남치도우미인 이동국군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찾은 영국 BBC 기자에게 프레스센터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은성기자)

## 世界日報

2000. 6. 13 (화)

### 13~15일 평양 대체로 맑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씨가 두 정상회담을 방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3~15일 평양지방에 구름이 끼겠으나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회담 첫날인 13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권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

### ○회담기간 평양날씨

| 13일  | 14일 | 15일  |
|------|-----|------|
| ☀    | ☀   | ☀    |
| 구름조금 | 맑음  | 구름조금 |

으나 북한지역에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으며 15일에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권민영기자)

# “첫단추 잘끼워 통일초석 되길”

## “정부는 한번에 이루어달고 여유를... 만남자체 큰의미... 부담주지 말아야”



### 각계 시인들 바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국민들은 손꼽아 기다리던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했다.

특히 한시도 방향의 아픔을 잊은 적이 없는 실패민과 탈북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만을 반드시 성사돼 고향 방문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했다.

1994년 남북한 정상인 전 북한 총리의 시위 강령도 12씨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실패민 상봉 문제만이라도 해결돼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탈북자복지회 이시득 밑고 있는 전 요양선요양소 약국장 허창집(51·96년 귀순)씨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남한의 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공존도

앞당길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탈북자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0여년 동안 북어하고 지난해 석방된 비전향장기수 우용각(72)씨는 “한번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여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자세로 회담에 나서면 모든 문제가 시원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해도 시흥에 처자식과 부모를 두고 왔다는 이의대(77)씨는 “회담이 잘 끝나 생사확인만이라도 했으면 어한이 없겠다”며 “두 정상은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첫 단추를 끼운다는 심정으로 회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희운(34) 사무처장은 “남남 지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큰 기대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통일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적극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손녀 장전아(24·명지대신입공회)씨는 “한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요즘 세대들은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젊은 이들이 많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에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면”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강규환(37) 연구위원

은은 “지난 60년대부터 동방정책을 펼친 빌리브란트 서독총리의 노력으로 30년이 흐른 90년에야 동·서독의 통일이 이뤄졌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독일처럼 통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태·김용술기자)



半世紀 맺힌 한 풀리려나... 장장 50년 맺힌 한이 이제 풀리려나. 6·25때 고향 개성에서 가족과 생이별한 뒤 애끓는 임흥의 세월을 보낸 임선영(85·마주시 문산읍) 할머니. 12일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서울~신의주) 남북 철도종단지점을 찾아온 임흥의 얼굴에는 탐방들과 함께 어느새 눈물이 서려 있었다. (파주=이종일기자)

## 기대와 설렘... 뜯는 지센 실향민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임진각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위안회에는 이산의 아픔을 달래고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은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 살아서 고향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뜯는 마음으로 밤을 지냈으며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사북리 임진각에는 이산의 아픔을 달래는 실향민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줄을 이었다. 개세를 전후한 백발의 실향민들은 철도망에서 ‘뉘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에야로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며 기대에 한껏 부풀 모습이었다. 14후퇴 때 17세의 나이로 부모와 형제자매를 뒀고 고향인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 휘암리에 두 고은 노성환(67·서울광진구관산동)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됐

### 임진각-이북5도쫄음 하루종일 발걸분주 노인들 “마지막 상봉기회” 망향의 눈물

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 정치적 변화가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새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회담 개최소식에 인도의 연호를 내기었다.

○...지난해 사해교정으로 임흥

도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어 있었다. 북한과 불과 1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안평도 어민들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늦게철

민 되면 조업을 하면서도 북한의 남측행동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며 리지 못했다.

○...망향의 한을 안고 사는 실향민인 강원도 속초시 향호동 이바리마을 1070가구 3000여명의 주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진한 향

수에 찾아 있었다. 경수로 공사가 한창인 함경도 산포에 두 형이 있다는 이우선(李維善·78) 할아버지는 “지난 50여년동안 고향 생각과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한숨간도 마음 편하게 삼 수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잘 돼 백골이 됐을 부모님 묘소에 술 한잔 올리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위안회는 하루종일 실향민들의 문의전화에 빗발쳤고 헤어산 가족을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등 하루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개성이 고향인 김복순(金福順·83) 할머니는 상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는지 일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흘렸다. (사회부)



### 귀빈맞는 평양市

북단 반세기만에 남측의 대통령 일행을 맞이할 평양시 전경.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대동강 위에 100여m의 초대형 분수가 힘차게 물을 뿜고 있다. 강변 오른쪽으로 멀리 우뚝 서있는 양동야 건물아 수평선과 기차들이 머물 고러호넬. 사진은 1993년 5월 리호엔겔스 공연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체탑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병식기자)

## 世界日報

2000. 6. 13 (화)

# 전쟁과 평화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 분단을 넘어 통일로...한국전쟁 실상 재조명



한국역사연구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로 50주년 되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 관심을 모았다.

### 한국역사연구회 심포지엄

전쟁과 평화, 사랑, 죽음과 함께 인간사의 영원한 두 화두가 한국전쟁 50주년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항을 앞어 6월 학계를 달구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이 전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대규모 학술심포지엄 '한국전쟁의 재인식-분단을 넘어 통일로'를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열었다.

중외의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주로 정치학계에서 전쟁의 기원·성격·책임론 등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집착한 데 반해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계가 본격 참여, 미국과 구 소련에서 비밀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자체를 탐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정신문화연구원 정운욱 교수 시화로 차려진 이날 행사엔 그회와 평화를 위한 전쟁인식의 과제 도진순·황인태 교수(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정병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한국전쟁기 주한 미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양상에 인종대 박사)·소련의 한국전쟁당과 개입과정 기광사·조진태 교수) 한국전쟁기 한국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양영조·단국대 박사) 등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회로 이어졌다.

도진순 교수는 정보전·특수전·세군전, 담민학살 등 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된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포와 분단의 기억으로부터 해방시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영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준 편사연구사는 그동안 논란으로만 존재했던 전쟁 직전 조선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이것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특히 북의 대남 전쟁계획 수립에 끼친 영향을 여러차례 분석하고 있다.

전쟁기 미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이들의 한국전쟁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 발표한 양영조 단국대 교수는 한국전쟁 시기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 대대급 부대까지 배치돼 군사작전과 병참, 교육, 훈련을 통제했던 것은 유엔군의 작전지휘 체계에 한국군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고 분석했다. 또한 1951년 이후 미 군사고문단 활동의 중심이 군사협력부 양성과 교육 훈련 강화로 옮겨 갔음을 밝히고, 이는 미국이 휴전을 의지한 한국군대의 육성과 확대, 미국식화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련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여기에 개입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구 소련의 1차 자료에 근거해 현충원 기광사 교수는 소련의 소련이 한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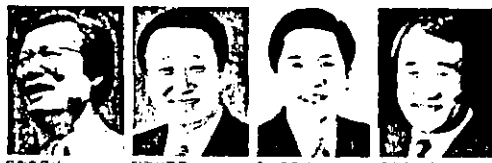
쟁에서 시종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을 연구한 양영조 박사는 한국전쟁을 통해 군이 과대 성장해 평안적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 이후 정치집권에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군의 이승만 체제 프로젝트인 에버렛계획을 본격 거론, 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조성진기자)

## 國民日報 2000. 6. 13 (화)

# 14개교단 만나 통일시대를 말한다

한목합, 정상회담 직후 19~20일 전국임원수련회  
양명식 통일차관 특강... 대북교류 실천적 방안 제시



한목합(왼쪽부터) 양명식(두번째) 김건국(세번째) 이종우(오른쪽)

남북정상회담 직후 14개 교단 목회자들이 통일시대의 한국교회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교회발전과 일치, 화해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경신, 사명을 위한 성립을 위해 출범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회장 목원복 목사)는 19~20일 경기 안성군 서안교회에서 임원수련회에서 제1회 전국임원수련회를 갖는다. 지난달 29일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 교회교신을 주장한 한목합은 수련회 통해

선언 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특히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될 남북교회 교류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수련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초입선에서 준비한 양명식 통일차관이 '남북통일과 한화과 전방'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교회의 통일과 관련된 통념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양명식의 특강은 정상회담 이후 최초의 공식 강연이 될 것으로 보여 내외의 비평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 천년,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목합 신하 14개 교단 목회자협의회 소속 임원 및 교신자들이 김기현과 정병준 목사(남북교회)가 일치, 경신, 화합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강연을 한다. 또한 김건국 목사(성지교회)의

한반도 재건에 살포스 송인호 목사(대수교회)가 실천성을 강조하며 이종우 목사(지구촌교회)와 이종우 목사(14개교단)가 화해, 이종우 목사(고신대)의 양자연구 인도, 이종우 목사(남산교회)의 평화교회, '한국교회, 화합의

새 천년을 향한 의지로 호소한다. 한목합은 수련회를 계기로 일치와 경신, 화합을 통해 남북교회와 천주교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을 위해 지역별 모임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목합은 "한국교회와 천주교의 화합을 통해 남북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우 기자 the3th@naver.com



# 오늘 分斷後 첫 남북정상회담

## 金대통령·金正日위원장 역사적 平壤대좌

### 전용기 이용 西海 거쳐 순안공항으로 “온겨레가 잘사는 길 찾자” 도착 聲明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13일 낮 평양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3·4·5·30·31면  
김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李姬鎭)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3부 요인, 시민 등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해 1시간쯤 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김 대통령은 먼저 김 국방위원장과 1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55년간의 적대적(敵對的) 남북관계를 화해협력·평화공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평양 체류기간 중 김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이상 단독 회담을 갖고 ▲남북간의 긴장해소 ▲남북교류 증진 ▲경제협력의 확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논의해 실현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남북 정상간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또 철도·도로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업기반 개선, 남·북한 간 체육

·문화 교류, 북한의 국제사의 진흥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 차례의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두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김 대통령을 수행하는 재계·언론계·학계·문화계·체육계 등 20여명의 각계 대표들도 북한 측 관계자들과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영(朴準榮)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김 대통령은 서울공항 출발 성명에서 ‘북측에 가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 남과 북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데 이어, 평양 도착 성명에서 ‘남북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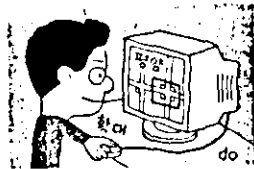
방북에는 이현재(李憲宰) 재정경제, 박재규(朴在圭) 통일,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 장관과 청와대의 한광옥(韓光玉) 비서관, 이기호(李起浩) 경제,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 박준영 공보수석 등 공식수행인 및 대표단 130명과 공동취재단 50명도 함께 참여한다.

김 대통령은 15일 육로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다. 김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발 및 평양 순안공항 도착 행사 등 몇몇 주요 행사는 TV로 생중계된다.

／全民塔기자 baibai@chosun.com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산책을 하던 중 찍어 둔 것이다. / 鄭典塔기자 kyung@chosun.com



### 평양거리 인터넷에

#### 서울대, 지도정보 사이트 개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 지리정보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서울대 지리 및 정보넷 연구진은 12일 평양 지리정보를 할 수 있는

사이트(kins.snu.ac.kr/pyongyang)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평양에 있는 인민군 회공전과 만수대의사당, 개천문, 고려호텔, 김일성종합대학 등 건물 리스트 70개와 평양 지리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건물을 클릭하면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양지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지도에 나타난 건물을 직접 클릭해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뜨게 되어 있다. 서울대 공대 차상군 교수는 “앞으로 형편이 되면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徐敎기자 gyoseo@chosun.com

# 청와대 뜰 거닐며 사색에 잠겨

## 金대통령 訪北전날 표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공식 일정 없이 '사색(思索)과 산책의 시간'을 주로 가졌다. 11일 밤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보내며 평양에서 행할 기초연설문과 만찬사를 직접 다듬어 심부진들에게 넘기고 난 뒤, 12일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오전 11시30분 온갖 꽃과 수북으로 가득한 청와대 내 정원(庭園)인 녹지원을 거닐고, 연못에 둘러 쌓여 등 돌고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희호(李姬浩) 여사와 함께였다. 오랜만에 녹지원 벤치에 앉아 녹지원 주변의 수목과 꽃들을 감상하고, 원저 앞에 키우는 진돗개 두 마리('치음'·'나리')에게 직접 먹이와 물을 주고 쓰다듬기도 했다.

참모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보채던 사색을 하면서 숨가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비공식 일정도 점심 식사 후 수석비서관들의 간단한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김 대통령은 이후 저녁까지 주로 비디오 테이프와 사본 자료 위주의 가벼운 '북한 학습'을 계속했다. 과거 남북회담 때 찍은 북한의 각종 풍물(風物) 사진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의 당·정·군에의 인사(人事)급 지도자들에 대한 인물 일기가 등을 엮었다는 후문이다.

역사적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이번 방북이 어떻게 하면 민족의 정래에 도움이 되

도록 하나에 모아져 있다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특히 1300년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이 100년 전 외세(外勢)의 횡결 속에서 폐쇄와 해국(海國) 태함으로써 일제 식민지와 동족간의 전쟁, 55년간의 남북간

장 등 '질곡(折曲)의 역사'를 거처 있음을 상기하며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영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한 민족의 화해와 화해. 장기적으로는 변명과 통일의 길에 이르는 첫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공존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 김대통령 사고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기자 baiba@chosun.com

### 공식일정 없이 간단히 비서진 보고만 받아 저녁까지 비디오·자료보며 가벼운 '북한학습'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산책하던 중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鄭良均기자 ykyung@chosun.com

## 분주 관련 자료 속독    긴장 통일부 상황실    결의 "역사적 사명감 北상황 수사 체크    비상체제 돌입    대통령 최선 보필"

### 訪北수행진·관련부처 표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하는 10명의 공식수행원들도 12일 바쁘게 움직였다.

#### ◆청와대

한광옥(韓光旭) 비서실장은 이날 아침 방북 전 마지막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평양 체류 중 당장 긴급 비상체제를 가동, 비상사태 국경 운임에 한치의 차오가 없도록 하라"고 선임수석인 김진제(金鎭濟) 정책기획수석에게 당부했다. 한 실장은 "민족사에 연관이 기록된 공임을 위한 화해와 화해의 대장전을 시작하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원덕(黃源德) 외교안보수석도

"부거운 책임을 느끼며,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준영(朴準榮) 공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불포할 트로목 하는 데 온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석은 특히 평양취재단의 취재·보도에 따른 미합의 사항에 관해 평양에 가 있는 김상진(金尙珍) 보도지원비서관과 조율작업을 벌였다.

방북팀의 재계 인사들과 함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타진하게 된 이기호(李起浩) 수석은 종일 관련자료를 속독하느라 분초를 다투는 모습이었다. /국민투기자

#### ◆관련 부처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은 이

날 "그동안 정상회담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하루 순연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산 밑 수 있게 돼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차게 꾸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들 대부분은 롯데호텔에 마련된 정상회담 서울 상황실과 프레스센터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이들도 "이번처럼 통일부가 관심의 초점이 된 적이 없었다"며 사명감에 들뜬 모습이었다.

서울 상황실은 평양의 선발대와 직통전화로 연락하며 북 측 준비상황을 수시로 행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프레스센터는 12일 낮12시 현재 내선 116개사 708명, 외선 185개사 570명 등 1278명의 취재진이 프레스 카드를 신청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이날 외부인사를 만나지 않고 집무

실에서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제도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밀사역을 맡았던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4월 10일 발표 후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밤잠을 제대로 이룰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 회담은 이따기까지 두 정상간의 만남으로, 내 의할은 회담 성공을 위해 최선 지원하는 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상회담 성사의 북 측 파트너였던 송호경(宋浩敬)이내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다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허락한다면 문화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상대 인사와 만나 김시정(金時正)을 논의하고 북 측 의사를 타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洪錫俊기자 udo@chosun.com



# 수행·기록원 2~3명 대동 첫 단독회담

## 첫날 회담진행 어떻게...

드디어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한자리에 앉는다. 2000년 6월 13일 낮이다. 남북 분단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역사는 1970년 3월 19일 동·서독 첫 정상회담(동독의 초석(趙石)으로 기록했다. 이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 시대의 역사적 고지점이라는 시도가 바로 이날 평양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다.

과연 두 정상은 어떻게 회담을 진행할까, 시나리오가 없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안개 속이다. 이러

공개된 각자의 입장을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먼저 분단의 고통을 언급한 뒤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대사이므로 간단한 테보 정도만 듣고 우리의 평화봉합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탐색전 성격 띠듯**

김 대통령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 그 중에서도 193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실천에 옮겨진다면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공존공영할 수 있

## 김대통령, 서두에 '평화' 의지 표명 현안 많아 1시간半 이상 걸릴수도

관측이 난무할 뿐이다. 13일은 사실상 단독회담이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소소수의 공식 수행원과 기록요원 등 2~3명씩만 대동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 두 정상은 '뜨거운 보온'을 통해 첫 대면의 역사성을 상징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만나기 어려웠던 분단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인사말을 내놓을 것이다.

**"美軍문제 거론할것"**

북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희생과 손실, 용서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특유의 빠른 어투로 김 대통령의 환영사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회담의 만찬 관례로 '말담'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레로 기초연설에 해당하는 입장 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다. 그동안 남북적으로

다는 점을 부각시켜 흡수봉합의 우려를 씻지 못하는 김 위원장을 안심시키려 할 것 같다.

김 위원장은 표현은 정중하지만 그동안의 긴장 고조가 남한 내 미군의 주둔, '봉합예국인사 탄압'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짚을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선협조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현안이 워낙 많아 회담 시간은 의외로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 보통 1시간30분 정도 걸렸던 그동안의 남북회담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모른다는 것. 양측 입장에 대한 절충까지 시도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첫날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양이 훨씬 우세하다. 분단의 깊은 골을 확인하고 14일에 이어진 회담의 남해(南海) 심격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특기자 bmc13@chosun.com

## 기자수첩

오늘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행(北行) 길에 오른다. 1시간쯤 뒤에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하고 몇 시간 후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대치한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있는 '역사적'인 일이다. 182명의 방북대표단에는 '남측 취재기자단' 50명도 함께 한다. 참여 회 강 언론사와 기자들은 넘쳤지만 수는 제한했다. 신문사 25명, 방송사 25명, 불문 카메라맨과 기술요원들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50명의 취재단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전역할 것임은 당연하다. 이들이 평양에서 송고한 기사가 서울에 올라오면 570여 외신기자들을 통해 '서울 잡(號) 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의 모든 것'을 전하려는 취재단의 열광과 이를 알고자 하는 바깥 세계의 기대는 어쩌면 다소 실망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취재단의 일원으로 출발을 앞둔 기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공동' 취재단

우선 취재기자들의 수가 짐내 부족하다. 30년 전인 70년 3월 19일, '프린트·슈토프'간 동서독 정상회담의 취재단은 51개국 616명이었다. 동독은 하루짜리 정상회담에 150여명의 동·서독 기자와 외신기자 300여명에게 취재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취재단 수가 제한돼 평양에 기지를 못보내는 국내 언론사들에 '취재 기회 분배'라는 상대적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취재단은 '공동취재단'을 구성했다. 취재와 기사 작성이 모두 공동으로 이뤄지는 '푼(pool)제'를 도입한 것이다.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내 모든 신문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동·서독과 지금의 남·북한은 같은 분단국 이면서도 차이점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70년 동·서독 정상회담과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하는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金民埜 정치부차장 baiba@chosun.com

## 평양의 2박3일 백화원서 자고 옥류관서 점심 회담장소는 민수대의사당 유력

오늘부터 2박3일간, 평양에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두 정상의 동선(動線)은 대동강변을 따라 교차하고 전세계의 이목도 그 뒤를 쫓는다. 남북한 당국은 보안상 이유로 각종 행사 장소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후보지들을 짐작할 수 있다. 숙소는 세 군데로 분산 수용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과 공식수행원들은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 때 우리 측 총리 등이 묵었던 백화원초대소, 특별수행원들은 주한 산초대소, 보도진들은 고려호텔에 각각 머물게 될 전망이다.

두 차례 혹은 세 차례로 예정된 정상회담 장소로는 우리의 국외의 사당에 해당하는 민수대의사당 아니면 인민문화궁전이 유력하나,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초대소가 될지도 모른다.

오찬 장소로는 평양냉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옥류관과 침류관, 남과 북이 한 차례씩 주권할 만한 장소는 목관관, 인민문화궁전 등이 후보지도 꼽힌다.

만찬 후 관입은 평양 교예극장, 민수대 학생궁전이 유력하며, 이 밖에도 푼을 내 동명관 등 유적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호(李熙浩) 여사는 참관유치원, 대령 신부인과병원인 평양신원 방문 일정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남북특기자 ck-kim@chosun.com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 방문일인 13일 이집 청와대 관저에서 식사를 한 후, 본관 집무실에 잠깐 들러 수석비서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와 함께 대기 중인 승용차에 오른다.

청와대 비서실 전 직원들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문까지 도열, 장도에 오르는 김 대통령을 환송할 예정이다. 청와대 본관 앞의 악식 환송행사부터 서울공항 도착 및 이륙까지의 모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김 대통령이 승용차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이민섭(李萬燮) 국회의장,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서리 등 3부 요인과 전 국무위원, 여·야 정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송행사가 열린다. 물론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아들들도 공항에 환송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출발 성명에서 "북



## 서울공항 3府요인 배웅

측에 가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 하고싶은 얘기를 다 하고자 한다"며 "그래서 남과 북의 우리 민족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항공기

는 서해 상공을 지나는 1시간여의 비행 끝에 평양시에서 서북쪽으로 12km쯤 떨어진 순안공항에 도착하며, 김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게 된다.

북측의 공항 영접 인사로는 김

## 순안공항 金容淳 마중

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TV로 남쪽에 생중계될 도착 성명에서 '남과 북의 은 거례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북한 지도자들과 한민족에게 호소할 것'이라

는 요지의 말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도착행사를 마친 김 대통령은 곧바로 평양 시내 숙소로 이동,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김정일 위원장과 역사적인 '상봉 및 회담'을 갖게 된다.

/박두환기자 dspark@chosun.com

### 대통령 전용기로 수행원 전세기로 전세기 아시아나 선정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팀은 두대의 비행기로 평양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수행원과 취재팀은 전세기를 이용한다.

전세기는 아시아나 항공이 선정됐다. 동체의 항공사 이름과 색동마크 등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꼬리 날개에 있는 태극기(가로 76.2cmx세로 50.8cm)는 보이지 않게 지우고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전용기와 전세기에 탑승할 승무원은 20여명. 전세기는 전용기보다 15분 정도 일찍 떠나 평양 순안 공항에 먼저 도착한 뒤, 김 대통령의 전용기 도착 장면을 취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崔洪烈기자 hrcho@chosun.com

世界日報

# 세계 주요 언론들 일제히 톱뉴스로

세계의 미디어들은 12일부터 사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서임소식을 제1로 남북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AFP통신은 12일 제임스 워리 전(前) 주한 대사 등 전문가들의 발언 인용에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응한 배경을 분석했다. 워리 전 대사는 "북한이 경제 파탄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김정일의 지난날 중국 방문을 변화할 수평화라고 시방 세계의 무차별적 무지치러는 신호"라고 밝혔다.

## CNN, 頂上회담 관련 특별사이트 운영

CNN방송은 11일부터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대통령을 넘어'라는 제목 아래 '남북 지도자들이 대 최하면 수십년에 걸친 외교노력의 결실을 이룰 것'이라며 '결례없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치관계의 새 시대를 열고 50년 갈등을 뛰어넘는 일로써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리 전 대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책임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정답을 '미국'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1992년)는 6-25 전쟁에서 포로가 된 뒤 생사 확인이 안되는 미 육군 상병 로저 두메스의 행적(70) 등 미군 가족들 얘기를 다루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들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1950년 11월 전선포로가 된 로저를 찾기 위해 북한 외교관과 27차례 만난 적이 "지금처럼 큰 희망은... 커녕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뉴스위크, 美軍포로 가족얘기 다뤄

세계의 미디어들은 이날 감격스러운 회담 연거늘이 거듭 둘러싼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다.

CNN, BBC 등은 "불가피한 기술적 이유"로 북측이 10일 밤 신화통신을 통해 연거늘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이후 55년을 기다려 왔는데 하루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BBC는 북한 관원대행들이 회담 연거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NT)는 "사소한 기술적 이유"로 회담이 하루 연기됐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진걸음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보도했다. 헤럴드트리뷴지(HT)는 "불가사의한(mysterious) 연기"라는 표현을 썼으며, 연기 사유와 관련 해 광양 시대 전역 사정에서부터 북한 지도부에 정상회담 반대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AFP "北, 西方 투자 적극 유치나설듯"

로스앤젤레스타임즈(AT)는 11일 관문정밀로 회담 하루 연기 사실과 미북정상회담(DMZ) 남측에서 참가를 금한 점에 대해 "55년 만의 첫 정상회담은 남북 해빙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남북간 교류(交)는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긴장 완화는 더 이상 남지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핵재고 봉합(封合) 관련이 북측이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기술적 문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 NYT "하루 늦춰졌지만 기대 여전"

일본 언론은 12일 아오기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늦춰진 데 대해 회담 개최 시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가 내비엔인 아오기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남측과 간 대화 길과 관련한 원대로 하루 연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회담 개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全然傳기자 k.m@chosun.com

## 남북회담 美·日 언론들 향후전망

### 한반도 평화 첫걸음... 北변화는 일러

#### 미국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11일 "남북정상회담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3일간의 회담에서 커다

#### ■ 워싱턴타임스

정전협정 평화협정 대체 가능성

#### ■ 뉴욕타임스

北 더 많은 경제지원 요청할듯

란 전진걸음 이뤄내거나 3만7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갑작스런 준비가 정전협정 체결 전에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비중을 다시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SJ)는 12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의혹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루 연기하면서 드러났듯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12일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의 우방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를 재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북한은 주한 미군 3만 7000명의 철수를 다시 요구할 것"이며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1일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첫 정상회담은 남북한 해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민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수 많은 이산가족 중 일부라도 상봉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언론특파원)

### 동북아정세 변화등 파장에 촉각

#### 일본

일본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방파와 북측기자들 통해 이번 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회담관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K TV는 10일 긴급 특집프로그램 편성,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

#### ■ NHK TV

주한미군철수 회담 최대쟁점 전망

#### ■ 아사히등 주요신문

김정일 서울답방 수락여부에 관심

장이 중국 방문 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깊은 관심이 표명했다고 그의 육성과 함께 전했다. 김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큰 성과가 평가된다"고 말하고 중국의 체제가 홍콩, 마카오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장 주석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중국이 양국관계(一國兩制)를 대만에 적용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분위기였으며 북한의 양관원 주창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2일 "이번 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회담관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북측방파와 북측기자들 통해 이번 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회담관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중국이 양국관계(一國兩制)를 대만에 적용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분위기였으며 북한의 양관원 주창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문들은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태도에 좌우될 부분이 크다고 전망의 외교로 대외관계를 전환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양·북·중 정상회담 교섭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전한일특파원)



◇북녘에 풀린 시선들 12일 최전방인 경기 파주시 정단면 도라전망대를 찾는 국내외 취재기자 30여명이 북한양을 촬영하고 있다. /주도권기자 leech@chosun.com

# 서울경제

2000. 6. 13 (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6명의 평양은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날씨 속에 온 도시가 녹음에 싸인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고종근 신화통신이 12일 오후 평양 현지발로 보도했다.>

## ■ 김대통령 맞는 평양현지 표정

### 비행장·도로등 새단장 완료 역사적 손님맞이 준비 마쳐

동선은 평양이 중추한 역사적인 유물과 새로운 현대적 분위기가 혼연일체가 돼 「화외의 도시」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정상회담 개최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지난 5월말부터 남한측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각종 준비작업을 시작해왔다. 북한당국은 최근 남한 신발대외의 치밀한 협상을 통해 김대통령이 평양 체류시 머물 숙소와 교통노선, 참관 장소 등을 결정했으며 각종 안전조치와 한국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비양책도 이미 진달했다.

회담을 앞두고 평양시 각계 각층은 최근 대대적으로 환경 정리에 나서, 김 대통령이 도착할 비행장과 평양시내를 연결하는 길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도 이미 깨끗이 개보수했으며 길가의 기드레임들도 새

페인트로 신뜻하게 단장했다.

거리의 여자 교통 경찰관들이 하얀 색의 여름 복장으로 곱아 입어 산뜻함을 더하고 있다. 또 금수산 기념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는 영생탑 아래에서는 중학생들로 구성된 고적대가 손님 맞이 음악들을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으며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학생들이 비쁜 모습으로 단체제조를 연습하고 있다.

동선은 가장 최근 발간된 「조선화보」가 남북한의 화해를 상징하는 한 편의 그림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한 조선 소년과 한 한국 소녀는 각자 손으로 주전지를 잡고 있는 이 그림은 백두산 천지의 물과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진지한 기대가 이 그림 한장에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홍

## 北자료 보며 조용히 보내 韓服정장 준비하기도

### 특별 수행인들 표정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하는 국내 인사들은 갑자기 하루 일정이 없어짐에 따라 평소보다 더 조용한 하루를 보내며 방학을 준비했다.

대통령 주치의 허갑범(許甲範) 연세내 의대 교수는 오전에는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연구실을 지켰다. 허 교수는 "일례 예정에 없던 외래라 환자가 평소보다 더 적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180여명이 가기 때문에 의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도 같은 말을 쓰니 다른 해외 여행 때보다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오전에 평소대로 업무

오후 1시쯤 출근, 매주 월요일 열리는 회장단 사무국 직원 회의 참 진행하며 하루를 보낸 차범석(車凡錫) 예술원장은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지만 마음은 생각 외로 담담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극단 '신시'가 무대에 올리는 '로마의 휴일' 번역 작업에 일종인 차 원장은 오후 3시30분쯤 "오늘까지 원고집 마감하기로 했다"며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평소 밤 12시쯤 잠에 든다는 차 원장은 이날 "가벼운 숙 한잔하고 일찍 잠에 들어가 되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계 대표로 수행단에 참여한 이화여대 장상(張尙) 총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하루종일 북한 사회 전반과 여성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읽으며 치밀히 방책을 준비했다. 장 총장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대 관계자는 전했다.

### 술 한잔하고 잠자리에

평안북도 용암포 출생인 장 총장은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김 회담 나섰으며, 북한에 가서 일을 한북 정장을 한 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을 방문했고, 현재는 남북 단일 축구팀 구성 등에 힘쓰고 있는 정몽준(鄭夢準) 축구협회 회장은 오전 축구협회 사무실에 잠깐 들른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았다.

### 그림 對北사업 점검

정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0월 레바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에 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축구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LG그룹 구본무(具本茂) 회장도 정상 출근해 국제금융센터 북한 건설 사업, 전지산업 등 그룹이 추진중인 대북사업을 다시 점검했다.

/서울=홍 기자 schung@chosun.com /강-기 기자 ihwang@chosun.com

# “離散문제 물꼬 트일것”

## 정부당국자 전망

분단의 마음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남북 이산가족의 한(恨)이 이번에는 풀릴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3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실향민(失鄉民)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정상회담이란 적십자회담이나 고위급회담과 차원이 다른 만큼 결산도 크리라는 기대 탓이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이 9일 민주당에 가서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결정적 전기(轉機)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 한껏 기대를 증폭시켰다. 실제 정부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물꼬를 풀 수 있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적으로 올 추석 대 교환방문이 이뤄질 것”, “면회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실무 접촉 당시 북한측 대표들이 우리 측의 이산가족 문제 제기에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공식 접촉 때는 더욱 진전된 반응을 보인 데 근거하고 있다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 개최가 북한 측의 경제난에 직접 기인하는 만큼 북한 측

이 우리 측의 경제지원에 걸맞은 수준의 이산가족 재회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왕래, 단기간의 고향방문,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생사·주소확인...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치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 합의가 이뤄진 다 해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결단’이란 형식으로 결말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체제유지에 위협

## “北 진전된 반응 보여” “기대낮춰야” 견해도

이 될 만한 정도의 인적 교류에는 북한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유보적 견해도 있다. 첫 정상회담인 만큼 북한 측이 종래의 대남 선전선동에 열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른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기대를 크게 낮춰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崔秉默기자 bmcchoi@chosun.com

## 남북 평화중립을 기원하는 뜻

주최: 우리조국사랑모임 일사: 2000. 6. 12 (일)



◇議員들도 한마음 국회 조친기도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예배를 가진 후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달변지에 촛불 점화식을 하고 있다.

／許永錫기자 younghan@chosun.com

# “經協 제도적장치 마련”

## 정부·기업인 복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관료와 경제계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인이 고루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험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 경제공동체 출범 총력 업계 “合作생산 확대”

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가 핵심”이라며 “경제협력 문제는 다음번 실

무 회담부터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북한 측 파트너를 만날 때를 대비, 잠정적인 경험 카드는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 측은 우선 남북간 경제 교류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결제방식합의서, 분쟁조정 합의서 같은, 북한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할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기구를 통해 남북한 철도연결 같은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현안 경험사업들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이미 북한에 진출한 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이산은 해주 동지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 차량용 오디오 등 부품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도 이미 3월 말부터 북한에서 컬러TV와 전자기, 오디오 등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피커와 모니터 2개 품목을 추가로 북한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50만평 규모 전자단지 조성 문제 등도 북한 측과 협의 중이다.

LG는 북한에 컬러TV 합영공장을 설립하고, 지원거 합영공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SK는 대북 투자에는 소극적인 상태에서 현재는 별다른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金泳秀기자 yskim2@chosun.com

# '禁忌'에서 즐기는 '문화상품' 된다

## 남북 교류 현주소

교류는 이미 시작했다. 정상들의 만남은 오늘 처음 이뤄지지만, 남북한 문화는 상호 교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판문점을 넘어 오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연단만이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문화적 사신이 울 들어 줄을 잇고 있다. 우리 출판사가 북한 저술가 원고료 정식계약 맺고 들여와 책을 냈고, '휘파람' 등 북한 히트가요가 CD로 나오고 전파를 타면서 젊은이들이 흥얼거린다.

## 北서 '목포의 눈물' 인기

북한은 북한대로 그동안 금지돼온 '목포의 눈물' '눈물짓는 두만강' 등 이른바 식민지 시대 노래들을 최근 해금, 이들 곡을 담은 '계몽기 가요 선곡집'이 인기라고 외신들은 전한다. 분단 55년이 강요한 이질화의 외피를 서서히 벗어가며 남북 양측이 민간차원에서 문화적 동질성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타진해가고 있다.



© 북한서적 내용 일부를 정식으로 시들어 전래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 북한미술 흐름을 보여주는 북한화가 회계근 작 '용해장'

## 출판·가요·영화 등 '수입' 잇따라 현재까지 북한문화 일방적 수용단계

출판계는 이제 북한을 문화적 파트너로 상대하며 저작권까지 준다. 푸른숲출판사가 내는 '개성 이야기'는 북한 한토사학자 송경목씨와 직접 계약을 통해 돈을 주고 원고를 받아 간행했다. 서울대 출판부도 최근 북한서적 '조선유적유물도감' 내용 일부를 우리 학술총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에 전재하면서 중국 연변대학측 중개료 북의 조선출판물수출입사로부터 정식으로 판권을 사들였다. 또 누리 미디어는 최근 고려 문인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번역을 북한 사회과학원에 의뢰해, 'CD-ROM 동국이상국집'을 냈다.

'지금 북한에선...' 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화하면'으로나 살짝 대할수 있던 북한 영화와 대중가요들. 그러나 이전 우리 구미에 맞는다면 '즐거는' 문화상품이 됐다. 정부 허락에 따라 북한 SF과수영화 '불가사리'는 곧 국내 극장에 걸려 '북한판 용가리'로 가족 관객들에게 손질할 것이다.

또 다른 북한영화인 '홍길동', '사랑 사랑 내사랑', '꽃피는 처녀' 등도 수입 추진 중이며 별 문제없이 선보일 전망이다. TV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북한 영화도 넘쳐난다. MBC가 지난 10일과 12일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과 북한영화 '온달전'을 내보냈고, SBS가 10일 '홍길동'을 방송했다. EBS도 11일 '소년장수'와 '영리한 너구리' 등 북한 애니메이션 특집을 내보냈다.

## 종교계선 통일기금 조성

북한문화 공식 도입 러시도 광복할 일이지만, 음악 미술 분야는 양측의 인적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임진각에서는 우리 소프라노 조수미와 북한 테너가 한 무대에 서는 '남북화합 아와 음악회'가 문화부·KBS 주최로 열린다. 우리 여성국극단도 북한 '피바다가무단'과 공동으로 8월이나 9월중 평양문화극장에서 '대춘향전'을 공연하기로 합의했다.

미술의 경우, 남북한 작가 33인의 판문점 합동전시회가 성사될 전망이다. 미술협회 박석원 이사장은 "합동전시회 실무 협의를 위한 미술계 인사들의 남북 허기를 통일기구로부터 이미 받았으며, 문화관광부에 예산도 신청했다"고 밝히, 지난해부터 남북 미술계 사이에 진행된 비공식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종교는 경제분야 다음으로 남북 교류 역사가 오랜 분야다. 불교 조계종은 최근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불교 유적 공동 조사 사업, 통일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톨릭교는 96년 폐쇄된 북한의 교역자 양성기관 '평양신학원'의 재개설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 5월 북측과 합의했다. 가톨릭은 전국 15개 교구와 북한 각 지역간에 자매 결연을 했다.

## '태조 왕건' 개성촬영 추진

이런 교류 무드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맺으면 남북의 문화계 사이엔 더욱 커다란 불씨가 트일 전망이다. 모든 장르에 걸쳐 상호방문과 교류·협력이 잇따르고, 일반 관객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휘자 정영은씨는 98년 방북연주 승인을 받아놓고 북측을 노크하고 있던 한국오케라단의 '한진기', 민주당 김경재(金景宰)의원이 단장을 맡은 남측 합창단 '프리모 칸타테'가 평양공연을 준비중이다. 예술의 전당은 2001년 4월을 목표로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북한측 조선미술박물관의 교환전시회를 각각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연극협회는 10일 남북연극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노경식)를 구성하고 올 가을 열릴 23회 서울연극제에 북측연극인들을 초청기로 했다. 가톨릭에선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서울대학교 교구장인 정진석(鄭鎭奭) 대주교가 방북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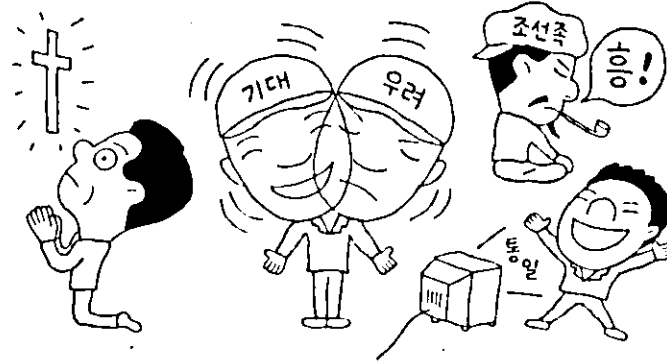
영화 방송의 남북한 합작 움직임도 활발하다. 평양 교예단을 초청해 대륙 교섭력을 자랑한 NS21 김보애씨는 북한과 합작 영화 '아리랑'을 제작할 계획을 밝혔고, KBS는 대하사극 '태조 왕건'의 개성 현지 촬영을 추진중이다. 방북하는 차병석 예술원 회장은 "방북 중 남북한 문인들의 작품을 함께 수록하는 100권짜리 '통일문학전집'의 공동 간행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히 가장 교류가 워친 문학분야의 경우도 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호교류'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북한 문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정리=全明煥기자 mhkim@chosun.com



© 북한의 동명영 아외촬영소에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움을 보다'의 촬영모습을 지켜보는 김경일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에 있어 영화와 음악은 하나의 예술 장르 차이를 넘어 북한 사상 체제의 광고회, 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독특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게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 / 해외동포 반응



# LA 한인방송서 회담 실황중계

재외 동포들은 55년 만에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모습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화해의 음악회를 여는 등 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 ◆미국

재미 기독교단체들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애크랜드, 워싱턴, 뉴욕 등 6개 도시에서 '남북한 화해를 위한 기도와 음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국제전략화해연구소(이사장 손인하 박사)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 모은 헌금은 북한의 장애인용 휠체어와 산모용 한센제를 사서 보내는 데 쓸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미국 전역의 교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TV방송인 KTE와 KTAN은 남북정상회담 실황을 위성으로 생중계해 교포들에게 생생하게 전파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

- 재미동포 화해 위한 기도·음악회 열어
- 재일동포 "일단환영... 정치적 이용말아야"
- 중 조선족 "남·북 눈치 안보고 살았으면..."
- 카레이스키 고려인송, 두 頂上에 축하편지

통령의 서울공화 출범, 평양 도착,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인천 등 각종 행사, 김 대통령의 방문점을 통한 서울 귀환 모습 등을 본국의 KBS와 MBC로부터 직접 위성으로 받아 동시 방영키로 했다고 두 방송사 측은 밝혔다.

### ◆일본

재일동포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민단이나 조총련계 모두 기본적으로는 "가만 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대진(尹大進) 나고야(名古屋) 한국학교장은 "여러 면에서 재일동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이 잘 되면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총련계 동포들과 교류하는 움직임이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교류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총련계 동포들도 '장군님의 영도하 더분'이라는 토론회를 갖기는 하지만 회담 성공을 기원하기는 마찬가지

이다. 조선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도쿄의 일부 청년들은 10일 도쿄 시내에서 '통일집회'를 열어 회담에 성과가 있기를 당부했다.

### ◆중국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한반도의 화해와 교류를 바라면서도, 지나친 기대는 삼간 채 회담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북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은 50여 년 만에 찾아온 첫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대치 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 정권의 특성상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중국의 200만 조선족 동포들은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 정권의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시기를 겪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편을 들면 남한의 미움을 받고, 남한 편을 도와주면 북한으로부터 배척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조선족 학자들 역시 어렵게 맞은 남북정상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자세"를 주문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 교의 조호길(趙虎吉) 교수는 "그동안 미국과만 대화하려던 북한이 한국과 만나려 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회담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구소련

구소련 지역 거주 한인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워낙 환영을 보내고 있다. 한국인이라고도 조선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 스스로를 '카레이스키(고려인)'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은 이번 남북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조 바실리(50) 고려인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명의로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대중, 김정일 두 남북 정상에게 보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를 위한 대외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朱廣中기자 midway@chosun.com

/東京=權大烈기자 dykwon@chosun.com

/모스크바=黃麗華기자 sihwang@chosun.com

# 7,000만 겨레 '하나 되는 길' 찾아... 南北정상 오늘 마주 앉는다

## 金대통령 訪北... 金위원장과 역사적 對坐 이산가족 중점 논의... 金위원장 答訪 요청

분단 55년의 징표를 남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평양에 들어가 북한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대담을 한다.

오늘 오전 김대통령은 부인 이희호(李熙浩) 여사와 함께 특별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 1시간여 비행 뒤 평양에 도착해 2박3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1차 단독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전반에 대

해 서로의 견해와 인식을 폭넓게 교환하고, 남북 화해·협력·경제공동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평양 순안(順安)공항 도착성명에서 김대통령은 "남북 운겨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12일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평양 체류 중 두차례의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경제 확대 방안,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대변인은 "두 정상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함으로써 남북간 이념의 폭을 넓히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나간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고구려 유적지와 북측 여승공연 등을 관람할 예정이며 양측 정상간에 두차례 민간 행사가 계획돼 있다.

### "동북아 평화발전 첫걸음 되길"

세계 지도자등 本紙에 메시지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 등 세계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간게시지를 12일 중앙일보에 보내왔다. <메시지 요약 3면>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 발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아쓰히코(中曾根紀弘) 전

일본 총리와 로버트 김부치 전 미국 전 대사는 "남북 대화가 경제화하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밖에 본지에 메시지를 보내온 인사들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스킨라피노 미 버클리대 석좌교수, 미코하서 '김서기 사건'의 저자인 자크 이달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등이다. 정선구 기자 <sunju@joongang.co.kr>

평양 방문에는 이천재(李天在) 재정경제부장관과 청와대 한영욱(韓永旭) 비서관장 등 공식 수행원·경호요원과 재계·언론계 인사 등 대표단 1백 30명이 함께 간다.

신분·종교·방송사의 허개단 50명도 별도 특별기편으로 같이 방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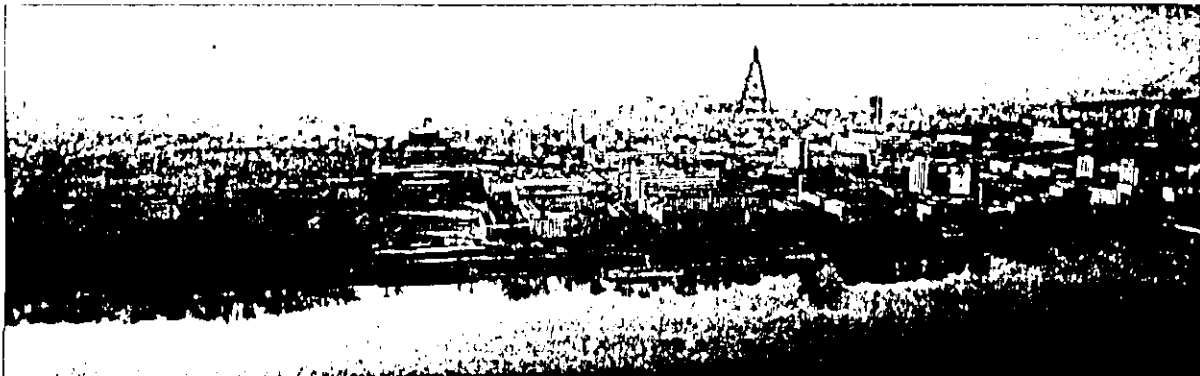
북한측이 지난 10일 제기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김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하루씩 늦춰짐에 따라 우리 언론에 공개됐던 평양 행사 일정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신력 도중 함께 웃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주세담에서 내려다본 대동강과 평강 중심지. 한 가운데 우뚝한 건물이 이만성의 1백5층 유경호텔이고 그 앞 오른쪽의 삼양형 건물이 평강화남이 개발 예정인 만수대 회사방이다. 이 사진은 본사 임복남이 1997년 12월 촬영한 것이다.

# DJ “金위원장에 할말 다 할것”



## 離散 면회소등 실마리 풀리면 남북주도 협력방안 제시할듯

권자에서 혼자 시간을 가진 금대통령은 국민과 개인개성으로서의 잘못된 선례가 후손들에게 유언과 교훈과 부담을 안겨주는지를 생각하며 침묵에 잠겼다.

그러면서 금대통령은 이번 대외가 무라 민족의 한때에 도움이 되고, 민족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백종현(서울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자주와 금 위원장은 베이징(北京)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만나 1국2체제 등 통일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랜동안 통일 연구에 몰두해 온 금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금 위원장에겐 큰 부담의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강조했다.

금대통령은 “금 위원장을 만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제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까지 모두 기본할 직접이다.

뒤장 해금(해산)은 북해도(해산)에게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금대통령

의 생각이다. 따라서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정상회담의 비효율 및 경고였다. 회담 의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도 감안했다.

구체적으로 가대교는 금 위원장의 시동 남방(南訪)과 이산가족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라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 제재를 흔들 수 있는 있어 생각할 화인하고, 시진핑은 면회소 설치만 이뤄지면 성공이라는 게 두 나라의 판단이다.

금대통령이 활동의 구상하는 우선 목표는 남북의 이질성 극복이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의 회복이 필수조건이다.

금대통령은 베를린(3월 9일)에서 김대중과 서방에게 협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대화가 풀린다면 주변국의 지원을 제치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금대통령이 자주 주권 국가를 갈라놓은 본당의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무용담 시사한 것이다.

김정국 기자

<jinkook@joongna.co.kr>

금대통령과 금 위원장 발언 비교

|           |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
|-----------|--|---|
| 남북 긴장완화   | 이산가족, 핵, 평화 공존, 교류와 대북 지원                              | 북한과 대외 관계 개선, 경제 협력, 자주 평화 통일 실현 (1997년 8·4 남북 합의)          |
| 경제·교류 협력  | 이산가족이 우선하고 투자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교역과 협력 필요                  | 금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남북 교류 협력, 한반도 안정을 기대했다(지난달 통·국·방·안) |
| 이산가족      |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년 이산가족의 상황 파악을 수 없다     | 이쪽이 자주 대외·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있다(북·미·중·일·남·시외관계 협력사업)          |
| 통일문제      | 대통령은 통일과 1차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북·미·중·일·남·시외관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상·제도 차이는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이)며 강압적 방법은 옳지 않다                   |
| 북한의 개혁·개방 | 북한의 개혁·개방의 협력, 한반도 협력할 수 있는 것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경제에 성과가 있지만(지난달 통·국·방·안)             |
| 주한미군 철수   | 한국과 미국간에 해결할 문제  | 남조선이 외세에 의존하고 풍조에서 벗어나(97년 8·4 남북 합의)                       |

# “어서 오시라요”

## ■ 평양 손님맞이 표정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북측 당국과 행사준비 요원들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손님맞이를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보였다. 북한의 호위총과 요원들은 이날 순안공항에서 평양에 이르는 외곽 경호사령은 물론 회담장과 민선장 주변의 살내 경호에 이르기까지 최종 시나리오에 따른 경호 시뮬레이션만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도 정상회담을 통일회담으로 인식, 환영하는 분위기에 다소 긴장과 참견 속에 남북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평양 시민들은 이날 거리에 있는 책 조화를 들고 나왔는데 이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순안 국제공항에서 차양을 이용해 평양 시내로 들어올 때 거리에서 김 대통령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마치고 귀환한 선박대속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도심인 통일거리와 광복거리에 대한 가로수, 도로 등

## 순안공항 단장작업 완료 꽃등 행사용품 속속 반입 평양 전기공급도 이상無

의 정비작업을 최근 끝냈으며 도로변 김일과 대표단 숙소인 백화원 초대초, 백국 예정지인 학생소년궁전 등에 대한 내대적인 주변정리와 도색작업을 마무리했다.

북한이 가장 신경은 시선종의 하나가 남북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하는 첫 관공인 순안 국제공항. 북측 당국은 비행장 시설을 한 주로에서 정비할까지의 비행기 유도로에 아스팔트를 입히는 공사를 최근 시작, 이날까지 막바지 손질을 했다.

선박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가급적이면 우리측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성의없나하고 있다.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양시내의 전기공급 사정도 좋아졌다. 그동안 평양은 전기사정이 나빠 일반가정은 물론 호텔도 제한 송전을 했고 외국 대사관까지 발전기로 전기를 자체 공급해 왔는데 지난날 말부터 완전 정상화됐다.

식량배급도 늘었다. 맛난에 한민, 육은 중 단됐던 식량과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물량의 생필품, 식료품을 구입했다. 베이징(北京) 당국(丹東) 엔지(延吉) 등지에서 임박 베나이 구두 등과 카펫 한 꽃 에드미블은 풍선 등 행사준비용품 순 고기 생수 등을 반입했다. 이대위 고위간부는 김대중 대통령을 임박히 환영한다.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취재 대기열 받은 외국 기자는 중국의 선화 동산 인민일보, 러시아의 이타르-티스 통신 등에서 파견된 4명뿐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ong@ak.co.kr  
김승일기자 ksi1011@ak.co.kr

## 양영식 통일차관 “재떨이 회담은 안될 것”

## 이회창 한나라총재 “北보다 南 안심시켜라”

### 정상회담 말말말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반연하듯 회담을 앞두고 말의 성안이 지연될 수 놓았다. 회담 합의가 발표된 지난 4월부터 회담이 열리는 오늘까지 쏟아져나온 갖가지 ‘말’을 정리해 왔다. 편집자

▷55년 동안 기다려온 만남인데 하루를 더 못가다라겠는가. “청와대 박준인(朴準仁)대변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데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번 걸음은 자기 얘기 하고 답배만 피우다 나오는 ‘재떨이 회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측 준비접촉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 지난 4월 22일 북측과 제1차 준비접촉을 위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제대를 1년 앞둔 병사보다 한달 앞둔 병사의 마음이 더욱 초조한 법.” -지난 7일 여당 고위관계자가 순대통령의 1995년 저서의 한 구절을 인용, 회담이 무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당 아남네까, 비정회(非正期)·정두환(金斗煥)독재당보다는 낫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한 금강산 관리원, 지난 5월 말 금강산을 관광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새천년 민주당’을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

▷“정상회담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것을 아들이 실현하는 것이다.” -데틀린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김일성 김 주석이 94년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합의했음을 상기하며.

▷“은둔의 왕국이 지나치게 활발한 왕국이 됐다.”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대평양담당 차관보, 북한이 아직 개혁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역량과 용기, 그리고 비전을 지녔다.”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 순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온 것을 놓고.

▷“북한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에 여러 요구를 하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남한 내부가 단결된 있음은 보여줘야 한다”는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많이 참았다.” -한나라당 홍종재, 지난 8일 총재단회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현안들이 축소되거나 왜소화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전세계인과 함께 남북한에 평화와 민족의 대통합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지난 11일 주례 미사집 봉행.

정리=이동현 기자  
<lechido@joongang.co.kr>

# 청와대 종합상황실 가동

## 회담 하루前 표정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차분하게 마음유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와 관련부처도 긴장속에서 회담 준비를 점검하고 마무리했다.

○11일 시내 모 호텔에서 숙박한 순대통령은 12일 오전 관저로 들어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녹지원과 작은 연못·꽃동산 등을 산책했다. 또 연못의 물고기와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들에 먹이를 주며 생각해 잠겼다.

순대통령은 오후에 관저에서 한광옥(韓光玉)비서실장 등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자료와 상황, 북한 지도자 인물 외척기 등을 계속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1회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순대통령 방석이 마련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검토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특별군사제에 돌

입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한편 이날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내외 네티즌들의 편지가 3백여통 채로, 일본인 50대 회사원은 “한국 본당이 과거 일본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사죄하며 이번 회담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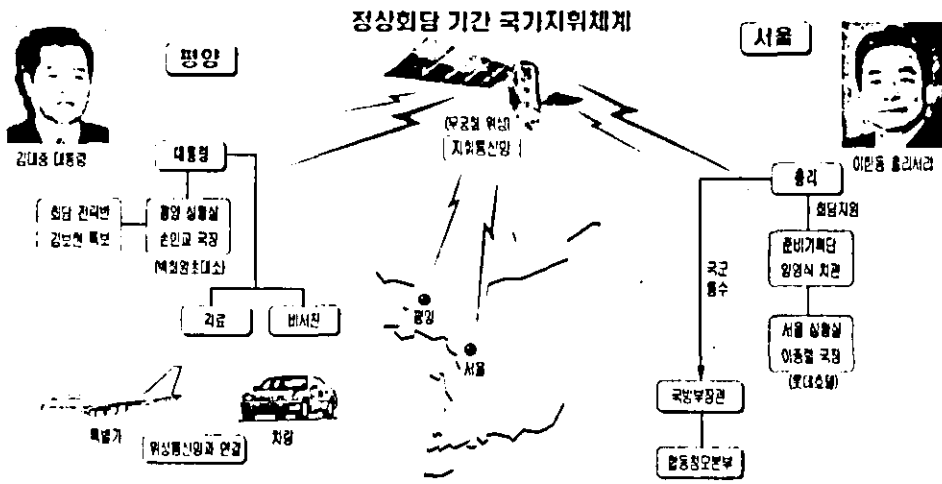
○1회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순대통령을 12일 오전 관저로 들어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녹지원과 작은 연못·꽃동산 등을 산책했다. 또 연못의 물고기와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들에 먹이를 주며 생각해 잠겼다.

○1회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순대통령 방석이 마련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검토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특별군사제에 돌

입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한편 이날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내외 네티즌들의 편지가 3백여통 채로, 일본인 50대 회사원은 “한국 본당이 과거 일본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사죄하며 이번 회담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1회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순대통령을 12일 오전 관저로 들어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녹지원과 작은 연못·꽃동산 등을 산책했다. 또 연못의 물고기와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들에 먹이를 주며 생각해 잠겼다.

<jwkim@joongang.co.kr>



# 작은 청와대도 따라간다

### 무궁화 위성등 국가지휘 통신망 24시간 가동 육류관서 뱀민 먹으며 서울 國政 점검 가능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머무르는 50여 시간 동안 평양에는 '작은 청와대'가 차리진다. 대통령 연설중에 자비한 백화원(白花園)에 마련되는 정상회담 평양 상황실이 그것이다. '적간'(敵間)의 심장부로 여기기엔 평양에 우리 정부의 국장 지휘관이 세입되는 셈이다.

김대중이 탑승한 아시아항공 특별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하는 13일 오전, 서울·평양 상황실과 특별기를 연결하는 삼각 통신망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평양 도착 후엔 평양-서울간 연락세계가 마련된다.

김대중의 국수행이 단 1초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지휘통신망'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통령 견호를 비롯해 위대한 상대에서 서울과의 통신까지 두렵다면 그야말로 비상사태이

기 때문이다.

다행히 북한은 회담기간 중 서울~평양간 50회선의 직통전화는 물론 위성통신망을 운영하겠다는 유력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위성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김대중은 평양 육류관에서 뱀민을 먹으면서도 서울과 연락이 가능하게 됐다. 통신은 우리의 무궁화위성을 활용한다.

또 하나 민감한 사안은 군 통신권 문제. 정부 관계자는 12일 "대통령 부채시 통신권이 총리에게 위임되는 만큼 이만동(李萬東)총리서리가 국방장관·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남북기간이 짧고 대통령(평양)과 서울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망 사이에도 지휘통신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총리서리가 실제로 통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평양에서의 회담 보좌는 현광옥(鮮光玉)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외에 5명의 전담수행원이 맡는다.

김보현 총리특보를 단장으로 ▶장재현 외교정부 차관보▶김정기 통일부 정책실장▶김국현 국방부 국장▶서훈 청와대 국장이 그들이다. 평양 상황실에는 이들 외에 22명의 배대관급 회담 전문가가 대기한다.

또 서울에서 회담 지원을 총지휘할 양연식(梁榮植)장성위담 준비기획단장은 매일 오전 9시 총리서리에게 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통신보안도 확보해야 한다.

비밀을 요하는 문건 전달이나 인단은 관문집으로 하루 두차례 오갈 행낭을 사용한다. 또 평양 상황실에서 사용한 휴지까지도 모두 밀봉해 서울로 가져와 파괴한다.

이양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수행원들 짐 얼마나-

남북 정상회담 중 평양의 기온은 20도 내외, 평년 기온을 웃도는 '속담지근한 날씨'가 되려면 개 남북이 교환한 기상정보 때문이다.

손인규(孫仁圭)전방대장은 수행원들에게 "기온을 고려해 갈아입을 옷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공직수련원의 경우 양복 2벌, 기나 수련원은 양복 1벌이 권장사항. 사석자리를 관습할 때 입을 짐과 등의 가벼운 옷도 빠뜨리는 안일 일복이다. 숲이 훑대는 백화원 초대초 근처에서 조깅할 사람은 운동복도 챙긴다고 한다.

기방 관복에 차려입은 선물도 자리한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 평양기관으로부터 선물하거나 헌대의 등에게 은밀하고

## 컴라면서 PC까지

### 공동 비품만

### 11t 트럭 7대분

개별적으로 선물하지 않고 단체로, 공개적으로 해답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선물을 고르는 방법단의 손길엔 고심과 흔적이 배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 통일'로 이름 붙여진 진돗개 암수 한쌍(감아지)을 가져간다. 청와대 비서진은 톰보스 5백세르(6백엔)를 선물 및 민선용으로 챙겼다. 현배승은 본래 평양의 명주(銘酒), 그러나 요즘 북한에

선이 숨을 거의 빛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 주치의 허갑범(許甲範) 연세대의대 교수는 남북이 합작생산한 난해인 한바탕 2보투와 남자용 알로에 화장품 세트, 민년필을 선물용으로 마련했다. 또 다른 방법단원은 심정성을 고려해 금반지 5문종을 준비했다. 반지 안쪽엔 '평화'와 '통일'을 새겨넣었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남지용 넥타이 10개와 여자용 화장품 10세트를 챙겼다.

공동사용할 짐보따리도 상당하다. 11t 트럭 7대분이 평양에 들어간 상태다. 김라면·과자와 구급약품, 평양상황실에 놓일 컴퓨터가 포함해 있다.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서울~평양간 하루 두차례 오갈 행낭을 통해 들어간다.

고정애 기자  
<cockham@joongang.co.kr>

# 아주 특별한 아침 기도로 평양길 시작

## DJ 출발 하는 날

김대중 대통령의 13일은 이희호(李姬鎬)여사와의 아침 식사 기도로 시작한다. 식단엔 김대통령이 좋아하는 인삼미와 과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의 기도 내용은 좀 특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익(弘一)·홍익(弘孝)·홍익(弘孝)씨 등 세 아들과 손자들은 서울관광

(성남시) 휴국장으로 직 김 내용 것이 라고 한다.미

국 유와 중인 박대 공김씨는 최 근 서울에 왔다.

관심을 가진 김대통령은 청와대 건물 앞에서 시민들의 한 동네(사랑방)에서 잠시 송창치에서 내리 주인과 인사할 나눈 뒤 공항으로 향한다. 도로 주변과 건물 앞에서 시민들의 환영이 있을 예정이다.

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은 이만삼(李萬祥)국회의장과 최종연(崔鍾演)대법원장, 이관용 총리서리와 전 국무위원, 민주당 서

영훈(徐英勳)대표 등의 공식 환영을 받는다.

김대통령은 출발 성명에서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서로 잘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분단 55년의 벽을 넘는 기회와 평화 공존의 각오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시간10분 뒤 김대통령은 평양방을 끝낸다. 북측의 영접 인사에는 김정순(金正淳)이대령 화기연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

졌다. 공항에서 김대통령은 도착 신명을 발표한다. "남

과 북의 온가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호소"하는 내용이 요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의 출발과 평양 도착 과정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상봉 장면은 녹화해 방영한다. 한편 김대통령 부부의 개인 짐은 트렁크 세 개 분량이며 대통령은 4, 5개의 양복을 준비했다고 한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 공개 활동 않고 손님맛이 최종점검

## 회담앞둔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특별한 공개활동을 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는 한편 고(高) 히메즈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후계자 바사르에게 조선(平壤)을 보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중앙TV는 12일 오후 8시 보

도에서 김위원장이 국가 주권 선언 채 태 기념일을 맞은 푸틴 대

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을 특 뉴스로 보도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역사가 깊고, 오늘날 이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축전 내용을 소개했다.

김위원장은 또 바사르에게 보낸 조전에서 "이시드 각하를 잃어버린 것은 시리아의 이단 인민을 포함해 세계 평화와 애호 인민의 큰 손실"이라며 "이시드 각하는 조선(북한)과 시리아 양국 인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



## 남북 정상회담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조선 인민의 친밀한 친구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중앙TV는 전했다.

한 고위 귀순자는 "북측은 통상 국가 중대사를 앞둔 시점에

서는 당 정치국 회의의 일

어 전반적인 의제등 논의 한듯 하고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곤 했다"며 "김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고 정치국 회의를 열어 마지막 논의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평양 시내에는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붉은색 꽃술을 들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도 했다고 이다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 호위총국서 서너겹 철통경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기가 13일 서울 공대상을 지나 북한 상공에 들어가면 북한 공군의 머그기가 대가 온갖 남침을 드러낸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경호담당인 호위총국의 지휘를 받아 공군사령부가 내시는 것이다.

평양 비행정비부에서 대령관 특별기는 미그의 호위를 받으며 순안공항에 착륙한다. 그 때부터 우리 수행원들은 호위총국의 경호를 심각하게 본다. 정상외교 관계상 경호와 의견은 초창국이 맞는다.

특히 남북 정상들의 동선(動線)이 우리 일부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탓에 북한측의

## 北 DJ경호 어떻게-

### 김정일 위원장 경호담당 음식물등 각종물자까지 점검

경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측 전망이다. 북한의 경호 시스템에서 처량 선도는 우리 경호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警)이 맡는다고 한다.

중국 등 외국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할 때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 하지만 그 뒤에는 청와

대 경호실에 해당하는 호위총국이 버티고 있다. 호위총국장은 이윤실(李允實·79)원수로 법치산 1세대의 원로.

호위총국은 김정일 위원장 경호를 위해 비상 3~4겹의 물살을 얹는 경비를 한다고 한다. 폭발물 탐지와 같은 안전조치, 건물 경비의 기본 업무는 물론 행사자의 자세를 통제하는 인거리 경호와 참석자 신원조사, 일방인 접근 차단도 호위총국의 임무라는 것.

호위총국에서 근무했던 한 답보자는 "김위원장을 근접 거리에서 경호하는 요원들은 중장(우리 군의 소장급)급 장신 대우를 받듯 경도로 신임이 두텁고 특별한 훈련을 거친 메대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답보자는 "김위원장이 먹는 음식물을 비롯해 각종 물자도 호위총국에서 관리한다"고 전했다. 호위총국은 김위원장에 대한 '심기(心坎)경호'까지 담당한다는 말이 북한에선 나온 적도 있다고 한다.

김대통령을 수행하는 우리측 경호원들은 김대통령 주변에서 근접 경호를 담당할 계획이다. 경호담 관계자는 "우리측 경호팀은 기본 장비를 휴대한다"고 말한 뒤 "신민적 경호계획을 북측과 세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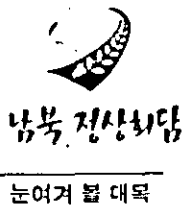
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

## 정상회담 추진 일정

- 3. 9 김대중 대통령, 배달린 선인서 대북 부처·단국대회 제안
- 3.17 중국 상하이 남북 특사 첫 접촉(박지연-송호경)
- 4. 8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서명
- 4.10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공동 발표
- 4.14 정부 정상회담추진위 구성
- 4.22 판문점서 첫 준비접촉

- 5.13 첫 통신·보도분야 실무자 접촉
- 5.18 실무협차 합의서 타결
- 5.31 산발대 30명 환문점 거쳐 방북
- 6. 5 대표단 1백80명 명단 대북 통보
- 6. 9 북, 홍성남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
- 6.10 북, 김남진총문 보내 회담 하루 연기 요청
- 6.13 김대통령 일행 방북

# 단독회담 횡수 성과와 직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국경선의 시간이 집중되고 있다. TV 3사는 정상회담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주요 시간대에 회담상황을 생중계한다.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목을 눈여겨 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준다.

◇공정경제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順安) 공항에 직접 내릴지가 관건거리. 외국 관영사 회고 지도자가 공황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이례적으로 열광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가 회담의 극적 성과를 높이고 '풍란 지도자' 이미지를 복귀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관례를 따를 경우 측근인 김정순(金正順) 김위원장이 후송차(後送車) 내 각 층의 층이 공황에 내릴 수 있다.

◇도화 외견 - 북측이 공평도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도착 환영을 발표하거나 인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는지도 중요하다. 도착 환영을 받더라도 북측 인(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환영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양 송위원장이 직접 내릴 경우 보다 중중하고 믿어있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이 나소 환영이 것이다.

◇환영 행사에서 - 김대중에게 '환영 스카프'를 제공 것인가도 환영 뜻에는 내역. 북측은 외국 직장의 환영행사 때 받은 스카프를 김대중을 했기 때문이다. 1972년 11월 이후라(李承晚)박사 중앙정보부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공위원회 회의 중 김대중과 김대중이 만났을 때에도 북측이 '환영 스카프'를 김대중에게 주었다.

◇연도 환영 - 공평에서 백암의 대외 회담이 12월에 있을 것으로 관망하며 연차도 김정일과 그의 친위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90년대 초 남북 고위급회담의 사례를 보면 회담진행이 원만할 때 환영인사도 많았다는 점을 되짚어볼 수 있다.

◇첫 상봉 - 김대중과 김위원장이 처음 만날 때 어떤 장벽이 있을지는 단련행사, 첫 인사단 약수로 짐작되. 사회주의적 포용까지 쉽지 않다. 지난 5월의 김위원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장쩌민(江澤民)주석을 만났을 때 두 손으로 감싸주듯 악수를 한 후 2~3차례 포옹하며 인사를 했다.

◇인사말 -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첫 인사에서 어떤 말을 내놓지도 주목거리. 정부 당국자는 "첫 인사로는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게 가장 무난하고, 모네기침이 지났으니 농사 얘기할 때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원로에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나는 이젠부터 김대중이라고 만주주의자, 참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게 왔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회담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호텔 - 평양 선별대에 따르면 호정문재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부르든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호텔 - 평양 선별대에 따르면 호정문재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부르든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198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비서가 중국 회고지도자 덩샤오핑과 담소하고 있다.

## 北영접인사 따라 도착성명 달라질 듯 연도 환영인파 회담 분위기 잦다

안해가 이뤄졌다고 한다. 우리측은 그간 김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 보다는 '국무위원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북측도 '대통령님'이나 '대통령阁下' 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정도로 부를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담횡수=현재 단독회담이 두 차례 또는 그 이상 예정돼 있는데 몇 차례 만나 회담을 갖는지가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가 된다. 특히 단독회담에 회담은 인사가 배설할 여부도 관심사다.

◇영부인 상대=이희호(李希浩)여사의 상대를 누가 맡을지도 주목거리. 북측에는 '메르스 레이다' 개념이 있고 김위원장의 부인 김연숙(金蓮淑)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평양에서 이희호의 상대였는지 여부가 김위원장이 언제 내릴 것인가도 관심사다.



85년 4월 평양을 찾은 소련 공산당 대표단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환락 웃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

## 김정일 외교활동 北중앙TV 공개

북한의 중앙TV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11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외교활동을 다룬 기록영화편을 방영했다. 그가 '유엔 총회'라는 기록이 미지의 땅과 공식·비공식 집권후 북에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해왔음을 집중 부각한 것이다.

북한의 공개자유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고종중학교에 다니던 1957년과 59년 김일성(金日成)수상의 모스크바 및 동유럽 순방에 두차례 동행한 경험이 있고, 65년 인도네시아 방한에도 수행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외부인사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80년 6차 김대중에서 후계자로 공개된 이후다.

김위원장은 8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후 덩샤오핑(鄧小平)·후야오방(胡耀邦)·차오유안(趙紫陽)을 중국 수뇌부를 만나 회담을 했다. 이 사실은 김위원이 지난 뒤에야 확인됐다. 북한 언론은 그해 9월 7일 김위원장이 장관수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중국 남·북 대표단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시간대를 공개. 그의 외교활동을 표면화했다.

김위원장은 80년에 있는 조선반도 남북회담(4월), 관(觀)대(對)공(公)의 회담시상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에는 김위원장은 김위원장이 주석과 해외 정치지도자들의 회담에 배석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여한 채로 공개된 적이 없다. 김위원장은 5월 중국 방문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김정일 위원장

# 호칭 '남쪽수반' 으로 달라져



## 얼떨떨한 北 주민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남한 최고지도자를 맞이하는 북한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후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뒤에는 갑자기 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아직 얼떨떨하고 충격적이게 새겨져서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부터 사정이 다소 나

## 北 충격완화 인간힘 "어떤 사람이나" 관심 살림 풀리길 기대도

아직인 했으나 식량·생리품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남북 해방기를 맞이하자 주민들에게서 상당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평양 방문자들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이 "인제(金) 총리입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객들도 "북한 주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산의 한 환경관리원은 "김정일(金正日) 장군과 상봉하게 될 '김대중(金大中) 집권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나"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대중령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도 달라진 모습.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한 한 기업인은 "그런데 'DJ' 혹은 '김대중'이라고 하면 민망했는데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름 뒤에 직책과 함께 사용하거나 '남쪽 수반'이라고 호칭했다"고 전했다.

김대중령에 대한 이미지가 '타도대상'에서 '남쪽 수반'으로 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전만 해도 '민주부사'와 '타도대상'의 상반된 이미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김대중령의 이름이 북한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북한은 이 사건을 발표하며 남북대화 중단선언을 발표했고 주민들은 그를 '민주부사'로 인식하게 됐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면

서 북한세력들은 김대중령에게 '타도대상'의 명예를 되찾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6일 김대중정부에 대해 "이전 독재정권들과 똑같은 괴소정권"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제 북한당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민들의 충격을 감안해 분위기가 조성에 인간미를 쓰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온건스럽게 받아들이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풀어주기 위해 대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jchmin@joongang.co.kr](mailto:jchmin@joongang.co.kr)

## DJ 특별기 어떻게 가나

# 서해 NLL서 北에 경호 인계 700km 비행 70분 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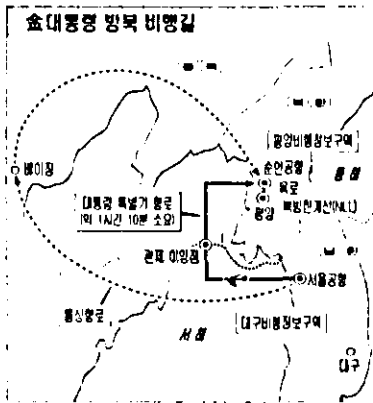
분단 후 처음 열리는 서울~평양의 하늘 길을 놓고 국제 당국은 12일 잠정합의를 맞췄다.

평양행에는 2대의 비행기가 동원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공석 수행원을 태운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보잉737), 그리고 비공식 수행원과 기자단이 타는 아시아나항공 특별기다. 아시아나항공의 색종이그늘 그대로 두고 꼬리 날개에 있는 태극기(76.2x50.8cm)는 지우고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서울공항(신유지)에서 간단한 환승행사 뒤 김대중 대통령 전용 비행기는 이륙한다. 공군기(F-16)의 경호 속에 기수를 서해로 돌린다. 군사철 보안문제 때문에 휴전선엔 날차 없기 때문.

향로는 서울~베이징 G957, 최단 우회로다. 서울 잠금관제소의 통제 아래 고도 2만2천피트(약 6700m)로 비행한다. 이때부터 남북 관의 긴장된 분위기를 대우관제소의 지시대로 받는다.

남북한은 대구~중국 신양(瀋陽)~평양 순으로 관제하기로 계획했다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대구~



관제소가 직접 통제하기로 바꿨다. 남북한 각각로 개통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

서해로 나간 1호기는 중국측 항공 관제구역에 들어가 거기 직전인 서울 서쪽 2백70km 지점에서 북쪽으로 가 수반 올린다. 북상하던 1호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상공에서 평양관제소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때 우리 공군 경호전투기는 영선나온 북측 공군기(미그 21기 이상)에 직접 통신과 남계정으로 경호를 인계한다. 서해 해상에서 동쪽으로 향한 1호기는 평양 순안공항 상공에 접근할 무렵 순안 타워를 불러 작당 허가를 받는다. 서울을 떠나 7백여km를 비행,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다. 이 과정에서 기상정보도 교환했다. 김민석 기자 <[kimseok@joongang.co.kr](mailto:kimseok@joongang.co.kr)>

## 在美 언론인 문명자씨 평양서 취재중 외신기자로는 유일



문명자 주필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외국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불허한 가운데 서방기자로는 유일하게 'US아시아 뉴스서비스'의 문명자(文明子·71) 주필이 이미 지난달 27일 평양에 들어가 회담준비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정상회담 기간에 CNN·AP 등을 비롯, 외신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하면서도 문명자 주필의 방북취재를 허용한 것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문명자는 19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금주석과 특별회견을 가진 데 이어 금위원장기도 면담한 바 있어 북한당국의 특별허가를 얻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자는 97년 7월 금위원장의 친필서신을 받은 점도 남다른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명자는 지난 4월 10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 때도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당국과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보도했다. 그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미 백악관 출입기자로 30년 이상 활동해 온 제이(美) 언론인 문명자는 73년 11월 당시 보도금지 사한인 '김대중 납치사건'을 보도한 직후 미국에 망명했다. [jchmin@joongang.co.kr](mailto:jchmin@joongang.co.kr)

## 장제민도 머문 北영빈관

### DJ 목을 백화원초대소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목을 백화원(白化園) 초대소는 북한의 영빈관.

평양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10분 거리인 대성군의 영빈동에 있으며, 김일성 주석의 사당이 인접한 금수

산기념공전과도 가깝다.

1900년대 초 남북 교류회담 때 우리 대표단의 숙소로 쓰였고, 이번에 정상회담 숙박대 30명도 이곳 '2호관(閣)'을 사용했다.

장제민(蔣經國) 중국 국가주석과 개대우신(金大宇) 원부총리, 98년 방북한 김주영(金周英) 친선대대 명예회장이 이곳을 이용

했다. 3층 구조의 건물 3개동이 대형 호수를 끼고 있어, 고위급 회담 때는 건물간 연락을 위해 우리 측은 지그재그 세대를 가짜가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대중령 부부의 견조원 등 최소 인원만 이곳에 북고 다른 수행원과 기자단은 각각 주입산 초대소와 고려호텔에 분산해 투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준 기자 <[yjlee@joongang.co.kr](mailto:yjlee@joongang.co.kr)>

매일경제  
2000. 6. 13 (화)

첫 정상회담 무순애기 나눌까

한반도 모든 현안 뚜껑 연다

**진행록 기자**  
13일 오후 역사적인 남북 두 정상간 첫 남북회담이 열린다. 기획연보 특집인 남북회담에서 두 정상은 사실상 한반도 모든 현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검교 개혁까지는 없고 역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며 반년 지체가 된 회담을 강조해 왔다.  
모습 그대로 회담할 것을 밝히고 더 논의할 것이 있으면 다음 회대로 넘기는 '비예전 정상회담'이 되도록 한다는 게 김대중의 구상인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을 위한 논의할 것은 모두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김대중이 김정일 국방위원

원, 박찬박이 지원 등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료·농자재 지원, 의료지원 산기 지원 등 농업·구조개선에 지원계획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측은 남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 원상화, 직립투자 등을 권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방문 중 정보통신업체가 합법인 증권투자(SEC)를 찾아왔던 김대중의 후보인 김정일만 김대중 산업 진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이 같은 경제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예상 의제

|           |                               |
|-----------|-------------------------------|
| 이산가족 문제   | 북측인상·생애사, 연인 소식, 고향방문단 교환     |
| 남북 경제     | SOC지원, 관여 사업 지원, 투자보증인상 등 제교  |
| 한반도 평화 정착 | 기본합의서 이행,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
| 남북교류 강화   | 관광객·교박위험자 입방, 서울-평양 연락사 수교 설치 |
| 시정문해 차곡교류 | 북구(대외)단일화·구설, 월드컵 분산 개최       |

이산가족 만남 남북경제협력 평화장착 이행 촉구

장래 논의할 것은 지난 3월 10일 북한인 자유대 회담에서 밝힌 '비예전 회담'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그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항상 전면에 내세웠던 과제다.  
정부는 관공청에서 열린 5차례의 준비접촉 과정과 평양에서 열린 중 인 신발대접 회담 북측에 계속 의제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산가족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은 이산가족 교류에 따라 디아사 비닐 수 없는 과제임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한 뒤 애경회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제  
남북 경제는 경제난을 다극하는 데 초여된 기용이고 있는 북한 체제를 감안하면 북측이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북에 이연제 재정 경제부 지원, 이기호 경제수석 비로써 기업인, 경제단체장 등 내거 포함할 것도 북측과 구체적인 협상할 여지가 될지 때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북한의 관여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개혁이 가장 재고가 되어 있는 부분인 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일정

|        |   |
|--------|---|
| 3월 10일 | 김대중-김정일 자유대 회담                                |
| 17일    | 남북 이산가족 상회이서 첫 접촉                             |
| 4월 8일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예이서 합의(북측의 북측부장관, 총으로 애대경 회담 부위협상) |
| 10일    |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발표                                 |
| 5월 18일 | 남북합의서 이행 실무접촉이서 채택                            |
| 31일    | 남북정상회담 발표                                     |
| 6월 5일  | 남한측 대표단 명단 발표                                 |
| 9일     | 국회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채택                           |
| 10일    | 북, 회담 하루 연기 발표                                |
| 13일    | 남북정상회담  |

분격화하기 위해 투자보증, 이관과세제지, 분쟁조정절차, 참산 경제협력 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군사적 대결시대 해소와 분단 민족화해와 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기본합의서 정신과 내용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김대중은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생존권과 국가이익의 대외 지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또 이밖 외에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협력제 의 5개 광범위 재가동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頂上 술잔 높이 들 때 화해분위기 절정 이룰 듯

DJ 평양 2박3일

남북의 화해·평화·공존공영·민족통일성의 회복... 김대중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일정은 그 자체가 50년 분단의 장막을 뛰어넘는 상징적 이벤트로 짜일 전망이다.  
○화해를 향한 메시지-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김대중은 "평안같은 한반도가 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화해·협력의 면 같이 이르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외대 관계자는 "김대중이 '역사적' 동행 수석여류 최대한 장제하는 강력한 말로 강연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연도행사'가 있게 된다면 북측 주민이 남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는 화해의 장면이 이어지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이 각각 개최할 만찬석상은 화해 분위기를 높여주는 하이라이트. 만찬사와 함께 화이트 와인 또는 분배주가 담긴 술잔을 부딪치며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화해의 상징-김대중은 어린이들의 예대음·과학교실인 만경대 학생소년공단을 찾은 예정. 부인 이희호(李希浩)여사는 평양

산원(善院)·장광유치원을 찾은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탄생, 그리고 어린이들과 김대중은 내외의 만남이 선명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교류와 공존공영-교류 요한 비으로 2세까지 아예적으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도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대목.  
두 차례 단독 정상회담과 중간 회담회담에선 공존공영의 가치의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정전(停戰)체제의 평화체제로 이행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인종통합과 동질성 회복-고구려 유적을 찾는 김대중은 강력한 힘으로 민주왕국 진흥했던 '고구려의 기상'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민족통합의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이 부리가 된 구한말의 세국정세에 있다는 내용의 'DJ사건(使節)'연극도 기대된다. 김대중이 옥류관을 찾아 평양냉면을 맛보는 자리에선 남북 전통음식도 화제에 오를 전망이다.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한때는 김원삼(金元相)주석과 정원식(鄭元植)총리가 '어어'를 화제로 올렸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ang.co.kr>

한겨레

2000. 6. 13 (화)

정상회담 큰부담 말고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지 무려 반세기 만에 남북한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의 정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 주민은 물론 세계 열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두어 양측 정상들에게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남북은 한겨레 한빛잡이만 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질적 사회체제에서 서로 너무나 높은 불신의 벽을 쌓고 살아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불신의 벽을 허물

고 상호신뢰를 쌓는 첫걸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진솔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 단장 실현 가능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군비 축소 등 정치·군사적 의제를 비롯한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차차 민족의 잠재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번 회담이 '천막같은 천막'이라는 별칭이 시종일관 유유히 있고 회기에 대한 분위기가 속속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양측 정상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김민영/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경험·월드컵·문화예술...

# “南北 껴안기 이바지”

## 北사정 밝은 특별수행원들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수행하는 각계 대표 24명 중엔 북한에 다녀와서 북한 인구를 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 성공과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방북 경험이 가장 많은 인물은 현대그룹의 대북(對北) 사업을 주도해온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 갈 때마다 수행했고, 최근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했을 때도 배석했다.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북한측의 진일(進一) 조치가 뒤따라지 관심이 다. 정몽헌씨 동생인 정경준(鄭景準) 축구협회장도 2002년 월드컵 남북 전산개회본제 논의 등을 위해 지난해 북한에 간 적이 있다. 회담장은 민천장 등에서 박명희(朴明熙)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회담장은 “기회가 닦으면 시드니 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 월드컵 분산개회 본제 등 많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합그룹 회장인 장치화(張致赫·평북 영변 출생) 남북경협위원장과 김성모(金聖模·함남 북한 출생) 리나아코리아 회장은 이산가족 기업인,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출신 기업인들의 고향투자사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의 6·25 50돌 기획에 참여해 휴전선 지역을 탐방하고 김장기를 쓴 시인 고은(高銀)씨는 “북한 문화·예술계의 교류방안을 의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하(金民河)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만길(姜萬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 방문이 처음이나 북한을 잘 아는 학자들, 중앙대 총장을 지낸 김부의장(金富義)은 1994년 김대중 대통령의 아태재단 설립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고대 교수(高世學) 출신인 회담장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관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



12일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 총재(左)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국 협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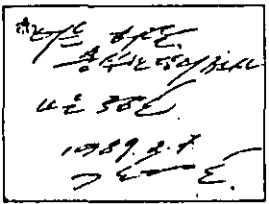
## 총리서리 대통령代行 與野 위헌 입씨름

김대중 대통령 방북기간 중 이현동(李顯東) 총리서리가 대통령직 대행을 맡는 문제란 놓고 12일 야간 위헌논란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권영현(權英顯)대변인은 “총리서리라는 위헌적 직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현동씨 본인도 야당대표 시집 총리서리의 위헌성을 외치던 장면인”이라고 덧붙였다. 야기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총재단회의에서 주총재는 “총리가 겸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비울 경우 국가보위법상 재가·총위·외교중상부담권 등으로 대행을 할아야 한다”며 총리서리제에

대한 헌법소원 법의를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개헌·복합부담권이 정상회담에 수행하므로 이장민(李廷彬)외교중상상관이 대행을 맡는 게 원칙”이라는 것.

총리실과 재민원은 ‘역제’라고 맞섰다. 차민원 김희원(金喜元)대변인은 “총리서리제는 오랜 풍지관습”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은 국정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김종필 총리서리 문재일 한나라당이 제기한 위헌신청이 기각됐던 만큼 이번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이수호 기자 <hodoo@joongang.co.kr>



하담 담버서(91년 5월 시방)에게 보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필서한. 북한TV가 공개했다.

## 회담 하루前 북한TV

### 일정 순연 계속 침묵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중앙TV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집중 방영하는 등 위상 높이기에 전념했다. 위성TV로 수신된 중앙TV의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북한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 오후 4시까지 회담 일정이 13~15일로 하루 순연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와 평양방송은 오전 6시와 7시 보도에서도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11일 북한TV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점. 중앙TV는 11일 오후 7시부터 한시간에 걸쳐 ‘위대한 품모에 비호되어’를 방송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위원장의 외교적 성과를 편집한 이 프로그램은 평양을 방문한 일본·인도·네덜란드·폴란드·리비아 등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그를 만나 존경의 뜻을 표하는 장면 일색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위원장의 위상을 한층 높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TV는 11일 오후 9시50분부터 30분간 다큐멘터리 ‘사람의 친밀’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위원장이 각급 기관·공장·농장 및 주민들에게 내려 보낸 ‘친밀’(각과사와 사람)을 통해 주민과 지도자의 입체감을 부각한 것이 특징.

북한 당국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독립모체에 해당하는 혁명사상, 공작·농장 등 산업현장, 김위원장과 등 교육기관, 반수대장사사 등 애국기관에 김위원장의 친밀을 새겨 놓았는데 TV는 이를 위상이 보여주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이 끝없는 봉애 뿐이냐고 있다”고 찬양. 특히 도입부에 김위원장이 오진우(南仁仁)부총장을 혁명 1세대에게 보낸 친필서한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김위원장이 혁명의 방법론을 잇는 장승(長承)임을 암시하는 데목.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 “뭔가 나올것” 조심스런 전망



## 남북 정상회담

### 서울에 온 외신기자들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대거 서울에 입국한 해외 언론사의 취재진은 한결같이 “이번 회담이 마지막 냉전시대인 한반도에 평화롭 정착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와 관심유를 보였다. 외신기자들은 또 “인적 교류와 경제·문화 협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취재 중인 기자는 26개국 1백80여개사 5백70여명. 이들 중에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일본 NHK와 영국 BBC 등 유명 언론사들은 북한 당국에 직접 방문취재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차선책으로 서울에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아시아**—서울 유학 경험을 가진 NHK의 오키모토 켄고(岡本健吾) 기자는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북한이 일어나 양보할 것이냐에 달렸다”며 “변명만 있는 회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강교역단의 서울 공연이 호평받는 등 교류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은 상태”라며 “이산가족 상호방문도 비록 자유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의 방식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임분인들의 모국 방문이 세 차례 실현된 것을 예로 들며 제한된 인원의 고향방문을 일정 기간 안에 허용하는 방식에서부터 점차 호수와 인원,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해외자본에까지 투자를 개방할 경우에 대비한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하면서 “이러까지 북한엔 미개발 부문이 많은 데다 의류산업 등에서 보여주는 북한 노동력의 숙련도도 높다”고 말했다.

대한 TVBS의 국제뉴스센터 편집장(彭向陳) 기자는 “대만과 중국이 채워 있는 상황이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많아 대만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이번 회담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회담을 마치고서 개방으로 선화할 것인지의 여부”라면서 “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평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취재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석 기자

화 무드와 회담·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어 양안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회담 성과에 대해 “회담 당사과정과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대립’ 대신 ‘대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자들**—그러나 “북한이 이번 첫 회담

에 대해 비교적 냉정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미국 외교소식통들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직지만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94년 김일성(金日成) 전 북한주석 1주기를 맞아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ITN방송의 이언 윌리엄스 기사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식량난이 더욱 악화돼 대회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본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의 통신사인 아센시아 에페의 카를로스 도밍구에스 기사는 “한반도는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배경 등유 기사로 전승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들의 접촉 뒤엔 언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실무자간의 다양한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도쿄(東京)특파원 마이클 빌릿은 “호주는 지난 달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시작 당일에는 단연히 1면 기사를 장식할 것”이라며 취재의욕을 보였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빌릿 기사는 “한국의 분단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한 정책 등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여러 차례 송고했다”며 “회담 결과에 짐작할 만한 뉴스가 보편화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영준·이상현 기자 <yjyoung@jwongang.co.kr>

## 26개국 570여명 취재나서

### “본질적 변화 없을것” 시각도

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 입장을 철회한 다거나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 포기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획기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유럽**—서울특파원 출신의 BBC 찰스 스텔런 기자는 “한국의 분단 상황과 최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을 자세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회담 전망에 대한 예측은 자세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996년 남북위해 경험을 가진 스텔런 기자는 북한의 갑작스런 회담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북한이 워낙 예측하기 힘든 면이 많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 발표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남북한 실무진간에 무언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순식간에 회담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USA투데이]의 폴 와이스먼 아시아지국장도 “한국에서 만난 정부 관리들이 김

# 통일로 가는 첫발 이산의恨 풀어야

일부선 "만남에 의미- 성급한 기대 말자"



## 남북 정상회담

### 각계의 바람

분단 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각계 인사들은 회담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초석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성급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주부 김효선(48)씨는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춘 회담이 되길 바란다. 특히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담했다.

회사원 김갑호(35)씨는 "두 정상 이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 긴장이 완화돼 정치안정과 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인순(45)사무처장은 "2002년 월드컵 남북 단일팀 구성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김장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열(31)부장은 "이산가족·장기수 송환문제 등 분단이 빚어낸 비극을 남북이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회계=고려대 배종대(법학)교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1970년대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독을 방문했던 것과 비견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강대 손호철(정치외교학)교수는 첫 만남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이같은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남 전 동화연구소장은 "한편에 모든 일이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회담이 끝난 뒤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까지 분석해 가며 차분하게 풀어가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비트컴퓨터 조현정(43)대표는 "개방의 빛깔이 풀리면

벤처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한 우리로서는 지식·기술 재공급 통해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보테크 장홍순(40)대표는 "북한은 과학분야, 특히 생명공학이 발달돼 있어 우리 벤처기업들과 결합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북한에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공기원 행사=남제주군 상산읍 청년회는 13일 한반도 동쪽 끝인 독도에서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은 넘치 치어 1만1천여미리쯤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독도연대회의(대표 김봉우)는 13일 태어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추첨을 해 '독도를 남과 북이 지켜내고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준다'는 뜻에서 e-메일 주소를 증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경보연합회 회원 1백여명은 12일 오전 10시 구미시 민병지회관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8백만 이산가족 재회 등을 기원했으며,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 소속 회원·시민도 회담 성공 기원 지전 거대가 행사를 열었다.

사회부·전국부 <kkskk@joongang.co.kr>

## '반갑습니다' '휘파람'

### 北노래도 덩달아 뜬다

#### 휴대폰 벨소리로도 인기

북한에서 유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가 남한에서도 뜨고 있다.

이 노래는 1년전부터 급강상 관객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평양 평화친선음악회에 참가했던 한 가수가 국내 TV에서 북한 가수 특유의 고음급 흉내 내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퍼졌다.

특히 북한예술단의 공연은 이 노래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으로 비례했다.

한 여가수는 이 노래를 포함한 7곡의 북한 노래를 취입하며 가요계에 데뷔하기도 했다.

휴대폰 벨소리에서도 인기가 느껴진다.

지난달부터 이 노래의 멜로디 서비스업 시작한 T 정보통신 김재민(金載敏)실장은 "하루 1천 2백건 정도가 '반갑습니다' 벨소리를 다운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인민배우 김애인이 1990년대 초 북한 북한 내 최고 인기가요인 '휘파람'의 인기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휘파람은 어느 북한 가요와 달리 젊은 남녀의 연애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한 곡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재미있는 가사 덕에 90년대 초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제 북한 노래는 김장일·대학생의 희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대학생 文모(24)씨는 "반갑습니다·휘파람 등의 노래가 최근 뒤풍이 자리의 흥을 돋우고 있다"며 "동아리 방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북한 노래를 배우는 모습은 심심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민경찬(閔庚燦)교수는 "북한 가요가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다 따라부르기도 쉬워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ideal@joongang.co.kr>

문수대

통일문화전집

1988년 남북 혹은 남북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가 단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동안 북한의 현대문학 작품 출간이 붐을 이뤘다.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강조된 작품은 제외한다는 것이 당국의 광범한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들까지 알게 모르게 독자들의 손에 쥐어졌다.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등 1950년대 이후에 씌어진 작품만 수십권에 달했다. 같은 동안의 불어기는 했지만 이 책들이 널리 팔리나간 것은 순전히 남쪽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특같은 한민족의 특같은 언어로 씌어진 작품이 서로간에 읽히지 못한다는 것은 본면현상이 아닌가 한 포하나의 비극이었다.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작품은 그 렷다 치더라도 순수한 문학작품조차 '밀운 문서'나 다름없이 취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쪽의 독자들이 북한의 현대문학 작품들을 한동안 다루어 읽은 것은 1차적으로 그런 급기에 대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문학 출판은 반쪽 책으로 끝 시 들어버렸다.

문예이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 현대 문학의 수준은 남쪽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는 것이 보편적 이론이다. 하지만 북한의 문학도 90년대 이후 상당한 변모를 보이고

있다. 기령 67년에 확립된 '주체문예이론'은 92년 김정일(金正日)이 내놓은 '주체문학론'에 의해 하나의 전기(轉機)를 맞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비사회주의적이고 탈사회주의적인 요인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학적인 변화의 욕구를 은밀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문학의 예술적 수준이나 문학적 이데올로기가 어쨌든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북한의 예술과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대문학에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문단 일각에서 '통일문화사'를 정리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



개되고 남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1백권의 책으로 묶는 '통일문학작품'의 출간사업을 서두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있지 않지만 오늘날보다 읽히는 남북 정상회담에 예술위원회가 동원하게 되 문화예술인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본지 6월 12일자 18면). 남북통일에 앞서 문화적 이질감의 극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 언어의 예술인 문학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한다.

경향신문

“젊은세대 北바로알기 계기됐으면”

탈북여대생 한수정씨 정상회담에 기대

“대동강의 옛터에선 두각 드러낸 들 권영시대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풍광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면 왕족 지도자는 사침을 버리고, 비분단 세대인 대학생들은 통일·민족 문제에 보다 적극 식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범민족선 탐탁 여대생 한수정씨(20·연세대 사회과학부 1년·사진)는 이번 회담이 남한 젊은이들에게 북한광부첩 시작하게 하고 통일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3년전까지 권양 중장부인 중구영 인민대학살 부근에 참여 중학교 6년(고3)까지 나타나기 서울로 와서 김성고사와 대학 특채전형을 거쳐 입학비지불 습기는 어엿한 청년 여대생이 됐다.

그간 PC통신에 빠져 채팅과 '밴게팅'을 즐기 고 출신 무렵에도 참여하며 '남한분류이기'에 열 췌했던 신세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 대해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그들의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가 범민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걱정담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민(호동)하고 4학년때 배운 노래 ‘화

무관심 판매 통일 의 걸림돌  
北예술공연 민족화해 첫발

채팅 습기는 어엿한 신세대  
졸업뒤 北전문기자 담찬 꿈

파란'이 방송에 나오고 권양교예단이 서울에서 공연한 요습 그것이 한때의 유행이나 오락이 아닌 동포애로 가슴에 남아야 민족화해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제는 김책공대 출신의 수력발전소 터빈 진 분기인 아버지, 김일성총합대 출신의 배태양 장 치부 기자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한 생활을 누리 다 중등학교 졸업후 3개월 앞두고 함경북도 김 책사로 옮겨났다. 어머니가 사색에서 김정일 국 방위원장을 비판한 것이 죄인. 이들은 추방생활 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탈출. 1년여간 도피생 활 끝에 서울로 돌아왔다.

한제는 “도피생활중 무국적자의 습과 무관



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왜 통일유 어떤 부국 이 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추방지 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등 그리며 일기장에 종종 편지첩 쓴다”고 밝혔다.

그는 “졸업후 북한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 매 일 북한뉴스를 표박표박 챙기고 신빙과 교수님 의 강의록 습겨 듣는다”며 “이번 회담에서 남북 신세대들이 왕과 교류할 수 있는 합의안이 꼭 나와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섭기자

lee@kx.yonhap.com

# 이산가족 아픔 끝낼 수 있을까

## 남북 정상 만남 의미 다양하게 알아보자

6월 13일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세기 만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처음 만나는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만남은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상 회담이 있기까지는 우려곡절이 많았다. 1994년에는 어렵게 합의한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남북한의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활동해 본다.

▷주요 사건 일지=한국전쟁 이후 정상회담까지 남북의 정치·군사 등 주요 사건 일지를 만들어 흐름을 파악한다.

▷평양으로 가는 길

▷백지도를 펼쳐놓고 남한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두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을 구분한다. 그런 뒤 노선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적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양 방문 노선을 표시한 뒤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건설하고 있다. 이 노선을 연장해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특급 열차 노선을 살펴보고, 남북한 및 동서양 문화와 회합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아 열차의 이름도 붙인다.

▷북한의 생활=남한과 북한의 국민총소득(GNP)적치는 얼마나 할까. 또 서울과 평양의 날씨를 1주일쯤 비교한 뒤 기온 차

에 따른 의·식·주의 다른 점도 분석한다.

▷인상, 그 순간을 영원히=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신문에 난 사진을 모아 회보를 구민다.

▷우리는 어떻게 환영할까=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어떤 환영을 받았나. 만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에 온다면 어떻게 환영하는 것이 좋을까. 모뎀을 만들어 플래카드 모양을 디자인하고 글씨도 지어본다.

▷단일 팀의 위력=통일에 앞서 스포츠·예술 등 각 분야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면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모뎀을 지어 단일화했으면 좋은 분야와 종류를 토론한 후 단일화로 얻어지는 효과도 정리한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남북한 어린이 교류 프로그램이 타결돼 북한 어린이가 우리 집에 왔다면 가장 보여주고 싶은 물건, 또 어떤 음식을 대

접하고, 선물은 무엇으로 했으면 좋을까, 각각의 이유도 설명한다.

▷통일 국기=통일이 된다면 어떤 국기를 사용하면 좋을까. 모뎀을 만들어 직접 디자인하고 상징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작품을 뽑도록 한다.

▷언어 차이=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크다. 방북 취재진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뜻이 서로 다르거나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찾아 정리한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남북 정상은 중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내가 남한의 대통령이었다면 선언문에 꼭 넣고 싶은 내용을.

▷이산 가족 찾기=분단 이후 마음을 좁이며 서로 만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한 이산 가족은 얼마나 할까. 그리고 이들을 찾아 상봉시켜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태종 기자 <ltaejong@joongang.co.kr>



## 경향신문

2000. 6. 13 (화)

### ‘고향흙이젠 밝아보나...’

#### • 진도 안농마을 실향민들

“고향산천에 달려가 목놓아 울어봤으면 더 이상 비애가 없겠소” 최남단 실향민촌인 전남 진도군 군내면 안농마을. 북한에서 한 마을사람들이 풍광 내려와 풍년을 이룬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정상회담 발표 이후 안농마을 43가구 90명의 주민들은 모두 표정이 환해졌다.

어침에 눈을 뜨면 으레 마을회관 앞으로 나온다. 어젯밤 ‘꿈에 본 내 고향’을 앞다퉁 얘기하며 ‘웃음꽃 눈물꽃을 피우다’를 넘으로 나선다. 마을앞 논으로 향하면 주민들은 황제도 믿고 ‘남쪽 가를 무럭무럭 부른다.’ ‘이러이예 예행요/어라다 풍중/내 사랑이/정방산성/초목이 무성하네/밤에 나옴 달이/대낮에 온다’ 실향민들의 애창곡인 ‘꿈에 본 내 고향’이 부를 것이다.

이장 조석웅씨(66)는 “우리 마을사람들에게 고향은 하나의 종교이기도 하고 여태껏 살아온 이유

이기도 하다. 이번엔 정말 고향 땅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의 고향은 황해도 송학군의 외딴섬 초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해방대 기지가 있던 곳여서 북한군에겐 눈엣가시였다. 1951년 1·4후퇴로 미군이 철수할 때 한 마을 전체가 문물계 실향민(LST)을 얻어타고 목포까지 내려 왔다.

다행 마을에서 온 과남면 2000 여명은 분신장벽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졌지만 이들 ‘초도사람’은 당국 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풀풀 뽀뽀했다. 이들이 지금의 안농 마을에 정착한 것은 57년 초이며, 이들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국이 건축지 2만여평을 주며 살도록 해 준 것이었다. 이들은 요즘 기대에 부풀어 고단할 차비를 하고 있다. 선산에는 이곳의 민속주 ‘홍주’를 바치고 고향마을엔 전통제기 3~4마리를 선물할 예정이다. 진도/백영재기자



남북 정상회담 외신 브리핑

“김정일 워싱턴 가야”

中전문가 코언 변호사

[홍콩=진세균 특파원] “북한의 관리들에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워싱턴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에 갔을 때 모든 중국인들에게 하나의 신호탄이 됐던 것처럼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관리들은 못았지만 내 생각을 수긍했을 것이다.”

중국법 전문가인 제롬 코언 변호사는 지난 주말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제거래법 특강’을 마친 뒤 이렇게 털어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이 특강에는 북한 관리와 학자·변호사 15명이 참석했다.

국제적 로변인 ‘폴, 바이스, 리프킨

드 앤드 개리슨’의 파트너인 코언이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봄,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중국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같은 해 12월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첫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이 세번째, 북한측이 평양에서의 개최를 거부해 줄곧 베이징에서만 열렸다. 코언은 지난 20년간 중국에 머물며 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어떻게 고립과 외국인 공포증을 극복해 왔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다.

“김린턴은 임기를 6개월 남겨 놓았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가 김위원장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코언은 말했다.

미군포로 가족도 환영

[뉴욕=AP] 남북 정상회담은 6·25 전쟁에서 포로가 된 뒤 생사조차 모르는 미국 군인들의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19일자에서 1950년 11월 전쟁포로가 된 로저 무어스 미 육군 상병의 형 밥(70)의 집기운 통생황기 얘기를 다루면서 정치적으로 세뇌돼 북한에 남기를 선택한 21명 등 수백명의 미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옛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마오쩌둥(毛澤東)과 이오시프 스탈린, 김일성(金日成)간의 비밀전문에서 중국측은 유엔 가입과 외교적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담보로 미군 포로 8천1백여명 중 20% 이상을 총환하지 않고 억류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CNN 홈페이지

정상회담 특집 신설

[로스앤젤레스=AP] 뉴스전문 케이블 TV인 CNN이 11일 지사 홈페이지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특별기사를 신설했다. CNN은 인터넷 웹사이트 1면 상단에 ‘남북 정상회담-역사적 만남이 50년 간격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는 제목으로 새 항목을 만들었다. 이 특집기사에는 ▶한반도 개관▶남북정상 포럼▶남북한 시각 등이 수록돼 있다. 남북한 관련 사진을 보여 주는 포토 갤러리와 한국전쟁에 관한 퀴즈도 있다.

“서울손님 어서 오세요”  
平壤은 환영의 꽃물결

라·中언론이 전하는 北표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평양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행을 환영하는 진분홍색 조화로 벌써부터 꽃물결을 이뤘다.

이날 평양 시내에는 진분홍색 조화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으며 중화선 밴드단이 임빈곡 연주 여행연습을 하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이날 오후 평양발로 전했다.

학생들 매스게임 연습

평양 시가지 일대는 깨끗이 단장됐으며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여경의 옷카핀은 순백색이며 정복으로 바뀌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또 평양체육관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매스게임을 연습하고 있었다.

신화통신은 한 민족이면서도 그간 소원하게 지냈던 남한의 진경을 맞아 북한은 5일부터 각종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안국제공항부터 평양시에 이르는 도로와 개선-평양간 고속도로 연변도 모두 새로 수리했으며 노면 난간도 새로 페인트칠을 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북한측과 한국측 산발대가 주도면밀한 협상 끝에 김대중 대통령의 숙소를 아늑하면서도 호

젓한 백화관으로 짐했다고 밝히고 이곳은 90년대 초 남북총리급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한국 총리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기자단 등 수송원들은 화려하고 전아한 고려반침(호텔)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프레스센터 준비 잘돼

러시아의 이나르타스 통신 평양 특파원인 알렉산드르 팔라예프도 평양 시민들은 진분홍색 조화를 흔들며 순안공항에서 시대로 이어지는 길가에서 김대중 대통령 임행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고려반침에 11일 들리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취재기사는 잘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일 아침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것을 알았다”면서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취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평양에는 4명의 외신기자가 있다. 상주 특파원은 팔라예프,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특파원 등 3명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기자로는 유일하게 이나르타스통신에서 바체슬라프 토밀리안기자가 8일 증파됐다.

〈베이징·포커스〉=이종환·김기현특파원  
ljhzip@donga.com

# “회담 정례화 기회 구체 성과 거두길”

本紙에 보내온 해외인사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  
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지구  
촌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세계 정상  
급 지도층 인사들은 본지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크게는 남북한간 상호  
신뢰 회복과 한반도·동북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정착을, 작게는 첫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비롯  
해야 한다고 기원했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의 시종일관한  
긴장완화 정책에 감사와 경의를 보냈  
습니다. 이번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은 동  
북 아시아 전역에서의 평화적인 발전  
을 위한 결정적인 첫 걸음이 될 것 이  
라고 믿습니다.

◇나카소네 아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김정일군이 김대중 대  
통령 재임시 실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도  
기대를 걸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제1  
회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담  
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첫 남북 정  
상회담은 오�히라 김정일 위원장이나  
지도부 여러분이 매우 긴장할 것입니  
다. 물론 송대호원은 노련한 정치가이  
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이번 회담은 부드러운 회담,  
정례를 향해 정(正)을 여는 준비회담  
입니다.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북 경선이 만나

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  
다. 회담이 계속되면 대성공이라고 생  
각합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국제사  
회는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은 한반도 체제화의 발전상태  
를 중시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  
며 비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  
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속적인 협화를 누리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진  
정으로 바랍니다. <본지 6월 8일자  
1, 4면>

◇로버트 스킨라피노 미 버클리대 석  
좌교수=정상회담은 분단 50년 만에  
남북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남북한 현  
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입니  
다.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평강은 이미 진중적 변화 이상의 큰 결  
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새로운 여  
정을 떠나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  
다. 북대서양과 경강이 과거의 반목과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  
니다.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외  
교안보학장·전 미국 대사=정상회  
담은 남북대화가 정례화할 수 있는 중  
요 기회입니다.

1993~94년 북한과 협정상을 쫓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바이당적  
인 기대를 갖고 회담에 나올 수 있습



바이츠제커

나카소네



코피 아난

갈루치



스킨라피노

이항리

니다. 송대호원은 가끔씩 이 점이 유  
의해 '크고 추상적인 승리'보다 '작고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삼기 바랍니  
다.

◇지크 아랍의 전 유럽부흥개발은  
행(EBRD)총재·'21세기 사진'저  
자=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남북한이 이번 회  
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룬다면 지구촌  
의 미래에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지구촌  
곳곳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지금 이웃  
나라간의 반목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전세계에서 만발하고 있는 민주주  
의가 한반도에도 정착돼야 합니다. 정  
상회담은 이런 의미에서 전세계의 문  
명화를 향한 마다한 여정의 이정표입  
니다.

중앙일보  
2000. 6. 13 (화)

## “北측의 유연성 여부가 변수될것”

영국 BBC 방송 마크 페로우(Mark Perrow) 아시아지역장이 남북정상회담  
을 하루 앞둔 12일 대한매일에 보내온 특  
별기고를 요약·정리한다.

남북이 분단된 지 50년만에 양측 지도  
자간의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 전세  
계가 집중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 첫만남서 현안타결 불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  
다. 남한은 북한에 아산가족 상봉,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중단 등을 요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측도 미군  
철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이 첫 만남에서 타결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화가 단절된  
한반도에서 남북 양측이 반세기라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서로 만난다는 데 의  
의가 크다. 특히 그 만남이 민간차원이  
아닌 최고지도자 차원의 회담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두드러  
지도록 이번 회담이 좌우할 것이  
다.

민감한 사안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  
기 보다 서로에 다가서기 위한 첫 단계  
로 보고 차차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 달



마크 페로우  
英BBC 아시아지역장

린 것 같다.

### 결실있어야 후속회담 가능

따라서 회담의 가장 큰 결실물은 북측  
의 태도다. 북측은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변화를 관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번 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유연성있는 태도를 보  
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회담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의 세계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의 판  
계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핵 비확산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일본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가도 북한으로부터 핵거  
협을 받고 있는 만류 영향권 안에 든다.

대한매일  
2000. 6. 13 (화)

# 남북 새날을 연다

## 김대통령 오늘 평양으로 분단 55년만에 정상회담

55년간 단절된 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이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55년간 단절된 일을 연다.

김 대통령은 13일 오전 비행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평양 중립 일정에 들어간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날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의 과거·현재·미래, 평화공존 및 화해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14일에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합의사

항이 있을 경우 15일 오전 공동회견이나 공동성명 형식으로 회담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신의 벽을 허문다 △가장 쉽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합의한다는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적대적으로 불신과 긴장 속에 보내온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족이 번영하고 통일이 이르는 첫 걸음

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인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한반도 평화선언' 등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하면 "남과 북은 거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지"는 요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다.

성환용 기자 shv99@hani.co.kr



정상회담 앞둔 김대통령 내외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청와대 앞마당에서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끼를 먹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민족 염원' 새기며 꽃밭 사색

## ■ 정상회담 앞둔 김대통령 표정

"유전선이 아니라 역사의 분수령을 넘는다."

4월 8일 남북 당국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 65일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겨레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지린 속에 김 대통령의 방북이 13일 이루어지게 됐다.

정상회담을 이룬 앞둔 11일 정작 김 대통령의 마음은 긴장, 설렘, 기대으로 교차되는 듯했다. 복잡한 심사

때문일까. 김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외박'을 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12일 낮에는 방북에 동행하는 부인 이희호씨와 약 40분 동안 청와대 녹지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도 주고 주변에 있는 나무와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시 관저로 올라가 평소 기르는 진도 개 '치용'과 '나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다. 평상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 같았다. 그러나 꽃밭을 거닐면서 이따금씩 깊은 상념에 빠지곤 했다. 오후 3시경 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잠시 받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 휴식을 취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박준영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

## 녹지원 거닐면서 부부 대화

"성원 감사...준비 충분하였다"

## 출발전 이산가족 만날 예정

며 "민족과 세계인의 따뜻한 기원과 바램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떠나게 된 것을 민족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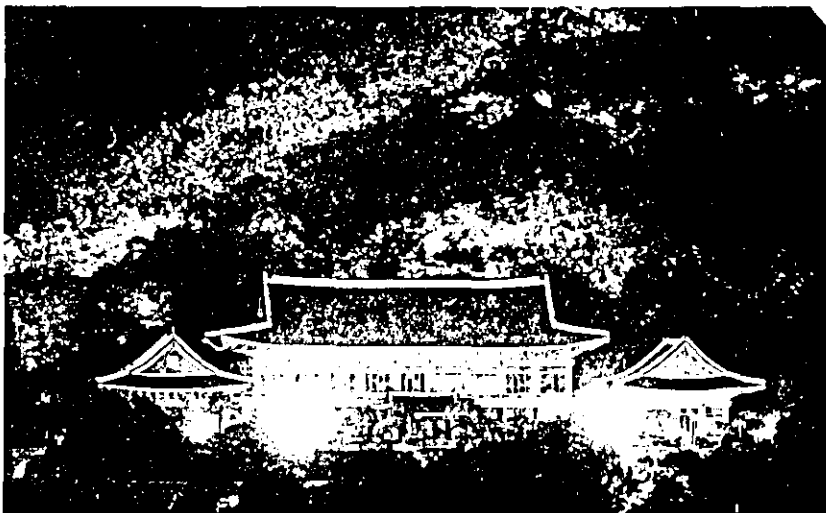
출발 당일인 13일 아침 김 대통령은 관저에서 식사를 마치고 본관으로 출근한다. 본관에서는 잔류하는 수석 비서관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청와대를 나선 김 대통령은 도중에 이산가족들을 잠시 만나 이들의 '비밀'을 들을 예정이다. 공항에는 정부요인과 국무위원, 일반시민들이 나와 김 대통령을 환송하고 이별을 지켜본다. 김 대통령은 공항에서 간단한 출발성명을 발표하고 평양행 비행기에 오른다.

1시간여의 비행을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북쪽 인사들과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회구하는 도착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양 도착 장면은 세계 60억명에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이어 김 대통령은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상봉을 한다. 평화를 갈망하는 겨레와 세계인이 꼭 지켜보고 싶었던 장면이다. 이날 저녁 김 대통령과 수행원 일행은 북쪽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당대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19세기 말 선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손들이 일제강점과 분단의 고통을 겪었으나, 21세기 초반인 지금은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 세기 동안 민족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활짝 핀 청와대 북인 방문을 10여시간 앞둔 12일 밤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로 밤을 잊은 듯 불을 밝히고 있다. 이정우 woo@hani.co.kr

## 손님맞이 준비 끝낸 평양 '평은'

12일 평양은 조용한 '표정'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회담 선발대 등은 이날 평양 시내에는 몇몇 건물에 조기가 걸리는 변화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시리아의 핵커즈 알 아사드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이날부터 5일 동안 '지정된 장소'에 조기를 게양토록 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평양시가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띠고 있는 데 대해 '이미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쪽 당국은 5월 하순부터 평양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김 대통령 등이 목을 변화원초대소 동지의 내부순집도 끝났다는 것이다.

또 북한 언론도 12일 오후 늦게까지 회담 연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한 평양'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방송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연기사실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중신적 방송은 없었지만 동네마다 설치

된 유선라디오(스피커방송)를 통해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평양의 모습은 정상회담기간 중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력계 신문인 《조선신보》는 12일 '역사적인 북한 최고위급회담에 관해 조선중앙방송이 위성방송하는 보도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기간중에 아시아영상센터의 홈페이지 '단군'(www.tangun.co.jp)에 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영상센터는 북한이 자신들의 영화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일본에 설치한 영화 배급회사다. 김복근 부산/최성현 기자 tree21@hani.co.kr



## 5 남북 새날을 언다

## 두 지도자 비교



김대통령 발언

### "정상회담 통해 평화통일 논의"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대통령 탄신 뒤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어 기뢰 있을 때마다 이를 제거하길 원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71년 야당 대통령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통일정책을 정상회담으로 물결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나의 통일정책은 '내선 선형 시장'에서 '적극 관여 지향'으로 개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탄신 기자회견 이후 98년 2월 25일 대외부 회담에서 지난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 정 당대회 때도 "김정일임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19일 김정일 총비서와 "결기하는 방안을 하면서 정상회담 상사에 일관성을 더해야겠다. 김 대통령은 이날 <도쿄방송>과 회견에서 "김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정상이 북측 정상을 공식적으로 명기할 최초의 발언이다.

김 대통령은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뒤에는 이종성 보훈처 장관에게 상원을 이목에 내는 데 힘을 쏟았다. 김 대통령은 1월 19일 4·19 혁명 40주년 기념식에서 "민족적 대통합 안에 의미가 담보 있을 수 없으며, 조만간이고 남북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앞서 4월 17일 내외각 회담에서 "일방에 다 허락하지 않겠지만 다음 권력이 될 때도 생각하면서 해나가겠다"고 정상의 합의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 인동초-황제 수업 대조적 대화분위기 주도 닮은꼴

### 김대통령 논리정연 차분한 화법 경제·통일 해박한 지식

남북정상회담의 높은 벽은 한 정치적 사정수에 의해 놓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위난만 정치역정을 겪어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세 명의 군부총신 대통령 정권 시절, 민주화를 이끈 야당 지도자로서 55차례의 가택연금과 183일의 강제인감을 겪었다. 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수장당할 뻔 했으며, 80년 민주민주회동 때는 친두한 신문부로부터 사생활고갈 면기조를 했다. 그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71년과 87, 93년 대선에서 3차례 고배를 마신 뒤 97년 '대권 4년' 끝에 50이연표 주자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자취를 보여주고 했다. 말 그대로 '인동초'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50년대에는 총국대연과 <북포일보>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등 사업가적 수완도 발휘한 바 있다. 성격은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화에 앞서 자료를 분석하고 꼭 할 말은 충실히 숙제한 뒤 사안을 말한다.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화법을 구사하는 김 대통령은 재치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고 말의 끝까지 수지를 염기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김 대통령은 무용 기간 들을 통해 책을 많이 읽어 보았다. 실권 초기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방 장·차관을 당원장 김 정모에서 '지도자'가 아닌 '실무자' 스타일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특히 경제와 통일 문제가 밝아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역대 군사정권으로부터 '내골' 문제에서 사나운 김 대통령이 굳게 닫았던 북쪽의 문을 열어 재건 것은 매가지승이 이전까지 기록을 발휘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진중희 기자 symbio@hani.co.kr

### 김국방위원장 빠른 두뇌회전에 민첩 과단성 있고 배짱 두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부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냉전 시절 '침울함이 부족하고 신경질적'이라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그의 권력 장악을 의심한 의견도 많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서 한직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 대통령과는 신장 배경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22살 때인 63년 노동당 중앙위 지도위를 시작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73년에 노동당 조직선전담당 비서관 두각을 나타내게 시작했다. 그 뒤 91년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93년 국방위원장, 97년 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하는 등 수직상승의 인생을 살아왔다.

김 위원장은 빠르고 거침없는 말투를 쓴다고 한다. 지난달 중국 정변인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그의 빠른 말은 통역이 따라잡지 못해 뉘그러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속에 유머를 많이 깔아서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관공적인 성격은 김 대통령과 비슷하다. 배짱도 두둑하며 과단성도 갖는 편이다. 당시위원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5월 그를 만난 뒤 '두뇌회전이 빠르고 사물에 대한 반응도 민첩하며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찬탄 바 있다.

말뭉치 모으고 해도 좀 민첩한 성격에 관심이 많아 마친가지로 일화에 조어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김 대통령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취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주석의 유언을 이어받아 정상회담에 나선 김 위원장이 실적을 위해 얼마만큼의 병보충 내용까지 주목된다.

진중희 기자 symbio@hani.co.kr



변화보인 김위원장

### 97년부터 대남 비방발언 자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6월말로 노동당 중앙에 들어선 지 36년을 맞았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전권>을 하루 민중 땅까지만 불일부분만은 여의다. 이 부분은 김정일 주석에 시한이던 91년까지 직접 '정권' 맞았다.

김 위원장이 그러나 한 발언들도 '미군이 나이가 한다. 그들 때문에 통일에 지장이 있다' (90년 10월)거나 '김조선에는 비정황 왕자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91년 10월) 등 남북을 비판하는 통일발언들이 주유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통일 관련 발언은 97년 8월에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부터 크게 바뀌었다. 그는 이 문건에서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라며 "(남북)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북에 대한 비난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통일의 당위에 대한 강조로 기조가 바뀌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 언론들은 주로 이 문건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음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평양방송>은 지난 2일 <... 관철하자>를 인용해 "전 민족 대단결이 조국통일 실현의 결정적 담보"라고 보도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 군사적 대결상태가 가세되고, 나아가 민족적 화해와 단결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교표

| 김대중 대통령                 | 비교사항  | 김정일 국방위원장                          |
|-------------------------|-------|------------------------------------|
| 1925년 12월 19일           | 태어난 때 | 1942년 2월 16일                       |
| 대한민국 국민                 | 태어난 곳 | 북조선(파리프랑스(남북 주장은 미확인))             |
| 1971년 김대중               | 본명    | 김일성                                |
| 175cm, 73kg             | 키 몸무게 | 165cm, 83kg                        |
| 6년                      | 사건    | 61-65 군사(91년 7월)                   |
| 85년 미국판권적 통일            | 타계    | 유년(남북 통일) 91년 7월                   |
| 노동당 중앙위 총서 2인           | 부직    | 노동당 1인(이전에는 1인)                    |
| 언론인(간첩) 노사 회담(민주화)      | 학력    | 정호중앙 사범, 중학, 자동차 운전 학교, 운전 학교      |
| 미 해방군에 연구원              | 학력    |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
| 미국 해방군리대 연구원            | 학력    | 북조선공산당사범학교                         |
| 북조선, 북포일보 사장            | 경력    | 노동당 선전담당비서관(1966)                  |
| 국무위원(1967. 7. 11~11. 8) |       | 내무부 국사, 부처 직(1980)                 |
| 신안반 대통령후보(1971)         |       | 인민군총사령관(1991)                      |
| 대통령(1998)               |       | 원수(1992)                           |
| 새천년민주당 총재(1999)         |       | 국방위원장(1993)                        |
|                         | 외국어   | 단수(1997)                           |
|                         | 외국어   | 영어                                 |
|                         | 외국어   | 러시아어                               |
|                         | 외국어   | 과단성 있고 대담함, 유머를 감각하고 대외적 주도함       |
| 내선 선형 시장                | 경제 및  |                                    |
| 민중적 대통합                 | 정치철학  |                                    |
| 민중적 대통합(김대중국시사)         | 지식    |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김정일국시사)                |
| 3대(김정일) (영웅적은 영웅으로) 통   |       | (은사) 통일, 김일성주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대외) 등 |
| 한민회(한민회) 헌법             | 가족관계  | 본인 김정일 동생의 딸이다                     |

서울에서 평양까지

남북 새날을 연다



# 휴전선 안남고 서해로 우회 1시간반만에 순안공항 도착

## ■ 대통령 특별기 방북길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남북간에 새로운 교통로를 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뜬 항공기가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평양에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의 방북 길은 '서해 항로'로 결정됐다. 13일 오전 10시께 김 대통령과 공식 수행단 일행, 그리고 기자단 등 비공식 수행원을 태운 공군 1호기 737여객기와 아시아항공 여객기가 성남비행장을 출발하면 곧바로 남쪽 공군의 경호비행이 따라붙는다. 이들 비행기는 고도 2만2000피트에 이를 때까지는 서울 접근관제소의 지시를 받지만, 항로를 제대로 잡으면 남쪽 공역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 항공교통관제소의 지시를 받게 된다.

## 공군 1호기 오전 성남 비행장 이륙 중국정보구역 직전서 북으로 선회 관제·경호 북인계...기상정보 교환

1호기는 일단 기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된다. 서울~평양 민간항로가 열리지 않은데다 군사시설 보안 등의 문제가 있어 휴전선을 넘는 대신 최단 우회로인 '서울~베이징 G597항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항로상에서 남쪽의 대구 비행정보구역(FIR)과 중국쪽의 칭다오 비행정보구역이 만나는 가상의 교차점 '아가노'까지는 270km이지만, 1호기가 굳이 이 지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경호 전투기가 따라붙는 만큼, 자칫 중국과도 복잡한 문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호기는 이 항로상의 직접한 지점에서 기수를 틀어 북쪽으로 향하게 된다. 대략 서울에서 250km 지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남쪽의 대구 항공교통관제소는 평양 항공교통관제소와 1호기의 관제를 인수·인계하게 된다. 북쪽은 관제 인수와 동시에 남쪽 경호기 대신 공중 경호도 인계받는다.

남북간 관제 교신은 이미 2년 이상 계속돼왔다. 1998



년 4월23일 북한영공이 본격 개방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외국 항공사가 주 43편씩 북한 영공을 통과했다. 주로 블라디보스토크나 미국을 오가는 편이어서 동해 노선을 오간 것이 많았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관제업무의 특성이나 국제항공 관련 규정상 영어 등 5개 국어로 교신하게 돼있지만, 실제로는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교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굳이 영어로 교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도 교환한다. 남북은 이미 지난 98년 4월 순안 공항기상대와 김포공항 기상대 간에 영문으로 기상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기상정보를 교환했다.

관계당국이 이번 방북길에 가장 고심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이륙 1시간30여분 뒤가 될 순안공항 착륙 문제다. 순안공항의 이·착륙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선 온 세계 공항의 각종 정보를 담은 '웹스 매뉴얼'에도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남북 항공 당국간의 실무협의에서도 이 착륙을 위한 거리방위측정장치(VOR/DME), 계기착륙장치(ILS)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형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주로 논의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현호 기자 yeopo@hani.co.kr

# 한겨레

2000. 6. 13 (화)



## ■ 평양일정 이것이 궁금하다

남북 정상회담은 모든 게 처음이다. 그러기에 회담기간 동안 벌어질 일들을 유추해볼 전례가 없다. 준비 접촉까지는 그래도 94년 합의를 많이 따랐다. 이번 회담이 또 다음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궁금한 것도 많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방북 대표단의 평양 체류중 궁금한 몇가지를 추려 점검해본다.

◇ 정상회담 장소는? = 공식수행원이 참석할 가운데 14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확대 정상회담의 장소는 만수대의사당이 확실하다. 북한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상회담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면, 북쪽이 이번 회담의 격을 상당히 높이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차례로 예정된 단독 정상회담 장소는 유동적이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소 행동양식을 고려할 때, 최소 한차례는 백화원초대소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숙소를 직접 찾아봄으로써 입장을 예우하는 김 위원장의 '예의'를 안팎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민찬장은 어디? = 두차례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 김 대통령 방북 첫날 저녁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쪽 주최 만찬 장소는 인민문화궁전이 확실하다. 만찬 주최자는 김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공식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의전상 문제는 없다. 김 대통령 주최 만찬 장소는 숙소인 백화원초대소가 자연스럽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비좁아,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 당시의 만찬장이었던 목관관 등 다른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 김 대통령에 대한 영접과 환송은 누가 하나? = 일반적 외교관례로 본다면 김 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

방북 대표단이 13일 순안공항에서 백화원초대소까지 이동할 때 북쪽 주민이 길가에 늘어서 환영행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 이희호씨 상대는? = 이씨가 김 대통령의 부인인 만큼 서방의 관행대로라면,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영숙(53)씨가 나서야 하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씨의 평양산원 등 방문일정 동행자로는

- 정상회담 장소    만수대의사당·백화원초대소등 유력
- 만찬장은 어디    북주최→인민문화궁전, 남주최→유동적
- 영접·환송 누가    홍성남·김용순 가능성...백남순은 회박
- 이희호씨 상대    김위원장 부인 김영숙씨는 안나설듯
- 김위원장 등장    오늘 첫 단독회담때 드러낼 가능성 커

도착 때 백남순 의무상이 영접나오는 게 무난하다. 그러나 남과 북은 국가간 관계라기보다 '집정적 특수관계'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이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홍성남 내각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용순 당 대남담당비서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일 수도 있다. 김 조평통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육로로 귀환할 때 판문점까지 동행하며 환송단을 이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천연옥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이나 몽양 여운형의 딸인 여인구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숙(허담의 부인) 민주조선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차례의 만찬 석상에선 아예 상대방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 회담 배석자는? = 두차례 단독 정상회담에는 기록인 이외에 배석자가 아예 없거나 최소한의 숫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선 박

재규 통일장관과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이거나 제3의 인물이, 북쪽에선 김용순 아태평화위 위원장 등이 유력하다. 확대회담 때는 남쪽에선 3부 장관 등 공식수행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고, 북쪽에선 김영춘 군총참모장과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홍성남 총리와 김용순, 한성룡 노동당 경제담당비서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언제 첫 모습? = 13일 오후 열릴 첫 단독 정상회담 때 남쪽을 비롯한 전세계 시청자의 눈앞에 첫 모습을 드러낼 것이 거의 확실하다. 논리적으로 김 대통령을 직접 영접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히려 남은 문제는 김 위원장이 등장하는 장면이 생중계될 것인가 아니면 녹화 또는 중지 화면으로 보도될 것인가 여부다.

◇ 방북 대표단 어딜 가나? = 평양 소년학생궁전과 동명왕릉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희호씨 등 일부 대표단은 평양산원 등을 별도 방문할 것 같다. 북쪽에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의 매스게임을 전격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

◇ 그밖의 것들 = 김 대통령은 진돗개 두마리를 선물용으로 평양에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북쪽은 유명한 풍산개를 답례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한겨레

2000. 6. 13 (화)



통일의 보습이어라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 경기도 개성직접시 관운군 임한리 들녘에 소를 풀고 경기질을 하는 주민의 모습이 보인다. 오두산 통일전망대/김진수 기자 jskim21@hani.co.kr

**오늘의 평양일정**

13일 (화)

오전 서울공항 출발(출발시간)  
남북 장관기 교대 경호(경호시간 1시간 30분)  
순안공항 도착 환영체도식성명  
평양 시내 거차 숙소로 이동 (오전)  
오후 1차 정상회담  
북쪽 주위 안전  
숙소로 이동

## ■ 순안공항은 어떤 곳

### 북 유일 국제공항...새 단장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될 순안공항은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국제직 관문이다.

평양시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22km 떨어져 있고, 인근에 평양-화진간 4차선 고속도로와 평북 신의주까지 가는 평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평양으로 들어가는 교통이 원활하다. 평양시의 순안구역 순안공항에서 대성구역 립송동에 위치한 김 대통령의 숙소가 뿔 백화원초대소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55년 건설돼 조금은 낡았다는 평을 들었던 순안공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개보수·도장을 새로이 하는 등 깔끔하게 단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항시설로는 이·착륙을 위해 80년대 말 확장 시설된 6km길이의 긴 활주로가 2개 있고, 민간의 사택에 대비하기 위해 활주로의 양편의 안전지대도 넓게 확보돼 있다. 또 안전 이착륙을 위한 저중과 비저항성 무선등대(NDB), 초단파방향 탐지무선국(VDB), 계기착륙장치(ILS), 거리측정장치(DMB) 등을 갖추고 있어 항공편제도 국제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항관리는 조선민용항공국(국장 김요봉)이 맡고있다.

순안공항에서 연결되는 국제 정기노선은 6월 현재 평양-베이징(주 2회), 평양-모스크바-베를린(주1회), 평양-방콕(\*), 평양-타카오(\*), 평양-모스크바-소피아(\*), 평양-텔레비노스토크(\*), 평양-선양 등이다.

## ■ 김대통령 어떤 차량 탈까

### 새로 출시된 벤츠S 600 유력

북쪽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떤 차를 제공할까? 김 대통령은 항공편으로 방북해 전용 차량을 갖고 가지 않는다. 평양에서는 북쪽이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한다.

북쪽은 평양을 찾는 외국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 벤츠S(슈퍼 클래스)600과 링컨 콘티넨탈 두 종류의 방담용의 전차량 준비해 놓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 가운데 벤츠S 600을 타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길이 5.158m, 배기량 5800cc급이다.

북쪽은 큰 행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기존 차량 대신 새 차를 구입하는데 벤츠S 600은 올초 신차가 출시됐다. 국가원수 수행엔 장·차관 등 직급에 따라 벤츠S 500, 벤츠430, 벤츠320 등으로 차종에 차등을 두거나 북보 승용차를 제공한다.

130명의 수행원 중 장·차관급을 뺀 실무진과 취재진은 1990년대 초 남북교류급 회담 때의 전례로 보아 버스를 다야 할 것 같다. 당시 남쪽 수석대표인 정원식 총리에게는 벤츠S 600이, 나머지 6명의 대표에게는 이보다 배기량이 적은 벤츠가 배정됐다. 수행원 33명과 취재진 50명은 45인승 일본제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다. 당시에는 남쪽 인원 1인당 북쪽 안내원이 한명씩 따라 붙는 1대1 안이었으나 이번엔 북쪽의 배려로 좀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집단 안내 방식으로 바꿨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 4·8합의부터 6·13회담까지

- △4월8일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 △4월22일 : 판문점에서 1차 실무협의
- △5월13일 : 실무자 접촉(홍신·보도)
- △5월16일 : 실무자 접촉(김호·의전)
- △5월17일 : 실무자 접촉(홍신·보도)
- △5월19일 : 5차 준비접촉, 실무접차 합의(취재기자 50명)
- △5월26일 : 평양학생소년여숙단 서울 첫 공연
- △5월27일 : 남, 산발대 30명 명단 북에 통보
- △5월28일 : 북, 산발대 신변안전보장각서남에 전달
- △5월29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5월29일 : 김 대통령,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 서울에서 회담
- 평양교여단 입국
- △5월31일 : 북, 중국에 국경 전면 폐쇄 통보
- 정상회담 산발대 판문점 거쳐 평양 도착
- △6월4일 : 평양교여단 서울 첫 공연
- △6월5일 : 북, 남한 대표단 북한체류 일정 통보
- 남, 대표단 및 취재단 명단 북에 전달
- △6월8일 : 한, 미 대통령 일본에서 정상회담
- △6월10일 : 북, 정상회담 일정 1일 연기 통보
- △6월13일 : 김 대통령 방북

남북 새날을 연다

롯데호텔은 '임시 종합청사'

프레스 룸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동안 정부 상황실과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스코틀 롯데호텔이 '정상회담 임시종합청사' 구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준비기획단장인 양영식 본 일부 차관은 롯데호텔에 격실을 얻고 24시간 상주하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부처간 협조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대이다.

이곳 차관회의인 정상회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6개 부처 차관들이

상황실·프레스센터 설치

정부·청와대인사 대거 상주 6개부처 차관 수시 회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안과 관련해 장관이 방북하는 재경부와 문화관광부 차관이 참여한다. 대외관계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차관도 자리를 맡게한다. 이밖에 프레스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국정홍보처장과 국공원의 차관급 고위 관계자도 호텔에 상주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이들은 롯데호텔에 격실을 얻어놓고 13일부터 특별근무에 들어간다. 임직협력과 아산가족요양, 문화교류 등 현안이 있는 재경부와 통일

부, 문화관광부의 간부들도 업무상 자주 이곳을 통락거닐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공보수석실 관계자들도 롯데호텔 2층 프레스센터에 상주하기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북한인 1200여명에게 정상회담을 제대로 알리는 임무를 중요한 현안은 없기 때문이다.

롯데호텔 3층에 마련된 서울 상황실은 박희원호텔에 설치될 중앙 상황실과 견학외국시절리, 의상통신등 긴밀한 연락체제를 갖추고 정상회담을 '원격지원'한다. 통일부와 국공원 간 부류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결 남북 대화사무국 상근위원이 운영을 맡아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롯데호텔에 당직자를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열정 경비 12일 낮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롯데호텔 3층의 상황실 앞에서 후채진의 젊은이 뿔뿔된 가운데 경호권을 앞세운 특공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창일규 기자 chang21@hani.co.kr

서울경제 2000. 6. 13 (화)



12일 서울 호텔롯데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둘러든 내외신 기자들이 기사작성에 여념이 없다./김은우 기자 egkang@hankyung.com

회담 의제·전망등 놓고 즉석 토론

프레스센터 표정

호텔롯데 2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전남보다 훨씬 많은 내외신 취재진들이 몰려 본격적인 취재 경쟁에 돌입

각 언론사마다 인력을 추가배치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국공홍보처 관계자는 "여객기 지1천3백명에 이르는 인원이 프레스

스카프를 신청했으나 오늘 현재 실제 카드발 발급받은 인원은 1천1백명 정도"라며 "외신중 일부가 프레스카드를 신청만 하고 실제로는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기자들은 회담의 연기배경 등을 궁금해하던 전남과 달리 회담의 제과 전망 등을 놓고 즉석 토론을 벌이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서희용 기자 fireboy@hankyung.com



남북 새날을 연다.

화해협력 뭍 논의할까

상봉, 규모보다 정례화로 실마리

분단 55년 만의 첫 남북 정상회담은 기쁨의 단비가 될 것인가.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80년대 이래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기쁨의 종나뭇였다. 남북 단 일팀은 그 결실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논의 단계에서 멈췄다. 성사된 것들도 일회성이어서 지속적이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남북 사이에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도 불 트는 일이 두 정상에게 맡겨진 셈이다.

정상회담 남북 대표단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는 각계의 민간인 대표들도 북쪽의 깊은 분야 상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교류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체육·문화·언론·여성계 등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는 이들이 들고 갑 트리의 활 머리 풀어본다

■ 더 미룰 수 없는 이산문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베를린선언 등에서 밝혀왔던 대로 "노령으로 세상을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화·상설화원 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 대통령에게 부담스럽지만 소망스런 과제이다. 하지만 북의 확실한 반응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을 경우 이산가족 문제는 자칫 55년만의 대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첫 단계인 생사확인인 풀만이라도 마련한다면 '엄청난 진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생사확인이 첫 단추 김대통령 최선의지 북 전향적 자세 시사 폭넓은 해법 내놓길

방안은 지난해 베이징 처관급 회담 당시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원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 △월1회 방방 300명씩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월2회 우편물 교환 △관문점 상봉면 회소 설치 △방방 100명씩 고령이산가족의 서울·평양 방문단 순차 교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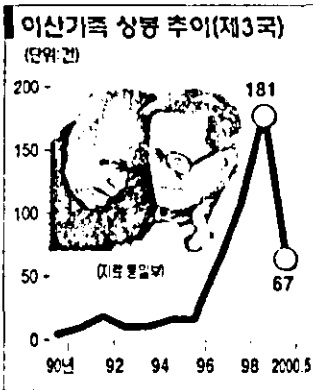
정부는 시범적인 고향방문단을 통한 소규모 상봉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를 정례화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수용할 방침이다. 대표단에 고향투자가 가능한 신행민 기업인들과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총장이 거여 있는 것도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고려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외는 관계없이 남북으로 풀어진' 이산가족에는 단순히 신행민 뿐만 아니라 남북자, 전후 국군포로, 비전향장기수 등 특수한 이산가족들도 포함된다. 북쪽은 비전향장기수에 대해서만 8월15일 이전까지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과 북이 모두 '폭넓고 폭넓'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쪽은 남쪽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쪽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을 몇 차례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처관급 회담에서도 전권할 이태부 위원장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폭넓게, 폭넓게,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정례화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남북 새날을 연다

분단 비원 2제

냉전시대 마지막 감옥 '삐걱' 소리 환청 아니길

남파공작원 장기수출신 신인영씨

젓먹이 두고 떠난 남편 생사만이라도 알았으면

북파공작원 실종자 아내 윤정순씨

미전의 장기수' 신인영(71)씨는 지난 0.75 평 방에서 이틀을 못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날은 남북 사람 북쪽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날이다."



다도 남북과 북쪽의 고향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오래 오래 개인이었으면 좋겠어. 남의 힘 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임구는 통일과 첫 걸음이었으면 좋겠어." 32년 감옥생활을 "민족의 숭고한 대 내 땅을 잃어선 세월"이라고 말하는 신씨의 말이다. 글 김소민, 사진 김희규 기자



"대통령이 이북 갔다 오면 내 가슴에 맺힌 한도 조금은 풀릴까요?" 윤정순(65·여·경기도 의정부시 정암동)씨는 실종된 '북파요원'의 아내다. 직어도 자신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군 제대 뒤 일자리를 못구해 3년여 동안 인천에서 차가살이를 하던 남편은, 지난 1961년 며칠 서울을 다녀오더니 '국토개발 책임자'

로 간다며 길을 나섰다. 일을 뒤 젓먹이인 둘째를 떠남 뒤 남편을 두고 떠난 남편은 '여 이치아이다'라는 데서 혼란받고 있다. 북에 갔다 와야 한다'는 기절초상할 소리를 했다. 울며 말했지만 '꼭 살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떠났다.

그 뒤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보낸 편지 한 통과 두달지 생활비가 남아오고 나신 모든 소식이 끊겼다. "편지의 주소지에 찾아가니 간 판도 없이 황초만엔 치킨 곳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 남편 이름을 대며 아무런 대답도 "그런 곳 아니다" "그런 사람 없다"며 내 모는 거야." 그 뒤 윤씨는 거대한 '비밀의 강'에 둘러싸여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 남편을 찾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편 소식을 알 면하다 심은 모든 모든 찾아다녔다. 그러나 고향과는 언제나 같았다. 빛난 잔 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 함께 국방부에 정식 으로 생사확인요를 요청했지만 대답은 역시 "근 거없음"이었다.

"배웅이 끝이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거짓말 하는 속사정'을 알아. 그래도 그렇지, 가족들은 생사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윤씨는 대통령에게 밖에 다니오면 사장이 올라 잡지 모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님, 부디 이 북하고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서 우리같은 사 람들을 한도 풀어주세요." 윤씨는 20년 남게 안 방에 모셔둔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켜면서 이 렇게 말한다. 글 신영호, 사진 김희규 기자

철책근무 끝내는 계기됐으면...

'그날이 올 때까지 철룡경계 늦출순 없죠'

최전방 전진부대 병사들

"허우헝헝 통풍이 이뤄져서 이 참으로 시원할 것 같습니다." 12일 오후 시무전선의 최전방 도 리간방대 근처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육군 전진부대 소속 장병들은 허우 헝헝 대기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했다. 제4회 전진 임명대(홍성남(21) 병장)는 "정색전에서 매일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정색전이 없어져야 하는 데..."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남 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비극이 끝나기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21) 병장은 "남과 북이 모두 국민으로 너무 많은 통풍 쓰고 있다"며 "대전의 시대가 끝나고 통풍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세계 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를 나타냈다. 김형배(24) 병장도 "평양소년 학생교에 단들이 공연하는 모습 을 보면서 너무 귀엽 고 남달지 않다는 생각 이 들었다"며 "정상 회담과 문화교류 등 남과 북의 간격을 좁 히는 많은 행사가 이 어서 '통풍' 가는 고 속도로 풀렸으면 좋 겠다"고 했다. 이들의 임무는 현재 신 경계근무와 함께 비무장지대 안 으로 드나드는 출입자들을 통제하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 비무장봉쇄는 감 도가 약해졌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참여한 대지지역에 있다보니 분단 현 심에 대한 인식 수준도 사회생활을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서부전선 최전방 도리 간방대 근처 철책선에서 육군 전진부대 군인들이 경계근 무를 서고 있다. 김진우 기자 jkim@han.co.kr

"실향민엔 돈 안받습니다"

고대구로병원 무료검진...오랑각은 냉면대접

회담성공기원 행사는길

남북 정상의 역사적 상봉이 눈앞으 로 다가오면서 이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민간 지원의 행사가 나날이 곳곳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구로병원(원장 박용관)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65세 이상 실향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계 한다. 박용관은 "남북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북일 때 까지 건강하시라는 뜻에서 무료진료 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초구 상남한의원도 12일부터 무료진료에 들어갔다. 주부신문 편집인 이 현의원에서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15일까지 하루 50명분의 원자를 대상으로 1인당 3만~4만원

씩 하는 초음파검사, 검야가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 이다. 권순자 김용(40)씨가 운영하는 평 양냉면집 모란각도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지점에서 실향민 1세들 에게 평양냉면 한 그릇씩을 무료로 대접하기로 했다. 인터넷 자문자도담 서비스사인 카미스(www.camis.co.kr)에서도 실향민 대상 무료검사 등이다. 카미스 측은 "속세 분위기 조성글 위해 13~15일 인천각과 전국 지정 업체 300에서 실향민을 위해 자 동차 부상검사와 현직으로 보충·교 환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말 했다. 손원재 기자 wonje@han.co.kr





# 기업들 대북사업 본격화 전망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4대그룹의 대표들이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간다. 장봉현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윤용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엘지 회장, 손길승 에스케이 회장 등이다.

남북경협 선두주자인 현대의 대북사업이 이쯤이면 장봉현 의장은 특별수행원 명단에 오른 10명의 기업인 중 유일하게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민담할 인물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주도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홍순 위원장, 송호규 부위원장과 수사로 연락이 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인사의 한 명이다. 장 의장은 이번 방북에서 이대평화위원회 상무총재인 김종훈 서기장을 만나 서해안공단 터 선장과 금강산통합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이 예정돼 있어 평양회장의 방북 때 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 작업을 마쳐왔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안공단(2천만평 규모) 디는 북쪽이 신의주항 권역의 반면, 현대는 남쪽과 거리가 가까워 유류수송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해주를 원하고 있다. 현대는 서해안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곳에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전자 복합단지과 공업하는 등 국내 대북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해외기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대북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전력, 도로, 항만 등 기반의 사회기반시설(SOC) 부족인데, 서해안공단을 조성할 경우, 기반시설 공여가 가능해 더욱 활발한 대북투자가 가능하다. 현대는 또 서해안공단과 별도로 봉천 김공업단지(3만평) 조성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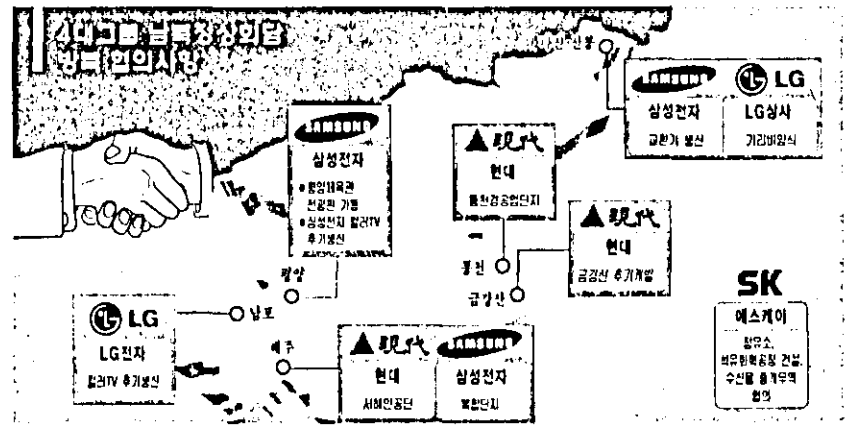
## 현대·삼성 공단 일원화 모색

현대와 이와 함께 금강산 추가개발 사업도 이번 방북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 3년차에 맞은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까지 1단계로 장전방 부두, 권업산 등 기초시설을 마무리 짓고, 2단계로 2001년까지 현대가 3억달러를 투입해 해금강, 삼일포, 온정리 등에 호텔 8개, 관도 4개, 보행 6개등 지어 9건사업을 뜻하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아열대 등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 잡혀있다. 현대는 이밖에 2005년부터는 육로와 항공 관공로부터 개발할 방침인데, 남쪽에서 휴전선을 넘어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금강산 철도 복원사업은 업무에 두고 있다. 또 서해안공단과 봉천 김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화물차량 운송을 위한 김의산과 권업산의 위부 복원사업도 추진중이다.

삼성의 대북투자도 점차적 진을 보



|                                       |   |   |  |
|---------------------------------------|---|---|--|
| <b>현대</b><br>장봉현 의장                   | <b>삼성</b><br>윤용용 부회장                    | <b>엘지</b><br>구본무 회장                     | <b>에스케이</b><br>손길승 회장                  |
| 신뢰바탕 투자 확대<br>서해안공단 외에<br>동천 경공업단지 추진 | 개성 해주 남포등에<br>대형 전자단지 추진<br>이건희회장 방북 논의 | 경공업 시범투자 이어<br>관광산업 진출 관심<br>위탁가공 사업 확대 | 대북 진출 본격 모색<br>1차산업 중개무역<br>식유산업 합작 논의 |



고 있다. 삼성의 대북사업 장구인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전자제품 및 외류 임가공, 전자복합단지 건설 등이다. 윤용용 부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전자복합단지 건설에 대한 윤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개성, 해주, 남포 등지에 수원전자단지 규모의 공단 설립을 준비해왔는데, 창사 되면 매년 5억~10억달러씩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이 지역 50만평터에 총입원 3만평 규모의 전자단지를 건설해, 그날 내 전자관련 계열사와 중소기업,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북한측과 협의해왔다.

평양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양체육관에 삼성의 로고가 부착된 전광판 기동식도 이번 방북 때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하반기중 위탁가공 제품인 20인치 텔레비전 2만대와 복천산 오디오 카세트 12만대, 전화기 24만대를 국내에 반입할 계획도 잡아놓은 상태다. 올해로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 영웅으

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공동협력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견과 삼성회장이 지난해말부터 북한한테서 방북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건강문서 때문에 연기한 바 있는데, 윤 부회장 방북을 계기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이 회장의 방북도 실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엘지·SK 투자 확대 계획

엘지는 방북인사를 구본무 회장으로 확정하면서 대북사업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엘지는 1단계로 전자제품과 부품 등 경공업 분야의 시범투자사업부터 시작해 2단계로 광물, 임수산물, 관광자원 개발과 공단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엘지는 남포공단에서 컬러텔레비전, 의류, 자동차부품 등 위탁가공 사업을 계속해왔다. 또 백색가오카세트 12만대, 전화기 24만대를 국내에 반입할 계획도 잡아놓은 상태다. 엘지는 이밖에 북한과 지난

98년 나진·신봉지역의 가리비양식 합업사업에 원천 합의했고, 컬러텔레비전, 자전거 합업사업에 대해선 조건부합의 단계에 있다. 엘지그룹 대북사업팀 관계자는 "전자기업사의 기전제품, 화학의 생활용품, 건설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모든 계열사들이 대북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며 "현대가 독점하고 있는 관광사업에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4대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대북투자가 전혀 없는 에스케이의 손길승 회장도 이번 기업인 특별수행원 명단에 포함됐다. 에스케이의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이 주축인 그룹 사정상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북한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대북진출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쪽 파트너와 만남 경우 점유소나 식유화학공장 합작 건설 방안 등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은 에스케이상사들 통해 수산물 등 일차상품 중개무역의 시도할 생각이다. 김인희 권대호 김성재 기자

myheon@hani.co.kr

## ■ 방북 경제단체의 구상

### 남북경협 징검다리 놓는다

이번에 방북하는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9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만나 방북 때 역할 분담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쪽의 '민족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해안공단 조성 때 회원사를 모집하고, 북한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연결해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남북경협 징검다리 구상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남북 기업의 과당경쟁, 중북투자 등을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특히 현재 서해안공단과 전자복합단지 조성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현대와 삼성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전경련이 중재역할을 맡아 각 공단을 같은 지역으로 통합해 사회간접자본(SOC)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손병두 부회장



김지철 회장



이원호 부회장

전경련

투자합작사 설립  
대북경협 조정역  
중북투자 방지

무역협회

위탁 가공 환상화  
3국시장 진출 등  
공동사업 논의

중소기업

유휴설비 이전  
임가공사업 논의  
전용공단 타진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북한쪽 관계자와 만나 위탁가공 환상화 방안과 남북 공동으로 3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인산업에서 북한 생산품 수입하는 사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호 중소기업진흥위원회 부회장은 대북경협 창구구실을 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인 회장을 만나 오는 8~9월경 중소기업 방북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자와 의류, 모피 등 임가공 사업과 유휴설비 이전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임가공품을 최근 중국에 문을 연 연강도대선터플 통해 판매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북쪽과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한 중소기업 전용공단 마련 방안에도 대해서도 북쪽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 북녘고향에 투자해볼까

#### 이북출신 기업인 투자설계 분주

이산가족 출신으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에는 김치혁 고령그룹 회장과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방북에서 개별 업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사업을 논의하기보다는 주로 북한쪽 인맥과 북한 출신 남한 기업인들을 위한 교류의 향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이자 북한 출신 기업인이 중심이던 '고령투자사업협의회' 회장인 고령의 장 회장은 이번 방북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 그 회사가 위그아웃(기업개신산업) 중이어서 자금도력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게 고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쪽 경제계 인사들을 만날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북경협이나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고향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 양변에 고향인 장 회장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북방투자에 관심을 두고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김치혁 고령그룹 회장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함경도 북창이 고향인 린나이코리아의 강성모 회장도 이번 방북 때 북한 출신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지난해까지 남한에 거주하는 뒤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회장직을 맡는 등 북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린나이코리아측은 이번 강 회장의 방북 때는 사업 추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계에서는 북한 출신 기업인인 강 회장이 어떤 형식이든 린나이코리아를 통해 대북 투자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는다고 내다봤다.

김민현 김삼재 기자 inhyeon@hani.co.kr

## 기자 상호방문·언론인 통일선언 추진

### 언론분야

탈냉전시대 '냉전의 심'으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운명을 상징하듯 언론분야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의 사각지대였다. 다른 분야에선 이따금 남북교류가 이뤄졌지만, 언론분야에선 논의만 무성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 몇몇 신문사 대표단의 방북에 따른 남북간 '합의'도 있었지만, 실제적 언론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하는 최학재 신문협회장과 박권상 방송협회장에 쏠리는 관심이 높다. 특히 신문쪽은 '비정치

적 분야'에 초점을 맞춘 남북언론교류 방안을 북쪽에 제안하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에 제안할 교류방안은 △조선기자동맹 대표단과 정례회담 및 상호방문 △평화 통일을 위한 언론인 공동선언 마련 △서울과 평양에 상주기자 파견 추진 등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도문제 언론에 대한 시각에서 남북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현실적으로 이번 방북기간에 남북간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쪽의 제안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려는 예비접촉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재호 기자 nomad@hani.co.kr

## 남북 아우른 통일교과서·문학전집 만들자

### 예술분야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고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과 차범석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은 한민족의 문화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상호교류와 공동작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고은 상임고문은 △남쪽과 북쪽을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제작 △모국어 순화를 전제로 한 문법 통일안 △남북한이 함께 하는 문학전집과 교류 등을 북쪽 문화계 대표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두 체계가 각기 추구해 온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두

려한 문학 성과들을 뽑아서 통일 교과서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차범석 예술원 회장은 △남북한 통일문학전집 공동간행 △연극분야의 남북 교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김은식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작업에 들어간 통일문학전집 간행추진위원회 일을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쪽과 무릎을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길을 찾고 싶다"며 "북쪽이 이에 응한다면 그동안 원전을 구할 수 없어 미뤄져왔던 완벽한 통일문학전집 완간이 이뤄지는 큰 결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숙 기자 jis@hani.co.kr

## 8·15공동회의-탁아소 결연등 협의

### 사회단체·여성분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소한 두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화협이 그동안 제안해온 △8월15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개최를 비롯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공동행사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주간 공동행사(12월13일) △시드니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등 민간차원의 화해·교류 활성화 방안을 북쪽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여성계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는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3차회의 이후 풀린 남북 여성의 대화·교류 북쪽에 힘을 것으로 보인다. 장 총장은 이와 함께 여성계가 북쪽의 특정 탁아소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이는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도 이산가족 기업인 등으로 방북하지만, 북한의 심각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이산가족 기나긴 하루

남북 새날을 연다



## “반세기 한 풀렸으면...” 설렘 가득

### 양금과 갈등 말끔히 씻어내기를 남북자 송환도 시급히 이뤄지길

반세기째 기다려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심형민과 박복자, 남북자 가족 등 이산가족들은 온종일 회담에 가는 기대와 설렘으로 걷고 걷는 하루를 보냈다.

◇ 심형민 1세대=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민회엔 하나둘씩 모이는 심형민들이 상상으로 모여 밟듯하게 지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속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5도민회 이산민(65) 총무부장은 “일이 잘 진행되다가도 모이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의 이런 기억이 없었지만, 거의 모든 심형민 1세대들이 이번만큼은 이산가족 상봉 등 심형민들의 비언을 풀어주는 것만큼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하루종일 들떠 있다”고 전했다.

14후퇴 때 아내와 어린 남매를 두고 월남한 최규환(78·서울 중대문구 회관동)씨는 “최근 북한의 가족을 만난 지인은 올해 50살이 넘는 아들이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상회담으로 본인이 받은 지난 세월의 양금과 오해까지 씻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6·25 때 남북인 이화덕(65) 프로축구 선수스틸러스 감독은 “지난 90년 남북 축구대회 때 북한에서 만났던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신지 궁금하다”며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걸걸 마을=대표적 심형민촌인 강원도 속초시 천호동 아바이마을에선 마을 전체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로 들뜬 분위기였다.

14후퇴 때 월남해 아바이마을에 정착했다는 남사길(72)씨는 “북쪽이 가족상의 문제로 회담을 연기한 만큼 그 쪽도 이번 회담에 심의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죽기 전에 고향에 있을 가족을 만나 50년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생후 시골밖에 인안 아들들 가족 넷을 북에 두고 온 김태근(83)씨는 “정상회담 연기 소식에 가슴이 찢어내려오고 천중만 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산된 것이 아니고 하루 연기만 된다면 회담 결과에 건강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4300여명의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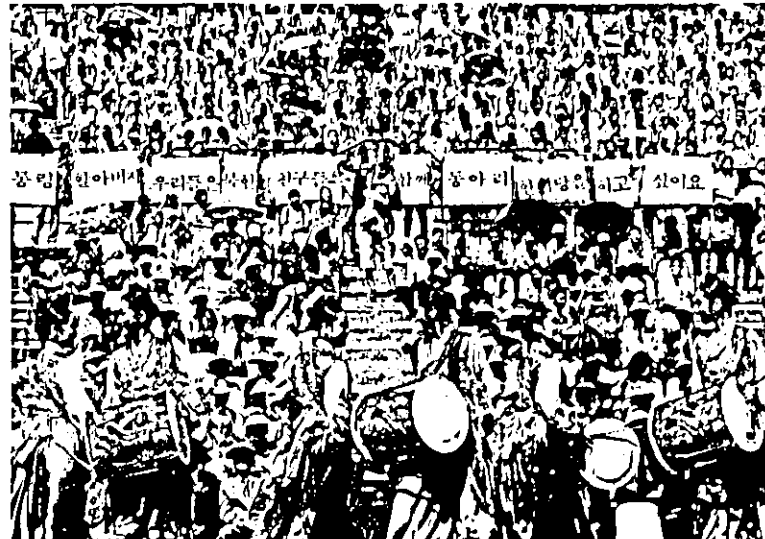
한곡전성 때 황해도 은율군, 송화군, 장연군 등에서 월남해 50년 넘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백경도 연평도 등의 심형민들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정동화(79)씨는 “고향인 황해도 은율군에 친인척을 두고 아내와 함께 월남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죽기 전에 고향 땅이라도 한번 밟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남북자 가족, 남북자 가족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자의 송환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회담을 앞두고 한 뜻이 무는 밤이 많다는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송환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7년 남북한 동진호 어로장 최종식(65)씨의 할 우연(30·서울 양금포구 대림동)씨는 “아버지가 정지범

수용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영영 못 만나도 좋으니 수용소 생활만큼은 면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지난 97년 맹명환 김철호(33)씨는 “남북이 이번 만큼 북쪽도 남쪽에 대한 죄내감이 많이 누그러졌다. 회담에 나쁘게 끝나면 좋겠다”는 첫발정책을 계속 떠나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인천/김영환, 김봉훈 기자

ywkm@han.co.kr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학을 올린 2000 북 서울학생동아리친마담 개막식 식후행사에서 여학생과 학생들이 친구들을 추고 있다. 이장우 기자 woo@han.co.kr

### “삼재 피해 풍기로 왔어요”

14후퇴 때 ‘정감록’ 따라 정착 2천여 심형민 회담성공 염원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0여년 동안 해어졌던 일기친척들의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형민들이 모여 사는 김북 영주시 풍기읍 주민들은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 속에 빠졌다.

풍기에는 2천여명의 심형민이 살고 있다. 전체 주민 1만7천여명의 10%를 못는다. 이중 60살을 넘어선 심형민 1세대만 해도 200여 명에 이른다.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14후퇴 때 피난 온 심형민들이 대부분이다.

심형민들이 풍기에 모여게 된 이유는 ‘뫼부’에도 《정감록》에 있다. 조선 중기부터 만년에 널리 퍼졌다



는 여연서인이 이책에는 난리, 흉년, 역병 등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나라 10곳 가운데 풍기읍 으뜸으로 꼽아왔다. 문장대(70)씨는 “이번 회담이 잘돼 고향에 갈 수만 있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황제자매들을 위해 식량이나 옷가지들을 한 톨기라도 가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영주/구대선 기자 sunnyk@han.co.kr

### “북녘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학생동아리친마담 첫날 3만여명 참가

“대통령 앞에서, 우리들은 북한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친마담을 하고 싶어요.”

나리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경사가, 학생들끼리 서울동아리친마담이라는 끈끈한 동시어 열리고 있다. 12일 오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2000년 북 서울학생동아리친마담”에는 북녘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픈 이들의 바람을 담은 플래카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류 2시 서울여선 휘태대의 연주로 시작한 첫날 행사는 서울시대 초·중·고교생과 교사, 학부모 등 3만여명이 참가해 열기를 높였다.

개막식은 유인중 서울시교육감과 김조형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계 인사와 이승연 17명지 상무, 참가대 서울랜드 사장, 조영호 한겨레신문사 김우이사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대 1200여개 초·중·고교에서 예선을

거친 800여개 동아리가 삼천리극장 등 5개 무대에서 나흘 동안 춤과 노래, 연극 등을 겨루고, 이벤트 등을 전시장에 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학발명품과 광고실습작품, 사진·만화·그림 등 18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서울랜드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과제를 풀어나가는 도전마담이 열린다. 국립극장 조각장에서는 중고등 학교 연극 공연이 펼쳐진다.

유인중 교육감은 개막식에서 “지금까지 교육은 20% 정도인 지식만을 강조하고, 특기·직상·인성 등이 중요한 80%를 소홀히 했다”며 “동아리친마담을 계기로 나머지 한쪽 남개의 힘을 기르고 활짝 남자”고 말했다. 조영호 한겨레 신문사 전무는 “이번 4회째까지는 서울동아리친마담으로 하지만 5회째부터는 서울랜드나 대동강면이나 어디서든 남북 동아리친마담으로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영지와 서울랜드가 도움을 준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계속된다. 13일분부터는 서울대나메이선센터에서 영지마담이, 류순준기념관에서 합창마담이 열린다. 김모현 기자 bhkim@han.co.kr

# “남북관계 단기전망 밝다”

## ■ 미국 토론토교수 기고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조지 O. 토먼 사우스캘리포니아대(USC) 명예교수(정치학·사건)는 11일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1945년 분단 이래 공극적 재통일을 위한 첫 다짐을 놓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3년제 통일권 구상 때 도움을 줬으며 김 대통령 부인 이희호씨

의 두번째 저서 《내일을 향한 기도》 위문판 감수부 맡은 바 있다. 다음은 토먼 교수의 기고문 요약이다.

◇ 의의와 전망=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공극적 통일 집착의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단기 전망은 매우 밝다. 어느 나라도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한에서조차 노골적이고 강한 반대가 없다.

통일이 가까운 단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한은 중국 북과의 경제협력에서 한 걸음도 조직화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관심

## 전면교류 가능성 높아 북한 점진적 개방할듯

이 있으며 북한은 많은 자본과 현대적 노하우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전면적인 남북교류 가능성이 엿보일 것이다. 남북한의 우호분위기가 조성되면 관광·투자·문화교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 통일과 극복과제=통일을 위해서는 첫번째 북한 지도층을 합법적인 것으로 존중하면서 북한의 자본주의적·민주적 발전을 보는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모두 처리하려면 북한을 정적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숨을 많이 마시고 여자를 좋아하고 성격이 괴팍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고 지능지수가 매우 높으며 독서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여행은 많지 않았지만 세계 현안에도 정통하며 주장도 많지 않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제국가’로서의 명성을 이용해왔

다.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상 옹호론자들은 북한을 미 반도핵 공격할 수 있는 이라크나 이란과 연계시키길 좋아하지만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미 무기시찰대에 핵의혹 시심을 개방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가급 요구했다. 미사일 시험은 성공했지만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국에 위압이 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기 어렵다.

◇ 북한의 변화 가능성=북한에 반대돼 있는 비합주의, 지난 6년에 걸친 식량난과 수많은 이사자, 옛소련 붕괴로 인한 군사장비 구입 중단, 국제 무역 기형부족 등은 북한의 개방 및 무역촉진 정책을 방해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난 10년간 외국투자의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과 규정이 만들어지고 홍보됐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접근에 대규모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고 초기업 경영이 허가되고 장려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중국의 신장에 따라 앞을 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기업 체제에 도입하며 국영기업 등도 민영화할 것이다. 토스엔셀레스/연합

# 중 “동북아 안정 크게 기여할 것”

중국 정부가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 갖는 관심은 각별하다.

중국 관영 《인화홍산》은 11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안보·군사·정치·경제 등 여러 면에서 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봉신은 이어 12일 첫 광안발 분석기사에서 △냉전 종식후 평화와 발전의 황금 역사적 조류와 △남북한 인민들의 공동 열망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봉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첫 정상회담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점진적인 접근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이징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지아징교 교수는 “이번 회담은 정치·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단지 통일된 한국을 약속하는 것만도 ‘완전한 소식’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국관계가 진전되면 천중 양쪽에 이 많은 경제적 이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 한·중 경제에도 도움

홍콩 린난대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브리안 브리저스는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리적·안·일침을·취하도록·요구한 것 같다’면서 ‘민와 김 위원장의 요구가 남한이 수용하기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양국은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 특히 일본쪽에 얼굴을 들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는 궁극적으로 남한에 미국 군사력의 두드러진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많은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이 될 것이고, 중국은 교전상태에 빠져들지도 모르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에서 동쪽 방향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중국도 휘둘리게 되며, 난민들은 중국에 경제

적인 부담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제국주의 시기부터 한반도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북한과의 관계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처럼 친밀해왔다. 그러다 20여 년전부터 경제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은 경제발전이 노려 중인 중국에 명백한 경쟁국이 됐으며, 오히려 1/4 분기에 미국·일본·유럽·홍콩에 이어 5번째 무역파트너가 됐다. 반면 북한은 중국에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도 없으며, 기아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지원만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구상에서 북한을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마지막 나라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낙후한 기술이지만 북한의 다수 군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는 한국 군대와 중국의 왕중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저스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다면,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방어적 자세' 일본의 속셈

특파원 리포트

남북회담 소극태도 일관...중국과 대조적 북 위협론 집착 지배그림 발상 전환 시급

도쿄 / 안승동 특파원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한 한반도 이웃 대국 중국과 일본의 자세와 활동은 사뭇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 대조적인 대응자세는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경제공동화 과정에서 양국의 정책 역할 및 지위 문제과도 직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됐듯이 최근 한반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식 접촉의 주무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그날 장소조차 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지역을 지칭함으로써 중동 평화협상의 미국과 같은 구실을 떠맡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이를 견제하듯 일본쪽에서는 심지어 중국이 '중주국'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동원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남북교섭 과정만 본다면 그 존재감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의 대응도 매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북-일 수교교섭 10차 분회담이 연기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북쪽의 사정

합에서 보여준 일본쪽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일관되게 일본의 남치와 북치 혹은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주제의제로 삼자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의 선행 없이는 경제협력에 불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했다. 게다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식민지배 태상도 태상이 아닌 경제협력일 뿐이라는 명분 고수에 집착한다. 북-일 교섭에 응함으로써 일본은 남치외교, 북치 외교 미사일 문제 선행을 조건으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이른바 '입구론'에서 선행상 후회결의 '출구론'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지도부 등의 일본 지배그림이 이 방향전환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 오히려 이를 이면에서 부추김으로써 대북 협상카드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도 미국 결정에 따라 반대했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외교-안보면의 전통적인 대미추수 자세 외에 21세기 국가진로와 관련한 지배그림의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일본의 정책비전은 미-일 동맹체제의 확대강화와 일본 자체의 독자적인 '강성대국'화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차기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 국

가-국가법, 주일대장동복법 및 통상감정법 제정·개정과 최근 현실감을 띠어가고 있는 연 국제화와 연 경제협력 구상은 이를 위한 토대 구축으로 비친다. 지배그림은 북한 군사위협론과 중국의 평창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런 태세장비에 심본 활동화했다. 중국이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 등 일본의 진로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중국적으로 거슬리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국가미사일방어(NMD) 및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상을 둘러싼 미일과 중과의 갈등에서 보듯 지금 동북아는 자칫 한반도 주변대국들간의 불신과 반목이 상호악순환으로 가속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불행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또다시 한반도다. 남북한의 주체적 화해와 상생적 통일을 위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의 변화에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면에 주변국들은 남북의 변화를 대개 소신정책적 대립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시아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의 확대강화가 아닌 발상전환과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sdhan@hani.co.kr

CNN, 南北회담 특집사이트 신설

남북정상 프로파일·최근 뉴스·한국전쟁 50주년 등 마련

로스앤젤레스 CNN 세계적 뉴스전문 케이블 TV인 CNN(w.w.cnn.com)이 11일 웹사이트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집사이트를 신설했다. CNN은 인터넷 웹사이트 1면 상단 특집기사 섹션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만남이 50년 걸린 나라를 놓는다'라는 사이트를 열었다.



특집 사이트에는 최신 뉴스들 비롯해 ▲한반도 개관 ▲남북정상 프로파일 ▲남북한 시각 ▲경제 ▲광주 민주화운동 20년 ▲모스크바 케백선 ▲한국전쟁 인터뷰, 개관, 관련서류, 전쟁지도 등이 수록돼 있다. 남북한 사진을 보여주는 포토 갤

러리와 한국전쟁에 관한 퀴즈난도 마련했으며 미·소·일·중 가운데 남북분단이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숫자? 199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함정 이름? 등을 묻는 질문이 게재됐다.

대한매일

2000. 6. 13 (화)

외국인

평양행 차비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50만원/소련도 가고 남파도 가고 못가는 곳 있는데/평주보다 더 가까운 평안은 왜 못가. 신영원이 부른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도입부다. 80년대에 나온 노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자주 방송될 타고 있다.

서울에서 평주까지는 330km 평양까지 거리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246.2km이다. 평양까지 택시요금 50만원은 오래 전에 거다. 한쪽 요금으로 계산하면 11만7,000원. 보편내 시도는 1996, 000원 가량이 나온다. 평양까지의 거리는 전주까지와 비슷하다. 서울-전주간 고속버스 요금은 우등이 1만3,000원, 일반이 8,900원이다. 한도요금은 서울에서 1만9,400원, 무궁화가 1만1,300원이다.

정상적인 질서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평양으로 가는 교통 수단으로는 배이 좋을 거지는 항공편이 사실상 유일하다. 서울-베이징 항공편은 4만 원.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권도요금은 일반석이 160달러, 1등석이 200달러 정도다. 우리 돈으로 17만8,000원, 22만2,000원 가량이다. 이를 합치면 서울-평양과 같은 거리의 국내선 요금보다 9배, 11배 가깝 비싸다. 베이징에서 평양행 여객기의 1등석 차지 경쟁은 치열하다고 한다. 1등석을 타고 가야 현지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이다.

평북 진시울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신의주까지 여자는 검역인 언저를 이용한다. 1등석 요금

은 50원, 100g짜리 밥 한 가마니에 30원 가량 하던 시절이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 가량 된다.

당시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항로였던 경의선 외에 서울-원산을 운행하는 경원선, 그리고 강원선의 지선인 금강산선이 있었다. 이를 필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년 전 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경의선과 강원선의 복원을 연결하며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까지

간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같은 취지에서 함도복원을 위한 임시 배임을 원(3천 명) 상한다. 경의선의 서울인 구간은 20km, 강원선은 31km, 금강산선은 2.4km이다. 육로는 양진각과 개성을 연결하며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까지

가 갈릴 수 있다. 2년 전에 화제가 됐던 영화 '간첩리탈한'에서 남북간첩 리탈한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라고 말한다. 운전기사와 실랑이 끝에 경찰서로 가 자수하지만 경찰관은 주장병으로 취급해 만백민 주고 풀어준다. 화려한 이벤트에 담긴 비화가 정통하다. 택시를 타고 평양을 가자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곳이 가나리다. 신영원의 노랫말처럼 경각를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신명나게 달려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 김충현 논설위원 mouth@kdaily.com

오늘의 논

다시 생각해보는 '동일'



김충현 정치평론가

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다.

연회장은 11시 30분부터 600명에게 개소한 프레스센터의 규모는 얼마 봐도 장관이다. 현재 프레스센터에 등 록한 국내외 취재진은 287개 매체 1,131명. 단원행사로는 89년 서울올림픽 이래 최대규모다. 외신의 경우 미국 CNN과 일본 NHK 등 173개 매체 503명이 한국 땅을 찾았다.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리는데 기자들은 오히려 서울에 북치거리는 것은 '남파도 특수상황'이 빚어 모호하게 되어버렸다. 북한은 정상회담 외부 취재진을 남한 언론기자 50명으로 제한하고, 외신기자들은 입국을 불허했다. 때문에 정상회담 취재차 방문한 외신기자들은 서울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순간부터 인기 10만 강경에 사로잡혔을 법하다. 또 프레스센터에 도착, 수

많은 기자들을 보는 순간 '한 나라의 정치적 이벤트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 듯, 내외신들만 놓고 대부분 기자들은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II경이다. 장라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영회를 보기 직전의 감정이랄까.

아무튼 CNN 등 유명 언론뿐 아니라 싱가포르의 중 알리지 않은 방송사까지 프레스센터에 중계부스를 설치하고 부산을 막는 모습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정상회담이, 그리고 통일이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좋은 실은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이미 세계포인 이벤트가 됐으며, 우리는 이미 그 뉴스의 한가운데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우리의 아픔과 치유과정들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지만, 다만 한편으로는 '누가'를 막으면서 별로 진지하지 않게 지켜보지 못한다는 예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좀더 창의있게 비평가와 연행을 기다리고 마음을 넓이기에 하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쩌면 서울올림픽때보다 더 숙독한 시정내 위에 세워져 있는지도 모른다.

● carlos@kdaily.com

# 분단의 벽 넘어 대통령이 평양간다

## 오늘 55년만에 역사적 첫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특전**  
12-7-15:18-30-31/33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3일 평양에서 열린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희호(李熙浩)여사와 함께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 1시간여의 비행 끝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15일까지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김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과의 첫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14일 김 위원장과 2차 단독회담을 갖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2차에 단독정상회담에서 55년 동안 계속돼온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와 불신을 극복, 민족의대륙이루고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에 대해 김위원장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또 이산가족 상봉문제, 북한내 협도·도교종을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하고 김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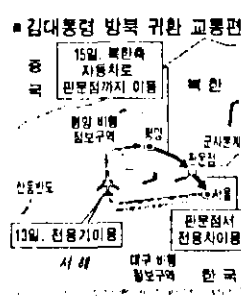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정상회담의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선언 등의 합의문이나 발표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이 주목된다.

청와대 박종철(朴政燾)대변인은 이와 관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며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한 문재민(文在民)의 뜻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13일 서울공항을 출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남북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있게 말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또 평양 순안공항에서 도착 성명을 발표, "남과 북의 운석이 함께 뿔뿔이 찢어질 수 있는 강동변영의 길을 찾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밝힌"에 공이다.



**무슨구상 할까** 김대중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인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창밖을 보며 회담 구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대통령의 방북에는 이원재(李源宰)재정경제, 박재규(朴在圭)중앙,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 장관과 청와대의 현광옥(鮮光玉)비서관장, 이기훈(李起勳)경제, 황원태(黃源泰)외교안보, 박동영공보수석 등 공직수령원과 특별수령원 등 대표단 130명이 동행하며 공동취재단 50명도 별도의 특별기편으로 함께 방북길에 올라 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한다. /이영성기자 keys@hk.co.kr



**北, 정상회담 하루연기 확인**  
북한 당국자들은 12일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하루 연기돼 13일 시작될 것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12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평양측의 요청으로 24시간 연기된 것으로 서울에서 보도했으며 이 사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평양 특파부

# DJ '역사의 새벽' 묵상으로 연다



## 남북정상회담

김대통령 오늘일정

남여사와조찬→주민과인사→서울공항 환송식  
순안비행장 도착성명→숙소로이동→정상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새벽 묵상으로 역사적인 하루를 연다. 김대통령은 청와대 잔치대 시제에서 장으로 들어오는 남선과 시제의 여명(黎明)을 바라보며 구상을 다시 한번 기다린다.

김대통령은 묵상을 끝낸 뒤 이회호(李會鎬)여사와 아침 식사를 하고 본관 집무실로 가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한다. 평소와 다른 잔치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일 고려, 보다 공식적인 모습용

보이기 위해서다.

김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김성재(金聖在)정책기획수석 등 행정방문을 수행하지 않는 수석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전용차에 올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도열한 직원들의 박수환영을 받으며 청와대를 출발한다. 김대통령이 본관 1층으로 나오는 장면부터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김대통령은 청와대 앞 효자동 사랑방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마중 나온 인근 주민들로부터 "갑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받고 이들과도 악수할 나눌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서울 공항에 도착, 이

만십(李萬僔)국회의장 최종환(崔鍾煥)대법원장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등 3부 요인과 전 국무위원, 각 당의 대표 등으로부터 환송을 받는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출발성명"을 통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할 수 있는 말을 다하겠다" "남북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밝힌다.

김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한 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분단 55년만에 북한 땅을 밟는다.

공식수행원은 전용기에 탑승하며 기자단과 특별수행원, 실무자들이 탄 특별기는 먼저 출발, 미리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전용기와 특별기는 시해상으로 운항하며 북방한계선까지는 우리 공군기가 호위하고 그 이북부터는 북측 공군기의 호위를 받는다.

김대통령은 순안공항에서 전국에 생중계 된 도착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의 온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김대통령은 도착행사 후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숙소로 이동하는 김대통령의 차량행렬은 생중계 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조금 지나서 녹화방송을 통해 이를 보게 된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정일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대중대통령이 12일 이회호여사와 함께 청와대 녹지원 의자에 앉아 박준영 공보수석(오른쪽)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최규성기자

/이영성기자 iceys@hk.co.kr

## 생중계는 남·북한 동시촬영 SNG→무궁화위성→안방

### ■ TV중계 어떻게

#### 일반취재는 우리 기자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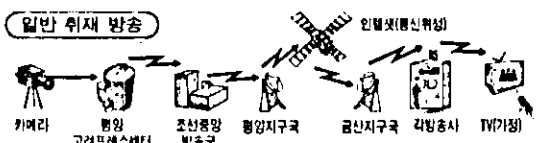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TV방송은 남측인 일출 방송 기자재에 의해 사용된다. TV 송출방식이 남과 북간의 괴성을 꺼져야만 시청이 가능하다. 현재 TV 송출방식은 남한은 미국 등에서 이용되는 NTSC(National TV System committee)방식이고 북한은 유럽지역 PAL(Phase Alternate Line)방식이다.

남북정상회담의 TV방송은 위성 생중계와 일반 녹화방식으로 구분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안 순안 국제공항 도착 장면,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악수장면과 일출 장성의 오프닝 페트, 민중축사 등은 위성 생중계된 예정이다.

생중계 방송의 경우 남·북한 중계차량 이용해 촬영한 뒤 남한 합동방송단이 가시광 컴비티탄 이용, 송출방식을 PAL에서 NTSC로 전환해 이동형 송신용 위성지구국(SNG: Satellite News Gathering)으로 보낸다. SNG에서 무궁화 위성으로 보내진 편파는 한국통신 광통신 지구국을 건넌다. 한국통신 광통신 국제전화비전센터(ITC)를 통해 각 방송사로 전달된 뒤 일반으로 방송된다. SNG 탑재용 북한에서의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 남한 방송 보도진이 1997년 북한 진보에서 있었던 대북 취수

### ■ 남북 정상회담 방송 방식



로서일 취공식을 생중계했다.

합동방송단의 일반 취재를 비롯한 녹화방송은 생중계 방식과 다르다. 생중계때 남·북한 카메라를 이용한 것과 달리 일반 취재는 우리 방송 기자재가 이용해 촬영한다. 촬영한 데이터가 평안 고해상도 센터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조선중앙방송국으로 전송한다. 평양지구국을 거쳐 안도양 상공에 떠있는 인텔넷(통신위성)을 통해 금강지구국으로 보내면 광화문 ITC에서 이를 받아 각 방송사와 뒷대호팅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내게 된다. 외국 언론들은 뒷대호팅 프레젠테이션에서 방송 내용을 보고 자국에 그 내용을 타전하게 된다.

KBS 김태보도기술팀장은 "송출 방식과 기자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의 사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 리해 실패까지 모두 미친 상태이고, 문제는 송출방식에 따른 화질의 떨어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국남기자 kabac@hk.co.kr



# “교류협력 보따리 한아름씩 지고 갑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 24명 포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한 이래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으로 친화원 각계 대표인사 24명이 북한에서 봉사 활동에 관심해 모이저고 있다. 문화·교육계 인사들은 “자마다 국제적인 ‘보따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생양면의 북남(南北)인재의 통정은 의사당에 북남의 심화한 의료현실에 관심이 많다. 배추장은 북한 의료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에 현대적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도 협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성으로 역시 생양면의 장상(張商) 이준태(李俊培)장은 병육기관 북한 관계자들과 여성적 정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 남북한 여성계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할 나누고 싶어 한다.

사민당 고은(高恩) 박복영(朴福榮)작가의 생업교류는 ‘남북정상회담’ 기본 정신의 범위 안에서 문화교류 등 남북간에 의해 추진해 갈 것인데 대해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작가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 관점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 수석대표로서 공식적 성취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차범석( 차(車) 범(範) 석(石)) 예술의향장은 “북한 예술 기관 남북의 ‘동일문화전향’의 관을 강령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차범석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남북 교류를 위한 주안 기관가 북에 구성된다고 하며 ‘기능화’에 대한 공동 작업, 남북 인공기와 배우의 교류, 조지, 남북(南北)의 궁극적, 도사(都師)의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 대표로 김석태(金錫泰) 민수환(閔守煥)이해찬(李海燾)정복희(鄭福喜)의정은 “한국의

외국 보위기관 보고 남북 의료 교류, 남북 국회의원의 자유로 교류와 협의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민안(池敏安) 이원규(李元圭)의원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이라며 “자신을 돌아온 남남에 보고 지원해 정상회담으로 우리의 영토의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태(金敏泰)백동(白東) 수석부총

**현대식 병원 설립 타진  
동일문화전집 간행 협의  
배우들 교환 합동공연도  
고향에 각종 투자사업등  
제계신 경험 다각 모색**

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해온 사업으로서 북측 교육자들과 만나게 되면 남북간의 이질감이 완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 국악회가 위해 남북 교육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한 동집간 회의와 변화적 활동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재(李中宰) 새종연구소 남북 관계교류팀은 “국제적인 문화관계에서 남북 간의 만남을 도모하고 협

단. 그는 “회담이 끝난 뒤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견의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민적으로 소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金在澈)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건설의 손규모(孫圭模)는 의료 위생사업 등을 다각 모색하고 있다.

**정중현(鄭重顯)**  
전 현대 회장의 석심 권김씨는 2,000만 원 규모의 “차해(車海) 단”을 추진 중이며, 또 금강산 지역의 문화유산 개발을 위한 스승 장학 기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중현은 남남간 사업의 확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윤종훈(尹鍾勳) 남남간지 부회장은 “이곳은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50만 명 규모의 잠재적 시장과 인접해 있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

**김희재(金喜在)** 고교의장은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의 생활은 매우 힘들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곳은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50만 명 규모의 잠재적 시장과 인접해 있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세종로 가로 분리대에 남북 정상회담 의미를 되새기는 평화구축의 대한 일간력이 세워져 있다. /고영준기자

등 계획을 갖고 있다. 김재철(金在澈) 무역업의 회장은 판문점에 남북 기업이 생산 상품 개발하는 방안도 북남간에 제안할 예정이다. 손규두(孫圭斗) 전 강원도 관광개발을 남북한 해외시화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원(SIC)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북

한의 전담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명환(李明煥) 중소기업 무역업은 유선 신 분야의 남북간 중소기업 교류와 남북간의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희정기자 hpark@hikooker 박희정기자 hub@hikooker

## ‘최종점검’ 서울-평양 핫라인 설치없이 올려

### ■ 訪北 전야 정부포장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정부 관계 부처는 하루 동안 국경 등에서도 자연스럽게 준비를 가졌다.

○ 통일부 - 매각지 북한 동방 연수기 있어갈 것에 대해, 북측의 화남(火南)비행기에 도착을 금방세우며 매각지까지 전선의 시설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부의 차관들은 서울 조공품 안내에 대해 마련한 안내원과 프레스센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최

신의 연외만이 자라고 지기 없었었다. 서울 상화상은 적절 전회과 이종. 권양에 제정중인 선방과와 관련된 연외를 취재에 준비공간의 상부와 세부 일정 등을 재검토했다.

비핵화(非核化) 1)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원전대(元電代) 회담에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관원장에 달려, 준비사항 등을 보고받고 “어떤 공백이 생기든 그날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돼 오해가 없을”이라며 “연외도 회담의 성공한 수임으로 사업 위주로 보도에 담라고 당부했다. 화수시는 “협상에 준비

한 민간 정황 회담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이날 아사드 사라아 대령이 북남회담장으로 김일형(金日興)인민부위원장을 파견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부의장은 정상회담에 비호할 가, 삼이 직언다”며 “회담에는 별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軍 훈련중단 비상태세**

○ 국방부는 군 최고령관 수석지휘관을 방문하는 등 화일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은 분위기였다. 국

### “증서인정 민간” 인명

○ 경제개발원은 유일하게 남북간에 포함된 이준태(李俊培) 회장 경제개발원은 이날 외무부장을 접견 하문과 보였다. 이준태는 실무진들과 함께 “남북간 무역 지원 외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어 반영하지 않도록 하며 “친화적인”과 인명을 내렸다.

인명(人名) 차관 등 개발부대통령의 인명은 이날부터 남북 중료시점까지 소문과 오해에 대한 상황과 프레스센터에 시장과 상주카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성철기자 ischee@hikooker 황인준기자 naugen@hikooker

# ‘만찬’ 南 궁중요리 北 한식

### 만찬메뉴는 뭐까

북측은 통상 외국 수뇌나 귀한 손님을 위한 만찬에는 반드시 한식을 내놓는다. 한꺼번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전통식이 아니라 중식처럼 코스별로 요리가 나온다. 1990년대 초 고위급 회담때는 회귀한 ‘사슴고기’ 요리와 대동강 상류에서 잡았다는 ‘민물 쏘가리’도 선보이는 등 수십 가지 진기한 음식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진수성찬이 마련될 것임은 틀림없다. 김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남측은 매김밥과 진품 궁중요리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연회방식은 어떻게 되나

북에서는 만찬이 끝날 때쯤 꼭 연회가 뒤따른다. 그래서 만찬장

한 편에는 반드시 공연장이 있다. 노래와 춤 공연이 주종을 이룬다. 경음악과 현대 무용을 장기로 하는 위대한 김용익단이 가장 많이 출연한다. 이 위단은 노래 ‘만남입니다’의 연주로 남측에도 잘 알려져 있다. 남북 정상이 참석할 자리인 만찬, 당 간부들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북한 최고의 위대한 보천보 전지아단이 나올 수도 있다. 더불어 편양 학생소년예술단의 발림과 공연이 곁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 김정일의 복장은

김위원장은 정상회담이나 만찬 때 인민복 차림으로 나올 것 같다. 지난날 정제민(丁澤民)주석과 회담 때도 김위원장은 쥐색 인민복을 입었다. 북한에서 ‘단한 긴 양복’으로 불리는 인민복은 깃털이 둥글고 북부로부터 단추로 여미게 돼 있는 정장이다.

김위원장도 20대 청년 시절에는 양복을 즐겨 입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1980년대 이후엔

### ■ 궁금하게 많아요

55년만의 남북 정상간 첫 만남은 갖가지 풍성한 화제거리도 만들어 낼 것 같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만큼 병행의 옷차림부터 주고받음 선물, 만찬 메뉴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을 자극할 소재들이 많다.

### 金대통령 문배주 400명 선물준비 평양시내서 대대적 연도환영 예상



면 환영의 표시로 평양시내 연도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나왔다. 북측 관례를 보면 연도 환영은 개신교 주변부터 시작해 시내로 이어진다. 순안공원에 내려도모를 타고 평양시내에 진입하면 맨 먼저 보이는 곳이 개신교이다.

### 정상간 주고받음 선물은

김위원장은 지난날 중국방문때 江주שי에게 초대형 도자기를 선물했다. 김대통령은 천연기념물인 진돗개 암수 2마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김위원장도 일단 풍산개 한 쌍으로 답례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이 담긴 병풍이나 고구려 벽화의 그림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남북 화해할 위해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들쭉술을 선물할 수도 있다. 남측도 김대통령의 뒤에 만찬장에서 김위원장들 북측 참석인사에게 건넬 문배주 400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 인민복이나 양복바지에 점퍼차림이다. 때때로 부서지듯 듯한 머리스타일에 수수한 점퍼를 입어 서민적 풍모를 나타낸다는 것.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주석은 문익환(文益煥)목사나 지마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문때 양복차림으로 이들을 맞았다.

### 북측 연도 환영 나올까

결론부터 말해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있을 것 같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북녘땅을 밟은 남측 정상을 소중히 대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의 시골 단박 때 상응하는 환대도 고려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북측이 자체 준비할 사항이지, 남측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수뇌가 평양에 가

면 환영의 표시로 평양시내 연도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나왔다. 북측 관례를 보면 연도 환영은 개신교 주변부터 시작해 시내로 이어진다. 순안공원에 내려도모를 타고 평양시내에 진입하면 맨 먼저 보이는 곳이 개신교이다.

### 정상간 주고받음 선물은

김위원장은 지난날 중국방문때 江주שי에게 초대형 도자기를 선물했다. 김대통령은 천연기념물인 진돗개 암수 2마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김위원장도 일단 풍산개 한 쌍으로 답례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이 담긴 병풍이나 고구려 벽화의 그림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남북 화해할 위해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들쭉술을 선물할 수도 있다. 남측도 김대통령의 뒤에 만찬장에서 김위원장들 북측 참석인사에게 건넬 문배주 400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 피아노·과자등 선물 직접골라

### ■ 李여사 訪北준비 어떻게

#### 北주민 김숙대비 생활상등 공부


이희호(李姬鎬)여사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있을 후 주반에 자주 들어갔다.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맛에 음식이 딱 맞도록 간을 보기 위해서다. 김대통령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함께 청와대내 녹지원이나 동산을 산책한다. 주변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김대통령에게 전하고 가끔씩 부드러운 화제로 대화한다. 이렇듯 이여사의 평양행 준비는 김대

통령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런 외 중에서도 이여사는 북한 공부를 쉼 없이 했다. 이여사가 회담 당사자가 아니고 일견이 방문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회담의제보다는 북한 주민생활, 여성 및 어린이들의 형편, 교육체제 등에 대한 지료가 공부할 테마였다. 김대통령이 밤 늦게 자료들 검토하는 동안 이여사도 함께 자료들을 읽었다.

이여사는 평양에서의 동선(動線)을 조용하면서도 내밀하게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는 생각이다. 평양 도착해 한복을 입는다든지, 실속있는 선물을 택한 것 등이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는 섬세한 배려다. 황광유지원 방문에서 전담할 디지털피아노와 과자등의 선물은 직접 골랐다. 이여사는 나그네대로 준비할 하면서도 시선은 김대통령에게 고정돼있다. /이영성기자 leeyungs@hk.co.kr

■ 김대중-김정일 비교

| 김대중  | 김정일  |
|--|--|
| 1925년 12월 3일(75세)  | 출생일 1942년 2월 16일(58세)  |
| 전남 신안군 하의도   | 출생지 구소련 히비로프스크 (북한은 백두산 일명이라 주장)   |
| 목포 상고 173cm, 73kg  | 최종학력 김일성대 정치경제학부   |
| 이화여자사과 3남  | 신장과 체중 160cm, 80kg   |
| 6선의원(5.6.7.8.13.14)<br>신민당 대총장후보(1971년)<br>한민·신민당·국민회의 민주당총재                                 | 가족사항 김영숙의 1남1녀   |
| 논리적이며 불중함  | 당정직국 후보위원, 후계자선언(1980년)<br>인민군 최고사령관(1991년)<br>국방위원장(1993년)<br>노동당총비서(1997년) |
|  독서 연극 영화감상 | 성격 감성적이며 실하나 결단·추진력 있음   |
| 포도주 2인, 금연   | 영화감상 사냥 술미   |
| 논리를 앞세워 끈질기게 상대방을 설득·다변  | 취향·음연 코나 1병, 하루 1첩(최근 금연함)   |
| 출수불일배제, 무리도발봉응   | 대외 스타일 매우 말투로 자기주장을 펴는 스타일   |
| 남북간의 화해 협력강조   | 남북관 북남관계개선용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에 필요한 요구  |
| 대중경제론, 김대중독종서신   | 저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영화예술론  |
| 활동하는 양상으로 등 30여년   |  |

世界日報

2000. 6. 13 (화)

金正日 회담준비 어떻게

'金大中대통령 알기' 祖統研서 개인교습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차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상대방 연구에 열두렸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연구와 달리 김위원장은 우리쪽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학승이 연구가 다소 유리했을 법하다.

김위원장의 김대중연구에는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원이 가장교사 도움을 했다. 전문가의 관측이다. 조국통일연구원에는 남북 경제와 주요 인물정보, 한반도 주변국가의 대한정책을 총체적으로 수집·연구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대남사업부서가 집권된 이후 친사의 통일선전부도 왕왕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선전부의 조직직요리는 조국통일연구원과 함께 우리쪽 주요 인물 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대중파일'에는 출생과 성격, 성장기, 정치역정, 정책선향 등 김대중연구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김위원장은 김대중연구의 활용상황이 보

통일선전부·중서 입수자료도 활용

DJ활동 방송보며 대화스타일 분석

도된 방송화면을 수직·축해해 반복 시청하면서 김대중연구의 대화스타일을 분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중국을 통해 김대중연구 관련자료 등 대남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상 대화식도 작성,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위원장은 심각한 공급허가나 미진해 보이는 사항은 조국통일연구원, 조국통일 통일위원회(조통통)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김위원장은 따지고 보면 오래 전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위원장은 90년 10월 당시 노동당 조직비서로 평양 주석궁(현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남쪽 임시로 방북한 서동관(徐東官) 안기부장과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회담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91년 첫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와 관련된 김위원장의 진전된 발언도 이런 배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위원장은 97년 8월 대남관련 논문에서 "북과 남의 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98년 10월 강주안(姜周安)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나서는 "남북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북일이 빨리된다"고 역설했다. 김위원장은 5월 중국방문에서는 "김대중연구의 평양방문 검토를 긍정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허병구기자)

일육심-文藝관심등 공통점

DJ 논리적, 김정일 추진력

■ 두 정상 스타일 비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성장과정이나 가치관 등만 본다면 거의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좁은 업무스타일, 정보통신·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 다독·다작 등 한 쪽만 살펴보면 공통분포도 여럿이다.

두 사람 모두 공식적으로는 98년 제1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과정은 정반대였다. 김대통령은 오랜 야당총장급 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는 등 부속과 인공으로 정해진 모진 시련을 겪었다.

이와 달리 김국방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승업을 꿈과 30세를 갓 넘겨서부터 제1인자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성격도 많이 다르다. 김대통령이 논리적이고 치밀한 편이라면 김위원장은 고집이 센 반면 추진력이 돋보인다. 대외 스타일도 김대통령이 신중한 추진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는 쪽이라면 김위원장은 독사모처럼 빠른 말투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편이다. 대외관도 김대중이

김대통령은 대화의 양면적인 농담을 즐기는 편이지만 토론을 즐긴다. 때문에 김대통령과 대화하는 사람은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서는 입도당하기 십상이다. 김위원장은 '회대자'로 지만 뒷안지 자기 말이 많고 빈말을 싫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외로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는 호방함도 있다는 게 그럴 만한 이들의 평가이다.

말에 대한 욕심은 두 사람이 한 걸 같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업무를 장악, 끝없이 지시하고 행하는 스타일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싫어하는 성격이 업무집행하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셈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 일치된다. 김위원장은 정치적 경력을 허명가극이나 영화제작 등 문화 예술분야에서 시작했으며 영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김대통령도 영화·연극 등 관심이 가뻑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독서와 화초기르기 등 치밀한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비해 김위원장은 승마 사격 등 귀족 스포츠를 즐기며 승 담배도 고기피해담 흡연한다.

/이동국기자 east@hik.co.kr

# 2000.6.13 민족史 새로쓴다

## 남북정상회담

### 두 정상 의 마지막 준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방북 하루 전날인 12일 낮 청와대 내 정외선 녹지원을 이희호(李喜純)여사와 함께 거닐었다. 김대중은 내외는 연못의 불고기에 먹이도 주고 벤치에 앉아 나무들과 새들을 가리키며 담소를 나눴다. 보고차 달려온 박준경(朴俊景)공보수석에게 "날씨가 참 좋군"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저로 올라가 기르는 진돗개 처용과 나리에게 먹이를 주며 미리를 쓰다듬었다. 동산의 꽃길도 살펴보고 있다. 박대변인은 그 모습을 "편안 그 자체"라고 전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령이 보여준 모습은 준비가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김대중령은 전날 청와대를 떠나 새벽 한 초콜릿 배달에 마지막 '속재인' 송영선, 노희성명 만찬사 등 연설문을 마무리지었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사말과, 예상 의제와 해법, 북한의 협상스타일 등은 이미 숙지했다. 북한을 다녀온 인

문단 55년만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일선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김위원장은 회담 상대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상자료와 남북 연공노도를 보고 받은 뒤 김용순(金容淳)당비서 등 측근들과 함께 회담 전야를 숙의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의 정치대안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위원장은 우선 아버지 김정일(金日成)주석을 자주 떠올렸을 것이다. 평양의 과업을 이루지 못한 채 1994년 정상회담 직전 눈을 감은 김주석을 회상하면서 정상회담 일과를 마무리하고 한바탕 편지도 쓴다는 '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 한 일본 방송사 스튜디오에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홍인기기자

### ■ 김대중대통령 "이제시작... 큰욕심 없다" 차분한 마음 의지다져

사들, 전직 안기부장,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다.

그러나 김대중령이 간헐 고민하는 대목은 보도자나 지요의 내용 등이 아니고 북측, 특히 김정일위원장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북측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로 여겨지고 있지만, 직접 김위원장을 만나서 의인해야 할 시간이 너무나 없다. 취임후 풀기 차게 보일정세를 추진했고 전 세계를 돌면서 북극을 살피는 등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는 어떤 의미로는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김대중령은 정상회담이 합의된 이후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 "가능한 것부터 합의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설명이지만, 한편으로는 북측을 향해 메시지가기도 하다.

김대중령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 근세사를 자주 언급한다. 당시 이 땅의 지도자들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다. 분단, 전쟁 등 100년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대중령의 역사 인식이다. 김대중령이 김위원장에 한 얘기도 바로 "역사에 대한 책임"이다. 김위원장의 이에 동감한다면, 김대중령은 남북의 거래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김대중령은 지난 주말(10일) 자유로웠지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위원장의 마음을 열고 공적에 남북의 역사를 남북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영성기자 leey@hkan.kr

### ■ 김정일국방위원장 공식적 첫 세계무대 등장 55년체제 드러내 부담도

바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차례 던졌다. 72년 2월 2인자 에 오른뒤 22년간 김주석에게서 배운 재량외, 6년간 북한을 직접 통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어떻게 응축시켜 드러내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고인했을 것이다.

김위원장은 지난 날 중국 방문시 남쪽의 생각을 많이 보여줬다"며 단단하게 말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55년 간 지탱해온 북한체제의 단단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김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세계무대에 첫 등장하는 기회라는 점을 의식,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형성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남한국가'의 낙인을 지우고 대내적으로 화교부흥한 수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대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자제할 미국과 일본의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

김위원장은 특히 정상 개인간 신뢰 관계 형성에도 무게를 두리라 것이다. 남북관계 주역인 김대중령과의 양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특집개선이 사업에 계를 거듭했다. 연장자인 김대중령을 직할하 예우하는 12만세에도 세심한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영성기자 leey@hkan.kr

#### ■ 남북정상 주요한 입장 비교

| 남북한 김대중대통령   | 남한    | 북한  | 김정일국방위원장 |
|--|-------|---|----------|
|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배급 70%이상 고령이민자구제                                 | 인신거래  | 한국대통령의 총리에서 내각 심층은 필요하여 중요한 시제                |          |
| 남북간 상호의존적 남북 평화 협력관계에서 적극 추진                                 | 남북경쟁  | 기본적 경쟁을 기초로 사회적 남북 체제에 통합할 용의있음               |          |
|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공평하게 기본 상호존중 협력사무소 체계설                          | 남북대립  | 대립불요론은 인정하나 남북적 특수관계의 대립은 공간                  |          |
| 북측 지지, 통일당 창당의 구체화   | 회담질서적 | 회담결과 확보                                       |          |
| 3차시대를 국지전도발 발차게 한 군사대결기간 동안인정                                | 군사적긴장 | 북한과 평화협정체결이후에 남북한 대우국시대로 지향                   |          |
| 한 당에서 통일당과 통일실적이 다 공평, 통일이전에 남북 협력할 통해 시정관계 정상화 조성           | 통일방안  | 북한이 서북의 사할과 제주도 인정하는 고려연방제 도입 통일할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 |          |
| 한반도비핵화 선언 준수, 북한 미사일을 문제외 평화적 합의를                            | 핵-미사일 | 핵에 핵무기는 없음, 북한이미사일은 핵미간의 문제                   |          |
| 비무장 지대지위 및 통일기반 확충을 위한 대대적정착사 있음                             | 통일발력  | 남부지역은 지양하고, 그러나 김위원장의 적극 언급은 없음               |          |
| 자유로웠지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위원장의 마음을 열고 공적에 남북의 역사를 남북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한다 | 체제교류  | 북측의 부담없는 남북적사 교류적                             |          |
| 한반도 평화적 이산가족 회담을 돕는 공동성명이나 현안문제도 협조                          | 회담수행  | 합의되지 않을 공동성명 발표할 수도                           |          |

### 美ABC·英BBC·日요미우리TV 생중계 막바지 준비

#### ■ 프레젠테이션 이틀째 표정 외신기자들 회담낙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젠테이션 12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취재열기로 돌아왔다.

외신기자 대부분이 "일정 연기가 회담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영국 BBC, 미국 ABC, 일본 요미우리(讀賣) TV 등의 방송팀은 생중계를 앞두고 준비를 최종점검하며 리허설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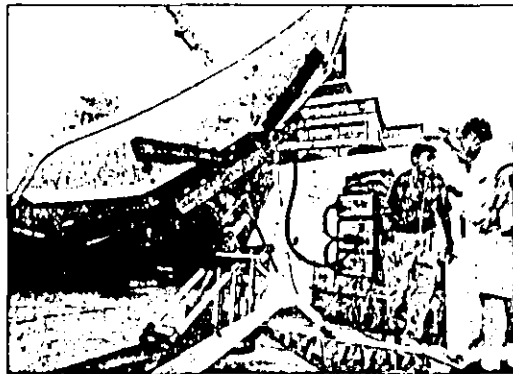
일본의 후지(富士)TV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한

반도 지도가 그려진 즉석 스튜디오를 프레젠테이션 메인홀에 설치, 사진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치다 히로마사(内田宏昌) 기사는 "뉴스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 끝에 MBC 미술제작팀에 의뢰해 특별히 제작했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에 대한 일부 비관적인 시각도 있었다. 영국 ITN 방송 이언 윌리엄스 기사는 "지난 1995년 김일성(金日成) 사망 1주기때 평양에 다녀왔다"면서 "북한측은 이번 회담을 돈과 인조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TVBS방송 팽상형(彭商興) 국제부장은 "도우미들이



정상회담 전날인 12일 프레젠테이션이 설치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신기자들이 건물 옥상의 워싱턴테라스를 이용해 자국으로 회상을 전송하고 있다. /신재호기자

친절하고 풍역능력이 뛰어나다"며 "통신망 등 설비의 보도자료 등이 모두 최상의 수준"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 훈기자 hoony@hk.co.kr  
최은선기자 moonsun@hk.co.kr

### 임진각에 자리한 '통일연못' 아시나요

#### 실형서린 자유다리 밑 올 7월완공 방문객 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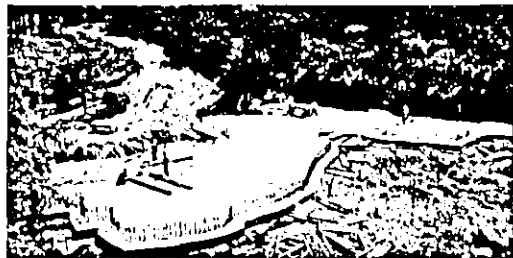
'이곳은 실형의 현(峴)이 재가 되어 뿌려진 곳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 방문객들은 한걸음이 자유의 다리 아래쪽에 조성되고 있는 '통일연못(사진)'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7월말 완공예정인 이 연못

한기운데에는 지금 한반도 모양의 폭 10m, 길이 40여m 크기의 콘크리트 지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 연못이 완성될 경우 중앙의 한반도 양 옆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그 사이를 통일의 열원을 담은 폭배가 남북으로 오가게 된다.

이곳은 읍들이 자유의 다리가 개방되기 전까지 통행이 금지되던 지역.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산(離散)의 현을 간직한 채 눈곱 감은 술한 실형인들의 유골이 철조망 너머 재로 뿌려진 곳이다.

공사를 맡은 현장소장 유우선(柳蔚善·49)씨는 "겨레의 현이 서린 지역이라 성스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이곳을 찾은 이정동(李正鼎·52·경기 성남시)씨는 "지금 더이상 갈 수 없는 맨홀이지만 통일이 되면 이곳 임진각이 바로 국토의 한기운데"라며 "연못 한기운데 굳게 박힌 한반도가 믿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불신의 벽 허물고 화해의 새장 열라”

## 남북이 못할 얘기는 없다



**이강구**  
(후폭 67-이북도민회  
총무부장)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 노력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현대음악도 교환공언을



**강석희**  
(후폭 66-서북기)

남북 음악계의 교류와 화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음악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현대 음악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이산가족 생사 확인부터



**이성만**  
(후폭 62-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총무부장)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미래지향적 공동분묘를



**박경형**  
(후폭 64-기동원대  
국제대학원장)

남북 분묘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분묘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여성교류도 크게 늘려야



**지은희**  
(후폭 53-한국여성  
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남북 여성교류의 확대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여성교류의 확대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한반도 강제중심지로



**김석중**  
(후폭 44-한국경제인  
연합회 상무)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50년 맺힌恨 풀이줘야



**김종용**  
(후폭 59-프로미구  
해태티거즈감독)

남북 50년 동안 맺힌恨을 풀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50년 동안 맺힌恨을 풀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연구·교육분야도 교류를



**허민**  
(후폭 23-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남북 연구·교육분야의 교류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 연구·교육분야의 교류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 “평화의 댐을 화합의 댐으로”

**남북정상회담**      **공공합용 추진**

“안보 사기극” 비난속 애물단지 방치  
수문도 없이 물 하릴없이 흘러보내  
‘남엔 홍수조절 北엔 전력공급’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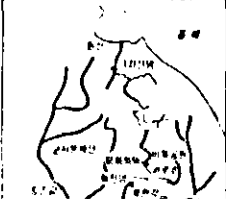
“평화의 댐은 남북화합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안보 사기극’ 이래로 6·15까지 반일반식 운동 12년의 침묵의 애물단지로 방치돼온 평화의 댐에 이제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찾아주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평화의 댐이 강변에는 사립상 전채적 목적이라 비록 양측이 협의해 건설이라도 서로가 이익을 내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평양개발도 150만 수차와 수백 문제가 가능한 때에다 평화의 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남북관계 등 현실적 장벽에 대해 지수 하락을 우려해 왔다.

남북관계에서 11년 남쪽의 강과 화천군 화천읍으로 2000년 2월 평화의 댐은 길이 410m, 높이 80m에 달하는 중형 500000톤급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사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댐을 설계할 때, 많은 시공의 예산과 인력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평화의 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평화의 댐에 대한 중형의 전지전 공수 연 4억5000만~5억 원, 중형 500000톤급의 중수조절역이 건설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수역의 경우 4000만~5000톤의 연수면적이 평균 350만평의 도시면적이 사용될 수 있다. 1000000000원 정도 투자하면 평화의 댐에서도 화천과 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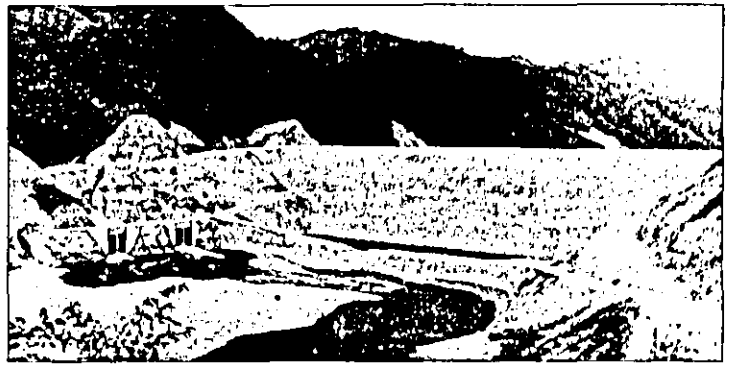
●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 위치도



반대강의 전역정신이 가시겠다는 생각이다.

강변내 화천댐(江津152호)은 500000톤급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한다. 평양의 댐을 원수 공급과 중수조절용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야제를 계기로 북측에서 평화의 댐 건설지역의 청사(청)를 1000000톤급으로 재공하고 원수도 공급할 예정이다.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제2차 국도 종합개발계획에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청사진에 넣으며 지난해 2월 국도안과 관련 위원회(국회)의 공동수입한 7000억 원까지의 공동개발계획은 화천댐-평화의 댐-금강산댐을 연결하는 데



12년전 서울 용마당 공포속에 요란스럽게 완공했던 평화의 댐이 그 뒤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한채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수유계법안도 담았다. 문제는 평화의 댐에 물을 채울 경우 북한지역의 수질지역이 확보된다는 점. 담수화면 담수율은 80%, 복원율은 16%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모량이 담수 250억원, 복원은 군사시설이 400억원에 불과,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수도 등 수자원기 간시설을 북한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협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의 댐은 북한이 1980년대 금강산댐 건설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문(水門)의 역할을 하여 남북관계개선 등을 위한 87년 2월에 적자 1000억원에 달하는 이(1000)를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댐 수문을 남쪽이 아닌 원산쪽으로 대동강변지역의 홍수와 전야(1000)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평화의 댐과 그 주변에 조성된 비북강원은 98년 안보관리자로 지정돼 지난해에만 34만명이 다녀갔다. 이곳 관계자는 “관객들이 많이 다녀 있는데 대해 안타까워 한다”고 말했다.

☎화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 회담성공기원 넘치 방류

오늘 독도서 ‘남북은 하나’ 상징 11.11마리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게 할 것의 밑거름이 되어다오.” 상징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동업을 기념하는 넘치 치어 11만 111마리가 화천댐인 13일 오전 7시 독도에서 방류된다. 제주 남해수원 청산읍청년회(회장 김길호·金吉鎬)와 대륙 지방(회장 박희정·朴喜正) 회원 7명은 이날 독도경매대와 함께 넘치 치어를 방류한다.

제주에서 직접 가져간 1만 1111마리의 넘치는 ‘남과 북을 하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넘치(11)와 남과 북을 자유롭게 남다(남)의 기쁨을 나눠달라는 뜻에서 독도를 방류 장소로 택했다.

회원들은 독도 앞바다를 돌며 수질한 치어를 저수에서 독도까지 15시간에 걸친 안정하게 운반하기 위해 산소탱크 수조



를 직접 제작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항공편으로 북한에 도착한 뒤 다시 12시간의 항해와 거쳐 13일 오전 6시 독도에 도착. 방류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회원들은 방류 행사에 이어 안락산 백과담에서 피운 물과 독도의 샘물을 합쳐는 합수식을 갖고 독도를 지키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제주=김재희기자 jchak@hk.co.kr

주변 4대강국의 시기와 입장

남북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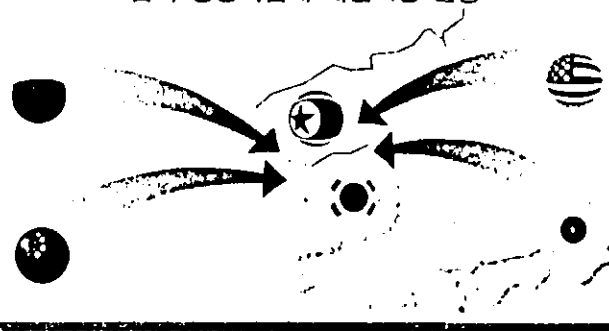
# “東北亞 정세가 급변한다” 4強 주목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4강 반응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사적 시점으로 평가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계속 지지한다.



**중국 장쩌민 주석**  
정상회담을 환영·지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하고 한국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평화협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로 해결되어 한다는 조건을 견지해왔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 과정의 출발점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 모리 총리**  
북한이 변화를 보인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성과다. 회담이 성공해 2, 3차 회담으로 이어질 바란다. 특히 관계개선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장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

## 지지와 경계

美, 핵·미사일문제 무게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중립 의견과 지지 입장을 보였다.

미국 의회장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장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장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장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yoon@kbs.co.kr)

## 기대와 불안

日, 對北관계개선 관심

일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거듭 표명해 왔다. 총리 김대중(金大中) 대변인과의 회담에서 보다 요시모리(小泉) 총리는 “북한이 변화해 보인 것은 대외부의 햇볕정책의 성과”라며 “회담이 성공해 2, 3차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쿄=황영식특파원(yshwang@kbs.co.kr)

## “막후 영향력”

中 “건설적인 역할” 강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때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지지해 남북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남북한 국민이 자주적으로 평화협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대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정책)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대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정책)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대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사중일관 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대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중일관 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대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송대수특파원(dsung@kbs.co.kr)

## ‘중개역’ 야심

러시아, 6자회담론 구상

남북 정상회담을 촉매제에 의한 정상회담을 개회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었다.

러시아는 대외 외교부 장관이 회담이 성공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대외 외교부 장관이 회담이 성공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대외 외교부 장관이 회담이 성공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북한 포용정책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한다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김지현 특파원(dies@kbs.co.kr)



軍, 정상회담 관련 입조심... 또 입조심

O-국방부의 입조심보안부 등 군당국은 13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어디까지든 입조심을 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방안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따라 군의 입장에 대해선 침묵해 왔고, 군 당국은 보안을 시점으로 국가원수가 직권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 문제는 물론이고, 응급 대응팀이 해외로병사 이관되는 군의 비상근무체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채 보도당사자들에게만 입조심해 왔었다. /김영준기자 mjngero@hk.co.kr

남북 국회회담 제의키로

국회는 13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985년에 추진하다 한사가지지 못했던 남북 국회회담 재추진을 북한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정대표 자장으로 참여한 이태환(李泰煥·민주) 의원(李完九·재민련) 의원 등을 만나 자리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 남북 국회의단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평덕기자 kdkim@hk.co.kr

國民日報

2000. 6. 13 (화)

북한 저자와 저작권 계약맺은 책 첫 출간

'북한 함토사화자가 쓴...'

북한 저자와 김지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은 책이 13일 이후 처음으로 출간된다. 도서출판 부인들은 오는 16일 북한 함토사화자 송경석씨(68)가 쓴 '북한 함토사화자가 쓴 개천이여 개천이'를 펴냈다. 부인들은 "일본에서 발행된 북한 책을 예전엔 살 수가 없었지만, 김지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며 "책값을 드리는 재보고부터 봉해 송백의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개천이 2000년말의 일고일락 저널하고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원고본을 방식으로 이뤄졌다. 판매 관수에 따라 인쇄부 수를

인수로 공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게서 실행된 방법이다. 저자는 책에서 고대, 조선, 일제 등으로 대립오는 개성의 언어와 태도 환경으로부터 공민단, 정몽주 등 역사적 인물에 의한 일화와 각종 민담 삽화 등을 소개했다.

송경석씨는 "우연치 않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고향이야기"라며 "마리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에 초고를 심사받아 '위대한'과 같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왜곡된 수식어는 뺐다"고 밝혔다. 저자는 출간지에 보면 김지식씨 부를 통해 "지식으로 남북 동포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 감격무량하다"고 썼다. 남도영기자

東亞日報

2000. 6. 13 (화)

경평축구의 스포츠계 관심 끌었다



'경평축구'도 다시 만나자

남북간 축구팀이 맞선 경기할 직접 본 기사는 없다. 그 말지만 남북축구 김기는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북측팀과 외국팀의 경기를 치러낸 관중들도, 90년 평양과 서울에서 열린 통일축구 등 여러 차례의 남북 대표팀 및 청소년팀의 경기들 팀장중계로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 내게 깊게 남아있는 것은 78년 방북 아시안경기 축구 경승이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남북대표단이 인천 잠신까지 120분간 가슴을 졸이게 했지만 의외하게 경기대 마쳤다는 것이다. 광둥우승이라는 경기였다. 두 팀 주장이 시상대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손을 흔들던 모습은 스포츠의 가치를 실감케 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주간 '스포츠동아' 기사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스포츠주간지는 표지사진으로 프로복서를 쓰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해설문에도 '스포츠동아'는 표지사진으로 바로 두 팀 주장의 사진을 썼고 남북축구 중심의 특집도 꾸렸다. 그러나 관에는 상공적이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다시 확인케 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스포츠교류 논의가 무성하다. 9월 올림픽, 10월 아시안축구의 단일팀 문제를 비롯해 2001년 세계탁구 단일팀, 2002년 월드컵 본산개최 및 단일팀, 경평축구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손흥민, 박지성, 김윤성, 대한체육회장, 김홍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정상회담 수렴된 위원회에서 좋은 길목이 예상된다. 특히 박지우가 축구 단일팀이나 축구와 농구의 결합감각 관례도 있어 이번에는 김평축구 부활에 대해서도 가파리 감입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김평축구는 40대에 중단되었으나 대외적 기억하는 사람이 꽤나 많은 한 가지 이었다. 20년과 30년 서울에서 열린 안보사수회 경평전과 두 도시 축구팀의 합의로 서로 오가며 치러진 30년부터 35년까지의 내차례 김평대회장은 절정 중이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의 김기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나는 별개 항수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혼자만의 것은 아닐 듯 싶다.

신체 김평축구의 주사의 시점으로 무산됐지만 91년 예정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여당은 김평축구부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겼다. 95년 당시 조순 서울시장의 취임식에서 김평축구를 위한 기금이 서울과 평양의 체육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민 서울시장은 98년 월드컵 주경기장 개공식에서 98년에는 서울에서, 2000년에는 평양에서 그리고 2001년에는 완공된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첫 시범경기로 김평축구를 갖추고 제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김평축구의 성사도 기대해본다. (논설위원·체육회박사) dhyoon@donga.com

서울경제

2000. 6. 13 (화)

정상회담 계기 월북작가 재조명 활발

용명회 비문 조정 문학비 재건립 시인 조운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월북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사업이 활발하다. 해방이후에 송인, 송인, 송인, 송인 등 여러 시인이 '백초(白草) 용명회(洪命會 1888~1968-시진(時進) 김일(金日成) 1905~1992)의 12월 12일 자일로 100주년을 기념하여 김지식 문학비 부활 사업에 착수하고 비문 조립 및 문학비 재건립 문제에 합의했다.

김지식 시인은 1905년 12월 12일 전라북도 정읍군 정읍에서 태어났다. 192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김일(金日成)과 김지식(金智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김일(金日成)과 김지식(金智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김일(金日成)과 김지식(金智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들은 오는 7월 21~22일 전국 백일장 대회의 100주년 기념 제비날을 한다. 1900년 10월 10일 태어난 조진생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 안일(安日)을 주도하다 40년 기독교에 입회했다.

/장주=박희용기자 hjyark@sed.co.kr  
영광=김태희기자 kimtd@sed.co.kr

### 中 대규모 경제무역대표단 23일 방북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40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경제무역대표단을 23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경제무역대표단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에너지 농업 전기

기계 등 북·중간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무역 확대 등을 협의하고 남북정상 회담 후 구체화된 남북한간 경제협력 방향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전략적인 의무를 부여받았다. /베이징=연

**북한측과 공동 벤처사업 추진**  
KTB네트워크는 자사가 유치한 평양교역단 서울 공연의 성공을 계기로 북측과 공동으로 벤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향신문

2000. 6. 13 (화)

### “남북간 금융교류 확대 기대”

北 근무 최초 은행원  
외환銀 이상식과장

“음산에서 배를 타고 신묘로 향하는 4시간 동안 불안감도 있었지만 북한에 들어가는 최초의 한국 은행원으로서 자긍심도 높습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로 건설현장인 함남 신포 굴초 지구에서 2년간 근무했던 외환은행 이상식 과장(43·사진)에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다른 기대를 길게 한다. 1997년 외환은행이 경우로 건설현장 금융업무를 맡게 됐을 때 감포공항 지점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2명의 동급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첫 번째 남북은행원의 영광을 안았다.



2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그해 10월 신묘에 도착한 이씨는 건설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돈과 건설 기업의 운영자금에 대한 송금과 예금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출장소는 자체 전산망을 통해 분장관리 업무는 전산으로 처리했지만 국내외의 송금은 팩스를 통해 수동으로 해야 했다.

이씨는 “정상회담 이후 경험이 본격화, 남북 은행간에 한꺼번에 계약이 체결돼 금융업무에서도 더욱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jkim@knynews.com

## 내년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 증액 방침

### 가용재원 1兆 규모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50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 5000억원 증액하고 대북보건의료 지원에 5500억원을 별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김우·우선 관련부처 예산등 가용재원을 전용하되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보건의료 지원은 국제백신연구

소에 출연금의 사용처를 지정,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북한의 민역 체제조사,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자재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은 보건실태에 대한 조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의 조사인력 파견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은 5000억원 증액이 이뤄지면 현재 남아있는 직립금 6300억원을 더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남북강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조혜동기자>

### 中 최대 경제대표단

### 23일 북한에 파견

### 매일경제

2000. 6. 13 (화)

【베이징=연】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40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 경제무역대표단을 23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파견할 경제무역대표단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협력과 무역 확대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매일

2000. 6. 13 (화)

### 中 대규모 경제사절 23일 訪北

【베이징=연】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관리 등 40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경제무역대표단을 23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경제무역대표단은 에너지, 농업, 전기기계 등 북·중간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무역 확대 등을 협의하고, 남북정상회담 후 구체화된 남북한간 경제협력 방향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중국 경제무역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을 방문하는 첫 외국 경제대표단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실리추구 및 기반 확보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대표단은 평양, 신의주, 남포, 나진, 신남 등지를 방문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국무원은 여러 부와 위원회들로 구성된 다른 대규모 경제무역대표단 파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대규모 경제무역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북·중간에 처음 있는 일로 북측과 의도가 주목된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 國民日報

2000. 6. 13 (화)

### 中 최대규모 경제대표단 23일 訪北

### 남북회담 이후 經協방향등 파악... 빠른 대응 주목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40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경제무역 대표단을 23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무역 대표단은 에너지, 농업, 전기기계 등 북·중간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무역 확대 등을 협의하고 남북정상 회담 후 구체화된 남북한간 경제협

력 방향,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전략적인 의무를 부여받았다.

중국 경제무역 대표단은 남북정상 회담 후 북한을 방문하는 첫 외국 경제 대표단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실리추구 및 기반 확보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베이징=연

# 南北정상 첫 역사적 평양회담

## 金대통령 순안공항 안착...

## 金正日위원장 직접 영접

### 두 정상 승용차 함께타고 초대로

### 55년 냉전 넘어 통일 큰 걸음

#### 2박3일 방북일정 시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37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열흘나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이어 두 사람은 김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부인 이희호(李喜浩) 여사와 함께 순안비행장에 도착. 전용기 트랩 밑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첫 만남을 가지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영욱 군 총정치국장, 홍성남 내각총리, 김용순(金容俊) 노동당 대남담당부서 동북측 고위인사들과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대통령을 태운 전용기의 도착과 함께 모습을 나타낸 김정일위원장은 김대통령 및 이희호여사와 차레로 악수한 뒤 김대통령을 안내해 간단한 의정대 환영 사연을 하고 영접나온 북측 고위인사들을 차레로 소개했다. 이어 김대통령도 이현재(李憲宰) 재경

#### 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 시리즈 '한반도 통일서' ..... | 2  |
| 평양 도착 첫날 표정 .....   | 3  |
| 서울 출발 이모저모 .....    | 4  |
| 평양시민의 일상생활 .....    | 5  |
| 정치권 반응 .....        | 8  |
| 각국 정부·외신 반응 .....   | 9  |
| 경제부문 의제 평가 .....    | 10 |
| 재계 남북경협 기대 .....    | 11 |
| 기상정보 첫 교환까지 .....   | 28 |
| 방북인사 순안공항 회고 .....  | 30 |
| '평양기는 갈스케치' .....   | 31 |

갔다.

김대통령은 승용차편으로 순안-평양간 고속도로(15km)를 거쳐 평양시 내로 들어가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여정을 온 뒤 김정일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숙소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접견을 받고 환담한 뒤 북한 측이 준비한 환영행사를 가졌으나 행사내용과 장소는 각각 공개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북측 고위 인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아제 앞서 김대통령과 수반인물 태운 대통령 전용기와 기자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소속 특별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공항을 이륙, 서해상공을 거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47분만에 평양에 도착했다. 우리 항공기가 북한 영공으로 직접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기안 출국행사에서 <이현중·서의동기자>

#### 남북정상 첫 평양회담

... <1면서 계속>

“대국민 인사말씀”이라는 출발 상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만년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터놓고 해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한반도를 가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돼야 함 것이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김정일위원장을 정식으로 서울에 초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합의해 나가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정상회담으로 넘겨거나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에게 계속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양행에는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이현재(李憲宰) 재경,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과 한광욱(韓光旭)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식수행원과 김민하(金民河) 민주평통수석부외장, 정중훈(鄭重勳) 대한축구협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수행원 등 130명의 대표단, 그리고 50명의 취재단이 동행했다.

# “만세... 만세...” 北은 열광의 도가니



평양 도착 표정

●...김대중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이륙한지 47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25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선명히 새겨진 전용기는 북측의 노란색 전도차일 앞세운 채 천천히 활주로를 빠져나와 20분쯤 행사장에 멈췄다. 전용기가 멈춰서자 전용기 뒤쪽 문을 통해 수위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동안 북측 관계자들은 승객용 트랩을 전용기 정면에 정비해 위치시켰다.

오전 10시32분쯤 전용기 앞문이 열렸고,

13일 오전 10시25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5분 앞서 일반수행인과 취재단을 태운 아시아나 전세기도 무사히 착륙했다. 10시37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전용기 트랩 앞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한반도에서 분단 반세기의 벽을 허물고 공존의 평화시대를 여는 첫 순간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대중(金大中)은 공항에서 조선인민군 사령, 임직인사들과의 인사봉을 마친 뒤 북측이 제공한 차량으로 숙소인 백화원초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평양체류 2박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평소 즐기던 지파(地巴)인 김피차(金皮車)에 감색이 들어간 안경을 쓴 상태였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로 맞았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이희호(李熙浩)이사와도 안수를 나눴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의정대에 걸레를 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나란히 의정대를 사열했다.

북한 의정대는 ‘앞에 총’을 한 자세로 난한 정상에게 예의를 표했으나 김대중(金大中)에게는 하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도 김대중(金大中)을 하지 않았다.

●...10시41분 2명의 소녀가 김대중(金大中)과 이희호(李熙浩)이사에 꽃다발을 선물했고,대통령내외는 화동들에게 기념품과 포옹과 키스를 했다.

군악대의 연주속에 의정대가 임한 구원과 함께 행진했다. 김대중(金大中)과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항상으로 뒤달렸다. 1000여명의 환영인파는 공항대미널 앞에 놓인 카펫 길을 따라 두 정상에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내내 항성을 그치지 않았다.

47분쯤 두 정상은 환영인파가 도열한 곳의 관부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걸은 뒤 마라 대기한 검은색 세단 승용차 앞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이어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승차해 공항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김대중(金大中)이 오른쪽 상석에 앉았다. 환영인파의 만세소리와 군악대의 연주에 승용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계속됐다.

●...김대중(金大中)과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이어 3분여동안 북측 의정대의 행진을 지켜본 뒤 천천히 이동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정상을 향

## 서울 이륙 47분만인 오전 10시25분 순안공항에 ‘ 金위원장 트랩앞 박수 영접에 金대통령 박수 화답 1천여 환영객 꽃다발흔들며 “김대중” “김정일”연호

이해 3분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내외를 영접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1분만에 걸쳐 김위원장이 비행기 트랩 앞으로 걸어오는 동안 환영객들은 “김정일”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36분쯤 드디어 김대중(金大中)이 전용기 앞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고, 김대중(金大中)은 갑자기 북반신 듯 10여초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어 김대중(金大中)은 트랩 아래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고 김위원장도 박수로 화답했다. 이희호(李熙浩)이사는 김대중(金大中)의 뒤를 따라 내렸다.

10시37분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과 반갑게 안수를 곁으며 수차례 흔들며 인사를 나눴다.

국방위원장은 의정대의 행진음악 2분간 지켜냈다. 김대중(金大中)은 오른쪽을 흔들었고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오른쪽을 흔들었고 김대중(金大中)은 오른쪽을 흔들었다. 김대중(金大中)은 의정대에 답례했다. 환영하는 인파가 만세를 외치며 두 정상에게 환호하는 동안 두 정상은 서로 박수를 보내며 환하게 웃었다. 환영인파가 “김정일” “김대중”을 번갈아 약 5분간 계속해서 연호하고 김대중(金大中)은 환영인파와 맞을 줄이면서 두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이후에도 만세소리와 “김대중” “김정일” “만세” 연호가 계속돼 공항대미널이 환호와

해 주변에 늘어선 환영인파들이 연방 “만세”를 연호하자 김대중(金大中)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수차례 손을 흔들었다.

그 때 김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에게 원기를 설명했고 두 사람은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다.

김대중(金大中)은 오전 10시48분 북측이 제공한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왼쪽문을 통해 승용차에 승승하는 또한번의 파격을 선보였다.

<서의동·공영은·이승재·조용우기자>

## 金위원장 밝은 표정... 건강 양호한듯

### 공항영접때 본 모습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근황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세계에 공개됐다.

김위원장은 항상 그렇듯 남북 정상의 삼분 순간에도 ‘인민복’을 입고 있었으며 굵은 구두를 신고 색깔이 약하게 들어있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환간의 소문을 일축하듯 임직시간 내내 환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배가 다소 나와보였으나 김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좋아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위원장은 의정대 사열 때는 군인들에게 한 손만 얹혀 들어올리는 친근성을 과시했고 의정대는 김위원장이 주는 선물인 ‘은색보통’을 들고 있었다.

김위원장은 공항 임직행사 내내 김대중(金大中)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잊지 않았다. 공항에 나온 북측 고위인사를 소개하고 육·해·공 3군 의정대 시열행사에 이어 준비된 차량까지 김대중(金大中)을 안내하면서 이희호(李熙浩)이사의 위치까지 살펴보는 배려를 보였다.

<서의동기자>

# 서울도 평양도 울고 말았다



북에 첫발 던졌다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25분, 남북 첫 단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내외를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전용기는 신도처의 안내로 황주로를 따라 열림진소로 이동했으며 곧이어 10시35분쯤 북한 열림진 인파의 열렬한 인호 함성 속

민 체 전용차에서 내리 향속하는 시민들로부터 환송인사를 받았다. 밝은 표정으로 사민당과 입일이 약속된 하던 김대중(金大中)씨가 특에 두고온 빛바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이산가족들의 소망을 얘기하자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청와대를 출발한 지 40여년만인 8시56분쯤 육해공군 약력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흥공원에 도착했다. 도착과 함께 곧바로 전용기장에 마련된 인파에 선 김대중(金大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와 기대를 설명한 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오겠다"며 국민에게 출발인사를 했다.

출발인사를 끝낸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서울시 인화소년소녀합창단 61명의 '우리의 소원' '나의 사랑 고향' 등



13일 오전 북한 환영인파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보고 열광하고 있다(위).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지켜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T.V촬영·신장섭기자>

## 가슴벅찬 상봉순간 함성-갈채 7000만 겨레 한마음 '통일노래'

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위해 전용기 앞으로 이동했다. 10시30분 전용기 트랩 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오랜 '남녘의 땅'에 첫발을 내디디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부여잡고 민족의 희망을 가늠하던 약속을 나눴다.

김대중(金大中) 내외의 순안공항 도착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7000만 겨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흥분과 설렘,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탄성을 내뿜었다.

아예 앞서 이날 오전 8시55분쯤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이회준(李會準)여사와의 함께 청와대 현관을 나서 대기중이던 전용차장에 올랐다. 갈채 정황에 밝은 색의 넥타이를 맨 김대중(金大中)과 흰색 부피스 차림의 여사는 도열하고 있던 비서실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며 전용차 안에서 기념게 송환 준비가 보였다.

김대중(金大中) 내외의 호위수색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 효자동으로 들어선 전용차량은 연도에 마련된 사민당이 선명하고 흥분 속에 보이는 박수를 받으며 서서히 이동했다. 청와대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장문 삼천 삼천명이 이곳 주변 1000여명이 둘러 김대중(金大中) 내외를 전용차량 앞에 대기기를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따뜻하게 환송했다.

전용차량이 효자동 도로변에 도착하자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반박에 대호를

의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산가족들로 구성된 환송단과 장·관 계 초청인사들과 입일이 약속을 나눴다. 이어 김대중(金大中) 내외는 국군 의장대를 사열한 다음 역사적인 평양강을 앞두고 희망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피땀만들 다소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트랩에 올랐다. 9시09분 김대중(金大中) 내외가 오르자 곧 전용기 기의 문이 닫히고 힘찬 엔진소리와 함께 황주로를 향했다. 김대중(金大中)은 전용기 안에서도 환송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박경일기자>

## 목놓아 부르는 "어머니..." 휴전선 페아리

### 통일로들 전방 표정

동일로들 달려온 마음은 벌써 휴전선을 훌쩍 넘어섰다. 밤잠은 임진강 옆 통일대로 남쪽에 시 일직사야 했지만 북녘에 두고온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비무장지대 저 너머로 한창해 비상하는 백오의 날개에 실려 채 어느새 북녘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 트디어 남북이 만나구나." 이날 통일대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외에도 탄성을 연발하는 것만으로도 흥분했다. 한반도에 내려오는,

조용하면서 합한 대지각 변동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모습들이었다. 임진강에서 만난 이상은(61·사업·서울 개성)씨는 "북에 계신 부모님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반에 마련됐으면..."이라며 관내 말뚝 못있고 눈물을 흘렸다.

### 새벽부터 실랑민 인파

평안도에는 이산가족들이 부활없이 몸서리던 임진강 철교 저쪽 너머로 가족들을 찾고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통일대로를 건너 민통선을 지나 남

방계선을 바로 집하고 있는 사무전 선 최복단 도리전방대에는 어릴적 지인 카타나 꽃말이 이문 이침부터 물러드는 실랑민을 맞았다. 이곳에서 만난 원성이 고향인 남대성(68)씨는 "그동안 부활없이 고향방문에 대한 희망을 수없이 가졌다가 실망하기 일췌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며 "죽기 전에 고향방을 밟아보고 두고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나 긴장이 가지지 않는 제3야금 옆에 위치한 이곳 도리전방대에도 변화의 기운은 감지됐다. 황동방위에 여남이 없는 가운데도 이곳 OO부대

장병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 "죽기전 고향방 밟아야지"

초소근무중인 문현식(21)상병은 "2도 안되는 거리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변할지언정 원지 오늘따라 개성시의 북쪽마을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군사분계선까지 넘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가는 백오:치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도 평화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대교·도리전방대=구정은·박영술기자>

# “南쪽손님 반갑습네다” 뜨거운 환영

## 여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13일 평양은 낮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올라가고 구름이 조금씩 잔여적인 초여름 날씨가 되었다.

평양시민들은 분단 50년에 차츰 일년 장성하기를 앞두고 자비롭디 순애비행복과 평양시대를 인경하는 도모를 모수하고 도모면 기념제와 새 페인드로 단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열중했다.

거리와 여차 교통정황은 한색의 여름복장으로 간여 있었다. 금수산기 남쪽 부근 임원(아에서) 학생고지 대가 손님맞이 음악이 연주하고 있었고 환영제목을 들 수 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남북 손님을 환영하는 단애 제도를 연습했다고 평양인들을 둘러 본 외신들이 전했다.

### 강북이 정치·예술의 중심지

●...강북의 부다레스라는 명칭에 강북에 평양은 삼국으로 재배된 초여름 햇살에 뜨겁고 있다.

중앙하고 해안의 조화 건축물들이

### 학생고적대등 곳곳서 손님맞이 연습 분주 러시아워 혼잡피해 근로자들 출근시차제

곳곳에 들어선 평양은 거대한 '분대 세운'을 연습해 왔다. 김위원(출근) 10 국방위원장은 "강북에서 평양은 죽을 이다"라며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라 각 건축물마다 고유의 특색을 살리도록 강조했다.

중구역의 모인한 강북은 정치·예술·문화·스포츠의 중심지이고 동대구역에 있는 강북은 교육·직업의 중심지이다. 신교구역과 권 남은 산업중심지로 나타났다.

도심인 중구역은 남북으로 평양, 동쪽으로 육류교와 천리마동상, 북쪽과 서쪽으로는 대중문화 박물관을 잇는 5km의 길 안쪽 거리이다. 민안 제, 제2제역길, 외외성지인, 자연애와정 등이 볼거리다. 용어정음(강)과 인민 문화공전, 만수대체육센터, 평양인민 소년공전 등 주요 문화시설도 이곳에 집중돼 있다.

●...평양에 대중교통은 크게 세가지, 도산에서는 지하철이 가장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많이 애용된다. 평도전차와 무궤도전차는 출퇴근시간에는 다소 혼잡하지만 여사간편 배차량 이점이 있는 편이다. 지하철은 교통사고를 막고, 도심중행이 급박했다가 최근 통행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출퇴근에 부조리하고 있다.

평양은 러시아워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직장근로자들은 오전 8시까지, 해와를 근로자는 9시로 출근시간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레도 출근시간에는 무궤도전차 정류장에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 청춘남녀 모란봉서 데이트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역시 대중문화 모란봉이다. 모란봉의 청춘들에게서 대중문화의 열광적까지의 길치는 그야말로 길잡이다. 저녁무렵에 모란봉에서는 젊은이들의 데이트장이 형성돼 있다. 신교구역, 중구역, 평양구역 등 대중문화에 조성된 권역마다 모란봉에는 노인들이 한가롭게 산책하거나 삼삼오오 둘러앉아 정겨운 두는 모습이 눈에 띈다.

민간대구역의 민간대학소년공전 앞마당은 수업을 마치고 과외활동용 거리로 나오는 금치고농중학교 학생들도 왕복하고 있다. 중구역 남산재에 자리한 김일성광장은 평양에 대규모 건축이 허가된다는 소식인데, 건축이 되는 청춘남녀들이 행여지는 젊은 기

회이기도 하다. ●...평양은 녹지비율이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전원도시이다. 거리마다 가로수가 벽에 늘어져 있고 대중문화 박물관에 모도와 녹지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중문화는 수장관이 인기해 깨끗하며 육류교 다리 밑은 2~3m깊이 바닷에서 숨어해엄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다.

평양에도 평양구역에 평양화리발전소, 신교구역에 배디, 천천공장, 제사공장, 평양방직공장 등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오염원 배출은 그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휴일엔 모퉁강유원지 人波

●...휴일에 시민들은 가족단위로 모란봉, 대성산, 민강대 등지로 놀러가기다. 최근에는 천지호수, 사자봉에 생계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고 있다. 모퉁강유원지는 모퉁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청년들사이에서는 주례단련의 놀이가 인기다. 모퉁강기슭에 자리잡은 정경원은 북한 최대의 대중문화 행사장이다. 평양(평양)으로 유명한 육류교 주변은 역사적인 도민제비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정자리를 이룬다. <북일일보>

### ○평양 개요

|                            |
|----------------------------|
| 인구                         |
| 274만명(전체인구 2,121만명의 13.4%) |
| 면적 2,500km <sup>2</sup>    |
| 구성 18구역 4군                 |
| 평균기온 9.6℃(서울 11.1℃)        |
| 강수량 967mm                  |
| 교통신설                       |

평양 지하철(3개노선) 평도전차 무궤도전차 버스 택시 등



|  |
|--|
| 대학                                       |
| 김일성종합대학, 김계광대, 김형직사범대학, 인민경제대학, 공산정치대학 등 |
| 공공시설                                     |
|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대극장, 평양학생소년궁전, 조선중앙도서관 |
| 체육 및 유희시설                                |
| S-1경기장, 양강도경기장, 평양공민경기대유체장               |
| 건축·조형물                                   |
| 주체사상탑, 개천문, 천리마동상, 인수대기탑비                |



13일 오전 순안공원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창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을 인내하고 있다. <TV촬영>

## ‘관례’ 깨고 金대통령 ‘파격적 예우’

### 김위원장 직접접견 인민 金永南등 최고수뇌부 직접 정상회담 상당한기대 반영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원에 도착한 김대중(金大) 대통령을 단초예우를 깨고 김창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해 북측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걸고 있는 높은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날 영접에는 김위원장의 아들 북한 권역서 2위 김위원(金永南)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시영 3.4위인 조인숙(趙仁淑) 78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휴정남(伊成南) 7.11내각총리가 김위원(金正日) 60조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 최고수뇌부가 출동했다. 김위원장은 평북상 국가수반으로 이미 지난 83년 외교부장 및

### 金永南등 최고수뇌부 직접 정상회담 상당한기대 반영

부총리를 겸임했으며 96.10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98년 10월에는 장주영(張周榮) 친연대그림에위원장, 99년 5월에는 방북중인 미국대통령 특사 위령관 페리안국방장관과 각 방남을 가졌다. 인민군 차수인 조영복부위원장은 노동당중앙군사위원, 인민무력성 총정치국장들을 겸임하고 있는 북한 군부 2인자이다.

방문하는 등 경제분쟁을 주로 다루해왔다. 김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상사시키고 회담준비를 도맡은 인물이다. 부총리직으로 복원의 대외관계를 사실상 총괄하는 형세로 알려졌다. 김위원과 모스크바 대우 졸업한 김위원장은 주이집트 대사, 당중앙위 국제부장을 역임하다 91년 김위원(金正日) 주직을 수습, 중국을 방문했으며 92년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외교위원장으로 미국을 방문, 미국정부에게 천리마를 돌려고유(回還)를 가졌다. 93년 조영복 부위원장 겸 조선아태평화위원장을 맡은 김위원장은 95.12월 김대중 당시 아시아태평양평화회담에 서장에 참석해 서신보 전달하기도 했다. <북일기자>

# 반세기 분단 벽 무너지는가

## 한반도 新질서 금류탄다

### ① 남북정상 첫 대화 의미

20세기 세계 대전 대강구도의 산짐이 21세기 유망한 생존 분단지대인 한반도. 뉴질랜드의 첫해에 이곳에도 예외 없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김대중(중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변화의 큰 획을 그었다.

지난 55년 이룬 2차3회간의 참은 일상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대립과 불신, 갈등과 반목으로 침체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과 교류의 시대로 바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의 이번 방북행정은 한 시대의 마감이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인 셈이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내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 이념관계로 갖고 있는 미-일-중-러를 주변 강대

국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남북과의 직접적인 대외적 교류에 왔다.

그러나 김대중의 취임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인권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종식이 라는 이른바 '케르 프로세스'가 북핵으로 하여금 빛장을 열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과 일본은 대북



## 특 터놓고 대화하면 '빚장' 풀릴듯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접근

국들이 입장에도 변화를 초래하는 등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부단 리시아대통령이 러시아 정상으로서 처음으로 조만간 평양을 방문키로 하는 등 한반도는 4강 외교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양 정상과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쉽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중앙 인사실에서 "사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러하여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은 의중을 내비쳤다.

북한은 그동안 친선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친선당사자인 미국과 연합한 문제. 이런가 선배후남(先美

국)체제에 해체하고 국교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진행시킨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김대중의 구도는 지난 3월 9일 북한의 김제화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고 4월 8일 정상회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논의에 의한 주제가 많고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이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김연희의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주변강국간의 복잡다기한 이념관계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많은 추가 축이 변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천중기자>



김영남과 악수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대통령이 영접 나온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TV출영>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3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서울 공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의정대를 사열하고 있다. <성남=연>

## "이해 커질수록 협력도 커집니다"

### 송대통령 출발 메시지 (요저)

지난 55년 동안 영리한 막힘 것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끝이 앞에 일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기까지는 무엇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동임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헌신같은 원원과 신인의 힘이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 오던 남북과 적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해가 커질수록 협력이 커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번 회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합의나 이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정상회담으로 넘기거나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계속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이번 평양 길에 평화와 화해

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000만 모두가 안정하고 살 수 있는 냉전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저의 평양 길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이번 방문에 걸려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할 이루어 위복의 징후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평양 방문은 한반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가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000년 6월13일은 새 민족史 쓰는 날



## 서울출발 이오저도

**서울출발** 이날 현충식에는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최종영(崔鍾榮)대법원장, 이한동(李韓東)국무총리사저를 고부요인 내외와 이어 대교, 주한외교단장, 이진민(李鎭敏)외교통상부장관 등 15개 부처 장관들이 나와 김대통령의 발안(發安) 현송.

## "마지막 냉전현장 무너져"

●...서울 공원은 한송나은 11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민주당 의총을 발족해 했다. 의원들은 반가운 악수로 정친(政親)을 축하(祝賀)면서 궤멸한 날제(日帝)를 주제로 된(演) 나갔다. 자민연에서는 김종호(金宗浩)국회부의장과 장우태(張宇泰), 원석재(元石在)의원과 김기배(金基培)사무총장만이 현송. 또 권노갑(權魯甲)전의원도 참석. 반북단을 가리켰다. 현외감(現外監)인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과악이 판나 수 없는 회담"이라며 "마지막 날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지난 55년동안 가로놓았던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다짐'을 놓기 위한 역사적 발복길에 올랐다. 김대중대통령은 서울 출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인사말씀'을 통해 "뜨거운 가슴과 한살을 직시하는 치분한 머리를 가지고 발문한다"고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남 마치고 8시15분쯤 청와대(淸瓦臺)를 나섰다. 김대통령은 전날밤 청와(淸瓦臺)와 송암시의 대국민 인사말씀 현송(演說)을 마치고 육으로 수청한 뒤 이를 비서진에게 남기고 밤 11시를 전자리에 놓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김대통령은 11시쯤과 같이 오전 6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식사를 보고 가벼운 운동을 한 뒤 외교진으로부터 건강체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강을 뚫 갔으며 컨디션이 상쾌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박종암(朴鍾岩)대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몇가지 지시를 했다. 김대통령은 "새 민족사를 시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7000만 민족의 일인과 전세계 시민의 기대와 뜻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기대를 갖고가는 만큼 모든 것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사진을 받아 상곡(上谷)된 뒤 "살았겠다"고 말하며 김씨의 손을 잡았다. 김대통령은 효치(孝治)에서 약 4시간 주inker 인사를 나눈 뒤 8시24분쯤 성남공장으로 향했다.

<공영운기자>

## "너무 흥분 잠 못이뒀"

**남북대회사무국**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수행인 24명은 13일 새벽부터 서울 삼성동 남북대회사무국에 집결. 오전 6시30분 정각 전세계를 타고 서울공장으로 향했다. 이들은 통일부 관계자들이 나눠준 태극기 부대의 배지를 못것에 달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다.

앞서 이들은 사무국 1층로비에서 비례로 아침식사를 한 뒤 삼삼오오 모여 "날씨가 좋아 참 더했다" "반

## 실향민들 "北혈육 꼭 만나게 해주세요" 金대통령 "7000만 민족 염원 잘알고 있다"

있는 땀방울이 현장에 부너지는 소리가 귀가 떨어지게 들린다"고 회담장(會談場)에 기대를 표시.

●...박종암(朴鍾岩) 청와대 대법원은 이날 회담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기분 입장에 대해 "첫째, 반남 그 자체가 중요하며 둘째,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셋째, 실천가능한 사항들을 앞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세가지"라고 강조했다. 박대법원은 이어 "정상 회담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세가지 기본 태도는 첫째, 인내심, 둘째, 일관성, 셋째, 통솔에 대한 자감과 상의"라며 남북간 대화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공항(서울국제공항)에는 400여명의 환영인들이 나와 김대통령의 환영(迎送)을 현송했다. 환영인들은 서울 시민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는 "우리 의 소원"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당 전통기악 공연 1호기가 여류, 깨머들하게 말어질 때까지 못이 비현 듯 자리를 지켰다.

<유병관-이진천기자>

**청와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13일 아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차분하게 출발준비

하고 박대법원은 전했다.

## 부모-형제사진 보여줘

김대통령은 7시30분쯤 부인 이혜호(李惠好)와 함께 풍나물국과 채신민속음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딸기와 사과 한쪽, 커피 한잔을 마셨다. 이날 아침식사는 당초 김중일(金重一)의원과 김용업(金容業)-홍길(弘吉)씨 등 아홉 3형제와 머느리, 손자들 가족들과 함께 하는 방안이 비서진에 의해 추진됐으나 내외반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적 대사인 만큼 가족행사는 가급적 줄이는데 있다는 김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날 3형제는 성남공장에서 태극단을 배웅했다.

본관(本貫)에 도합한 청와대직원들의 현송을 받으며 나선 김대통령은 청와대말 효치(孝治)에 주민 및 심형인 600여 명이 모인 곳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뒤 주민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고향이 평북 의주라고 밝힌 김경희(77)씨가 13년 흑역사(黑역史)를 깨내 김대통령께 보여주며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사진인데 대통령께서 회담을 잘 삼공시키 꼭 반남 수 있도

새 살 잤느냐"는 동 답소(同答)를 들었다. 이날 오전 5시10분쯤 가장 먼저 도착한 차방석(車房席) 예술인회장은 "식한와 작가(作家)들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 중 비대한 남북한 문학(文學)발간과 연극 교류(交流)를 통해 통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용준(鄭容準)대한축구협회장은 "4년(四年)에 개최( 개최) 세계청소년축구 단일(單一) 구성과 2002 월드컵(월드컵) 분개(分개) 분개(分개)를 북측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은(高銀)시인과 김만갑(金萬甲)민화협회장은 "연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남북정상회담에 동참할 수 있어 가슴이 벅사다", "역사(歷史)로서 역사(歷史)의 큰 전환(轉換)점에 서게 돼 기쁘다"고 각각 소회를 밝혔다.

김민하(金敏下)민주평화통일수석부장은 "너무 흥분해서 자(自)발(自發) 잠을 못자다"며 "그러나 국민(國民) 여러분은 나치(自)을 분하(分下)거나 살(殺)지 말고 차분( 차분)히 지켜(守)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燦)민주당정책위의장과 이완구(李完九)자민연의원은 "매우 가슴에 삼는다", "전쟁(戰爭)과 가(加)대(加代)교(交)사(死)다"고 각각 소감을 밝혔다.

<이승재기자>



# 낮익은 산하... 두려움이 감격으로



남북인사들의 회고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북길에 나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오전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던 평양의 순안공항은 항공편으로 방북한 적이 있는 남북 인사라면 거의 예외 없이 현안이가 힘든 감격의 순간을 맞보았던 곳이다.

북안을 누비는 첫 걸음으로서 순안공항을 찾아본 방북자들은 어떤 외국보다 어렵게 들어갔지만 북한 역량의 우리말로 반갑게 맞이하는 공화국의 북한 안내원 모습에 "따뜻한 고국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8년 5월 방북한 리용엔스(李容仙)씨 부인장은 "비행기에서 내려기까지는 두려움과,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감격이 뒤섞였다"면서 "하지만 서걱했던 감정은 공항에 마중나온 환영인사를 만나는 순간, '동포를 만났구나' 하는 감동으로 변

## 89년이후 1만여명 순안공항 거쳐 청사 수수하며 깔끔... 환대 인상적

했다"고 당시 순간을 술회했다. 당시 리용엔스씨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신강이(申康伊)씨는 "순안공항은 '순안'이라는 뜻과 '순안'이라는 뜻을 가진 북한 어린이 친구들 덕에 북한은 편안한 또다른 고국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방북 인사중 친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욱 특별했다. 지난해 1월19일 1주일 동안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초청으로 방북했던 수원 협동신아대 김영여(金英娥) 교수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최창희(崔昌熙) 신부는 "고향산천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졌다는 감각에 온몸이 짜릿했다"고 순안공항에 첫발을 디딘 순간을 회상했다.

김교수는 "작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항이었다"며 "입국 절차를 거처며 친절한 공항 관계자들과 체류 기간에 고향 인권을 지나!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최신부도 "당시 잔디를 밟아보는 것 같은 감정에 둘러싸인 환주로가 기억에 남는다"고 술회했다.

순안공항을 찾은 많은 이들의 첫 인상은 권크리드로 지어진 단층만 2

층청사의 모습이 수수하면서도 깨끗하다는 것. 지난해 1월과 98년 4월 두 차례 북한으로 지원물품 확인차 방북한 우리민통서로들이 시감시(53)사무총장은 "순안공항은 우리 지방공항 규모 정도였지만 한적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지난해 방문했을 때는 북한 특징인 태양기를 맞아 꽃을 들고 해외 농교를 맞는 북한 여성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89년 공식적인 방북이 시작된 이래 지난 5월까지 북한을 방문 우리 남한 인사 1만2349명중 평무장 등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99%가 모두 이 공항을 통해 평양을 찾았다. <박선호·김연근기자>

### "추가 정상회담 합의면 남북회담은 성공한것"

보트워스 주한미대사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양측이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나가지 않을까라고 스티븐 보트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밝혔다.

보트워스 대사는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13일 평양에서 열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조화와 긍정적인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기대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워스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 "어디든 추가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나의 여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회담이 한자어로 그친다고 해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회담이 추가적인 만남과 정상회담, 더 낮은 차원의 정부간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 보도진 직접취재 불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진과 직접취재가 불허됐다.

북한 당국은 경호등의 이유를 내세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첫상봉을 제외한 정상회담 장면들 합치히 비공개로 하고,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금지시켰다고 정부 당국자가 13일 전했다. 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날 회담

장에는 일찍 취재기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남북 당국의 전속촬영사 3명에게만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촬영사 3명에 남북 관계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소속 대통령 전속 사진기사의 참여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날 두 정상 회담장면은 이들 '전속'이 촬영한 것을 각 방송사와 신문사가 넘겨받아 송신하는 방식으로 보도됐다. <공영모기자>

## "민족사 전환점 되길..."

### '회담 성공 기원' 각계성명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방북 첫발을 밟아 일대기 접미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북한 조국의 조속한 평화통일과 국민들을 위한 진보(進歩)에 대한

한 땅의 독립전쟁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50년간의 분산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민족사적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노총도 권정현(權正賢)대변인의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국민과 민족을 위한 대동령과 정부의 노력에 맞는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은 역사 진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연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반세기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다리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상회담이 남북 화해로 이어지기를 100만 노동자와 함께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김진연, 참여연대 등도 성명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적 결실을 기원했다. <하민기자>

# 일관된 햇볕정책 28개월만에 '열매'

### '소매 방북' '금강산관광'으로 교류 돕고

## 국민정부 '對北정책'

김대중(金大) 대통령이 지난 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 3대인칙을 천명한지 2년 4개월여 만인 13일 평양을 방문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98년 6월 16일 정주영(鄭周永) 친현대맹에회장이 소매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여산가족들의 마음을 살리게 했으나 불과 6일 뒤인 22일에는 동해안에서 최초의 북인감수정 1척이 예안대 온나라가 들끓기도 했다. 또 98년 11월에는 금강산관광선이 첫 출항하는 등 '반바람'이 불었으나 7개월 후인 99년 6월에 '시해교전 사태'가 발생, 남북관계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차급 군사적 돌발상황과 위기적 남북관계 진전 이 교차했던 현실에 연인하지 않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펴기 때문에 실현된 '역사적 시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 3인칙을 발표한 후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세가지 점에서 중대 변화를 겪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흡수동일성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공식 천명, 대북정책의 1차목표가 통일 이 아니라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경분리원칙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상호변화와 관계없

이 민간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파카자' 대북정책의 변화는 정주영친현대맹에회장의 '소매 방북' 및 '금강산관광선' 출항등의 상징적 사건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94년 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됐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에 활성화시켰다. 20만명 이상의 금강산 관광객이 다녀왔고 김대중정부 출범후 99년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한국 주민이 8742명을 기록, 이전 9년간의 방문인원 총계 2408명의 3배를 넘겼다.

그러나 남북관계 순항을 위협하는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북장수정예인사건, 북호 부장간첩사건의 발각, 남해안에서 반잠수정의 침투 및 총격전,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98년 8월31일에는 북한이 '타난게 로켓'을 발사해 동북아전체에 극도의 긴장이 초상됐으며 급정거 지라 핵시설 의혹문제가 불거졌다.

관남이 대북관계 국민전화는 '외국'에서 시작했다. 북한은 99년 9월12일 북-미 베를린 미사일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일본과의 수교인식을 시작했다. 중국 및 러시아에도 관계를 복원하고 여타 남아-호주 등 서방국가들과 수교했다. 지난 99년 김대중령의 베를린 선언은 94년 핵위기 이후 국제화의 길을 걷었던 한반도문제가 다시 남북정상사의 손으로 넘어오는 중대 계기가 됐고 이번 정상회담 당사자 이었다. <공영연기자>

## 주요 남북관계 일지

- 98.2.25 김대중대통령 취임, 대북포용정책 3대인칙 발표
- 4.11 남북차관급회담(베어전)
- 6.16 정주영현대맹에회장 소매 500마리와 1차방북
- 6.22 북인감수정 1척 동해안사 예인
- 7.12 북호 부장간첩 사살발견
- 8.31 북한 타난게 로켓 발사
- 10.27 정주영회장 소 50마리와 2차방북
- 11.18 금강산관광선 첫 출항
- 99.2.9 한-미-일 대북정책연례회의 개최
- 3.16 북-미 금강강하역 타결
- 5.25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 6.15 시해상 교전사태 발생
- 6.20 금강산관광객 민영미세 억류, 금강산관광 중단
- 9.12 북-미 미사일협상 타결(베를린)
- 9.15 미국 페리보고서 발표
- 9.17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대북경제재개 완화발표
- 12.1 일본 초담파 외무대표단 방북
- 12.15 KEDO, 한진과 김수로 주계약 체결
- 12.21 북-일수교 예비회담 개최
- 2000.1.4 북-아일랜드 수교
- 3.9 김대중령 베를린선언 발표
- 4.10 남북정상회담 합의발표
- 5.18 정상회담 예비접촉 합의서 발표
- 6.13 남북정상회담개회(평양)



## 회담장·숙소 어떤곳

평양 방북단의 2백30명 행적중 김대중(金大)대통령과 이희호(李熙浩)이사가 머무는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제외한 다른 일정의 시간과 장소는 보안상 이유로 원칙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귀빈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은 이에 준하는 의전과 격식을 갖추도록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 귀빈을 접대할 관례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장소, 민찬장소, 방문지능 방북단이 둘러볼 평양의 명소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순인공화=김대통령이 13일 오전 전용기에서 내려 평양방에 첫발을 내딛은 '순안공화'은 지난 55년 완공된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다. 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황주로 1개의 이 공항은 북한과 외부세계를 잇는 타나나쁜 인 관중통로다.

순안공화외 국제항공 정기노선은 모두 5개 노선으로 평양~모스크바~베를린(주1회), 평양~모스크바~소

김일성주석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금수산의사당(현재 금수산기념궁전)의 부속건물중 하나이다.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 의 원수급 숙소로 이용된 최고급 숙박시설로 김일성, 최영실, 사천환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측 인사로는 지난 9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외원인맹(PIU)총회에 참석했던 박정수 당시 국회의외무위원장이 이곳을 숙소로 사용했다.

◆고려호텔=방북 귀빈전 50명의 숙소, 최신택 시설을 갖춘 북한의 대표적 특급호텔로 외국관광객들의 단골숙소로 이용돼왔다. 85년 8월 개관했으며 평양 중심부인 평양의 왼쪽에 자리잡고 있다. 45층(높이 100m)에 총면적은 88만4000㎡이며 객실 수는 510실로 한꺼번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급의 편답식 외형과 함께 외관으로 말리셔도 한눈에 건물용 알아볼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풀바, 사우나실, 안마실, 목욕실, 게임룸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

## 백화원초대소 외국 국민급사절 이용하는 北영빈관 만수대의사당 주요국가회의 개최... 회담장소 유력 주암산초대소 특별수행원 체류... '주암산 영빈관'

피아(주1회), 평양~해마로프스크(주1회), 평양~베어전(주2회), 평양~방직(주1회) 등 5개국 6개 도시와 인 관내 있다.

아랍에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부설기로 취화하고 있다. 국내 정기항공로는 평양~칭징이 있다.

◆백화원초대소=김대통령과 이사가 머무는 곳으로 외국 의 주요 국빈급 사절이 평양방문시 이용하는 북한의 영빈관이다. 평양 북동쪽 대신구역 일출동의 대동강변에 위치한 주민 풍광이 뛰어나다.

지난 98년 10월 방북한 정주영(鄭周永) 친현대맹에회장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난 곳으로도 유명한데 83년 완공된 이곳은 동로고 인건전 건물 3동이 용칭한 숲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여러 개의 아담다운 분수대가 설치된 호수가 있다. 90년 10월, 91년 10월, 92년 2월 평양에서 있었던 제 2,4,6차 남북고위급회담 때 한국측 대표단숙소로도 사용됐다.

◆주암산초대소=방북대표단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24명이 머무게 될 이곳은 평양 중심가에서 동북쪽으로 약8km 떨어진 대신구역 미양동 모란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주암산 영빈관으로도 불린다.

다. 1층은 프론트 데스크, 안락방, 스낵바, 식당, 조식민족식, 레스토랑, 댄스홀 등이, 2층과 3층은 회의장, 탐구실 안락방, 사립들이 있어서 있고 4~43층은 객실이다. 객실 1층은 모두 101실(객실51: 1인 200㎡, 2인 100㎡)은 각각 250실이다. 44,45층에는 시간당 1만회 회전하는 회전 전망대가 있다.

◆만수대의사당=주요 국가회의가 개최되고 김일성(金永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관료들이 외국 대표단과 회담하는 우리의 국외이사당과 비슷한 곳이다. 특히 98년 9월 김정일 노동당총비서가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북한 정치사의 주무대 역할을 해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이다.

평양시 중심부인 중구역 서문동에 위치한 이곳은 인건면 42만5000㎡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2000여개의 회의실과 민담실, 조인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회의장 전망에는 김일성 주석의 입상이 있다. 91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됐던 제85차 국제외원인맹(PIU)총회참조소로서 당시 우리 측 국회 대표단 25명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영연기자>

# “국가적 大事”... 모처럼 政爭중단



## 정치권 반응

어제는 13일 모처럼 정쟁을 중단하고 한목소리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민주당과 차민련 등은 논쟁이나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며 한나라당은 회담 성공을 희망했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내심 우려감이 북한 의도에 우려를 거는 정상회담 후 여권의 공세적 정국 운영이 있을 가능성등을 우려하는 등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을 드러냈다.

## 비상지원체제 도입

민주당은 서영훈(徐永勳) 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이날 오전 서울공판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하는 등 거대한 축제분위기에 참여했다. 당사에는 당직자들이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 비상지원체제에 돌입했으며 사무실마다 정상회담 예기론 꽃을 피

## 여, 거당적 축제분위기... 야 “할말은 해주길”

었다. 김옥두(金玉斗) 총장은 들뜬 목소리로 “55년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세계민의 사랑을 담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특별성명을 통해 “2000년 6월13일은 민족사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장대변인은 성명에서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고 연변가 다기를 남북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역사적이며 큰 발걸음”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 다른 민족의 앞날을 환히 열어가는 희망의 동행이 되길 간구한다”고 밝혔다. <천영식기자>

## 환영과 우려 교차

남북정상회담 첫날을 맞은 한나라당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분단 55년만에 국가적 대사를 치르는 것인 만큼 일단 좋으로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면서도 속으로는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이회창(李會昌) 총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하는 등 거대한 축제의 분위기에 참여했다. 당사에는 당직자들이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 비상지원체제에 돌입했으며 사무실마다 정상회담 예기론 꽃을 피

여, 거당적 축제분위기... 야 “할말은 해주길”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민기자>

“통일로 가는 첫걸음”

자민련과 민주당, 한국신당 등은 일제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에 국민이 기대가 너무도 크다”며 “통일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신당과 한국신당 동도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민주당 한승수(韓承洙)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와 화해의 첫단추”라며 “동북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힘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중앙위의장도 “좋은 성과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태용(李泰容)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간에 균형있는 회담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영식기자>



민주당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출발 TV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정하중기자>

# 金正日, 권력 4대축 모두 장악

## 대외적으론 金永南이 국가 대표

### 북한의 권력구조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권력실세들은 대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권력실세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간의 집권과 만찬, 14일로 예정된 확대정상회담 등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북한권력체계의 4대 축인 ‘당(黨)·정(政)·군(軍)’ 및 최고인민회의에 포함해 있다.

◆노동당=김정일 총비서의 측근들이 비서국과 18개 전문부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상희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김용순 대

담비서(趙善世)이대변명경화위원회의장은 북한고위층 중 서양세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서 지난 92년 대남비서로 발탁돼 남북대화를 주도했다. 각종 공식의 인사를 좌우하는 김국대 간부비서는 초대부수상 김책의 아들이고 60년대부터 김총비서와 호흡을 같이했다. 김용순과 김국대 등도 측근으로 꼽힌다. 김총비서의 매제인 정성태(鄭成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담관부 인사권을 쥔 실세이며 비서국 업무와 김총비서의 일정 총괄하고 있다.

◆내각=총상남(張成南) 내각총리는 김일성총리대행과 체코 프라하총리를 내각 총리인 기술행정총리. 78년부터 3년간 주사부 참사실장으로 일하면서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신임을 얻어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될 수 차례 역임했다. 홍성남을 보좌하는 조창덕, 국방기부총리는 광산-광장 노동자 출신으로 기업소지배인을 거쳐 경제간부로 발탁된 경우.

◆군=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총정치국, 총참모부에 걸친 김위원장의 인맥이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조영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 강경순 군총참모장, 김일성인민무장동맹은 김위원장의 실각으로 장악하고 있는 ‘브로이카’로 꼽힌다. 조영택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95년 10월 총정치국장에 발탁돼 군정치-사상사업 총책임자였다. 강경순은 민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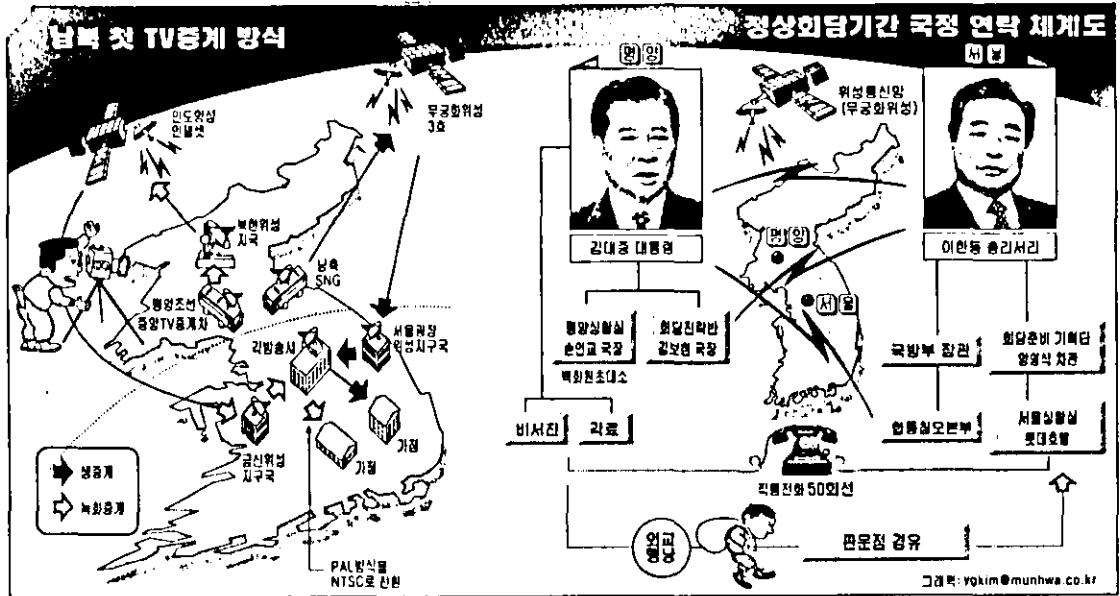
혁명위원회 다닐 때 김위원장과 함께 생활한 인연을 가진 ‘혁명2세대.’ 조영택과 김영순 역시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 배석했고 이번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북한해 군을 대표하는 핵심속근이지만 지난 12일 고 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을 방문하면서 파견돼 이번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金永南)은 국방을 제외한 국가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72년 당국무부장으로 발탁된 이후 정무원 외교부장 등을 역임한 ‘외교로’이다. 양영선 상

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했으며 조선사회과학학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김영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동희기자>

| 서열 | 이름  | 직책                   |
|----|-----|----------------------|
| 1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군 최고 |
| 2  | 김영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 3  | 김정숙 | 노동당 부총리              |
| 4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5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6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7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8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9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0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1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2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3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4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5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6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7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8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19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20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21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22 | 김정일 | 노동당 총비서              |



# 문화일보

2000. 6. 13 (화)

## 첫 현지제작 안방에 생생히...

### 생중계-기사-사진전송

이번 남북정상회담 보도는 평양~서울간의 안정적인 통신채널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평양 고려호텔과 서울 롯데호텔에 각각 마련된 프레스센터간 연결을 위해 각각 12개의 남북직통전화와 국제전화 회선이 준비돼 있다.

특히 남북간 처음으로 이동용 인공위성지구국 장비인 SNG (Satellite News Gathering)를 통한 TV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 ◆TV생중계

방송사상 처음으로 북한 현지에서 우리측이 직접 제작한 화면이 일 타임으로 생중

계됐다. 공동취재단이 현지에서 제작한 화면을 SNG를 통해 국산인공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를 경유, 서울 관성위성지구국으로 보내면 이를 수신해 각 방송사로 보내고 이 화면이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생중계가 아닌 녹화방송은 인도양 상의 통신위성인 인텔샹을 이용, 금신위성지구국을 통해 화면이 전달된다.

SNG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평양에서 TV 생중계를 하는 경우 북측이 제작한 화면을 평양이 인공위성지구국을 향

하여 전달받아 중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지난 90년 평양 남북 축구경기 대표적인 사례.

이 방식은 그러나 북한 중앙TV가 사용하는 전송방식(PAL)이 남측 방식(NTSC)과 달리 전환과정에서 화질이 떨어졌다. 남북양측은 김대중 평양 도착장면등은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 ◆기사

50명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이 평양 현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작성한 기사를 프린터로 출력, 팩스등 이용해 서울프레스

센터 기사수신사로 보낸 뒤 내외선에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사는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방의로 보도된다.

#### ◆사진

국내 유일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진전송시스템을 활용, 남북직통전화 4개 회선과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전화 2개 회선이 사용된다. 문자가 아닌 화상전송인 민첩 전화선 상태가 관건. 북측 사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진 전송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오후 시험 전송 과정에서는 잦은 전송중단등으로 사진 1장 전송에 무려 50여분이 걸렸다. <이진석기자>

## '무궁화위성' 이용 國政 점검

### '평양 이동청와대' 운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기간 중 주요 국정은 북측의 김대중평과 남측의 이인동(李漢道) 총리서리가 긴밀히 연락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한광옥(韓光旭) 청와대비서실장과 국무위원 사업 1, 2위인 이한재(李漢宰) 재경·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등이 김대중평을 수행해 반북, 이총리서리가 그 공백을 모두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김대중평과 이총리서리의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김대중평을 위해 공평에서 이동하는 순간부터 서울과 평양, 특별기를 연결하는 삼각 통신망이 가능하다. 무궁화위

성을 이용하는 이 통신망은 언제 어디서든 김대중평과 이총리서리류 연결한다. 평양 도착후에는 서울~평양간 50회선의 직통전화는 물론, 지동지 이동시나 보행시에도 이용하는 비상통신망이 준비돼 있다.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비상체제도 준비돼 있다. 북한은 통일부 손인교(孫仁敎) 국장등 단장으로서 평양상황실이 김대중평 소속인 백화인초대소에 설치됐다. 또 총리실 김보현(金保鉉) 국장등 비서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심부

진이 참여하는 전략회의 담당의 전략반도 구성돼 있다. 이들은 비상사태를 통수권자인 김대중평의 명령을 이총리서리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측에서는 회담지원을 총괄지휘하는 양영식(梁榮植) 정상회담준비기획단장이 매일 오전 9시 이총리서리에게 회담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이총리서리는 또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장 등 군지휘권을 통해 비상군부대에 돌입한 전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다. 하지만 이총리서리가 실제로 군통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대중평(원영)과 합동참모본부(서울)의 지휘통제실간

에 지휘통신은 24시간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은 판문점을 통해 하루 두차례 오가는 행낭을 이용하게 되며 평양상황실에서 사용한 모든 필통은 유지조각까지도 밀봉해 서울로 가져와 파괴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북기간중 김대중평의 국전수행에 단 1초라도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비상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있다"며 "이총리서리가 국정을 운영한다 해도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기기자>

# “만남 자체 의미... 설부른 낙관 금물”

## ‘북한풍’ 외신기자들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취재중인 507명의 외신기자들 가운데 북한에 상주하거나 평양을 수시로 오가며 취재했던 ‘북한풍’ 기자들이 상당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3일 한진강이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만남 외에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 것은 없다”며 설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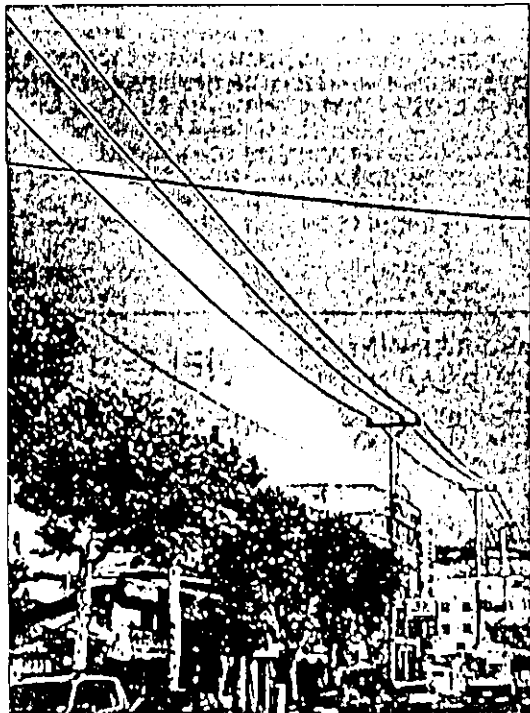
10년 넘게 방한 특파원을 담당한 중국 신화통신사의 가오허오퉁(高赫桐) 기자는 “회담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이외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일본 아사히신문 고스케 한국지부장도 “이번 김씨가 내놓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역할에 대한 무호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발인문으로서의 처음으로 방한을

참여가 TV생중계를 했던 미국 CNN방송의 마이클 치노이 기사는 9일 가장 먼저 입국, 임진강 등 남북분단을 상징하는 현장을 두리마 치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AFP 아시아특파원으로 지난 4년간 아시아 지역을 집중취재해온 모리스 루마티 기사는 “독일의 경우 정상회담이후 통일할 아무는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이 동독보다 더 패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형·박수근기자>



**상서로운 쌍무지개** 12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북부지의 심공에 소나기가 내린 뒤 쌍무지개가 나타났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쌍무지개가 마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심공을 기원했다. <SRS제공>

# “金대통령 출발” 제1보 타전 분주 프레스센터 표정

13일 오전 김대중(金大齊)대통령 임명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참기대를 촉발한 시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외신 기자들로 인해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오전 8시15분쯤 김대중의 출발 모습에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 설치된 2개의 대형 멀티스크린을 통해 방영되자 내외신 기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멀티스크린 화면에 나타난 김대중의 일행의 동정에 집중됐다. 내신은 물론 170여개 매체의 외신은 일제히 김대중의 청와대 출발 사실을 본사 및 본국에 타전했다.

13일 정상회담 임명이 본격 시작되면서부터 크리스마스날에 위치한 내외신 기자실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이승형기자>

## ◀ 문화일보 ▶ 2000. 6. 13 (화)



**내외신기자 취재경쟁** 서울 롯데호텔 2층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13일 오전 내외신 기자가 김대중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홍용기자>

## 중앙일보 2000. 6. 13 (화)

### 프레스센터 테러대비 경찰특공대 투입감시

12일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은 9시간이 하루 열거였음에도 이튿날부터 7백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온 격심한 취재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10일까지 국정홍보처에 공식 등록된 취재진은 국내 1백14개사 6백28명, 해외 1백73개사 5백3명을 총 2백87개사 1천1백31명. 하지만 이후 프레스센터에 직접 등록한 취재진이 1백50여명이나 돼 취재진은 모두 1천3백여명에 달했다.

○...프레스센터 상황실에는 청와대·중앙부·국정홍보처 등에서 관계 공무원 60여명이 파견나와 진행상황을 체크했으며 현대·속대 국제대외원생 30여명이 행사도우미로 자원봉사자 나와 외신기자들의 편의·안대를 도왔다. 또 건물건물 앞세운 특공대원 10여명이 수시로 프레스센터 내부를 돌며 민원의 사태에 대비했다.

○...호텔 정문 앞에서는 괴담 중인 롯데호텔 노조원 7백여명이 나흘째 인화 농성을 벌였다. 노조측은 호텔 입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6대 요구사항 등을 알리는 대서보를 배포하며 외신기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박신용 기자 <jibjean@joongang.co.kr>

政界 政界 政界

이산가족·經協연계 이견  
한나라 "정책혼선" 비판

한나라당은 12일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산가족과 남북경협 연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부처간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權榮世)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외선(梁外善) 통일부차관이 9일 이산가족문제와 남북경협 연계부를 말하자 박준일(朴準一) 청와대 대변인을 11일 이를 부인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고 다투자간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민(權大敏) 대변인은 "청와대의 반응은 북한을 의식해서 원칙을 포기한 수습용인 듯하다"며 "이무리 남북 정상회담의 전개에 집중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원칙은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이산가족 상봉 오랜꿈  
이번에는 실현됐으면

6월13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날이다. 55년 동안 다른 머리와 다른 가슴으로 서로 비방하고 핍박으며 총부리를 겨누며 살아온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세기 를 희곡과 떨어져서 단장의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신행과 기대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진압 것이다. 우리 가족도 이산가족이다. 올해 잃은 뒤산 외삼촌께서 6·25 때 서울에서 화교를 다니다 북으로 끌려가 이산가족이 됐다고 한다. 일흔셋인 나의 어머니께서는 지나가나 동생 한번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애나게 기다리다 돌아가신 외삼촌의 한"을 품어드리는 김이라며 생전에 꼭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신다. 다른 이산가족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세기 동안 생이별하여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상호친선 및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다져나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될 때 집권만 민족의 일인인 남북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김동근/부산 해운대구 좌동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출발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신청실기자>

아침도 거른 실향민들  
TV앞에 모여 '눈시울'

각 지방 표정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실향민세대들은 새벽같이 이들의 정보교현점소인 노인회관에 모여들어 TV로 정상회담 뉴스를 중계를 보며 이해가 지어지기. 함경남도 고원이 고향이라는 김삼은(金尚殷·79) 할아버지는 "죽기전에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된지도 모른다"는 신념에 한숨도 못 자고 회관으로 나왔다"며 TV화면에 응시하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나올때는 눈시울을 붉게 흘들이기도. 함경남도 신봉에서 1·4후퇴때 왔다"는 이주선(李柱善·78) 할아버지는 "부모형제를 놔두고 아내와 단둥이 데리온 현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며 정상회담에 큰 기대. 청호동 노인회장 박영학(朴英學·71) 할아버지는 "노인들이 편소에는 아침 10시는 돼야 하나를 나타났었는데 정상회담에 가는 기대가 일어나 갇힌지 오늘을 아침식사도 안하고 오전 6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설명.

"생전에 北가족 만나야"

●...함남도출신 실향민 300여가구가 집거지주하고있는 경기도 평택시 서창동 '실향민 마을' 주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날 아침 일찍 인근 '함남도민 공동묘지'를 찾아 성묘한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고대하는 모습. 함남도 은유이 고향인 이진숙(李貞淑·47)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이산가족들이 하루빨리 만난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1세대중 상당수가 양한의 현을 품은채 출생만큼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생전에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야한다"며 눈물을 글썽.

●...남한내 최북단마을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崔城洞)마을입구에는 이날 오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내걸린 있었고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의 화제는 단연 남북정상회담.

"통일되면 망종고 농사"

군내면 부녀회장 김옥자(43)씨는 "북한군이 도도리를 흉년 주민을 남치한 것이 옛것처럼은대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만났다니 꿈만 같다"며 "정상회담때문인지 अभी진 부디 북한의 대남 비방방송이 사라지고 사천강너머 지척의 북한군초소에는 적막감이 들 정도로 변화스런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라고 밝혔다.

마을이장 전창권(50)씨는 "자리작 북산으로 휴전이후 통제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오늘같이 기쁜 날은 없었다"며 "곧 통일이라도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장기수들 북한송환 기대

●...관주지역에 거주하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소원인 북한송환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

평남 덕천 출신의 김인서(75)씨는 "지금까지 남북화해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시도됐으나 대부분 실패가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광복 50주년 기념을 맞아 기쁘게 반겼다"고 밝혔다. 평양출신인 김동기(68)씨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쟁포로에 관한 제비마을'이 제대로 지켜져 하우숙의 고향땅을 밟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 <사회2부>

한겨레

2000. 6. 13 (화)

'이산가족' 인터넷주소  
선물로 가져가세요

이산가족 2세대 기증회제

"'이산가족'을 김 정일 국방 위 원장에 게 선물로 전해 주세요."

지난 9일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인터넷 주소 'www.esangajok.org'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선물로 함께 가져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었다.

이 글을 올린 이만희(66·개인 사업·사천)씨는 남북 정상회담 임기가 무르익은 지난달에 이 주소를 등록했다. "처음에는 이



북5도민회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대통령이 남북 선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씨는 부모가 황해도 시흥에서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이산가족 2세대다.

"아무래도 남쪽에 내디줄 수가 없을 테니까 북쪽에서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남쪽에서 이를 김책하면 훨씬 더 많은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씨는 "보장되었지만, 이 선물이 전해진다면 북일여도 직감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어서 도매인 기증 문화는 빠졌다"며 "그러나 기증의사를 밝힌 다른 북한 관련 도매인과 함께 다음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영춘기자 jona@han.co.kr

# “순안공항은 쾌청” 첫 기상 교신



## 분단후 첫 날씨정보교환

“평양 순안공항 오전 9시 현재 남풍 초속 1m, 시정거리 10km이상, 기온 22도, 기압은 1061헥토파스칼, 맑음, 앞으로 2시간 동안 현재 상황에서 변화 없을 것.”

13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 순안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순안 공항의 날씨를 쾌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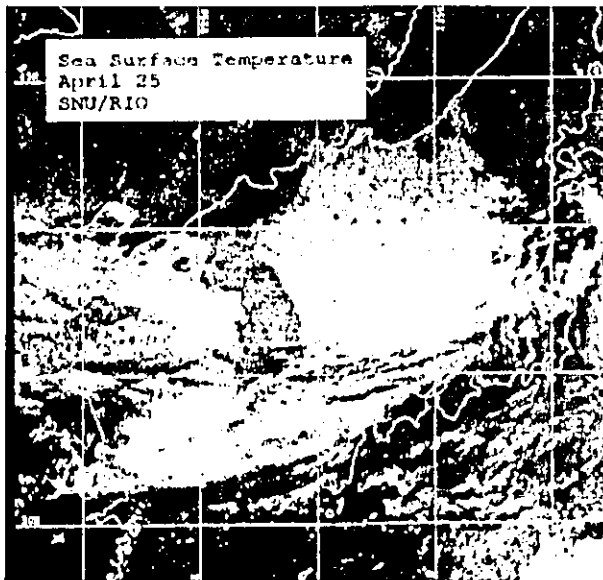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보다 앞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 기상 교류가 시작됐다.

남북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매시간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기상정보와 서울 김포국제공항의 기상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이 우리 기상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이번 기상정보 교환은 비록 오는 15일까지로 한정적인 것이지만 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붐몰처럼 시작될 것임을 알린 신호탄이다. 동시에 이 교류는 해마다 기상재해를 입고 있는 남북이 기상 예보 기술 및 날씨 정보를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남북 기상정보 교환 어떻게 이루어지나

김포공항과 순안공항의 기상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규정에 의거,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분포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기상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11일 오전9시 ‘METAR JKPY...’로 물꼬 상호협력 지속팬 선진국수준 예보능력 갖춰

영문약자와 숫자 코드로 된 기상전문 형태로 교환된다. 지난 11일 오전 9시에 북한측이 보내온 최초의 기상전문은 ‘METAR JKPY10000Z’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METAR는 기상상황, JKPY는 평양순안공항, 11은 날짜, 0000Z는 그리니치 표준시간을 각각 뜻한다. 매시간 교환되는 이 기상상황에는 바람, 시정거리, 기온, 기압, 날씨, 앞으로 2시간 동안의 예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측도 같은 시각 ‘METAR RKSS110000Z’로 시작되는 김포공항의 기상정보를 같은 방식으

로 북한에 보냈다. 김대통령이 단독별기만 서울공항에서 순안공항으로 1회 운항하기 때문에 북쪽은 김포공항의 기상자료가 사실상 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쪽도 분단 이후 남한 최고 실력자의 첫 방문을 맞아 불편을 없는 준비가 필요한데다 남북간 호혜 교류의 원칙에 따라 김포공항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남북은 매시간 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9시, 오전 3시 등 하루 4번씩 6시간 기상예보도 주고받고 있다.

◆항공고정통신망(AFTN·Aer

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남북간의 기상정보 교환은 ICAO가 운영하는 범세계적 유선 통신망인 AFT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AFTN은 조난 긴급사고 비행안전 기상정보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망이다. ICAO는 각국 공항간에 공항기상 상황과 예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은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

남북은 일본 동경 및 중국 북경과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서울에서 AFTN의 수신처를 평양으로 맞추면 북경과 동경을 거쳐 곧바로 전송이 된다. 반대로 평양에서도 수신채널을 서울로 하면 수신 가능하다.

◆남북 기상교류 현황

기상청은 이번 기상 정보 교환을 포함해 북한과 직접 접촉 3회를 포함해 10여차례 이상 기상 교류를 시도해왔다.

첫 접촉은 지난 98년4월 우리나라가 AFTN의 주선입국가가 된 뒤 이를 이용한 남북간 기상자료 및 협력 사업 제안이었다. 당시 북한은 “항공 운항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다시 연락해 달라”는 간단한 응답만 보내왔다. 지난 98년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기상청은 금강산 지역의 날씨 정보 교류를 다시 요청했지만 북한측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 우리측은 이외에도 국제기상기구 등이 주최하는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기상협력의 갖자는 제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알맹이 없는 찌사탕에 그쳐왔다.

현재 기상청은 북한지역의 날씨와 기온 강수량 등을 자체 정보들을 이용해 예보하고 있다.

<김대중기자>

# 철도... 항만... SOC 참여 본격화



## 재계 될 기대하나

재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상적이고 원칙론적인 선언단계에 넘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 안에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제방지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전라·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에너지 지원, 공단건설, 농업지원등과 관련, 남북양국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상회담이후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기업 분야를 살펴본다.

◆전력=현재 북한은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 전력생산량은 총 수요의 30%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발전소 건설, 남한전력 송전 체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남한의 전

### 남한 전력송전·전용공단 허용 필수 물류비줄일 육상로 개통도 급선무 北투자지역 기술자·건설인력 상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경제협력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평양의 동계공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이 남한기업의 위탁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력송전이 이뤄지게 되면 북한의 어느 지역까지 가게 되는지, 우리기업들이 요청중인 공단건설 지원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한의 석탄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행될 것

로 예상된다. ◆철도·도로=현재 남북경협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높은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육상로 개통이 중요한 선결요건으로 꼽

히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육상교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느냐, 아니면 기존의 남포항만시설개선 정도로 그치느냐가 향후 경협전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교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비무장지대(DMZ)의 동관 및 물류시설 건설문제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공단=남한기업들의 전용공단 건설 허용여부는 중국 개방이후 선전(DMZ)특구 설치와 건물 만큼 남북경협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와 삼성을 서해안공단 및 전자복합단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신의주에 공단 건설을 제외한 적이 있으나 해운을 이용한 물류비용을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 조성은 또한 전력과 도로 항만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이어져 관련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가능케 한다.

◆농업=곡물 감자 옥수수 지원에 이어 비료 농약 영농기술 지원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술자 상주=남한 기술자들의 북한투자지역 상주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SOC투자를 위한 남한 기술자와 건설인력의 상주허용 여부와 그 폭은 북한의 개방정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최형두기자>

## '經協보따리' 촉각... 활기 띤 행보

### 재계 對北사업 준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활기를 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북사업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 삼성, LG등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김영삼연 주요 사업계획들을 짜놓은 채 남북한 정산이 풀려놓을 '보따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계는 김영삼연에 걸린 물로 작용해있던 사회간접자본(SOC)회중과 각종 제도의 장애를 북한내 사업여건이 정상회담이후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대북사업을 주도해온 현대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 합영공장 전자단지등 조성

### 신규보다 기존사업 재점검

추진중인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는 이를 위해 ▲서해안공단 부지선정 ▲금강산종합개발사업 ▲철도·항만등 SOC 건설사업등 대규모 현안들이 터질날 경우에 대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마쳤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온천장 건설, 동석동 관광코스 추가개발, 관광선 부산출항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 가면서 국내의 자본을 유치, 금강산 일대를 호텔, 골프장, 스키장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2000만달러규모로 개발될 서해안공단

도 부지선정 문제만 해결되면 국내 중소기업등 85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대형 공단으로 조성, 연간 200억달러의 수출과 22만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현대측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은 북한의 남포와 해주일대에 수원전자단지외 유사한 대규모 전자단지 조성계획을 추진중이다. 약 50만달러규모인 전자단지에서 10년간 5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평양에서 양산에 들어간 컬러TV와 전화기, 오디오중 5억초에는 컬러TV가 국내로 반입됐다.

이번기부터는 스피커·모니터등 2개 품목을 양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LG=LG상사는 지난해 중유·화공제품등을 중심으로 970만달러규모의 물자 교역과 컬러TV등 422만달러 규모의 위탁가공 실적을 올렸다. 대북 김연에서 물류단지화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존제품·생활용품등을 포함한 전자·화학분야의 원유단지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6년 평양시내에 컬러TV 일가공공장을 설립, 올해 1만5000대의 북한산 TV를 국내에 반입할 예정인 LG전자는 남북 김연이 본격화하면 북한 현지에서 부품을 직접 생산·조립하거나 북한측과 공동으로 합영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타=96년부터 남포공장을 가동해온 대우도 지난해 그룹의 위기이후 대북사업이 다소 주춤했지만 정상회담이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이밖에 삼성사, 캐드콤등 10개 중소기업체는 20일 평양을 방문, 북한내 삼성·LG전자의 TV 조립공장에 필요한 부분을 현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희용·박양수·송길호기자>



# 경협 구체안 나오면 상승세 탄력



## 증시 장세 전망

남북정상회담 시작으로 주가변화가 관심거리다. 남북경협 구체내용에 따라 증시가 본격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 단정할 기대감도 표출된다. 그러나 채권시장 미비 및 초단기 자금증가에 따른 기업자금난과 하반기 경기악화에 따른 잇따른 통화당국의 경

## 일부기업 자금난-투신 매물벽 난관 일시 조정기 거쳐 테마주 본격 부상

고, 투신, 은행권 문제 등이 해결된 것이 없어 이번 장세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는 측도 적지 않다.

◆유동성장세와 이벤트 주가 동시 반영=최근 증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폭발적 증가다. 12일 거래소시장 거래량은 5억1000여만주로 사흘연속 5억주를 돌파했다.

거래대금은 4조4000억원이었다. 지속적 순매수세를 보여주는 외국인에 이어 개인투자자군단이 가담하기 시작, 유입자금이 주가를 추진하는 전형적 유동성 장세조짐까지 보인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실현'은 국가 위함도 높게 낮출수 있는 국제적

이벤트. 구체적 결합발표까지 이어진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시나리오는 완벽해진다.

◆남북경협, 계능프로젝트등 테마 주도 흥분=시나리오뿐 아니라 실제 증시내부 테마주도 흥분하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경협에 따른 건설, 이벤트, 전력, 철강업종, 해외요인으로 미국 계능프로젝트 초안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주가 테마로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 인수-합병(M&A) 초안발표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은행, 증권 등 금융주도 만만찮은 반응이다. 신세기통신, 한솔엠닷컴을 인수-합병한 SK텔레콤, 한풍프리트

과 LG텔레콤간 IMT2000사업경쟁도 본격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철-등 공기업민영화관련 종목은 재료만 있으면 즉각 주가상승이 가능할만큼 기업내용도 충실하다.

◆매물소화 과장만 거쳐 증시체력 회복=투신권등 기관무시가는 자금유입이 급감하면서 힘을 잃었다. 그러나 주식인수위증권,급전신다 등의 한매어파로 매도물량은 적잖게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가급등기에 기간 매물벽만 시장이 소화해내도 증시체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된다. 통일경제연구소 윤기선(溫基鎭) 기업분석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재료가 노출됐지만 구체적 경협들의 내용은 나온 것이 없고 자금유입이 급속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상승세는 내달 초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표기자>

## 문화일보

2000. 6. 13 (화)

## “年 1조 재해… 남북협력하면 크게 줄여”

### ■ 첫 교류 성사 문승의 기상청장



“남한이 해마다 기상재해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평균 6000억원입니다. 북한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정보만 교류되면 이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기상교류의 불모를 문승의(文勝義·사진) 기상청장은 “몇년간 계속된 일

진감 유역의 수해도 북한지역에 어느 정도 비가 내렸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피해가 컸었다”며 “남과 북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다면 예보 정확도를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대공위원회 의장도 겸하고 있는 문청장은 지난 4월에는 태풍위원회 차원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장마도 일찍 시작되고 태풍도 갯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쪽 관계

자와 교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은 슈퍼컴퓨터 등 기상 관측의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없어 부족한 상태”라며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북한의 우수 연구원들과 힘을 합하면 선진국 수준의 예보 능력을 더 빨리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청장은 “오늘 평양 납세처인 정상회담은 물론 이후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기상청도 북한 연구원들이 서울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반도평화 새장” 숨가쁜 타전



## 지구촌-해외언론 반응

세계언론은 물론 세계인의 시선이 13일의 남북정상회담에 몰려 있다. 세계의 통신-방송-신문 등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번 회담에 대한 특집을 마련, 한반도의 역사와 남북한에 대한 소개 등을 쏟아내고 있다. AP, AFP 등 통신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방문 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미국의 CNN방송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한 인터넷사이트(www.cnn.com/SPECIAL/Korea) 등까지 신설, 남북한에 관한 각종 소개에 열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등 세계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표정과 반응을 종합한다.

### 美 “화해협력 금대통령 기나긴 노력 결실” 中, 매시간 보도 “아시아 긴장완화 기여” 日, 北과 국교정상화 교섭 긍정영향 기대

**미국** 미국 국무부는 12일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대(對)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발표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NN 등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기사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미국은 그동안 남북간 대화없이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한번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램프 코사는 “북한과 중국간에 중국식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진정한 변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은 상호 협력과 긴장완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잇달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김(金)씨의 만남은 북한과의 화해에 일생을 기울여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기나긴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중국 언론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나 보도 일기는 한비더로 뜨겁다. 특히 12일 부다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사실 보도에만 충실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버리고 최초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 주목을 끌었다. 통신은 회담과 관련, 일단 과잉 기대는 금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남북 양측의 뿌리 깊은 차이들이 하루 아침에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통신은 그러나 회담의 의의에 대해서는 두 정상회담이 양측 국민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같은 움직임은 아시아의 평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화(新華)를 비롯한 인터넷 신문들은 사진과 함께 시골의 현장 표정 중심으로 거의 시간대별로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각 지방의 현지 언론과 중앙방송(CCTV) 등도 13일 현재까지 거의 매일 보도에 나서고 있다.

**일본** 일본 매스컴은 최근들어 연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요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13일 NHK TV는 새벽부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을 시간대별 주요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번

회담은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짜 기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은 세계의 조류에 뒤처진 채 냉전구조를 존속시키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높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남북회담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회담이 남북 쌍방간의 긴장완화와 화해증진을 가져올 경우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 요시로(森田) 일본총리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8일 오후에 게이조(桂田) 외무장관과 장래에 참석한 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국교정상화 교섭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음을 북한측에 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타** 대만은 13일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이 타이베이(臺北)와 베이징(北京) 간 정상회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여론이 엇갈린다.

한편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달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이 시장경제 지향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더욱이 지난 92년 중국이 남한과 수교함에 따라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김위원은 어제 말백하게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도쿄·베이징·워싱턴=이신우·홍순도·민병두특파원, 연합뉴스>

## 한겨레

2000. 6. 13 (화)

### ■ 뉴욕타임스 동북아시아국장 프렌치

## 남북회담, 북-미관계 개선 도움

“관계가 없는 역사적인 만남이다. 만다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성과다.”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지난주 말 서울에 도착해 서울 롯데호텔에 머물고 있는 하워드 프렌치(42) 《뉴욕타임스》 동북아시아지역장은 “한반도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첫 회담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추가 회담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관한 문제가 회담의 첫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관계발전과 가족상봉, 남북간 편지-전화량과 등도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전망에 대해 그는 “미국은 그간 북쪽에 오랫동안 남북과의 교류를 촉구해 왔으며 그 결과가 나타난 시점에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동북아문제를 연구한 뒤



1년 간 도쿄 지국에 부임한 그는 유럽에 행선지로 한국을 방문해왔으며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이번 회담 취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그는 “취재원지만 보안을 중시하는 북한 시장에 미치지 못할 우려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레스센터의 보도자료와 남북의 언론 보도를 잘 살펴보고 신문기사와 남북에 대한 정보를 세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글 하성복, 사진 장일규 기자

sbha@hani.co.kr

#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재조명

## 한국역사학 6·25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역사학은 한반도에 남아 있는 대립과 전쟁의 암암한 유산에 주목하고, 그러기에 더욱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 시교사 한다. 이것은 주권주의로 역사를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간 냉전 주권주의의 지층 밑에 은폐되었던 한국전쟁의 진실을 온전하게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시사관사에 임각하는 역사학의 본령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을 기념 앞둔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킨과린스홀에서는 뜻깊은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박기중)가 한국전쟁 50주년기념으로 마련한 '한국전쟁의 재인식'은 역사학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연구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첫 심포지엄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첫 발표자인 도진순(충원대)교수는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전쟁 인식의 과제'란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현대사회의 핵심부분은 대부분 사회과학이 담당하고 역사학은 주변적이거나 특수한 문제만을 처리하는 것이란 생각'이 팽배해왔다고 반성하면서, 한국전쟁을 포함한 동시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의 본격

### "분단현대사의 총집약" 역사적 접근 본격화 선언

회를 선언했다.

또 '분단 현대사의 총집약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대주제는 한반도의 심포지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연구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 등 명칭문제, 전쟁기간동안 미군에 의한 특수진 및 정보전 실상, 전면전 양상과 양면학살, 정전협정과정 규명, 전쟁지역의 관리 등을 앞으로 역사학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전쟁 발발직전 남북한의 충돌을 규명한 '1940-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계획' (장병준·국사편찬위원회), 전쟁기간 중인 51년 주한미군사교문단이 이 미 휴전을 의식해 한국군의 미국화 작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밝힌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교문단의 조직과 활동' (안진애·인하대), 전쟁에 대한 소련의 수동적 자세를 다룬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양영조·단국대),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과정' (양영조·단국대) 등 참신한 시각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世界日報

2000. 6. 13 (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내 냉면전문점 '곰감산'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점심시간에 손님들에게 냉면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황정아기자)

## 실향민에 무료진료... 공짜 냉면

### 정삼회담 이색이벤트 봇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서비스와 각종 이벤트가 한창이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12일 "분단 이후 55년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남북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3일 태어난 아기 이메일 기증"을 시작했다.

13~15일 65세 이상의 실향민을 무료로 진료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당한 위임도 정삼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12일부터 일반인 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측은 "15일까지 나흘 동안 초음파·검역기능 혈액 검사 등을 해줄 계획"이라며 "정삼회담 첫날인 13일에는 빈칸

에 합작력 삼체인 등을 치러놓고 환자·직원들과 함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귀순자 김용·40세가 운영하는 평안북면집인 모란각은 이날부터 실향민 1세들을 대상으로 전국 모란각 63개 지점에서 평안냉면 한 그릇씩을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이외에 인터넷 자동차 서비스회사인 (유)카마스(www.ca-mas.co.kr)도 정삼회담 기간에 임진각을 찾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료 점검 및 엔진오일 무상 교환 이벤트를 벌인다. 이밖에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연대회'는 남북정상 회담일인 13일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독도를 남과 북이 지켜내고 우리 후손에게 같이 물려준다'는 뜻에서 e-메일 주소를 증정할 계획이다. (김형규기자)



# 한겨레

2000. 6. 13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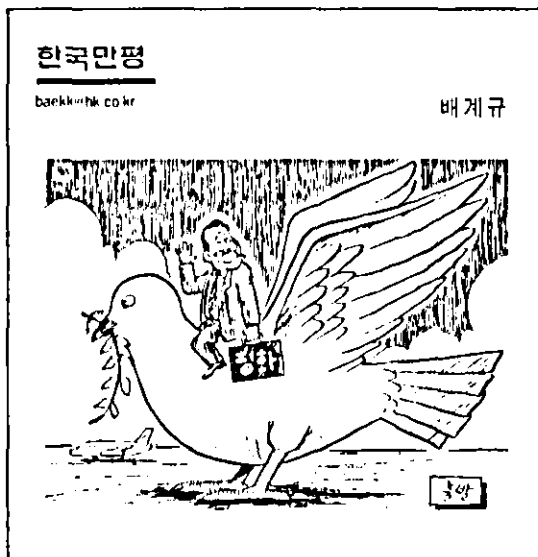
# 서울경제

2000. 6. 13 (화)



# 한국일보

2000. 6. 13 (화)



# 東亞日報

2000. 6. 13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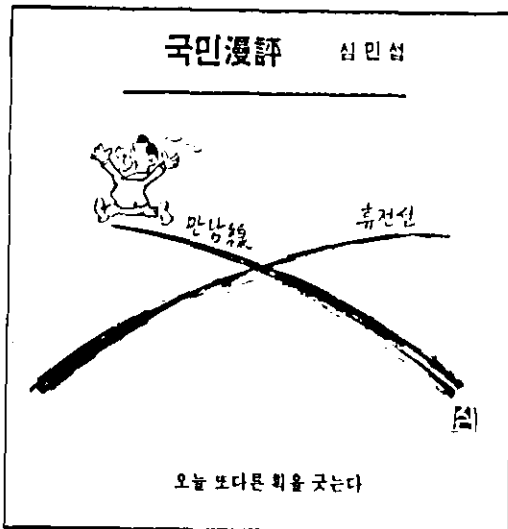


2000. 6. 13 (화)

世界日報



國民日報 2000. 6. 13 (화)



경향신문 2000. 6. 13 (화)



대한매일 2000. 6. 13 (화)

● 대한매일만평

백무원 bmk@k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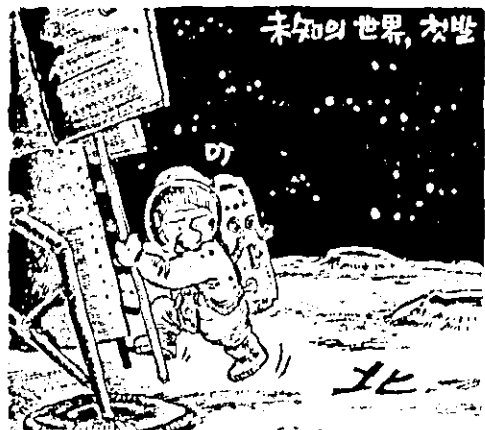


朝鮮日報 2000. 6. 13 (화)

신경무

朝鮮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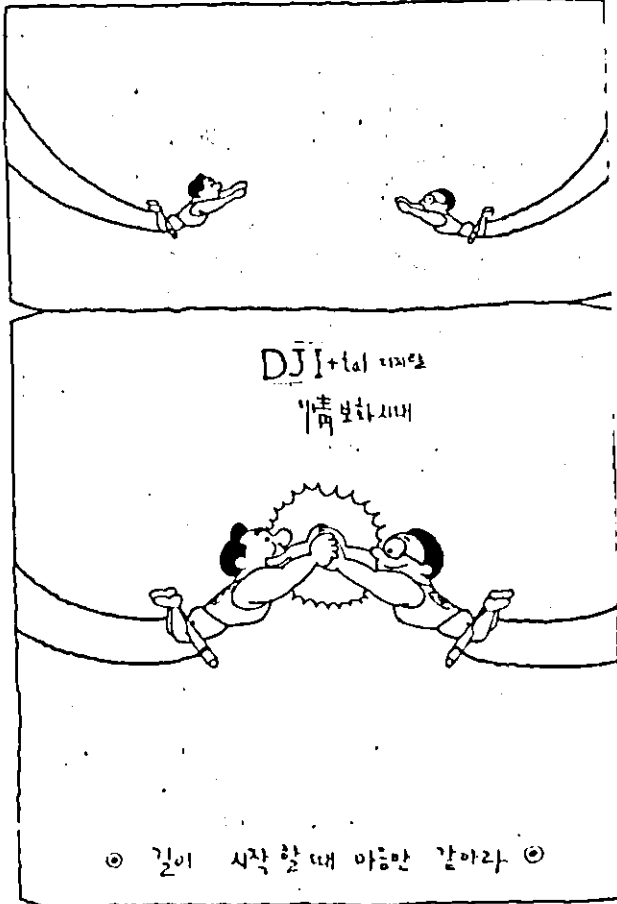
khshin@chosun.com



東亞日報 2000. 6. 13 (화)



이희재의 **사이버 만화경** 45



**미주알** 3512  
김윤호 dochi@han.co.kr



중앙일보  
2000. 6. 13 (화)

“김대중 집권자”가 누구냐

금강산 관리원  
정상회담에 관심

말 말 말

▷ “김정일 장군과 상봉하게 될 김대중 집권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나.”—금강산의 한 환경관리원. 13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며.

▷ “정상회담은 이제 넘어야 할 수많은 산의 베이스캠프.”—한 시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상회담에 바란다'란 코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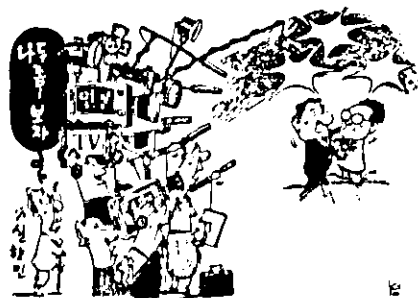
▷ “한국이 온라인 거러에서 세계 상

위권 국가라는 좋은 소식은 증권시엔 나쁜 소식.”—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낮아 증권사가 몰살이라며.

▷ “정상회담 후에도 북측의 김이로운 노래들이 계속되기를.”—미 LA타임스. 마지막 남한의 진산인 비무장지대(DMZ)에 해빙의 기대감이 높고 있다며.

중앙 만평

김희룡



# ‘파격 영접’ 세계가 놀랐다

## 새역사 큰만남

남북정상회담

이례적 환대나선 김위원장

### 13분간 공항행사 주도 극진한 예우 인민복 차림에 건강과시 시종 여유 영빈관선 수시 덕담 수행원 배려도



종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던 김 위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세계의 이목이 주목된 공직식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편와 순안공항에서 오전 10시36분부터 49분까지 13분간 공개적인 의전 행사할 주도했다. 김 위원장의 공항 출현은 ‘깜짝 쇼’를 반복해 했고, 외신은 이 시상을 ‘파격적인 의전에 최고의 예우’라고 세계에 긴급 타진했다.

김위원장의 공항 영접 계획은 우려속에 미리 불보였지만 김호 문제 때문에 철회하 모안에 부처졌다고 통일부 영영식(梁榮植)차관이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주석이 몽골대통령을 공항에 직접 마중나갔던 전례를 예로 들며 “북한이 김대통령을 국가원수로서 공식 예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영빈관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낮익은 갑색 인민복식 점퍼 차림에 색깔이 연하게 들어 있는 금테 안경을 쓴 김위원장은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 비교적 단구인 김위원장 은 굽높은 구두를 신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다.

공항 행사장에서 그는 시종 여유 있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미리 도영한 평양 주민들이 “만세” “김정일” 등을 외치며 열렬적으로 환호하는 동안에는 슬쩍 한 손끝 들어 친한 김을 내비쳤다. 냉전 시절 남북에 알려진 “김일성이 부족하고 신경질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은 거리가 멀었다. 김위원장은 말치갑담에 가까워지만 발음 알아로 한차례 흔들며 기뻐했다.

공항에서의 예우는 극진했다. 트럭 및 중장비에 선 그는 마치 영접을 하듯 단정된 자세로 김대통령을 1분 가까이 기다렸고, 김대통령

이 트럭을 내려오는 내내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트럭을 내리온 뒤에는 김대통령의 두 손을 허 잡고 인사를 건넸다. 북측 고위인사들 소개하고 의전대행 사명하는 동안에도 4~5차례 박수를 치거나 손을 흔들며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공간이 넓어진 이희호(李희浩)에서부터 김대통령 겸으로 안내하는 세심한 배려도 보였다. 내기중인 리무진 승용차에 탑 때는 김대통령이 뒷좌석에 먼저 타는 것을 지키면 뒤에야 맞은편쪽으로 통승려는 쫓듯한 예우를 갖았다. 어려서부터 받은 ‘지도자 교육’이 몸에 밴 듯 이런 재스처가 모두 자연스러웠다. 남북 기자나 수행원들이 접근해도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었으며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단대하게 행동했다.

딱딱한 의전의 틈을 켜 파격적인 환대는 북회일 영빈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주변에 있던 남북 수행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박재규(朴在圭) 통일·박지원(朴智元) 문공부장관에게는 “TV에서 많이 봐 잘 알고 있다”고 농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목소리는 넓은 울림 울림 정도로 크고 우렁차으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위원장이 서 있는 카페 주변에 북측의 다른 지도부가 근접할 허지 않는 점은 그의 위상일 짐작케 했다. 김용순 차·대평화위원장 “용순 비서”라고 부르고, 김원순 위원장이 극도의 예우를 갖추는 모습도 그가 내부적으로 확고한 권위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용기자 [kor01@kyunghwang.com](mailto:kor01@kyunghwang.com)

## 남북정상 역사적 첫회담 핫라인 설치에 의견접근

### 김위원장 직접 공항영접...오늘 2차회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측 김 위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분단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13일 평양 백회관 영빈관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27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남북정상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 시민들이 환영해주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세계가 김대통령이 왜 생부였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24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27분 전용기편으로 편와 순안공항에 도착. 식별을 통해 “김위원장과 함께 남북 우리 동료 모두가 편와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 협력 확대 ▲이산가족 재결합 실현 ▲남북간 대화 장려와 함께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공항에서 김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데 이어 함께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백

회관 영빈관까지 가면서 “내일 승용차내 대화했다. 연도에는 60분 평양 시간이 흘러나와 김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예방하고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김상임위원장 주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김대통령은 만찬시사를 통해 “(저의)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4일 김국방위원장과 회담 및 단독정상회담을 갖는다.  
평양/공동

# 트랩서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대면은 예상을 뒤엎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받는 순간 이뤄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특별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은 13일 오전 10시27분. 이때 공항 입구에서 김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운 아·대평화위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이 동장하차 공항은 마중나온 평양시민들이 진홍·빨간색의 조화(꽃송이)를 흔들며 "결사옹위 김정일" "민세"를 외치는 함성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 김위원장 서너걸음 다가와 '역사적 악수' 남북정상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 사열

김위원장은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앞 대형 카페 중앙에 자리했다. 우리측 구영대 경호처장과 북한측 전희정 의전장이 송강구에 오른 뒤 앞문이 열려 김대중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평양 순안공항에 첫 상륙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잠시 서서 송강기 아래 카페 중앙에 서있던 김국방위원장과 눈인사를 나눴고 곧 바로 김위원장은 박수로 환영했으며 김대중도 박수를 함께 치며 환호했다. 특별기 뒷문으로 내린 남측 공식수행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감격에 겨운듯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송강구를 내리자 김국방위원장에 다가서서 김위원장을 시너잡은 악수로 나오며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간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눈 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다. 김위원장은 또 뒤따라던 젊은 분홍색 펜카스 차림의 이희호 여사를 보자 먼저 다가 "반갑습니다"고 환영했다.

남북 정상의 첫 상봉이 이뤄지자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은 화려한 조화를 흔들며 노도처럼 "결사옹위 김정일" "민세" 등을 외치며 뒤에서 열광했고 북측 혁명음악대의 연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손을 뻗으면서 안내하는 김위원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너잡은 악수까지 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잠시 걸음을 빨리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사열대 앞을 통과하자 혁명음악대 해방지인 북측의 대지가 큰 북소리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등 김위원장의 직함을 열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반갑게 맞아줍니다"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김위원장은 소개가 끝나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걸으며 "남북이 매우 좋다"고 말을 건네며 김대중도 "회담을 하기 좋을 것 같다"고 잠시 남측을 향해 예의를 나누며 공항 중앙에 마련된 사열대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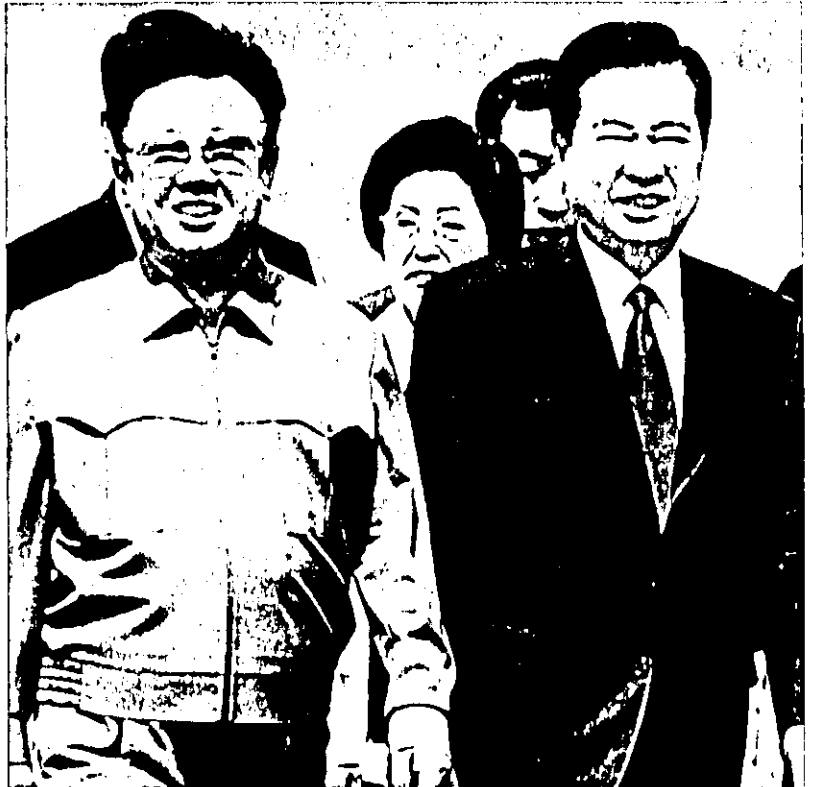
도중에 북측 화동들이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이를 걸어서 지켜보던 김위원장은 웃으며 박수, 김대중도 내외도 "반갑습니다"라며 화동들과 가깝게 맞닿았다. 김위원장은 사열대 옆에 서있는 우리측 공식수행원과 반갑게 악수를 나눈 뒤 김대중 대통령을 중앙 사열대로 안내했다.

김위원장은 앞서 임원대 대중용 특별보좌역, 한공측 비서실장, 박지연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우리측 공식수행원을 소개받을 때마다 "아, 그래요"라며 아는 듯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시열대에는 중앙에 김대중, 왼쪽에 김위원, 오른쪽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 김위원장은 의장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반 거수경례 자세로 지켜보며, 김대중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김위원장이 시열 행사가 끝나 박수갈 치자 김대중도 박수로 인사한 뒤 다시 김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두 정상은 차로 이동하기 위해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앞을 지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위원장보다 두 걸음 앞서 걸었으며, 뒤따라던 김위원장은 "김정일"을 외치며 환영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간혹 박수로 응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시민들의 환영이 고조에 달하자 잠시 카펫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다가 2명의 시민과 반갑게 악수하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김위원장은 웃으며 이를 지켜보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위원장이 길을 떠날 때 평양시민들은 열광적으로 민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에서 제공한 캐딜락 승용차에 오르자 직전, 평양시민들을 좌우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 뒤 승용차에 올랐다. 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승용차 뒤엔 오른쪽에 있을 때까지 기다린 뒤 왼쪽 문 앞 불에 열차리에 탑승했다. 평양/공동취재단



'환한 미소'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환영식에서 미소를 띤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공항 구내를 걸어가고 있다.

## 김위원장, 경호실장에 "걱정말라"

### 영빈관 도착·1차 정상회담 안팎

김대중 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오전 11시45분쯤 같은 승용차를 타고 백화역 영빈관에 도착한 뒤 곧바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영빈관 입구에 잠시 서서 뒤차로 도착한 이희호 여사에게 먼저 들어갈 것을 권하는 등 각별히 예우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숙소 입구에서 보라색과 주홍색 한복을 함께 차려 입은 북한 여성들로부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건네받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두 정상은 과도차는 바다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 남북한 사진기자들에게 "잘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이 끝나자 곧이어 이어지도 함께 사진 찍을 것을 권유했고, 다시 큰 북소리로 "정권들도 같이 합시다"라고 제의, 장관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위원장은 또 "김용운 위원장은 어디에 있어"라며 김위원장을 불러 김대중 대통령 내외, 공식수행원, 김용운 위원장

과 함께 다시 한번 포즈를 취했다.

김위원장은 사진촬영이 모두 끝나자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점검삼로 안내했다.

점검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미중 나오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받은 데 대해 "감개무량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위원장은 이에 "장대 심심치 않게 매달려서 알려주시 마십시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박3일 동안 (세계에)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 넘친 어조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위원장은 이따금씩 농담도 건넸다.

김위원장은 낮 12시40분쯤 상봉 및 1차 회담을 겸한 만남을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 및 공식수행원들에게 "반려 지내시 기 바랍니다"라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김위원장은 안수집 경호실장과 악수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북측은 상봉을 겸한 1차 회담 시작 때부터 거의 끝날 무렵까지 남북 공동취

### 회담 끝난뒤 헤어지며 수행원과 일일이 악수

재단 기자들에게 전담정을 공개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위원장이 백화역 영빈관을 떠난 뒤 김명철 백화역 영빈관장(54)으로부터 영빈관 내에 전시돼 있는 꽃다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개에 상여가 있는 파란색의 '김정일화'와 5개에 가지런히 상여가 있는 '김정일화' 안에 이르자 "김정일화는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보낸 것이며 김정일화는 일본 식물학자가 재래에 보낸 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심히 살펴봤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관장의 안내로 숙소로 들어가 우리나라 TV수신기가 달린 숙소 내의 TV를 통해 순안공항 도착 장면과 순안공항에서 백화역 영빈관에 이르기까지 연도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시청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내외 단말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휴식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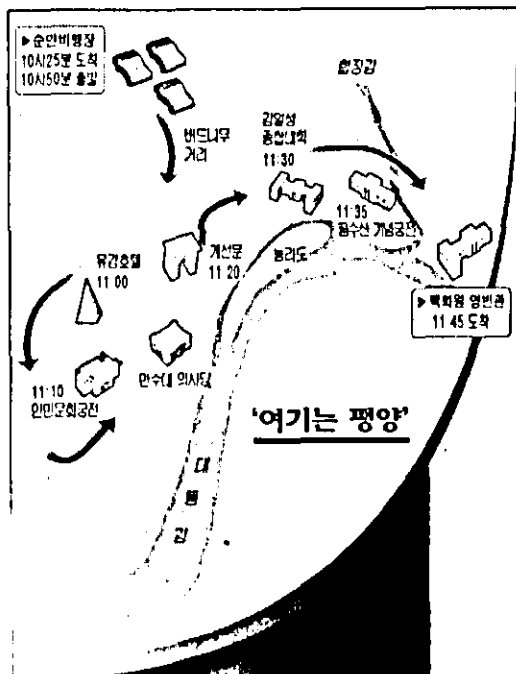
평양/공동취재단



# 55분간 승용차동승 '특별한 대화'

## 새역사 큰만남

'유례없는 의전' 눈길



이만큼 특별하고 감동적인 '동승(同乘)'이 있었을까.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화원영빈관까지 신록의 50리 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캐딜락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있었다. 두 정상에게 동행한 55분은 생애 가장 길고도 인상깊은 시간이었다.

두 정상을 삼은 북한 1호차는 순안공항을 출발, 연못 돌을 거쳐 평안으로 진입해 정상회담 장소인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했다.

세계 언론의 시선을 끌이엔, '55분의 동승'은 사실상 남북 정상의 첫 대화였다. 더욱이 배석지(리무진은 뒷좌석과 운전석이 분리되어 있다)없이 이루어진 유일한 단독회동이어서 두 정상이 나눈 얘기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화는 55년 동안 빈도불 가른 높다 높은 분단의 벽을 넘어 평양 땅에 발을 디딘 김대중과 이틀 만의 김 위원장의 습격할 소회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먼저 김대중은 김위원장을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온 데 대해 진심어린 시의(謝意)를 표시했다고 한다. 겹눈이 따뜻하게 맞춘 평양시민들과 동포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도 토로했다.

김대중은 간간이 차창 밖으로 둘러치는 분홍색과 진홍색 환영조화들에 눈길을 돌렸고, 김위원장은 지나치는 평양 명소를 소개했다.

1980년부터 직접 평양시 건설을 기획·주관했던 김위원장은 보물문, 만수대의사당, 옥류교, 개천문, 김일성종합대학이 차창으로 스쳐지날 때마다 하나씩 김대중에게 설명했다.

차량이 막 평양시내에 진입할 즈음, 두 정상은 잠시 대화를

### 金위원장 창밖 명소 직접 소개 연신 손잡고 "잘해보자" 다짐 잠시 정차 환영인파와 악수도

멈추고 차에서 내렸다. 김대중은 북측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환영인파와 악수를 나눴고, 함께 내린 김위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지켜봤다.

다시 차에 오른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한겨레의 감동적인 사진을 지켜보는 한편다는 역사적 소임을 되새기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다짐했을 법하다.

백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대중은) 김위원장과 차에 같이 다 차 안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다"면서 "기름 손도 잡고 다짐하게 말씀도 나눴고, 서로 잘해보자는 말씀도 했다"고 '차 안'의 분위기를 전했다.

백대변인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91년 김영삼전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회담에 합의했을 때 김주석의 당시 심정을 예기했다고 한다. 김주석의 심정을 빌려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를 전한 셈이다.

두 정상의 동승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런 방식의 영접이 북한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의전'이라는 형식상의 과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영접 배석자 없는 두 정상만의 대외이기에 한결 허심탄회하고 속깊은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는 점이 각별해서다.

물론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두 정상만이 알고 있겠지만, 순경까지 느낄 수 있는 남다른 좁은 공간에서 두 정상이 어깨를 맞닿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는 심장하고 아름답다.

양원모기자 susu@kyunghyang.com



김위원장의 명물 주채시상탑

## 김영남·김용순·조명록 등 北 당·정·군 주요인물 참석

### 영접인사 누가 나왔나



김용순 노동당비서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강석주 외무성1부상

김대중 대통령의 순안 공항 도착행사에  
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의 박측 주요 인물들이 대거 나왔다.

김국방위원장 외에 출영 나온 최고위급  
인사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과 총신남 내각 총리,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비서, 김국태·김용순 노동  
당 비서 등이었다.

또 군에서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이 나왔다. 이들 최고위급  
인사는 김국방위원장을 수행, 비행기 트랩  
앞까지 나와 김대중령과 인사를 나눴다.

다른 영접 인사들은 의장대 시열을 마친  
뒤 김대중령과 인사를 나눴다. 이들 중에는  
민족화해협력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사회  
민주당 위원장)과 김윤의 상임위 서기장  
(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등이 있었으며 남  
북 또는 북·미 회담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  
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송호경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도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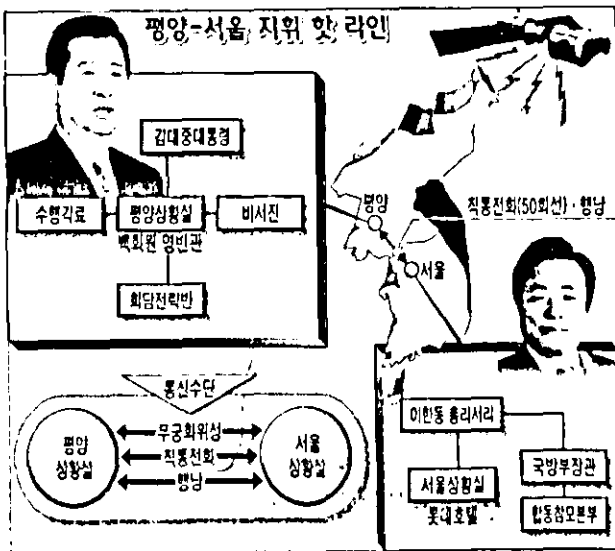
이밖에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시  
장), 안경호 조령동 서기국장 등도 영접을  
나왔다고 북한 방송이 전했다.

한편 최초로 기내에 들어가 김대중령을  
영접한 북한측 의전장은 전희정 금수신기  
념공전 외사국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김일성 주석 생존 때에도 주석부 외  
사국장을 맡는 등 북한내 의전 전문가로 인  
려졌다. 전 외사국장은 이날 공항에서 북측  
인사들의 소개를 받았다. 그러나 김국방위  
원장의 부인 김영숙씨는 공항에 나오지 않  
았다. 또 당 중앙위 비서 가운데 한성림(경  
제 담당), 김기남(선전 담당), 김중린(노동  
단체 담당), 전병호(군수 담당), 계응대(공  
안 담당) 비서 등과 백남산 외무상의 모습  
도 보이지 않았다. 김일정 인민무력상은 지  
난 12일 히베즈 압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단 일원으로 참석, 현재 북  
한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공  
항 영접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들 가운데 최  
고인민회의 및 대남사업 관련 인물들이 많  
이 포함된 것과 군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근기자 hrdk@kdy.com

# 대한매일



### 이동 청와대 어떻게 운영되나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의 '공백'은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비상상황임에 틀림없다.

13일 김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  
에 도착한 순간부터 15일 평양을  
떠날 때까지 우리 정부는 평양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통신 장비들 갖추고 있다.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24시간 교신이 가능하다.

다른 채널은 서울-평양 간에 설치된 50회선의 직통전  
화다. 평양 백회원영빈관에 설치된 남북 대표단의 평양상  
황실과 우리 정부는 대부분 이 전화할 이용해 의견을 조  
율하게 된다.

### 평양-서울 잇는 핫라인 3개 채널 가동 무궁화위성·직통전화 통해 24시간 교신 비밀문서·보안사항은 관문점 행방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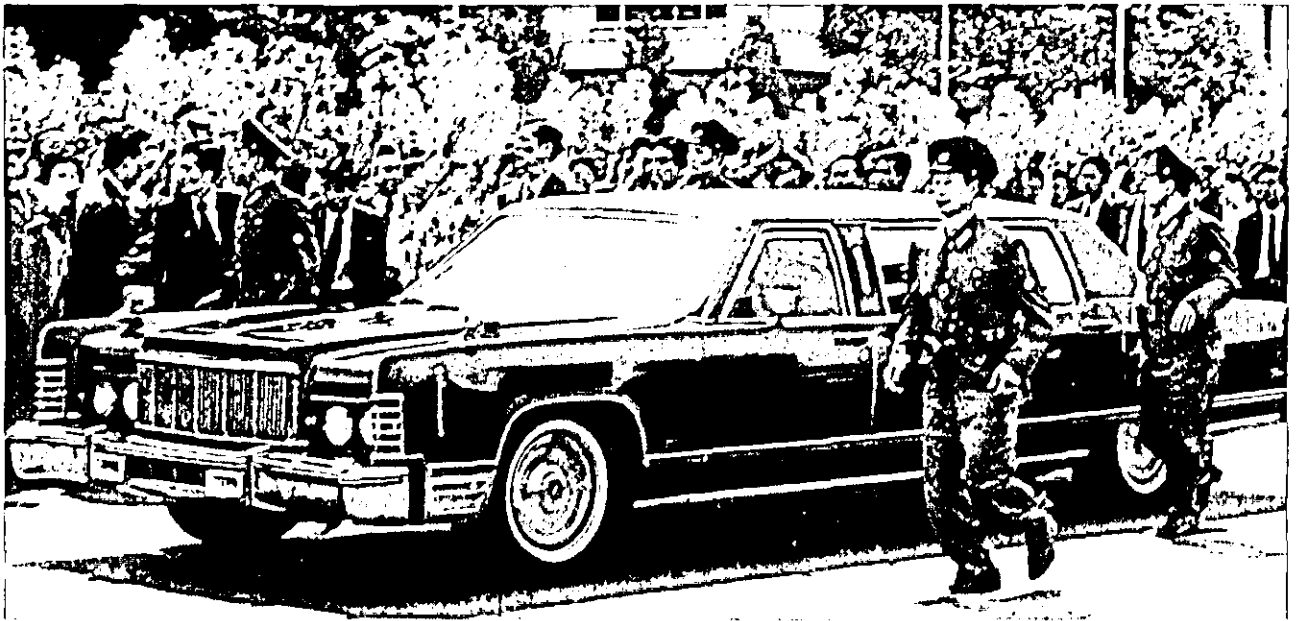
서울을 핫라인으로 잇는 이원체제  
로 가동된다. 핫라인은 지상과 상  
공에 3개 채널이 마련돼 있다. 우리  
나라가 2,400억원을 들여 만든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이

이밖에 비밀문서나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연락사항은 하루 두차례 만  
문집을 통해 오가는 행방이 어렵년  
다.

김대통령 방북 기간 일상적 정부 연  
락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가  
수행한다. 특히 이 총리서리는 매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진  
군의 비상근무상황을 보고받는다. 만일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군 통신관도 행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리  
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 핫라인을  
통해 김대통령 일행이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만  
단 1초도 김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호기자 jake@kdaily.com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는 243일간 우  
리 정부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짧은 일정이지만

그 하나다. 김대통령 일행은 방북 기간의 '돌발사태'에 대  
비해 연제는 서울의 청와대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승용차안 '첫 대좌'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북한측의 경호를 받으며 환영인파를 지나치고 있다.

한인/강대대 사진기자단

아리랑 첫연주 흥겨운 귀빈맞이

만수대 공연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오후 4시부터 현지시간 동안 평양시내 만수대에순례장에서 북측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장에는 남측 수행원과 북측 관계자 등이 500석 규모의 좌석을 가득 메웠다. 김대통령 내외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강대하고 빼어난 리듬의 '환영곡' 속에 입장하자 관람객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웨민석에는 김대통령 우측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김영내 사회민주당 위원장,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교원이 자리했다.

좌측으로는 이희호(李姬嬪) 여사,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 이연구 조국통일민주전선 시가국장, 차범석 내선민국애실연 회장, 강능수 평양시 당 책임비서 순으로 앉았다.

북측은 김대통령과 이여사의 좌석에 공연도중

가야금 독주등 1시간동안 관람 '金대통령' 적힌 꽃바구니 선물

에도 프로그램을 잊을 수 있도록 소형 스탠드를 설치했다.

북측은 이날 공연 종목을 이념성이 적고 견제 한 리듬의 연주와 무용으로 구성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전통문화에 기초한 공연을 선보여 남북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날 공연은 먼저 관현악(지휘 김병화)으로 '아리랑' '청신법에 풍년이 왔네' 두 곡이 연주됐다. 북측 관계자는 "김병화 지휘자는 59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인물로 북한 최고의 지휘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무용 강강술, 율동어춤, 천안산거리(독무), 카춤, 삼구춤의 순으로 진행됐고 가야금 독주의 방장이 이어졌다.

마지막 공연인 무용 '눈이 내린다'는 무병막을 이용, 눈 내리는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무용은 현인유기부평을 그린 것으로 만주 관아에 휘말리지는 눈보라를 일제 식민정체로 형상화해 김국 향일유기부평을 통해 민족을 해방시키는 내방이라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대통령을 전 출연진이 도열해 있는 무대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적힌 큰 꽃바구니를 전달한 뒤 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 후 퇴장했다. 김대통령의 퇴장시에도 '환영곡'이 울려 퍼졌으며 남북 관람객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평양/공동취재단

金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감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받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땅을 밟지 못한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왔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천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와 우리 일행을 초창해주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안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녘 동포가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저의 회담에 기는 기대 만큼이나 북녘 동포 여러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운거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에게 평양시민과 북녘 동포 여러분의 합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역사 큰만남

◆ 김대통령 - 김위원장 대화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부터 김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영빈관 접견실에서 20분가량 상봉을 겸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시민들이 나와 환영해주어 감개무량하다"며 감시의 뜻을 전달했고 김위원장은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해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 김대통령

많은분들의 환영 감사  
 김위원장의 성심 느껴  
 날씨 화창...경사 축하

다음은 두 정상이 나눈 대화.  
 < 김대중 대통령 = (음접실 밖에 걸린 대형그림을 보며) 무슨 그림들이니까.

▲ 김정일 위원장 = 원래는 축하추송 그림입니다. (진금진 아태경회의 참사가 "묘향산의 축하추송을 그린 것입니다"라고 설명)

▲ 김위원장 = (김용순 아태경회위원장 위원장을 향해) 용순 비서,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형한 장관들과 인사를 못나섰어요. (남측 공식 수형인원을 향해) 경양 방문을 환영합니다. 홍일부 장관은 TV에서 비서 같합니다. (백지열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북남합의의 TV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 위원장이 임동권 대통령 특별보좌역에게 공식수원원 소개를 부탁했고 임목보가 차켜르 장관을 소개했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내일부터는 격식없는 대화를 합니다. 김대통령 몸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지한 여기서 풍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외지국의 여를 다 갖춰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돼 있으니 걱정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을 합니다.

... 김위원장 = 날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저께(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졌습시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영빈관까지 도착하는지 알려줬습시다. 준비관계를 금방 알려졌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김대통령을 허탕동안)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통령 = C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놀라고 감사합니다. 경사 북방풍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주어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시간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의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 = 오늘 아침 비정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환영을 보내는 것을 보고 그 큰 관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정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관 편승을 잘만만 드시고 잘나갔고 하셨는데 구경하시는의 이질식 사물 아 적게 봤네요.

김대통령 = 경양에 드린 식사를 잘잘 즐기고 그림습니다. (웃음)

김위원장 =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 김위원장

방북뜻 세계에 쫓겨야  
 모든관계 해결을 확신  
 예를 다갖춰 모시겠다

니다. 외국수반도 환영하는 데 동방의외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감을 환영 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걸을 지지합니다. 동방의외지국을 자랑하고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축하하겠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결혼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광고를 한번 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삼강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만나고도 잠깐이라고 하는데 차관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합든, 두꺼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인입니다. (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얼마나 나왔나"라고 물었고 김용순 위원장은 "60만명 가량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음)

김대통령 =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많은 인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위원장 = 그저께 생방송을 통해 연못동에서 초대소까지 (김대통령의) 총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렬히처럼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김대통령 =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감사다.

김위원장 = 오후부터는 공식합의관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백화원영빈관은 주석님께서 생전에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곳이 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번씩 산보 삼아 둘러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생전했다면 (백화원영빈관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 주석님이 앉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 계 소원이었습니다.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에까지 자를 부러워가져왔는데 그과 김영삼 대통령과 다정다심한 게 있었다면 직통 전화 한 통화면 자를 다 주을 판데, 이번에는 좋은 관계를 남겼습니다. 아예 따라 모든 관계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대통령 =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위원장 =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출국했는지에 대한 여론부호입니다. 2월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양/공동취재단

# 38선넘어 첫 비행 '평양이 단숨에'

## 새역사 큰만남

하늘길 열리던 순간

김대중 대통령과 공직수행원을 태운 전용기와 특별·일반수행원과 공동취재단을 태운 아시아나 B737기(1002편)는 13일 오전 9시45분쯤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측 영공으로 들어갔다. 남북간의 '하늘길'이 막힌 지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비행기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기 직전, 안내방송을 통해 "10초후 38도선을 넘는다. 3시 방향에 우리 영토인 백담도가 보이고 2시 방향에 북측 장산곶이 보인다"며 하늘길이 뚫렸음을 알렸다.

### 이륙 69분만에 순안공항 착륙 수행원들 "와" 탄성·박수·환호 공항주변 건물 깨끗하게 세단장 경비요원들 곳곳서 삼엄 경계

창을 통해 들어온 북녘땅은 넓은 구덩에 넘어 자재한 풍광을 볼 수 없었다. 기내에는 곳곳에서 기쁜 환호와 술렁거림이 일었으며 55년 동안 막혔던 무거움에 비해 막혔던 광복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공동취재단을 비롯한 대표단은 일제히 창밖의 북한 땅 창공을 보기 위해 창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마침내 북녘땅을 밟게 됐다"는 탄성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동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9시18분쯤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수행원들 태운 아시아나기도 같이 이륙했다. 수행원들 태운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기내방송에서는 "서울서 평양까지는 1시간25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합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륙에 앞서 수행 관계자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수행원들의 신장과 사진대조뿐 아니라 입문으로는 경호요원 특별수행원, 뒷문으로는 일반수행원과 기자단이 내려달라"며 일일이 탑승자를 호명했다.

수행원들 태운 아시아나기는 서울공항을 이륙한 직후인 9시 20분쯤 S자틀 그려며 서해남 관에 저공을 감으며 5분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영흥도 신공항 건설현장에 눈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기는 이어 9시40분쯤 방향을 전환, 북쪽으로 날기 시작했으며 5분뒤 38도선을 넘어 다시 9시50분쯤 기수탑 동쪽으로 넘어 평양쪽으로 들어갔다.

평양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창으로 북녘땅의 산하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이때 방송을 통해 "20분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며 평양은 현재 맑고 기온은 섭씨 22도 정도"라고 안내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무렵 들어온 나지막한 동산, 도로, 하천 등 북녘의 풍광은 남북평과 다름 바 없었다. 눈에는 모내기할 하기 위해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북측 주민들이 모내기할 하는 광경이 보였고 일부 주민들은 입술을 맴추고 남북대표단의 비행기를 쳐다보기도 했다. 공항 주변의 동산에는 풀밭 모아 새긴 것으로 보이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눈에 띄기도 했다. 평양 순안공항 주변은 소박하지만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각종 시설물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였다. 공항 주변에는 양복과 군복차림의 북측 경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비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먼저 출발했으나 평양 현지 행사관계로 수행원들 태운 아시아나기보다 15분 정도 늦은 10시27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사뿐히 내려 있었다. 수행원들 태운 아시아나기의 바퀴가 평양 순안공항에 닿음을 내며 땅에 닿자 기내에서는 일제히 "와"하는 탄성과 함께 엄청난 박수가 터져나왔다. 평양 / 공동취재단



평양 / 청와대 사진기자단

### 환호 달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담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꽃무늬카펫·자개화장대 '깔끔'

### 북측 프레스센터 고려호텔

평양 프레스센터는 평양 중심가에 있는 45층짜리 고려호텔에 설치됐다.

호텔 3층에는 기차실, 위성충출실, 청와대 공보실 직원이 이용하는 작은 방 2개가 마련됐다.

기차실 앞 벽면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춘 현지 지도 장면, 군사 퍼레이드, 과거 연설장면 등을 각각 담은 대형 사진판 3개가 붙어 있었다.

기차실 밖에는 인민예술가 장창모 씨가 그린 대형 금강산 유화, 리창씨가 그린 대형 매화 수목화가 눈에 띄었다. 기차단 숙소는 17층부터 25층까지 1인 1실로 배정됐다. 객실은 응집실, 욕실로 나뉘어져 있었고 흰색 벽지가 장갑할 분위기를 풍겼다.

응집실에는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with the compliments of koryo hotel"이라는 쪽지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진남대'라고 적힌 TV가 탁자대 위에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바나나·사과·오렌지 각 2개씩과 '음성'표 피자, 평강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응집실에 걸린 달력은 조선영화수출협회가 북한 영화장면을 담아 제작한 것.

6월의 예술영화는 '당인중', 7월은 '애운농의 두 가정', 8월은 '즐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등이다.

### 냉장고엔 신덕생물·통성맥주 기차단숙소 '열렬히 환영'

침실에는 꽃무늬 양탄자에 삼각 침대 2개가 있고 자기 화장대, 탁자와 의자 2개, 전화기 1대가 설치돼 있었다. 냉장고에는 신덕생물 2병, 통성맥주와 통성사이다·오미자 담음·신덕 탄산물이 각각 1병씩 채워져 있었다.

호텔 창밖으로는 평양역으로 진입하는 철도가 보이고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캐도전차와 자동차가 통행했지만 행인은 많지 않아 무척 한산한 모습이였다. 인근 건물 외벽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은 하나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구호가 붉은색 글씨로 내걸려 있었다.

객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이 한 부씩 비치되어 있었다.

신문 6면 중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는 5면에 다뤘는데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조국통일의 진척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북한 당국이 통일 방도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양 / 공동취재단

# 생중계 화면 도착하자 '휴~' 안도의 한숨



13일 오전 9시43분, 김대중총리의 생중계 시작 전 북경으로부터 생중계인공의 전경을 담은 첫 방송화면이 남측으로 보내져왔다. 회색 한 남색 속에 빨간수염이 길다 있는 생중계인공의 모습과 함께 김장일 국방위원장의 직선 영감을 나타내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TV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전율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두 정당의 역사적인 만남, 수 십년간 기다려왔던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무궁화호 위성과 함께 생중계 화면이 도착한 순간, 각 방송사의 남북정상회담 특별 생중계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생중계는 북측이 보내오는 위성방송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화면이 언제 전송되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각 방송사는 1초도 미흡을 놓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이번 생중계 화면은 생중계 미리 선지영 SNG(Satellite News Gathering) 2대1 아침, 위성방송원 화면을 무궁화호 위성을 통해 한국영역에 받아 각 방송사에 전달된 것이다. SNG 위성방송은 실제 생중계와 1초 정도의 간격으로 방송돼 상시감시이다. 마찬가지로, 생중계 인공영상을 스페셜한 첫 화면은 등장없이 들어왔

## 남북정상회담 방송

일정 미공개로 방송준비 어려움  
SNG 이용 실제상황과 1초 차이  
첫 화면 음향 없어 시청자들 당황  
방송사들 CG·모형 도입 경쟁 치열

다. 오전 10시25분쯤 대북방송용기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 한양객선의 김장선원 환송장이 들려오기 시작해 시청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후 생중계공동제작단의 일원인 KBS 김진규 기자(사진 왼쪽)가 생중계에서의 역사적인 첫 리포트로 애달라.

이번 남북정상회담 방송을 두고 각 방송사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한남 정무대 임진각에 임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생중계 기동은 방송사들이 생중계 방송을 위해 컴퓨터그래피(CG)을 이용한 3차원 영상물은 물론 생중계 중 심지말 그대로 옮겨놓은 모형까지 등장시켰다.

SBS는 3,000㎡의 1축적으로 만든 생중계 모형(사진 오른쪽)을 통해 역사적인 화면을 선보였다. 생중계 모형은 남극산 모형과 제작, 한국기대소부터 오전 기술상씨가 직접 제작했다. 가로·세로 간이가 각 3m·1.7m에 이르는 것으로 대동강 속수안 백화점조대소를 비롯해 인명문화공원, 만수대역사당 등이 곳곳에 배치되고 있고 한차례 흐르는 대동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이다. 제작비만 3천만원에 이르고 훼손자들의 맹목한 증언과 구 소련 당시 제작된 생중계도 미공개 리퍼자료 등을 바탕으로 만



들어졌다. KBS와 MBC도 사이버 스튜디오와 CG 작업을 통해 역사적인 회담 장소인 만수대역사당의 내부까지 생중계 보여주고 있다.

KBS 특검팀의 간담은 부정은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임정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방송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생중계 방송화면을 보내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00건의 리포트를 준비해 두기도 했다"면서 "각 생중계 화면을 위해 CG 작업을 하면서도 특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요 건물과 내부 화면 공개는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첫 생중계인 남북정상회담 방송의 시청률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최고치로 기록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연기자

## TV읽기/쓰기

## 기획의도 못살린 '북한청년 동일섭'



5월 4일 보인다(KBS)의 '북한청년 동일섭' 코너는 오락 프로그램이 북한청년 수재형 어엿게 다루어가는 지점을 짚어준다. '북한청년 동일섭'의 기획 의도는 한 남북 청년이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에 이질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었다. '북한청년 동일섭'은 지난 5월7일 첫번째 에피소드부터 시작으로 서울·경기, 비엔나·수원, 스타트·밴드·출연, 지난 일요일에는 요르단까지 되돌아오는 과정까지 이질감에 에피소드를 병행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동일섭은 놀기 위해 친구를 부르며 자신의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줬지만 그 차례였다. 백화점에 가면서 서용

균이 동일섭에게 '휴한 않아?' '캐주얼 않아?'라고 묻는 것이다. 어찌어찌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동일섭 앞에서 DDR을 가져와서 억지로 춤을 추게 하는 것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서용균이 백화점에서 콘서트로 바꾸는 등 예외없는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다행스러울 뿐이다. '북한청년 동일섭'은 여러가지 불편함과 연민을 지어내게 된다. 동일섭은 관중대상이고 원형대상으로 다가온다. 그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려지기 때문이다. 동일섭은 하고 싶지 않은데 방송이 자꾸 무엇인가 보여준다고 다그친다. 동일섭은 조롱의 지대로 삼지만 프로그램은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 동일섭의 저조점은 에피소드 곳곳에서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잘 보여준다. 프로그램 내내 그의 웃음 표정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청년 동일섭'은 비러이러니 쇼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웃음이 남극의 문화적 거리에서 나오지 않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다. '북한청년 동일섭'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기보다 차이만을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게다가 동일섭의 성격 자체가 비러이러니쇼의 한 코너로 구성되기에 적절치 않은 듯하다.

'한국어 보인다'는 앞으로 '북한청년 동일섭' 코너의 무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루면서 동일섭을 희화하려는 기획 의도는 좋지 않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만수대 안내맡은 이상진씨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딸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남한의 국회의사당격인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의사당 소개를 맡았던 안내자는 '남부군 사령관'으로 유명한 이현상의 무남독녀 이상진씨(사진)로 알려졌다.

이현상은 8·15 해방 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가 1951년부터 지리산에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뽕치산 무장투쟁을 벌이던 중 53년 9월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다. 장진씨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나동감 패주 때 어머니와 함께 월북한 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다.

장진씨는 특히 김위원장과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의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위원장은 장진씨가 질병으로 자주 강의에 빠지자 직접 약을 준비해 방문안을 가거나 미진한 강의 내용도 보충해주는 등 확실양면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씨는 대학 졸업 후 대외부문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외무성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해외공관에서 근무했다. 지난 85년 만수대 의사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등용됐다. 남편 이현상은 브란디와 마다가스카르 주재 대사관 지내고 현재는 외무성 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안호기기자 hah00@yungnyang.com

## 숲위원장과 김일성大 동창 남편은 외무성 참사로 근무

## “닭국물에 밥말아 만든 평양온반 담백해 좋아”

영빈관에서 점심은 김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낮 백화원 영빈관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북한에서의 첫 식사를 했다. 점심식사 메뉴는 깨죽을 친 닭고기, 생선전과 납새튀기, 참포종합탕채, 삼기떡, 풋배추김치, 평양온반, 맑은국, 쏘가리깨튀기, 옥돌탈고기, 새우납새볶음, 과일, 밥장과, 인삼차 등.

김대통령은 식사가 끝난 뒤 “북측이 준비한 음식이 정갈하고 정성들어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음식이 맛있었는데, 특히 닭국물에 밥을 말아서 만든 평양온반이 아주 담백해 좋았다”고 평했다.

평양온반은 평양냉면·녹두지짐(빈대떡)·대동강순어국과 함께 평양의 4대 음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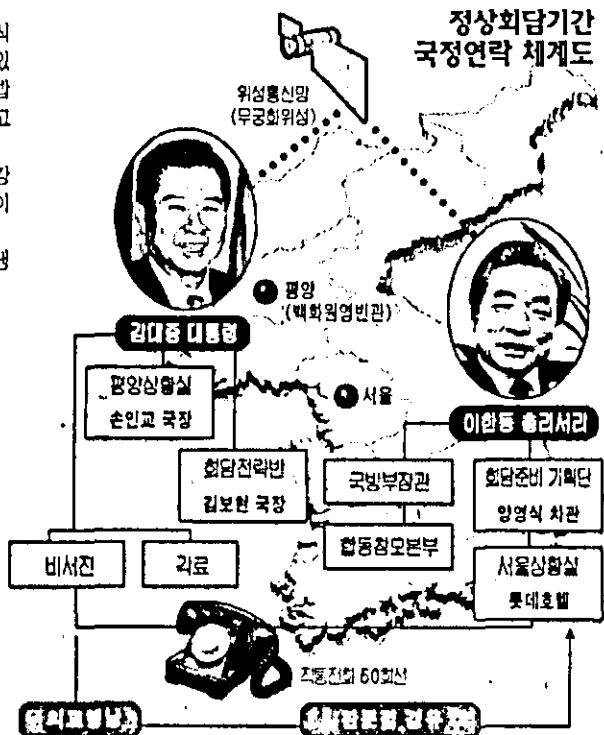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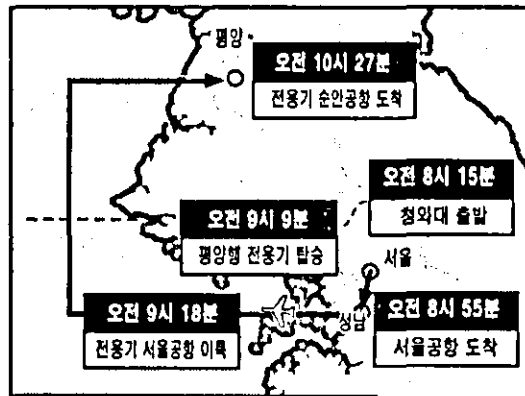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중음식으로 오히려 냉면보다 인기가 더 높다.

대접에 밥을 달고 녹두지짐·버섯볶음·닭고기를 꾸미고 얹은 다음 닭고기 국물을 붓고 그 위에 다진 파 싹계란을 넣고 깨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린다.

한편 고려호텔내 3층의 식당에서 별도로 점심식사를 한 기자단에는 상추와 고추장, 풋고추, 된장, 낙지식혜, 참나물, 조개젓, 참나물, 녹두나물, 소라볶음 등이 나왔다.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과 딸기·수박 등이 제공됐다.

호텔의 3층 식당 지배인인 현명성씨(의례부장)는 “납죽 손님들이 많이 와 무속한다”며 납죽 손님의 입맛에 익숙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평양 / 공동취재단



# '꿈같은 정상상봉' 南도 北도 감격

## '역사의 전환점' 지켜본 시민 표정

분단 반세기, 뿔신 55년의 벽을 찾고 남북한 정상이 두 손을 맞잡은 13일 오전 10시27분 7천만 겨레의 환호성과 농화로 한반도 천역은 단숨에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TV생중계로 지켜보던 남녘의 시민들은 특히 당초 공황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임접한 데다 평양시민들이 김대통령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중일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가족들과의 상봉만을 그리며 평생 회한의 삶을 보내온 이산가족들도 "죽기 전에 꿈이 이뤄질 것 같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세계 각지의 동포들도 조국에서의 역사적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낳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 7천만 겨레 한마음으로 환호... 눈물... 가슴벅찬 실향민 "살아서 통일 볼것 같다" 직장마다 삼삼오오 '희망의 애기꽃' 피워

○시민·주한외국인=이날 오전 서울역에서는 TV를 통해 김대중씨가 남한 집권기의 문이 열리는 모습에 방황과 자 항해와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으며 아가씨에서 손노래는 소리로 울렸다. 6·25 전직선 당시 나경(김정주)에 참가했던 그는 도원제(72·부산 동래구)는 "우리 대통령이 북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니 내 생전에 동양이 이뤄진 것 같구나"며 눈시울을 감았다. 위문단 김경익(39·여)은 "오늘은 비록 기가 막힌데 감격할 일도 없는 걸로가 이어져 기사로 편입될 오기까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부 최영희(53·서울 강남구 코이동)는 "1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데 5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믿기지 않"이라며 "하루빨리 우리들도 편입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인 네 김(50)은 "두 정상은 1948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남북한이 그동안의 유혈 충돌을 제지해 왔을 만큼 좋겠다"고 말했다.

### 주식거래도 "보고나서"

○최직 및 증권가=증권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김(50)은 "두 정상은 1948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남북한이 그동안의 유혈 충돌을 제지해 왔을 만큼 좋겠다"고 말했다.

### 대학가엔 '한반도' 절개그림

○대학가=대통령은 "대학 개명교사를 사모고 있는 대학원생은 김대중씨가 편입에 도착하는 순간만큼 눈치 채지 않겠다며 유세상으로 물러나고 TV를 지켜보면서 흥분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는 대극기와 북은 일제히,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가 나란히 내걸리기도 했다.

순간만큼 눈치 채지 않겠다며 유세상으로 물러나고 TV를 지켜보면서 흥분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은 특히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일제히 "아름다운 평화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또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는 대극기와 북은 일제히,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가 나란히 내걸리기도 했다.

○PC방에서도 정상회담을 반기는 축하공들이 봇물을 이뤘다. 이은영(21)은 "한국과 연대하는 이제 제2세계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연희(21)는 "사로 패패니 천부각지나 하며 중세의 감성만 키워왔던 두 세계가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며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향민=이북인민회 중앙연락처원들과 이북5도청 직원들은 삼삼오오 TV앞에 모여 한아 삼평과 기대속에 고향의 상공적인 개회할 기원했다. 권석 중영도민회 총무부장 이상민(65)은 "오늘과라 고향의 풍경은 생각이 더욱 감동이다"고 끝내 어깨를 울렸다. 권석 윤산 권민회 총무 김순기(72)는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떻게 지인스런데 여짜오라 반세기나 걸렸는지..."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 "멋진 만남 되려 일정연기"

○휴전선 부근=김대중씨가 평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임진각, 오두산 봉안전망대, 도리 전망대 등지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순안공방 도하 장면이 방송사의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된 임진각에서는 관공적 60여명이 박수와 함께 "아름다운 평화를 위한 주인의 열렬한 환영에 화답했다.

도리전망대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 히다케야 미(62·도쿄)는 "북한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며 "김대중씨가 직접 공황에 나와 김대중씨가 마족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이 먼저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휴전선 부근 지역 주민들은 기차와 직파, 마을회관 등지에 모여 TV로 생중계되는 김대중 평의의 방북을 지켜보며 일제 단기로 "축사나"였던 환인감을 만끽해 왔었다. 최민환 마을위원장 피우시 군내민 조신과 대신중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멋진 만남이 되리라 하구 한기엔 것 같다"며 감격 있었다. 학도 최남만만 마라도 주민들도 마을회관과관에 모여 TV를 보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 해외동포들도 기대 부풀어

○해외교민=미국의 교민들은 12일 밤(현지 시간)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장면을 지켜보았다. 66년부터 94년까지 28년 동안 한국에서 유엔군 사령부 장전담당 특별교문을 지낸 이문형(72)는 "김정일 위원장이 큰 바깥을 뛰고 나온 것 같다"면서 "표정이 진지한 것 같 보니 북한도 참 심오한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북단체=연인들의 단체인 청년(조종현) 오사카 지부 관계자인 김진희는 "우리민족이 조조하게 기다리던 역사적인 순간이 드디어 왔다. 내 가슴을 거대히 가득 차 있다"면서 "그러나 생상을 한 세대 한인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북받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석·이문창·권재현기자 / 전국종합

www.kynews.com

### '순안공방은 삼육대 옛캠퍼스'

●순안공 TV보며 남다른 감회에 '눈시울'

남북한 정상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방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TV 생중계로 통해 보던 삼육대(총장 남태국) 관계자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 광장이 바로 삼육대의 옛 캠퍼스가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1906년 10월 평양 인공의 순안 전대산 기슭에 설립해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의명학교'가 바로 삼육대의 전신. 의명학교는 해방 후 정치적 격변으로 47년 평양 캠퍼스가 폐쇄됐으며, 서울 태극의 권 위치에 3과점으면서 학교 이름도 삼육대로 바뀌었다.

TV를 통해 옛 학교지리란 본 캠퍼스 근처를 "관공 관제(남)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학교지리"라면서 "지금도 일부 학교 건물에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눈시울을 적었다.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삼육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공 캠퍼스 또는 관공 분교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관계단과 및 복원측과 접촉을 방침이다. 남태국장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불모가 되는 것을 계기로 순안공방 부근이라도 옛 학교의 복원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정용기자 kynews@naver.com



# “만세” 60만인파 꽃술흔들며 환호

## 김대통령 맞은 평양표정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차량 행렬은 오전 10시50분쯤 순안공화읍 출발, 20분만인 11시10분쯤 평양시 입구인 연동동에 도착해 잠시 정차했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이곳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를 했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 20여 km 거리마다 인산인해 발딩엔 ‘조선은 하나’ 구호

평양시 입구에서부터는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 일행을 환영했는데 연도에 백백히 서서 진홍색과 분홍색 조화(꽃술) 등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조화들을 열렬히 흔들며 ‘만세’ ‘김정일 겹사옹위(齊翁)’를 외쳤다.

환영인파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0여 km에 걸음이 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출발아 60만명엔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평양 시민이 총 2백20여만명이다. 한 안내원은 “평양시민들이 대부분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측의 대중집회를 열렬히 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파”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안내원은 “어제 김대통령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공(허탕)을 쳤다”고 말해 전남에도 사람들이 나왔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다고 밝혔다.

안내원들은 또 “위대하신 장군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소감이 어떠냐” “김정일 장군님이 광복(廣福)정치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안으시는 것이다” “남측 통일사업들이 그런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정말 안된다” “어제는 남씨가 흐렸는데 날씨도 (김대통령이 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다” “몇시간 전에만 동원령을 내리면 시민들이 모두 동원될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도 이처럼 시민들이 환송을 했느냐”고 물어봤다.

연도의 시민들은 남자들의 경우 양복을 입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매었고 여자들은 대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자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시민들은 조화를 위 아래로 흔들면서 주로 ‘만세, 만세’ ‘김정일 김정일 겹사옹위 겹사옹위’라는 2가지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외쳤다고 외쳤다.

연도의 환영인파가 꽃을 흔들며 환송을 지르는 장면은 오전 11시40분부터 30분동안 이어졌다. 연도 중간간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악대가



평양 / 황려대 사진기자단

## ‘환영합니다’

13일 김대중 대통령 등 방북단이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연도에서 평양시민들이 꽃술 등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나와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환영인파로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은 편이었으며 행렬이 지나갈 때는 더욱 큰 소리로 환송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몸을 돌이키면서 반가움을 표시했다.

차량행렬은 연동동에서 4·25문화회관까지의 ‘용 거리’, 관승기념관까지의 ‘비과 거리’, 보물강강안도로, 보통문, 만수대의사당, 목류교, 만수대 언덕, 개선문 거리, 종로거리,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평양의 주요거리를 20여 km 정도 순회했는데 환영인파가 단 한곳도 빠짐없이 연도했다. 차량행렬은 시속 평균 30 km 정도로 달렸다. 차량행렬이 평양시내에 진입하자 ‘조선은 하나다’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평양시내 고층빌딩에 걸린 이 구호는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남북의 두 정상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구호는 김일성(金日成) 전 주석이 남북통일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96년 애련관타 올림픽이나 90년 베이징(北京) 아시안게임 등에서 남북공동 응원단이 구성됐을 때도 등장했다.

공식 차량행렬이 끝나고 기자들이 탄 차량은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한 본대와 분리된 기자들의 숙소인 고려호텔로 향했는데 집이나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평양시민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표정으로 꽃과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구호는 외치지 않았다. 평양 / 공동취재단

## 환한 표정·오색한복 ‘달라진 평양’ 실감

### 눈길 끈 ‘北 영접’ 모습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도처 순안읍 방문을 통해 지역별 국민들은 ‘북한과 영접 모습에서 북한과 달라진 모습이’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김대통령 내외를 맞이 위해 순안읍에서 대기 중인 북한 의정부관광사와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공식 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로들과 집합을 나누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영접 군기와 함도있는 통로 등 의정부에 대한 관심과 환영을 드러내는 모습이였다.

뜻밖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모든 모습이 기대는 카메라에 잡혀 북한사절가 ‘통역관’ 특유의 집단이라는 성격과 큰 거리가 있었다.

○...이날 순안공화읍의 환영인파 대부분은 허지현 북한 여성들과 북방이 화려했던 것도 눈길을 끌었다. 통역관은 역시 중심의 반과 활력이었고 그 어떤 환영이라는 것까지 세련된 한복을 입고 그녀와 김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과 선두목이 많아 환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자들의 휴대전화는 한두개씩만 들고 다니지 않았다. 북한측 사진기자들은 일대 경호를 받고 삼엄한 경호를 받고 김대통령 일행과 일거수 일투족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과정에서 순 북한측 사진기자는 북측 경호대에 의해 소위들 집단, 화 폭자를 받으면서도 계속 서위를 누르기도 했다.

특정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측이 고안한 ‘이동식 포토라인’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북한측 경호 모습에서 북한이 여전히 큰 중립과 사회주의를 중시해 왔다. 통역관과 경호원은 사회주의를 중시하는 북한측 경호원은 사회주의에 큰 중립을 띠고 있는 듯 보였다. 이들은 김정일 무장폭력투쟁을 추진해 민족 단결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김정일기자단 / 김대중기자단

외신기자들 “환상적...감동적...”

롯데호텔 프레스센터 표정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의 취재진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

“통일 시발점 될것”

○...미국 ABC 방송의 존 라우어 아시아지역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방에 영접 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두 정상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으로 김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라는 탄성소리와 함께 일제히 박수갈채 터뜨렸다. 이어 김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나오자 또 한차례 박수가 터지며 “저렇게 만나는구나”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외국언론 전문 공세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외국 언론사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한 기자단이 보내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대만 차이나 타임스의 쉐 톱키 기자는 “정상회담이 연기돼 북한을 의심했는데 김위원장의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을 모두 날려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평양시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이복도 연호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남긴한 관계에 대한 외국 의 시각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

러시아 TBA방송의 이리나 유독 파코프는 “두 정상의 상봉은 단국인 3세로서 너무나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며 남다른 감동을 표현했다.

일손 놓은채 환호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의 취재진들은 두 정상의 공방 상봉 장면이 방송되는 동안 일손을 놓은 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날 롯데호텔 3층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상황상에서도 관계자들이 김대통령의 방북 장면을 함께 지켜보면서 두 정상의 상봉 등 감동적인 장면이 연속될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를 터뜨렸다.

김봉선·이주승·이용욱 기자 bonhong@donga.com

박수... 환호... 탄성... 프레스센터도 감격의 물결

13일 오전 10시20분경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삼차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항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하러 나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 중이던 1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갑자기 숨막아졌다.

조조하게 평양방 소식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드디어 김위원장이 직접 공방에 나타나 김대통령을 맞이 위해 비행기 착륙 장소로 서서히 이동하자 “과격적이다”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장이 영접할 것을 예상해 미리 기사룸 송고했던 외신 기자들도 “기사 게재를 전부 다시 짜야 한다”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10시 20분, 김대통령을 대운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해 활주로를 도는 장면이 위성 전송 화면을 통해 나타나자 자연 발생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10시 30분, 김위원장이 트랩 상치 장소로 이동한 직후 김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내자 프레스센터에서는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취재진이나 취재를 지원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감동과 환화의 물결이 넘쳤다.

프레스센터에서 엄청난 환호가 이어지자 필리핀진 화면에 나타난 평양 모습을 찍던 수십명의 카메라 기자들은 순간을 놓칠세라 환호하는 취재진들을 찍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 일본 기자는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환복만 못지 않게 감격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자홍기자> bonhong@donga.com

김택근  
문화부장



# 2000년 6월 13일, 평양

“일 쪽이 어느 민족 내셔나 두과 세과 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광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틀 서로 잡고 한 숲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울풍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란다.”-해범의 ‘나의 소원’ 중에서

종말 이런 날도 오느니라. 백범 김구 선생이 무덤을 밟치고 법석 일어나 춤을 추겠다. 강과 산이 서로 얽싸이고 노래하겠다. 동강난 반도의 허리가 허리를 꺾는다. 호랑이가 벼두대간을 달리며 포효하겠다. 청색 바람이 개마고원에 올라가 한반도 곳곳을 핏겨주나,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본단의 상처를 아, 그대 이쪽사다 뚫중이 오느니라. 다음이 아픔으로 전까지는구나, 이쪽은 우리의 아픔에도 새살이 돋겠구나.

어쩔 이 땅에도 새 피가 돋겠구나. 가보니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쪽이 그들이 우리 생각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대들은 지구의 어디에 숨어 있다가 뚫고 박수치며 이렇게 북쪽 나타났는가. 어디에 있다 연도에서 60만명이 입시에 환호하는가. 왜 이리 목이 매는가. 왜 이리 가슴이 저미는가. 왜 이리 온몸이 떨리는가.

지난 55년은 진정 무서운 세월이었다. 들숨수록 이른 시간이었다. 갈라져 서로의 침묵을 외심했던 날들, 서로가 두려워 여겨 서로를 외면했던 날들, 그래야 견뎠던 날들, 꺾음에 대한 그리움은 피가 되어 넘어왔지만, 끊임없이 서로의 심장에 충만을 박았다. 활조망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지뢰를 설치했다. 남(南)은 북(北)을, 북은 남을 몰았다. 틈만 나면 상대방의 사상과 습관, 체제를 종사(葬事)지냈다. 총을 들고 원잔한 군인이 되어서야 만났던 우리들, 그리는 사이 슬픈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김구, 조봉암, 이승만, 박정희, 김일성, 문우환...

한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집 이저씨, 이집없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버렸다. 55년 전에 이 땅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외모보다 마음이 더 늙어버린 이삼가족들은 요즘 하루를 어떻게 써줄까, 자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에 단비는 과연 올 것인가, 흙잡는 몸까지 말리버린 자들은 ‘김격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릴 수 있을 것인가.

2000년 6월13일 첫날 반쪽인 오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안공화국에서의 만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은 기적처럼 일 수를 나눴다. “반갑습니다. 보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치에 동승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혹시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까.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아닙니다. 간밤에 잠을 좀 샅했지만 정신은 더 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친한히 살펴보고 싶은 시간 되십시오”  
 “이제 이 땅에서 본단의 눈물을 흘리게 해선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뒤어죽여지요”  
 “어서 보니 정말 좋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웃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도 있지요”  
 새천년의 초여름, 새살이 열렸다. 그 길 위로 남쪽에서, 북쪽에서 새 바람이 탁탁갈 것이다. 우리에게 만남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만남 이상의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남은 건 믿음과 기다림이다. 포용이다.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국정공백 없다” 24시간 철통대비

### 남북 정상회담



### 각 부처 표정

청와대의 중부 각 부처는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방 방문을 맞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철저한 대비에 들어갔다. 김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는다.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김대통령의 통상적인 외유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남아 국정을 챙긴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강옥(韓江玉) 실장도 김대통령의 ‘별당명’을 수정 보고함에 따라 청와대에 전속한 비서장은 김대통령 부재 첫날인 이날 아침부터 상황실 중심으로 특별근무에 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 청와대 종합상황실 운영... 국정상황 평양 보고

### 행자부 각종 재해·재난 대비 초동 진압태세

### 국방부 전용기 평양안착까지 숨죽인 1시간

비서실 직원들은 김성재(金成在) 정책기획수석의 지휘를 받아 김대통령이 돌아오는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원이 비상근무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국정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통상상황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그밖엔 (韓江玉) 종합상황실장은 김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서 철야근무하면서 매일 저녁 평양의 김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부재중 국정상황’ 자료를 작성한다.

●총리실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는 김대통령의 방북중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의 근무태세를 점검했다. 이총리서리는 이날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김대통령 방북 기간 근무에 단계를 거를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이총리서리는 김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는 24시간 각 부처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또 이총리서리는 저녁에는 경찰청 상황실, 행정자치부 중앙당직사령실, 국무총리실 상황실, 개헌대책본부 등을 순시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상태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이총리서리는 지난 주광 각 부처에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E-메일을 보냈다.

●외교통상부 세계 각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각 개외공관의 비상근무태세를 점검하는 등 분주했다.

또 15일까지의 남북정상회담 “간담”을 조동봉 해외총합과 박기문(朴基文)차관이 지휘하는 상황실을 설치해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 정상

회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전 국정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13일부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심·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이 기간 전일 비상대기에 들어간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국은 전국에 별도의 비상 경계근무태세 실시, 각종 시간·사고와 재해·재난에 대비토록 했다. 초동 진압태세를 유지, 문제가 생기면 해당 관서장의 지휘하에 신속히 현장을 수습토록 지시했다. 또 개헌대책본부 상황실을 통해 부처간 연락체제를 갖추기도 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탄 공군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오전 9시18분부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2분 동안의 권외정찰 지원체제의 관제이러를 통해 숨죽인 채 지켜왔다.

특히 오전 9시30분 전용기가 보령해변선(NL)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전용기에 대한 관제가 우리측 대공정찰관제소에서 북측의 경찰 차량과 불간섭으로 관리이행되자 이 사실을 즉각 조종탑장(空軍정찰관제)에 보고했다.

●뉴스식 오지언기자 joo@daily.com

# 이중과세 해결맨 경험 가속도

## 새역사 큰만남

남북정상회담

### 경제부처 對北지원 방안 검토

투자보장·분쟁해결 장치 마련키로  
북한방문·통관절차등 대폭 간소화  
국제기구 통한 재원확보 가능성도

“백지상태로 간다”, 이런저런 협회·재단·정부 장관은 남북 협력 전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임측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던 만큼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제부처는 북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 대응해 대북적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 첫번째는 경협 자체가 기업간의 자발적인 만남이 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보장, 이송과에 방지, 분담

결 절차 명확화, 청산결재 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동시에 방위절차 간소화·입자공 제법 형식 승인제도 개선·통관절차 간소화·전관물자의 대북민출 규제안과 작업 등 경협 지원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토대가 마련되면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지구 확대, 육상 운송로 건설 등 경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착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지원 계획은 방안도 상향부분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국내 재원조달은 구조조정 여 과도한 자금이 소요된 만큼 남북협력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북 지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적극 강구중이다. 이 중 일본의 지원은 북·일 수교와 맞물려 있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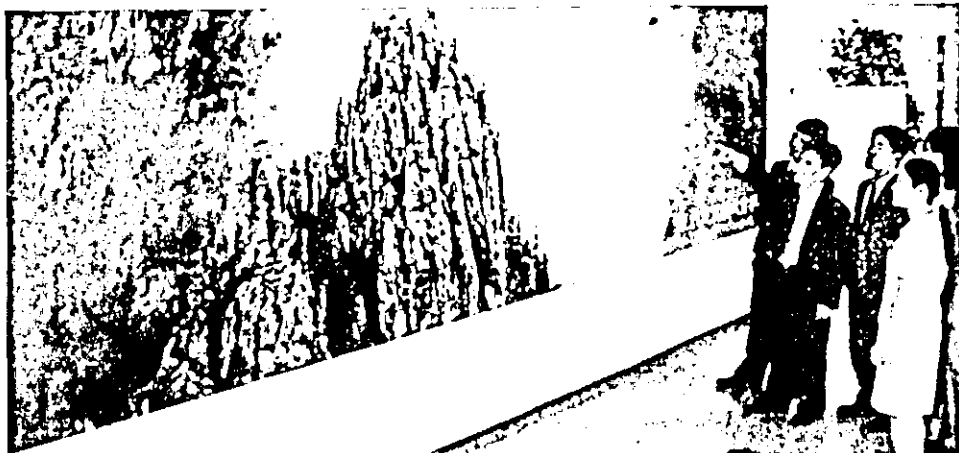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최근 가입 이전에도 북한이 요청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이라도 ‘신탁 자금’이나 ‘특별신탁기금’을 조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캄보디아인 등 4개국에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전 특별신탁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동시에 북한측의 거부감이 적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태기자 yongtae@kookje.com



현대 직원들 감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지인 강원 동해시 승정동 금강산 여객터미널에서 현대상선 직원들이 금강산 사진을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정주영씨 월내 방북 현안 일괄타결 삼성선 50만평 규모 전자단지 추진 중기들 임가공단지·전용공단 계획

### 재계 對北 프로젝트 박차

정성희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가 속개 전경로 자 재계는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위원회 유재준 회장은 “정성희 단 본회가가 여장을 꾸어주는 것처럼인 것이어서 재계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며 “남북간 분담사업기구 설치나 이중과세 정리 등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면 남북 경협은 한층 가속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대량 투자를 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사업용 공동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안은 수산물 공관 조성 등 대형 사업이 현재 담보상태에 있으나 정성희 회장이 7기로 다시 협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빨리 마무리 짓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단계 정주영 현대 전 명예 회장의 방북을 통해 현안 문제를 일괄 타결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은 북한 남포·려주 일대에 수만 전자단지과 맞먹는 50만평 규모의 대규모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현재 평양에서 생산중인 컬러TV와 전화기·오디오에 모니터와 스피커를 추가할 계획도 갖고 있다. LG 또한 대북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LG는 각종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조립·생산하거나 북한과 공동으로 공장을 세우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중소기업의 북방 진출도 활발하다. 중소기업진흥보육원을 비롯한 10개 중소기업은 평양에 임가공단지만 만들기 위해 이달중 평양을 찾는다. 전자조립과 대규모의도 전자 공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평양방도 줄곧 잇는다.

현대 정 전 명예회장이 이어 삼성 이 전 회장도 방북을 추진중이다. 정성희 단 이후로 임장이 연가관 정재희 고합호 최규기 비롯한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방북이 늘 상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남북조사단이 이따간 금강산 방문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박은규기자 yongtae@kookje.com

### 45일간의 탁구통일 지바 9년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45일동안 코리아팀으로 함께 된 현정화(오른쪽)와 이분희가 합 말을 잇는 채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윤간스포츠팀 제공

# ‘남북 의형제’ 우애 아직도 뜨겁다

이유성 대한항공 탁구팀 감독은 1957년생. 현정화 한국마사회 코치는 69년생. 본단의 아픔도, 전정의 아픔도 경험하지 못한 전형적인 전후세대들이다. 하지만 91년 지바세계탁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 남북여자코치(이유성)로, 선수(현정화)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이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도 이산가족입니다.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일본전역을 돌며 한술밥을 먹으며 전지훈련을 해왔고 끝내 우승하는 등 45일간의 소중한 동행과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쓰라린 기억들...

“조금있다가 다시 단일팀으로 만나자”고 굳게 약속했고, 꼭 그럴줄 알았지만 벌써 9년이나 흘렀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의 단일팀 멤버들은 13일 역사적인 남

북정상들의 만남을 바라보며 자마다 그때의 감격을 떠올리고는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단일팀 멤버들은 요즘에도 통일의 감정을 마음속 깊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단일팀 당시 남북 여자 코치였던 이유성씨는 북측 여자 코치였던 조남중 지도원(53)과 의형제를 맺었다. “통일이 되고 나이든 남공이 형의 노후를 제가 책임진다고 약속했거든요. 대한항공 감독 자리를 형에게 물려준다고 약속도 했고”. 둘은 그 이후에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만나면 스스럼없이 술자리를 하면서 양쪽 집안의 대소사와 인생상담까지 풀어헤치는 등 형제애를 발휘하고 있다. 하도 남편들이 “우리 유성이” “우리 남풍이형”하면서 자랑하는 용에 양쪽 감독의 부인네들도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친동서처럼 여기고 있다.

## 91년 남북코치 의형제 각종 국제대회서 술자리·인생상담도

“마음은 이미 통일 우리도 이산가족”

## 오사카 단일팀 소망

91년 당시 북측 남자 코치였던 채라우씨와 의형제를 맺었던 윤길중 당시 남측 남자코치(현 근화이고 감독)는 북측 형남 채라우씨가 요즘 조선탁구협회 서기장(우리로 치면 협회 전무이사)이 된 것에 대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자기 앞처럼 기뻐했다.

김택수는 최근 중국 ‘탕산’에서 열린 제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스웨덴 클럽팀 소속으로 출전한 (김)성희 형을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당시 단일팀 멤버들도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 김성희와 결혼한 이분희는 아들 진성(5)을 낳았으며 통일의 꽃 유순복·이근상과 함께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채라우씨가 서기장이 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조남중씨가 협회이사로 복귀하는 등 지바멤버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다. 당시 단일팀 총감독과 공보담당을 맡았던 김창제 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박도천 월간탁구발전인은 “만약 양측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룬다면 내년 오사카 세계선수권에서 여자단체 금메달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기환기자

# “통일염원 신고 가는길 안전 최선”

## 처음 남북하늘 가로지른 최광우기장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하늘을 가로지른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보잉 737-400)의 최광우(卞光宇·45·사진)기장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13일 남측 수행원과 취재단을 태우고 대령관 전용기보다 15분 먼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남북 직항로를 따라 최초로 평양에 도착한 조종사이자 민항기 조종사로 기록됐다.

최기장은 출발에 앞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출발한 날부터 많은데 내가 운이 좋아 남북 하늘을 처음으로 비행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며 “평소 이들의 안전비행을 위해 매일 새벽기도를 한 어머니(83)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골과 평양의 난세가 좋고 밭갈음도 가벼우며 심각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을 떠났고 이날 오후 돌아와 “매우 감격스런 비행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삼함반 2세로 부모와 장인의 통일 염원을 대신 기슭에 끌고 이번 비행에 임해 남북평을 맺는 감회가 남달랐다.

아버지(작고)는 경안북도 강계 출신으로 창성군 감응초한 공무원을 지내다 1·4후퇴때

전용기보다 15분먼저 도착  
“실함민2세로 남다른 감회”

평양길 가족에게 안알려  
비행직전 “잘 다녀오겠다”

안가족과 함께 임했다.

평북 정주 출신인 장인(73)은 창성에 살다가 학생이던 6·25때 가족들을 남겨두고 서울로 내려온 이산가족이다.

서울 중학교, 공사 26기 출신인 최기장은 공군 대위시절 불의의 훈련 사고로 순직한 큰형 광운씨가 공사 9기에서 주위에서 ‘공사 동문 협회 과잉’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장은 평소 존경하던 13세 연상의 큰형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 안타까워하며 그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꾀치겠다며 부모의 원고한 반대할 무릅쓰고 강사에 진학했다.

공군 조종학생 시절 우수조종사 표창을 받기도한 그는 F5 전투기단 물다기 1992년 민간 외교관이 되고자 중립으로 예편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

현재 총 비행 기록은 6,526시간으로 보잉



737기의 조종·관리직 총괄하는 737안전운행팀장을 맡고 있다.

배터리 조종사로 매사에 꼼꼼하고 과묵하며 자기관리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그는 지난 2월엔 박삼구 사장으로부턴 ‘비행안전상’을 받았다.

그는 출발 전날까지도 아내 이경희씨(41)와 가족들에게 평양 가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그는 떠나기 직전 아내에게 전화로 같이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고 아내는 “남북회해의 대장정에서 많은 바 소임을 다해 남라”고 당부했다.

김정섭기자 kks@kyunghyang.com

# “감격스런 비행 평생 못잊을것”

## 첫 평양간 최광우기장

“말게 갠 날씨 만큼이나 삼래한 비행이었습니다. 감격스런 비행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시간 남짓한 역사적인 평양비행을 마치고 13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아시아나항공 최광우(45·사진) 기장은 수행원과 취재진을 태우고 김대중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보다 15분 먼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 들어간 민항기 조종사로 기록됐다.

최기장은 순안공항에 착륙할 당시 “잔디밭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남쪽의 어느 공장처럼 포근했다”고 말했다.

최기장의 아버지는 평북 강계 출신의 삼함반으로 1·4후퇴때 일가족과 함께 월남했으며 장인은 평북 정주 출신의 삼함반이어서 최기장의 평양비행은 감회가 남달랐다.

최기장은 큰형(광운·공사 9기)이 공군 대위 시절 불의의 훈련 사고로 순직하자 형이 못다 이룬 꿈을 펼치기 위해 공사(26기)에



들어갔다. 공군 조종학교 시절 우수조종사 표창을 받기도 한 그는 F5단 물다기 1992년 중령으로 예편,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

현재 총 비행기록은 6,526시간으로 보잉 737기의 조종·관리직 총괄하는 737안전운행팀장을 맡고 있다.

최기장은 출발 전날까지도 부인 이경희씨(41)와 가족에게 평양 가는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떠나기 직전 부인에게 전화로 “잘 다녀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형규기자)

# 世界日報

2000. 6. 14 (수)

# “獨연구 남북통일 주춧돌 놓는데 도움됐으면”

## 창립10돌 맞은 韓·獨 사회과학회 유임수 회장

“독일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일본과 미국에 편중돼온 시각에서 탈피,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관점을 잡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올해로 창립 10돌을 맞은 ‘한·독 사회과학회’의 유임수(劉仁洙·47·이화여대교수·사진) 회장은 “독일에 관한 연구결과가 남북통일의 주춧돌을 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철 외교안보연구원교수, 박영기 한양대 대학원장 등 독일 및 독일어권 지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모여 만든 한·독사회과학회는 그동안 독일의 통일과정과 독일지방자치제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각종 학술원정도 참여했다.

유회장은 1996년 로마 드에서 열린 통일당시의 동북 총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진 것과



급한 것 등을 꾀박한 만한 성과로 꼽았다. 이 모임은 독일의 자유주의정책을 기지로 하는 나우만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인제대부터 나와 독일 쾰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회장은 2년째 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그는 “250여명의 회원들이 독일은 물론 유럽의 정치·경제·사회 통합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 연구하고 있다”며 “남북이 나남대로 독자노선을 걷지하지 않

한양대 내에 지방자치대학원 설립을 원할 해 국내에 독일 학자 제방 자치제도를 보급할 것 등을 꾀박한 만한 성과로 꼽았다. 이 모임은 독일의 자유주의정책을 기지로 하는 나우만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한양대 유회장은 현재 박정호 배움터대학교수 등 독일내 한국학자들과 협력해 국내 사회과학계의 학술교류에 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일출신 학자들의 국내진출도 적극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올 가을에는 독일 석학들을 대거 초청, 국내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독사회과학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안건교실 회의실에서 ‘한국과 독일 관계의 재조명’을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마이르투스 나우만재단 한국대표, 주한독일대사관 울리베 시판 박사, 이문호 고려대학교수, 한상일 서강대학교수, 현승용 인제대학교수, 최안나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성수기자)

# 매스게임·동의치료도 관광상품화

단군·동명왕릉등 역사적 탐방  
버섯따기·진흙치료 호기심자극  
백두·금강산 자연관광지가뿐만

**북**한은 오해방해를 위해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과 오국관광에 유쾌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대표적 인 관광지인 경강과 그 주위의 설악, 서악, 단군릉, 동명왕릉, 자성왕릉, 고려왕릉의 등이다.

대표적인 관광시설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동사가 꼽힌다. 백두산지구와 원산·금강산지구, 묘향산지구는 손꼽히는 자연관광지이며 동해출렁다리, 구월산·괴일지구와 은천출렁다리 등 독특한 경승과 힐링을 제공하고 있는 종전-합방산 지구도 경치가 좋다. 도시관광지로는 신의주·괴주지구, 국제항구 두개도시인 남포지구, 자유무역지대로 두개도시 간속한 나진·선봉지구가 꼽힌다.

북두산은 2분만에 가려는 800 킬로미터, 완만하게 형성된 고원지대로 이윽한 민중들 스키장이 겨울 여자의 장소다. 묘향산과 개성만 다른 곳에 비해 관광시설이 잘 개발된 있다.

북한은 조 문화관광이나 대표관광 등 특이한 상품

## 북한 외국인 대상 관광명소 어떻게 있나

도 내놓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색적인 관광상품으로는 송이버섯따기, 진흙치료, 고구려문화탐방, 활강관광, 태권도 관광, 팔로관광, 동의치료관광 등이 있으며 특히 북한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조선말뚝유기 관광, 백두산 화산지대 지질연구 관광 등도 있다. 이런 송이버섯따기와 고구려문화탐방 등은 주로 일반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활강관광 등은 내란이나 동남아 관광객을 유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는 '2 일정시선 관광을 비롯하여 매년 김부자의 상임 행사시 공연되는 '매스게임' 등의 행사도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담부족하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국민관광총회사와 중국 민간 관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동강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내놓고 있는 여행상품은 경강과 금강산 둘레로는 3박4일짜리부터 최장 39박40일짜리까지 다양하며 중국과 연계시킨 패키지 상품이 주종을 이룬다. 두만강이나 미주, 호주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상품은 모스크바와 아른쿠츠크를 거쳐 단독~관광으로 이어지거나, 홍콩~베이징을 거쳐 경강으로 넘어가게 된다. 동북아시아는 전세기 할 이용하거나 선결제 이용 하는 게 보통이다.

변호봉, 현호우 등 6~7개 중국여행사들로 중국인 북한 관광단을 모집하고 있다. 연별발령순 수시로 경강~개성 3박4일, 경강~개성~묘향산 4박5일, 경강~개성~금강산 6박7일, 경강~개성~금강산~묘향산 7박8일 등 북한 관광에 도입 광고가 실린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유니버설'과 'K 인' 여행사가 중국과 북한을 연계하는 9일 일정의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을 모집해 지난 3일 경강관광을 출발시켰다. 두 여행사의 관광일정에 따르면 단군릉은 중국 선양, 단동 시내를 관광한 후 평창으로 신의주를 거쳐 평안도 도향해 경강시, 묘향산, 자성사, 관악산 등을 관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유니버설여행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전 2000'에 '조선관광총국' 전시관을 설치하고 북한전도, 경강시, 백두산, 금강산 관련 사진들을 전시하는 등 관광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석중기자 shc@kcp.com



금강산 삼일포를 돌고 있는 관광객들. 간성에서 온창리까지 금강산산악, 북동쪽면 금강산 일출을 함께 감상할 것으로 보인다.

## 사증신청대 수수료 30달러 입국절차 다른 나라와 비슷

### 북한 관광업무와 입국절차

북한의 관광업무는 1946년 5월부터 정부조직의 국제여행업 리국이 국가관광총국으로 승격되어 맡게되고 있으며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조선관광 안내사·관광선전 봉사사·관광역과 지원회사(합성·합성여행사) 등을 두고 관광과 관광원 조직·선전·방송과 개발과 교통, 배의 등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87년 9월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한 데 이어 97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에 가입하는 등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왔다.

북한 관광업에서는 현재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시 1988년 11월에는 한국 외국인 관광지로 출입한 관광객 수가 10만명이고 그 후 지속적인 외화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 입국도 국제화함에 따라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등 관광수익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금강산 국제관광회사·고려 문화관광사 등 북한 여행사에 10~20일정 사증신청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신청 신청자료를 보면, 신청, 생년월일, 국적, 직종직위, 여권 종류와 번호, 입·출국 예정일, 고령수단 등을 기재해야 하며 사증신청서와 함께 사진 2장과 수수료 30달러(북한돈 60원, 1달러는 북한 돈 216원)를 내야 한다. 입국시에는 해당 여행사 거주지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대사로부터 반도통과여권, 사증신청 발급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공보과 지점에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도 있다.

북한에 도착하여 방문 기록은 함도과 활강점진에서 내리면 먼저 '입·출국 수속증'을 작성하여 여권과 함께 동명왕릉 사슴에 내기 문화관광사청에 맡겨야 한다. 이 후 동명왕릉 사슴으로부터 관광신청과 여행준비를 위한 확인을 받게 된다. 장미코스, 연화코스 등 관광을 할 경우에 방문 지역 또는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관광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를 요구하면 여행자는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관광신청을 받으면 입국 확인을 받게 된다.

이후 같이 북한 입국절차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북한에 관광을 방문할 때 외국인의 입국절차와 관련된 관광정보에 대해서는 관광업자의 입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조 문화관광이나 대표관광 등 특이한 상품

# 금강산, 잊었던 천오백리를 찾아서

## 북남름디기는 북한 관광명소다시보기

남북의 두 정상에 만나면서 남북의 긴장관계도 화해의 결정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지 추가 개방 등 남북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 금강, 요항, 칠보산 등 명산과 함께 평양과 개성 등 고도에 남아있는 문화유적 등 북한의 관광명소를 알아본다. / 편집자 도움말 /



백두봉도

### 평양권

잘 다듬어진 시내와 함께 경양성과 대성산상의 등 대륙을 흐르던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을 찾아볼 수 있다. 평양 주변에는 동명왕릉과 단군릉이 있다. 동명왕릉은 중앙지역에 흩어진 무덤현적을 따라 다시 지었다고 한다. 길이 31m, 봉분높이 11.5m로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1993년 단군의 뼈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은 평양시 강동구 문흥의 대박산 동남쪽에 단군의 무덤을 만들었다. 고구려 판계묘의 무덤인 장군총에서 모양을 따왔다. 크기는 장군총의 3배가 넘는다. 입구에서 눈까지는 279개의 돌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평안남도의 의 경계에 위치한 묘향산은 4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산대사는 '금강산은 수려하나 장엄하지 않고, 지리산은 장엄하나 수려하지 않다. 묘향산은 장엄하면서도 수려하다고 했다. 향로봉(1,600m)과 비로봉(1,909m)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계곡이 아름답다. 영계폭포와 천대폭포, 이선남폭포, 사자폭포, 사곡폭포, 도솔폭포 등이 있다.

### 개성권

임진강 건너에 있는 개성,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옛 이름은 소나무가 많아 송악이었다.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는 개성시 송악산의 남쪽에 있다. 정몽주가 피를 흘린 선죽교는 시내 선죽동에 있다. 지금도 다리 위에는 깃자국과 같은 반점이 남아있다. 개성 서북쪽 만수산에 있는 두문동은 고려의 문신과 무신들이 조선에 항명하며 숨어지냈던 골짜기. 두문동출몰이라는 담도 이때 나왔다고 한다. 동진이, 서경덕과 함께 송도 삼강로 꼽히는 박경복 또는 산성리에 있다. 높이 35m, 직경 40m, 이밖에 중국 사터, 북한국보인 관음사, 공민왕릉 등이 있다.



### 황해도권

대동강 하구에 형성된 너른 평야. 평야와 너른 구릉, 아가지 가한 해안선으로 유명하다. 내륙에는 북한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구월산이 우뚝하고, 바다로는 용골포와 장안포 등이 수려하다. 구월산은 해발 954m로 높지는 않지만 신령한 산으로 꼽혀왔다. 단군이 도읍을 정했다는 삼신산으로 옛날 전국 불교사찰 31본산의 한나였던 구계사가 있다. 산자락에는 최고봉 사왕봉을 중심으로 사선대, 천지단이 있으며 계곡도 풍부다. 용골포는 해풍에 의해 만들어진 황금색 모래사장이 압권이다. 북한 천연기념물 142호로 지정된 북한의 국립공원. 도리가 고운 흰 아나라 해수가 달기 때문에 수산지권이 풍부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골포 앞의 높이 15

m의 코끼리 바위도 압권이다. 장산곶은 해안 절벽으로 둘러싸인 명승지. 박경도의 두무진 앞이 장산곶으로 이어진다.

### 백두산권

한반도 백두대간의 출발점인 백두산은 아직도 현세의 불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000m가 넘는 봉우리가 이어진다. 백두산(2,750m), 천성봉(2,641m), 단상봉(2,333m), 두부산(2,303m), 북포커산(2,289m), 설봉(2,175m), 간벽산(2,164m), 백사봉(2,043m)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산줄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압록강을 이룬다. 백두에서 뻗어나간 까마고령과 무산고령 등은 한여름에도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백두산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중 하나는 삼지연

사진: 김성호(1), 김성호(2), 김성호(3), 김성호(4), 김성호(5), 김성호(6), 김성호(7), 김성호(8), 김성호(9), 김성호(10), 김성호(11), 김성호(12), 김성호(13), 김성호(14), 김성호(15), 김성호(16), 김성호(17), 김성호(18), 김성호(19), 김성호(20), 김성호(21), 김성호(22), 김성호(23), 김성호(24), 김성호(25), 김성호(26), 김성호(27), 김성호(28), 김성호(29), 김성호(30), 김성호(31), 김성호(32), 김성호(33), 김성호(34), 김성호(35), 김성호(36), 김성호(37), 김성호(38), 김성호(39), 김성호(40), 김성호(41), 김성호(42), 김성호(43), 김성호(44), 김성호(45), 김성호(46), 김성호(47), 김성호(48), 김성호(49), 김성호(50), 김성호(51), 김성호(52), 김성호(53), 김성호(54), 김성호(55), 김성호(56), 김성호(57), 김성호(58), 김성호(59), 김성호(60), 김성호(61), 김성호(62), 김성호(63), 김성호(64), 김성호(65), 김성호(66), 김성호(67), 김성호(68), 김성호(69), 김성호(70), 김성호(71), 김성호(72), 김성호(73), 김성호(74), 김성호(75), 김성호(76), 김성호(77), 김성호(78), 김성호(79), 김성호(80), 김성호(81), 김성호(82), 김성호(83), 김성호(84), 김성호(85), 김성호(86), 김성호(87), 김성호(88), 김성호(89), 김성호(90), 김성호(91), 김성호(92), 김성호(93), 김성호(94), 김성호(95), 김성호(96), 김성호(97), 김성호(98), 김성호(99), 김성호(100)



고려 총신 정몽주가 활위에 맞아 죽은 선죽교(임죽)와 평양성의 누각 최승대.

이다. 삼지연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했던 곳으로 적설량이 풍부하고 폭적한 침엽수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 금강산권

지금까지 관광이 허용된 곳은 외금강의 일부와 내금강뿐이다. 아직도 갈 수 없는 내금강에 또 다른 금강의 모습이 숨어있다. 기암괴석이 늘어진 남양적인 외금강과는 달리 내금강은 산세가 부드럽고 풍화작용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유적지는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표훈사. 서산대사가 승려 수천명을 거느리고 세웠던 백화암터엔 지니 만나는 승려는 원대 반대편, 영선전, 명부전 등이 남아있다. 삼불암 아래에 있는 중앙동계는 중앙사터와 백류, 원소, 삼정사터와 동이 이름있다. 백천동과 수암동, 영연동, 백합동 등도 수려하다. 백천동의 명경대는 높이 90m, 너비 30m의 기암 병풍. 관군봉과 조인봉, 사자암, 지옥동 등 바위들이 기기묘묘하다. 최병준기자 Q·A·P·R·@·d·n·e·t·k·r



# 김위원장 '깜짝마중' 세계가 놀랐다



공항공 의장대 사열  
김대통령과 車동승  
거침없는 언행 선보여

폐쇄적 이미지 탈피  
北최고지도자 위상  
대내외에 과시



평양에 쏘린 내·외신의 '눈'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11일 북대포드 프레스센터에 설치된 화합의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 특별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윤여홍기자

## 과격적 환영 배경

분단 반세기만에 북한을 첫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는 과거의 연속이었다. 손안광까지 직접 영접을 나왔을 뿐 아니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고 같은 차량을 이용해 숙소까지 안내했다.

남포 공화 영접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거나 김용순(金容淳) 조선인민혁명위원장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국방위원장은 우리측 예상을 뒤엎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놀라움과 감격의 박수를 쳤다.

김국방위원장이 관에서 외국 원수급 영접한 것은 지난 92년 4월 인삼군 중국국가주석이 방문했을 때로

김일성 국가주석과 함께 공화에 나간 현채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엔 김국방위원장이 단독 영접했다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에게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도록 한 것도 파격이었다. 남북양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의전을 최대한 높인다는 취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외국 방문때의례적으로 이뤄지던 의장대 사열이 있음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국방위원장은 또 공화에서부터 백화원 영빈관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국방위원장은 김대통령이 캐딜락 승용차 2대만 오면쪽에 오르지 왼쪽 문을 통해 김대통령 앞차리에 앉았다. 이때문에 이회오 여사는 두번째 차량을 이용했다. 김국방위원장은 차안

에서 김대통령과 손을 잡고 격의없는 대화를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국방위원장은 예상했던 대로 부인을 동반하고 나오지 않아 이여사는 박산옥 조선인민혁명위 부장이 영접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그의 과격은 이어졌다. 김국방위원장은 남측 관동취재단 기자 2명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이나 공식수행인들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가 지난 9년 김

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 정상회담 합의 당시 김주석의 심경을 김대통령에게 전한 것도 평이하게 받아들인 대목이 아니다.

그의 이런 과격은 김대통령에 대한 예우수준과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국방위원장은 이날 평양에 쏘린 전세계인 향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임지부 각인시키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국방위원장은 또 이날 공식행사

에서 드레스 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정장이나 인민복 대신 평소 즐겨입는 간편한 정복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모았다. 김국방위원장은 평소는 물론 군 장교인이나 남 참관 기년인 등 각종 국가직 기념행사 때도 양복을 잘 입지 않는다. 탈복 귀순자들은 이의 이유로 예술품까지 기증을 들었다. 더욱이 이번 영접 행사에 그가 입은 정복에는 평소 달고 다니던 김일성 배지도 없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北 정규방송 중단 대대적 보도

북한 방송들은 이날 오후 임제리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7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김대통령 평양방문 소식을 대보냈으며 8시에도 반복 보도했다.

중앙TV는 "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한 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도사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안내문자의 발에 이어 김대통령 평양방문 소식을 회변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중앙TV는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내보냈으며 특히 평양시민들이 김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오후 5시, 6시, 8시, 9시에 김대통령의 평양방문소식을

## 공화 영접행사

60만명 환영인파등

상세하게 전달하며

"역사적 계기" 평가

반복 보도했다.

방송들은 "이번 상봉과 회담은 7·4 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인 계기"라며 "민족주체적 노력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해 나갈 거래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또 "평양의 60만여 시민들은 남측

대표단의 이번 상봉과 회담 길이 7000만 겨래와 인류 왕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새 조국을 앞피세우는 데 기여하는 징의로운 길이 될 것이 라는 기대를 표시하며 엄열히 환영했다"고 방송했다.

북한방송들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한 최고위급회담을 위해 오는 남측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으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했다"고 전했다.

북한 방송들은 두 정상들 "김대중 대통령"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로 각각 호칭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을 위한 인민군 육해공군 병예위병대 시열, 어린이들의 꽃니발 증정, 명예위병대의 분열개진 소식 등을 보도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45층 건물 2개동...위성송출실등 마련

### 北프레스센터 고려호텔

남측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고려호텔은 45층 건물 2개동으로 평양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다.

프레스센터에는 청문쪽에 긴 탁자, 중간에 대형탁자와 역사 40여개가 준비해 있고 위성송출실과 청와대 광보신 직원이 이용하는 작은 방 2개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기자실 앞에는 서울에서 공수해온 주스와 오렌지, 과자 등 간식 박스 10개가 놓여 있고 북측 안내원들이 주변에 상상으로 모여 단소를 내었다.

프레스센터 앞 북변에는 "지강평에 새겨진 위대한 영도의 지옥"김정일 장군님과 오늘의 조선"김일성 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인민들 속에 계신다"는 제목의 대형 시간만 3개가 걸려 있다. 숙소 옆집실에는 "당신을 엄열히 환영합니다(with the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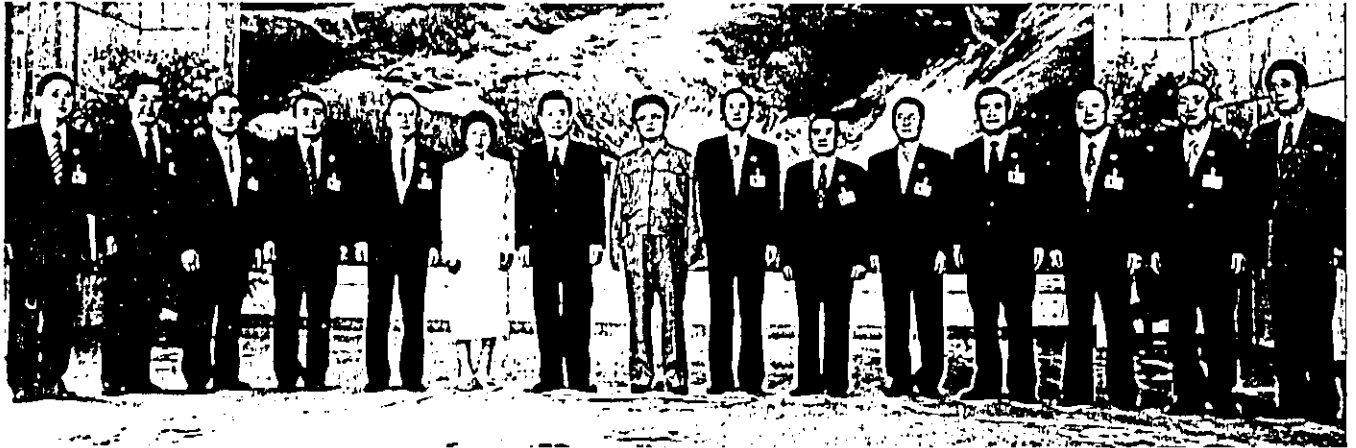
pliments of koryo hotel)"라는 쪽지가 놓여있었고 탁자위에는 김일성상표 TV가 설치돼 있었다.

호텔에서는 평양역으로 진입하는 철도용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다. 건물은 대개 회색으로 드문드문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띄고 첨가는 대부분 회색으로 꾸며놓았다. 평양거리는 개도전자의 잔동차기 불행하지만 무척 청신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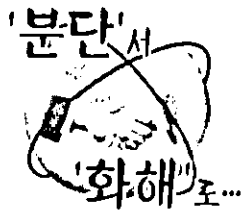
건물 외벽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육성으로 사수하시라"조선은 하나다"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구호가 붉은 색색으로 내걸려 있다. 호텔평에는 11일자 민주조선 신문이 한 부씩 비치돼 있었다. 기자 대부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과 지시내용이었고 신문 6페이지 중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는 5면에 다녔다. 평양·공동취재단



# 지지않는 '햇볕' 마침내 '빛장' 풀다



▲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방북단이 백희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 =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대통령의 對北정책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유엔에서 포용정책의 김신이다. 김대통령은 98년 2월 김대중에게 이후 만 2년째일 동안 유이러위를 김대중에게 4년간을 한관 관려한 행위를 김대중에게 있었고 이는 김대중 50년 동안 김대중에게 있던 북의 빛장을 이 는 김대중에게 있었다.

## 서해교전-관광객 억류등 포용정책 한때 위기 지속적인 믿음으로 북측서도 "정책 신뢰" 결실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은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년 10월 남시 아담 대통령후보로 자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방북정책은 '개개 김대중'에서 '자라 평화의정'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북측과 방북정책을 개입해온 김대통령은 3월 31일 3단계 통일 방안을 만들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기-연방제단기-연방통일제의 단계별 거치는 점진적 통일방식이다. 그리고 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포용정책도 3안자를 기반으로 한다. 즉 북한의 두려움만 활용, 흡수통일 배제, 적극적 연 화해-협력 추구다. 이를 토대로 김대

통령은 보다 많은 김대중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김대중의 원칙에 따른 경제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됐고 5월말 현재 외국인 356명을 포함해 21만여명이 동참했다. 한 강부 출범 이후 지난달말까지 1만 67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80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또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양측 해군의 서해상 교전사태(99. 6)와 같은 남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은 포용

정책의 폐기론으로까지 변질했다. 당시 여론은 포용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신속히 수정을 거처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윤초 김대중 국방위원장을 사임하는 지도자로 평가했을 때도 이념의 비전이 없지 않았으나 강과적으로 북한 당국에 믿음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위 남북사는 "북측이 우리의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측 기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 통해 우리측에 전달되기도 했다. 이날 토대로 늘 3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용 광자도 하는 배틀선언이 나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통령을 직접 만나 포용정책을 직접 접해 보겠다고 나온 셈이다. 현민수기자 mshan@kmb.co.kr

## "이산 재결합-김위원장 서울방문 기대"

### 김대통령 서울출발 인사

저는 서울에서 2000년 6월 14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전심을 다하시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객에 오르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원만한 민족의 관계가 있었던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열정을 힘입고 화해의 날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이렇듯 이렇듯 김대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 이해도 있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기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해가 커질수록 평화와 협력도 커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번 한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이번 평양 김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000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평양 김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이번 방문이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행복의 길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평양방문은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의 평화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히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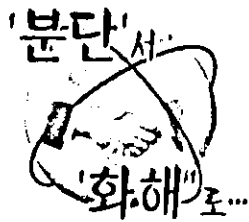
## "북녘산천 보러 긴세월 돌아 왔습니다"

### 김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평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두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왔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000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할 드립니다. 그리고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안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내정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녘 동포가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저의 회담에 커는 기대만큼이나 북녘 동포 여러

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사근 차근 해결해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에게 평양시민과 북녘동포 여러분의 남한 응원과 격려! 보내 주십시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일” “김대중” 연호... 평양은 목이 메었다



## 미소핀 김정일 트랩아래서 박수로 영접 '앞에 총'자세 인민군의장대 정중한 예의 김대통령 “반갑습니다” 평양시민에 인사 두頂上 함께 캐딜락1호 승차 잇단 ‘파격’

### 김대통령 순안도착 스케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북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순안도에 대한 권역의 박수로 시작됐다. 과거적으로 공개 연설을 나온 김대통령은 드레스 코트에 맞춰 도복에 박수를 보냈고 김대통령은 이에 대답하는 박수를 했다. 이윽고 분단 나사대 잠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김대통령은 갑자기 쫓은 표정으로 트랩을 내리며 김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았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두 정상은 그렇게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는 서울 성남공항공역을 이륙한지 17분만인 10일 오전 10시25분 역사적인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RFA(UNITED OF KOREA)가 선명하게 새겨진 전정기는 북쪽의 노란색 신도자를 앞세운 채 걸작화 배치되어 28분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오전 10시40분쯤 관공에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이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지면서 이날 김대통령을 위인대 인물이 김정일 북대통령을 환영했다. 김대통령은 1분 안에 감차 전경이 트랩 정문으로 걸어오는

동안 환영객들은 일제히 “김정일위 김정일 만세”를 외쳤다. 김대통령은 김일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조만박 군총사령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 홍신남 내각총리, 김국대 노동당 간부담당부서, 김용순 대남담당부서 등 지도부들 대거 이강고 김대통령을 맞이하려 나섰다. 김대통령은 평소 즐기었던 시골 담판 칼도색 집의 자택이었고 간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고 있었다. 북쪽은 김대통령의 공화 환영식에 상냥한 손미늘 한 모습이었다. 미리부터 대기 중이던 100여명의 환영 인파 가운데 남성은 양복 차림이었고 여성은 흰복을 곁게 차려 입고 손에 붉은색 꽃을 들고 있었다.

### 지도부 대거 이끌고 공항영접

○...10시36분쯤 드디어 김대통령이 전용기 앞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자 김대통령 환영장은 붉은색 카펫 뒤날 길에 트랩 밑으로 향했다. 김대통령은 수초 놓인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응시한 뒤 트랩 아래 김대통령을 바라보고 김대통령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이에 박수로 되돌린 김대통령은 트랩을 내려왔고 이회호 여사도 뒤를 따라 내렸다. 김대통령은 부인인 김영숙씨를 대동하지 않았다. 이어 38분 두 정

상은 인손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반기움을 표시했고 김대통령은 아시아에게도 따뜻한 두 손을 건넸다.

○...인사할 나을 두 정상은 김대통령의 안내로 의장대 사열에 들어갔다. 북한 인민군 의장대는 ‘앞에 총’을 한 자세로 지상으로 북쪽 땅을 밟은 남한 대통령에게 장중한 예의를 표시했다. 두 정상이 사열대 앞을 통과하자 혁명음악대 체임버인 북쪽 내외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등 김대통령의 각함을 열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 김대통령이 서니 걸음 앞서 나가자 김대통령은 김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걸음을 빨리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오른쪽을 틀어 갈래할 했으나 김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김대통령과 김대통령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 앞을 지나 갔으며 두 정상 모두 환한 표정이었다. 이어 김대통령은 김대통령에게 대동한 당·장·군의 주요 인사들 소개했고 김대통령은 인원이 약속했다.

○...10시41분쯤 북한 소녀 2명이 김대통령과 아시아에게 꽃다발을 선물했고 김대통령 내외는 화동들에게 기쁘게 포옹하며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악대의 연주속에 의장대가 헌찬 구려과 함께 행진을 시작했다. 김대통령과 김대통령은 의장대 행진을 3분간 지켜보고 두 정상은 나란히 오른손을 흔들며 내렸다. 이때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이 김대통령과 김대통령의 이들을 연호하면서 공화 완주로는 앞으로 가뻐갔다. 환영객들은 만세를 외치며 “김정일” “김대중”을 반갑아 약 5년간 계속 연호했고 김대통령은 이들의 앞을 지나며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 의장단행진 손흔들어 답례

○...김대통령과 김대통령은 의장대 행진을 지켜본 뒤 헌찬히 차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김대통령은 “남씨가 매우 좋다”고 말을 건넸으며 김대통령도 “회담을 하기 좋을 것 같다”고 잠시 날씨를 화제로 얘기를 나눴다. 또 김대통령이 화기를 실명하는 듯 얘기하자 김대통령이 환하게 웃었고 이어 김대통령도 따라 웃었다. 김대통령은 잠시 카펫을 밟아나 평양 시민들에게 다가가 2명의 시민과 캐딜락의 수하며 “반갑습니다”고 인사를 건넸고 김대통령은 웃으며 이를 지켜냈다.

○...김대통령은 오전 10시40분쯤 김대통령과 김대통령은 북쪽이 제1캐딜락 앞에 도착했다. 여기서 김대통령은 공화 직접 영접에 이어 또 한번의 피격적인 환대받 인출했다. 김대통령은 김대통령이 탑 1호 캐딜락 왼쪽 문앞에서 기다리다 김대통령이 오른쪽 문으로 차에 오르지 동승했다. 승용차가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비공으로 향했고 무장한 북측 경호원 4명이 뒤따라 검호했다. 이어서는 김대통령과 별도로 다른 승용차에 타고 북측에서는 비산속 야·태평화 위 부장이 함께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10초후 38선 넘는다” 기내방송에 긴장... 흥분...

남북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라는 문구 및 대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가 10일 오전 가로막힌 장벽을 넘어 북녘땅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앉아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을 태운 전용기는 오전 9시55분, 특급·양반수행원과 공동취재단을 태운 아시아나 1077기(1002편)는 이보다 10분 앞선 오전 9시 45분쯤 북위 38도선을 넘었다.

55년 동안 막혔던 남북간의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전용기의 방영기 기장은 전용기가 38선을 넘어 서지 기내방송을 통해 “오른쪽(북한쪽) 등진도 잠산빛이 있다”며 “약 38분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며 평양단체는 선제 22도”라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박준영(朴俊榮)장외내 내민일이 전했다.

수행원과 취재단이 탄 아시아나 기장은 비행기가 북녘 영공으로 들어서기 직전 안내방송을 통해 “10초후 38도선을 넘는다. 3시 방향에 우리 영토인 백령도가 보이고 2시 방향에 북극 자갈빛이 보인다”고 알렸다.

잠을 못재 들어온 북녘땅은 열은 구름에 덮여 자세한 장관을 볼 수 없었다. 기내에는 곳곳에서 가벼운 흥분

### 서울-평양 ‘하늘길’ 열리던 순간

## 북녘산하 보이자 가벼운 탄성 주민들 일손멈추고 하늘 응시 굉음내며 순안 안착 힘찬박수

과 숨겨가림이 있었으며 55년 동안 막혔던 무거움에 비해 막혔던 장벽을 너무 가볍게 뚫렸다.

공동취재단을 비롯한 대표단은 일제히 창밖의 북한땅을 보기 위해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미친내 북한땅을 밟게 됐다”는 탄성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9시15분쯤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도 곧 이어 이륙했다.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기내방송에서는 “서울서 평양까지는 1시간25분이 소요된 예정이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평양 순안공항이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창으로 북녘땅의 신하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이때 방송을 통해 “20분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며 평양은 현재 맑게 개고 기온은 선제 22도 정도”라고 안내한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했다.

평양 순안공항이 가까워지면서 들어온 나지막한 동산, 도로, 하천 등 북녘의 풍光是 남녘땅과 다름없었다. 눈에는 모내기들 하기 위해 곳곳에 돌이 차 있었으며 북한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는 광경이 보였고 일부 주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남측 대표단의 비행기를 쳐다보기도 했다.

평양 순안공항 주변은 소박하지만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각종 시설들도 세밀하게 단장한 모습이였다. 공항 주변에는 인원과 군복차림의 북측 경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대통령 전용기는 시공방향을 먼저 출발했으나 평양 현지 행사관제로 비행시간을 조정,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보다 15분 정도 늦은 10시20분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를 사뿐히 내려앉았다.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의 마개가 평양 순안공항에 굉음을 내며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일제히 “와”하는 탄성과 함께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평양·공동취재단

# “7천만 동포 전쟁공포서 해방돼야”



만찬장 이모저모

“자주적 평화통일” 건배 제의

회담기념 ‘륙륙날개탕’ 화제

北送 이인모씨 딸 참석 ‘눈길’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오후 7시10분 인민 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 남북 화해를 축원했다. 남북 수석단, 취재단 직원과 북측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은 2시간30여분 동안 유요치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헤드테이블 중앙에 앉고 김대통령 오찬용 김 위원장이 앉았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양복에 밝은 하늘색 넥타이를, 이희호 여사는 흰색 바지에 보리색 띠를 두른 흰복을 입었다.

헤드테이블에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 김성호 이대변호사위원장, 최영길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기남 통일연구원장, 김기남 조국통일민주전선 시가지국장, 정삼 이희호 여사비서관, 이혜진 민주통일경제위원장을 남북 주요인사 18명이 나란히 앉고, 안배장에는 모두 37개 테이블이 마련됐다.

○김위원장은 먼저 만찬사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나무도 오면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우리는 자신들 힘으로 통일

과 번영의 21세기기를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자주적 평화통일과 김대통령 내외의 남북, 남북 손님과 참석자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앉자마자 김위원장, 이희호 등과 잔을 부딪친 뒤 참석자들 향해 잔을 들었다.

김대통령이 북측 단대에 대한 감사로 담사를 시작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대통령은 “이도북 지사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만명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강한 목소리로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북측 참석자 중에는 남측에도 잘 알려진 여자 마린군 선수 정성숙, 영화 ‘입적장’의 주인공 최창수씨 등 인민예술, 북측인 이인모 노인의 딸 이선숙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성숙은 김운용 씨제일관 피위원회(IOC)위원과 시진을 꼭기도 했다. 테이블마다 남북 참석자가 잘반장도 섞여 앉았고 지난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와 달리 정치적이기보다는 평양교역단의 시골 공연, 복원생활 등 가벼운 내용을 화제 삼아 북측의 유연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날 식단은 천연초 향국이, 생선수경복과 냉채, 삼지연 청취말이밥, 송송편, 약밥, 소고기전골, 친박송어구이, 닭국, 배두산돌복크림, 인삼차 등 모두 15가지 음식이 나왔다. 이 중 배두산돌이 담긴 ‘륙륙날개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초 예정된 6월1일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6+6-12 직할 이합을 지은 요리로 알려졌다. 남측에 나오는 동남 만찬에는 ‘방갑습니다’ ‘고향의 밤’ ‘위대한’ 등 귀에 익은 배경음악이 분위기를 돋구었다.

만찬 공간에는 여성기와송주의 연주로 25분간 박간 공연이 펼쳐졌다. 도라지처럼 연주에 이어 여성 독창의 노들강변, 여성 듀오의 고향의 밤, 남사 4중창의 군만대령 등이 이어졌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대중 대통령이 인민문화사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평양=현외대사진기자단

## ‘빨치산대장 이현상’의 무남독녀

만수대 안내자 삼진씨

전쟁중 어머니와 함께 월북

김위원장과 김일성大 동문

남편은 외무성 참사로 근무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의 국회의원직인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의시당 소개를 받았던 안내자는 ‘지리산 빨치산대장’으로 유명한 이현상의 무남독녀 삼진(사진)씨로 알려졌다.

이현상은 1906년 충남 금산에서 출생, 일제 치하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해방 후 남로당 활동을 했으며 지난 48년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투쟁을 시작했다. 전쟁중인 51년 7월부터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했으며 53년 9월18일 지리산 빛진포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삼진씨는 전쟁중 부친이 지리산 빨치산대장으로 활동하지 어머니와 함께 월북했다. 특히 삼진씨는 김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종헌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국방위원장은 삼진씨가 병으로 강박에 자주 빠지자 직접 약을 준비해 문안을 가고 미친단 따라 해외공판에서도 근무했다. 지난 85년 만수대의사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놓였다.

삼진씨 남편 이현원은 르윈다와 미디가스카로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외무성 참사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공동취재단

## 이념성없는 전통문화 공연 ‘배려’

만수대 예술극장 관람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평양시내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북측이 준비한 공연의 국악 무용 등을 관람했다. 북측은 공연전 남북 수석단 전위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분위상 의미로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일행을 위한 예술 공연에 초대합니다’라고 지낸 초대장을 보냈다.

공연장에는 남북 수석단과 북측 관계자들이 5백여 규모의 좌석을 가두 배웠으며 김 대북과 내외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김대중과 빠른 리듬의 ‘화랑무늬’에 임했지만 박수로 환영했다.

최한 미소부터 미소가 일장현 김대통령은 남북 관객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화답한 후 공연전 앞쪽 중앙에 마련된 귀빈석에

‘환영곡’속에 박수 환영

무용 등 1시간여 진행

김대통령 꽃바구니 선물

차석했다. 북측은 김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좌석에 공연 도중에도 프로그램을 위을 수 있도록 소원 스탠드도 설치했다.

북측은 공연 종목을 이념성이 없고 빠르고 강개한 리듬의 연주와 무용으로 구성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주로 전통문화에 기초한 공연을 선보여 북측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공연에서는 먼저 관현악(지휘자 김명희)으로 ‘이리랑’정산방에 송년여 왔다’ 등 2곡이 연주됐다. 무용 정강송, 돌동이 춤, 찬안삼거리(북무), 키춤, 장구춤 순으로 이

어졌고 가야금 독주와 방청에 이어 무용 ‘눈이 내린다’ 등 8가지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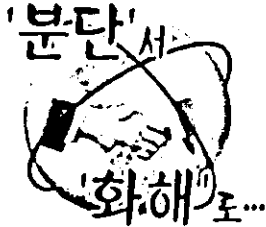
무용은 다른 공연과는 달리 평양유격투쟁을 그린 것으로 만수 광야의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식민통치로 황성화해 결국 항일 유격투쟁을 통해 민족을 해방시키는 내용이라고 북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대통령은 전 출연진이 도열해 있는 무대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지낸 큰 꽃바구니를 전달했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한 후 퇴장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오후 공연을 관람한 만수대 예술극장은 평양 중구의 대동문동 서문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연건평 6만여의 공연장.

만수대에출극장은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만수대예술단 전통극장으로 북한장관 수위(9.9) 노동당 장관(10.10) 등 기념연에는 무용극 ‘꽃피는 지너’라원의 노래 등이 공연된다. 평양=공동취재단

# “열렬한 환영 감개무량” “섭섭지 않게 해드릴것”



## 두정상 대화록 전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부터 김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영빈관 집견실에서 20분 가량 상봉을 겸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시민들이 나와 환영해 감개무량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담했고 김위원장은 “지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릴것”고 화답했다.

### 남측 수행원과 일일이 악수

△김대통령 = (음집실 벽에 걸린 대형그림을 보면서)무슨 그림입니까.

△김위원장 = 원래는 춘추동 그림입니다(전급진 아태평화위 참가가 “요항산의 춘추동을 그린 것입니다”라고 설명).

△김위원장 =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용순비서,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행한 장관들과 인사를 못나봤어요.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향해) 평양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을 TV에서 봐서 잠입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복남합의 때

TV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 위원장이 압동인 대통령특별보좌역에게 공식수행원 소개를 부탁했고 압보좌역이 차례로 장관을 소개했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김위원장 = 남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저께(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쩐 코스엔 거처 백화원영빈관까지 오시는지 알려줬습니다. 준비관계를 금방 알려줬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할 못해서 (김대통령을 하루 동안) 못오게 했다고

을 보고 대구 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계란반숙을 절반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구경오시는데 아침식사를 적게 하셨네요.

###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

△김대통령 = 평양에 오면 식사를 잘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웃음)

△김위원장 = 지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릴것입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 김대통령

### “날씨도 화창 민족적경사 축하 이제부터 새시대 열어 갑시다”

## 김위원장

### “용감한 방북에 인민들도 환영 2박3일간 많은대답 해 줘야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통령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나와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복녘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00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 = 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절을 지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파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묻자 김위원장은 ‘60만명 기량인 것 같습니다’고 응답.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음)

△김대통령 =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습니다. (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위원장 = 그저께 성방송을 통해 연못에서 초대수까지 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명절 때처럼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통령 =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 “백화원은 백가지 꽃이 피는곳”

△김위원장 = 오후부터는 공식합의된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백화원초대소는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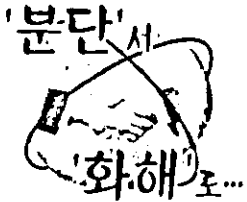
님께서 성전에 이튿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꽃이 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번씩 산보삼아 둘러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생존했다면 (백화원영빈관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 주석님이 앉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전까지 그제 소원이었습니다. (이런여)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는데 그제 김경삼 대통령과 다정 다정한 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 통화면 자료할 다 봤을텐데.

△김대통령 =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위원장 =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입니다. 2박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강=공중취재단

# “김정일 온둔자 이미지 됐다” AFP



## 해외언론 반응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북한이 개방이 진척될 경우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 크로스컨트리언스모니터

## CS모니터 “美군축압력·경제적 지렛대 상실” 이타르타스 “군비축소·이산상봉 결실 기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러시아에서 열린 13일차 1번 회담에서부터 북핵 문제와 경제교류 확대가 미국에는 대북 군축압력과 경제적 지렛대의 상실이라는 ‘불편한 부산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경제 국가’ 이미지를 떨쳐버리게 될 경우 미국의 최우선 전략 안보정책인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의 발파 중 상당부분이 무효화됨으로써 미국내에서도 논란거리인 이 계획은 감이 서고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 보도했다. 전 국방부 관리인 조엘 워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NMD 구축을 위한 미국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한라다미르 푸틴은 이미 이런 상황에 편승 7월 중 북한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또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으로 귀환할 것인 대외인조가 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보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지렛대도 효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자들은 말했다.  
다른 미국의 방송과 세계적인 통신들은 이날 정상회담 상황을 기사화각각 전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배

합기 특집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옹호주도한 “김정일”의 그가 온둔자 이미지를 깨뜨린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김위원장이 16세 연상인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함으로써 온둔자로서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 장면이 TV를 보면 남한의 수천만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다고 전하고 세종대 김중수 교수가 같은 인용 “남이나 유서는 좋거나 나고 싶었다.”  
CNN은 수백명의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김위원장이 직접 김대중령을 맞이하면서 김위원장의 공황기가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대중령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CNN의 마이크 치노아 기사는 김위원장의 공황 영접은 (남북 화해를 위한) 상징적인 제

스처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김위원장이 마중인데 대해 “반세기 이상 계속된 한반도의 상충 불화와 더불어 구도된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의 세계의 눈이 주목했다”고 긴급 리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김위원장이 김대중령을 마중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16세 연상의 김대중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남북의 관계개선을 위해 최고의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양의 기자들 직접 파견한 몇 안 되는 외국 언론사 중 하나인 이타르타스통신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정무간 대화개과와 상호 군비축소, 서울-평양의 연라사우소 설치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임창기자 hgm@kmb.co.kr

## “역사적 회담 결실 맺길”

### 카터 前 美대통령

지난 9일 김정일과 김작스런 사인으로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터 전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아베라카 정상회담 200 행사 23일에 참석,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평하면서 “회담이 매우 실질적이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1월의 이번 김정일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김작스런 당시 한국대통령은 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결실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9일 김정일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을 실패하여 거의 40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임창현·KBS

## “다시 만나느냐가 관건”

### 보즈워스 주한 美대사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양측이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조화와 균등적인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한미관계의 신념을 우리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매우 험난하게 대립적 기류가 강하게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회담이 추가 개최”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이 추가 개최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회담이 한 차례로 그칠 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추가 회담이 추가 개최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창현·KBS

의 정무간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김장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동기가 경제적 극복에 필요한 원조를 얻는 데 있다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가능한 한 작게 주고 많은 것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북한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고자 한다며 대화의 계속하면서 한국과 기타 인접국들의 우려를 해결하는 동시에 원조가 효과적 발착하도록 북한과 정무간 교류를 확대하길 바라는 주장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임창현·KBS



평양 정상회담 첫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실랑 속에 평양의 첫발을 보냈다.

김대통령 일행은 오전 순안공항에서부터 시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뒤이은 정상회담, 공연관람, 환영만찬에서 남북이 하나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 남진구조를 꾀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북신과 대립, 갈등과 반목으로 잠정된 55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체제 붕괴를 두려워 해 대남 봉쇄정책을 지속해온 북한당국이 스스로 빗장급은 것은 그들 역시 한반도의 화해·협력에 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3일 낮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은 회담이라기보다 남북한 수뇌의 역사적 상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한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정상간에 의미있는 대

화가 작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성과있는 방문"이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여 대해) 우리가 2박3일 동안 대담해 봐야 한다"고 말해 북측도 모종의 합의 도출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암시했다.

양 정상은 특히 남북 정상간 직접 통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자면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해독된다. 물론 구체적인 연재, 어떻게 설치하는대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11일로 예정된 2차회담 때 평화구축과 교류협력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정상은 이번에도 상대방의 통일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허물기 위한 것

"세계에 뭔가 보여주자"

김위원장 적극 자세

55년 냉전 마침표 기대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이 아니라 공존공영을 위한 것임을 주지시키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정상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곤물이다. 화해 협력에 큰 뿔뿔 뿔었다는데는 이분이 없지만 불신의 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번 정상회담이나 별도의 당국자회담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도착 성명에서 "차근차근"하나하나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기훈기자 kcsung@kmb.co.kr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13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이삼진 만수대 의사당 부총장(가운데)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현상의 딸로 알려졌다. ●평양

청의대 사진기자단

만수대의사당 안내자는 빨치산 이현상의 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오후 남한의 국회의사당격인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의사당 소개를 맡았던 안내자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무남독녀 삼진씨로 밝혀졌다.

이현상은 지난 192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한 뒤 이듬해 8월 비밀동맹휴학을 주도한 혐의로 4년간 복역했다. 8·15해방 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 48년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됐으며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다 53년 9월 지리산 빗장골에서 사살됐다.

삼진씨는 6·25전쟁 때 어머니와 함께 월북,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다. 삼진씨는 김 위원장과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삼진씨가 졸업으로 자주 강의에 빠지자 직접 약을 준비해 병문안을 가고 미진한 강의내용도 보충토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씨는 대학 졸업 후 대외부문에 종사했으며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해외공관에서도 근무했다. 지난 85년 만수대 의사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등용됐다. 삼진씨의 남편 이현연은 외무성 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형기자 yunbr@kdaily.com

# 핫라인 설치 현안 직접해결 남북정상 역사적 첫 회담

## 김대통령 평양서 첫밤 오늘 2차회담 갖기로

평양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낮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1차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간 직통전화통을 통해 현안을 직접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11일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2박 3일 동안 남북한 현안을 격식없이 논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오전 11시 45분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직후 남측의 박재규 통일, 이현재 재정경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식수행원 전원이, 북측의 김용순 조선야대평화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27분간 정상회

담을 가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6월13일은 역사에 담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했으며, 김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회답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세계가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담해 줘야하고, 대담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밤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연설에서 "(저의)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정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다"면서 "책임있

는 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앞서 전용기편으로 오전 10시3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저는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재결합 실현과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와 함께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순안공항으로 직접 나와 김대통령 등 대표단을 영접했으며, 김대통령의 캐딜락승용차에 함께 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차중회담을 가졌다. 평양=공동취재단

# 대한매일

## 80년부터 金日成주석 의전 담당

### 金대통령 기내 영접 全熙正씨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기내에서 영접한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외사국장 전희정(全熙正)씨라고 국내 북한전문가들은

### 현재 금수산기념궁전 외사국장

밝혔다.

전씨는 오랫동안 의전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지난 80년부터 주석부 외사국장을 맡아 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해왔다. 김주석 사후에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는 김위원장과 고위간부들의 의전, 외국인 참관 안내 등을 담당하는 외사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1930년 3월 북한쪽 강원도에서 출생한 그는 50년대부터 외무성에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 대사관 1등서기관,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전씨는 직책에 걸맞게 지난 8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82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김일성훈장' 등 각종 훈장과 상을 받았다.

가족으로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남 영진은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외무성 8국(서유럽국) 프랑스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때 프랑스주재 북한일반대표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취재기자 bor@kdaily.com



# 흥분삼킨 절제된 만남 우리는 또한번 놀랐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2000년 6월 13일의 과거 흥분 감동은 분단 전쟁 중의 과거가 무너지는 장대한 의식이었다. 새 세기, 새 팔레니엄의 첫 6일은 전쟁과 상유의 역사를 의거해 화해와 평화의 현실로 돌리놓았다. 우리는 마침내 세계 냉전의 잔해를 함께 녹여내고 또 성공 뛰어넘으리 하고 있다. 역사적 시간은 종종 물리적 시간을 초월한다. 평양으로의 짧은 비행, 순안비행장의 환영과 임관의 의식(儀式)은 55년 걸린 긴 비원의 속도와 다르다.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첫방은 우리에게 인유의 달 착륙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 김강일 국방위원장의 공상 양상은 모두의 예상울 깨는 과격이었다. 세계를 향한 그의 첫 등장이 반세기 동안 적대하던 남북 최고지도자와의 공개적인 대담 대면을 통째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시간이 맞는 듯한 짧은 만남 이후 짧은 여러 번 만남 뜻밖의 만남과 표정으로 서로를 맞았다. 두 정상은 맞잡은 손은 적대의 과거를 넘어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의 기교이다. 나아가 둘의 약속은 민족 전체의 화해의 약속이다. 이들의 약속은 이제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항구적으로 소멸되었음을 내외에 과시하고 다짐하는 약속한 자기약속이 되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고통과 시련은 오늘의 재해물 위한 기쁨이었다. 그 기쁨 없이 오늘의 시련은 불가능하였다. 두 정상은 흥분보다는

## 두정상이 맞잡은 두손은

## '적대' 넘어 '화해'의 기교

고도의 집착으로, 딱딱함보다는 자연스러움으로, 어색함보다는 긴밀함으로 우리와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두 정상은 너무나 정상적(正常的)이었다. 그들은 왜 흥분하지 않는가? 지 겸재는 민족의 비원의 깊이를 함축하고, 흥분조차 삼갈 만큼 냉정해진 지난 시국 우리의 아성과 준비를 드러낸다. 이들의 집착과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이 하루를 얼마나 오랫동안 예비해왔는지를 웅변한다.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지고 약속하는 김대중의 도착시행은 그의 평양방문의 핵심 메시지이다.

첫 만남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미래의 창조(定礎)가 되어야 한다. 첫 김강일회담에서 민족의 화해합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는 짧은 진언은 미래의 민족사의 긴 과정의 방향을 걸침지을 연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입장을, 태도를, 자세를 점검하 추슬러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두 정상은 전체 민족의 열망과 화원을 낚는 시대정신의 구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만민하여 평양에서 맺는, 만도의 남단으로부터 북한에까지 뻗어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의 소리를 듣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명의 소리들.



박명현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연정연구소  
협동연구교수

# 경향신문

2000. 6. 14 (수)

2000. 6. 14 (수)

# “저렇게 쉬운걸” 한탄 ‘열광적 환호’에 당혹

## ‘역사적 만남’ 시민 표정

## 발길 멈춘채 ‘울음바다’ 김위원장 영접에 놀라움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이 하나가 되려는 합심이 한반도 전역에 매이리쳤다.

기습에 웅어리졌던 현은 감격의 눈물이 되어 흘러 내렸고 짓눌렸던 심정민들의 마음은 어느새 고향집에 가 있었다.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36분. 김대중 대통령과 김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두 손을 꼭잡는 순간, 시민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탄성을 질러댔다.

서울 구기동 이복도전에 모여 TV를 지켜보던 심정민들은 김대중령이 탄 비행기가 순안공항에 모수를 드러내자 “미친내 복덕하늘이 없었구나. 저렇게 가까이 쉬운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대중령의 도착 직후 갑자기 평양시민들의 함성이 울리자 “김강일 국방위원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김국방위원장이 걸어오는 장면이 비치자 눈물 의심하며 일제히 “김정일이다. 김강일”을 외치었다.

김대중령이 비행기에서 사서히 내려 김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자 심정민들은 고향방이라도 밟게 된 듯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음바다를 이뤘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도 김강

일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지 못 두 발길을 멈췄다. 역대 TV마다 30~40명씩 모인 시민들은 김국방위원장의 극적인 출현에 놀란 표정들이었다. 모두들 눈물을 닦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일부 시민들은 소리내어 환호하기도 했다.

북한 등식 전문잡인 서울 대시동 옥류관 본점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심정민들이 모여 오랜만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현을 풀어헤쳤다. 남북 영연 출현의 환영속씨(69-여)는 “이제라도 억산에 묻힌 아버지 묘소까지 꼭 찾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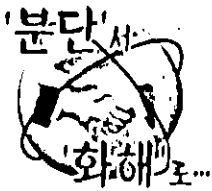
그러나 김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출현과 공항 환영객은 북분연도의 60만여 인파가 밀려서 구르며 환호성을 질러대는 모습은 상당수 시민들에게 직장은 땀과 감격 충격을 안겨줬다.

한 네티즌은 PC통신 게시판에 “김국방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령을 영접하고 인민군 의장행사까지 하는 북한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 흥분스러웠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60만 평양군중이 비슷한 마음으로 반세기를 연호하는 것을 보며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역사보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공단체 관계자들도 “김국방위원장의 영접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극적인 연출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주 평민기자  
sicho@kmb.co.kr

# “통일... 만세...” 60만 평양시민들 열광



### 북녘동포 손님맞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 8시 40분 평양시 선유봉에서 즉석인 백의위영민관으로 가는 연도에서 60만 평양시민으로 구성된 환영시행단의 위엄찬 환영을 받았다.

위복과 현복으로 사리 없는 평양시민들은 위대한 첫대면을 손님을 맞이하듯 환영하며 위대한 밤을 구르고 열렬하게 환영의 감격을 눈물로 흘리기도 했다.

### “상인들 모두 나옴셈”

오전 10시 30분 선유봉을 떠난 차(차량)는 20분 만에 11시 10분경 평양시 압구정 연도에서 도착해 강사 장차했다. 김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을 향해 첫대면을 받은 뒤 10분 정도는 남대현에서 정경애 악수한 후다. 김대통령은 관에서 방음용 차에 시민들과 악수를 했다.

시민들은 김대중과 김정일 조부(부부) 1.1을 손녀 “조국통일 만세” “김정일 장사 후위(後衛)”를 불입에 있었다. 그 장면은 거의 압구정이었다. 환영하는 평양시 과업은 없었다. 100km에 걸친 길에 나타난 것을 환영할 때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 연대원은 “평양시민이 200여



김대통령 차에서 내려 손흔들어 답례... 악수... 10km거리 ‘꽃술 인산인해’... 학생악대 분위기 고조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13일 백의위영민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 모여선 평양시민들이 꽃술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평양-화해대사관지단

만방향을 김안할 때 시민들은 모두 다룬 것으로 보여 한다”면서 “몇 시간 간격으로 동원될 내리면 시민들을 모두 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절을 축하할 때도 이처럼 시민들이 환송을 했다”고 밝기도 했다.

다른 연대원은 “남측의 김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연대”라면서 “어제는 난색이 초였는데 남북이 알아 주는 것 같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국가수반 환영 코스

김대통령의 자동차 행렬은 연도 동을 거쳐 4.25문화회관이 있는 서성구에 바리거리, 6.25전쟁기념관이 있는 모란봉구역의 천송거리, 후구역

관내거리와 만수대거리, 조선혁명박물관과 김정일 수석 동상이 있는 만수대연덕을 차례로 통과했다.

이어 모란봉구역 개신거리와 압구정 관내대동상 앞을 지나 개신동일거리에서 모란봉구역의 침실문거리에서 우의탑(조선전쟁기념탑), 중국대사관 앞을 거쳐 다시 바리대동거리, 금성거리, 바리대동거리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이동했다.

김대통령 일행은 이 사거리에서 관공회맹사자관이 있는 금성거리 쪽으로 향해 김정일 장남대위, 김정일 수석 지인이 위치한 금수강산공정관을 지나 백의위영민관으로 갔다.

김대통령의 이동경로는 김수익이 설계해 복선을 방문한 주요 국가 수반과 함께 평양시민들의 연도 환영을 받으면서 이동했던 코스로 알려졌다.

### 차도로 뚝 들이밀기도

남자들은 양복을 입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고 여자들은 대개 한복을 입었으며 연도 중간에 화성도로 구성된 악대가 나와 행진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환영인파로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은 편이었으며 행렬이 지나갈 때는 더욱 큰 추리로 환영을 표했다.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몸을 들이밀면서 반겨줄 것을 표시했다.

현관 회견이 한 차원이 김대통령의 본래와 본래의 숙오인 고려로 방문 행하는 연도에도 시민들이 나와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로는 역시서 없었다. 평양 공화국제단

## 우리가 알고있던 김정일이 아니었다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소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가 아니었다.

최근 관공회맹은 그동안 김대중 위원장을 응대자로 부으며 그의 어투를 추방을 부각시켜왔다. 김대중 위원장은 방수가 되고 있어 빨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 또 성격이 친근형적이고 단에 보였으며 모자라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의 허위 허신도 김씨가 초연관에게 나타난 김대중 위원장은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했다.

###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에 국민들 “흔란”

### “인위적 카리스마에 무서움 느꼈다” 반응도

김대중 위원장은 몸 전체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TV 생방송을 지켜보던 북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놀라움처럼 잡아 놓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생방송 이나 방송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리 김대중 대통령과 이례로

어사의 김을 안내하며 세심하게 배려하는 차분함을 보였다.

이따금씩 흔들리는 손동작, 열게 지은 미소 등은 오랜 시간 동안 재워해줄 의지는 김대중 위원장의 권력을 대변했다. 김대중 위원과 김정은 씨의 인주십 경호장에게 “김정일이 왔나”며 유머를 던지는 어금까지 보였다.

중계방송을 지켜본 시민들은

“놀란다” “중거적이다” “김대중 위원장을 새로 보게 됐다”며 입을 모았다.

일부 시민들은 “무리로 강도로 뒤받쳤다” “인위적인 카리스마에 무서움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고인식 씨(31·회사원)는 “김대중 위원장의 모습이 이제까지 알던 것과는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남북에서 ‘김정일 신드롬’이 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화춘기자 arsu@kmb.co.kr

# 맞잡은 '한 형제'... 복음길 활짝 열리길



## 교계 반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기독교계는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두 정상회담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쁨이 되길 기원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모든 공예회에서 빠짐없이 통일과 남북화해를 위해 기도해 왔으며 이번이 그 일대중 하나를 결심한 것이기에 이번 회담이 50년간의 반복과 대립을 끊고 화해와 일치, 복음화의 새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만신)는 소속 각 교회가 11일 주일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기도를 드렸다. 또 남

북정상회담에 KNCC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으며 정상회담 후 전개될 실무자 회의에 대표자가 참석해 남북 종교교류의 협력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교유의 새 장을 여는 초석이 되길 전국 회원교회와 함께 기원하며 특히 복안교회 새건에 지렛대가 되길 원하고 있다. 또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한국교회와 대북 지원, 구호 활동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며 소속 교회의 단체 기관의 대북 활동 단결하는 물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장구 일원화도 김

문 중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민 자립과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두 기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의원단인 현강 시민공원에서 기도회를 공동주최했으며 12일 부녀 회회기도실에서 남북화해 성공을 위한 찬기도회를 갖고 있다.

한편 기독교민족화합운동본부(성인대표 김종관목사)는 10일 김의민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이날 불교계와 함께 남북통일의 원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하나남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연합회 등에도 남북화해의 열매를 맺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에도 국내 각 교단들과 단체들도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이날 불교계와 함께 남북통일이 앞당겨질 것을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개교기념로 50년정신을 기원하는 특별기도회 및 비상기도회를 갖고 있다. 신촌교회 장신강 원로목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교유의 불꽃을 뜨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쉬고 싶다면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도 심고 싶다면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라"고 말했다.

김무정 김규원기자 moojeong@kmb.co.kr



## 아름과 예서처럼

형제가 하나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형제여 이제 예서와 이교처럼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강고한 MF 한국과 살인적 기대로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의 교만과 비종교를 회개하자.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영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서고 있다. **평양 청와대사진기자단**

## 교계지도자들 국회서 철야기도

한국교회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초선 기도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장신교연합회 전국대학생신교회 등의 지도자들은 12일 국회 의사당 예배실에 모여 찬아 기도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뒤 밤 12시까지 통성으로 하나님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특히 코리안기독교병신도세계연합회 장인태 회장과 한국교회평신도단체

연합회 하대호 회장, 예스티기도회 박선례 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남북통일과 남북정상회담, 국회와 바른 김치를 위해 기도했다.

하대호 회장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대표기도에서 남북정상들이 통일로 가는 통틀은 나라를 놓아수길 간구했다. 찬아 기도회 예배는 한기총 박영철 총무의 사회로 대학생신교회 김준관 총재가 살교했다.

김종재는 성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육중사신을 보니 대통령 부부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며 "하나님이 이번 정상회담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려치럼 기도하자"고 말했다. 찬아 기도회에는 국회 초선 기도회 김영진 회장과 이종민 협동총무뿐 아니라 김경진 민생기 박세환 의원, 이만신 한기총 대표회장, 구지문 직장신교연합회 회장, 교영근 복음신교회장, 뽕민트 김영숙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국회 의회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찬아 예배를 드렸다. **김규원기자**

# 서울경제

2000. 6. 14 (수)



金永南



趙明珠



崔泰福



金國壽



宋浩景



金國壽



楊錫延



安景浩

## 최고인민회의 수뇌부 대남사업 실세 총망라

### 김대통령 영접 주요인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25분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북측 주요인물들이 공항에 나와 김대통령을 영접했다.

이날 북측 주요 영접인물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 김국태·김용순·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으로 이들은 순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트랩 앞까지 걸어가 김대통령을 영접했다.

이외에도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은혁 상임위 서기장이 김대통령을 맞았다. 기내 영접을 담당해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북측 인사는 '금수산기념궁전 외사국장' 전희정으로 김일성 주석 생전 때에는 '주석부 외사국장'을 맡았다.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김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북측 인사 가운데에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송호경 조선

### 평양순안공항 영접인물

|     |                               |
|-----|-------------------------------|
| 金正日 |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
| 金永南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 金日成 | 군총정치국장                        |
| 崔泰福 | 최고인민회의 외장                     |
| 金國壽 | 당비서(김부일당), 최고인민회의 대외민지적 심사위원장 |
| 김영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인총위원장        |
| 金東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
| 송호경 | 당비서(대남일당)                     |
| 楊錫延 | 외무성 제1부상                      |
| 宋浩景 | 조선 아·태 부위원장                   |
| 안민길 | 평양시 인민위원회(시장)                 |
| 안경호 | 조광일 서기국장(일명 안병수)              |
| 송희조 | 김정일 외전 담당비서, 당중앙위원            |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민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광일) 서기국장 등 북측은 얼굴들도 눈에 띄었다.

순국방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는 공항에 나오지 않았고 당 중앙위 비서 가운데 한성룡(경제 담당), 김기남(선전 담당), 김중린(노동단체 담당), 전병호(군수 담당), 계용태(공안 담당) 비서 등은 보이지 않았다.

/평양=공동취재단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GAZETTE

2000. 6. 14 (수)

## “민족화해 출발점”

與野 남북정상회담 성명

여야는 13일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특별성명에서 “13일은 민족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55년 세월은 너무 아프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접고 소모적인 경향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평화와 협력을 향한 전력질주를 위해 국민적 지지가 어때보다 간절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원하며 갈등과 분열로 집착했던 55년 분단의 역사를 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련 김희원 대변인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반세기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다리를 건설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종재 김명호 김의구기자

## 곳곳 초고층빌딩 ‘국제도시’ 개방물결

평양은 어떤 모습인가

대동강과 보봉강을 끼고 한 나지 막힌 구릉지로 이뤄진 평양은 선사시대 이후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됐다. 이후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의 터전이 됐고 고구려와 고려 시대에도 한때 수도 구실을 했고 북한 사회주의정권 수립 뒤 ‘붉은 혁명의 선전도시’ 역할을 해왔다. 평양시가지는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이후 사회주의식 도시로 재탄생했다. 70년대에는 ‘혁명의 수도 건설’ 기치 아래 만수대의 김일성 황금총상 등 대형 건조물이 곳곳에 들어서 주체시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됐다.

면적은 서울의 3.5배에 인구는 250만명으로 19개 구역과 4개 인접군으로 구성돼 있다. 대동강 북쪽이 중심지역으로 정치 예술 문화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다.

평양 북쪽에 위치한 순안공항은 평양과 세계를 잇는 관문이다. 국제 열차가 베이징까지 하루, 모스크바까지 1주일의 거리로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키고 있다.

평양 시대에는 시내버스가 러시아 위에 2~3분, 평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87년 관광사업이 본격

### 평양의 주요 지표

|        |  |
|--------|--|
| 면적     | 2113km(서울 606km)   |
| 인구     | 250만명(서울 1032만명)   |
| 연평균기온  | 9.6℃(서울 11.3℃)   |
| 연평균강수량 | 947mm  |
| 행정구역   | 19개 구역·4개 인접군(25개구)  |
| 시장     | 일반시장(서울 고건)  |
| 교통시설   | 지하철(3개노선 총역장 14km), 계도전차, 무연도전차, 버스, 택시  |
| 공공시설   | 금수산기념궁(주석궁), 만수대의사당(국회), 김일성기념관, 노동당사, 장무위당사, 김정일사적관, 인민대학습당(중앙도서관에 해당), 인민문화궁전, 만수대에술극장, 평안대학관, 3대혁명전시관 |
| 체육시설   | 5·1경기장(루리도경기장), 김일성경기장, 양각도체육경기장, 평안개목산  |
| 유적·조형물 | 김은모유류적, 평양성, 유개선문, 천리마동상, 김일성 황금총상   |

자료:통일부 등

화되면서 택시 400여대가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에 일반화된 무계도 전차가 운행중이며 91년부터 중심가에는 계도 전차도 등장했다. 73년 첫 개종된 지하철은 현재 총연장이 31km로 알려지고 있으며 100m 지하에 대형 모자이크 벽화와 상달리애로 장식돼 있어 지하 궁전으로 불린다. 김의구기자

# “우리에게 도움될 것 없다” 중국 “남북은 정상회담하는데…” 대만

## 中·대만의 시각

남북이 정전 협정을 체결할 경우 대만과도 어떤 협정이 어떤 것 체결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대만은 정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는 남북 협정이 어떤 남북정착협정이냐에 따라 대이적협정, 군사비협약 체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양안관계 개선과 관련해 대이적협정이나 군사비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만 대만 정부의 정책변화 시점이 언제일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양안관계는 “남북은 정상회담이 체결되면 대만은 언제라도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만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양안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대만은 중국과 대만은 어떤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만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은 남북정착협정 체결이후에 어떤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만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은 남북정착협정 체결이후에 어떤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만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베이징 정부는 “남북정착협정 체결이후에 어떤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정착협정 체결이후에 어떤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베이징 국제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인 왕위안(王偉安)은 “이번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중국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지만 양안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의 수석대변인인 장위(張偉)는 “이번 남북간의 정상회담은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의 다른 인사도 “대만은 남북정착협정 체결이후에 어떤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일 도쿄의 스키노미야에서 열린 스키노미야로 방송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장면. 왼쪽부터 김대중, 김 Jong-il, 김 위원장, 김대중, 김 Jong-il, 김 위원장, 김대중, 김 Jong-il, 김 위원장

# 김위원장, 김대통령 최대급 환영 일본

## 각국 반응

일본도 주한 미국 공관 앞에서 김 위원장과 김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양안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대이적협정 체결”은 “남북정착협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남북정착협정”이 체결되면 대이적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4국의 관심.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열린 김대중 남북정상회담. 왼쪽부터 김대중, 김 Jong-il, 김 위원장, 김대중, 김 Jong-il, 김 위원장

# 위탁·단순교역서 직접투자 '진일보'

## 남북경협 분야별 전망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 항만,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에너지 분야 경쟁과 국내 제조업의 북한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현대기·위탁·간접과 단순교역에서 직접투자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남북간 물자수송은 목초가 풍부 있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초기단계에는 제도적 합의만으로도 수송이 가능한 항공과 해운 위주로 교통망을 연결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길거리 대량 화물을 직접 수송할 수 있는 철도망과 인적교류에 대비한 도로망 연결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한 교통체계의 이질성 해소를 위해 북한 철도의 개량·복선화, 도로망 건설 및 항만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의 경우 경의선(시골~신의주) 단거리구간은 남북의 분선~장단(12.0km)과 복선의 경단~봉동(8.0km), 경원선(시골~원산)을 남북 단거리~군사분계선(10.2km)과 북측 군사분계선~평강(11.8km)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금강산선(시골~금강산)의 경우 남북 침원~군사분계선(21.5km), 북측 군사분계선~기성(50.8km)을 이를 제외한다.

도로망의 경우 북포~인천~남포~신의주남 있는 남북 1축을 비롯해 남북경단 7개축을 중심으로 우선 단거리 북포노선을 남북구간부터 복선화한 뒤 북한지역까지 연장 및 복선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통합할 계획이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10조



정몽헌 현대인사이사회 회장, 장지혁 고원 회장 등 제2인사들이 남북정상회담 수행인으로 평양에 가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공창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희기자

## 세계 '北行 보따리' 뭉까

### 도로망 철도 3개선·도로 7개축 연결 추진 에너지 北 석탄 의존... 무연탄 우선 지원 제조업 南 섬유·신발-北 노동력과 결합

원 기업이 필요하며 일본의 산업자본·국제기구의 공적차관 등 재원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기업인 한국전력이나 부두공단을 통해 두만강 유역 중류권과 러시아 접경지의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에너지-북한과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지원 내지 교류할 수 있는 분야는 전력 사업과 무연탄, 석유·가스 공동 개발 등이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꼽힌다.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1000만t 가량의 무연탄의 경우 비교적 손쉬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비중은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 등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과 관련, 한국전력은 평양 인근에 화력 발전소나 건설하거나 수송 등 수력 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과와 이연 등 과거 남북 교역의 주요 품목이었던 캔류 지원에 대한 공동 탐사 및 개발 생산, 해외 판매망 구축 등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제조업분야-지금까지 국내 제조업의 북한 진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16개

기업은 단순교역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51.9%인 반면, 직접투자하는 기업은 32%에 불과했다.

제조업 분야 대북진출이 아직은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밝아질 만한 것이라 전망이 많다. 특히 남한의 유수기업이나 사업산업의 참여를 북한은 도시,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남북관각사업의 현대가 주축 이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지만 자금업 분야에서 크게 뒷받침된 북한과 뛰어난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남한이 힘을 합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의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도 남·북 화원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산업예전 대만기업들은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를 평양공단에 보내 이 곳의 공장부지와 노동력을 이용, 한 달에 15만달러의 신발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참가기업이 대기업과 결합하면서 남북경협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대일수출과 함께 북한에 가라비 양식사업을 추진한 기업이 있는 LG상사는 최근 인티넷에 대한 참가기업성담간담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북한업체의 결합 추진, 사업 대역, 투자지원 등의 서비를 시작했다. 신중수 남호성기자 jsshn@kmb.co.kr

## "평양선 이런 사업을"

귀촌 벤처기업가 윤승재씨  
'비즈니스 아이템 100'출간

남북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귀촌 벤처사업가인 윤승재씨(35·필

명)가 소자본으로 평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100가지 사업을 소개한 '평양 비즈니스 아이템 100'(민비디어, 1만원)을 13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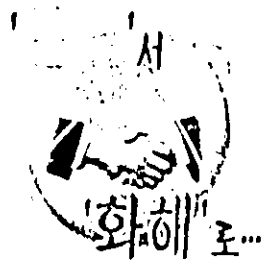
이 책은 아이티뱅크, 대북투자 관련 남북한 법규, 대북투자대인 Q&A 등 분야로 나눠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종류와 방법 등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93년 10월 평양청도대학 제1차 중 두만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이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북건설위원회 인태YT&C 대표를 맡고 있다.

송세영기자 sysohng@kmb.co.kr

# “北 지원비용 국제적 분담을”



## 국제사회 협력 어떻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경제 제국을 위한 재원을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일과 김정은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에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시애틀대 주최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26차 대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에서 장흥수 KIEP 연구

## 한반도 평화·안정 세계경제 기여 대가 무상지원 또는 특별신탁기금 설립해야

위원은 ‘북한 경제 제국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국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한 대북한 지원자금 조달은 상당한 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의 기업들도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부자는 기피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본격적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북한지원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장연구위원은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공포가 세계경제에 가져다 주는 해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용분담을 요청하는 논리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북한의 국

제금융기구 가입은 미국의 테러리스트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면서 가입 이전에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특별신탁기금 설립을 통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부기관(NGO)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NGO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대외이미지가 개선돼 세계경제질서로의 일정한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 양측의 상호 경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kmb.co.kr

# ‘경제공동체’ 출범할지 주목

## 회담 경험의제 평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의제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수행원으로 이현재(李完宰)제정경제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관계자가 참여 있어 협력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양측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로 도로·철도·발전소 등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각종 제도장비,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출범 등을 꼽고 있다.

우선 SOC 확충 방안은 북한측이 지난 3월 정상회담 개최 발표 전 이미 남한측에 지원을 적극 요

## 北 SOC 구축 최우선 논의 투자관련 법·제도 개선도

### ‘보장협정’등 가속도 넓듯

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이 부분이 경제분야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어렵다”면서 “경제의 허부구조를 이루는 SOC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측의 적극적 인 농업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만에 달하는 식량 부족이 시달리고 있어 식량·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무지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법제계 및 제도의 개선도 남북

경제의 침포를 트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찌부터 정부측에서 거론돼 온 사항으로 이번에 적극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무지원금 환수 보장, 재산권 보호 및 과실승급 등을 위한 무지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전쟁조침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지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실무선에서는 대략적인 내용검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적인 합의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논의할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급급 조속한 시일내에 출범시키는데 협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동훈기자

# 식량증산·원자력분야 남북교류 '0순위'

## 과학기술교류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과 함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부분으로 단연 과학기술 분야가 꼽히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상호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관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 데다 식량증산, 원자력 등 남북한의 시급한 관심사항이 많아 여타 분야 교류보다 물꼬가 일찍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전망 아래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잡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자칫 이같은 움직임이 앞서 가는 모습으로 비쳐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남북한간 과학기술 분야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교류가 이뤄질 부분은 슈퍼옥수수 및 인공씨감자 등 식량증산과 원자력, 전력, 기상정보 등 크게 4개 분야로 전망된다.

슈퍼옥수수와 인공씨감자 등은 이미 일부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남북대화가 무르익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슈퍼옥수수 등의 기술보급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분야는 안전성 확보 문제가 교류의 주요 내용이 된 전망이며 전력은 공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키 위해 전압 등

관련 기술 및 용어 등에 대한 통일작업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상분야는 각종 기상정보 교환을 통한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년 전부터 북한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뭄해소에 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공동연구와 생명공학,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기획·조사·교류 등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4억원의 4배에 육박하는 15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

또 국내 대학 및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과기협력 수요조사를 벌여 농약과 식품, 칠도개살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천새문제, 원자력, 도서관 전산시스템, 기술표준, 컴퓨터 교육 등 분야별 세부교류협력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남북한 기술교류는 지난 91년 8월 중국 연지(延吉)에서 열린 중국국제과학기술학술회에서 남북 과학기술자 148명이 만나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정부가 남북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을 3단계로 구상, 추진했으나 대화중단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1단계로 민간차원의 협의기구를 통한 민간과학기술교류와 제3국에서 개최되는

**옥수수·씨감자등 민간차원 이미 교류  
전력난·가뭄해소도 우리측 도움 절실  
과기부, 예산증액등 본격적 준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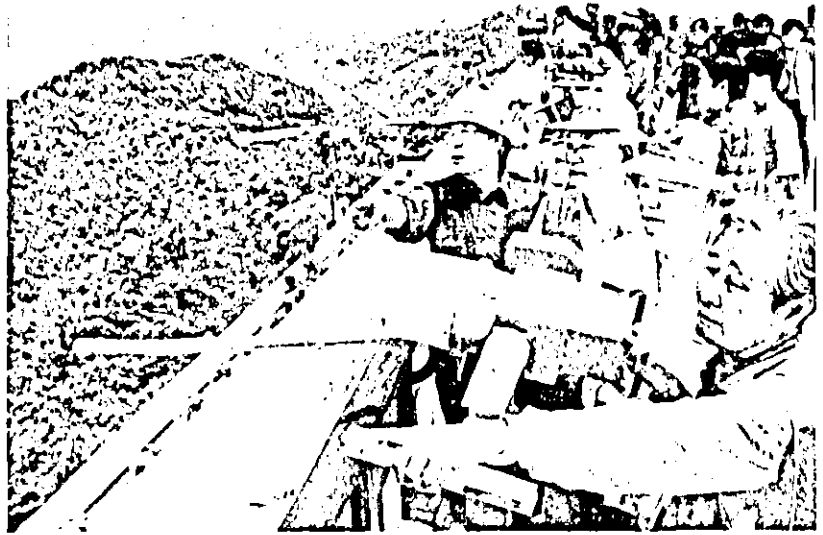


남북 과학기술교류가 본격화 될 경우 현재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슈퍼옥수수 및 인공 씨감자에 대한 연구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김순권 박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북한의 미림 옥수수시험장을 찾아 기념 촬영했다.

각종 학술회의에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2단계로 관민합동에 의한 직접접촉으로 평양과 서울에서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등 정보자료를 교환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외자유치사업에 우리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3단계에서는 남북각료급 회담을 통한 협력추진 확대와 함께 실무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 대화창구를 마련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독일도 통일되기 직전 정부 연구조직인 마스프랑크(MPG)와 프리운호퍼(PHG) 연구소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의 통합을 추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색이 덜한 과학분야부터 교류의 물꼬를 터 남북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홍기자 kimnamy@kmbi.co.kr





“고향 갈 날 곧 오겠지...”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를 찾은 실형인과 관광객들이 남북정상 회담이 없려고 있는 망명죽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오두산=곽경근

## “통일 멀잖았다”실형민들 박수·함성

### 휴전선일대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 모습을 지켜본 휴전선 일대 주민들은 “북한의 그 날이 빨리 올 것 같다”며 환호했다.

차진선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장병들도 이날 김계대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회담으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길 기원했다.

13일 오전 입진각을 찾은 실형민들 60여명의 관광객은 김대중령이 평양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 방송사의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자 일제히 박수와 함께 벅찬 감격에 함성을 터뜨렸다.

원산이 고향이라는 남상구역

(67·강원도 고성군)는 “김대중령과 김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라며 눈물을 글썽했다.

북한 개성 시가지가 눈앞에 보이는 휴전선 도라전망대를 찾은 일반인 관광객 허다케야마베(62)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진마을인 기정동과 마주보고 있는 우리측 최북단 마을인 파주시 문내면 조산리 대상동 마을 주민들도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TV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봤다.

충부전선 북측 최전방 진지와 철과 2km쯤 사이에 두고 김계군무렵 시고 있는 을사부대 장병들은 “이번 회담으로 국민 모두가 통일

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있지만 진방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김계대세를 놓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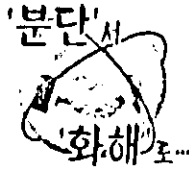
관광객비행 중에 마르본 북측 GP에서는 10여명의 북한 방문객이 철색선 인근과 GP를 오가고 있었으나 정상회담과 관련한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해진으로 큰 붓개 피해된 원평도 어민회(회장 신승원) 회원들은 붓개가 맑을 북방한계선에서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인 만큼 남북정상이 합의할 통해 북방한계선의 어장들 개방, 붓개질이 끝나면 어민들까지 남북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희망했다.

파주 철원 연평도=김철호 신원식 정창교 sever5@kmb.co.kr

## “정상회담서 극적 합의 이룰 수도...”

# 이산가족 상봉신청 봇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신청했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승인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신청장소까지 붐비는 분위기가 일출 연선기관과 직접지사 등에 대두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내무직접지사 등에 따르면 생사확인 건수 이산가족 찾기가 집중장소가 개설된 지난해 8월 이후 연방까지 신청자들의 신청건수는 20여건에 불과했으나 5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66건에 달하는 10여건에 이르렀다.

충청남도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두 건에 그치던 신청건수가 이달 들어 10여건에 이르렀다. 대전직접지사 강기도지사대 이산가족찾기 캠프에는 지난 1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이튿날에는 1주일에 2~3건이던 것이 최근 하루 3~4건 정도로 늘어났다.

〔1〕 남주가 고향인 이순연 할머니(87·고양시 주안동)가 14일과 때 북에 투영은 아내와 10년여를 갖기 위해 고요히 평양(평양)을 통해 상봉신청을 하는 등 고양시에서만 이달 들어 10명이 접수했고 의정부시에서도 같은 기간 60명이 신청했다.

생(생)이 70명만에 달하는 인천의 대년직접지사 지사에도 지난 1개월 간 평소보다 20%가량 늘어난 50명이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했다.

지난해 신청건수가 99건이던 부산에서는 남북정상이 만난 13일 하루 동안 60여건의 신청건수에 이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해준 지난 4월10일부터 접수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전직접지사 광주·전남지사 박준규 사회봉사팀장(40)은 “북쪽의 이산가족들에게 편의 아닌 피해는 주게 될까와 지금까지 신청을 미뤘던 사례가 많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봉 방안 등을 극적으로 합의하면 신청자는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만 명북신청을 낸 김50년 할머니(83·강기도 기흥읍 상갈리)는 “북에 등 고향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이산가족 찾기 명북신청을 했다”며 “55년만의 남북정상 회담인 만큼 신청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자유로운 왕래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무

# 김위원장 “같이 사진찍자” 10년지기 만난듯 친밀

## 백화원영빈관 이모저모

○...김대중 대통령과 김장일 국방위원장은 오전 11시15분쯤 같은 승용차를 타고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했다. 김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백화원영빈관 입구에 잠시 서서 뒤차로 도착한 이희호 여사에게 먼저 들어갈 것을 권하는 등 기법히 여유했다.

김대통령 내외는 숙소 입구에서 보리색과 주황색 헌복을 쉽게 차려 입은 북한 여성들로부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건네받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과도치는 바다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통령은 이때 남북한 사진기

김위원장은 김대통령 및 공석수행원과 함께 원근하면서 “앞에 선잠자 없게 쫓아내니 멀리까지 마십시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박3일 동안 (세계에) 대담을 취하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 넘친 어조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위원장은 이때 남북한 농담도 건넜다.

김위원장은 낮 12시10분쯤 상남 및 1차 회담을 겸한 민담을 마치고 집권실에서 나와 김대통령 및 공석수행원들에게 “잘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하면서 위압이 약수를 하고 헤어졌다. 김위원장은 안주삼 청와대강호실장과 약속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북측은 상남을 겸한 1차 회담시작 때부터 거의 끝날 무렵까지 남측 공동취재단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 김대통령 내외는 김위원장이 백화원영빈관 전 지난 뒤 김명현 백화원영빈관장(64)으로부터 영빈관내에 진사돼 있는 꽃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관장은 회담 2개에 참여해 있는 파란색의 ‘김일성화’와 회남 5개에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김정일화’ 앞에 이르자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 식물원이자 보낸 것이며 김정일화는 일본 식물학자가 재배해 보낸 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심히 살펴봤다. 김대통령 내외는 김관장 안내로 숙소로 들어가 우리나라 TV를 통해 순안궁환 도착장면과 순안궁환에서부터 백화원영빈관에 이르기까지 한두에서 한영방송 장면을 시청했다.

## 이희호여사 門안내 각별한 예우 김위원장 농담하며 분위기 주도 1차회담 전과정 전격공개 ‘파격’

○...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과도치는 바다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통령은 이때 남북한 사진기

김위원장은 또 “김용순 위원장은 어디에 있어”라며 김위원장을 불러 김대통령 내외와 공석수행원, 김용순 위원장과 함께 다시 한번 포즈를 취했다.

○...김위원장은 사진촬영이 모두 끝나자 김대통령 내외와 공석 수행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김대통령 내외와 공석수행원들을 점진적으로 안내했다.

점진적으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대해 “감개무량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 특별수행원 ‘주암산초대소’에 여장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대표단 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21명은 2박3일간 평양의 주암산초대소에 머물게 된다.

국정홍보처 오홍근 차장이 이날 오전 9시30분 롯데호텔에서 남북 정상회담 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수행원들의 숙소로 주암산초대소라고 확인했다.

일명 ‘주암산영빈관’으로도 불리는 주암산초대소는 평양시 중성기에서 동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대성구역 미안동 모란봉 마지막 기슭인 주암산에 위치해 있다.

이 초대소는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로 사용되던 금수산의사당(현재 금수산기념궁전) 부속건물의 하나로 평양

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숙박시설로 점진상회의실 사진촬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촬영실에는 금강산 폭포와 단풍을 배경으로 한 대형 벽화가 부착돼 있다. 주암산초대소는 1989년 1월 김주영 전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시 숙소로 이용했으며 199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CU) 총회에서 캄보디아 박정수 당시 국제 외무위원장은 숙소로 사용했다.

주암산초대소는 호위사령부 2군 소속으로 백화원영빈관이 함께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원영빈관으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 중앙일보

2000. 6. 14 (수)



## 주철환의 평양 보기

# 화면 가득한 충격 우린 TV에 感電됐다

나, 그리고 후세의 언론사가 들은 오늘 TV를 지켜보았던 체험을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

“그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순간 TV에 감전됐다.”

공감없는 동반자가 바위를 뚫었다. 우리의 눈 앞에서 이뤄진 그것은 역사였다.

텔레비전이 바보상자의 불명예를 앞기에 떨쳐내 버린 ‘시간’이 오는 법이었다. 활자의 이성이 감법할 수 없는 감성, 감동의 리얼타임이었다. 무슨 것, 대운 것이 결코 줄 수 없는 ‘남 것의 미학’이 거기에 있었다. 인간의 마음과 기계의 메카니즘이 한꺼번에 이뤄낸 진윤의 시간이었다. 김연과 정선과 경기가 한군데로 모여 만들어낸 과거였다.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북청이 고향인 88세의 고모님이 눈물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전화통 걸어들었다.

“보았니? 보았어?” 평양의 하늘빛은 맑았고 두 정상의 표정을 의연했으며 환연의 꽃뭉감을 흔들기였다.

“반네, 반세.” 반세기 하루 연기된다고 전해왔을 때 그 기대, 그 희망이 모두 연기로 변하는 게 아닌가 내심 두려웠다. 비행기가 순안공항에 미끄러져 내리고 대통령 부부가 트랩을

내려올 때 비로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천, 수만의 눈동자는 쫓았던 가슴을 숨어내렸을 것이다.

TV엔 비치지 않았지만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는 순간 시청자의 맘과 함께 오버랩 되는 영상들은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김연의 포인, 임수경의 얼굴, 북으로 가는 이인모 노인, 소매, 그리고 북과 며칠 전의 평양학생소년연예단·교예단의 노래와 묘가...

문제는 이같은 감동이 아니라 감동 그 이후다. 영광의 짧은 의미로 긴 허무와 뒷맛뜨릴 수 있다.

비행기로 천시간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55년이 걸렸음을 헤아린다면 앞으로의 55년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역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다. 어느 기압기의 맑이 지꾸만 가슴을 때린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gift)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present)이라고 말한다.”

남은 일점 동안 TV가 전해준 평양의 화면들을 그래서 더 주목하려고 한다. 북으로 가는 길에서 온 국민을 생생한 역사의 목격자로 만들어준 TV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통일위해 평양 왔다” “환영한다”

## 金대통령·金正日위원장 역사적 첫 회담 頂上간 핫라인 설치키로... 오늘 2차 회담 金위원장 이례적 공항영접... 숙소로 동행

남북의 두 정상이 55년 만에 뜨겁게 만났다. 반세기 만의 만남이었지만 전혀 보람이 없었으며, 뜨거운 동포애를 진 세계에 과시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낮 숙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상봉을 끝낸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간 핫라인에 대해 아무 걱정없이 논의,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14일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이날 남측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이헌재(李憲宰) 재경·박지인(朴智仁) 문광 부장관과 천광익(田光逸) 청와대 비서장장 등

공식수행원 천원, 북측에서 김용순(金容淳) 조선야대평화위원장 등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27년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했으며, 김 대통령은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 국방위원장은 “세계가 김 대통령에 왜 박했는지, 내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답해 줘야 하고, 대답을 주는 사안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김 대통령의 방북을 신과

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남측의 구체적 카드담 요청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설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면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시민들이 환영해주고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김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김 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오전 10시25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심명용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 최 만찬에 참석, 평양에서의 첫 연설을 통해 “(저의)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衷心으로 바란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 그들의 흰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심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으로 직접 나와 김 대통령 등 대표단을 영접했으며, 김 대통령이 타는 벤츠승용차에 동승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동안 “대1 차종 대담”을 했다. 두 정상은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60여 만명의 평양시민이 연도에 나와 환영하지 차에서 함께 내리 환영객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예뻐한 뒤 공연도 관람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서울경제

# 南北하늘길도 55년만에 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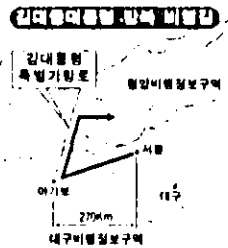
■서울~평양 첫 직항길

양측 통제분부 역사적 교신  
1시간비행길 순안공항 도착

13일 오전 9시45분 대구 항공공제본부(ACC)와 평양 항공공제본부(ACC)와 역사적인 남북간 첫 교신이 이뤄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순간 대구 ACC는 “우리 공역을 넘어섰다는 뜻의 ‘핸드 오프(HAND OFF)’를 외치고 동시에 평양 ACC는 전용기의 인수료 의미하는 ‘라제(ROGER)’로 응답했다.

이날 서울~평양간 전용기의 비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남한 비행정보구역(FIR)에서는 대구 ACC가, 북한 FIR에



서는 평양 ACC가 관제했다.

당초 전용기는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 북상할 예정이었으나 이 경 우 대구~중국 선양(瀋陽)~평양 ACC 순으로 관제권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남측과 북측이 선 양 FIR로 들어가기 직전 북상하는 항로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의 비행은 ICAO의 규정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륙 임호하는 공군 전투기들의 움직임과 군 당국의 대응은 긴장속에서 한시도 민첩함을 잃지 않았다.

전용기가 오전 9시54분 NLL을 넘어하면서 임호 비행하던 전투기들

은 각각 소속 기지로 귀환했으나 합참 지휘통제실과 오산 MCRC의 장병들은 전용기가 오전9시18분 이륙한 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오전 10시20분까지 62분간 한시도 경계 늦추지 않았다.

물꼬튼 기상교류 계속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뚫은 기상 교류가 계속되면 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9시 분단 이후 첫 남북한 기상교류가 이뤄져 김포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에 양측의 기상정보를 한시간마다 교환하기 시작해 오는 15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전용기들은 남북한이 기상재해로 매년 평균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전 감에 지속적인 기상정보를 교환해 피해감 줄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남북간의 기상정보교환은 ICAO가 운영하는 유선통신망인 AFTN을 통해 이뤄졌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 공항영접에서 숙소까지 동승 '파격 예우'

## 남북 정상회담



### 서울서 평양까지

▶ 4면에서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은 편이었으며, 행렬이 지나갈 때는 더욱 큰 소리로 환영을 질렀다.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몸을 늘어뜨리면서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식 차압 행렬이 끝나고 기자들이 탄 차량은 백외원 영빈관으로 향한 본대와 분리해 기자들의 숙소인 고려호텔로 향했다.

고려호텔로 가는 동안에도 김이나 직승으로 되돌아가는 평양시민들은 차압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표정으로 김씨와 손잡고 들었다. 그러나 구호는 외치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쯤 캐딜락 승용차편으로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에 도착, 로비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김 대통령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진다고 김 상임위원장이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 김영남 위원장 예방

김 대통령은 영접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영애 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용애 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김영수 문화산, 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안경호 조선봉서기국장과 잇따라 만수했다.

이어 남북 외교공무원 손잡이 의전장이 박재규 통일부장관, 임동원 대통령직무보좌관의 순으로 남북 공식수행원들을 김 상임위원장에게 소개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북행정차할 타고 오신건데 앞으로는 북남이 협심 협력해 통일역사를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김 대통령의 방문에 격찬의 의미할 부여했다. 김 대통령도 "그런 날이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 공연 관람

김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만수내 예술관에서 관악, 국악,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북측은 공연전 남북수행원 전원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 명의로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일행'을 위한 예술공연에 초대합니다"라고 직권 초대장을 보냈다.



“용임을 위하여” 13일 저녁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로 열린 만수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평양 함대사건기자단

## 金永南위원장 안내로 의회인사 접견 녀여사, 러원구씨와 나란히 공연관람 “어디든 갈수있나” 기자질문에 답 회피

공연장에는 남북 수행원과 북측 관계자들이 500여 규모의 좌석을 가득 메웠으며 김대중 내외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갈고하고 배신 리들의 '평양극' 속에 입장하자 박수로 환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 관련개념의 박수에 손을 들어 화답한 뒤 공연장 앞쪽 중앙에 마련된 쿠빈석에 착석했다.

쿠빈석에는 김 대통령 유족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지원 문맹부장관, 김영애 사회민주당 위원장,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고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과거으로는 이회호 이사, 문영려연 선생의 딸 리원구 조국통일민주건설 서기국장, 치병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연수 평양시당 책임비서 순으로 앉았다.

공연에서는 먼저 관악(지휘자 김병화)으로 '이리랑' '심산방에 풍년이 왔네' 등 2곡이 연주됐다. 이어 무용 평강춤, 불동이 춤, 천안상가리(북무), 키춤, 장고춤 순으로 이어졌고, 가이금 독주와 병창이 이어 무용 '눈이 내린다' 등 8가지 순서로

진행됐다. 공연이 끝난 뒤 김 대통령은 전 출연진이 도열해 있는 무대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직권 큰 꽃바구니를 전달했으며, 함께 기념촬영했다.

### 고려호텔 주변

평양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고려호텔은 4층 건물 2개동으로 방앗 중상에 위치하고 있다. 기자실 프레스센터는 이 건물 3층에 마련됐으며, 탁자와 의자 40여개, 위성 송출장비, 팩시밀리, 전화기 등 기사수출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숙소는 17층부터 25층까지 각 층별로 4~8명씩 1인 1실로 배치됐다. 숙소는 침실과 응접실, 욕실로 나누어져 있고, 탁자에 호형족에서 제공한 미니나 시과 요젠지가 2개씩 바구니에 담겨 있었으며, '동성' 표지와, 담뭍 등이 진시에 있었다. 냉방고에는 신덕생과 2종, 풍성 맥주의 사이다, 오이차 단품, 신덕 단산물이 1병씩 채워져 있었다.

침실에는 첫부터 양탄자에 심, 11개대 2개가 쿠비내 있고, 탁자와 전화기 한대가 설치돼 있다. 전화기 앞에는 '전화안내'라는 책자에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이 묵고 있는 숙소의 연결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 서울 출발

김 대통령은 오전 8시15분 평양을 향한 역사적인 첫길영을 했다. 청와대 직영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출 나선 김대중 내외는 정문 앞에 온건한 심양민과 주민들을 보고는 승용차에서 내리 감시 이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대통령 내외를 태운 승용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출근길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김 대통령을 환송했다. 오전 8시 55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대통령은 한송사에서 방북인사관 통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로 남북갈에 오셨다"고 소회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일반 환송객들을 향해 담례를 한 뒤 정주로 양면에 도열한 3부 요인 등 정부관계자들과 인사할 나눴다.

김 대통령은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환송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3.1의장대, 진흥의장대, 휘파람의 시연을 받은 뒤 도열방을 통과, 전용기에 올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남북 정상회담

北의장대도 파격

김대중 대통령은 순안공항의 환영행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내로 북한군(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을 사열하고 친업을 받았다. 이는 파격적인 의전으로 우리측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30분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함께 군악대 40여명, 육·해·공군 1백50여명 등 2백명 가량의 구상된 의장대 앞에 섰다.

이 의장대는 북한군이 자랑하는 최고사령부 '연예위반대로, 외국 귀빈에 대한 엄습행사나 국가행사·기념일 등에 나선다. 육·해·공군 4백여명으로 구성된 이 의장대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직전부 소속으로 평양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의장대도 4백여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키·외모·신원조회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선별기준은 비슷하다. 다만 우리 의장대원은 키가 1m80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보다 작은 1m75c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陸·海·空軍 200명

'노젓기' 행진 시범

金대통령엔 '환영'

金위원장엔 '충성'

그러나 남북한 정상 앞에서 10여초 동안 보고하는 것과 특이한 '노젓기식' 걸음걸이 등이 우리와는 대조적이었다. 의장용 걸음 빠른 북측 의장대장(대좌)은 간단히 '시업'을 외치는 우리 의전과 달리 두 정상에게 약 10여초 간에 겹쳐 우렁찬 목소리로 시업보고를 했다.

의장대장은 김위원장의 여러 직함(조선노동당총비서·국방위원회위원장 등)을 열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면되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인사했다.

시업대에는 김대통령을 중심으로 왼쪽에 김위원장, 오른쪽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섰다. 분업을 받으면서 김위원장만 거수검례로 답했는데,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군 최고책임자는 김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두 정상이 북한의장대대 시업하는 동안 군인들은 은색의 김철시 소총인 AK-47을 '앞에 총' 자세로 들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두 정상을 쫓았다. 이어진 분업에서 북한군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인사를 하거나 두 정상을 향해 절을 했다. 행사방법도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4월 종대로 서는 데 비해 북한은 2월 횡대로 길게 늘어섰다. 김민서·김정욱 기자

<kimseok@joongang.co.kr>

북한측 최상급 의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의전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 방문 첫날인 13일부터 파격(破格) 그 자체였다.

●김정일 위원장 공항영접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 내외의 영접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나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초청으로 84년 5월1일 북한을 특별방문자로 방문한 후아오방(胡耀邦) 중국 광둥성 총서기를 평양역에서 김 주석과 함께 영접했을 뿐이다.

金위원장 공항 출영은 집권이후 처음으로 무진 함께타며 金대통령에 상석 양보 의장대사열도 국가대 국가 관계 상징 깎듯한 몸가짐 국제무대 화려한 데뷔

김 주석은 80년 초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공항에 영접시간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의 공항영접은 북한이 김대통령을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1년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관동진을 통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평양에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영접했었다.

●속속까지 동승 영접에 이어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김 위원장이 동승한 것도 파격이다. 두 정상은 동승한 리무진에서 첫 대면의 어색한

을 털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격의없는 대화를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상석인 뒷자리 오든복을 안내하면서 김대통령이 먼저 차에 오르지 옆자리에 앉았다. 김 위원장의 동승으로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두번째 차장을 이용했다. 외교대 국민 프랑스는 국방방문 때 대통령이 공항에 영접을 나가 영빈관까지 동승하는 최고의 의전을 해왔으나 시라크 대통령 때부터는 의전간소화 지침에 따라 이런 극진한 예우가 사라졌다.

●의장대 사열 및 분업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이날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에 대해 사열과 분업 등 의장행사를 한 김도 특이하다. 북측의 군 의장행사는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통일·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의장행사는 북측이 남북관계대 국가대 국가 관계로 새롭게 규정되는 사례라는 해석이다.

●두 정상 한몸 김 위원장은 남북 공동취재단 기자 2명이 집권실에 있는데도 김대통령, 공식수령인들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고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때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91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 합의때 김 주석의 심정을 털어놓은 것도 보통의 일은 아니다. ●황성기기자 mery01@kdaily.com

金永南 국가수반등 실세 총집결

金위원장 부인 김영숙은 불참

北 영접인사들 면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수행,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마중 나온 영접인사들은 북한의 핵심실세들, 현법상 국가수반이자 시연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명숙(趙明淑)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이 김 국방위원장의 뒤에 바짝 붙어 김대통령을 맞이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1961년이후 당국제부 등 외교분야에서 일해온 대외관계 전문가다. 조명숙은 시연 3위, 군부인사 중 가장 높다. 군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대리인 격으로 군의 정치적 통제권 총괄한다. 해방전 만주비행학교를 나온 북한 공군의 1세대며 공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김국대(金國泰)·김용순(金容淳)·최대복(崔泰福)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트랩 앞까지 나와 김대통령을 영접했다. 교육담당 비서인 최대복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겸하고 있고 김국대는 인사담당 비서. 김용순은 대



김용순 당비서



조명숙 군총정치국장

남관계를 총괄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중 측근. 이대평화위 위원장, 조명봉 부위원장을 겸하며 국제문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직으로 대남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윤혁(金潤赫) 상임위 서기장도 그 뒤를 이었다.

의장대 시업을 마친 김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북측인사 중에는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장, 송호경(宋浩景) 조선어·대변화위원회 부위원장, 평양시장인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안경호 조명봉 서기국장이 있다. 반면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와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나오지 않았다.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남북 정상회담



김대통령·김위원장 대화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 김대통령 숙소인 백화원영빈관 접견실에서 20분 가량 상봉을 겸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 환영해 줘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위원장은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삽살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날 대화록을 다음과 같다.

- 김대통령 (음침실 밖에 걸린 대형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들입니까.
●김위원장 원래는 춘하추동 그림입니다(전급형 이태경회 부위원장이 '표형산의 춘하추동'을 그린 것입니다)라고 설명.
●김위원장 (김정은 이태경회와 위원장을 가리키며) 용순버섯,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행한 장관들과 인사를 못 나갔어요(남측 공식수령자들을 향해) 평양 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TV에서 봐서 잘 알니다.(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북반향에 TV로 많이

"평양시민들 환영에 감개무량·감사" 김대통령

김대통령

"방북·승낙 이유 대답해줘야 합니다" 김위원장

김위원장

방송이다. 날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치게(13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접합니다. 대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영빈관까지 올지 알려줍니다. 준비관계를 금방 알려주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김대통령을 하룻동안) 못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하니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성 북해방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000만 민족의 화합을 위해 사울과 평양의 남북도 화합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 오늘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황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관계사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 비행장에 갑니다. 이참에(김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겨냥 반속을 절반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구경하시는데 아침식사를 적게 하셨어요.

●김대통령 평양에 오면 식사를 할줄 알고 그랬습니다(웃음).

●김위원장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삽살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수위원장을 향해) '오늘(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뿔었고 김용수 위원장은 '60만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위원장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광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수위원장을 향해) '오늘(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뿔었고 김용수 위원장은 '60만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위원장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광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수위원장을 향해) '오늘(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뿔었고 김용수 위원장은 '60만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위원장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광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수위원장을 향해) '오늘(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뿔었고 김용수 위원장은 '60만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위원장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광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수위원장을 향해) '오늘(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뿔었고 김용수 위원장은 '60만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입니다.
●김위원장 그렇게 생방송을 통해(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열광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양에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함을 지킵니다. 동양에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깐씩 나오고 하는데 친만에 말씀입니다. 외사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世界日報

2000. 6. 14 (수)

남북 정상회담

김대통령 오늘일정 오전-오후에 2차례 회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 이틀째인 14일 일정은 백백하게 짜여 있다. 평양 인근 백화원영빈관에서 강직스런 첫 만남 보낸 김대통령은 이날 하루 두차례 정상회담과 관공, 만찬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 2차 단독회담과 공식 수행일이 배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은 오전, 오후에 열린다.

같이낸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두 정상간 합의내용이 공동선언이나 성명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정상회담에서는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 박지원(朴智元) 평양학생소년궁전 참관

문화관광부장관, 이기호(李基浩) 청와대경제수석 등 우리측 정치군급 공식 수행원과 김용순(金容淳) 이태경 회위 부위원장, 내각 경제담당 인사 등 북측 작고급이 배석한다.

김대통령은 회담 사이 짝을 내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단 등을 참관하고 공인도 관람한다. 시간에 따라 평양 근교 동맹임을 등 고구려 유적지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수행원과 함께 평양방문으로 유원한 옥류관에서 점심도 먹을 예정이다. 김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好) 여사는 별도로 여성친선 회의 시설인 평양사관, 장관숙취원 등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저녁에 북쪽을 위해 특별히 민중을 배운다. 우리 친북 민중주인 문배승이 참석자에게 제공된다. 민중애 김위원장이 참석하지 여부도 전조는 미정이다. (허병구기자)

첫날부터 알찬 열매 1차회담 성과평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3일 개최한 1차 정상회담은 핫라인 개설 의결, 관 등 현상 초기단계임에도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많다.

두 정상간 핫라인 개설은 김대통령이 제의하고 김국방위원장이 긍정적 분위기를 띄워 2,3차 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직접선과 핫라인 다 된 텐데"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으므로 분단 이후 남북 정기간 첫 핫라인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직통전화기 개설되면 남북간 전쟁 및 국지전 예방이 가능해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북군사공동위 가동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나아가 군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남북 두 정상이 이번 첫

만남에서 핫라인 의결을 초월한 또 핫라인 개설 등 의결접근- 폐쇄임박 형식 초월한 의결 국내외 깊은 김영

승을 보여줘 7000만 거래에게 남북 화합과 봉합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김국방위원장이 전체대 공명의 의견을 듣고 김대통령의 의견차에 동승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각도에 따라 한반도분쟁을 남북안이 합심해 풀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 주변국을 긴장케 한 점도다.

1차회담의 진부한 분위기로 보아 이번 정상회담의 출발은 일단 사뭇하다는 평가다. 아직 두어차례 회담을 남겨두긴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굳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놓인 만한 합의사항이 안 나오더라도 1차회담 안지리할 수리에서 훗날 또다른 정상회담이나 남북단국사 회담의 분위기 조성에는 한몫했다는 평가가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위원장의 언변, 훗날 가늠성도 받게 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민호기자)

# 반세기만의 만남 “환영... 성공 기대”

## 남북 정상회담



### 각국 반응

워싱턴·도쿄·베이징·모스크바·브뤼셀 11월 13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성공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

日 “차기 서울회담 합의편 완전한 성공”  
中 “한반도 평화·안정·통일 노력 적극 지원”  
러 “양측 대화 시작 주시... 결과 속단 말아야”

장을 밝혔다.

●일본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오키 미키오(奥木幹雄)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세기가 지나 양측 정상은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면서 “회담이 온민하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남북대화의 진전은

한반도 안정의 대전제이며 이제 긴장완화를 향한 돌파구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직접 출영한 것에 대해,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이번 남북은 집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차기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다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造) 수석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 지지한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궁극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외교부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진일보한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다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대화가 시작돼 양측이 건설적인 제안들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 “그러나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합의사안들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파터 길포드 대변인은 이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사실 자체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50년간 남북간에 지속된 방전을 해소하는데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도 13일(현지시간) 정오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日 TV시청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13일 일본 도쿄 소니 물리자에 소담나온 일본 여성들이 김대중대통령(화면 가운데) 부부가 등장 순간공명에 도화, 북의 김정일 위원장의 영혼을 받는 모습을 대형 TV로 지켜보고 있다. ●도쿄사 연

# 서울~평양 67분... 반세기만에 하늘길도 열렸다

##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첫 직항로 의미

우리나라 항공기가 사상 처음 북한 영공에 들어간 순간은 어땠을까.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은 처음

## 군시설 보안문제로 서해상공 700km 비행 오전 9시45분 대구~평양관제소 첫 교신 北선 우리측이 긴장할까 호위기 안띄워

으로 남북간 직항로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보잉 737기)는 오전 서울을 출발, 중국 상공까지 가지 않고 서해 상공을 통해 1시간7분 만에 평양에 도착했다. 기존에 없던 새 항로를 개척한 셈이다.

특별기가 서해공함을 이륙한 시각은 오전 9시 18분. 특별기가 서해쪽으로 기수를 돌리자(북측 군시설 보안문제로 육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았다) 총주비행단에서 떠오른 F-16전투기 편대와 원주·수원비행단에서 출동한 F5전투기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호비행을 시작했다. 합동합모본부 지휘통제실에는 조영길(曹永吉) 합참의

장 등 장병 40여명이 모니터를 통해 전용기와 경호전투기들의 행적을 쫓았다.

특별기는 고도 2만2,000피트에 이른 뒤부터 남쪽 공역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관제소의 지시를 받기 시작했다. 중국측 항공 관제구역에 들어가 직전인 서울 서쪽 270km 지점에서는 북쪽으로 기수를 꺾어 본격 북행을 시작했다. 북측하던 특별기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 이르자 사상 처음 대구-평양관제소간 첫 교신이 이뤄졌다. 오전 9시45분이었다.

특별기가 북방한계선을 넘는 순간, 대구관제소는 '우리 공역을 넘어갔다'는 뜻의 '핸드 오프'(HAND OFF)를 외치고, 평양관제소는 관제인수를 의미하는 '라저'(ROGER)로 응답했다.

특별기가 북한 영공으로 넘어가기 직전 우리

경호전투기는 남측 부대로 복귀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도리어 긴장할 수도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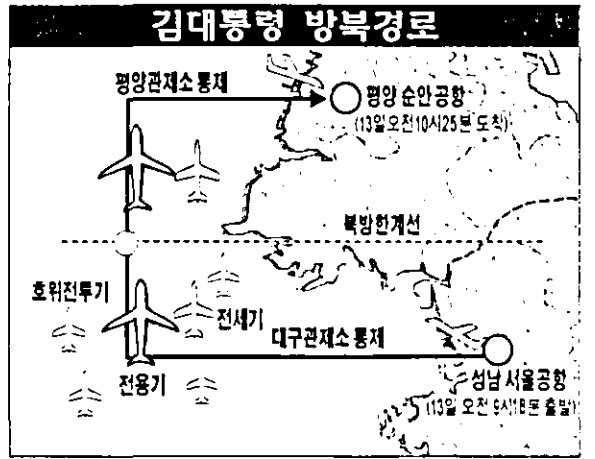
점을 감안, 호위기를 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기는 서서히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북한 남포상공을 거친 뒤 평양 순안공항 상공으로 진입했다. 순안공항 관제타워를 불러 착륙허가를 받은 특별기는 10시25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비행거리는 총 700여km, 비행시간은 67분이었다.

순안공항 활주로에 들어온 특별기의 몸체에는 우리 국호 '대한민국'과 영문 Republic of Korea'가, 꼬리 부분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김상연기자 carlos@kdaily.com



민속공연 관람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3일 평양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민속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치고 있다. ●평양 황외대 사진기자단





# “7,000만 민족 전쟁공포서 해방되길”

## ☐ 김대통령 만찬 답사

오늘 우리 일행에게 주신 따뜻한 환영의 모습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애의 열정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 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력

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천만 이천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는 지금까지 남쪽 동포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해공단 조성사업 등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마전 ‘평양학생소년애육원’과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많은 남쪽 동포들은 감격의 눈물과 박수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남과 북에서 교류와 협력에 힘써온 모든 분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심에 이길없는 감사담 보내고 싶습니다.

역사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1세기 첫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찬사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들이 유서적인 우리 평양에 오신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장이 오가는 이 자리는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인 선택과 애국의 결단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의 미당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열은 언제 끝났는지, 통일은 또 언제 이루어졌는지-7,000만 겨레의 이 절박한 물음에 이제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대답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망국과 분열로 이어진 지난 20세기의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영합한 뿌리깊은 사대주의의 후과였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은 여기 평양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유서깊은 평양의 모습과 분위기도 익히면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7,000만 겨레의 염원인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 대통령 내외분의 만복을 축원합니다.

## ☐ 김대통령 평양 도착 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들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꼭꼭 평양 밟지 못한 것같은 비감한 심정에 젖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000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에게 평양시민과 북녘동포 여러분의 합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 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대통령 방북 출발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 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만만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많 터 놓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해가 커질수록 평화와 협력도 커질 것

입니다. 저의 이번 평양 길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7,000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정치·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길어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혈육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겸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방문은 한반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민족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아! 한핏줄... 60만 평양시민 가두환영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37분,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의 문이 열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행기 트랩의 위 아래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남북을 가로막아 온 분단 55년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김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67분 만인 오전 10시37분 평양 순안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순안공항을 김반 장교가 김 대통령의 전용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순안공항에 나와 있던 북한측 환영객 1,000여 명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전용기의 동체와 날개에 새겨진 국·영문 국호와 태극기는 이제 남북한이 새로운 역사로 접어들었음을 세계에 선명하게 알렸다.

## 트랩위에서 잠시 감격의

김 대통령의 전용기가 활주로서 벗어나 제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순안공항은 또다른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10시33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환영객들은 ‘김정일, 김정일’을 연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환호하는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면서 큰 걸음으로 김 대통령이 탄 특별기를 향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측 고위급 인사들이 그를 따랐다.

김 국방위원장은 붉은 카펫을 따라 김 대통령의 전용기 트랩 앞까지 걸어 나갔다. 이윽고 10시37분, 전용기의 문이 열리고 김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일순간 순안공항은 환호의 물결로 뒤덮였다. 김 대통령은 평양의 하늘과 바람, 그리고 평양 사람들의 환호에 겨운 듯 잠시 트랩 위에서 감격에 젖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국방위원장은 10여제단 트랩 아래에서 박수로 김 대통령을 환영했다. 곧이어 김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서면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다. 순안공항은 ‘김정일’과 ‘민세’를 연호하는 환영객들의 환호로 다시 한번 크게 울렁였다.

이날 김 대통령에 대한 기념 영접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외사극장 전회정체가 맡았다.

김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의 소개로 배석해 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용순 당 대남담당 비서, 조명복 군총정치국장,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 부위원장 등 당·정 고위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 대통령도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 등 우리측 수행원들을 김 국방위원장에게 소개했다.

순안공항의 환영행사는 의정대 사열과 꽃다발 증정 등 간단한 형태로 10여분간 진행됐다. 김정일 외국 방문과 흔히 있는 도착성명 발표나 방문연설은 생략됐다. 두 정상이 여객을 나란히 태워 북한 의정대를 시찰하는 동안 순안

공항에는 용진가(勇進歌)가 연주됐다. 북측이 국빈방문과 연주하는 노래다. 의정대 사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잠시 연단에 올라 사진기자들게 기념포즈를 취했다. 연단을 내리는 김 대통령은 부인 이 여사와 함께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받았다.

두 정상이 행사장에서 리무진까지 걸어가는 동안 환영행사장 한켠에 도열해 있던 환영객들은 다시 한번 꽃다발을 흔들며 ‘김정일’과 ‘민세’를 연호해 연호했고, 김 대통령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며 이들에게 화답했다.

이날 환영행사는 김 대통령 부인 이 여사와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 국방

## 남북 정상회담



서울서 평양까지

평양 순안공항 도착

남북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한반도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000만 거리의 통일 염원을 가슴에 품고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에 나섰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첫 상봉 장면은 감격 그 자체였다. 남북 북의 한 핏줄을 뜨거운 통포에를 느꼈다.

도착성명·방문연설은 생략

# 金위원장 트랩 아래서 박수로 金대통령 영접 두정상 어깨 나란히 하며 北韓 의장대 사열 평양시 입구서 車 멈추고 시민들에 답례·악수 거리마다 인파... “김정일 결사옹위” 구호도

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 공항 검색

취재진과 수행원들을 태운 아시아항공 1002편 특별기가 오전 10시38분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북측 검색요원들이 울음이 멍단을 확인하고 간단한 짐 검색을 실시했다.

북측은 김 대통령 환영행사가 열리고 있는 동안 3대의 3레이 투사기를 설치하고 20여분 동안 취재진 및 수행원의 소지품과 몸을 검색했다. 검색은 기다림이 없었다. 북측 검색요원은 한 취재진의 사진기가 ‘브리카레’ 모양과 비슷하자 “서터플 불리봐도 되나”고 물은 뒤 서터플 불려 사진기 사용을 확인하고 도둑질로 주었다.

검색대를 통과하자 북측 안내원들이 남북 취재진과 수행원을 맞았다.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에서 보낸 일곱사진을 사진에 본 따온 인자 취재진과 수행원들을 따로 알아차렸다. 한 안내원은 “OO신은 기차 아남나”라고 붉은 뒤 자기 이름과 신분을 밝혔다.

북측은 남측의 수행원에 대해서는 집단 안내를 했으나 수행 기자 30명에 대해서는 1대1로 안내했다. 북측 안내원들은 수행 기자들이 배스볼 타고 프레스센터로 오는 동안 비로 옆 자리에 앉아 주요 건물을 소개하고 연도 환영 인파 등을 설명했다. 화급 전광 등을 서서 설명하게 묻기도 했다.

수호인 고려호텔에 도착해 한 취재기자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안내할 수 있느냐”고 묻자 북측 안내원은 “어디라도 데기해 따라”면서도 “경상회담 취재가 목적인

이상 여러 곳을 가는 것은 방문 취지와 다른 것이 아니다”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 연도 환영

김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환영행사를 마친 뒤 10시50분 공항을 출발, 연도에 들어선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속속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했다.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동승한 차량 행렬은 공항을 떠난 지 20분 만인 11시10분 평양시 입구인 연못동에 도착, 잠시 머물렀다. 두 정상은 차에서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를 했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 “평양시민 대부분 나온것”

이곳 평양시 입구에서부터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나와 열렬히 환영했다. 시민들은 연도에 줄지어 서서 진홍색과 분홍색 조화(꽃술) 등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조화를 흔들며 “민세” “김정일 결사옹위(勳動)”를 외쳤다.

왕영식(王榮植) 통일부차관은 서울 브리핑에서 “60만명의 인파가 남측 대표단 일행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북측의 한 안내원은 “경상시인들이 대부분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남측의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다른 안내원들은 “어제 김 대통령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공(市)방(방)했다”고 말했다. 전 날에도 사람들이 나왔다가 국뿔아간 일이 있

음을 심토했다.

또 다른 안내원은 “우대하신 장군님이 여러 차례를 따뜻하게 환영하기 위해 조화를 흔들었다. 소감이 어머나” “김정일 장군님이 광복(廣福) 정자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것이다” “남측 통일사업들이 그런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정말 안된다” “어제는 날씨가 흐렸는데 날씨가 맑아 김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알아 주는 것 같다” “몇 시간 전에만 동원령을 내리던 시민들이 모두 동원될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도 이처럼 시민들이 환영했느냐”고 묻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시민들은 남자의 경우 양복을 입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맨 치림이었으며, 여자들은 대개 흰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꽃술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민세 민세” “김정일 김정일 결사옹위 결사옹위”라는 두 가지 구호를 앞서불러주었다. 그리고 줄이없이 반포했다.

차량행렬은 연못동에서 4.25 문화회관까지의 “평거리, 전용기념관까지의 ‘비파거리’, 보통강 강안도로, 보통문, 관수대 의사당, 옥류교, 관수대 언덕, 개산문 거리, 종로거리,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평양의 주요거리를 13.6㎞ 정도 순회했는데 환영인파는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연도를 휩쓸었다.

차량행렬은 평균 시속 33㎞ 정도로 달렸는데 연도의 환영인파가 꽃술을 흔들며 환성을 지르는 장면은 11시40분까지 무려 30분 동안 이어졌다. 연도 중간 중간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흰색의 내외 행진대 등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높였다.

## 여야 "환영" 한목소리

### 민주당 생중계보며 박수·탄성 한나라 "협력 다짐"속 우려도

#### □ 정치권 표정

여야는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민주당 감격 그 자체였다. 당사 사무실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당직자들은 김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하고,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대화 장면이 비칠 때마다 탄성과 박수를 보냈다.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오늘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았던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민족사와 세계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김 대통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는 사진이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사진이었으나 오늘 이후에는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사진이 더 큰 상징이 될 것 같다" 며 말을 잊지 못했다.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봄이 오는 과정에서 꽃샘추위와 어려움이 있

겠지만 대세는 막을 수 없다" 는 소회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됐던 55년 분단의 역사를 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방북 기간이나 이후에도 국민과 민족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는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한구(李漢久) 제2장조위원장은 "북한이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당사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김 대통령의 평양 순안 도착 장면을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 등 당직자들은 김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온 것과 관련, "생각했던 것보다 파격적인 예우"라면서 "북측의 예우가 가식이 아니라면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좋은 징조"라고 반겼다.

●감동함 최광숙기자 yunbin@kdaily.com

## 60만 동포 '조국 낭보'에 탄성 - 감동

#### □ 在日 민단·조총련 표정

13일 일본 전역에 NHK TV 등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평양 첫 대면이 생중계되자 60만 재일동포들은 국적의 남북에 관계없이 두 정상의 만남에 흥분하고 탄성을 질렀다.

●민단 도쿄의 민단 본부에서는 60명의 직원들이 TV 앞에서 '세기의 순간'을 지켜

### 민 단 역사적 만남... '이산가족' 해결 기대 조 총련 두정상 악수 나누자 만세 부르기도

봤다. 정진일(鄭眞一) 선전국 부국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면서 "김 국방위원장이 김 대통령 영접을 나와 박수 칠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고 흥분하는 모습이었다. '민단신문'의 이청건(李清健) 편집차장은 "21세기의 역사적 영상"이라면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잘 진행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大阪)에서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재일 한국인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북 통일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조총련 조총련 본부에서도 이날 150여명의 본부 직원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TV가 있는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여 남북 정상의 첫 대면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직원들은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에 '만세'를 외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조일남(趙一南) 국제국 부국

장은 김위원장의 공황영접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새삼 감동을 느꼈으며 두 정상의 열의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한 기자는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과 분열은 최대의 환영표시"라며 "김 국방위원장이 이처럼 손님을 영접한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황성기기자

# 7,000만 한민족 감격... 흥분... 눈물...

## 남북 정상회담



### 시민 표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은 국방위부총장이 순안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북한 주민들이 열광해 환영하는 모습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국민들은 감동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새삼 확인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대했다. 일부 시민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경직(연경직·67·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다"면서 "나도 죽기 전에 평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순안공항에서 회담 장소인 백화연영빈관으로 가는 길목에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으로 본 황재환(황재환·70·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씨는 "벌써 통일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면서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확인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주부 문은경(文銀暎·25·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는 "두 정상이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재우(金在우·51·건축업·경기 용인 수지구)씨는 "전북현장에서 일을 하다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근처 부동산소개소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다"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온 것을 보고 북한이 생각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13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중앙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은 국방위부총장이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kday.com

## '역사적 상봉'에 눈시울... 회담성공 낙관 "벌써 통일 된 기분... 남·북 한핏줄 확인" 실향민 "대통령이 고향 땅 밟아恨풀러"

생각이 들었다"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했다.

유창순(柳昌淳·71·황해인보사 편집국장)씨는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니 50년 동안 가시지 않았던 웅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향민 2대인 조남열(趙南烈·33·연리사)씨는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뿜돌았다"면서 "빨리 북한에 있는 친지들을 만날

날이 오면 좋겠다"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전시 동구 상남동 형재의 집 미전향 장기수인 김영수씨(68) 등 3명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눈 녹듯 사라졌다"면서 "정상회담이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근본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할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향민 이성민(李成敏·64·영북중광도민회

총무부장)씨는 "김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영접하고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을 보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들 대신에 고향 땅을 밟아 주셔서 땅향의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소셜가 황석영(黃錫英)씨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인천 뉴스타호텔에서 '분단시대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갖고 "북한에 강제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굳이 이를 몰아내 북측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북측도 남한을 배격하고 미국만을 상여하려는 접근방식을 버리고 남측을 합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우기자 ywchun@kday.com

## 무의탁 실향민 97명 내일 금강산 간다

"내래 살아서 고향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는 불우한 실향민 97명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15~17일 금강산을 방문한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회장 은반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롯데복지재단, 신앙사회복지재단, 이산사회복지사업재단 등의 도움을 얻어 추진했다.

실향민들은 15일 아침 강릉도 동해항에서 봉래호를 타고 장전항에 도착, 구룡폭포 등 금강산을 관광하고 평양 모란봉교역안의 묘기도 관람하게 된다. ●전경우기자

노인복지시설협회 정재원(鄭在源·53·여) 사무국장은 "고향집을 그리는 무의탁 노인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여주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면서 "15일에는 봉래호 선상에서 망향제도 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집을 그리지만 향년이 어려워 금강산 여행을 꿈꾸지 못하던 이들은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지켜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청운암포인 유용복(79) 할머니는 "개성이 고향인데 오늘 두 정상의 만남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면서 "한정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는 않겠지만 북녘땅을 밟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전경우기자



# 반세기 반목 청산... '화합의 민족사' 쓴다

**한반도 화해 급류** (상)

## 정상회담 역사적 의미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 두 정상은 처음으로 손을 굳게 맞잡았다.

양 정상은 굳게 마주잡은 두 손은 남북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적대와 갈등의 악순환을 청산하고 55년간의 고통을 뛰어넘어 대화와 협력의 역사를 열어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첫 심봉에 이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신뢰와 이해의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다.

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는 당시자인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온 '적극적인 대북 화해 정책'이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실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동존과 공동번영을 이뤄내

## 상호입장 확인 신뢰기초 다져 평화정착등 현안 심층 논의 공존공영의 새길뒀기에 나서

자는 새로운 발상과 의지도 담고 있다. 이번 만남은 세계적인 안보불안지역이던 한반도가 한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평화와 협력, 대화와 교류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안보 위협의 감소로 한반도에 대한 외국자들의 관심도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첫날 만남에서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의욕을 보였다. 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왜 방북이 이뤄졌고 왜 승낙했는지 2~3일동안 대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김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북측은 실리에 관심이 있다며 이념의 대결이 아닌 상호호혜를 위한 유연한 협력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평화정착과 통일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거리낌없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논의했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정상은 논의는 구체적 합의의 여하에 관계없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보여 주는 밑그림이자 청사진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외고립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술과 자본을 구하는 북측과 '성강한계' 속에서 도약의 길을 모색하는 남측이 서로 내민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 정상회담이다. 이제 남과 북은 함께 공존공영의 길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대한매일**

2000. 6. 14 (수)



환영식장으로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 뒤에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보인다. ●평양 청와대 사진기자단

# 경협 - 체육 교류등 관심사 '물밑 협상'

## 남북 정상회담



### 특별수행원의 임무

기업인 등 민간을 대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행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이 이번 방북에서 경협 등 남북민간교류의 폭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을 수행, 대표단의 일원으로 경양을 방문중인 민간대표 24명의 역할

## 대통령 공식 수행않아 '시간적 여유' 만찬 등서, 북측 관계자와 현안 논의

정상회담 등 김대중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 특별수행원들이 '비는 시간' 짝꿍이 북측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나침반의 현안문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국제각층의 인사들로 망라되어 있는데다 숙소도 대통령과 정부 수행원들과는 다른 주암산초대소에 묶고 있어 보다 자유스럽게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별도 일정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손님들이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또 민찬,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 해당분야의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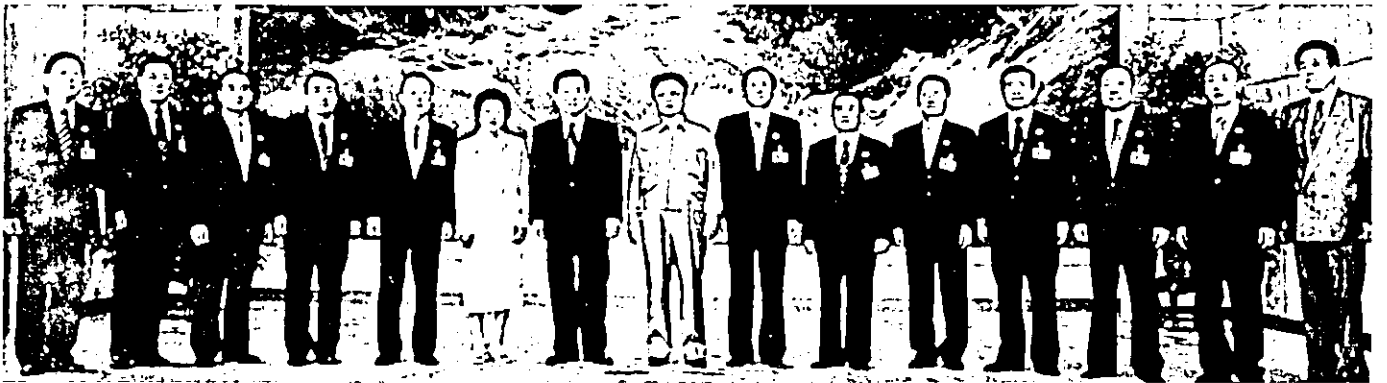
축구협회 회장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된 정몽준(鄭夢準)의원은 "2002년 월드컵 단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진전여부가 주목된다. 국제체육리위원회(IOC) 집행위원으로 국제체육계의 명사인 김은용(金雲龍) 대한체육회회장도 체육교류와 관련,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권상(朴權相) 방송협회회장, 최학래

(崔鶴來) 신문협회회장은 남북간 언론교류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박기훈(朴基勳)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이산가족문제의 후속처리를 위한 관계자 면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상회담후 경협이 주요한 후속대책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3명과 현대아산의 정몽헌(鄭夢憲) 이사 등 현대·삼성·LG·SK 등 4대기업 대표의 행보가 우선 주목된다. 현대의 경우 서해안공단 조성사업문제, 삼성은 전자공단 건설사업등이 각각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고향에 투자하기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장치혁(張致赫) 남북경협위원장 등 이산가족 기업인들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방북 대표단이 1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중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하중외전비서관 박준영공보·홍원택외교안보·이기호경제수석, 이현재자경부장관, 김대통령 내외, 김국방위원장, 박재규통일부장관, 임동원대통령특별보좌관, 박지원문경부장관, 한광욱비서실장, 안주섭경호실장, 홍각범대통령주치의, 김용순조선이태공화위원장

▶ 평양 참외대 사진기자단

## 수산·신발 정상회담 훈풍 기대

### 남북 정상회담



### 지역 경제계 움직임

국내 수산업계와 신발업계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진국어민총연합(진어총)은 13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동해지역에서의 조업 등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합의한 남북어업협력사업이 급진전된 것"이라며 "한·일 어업협정으로 잃은 어장을 북한어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어총은 올 2월 북한과 구체적인 어장과 어로방면, 기타 조업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합의할 미친 만만 정상회담 이후 즉각 어업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北어장 개방때 양측 영세어업 활로트여 노동·기술력 조합 제화업 '시너지 효과'도

특히 중·대형 연근해 어선들이 좁은 어장에서 치열한 조업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형어선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북한수역 조업이 가능해질 경우 어장의 확대로 어선이 분산돼 소형어선들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인망수협과 신발수협측도 북측 어장이 열리게 될 경우 자원조사를 위한 시험조업을 벌여 어장성이 확인된다면 북한수역에서의 체계적인 조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낙후된 북한의 어로기술과 장비보완을 지원하고 북측의 어장과 인력을 제공받아 어로활동을 벌인 뒤 어획물을 균등 배분하는 등의 어업협력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수산물은 지난해 모두 6,650억이 수입됐으며 올해 역시도 지난해까지 2,660억이 수입됐으나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냉동 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교역이 가능해지면 넉치와 농어 등 고급

합어와 꽃게 등의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메카로 자부하는 부산의 신발업계도 북한에 진출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과 의사소통의 원활 등으로 생산 원가 절감이나 품질면에서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신발산업이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데다 남한의 수준 높은 신발생산 기술을 손쉽게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사업 중 신발산업이 가장 먼저 풀릴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부산지역 신발업계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전부터 북한내이산 등을 통해 북한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업추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 김정환·이기철기자 jhk@kdaily.com

## 점퍼에 '김일성 배지' 안달아 큰변화

### 시종 밝은 표정... 들던 이미지와 달라

#### □ TV에 비친 金正日위원장

13일 생중계나 녹화중계를 통해 안방에 소개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평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좁게 입는 점퍼와 차갑 그대였지만 늘 왼쪽 깃에 다는 '김일성 배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큰 변화였다.

●복장 양복을 거의 입지 않는 스타일대로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이나 정상회담장에서 점퍼를 입었다. 상하의 모두 짙은 베이지색으로 상의는 점퍼, 하의는 정장 바지였다. 그러나 왼쪽 깃의 김일성 배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측에 대한 배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헤어스타일·안경 평소처럼 뒤로 넘긴 고수머리였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와 비교해도 큰 변화는 없다. 안경도 두꺼운 금테안경이었다. 때에 따라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걸 때도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공화영집을 나온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어 눈길을 끌었다.

●신체 김 위원장의 신장은 165cm로 추정되나 이날 드러낸 모습으로는 족히 170cm는 넘어 보였다. 이는 굽 높은 구두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체중도 80kg 가량으로 추정됐다. TV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은



내내 밝은 모습으로, 들던 이미지와는 크게 달랐다.

●황성기기자 many01@kdaily.com

# “金위원장 공항 영접” 외신도 놀랐다

## 남북 정상회담



### 서울 프레스센터 이모저모

“와~”

13일 오전 10시30분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의 특별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남북정상회담 프레스

에측 기사들 여지없이 뒤얽는 파격’이라고 말했다.

외신기자들도 김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에 놀랐다는 반응.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도널드 커크 기사는 “(평양 도착장면이) 흥미진진하다(exciting)”며 “북측의 환대는 정상회담 성공의 좋은 신호(good sign)”라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키히타(赤旗)’의 오모카와 마코토(岡本) 기사는 “김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은 북측이 관계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스센터에서는 이날부터 평양 정상회담 진행상황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시작했다. 오전 9시30분 오후 2

## “파격... 전혀 예상치 못했다” 흥분 내외신기자 1,000여명 취재 경쟁

터’에서 TV(멀티뷰)를 지켜보던 기자들은 일제히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터뜨렸다. 김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 가져다주는 감동의 물결은 프레스센터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몇몇 국내기자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 시작된 13일 600여명의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1,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기자들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 기사는 “그동안 기자들이 썼던

(吳弘根) 국장홍보처장이 첫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자 내외신 카메라 기자들이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양영식(梁榮植) 통일부차관은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공항영접은 우리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또 이날 평양 시민 60만명이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이튿날 연호했다고 강조했다.

●서영훈(徐英勳)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육두(金玉斗) 사무총장, 장동영(鄭東泳) 대변인과 함께 프레스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와 내외신 기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대서특필한 14일자 조간신문을 보고 있다. ●남상민기자 sangmin@kdaily.com

센터를 방문했다. 서 대표는 ‘명남 덕천에 동생이 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동생과의 상봉을 기

대한다’면서 “고향산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달렸다. ●김상연기자 carlos@kdaily.com

## “취재 불편없게 최상의 서비스”

롯데호텔프레스센터 총책 李應相씨



“국내외 보도진들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에 차질없이 타전할 수 있도록 수십차례에 걸쳐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설치된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사무국의 이응상(李應相·사진·38) 롯데호텔 판촉계장은 13일 ‘프레스센터 개설

준비를 시작한 3일부터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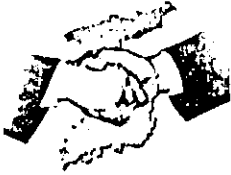
정상회담 기간 동안 1,300여명이나 되는 내외신 기자 등 손님들이 불편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실무 총괄 책임을 맡은 그는 “00년 1월 입사한 이후 크고 작은 국제행사들 치른 경험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 더 긴장 속에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 보도가 우리 호텔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듯하다”며 보도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한수기자 onekar@kdaily.com





# “남북 경제공동위 설치 급선무”

남북 정상회담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세미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해부원의 구성에 남북관계를 체계화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다자간 국제협력유공에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민(李相旻) 중앙대교수는 13일 배포한 ‘제26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 D, 13~16일·서울교육문화회관)’의 주제발표문 ‘신장외교 이후 경제협력의 위한 정책 방향’에서 “남북공동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남북관계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신장외교의 강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에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외교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 경제진자로 연합히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장영준(張榮準) 연구원은 주제발표문 “북한 경제개편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에서 “북한의 경제재건자금 조달은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나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 조달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 외채분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北재건위해 '다자간 국제협력기금' 조달 경협 위축 안되게 정경분리정책 필요

장위원은 이와 관련, 최근 KIEP가 발간한 세계경제 5위호에서도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선탁기금을 형성하거나 특별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하는 선탁기금을 가입에따라 동의를 받아 기금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팔레스타인유지위하기 위해 특별선탁기금이 조성됐던 것처럼 “북한 특별선탁기금”을 만들어 국제사회가 북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장위원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PRGF)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력(IDA)

자금,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개발기금(ADF)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정현기자  
jpark@kdaily.com



● 그래픽 이혜선기자



2000. 6. 14 (수)

정상회담기간중 '시위 없다'

3,000명 이상 대규모 집회 13~15일 한건도 신고 안돼 각종 단체 자제 분위기 역력

은 국민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면서 도심 집회도 부쩍 줄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과 13일 경찰이 접수된 집회와 기자회견 건수는 각 46건과 55건으로, 하루 평균 60여건에 비해 줄었다. 특히 당초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12일에는 예정된 집회 중 23건이 취소됐다.

합계 인원인 3,000명 이상인 시민·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평소 하루 평균 5건 정도였으나 13~15일에는 한 건도 신고된 것이 없다.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거의 매일 집회할 것인 보훈관련 단체들은 최근 "반대 이

후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모든 집회활동 6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행사에 맞아 민주노총 등 각종 단체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할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눈에 띄게 줄었다. 기자회견 단골장소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의 경우 하루에 2~3건씩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이번주에는 예약된 회견이 없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반년 이후 처음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적극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기자 kkwon@kdaily.com

태극마크 달고 평양 간 첫 민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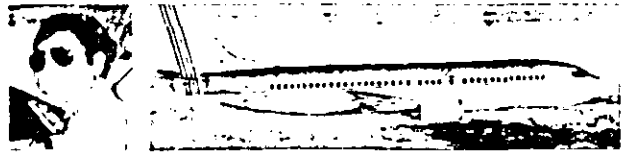
보잉 737-400기종 국내선 투입 소행기 남북 첫운항 崔光우기장도 싣함민2세

수행원 탄 아시아나 전세기

13일 남북정상회담 수행원과 취재단을 태우고 민항기로는 최초로 북한으로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37-400기종 전세기는 서울-부산 등 국내선 노선에 주로 투입됐을 소형 여객기다.

이달 초 대한항공과의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된 이 전세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안체제' 속에서 방북 준비작업을 해왔다. 10여일 동안 김포공항 아시아나 항공 직납고에서 화식을 재배치하고 통신·보안시설 등을 설치했다.

민항기의 꼬리날개 부분이 그려져 있는 태극기갈 가지고 갈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 전세기에는 태극기가 선



최광우기장 보잉 737-400기종

명하게 그려져 있어 항공관계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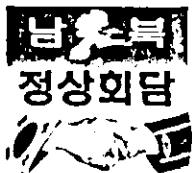
20명 가량의 승무원들은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보안교육을 받았다. 민간항공사로 남북간 직항로할 첫 운항한 조종사는 부천이 명북 강제가 고향인 싣함민 2세 최광우(崔光宇)기장. 출발 전날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명항행 을 알리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

울로 돌아와 "맑게 갠 날씨만큼이나 상쾌한 느낌의 비행이었다"며 "평양에 들어간 첫 조종사로서 오늘의 감격스런 비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이 전세기는 도착 희망시간을 입력하면 속도, 고도, 비행코스 등을 자동 계산해주는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좌석수는 146~152석이다. ●최광숙기자

世界日報

2000. 6. 14 (수)

통일 밑거름 체육교류 물꼬 튼다



김영용·정몽준씨등 남측 핵심인사 평양행 월드컵 분산개최·단일팀 구성등 물밑접촉 "우선 가능한 스포츠부터" 실무작업 착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선 농구와 축구 수 있다. 농구는 김장길 국방위원장,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히며, 그리고 지난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통합농구경기를 개최한 바 있어 낯설지 않다. 대한농구협회는 우선 농구 경기를 농구대잔치에 북한팀을 초청하고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 인민 체육인 리명호와 박진홍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영입, 국내무대에서 활수 있는 정도 모색한 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축구종목. 1991년 지바 세계 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출전, 여타대회에서 중국의 대회 9연패를 저지하고 우승한 경력이 있다. 대학육 등 국제대회와 학우협회는 2년 전 오사카대회에도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이 대 실험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대우에서 열리는 제1차 시가대회와 북한을 초청키로 하고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또 축구교류도 가능성이 크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진 함과 서울 각각의 축구인기회가

경정축구의 9년 경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한 남북육구선수권 대회 그동안 막힌 줄을 트겠다는 생각이다. 또 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나가 국가의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오는 11월 이란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도 단일팀 출전을 구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2002년 한일월드컵의 남북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 가능성 문제까지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족정기전 통일추진대회 개최와 사이버공용 이용한 남북통일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교계 경구 북한측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안컵 초청장용 진한 바 있다. (이준성기자)



1991년 남북청소년축구 단일팀 선수들이 잠실운동장에서 경기전을 갖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입장하고 있다. 당시 북한 후 처음으로 성시원 단일팀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대회에서 출전 8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했다. (본사 자료사진)

## 북한 보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원 양대 산맥 연합뉴스 민족취재본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맞아 언론계에서 '북한특수'를 맛고 있는 곳이 있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소장 김영배)와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본부장 정남기)가 그곳. 이 두 곳은 남북정상회담개최 발표 이후 연속적으로 알찬 기획물들을 내놓으며 통일·북한보도에서 반군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오랫동안 축적한 정보와 전문인력, 그리고 회사측의 지원이 모여 이 두곳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기관 가운데 인력면에서는 연합측이 월등히 많다. 98년 12월 내외통신과의 통합후 이듬해 1월 출범한 민족뉴스취재본부 산하 북한부·남북관계부·재외동포부 등 3개 부서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부 소속 수신사(북한방송 등 수신담당) 6명, 재외동포부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영문뉴스북한팀 등까지 합치면 전체 인원은 45명이 나 된다. 72년 중앙일보내에 설립된 공산권조사연구소가 모체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에는 상주기자 5명, 비상근기자 2명 등 총 7명이 있다. 이들중 6명은 박사급이다.

업무측면에서는 양 기관이 동일하나 접근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연합은 북한의 신문·방송 등 1차자료를 통해 '오늘의 북한'을 전하는 '북한뉴스도매상'으로 최근 인터넷 북한사이트까지도 뒤지고 있다. 북한부 김영배 차장은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많은 일"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발표후 "기사가 양종진의 두 배 가량(하루평균 50건 내외) 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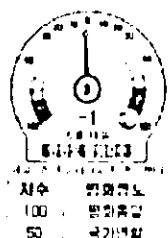
이에 비해 중앙은 원 자료의 가공·분



- 해제 및 해제
- 주요 뉴스
- 정치
- 경제
- 문화
- 연예
- 국제
- ENGLISH

**김대중 방북 13일로 연기**  
김대중(중추) 대통령의 방북방포이 당초 12일부터 13일로 하루 연기된다는 청와대 북수령(차명)이 12일 오후 1시 30분경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방북은 13일 오후 15시부터 17일까지 이뤄진다고 알려졌지만 방북은 10일 저녁 늦게 김대중 대통령 전용기로 출발했다. Full Story

**북중정상회담**  
북한 김일성 총서기  
와 중국 덩핑서민  
국가주석이 약속



연합뉴스(위)와 중앙일보가 운영중인 북한전문 사이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 중앙일보 박사급 6명 '정보수집·분석력' 탁월 연합뉴스 北기자 출신등 45명 '北뉴스도매상'

석과 해외 취재원을 통한 대북사업,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은 4차례에 걸친 방북취재팀 연구소가 주축이 돼 성사시켰으며, 최근 '장쩌민-김정일 북경회담' 특종도 해외정보원에 도움을 받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의 유영구 팀장은 "북한관련 정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 자료를 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두 기관은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의 '북한넷'과 연합의 '북한소식'이

그것. 중앙은 사이트 운영에 북한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진문상을 인정받고 있

다. 반면 연합은 지난해 '북한연감'을 창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남기 본부장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성과를 거뒀으며, 금년 8월 일어난 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이 방북취재 경험이 강점이라면 연합은 '북한산 기자'를 가지고 있다. 북한부 최신영(40·여)기자가 주인공. 최 기자는 북한에서 7년간 일간지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동료들은 "살아있는 진짜 보배"라고 입을 모았다.

◆점원취기자 jwh59@kdaily.com



# 분단 최일선에도 평화의 기운이...

## 남북 정상회담



### 판문점 르포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팽팽한 긴장이 감돌던 판문점에도 13일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마주 보고 껍딱이는 남북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측 기장동 선전마을의 인공기도 정겨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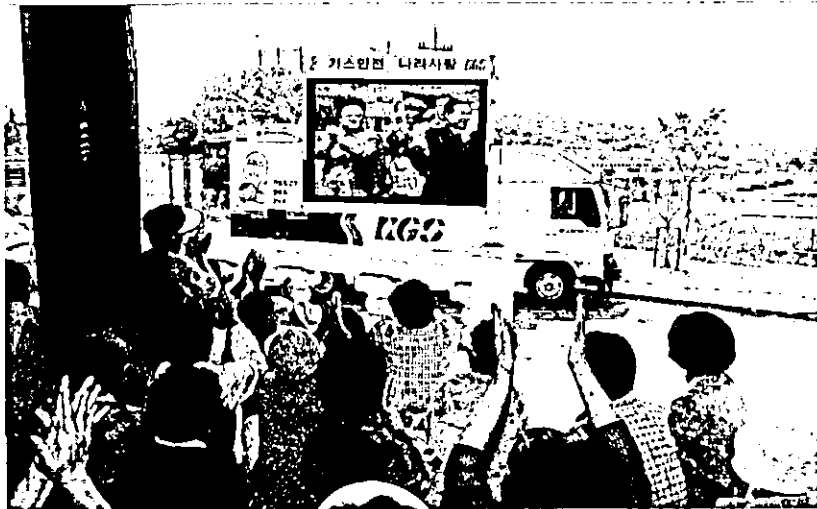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있는 남북 병사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북측 통일각 주변에는 2~3명의 북한 인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돌아갈 길을 깨끗이 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기간에는 민간인의 판문점 방문이 제한돼 실정민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2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뿔뿔히 취재열을 올렸다.

판문점 매장에서 TV를 지켜보던 외신기자 13여명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도쿄지부 리처드 배리 기자는 "분단의 현장을 취재하려 왔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관적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3년 8월에 판문점을 방문했다는 러리



13일 오전 임진각을 찾은 신흥민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이 대형 화면으로 비쳐지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 해외기자 seaworld@daily.com

## 방북기간 민간인 방문 제한... 외신기자들로 북적 "한반도 통일현장 취재하러 왔다" 큰 기대감 표명 北 대남 선전방송 중단... 병사들 표정도 부드러워

기자는 "3년 전에는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썼는데 이제는 곧 통일이 올 것이라고 써야겠다"며 반개 못했다.

지난 83년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했다는 네덜란드 텔레그라프의 로버트 슐무트기자는 "독일은 통일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일을 교훈삼아 차분하고 차분하게 통일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판문점 전화코스 중에서 가장 높은 개3초소에 오르자 신록으로 뒤덮인 북녘 땅이 한 눈에 들어왔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남북 초소 경비병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 주었다. 경비병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 그런지 북한의 대남 선전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조국의 허리를 지탱 후련선이 다리 역할을 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판문점 이항구기자 window2@daily.com



"여기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13일 판문점을 찾은 외신기자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본사와 취재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 해외기자 seaworld@daily.com

## 평양 순안공항은 옛 삼육대 캠퍼스

### 1906년 설립 '의명학교'가 전신 47년 폐쇄... 서울 이진후 개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오전 북한에서 첫발을 내딛은 평양 순안 공항은 과거 삼육대의 옛 캠퍼스 자리였다.

이 때문에 TV 생중계를 보던 삼육대학교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906년 10월 평양 인근의 순안 석박산 기슭에 설립, 우리 민족 근대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의명학교'는 바

로 삼육대의 전신이다.

의명학교는 해방 후인 지난 47년 평양 캠퍼스가 폐쇄된 뒤 서울 태평의 현 위치에 자리잡고 학교 명칭도 삼육대로 바꿨다.

삼육대 남대극(南大極) 총장은 "TV 화면으로나마 옛 학교터를 보니 기쁘기 그지 없다"면서 "공항 관계탑이 보이는 곳이 바로 학교자리였고 지금도 일부 학교 건물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삼육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캠퍼스 또는 평양 분교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관계당국 및 북한측과 접촉할 방침이다.

● 최광숙기자 bon@daily.com

이북5도민회 '축제무드' 퇴근길 선술집선 '감동적 만남' 애기꽃 서울등 10여개 대 태극·인공기 함께 게양

이모저모

텔레비전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13살 국민들은 감격과 설렘, 기대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직장인들도 퇴근한 뒤 선술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를 꽃을 피웠다.

●술집 샐러리맨이 즐겨찾는 무교동, 강남, 사당동 등 서울 시내 술집은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이들은 직장 동료,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나누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감격을 되새겼다. 오후 9시30분쯤 종로 다동 숯불바베큐 팔방이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김민호씨(30·SK텔레콤 대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수년에 북한에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북5도민회와 서울 구기동 이북5도민회회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심창민과 합희 사무직원들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하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부 산하 이산가족보조협센터는 방문객이 평소 2명에 그쳤으나 이날은 수십명이 찾았다. 평남 명원군 현천면이 고향인 황정옥(黃貞玉·67·서울 중랑구 망우동)씨는 "순안이 고향이어서 더 마음이 설렌다"면서 "두 정상회담을 보고 해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센터를 찾아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학가 기말고사가 한창인 대학가도 남북

정상의 만남에 들뜬 분위기였다. 고려대 도서관 지하 휴게실은 오전 10시부터 2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김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순안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고 김대통령과 비행기 계단을 내려와 김 국방위원장과 손을 맞잡자 환호성을 질렀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이날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나란히 내걸렸다.

●초·중·고교 서울 풍문여고와 영동고, 서해치북단 백령도의 북포와 백령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들도 수업 대신 학생들에게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백령초등학교 7개 교실에서는 두 정상의 만나느 장면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서울 성동구 협동동 한양대 점원에 지나는 이들과 눈길을 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태극기와 인공기, 한반도기 함께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kdaily.com

▶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임진각 인근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아쉬우는 장면이 나오자 심창민과 관광객 60여명이 알뜰히 박수갈채며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김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김 대통령을 영접하자 "분위기가 너무

좋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다"며 서로 알아간고 기뻐했다. 함북 청진이 고향인 박창환씨(68·경기도 김포시 월곡면)는 "이제 동생들과 어머니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다"면서 "두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경우 이창구기자 ywchun@kdaily.com

서울경제

2000. 6. 14 (수)

"국가기준 키에 무조건 도달하라"

■ 청소년 대상 '키크기 운동' 18세 남 165·여 160cm 제시 매주4시간씩 평행봉등 권장

북한은 청소년들의 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키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한 키크기 운동은 90년 들어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당국에서 제시한 '국가기준 키에 무조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국가기준 키'표 보

면 18세 기준으로 남자는 165cm, 여자는 160cm이며 22세일 경우 남자 170cm·여자 163cm이다.

결국 국가기준 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자라면 초·중·고교때 매년 5~6cm를, 여자는 중·고등학교 3학년용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매년 6cm, 이후에는 2~4cm가 자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관련, 매주 4시간씩 키크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행봉·횡봉·농구 등을 집중적으로 할 것과 7남자들을 처음에는 키가 많이 크다가 다음 시기에는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횡봉운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0여 병실 갖춘 산부인과 전문병원

■ '평양산원' 어떨까 80년 개원, 세계적 규모 자랑

평양시 대동강 부근 문수거리에 위치한 '평양산원'은 북한을 대표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다.

북한여성종합병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평양산원은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 병원을 '여성들의 해산 보조(도움)와 부인병 치료할 기본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의료봉사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건물모양도 '아기뿔 안을 듯 두

꺼를 발리고 선 어머니를 연상케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13층건물(연건축면적 6만㎡)에 2,000여개의 병실을 갖추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적인 전문병원으로 손색이 없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내과·비뇨기과등을 갖추고 있다.

80년7월 개원 이래 45만여명의 새 생명을 출생시켰으며 98년 12월까지 18년간 총 237쌍의 새 쌍둥이와 내쌍둥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북한은 쌍둥이와 산모에게 담당의사와 탕건 보육원을 바로 지정, 치료를 담당시키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양육보조금과 식료품·옷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성영기자 sane@ed.co.kr

# 南北정상 직통전화 설치키로

## 金대통령-金正日위원장 어제 역사적 會談 金위원장 직접 공항영접... 차량 동승회담도 金대통령 “이산가족 恨 풀어줘야” 만찬연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3일 평양에서 분단 55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새 역사의 첫장을 열었다.

**정상회담**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27분 동안 평양 백화원경빈관에서 김위원장과 상건려를 겸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 시민들이 환영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다”고 인사했고 김위원장은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김대통령의) 반복

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왜 반복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담해줘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또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며 이번 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고 김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직통 전화를 설치, 남북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에는 박재규(朴在圭)통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등 남측 공식수령인 전원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배석했다.

**민간** 김대통령은 이어 인민군 화공전에서 열린 김영남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 담사를 통해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노령으로 세상

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합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뱃길을 열고, 하늘길도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평양 도착**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경 특별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위원장과 갈

은 차를 타고 백화원경빈관으로 옮겨 발표한 도착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면서 “저는 김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

- A2 : 정상회담 대화록
- A3 : 金正日 세계무대 등장
- A4 : 北 파격 외전 3책
- A5 : 회담-민간 이모저모
- A6 : 北영접 누가 나왔나
- A7 : 김영숙 만나타났다
- A8 : 세계언론 남북회담 보도
- A16-A17 : 컬러 화보
- A18 : 韓民族은 한 민족이다
- A29 : 미전향 장기수 소회
- A30 : 실향민 시민들 반응
- A31 : 평양 시민들의 표정
- B1 : 재계 남북협력 박차
- B2 : 경험 분야별 전망

## 中 “대화 통해 統一 모색하길” 日 “양頂上 첫 악수 감개무량”

### 정상회담 각국 반응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13일 각각 공식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주방짜오(朱邦交)수석대변인은 뉴스브리킹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진일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관방장관은 경제회견에서 “반세기가 지나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면서 “회담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마가키 류이치로(山崎隆一)외무성 보도관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공황까지 나

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한 데 대해 “최대의 환영”이라며 “공황행사가 TV 생중계라는 열린 형태로 세계에 알려진 것은 매우 값진 일”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로슈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남북한 대화가 시작돼 건설적인 제안들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합의 사항들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김포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남북간 지속된 냉전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국 불가리아 외무부도 각각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성과를 희망했다.

(베이징·도쿄·모스크바=이종환·심규선·김기현특파원)

lhzip@donga.com

# “세계가 주목... 2박 3일간 답해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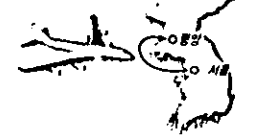
## 김대중대통령 평양 첫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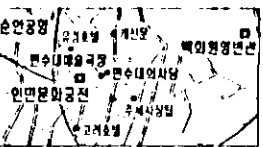
**오늘 14시 30분**  
김대중 대통령 평양에 출발

**오늘 14시 30분**  
김대중 대통령 출발 생방송

**오늘 14시 30분**  
상남비행장 출발



**오늘 14시 30분**  
순안포항 도착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접



**오늘 14시 30분**  
백화원 영빈관 1차 정상회담



**오늘 14시 30분**  
인수대 의사당 김정일 연설



**오늘 14시 30분**  
인수대 예술극장 공연관람

**오늘 14시 30분**  
인민회회관 전경만찬



## 南北의새출발



### 평양정상회담

#### 金대통령 訪北첫날 스케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 그리고 대륙기가 신변하게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와 민항기 등 2대가 13일 오전 북한평 평양 순안포항에 내려 있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수행인에게 반갑게 말건네

백화원영빈관 환담 ○김대중과 김국방위

#### 金위원장 “장관들도 같이 사진 찍읍시다”

#### 金대통령 “정성들인 평양은반 별미였다”

위원장 평양 시가지로 가서 내성구역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 숙소로 오전 11시 30분 도착해 회담에 앞서 분위기 속에 1차 회담.

김국방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백화원 영빈관 입구에 잠시 서서 뒤 돌아 도착한 이회승이사에게 먼저 눈여겨볼 것을 권하는 등 격명한 예우.

두 집단은 하도저는 바다 크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대통령은 남북한 사진기자들에게 “잘 찍으세요”라고 말하며 이들을 김국방위원장은 김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뒤 이회승이사에게도 함께 사진 찍을 것을

권유하며 김대통령 내외와 사진 촬영을 찍은 뒤 큰 목소리로 “장관들도 같이 합시다”라고 재의해 장관들과 기념 촬영.

김국방위원장은 또 “용순비서는 어디에 있어”라며 김용순내남남방비서를 불러 일제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모즈. 김국방위원장은 사진 촬영이 끝나자 김대통령내외와 공식 수혜인들을 정견실로 안내. 김대통령이 “갑개무암하다”고 인사하자 김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외 회담을 추진하고 받아들이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박3일 동안 (이여)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 넘치는 모습.

북측은 상봉을 겸한 1차 회담 시작 때부터 거의 끝날 무렵까지 난측 관동취체대에 이를 공개하는 등 과시.

○김국방위원장은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실내에 장식된 그림들에 대해 김대통령에게 설명했으며 장식 후에는 박지인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화부장관이구먼. 지난번 발표 때 봤다”고 반갑게 말을 건넸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경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배석했고 남측에서는 공식 수혜원 진원이 배석.

김국방위원장은 1차 회담을 마치고 합침실에서 나와 김대통령 및 공식 수혜원들에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입안이 위수, 특히 안주삼김호실장과 위수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위수에 웃음.

○김대통령 내외는 이어 단풍이 사 오셨을 함께 한 뒤 잠시 휴식. 김장식사에는 계곡을 걷 달고기와 생선전, 납세튀김, 참보죽함내제, 삼기떡, 콩채추기떡, 닭은국, 육통냉교기, 새우남새볶음, 밥정과, 안심채 등이 차려졌다.

김대통령은 식사가 끝난 뒤 “북측이 준비한 음식이 정갈하고 김성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음식이 맛있었다”고 평가. 김대통령은 특히 닭국물에 밥을 말아서 만든 평양은반이 맛있었다고 칭찬.

#### 북평기까지 걸여와 박수환영

【순안포항행영】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의 첫 상봉은 예상을 뒤엎고 순안포항에서 이뤄졌다. 김대통령과 공식 수혜원이 탑승한 관동취체가 평양 순안포항에 도착한 것은 13일 오전 10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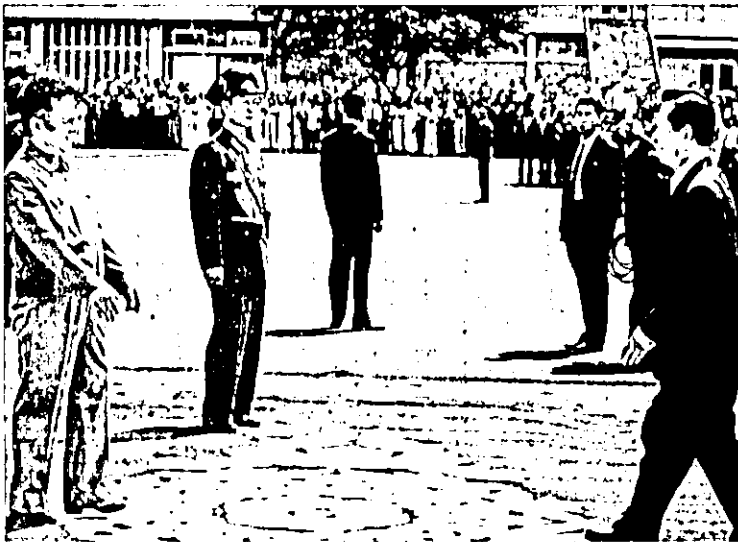


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1차 정상회담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 5분쯤 뒤 원형 나와 대기하고 있던 100여명의 평양시민들이 주축색과 진축색의 조화(꽃송)를 흔들며 “안사”라고 합성을 떠뜨렸다. 회담 입구에 김국방위원장이 김인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내남남방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것. 상무회의 과정에서 김국방위원장의 관공 영접을 동원했었다나 속사나 일단 남측 수혜원들도 이미 직감적으로 김국방위원장의 출현 사실을 감지. 김국방위원장은 군중의 환호 속에 김대통령이 탑승한 북평기 앞 대경 카펫 중앙, 북평기 뜨겁게

지러한 뒤 김대통령을 기다렸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송강군에 올라 앉았을 법치 김대통령이 온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내 승객기 아래의 김국방위원장과 눈인사를 나눈고 곧바로 김국방위원장은 박수로 환영했으며 김대통령도 박수로 화답. 남북 집단의 첫 상봉이 이뤄지자 환영하는 회담의 조화를 흔들며 “김대중” “김정일” 등을 외치며 뛰면서 열광했고, 북측의 허벅음내의 연주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A5면으로 '스케치' 계속됩니다



다가서고-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대통령과 공형으로 직접 영접 나온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다. (평안대사관기자)



나란히 걷고-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북한 3군 외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안대사관기자)

# 김위원장 “힘들고 무서운 길 오셨습니다”

김위원장의 말- 말- 말-

## “섭섭잡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방에외지 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다. 예절을 지킨다. 공산주의지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의 의문부호다. 243일 동안 대답을 해주는

시업에 김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기를 부탁한다.” 13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발언 중 핵심적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또 김대통령과의 ‘승용차 회담’에서는 94년 당시 김일성(金日成)주석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일성(金日成)주석 사이에 여집됐던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은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날 김위원장 어는 “대화(對話)”,

### 離散가족 상봉등 수용 가능성

▽전현준(全顯俊)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섭섭잡게 해주겠다”는 뜻은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해 평가 신봉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말은 민족화합 등의 문제에 대해 한민 압박성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비추진다. 이 같은 발언은 전반적으로 화남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94년 여집됐던 김장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김주석의 유혹을 신장하는 입장선상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 互讓정신 강조 南측 상의 유도

▽송영대(宋榮大)전통일부처관=전면적으로 쌍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합의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리도 양보할 뜻이 있으나 남측도 신의를 표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김을 내비친 것 같다.

“섭섭잡게 해주겠다”가 북측의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면 “장관들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은 남측도 신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말로 삼아된다. 합성인 만큼 ‘호양(互讓)’의 정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공중식기자)

kong@dongn.com

### 눈길 끄는 파격 行

## “金대통령 용감한 訪北 인민들 용감하게 환영”

우리 언론에 처음 공개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언행은 거침이 없었다. 13일 백화인영민관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초청자답게 시종 자신있는 어조로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김위원장은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수행원들의 방북을 ‘용기’의 관점에서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평양시민의 열렬적인 환영과 관련해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인민들이 용감하게 뒤쳐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도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과 수행 장관들의 ‘용기’를 거듭 치하하자 김대통령이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의 한 남측자는 “초청지속에서 방북 인사들의 용기를 강조한 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방북이 성사된 것을 치하하는 북한식 표현 정도도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이 힘이 풀리면 그만인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가 하면 남측 수행원들에게 “모든 것이 관대하다. 걱정없이 잘, 편안하게 지내 달라”며 배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김대통령과의 회담에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 의문 부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격식 없는 대화를 하자”고 거침없이 말했다. “나도 통치를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또 김용순(金容淳)노동당 대남담당부처장 부를 때 ‘승용차’라고 호칭해 눈길을 끌었다.

(윤송모기자)

ysmo@donga.com



### 南北정상이 나는 대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인영민관에 이르러가자 ‘승용차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백화인영민관 집결실에서 27분 가량 ‘상봉’을 겸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음은 두 정상과의 대화록과 김대통령이 별도로 김일남(金日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 나는 대화록 요지.

**승용차 안** 40여년간 계속됐으며,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박순영(朴善英)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다만 김 국방위원장이 94년 김일성(金日成)주석이 정상회담에 합의했을 당시 김주석의 심정을 많이 얘기했다고 진언.

A3면으로 계속됩니다



# 대통령 “민족의 새역사 만들어 갑시다”



南北 정상이 나는 대화

A2면에서 이어집니다

백화원영빈관 제1차정상회담

▽김국방위원장=김용순 아태 공화국위원장을 향하) 용순비서,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없는 장난들과 인사를 못 나왔어요.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향하) 평양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TV에서 와서 갑니다. (박치문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복합합의 다 TV로 많이 방송합니다. (김용순의원장이 공동선언문과 특별보조역에게 공동식수행원 스카프를 부탁했고 임보조역이 차례로 장관을 소개했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김국방위원장=남이 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은 그저께(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다

봤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영빈관까지 오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준비관계를 급방 알려주기 때문에 외신들은 우리가 마치 준비를 못해 (김대통령을 하루 동안) 못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보고 앉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통령=아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 나와 높이고 감사합니다. 평상 복내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주셔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000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남북도 화합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국방위원장=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가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관계사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왔습니다. (김대통령이) 아침 기자회견에서 주변분들을 집안만 드시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구경오시는 데 이틀도 이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김대통령=평양에 오면 식사 잘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웃음)

▽김국방위원장=내일부터는 경악 없는 대화로 갑시다. 김대통령 말이 분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지만 여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국제의 여를 다 갖춰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걱정 없이 잘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들 합

시다. 자위를 앞세우지 않고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수반도 환영하는데 김대통령의 방문길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방의 지구아라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를 줄 겁니다. 신문과 라디오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잡화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나오고 잠잠하

▽김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국방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개러에 도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를 줄 겁니다. 신문과 라디오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광고를 하면 잡화까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나오고 잠잠하

▽김국방위원장=그저께 반박을 통해 연동에서 영빈관까지 (김대통령의) 성모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면적 대처할 고도 못함을 알고 나왔습니다. (웃음)

영빈관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에서 자료를 부탁해 가 주었다는데 그때 김영삼대통령과 다정다감한 게 있었다면 조종권 화한 통회연 자료를 다 제출한 데... 이번에는 줄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를 재검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김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국방위원장=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대통령이 왜 승낙했는지 대한 의문부초입니다. 2백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인수대외시당에서 김영삼위원장과의 대화

▽김삼위원장=평양에 오신다 피곤하시죠, 비행은 순조로웠습니까.

▽김대통령=대단히 순조로웠습니다. 남측도 서울과 평양이 모두 좋았습니다.

▽김삼위원장=김대통령께서 어릴 때 보면 북정열차를 타고 오신 건데 앞으로는 북남이 합심 협력해 통일열차를 가쁘게 함께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통령=그럼 남이 겁이 없었습니다.

▽김대통령=(의사당을 나오다가 의사당총장이 ‘김일성화(花)’ 보조보석을 소개하자) 이것이 인 도까지야 학자가 연구해 냈다는 꽃 아닙니까.

<평양=공통취재단>

## □ 김위원장

### 경호때문에 신문-라디오엔 선전안했다 모든 예 갖춰 편하고 안전하게 모실터

## □ 김대통령

### 서울도 평양도 화창- 회담성공 예감 평양시민 열렬한 환영에 감개무량

나고 하는데 찬란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통령과 동감해 합을,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리가 있고 우리는 같은 조상민족입니다. (김용순위원장을 향하) “오늘 (연도어) 없애나 나왔나”라고 물었고 김용순위원장이 “해당형 거랑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국방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는데”라고 언급)

많은 역사의 광활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김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김국방위원장=오후부터는 공식 합의를 임종이 진행됩니다. 이 회담의 영빈관은 주석님께서 상전에 이력을 지어준 것인데 밖까지 꽃이 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산보 삼아 들러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상전한다면 (백화원영빈관까지 오는 순을 찬조산하) 주석님이 알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웃음) 김

## 金正日, 세계무대 극적 등장

### ‘순안공방’의 메시지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것은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극적이었다. 정상회담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회담이 하루 연기되는 등 그동안의 무어폭로도 결국적으로 극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전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최고의 의전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TV방송을 통해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순환 예고=정부관계자들은 “김위원장의 ‘극적 영접’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알리는 ‘강 신호’”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이 직접 순안공방에 나온다는 승용차에 동승해 숙소까지 안내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공이 우리(북측)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한 정부인사는 “회담 준비기간에 북측측의 자제가 굉장히 호의적이란 인상을 받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합하기 위한 호감을 얻었다’는 북측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이 첫 만남부터 승용차에 동승하는 ‘특별영접’을 노린 만큼 남북간 중 수송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선전 효과=김위원장은 영접행사에서 김대통령과 함께 의

장대 사열 등을 하며 많이 걸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런 장면은 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을 한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설명을 하거나 박수를 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다. 안정기인 김대통령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남

자’라는 인상을 줬다고 한 의견전문가는 말한다.

▽대내적 효과=김위원장의 ‘극적 영접’은 북한 내에서도 몇몇 최고위급인 이인 국도보안사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안공방에 동반한 인가들이 “김위원장이 ‘김정일’을 연호하며 감격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김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첫 주리할 자신이 주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상회담의 성공은 곧 내가 주도한 일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평권기자> bookun@idn.com

### 서방사회·남한 향배

### 이미지 개선 효과

### ‘정상회담은 나의 업적’

### 北韓주민에 부각 시켜

# 北수뇌부 경험 분위기 확인 향후 실무협상 밑그림 그려

## 訪北 경제인 움직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이현재(李震宰)재정경제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이 공식 수행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 및 4대 그룹 대표와 북한측인 기업인 등 10명이 북방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평양에 머물고 있다. 이상관과 이수석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최고 사령탑. 방북 기업인들도 국내경제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싸여 있다.

## 李수석 막후역할 관심

V(李)·이(李)라인의 역할 = 이장관과 이수석이 정상회담 기간 중 어떤 인물을 만나고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김대중과 방북기간 내내 함께 움직이지, 별도의 활동기회가 주어 진지조차 불분명한 상태.

이장관은 방북 전날인 12일 간부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개혁 방안을 잘 챙기라"는 지시 외에 북한에서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찍 언급하지 않았다.

"이 라인"에게 주어진 방북 과제가 남북경협의 큰 틀을 짜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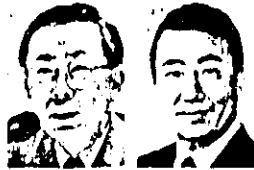
우선 남북경협 문제를 전담해 다루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북한측과 의견을 나누고 예기가 잘 될 경우 가능 시기를 앞당기자는 원칙에도 합의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

이수석은 경제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수행원이라는 점에서 막후에서 "모종의 임무"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관과 이수석의 북관측 파트너로는 현직 총 노무현경제담당비서와 홍성남 정부원총리; 박남기 국가개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주관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참구익을 해온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과 송호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대외의 자리가 미려한 전망.

## 북한측 의중읽기 촉각

V기업인은 대북사업 탐색 경쟁 = 이번엔 북한을 방문한 재계 인사는 △김제단체 대표로 김재철 무역협회장, 손병두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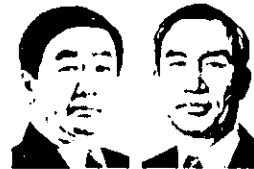
이현재씨 이기호씨



손병두씨 김재철씨



정동현씨 윤중용씨



구본두씨 손길승씨

경제인연합회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4대그룹 대표로 정동현 현대이산이사(전 현대그룹 회장), 윤중용 삼성전자부회장, 구본두 LG회장, 손길승 SK회장 △북한측인 기업인으로 장차현 전경련산하 남북경협위원장, 강성모 인나이코리아회장, 백낙환 연세대총장 등이다.

총선 직후 방북을 추진해온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임종을 다소 늦춰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을 찾을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이는 최근 현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정동현 현대이산이사. 현대의 대북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는 사해안 공업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북한측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 사업을 상당부분 독점해온 현대 입장에서는 남북경협 장구의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측의 의중을 다각도로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LG SK는 대북 진출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하면서 북한 고위층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 북黨-政-軍 핵심실세 순안공항에 총집결

金永南 金容淳 姜錫柱 등 영접 나와



김영남



김용순



강석주



김명대



송호길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한 북측 인사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측근 실세 그룹이다. 이처럼 북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외빈 인접을 위해 공항으로 총출동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접 인사 진용은 우리로 치면 국가 안보와 경제를 겸직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들이 모두 동원된 셈. 따라서 김대통령의 수행인에 우리측 NSC 구성원들이 거의 포함됐다는 점에서 남북의 최고 안보 경제를 겸직하는 핵심 인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변식을 한 셈이기도 하다.

북측 임접 인사는 최고인민회의 김영남(金永南)상임위원장과 최태복(崔泰福)의장 등을 비롯해 조명목(趙明穆)인민군총정치국장 노봉남(李鳳南)김국대(金國泰)간부담당비서 김용순(金容淳)대북담당비서 강석주(姜錫柱)외무성제1부상 등으로 당 집 권의 핵심 실세들.

특히 조명목총정치국장과 최태복의장, 김국대 김용순 담당비서 등은 김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트랩 앞까지 걸어가 김대통령을 인접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민족화해평화회의장 김용희(金容熙)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장영남(張英南)인민위원위원장(시장) 안경호(安敬浩)시국장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변영림(邊英立)교육상과 여영구(呂英九)최고인민회의부의장 등의 얼굴도 위성 방송계인 TV화면에 비쳤고 '메이킹 팀'이었던 송호길(宋浩吉)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도 김국방위원장을 수행했다.

이날 공군1호기 기내까지 들어가 영접을 담당한 전회장단중앙위원회 김국방위원장의 이전담당비서, 그는 김일성(金日成)전주석 생전시 금수강의사당(원 김수상기념공전) 의사국장을 받았던 의전명이다.

반면 당중앙위 비서 중 한성룡(韓成龍·김제담당) 김기남(金基南·선전) 김중원(金仲源·군로단체) 전병호(全炳浩·군수) 계응태(桂應泰·공안)비서 등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또 남북 관계 행사라는 점에서 공화에 출연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백남순(白南淳)외무상도 걸러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북한군 의장대 분열

홍남대사기기자단

북한 3군 의장대가 13일 평양 순안공원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향해 힘차게 분열하고 있다.

# 황색잠바 색안경 낀 '지도자 동지'

## 金正日위원장의 스타일

### 평소 달던 金日成배지 부착안해 눈길 "내가 더 젊다" 등 거침없는 발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첫 만남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외모와 스타일을 현 눈에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주었다. 김위원장은 그동안 공개 서한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더 그랬다.

무선 김위원장은 건강하고 탄탄한 모습이었다. 그는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당시 입었던 검은색 인민복과는 다른 황색의 간판복 차림이었으며 합스버리워 같은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있었다.

김위원장은 김위원장이 직접 인민복을 개량한 것으로 구수한기 싫어하고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기질을 보여준다는 게 김문기들의 설명. 김위원장이 양복 입는 모습을 보인 것은 92년12월 개의 조조리 상공연습이 지난날 김성중 전사위를 치렀을 때가 유일했다.

또 하나 눈에 띈 내복은 김위원장이 평소 달고 다니던 김일성배지를 달지 않은 점. 전문가들간에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위원장은 탄신(誕身)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172cm 키의 김대통령과 비슷해 보였다. 남지배 북한에 머물렀던 매우 최연소(崔延燾)씨와 김위원장의 조카 이찬인(李贊仁)씨 등의 증인을 종합하면 김위원장의 키는 160~166cm.

그는 키를 크게 보이게 위해 '지도자 동지'로 불리기 시작한 70년대 초반부터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에서 복수 제작된 굽 높은 신발을 신었으며, 굽 높이는 보통 여성의 하이힐 높이인 7cm 정도라는 것.

김위원장은 또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김대중령에게 박수로 미동하는가 하면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였고 성품이 미소와 짓웃 등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며 대중 친화적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과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이 몸이 튼튼한 것도 알고 있다" "나도 튼튼하고 있지 않나 더 젊다"는 거침없는 언사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당대해 행하는 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구자홍기자>

bonhong@donga.com

## 공항 영접 나온 김정일 위원장

키 160~166cm

70년대 후반부터 위로 넘긴 고무머리

70년대 후반부터 착용해 온 김일성 배지. 이같은 착용 안함

30세부터 근세로 안경착용

황색잠바 공식석상에서 인민복과 교대로 착용

체중 80~85kg

70년대 초반부터 착용한 굽높이 7cm의 구두



## 우발적 사고 예방 도움

### 南北 핫라인 설치 의견접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설치될 수 있을까. 남북 최고지도자간에 핫라인이 설치된다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국방위원장은 13일 "91년 김일성(金日成)주석 서거 전 김일삼(金泳三)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도 직통전화 한 봉화면 (남쪽이 원하는) 자료를 다 줬을 텐데..."라고 운을 폈다. 남북간에 직접 연락방법이 있다면 북측도 적극적으로 도움 의사가 있음을 "뽕 크게" 표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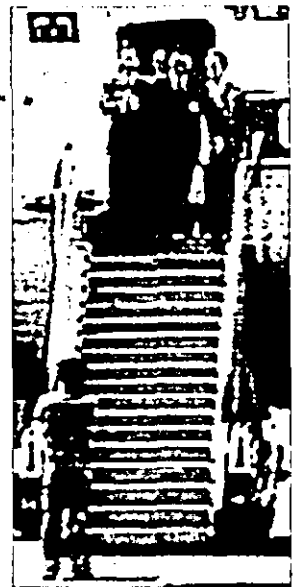
김대통령은 김국방위원장의 언급을 놓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제 동감한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하자"고 남북간 핫라인 설치제의를 구체화한 것.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실무자간 정보교환의 수순을 전단계 더 높이 청와대와 김국방위원장 김부실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제안이다. 남북 핫라인 구축은 김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6월 연평대포전 때도 남북간에 핫라인이 있었다면 군사간섭이 완화됐을 것이라는 평가처럼 핫라인 설치에 남북간 신뢰구축을 전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영남위원장 부인과 한담  
김대중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오른쪽)가 13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에 앞서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인과 한담을 나누고 있다.



13일 평양 순안공원에 도착한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비행기 트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서로 박수칠 보내고 있다.

# 김영숙 안보였다

## 공항·백화원 만남때 金正日 혼자나와 여원구 부의장이 李姬鎭여사 안내할듯

평양 순안공원에 내린 이희호(李姬鎭)여사의 카운터파트(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뒤를 따라 '공군 1호기' 트랩을 내리온 뒤 김대통령을 먼저 임박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환영인사를 받았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두 손을 내밀었던 것과는 달리 한 손을 내밀어 이희호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어서는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나란히 북한 군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3, 4m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김위원장의 부인인 김영숙은 현재까지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순방이나 외빈 임박시 부부가 함께 하는 시방외교와는 달리 최고지도자가 부인을 동행하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 외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외국 순방 때마다 부인 라이시를 내놓았던 구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특히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백화원방문에 도착한 김대통령 내외와 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할 때도 이희호의 상대가 없어 세 사람이 다소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어서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한담을 나눌 때도 조용히 옆 자리에 배서졌다.

따라서 이희호의 향후 임직에도 김영숙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이희호를 안내할 북측 여성고위인사가 누가 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희호는 평양 체류기간 중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안산원 관공유치원 등을 방문하도록 공식 임직이 잡혀 있다.

일단 13일 오전 공항현행색사에 모습을 비친 북한 여원회(妙尊 任運亨) 선생의 딸인 여원구(呂媛九)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희호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친연육 이선동행위원장도 이희호의 임정에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윤영환기자〉  
yvc11@donga.com

## 北 정보기관장 공식방문 부담- 특보자격 허용

### 林東源국정원장 방북 배경

13일 TV를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지켜본 사람들은 임동원(林東源·사진)국가정보원장의 얼굴을 보고 의아해 했을 법하다. "북원이 가장 싫어한다는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장(長)이 어떻게 방북 대표단에 갈 수 있었지..."

임동원은 이날 낮 백화원방문과 김위원에서 진행된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1차 김장회담에서 수권원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과거에도 정보기관장의 방북사례가 없지 않았다. 박정희(朴正熙)정권 때인 72년 이후라(李厚洛)총리정보부장, 5공시절인 85년 강세준(姜世俊)안기부장, 노태우(盧泰愚)정권에서는 서동원(徐東源)안기부장이



대북 밑사로 평양에 파견됐다.

하지만 임동원과 같은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 북측으로선 55년간 식대사태로 남북 정보기관장의 방문을 공식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아닌 특보자격으로 받아들였겠지만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원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임동원의 방문을 양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는 회담이 상당한 신뢰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 김대통령 출발 성명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헌신을 직시하는 자부한 미리를 가지고 평양 방문 길에 오르코자 합니다.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 오던 남북 북이 회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번 평양 길이 평화와 회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000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의 평양 길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행복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간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평양 방문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골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통령 도착 성명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제 평생 북녘 땅을 밟지 못한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짓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000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남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남 동포가 이번 회담에 가는 기대만큼이나 북녘 동포 여러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거리가 회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장과 저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민족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중” “김정일” 평양하늘 메아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양내사간기사단

김대중대통령이 13일 평양 순인공항에 도착하자 평양시민들이 조화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환영인파의 꽃과 함성의 물결은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 평양에선-

평양은 환영의색이었다. 순인공항 행사장은 분분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위원이 공 항에서 평양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연도에는 울분 꽃을 든 군중의 물결이었다. 공화 환영객들 사이에선 “김대중, 김정일” 구호가 번갈아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연도에 나란히 시민들은 진중색과 분홍색의 조화(調花)를 흔들며 “만세, 만세” “김정일, 김정일, 김시흥과 김서

## 60만시민 환호- 영빈관까지 ‘꽃의 물결’ 안내원 “남측대통령 환영 자발적 인파”

동위”라는 두가지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걸었음이 되었다. 10시 50분 순인공항을 떠난 김대통령임행은 백화원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11시 10분경 평양시 압구 언덕에서 잠시 정차, 이들 환영객과 잠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연도의 환영인파가 워낙이나 되는지의 분제가 남북의 두 정상간에 회제가 되기도 했다. 김경의위원장은 백화원영빈관에서 김대통령과 환영하는 가운데 김용순노동부차장(차장비서관) 황해 “오늘 얼마나 나왔나”라고 불렀고 김용순위원장은 “60만명이 환영이 잘 됩니까”고 하자 “내가 보기에 10만 김대중”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방송들은 이날 인파가 6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종영대통령정보수석비서관은 “60만, 40만명 얘기가 있으나 90년3월 김제민중국

당총서가 왔을 때 상대한 환영식을 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안내원은 “평양시민들이 대부분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측의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파”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안내원은 “어제 김대통령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공(合)을 쳤다”고 말해 전야에도 사람들이 나왔다가 되풀이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내원은 “위대한선장군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조강이 어머니”고 불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차량행렬은 지속 평균 30㎞ 정도로 늘었는데 연도의 환영인파가 꽃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는 장면은 11시 40분까지 무려 30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연도 중간 중간에는 화성으로 구

성된 아내가 나와 행진과 등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환영인파로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은 편이었으며 행렬이 지나갈 때는 더욱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일부는 김대통령 일행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경호원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우리 대표단도 연도를 지날 때 환영인파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노력했다. 공식 차량행렬이 끝나고 기자들이 탄 차량은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한 본대와 분리돼 기자들의 숙소인 고려호텔로 향했는데, 이로 인해 환영행사를 마치고 집이나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평양시민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과 마찬가지로 번갈아 표정으로 꽃이나 손운 흔들었지만 구호는 외치지 않았다. 한편 평양 시내 곳곳에는 “조선은 하나다”, “자주 평화 친선” 등의 구호가 내걸려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알렸다. 또 내로연에는 인공기가 내걸린 모습도 보였다. (평양=공동취재단)

## 北TV 오후7시 특집보도 “동일성업 이룰 중대사건”

북한의 방송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지 6시간 반 뒤인 오후 5시에 라디오, 오후 7시에 TV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후 5시 뉴스 시간에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 사진 등을 10여분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7시 특집을 통해 김대통령의 도착과 정상회담 소식, 60만 평양 시민이 나와 환영하는 모습 등을 25분간 전했다. 북한 방송들은 “이번 남북과 회담은 민족주체적 노력으로 북의 상업을 비롯해 나갈 거리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열기자) heo@donga.com

# “한핏줄” 감격... “이질감” 당혹



## 서울에선...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과 북한측의 영접 행사 등을 TV화면을 통해 지켜 본 시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큰 걸음으로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감격을 표시했다.

입부근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과 뒷줄 등 다소 이질적인 모습이 총격과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다.

## “우리는 하나 새삼 확인”

이복 7도 도민회 평안남도 중앙도민회 유경철(劉敬哲·69)사무국장은 “기려졌던 북한의 비밀이 한겨울 벗겨진 느낌”이라며 “화란 일정이 하루 순연된 것도 이 허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도민회 사무실에서는 2)여명이 모여 TV뉴스를 보며 ‘이번에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주부 이은정(李銀貞·30)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씨는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라 머릿속에 북쪽은 적감, 남쪽은 초목이만

지도가 입력해 있는데 이제 한가지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황주유(黃柱有·21)김천대 지리학과)양은 “열광하는 북한사람들을 보며 너무 감동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비롯한 N세대들에게도 ‘민족은 하나’라는 강한 자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날 기념시합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마중이나 구내식당의 TV 앞에서 열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북과정을 지켜봤다.

가정주부 이윤미씨(35·대전 유성구 건민동)는 “솔직히 남북통일에 대해 깊은 생각은 안해왔지만 두 정상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은 보는 순간 온 몸이 전율을 느꼈다”며 “오전 내내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격렬 환영’에 놀라기도

외사 이승희(李承熙·35·부산 사하구 괴정동)씨는 “두 정상이 손유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겠구나’하는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나 공항에 다중나온 평양시민들의 과장된 듯한 반응은 약간 거부감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서창범씨(23·서울 용산구 한남동)는 “평양 시민들의 환영 구르면서 온몸으로 보내는 환호와 열광이 매우 놀랐다”며 “그들의 격렬한 환영과 몸짓이 진심어린 것인지 단지 보여주기가 위한 훈련된 동작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부·이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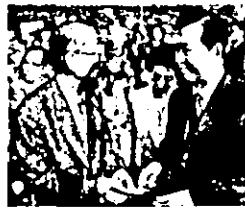


본면 특기자

“드디어 만났군요.”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김정일(金正日)대통령이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감격하고 있다.

## “실향민恨 풀어주소”

김대통령 환송나은 김경희씨  
北가족 사진 보여주며 호소



● 특회기자

실향민 김경희씨가 김대통령에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53년을 보내야 했다.

총외대 앞길에서 김대통령에게 간절한 소원을 전한 그는 이제 잊남의 아픈지보다도 훨씬 더 눈여겨봐왔다. 김대통령의 방북 하루

전날 12일 부랴부랴 서랍을 뒤졌다. 이미 누렇게 변해버린 부모님의 사진과 남동생의 편지를 찾아 이날 아침 청와대 앞으로 달려나온 것이다.

김씨는 백방으로 북쪽 가족의 소식을 수소문한 끝에 4월 캐나다에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다. 뜻하지 않게도 북한에 있는 동생이 보낸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머슴간 잠을 이루질 못했지요. 동생이나마 살아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하나라고 했다. “부모님 산소에 큰길은 있는 것이지요. 땅도 안하고 떠나온 제 짐짓에 대해 용서해 달고 싶어요.”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金正日 회담성공 의지 보여”



세계 인문 긴급 타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대통령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양으로 쏠린 세계의 눈.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대중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예성치 없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자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TV 화면을 지켜보던 내외산 기자들이 감동과 흥분의 탄성을 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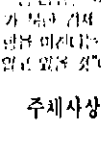
CNN 방송은 김대중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북과 남의 회담을 미국 시간이 밤 11시 45분경부터 시작해 13일 오후 11시 45분까지 생중계했다.



신화통신은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남과 북의 회담을 중국 시간이 밤 11시 45분경부터 시작해 13일 오후 11시 45분까지 생중계했다.



일본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뒤 흥분했다. 특히 NHK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뒤 흥분했다. 특히 러시아 언론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北방송 “金대통령”호칭 첫 사용

‘남조선’ 대신 ‘남측’ 표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다룬 북한 방송의 13일 보도 내용은 종전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대중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존칭 쓸때엔 미묘한 차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다룬 북한 방송의 13일 보도 내용은 종전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대중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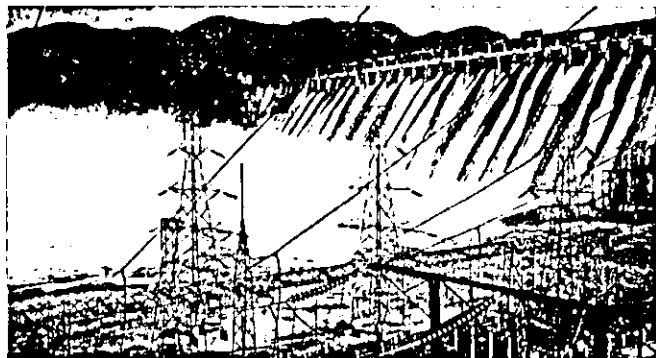
“정발 통일되려나” 한민족 흥분-감격- 해외교포들은-

분단 50년만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장면은 TV방송을 통해 지켜본 해외동포들은 절박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이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흥분이 눈앞에 달린 듯 흥분하기도 했다.



# 전력-생필품 北투자 '1순위'

## 北 발전소 증설-통신망 확대 절실 섬유 신발 전자조립 분야도 유망



북의발전소 (시진)

북한의 경우 상당수의 발전소가 시설이 노후되고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은 평양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수동 발전소(시진) 등의 출력을 높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안축을 인정하자는 것.  
▽제조업과 농업-현재 제조업 분야와 김업은 중소기업의 임가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진출은 미미한 상태.  
북한의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한 김을 고려할 때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이 유망하다. 구체적으로 섬유 신발 의복 분재 식량기름 등의 김공업은 남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북한 차원에서 신방직으로 진흥돼 온 남북간 김제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히 나게 됐다.  
남북 김업은 한 시장에서 북한이 가장 장점이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일약한 김제시설을 감안할 때 전자 통신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소비재 등 생필품 제조업, 농업 생산 등이 1차 협력대상으로 꼽힌다.  
김부 고위관계자는 "통신망과 같은 기간시설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의 민간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독점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의 김제발전 과정에서 SOC 분야의 해외종속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남북한 김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의 지원에 주의를 기울여야"라고 말했다.  
▽SOC 확충-에너지 부족은 북한 김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의 골칫거리. 발전 시설이 노후해다 인연과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상당수의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산업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김경력을 끌어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김업에서는 화력발전용 식량과 발전소 증축이 김업의 선결. 남한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1000여만 t의 무연탄을 제공하면 북한의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김관서와 같은 농산물 미그네사이트 등 일부 광물을 북한에서 반입하는 구상 무역 형태의 거래가 가능하다.  
북한 지하자원과 대륙붕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탐사와 생산에 나시고 해외판매권을 함께 개척하는 것도 유력한 협력 방식. 한국전력은 평양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수동 등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남한의 정보통신 업체가 북한의 통신망을 끌어주자는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남북김업의 활성화로 안축의 통신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나중에 통신이 생기자 없도록 같은 종류의 시스템으로

## SW 수준급, HW는 '초보'

### 北 IT산업 어디까지 왔나

북한정보기술(IT)산업은 소프트웨어(SW) 분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드웨어(HW)는 단순 조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80년대부터 HW 분야에서 SW 분야로 방향을 바꿔 SW개발에 적극 나섰고 있다. 그 결과 SW 기술은 우리 나라와 3~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W 개발현황-북한에서 SW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은 과학원, 김제공대의 전자계산연구소, 평양프로그램센터, 조선김퓨터센터, 은별김퓨터기술무연센터 등. 이들 기관은 매년 '김컴프로그램 김안 및 김소프트'를 개최한다. 김경원 국방위임장도 99년부터 이들 김퓨터 관련기관을 수시로 방문,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용 워드프로세서는 현재 '강남 5.0'과 '남관'이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남관'은 인도김경원에서 한글 처리가 가능함을 물론 남한의 KS코드도 지원한다. '강남'은 유신인텔넷에서(ITT

ML) 분사작상 및 설계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남한 수준과 엇비슷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북한은 군사용 SW 및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SW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조선김퓨터센터에서 개발한 해남교통신시스템(NTCS-21A) 자동항해지휘시스템(ANCS-4) 교통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HW는 낙후-북한은 60년대 말 '전진 5500'이란 1세대 디지털 김퓨터를 완성할 정도로 남한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 있으나 이후 기술력이 크게 낙후됐다. 82년 8메비트 PC인 '명화 1'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32메비트 PC를 생산하는 수준. 평양김퓨터조립공장은 연간 3만여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주로 국방 및 공공기관용으로 보급하고 있다.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연구소는 김적회로(IC) 시김공장을 설립, 반도체 부분의 기술개발에도 나섰고 있다.  
북한은 특히 김보호 축산의 급간이 되는 통신사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인터넷 등이 생산 김퓨터에서 모두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영태기자) ebizwiz@donga.com

## '서해안 특구 공단'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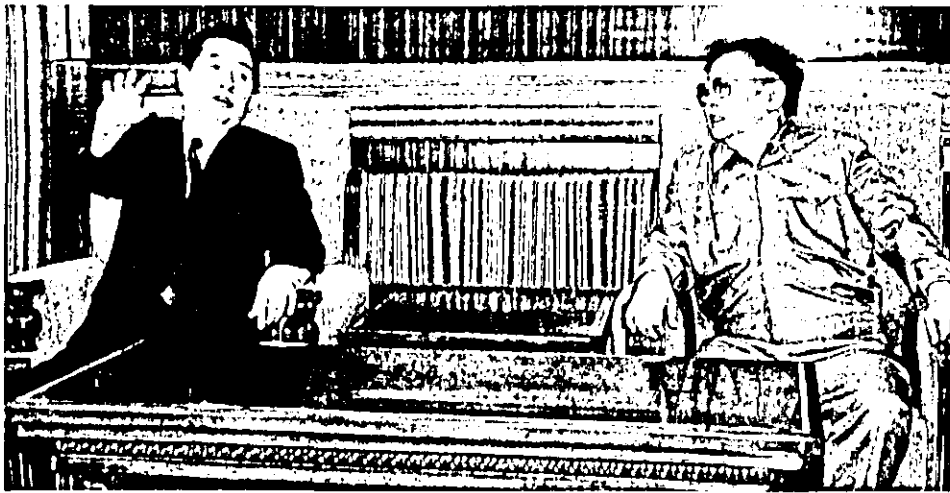
### 기술력-노동력 결합 '윈-윈게임' 개방 파급효과 커 北결단 필요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대거 입주,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할 날이 과연 얼마. 남북김업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업아이템 중 한국기업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프로젝트는 서해안 특구공단건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북한의 값싸고 김 좋은 노동력과 김합해 서로간에 윈-윈(win-win)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남아시아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신발 식품 등 노동김약적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서해안 공단 입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2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해 단순한 김제산업 해김할 수 있다.  
그러나 서해안공단은 북한의 정치적 김안과 평양 프로젝트이다.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남한 기업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의 파급효과가 김강산 관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제의 존립 자체

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한 김업이 어려워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서해안 공단건설을 아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와 삼성.  
현대해 해수나 남포 부문에 총 2000만 평 규모의 김제특구 공단을 개발,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한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  
삼성 역시 남포나 해주 일대에 수원전 자단지과 유사한 대규모 전자단지조김 계획을 추진중이다. 50만평 규모인 전자 단지에 10년간 5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  
그러나 북한은 평양과 가까운 곳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듯 우리 측에 평안북도 신의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측은 신의주가 저지대인데다 물류비용이 수천시간에 분해 있어 입지조건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북한의 김업을 고려, 신의주에 중국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해주와 남포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 “통일열차 탈 날 멀지 않았다”



백화원영빈관 횡담  
김대중대통령이 13일 숙소의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횡담하고 있다.



잘 알려진 여자 마린 출신 정성옥, 영화 '임꺽정'의 주인공 최창수씨 등 인민배우, 복숭달 이인모 노인의 딸 이현숙씨 등이 참석해 농담, 태극기 마다 남북 김씨가 걸만 정도까 섞어 앉았다.

## 이현상 딸이 의사당 안내

○...김대중일  
은 오후 3시20분쯤 송봉지점으로 방수내 의사당을 찾아 북측의 권력자의 2인인 김일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횡담, 김대중일로는 로비에서 김일남위원장의 임종을 받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김일남위원장이 "앞으로는 북남이 합심 협력해 통일사업을 기쁘게 하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자 김대중일로는 "그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회답.

○...25분여 동안 약속 인사간 비공개 횡담이 끝난 뒤 김대중일로는 이상진 의사당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김대중일로는 안내한 이현상은 "지리산 뺨치산 대장"으로 유명한 이현상의 무남독녀로 알려져 있으며 6·25전쟁 때 아버지가 지리산 뺨치산 대장 옹로 활동하자 어머니와 함께 왕복한 후 김일남정수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 (평양=공동취재단)

## 만찬 2시간半 화기애애- “통일” 전배 金대통령 “힘 합치면 못이룰게 없다”

김대중일로는 자리 자세로 손을 흔들며 답례.

이어 두 정상은 평양시민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북측이 미리 준비한 송봉자로 이동, 김대중일로는 잠시 환인 군중에게 손을 흔들 뒤 송봉자 오른쪽 뒷자석에 올랐고 잠시후 김위원장이 왼쪽에 놓여 10시 40분쯤 북측 사이드카의 선도를 받으며 백화원 영빈관으로 출발.

한편 이회도에서는 두 번째 자를 타고 왔는데 이사를 동행해 왼쪽에 앉아 안내관 사람은 박선옥(대평화위부장)이라고 박선옥(대평인)이 설명.

○...김대중대통령 대회는 이날 오후 7시10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일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치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 남측 수훈단, 취재단 전원과 북측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은 2시간30여분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김정순(내무성위원장)은 먼저 만찬사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 함으로 통일과 번영의 2세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대중일로는 답사에서 "어느쪽 지적에 같은 동모가 살고 있는데 이기 오기까지 감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며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음,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김대중일로는 제외.

○...북측 참석자 중에는 남측에도

### A4면에서 "스케치" 이어집니다

○...김대중일로는 내외는 이어 북측 화물로부터 왔다. 김대중일로는 김위원장을 김에서 이을 자기보다 박수, 김대중일로는 자일내 앞에 서 있던 우리측 공식 수행원들을 김위원장에 소개, 김위원장은 평동원대통령특별한 관공비사실장 박지일문화관광부장관 등 우리 측 공식수행원들을 소개 받을 때마다 "아 그래요"라며 반가운 표정.

### 의장대에 손흔들어 답례

김대중일로는 곧바로 김위원장에 안내로 의장대에 서면, 김대중일로는 김위원장이 사일내 앞을 통과하자 서면 음악대 책임자인 북측 대외가 "큰 북 소리로 "김대중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

김위원장은 의장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반기수준에 자세로 서기였으며

### 서울-평양 '하늘길' 62분

"랜드 오프(Land off)우리 공역을 남겼다(남측)."  
"리저(Doger)왔다, 인수하겠다(북측)."

13일 오전 9시51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년 전용기가 사해 북방항공(NTL)을 넘어 순간 대공 항공교통중재소(ACC)와 평양ACC 사이에서 이 같은 남북간 첫 교신이 이뤄졌다.

### 公海까지 만나가고 北上

이날 서울~평양간 전용기의 비

### “핸드오프” “라저” 첫 관제이양

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남한 비행정보구역(FIR)에서는 대구 ACC가, 북한 FIR에서는 평양 ACC가 관제했다.

남측 전용기는 사해 공해상으로 나가 북방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구ACC~중국 상하이(上海)ACC~평양ACC 순으로 관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일어났었다. 이 때문에 남북 양측이 중국 FIR로 들어가기 직전 북방하는 한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전용기의 비행은 ICAO 규정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를 임호하는 우리 공군 전용기와 군 난국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III 긴장속 업호-항로추적

전용기가 서울공역을 이륙한 것은 오전 9시18분. 이 순간 추주미 연에서 피오된 FIR(전용기 관제와 원주 및 수원비행장에서 출동한 F5 전용기는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용기를 업호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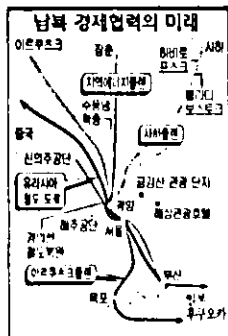
다.

전용기가 9시51분 NTL을 넘어 서면서 업호 비행하던 전용기들은 소속기지로 귀환했으나 합참 지휘 통제실과 오산 중앙비공중재소(MCRC)에선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10시20분까지 62년간 현지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북측은 이날 업호 전용기를 아예 발견시키지 않았다. 군관계자는 "전용기가 NTL을 넘어 때 북한지역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없었다"며 "북측이 전용기를 띄우는 것은 예외에 여섯되고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

# “때가 온다” 힘쫓는 재계 대북사업 준비 박차



## ‘경제통일’ 이루어지면

남북한 정상회담의 획기적인 성공은 정치적으로는 남북 경협의 종언을 뜻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는 개방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전세계 경제에 있던 ‘대륙국가’의 도와 가능성의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런 북반대우의 단점으로 대안과 장곡부족에 의해서 생긴 한국경제의 지능이 전 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남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북

내서 풀려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최대 프로젝트인 이은쿠르크 가스관 사업에도 시동이 비친다. 러시아~중국~북한~남한을 잇는 가스관 매설한다는 구상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였어지고 있지만 정상회담으로 한층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의 만반으로 비호된 남북경협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계기로 재계의 남북경협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재계는 원활한 대북사업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적지않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남북 첫남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과격적인 예우 등을 감안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사업여건이 좋아졌으며 대북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령 남북을 환영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기대했다.

구현대 삼성 LG 등 ‘빅3’의 움직임이 대북사업의 선두주자인 현대는 신시해안공단 부지선정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금강산 철도(가칭) 건설 등 대규모 사업현안에 대비한 실무차원의 사업계획 검토를 마쳤다.

현대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스노우리조트 개장 △관광코스 추가 개발 △관광선 부산출항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키우면서 국내의 자본을 유치, 금강산 원대륙 호텔 규격 호텔 등 100여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2000만평 규모(예정)인 시해안 공단의 경우 우선 100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사업부터 시작키로 하고 남포 해수욕장 등 유망지역을 부지선정사업에 착수했다.

또 따르면 삼남기동 정수원(鄭洞水)전환대면회합의 고항인 문천에 김중업단지 건설을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상선은 북한 정전장 압박에서 속식 등 ‘해상호협’ 기능을 하는 유압선류 개발 예정.

상신전자는 남포와 해주 일대에 수원전지단지와 비슷한 50만평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조성해 전자 부품과 가전 장비공정기기를 조립 생산, 수출하는 계획과 추진 중이다. 상신전은 북한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10년간 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 3대그룹 주요 대북사업

- 현대** 시해안 공단개발, 금강산관광, 통일경공업단지조성, 해성호텔 건설
- 삼성** 전자단지 조성, TV 전회기 오디오 등 임가공사업
- LG** 전자 및 화학분야 특화된 전자설, TV임가공사업, 자연계합성사업



## 국내 기업의 주요 대북사업

|      |                       |
|------|-----------------------|
| 대우   | 남포공단 환경정화 가능          |
| 대우   | 남북한 및 러시아 있는 철류시스템 구축 |
| 삼성   | 북한내 전자부품조립사업          |
| 삼성   | 신발 임가공사업              |
| 한국통신 | 북한 통신용 현대화사업          |
| 온세통신 | 북한내 통신망 구축            |

대 이어 북한에서 부품을 생산, 조립하거나 북한측과 공동으로 합성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북한 상선과 자선사업 추진 선봉지구에서 자선사업도 추진할 방침.

구대은 대우 및 중소기업도 현대는 북한과의 합성회사인 남포공장을 통해 온 내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중유기어 따른 대북사업 참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 금강산국제공장은 북한에 건설한 자동차조립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아탈리아 피아트자동차 생산과 역적, 또 삼성사 카드판 등 10개 중소기업은 20일 평양을 방문, 북한 내 삼성 및 LG전자 TV 조립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그룹은 속초항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계획 중이다.

- 현대 금강산개발로 앞장
- 삼성 전자복합단지 추진
- LG 물류단지 건설계획
- 금강산그룹 자동차생산
- 한동 통신망현대화등
- 개발기업도 준비 서둘러

또 북한에서 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와 전화기, 오디오제품을 지난날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피커 및 모니터 등을 북한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 내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센터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G의 대북기업 장구적인 LG상사는 대북 경협에서 복합단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보고 전자 및 화학 분야 복합단지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다.

LG전자는 96년 평양 시내에 컬러TV 임가공공장을 설립, 올해 1만5000대의 북한산 TV를 반입하는

# 한국경제 새지평 열린다

한국의 개방한 철도-가스관 남북한 연결 무드는 이같은 대륙적 스케대로 하는 한 대륙 물류기지화 가능성 일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제

차와 시공전반의 집적인 발전과 변화의 필요로 보인다. 육상선이 막고 있는 장벽이 단절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는 이제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대륙의 연결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볼 만하다.

구대은 대우 및 중소기업도 현대는 북한과의 합성회사인 남포공장을 통해 온 내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중유기어 따른 대북사업 참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 금강산국제공장은 북한에 건설한 자동차조립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아탈리아 피아트자동차 생산과 역적, 또 삼성사 카드판 등 10개 중소기업은 20일 평양을 방문, 북한 내 삼성 및 LG전자 TV 조립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그룹은 속초항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하는 철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 한반도의 물류 유통 시스템에 있어 혁명적 개선이래,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이런 이점을 노리고 외국기업도

주요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수송업은 배종경박사는 “20년 이후 자본주의 실험을 앞무 거친 나진 선봉지구를 남한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과 같은 유통단지조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는 육초에서 직접 나진으로 연결되지 못해 러시아 연해주의 도시에서부터 국제 화물이나 물유 유통의 중심지로 전향해가고 있었지만 나진 선봉지구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이곳은 도시예대국 이상의 중개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들이 작각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다 이상 편이 막힌 반도 국가가 아니다. 좁은 우리에 갇힌 ‘도끼’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이명재기자>

mjle@donga.com

## “나도야 간다” 기업인들 줄줄이 방북

### 내주부터 정주영씨등 잇달아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현대 정주영 전명예회장을 비롯해 삼성 이근희 회장 등 정상회담 이후로 방북 일정을 미뤘던 기업인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인 남북한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경우 기업인들의 방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남북김합을 가장 주도적으로 펼쳐온 현대 정주영 전명예회장은 이달 말 다시 북한을 방문한

다. 현대는 정전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통천 김공업단지 조성과 관광위락시설 착공 문제, 서해안공단 부지 선정 등을 일괄 타결짓기 위해 정 전명예회장의 방북을 추진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 이후로 방북 시기를 늦췄었다.

삼성은 50만평 규모의 전자단지를 남포와 해주일대에 조성하는 계획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근희 회장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회장의 방북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자단지 조성에 관한 북한 측과의 실무협약이 급진전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회장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북 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된 고향투자협의

회 소속 기업인들의 방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정상회담 발표로 방북을 연기했었다.

진검권은 특히 정상회담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북 출신 기업인 및 다른 실향 기업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고향을 돕는 지원성 사업을 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각 조합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방북조사단이 내달중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밖에 삼흥사, 캐드컴, 기라정보통신 등 10개 중소기업체 대표도 북한의 초청을 받아 20일 경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 정상회담 주식시장 반응

13일 주식시장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격언이 그대로 적용된 자세였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달 말 장중 지수 625에서 반등을 시작한 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호재가 터지면서 10여일(거래일수 기준)만

을 순매수하는데 그쳤다. 반면 13일째 매도세를 이어온 기관투자자들은 이날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섰으나 하락폭을 좁히지는 못했다. 기관은 이날 21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남북경협 주도주인 건설업종은 13%이상 떨어져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한국통신 등 대형 우량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내린 종목은 하한가 27개를 포함, 697개로 오

## 美증시 큰폭 하락... 경계매물 쏟아져 외국인 투자자들 관망세로 돌아서

에 무려 220포인트나 급등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이 실제로 성사되자 차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40포인트 이상 하락, 800선으로 곤두박질쳤다. 코스닥지수도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1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주가하락은 미국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날 들어 2조원이 넘는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이날 310억원어치

를 종목 161개의 4배를 웃돌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하락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매도에 나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 “통일조국서 ‘통일노래’ 지휘 머잖은듯”

‘우리의 소원’ 작곡가 안병원씨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귀에 더욱 익숙해진 통일 ‘우리의 소원’의 작곡가 안병원(安丙元·74·캐나다 토론토·사진)씨는 13일 TV를 통해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국제전화로 연결된 그는 “이제 이 노래의 가사대로 ‘이 거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이 노래가 많이 불린다는 소리를 듣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안씨는 ‘우리의 소원’의 노래말을 쓴 아버지 안석주(安碩柱·50년 작고)씨 생각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 안씨는 1921년 동아일보

에 연재된 나도향의 소설 ‘환화’의 삽화를 그린 우리나라 삽화계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우리의 소원’은 안씨 부자가 47년 3·1절 기념 리디오 노래곡을 준비하며 합창곡으로 만든 노래. 당시 노래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고 한다. 그 후 남한 교과서에 실리면서 노래말은 ‘통일’로 바뀌었고, 이제는 남북 양쪽이 민족의 통일 어감을 담은 노래로 애창하고 있다.

15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간 안씨가 지금까지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은 90년 12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송년 통일 진흥음악회’. 당시 그는 남북 동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우리의 소원’ 합창을 지휘했다.

“평생 잊을 수 없지요. 내가 조국 통일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생각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안씨는 “88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북에 와서 합창을 지휘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털어놓으며 “통일 후 남북 이리이합창단을 만들어 ‘우리의 소원’을 직접 지휘해보는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 “두고 봐야지”서 감격의 눈물-박수로

석방된 4인의 미진임장기수

수선관 윤고름 치르면서도 ‘사회주의자’ 이기를 포기하지 않아 ‘미진항 장기수’로 불리다 헌정부 들어 석방된 김석형(87) 김선명(76) 류은현(77) 홍종선씨(76) 등 4명,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13일 남북 정상의 상봉순간은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오전 한 방에 모여 김대중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TV로 지켜 볼 때만 해도 이들은 비교적 차분한 편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 때 우리 진짜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지만 외세의 간섭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이번에도 두고봐야지.”(김석형씨)

“이번 회담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가보안법도 변경되지 않았고 미군도 계속 주둔하고 있어, 통일까지는 갈 길이 멀지.”(홍종선씨)

“미진항 장기수”답게 이들은 “이번 회담을 냉정하게 바라보기로 했다”며 좀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 10시반경 김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어이, 순안공항이 이렇게 생겼구만.”

“지도자 동지께서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오신 건가?”

갑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왈칵 밀려오는지 김선명씨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의 몸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담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만난 거니 정말 커야. 온 민족이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럼, 자유왕래가 허용돼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통일될 때까지 살면 더 좋고...”

오전 10시37분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동안 말없이 앉아 있던 류은현씨가 작지만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머지 3명도 따라서 박수를 치면서 3명 남짓한 작은 방은 박수소리로 가득했다.

<이완배기자>

rorryery@donga.com

### 우리의 힘으로 통일세기 열자

김영남위원장 만찬사

김대중 대통령 각하와 리희호 녀사, 그리고 손님여러분. 이 자리는 동포애의 정이 오가는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 선택과 애국의 결단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의 자리입니다. 나라의 통일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열은 언제 끝나겠는지 또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겠는지 하는 7천만 동포의 절박한 물음에 풀음에 이제는 북과 남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대답을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국과 분열로 이어진 지난 20 세기의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얽힌 뿌리깊은 시대

주의 후과였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21세기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대의 관심은 여기 쏠려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유서깊은 평양의 모습과 분위기도 익히면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의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 통일을 바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만복을 축원하여 남측의 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잔을 들 것을 제안합니다.

### 화해·통일 기원 축배 듭시다

김대통령 만찬 답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하신 북녘 귀빈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심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

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인간사회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향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배를 제의합니다.

### 긴 세월 돌고 돌아 이제야 와

평양 도착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안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참만 같던 남북 정실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

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갈 것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도 도착한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속속 인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오고 있다.

평안도 도착한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속속 인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오고 있다.

# 韓民族은 한 민족이다

철학박사 김형찬기자



밀레니엄 담론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역사적 만남'

참 밭고도 면 김을 돌아왔다. 2000년6월13일 오전10시37분, 평양 순안공항, 비경기 앞에서의 조우.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며 걷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사실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전10시45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단지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는 김대중대통령. 만난 지 8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동포들의 환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가기 시작했다.

봉의이 필요없는 두 정상의 만남. 예상치 못한 김위원장의 비행기 앞 마중에, 전혀 없이 함께 차를 타고 백화원영빈관으로 동행하는 모습.

## 통역이 필요없는 두 정상

거리에서 환호하는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분단 55년에 통도 없는 원수처럼 보였을지라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 땅에서 역사를 함께해 왔다는 것은 55년쯤의 길정도 그치급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1989년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세계는 10년 넘게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기엔 분주하다.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의 물결 속에 국경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의미해진다며 떠들어대고. 살아남기 위해 협력을 희생해 입을 닫아야 한다며 아담들이다. 유럽 통합을 한다고 허둥대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도 연합의 구상이 난무한다. 우리도 이 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느 틈새에 끼여야 할까,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인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립비야대 석좌교수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고, 독일 헤센 평화 및 갈등연구소(HSKF) 하랄트 톨러 소장은 다시 문명의 공존을 주장한다.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다나카 야키히코(田中唯考)교수는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는 '새로운 중세'의 도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민족의 통일이 아닌 세계질서의 재편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임을 보여준다. 어쩌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두 정부의 현실적 필요성이 서로를 만나게 했는지 모른다.

## 오늘만은 어제도 내일도 잊자

그러나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며 아집(我執)으로 온갖 고통을 자초하는 인간일지라도, 때로는 민족이란 명분 앞에 너와 나의 벽마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서구에서 등장했던 근대민족국가의 기원야야 깊게 잠아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의 민족의식은 단군황하 바지에 닿아 있다. 학술적으로야 아무리 19세기라고 주장해도 우리 민족의식의 역사는 '어찌든' 반만 년이다.

우리에게 '민족'은 '이성'이라는 범신의 일각 이면에 반만년을 이어 온 민족의 집단무의식과, 논리적 언어로는 설명불가능한 몽글한 감정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베를린 장벽은 그렇게 험없이 무너졌는지 모른다.

봉의의 타당성을 실험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와 국력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기반 등 온갖 이야기가 동원돼 왔지만, 두 정상의 편안한 만남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한 실험방법은 없었다. 물론 우리는 한발 한발 가까워지기 위해 이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 잊고 한 마디만 기억하면 된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적어도 오늘날은 갈 길이 멀다는 겁 잊어도 좋다.

khc@donga.com

## 정상회담 연기와 언론의 '자기반성'

남북정상회담이 갑자기 하루 연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언론의 정상회담 일정 보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한다. 북한은 정상들이 참가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등을 남북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려는 책동의 첩보활동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남한 정부 앞에서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관리들이 회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정보를 고의로 흘리고 있으며, 언론도 회담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날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북 언론의 정상회담 취재에 협조적이던 처음의 자세를 바꾸어 회담의 일정이 보도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시국과 태도는 남한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또는 북한이 두 정상을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전과 강조문제에 지나치게 민감



이효성  
성공시대 교수  
언론학

보도할 남발했다. 그 때문에 언론 자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셋째, 우리 일부 언론과 언론인은 과거 인기부와 같은 정부의 대북기관 특히 그 내부의 해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대응조작을 도운 사례가 없지 않다. 단순히 국가의 대북정책을 송보하거나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힘드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정권의 유지와 강화할 위한, 또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정보조작의 앞잡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또는 북한이 두 정상을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전과 강조문제에 지나치게 민감

## 일부 북한관 무책임 선정보도 남발 비밀 외교교섭선 신중접근 바람직

한 듯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계기로 우리 언론은 자기감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북관련 보도가 북한의 불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남한의 몇몇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을 공존해야 할 동족으로부터는 무관심해야 하는 적으로만 간주했고 그런 자세를 지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 언론에 대해 북한의 이보다 협조적인 자세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언론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둘째, 북한에 관한 보도에서 우리 언론들은 사실확인용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김위원장의 사망 보도에서 보듯이 어처구니없는 오보도 하기도 했다. 특히 몇몇 보수적인 언론들의 이른바 정보살포는 남북관계를

회담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날 상세히 보도한다는 의혹도 할 법하다. 넷째, 외교교섭 특히 비밀리에 진행중인 외교교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거나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교섭이 실시되고 교섭의 목적이 달성되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그런 외교교섭은 알려지지 않은채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또는 언론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비밀 외교교섭을 비롯해서 알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알리려고 어딘가씩은 경우가 많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등은 두 정상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남북 당국이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내면이고 따라서 언론은 이들 내용의 보도할 자제했어야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것이 언론의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그 원인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우리 언론이 민족의 대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선진화 보도자세가 요청된다.

# 최상급 예우... 새로운 南北관계 열었다



## 역사적 첫 만남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한 표정으로 서로 다가서고 있다. (평양=청외대사진기자단)



## 金正日 직접영접 의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것은 분단 55년만에 처음 북한 땅을 밟은 남한 대통령에게 최상급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19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으로 김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뒤 북한을 찾은 정상으로서는 김대통령이 공항 영접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여태껏 정상 영접은 국가수반격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도맡았다.

김위원장은 그동안 신변안전 등을 고려, 공식석상에 나타나길 극도로 꺼려왔다. 김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맞은 것은 전례와 절차를 깬 파격적인 경대인 셈이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이 환영행사를 마치고

## “南北문제 당사자 직접 해결” 의지 전세계 겨냥 이미지 제고 효과도

승용차에 오르기까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하는 등 극진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공항 영접에는 남북한 문제를 당사자끼리 직접 풀겠다는 김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정치적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지하게 실질적 논의에 임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세계 이목이 쏠리는 순간임을 감안할 때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부수효과를 얻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를 시작부터 직접 챙기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표인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세계 언론이 자신에게 집중된 순간을 활용해 이미지 제고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을 영접하면서 시종 자신감과 여유 있는 행동을 보였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이 전용기 트

랩에서 내려올 때까지 당당하고 위풍스런 자세를 취했다.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느릿느릿하게 했고 손은 자연스럽게 내밀면서 김대통령을 안내, 주인공세가 역력한 모습이었다. 김위원장이 보여준 파격에는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북한 인민의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주도적인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서 경제적 열세인 북측이 결단코 남측에 흡수통일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식 통합은 안된다는 북한측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허범구기자)

# 北 '파워엘리트' 모두 나와 극진영접

■ 순안공항 미중 인사는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위시한 북한의 파워엘리트가 13일 대거 순안공항에 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을 영접했다.

이날 김 국방위원장과 동행한 주요 영접인물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장과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태복(崔泰福)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국태(金國泰) 간부담당 당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상사위원장, 김용순(金容淳) 대남담당 당비서 등으로 이들은 비행기 트랩 앞까지 걸어가 김대통령을 마중했다.

김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김대통령을 영접해 북한내 서열 2위를 확인시킨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972년 단국대부장으로 발탁된 뒤 국제담당비서와 정무원 외교부장 등을 역임한 외교 원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95년 총정치국장에 발탁돼 군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져 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제민(張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은희 상임위서기장도 영접행렬에 가세했다.

金永南-趙明祿-崔泰福-金容淳씨

서열 상위 거물급 대부분 포함  
김위원장 부인 김영숙씨 안 나와

남북정상회담이 의장대 사업을 마친 뒤 김대통령과 인사 틈 나는 북측 인사 가운데에는 김석주 외무상 제1부상과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 낮은 업종도 많았다.

이에 앞서 기내 영접을 담당해 눈길을 끈 북측 인사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전희정(全熙正) 외사국장으로 김일성 주석 생전 때에 주석부 외사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김위원장과 고위간부의 의견, 외국인 참관 안내 등을 담당중인 의견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인 김영숙씨는 궁중에 나오지 않았고 당 중앙위 비서 가운데 한사람 경계 담당 김기남 선전·김중린 노동단체·정병호 군수·계용태 공안·비서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백남순 외무상의 모습도 TV중계 장면에는 보이지 않았다. (윤상환기자)

世界日報

2000. 6. 14 (수)



사열 하는 두 정상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원족과 나란히 서서 외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청외대사진기자단)

## 리무진 동승 '미니정상회담' 두 정상 '밀담'에 촉각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은 과격으로 시작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리무진 정상회담'으로 21세기 남북한 화해의 장을 열었다.

김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평양시내 16km를 달리는 55분동안의 전차량 안에서 비공식 미니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각종 현안에 대해 '깊숙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거추장스런 절차 생략 '깊숙한' 의견교환 나눠

리무진 회담은 의견상 정상회담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세계적인 관례를 잡고 차량에 동승, 대화를 나눈 것은 회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첫 만남부터 거추장스런 의전 절차를 훌훌 벗어 던진 양 정상의 만남은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두 정상은 차 안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문제와 전쟁 불안不排除의지 표명, 대북지원과 북한재건 등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립각을 드러낸 양측의 허울을 벗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일-중러 4강의 울타리 속에 한

반도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데 공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의 승용차 회담에는 사전 목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김대통령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비쳐졌지만 "13일 오전 김 김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귀띔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 숙소인 백화강영빈관에서 27분간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상견례와 함께 가벼운 대화를 나눔으로써 본격적인 남북화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

대적인 남북관계를 창신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민족과 후손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화해협력이어야 할 민족의 적대감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김대통령을 비롯해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임동환(林東煥) 대통령특보,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 등 공식수행원 전원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 국방위원장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 등 3인이 참석했다. (조민호기자)

# 평양시민 60만명 '열광' 또 '열광'

## 민수대역사당투 방문 이모저모

【평양=김대중기자】 대동결은 백외원 일민관에서 오찬(오찬) 피곤 뒤 공식수행원과 함께 민수대역사(역사)로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대중(金大中)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예만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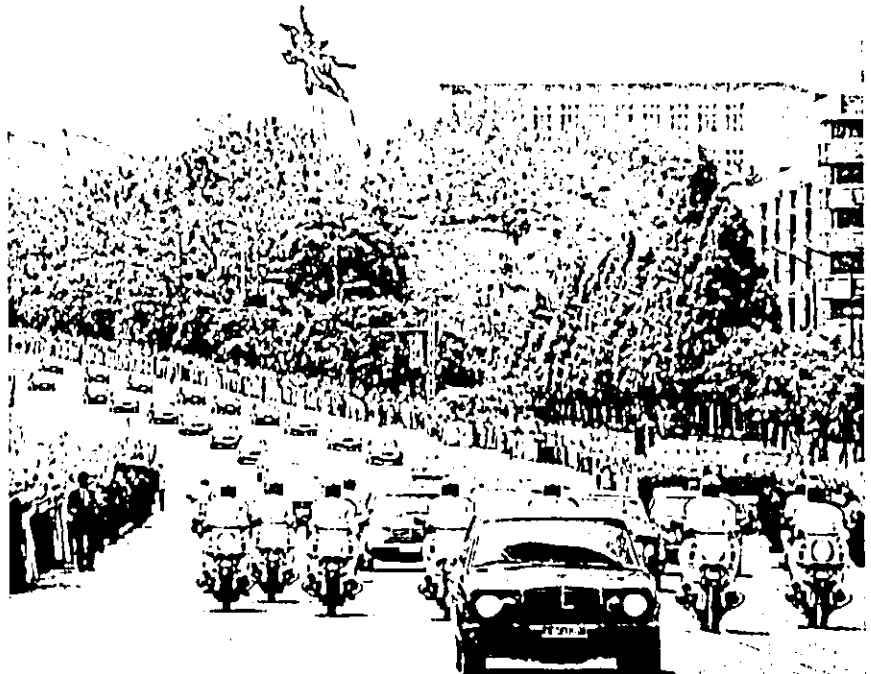
김대중결은 오찬 3시간을 채우고 공용차편으로 의정부에 도착. 당내에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받고 인사했다. 김대중결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김대중결위원장도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 김위원장 북측인사 소개

두 사람은 사진기자들을 위해 잠시 약속한 새-무즈라 회관 뒤 김대중결로 갔다. 먼저 김위원장이 김대중결에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측 인사들을 소개했다. 안동 인사들이 취임한 뒤 김위원장은 "평양에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비록은 순조로웠습니까"라고 인사했고 김대중결은 "대답이 순조로웠습니다. 남북도 서로가 평안이 모두 좋았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또 김위원장이 "김대중결에게 어떻게 보면 북경장차들 타고 오신 건데 앞으로는 북한이 항상 화약에 불안정하다기 보다는 함께 하고 강국이 될 것 같은 것 같다"고 김대중결의 평소에 김대중결에게 물어보던 김대중결은 "그런 말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김대중결은 "이 인사간 비공식과 금안이 금안이 되고 순조로운 역사대역사"라고 말했다.



환호하는 평양주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차를 타고 산도로 한 남북간의 차한 휴일이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위원장 "평양 오시느라 피곤 하시죠" 인사 "평양은면 담백하고 맛 좋아" 김대통령 극찬

안동결 방문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도착했다. 김대중결은 동행한 회의장에서 북측으로부터 "김대중결이 되고 대부분은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사모했다"는 환영을 받는다. "김대중결이 좋아한다. 이걸 보고 예만경도 환영을 표명했다.

이후 김대중결은 의정부를 다녔지만 김대중결에게 있어 있는 김대중결의 부조리라고 생각했다. 김대중결은 의정부에서 "이것이 평양"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이 평양"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라고 대답한 뒤 "김대중결은 이걸 보고 예만경도 환영했다. 김대중결은 "그리고"라고 말했다.

김대중결은 행사도 김대중결을 의정부에 소개했다.

김대중결은 이날 오찬 3시간이

시간 동안 평양에서 방문 예정자에게서 북측이 준비한 환영회와 국의 공연, 무용 등을 관람했다. 북측은 공연장 남쪽 수역의 정자에 초청된 김대중결의 인민공화국 문화의 민어로 "김대중결, 대동결, 대외문과 인연을 위한 예조공인"에 초대했다. 김대중결은 "대동결"을 말했다.

이날 공연에는 남측 수역의 북측 관계자 등이 500명 규모의 공연을 가극했다. 김대중결 대외가 김대중결 김대중결의 인제로 김대중결 배수 리듬의 리듬을 속에 입성시켜 박수로 환영했다.

## 김대중결 공연관람도

한일 비공식 비공식 입성도 김대중결은 남북 관공객들의 방문에 순조롭게 화답한 뒤 공연을 일행 소개에 따라한 관람장에 있었다.

북측은 김대중결과 이대사가 피곤

소형스튜디오를 설치, 공연 도중에도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북측은 이날 공연장들을 이대사가 직접 배고고 경제관 리듬의 연주와 무용으로 무신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주로 전통문화에 기초한 공연을 선보이며 남북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적이 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먼저 환영회 자리로 김대중결으로 "이대사" "정신병에 공인이 있다" 등 2곡이 연주됐다. 공연은 이어 무용 "평강춤, 북춤이 순, 찬양삼거리와 북무, 키춤, 장구춤, 가야금, 농악과 민중 무용" 등이 대인다. 총 8가지 순서로 진행됐다.

이중 마지막 공연의 무용 등이 대인되는 북민을 이용 등이 대리는 장면은 일제강점기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무용은 다른 공연과는 달리 형인공적무용을 그린 것으로 민주주의의 위용이라는 눈보라를 식민지시도 형식화해 결국 형인공적무용을 통해 민족을 해방시키는 내용이라고 북측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대중결은 전 출연진이 도입해 있는 무대로 올라가 "대동결" "대동결" 김대중결 대외라고 칭한 김대중결이 함께 찬양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화수를 하고 퇴장했다. 김대중결 퇴장 때에도 "관공객이" "환영"이었으며,

남측 관공객은 박수로 김대중결을 환영했다.

## 전금철 부의장, 직접 숙소 안내

【평양=김대중기자】 김대중결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친인친을 만난 뒤 전금철 이대사와의 회의장에 안내를 맡아 13일 낮 숙소로 도착했다. 김대중결은 숙소에서 김대중결 TV로 시청에서 소개한 정시(정시) 뉴스시 시청한 뒤 김대중결 사를 했다.

김대중결과 부인 이대사가 함께 한 김대중결에는 김대중결을 친 김대중결 남대원김 정호(정호)에 김대중결 시 편이었던 김대중결 소개(김대중결)와 김대중결(김대중결)을 귀환 방식과 입장차 등이 나왔다.

김대중결은 식사가 끝난 뒤 "북측이 준비한 음식이 정갈하고 정갈"에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음식이 맛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결은 "이 남북간에 방문한이 시 방문은 평양(평양)이 맛있었다"면서 "이주 남북간"이라고 밝혔다.

## 임동환, 북측지역으로 동행

【평양=김대중기자】 국가정보원장이 대동결 북측 지역으로 동행(동행) 대동결 공식수행원에 포함됐다. 이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임동환은 13일 김대중결의 평양방문에 동행해 정상회담에 빠져, 남북 공식수행원인 김대중결 국방위원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김대통령 “민족경사 날씨도 화창”

## 김위원장 “섭섭지않게 헤드릴 것”



### 남북정상 대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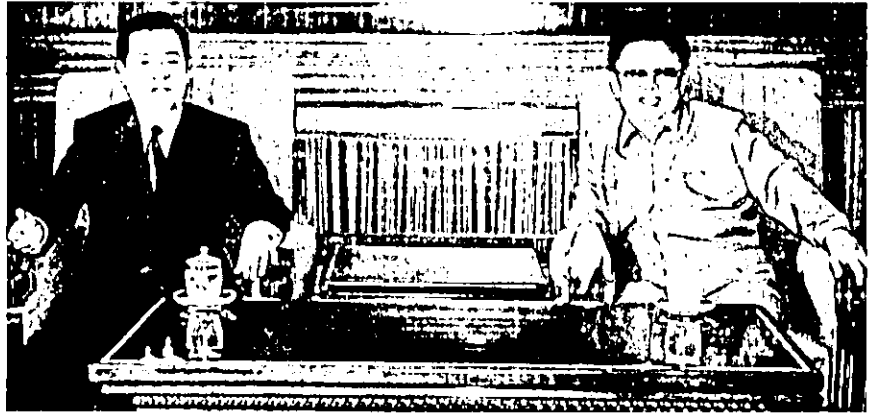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위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김대중 영 숙소인 백회영명민관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음은 대화록.

△김대통령=오늘날 밖에 같은 대형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같습니까.

△김위원장=원래는 순하추동 그림입니다. 전금칠 이태평화위 협사가 "요한신의 순하추동을 그린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

△김위원장=김용순 이태평화위 원회 위원장을 향해 유수 비서,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행한 장관들과 인사할 못 나왔어요. (남측 공식수행관들을 향해) 권양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TV에서 봐서 잘 압니다. (박지인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복합업의 때 TV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 위원장이 임동원 대통령특보에게 공식수행관 소개를 부탁했고 임특보가 차례로 장관을 소개했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김위원장=남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치게(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칭합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회영명민관까지 갈 것인지 알려주세요.



두정상 환담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오전 숙소인 백회영명민관에서 김위원장과 나란히 앉아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준비관계를 금방 알아챘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할 못해서 (김대통령을 하루동안) 못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기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드합니다. 마중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김대통령이)

음). △김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의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신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위원장=그렇게 광복송을 부해 연못에서 양민관까지 (김대통령의) 행로표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엄청 패처럼 고운 웃음 잃고 나왔습니다.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김위원장=오늘부터는 공식 합의된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백회영명민관은 주석님께서 생전에 아랍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빛이 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번씩 산보삼아 둘러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생존했다면 (백회영명민관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 주석님이 앉아 대중원을 영접했겠습니.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다정 다정한 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통 하면 자료를 다졌을 텐데. 이번에는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측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위원장=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월13일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양=공동취재단)

### 김대통령 “북녘땅 못밟을줄 알았는데...”

### 김위원장 “우리는 광고보다 실리 추구”

△김대통령=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 나와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북녘땅을 밟지 못한 줄 알았는데 환영해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000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감사유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자회관에서 계관반숙을 절반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구경오시는 데 아침식사를 꼭 하게 하십시오.

△김대통령=병양에 오면 식사를 잡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웃음).

△김위원장=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실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수빈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반북감을 환영 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절을 지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해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결코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잠하느냐고 하는데 친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지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물었고 김용순 위원장은 "60만명 가량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했

世界日報

2000. 6. 14 (수)

# 金위원장 트랩까지 다가와 “환영합니다”



## 순안공항 도착서 속수까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은(金正日) 북한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13일 오후 4시 25분 서울에 도착했다. 북한 유정기(尹正基) 대령의 안내로 도라산이 남북한 7000만 여의 심금을 울린 하루였다.

## 정상만남 순간 환영인과 열광

○...김대중과 김계방위원장간 첫 대면은 예상외로 뒤늦게 김대중이 반인 환영을 받은 순간 이뤄졌다.

김대중과 공석수행인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10시 25분. 김위원장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지도자가 영접행렬로 공항에 나오자 “김수영위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흙땀의 초하얀 손들은 평양시민들로 순안공항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대내외 남북 수행원은 환영을 들고 김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온 사임을 앞뒀다.

## 박수 영접하자 박수로 화답

## 金대통령 감회젖은듯 잠시 허공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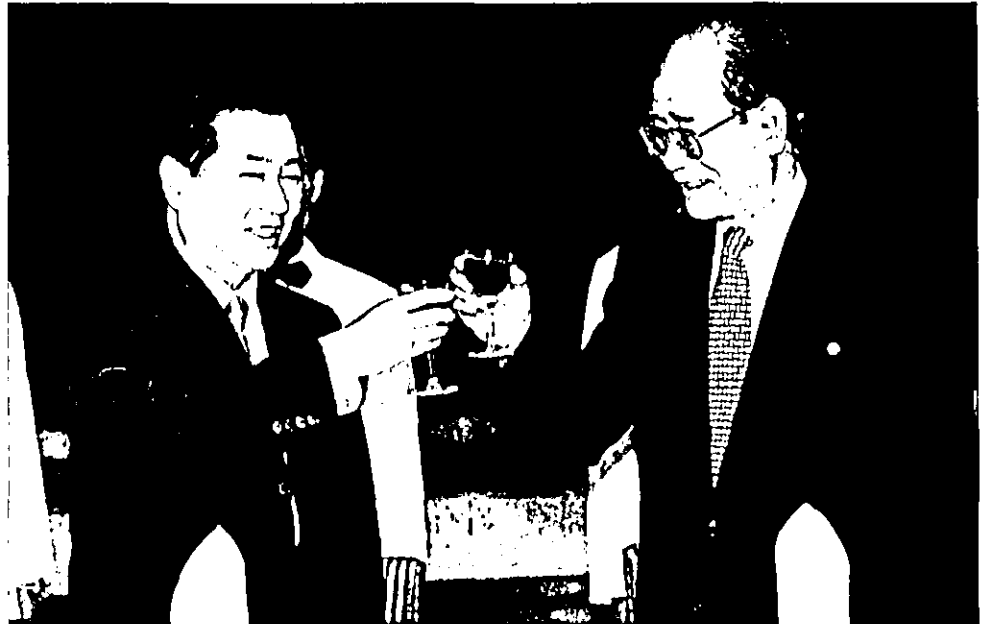
## 두정상 손 맞잡은후 “반갑습니다”

김위원장은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 김대중이 탑승한 전용기 앞 대형 카페 중앙에 서 있었다. 우리측 구연대 경호처장이 승강구에 올라 앞분이 없리지 김대중은 손흔들며 반인 환영행렬과 첫 상면했다.

김대중이 잠시 서서 승강구 아래 카페 중앙에 서 있던 김위원장과 눈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김위원장은 박수로 환영했다. 김대중도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김대중은 트랩을 내려 김위원장에 다가가지 김위원장도 시나기를 앞으로 나오며 김대중과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간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가볍게 포옹한 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다. 김위원장은 뒤따르던 젊은 북측계 워리스 차림의 이희호 여사를 보자 먼저 다가와 “반갑습니다”고 인사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의 첫 상봉이 이뤄지자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은 화려한 조화들 흔들며 도라처럼 “김수영위 김정은” “반세



“민족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저녁 인민회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 북측의 환영상 국가 수반인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동을 외치며 뒤면서 열광했고 북측 여맹을 연대의 연주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북측에서는 도라산 건부의 평양시 남위원장, 문화산, 보진산, 교역장 등 10여명이

나왔는데 김위원장은 소개가 끝나자 김대중과 함께 걸으며 “남씨가 매우 좋다”고 말을 건넸고 김대중도 “회담을 하게 되어 좋은 것 같다”고 남측을 화제에 얘기를 나눴다.

도중에 북측 화동들이 나와 김대중과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자 김위원장이 웃으며 박수, 김대중은 내외는 “반갑습니다”며 화동들과 가볍게 인사를 했다.

김대중은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북측에서 제공한 리무진 승용차에 탑승하고 김위원장은 김대중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 뒤 사라져 등식했다.

○...와 정상이 된 리무진 승용차는 곧바로 속소인 배위강(平壤강)으로 이동했다. 속소까지 이르는 인도 앞쪽에는 같이 인민회의 정도로 많은 북한 수반이 나와 김대중을 환영했는데 환영을 받게 차려입은 평양 시민들은 앞 정상이 된 리무진 승용차가 지나 때마다 북측계와 진흙색의 초하얀땀을 열광적으로 흔들며 환호했다.

인 정상이 된 리무진이 평양시내 초입인 안뫎동에 들어서자 김대중은 잠시 차에서 내려 북측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환영 나온 인파들과 인사를 나눴다. (평양=공동취재단)

## “한민족 전쟁공포서 해방되길” 건배

### 김영남위원장조정 만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인민회관에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 남북 화해를 축원했다. 남측 수행단 기지단 장인과 북측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은 2시간 30여분간 우호적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김대중은 김위원장 안내를 받아 헤드테이블 중앙에 앉고 김대중은 오른쪽에 김위원장이 앉았다.

김대중은 김위원장 앞에 밝은 하늘색 넥타이를, 이희호 여사는 흰색 비단치마 보라색 띠를 두른 흰복을 입었다. 헤드테이블에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양현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 리원구 조국평안민주연합 시가국장 등 남북 주요 인사 18명이 나란히 앉았고 연희정에는 모두 37개 테이블이 마련됐다.

### 남북화해 축원 2시간 웃음꽃

김위원장은 만찬사에서 “김대중이 품을 위해 위해 의의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했고 김대중은 열차리의 김위원장, 이희사 등과 잔을 부딪힌 뒤 참석자들 향해 잔을 들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대중이 북측 환대에 대한 감사로 감사장 시작하지 참석자는 박수로 화답했다. 김대중은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북측 참석자들은 남측에도 꽃 알리신 여자 마린군 선수 장성국, 연화 ‘인명정’의 주인공 최창수씨 등 인민배우, 북측위 이인모 노인의 딸 이연희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북측 이인모노인 딸도 참석 눈길

태이강이다 남, 북 참석자가 참반정도 섞여 앉았고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와 달리 잠시 얘기보다는 평양교예단의 시용 공연, 북한 생활 등 가벼운 내용을 화제삼아 북측의 유연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서로 남배를 권하며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 보였다.

만찬 식단으로 합면초 향구이, 생선수린목과 생채 삼지전 청취(청취)밥, 양념 소고기, 김밥, 참새콩어구이, 갖은 백두산돌크림 인삼차 등 모두 15가지 음식이 나왔다. 이중 매추리(생선)인 ‘육류(육류)’는 김위원장 국방위원장이 당초 예정인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6+6=12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이용지는 요리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 55년 닫혔던 하늘길 '활짝'



## '1호기' 평양기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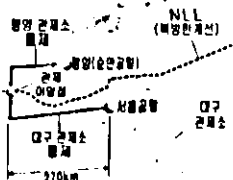
"여기는 평양컨트롤. 공군 1호기가 평양항공정보본부 공역에 들어온 걸 축하한다."

"여기는 1호기 반갑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날씨는 어떤가?"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보잉 737-300)가 상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36분만인 오전 9시50분 북한한계선(NLL)을 넘어 역사적인 직항로가 열리는 순간 남북간 교신이 이뤄졌다.

서울공항을 이륙한 1호기에서

## ○김대중평택 방북 비행길



○13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을 실은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북 의장대가 사열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여기는 평양컨트롤... 공역에 들어온걸 축하한다" "반갑습니다... 순안공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방위가 270도, 000으로 진입하고 고도 2만3000피트에서 안전비행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대구항공정보본부(ACC)는 서울시쪽 270km 지점에서 기종과 북으로 돌리도록 항로값 지칭했다.

약 7분 후 1호기가 NLL을 통과, 남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벗어나자 "대구 컨트롤, 관제에 갑사한다. 지금부터 평양항공정보본부와 교신하겠다"라는 조종사의

마지막 인사가 흘러나온 뒤 송가 뺨개 교신이 오기전 대구정보본부의 스피커에는 침묵이 흘렀다.

1호기의 비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남한의 FIR에서는 대구ACC가, 북한FIR에서는 평양ACC가 관제했다.

1호기는 시해 공해상에서 북상키로 돼 있었으나 이 경우 대구→중국 선양(瀋陽)→평양ACC 순으로 관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선화남의 역사상준 고려해 선양

FIR에 들어가기 직전 북상하는 항로를 택했다.

그러나 1호기의 비행은 ICAO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1호기를 엄호하는 공군 전투기와 군단국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송주비행단에서 발진한 F-16전투기 편대와 원주수원비행단에서 출동한 F-5전투기는 만약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군 1호기를 엄호했고, 합동참모본부 조정관(이무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관병들은 지휘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입출 전투기들의 행방을 쫓았다.

1호기가 NLL을 넘어이자 엄호 비행하던 전투기들은 각각 소속기지로 귀환했으나 합참 지휘실과 오산주요방공본세소는 1호기가 순안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한 10시25분까지 견제할 놋추지 않았다.

합참 위기조치반 관계자는 "이번 비행이 남북간에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갖출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처음 북한으로 향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경훈·김형구·대구=전주식기자)

## "영빈관자리 옛날엔 내 놀이터였어요"

### 평양명예위원장 김병국씨 감격의 눈물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정상이 손과 어깨를 맞잡는 '역사'를 보고 목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 찻집에서 만난 평양시 명예운영위원의 위원장 김병국(金炳國·68세)는 감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흥분을 눈물을 쏟아냈다.

"어린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남긴 평양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위원장)이 만수무강한 사산에 방울 꼬박 지냈지요."

남한의 구청장급인 '평양시 명예운영위원' 김씨는 평양 시가지가 담긴 낡은 지도를 펼쳐 지

난함을 회고했다.

1932년 태어난 김씨는 부모가 일찍 중국으로 떠나면서 주유도 미상을 한 할아버지 밑에서 평양 초·중·고교를 다녔다.

김씨가 평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중학교 2학년 때 광복을 맞았으나 공여이 공산정권이 들어섰다고 한다.

"당시 평양시내 남문리에 살았는데 현재 평양호텔과 대동문 사이의 빈화기였으며 육류교가 있는 곳으로 가 친구들과 자주 뛰놀았지요."

1946년 유아비지가 북한정권에 숙청되면서 평양제일고급중학교

에 뒤늦게 입학한 김씨는 남북정상 단독회담이 열린 만수대의사당을 자주 지나갔다고 한다.

"고등학교가 모란봉구역에 있어 가와집이 즐비했던 만수대의사당 지역을 자주 누웠으며 그 옆에 있던 화신백화점이 약속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원 내외가 속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영빈관은 당시 많이였으며 김씨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며 놀았다고 한다. 김씨는 또 동리도와 양각도도 가리키며 "당시 개천이 안된 상태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남서리교에서 죽은 강아지 학업던 기억이 생생합니다"고 회고했다. (김용출기자)



"여기가 우리집터" 평양시 명예운영위원장 김병국 68세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평양 시가지가 담긴 지도의 한 곳을 가리키며 옛 추억을 더듬고 있다.

# 55년 막힌 길 67분만에 열렸다



## 北아늘길 열리던 순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와 민항기 2대가 13일 오전 한로로 통해 북녘땅 평양 순

시18분쯤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도 곧이어 이륙했다. 아시아나기는 9시20분 방향을 선회, 북쪽으로 날기 시작했으며 38도선유 넘은 뒤 다시 기수를 동쪽으로 틀어 평양 쪽으로 들어갔다. 평양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창으로 북녘땅의 산하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이때 방송을 통해 "20분 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며 경양은 현재 맑게 개고 기온은 섭씨 22도 정도"라고 안내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평양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들어온 나즈막한 동산 도로 하천 등 북녘의 풍광은 남녘땅과 다를 바 없었다. 눈에는 모내기를 위해 곳곳에 물이 차있었으며 북한주민이 모내기를 하는 광경도 보였

世界日報

2000. 6. 14 (수)

2000. 6. 14 (수)

## 9시45분 "10초후 38선 통과" 안내방송 삼엄한 경비속 10시25분 사뿐히 착륙

안공항에 내려 앉았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을 태운 전용기와 북벌-일반 수행원, 공동취재단을 태운 아시아나 B-737기 1002편은 13일 오전 9시45분쯤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측 영공으로 들어갔다.

남북간의 '하늘길'이 막힌 지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비행기가 북한영공으로 들어서기 직전 안내방송을 통해 "10초 후 38도선을 넘는다"며 하늘길이 뚫렸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9

시 18분쯤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도 곧이어 이륙했다. 아시아나기는 9시20분 방향을 선회, 북쪽으로 날기 시작했으며 38도선유 넘은 뒤 다시 기수를 동쪽으로 틀어 평양 쪽으로 들어갔다. 평양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창으로 북녘땅의 산하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왔다.

평양 순안공항 주변은 소박하지만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각종 시설물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였다. 공항주변에는 양복과 군복차림의 북측 경비요원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의 바퀴가 평양 순안공항에 광음을 내며 땅자 기내에서는 일제히 와하는 환성과 함께 함

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전용기는 서울공항을 먼저 출발했으나 행사관계로 아시아나기보다 15분 정도 늦은 10시25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평양=공동취재단)

### 환영군중에 답례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내리자 마자 간단한 검색

■공항투린 순간

◀ 2000. 6. 14 (수) ▶

## ○김대통령 시간대별 첫날 일정



08:14 AM

김대통령 내외  
경외대 출발



09:18 AM

서울공항 출발



10:28 AM

평양 순안공항 도착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접



10:50 AM

김대통령, 김위원장  
김우진 동승 이동



11:48 AM

백화원 영빈관  
1차 정성회담



02:51 PM

만수대 의사당 평문  
김정일 상임위원장 영접



03:51 PM

만수대 예술극장  
공연관람



05:07 PM

인민문화궁전  
환영 만찬



취재진과 수행원들이 13일 오전 10시 16분 아시아나항공(AAR) 1002편 북방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북측 검색요원들은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고 간단한 짐 검색을 실시했다.

북측은 김대중 대통령의 환영식이 열리고 있는 동안 5대의 X레이 투시기를 설치하고 20여분 동안 취재진·수행원의 소지품과 몸 검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색은 까다롭지 않았다. 북측은 계류장에 설치한 X레이 투시가 앞에 개인의 짐을 올려놓도록 한 뒤 별도로 일정한 모니터로 내용물을 살펴봤다. 북측 검색요원은 한 취재진의 사진기가 무비카메라 모양과 비슷하자 "셔터를 눌러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좋다"고 하자 셔터를 눌러 사진기임을 확인하고 되 돌려 주었다. 북측은 이번에 개인의 무비카메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북측 안내원들은 검색대를 통과해 승용차까지의 30~40m 구간에서 기다리다가 남측 취재진과 수

### 5대 X레이 투시기 설치 개인 무비카메라는 제지

행원들을 맞았다.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에서 보낸 얼굴사진을 사진에 본 때문인지 취재진과 수행원들을 급세 알아차렸다. 한 안내원은 "○○신분 기자 아니니까?"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2박3일 동안 안내를 맡은 ○○라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다.

북측 안내원들은 공항 계류장에서 사진을 찍는 취재진과 수행원들을 지켜보았고, 남측 수행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안내원들도 있었다. 북측은 남측의 수행원에 대해서는 집단안내를 했으나 수행기자 50명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1대 1로 안내했다. 북측 안내원들은 수행기자들이 버스를 타고 프레스센터로 오는 동안 바로 입자리에 앉아 주요 건물을 소개하고 이번 회담의 진양 등에 대해 시시콜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 북측 안내원은 남측 취재자가 "원형인피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느냐"고 묻자 "조국통일" "만세" "김정일" "결사옹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 시내외에서 온 사람도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북측 안내원은 인도의 환영인파에 대해서 "지난해 남측 민노총 측구선수들이 평양에 왔을 때도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취재단)

# 南北정상 55년만에 첫 회담

## 金대통령-金위원장 직통전화 설치 접근 민족화해-통일노력 약속... 오늘 2차회담

【평양=공동취재단】분단 55년만에 남북한 정상인 13일 평양에서 만났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갖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序幕이 열렸다.

김위원장은 이날 당초 예상을 뒤엎고 직접 김대통령의 공항양탑에 나왔으며 행사 후에는 김대통령의 리무진에 동승, 백화원영빈관까지 함께 오며 '미니 정상회담'을 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표시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 11시45분부터 27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남측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 이현재(李顯宰) 재정경제장관,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장관,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 등 공식수행원 진원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비서가 배석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핫라인)를 개설,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보였다. 이와 함께 14일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24~25일 간 한반도평화선언 등 남북한 현안에 대해 아무런 격의 없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김위원장은 "세계가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내가 왜 승낙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24~25일동안 대담해 줘야 한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

서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이산가족 재결합 실현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와 함께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한 직후 성명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다. 너무 긴 세월이었으며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김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만수대예숙장으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 만수대예숙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김상임위원장이 배운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김대통령은 만찬 담사를 통해 "이제 우리 힘을 합쳐 걸어온 철길을 다시 잇고 뱃길도 열고 하늘길도 열어 온 거래가 마음 놓고 오기면서 몸의 힘을 닦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2000. 6. 14 (수)

#### 金대통령 만찬 담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하신 북녘 귀인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풍포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광명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립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력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신성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전쟁 공포서 해방되길”

오기면서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에의 길을 닦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족에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삼사구사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쪽이 나타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분단의 시대를 지나간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귀빈 여러분! 역사는 불신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선명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1세기 첫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고향의 봄’ ‘휘파람’ 흥돈위 2시간30분 동안 화기애애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3일 오후 7시10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은 남측 수행단, 취재단 진원과 북측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김 상임위원장은 만찬사에서 "평화를 위해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건배를 제의했다.

김대통령이 북측 환대에 대한 감사로 담사를 시작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담사에서 김대통령은 "이토록 지척에 있는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며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북측 참석자에는 남측에도 잘 알려진 여자 마라톤선수 장성옥, 영화 '임꺽정'의 주인공 최창수씨 등 인민배우, 북측인 이만모 노인의 딸 이현옥씨 등이 끼여있어 눈길을 끌었다. 태이발마다 남, 북 참석자가 절반 정도 섞여 앉아 정치 얘기보다는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 북한 생활 등 가벼운 내용을 얹어 들었다.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담배를 권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였다.

○...만찬에는 김연조 향구어, 생선수정목과 냉채, 삼지연 정취말이 씀, 송송편, 약밥, 소고기곰장육, 합송송어구이, 찹쌀, 배두산돌떡국, 인삼차 등 모두 15가지 음식이 나왔다. 이중 매추리완자탕인 '북녘남개탕'은 김장일 국방위원장이 당초 예정된 6월12일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6+6=12라는 의미)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만찬장에는 '만갑습니다' '고향의 봄' '휘파람' 등 귀에 익은 남북한 음악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돋웠다.

만찬 중간에는 여성기악중주의 연주로 25분간 막간 공연이 펼쳐졌다. '도리타령' 연주에 이어 여성 독창의 '노랑간비', 여성 듀오의 '고향의 봄', 남자 4중창의 '군밤타령' 등이 이어졌다. 평양 / 공동취재단

#### 만찬 이모저모

#### 女마라톤 장성옥선수 이인모발도 참석 눈길

#### 송송편등 음식 15가지 여성기악 막간공연도

# “김정일 공항 직접영접 우리측서 알고 있었다”

## 양양시투입부지란 브리핑

양양시(梁襄市) 통일부지관은 13일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순안공항이 동송한 차량이 순안공항에서 백화위행민관으로 가는 길에 북한 주민 60만명이 나와 열렬히 환영했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의 경호부흥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 환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산화남이 예정과는 입장을 달리했고 안부를 묻는 차량

△김정일과 함께 김대중을 인호했다. 순안비행장에서도 시민이 인호했는데, 상당한 인상적이었다. 인도에 나온 환영시범은 60만명이다. 북한의 방송을 통해 정산화남을 준비하는 모습을 주민에게 권위적으로 알렸다.

—이석환(李石煥) 이사는 어떤 직급으로 받았는지.

△신임부인을 수행 대표단과는 별도로 대표단 부인으로써 환영해 동행했다.

—김대중(金大中) 차관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어디에서 만났는지.

△민간 주회는 추후

# 순안공항 金大中연호 상당히 인상적 민수대의사당 만찬호스트 밝힐수 없어

인내, 공식적인 첫 만찬회장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을 직접 영접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준비접촉에서부터 정산의 긴도와 호의 분해는 남쪽 방법이 합의하에 밝히지 않기로 했기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다. 두 정산간에는 첫 정산화남이 시작됐다.

—회담에서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차기 정산화남 입장은.

△방송 내용은 평양에서 세부 사항이 오면 브리핑하겠다. 김대중(金大中)은 만찬이 회에 합의하고 평화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세부적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

—북한 주민이 김대중을 인호했는지.

인간.

△민수대의사당에서 김대중(金大中)과 김상원(金相元)장이 만난다. 만찬 호스트는 아직 방금 단계가 아니다.

—남북 의료협력부 장관이 방북해서 배기 이유는, 북쪽이 배기라고 주장한다.

△의료협력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민족 내부의 특수물 때문이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첫 민수대부터 구체적으로 국방안보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가동된다면 남북간 관계 군사공동안보회의 못해 남북 감시가 만수무단 가능하다. 우리측에서 국방부장관 수색을 고려하지 않았다.

(허범규기자)

# 지리산 빨치산대장딸 이상진씨 金대통령 만수대의사당 안내맡아 남북평양정상회담의 奇緣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3일 만수대의사당 방문 때 의사당 소개를 맡은 안내자는 지리산 빨치산 대장딸로 알려져 있는 이상진(李相珍)씨이다. 그녀가 1948년 1월 13일 지리산 빨치산 대장 딸로 알려져 있는 이상진(李相珍)씨이다.

이런 사실을 관복 후 남쪽에서 활동하다 1948년 지리산 빨치산 투쟁을 시작 조선인민군에게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중 53년 9월 8일 국군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다. 6·25전쟁 당시 어머니와 함께 원산의 산진에는 이같은 출신 신분 덕에 김일성(金日成) 주석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것. 김위원장은 김일성(金日成) 총대령 김재현(金在顯) 정치경제학과 동기. 약한 지리산 김위원장은 산진에서 김씨로 김씨에 빠지면 식물 약을 준비해 병문안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졸업 후 대외 부문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산진씨는 86년 만수대의사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봉용됐다. 그녀의 남편 이영안은 강원도와 미네사스주에 주재 대사관 지냈으며 현재는 외부로 참사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만 11명을 두고 있다. (조남규기자)

# 격식없는 행동에 예의 각뭇

## 비교적 건강한 모습... 수행원들에 농담도

### 취재진이 본 김위원장

김치의 수행위원장은 기차가 없었다. 이 수행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을 인호한 순간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김 위원장은 “내용이 없다 중요한 건 안식을 갖고 있을 때 바깥으로 나왔었다.”

김위원장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일행에게 격의없이 권유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농담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광란(狂亂)해서도 정회였으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한 때의 인사의 분신과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에서 북한측은 보도진들의 방해를 대해 다소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보도진앞에서도 전혀 스스럼없이 행동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혹평이 잇따랐다.

김대중(金大中)의 평양순안공항에 내린 13일 오전 김위원장은 아늑한 예고없이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 카메라 등으로 통해 김대중(金大中)을 인호할 때 위원장은 시민들은 공항이 떠나갈 듯이 김위원장의 기차출입을 외치 북쪽의 지지를 질서 있게 했다. 또 김위원장이 지리산 카세트 주변에는 김위원장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북쪽의 다른 지도부가 단정하지 않아 그의 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김위원장은 남쪽 기자단 수행원들이 접근해도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었고 주위의 지시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남다른 모습이었다.

김위원장의 이같은 모습은 백화위행민관에서도 이렇지 않다.

현장에서 김대중(金大中) 내외와 기차행영을 마친 뒤 김위원장은 남쪽 기자단 수행원들을 불러 함께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이번 정산에 들어가서도 정산 김대중(金大中)을 수행한 정산들을 지명하며 인사할 나중기도 왔다. 백치위행민관과 백화위행민관에게. TV에서 많이 봐 잘 알고 있다 고 자연스럽게 농담을 해 웃음 이유없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대중(金大中)과의 상봉을 끝낸 1차 정산의 남에서 김위원장의 친면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에게 김대중(金大中)이 왜 평양에 오려고 김위원장은 왜 평양에 왔는지 의문부호가 있는 것 아닌가 격식없는 대화도 하자 고 남쪽이나 세계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을 장난하듯 짚어냈다.

또한 김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 하면 남쪽 수행원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졌다. 격정없이 잘 편안하게 지내시고 오늘 작업을 하자고 속사 있었지도 보물 우리들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배려를 하기도 했다.

특히 북쪽 체제가 다름이란 자신보다 내가 많은 김대중(金大中)이 만수대의사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애국다 갖춰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겠다고 격조있게 예의를 갖추는 표정은 인상적이었다.

김위원장의 지리산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먼저 이뤄졌다. 정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나도 찾지를 하고 있지만 지리산은 언급치 않 하교한 기분을 갖고 있다는 내시 비웃는 것으로 보였다.

이같은 지리산은 김위원장이 추위를 부담 때로 그대로 드러났다. 김대중(金大中)에 대해 평화위원장을 부를 때는 용서하시라고 요청했고 김대중(金大中)위원장은 격조있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김위원장의 북한 내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와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金대통령 방북출발 대국민인사 <요약>

중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헌신을 저지해는 차분한 마음으로 방북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지리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원만한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았던 정산화남의 길이 이제 우리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게까지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길을 마련하는 어떤 어려움의 헌신과 노력과 신념의 힘이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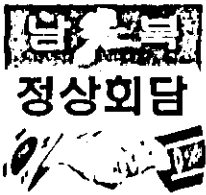
부 제가서금 대장군 일행에 오신 탐과 맞아 이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남북은 평양으로 큰 정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정산화남에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번 정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이번 방북 길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000만 인구가 인접하고 살 수 있는 냉정공생의 체계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저의 이번 방북이 갈라진 이념과 갈등의 재발점을 아루어 화해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행정은 한반도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곡차이로 상징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위원장의 사동 방문, 아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北 “통일이룰 중대사변” 집중보도



## 평양언론들 반응

북의 방송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방문 소식을 자못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장구한 방송을 송출하고 김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내내 강요에서 왕왕의 리모콘과 함께 20분간 강제로 대보 방송을 하는 등 최강의 집중보도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장구한 방송을 송출하고 김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내내 강요에서 왕왕의 리모콘과 함께 20분간 강제로 대보 방송을 하는 등 최강의 집중보도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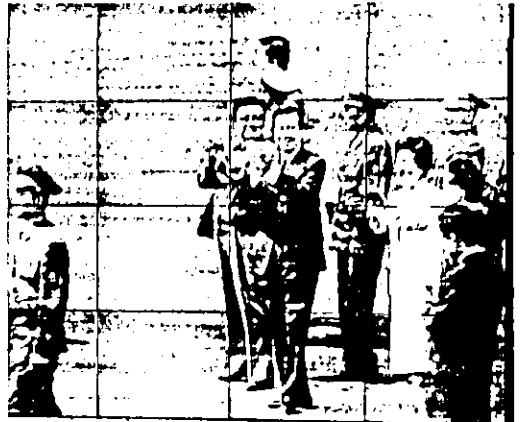
## 영접부터 환담까지 생생한 화면 전달 '민족대단결...' 기록영화 방영 이레적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7시 30분(평양 기준)을 맞아 “사대(大) 역사적의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 위대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해설사의 말에 이어 김대통령의 평양방문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오후 5시 장구 보도시간대에 “이번 상봉과 회담은 민족주체적 노력으로 북남사업의 아득한 다음 기래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방송은 “평양의 해어만 사변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오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은 조국의 정으로 뜨겁게 환영했다”고 이날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다. 평양방송도 “위대한 위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영장에서 따뜻이 영접했고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김대통령 숙소까지 동행했으며 숙소에서 환영하고 김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북한 방송은 이와 함께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명인 의지’를 부각시킨 기록영화 동영 중립적으로 방송, 회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 의지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을 받은 것이라는 대담을 골자로 하는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구름’ ‘애비’라는 제목의 기록영화편을 방영했다. (독명대기자)



**외신기자들 환호** 내외신 기자들이 13일 서울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내한한 서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신현경기자)

김정일과 견호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북한 해외특공은 철저한 위급 대응을 준비해 왔다. 해외특공은 해외영변관에 대한 양방면의 접근을 차단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준비한다. (최범규·윤상환기자)

## 金대통령체류 영빈관은 국민숙소

### 北, 안전상 남측대표단 숙소 3개로 분리

13일 남북 첫 정상회담이 열린 백화원영빈관은 국민숙소를 맞는 최고 수준의 영빈관이다. 김대중(金大中) 대 대통령의 공식 일방 수행장이 평양에서 200여km 떨어진 숙주에서 열린 2개소와 이라 부속숙소로 이뤄져 있다. 양쪽엔 대담함이 높고 뒤쪽에 숲이 울창해 공기와 청안이 좋다. 고위급 회담 남북 대표단이 숙소로 이용했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

장 등을 찾았다. 남북 인사로는 이날 1일 평양에서 열린 국제의원대회 11만명대에 참석했던 박정수 당시 국회 외무위원장이 다녀갔다. 사진 촬영에는 남강산 폭포와 남풍을 배경으로 한 대외보도가 있다.

이날 북측의 주최로 민청학살이었던 원민분화공정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3개동으로 회담을 위한 영빈관 등 각종 시설과 60여개의 방을 갖는다. 85년 남

2층에는 프레젠테이션 미팅실이 있다.

북한은 김대통령 부부와 방북대표단 180명용 세 그룹으로 나눠 숙소로 배분했다. 북측의 숙소 분리는 김대통령의 견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이 특별수행원 등과 함께 목요일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지길 견호의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숙소가 분리됨에 따라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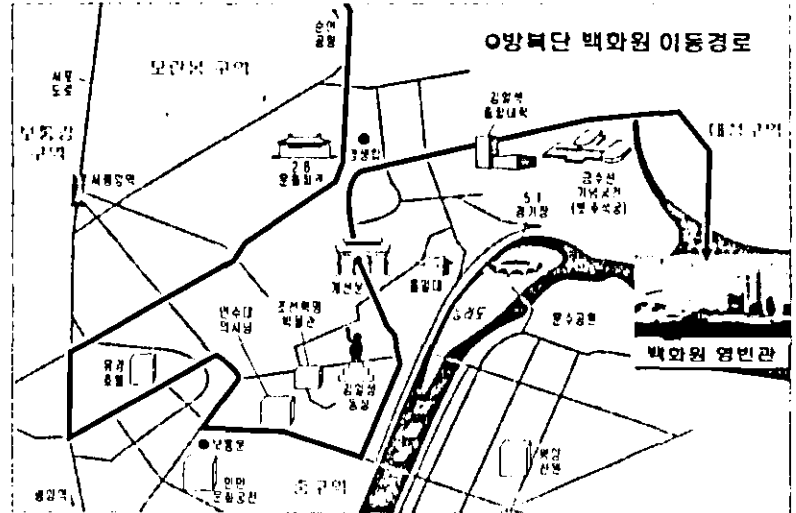
## 특별수행원24명은 주암산초대소 묵어 기자단은 45층짜리 고려호텔 머물러

이 88년 2대를 놓고 남북은 정수영의 해방을 약속했다.

민간인 2만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숙소는 주암산에 있다. 평양 중심가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대성구의 비암산 보호림 가운데 위치해 있고 양면 수행원 영빈관으로도 쓰인다.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김정은(金正恩) 김수환(金수환) 연세 100살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이다. 주암산초대소는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에 있는 숙소로 이용된 바 있다. 숙 박시설은 원근과 외곽이 직선인

북쪽길의 90~92년 남북교의 교역량 1.6배에 해당함으로써 사용될 것이다. 김대통령과 김정은(金正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한 판수대의사당은 우리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10층짜리 건물이다. 84년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석조 건물로 정치당서와 국방위원장이 쓰인다.

기자단 숙소인 고려호텔은 평양에서 최상급 시설을 자랑하는 특급호텔이다. 일건면 8만1000㎡에 15층짜리 2개의 빌딩이 건립되며





# “통일의 새 場 여는 계기되기를...”



## 정지런 민용

남북한 정상은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진 13일 어는 보처럼 정황을 중단하고 한목소리로 이번 정상회담이 북위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

**민주당 분단벽 허무는 전환점 될것  
한나라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

원했다. 고위당직자와 사무처직원들은 TV생방송을 지켜보며 농사일을 봤었다. 고위당직자들은 오전 10시30분 예정된 남북회담이 무무고 TV를 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평양 공항에 내려서자 박수를 쳤다. 고향에 귀안남도 덕천인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오늘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았던 분단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민족사와 세계사의 양대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상징하던 김구 선생의 38선 넘는 사진이 이제는 김대중의 평양도착 모습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인재(李仁濟) 상임고문은 “냉전의 시간은 고봉스럽고 지루하지만 평화의 시간은 따뜻하고 빠르다”며 “(북위의) 태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관환(鄭官煥) 총무는 당직자와 동리하여 TV를 지켜보다가 “김위원장님이 비행기 트랩까지 나와 영접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같은 민족의 과거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원(鄭東源) 대변인은 특별집행령 내고 “두 정상은 만남이 민족의 운명(命運)을 열어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간구한다”고 말했다.

(한용갑기자) **한나라당** 김성일 국방위원장도 예상외로 금요일 오후 2시쯤까지 직접 나와 김대중령을 영접하고 두 정상이 지동차를 함께 탄 데 대해 “과격적”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장항화(張恒化) 원내총무는 “김정



민주당 당직자도 박수 민주당 서영훈 대표 등이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지차수기자)

일의 공화 인접은 뜻밖”이라며 “김대중령을 맞는 김정일의 자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주요 당직자회의를 취소하고 김기배(金基培) 사무총장을 서울공항으로 보내 김대중령을 환송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철현(金哲顯) 대변인도 성명에서 “정상회담이 갈등과 분열로 집착했던 분단의 역사를 접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직자는 “김대중령이 의전에 도착해 너무 많은 것을 안보해서는 안된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희철(李希哲) 총재는 오전 당사에 출근, 장 총무 등으로부터 인사성문회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사에 머무며 외부 인사를 접견하면서 김대중령이 평양 도착 20분은 시키보시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용호기자)

### 김대통령 환영 민찬사

김안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북녘 귀빈 여러분, 따뜻한 환영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사랑을 느낍니다. 이토록 지체해,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련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길을 열어나갑니다.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뺨길도 열고 하늘 길도 열어 갑시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족에의 인정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으려면 아무자 못할 것이 없습니다. 21세기 첫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지 않습니다.

### 김대통령 평양 도착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놓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한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짓은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00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 및 협력과 통일에 앞장 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녘 동포의 기대 만큼이나 북녘 동포 여러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지에게 합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으십시오.

### 김영남 상임위원장 민찬사

김대중 대통령 각하와 이희호 여사, 그리고 남측의 손님 여러분. 나는 먼저 김대통령 내외분과 여러분이 유서 깊은 우리 평양에 오신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장이 오가는 이 자리는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인 선택과 애국의 결단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의 마당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열은 언제 끝났나했는지, 통일은 또 언제 이룩되었는지, 7000만 겨레의 이 짐바한 물음에 이제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대답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국과 분열로 이어진 지난 20세기의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연합한 뿌리깊은 사대주의의 후과영유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분열과 편연의 21세기를 열어나 가야 합니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은 여기 평양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에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편만한 마음으로 유서깊은 평양의 모습과 분위기도 익히면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7000만 겨레의 염원인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대통령 내외분의 민복을 축원하여, 남측의 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 “신뢰구축 첫발... 큰 것 기대 말아야”



## 정상회담

■ 핵의 시각

미국

미국은 한국 외교부주위에 기대하듯 맞추어온 국제사건 국무부 등 두개의 외교체단을 가장 가동해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반도체》이후 남북이 국제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회담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포석정책과 매우 관련있는 것이며 이 회담이 미국 대북정책의 거시적인 성과중의 하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12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방침을 다시 살펴보면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외적인 분위기가 조성에 유리했다. 백악관의 조 바이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면 우리는 준비개시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변인은 “지난해 9.10합판에 시작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행정조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 핵정책 성과 가시화 김위원장 영접 고무적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대사는 이날 AIC합판과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약속이 추가 회담에 합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또 “북한은 가능한 한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받으려 할 것이지만 초기에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북한이 필요한 경제지원을 할 것이며 한국과 기타 연합 국가의 지원을 해소하고 원조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스워스 대사는 “북한이 스스로 자립한 경제에서 점차 벗어나게 할 때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이차 위안과 ‘포괄적’ dialogue를 취급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날 “북한의 김위원장(총리)이 평壤(평양)에 방문할 예정에 나타난다”고 보도하며 “대통령을 영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업된 취재경쟁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13일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대외인 사진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중국

주방자오 총리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주요한 사건”이라며 환영,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외교부 장에 뉴스브리핑에서 “남북한 문제는 한국과 북한 당사자의 문제”라고 문제화 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일본

일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분단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것을 환영하고 이번 회담이 양국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소기 미카도 내각총리(관방총리)는 이날 “회담이 잘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소기 총리는 “회담이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관료는 “남북회담의 진전은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모스크바 차관관 이상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대화가 시작해 양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

## 평화-안정유지 대사건 한반도 통일 적극지지

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남북한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자세는 단 하나의 중립성으로부터 나아가며 그것은 바로

## 수교협상 급진전 희망 동북아정세 변화 예상

한반도 안정의 대전제이며 이제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린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그는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직접 출현한 것과 관련,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내에

## 평화공존 역사적 걸음 남북 합의안 주시할 것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관계가 나아갈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는 우리가 지지하며 이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가 될 것이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통일 50여 년만에 양국이 최고지도자들이 처음 갖는 회담이며 따라서 한반도 전체 발전과정에서 대외사건이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이 순간에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고 있어 한반도의 안정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

서는 북미회담에 이어 남북관계가 나날이 되는 반면 일본의 대북 외교정책과 협력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경제감도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기 총리는 대북 수교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보면서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의 다케노(내각총리)는 사법당위원장 “북한이 급진적 움직임에 대해 비핵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북협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총리를 통해 관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쿄=연합특파원)

그는 이어 “러시아의 외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주안점에 있다고 하며 합의안에는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료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공존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국제적으로 고평을 얻어 양국이 정상회담의 국가로 강화를 기대하고 말했다. (모스크바=연합)

# '반세기만의 악수' 앞다퉀 긴급 타전

## ■ 세계언론 반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13일 CNN방송 AP통신 요미우리(讀賣新聞)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특집으로 긴급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한 특집을 마련, 한반도 분단역사 및 김대중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악수 등 남북한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특히 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나와 김대중을 영접한 것에 대해 회담에 임하는 그의 남다른 각오가 반영된 것으로 신과구축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NN은 이날 김대중의 김포공항 출발과 평양 순안공항 도착까지 전과정을 긴급뉴스로 생중계하고 주요 뉴스시각에도 특집으로 보도했다. CNN은 "한국이 북한을 돕는 것은 한국에도 이익 된다"며

같이 공항에서 김대중을 영접한 것과 두 장상이 같은 차를 타고 평양시내로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논평했다. 교도(共同通信)도 "김대중에 대한 김위원장의 공항영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16세 연상의 김대중에게 경의를 표하고 남북의 관계개선을 위해 최고의 원인의 뜻을 표현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BBC 방송은 "남북한 정상들의 역사적인 악수라는 제목으로 남북한이 50년만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실현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윤동해 오던 북한 지도자 김위원장이 김대중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 공항에서 일인 화려한 환영식에 매우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회담사자 배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언론들이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남한측의 입장과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측의 이해가 일치해 회

### 남북화해 시작 알리는 신호탄 양측 이해일치 정상회담 결실 이례적 공항영접 대서특필

"이번 회담은 남북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특히 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평양의 공항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관우로에서 김대중을 영접했다며 두 손은 모두 사용해 악수하는 사상을 상징하는 바카크라고 지적했다.

AP통신도 "김위원장은 김대중의 경제지원 약속에 대한 회담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화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인 신화통신은 김대중이 서곡을 출발할 때부터 정상회담을 가질 때까지 '플래시(flash)' '어젠트(urgent)' 등 갖가지 방식으로 영문과 중국어로 10여 차례나 보도, 이번 회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세계 언론 가운데 최초로 김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을 직접 영접하며 김대중이 최고의 의전상 예우를 받게 된 것이라고 특종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관인 CCTV는 "김위원

장이 결실을 맺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의의는 합의서보다 양측 정상들이 반세기만에 만나 민족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의 경제일간 산보(星報)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과보다도 한국 지도자가 반세기의 대입속에서 마주 앉게 된 상징적 의미를 중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양국 정상은 평화협력 체제 등 정치 분야에 대한 합의 도출을 힘쓸 것이지만 문화교류와 이산가족 교란방문 등 비정치적인 부분의 협의만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큰 공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언론들도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비중있게 다뤘다. 이디스타스 통신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그날국간 대화제에 수교비축소 스안방 실시 등 3가지가 2002년 월드컵에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기기자)

## ▶ SNG로 생중계 프레스센터 송출 국내외 신속방영

### 회담중계 어떻게

2000. 6. 14 (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현상은 어떻게 우리 안방까지 전달되고 있을까.

온 세계의 이목이 쏠린 남북정상의 첫 대면과 공동기자회견, 만찬 등 생중계의 경우 이동형 방송통신용 위성지구국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를 통해 우리쪽에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SNG에서 무궁화위성 3호로 보내진 전파는 한국통신 광장동 지구국을 경유, 한국통신 광화문 ITC(International Television Center)를 거쳐 각 방송사와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송출된다.

한편 평양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자체 취재한 내용은 모두 평양 고려호텔 앞에 배치된 중계차를 통해 국제위성 안테나를 보내져 남한으로 들어온다. (권완식기자)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타이완 "남북회담은 兩岸해결 모델"

#### 대화 통해 관계 정상화 촉구

#### 中 "하나의 중국 우선 수용용"

【타이베이 14일 AP통신】타이완은 13일 중국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델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대륙위원회 관공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대만과 중국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정치적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관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대만과 중국은 화해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권수이 변(權水熙) 총통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대만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수장자오(朱邦造) 대

변인은 "대화 재개 이전에 대만은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 문제는 결국으로 중국 내부 문제로 독일이나 남북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대만이 독일과 남북한 문제를 양안문제 해결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재방임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만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린 치우산(林秋山)박사는 "한국의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불화란 대화뿐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체 "두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중국과 대만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린 박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실용주의 정책을 구사해왔다고 지적하고 대만은 정치적 아닌 실용적인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담함으로써 김 대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해의 민족사 시작됐다



## 첫날 시민들 반용

남북정상회담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평안남도공화국은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였고 이 순간을 TV로 지켜본 남북에서는 가슴벅찬 환희와 감개가 놓여졌다.

13일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그간의 적대감은 감쇠와 불신의 심정으로 일순간에 바뀌어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돌연 하루 연기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과격적인 공화국 선언과 평안시민들의 일방적인 환영을 지켜본 해외동포들은 북한 기대로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남북 두 정상이 평안남도 공화에서 나란히 붉은 카페 외곽 길에서가는 모습이 TV를 통해 공개되자 시민들은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시민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순안공화에 모습을 드러내자 "총석진"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성과를 예고하는 일"이라며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들은 "가슴이 뭉클했다"며 "50년간 버텨왔던 한이 풀리는 느낌"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대중과 김 위원장이 리무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공화국을 떠나자 시민들과 시민들은 "지금까지 버텨왔던 불행의 강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영했다.

시민들은 "두 정상이 공화에서 부디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불행이 가까이 온 느낌"이라며 TV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서울을 종로구 구기동 이북도민회중앙회 사무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TV를 가운데 두고 모인 실향민들은 오전 10시50분 회관에 김대중과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을 나오자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실향민들은 "장말 역사적인 장면이구나"며 "그래 이걸 보고 감동하지 못했다면 거짓"이라며 "서로 많이 사랑해서 좋겠다. 통일이 필요 없구나"

민" 등 반세기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환희를 지마다 쏟아냈다.

이날5도민회중앙회의 송성오(宋成五) 사무총장은 두 정상이 만나는 TV재방송을 계속 보면서 "감 위원장이 이래서로 영감을 내준 데 놀랐다"며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실향민들의 감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양연대의 김철관 동 시민단체 사무실은 이날 오전 직박이 감동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주일 앞 서 흥남하고 TV를 지켜보다 김대중과 김 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하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이연대 박원순 사무총장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며 "이번 만남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인단체와 교사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흥분과 감추지 못했다.

교총 채수연(蔡)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 열레비전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호하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 (조은희 기자)

## 실향민들 "50년恨도 분단장벽도 무너지는 느낌" "두정상 화기에애한 모습보니 형제같았다" 감격 곳곳서 역사적현장 지켜보며 "큰결실있길"기대

"드림 아래서 박수를 치는 김 위원장과 드림위에서 박수로 회답한 뒤 서로 굳게 악수하는 모습이 형제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교총 김대중(金) 서울 시민회 중교사 장석연(張)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예고했다"며 그 의미

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둬 전교총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남북간의 교섭이나 청소년교류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은식(尹)은 "서울 선동구와원리동에는 '김정일그레픽'이 아니라 '삼재'로 두 정상이 공화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 생생해한다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았다"며 "통일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오늘 그 가능성은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당국과 맞은 충돌을 빚었던 각 대학 총학생회도 두 정상의 만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 "감개무량... 통일실현 계기 되길"

### 해외동포들도 큰 기대

미국 워튼 중국 총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도 13일 김대중(金)과 김대통령의 평안남도공화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감에 들뜬 표정이었다.

미국 교민들은 12일 밤(현지시간) 현인TV의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기쁨과 감추지 못했으며 이번

### 이산가족 상봉 진전 있을것

### 대교도들 "믿을수 없다" 환영

회담이 남북 평화공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적으로 북공화 북방지역 개척, 전지도를 받았던 북방지역 출신 교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외에는 이날 상공에서

"안도적 치원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과 감개무량"이라워지기를 희망한다"며 "남북간의 선견을 해소하고 민족대단결의 안식을 천명하게 될 것"을 축선한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들도 이날 아침부터 NHK TV 등의 생중계를 통해 방영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악수 장면을 지켜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재일동포대한민국인민단, 민단 중앙본부 정진영(鄭)은 "선중국

민회에 이승만 25·정치외교학과 4·문화평화장은 "이후 말할 수 없는 감개무량이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하나의 뿌리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사나친 기대를 공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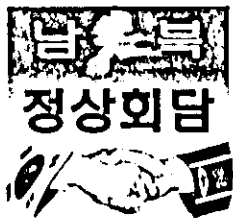
실향민 장모(張)씨는 "김 위원장이 공화까지 나와 김대중과 대외를 직접 임담한 일은 과격적이지만 북반의 빈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며 "북반이 그간 강대국 합리화 하기 위해 남북을 이용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이성민·황계식기자)

북공화는 "이것도 믿을 수 없다. 꿈과 같은 일이다"고 환영했다.

김정환(金)은 "재일동포연립회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코리아의 평화공화국을 기원하는 재일동포 모임'을 개최. 이로 분야에 출연들과 함께 (한민도 평화공화국의 조기실현을 타결했다. 규모 5000이명이 거주하는 외교·경제·한 나가타(加)구 소재 재일동포(한민도) 동맹 외교실본부 이준의 총재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 바란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워싱턴=국제기.도쿄=천정일·파리=)

# “꿈만 같다”... 내가족 만난듯 감격-흥분



## 실향민·백령도 표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한 전국의 실향민들은 “꿈에도

### 눈앞 고향땅 어선몰고갔으면... 형제들 생사부터 확인해달라 경원선-금강선철도 복원돼야

그러던 남북간 대화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영평도 대청도 등과 함께 ‘서해5도’로 불리는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들은 TV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장면이 나오자 전격같이 “강개가 무쌍하다” “가슴이 벅차 온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특히 이번 회담으로 백령도 주민으로 한정된 조양구 역이 확대될까 기대하고 있다.

○...과주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집과 직장, 마을회

관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TV로 생중계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지키 보며 워장 연기로 ‘혹시 나뉘었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냈다.

최북단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신동마을 주민들도 아침 일찍부터 TV에 모여 앉아 정상회담 시작을 축하했다. 이 마을은 전창권(53) 이장은 “실로 55년만에 이뤄지는 첫 정상회담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바로 너머 북한 땅에 갈어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향민 8가구 19명이 모여 사는 대천시 동구 효동 천개마을

주민들도 감회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대전에서 탕재원을 운영하며 북송의 날만 기다리는 비전향장기수 최선목(崔先木·72세)은 “전날 밤부터 떨리는 가슴을 쏟아내리며 한숨도 못잡다”며 “꿈에 그리는 고향 방문이 성사됐으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강원도 휴전선 인근 마을인 철원군 청왕읍 대미리의 김장배(金長培·37) 이장은 “이번 회담이 분단 현상인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낙후된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철원군 변영회의 이근화(李根



실향민 할머니의 기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한 실향민이 분단의 상징인 철책 앞에서 회담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임진각=허정호기자)

술) 회장은 “50년 전 아버지 손을 잡고 떠났던 고향마을과 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가슴이 살렌다”며 “나와 같은 실향민 1세대들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강원선과 금강산철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 “남북 서로 신뢰 쌓는게 제일 중요해요”

### 97년 탈북 김희영씨 남다른 감회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1997년 5월 부모형제들과 함께 고향인 평북 신의주를 떠나 남으로 귀순한 김희영(金希永·30)씨에게 남북정상회담을 맞는 기쁨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도 북산가 살아 수많은 지인(知人)들을 버린 채 탈출했던 북녘땅을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남북 통일이 첫 대면을 한 13일 오전 서울 한 대학의 학생인 김씨는 기말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남쪽을 모두 경험한 그로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흥분된 것도 없는 듯했다.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난 김씨는 의외로 담담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을 열렬히 찬양하며 직극적으로 나서는 북한의 진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담담하고 냉정하던 그의 표정에도 북에 두고 온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잔뜩 배어 있었다.

“통일이 되면 그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어딜 가나 사람



들은 나 똑같지 않아요.”

이산가족이던 아버지, 어머니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 삼이게인 친척들을 만났을 때 생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김씨는 이전 친구들과 떨어져 자신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

김씨는 “이산의 아픔을 겪어 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모른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이 땅위에서 이산의 아픔만이라도 치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라며 남은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든 저 하나가 될 수 있는 남북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었다. (이상현기자)

世界日報

2000. 6. 14 (수)

# 실향민 "내가족 찾아달라" 金대통령에 눈물의 호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시승공향으로 출발하다 청와대 정문앞 효자동 분수대 앞에서 환송 나온 주민들과 잠시 악수를 나누던 중 1947년 평북 의주에서 일할단 신으로 환향했다는 김경희(金敬希·77세)는 워남 당 시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낫바렌 흑백사진 3장을 김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다.

가족들을 상봉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살아생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감격했다.

그는 워남후 48년 육군 보병 17연대 상사로 입대한 뒤 6·25 전쟁에 참전, 52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55년 10월

**청와대 환송 나온 김경희**  
**빛바랜 사진 보여주며 "울먹"**  
**金대통령 "알았습니다" 약속**

북무상사로 만기 재대했으며 85년 국가유공자로 추인됐다.

김씨는 "대통령께서 편양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배웅나갔"다며 "복에 두고 온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3일 오전 평양으로 떠나면서 청와대 앞길에서 환송 나온 평북출신 실향민이 내보인 가족사진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은 국민 '눈과 귀' 평양으로 도심 대규모 집회 취소-연기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도심 집회가 눈에 띄게 줄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단초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던 12일과 13일 경찰에 접수된 집회와 기자회견 건수가 46건과 55건으로 60여건이었던 평소보다 줄었고 12일에는 예정된 집회 중 23건이 취소됐다.

특히 참가해장 인원이 3000명 이상인 시민·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평소 하루평균 5건 정도 였으나 회담기간인 13~15일에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보훈의 날'인 6월을 맞아 거의 매일 집회를 갖던 전북군경 유족회나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

체들은 최근 "분단 이후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모든 집회를 6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단골장소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의 경우 하루에 2~3잔씩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이번주에는 예약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평소 일주일에 3~4건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경실련도 정상회담이 끝나는 15일 오후 11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다.

(곽인영기자)



실향민 김상복씨가 13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김경희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환영식을 갖는 장면을 TV방송계로 지켜보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동희기자

## "이번 추석엔 고향집서 보름달 볼 수 있겠다..."

실향민 김상복씨의 기도

"뭐이 김정일이가 직접 영접을 나갔다구. 이거이 뭐가 이루어지겠구먼"

55년만에 남북 하늘길이 열린 13일 오전 10시36분, TV 생중계로 김대중 대통령을 대운 특별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실향민 1세대 김상복씨(78·세물안교회 장로)는 기대쉬인 감탄을 연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

냈다. 해방 후 공산당의 교회 탄압이 심해져서 이듬해 협정단신 입원, 서울음악전문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힘든 다정상이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었다. 나사 왼쪽 한 이후 1~4주회 때 부인을 포박해 가족들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왔다.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주던 누나의 이별한 지도 55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다.

김씨는 6·25 전쟁 후 유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들뜬이 고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

TV 비친 북녘 하늘에

두고온 '핏줄' 목메어

끝내 '그리움의 눈물'

내자 김씨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특별기 드림을 내려온 김대중 영이 김위원장과 두 손을 꼭잡으며 안부탐 주고 받는 순간 김씨는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부인 김순영씨(79)도 "이보우 이번 추석엔 고향집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않아요?"라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광 속에서나 전개했던 남북정상회담의 만남, 김씨 부부는 북녘의 고향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성념 속에 간 밤을 뜯 눈으로 지냈다.

1922년 평북 박천에서 태어난 김씨는 16세 때 인근 신천 출신의 김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중학교 재학중에도 교회 성가대에서 함

향과 누나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퇴각 후 이북 5도까지 끌려온 김씨는 평북 민속보존회 강습을 역임하면서 고향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기도 했지만 누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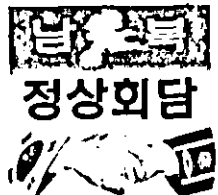
"그때 같이 내리오지 못한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는다"며 "이번엔 꼭 생사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만세기 빼이든 분단의 세월을 가슴에 착어온 김씨 부부, 이듬해엔 남북정상이 함께한 평양의 하루가 너무도 짧기만한 순간이었다. 이들은 오랜 소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깊은 숙면을 할이 간질한 기도 남 않았다.

민태영기자 twmin@kmba.co.kr

2000. 6. 14 (수)

# 기업 北진출 러시 經協 금류탄다



## ● 중소기업

남북 장상이 최초로 만나 회담을 가지는 등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사업의 꿈에 부풀어 있다. 현재 전진도입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상회담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11일 베이징(北平)에 실무진들과 회담에 복귀해 임가공사업의 확대와 전용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협회(중소기업회)도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14개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북한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정상회담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 값싼 고급인력 매력 北진출 붐물 이물듯

업계의 대북진출은 북풍이 이물 전망이다.

이와 연계된 이유 위타가공 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금속분야에서는 주조와 연마(베나디움)에 있어 위타가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화학 플라스틱 분야를 위타생산도 생산수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기업들이 대북경협도 제방을 산이다. 아이엘(아이)과 같은 기업사례가 늘고 있어 경협에 있어 이점이 상당한 경우 개인기업은 물론 개인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북에서 사업을 한다는 데 문외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문외는 북한에 법규가 엄격하고 고공 및 원재료에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값싼 고급인력을 활용한다. 여러가지 투자(기업)는 업적을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협회와 관계자, 전문가들.

(임정민기자)

문외이다. 경제가 남북 경제협력은 기업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남북경협화합을 계기로 남북기업의 북한진출이 붐물이 이루어지 시작했으며 이들 기업으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대외경제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계는 북한진출에 대해 분담한다. 현대 삼성 LG SK 등 대기업은 두 발을 내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북진투자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기업은 이미 115개, 이들 기업 중에는 삼성 LG전 자제품 기술제품을 조달해 국내에 들어오는 기업에서부터 비철재에 가라비앙의 합성농장장비 심지어 생물장사할 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남북 경협에 몰리는 여도 성

## ■ 對北사업 현황과 전망

南 자본-北 노동력 결합 대외경쟁구도 구축  
현재 현대-삼성등 145社 활동 투자 급증할듯  
家電조립서 샘플장사까지 품목도 다양화 추세  
투자안정 보장-이종과제 방지 장치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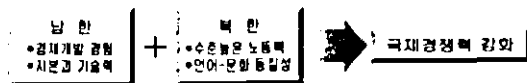
도 다진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연철(金連澈) 수석연구원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남북한 경제구조 차이를 극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효율적인 자본-기술-노동력의 결합을 통해 강한 대외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북진투자

에 잇따라 나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다. 북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현대와 삼성 평화자동차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현재는 1000만달러에서 많게는 10억달러에 달한다. 1000억을 공사 등 공기업의 북진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진정한 관계자는 "투자안정이 보장되고 이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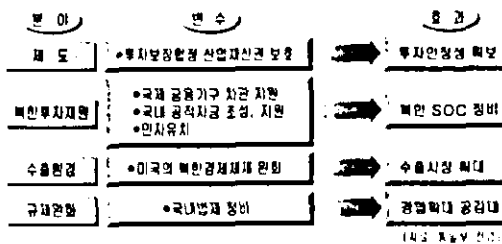
분제가 해결되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외로 해외시장 어디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북진투자에 있어서는 북한 정부에 의한 대북보 상환기지가 북한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경협사업과 경제협력이라는 보고에서 남북 경협을 삼과 북이 함께 벌일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북한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익을 쫓아 한 과제가 더 많다. 투자보상합성과 이종과제방지 협정은 물론이고 남북간 경제협력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다. 미국의 대 북경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남북 경협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김호민기자)

## ● 남북경협 시너지효과 분석



## ● 남북경협 활성화의 변수 및 요과



## ● 주요 남북경제 협력 사업

| 남한기업      | 북한상대        | 사업내용        | 투자금액      |
|-----------|-------------|-------------|-----------|
| 대 상       | 홍길888무역 총회사 | 금강산생물 개발    | 580만달러    |
| 복심자       | 광명성 총회사     | 철강차로제 제조    | 311만달러    |
| 민국전력      | 원자력 총국      | 공수로 건설      | 1억1430만달러 |
| 아지커뮤니케이션  | 광명산관광 총공사   | 북한관광 안내-광고  | 현금 25만달러  |
| 국제해수수출대   | 농업 과학원      | 수출해수수출대     | 110억엔     |
| 두레마을 영농조합 | 리산경제 협조회사   | 합성농장 운영     | 200만달러    |
| LG-태경수산   | 광명 총회사      | 가라비 양식      | 65만달러     |
| 현대건설      | 아-태 평화위원회   | 금강산관광사업     | 1억333만달러  |
| 현대건설      | 선봉군 문실농장    | 버섯재배        | 20만달러     |
| 현대건설      | 광명산관광 총공사   | 금강산 통신사업    | 13만달러     |
| 한국통신      | 조선연방 총회사    | 지류차 조립공장    | 666만달러    |
| 동원자동차     | 조선연방투어 센터   | 남북 S/W 공동개발 | 72만달러     |
| 삼성전자      |             |             |           |

## 불황탈출 청신호... 特需에 크기대감

### ■ 건설업계 SOC사업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 양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핵심사업이 붐물일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 업체들이 북한진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선진화 부분사업과 인공에 온전한 지원에 원하고 조력 위키지침 등을 지원중이다. 현대건설은 또 북한지역에 10만 규모의 건설인력 지원과 준비중이며 조만간 사내의 공단개발사업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북한에 임해공업단지외 배후공업사내를 지원하는 공단, 양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방진호 등 에너지 사업분야와 남북협력사업에 전진도입을 추진 중이며, 대우건설은 특히 북한의 석유난 경제난과 자사의 석유노

### 항만·공단 우선조성 불가피 대형 업체들 진출채비 박차

동력은 고려해 국제협력기금, 대북경협기금 외에 미국이나 일본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개의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고양건설사는 지난 4월 대북사업 대표 코스를 수립, 이단도 관련지도 수립사항을 마친 상태로 정부 지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로, 양반 철도와 외국의 철도 요크스(전통) 건설 공단 조인 수에도 참여한 방침이다.

세노(한민도)에너지개발(가)은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동이(정진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 대북사업에 차근 차근에 참여할 회사 참여기업 등이 일한다는 방침에 시선준비 상황에 돌입했다. (김광수기자)



정상회담기법 인터넷대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인터넷대화 이코인사가 13일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기념 인터넷대화 반대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안장의 캐리커처를 쓴 고령동이 참석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조은성기자)

남북경제는 장기적으로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운용용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견학조사단의 방북이후 전자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협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산 TV와 카세트를 국내에 들여와 시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북한에서 인간 TV 2만대, 카세트 12만대, 전화기 24만대를 각각 만들어 이듬해 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 전자업계

삼성-LG전자등 주도

TV등 조립공장 증설

전용공단 조성도 추진

로 북한의 남포와 해주일대에 수인전자단지외와 비슷한 50만평규모의 전용 전자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LG전자는 1996년 평양 시내에 컬러 TV 일가공공장을 설립, 올해 1만5000대의 북한산 TV를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다. LG는 지난 4월 첫 생산분 2000대를 들여온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2차 분을 들여왔다.

이밖에 삼흥사, 한국단지공업, 국동용강 캐드캠, 국동용 북한에 진출한 4개 중소기업체를 비롯한 10개사는 오는 20일 평양을 방문, TV조립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협기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보통신업계는 북한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반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는 독일 통일후 동독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개선 수요를 통신분야가 80%를 차지했듯 우리나라 1970년대 중반수준에 불과한 북한 통신망 현대화가 남북협력의 주요사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통신은 현재 북한 김수로공사 관련 통신망사업의 진행중이며 최근 관계자들이 방북, 북한 통신망 현대화와 시외전화망 구축사업을 논의했다. 현대는 온 세방산-하나로통신 등과 공동으로 금강산 지역 통신망 확장사업을 추진중이다.

■ 정보통신업계

낙후된 통신망구축 활기

한동-현대 사업권 경쟁

SW업계 北과 공동사업

또 현대는 북한 통신망 구축 사업의 독점권을 놓고 북측과 협상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국내 소프트웨어업계는 고급 정보통신인력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의 공동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3월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설립하고 10여명의 북측 인력을 통해 남북단일 워드프로세서와 리눅스응용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베이징지부를 개설해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의 대북 진출을 돕고 있다. (최성준기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금강산 지역에만 국한된 북한의 관광지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남북한 관광지를 묶은 연계 관광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연구원 등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여행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중·장기 남북연계 관광상품 개발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금강산과 백두산 등 이미 개방이 허용된 지역들부터 국내관광 코스와 연결,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여행업계

남북한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등장 기대

이 중에서도 특히 남북 인접지역에 위치한 삼악산과 금강산유연계는 코스 동해항과 백두산을 직접 잇는 코스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병오기자)

대한매일

남북협력기금 내년 5,000억 증액

정부, 對北관련 사업 지원 대폭 강화 방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관련부처에서 남북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예산요구를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은 민간차원에서 대부분 이뤄지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부처에서도 예산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는 공단건설, 건설교통부와 협도청은 도로와 철도복원 및 건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등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지원에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 중 남북협력 및 북한지원과 직접 관련된 것은 통일부와 외교부상부가 각각 요청한 남북협력기금 증액과 대북 보전분야 지원뿐이다.

통일부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을 5,000억원 출연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올해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000억원이다. 지난 4월말 현재 모두 9,701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출연됐으며 이중 4,317억원이 사용돼 현재 5,384억원이 남아있다. 통일부의 요구대로 남북협력기금이 출연되면 이 기금의 가용액원은 1조원 정도로 늘어난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방적인 예산과는 달리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이산가족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 외교부는 북한의 보전분야 지원을 위해 55억원을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해 북한의 면역체계조사,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자재 공급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대북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관련부처 예산을 전용하고 별도의 예산으로도 편성할 방침이다.

● 기획예산처 tje@kda.go.kr

남북 軍縮·연락사무소 논의할듯

정부간 대화채널 설치포함

【평양 14일 韓聯】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는 정부간 대화채널과 상호 군비축소, 서울·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도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 준비회담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 통일외교 3대 원칙의 확인과 교류와 협력 증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남북정상들은 또한 서드니콜라프과 2002년 월드컵에 남북단일팀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南北정상, 핫라인 설치키로

## 金대통령·金正日위원장 역사적 첫 회담

### 金위원장 이례적 공항 마중... 車동승 대화 金대통령 "이산가족 恨 풀어줘야" 만찬사

#### 오늘 단독·확대 회담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낮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1차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두 정상은 14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7분간 진행된 영빈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94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김일성(金日成) 주석간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상황을 거론하는 가운데 "그때 UN에까지(북한)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다정다심한 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 통화면(북한)이 자료를 다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앞으로는 직접 연락하자"고, '직통전화' 개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6월 13일은 역사에 담담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김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회담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계가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이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243일 동안 대담해줘야 하고, 대담을 주는 사업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해, 김 대통령의 방북을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남북의 구체적 카드를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시민들이 환영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은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김 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특별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으로 나와 직접 김 대통령 일행을 영접했으며, 김 대통령의 승용차에 함께 타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동안 약 50분간 '차중 회담'을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수대의 사당으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영접하고,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저녁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베푼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만찬 담사에서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반세기 동안의 분산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도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만찬사에서 "지난 20세기의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영향을 준리같은 사대주의의 후과(後果)였음을 깨우쳐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에 걸 넘어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美 "중요한 진전" 中 "환영·지지"

미 국무부는 13일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은 중요한 진전으로, 미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김정일 위원장(공화)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남북한의 대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회담이 결실을 맺을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유보한다"고 말했다. 주방자오(朱邦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장데 뉴스브리핑에서 "오늘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은 50여년 만의 첫 회담으로, 한반도에 좋은 일"이라며, "중국은 환영과 지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또 "남북한은 외부간섭 없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

고 관계를 개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외국군 주둔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 문제는 관련 당사국간 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 대변인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은 "남북한 정상 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만나 약속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면서 "회담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朱重中기자 midway@chosun.com /北京=池津龍기자 hbee@chosun.com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 정상회담 이모저모

#### 李姬鎬여사에 각별 예우 평양은반등 푸짐한 오찬

●1차 남북정상회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45분쯤 같은 승용차를 타고 백화원 영빈관에도착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영빈관 입구에 서서 뒤차로 도착한 이희호(李姬鎬) 여사에게 먼저 들어가길 권하는 등 각별의 예우했다.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영빈관 입구에서 피도 치는 바다가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한 사진기자들에게 "잘

찍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김 국방위원장은 김 대통령과의 사진촬영이 끝나자 이 여사에게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권유한 뒤 남측 대표들에게 "정관들도 함께 합시다"라고 제의,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김용승 위원장 어디 있어"라고 불러 우리 대표단 일행과 다시 한번 포즈를 취했다.

김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이 공방까지 영접 나오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해준 데 대해 "감개 무량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에 김 국방위원장은 "절대 섭섭하지 않게 할 테니 멀리 마십시오"라며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243일 동안 대담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만찬 김 대통령 내외는 저녁 7시30분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 남북 화해를 축원했다. 만찬에는 남측 수백명, 취재단 전원과 북측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만찬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대통령은 김석 양복에 밝은 하늘색 넥타이

를, 이 여사는 흰색 비단에 보라색 띠를 두른 한복을 입었다. 헤드테이블에는 김민하(金敏河) 민주평통 수석부부장, 김용승(金容勝) 아내병 회위원장,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만규(李完九) 자민련의원 등 남북 인사 18명이 나란히 앉았다. 북측 참석자 가운데는 여자 마린론선수 정성옥, 영화 '인격장'의 주인공 최창수, 북송인 이인모 노인의 딸 현옥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통령이 북측 한대에 대한 감사로 답사할 시의까지 참석자들은 박수로 회담했다. 김 대통령은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권해줄 제의했다.

●오찬 김 대통령 내외는 단골이서 오찬을 했다. 점심 식단은 깨솥을 뿌린 닭고기와 생선, 찜모듬합병새, 병안온반, 육류 불고기 새우남새 볶음, 삼기떡, 밥김과 등 '푸짐하게' 차려졌다. 김 대통령은 "음식이 맛있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베일속의 北지도자' 세계앞에 서다

## 모습 드러낸 金위원장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파격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을 격의없이 친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맞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인행이 배일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나, 겉에서 바라본 김 위원장은 극히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수반이었다. 목소리는 다소 관료화면서도 집회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한 때문인지 사안의 본질과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도진 앞에서도 친화 스타일 없이 행동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 金대통령에 승용차 上席내줘

김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13일 오전 김 위원장은 아무런 예고없이 모습을 나타냈다. 물론 양국 정부간에는 협의가 된 사항이나 이쯤 보르딘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항 중앙 카펫 주변에는 김영남 중앙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다른 지도부가 근접할 하지 않아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비교적 건강하고 젊은 모습의 김 위원장은 남측 기자나 수행원들이 접근해도 친화 끼리는 기색이 없었으며, 주위의 사진이나 방송에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공항에서 김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군 의장대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처음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영을 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면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이희호 여사가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다. /주필=청외대 사진기자단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  
“안전하게 모시겠다” 깎듯하게 예의  
수행원에 농담건네며 격의없이 대해

할 시열토화 한 것이나 김 대통령과 순안공항에서부터 백화원 영빈관까지 같은 차방을 이용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리무진의 상석인 뒤편 오른쪽에 오르자 왼쪽 문을 통해 김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모습은 김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여김없이 나타났다. 한편에서 김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은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불러 함께 사진을 찍히고 제안하는가 하면 경건실에 들어가기도 직접 김 대통령을 수행한 장관들을 지명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에게는 “TV에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농담을 하는 등 여유있는 분위기도 연출했다.

성북을 기한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이 왜 평양을 오려하고, 김 위원장은 왜 만이들었는가 의문부호가 있는 것 아닌가” “격의없는 대화를 하자”고 남

측이나 세계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을 먼저 끄집어냈다.

또 “김 대통령이 몸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남측 수행원들에게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격의없이 잘, 편안하게 지내시고 오늘 사업을 하자”고도 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김 대통령이 방금한 만큼 “조선민족의, 동맹애의지국의 예를 다 갖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깎듯하게 예의를 갖추기도 했다.

## 김용순위원장에 “용순비서”

김 위원장의 자신감은 “나도 농치를 하고 있지만 더 쉽다”는 연극사인 희곡한 기분을 갖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같은 자신감은 김 위원장이 측근들을 부를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용순 아내권화위원장을 부를 때는 “용순 비서”라고 호칭했다.

/주필=공동취재단

## “국내행사땀 간편복” 인민복대신 점퍼영접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입고 나온 복장을 놓고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낯선한 의견이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식 김정일 인민복 대신 점퍼차림의 위상복이었는데 외교관 보연구원 박두복(朴斗福)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날 중국에서 참제민(覃澤民)을 만날 때나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을 만날 때는 인민복을 입었는데, 이날 위상복을 입은 의미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북한 전문가 이항구(李恒九)씨도 “군부대 시절할 때의 복장으로 국가원수다운 맞은 것이 예의에 맞는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대 북한학과 교수인 고요환(高有煥) 교수는 “북한 지도자는 외국에 나갈 때는 정장, 국내에서는 간편복을 입는다”고 했고,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영(柳浩榮) 교수도 “북한 주민들도 모두 지켜보는 북한 국내에서는 인민복을 입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全島均기자 ck\_kim@chosun.com

# “감개무량” “세계가 주목하니 씬을 줘야죠”

## 金대통령 “많은 분이 환영나와 놀랍고 감사” 金위원장 “섭섭지않게 해줄테니 염려마세요”

### 백화원영빈관 對坐

남북한의 첫 정상회담은 13일 낮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27분 동안 진행됐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함께 탄 리무진은 오전 11시45분쯤 영빈관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잠시 서서 다음 승용차로 도착한 이화호 여사에게 먼저 들어갈 것을 권하는 등 격박히 예우했다.

김 대통령 내외는 숙소 입구에서 보라색과 주홍색 한복을 곁에 치러 입은 북한 여성들로부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피도치는 바다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김 대통령은 이때 양측 사진기자들에게 “잘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과의 사진촬영이 끝나자 관하여 이 여사도 함께 사진찍을 것을 권유하며 김 대통령 내외와 사진을 찍은 뒤 큰 목소리로 “장관들도 같이 합시다”라고 제의, 장관들과도 사진을 찍었다.

### “잘 찍으세요” 여유

김 위원장은 또 “김용순 위원장은 어디에 있어”라고 김 위원장을 불러 김 대통령 내외, 공식 수행원, 김용순 위원장과 함께 다시 한번 포즈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사진촬영이 모두 끝나자

김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김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을 집권실로 안내했다. 집권실에서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공회까지 마중나오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해준 데 대해 “감개무량합니다”라고 감사할 표했다.

### 경호실장에 “걱정마세요”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 및 공식 수행원들과 환담하면서 “참대 섭섭하지 않게 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백3일동안 (세계에) 대답을 줘야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 넘친 어조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낮 12시40분쯤 상봉 및 1차 회담을 끝낸 뒤 남을 바치고 집권실에서 나와 김 대통령 및 공식 수행원들에게 “잘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라며 일일이 악수할 하고 헤어졌다. 김 위원장은 안주섭 경호실장과 악수하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함께 웃음이 터지나 오기도 했다.

북측은 상봉을 끝낸 1차 회담 시작 때부터 거의 끝난 무렵까지 남측 공동취재단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김 대통령 내외는 김 위원장이 영빈관을 떠난 뒤 김명철(54) 영빈관장으로 부터 영빈관 내에 전시돼 있는 꽃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부흥=공동취재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리무진을 함께 탔다. 탑승 시간은 10시 50분부터 11시 45분까지 모두 55분. 중간에 평양 초입에서 잠깐 내린 시간을 빼면 50분 가까이 된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준영(朴準榮) 청와대 대변인은 “두 분이 신뢰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다만 ‘김 위원장이 94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

### ‘리무진 대화’ 50분 서로 의중 탐색한듯

주석 사이의 남북회담이 합의됐을 때 김 주석의 심경과 또 그것이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들 많이 했다”고 말했었다”고 김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 평양 거리, 환영 인파 등을 회재로 삼아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의례적인 인사, 뒷담이 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회담에 임하는 피차의 신중과 기본적인 자세 등에 대해 대화할 나누는 탐색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흥=공동취재단

### 기자수첩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의 평양 출현은 한반도 밖(發) 충격파였다.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38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 순안비행장 땅에 발을 딛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날치오는 파도와 같은 충동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김 대통령은 평양에서 “빙설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30년 전에 한반도의 백천구조 해제를 꿈꿨던 한 정치인의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바로 그 꿈으로 인해 출한 고난을 겪어왔던 그가, 이날 비행기 승무원 앞에 나와 환영의 꽃기를 흔들리고 그 축하를 바라보며 느꼈을 감회는 삼보 백배를 갚아.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입힌난 고생을 겪어온 이 땅의 사람들 모두가 김 대통령과 그 감회를 함께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모퉁이를 눌렀다. 한반도에 전혀 새로운 국면을 뜨고, 이 땅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여

는 큰 진기를 맞았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충분’과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 걱정의 순간에도...

김 대통령은 서울 공장을 출방하기 앞서 “민족을 사랑하느 뜨거운 가슴과 현상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갖고 평양으로 간다”고 말했다. 역사와 온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김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樞軸=정치부 차장 jhyang@chosun.com

## 북한 儀典 Q&A

13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영접,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영접 장면의 궁금한 점들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Q.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한 것은 얼마나 이례적인가.

=김 위원장은 94년 실질적인 북한의 지도자가 된 이후 국민이 방문할 때 한번도 공항에 나와 본 적이 없다.

Q. 공항에 나온 김정일 위원장은 왜 기내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는가.

=의전관례상 기내에는 의전책임자가 영접하는 것이 국가간의 관례다. 어느 나라도 최고 지도자가 기내영접을 하는 경우는 없다.

Q. 착륙 의장대를 사열할 때 김정일 위원장은 경례를 하는데 김 대통령은 왜 안 했는가.

=국가간의 의전상 사열을 할 때 초청한 측에서는 경례를 하나, 초청을 받은 측에서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Q. 김 대통령이 공항에서 도착성명을 낭독하지 않은 이유는.

=북측 요청에 의해 공항에서 도착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백화원 영빈관에서 박종영(朴晳榮) 청와대 대변인이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국민이 방문해도 도착성명을 잘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 순위원장 왜 機內영접 않나

### 의전 책임자가

### 올라가는게 관례

### 도착성명 낭독안한 이유는

### 北선 국민방문해도

### 대부분 발표 안해

### 金대통령과 인사한 여성은

### 몽양 呂運亨의 딸인

### 여원구 부의장

Q. TV중계를 보면 순안공항에 나온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만세'를 연호(連呼)하는 것만 들렸는데, 김 대통령 이름도 들렸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김 대통령 이름도 함께 연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더 크게 연호한 것은 사실이다.

Q. 순안공항에 나와 김 대통령과 인사한 북한 여성은 누구인가.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다. 여 부의장은 몽양 여운형(呂運亨)의 딸로, 이희호(李姬浩) 여사의 안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Q. 양측 장상이 공항에서 타고 이동한 차는 무슨 차인가.

=포드사의 린컨 컨티넨탈 리무진이다. 주문생산되며 VIP들이 있는 공간이 일반 차량보다 최대 3배가량 크다. 또 특수세료를 사용, 방탄(防彈)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Q. 김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하는 차의 상석(上席)에 있었는데 이례적인가.

=김 위원장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국가원수끼리 동승(同乘)할 때 초청을 받은 쪽이 상석에 앉도록 돼 있다. 김 위원장이 나아가 훨씬 많은 김 대통령을 예우했다는 분석도 있다.

Q.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은 왜 공항에 나오지 않았는가.

=김영숙은 원래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북측 관례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5월 중국을 방문할 때도 동행하지 않았다.

Q. 첫날 만찬에 김정일 위원장이 불참하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찬을 주최했는데.

=북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원수(Head of State)이기에 그가 만찬을 주최한 것은 의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李河遠기자 may2@chosun.com

# “용감한 訪北” “원래 겁없어”

## 金대통령·金위원장 첫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 대통령과 북측 김 위원장(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부터 김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정경실에서 20분 가량 상봉을 겸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많은 말을 건넸고, 김 대통령은 손님이라는 점을 의식해 김 위원장의 말을 받아 진지하게 남측의 방침들을 진술했다. 다음은 두 정상이 나눈 대화록 전문.

### 준비못해 연기된것 아니다

▲김 대통령=음침실 밖에 걸린 대형 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입니까.

▲김 위원장=원래는 축하주용 그림입니다. (전두환 아-대변회위 한사가 “묘왕산의 축하주용을 그린 것입니까”라고 질문), (김용순 아-대변회위와 위원장을 향해) 용순 비서, 김 대통령과 저를처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행한 직관들과 인사를 못나왔어요. (남측 공식 수행원들을 향해) 평양 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TV에서 봐서 잘 압니다. (백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북한 합의를 TV로 많이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남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지캐(11일) 밤에 김 대통령의 코스를 대웠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가지 백화원 초대소까지 오실지 알려줬습니다. 준비 관계를 금방 알려줬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김 대통령을 하루 동안) 못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기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환영 만찬 13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김 대통령과 김위원장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간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 국가수반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만찬에 나오지 않았다. /부흥·청외대 사진기자단

### 金대통령 “날씨도 화창...민족경사 축하” 金위원장 “인민들에 11일 訪北 알렸다”

▲김 대통령=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 나와 동라고 감사합니다. 평성 북녘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주시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7000만 민족의 대화합 위해 시골과 평야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위원장=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 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황을 따지는 것을 보고 대구 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계란 반숙을 절반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경 오시는데 아침식사를 적게 하셨습니다.

▲김 대통령=평양에 오면 식사를 잘 할 줄 압고 그랬습니다.(웃음)

김 위원장은 “나는 4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했다.)  
▲김 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 위원장이 겁쟁이 아니었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 위원장=그저께 생방송을 통해 초대소까지 행영을 알려주니까 어서들이 밟기 때서인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 될 날입니다.

### 공산주의자도 도덕 있어

▲김 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란 말들이 감사다.

▲김 위원장=오후부터는 공식 한의위 임정이 진행됩니다. 주석님께서 생종했다면 (백화원 초대소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서) 주석님이 앉아 내룡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94년에) 김영삼(金泳)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측)UN에 까지 차용을 부탁해 가져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나직나직한 게 있었다면 최룡천과 안 풍화면 (우리측)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들 재검열 것으로 하신합니다.

▲김 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저 심 안이해야요.

▲김 위원장=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 대통령이 왜 반북했는지, 김 위원장 왜 승복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000년 통일 대남해결이 합니다. 대남을 주는 시기에 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공동취재단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 경호때문에 언론보도 못해

▲김 위원장=지위를 앞세우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수반도 환영하는 데 동방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 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절을 지킵니다. 동방의지국을 자랑하고파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남측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장관들도 김 대통령과 동행에 임할, 두리온,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연도에 임하니 나왔는데”고 물었고 김용순 위원장은 “600명 가량이 있겠습니다.”라고 하자

# “歷史는 화해·협력하는 民族에 영광 주었다”

## 金大中대통령 첫날 만찬 답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하신북녘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일행에게 주신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지척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쪽 지도자들과 만나 거리의 앞날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실사구시 정신으로 풀어가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인의 삶산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년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심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귀빈 여러분, 우리가 함께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시운을 떠나면서 남녘 동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애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 7천만 전쟁공포서 해방되길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힘을 합

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분단의 시대도 지나간 역사로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분명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는 지금까지 남북 동포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해 공단 조성사업 등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당국자간 대화 계속돼야

얼마전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과 ‘평양교단’의 공연을 많은 남쪽 동포들은 감격의 눈물과 박수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남과 북에서

교류와 협력에 힘쓴 모든 분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심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귀빈 여러분, 역사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1세기 첫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오늘이 화해와 협력과 봉일을 향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배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호 여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 부인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오른쪽)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인이 13일 오후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기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부흥=정의대 사진기자단

## “통일위해 오랜 세월 기다려...함께 노력할 때” 김영남 위원장 만찬사

김대중 대통령 각하와 리희호 녀사! 그리고 남쪽의 손님 여러분!

나는 먼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들이 유서깊은 우리 평양에 오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진이 오가는 이 자리는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인 선택과 애국의 길만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의 마당입니다. 나라의 봉일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분열은 언제 끝났는지, 통일은 또 언제 이뤄졌는지, 7000만 거리의 이 절박한 질문에 이제는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대답을 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글로 이어진 지난 20세기의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영합한 뿌리깊은 시대주의의 후과였

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분열과 변역의 21세기를 일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온 거리와 세계의 관심은 여기 평양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유서깊은 평양의 모습과 분위기를 익히면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

의 봉일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7000만 거리의 넋인인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의 반박을 축원하여, 남쪽의 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재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뜨거운 가슴·차가운 머리로 방문길”

### ◆ 金대통령 서울출발 성명 <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4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기까지는 무엇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연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한걸음 같은 업원과 성원의 힘이 컸습니

다. 진심으로 감사할 드려 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물론 지금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협력이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비라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만만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 오던 남과 북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타놓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해가 커질수록 평화와 협력도 커질 것입니다.

## “민족 평화·협력·통일위해 여기왔다”

### ◆ 金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천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우리 일행을 초청해주신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녘동포들의 따뜻한 안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녘동포가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저의 회담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북녘동포 여러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갈 것입니다.

## “金 위원장 공항영접 미리 결정된 것”

### ◆ 梁榮植 통일부차관 일문일답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갖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은 사전에 계획했으나 김효상의 문제 때문에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다.

- 당초 예상했던 회담 일정과 다른 것 같은데.

“김 국방위원장의 순안공항 영접은 미리 결정됐으나 남북 양측이 합의하에 밝히지 않은 것이다. 여하튼 두 분의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이다.”

-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

됐나. 차기 회담일정은.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히지 않기로 한 만큼 양해해 달라. 정상이 나는 이야기를 다시 브리핑하면 김 대통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합을 만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김 위원장도 북측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분위기 차원에서 언급했다.”

- 국방장관과 외교부상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에서 빠진 이유는.

“외교부 장관이 빠진 것은 92년 합의한 기본 합의서 시문에서 나온 것처럼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내 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은 첫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국방 문제를 다루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송仁執기자 ginko@chosun.com

# 金대통령 “南北

# 힘 합쳐야 국제경쟁서 생존”

## 평양도착 첫날 이모저모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 간의 첫 대면은 남북간 사진 회의에 따라 김 대통령이 평양 땅을 밟는 순간 이뤄졌다.

○…김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27분. 그 때 공항 입구에서 김 위원장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金容淳) 여대변회위원장 등 북측 지도자가 등장하자 마중 나온 평양시민들은 진홍색의 조화(造花)를 흔들며 “결사옹위” “김정일” “만세” 함성소리를 질러 공화국이 떠나갈 듯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뜨면 아래 중앙에 지리했다. 비행기 앞문이 열리자 김 대통령은 잠시 서서 승강기 아래 서 있던 김 위원장과 눈인사했다. 두 사람은 같이 박수를 쳤다.

이어 김 대통령은 승강구로 내려와 김 위원장에게 다가서서 김 위원장도 서니 손을 앞으로 나오며 김 대통령과 역사적 첫 남북정상간 악수했다. 두 정상은 두 손을 맞잡고 “반갑습니다”라고 인

케틸라 승용차에 오른 뒤 김 위원장은 왼쪽 문을 통해 옆자리에 등석했다. 남측 한 수행원은 “사실상 승용차 안에서 남북 첫 정상간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 경호원들은 개인 무기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내려 평양시민과 악수

북측의 한 안내원은 “경애하는 장군님이 나오셨다. 조국통일을 바라고 한 민족이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 원래 같안 나오시는데, 무더운 날씨를 미다하지 않고 나오셨다”며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다”고 김 위원장의 공화미중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안내원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나오신 것으로, 남측의 통일사정들이 그 뜻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항 환영행사는 오전 10시 50분까지 계속됐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태운 케틸라 승용차는 평양시가지로 향했다.



◇갑동의 박수 “어려운 수고하셨습니다.” 13일 오후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김 대통령 내외가 민족공연물 관람한 후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주필=청외대 사진기자단



◇희려한 공연 13일 민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방문 축하공연에서 북한 여성 무용수들이 북한식 전통무용을 공연하고 있다. 관람자들은 모두 ‘희려한 공연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필=청외대 사진기자단

### DJ, 감회어린듯 트랩서 먼곳 응시 미소띤 두頂上 “반갑습니다” 첫인사 만수대 공연장서 국악·무용 관람

사들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희호 여사에게 먼저 다가서 “반갑습니다”라고 한 인사를 했다. 남과 북의 정상간 첫 상봉이 이뤄지자 평양시민들은 노도처럼 “결사옹위 김정일” “만세” 등을 외치며 뒤늦게 열광했다.

### 공항 떠나갈듯 “만세” 함성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사면대 앞을 통과하자, 비행기앞에 책임자인 북측의 대화가 큰 북소리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등 김 위원장의 직함을 열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북측 화동(花童)들이 나와 김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김 위원장은 인양수행원들 특별보좌관 등 우리 측 경호수행원들 소개받으며 “아 그래요”라며 아는 듯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의창대 사면을 마치고 두 정상은 “김정일”을 외치며 열광하는 시민들 앞을 지나 승용차로 향했다. 김 대통령은 두 명의 시민과 반갑게 악수하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건넸다. 김 대통령이

○…김 대통령과 김정일은 이동 도중 연못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북한 학생들로 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환영 나온 인파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악수도 나눴다. 평양시 입구에서부터 평양시민들이 연도에 늘어서 일행을 환영했고 꽃을 줄 열렬히 흔들면서 “만세” “김정일 결사옹위(殲衛)” 등 구호를 외쳤다. 환영인파는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평양의 인구가 220만명이나 대부분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안내원의 말도 있었다. 다른 안내원은 “어제 김 대통령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공(허탕)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백화원 양민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만수대 의사당으로 북측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을 둘러보다 “모든 것이 조화롭다. 아름답고 예쁘다”고 관심을 표명했고, 김일성화(花)에 대한 질문도 걸었다.

김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평양시내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 김대통령 평양방문 첫날 일정                      |  |
|--------------------------------------|--|
| ● 오전 8시 15분 상해대 김대통령내외 출발            |  |
| ● 9시 18분 서울공항 - 평양행 특별기 이륙           |  |
| ● 10시 25분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                |  |
| ● 10시 33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접 환영행사          |  |
| ● 11시 45분 백화원영빈관 도착                  |  |
| ● 오후 3시 민수대에서의 - 김명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예방 |  |
| ● 오후 4시 민수대 예술극장 공연관람                |  |
| ● 오후 7시 연민문화궁전 민찬                    |  |

남측 수행원과 북측 관계자 등이 500석 규모의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공연 후 김 대통령은 전 출연진이 노열해 있는 무대 앞으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적힌 큰 꽃바구니를 건넸다.

### ‘이인모 딸’도 만찬 참석

○…김 대통령 내외는 오후 7시 10분 연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위원장 초빙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은 남

측 수행단, 취재단 인원과 북측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30분 30여분이 걸쳐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만찬사에서 “방북과 분열로 이어진 20세기 민족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영합한 뿌리깊은 사회주의의 우과”였다면서 북한식 자존심을 폈다. 김 위원장은 자주 평화통일과 김대통령 내외의 반북 등을 위해 강하게 제의했다. 김 대통령은 답사에서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 참석자중에는 여사 마려운 천수정성옥, 영화 ‘임궽진’의 주인공 최창수 씨 등 인연애우, 북측남 이인모 노인의 딸 이현옥씨 등이 눈에 띄었다. 이날 식단중에는 매추리 원지방인 ‘육육(6·6) 날개탕’이 포함됐는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초 6월 12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16+6=12) 취합 이단을 지은 요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빨치산 대장 딸이 의사당 안내

만수대의사당 부총장은  
이현상 무남독녀 상진씨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우리의 국회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소개를 맡았던 안내자는 '지리산 빨치산 대장'으로 유명한 이현상의 무남독녀인 상진씨로 알려졌다.

이상진씨는 6·25때 아버지가 지리산 빨치산 대장으로 활동하자 어머니와 함께 월북한 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심 속에서 성장했다. 김 위원장과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와 같은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상진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충실하도록 이끌었으며 그가 질병으로 자주 감의에 빠지자 직접 약을 준비해 병문인을 가고 미진한 강의내용도 보충토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씨는 대학졸업 후 해외 부문에서 주로 일했으며 외무성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해외공간에서도 근무했다. 85년 만수대 의사



○13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사당 내부를 안내하고 있는 이상진 만수대의사당 부총장. 이씨는 지리산 빨치산 활동하다 지난 53년 사망한 이현상의 딸이다. /平壤=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일성종합대학서 김정일과 함께 공부

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등용됐다.

이상진씨의 남편(이현연)은 르완다와 마다가스카르 주재 대사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외무성 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슬하에 딸 1명이 있다.

이현상은 1906년 충남 금산에서 출생. 2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한 뒤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

산청년회 산하의 학생부위원회 상무위원,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했으며, 28년 8월 반일동맹휴학을 주도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돼 4년간 복역했다.

8·15해방 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가 박헌영, 이승엽 등 당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48년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투쟁을 시작했으며, 51년 7월부터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중 53년 9월 18일 지리산 빗봉골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다.

/平壤=공동취재단

## “착륙 순간 가슴이 마구 뛰더군요”

### 수행단 전세기 최광우 기장

“복한 상공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순간 비행장에 바뀌어 달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더군요.”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과 기자단을 태우고 민항기 조종사로써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북녘하늘을 가로지른 아시아나 전세기 최광우(崔光宇·45) 기장은 “20여년 조종경력 중 가장 보람되고 가슴 벅찬 비행이었다”고 말했다.

### 부모 모두 평안북도 출신

최 기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에 15분 앞서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뒤, 오후 2시20분 성남 서울비행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82)와 지난 91년 돌아가신 아버지 두 분 모두 평북 벽동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심향민의 한(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랐습니다. 장인 어른(73)도 평북 정주 출신으로 6·25전쟁때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내려오셨죠. 비행기 트랩을 내려 부모님의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공사 26기 출신으로 1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최 기장은 지난



93년 중령으로 예편,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 주로 보잉 737기종을 몰아온 베테랑 조종사. 보잉 737기 안 전운항탑장인 그는 지난 2월 회사로 부터 비행안전상을 받았다.

### 이내엔 출발직전 알려

최 기장은 “이번 비행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해 가족과 아내에게도 방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비행 직전야 전화로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며 “다음엔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崔洪烈기자 hchoi@chosun.com

朝鮮日報

2000. 6. 14 (수)

# 북한, 엄호전투기 안 띄워

## 전용기 긴장의 62분 비행

“여기는 대구, 핸드 오프 (Hand Off)” “여기는 평양, 로저 (Ro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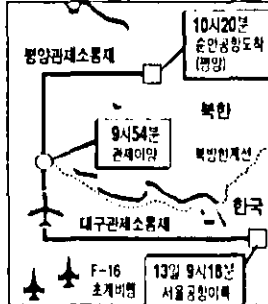
13일 오전 9시54분 대구 항공교 통제소(ACC)와 평양 항공통제소(ACC) 사이에 역사적인 교신이 이뤄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순천 대구ACC는 ‘우리 공역을 넘어섰다’는 뜻의 ‘핸드 오프’를 외쳤고, 동시에 평양ACC는 전용기의 인수를 의미하는 ‘로저’로 응답했던 것.

이날 서울-평양 간 전용기의 비행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남한 비행정보구역(FIR)에서는 대구 ACC가, 북한 FIR에서는 평양 ACC가 각각 관제했다.

이어 10시20분 전용기가 총 560km를 날아 62분 만에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자 국방부 지하 병커와 오산 미 공군기지 내의 중앙

## ■ 서울-평양 첫 직항길



방공통제소(MCRC)에선 안도의 한숨이 새 나왔다.

이날 우리 공군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예상과는 달리 전용기 가까이 접근한 NLL 근처까지 인호하지 않고 NLL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남쪽지역에서 공중전투초계(CAP) 비행 형태로 KF-16 10여대로 인호했다.

북한 측은 엄호 전투기 투입에 발진시키지 않아 북한 하늘은 조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廣龍源기자 kysu@chosun.com

# “김정일위원장 공항영접 남북한 신뢰구축 첫걸음”

## 세계 언론들 정상회담 보도

미국 AP, 프랑스 AFP 통신을 비롯한 CNN 텔레비전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은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일제히 긴급 기사로 다룬다. 김정은(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데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다.

AF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두 정상은 함께 태운 리무진이 평양 중심지로 향하는 길 인도에서 양측과 한 북으로 잘 처리되었음을 북한주민들이 조화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다고 전하고, 그 모습은 91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 이후 국가권력이 조직한 가장 장교한 진시성 행사였다고 논평했다.

AP도 서울발 긴급기사에서 대체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 외국 귀빈들을 만나는 일도 드문 김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김대통령을 영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송 NHK도 이날 오전 북한에 도착한 김대통령을 김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나간 것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의 제 1보’라고 보도했다. NHK는 서울의 중계탑 밖에 트랩을 내린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양 손을 잡고 화상하게 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송은 김대통령이 공항에서 도착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회담의 주도권을 가지는 북한측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관측했다.

서울·도쿄 연합뉴스

# 활짝 웃는 그들 세계가 지켜봐 두 頂上의 평양 만남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30분 구름이 다소 낀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공항 활주로에 멈춰 서자 공항 한편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김위원장은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곧바로 비행기 트랩 앞까지 걸어나와 김대통령을 마중했다.

잠시 후 김대통령이 청와대 휘장이 부착된 전용기 출입구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감회에 젖은 듯 5, 6초간 북녘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김대통령이 트랩을 내리 오기 시작하자 김위원장은 박수들 치며 환영했고 이어 김대통령도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활주로에서 두 정상은 활짝 웃으며 두 손을 굳게 잡았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평양 땅을 밟은 최초의 국가원수인 김대통령의 ‘평양 제일신(第一新)’이 이어졌다. 간간하면서도 분단의 아픔과 통일 의 열원을 담은 두 마디였다.

이어 김위원장과 이회호(李姬鎭) 여사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 김대통령은 김인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趙明祿)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인민군 육해공군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북측 군중 1000여명은 붉은 색 조화를 흔들며 ‘김정일’ ‘김대중’ ‘만세’ 등을 일제히 외쳤다.

이어 인민군 의장대의 휘날리고 집도 있는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김위원장은 거수로 답례했다.

분열 후 김대통령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다가 손님을 흔들었다.

10여분의 공항 환영행사가 끝난 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환호를 뒤로 한 채 함께 리무진에 올랐다. 김대통령은 뒷좌석 오른쪽, 김위원장은 왼쪽이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붉은 꽃술 물결

## 시민들 주로 "김정일" 외치며 환영 花童 소년단원식 머리위 경례 눈길

### 평양에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땅에 첫발을 디딘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과 평양거리에 나온 북한 주민들은 일제히 합성을 지르며 붉은 꽃술을 흔들며 '북한식 환영'을 했다. 이들 환영 인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김 대통령이 트랩을 내리기 앞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나타나자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김정일', '김대중' 등을 연호했으나 '김정일' 소리가 압도적으로 커서 '김대중'이라는 구호는 잘 들리지 않았다. 상당수는 겁격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는 팔뚝팔뚝 휘어오르기도 했다. 평양 거리의 60만 환영인파는 '만세' '김정일 걸사옹위'라는 두 가지 구호를 끊임없이 외쳐댔다. 단체로 동원된 듯한 이들 환영인파는 그러나 통제하는 사람의 지시를 철저히 지키는 듯, 통제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전 10시50분 순안공항을 떠난 김 대통령 일행은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11시10분쯤 평양 임구연못동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환영

인파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순안공항에서 김 대통령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한 여자 화동(花童)들은 오르막을 넘어 머리위로 올리는 경례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 경례는 북한에서 소년단원들이 하는 인사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런 인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영인파들의 행태가 다소 과장되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예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영 장면을 TV로 지켜본 전도(37·경기 고양시)씨는 "그동안 TV에서 많이 본 모습이어서 크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약간 묘한 기분"이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자유체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환영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장원호(29)씨는 "우리측 상식과는 달리 환영인파들이 손님인 김 대통령을 제쳐두고 김 위원장만 일방적으로 연호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朴英植기자 ycpark@chosun.com

/李圭鉉기자 while@chosun.com



○꽃술 길 지나... 1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평양시내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환영사인행위 붉은 꽃술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주흥·남대선기자단

### 미국인도 "높이 평가"

한국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제이 피 모링(48·주한미군 군무원)씨는 "오늘 일은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감격과 놀라움은 밤까지 이어졌다. 서울 읍지로와 태해안로, 여의도 숲집에서는 직장인들이 밤 늦게까지 남북 정상의 만남을 화

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파티촌(村)도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원용범(元龍範·56·광진구 자양동 대동아파트)씨는 "가족들과 방송 중계를 본 뒤에도 한참 동안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느라 늦게 잠 들었다"고 말했다.

/安世培기자 sbahn@chosun.com

/李世瑛기자 johnlee@chosun.com

/任載顯기자 imhcool@chosun.com

/鄭周映기자 joykwak@chosun.com



○김대중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13일 순안공항에 영접 나온 김영남·조명록 등 북측 고위 인사들과 시레로 악수를 하고 있다 /주흥·사진 공동기자단

## 김영남·조명록·최태복... 북한實勢 '공항 총출동'

### 김대통령 영접 누가 나았나

13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위한 환영 순안비행장 영접행사에는 북한의 권역시업상위 인물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김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인사한 뒤 먼저 악수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외직인 국가수반으로 김정일에 이어 권역 시업 2위이다. 노동당 1부위원장 겸 정치외교부장(현 외무장)인 10년 된게 지대

는 게 아니라, 노동당 부서위원장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의 "지휘"하고 있다. 때문에 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의 시업이 실제 시업인 것이다. 조명록은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이며, 김영춘과 김일성은 모두 부위원장이지만 김영춘이 는 김 일청보다 앞서 있다.

남 정치국 부위원장(김영춘·최태복(崔泰福) 김재태(金在泰) 김복호(金福浩) 김민서(金敏書) 조명록( 조명록) 11에서는 노동당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  
北 외교 총사령탑

### 조명록

국방총 제1副委員長  
군부 서열 가장 앞서

는 등 북한 외교의 총사령관이 있다. 최근 두 달 가까이 공식(公務)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공식 강간에 보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네에서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찾아가 반도 회담을 갖기도 했다.

영원하게 군위를 잃은 사람은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군부대 시업이 가장 앞선다. 북한의 군(軍) 체제상으로는 물론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김일청)에 최정일이었고 그 아래에 군총참모장(김일호)과 군총정치국장(김정호)이 있다. 그러나 실제 권역 시업은 조명록, 김영춘, 김일성 순이다. 북한군은 일민부(일민부) 지휘

대 김 위원장의 핵심 3대인물로 권역 시업 20위권에 있을뿐이다. 이날 공항에선 김용순(金用淳) 민주 시업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연태(金連泰) 장 김일청이 다음에 소개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권역시업에 비견 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멤버들이 앞서 소개됐을 뿐"이라고 했다. 김 대통령 초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지만, 실제 남북관계 일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일어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명록은 최고인민회의 의장(國務委員會)이며, 김영춘은 대외위 차관(副委員長)을 맡고 있다.

/金仁植기자 gink@chosun.com

# 영관급으로 호위시 소속... 가족띠메고 권총차

## 눈길끈 북한 경호원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의장대를 사열하는 순간, 북한에서 '가게반도'라고 부르는 가족띠를 어깨에 메고 오른쪽 허리춤에 권총, 왼쪽에는 탄창을 3개씩 찬 군인 2명이 따라붙었다. 이들은 호위사령부(우리의 경호실) 소속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 경호원<사진>들이다. 우리 측 보도진들이

김 대통령을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자, 손을 북북 치며 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일반 군인들과 구별되는 것은 군복 왼쪽 어깨 중간에 오각별 기장(旗章)을 달고 있는 점. 백두산 친지에 빨간색의 큰 오각별이 떠있는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이 안에는 낫·망치 등이 있는 조선노동당 마크가 새겨져 있다. 경호원들은 대부분 계급장에 별이 3~4개씩 있는 대좌(대령급), 상좌(중령급) 등이다. 김 위

원장 바로 옆에는 왕별(소장·우리의 준장) 계급장을 단 경호 책임자(책임부관)가 붙어 다녔다.

이들이 찬 권총은 러시아제와 체코제 TT권총(일명 때때권총), 최근에는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봉화권총'으로 많이 대체했다고 한다. 이들은 행사장 주변 10km 이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위사령부 소속 군관대대 300명 중에서 선발되는 경호원들은 중앙당 부부장급 대우를 받으며



평양의 고급 아파트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全東雲기자 dskim@chosun.com

# 東亞日報

2000. 6. 14 (수)



13일 서울대 학생회관에 인공기 한 반도기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다.

## 10여개 大人共旗 계양

### 경찰 "주동자 사법처리"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3일 서울 내외 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북한 인공기가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대의 경우 이날 오전 학생회관 출입구 쪽에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태극기와 인공기, 한반도기가 그려진 가로 1m, 세로 7m 크기의 길게그린 3개가 옥상에서 아래쪽으로 나란히 내걸렸고 3개의 길게그린 말부분에는 가로로 '남북정상회담 대한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기(金在琪)서울지검 1차장은 "인공기 계양은 학생들의 의도가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공기를 계양한 주동자들을 색출해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통일대교 물청소

군 집병들이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올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일금히 물청소하고 있다.  
/趙寅元기자iwcho@chosun.com

#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2000. 6. 14 (수)

## 정상회담 전화카드 발행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하는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한다. 이 공중전화카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속에 부상하고 그 위에 현몽의 무궁화위성이 떠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도안으로 제작했으며 5000원권 10만장을 한정 발행한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공중전화카드는 전국 전화국 청구나 전화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2000년 6월13일 세계 톱뉴스는 '한반도'

###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

**미국** 미국 언론들은 12일 저녁 (한국시간 13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역사적(historical)'이라고 표현하며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CNN은 이날 김대중(중화)과 대북평화의 희망 도착과 김정일(조선)이 남북위협장과의 상봉 모습을 전하면서 "한국의 김 대북평화의 희망에 도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CNN은 특히 북한의 김 국방위원장의 직접 공화까지 나와 김대중을 맞은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전하고, 당초에는 김 대북평화의 비공개 장소에서 김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3일자 신문에 정산 회담 개최 소식을 크게 보도하면서 "한반도는 피로 적시고 원제를 풀고 갈라 놓은 천에 50년 만에 두 조각이 났다"고 표현했다. 포스트지는 또 "두 조각의 만남은 김 대북평화를 위해서는 대북평화를 위한 화해의 계를 위한 길을 갈수한 것이며, 김 총리(박정희) 오랜 스타링의 정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데)한 행운"이라고 분석했다.

스페인 보츠보츠주한 미국에서는 ABC방송과의 회담에 나와 "대미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담의 척도는 추가 회담 개최 합의 여부"라고 말했다. 보츠보츠 내지는 "회담이 한사코 그칠 나 해도 의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담이 유족 만년과 정부 상무장 교류로 이어 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정희기자 hskang@chosun.com

### 카터 "생생적인 회담 되길"

지난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생생적인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12일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아메리카 정상회' 2000' 행사 도중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교도통신에 "회담이 매우 생생적이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되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가 긴장했던 4년 복원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들였으나, 그에 7월 김 주석이 사망해 회담이 무산됐다.

### "평화 정착 위한 중대 사건"

**유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이 회담이 지난 50년간의 한반도 분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터 김보드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사실 자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과



◇평양에 쏠린 눈 아사히(朝日), 니혼게이지(日本經濟), 마이니치(毎日) 등 일본신문들은 14일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1면 톱뉴스로 실었다. 미국의 USA투데이,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등도 인터넷페이지 첫 화면에서 크게 보도했다.



◇CNN 미 CNN 방송이 13일 서울 특파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TV촬영



◇중국TV 스타TV가 13일 김 대통령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 원종 안파를 재 악수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TV촬영

는 재방송으로 "남북 정상이 회담에서 악수할 때는 50년 넘게 분단해 온 한반도 평화의 희망 중대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통신은 "50년간의 장벽을 67분간 비행으로 뛰어넘었다"며 순안 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자세히 보도했다. 독일 외부부는 정상회담 성사할 환영하며, 독일 정부는 남북한간 직접 대화와 교류 증대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리=한정희기자 hnpark@chosun.com

### "상호 군비축소 논의 가능성"

**러시아** 러시아 ORT, NTV 등 주요 TV 방송들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이들 방송은 "역사가 된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 국제 공항에 직접 연접하였다"는 점을 비유했다고 했다. 이타리나스 통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에는 남북한 정부간 대화 체계와 상호 군비 축소, 서울-평양간 연방사무소 설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심도있

게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스크바=홍정희기자 hhwang@chosun.com

### 신화통신 '金正日명접' 첫 打電

**중국** 중국 언론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북쪽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회담 소식을 눈앞이 신속히 보도했다. 특히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김 대통령 일행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기 전,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이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타진했다. 신화통신 인터넷에 이 기사가 뜬 것은 김 대통령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10여분 전인 10시 16분. 신화통신은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평양으로 떠났다"면서, 출발 직전 김 대통령이 "한반도의 회담으로 모든 분리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의견이 일치하는 분배부터 합의에 나간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3일자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평안한 가운데 정상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과

'한반도 평화의 기대한다'는 서울발 평론을 함께 게재. 이번 회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北京=池澤龍기자 hbee@chosun.com

### "순대통령 의지 느껴져"

**일본** "남북 정상이 악수하다." (마이니치) "남북 정상, 대면하다." (아사히)

일본 신문들은 13일 시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뉴스를 일제히 1면 톱뉴스로 (가로 전체) 관공하는 제목) 기사로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한국대통령, 분단 55년 만의 평양 방문"이란 부제(副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에 나와 국빈 대우의 최정규 함의 행사를 기대했다"고 전했고, 사회론 등 3개면을 할애 회담 관련 뉴스를 상세히 보도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간 악수가 실현됐다"며 "평양의 비평가에 오르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행은 역사적인 회담을 앞둔 의지가 배어 있었다"는 서울 특파원의 느낌을 전했다.

관영 NHK방송과 관영 아사히TV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장면을 생중계했으며, 모든 방송이 매 시간마다 평양 소식을 뉴스로 전했다.

NHK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 일행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김대중씨가 공항에서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 못한 것은 북한측이 회담 주동력을 감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교도(朝日)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16세 연상의 김 대북평화에 대해 격렬히 표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의 원안 의제에 표했다. 반세기급 계속된 상호불신과 대결구도가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세계가 주목했다"고 타진했다.

/東京=朴正龍기자 h.park@chosun.com

# “일단 산뜻한 출발... 北 변화의 메시지인가”

## 국내전문가 평가와 전망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북한에 김 위원장(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직접 공화 임명을 다음은 5월 13일 첫날 남북정상회담 상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국내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들어왔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분석 요약이다.

### 개방의지 천명하려는듯

◆백두봉(白头峰) 외교연포인 교수 송양이 위난 좋다. 김위원(金正日) 위원장은 자신들이 천주적인 개방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 천명하려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의 승리를 사관 백문, 친백두봉을 한 것으로 보아는 개화, 개방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김 위원장의 공화에 나와 직접 협정을 맺는 것은 북한 내적으로도 획기적인 계기로 삼고 있다는 반응이

◆이항구(李恒久) 통일연구원 회장 김위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화에 직접 나온 것은 확실히 파격적 이었고, 한편 행사도 성대했지만 북한의 기본 대남전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해 보였다.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우선 김위원 북한은 전방 군부대를 시작 할 때 임는 간판이였다. 임이 친공로 정세변(正世變)을 만날 때 임의 정정을 임했던 것과는 대조적 이다.

또 공화에서 연주한 행진곡은 '용진가(勇進歌)'였다. 민족이 모두 힘을 합쳐 새 세국을 위한 치사는 가사 내용인데, 북한 주민들이 김위원 위원장과 김 대령장이 이수하는 과정을 보여 어떤 메시지를 연상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김 대령장을 초치한 것은 미국의 대결을 위한 반공(反共)강요도 보여서는 의도도 해석된다. 김 대령

나, 두 지도자가 생전종석과 평화세계 전환을 한데 대대에 공표하는 포괄적인 평화선언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8-15일 전후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유호열(柳浩烈)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위원 위원장의 공화 임명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 과거 김위원(金正日) 주석도 몸과 대령장을 공화에서 임장에 자신의 서명신을 전제된 적이 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천하했다는 의도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내선(內線), 대외(對外)용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주민에게 봉제된 다친 정보가 전달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3원칙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보안법 철폐, 친북(親北)활동 허용 등 남북에 대한 요구조건을 연계시키지 여부도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보였는데 자신의 유연한 이미지가 못지 않게 강성대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다.

## 金위원장 상당한 자신감 표명... 가시적 성과 예상 공항서 '美타도 내용' 勇進歌 연주한 배경 아리송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로 오고 가서 김 위원, 김대령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몇 년 동안 5월 13일에서 못했다. 예기를 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 13일은 분위기가 좋아서 내외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13일 밤에서 조선스위칭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5월 13일 김위원의 김위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상영점 걸맞은 합의 의문

◆서정원(徐正源) 고려대 정외과 교수 북측에서 회상으로 임명을 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합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남북이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국제적인 뒷배경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임명은 적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선공과 선배를 어떤 형태로 북한에 먼저 보여줄지부터 지도자들이 이 지점에서 관례로 순차적에 정치 간에 김위원이 차후에 들어와서 이라하면 남북에서는 어떤 합의가 이뤄졌고 어떤 부분은 회상 선배의 대남 정책에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전례만 이뤄져도 일단 전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을 남북사 대표로서, 민족 대단결의 한 상징으로 보여줄 것이다.

김위원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단계를 원하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 김대령도 나 아치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맺었고, 무인 러시아 대령장도 직권을 방문 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을 형성, 대외(對外), 내외(對內) 평화공세에 나선 것이다.

### 포괄적 평화선언 나올수도

◆고유현(高有顯)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위원(金正日) 위원장은 13일 하루, 사상의 기존 이미지를 일시에 바꾸는 극적인 연출을 했고 100% 이상 효과를 거뒀다. 김위원을 아무런 기만도 공화에 직접 내리는 등의 '용진가'가 상징했다. 은근 풍채를 마감하듯 대동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대외외적으로 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일체제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내렸다는 것은 북한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남의 방향을 사전 차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

### 對日·對美관계도 변화될듯

◆권민웅 권민기부 북한국장 생중계로 공개 친세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위원(金正日) 위원장은 자신의 공식적인 출연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 같다. 행사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회상을 다해 임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도록 심사 잘 뒷받치더라도 북측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회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대령(金大正) 대령장을 직접 만난 만큼 다른 외국 지도자도 못 만났을 이유가 없고 대미(對美), 대일(對日) 관계에서도 긍정적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큰그림' 나올 가능성 높아

◆전현준(全賢俊)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3일 분위가 어떤 어떤 정서화에서 뭔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위원(金正日) 위원장은 파격적인 극적 연출을 했고, 남북 대표들 한데 "어려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합의 범위, 속도, 수준이 문제되지



◇첫만남... 마주보며 박수 13일 첫 대면한 남북 두 정상이 비행기 트램플 사이에서 마주보며 서로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 순안공항으로 김대령 대통령을 영접하는 김위원 국방위원장이 비행기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대령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먼저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이에 김 대령도 화답했다. /TV화면 촬영

만, 흔히 예상했던 어선 가족과 경제 협력의 배까지 이창의 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해 본다. 가령 김위원 위원장의 등방과 호 러인 정치, 경제공동위원회 가능 같은 기본합의 시 체제의 부각적 보완 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김 위원장은 평화선언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남측으로부터 협력이나 교류차원의 아닌 정치적 경제차원을 끌어낸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송홍기기자 ck-kim@chosun.com  
/홍기기자 may2@chosun.com

# “北, 전세계에 개방의사 선언한 것”

## 긴급 대응

1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첫 만남을 보고 의미는 분석하면서 남은 임정의 현행과 전 망해 보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공노명(孔魯明) 전 외무장관과 안계준(安奎俊) 연세대 교수팀 초청, 긴급 대응을 가졌다.

安秉俊 교수



孔魯明 전장관



### 핫라인 개설은 신뢰구축 첫걸음... 후속회담 약속받아야

### 파격적인 예우는 김정일 위원장의 對南 이미지개선 노력

▲공노명=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의 직접 순방공방에 임할지 나온 것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비추어 김정일 위원장과 상의자들이 임할 나가는 것이 논리론임은 아니다. 우리 언론이 그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알았을 것이다. 차이에 대응하는 것도 사전에 합의했을 것이다.

#### '엄접 시나리오' 미리 알았을 것

▲안秉俊=김 위원장이 직접 나온 것은 파격적 예우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고, 상징적 차원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로서의 승인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국의 국제 여론도 의식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번 만남 이후의 남북관계는 이전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지금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예우를 했다는 것은 생각이 깊어 있다고 본다. 세인의 의의가 매우 크고, 여러 요소는 한국 국민들을 다룬다 의식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회담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전이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안=김 위원장 모습을 TV로 보면서, 매우 긴급하고 활동적이며 직 접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쪽 정보도 보면 김 위원장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권위도 많이 행사하고 있었음을 이해한다.

#### 南北관계 앞으로 큰변화 예상

▲공=김 위원장이 방문한 데다 회담이 대담해진다. 그가 외부세계를 방문한 것은 동구권뿐이지만, 영와 등을 통해 서방 세계에 대해서도 같 된다. 서방의 정보, 언론 대응을 빨리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습과 상당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세계 속에 대담하게 위한 밑거름은 가장 큰 단계일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김 위원장과 공명장(吳明章)로 해서 극적인 아젠다 개선을 노리는 것이다.

▲안=중요한 것은 북한이 북방이 국제 사회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이념과 같은 서구세계에 수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적 관심을 끌어서 이번 개방의사를 선언한 것이다.

▲공=개방 공적은 지난 후반기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회담이므로 개방공적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백남준(白南準) 외무상이 오랜 공백 끝에 유엔 총회에 다시 참석, 20여개국에 남는 외무장관들과 회담하고, 외국 길에 북인과 러시아 등을 방문했다. 또 그동안 미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아도 계속 거부해 왔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초청도 수락했다. 북한이 내외 정책의 변화를 시도 중인 것만은 분명하다.

#### 北, 체제인정 과시 의도

▲안=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14일의 본격적인 회담을 보지 전에 첫날 내방 보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측 의도는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김 위원장이 회담을 열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을 장악하고 있고, 그만큼 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 같다.

둘째, 대미-대일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방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 셋째, 김 대통령의 비공개 선언에 따라, 남북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으면서 그들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 ▲공=북한은 경제 회색이 없는 장래 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듯하다. 경제회색을 위해서는 외부세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핵-미사일 문제가 걸려 있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도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공하면 현재의 반주당 정부보다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비공개 선언을 통해 경제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나,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임정 동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선에서 타협되지 않겠지 생각한다. 경제협력 분야 같은 대사는 우리 생각을 알지 못하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경험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에 상당한 성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에너지 부문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위한 경험선 횡도 복귀 등, 평가 선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미-북회담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안다.

▲안=이번 회담의 성패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것에는 후속 회담의 합의 여부다. 후속 정상회담 또는 분야별 교류담 회담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공=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근본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1회용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 보인다.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 회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북측도 지금까지 주장해 온 대외명분도 있고, 경제문제와의 균형도 필요한 만큼, '정치문제'를 기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제'처럼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는, '7·4공동성명의 정신' 같은 원칙론을 펼칠 것 같다. 물론 명확히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북측은 내일(14일) 회담에서 '남북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내각적 명분 때문에도 필요하고 또 그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에서 우호적 관측스럽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가령 '7·4공동성명을 거론, '의제 의도 제기' 같은 것을 언급할 수 있다.

#### 정치문제 일단 거론할 듯

▲공=남북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이른바 '윈-윈(win-win)'이라는 호혜적 입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대로 쉬운 것부터 풀어갈수록 자제를 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에는 좋은 합의가 있어도 그것이 실천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회담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면 이행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군사공동화가 가능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한외구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경제협력의 자주 거론되는데 기본합의서에는 그 문제도 다룬 부분이 구성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간 불가침 선언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안=우리측은 원칙 문제에서 양측에 대한 중의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교류를 연계하고 있다. 이것이 14일 회담의 성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문제의 해결 과정을 출범시키는 데 있다. 가령 '핫라인' 같은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다. 과거에, 협상중에 밀려나기까지 반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기본적으로 이념을 북측이 꺼낸다면 최소한 가늠할 회의도 통해서라도 관련 분야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유연성 있는 대화들

▲공=북한은 55년간 우리의 대북제에 있다. 그런 상대가 지금 새들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려 하는데, 정작 그들이 변화하고 있지 않지 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의 일이다. 현재까지는 미화인원 사살만 보인다. 협착하고 냉정한 반응이 없다.

▲안=북한이 바뀌는 것으로 북한이 냉공을 자기해야 한다. 작은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안된다.

/정치부 기자 khang@chosun.com /사설부 기자 dspar@chosun.com

# “회담 성공 여부 ‘추가 만남’에 달려”

## 보스위스 주한 美대사 ABC회견

스티븐 보스위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12일 미국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양측이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수백년간 통일국가였 아왔던 남북한이 분단된 지 55년이 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의 회담은 조화와 공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나친 기대는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가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들었다.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아니다. 이번 회담은 (통일에 앞서) 현재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적대감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수록 남북한간에 경제협력과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남북경제협력의 증가는 한반도의 긴장을 영구적으로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통일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기준



은 아마도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여부가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한 차례로 그친다 해도 회담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들은 이 회담이 추가적인 만남과 정상회담, 나아가 실무자들의 교류로 이어질지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할 때

데는 다른 자외(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원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인들과 김대중 대통령도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원조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동기가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원조를 얻는 데 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능한 한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받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고자 한다면 대화를 계속하면서 한국과 기타 인접국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역점을 뒀다 뒤이할 것이다.

●김균미기자 kkmim@kdaily.com

## 가야할길 험난... 지나친 기대 말아야 남북 경험·교류 늘고 긴장 완화될듯

## 北, 내·외국인 출입통제

### 정상회담 安全 위해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담기간 북한의 국경초소와 세관을 통한 모든 외국인 출입국 수속을 중지한다고 평양 주재 각국 공관에 통보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췌한 한구시보(環球時報)가 13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또 평양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회담기간에 한시적으로 북한을 떠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한구시보가 전했다.

북한 당국은 내국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각종 통제할 가해 북한 각지에서 평양으로 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휴직중이거나, 친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12일 이전 지방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해 평양 시내에 대한 초행들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한구시보가 전했다. 또 평양 시내에 최근 급증한 자유시장격인 ‘농민시장’도 12일부터 전면적으로 문을 닫았다.

북한 당국은 이달초부터 평양 시내 각 주요 도로에 교통경찰관과 인민군 경비대원 증파해 군용차량을 포함한 각종 오토 차량들에 대해 엄격한 검사할 해 왔다. /北京=鄭

# “남북한문제 당사자가 풀어나가야”

## 루신 중 사회과학원 부원장 인터뷰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 루신(魯信)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13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계없이 회담 개최사실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거보(巨步)를 내디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평가해달라.

한반도가 분단된 지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은 한반도에 평화할 정착하는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회담이 개최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양측간에 대립상황을 극복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한 자리에 앉아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시작을 의미한다.

중국을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정상회담은 한반도 남북한 양측 당사자의 문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국제사회의 누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들이 풀어나가야 한다는

여기다. 중국은 남북 양측과 모두 친구관계여서 도와 외줄 편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기본입장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2박3일 일정으로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김위원장의 방문목적은.

김위원장은 83년 6월2~12일 비밀 방문한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오지 못했다. 이번 방문은 그로서는 17년간인 셈이다. 김위원장의 비밀 방문 목적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온 것 같다.

●여러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kktm@kdaily.com

## 대한매일



# 살다 보니 이런 날도

## 두 頂上 악수에 박수·환호성 “감격·놀라움” 온종일 얘기꽃

### 서울에선...

13일 오전 10시40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두 손을 뜨겁게 맞잡는 모습이 TV로 방영되자 서울역 대합실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 “김위원장 영접 뜻밖”

“살다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 고향이 평양이라는 60대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날 TV 생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직접 순안공항에 나타나 김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라며 탄성을 질렀다. 또 김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 오기 직전 잠시 오른쪽으로 돌아 한

동안 남쪽을 주시한 데 대해서도 “의연한 모습”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시민들은 “양 정상이 붉은 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다정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국이 정말 평양이냐’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역 평양 열차비전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10시20분 평양 순안공항 발(發)로 생방송이 시작되자 지나던 군인, 출근길 시민, 외국인 등은 모두 대한민국 정상의 역사적 평양 첫 발걸음을 숨죽여 기다렸다.

10시30분쯤 공동취재단이 “국민 여러분... 평양은 27도의 맑은 날씨입니다”라고 첫 멘트를 보내오자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박수를 쳤다. 이 상대(李聖台·65·영동포구 대방동) 씨는 “오늘을 계기로 평양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무송(李武叢·58·서초구 방배동·공무원) 씨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

이 김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것을 보니 회담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민족 금지 보여”

이날 하루종일 전국의 역 대합실, 고속버스 터미널, 사무실, 학교 등에서 시민들은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보며 ‘놀라움’과 ‘감격’을 얘기했다.

김동연(金桐演·26·육군일병)씨는 “서울역 앞을 지나다 우연히 김 정일 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온 것을 보고 1시간 동안 TV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용석(金容碩·52·택시 운전기사)씨는 “이왕이면 두 정상이 포옹까지 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김정일 위원장의 ‘파격적 행동’에 놀랐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경석(徐京

錫) 집행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열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와 환대한 모습은 냉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한민족의 금지할 보여준 장면”이라고 했다.

대학 캠퍼스도 남북정상의 첫 만남에 놀라워했다. 김동관(金東寬·32·연세대 신학과)씨는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에게 세세하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안병길(安秉吉) 교수는 “김 위원장의 행동은 북한에서도 이번 남북회담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시민들이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TV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도착 심황을 지켜보고있다. 일부 시민들은 두 손을 맞잡거나 눈물을 글썽이는 등 감격에 겨워했다. /李鳳宗기자 caryoan@chosun.com

# “통일의지 과시한 事變” 北방송들 대대적 보도

북한의 TV 및 라디오 방송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민족구제식 노력으로 통일 실현을 이룩해 나갈 겨레의 화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오후 5시 정규 보도시간에, 조선중앙TV가 오후 7시에 북한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과 북한 인민들의 가두행진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북한방송은 두 정상을 ‘김대중 대통령’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김정일 장군’으로 각각 호칭했고,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최고위급회담으로 표현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후 5시 보도에서 “이번 정변과 회담은 7·4 북한 공동선명에서 친방위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데서 전방위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두 방송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했다”면서 “순간 비행장에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다(울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도 7시 보도시간에 약 24분 동안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측의 환영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洪錫復기자 udo@chosun.com

## ‘영빈관 대화’ 회담인가 환담인가

### 정부 “27분간 정상회담” 北방송 “숙소서 환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3일 평양 도착 직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회담인가, 상문인가, 환담인가.

우리 정부는 “1차 회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종영(朴宗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전 11시45분부터 12시12분까지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리

에는 공식 수행원 외에 이희호(李姬浩) 여사도 참석했다. 이날 오후 5시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 방송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과 함께 김 대통령 숙소에서 ‘환담’하고 김 대통령과 기념사 친을 찍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7시 보도에서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두 정상의 대화란 ‘환담’이라고 했다. 북한 보도매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상봉과 북한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 회담과 환담을 분명히 다르게 사용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林東源 국가정보원장도 특별보좌관으로 평양행 모종의 특별임무 관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원장은 13일 우리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임 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 배석, 우리측

공식수행원을 김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또 김 대통령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 때도 배석했다. 임 원장의 실제 역할은 무엇일까. 그가 대북정보의 총괄직임을 맡은 자리에서 어떤 관심을 모은다.

우리측은 오래 전에 임 원장의 방문을 김성에 놓았으면서도 그동안 극비에 부쳐왔다. 그가 비밀 임무를 띠었기 때문일까. 정부 당국자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공식 발표할 안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崔秉默기자 bncboi@chosun.com

## ‘정상만남 환영’ 대학가 인공기 검찰 “회담후 처벌”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인공기가 전국 주요 대학에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대 고려대 시강대 한양대 건국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 경북대 동이대 등 지방 2개 대학 소속 NL(민족해방)계 학생들은 13일 교내에 인공기, 깃발, 깃개그림이나 인공기와 태극기, 한반도기를 나란히 게양했다. 이날은 또 인공기, 태극기, 한반도기 밑에 ‘남북정상회담 대환영’이라는 문구도 함께 내걸었다.

특히 서울대는 학생회관에 인공기 깃개그림을 붙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약력 등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정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서울대 학생회관에 태극기, 한반도기와 함께 인공기가 나란히 내걸려 있다. 최중학기자

게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동은 실정법 위반”이면서도 “정상회담 성사를 축하하는 행동이고 15일까지 이어지는 헌사적인 행사이므로 강제철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도가 어쨌든 국가보안법위반 사항이므로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만큼 단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준 김영수기자 arisu@km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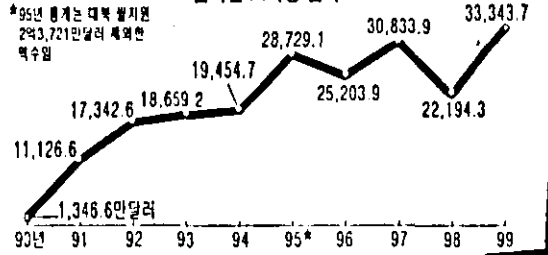
### 남북정신 회담 新경협시대 <1>

13일 남북한 정상의 획기적인 첫 만남을 사귀온 경제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관계도 크게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내고 있다. 특히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쌍방 성과를 만들기 위해) 김 내閣원만한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달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측의 경제부처 수뇌가 참석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료: 통일부)

\*95년 통계는 대북 불지원  
2억3,721만달러 제외한  
백수일

#### 남북한 교역량 변화



## 단순교역→시설투자 格上 기대

민간의 총성과 함께 남북경협이 사실상 재개된 것은 지난 88년 7월, 한국전쟁 이후 금지됐던 물자와 인력의 이동이 가능해지며 91년에는 남북한 교역의 실적이 1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때 주춤하던 교역량은 직년에 3억3000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단순 교역·협약 단계에서 본격적인 투자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투자보장협정 체결편 불만 제거

매종원 수출입은행 북한연구소위원은 “남북 경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는 교역협정(간접교역) 때문에 무역마찰이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교역보다 훨씬 비싸게 들고 있다”며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 2억~3억달러 수준에서 남북상대인 교역량이 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철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은 “북한위상 아직 한국기업의 북한투자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며 “본격적인 경협에 앞서 신변안전제도, 이종과세방지제도, 경제제도, 분쟁조정제도, 사업자들의 여행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번 회담의 과제를 강조했다.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함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긴장과 대립상태에 있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선결(先決) 없이 만들어지는 경협제도는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아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인동 KDI 연구위원은 “남북 정상이 만났다고 경제협력이 한꺼번에 본격화에 오르리란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엔 (정치·군사적으로) 어떻게 큰 판을 짜느냐에 따라 향후 신뢰(信賴)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협정 내용에는 크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이 평화공존의 바탕에서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길 추구한다면 북한 공업구조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청해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매종원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인제시대에 만들어진 구식(舊式) 공장과 임금 근로의 개념이 없는 근로자, 그리고 수당·식단·결핵식 제공 등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구조, 노후화된 철도시설 등이 북한 공업의 내재적 문제”라고 말했다.

### 본격경협 더 빨리 진행될수도

전문가들은 또 처음 열리는 한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만,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된다면 경제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현재 단순교역과 임가공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협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오관차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대신해 이산가족 문제라도 해결의 기미를 보인다면 이를 명분으로 한 남북간의 경협은 예상 외로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聯合】기자 hcho@chosun.com

## “과감한 발언 나올지도…” 비상근무

### 경제부처 반응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 소식을 TV를 통해 바라본 정부 고위직사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될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는 모습들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경협안을 준비해 온 경제협력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귀담 기울였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재경부 관계자는 “평양에서 가장 변화한 장관거리까지 전라남도 방에는 길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북한이 과감한 경협 제안을 해올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남북 경협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지난주 말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13일에는 부처별 간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정상회담 기간을 “성(聖)스러운 기간”이라고 칭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13일 전 직원에게 24시간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농림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식량 지원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聯合】기자

## “곧 경협성과 있을것” 들뜬 기대감

### 재계 반응

재계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에 대해 들뜬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진경연 유한수(兪翰燦) 전무는 “텐데비텐으로 두 정상의 상봉 순간을 지켜왔다”면서 “한 마디로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산가족 등 인도적인 문제와 경제교류도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중앙회는 또 “공관지와 의료, 모피 등 임가공사업과 유통산업 등 중소기업의 남북경제교류는제가 남북정상간에 비중있게 논의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현대이산 정규환(鄭上煥) 이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남북간에 막혀 있던 모든 부분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조조정본부 정상국(鄭相國) 상무는 “남북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는 것을 보니 남북경협을 위한 거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안에 나타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聯合】기자 gyoseo@chosun.com

/【聯合】기자 jscho@chosun.com

前김일성대교수의 평양이야기

金日成환갑 이후 백화원영빈관 건립



趙明哲

평양을 떠난 지 벌써 8년. 그동안 김일성 주석도 사망했고, 두 차례의 대총수로 경제사정은 무척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55년 만에 찾아간 평양의 모습은 예나 같게 나타나지 않았다.

김대통령의 축소된 백화원 영빈관은 내가 출입한 뒤 '삼급교원'(정원강사)으로 있던 김일성총화대학과 성정강(성) 사이에 두고 남아 남아 있지 않다. 80년대 후반 어느 해 여름, 평양에 한 바퀴 와서 대동강의 저류인 압정강이 뚱뚱해 수면의 과수원이 망가졌으며 인근의 백화원 영빈관도 폐해됐다.

만수대의사당은 회담장소

이 영빈관이 건립된 것은 83년 무렵이다. 한 해인 김일성의 환갑 때 건 세계에서 국민(학생)을 축하할 줄을 보내, 수입한 초대소, 고려도청 등에 크게 했으나 공간이 협소했다. 이 때문에 김일성 위정장의 지시로 백화원 영빈관을 짓게 된 것이다. 사제는 대부분 수 입공이며, 북한산 가운데 채우는 수입한 것이다. 네 개역으로는 84년 명봉산 양산군(楊山郡) 중의 국가주석이 첫 손님이었을 것이다. 총리직으로는 고위급회담 당시 남측 대표들이 유일하게 여기서 묵었다.

김대통령이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던 만수대의사당은 중추의 인민대 회담을 본받았다. 70년대 만수대의사당을 사용하던 모습과 같았다. 손수에게 의회 건물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김일성이 중국을 다녀와서 인민대 회담지점 외국 대표단과의 회담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80년 초, 81년 6차 대외 이후에 김일성이 대가수장 당시 쓰던 건물을 의회 건물을 동원해 지금의 만수대의사당을 지은 것이다.

인민문화궁전서 문화행사

인민문화궁전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유사한 건물이다. 각종 국제 세미나와 토론회, 문화행사, 영화상영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건물들을 '대기비행적 건물'이라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관, 인민대화합관, 개성문화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이러한 건물 관련은 철저하다.

손님이 없던 공간 늘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시찰 코스에 빠져있어 포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평양 순안비행장 트랙 아래의 13인 10시 40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워 소찌새가 울었다. 하지만 이 한송이 난북 정상의 약속을 위해 55년간 민족의 눈물이 필요했던가 싶어진다. 약속은 고대로마시대부터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부모 형제 동기간이 떠나 있다. 오랜만에 만나면 단려가 두 손을 찻잡고 분지르며 재운을 나누는 약속이 없지 않았다. 중국 문헌에도 약속하고 정을 나누는 약속교환(契手交歡)이란 말이 자주 나오며 우리 문헌에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약속하고 키스한다는 뜻인 약속수구(契手啖口)란 말이 나오는 것



순안비행장의 약속

이것도 하다. 고대인이 서로 만났을 때 손에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참대반에게 알려 안심시키는 행위에서 약속이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관례칠 의사가 없는 평화적 메시지의 전달수단인 것이다. 지금 남북 분단의 휴전선에는 대치된 무기가 즐비하다. 그 무기를 민족상잔에 쓰지 않는다는 묵시적 메시지가 오간 정상들의 오년손이었어야 한다. 이제처럼 한국사상 가장 의미가 크고 무거운 순안비행장의 맞잡은 손이 아닐 수 없다.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은 신원협약 이후 귀족과 농민 사이에 새로 형성된 중간 상인계급에서 빈번한 계약과 신용을 다지는 신채언어(身體言語)로서 분서 이상의 위치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외교 의례상의 약속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에 약속과 의의가 뒤따른 순안비행장의 약속이다.

원숭이사화에서 적대하리가 뒤 돌아서 이제 적대를 그만두고 화합하려는 동작으로 손을 내어놓고 잡는 습속에서 약속이 비롯됐다고도 한다. 이질화로 원심력을 구사해 왔던 남북이 이제 구심력으로 동질화를 추구한다는 전향점으로서의 약속

이것도 하다. 고대인이 서로 만났을 때 손에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참대반에게 알려 안심시키는 행위에서 약속이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관례칠 의사가 없는 평화적 메시지의 전달수단인 것이다. 지금 남북 분단의 휴전선에는 대치된 무기가 즐비하다. 그 무기를 민족상잔에 쓰지 않는다는 묵시적 메시지가 오간 정상들의 오년손이었어야 한다. 이제처럼 한국사상 가장 의미가 크고 무거운 순안비행장의 맞잡은 손이 아닐 수 없다.

Akyoutaetee@chosun.com

▶ 특파원코너

류경식당과 남북정상회담

한국경제

2000. 6. 14 (수)



베이징(北京)시대 아연촌(延川村)근처에 '류경식당'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이 있다. 북한언어에 김영하는 것으로 '오리 찜고기'와 '닭계찜' 맛이 일품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장에 첫 방문을 맞이하는 13일 기자는 김정식사상 위해 이 곳을 찾았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손님을 맞이하는 여직원들은 전에 없어 환기가 났었다. 평소에도 친절한 그들이었지만 이날은 유독 말이 많고 활달성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한 종업원이 "우라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경상 회담 기념으로 오늘은 공짜로 제공합니다"라고 했다. "평하고 회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아시면서 그런 말을 할때가"한다

베이징은 한반도 경제에 관한한 아주 특이한 도시다. 이 도시에는 한국인과 북한인, 그리고 조선족 동포 등 '다국적 단일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는 베이징의 한인(韓人)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인과 북한인은 원만적으로 '남서 이외에는 별다른 함 말이 없는' 관계였다.

일부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인과 북한인 사이에 난 틈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이들 사이에는 묘한 경쟁감이 흐르기도 한다.

지난 1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의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게 주위 한국인들의 얘기다. 취재직 면담은 북한기자들라도 대화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런가하면 일부 조선족 동포는 이번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한다면 시도 걱정스런게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자 직접 교이하는 날이 빨리 올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양측간 다리를 놓았던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없어 지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3국적 단일민족이 될 수 있는 공간의 '남경(南境)'이다. 한국인과 북한인,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이 류경식당에 모여 오리찜고기 가져먹으며 등을 시켜주고 스텝업이 평양 동쪽을을 기원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게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베이징 한인들의 소박한 심정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萬物相

"여기는 평양, 가라미가 오고 있다." 72년 8월 29일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 동행한 공동 취재단의 제1보(報)는 감격적이었다. 90년 10월 16일,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 참석차 김영훈(姜英勳) 당시총리 이행이 육로로 도착한 평양역은 환영했다고 본지 취재기자는 전했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순안공항의 표정은 낯설지만이나 쾌적했다. 환영 열기 속에 손을 맞잡은 정상 모습 또한 인상 깊었다.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만난 회담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쫓리고 있다. 냉전(冷戰)의 벽을 허물 것인지는 풀린 회담 자체의 관심도 높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북의 실상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호기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북한은 몇 차례 제정된 보도도 허용했으나 직접 취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가라미라는 지적이나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TV에 방영된 '평양사 람, 평양생활'은 비록 걸려진 내용이라고 해도 변화된 북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바지 입은 여성들은 볼 수 없었으나 머리모양과 옷차림이 매우 화사해 보였다. 중이나 가요도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부분적이거나 비결문화의 흔적도 엿볼 수 있었다.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독일 밴드 자동차 판촉행사가 열리고 있는 광경도 이색적이었다. ▶역사의 현장에 취재객들이 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유수의 신문 방송 본진들이 취재팀 화병했으나 북측은 '남측 취재기자단 50명'만을 허용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외신기자들은 도리 없이 서울의 프레스센터에 진을 쳤다. 남북 기자들의 직접 취재도 금지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취재난립을 막기 위해 몇 기자의 대표취재 시스템인 풀(pool)제를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 이번 남북 취재단은 공동 취재팀의 심격을 띠고 있어 외신들은 이들의 풀기사를 받아 '서울발(發)'로 타전하게 된다. 직접 취재가 안 된다면 국내와 언론들은 공급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기사는 거의 발표기사이고 허기된 기사이고 그리고 인상기일 수밖에 없다. 취재진이 북한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

朝鮮日報

2000. 6. 14 (수)

대학 10여곳 人共旗 게양

“회담과 찬양고무는 달라” 검찰, 주동자 엄벌 방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3일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나란히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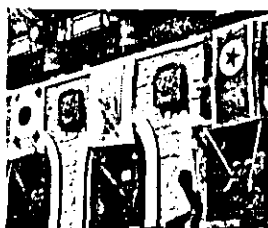
서울대 학생회관 비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가 그려져 있고, '남북정상회담 대한 영'이란 글이 써어 있는 폭 1m, 길이 7m 크기의 현수막 3개가 길게 내걸렸다. 또 학생회관 근처에는 '북조선 바로 알기' '김정일 바로 알기' 등 제목으로 북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다.

이날 고려대, 건국대, 한양대, 세종대, 사감대, 동아대, 한림대, 경북대, 덕성여대 등에도 인공기가 그려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렸으며, 동아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측에 해 질거렸다.

이들 현수막에는 대부분 깃발을 내건 주체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대해 서울지검 관안2부(부장 박용환·朴充煥)는 "주동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총지휘의 하 나인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대학생들의 찬양고무 행위는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張一益기자 shang@chosun.com /李圭赫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오후 세종대학교 박물관 비탈쪽 벽에 태극기, 남북한 단일기,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蘇承雨기자 rainman@chosun.com

학교 새 통일교육

관련내용 통합 교재 9월 초·중·고에 배포

오는 9월부터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교사용 통일 교재가 서울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배포돼 수업에 활용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성기)은 그동안 역사, 사회 교과 등에 분산돼 있던 통일 관련 내용을 하나의 교재에 통합한 교사용 교재 '기초' 5분용일교과자료'를 9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각각 쓰여질 이 교재는 △민족의 동질성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통일의 미래상 등 10개 영역의 40여개 항목(신국판·80여쪽)으로 구성되며, 초·중·고등학교용 3종류로 발달 단계에 맞게 심화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교재에는 그동안 직위 표시 없이 언급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위를 표시하는 등 남북 관계의 변화상도 반영한다. 13일부터 열린 남북 정상회담 내용도 새롭게 포함시키고, 언어 등 통일 뒤 남북이 서로 적응하기 위한 문제까지도 포함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교재 개발에 착수한 박승자 인성부장은 "남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을 포용해야 할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냉전의식을 떨쳐버리고 통일 뒤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재의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러기의 여행', '백두대간을 넘어서' 등 친숙한 것으로 함께 계획이라고 박 부장은 덧붙였다.

학교마다 15~20여권이 배포될 이 교재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의 자문을 받아 만들고 있으며, 2001학년도 1학기에는 이 교재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기술 등을 담은 '지도자료'가 나용 예정이다. 안철현기자 blue@hani.co.kr

"오늘은 평양냉면 먹자" 손님 줄이며 이삭 13일 남북 정상회담 덕분에 북한음식집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지르고 있다. 특히 진국의 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까지 겹치자 평양냉면, 합충냉면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 장충동의 한 냉면집은 이날 평소보다 갑절쯤 많은 손님 400여명이 몰려 하루종일 북적였다. 주인 김대성(56)씨는 "손님들이 북한 냉면을 들면서 남북 정상회담 텔레비전 중계를 보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덕분에 준비한 재료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즐거워했다.

이날 점심때 서울 관화동의 한 냉면집을 찾은 회사원 이명환(34)씨는 "오전에 남북 정상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직원들끼리 '오늘은 평양냉면이나 먹자'고 의견을 모아 오게 됐다"며 "평소 냉면을 즐겨 먹는데, 오늘은 그 맛이 더욱 특별했다"고 말했다.

일부 냉면집에서는 정상회담을 축하하는 뜻에서 손님들에게 냉면을 무료로 대접하기도 했다.

김종태 기자 jtkim@hani.co.kr

대한매일

2000. 6. 14 (수)

평양 오늘 구름 많아

14일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3일 "북한지역을 지나 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은 흐리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다"면서 "기온은 17~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5일 평양은 구름이 조금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이라면서 "기온은 18~30도의 분포를 보 이겠다"고 내다봤다.

● 전경우기자 ywchun@dailly.com

# 깨지지 않는 '통일팀' 만들어야죠

## 정상회담을 지켜본 '탁구 여왕' 현정화의 감회

"지도 북한에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들 권했어요. (이)분화 언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91년 일본 지바에서 벌어진 세계탁구선수권 남북단일 코리아팀의 주역 현정화(31·한국마사회 코치)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회(32) 생각을 먼저 떠올렸다. 당시 현정화와 송차욱(남측), 이분회 유순복(북측) 등은 단일팀 코리아 깃발 아래 출전, 기쁨 넘어가던 흥분을 껴고 온기레를 일관해 했다. 모두 자매처럼 지냈지만 그중에서도 북측 파트너였던 남·북의 에이스 현정화와 이분회는 특별한 사이였다.

당시 지바에서 이분회는 다면 첫머리로 "현정화 김구만(애니쿠만)"이라 했고 현정화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라고 말문을 뒀다. 그리고 코리아팀은 41일간의 화려한 외출에 나섰다. 코리아 멤버들은 모두 평생의 승부담 걸었고 만리장성을 훌쩍 넘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작은 통일'을 이룩했다.

현정화는 여자켓 이기고 기쁨에 몰입한 일이 없는 차거운 승부사. 하지만 그때는 예외였다. "(유)순복이가 마지막 경기서 중국 기요준을 이기는데 눈물이 뿜뿜 쏟아져요. 기자들이 맨치로 불러들길래 선수 모두가 경기장 뒤 러기용으로 도망치시



현정화(오른쪽)와 이분회가 91년 세계선수권 복식서 맥을 이뤘던 경기하는 모습. /조선일보 DB사진

분을 같이 잡고서 부둥키 안고 울었어요."

당시 시상식 사진을 보면 다른 팀은 모두 트레이닝복 차림인데 코리아팀만 반바지 운동복 차림이다. 울다가 웃을 같이입을 틈도 없이 시상대에 올랐던 것이다.

현정화는 94년 은퇴했고 탁구인 출신 김석만씨와 가정을 꾸었다. 지금은 한국 마사회 코치로 후배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동료인 송차욱(31)도 기성을 이었다.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경종강 총 휘던 유순복(30)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돼 평양 만경대 부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현정화의 단짝 이분회는 동료 선수 김성희와 겹



현정화 코치가 지바 대회 당시 '현정화-이분회 세계최강콤비'라고 보도한 신문 스크랩을 보여 환하게 웃고 있다. 그녀는 "분회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인원현기자 nclmi@chosun.com

## 단일팀 이뤄 91년 세계탁구 제패 중국 꺾은 뒤 열싸안고 눈물 당시 단짝 이분회 만나고 싶어

혼재 아이들 하나 두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정화는 "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고생했고 아기도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집에 데려다 요양이라도 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 옷날에나 가능한 얘기겠죠?"라고 반문했다.

현정화는 헤어지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한돈짜리 금반지를 이분회에게 집요로 건넸다. "아마 지금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하긴 모르죠. 생활이 어려웠으면..." 그녀는 자신이 없는지 말조리를 흐렸다.

코리아팀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지위지지 않을 삼지도 남겼다. 선수들은 코리아팀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다시 남·북의 유니폼을 입고 대결해야 했다. 현정화는 "정치사에 우리들의 순수한 감정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팀이라고 믿게 할 뻔 언세고... 나중에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현정화는 "나 같은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더는 깨지지 않을 굳건한 팀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동석기자 ds-kim@chosun.com

# “北에 있는 가족 만나게 되나요”

## 임진각·이북5도청등에 몰려들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동 소식이 전해진 13일 임진각과 이북5도청에는 고향 방문의 꿈을 안은 실향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면집, 이북5도민회 사무실 등에는 실향민들의 고향 이야기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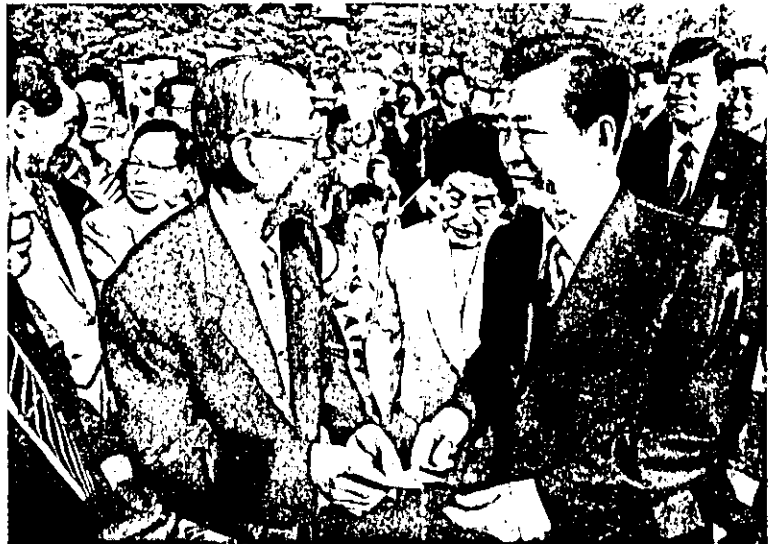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과 실향민들은 ‘자유의 다리’ 너머 북녘땅을 바라보며 동인을 주제로 답소를 냈다. 1·4후퇴 때 원남했다는 평양 출신 송서희(宋瑞熙·82·인천 남구)씨는 “북의 친척들에게 행여 해가 미칠까 봐 생사확인도 안 하고 지내왔다”며 “남·북이 한 발씩 양보, 고향 방문길을 뜬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임진각 근처 분산읍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은 이웃들이 한데 모여 김 대통령의 방북장면을 시청한 뒤, 인근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며 고향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 “고향 방문하면 춤출것”

장단군이 고향인 윤용섭(尹乙燮·67)씨는 “전쟁 직전 4형제들 북에 둔 채 ‘2주 후에 돌아오마’ 하고 떠난 것이 벌써 반 백년을 넘어섰다”며 울먹였다.

임진각에는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북5도청 직원들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TV를 통해 지켜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대통령이 순안비행장 비행기 트랩을 내려 김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는 순간, 김대열(金大烈·39) 개장을 필두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김씨는 “김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 접견을 나온 것을 보고 놀랐고, 정중환 예우에 다시 한번 놀랐다”며 “총부리를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실향민 1세대인 합남 부녀회 합창단원 장모(71) 할머니는 “큰 기대는 안 한다. 너무 떠



◇13일 오전 방북길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호 여사가 청와대 임구 효자동에서 원송 나온 평북 출신 실향민 김경희(77)씨와 악수할 나누며 김씨의 가족사진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들찍하는 것 아니냐”며 “회담 길과를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답하게 말했다.

## 대통령에 가족사진 보여줘

이에 앞서 실향민 김경희(77·평북 출신)씨는 방북길에 나선 김 대통령에게 빛바랜 노부모의 사진을 보여주며 “부디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실향민들의 소원을 말했다. 김 대통령은 김씨가 내민 사진을 직접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꿈꾸는 실향민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았다. 평양이 고향인 실향민 유호웅(柳浩熊·67)씨는 “북에 있는 누나의 생사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 장충동 ‘평양면옥’에는 100여명의 실향민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노모와 함께 식당을 찾은 재미교포

김성숙(65·아·함북 산천)씨는 “밥이 싹뻗힌신 노모께서 TV를 보시다가 고향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시다”며 “북에 계신 이모님과 만나는 게 어머니의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 “평양에 냉면집 열고싶다”

평양이 고향인 주인 김대성(金大成·66)씨는 “어린 때 보았던 평양거리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며 “할아버님이 평양 대동문 앞에서 운영하시던 냉면집 ‘대동면옥’을 내손으로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읍지모의 ‘평양면옥’에서도 평남 용강군 출신 30여명의 실향민들이 점심 모임을 갖고, 고향방문과 이산가족 상봉의 기대감에 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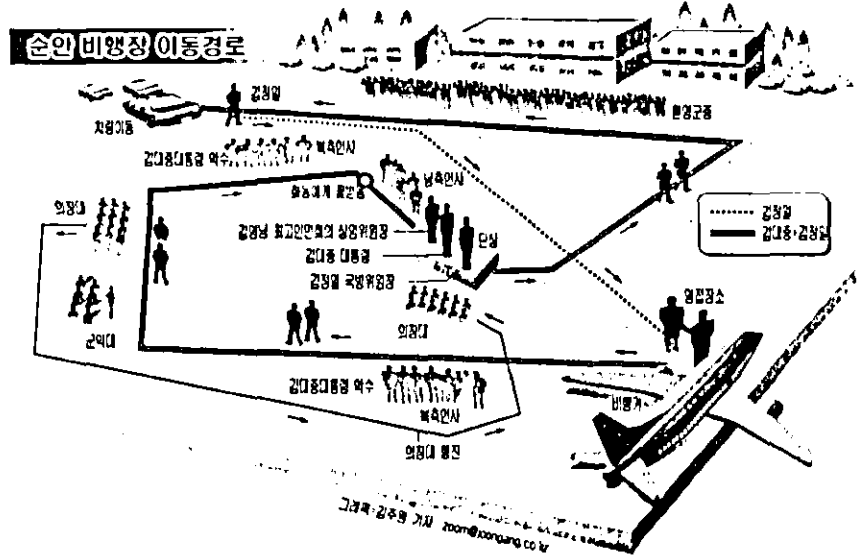
/鄭勝基기자 bschung@chosun.com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韓在賢기자 rookie@chosun.com



# 空港의 영접·60만 환영 인파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아래)이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 트랩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TV촬영]



## 기다리던 김위원장 박수로 환영 군중들 “김정일” “만세” 소리쳐

### 공항도착·상봉 순간

13일 오전 10시25분 김대중 대통령을 대운(김정기(남인 737기)가 평양의 순안 국제공항 환주로에 도착했다. 서울 공항을 이륙한 지 67분만이었다.

하늘엔 악간의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듯 맑았다. 기온은 섭씨 22도.

순안공항은 1955년에 건설된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다. 길이 4km·폭 70m, 길이 3.5km·폭 60m짜리 콘크리트 활주로 두개를 갖고 있다. 공항청사 확대에는 고(故) 김일성(金日成) 국가주석의 대형 일출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좌·우측엔 각각 ‘평양’ PY-ONGYANG’이란 빨간색의 한글·영문 간판이 솟아 있었다. 이곳에서 평양 시내까지 거리는 23km.

강사 앞에 1천여명의 북한측 환영인파가 나와 김대통령 일행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남산들은 대부분 정장차입 또는 긴팔·반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여성들은 거의 흰색을 입고 있었다. 입장 차림을 한 여성도 간혹 눈에 띄었다.

◆순대통령 도착 환주로에 내린 전차기는 북한측 선도차량인 노란색 2층 인도봉 받아 전차에 잠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쪽으로 앉았다. 전차기 동석에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가 선명하게 나타

있었으며, 보리밭에는 내키기가 그려져 있었다. 환주로를 빠져나온 전차기는 오전 10시29분쯤 노란색 무늬가 수놓인 빨간색 카펫 안에 입차했다.

◆김정일 도착과 폭발적인 환영=순대통령을 태운 전차기 앞부분에 트랩이 다가갔다. 김시 감독이 출한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의 오열판에서 “와”하는 함성이 쏟아졌다. 함성은 순식간에 가운뎃로, 왼쪽으로 전파했다. 군중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봉황·빨간색의 꽃송(조화)을 흔들었다. 우리 수행원들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 순간 김위원장의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승용차 편으로 공항청사 안쪽까지 들어온 것이다.

김위원장은 황토색 계통의 인민복 차림에 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김일성 배치는 날치 않은 상태였다. 태두리가 큰 안경을 쓴 그는 군중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든 뒤 붉은색 카펫을 따라 전차기 앞으로 향했다.

◆트랩 밑까지 영접하는 김정일=김위원장은 외변잡이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 등을 암투이라도 하듯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에도 건강미가 느껴진다.

김위원장이 의자에 앉을 자판 때쯤엔 “김정일”인호와 “만세”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위원장은 2백여m를 걸어가 전차기 트랩 밑에서 양 발을 조금 벌린 상태로 홀로 섰다. 따르면 김위원장은 약간 뒤로 물러났다. 북한측의 한 안내원은 “경애하는 장군님이 초콜릿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며

“와래 잘 만나오시는데 무더운 날씨를 바다 앞두고 나오셨다”며 이례적인을 강조했다. 이 안내원은 “홍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라고 신언했다.

김위원장이 트랩 앞에 서자마자 곧 전차기 앞문이 열렸다. 이 순간 문 안쪽에 새겨진 청색 바탕에 금빛의 청와대 문양(봉황 한쌍과 무궁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두 정상의 만남은 승양객들의 환호와 이음이 흔들는 수선의 붉은색 꽃송 밑길속에 이뤄졌다. 순대통령이 트랩 위로 모습을 나타낸 시간은 13일 오전 10시35분.

평양의 햇살이 순대통령의 얼굴에 처음 내리미친 순간이다. 환영객들은 일제히 “만세”를 연호했고 공중은 이들의 함성에 뒤따랐다. 김위원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순대통령을 응시했다.

순대통령을 처음 맞은 사람은 김위원장의 외간남매이자 전의장(全熙道)씨. 그는 전차기 출입문이 열리자 빠른 동작으로 트랩을 올라 김대통령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순대통령을 안내했다. 김위원장을 대신한 김대통령이었다.

트랩 위에 나온 순대통령은 잠시 오른편을 향해 전차기 주변의 풍경을 둘러봤다. 북한의 산하를 눈에 담으려는 듯했다. 이희호(李姬鎬)여사도 순대통령 바로 뒤에 모습을 나타냈다. 순대통령은 자수제 넥타이에 김씨

### 정상의교·공항의전비교

| 행사명     | 특 점         | 국제 의견     |
|---------|-------------|-----------|
| 공항도착 인사 | 김정일 국방위원장   | 인사부장      |
| 의상      | 시골 민복일      | 시골        |
| 행진      | 지도부 및 시민    | 관객 공무원    |
| 연단 형태   | 김대중·김정일·김영남 | 김대중 환주-인사 |
| 가이드     | 주석부 인사국장    | 인사부장      |
| 환영객     | 김정일 환영      | 외국 차원의 박수 |
| 차량      | 김대중·김정일 전용  | 김대중 전용    |
| 시간      | 김대중·김정일 전용  | 김대중 전용    |

정상, 참여하는 흰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다. 김위원장이 트랩 아래에서 박수를 치며 순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했고, 순대통령은 트랩 위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마주 박수를 쳤다.

이후 20여개의 계단을 걸어내려온 순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김위원장과 반갑게 악수를 했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지대에 해빙의 기운이 들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순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서로 손을 잡은 채 5초간 입차게 흔들었다. 두 정상의 모습은 위상을 타고 곧바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로 전해졌다. 세계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김위원장이 먼저 오른손을 내밀어 순대통령을 맞았고 순대통령은 “반갑습니다”라며 손을 잡았다. 사회주의식 포옹은 없었다.

순대통령이 이어 김위원장은 이희호 여사 외도 부드럽게 악수를 했다.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주고 받았다. 평양=공동취재단



# 55년 거리좁힌 55분 '깜짝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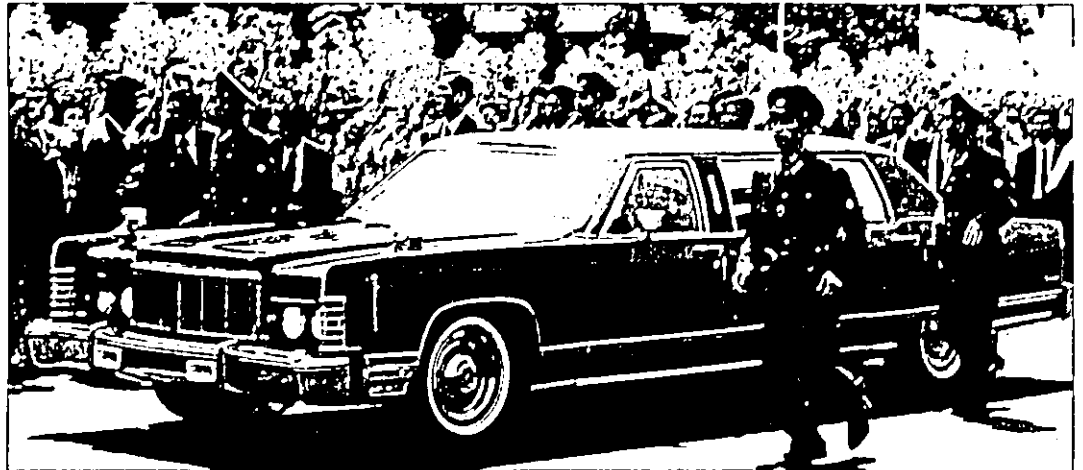
## 술회장 부인 김영숙 영접행사에 안나와

순안공장에서 남북 정상의 북부  
동반 행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  
금증을 불러왔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씨는 영접  
행사나 북한인 양반관에서 있던  
기념촬영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리도 여자가 순안공장에서 북  
회와 양반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조  
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한  
측 부장이 임시근처에 도착했다. 북한  
측에는 퍼스트 레이더 개년이 없어  
지도자의 부인이 공식행사에 참석  
하는 예는 극히 찾기 어렵다.

그러나 술회장이 과거적으로  
순안공장에 직접 나가 술회장을  
인식했듯이 김영숙씨가 14일 마지  
막 연선시장에 참석할 가능성은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영숙씨는 정치 공간대학 부학  
장의 딸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  
리지도부 간부동맹부에 근무하다  
1973년 10월 뒤사 김정일 비서의  
친척직으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형현 기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캐딜락 리무진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 시내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黨·政·軍 고위간부 총출동

### 공항 영접 北인사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순안공항에 나오자 북한의 당·정·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영접행사에 모  
습을 드러냈다.

이날 TV 화면에 걸린 북측 주요 인  
물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위원장, 조명숙(趙明淑) 국  
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국대(金國  
泰)·김용순(金容淳)·최대복(崔大  
福)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으로 이  
들은 술회장과 함께 비행기 드림 앞  
까지 갔다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영접했다.

술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술회장  
과 악수를 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방을 제외한 국가사관 전민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  
는 인물. 그는 의정행사 중 의정대의  
사임을 받는 단상에서 술회장과의 오  
답에서 서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의 입장을 관다는 사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1972년 당 국제담당자로 발탁  
된 후 국제담당비서·정무원 외교부  
장 등을 역임한 북한 외교의 원로이며  
정상회담 기간에 한차례 민선을 주재  
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남은 민주대의  
사냥을 받았던 술회장과 잠시 환담  
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성집·김  
연애(양족내국회의회 회장), 서기장  
김영현 등도 김대에 영접된 바 보인다.

### 김영남·조명숙 등 모습

#### 對南경협 관련 인물 많아

회담 준비를 총괄한 김용순(조선아  
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일) 비서는  
국제부에서 35년간 일해 북한 고위층  
가운데 서방세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  
로 꼽힌다.

북회안인민관에서 김대중·김정  
일 회담에 북측관계자로서는 유일하  
게 배석한 그는 92년 통일전선사업단  
남 비서로 일하던 이래 남북회담을 단  
담해왔다.

그는 김영삼(金泳三) 주석 사망 직  
전인 94년 6월 정상회담을 위한 비  
회담인 북측 수석대표로 만민장에  
나와 이흥구 총리와 협상을 하며 노  
련한 협상가의 면모를 보였다는 관  
측 일었다.

그는 98년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  
회장과 박보희 세계평화재단이사장의  
방북 때도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군 간부로는 조명숙 차수가 유일하  
게 참석했다. 이윤성 호위총장, 김  
연중 총참모장, 김영희 인민무력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명숙은 45년 11월 술회장을 인  
교 귀국한 '혁명 1세대'로 95년 10월  
총참모장에 발탁돼 군 정치·사상  
사업을 책임져 왔다. 그는 이번엔 인  
민군을 대표해 나섰다가도 국방위  
원회 제1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는 김정일 위원장 뒤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과 조명숙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이 보인다. [TV촬영]

그는 5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김정  
일 장제민(江澤民)과의 북·중 정상  
회담에도 배석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대복 의장과  
이영구 부의장이 행사장에 나왔다. 최  
의장은 만경대혁명유원 출신으로 어  
려서부터 술회장과 인연을 맺은 인  
물로 오랫동안 교육·과학분야를 담  
담해 왔다.

남측에서는 강석주(姜錫柱)외무부  
제1부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백남순(白南勳)외무상은 현재 조  
문사정안을 이끌고 시리아를 방문 중  
이어서 출근장이 그의 역할만 대신했  
다. 조문상은 94년 북·미 핵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남북대의 주무부서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남북합동 때 지  
수 없잖아 보안 안장(安長)시키

국장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  
적 역할을 했던 아태평화위원회에  
서는 박지영 문화관광부장관과 정상  
회담 협의서에 서명했던 송호경(宋浩  
敬)부위원장이 나왔다.

이번에도 평화행사에 평양주변을  
동원하는 실무 책임자를 맡은 안장길 관  
원인 안민위원장의 모습도 보였다.

대외 행사장에는 한성훈·김기남·  
김동원·계간대 등 남측에서, 김민준·  
김영철 등 군 수뇌부, 대외관계자들은  
불참했다.

김정일국자는 "평화회담에 참석한  
북측 인사를 기념하는 최고인민회의  
및 대남의 관련 인물들에게 보충  
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정형현 기자

<chunh@joongang.co.kr>

### 이회호여사 현대 여원구 이회여전 선우배사이 여운형의 셋째딸

정상회담 첫  
날인 13일 이  
회 호 (李姬  
鎭·78) 여사  
와 최고인민  
회의 여원구  
(任 興九·  
72·사진) 부



의장이 만수대에송곡장에서 열린  
환영행연을 내리다 배웅했다. 두  
사람은 이회여전 선우배로 이번이  
첫 만남이다. 추여사의 평양체류  
기간에 두 사람이 자주 만날 기회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장은 해방 후 조선중앙의  
보 사장과 조선인민당 남수일 제1  
여운형(吳運平)의 셋째딸로 1947년  
연변에 이주하고 함께 화북으로 이주  
김의성(金義成)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관에서 잠시 기거했다.

80년 1월에 김영삼 주석과 정년  
한 뒤 위원 정무원 교육위원회 부  
위원장에 선거 됐다. 88년 9  
월 5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임  
명되면서 평상생활하게 되던 여정  
제1대 대표라는 인물로 부상하게  
이 되었다. **정형현 기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 DJ에 上席 양보

김장의 위원장의 공창 환영행사 중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는 차장 동승이었다. 공창행사가 끝난 무렵 김대통령이 날 캐널과 리무진으로 다가간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이 환영인파에 답례하는 동안 차장 원편에서 기다렸다.

그런 김대통령이 상석인 뒷좌석 오른쪽에 오르지 앞자리에 나란히 탔다. 벤츠를 주로 사용하는 북한측은 최근 미국제 캐딜락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인인 이희호(李姬鎬)여사는 다른 차량으로 안내됐다.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 본 외교통상부 의견관계자는 "정상외교 의견상 파식 중의 파식"이라며 놀라워 했다.

국민(民衆)방문이라도 함께 방문한 인부인을 고려해 공창행사 후에는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관계이기 때문이다.

순안공창에서 김대통령이 목기로 한 백외원 인부인까지 걸린 시간은 55분. 이 시간동안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차 속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다.

儀典관리 깐 동승

일종의 '차 속 정상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두분이 차속에서 가끔 손잡 잡기도 하고 마주보며 '우리 잘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차대변인은 "서로 많은 말을 했으며 김위원장은 94년 김일성-김영삼 회담 합의 당시의 김주석의 심정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차대변인은 "두분이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 중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예의일 것 같다"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국가에서 중요사항을 논의할 때 드물게 차장에 동승한 적은 있지만 차속 정상회담은 정말 의외"라고 말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평소 서방국가의 도청을 의식하는 스다일인 만큼 어쩌면 앞편이 있는 대화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승희·이상협 기자

<pmaster@joongang.co.kr>

楊尙昆 을때 역에서 마중 김대통령에 최고 대우 의전

北 국민 영접 관리

김장의 국방위원장이 순안공창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것과 관련, 외국 국가인수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의 영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의전의 특징은 주석·총비서가 직접 공항이나 평양역에 나가 국민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1980년대 중반 몽골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에 김일성(金日成)주석이 공항에 직접 마중나간 사례가 있었다. 또 김 국방위원장은 88년 9월 양상훈(楊尙勳)중국주석의 방북 때 평양역에 직접 나가 영접했다.

이런 점에서 공항·평양역 영접이 이색적인 일은 아니며 이번에 김대통령을 국가인수로 상응하는 영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이 김대통령

을 위해 의장행사를 진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국민 영접시에 현장에서 국가 연주와 예포·의장대 사열 등의 의식을 행한다. 또 공항에서 속소로 가는 길에 수산명명의 평양 시민·학생들이 환영행사팀 편치는 것도 관례다. 환영행사 때는 붉은 스카프를 외국 정상에게 걸어주는 절차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 연주와 예포는 생략한 채 의장대 사열만 했다. 우리측이 신경을 곤두세웠던 붉은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는 절차도 생략하고 꽃다발 전달에 그쳤다. 그리고 연도 행사는 다른 어떤 국민 방문 때보다 상대적으로 침묵이 역력했다. 이동현 기자

<leehido@joongang.co.kr>

김정일肉聲

8년만에 공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뚜렷한 육성이 13일 처음 공개됐다.

1992년 4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군 사임대령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인공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고 짙박하게 외친 이후 그의 육성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난 5월 만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과 만나는 장면이 그 뒤 TV에 방영될 때도 육성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단지 김위원장의 강주석과 포옹한 뒤 악수하며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 어렵듯이 지나가듯 나온 것이 전부였다.

김위원장은 강주석을 맞으면서 빠르고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 통역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기록영화에서도 김위원장의 육성을 듣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지 그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원수를 치켜들며 다소 큰 제스처로 지시하는 장면이 자주 발견될 뿐이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金日成)주석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진 측면이 강하다"며 "이에 비해 김위원장은 다소 톤이 높은 음성이어서 공개를 꺼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위원장의 육성이 전면 공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위원장도 나아가 들면서 그 진보다 톤이 다소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의식해 관례를 깨고 육성을 공개함으로써 체제·정권 안정의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분석한다.

육성 노출을 비롯한 그의 생생한 모습 공개는 앞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동현 기자

<leehido@joongang.co.kr>



남북 정상회담

13일 오전 11시45분 평양.

남은 호수가 시원하게 보이는 백화원 영빈관(북한측 요청에 의해 백화원 초대소의 명칭이 13일부터 바뀜)에 남북 정상들이 도착했다.

리무진 승용차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문을 통해 내렸다. 그들은 이미 한시간 가량 차중(車中) 회담을 나눈 상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낮 12시40분쯤 자리를 뒀으며, 그 사이 20분간 제1차 공식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안내와 기념촬영=김대중 대통령이 숙소 현관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 여성들이 꽃다발을 전달했다.

두 정상은 기념촬영을 위해 집결실의 벽에 걸린 대형 자수그림 앞에 섰다. 거센 파도가 치는 그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환한 웃음을 머금은 반면, 김위원장은 다소 엄숙한 표정에 양발을 조금 벌린 모습이었다.

김위원장은 이어 이희호(李熙浩) 여사에게도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권유해 김대통령 부부와 함께 촬영을 했다. 그러곤 크고 깔끔한 뷔페로 "장관들도 같이 합시다"고 제의, 사진을 함께 찍었다.

촬영 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 일행에게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TV 생방송에서 또렷하게 잡힌 김위원장의 첫 목소리였다.

남북 정상 공식 대화=김대통령 일행은 김위원장의 안내로 집결실에서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회담장 벽면 곳곳에 파도·꽃·산·포도 등이 그려진 산수화가 걸려있었다.

김대통령이 "무슨 그림들입니까"라고 묻자 김위원장은 "원래는 춘추추동(春夏秋冬) 그림입니다"고 했다. 옆에 있던 전금진(전금철)이대평화위 부위원장이 "요항산의 춘추추동들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남측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많은 말을 건넸고,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말에 진지하게 대응했다.

김대통령은 시종 바란 자세로 또박 또박 말을 했으나, 김위원장은 몸을 김대통령쪽으로 기울이고 손바닥으로 의자 팔걸이를 위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김용순 이대평화위 의장을 향해" 용순 비서, 김대통령과 지동재를 함께 타고 오느라고 수고한 장관들과 인사를 못내졌어요. (남측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발언

-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다.
- 우리의 신문과 라디오엔 경호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해) 선전하지 못했다.
- 우리는 살리만 추구하고 있다.
- 평등, 두려움, 무서운 길을 오셨다.
-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이다.
- 주석님감찰실개선 서거전까지 그제날씩 정상회담 소원이셨다.
- 김영삼 대통령과 (생전의) 김주석에 대해 디스한 게 있었다라면...
- 세계의 모든부호를 2백3일 동안 대답해 줘라.
- (중요한) 현주성 경호실장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대통령-김위원장 백화원 영빈관 對坐

김대통령 "북한땅 못밟을줄 알았는데..."

김위원장 "세계의 의문에 답을 줍시다"

두려운 길 오셨습니다

김위원장="저항을 앞세우지 않고 삽입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방북길을 환영인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걸을 지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 나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선 광고를 하면 잡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리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북에선 TV와 방송에 많이 안 나오고 잠잠하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통령과 동행해 왔는데,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연도에 얼마나 나왔나"고 물었고, 김용순 위원장이 "60만명 가량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 이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했음.)

김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심을 갖고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온 줄 몰랐습니다."

김위원장="그저께 생방송을 통해 연못에서 영빈관까지 (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명절 때처럼 곱은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김위원장="오류부터는 공식회담

된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벽까지 꽃이 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한편 산보삼아 둘러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생전했던 주석님이 대통령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제 소원이셨습니까.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고 했을 때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언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다정다감한 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 통화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번엔 좋은 결과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지요."

김위원장="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박3일 동안 대담해 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실장에 "걱정마세요"

김대통령의 공식 초청과 김위원장의 농담=회담을 마친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 공식 수행원들에게 "잘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라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영빈관을 떠났다. 특히 안주섭(安周燮) 경호실장과 악수를 하면서 "(김대통령의) 신병안전 문제를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김대통령은 영빈관 식당에서 주역사의 단골이 점심식사를 했다. 메뉴는 평양냉면(냉국이 국물에 밥을 단 국양 건빵음식)·소고기 튀김·옥동 불고기·계첩을 한 닭고기·청포종합탕채·꽃배추김치·삼기며·인삼차 등이었다. 김대통령은 "평양냉면이 참 맛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공식수행원을 향해) 경양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TV로 봐서 같 습니다. (박지연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고) 남북 정상회담 북남합의 때 TV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 위원장이 임동원 대통령특보에게 공식수행원 소개를 부탁했고, 최북보가 장관을 소개할 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남씨도 민족경사 환영

김위원장="남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저께(11일)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형화합니다(알려줬다는 뜻).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쯤 거쳐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지 알려주세요. 준비관계를 금방 임박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되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김대통령을 하루 동안) 못모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통령="다들 많이 환영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북녘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7천만 민족의 화해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가 화합합니다. 민족적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동을 여언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나온 시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 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순안)비행장으로 갑니다. 아침 (김대통령이) 기차회전에서 격탄반송을 할만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는데 규영오시는데 아침 식사를 꼭 챙기세요."

김대통령="경양에 오면 식사를 잘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웃음)"

평양 첫날 이모저모

◇양측 소개와 환영 인사=역사적 장면을 연출한 뒤 두 정상은 양쪽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공식 환영행사를 시작했다. 먼저 김위원장이 금대통령에게 도열한 환영 인사들을 소개했다.

금대통령은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영복(趙明博)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국태(金國泰)·김용순(金容淳)·최태복(崔泰福)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습니다" "보고싶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들도 기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인사했다.

이어 김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의장대를 사열한 금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영객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남자가 매우 좋습니다"(김위원장), "화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금대통령)를 두 사람은 걷는 도중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금대통령은 의장대 사열을 제외하고는 행사 내내 여류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금대통령 내외는 빨간 머플러와 흰 플라우스·푸른색 치마를 입은 두 북한 소녀의 꽃다발 선물에 밝을 빛대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장대의 본말에 앞서 금대통령은 미리 대기 중인 우리측 수행직원들을 김위원장에 소개했고 김위원장은 웃으며 일일이 악수했다.

◇공항 출발=10여분간의 공항 환영행사가 끝난 뒤 금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승용차에 올랐다. 북측 수행원이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열고 상석(上座)탑승을 권했다. 오전 10시48분.

금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 김시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박수를 쳐 반가움을 전했다. 승용차 반대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정일 위원장이 왼쪽 문을 열고 금대통령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평양 중심가 한바퀴 돈 퍼레이드=순안공원을 떠난 대표단 일행은 당초 언론의 예상과 달리 백화원 연변관으로 기행하지 않고 평양 중심가를 꾸불꾸불 돌며 상대한 '카메라이드'를 펼쳤다.

우리측 수행원들은 이를 과격적 시내 환영행사를 통해 북측이 금대통령에게 각별한 성의를 표시하려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금대통령 일행의 시내 이동코스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북한을 방문한 주요 국가 수반과 함께 평양 시민들의 연도 환영을 받으면서 이동했던 경로로 알려졌다.

◇물러든 연도 환영인파=순안공원을 출발한 대표단 일행은 오전 11시10분쯤 평양시 입구인 연풍동에 도착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금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이곳에서 잠시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했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금대통령은 뜻밖의 꽃다발 선물을 건넨 20대 여성(북측은 노동자대표라고 설명)에게 흐뭇한 표정과 함께 가벼운 인사말로 화답했다.

일행이 중심지로 접어들자 엄청난 환영인

DJ "전쟁 공포서 해방기대" 만찬사  
만수대 공연뒤 무대올라가 격려도

파가 도습을 드러냈다. 북측은 시내 전체를 거대한 환영행사장으로 꾸민 듯했다.

시민들은 분홍색 조끼를 열렬히 흔들며 "만세, 만세"와 "김정일 결사 용의(義勇)"를 끊임없이 연호했다.

백화원 연변관까지 30여㎞ 도로에 걸걸이 늘어선 시민들이 줄잡아 60만명이라고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은 백화원 회담 때 금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한 북측 안내원은 "평양시민(전체 2백만명)중 성인은 대부분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측의 대령을 환영하기 위한 자발적 인파"임을 강조했다. 또다른 안내원은 "어제(12일)금대통령이 오는 것으로 알고 공(허담)을 쳤다"며 건담도 사람들이 나왔다가 되돌아갔다고 귀띔했다.

대표단 차량은 시속 30㎞ 정도도 서행은 견하며 시민들의 환영인사에 답했다. 고층 건물 꼭대기엔 "조선은 천년다"는 구호가 적힌 대형 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가로등 뜻밖엔 대형 인공기가 걸렸다.

차량이 보통강을 건너자 북한이 자랑하는 1백5층 높이의 류경호텔이 위용을 드러냈다. 풍사가 끝나지 않아 꼭대기엔 타코크레인이 세워져 있었다. 일행이 보통문과 만수대 의사당을 지나 높이 23㎞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만수대 언덕을 기를 때 환영인파는 길가에 달렸다.

수만명의 광양 시민들은 도로변 주위의 언덕 위까지 올라 금대통령의 발목을 흔감게 환영했다. 일행이 이어 북한의 대표적 조형물인 개신봉(높이 60m)을 통과한 김일성종합과학·금수산 기념공전(2거 주석 등)을 지나 11시45분 백화원 연변관에 도착할 때까지 환영인파는 단 한 톨도 빠짐없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만수대 의사당 방문=백화원 연변관에서 오찬을 마친 금대통령 일행이 만수대 의사당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20분. 만수대 의사당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곳이다. 금대통령 내외를 태운 승용차가 의사당 앞에 머물자 기다리고 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금대통령 일행을 맞았다.

"반갑습니다"란 인사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곧바로 사진 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웃음을 띤 밝은 표정이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지리산 뱀치산 대장이었던 이현상키의 퇴출판 이상진키가 나와 금대통령 내외의 안내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걸걸살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남기 등을 회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금대통령이 먼저 "비행이 대단히 손조였다. 날기도 서늘과 경안이 모두 좋았다"고 하자 김영남 위원장은 "자연 기후도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해뒀을 주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어 "금대통령이 오늘 북측원차를 탔지만 남과 북이 이제 통일갈차를 함께 탑 날도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리랑" 연주 관람=만수대 예술극장으로 이동한 금대통령 내외는 김영남 위원장 부부의 환대를 받으며 극장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북한 고향악단의 연주를 관람했다. 이희호 여사 옆자리는 각고한 몸담 여동생(金蓮花)선생의 딸 여원주(元蓮主)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동석했다.

북측 최고를 자랑하는 남성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군악곡 "아리랑" "청산별곡" 공연이 완연 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북한 민속 무용인 여성 군무(群舞) "강산"을 비롯, "천안삼거리" "카츄" "장구춤" 등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뒤 금대통령은 출연진이 도열한 무대 위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적힌 대형 꽃바구니를 건넸다고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환영만찬=오후 7시10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석로 인민문화공전에서 개최됐다. 손님을 모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대통령은 갈색 양복에 밝은 하늘색 넥타이 차림. 이희호 여사는 흰색 바탕에 보라색 띠를 두른 흰복을 입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의 탄복을 기원한다"고 건네며 개회했다.

금대통령은 답사에서 "이토록 기적에 동모가 삼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 힘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고 금강 반문의 강화를 격려했다.

금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뱀길을 열고 하늘 길도 열어가기"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우리측 참가진도 이례적으로 김시 초대를 받아 1백90명의 대표단 권위과 북측 주요 인사 3백여명의 참석했다. 헤드 테이블에는 금대통령 내외와 김영남 상임의 원장을 비롯해 남북 주요 인사 18명이 앉았고 연회장에는 모두 37개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남북 양측 참석자들은 테이블마다 섞여 앉아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별을 지었다는 "유류날개달(여수리 왕가담)"을 돌려 대화를 나눴다. 공명동지단

# “김정일 듣던 것과 너무 달랐다”



## 남북 정상회담

### 시민들이 본 김위원장

시민들은 13일 TV로 생중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특히 국민을 영접하는 못처럼 차고는 피격적인 그의 복장에 놀라는 모습들이었다.

김태익(46·회사원)씨는 “소위원장이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다. 복장이 저대해서 어드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소위원장의 옷차림이 격박이 어드나는 것만 어드나라고 말한다. 그가 입은 옷은 경주에 인민복과 함께 즐겨입는 건복복이다.

### ‘고압적인 독재자’ 고정관념서 탈피 “여유있는 카리스마” “자기연출” 양론

한 북한 퍼슨지는 “소위원장을 인민복과 건복복을 즐겨 입으며, 그 이유는 소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고도의 자기연출이라는 것이다.

늘라운 검은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은 것이다. TV를 지켜보던 김정민(29·주부)씨는 “형상 착용하는 김일성 배지가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의 편용연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정주(38·주부)씨는 “소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근엄하게 보이기 위해 대의 무대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입고 있었다. 그러나 투병 인연을 쓰고 나와 외위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장은 시력이 안 좋아 두꺼운 근시용 안경을 쓴다. 그러나 밤 늦게 잠드는 습관 때문에 눈이 충혈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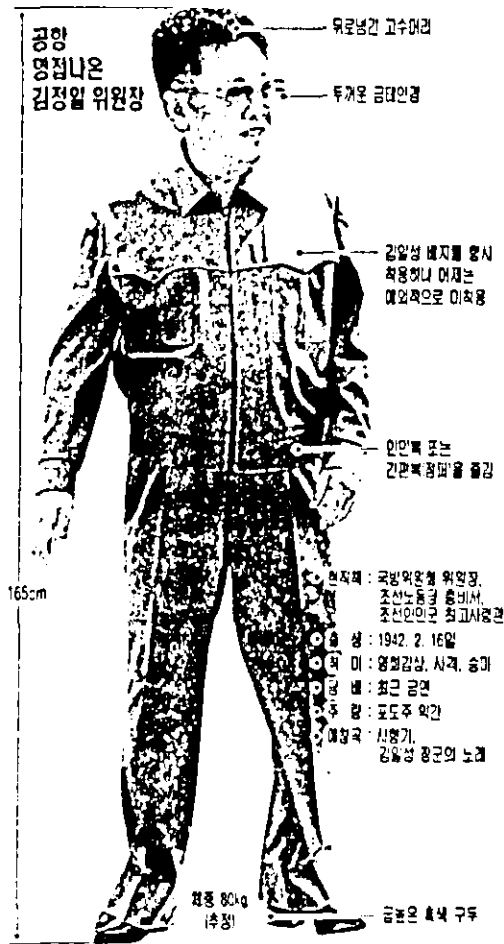
그의 모습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구두의 굽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m 65㎝로 추정되는 소위원장의 작은 키에서 굽 높은 구두를 선호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동작이다.

박영희(31·주부)씨는 “소위원장이 다소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밖에 편안한 자세와 웃음, 입말이 소대행령을 안내하는 자연스러운 손짓, 손과발과 함께 동충하는 자세 등은 그동안 시민들이 갖고 있던 ‘고압적인 독재자’라는 소위원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한 과격적이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 서울 프레젠테이션 표정

13일 오전 10시25분경.

김대중(金大宇)대통령 일행이 탄 대통령 전용기가 경강 순안공항에 안착하는 순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프레젠테이션에서 순숙인 채 역사적 장면을 지켜보던 1천3백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은 너나없이 우레와 같은 손박을 치며 환호했다.

김격 어린 박수는 33분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을 때, 36분쯤 김대중이 트럭에 발을 내디딜 때, 37분쯤 남북 정상이 감격의 악수를 나눌 때, 49분쯤 남북 정

### 외신기자들도 흥분... 박수...

#### 安着 순간 숨 죽인 채 취재 호텔노조 “농성장소 이동”

상이 한 순숙하에 동승할 때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터졌다.

기자들은 “아재 흥분로 가나 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기자들은 눈물을 흘렸거렸다.

중국 신화통신 서울분사 카오리오펑(高麗平)기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양국의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毎日)신문 사야다 카스미(春日かすみ)서울특파원은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며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큰다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맞새게 호텔 건물 앞에서 파업 농성 중인 노조원 7백여명도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14, 15일엔 농성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며 온 국민의 축하분위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박신홍·이경희 기자 <jibeon@joongang.co.kr>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거침없는 태도속 예의갓춰

### 김정일의 스타일

#### 최고 지도자 자부심 南 수행원에 능담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3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의전(儀典)상의 파격은 그보다치고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맞은 그는 더이상 대중을 과한다는 '은분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런 만난 뒤 평양 대표단과 취재진 사이에서는 "다소 광범한 목소리로 하고싶은 얘기를 조리있게 쏟아내고, 좌중을 휘어잡는 수완 또한 탁월했다" "만나보니 극히 정상적인 수반(首班)"이란 평가가 흘러나왔다.

다소 과장된 듯한 제스처와 빠른 말투는 이날 공항 영접과 백화원 영빈관 만남에서 또렷이 전해졌다.

붉은 의전 카펫을 따라 금태풍령을 안내하면서 손가락으로 이곳 저곳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연신 호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이런 웃음과 복한 내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공항영접시 김위원장의 주변에는 근접경호원 외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권려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또 그는 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원 행에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었고 때론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는 오랜만에 짙은색의 선글라스를 벗어던졌다. 이날은 약간 색감이 틀어간 금태안경을 썼다.

환갑을 두해 남겨둔 나이 때문인지 눈가에는 주름과 갈매기도 눈에 띄었다. 오히려 자연스런 모습이였다.

다만 머리는 염색을 한 듯 지난날 중국방문 때보다 흰 머리가 적어보였다.

특히 남북 체제가 다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금태풍령이 방문한 만큼 "조선민족의 동방예지국의 예절 다 갖춰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표정은 인상적이었다. "나는 통치할 하고 있지만 더 잘다"는 언급도 했다.

#### 통권 지도자

- 전격적인 의식 결정
- 큰 제스처·호방한 웃음
- 대형 건설사업 진행
- "광복절" 주안 홍보

#### 김정일 스타일과 이미지 전략



#### 세계적 지도자

- 국제무대 적극 부상
- 미디어는 행동 과시
- 여성(이희호 여사)·연장자 배려
- 중국 방문 등 대외활동

#### 통일 지도자

- 남북회담 주도 인상
- 정상회담 수용과 DJ연대
- 통일관련 논문 발표
- 서울 방문(대방)

이같은 자신감은 김위원장이 측근들을 부릴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자신보다 여덟살 위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통일전서 담당)를 부릴 때 "용순비서"라고 호칭했고, 김용순 비서는 이에대해 깎듯이 예의를 갖췄다.

김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낸 것.

그는 남한 시장에도 밝았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박재규 통일부장관에게는 "TV에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우리 TV를 안방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도. 심지어 공항 영접 한시간 전에 서울에서 보도된 금태풍령의 아침식사 메뉴인 계란반숙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이같은 변신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가 보여준 잠깐 동안의 화면에 교도의 이미지 부각 전략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중 기자

<yjlec@joongang.co.kr>



남북정상회담

# 부정적 이미지 일소 세계 외교무대 데뷔

김정일 위원장

공화영접 숨은 뜻

55년 남북 분단의 벽을 넘는 세기의 장면은 과격으로 시작했다.

13일 평양 순안(順安)공항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 직접 영접은 북한 의전에서 전례없는 일이다.

김위원장은 1992년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양상문(楊尚文) 중국주석을 맞을 때 정칙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함께 평양역에 나가 간 마지막 영접행사. 김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외빈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대통령 환영행사는 놀라움과 충격을 줄 만했다. 그런 속에서 김위원장은 배일 속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과시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국대 강성윤(姜成允·북한학과) 교수는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세계를 향해 '폐쇄적이고 위협하다'는 부정적 인상을 일소하는 이미지 전환의 극적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것은 우선 '체제유지'와 '개방'에의 자신감을 강력히 각인하는 데 비중이 두어졌다. 밥을 동동 구르며 '김정일'을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김일성 사후 체제유지에 성공한 그의 권위와 압축해 보여줬다. 백화원양빈관까지 6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열렬한 연도 환영인파도 김위원장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개인적 권위와 함께 김위원장은 섬세함·다정함·치밀함·여의 등의 개인적 이미지와 닮아있는 짜임새 있고 준비된 모습도 과시했다.

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비행기 트랩 밑에 홀로 서 김대통령을 맞았다. 영접 내내 김대통령의 두세 겹을 뒤쪽을 유지했다.

코너를 돌 때는 잠시 서서 김대통령 내외에게 손짓으로 인도했다. 다리가 불편한 김대통령을 흠뻑흠뻑 쳐다보며 뇌폭을

조절하는 배리도 했다. 북한의 화동(花童)들은 과거 김일성 주석에게도 꽃을 주었으나 이번엔 김대통령 내외에게만 꽃다발을 증정했다.

과격은 이어졌다. 먼저 승용차 좌측 문을 열고 기다리다 김대통령이 상석에 앉은 뒤 동승하는 장면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동양적 인품을 갖췄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는 당초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성명을 예정한 연설대도 마련됐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등장에 따라 DJ 도착성명의 직접 발표는 생략됐다. 김위원장이 답사를 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의전문제에 합의가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 DJ 뒤에서 보폭 맞춰

### '동양적 인품' 과시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행사가 김위원장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초점이 맞춰져 공항 현장발표가 생략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교수는 "몽 근 정치의 의미하는 광복(廣福)정치와 인덕(仁德)정치를 표방해 온 김위원장이 특유의 대담성으로 서방 외교무대에 본격 데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위원장의 과격은 개방과 개혁을 위해 북한에서 탐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위계한다는 것.

통일연구원 정영태(鄭永泰) 북한연구실장은 "전세계를 향해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개방'의 의지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읍 들어 이탈리아·호주와의 수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가입으로 전방위 외교에 나섰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제거를 목표로 기업경영의 효율화, 인터넷 등의 정보화 사업 도입, 인프라 구축 등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鄭실장은 "극도의 신비감에 싸여 있던 김위원장이 친근한 이미지로 자신을 부각시킨 것은 정상회담에서도 무언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 北TV 金대통령 도착등 생생히 보도

북한 조선중앙TV는 13일 오후 7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일행의 순안공항 도착 및 평양 시내를 도는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도했다.

뉴스 앵커는 "역사적인 평양 상변과 북한 최고위급회담을 위해 남측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오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는 말로 보도를 시작했다. 화면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앵커는 이번 정상회담이 "4·8 북남합의서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전향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계

기"라고 말했다.

방송은 또 박재규(朴在圭)총일부·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임동원(林東源)대통령특별보좌역 등 김대중의 수석원 이들을 거명했다. 이와 함께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최대복(崔泰福)·김국태(金國泰)·김용순(金容淳)당비서 등 북측 영접 인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방송은 그밖에 김대통령이 "서면으로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공항에서 도착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대에 대한 배려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공항 사열식 때 장현 명예위원장이 대화가 "강애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정렬하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경례한 모습도 이채로웠다.

북한 TV를 지켜본 정진홍(鄭鎭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보도 멘트나 카메라 앵글 등을 보면 이번 회담은 진적으로 김위원장 이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달술(金達洙)전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은 "화려한 의장대 사열 보도에 이어 시내에 많은 환영인파가 나온 것을 TV로 보여 준 것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 최선을 다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고 말했다. 배종렬(裴鍾烈)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 金대통령 출발성명 (全文)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기에 오르고자 합니다. 평양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원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기까지는 무엇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염원과 성원의 힘이 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따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물론 지금 전세계가 남북 정상회담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만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이상 대결로 일관해 오던 남과 북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해도 풀고 상대의 생각을 알고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해가 커질수록 평화와 협력도 커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번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정상회담으로 남기거나 남북의 채임있는 단국자에게 계속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이번 평양방문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천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평양방문이 정치·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이번 방문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화합의 징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평양방문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민족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평양 도착성명 (全文)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산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땅을 밟지 못한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갖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천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우리 일행을 초청해 주신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치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녘동포들의 따뜻한 안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녘 동포가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저의 회담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북녘동포 여러

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으로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에게 평양시민과 북녘동포 여러분의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시도.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공개된 北 경호 모습

남북 정상회담

군복차림에 권총 찬 6~7명  
금위원장 5~10m내 근접호위

13일 오전 평양 순안(順安)공항에 는 남북 경호팀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사상 첫 합동 견호다. 김대중 대통령 오후 두 길음 뒤에는 청와대 안주심(安周心)경호실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양측 차림의 무리속 경호원 4~5명도 김대중영웅 흉상으로 3각형 혹은 4각형을 이루며 바짝 붙었다. 김진외 국방위원장 주위에는 군복 차림의 호위총국 소속 경호원 6~7명이 금위원장을 근접경호했다. 이중 두 사람은 금위원장과 똑같은 복장으로 그를 따르며 최근집 경호를 맡았다.

두 정상이 탄 캐딜락이 공항을 떠나는 순간에는 군복 차림의 경호원 4명이 양쪽으로 나눠 차에 붙어 힘껏 달려왔다. 비슷한 종류의 '위장' 차림도 뒤따라 움직였다.

특히 금위원장의 5~10m 반경 이내 경호원 중에는 '국제 군인체육대회' 사격과 근대5종 부분의 우승

자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호위총국장 이을섭(李乙燮·79)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금위원장의 동선(動線)과 경호시스템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군복 차림의 노출경호는 국방위원장이란 직함 때문이다. 여기에다 권총을 허리춤에 시위하듯 찬 것도 일반적인 정상외교 의전현장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다.

또한 리시버 등 무선장비를 갖춘 경호요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만큼 경호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직 청와대 경호실 인사는 "금위원장의 공항 영접이 갑작스러워 장담 못 약속 경호팀 간에는 손뼉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측 경호원이 서로 엇갈리게 위 치를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

20년 넘게 北국민안내 총괄 의전전문가

機內 영접 전희정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기내에서 영접한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시인이 안치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외사극장 전희정(全熙正·사진)씨로 확인됐다.

소씨는 오랫동안 의전분야에서 일 해온 전문가로 1980년부터 주석부 외사극장을 맡아 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해왔으며 김주석 사후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고위간부나 외국인을 안내 하는 외사극장으로 일해왔다.

이번에 공항영접의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그가 금위원장의 의전 담당 비서 역할도 하는 것으로 관측 된다.

1930년 3월 북한 강원도지역에서 출생한 소씨는 50년대부터 외부상에



서 근무하면서 주(駐)캄보디아 대사관 1등 서기관, 주 몽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70년대 중반부

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전을 총괄하는 의례(의전)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의전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주석부 외사극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주석을 수행해 중국(82년), 소련·동유럽 8개국(84년)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씨는 80년 당중앙위원, 82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김일성훈장' 등 각종 훈장과 상을 받기도 했다. 정창현 기자

'평양보따리' 뭘까

최은수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측 영접사상·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와 극진히 예우하는 '파격'을 보인데 이어 함께 밴츠승용차를 타고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하면서 40여 분 간 '차내(車內) 정상회담'을 벌였다.

60만 인과가 불러 엄청난 환영을 표시했고 두 정상은 몇 차례 서로 손을 잡고 "잘해보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히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해공로 연결 논의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

김 대통령이 왜 남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다. 2박3일 동안 세계에 대담해줘야 한다. 내담을 주는 사람이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기 바란다"라는 말을 던짐으로써 말의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북한측 분위기로 보아 당초 남북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14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재회, 상호 서신교환, 상시 대화 채널 구축,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경제교류 본격화 등에 대한 폭넓은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일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꿈꾸고 있는 '평양평화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수속  
北, 회담기간 중단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회담기간 북한의 국경초소와 세관을 통한 모든 외국인 출입국 수속을 중지한다고 광안 주재 각국 공관에 통보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3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또 평양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회담기간에 한시적으로 북한을 떠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환구시보는 밝혔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겠지

꿈속의 귀향—,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겠지, 내일모레 돌아갈 요향으로 내려온 게 벌써 50년이 흘렀어. 허리도 굽고 검은 머리 피뿌리웠지만 헤어친 가족들에 대한 기억만은 생생해, 살아 생전 고향길이 열리겠지. (이상원 작 '염원')

# 南北정상 직통電話 설치

◆ ◆ 1차회담 ◆ ◆ **金대통령 “이산가족恨이젠 풀어줘야”**



##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낮 속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자”면서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2차 정상회담을 14일에 하기로 했으며, 김대중의 평양일정 2박3일 동안 남북한 현안에 대해 격시없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金대통령과 金위원장은 오전 11시45분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직후 남측에선 박재규(朴在圭) 통일·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과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 등 공식 수행원 전원이, 북측에선 김용순(金溶鈞) 아태경협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金위원장은 “세계가 金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金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하고, 대답을 주는 사업에 金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金대통령은 “金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시민이 환영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金위원장은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金대통령의)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특별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배운 환영연 만찬사에서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노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 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평양 도착 상봉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면서 “저는 金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만수대 의사당으로 김영남 위원장을 예방하고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홍콩의 타임스퀘어에서 13일 행인들이 거리 전광판 화면에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홍콩 AP·4인]

## 中·日·러·EU “환영... 성공기원”

[베이징·도쿄·모스크바=유상철·오영환·김석환 특파원]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13일 중국·일본 등 주요국 관리들은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잇따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濤) 수석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진일보한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바란다.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오키 미카오(青木幹雄)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양측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회담이

인민에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부차관은 이타르-티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회담이 직접적인 대화가 시작돼 양측이 긴밀적인 재인들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피터 김포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이번 회담이 남북간의 냉전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cyou@joongang.co.kr>

## 東亞日報

2000. 6. 14 (수)

### “남북한 회담 모델로 兩岸문제 해결해야”

대만, 中에 촉구

대만(중화) 정부는 13일 중국과 대만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측이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모델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내각위원회 린중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정

상회담은 대만과 중국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정치적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만과 중국은 회담의 사례를 엿이나 가아 한다”고 밝힌 쉐수이벤(陳水扁) 총통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중국은 대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안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濤) 대변인은 “대화를 재개하기 이전에 대만을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부 문제로 독립이나 남북한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대만이 독립과 남북한 문제를 양안 문제 해결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재봉인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베이·베이징시정판>

# “햇볕정책 결실... 봄이 오는 한반도”

## 美, 김정일 공항영접 주목

## 日 “체류기간 늦출수도”

## 英, 닉슨-毛澤東 만남 비유



해외 언론 반응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13일,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김위원장이 여상을 깨고 공항까지 직접 영접하는 사실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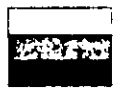
◇미국=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13일자 1면에 김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사진을 크게 실었다. 뉴욕 타임스는 1면 머릿기사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둘러싸고 서울은 흥분해, 평양은 조심스런 긴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수께끼같은 김위원장이 여상 밖으로 공항에 직접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CNN은 북한 순안공항에서의 대대적인 영접 행사와 두 정상이 두 손을 한동안 맞잡고 있었던 것 등 현지 표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CNN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북한 분단 상황·정상회담 개최 과정·통일 가능성 예견 등을 심층보도하는 특집 기사를 신기도 했다.



◇중국=평양에 특파원이 상주하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오전 9시31분 평양발 긴급 뉴스로 김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통령을 직접 영접할 것이라 사실을 처음으로 세계에 타전했다. 신화사는 또 이 날짜 한국 중앙일보의 사설을 인용, “한국 시민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며 한국 언

론들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들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은 낮 12시 중교 뉴스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내보내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러시아=이타르-타스 통신이 평양발로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 사실을 전송한 이후 N-TV 등 주요 방송들이 전송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소련 국가를 포함, 전 러시아 연방에 송출되는 국영 ORT-TV가 오전 9시 뉴스 시간에 “김위원장이 여상과 달리 의견상의 사전 합의를 깨고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출영해 김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전했다. 또 보도 마지막엔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RTR-TV는 조금 늦은 9시13분부터 태평양지역 발레리 비노그라도프 기자의 해설과 함께 회담 사실을 전하고 과거 회담이 합의했다가 김일성(金日成)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된 사례와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 고조,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장면, 남북 이산가족들의 예환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영국 BBC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이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이 마오쩌둥(毛澤東)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방송은 이번 회담의 성사는 김대통령이 서해

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97년 취임 이후 굳건하게 추진해온 과감한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공영 방송인 NHK는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 환영행사를 생중계했으며, 매시간 속보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것은 남북 신뢰 구축의 제 1보”라고 전했다. 신문들은 이 날짜 석간에서 두 정상의 만남과 회담을 사진과 함께 모두 1면 머릿기사로 올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남북 정상이 악수’라는 제목의 1면 통단 제목 아래 두 정상의 만남을 전하고 2면과 18면에 관련 기사를 급변하는 가운데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극히 주목된다”고 분석하고 “김위원장의 여상을 넘는 연출이 눈에 띄어 김대통령의 체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모두 4개 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다뤘으며 3면은 관련 사진으로 채웠다.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은 2개 면에 걸쳐 관련 뉴스를 다루고, 남북 정상이 현대의 리무진에 동승한 것은 외교 의례상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北SOC 개발 10년간 73조 든다

건설산업연구보고서 추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 경제사업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1993년 기준으로 북한의 SOC 시설은 남한의 75년도 수준에 그칠 만큼 열악한 상태여, 이를 남한의 90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3년간 무려 73조원의 건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목표를 남한의 80년도 수준으로 낮춰 잡을 경우 약 20조원, 85년 수준이면 44조원의 건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북한 SOC 현황과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보고서는 대북진출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돈(투자재원)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SOC개발에 얼마나 드나=북한의 SOC 수준은 전체적으로 남한의 75년도와 비슷하다.

## 정부 재원으로 한계... 外資 합작등 필요

보고서는 우선 북한 SOC가 남한의 80년 수준에 도달하려면 전체 시설이 12.2% 늘어나야 하며, 2010년까지 10년간 19조 7천 4백50억원이 투자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발전 설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도로는 5%, 철도는 7%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85년 수준은 SOC가 27.4% 늘어나야 하며 44조 3천 6백억원의 잠재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90년 수준의 경우 41.8% 추가 확충에 72조 5천 7백50억원의 투자수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가지 시나리오는 북한 SOC 투자개발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 그만큼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활발한 경제회복과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진출 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남북 SOC 협력사업의 초기 5년간은 북한에 75년 가량의 산업단지(3개 대단지 규모)

와 이종 지원하기 위한 발전설비, 한민시설을 확충하는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정 아래 2006년까지 SOC 건설사업의 잠재 건설투자 규모는 3조 4천 1백90억원(순공사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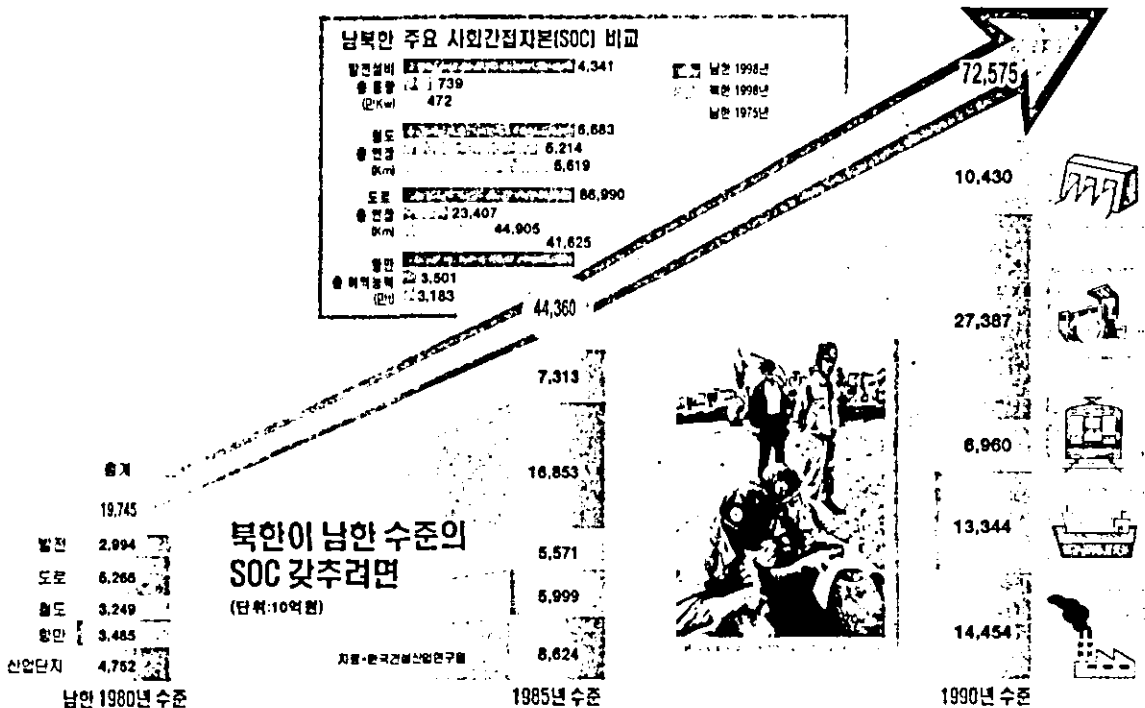
◇문제는 돈=북한 SOC개발사업은 이처럼 돈이 많이 든다. 초기에는 정부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민간기업의 투자가 따라야 한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창의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외국자본과의 합작·합작에 의한 대북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기업과 한전·도공·토공 등 공기업의 합작진출을

격극 추진하면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유리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용 법이기보다는 북한에 과잉이 큰 SOC시설, 즉 발전·항만·산업단지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철도·도로·공항 건설사업을 점차 연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태훈 기자 <lhoon@joongang.co.kr>





남북 정상회담

# 남북화해 발걸음

## 전문가 좌담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이대로 끌고갈 것인가, 중앙일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북한 전문가의 눈높이로 정밀 분석하는 남북 정상회담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 <참석자>

- 김달수(金達洙) 전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 배종렬(裵鍾烈) 수습임업생 선임연구원
- 정진홍(鄭鎭洪) 한국여송종합학교 교수
- 김용호(金用浩) 연세대 BK21연구 교수
- 유완영(俞完榮) IMRI 회장
- 사회: 유영구(俞英九) 통일문화연구소 통일연구팀장



평양으로부터의 실시간계 TV회면을 보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정진홍 한국여송종합학교 교수, 김용호 연세대 교수, 유완영 IMRI 회장, 김달수 전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배종렬 수습임업생 선임연구원. 오종택 기자

▶사회=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25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순안공항 영접행사부터 정리해 주시죠.

▶김달수=북한은 55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김대통령에게 최고의 영접행사를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 금국방위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왔는데 이는 파격적인 환대입니다.

또 김영남·조명복·김국대·최대복·김용순 등의 최고위급 간부들도 일제히 공항에 나온 것도 눈에 띕니다. 남북회담 업무에 30년 넘게 종사해 온 저로서는 TV 화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공항에서 조선인민군을 사열하는 것을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목할 것은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영접 행사를 끝내고 순안공항에서 백화인 연변관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가시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에 비추면 공식적인 대화보다 저렇게 격의없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아마 두 정상은 차 속에서 감일신 주석에 대한 인사, 건강인부, 날씨, 농사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김용호=공항 영접행사가 총 23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인민군 3군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정상이 다소 서먹해 하는 것 같았지만 김위원장이 군중들의 박수를 유도하고 인사말을 나누는 용이해 진인한 분위기로 풀었습니다. 또 북측은 남북기연협약서에 명시한 '북수관계' 정신에 따라 국기와 국기들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남북과 사전에 약속한 의견점차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대통령에게 국빈대우를 한 것이 놀랍습니다.

▶유완영=남북간담을 위해 평양을 자주 드니는 제 눈에도 북측이 이번 영접을 위해 상당히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순안공항은 활주로가 시멘트 포장인 데 있습니다.

그런데 TV회면을 통해 보니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깔더군요.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된 우리에게는 아스팔트 포장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석유가 부족한 평양이 아스팔트를 새로 깔려면 외국에서 아스콘을 수입

해야 합니다. 또 공항 청사엔 새로 페인트칠한 것은 물론 청사 외벽에 대형 벽화가 두개 부착했는데 이는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순안공항은 규모 면에서 김포공항보다 네배 이상 큼니다. 북한이 어려므로 이번 영접 행사에 신경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번 공항 영접 모습을 통해 김위원장이 평소 강조했던 자신의 정치소신인 '강동의 정치' '홍근 정치'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배종렬=북측은 순안공항에 약 5백명의 환영객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들의 의복이 아주 깨끗하고 화려합니다. 아마 이번 행사를 위해 새로 옷을 해입힌 것 같습니다.

또 백화인 연변관까지 약 30km 되는 연도변에 거의 60만명 이상의 평양시민들을 배치해 영접해 환영했습니다. 북측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는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북한경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해입니다. 북한은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한 해입니다. 그런데 98년은 강성대국의 건설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경제는 91년 이래 9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한 해입니다.

따라서 2000년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도약을 이룰 때입니다. 새로운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지난해 29일 김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도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은 '영양은 상대하고 최대한 실리할 거두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진홍=김위원장의 순안공항 출현은 우리측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김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부터 상대의 의표를 찌르며 기(氣)싸움에서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장은 남북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손을 머리 위로 흔드는 등 커다

## 1차회담 굵직한 논의 없었을 것 北 전력난 해결 최우선 과제

란 제스처를 써가며 자신의 호방한 모습을 강조한 것도 남북 첫 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사회=한 템포 늦은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루 연기한 것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입니다.

▶유완영=김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정찰위성에서 다 보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일 가능성이 큼니다.

▶김달수=김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오겠다는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측에서 이를 준비하느라 남한에 하루 연기 요청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배종렬=김위원장은 영화예술품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93년 이후 그의 행보를 보아도 그가 극적 효과를 중시하고 '연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도 회담을 하루 연기에 의문을 높이고 정작 회담 당일에는 기대보다 환대해 맞아주었습니다. 평양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평소 김위원장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희석시켰다고 합니다.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롯데호텔에 묶어둔 것도 이러한 연술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45분부터 1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핫라인 설치 등 일부 회담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용호=핫라인 설치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 11면에 계속

# 예상보다 빨라질 듯

→ 10면서 계속

수십년 동안 해결인간 숙제가 단숨에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점에서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 두 정상이 이번 회담기간에 남북관계의 중대한 '해답'을 마련하지는 입장으로서 절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이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홍=주목할 것은 남북의 상이한 회담 태도입니다.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온 것은 무엇보다 전례 등 예외지 문제 때문입니다.

기존의 민간 무르코는 도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번 회담에 응한 거죠. 이러한 회담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번 우리측은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만남 그 자체에 비중을 두는 등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회담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상회담이 서울 못지 않게 북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일 체제 강화 계기로 작용

## 장관급 대화채널 가동 합의 전망

▶김달술=남한 내에는 대북 강경노선과 포용정책 지지 세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균형이 왔다갔다 하는 체제 내부의 갈등이 남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 역시 남과 유사한 체제 내의 세력대립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해방론과 통일방향을 주장하는 세력 및 테크노크라트의 대립이 그것입니다.

▶정진홍=단기적으로 보면 남한체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북한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배종렬=체제 내부의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남보다 북이 더 쉽습니다. 북한체제는 남국의 통제에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김위원장은 긴장국면보다 유화국면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현재 남한에서 나타나는 화해협력 구도를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끝났을 때 주변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진홍=북한에는 굉장한 호기입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전전을 이끌 것입니다.

남한은 정상회담 갖는 것 자체가 정권의 목표가 되는 모습인 반면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차지않은 실리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종렬=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주변 국가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선거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에 어느 당이 집권할지 불분명하다는 국내정치적 이유로 남북간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는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북한에서 올해는 '승리의 해'입니다. 외부의 분석도 북한의 경제난이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개방모형을 좇아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중국으로 해외연수단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주로 통상과 국제법 분야였다는 것이 이미 한 증거입니다.

▶사회=남북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놓고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배종렬=김대통령도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있듯이 김위원장도 나름대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위원장이 "쉽잖아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한 걸로 미루어 봐서 이미 상호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호=합의 범위는 준비회담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남한은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그에 따른 경제적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양측이 이미 범위를 합의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진홍=북한에서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의 훈수 볼 틈 볼 틈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세게가 지켜보니까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김위원장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북측은 자신의 주문에 대해 남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주목할 것입니다.

일단 남측도 그 수준이 문체지 북측의 주문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통령의 출발선상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듯이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그나마 구체적인 목표로 생각합니다. 즉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북측은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상징적인 목표에 매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달술=김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주문한 시안은 크게 두가지 분야입니다. 우선 원칙 면에서 김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철폐·민족 대단결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 실리면에서 김위원장은 자신들의 최대 애로사안인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전력제공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견합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일 김위원장이 미군 철수 같은 예민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김대통령은 '아, 그런 문제라면 이미 9년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다 언급이 되었으니 기본합의를 잘 가동하도록 합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양측의 이런 협상전략을 감안할 때 타협이 잘 안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마 양측은 두 정상이 지명하는 장관급 남북 대화채널 가동에 합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 가동을 위한 장관급 채널이 정례화되는 것이 지요.

그러나 이런 협의가 정상회담 첫날에는 힘들 것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구체적인 키드를 열거에 앞서 먼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메인 게임은 아무래도 14일과 15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14일부터 본격화된 두 정상의 단독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가 정상회담 첫날에는 힘들 것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구체적인 키드를 열거에 앞서 먼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메인 게임은 아무래도 14일과 15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14일부터 본격화된 두 정상의 단독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최원기 기자<brent1@joongang.co.kr>



김달술

北도 강은세력 대립



배종렬

北한대 實利노린 것



정진홍

우리 회담목표 추상적



김용호

북한 中모델 따를 것



유완영

안전문제로 회담 연기

## 아! 통일이여

## 취재기록

13일 오전, 기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송식을 취재한 뒤 택시에 올랐다.

택시기사는 "평양행 비행기가 출발할 모양이요"라며 영문을 알았다. 택시기사는 이어 친날 한 할아버지 손님 이야기할 까맣다. "실형인인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제 택시를 탔어요. 이날 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건강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였어요. 노년진 수산시장에 뒷감을 사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중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병인 식당을 보더니 고광생각이 나셨는지 무척급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에 없던 일이라 가족들이 반듯이 왔지만 부모 기누기 힘든 할아버지는 관내 고집을 쥘지 않았다고 한다.

"하도 안쓰러워 제가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몽원이 되면 이 택시로 고광까지 보시켜 드릴게요'라고 위로했죠. 밤샘도 제대로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족들도 울고, 지도 울고..." 어느새 택시기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평양, 55년의 세월동안 일머리지만, 때로는 건실으로 의지했던 할아버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한기담 남아있

는 간절한 소망이 었다.

서울공항공 출국하기 전 방북 수행원들은 한결같이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모든 본제를 이번 한 번만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남과 북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7천만이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은 남과 북의 치밀한 이해관계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날 남과 북의 동포들은 이런 믿음이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공항공 환송식과 평양 순안공항 환영식의 지기인 국민들 대부분이 가슴 뭉클함을 느낀 것이 그 예다.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 노래속에서, 평양 주민들의 '반세' 합창속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성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TV를 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불신과 미움과 오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7천만이 하나가 된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남국 정치부 기자  
nkkim@hankyung.com



## 한겨레

### 투자포인트

## 남북 정상회담에 가린 약재 부상 조정국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고, 결국 큰 폭 하락해 마감했다. 장세의 안전판이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사라지자 매수주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됐다.

남북 정상회담이 새로운 호재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만간 신용등급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재경부 발표와 한은총재의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이 투자 심리를 다시 악화시켰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실적악화 우려가 아시아권의 통신업체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 또한 첨단대형주의 하락을 유도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국면을 탈리하며 새로운 뉴스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되나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호재

보다는 약재에 민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7월 시가평가 전연말시사가 다가오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한계기업의 신용경색 또한 투자심리를 압박하는 약재로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및 개인자금 유입으로 수급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7월 이후는 자금시장 또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시세 불안은 금등뒤에 나타나는 조정국면으로 판단된다.



오재열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  
ykeung@samsung.co.kr

## 世界日報

## 중앙일보

## 설왕설래



북한에서는 평양을 가리켜 '혁명의 수도이며 혁명의 심장'이라고 강조한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이 발전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심양민에게는 평양이아말로 고향산천의 대명사이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도시다. 평양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단군 기자 위만 등 3국 조선의 도읍지였다.

그 후 고구려 장수왕 14년(서기 427) 국내성(國內城)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후 668년(보장왕 27) 낙랑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240년 동안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다. 시의 중앙을 흐르는 대동강과 그 지류인 합장강과 보룡강이 합류하면서 논라도(龍嶼島) 양각도(羊角島) 등의 섬이 강가온대 그림자처럼 떠 있다. 평양의 상징인 대동강은 주변의 강관이 빼어나 예부터 이름난 시냇물이 이곳을 찾아 풍광을 노래한 것만도 100여편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고려의 시인 정지상(鄭知常)이

셋살 때 대동강의 오리뽑두고 읊은 "뉘리서 붓을 잡아 새 울(乙)자를 물위에 그렸던고"라는 명시는 여전히 연구에 회자된다.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역사적인 유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을 조화시켜 고도(古都)로서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잘 보존시킨 것은 놀랍다. 유적으로는 국보 1호인 대동문은 비롯, 동명왕릉(국보 18호) 강서대묘(국보 3호) 등 국보급 문화재 50점, 보물 1호인 평양성을 포함한 문화재 53점이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비교적 원형을 잘 지니고 있다.

대동강으로 널리 알려진 유민대와 부북루는 사적 7호와 10호다. 동명왕릉은 1980년대 중반 대대적으로 성역화했으며 강서대묘는 1400여년 전 고구려 때 그려진 벽화가 남아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남북 두 정상이 만난 평양은 심양민이 영원한 고향의 상징이다. 그곳을 찾아 하루속히 혈육상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평양

## 南北經協기금 5,000억 증액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경험기금은 통일부 요청대로 5천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경협이 전향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편성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최근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5천억원의 남북 협력기금 증액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계열 기자 <babybear@joongang.co.kr>



### 북한서 소자본으로 돈버는 법

#### '평양 비즈니스' 떠난 脫北者 윤웅씨

남북한 간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탈북자 출신의 벤치 사업가가 '북한에서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을 13일 펴냈다.

윤웅(34·평안 윤승재)씨가 출간한 '평양 비즈니스 아이디어 100'은 소자본으로 평양에서 창업할 수 있는 1백가지 아이디어뱅크다. 비롯, 대북 투자 관련 남북한 법규,



리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평양에는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탓에 빛 못보는 발명가·한의사·요리사·디자이너·문화 예술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생각도 많지 않아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소자본 남북 결합'의 관건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대북 투자에 관한 집의·음담 등 총 4부로 돼 있다.

아이템뱅크에는 북한의 고급 인력 광물 생산을 비롯해 평양에 있는 음식점·종교시설·유용문화시설과 북한의 관광지·온천·숙박시설·문화시설·지하자원 등 거의 전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를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함께 소개했다.

책에는 "남성 권력이 몇몇 대기업·연구소나 특정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북한의 유망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널리 알

리키는 1993년 10월 평양 철도대학 재학 중 두번장을 넘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 96년 북한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대우T&C를 차려 대북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해 왔고 요즘엔 새로운 인터넷 정보사이트 개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치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윤씨는 서울 강남에 북한냉면집 1호 육류관을 열어 회제를 모으기도 했다.

글=홍승일 기자, 사진=김성용 기자 <hongsi@joongang.co.kr>

### 南北협력기금 내년 5천억 증액

#### 기획예산처 검토-보건지원 55억 별도책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과 대외협력기금(EDCF) 등 대북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부처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 5000억원 증액하고 대북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9700억원이 조성돼 현재 5300억원이 남아있으며 통일부 요구액이 모두 반영될 경우 가용재원은 1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대북보건분야 지원은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금의 사용지를 지정, 출연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북한의 면역체계조사, 백신 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자재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은 보건

상태에 대한 조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의 조사인력 파견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반기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요구한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부처 예산을 전방위로 필요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의 가용재원을 감안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EDCF와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 고쳐 대북 지원사업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kmb.co.kr



◇"우리도 北韓 갑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북한방문길을 수행할 구본우(具本茂) LG 회장(앞줄 맨 왼쪽)과 손길승(孫吉壽) SK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경제계 인사들이 13일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종필기자 gibong@chosun.com

### 南北협력기금 5000억 증액요청

#### 통일부 내년 예산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통일부가 최근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5000억원 늘리고 대북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립 지

급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 증액이 이뤄지면 현재 남아 있는 적립금 5300억원까지 합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된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朴用根기자 ykpark@chosun.com

**북한학자에게 의뢰해 번역한  
'동국이상국집' 인터넷에 뜬다**

한국학 사이트 '코리아5000'

7월 개설·누리나 검색 가능

국내 처음으로 북한학자에게 번역을 의뢰해 만든 한국 고전학자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일반에게 공개된다.

누리미디어가 오는 7월 중순 개설할 한국학 전문사이트 코리아5000([www.korea5000.co.kr](http://www.korea5000.co.kr); 작업 중)이 바로 그것. 이 사이트는 고려시대 대문장가였던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을 비롯해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광명대장경·발해사·고려사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 CD롬 두개로 제작돼 첫선을 보인 '동국이상국집'은 1백만원이나 해 대학 도서관과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는 데 그쳤다. 그러나 사이트가 개설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 '동국이상국집'은 누리미디어가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고려민족문화연구원을 통해 북한 학자와 정식 계약을 하고

한글로 옮긴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더욱 눈길을 끈다. 누리미디어측은 "북한 사회과학원·과학종합백과사전종합출판사·문화예술종합출판사 등에서 고전 전문번역자 1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측이 남한 출판사와 계약하고 대규모 번역을 수락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번역판 '동국이상국집'은 남한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번역이 가능한 한 원문의 내용을 살리려라 한반의 쓰임새가 많은 반면 한글성용의 언어 경계를 쓰는 북한본은 한문투를 버림으로써 읽기 편한 문장으로 꾸며져 있다. 예를 들어 반추가 '오래 낡아서 일매이면 몸이 원기를 손상하는데'로 번역한 부분을 '문헌독음에 매달려서 정서를 손상하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옮기고 있다. 누리미디어측이 번역을 북한에 의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리미디어가 개설하는 한국학 전문 사이트는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시간에 따라 비용을 내게 된다.

**한국일보**

2000. 6. 14 (수)

**남과 북 '생중계 협력'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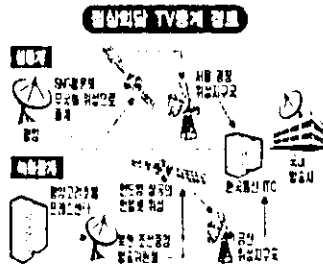
북한중계차 이용...용어혼란도

화면전송방식 우리식으로 변한

대한 오찬 생중계한 차한 송신국에서의 남북 중계의 첫번째 장면은 디지털 화면 TV의 뒤러를 삼각형이다.

세계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도청장관과 대담을 위해 매체위임권으로 열리는 중앙 방송사까지의 모습을 양방향에서 생중계 시청할 수 있었다. 예전에 없이 김정은 국방위임권이 중앙 송신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은 차에 대한 이동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은 북한채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번 생중계는 국내 이동생중계방송차(SNG)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송사장 회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방송화면전송도 사용했다. 김대중위원의 개인도청장관은 우리측 카메라맨 3명이 북한중계차를 이용, 카메라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카메라맨과 북한 카메라맨은 서로 형이 가질 약간의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에 잡힌 화면은 일단 북한이 사용한 K-1 방송망(사시)에서 우리측 방송(NTS)으로 변신했다. 이어 SNG를 통해 방송화면 전송으로 보내지고 다시 서울 광화문 위성지구국을 거쳐 전국방송국 위성TV센터(ITC)에 도착한 화면은 KBS MBC SBS YTN 등 각 방송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 롯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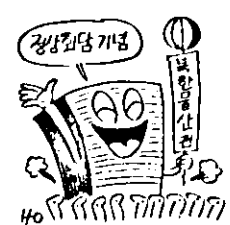
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는 북측에서도 전세계로 보내졌다.

기자들이 취재한 녹화장은 인도양 상공의 인공위성을 이용한다. 일단 화면은 중앙 고려도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보내진다. 중앙 방송국과 북한에 위성지구국을 거쳐 인도양의 인공위성을 통해 남한 위성지구국에 도착하고 ITC를 통해 각 방송사로 보내진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오후 2시50분을 발인된 평양 시내 스페셜 생중계는 녹화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평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상위임권채를 위해 구성된 이동방송차 규모는 취재기자 6명, ENG(카메라 5대) 8명, 화계요원 10여 명 등 모두 25명이다. 기자들의 고통은 4시간 기자취재를 고통으로 하는 "뭉개도"로 이뤄지며 취재 내용은 소속사와 상관없이 "합동방송"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행진기획자 khmaeng@kmb.co.kr**

**@마트클럽**  
**北 농산물 '잘 팔리네'**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각 백화점이 열고 있는 북한 물산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호두 표고버섯 등 농산물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농산물을 제외한 그림 수예품 등은 매출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물산전생애 열고 있는 롯데백화점에서는 호두 표고버섯 오미자 참기름 등 농산물이 잘 팔리고 있다. 개성인삼주 백로주 등 북한산 술도 인기몰이. 이들 상품의 하루 매출은 1천1백만원에 달해 지난해 행사에 비해 50% 가량 늘어났다.

**백화점 '북한 물산전' 그림·수예품은 저조**

또 16일까지 북한물산전을 여는 현대백화점에서는 원산의 권로부(4백 50g 당 1만원)가 하루 평균 2백만원 가량 팔린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나산의 표고버섯(1백20g 당 4천원), 평안 북도산 고구마 줄기(3백50g 당 4천원) 등도 매일 1백만원이치의 팔려나 가고 있다. 용방원 석공품 답장은 "평소 식품매장 행사때 하루 매출은 1천만원 수준이나 남북 물산전에는 실감만큼 팔리지 않아 평균 2천만원의 실적 정도로 실적이 좋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북한물산전"을 열고 있는 LG백화점의 경우 송화가무명대 등 농수산물에 인기장목인 반면 명주 공예품 등은 당초 기대에 비해 매출이 저조한 상태다. 백화점 관계자는 "북한산 명주나 공예품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떨어져 관심을 많지않은 실체 구입하는 고객이 많지는 않다"고 소개했다.

지난 한 주 동안 북한물산전을 실시했던 신세계백화점은 호두 향대 표고버섯 등을 주로 받아 하루 평균 6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예 도자기 그림 등을 찾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최인환 기자 [janus@hankyung.com](mailto:janus@hankyung.com)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청소년대표팀이 방양 농리도 5·1 경기장에서 열린 2차 경기전에서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 남북 스포츠 교류 급물살 탄다

### 시드니 동시 입장 합의 가능성 경평축구 부활등도 잇따를 듯



## 남북 정상회담

북한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13일 남북 체육교류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이전뿐 아니라 남북 양국의 해외 분야에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만으로 막대한 감입유망이 남장 기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대회에서 북측 인사들을 자주 접촉해온 김용태 국제대회장 겸 국제축구연맹회(IOC) 집행위원과 정몽준 대한 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회(FIFA)부회장이 대담성을 수행, 실무협의를 아끼고 있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10월 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입장이다. 사흘전 IOC 집행위원도 적극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현될 경우 남북 체육교류의 동풍을 부는 선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동시입장이 합의되면 권영의 경평축구와 10월 아시아컵 축구선수권대회 및 200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월드컵 본선개최와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IOC에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에서 남북 교류가 이뤄진다면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고려인권 월드컵과 북한 경기(2001년 오사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단일팀) 등 남북 국제대회를 참가 선수들에게는 물론 교류 증진의 수많은 교류 방안들도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남북 체육인사들의 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남북 체육교류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거목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원 기자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한 협정회가 북한의 이분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말 서울에서 열린 통일축구 경기. 북한의 이명훈(00)이 한국 선수들의 수비를 피해 패스를 갖고 있다.

### 10월 아시아축구선수권 단일팀 추진 통일농구 형태의 교류 앞으로도 계속

## 종목별 교류 추진 상황

### ▶축구

축구부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부회장이 정윤열 북한축구연맹 서기장과 만나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올 10월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추진.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4월 집행이사회에서 남북단일팀에 대한 남북 양측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종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북한의 전력이 우리보다 떨어져 단일팀을 구성하면 전력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각종 대회에 단일팀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월드컵 본선개최는 현재까지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북한이 경제협력 차원과 연계해 적극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씨름

한국씨름연맹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남한과 북한을 오가는 교원경기 추진에 박리지를 올릴 방침이다. 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은 남북간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는 인식 아래 씨름연맹은 지난해부터 씨름대회의 교환개회권을 놓고 북측 관계자와 접촉할 법이 왔다.

### ▶육상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개교교원 교내에서의 마라톤 남북 합동훈련이 유력하다. 남한은 이명준팀 필두로 한 남자마라톤에서, 북한은 지난해 세키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선옥 등 여자마라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합동훈련을 통한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도 노릴 만하다.

42면에 '교류' 기사 계속됩니다>

### ⇒41면 '교류'서 계속

▶농구  
지난해 연말 남북을 오가며 이뤄진 통일농구 형태의 남북교류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 아대련화위안회가 앞으로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수 선수들 국내팀으로 영입하는 형태의 인적 교류는 당분간 어렵다. 북

한 선수가 정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체제 개방에 조심스런 북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탁구  
남북간 종목별 체육교류가 이뤄진다면 '0순위'로 꼽히는 종목이 탁구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벌어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이뤄 중국을 물리쳤던 경험이 말해 주듯 남북간 교류와 단일팀 구성

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미런치 IOC위원장이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상태에서 남북합의는 일단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여자팀의 경우 북한의 예시 김현희가 합체한다면 남한의 유지혜와 더불어 최강의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뜨거운 환영 감개무량”-“우리는 같은민족”



## ■ 1차회담 대화록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3일 오전 김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연변권 객관실에서 27년 가깝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 두 정상과 수석비서관들이 간담을 풀고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다음 회담에 임할 수 있게 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6월 13일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하자”고 말하자 김 대통령은 “다같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섬심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두 정상에 나온 대화다.

### 남씨도 민족경사 축하

김 대통령-(음성만 났을 걸린 대하고름을 보면서) 무슨 그림들이니까?

김 위원장-어제는 축하주요 그림입니다. (김정일 아내 김희선과 김희철 부부가 축하수놓음 그린 것입니다)라고 설명)

김 위원장-(김용순 아내 김희선 위인장을 향해) 용순 비서, 김 대통령과 지동처럼 같이 다고 오느라 수행한 장관들과 인사를 못 나았어요. (남쪽 공식 수행원들을 향해) 환영 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텔레비전에서 봐서 잘 압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고) 남북 정상회담 북남 합의 때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 위인장이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에게 공식 수행인 소개를 부탁했고, 임 보좌역이 차례로 장관을 소개했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 준비부족 사실과 달라

김 위원장-남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치게 (11일) 밤에 김 대통령의 코스를 대웠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까지 움직여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준비상황을 금방 알려줬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김대통령을 하룻동안)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대단히 반기려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 대통령-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인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북녘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천만 민족의 대화록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남미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감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의를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초부터 시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 위원장-오늘 아침 비행장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백화원연변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 김대중 대통령

북녘땅 못밟을줄 알았는데...  
공항영접 성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론 직접 연락해야죠

### 김정일 국방위원장

힘든, 두려운 길 오셨습니다  
섬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주목에 대답해줘야죠

나가기 전에 특별비서관을 뵈었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이걸 (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겨우 반속을 잡지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시는 데 구경 오시는데 아침식사를 꼭 하셨습니다.

김 대통령-평양에 오면 식사할 것 위 줄 알고 그랬습니다. (웃음)

###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

김 위원장-지방을 앞세우지 않고 섬심히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의외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남북간을 환영 인양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여정을 지킵니다. 동방의외지국을 자랑하고프사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용감한 방문에 대해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 때문에 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에서는 권고할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텔레비전과 방송이 많이 안 나오고 감잠한다고 하는데 친연의 방문입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문을 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 대통령과 동감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김용순 아내 김희선 위인장을 향해) 오! (인도에) 얼마나 나왔나?

김용순 위원장-60만명 가량이었겠습니다.

김 위원장-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다

김 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 위원장-그치게 생방송을 통해 연방에서 임민관계 (김 대통령의) 행로를 알려주니까 여자들이 밤을 때처럼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 13일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입니다.

김 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김 위원장-오후부터는 공식 접견의 입장이 진행됩니다. 이 백화원연변권은 주식남께서 생전에 이들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못이 피는 장 소리는 뜻입니다. 흰반복 산보 참아 불러보십시오.

주식남께서 생전했다던 (백화원연변권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 주식 남이 앉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 전까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49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지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디자인한 게 있었나면 직통 전화 한 통화면 자료를 다 봤을텐데. 이번에는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 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 위원장-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 대통령이 왜 방문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송년했는지에 대한 언론부호입니다. 2월 3일 동안 대답 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시점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기자단



##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 남북 두 정상 처음 만났던 순간



35년의 뉘러 있던 마음을 열고, 남북의 두 정상이 마침내 만났다.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38분이었다. 그 순간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내입과 같은 시간이 멈추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간이 짜각 거리가 시작됐다.

◇...오전 10시25분 평양 순안공항. 평양의 하늘은 맑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매끄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대한민국'이 새겨진 전용기는 29년 행사장에 멈췄다. 뒷문을 통해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사이 북쪽 관계자들은 승객용 트랩을 전용기 앞면에 설치시켰다.

10시32분 전용기 앞문이 열리고 잠시, 순안공항은 1천여명의 환영인과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33년 김장갑 국방위원장이 행사장에 나타난 것이다. 암복 차림의 남성과, 흰복을 곁에 차려입고 붉은 꽃을 든 여성들은 일제히 "반세" "김정일"을 외쳐댔다. 김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의 상봉 순간에도 평소 즐겨 입던 권관한 갑과 자원으로, 굵이 높은 구두

여없이 빛깔의 색인검을 쓰고 있었다.

그는 단방한 걸음으로 36년 전용기 트랩 앞에 도착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등 북한 권력의 핵심인물이 그 뒤를 따랐다.

◇...10시37분 김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씨와 함께 전용기 트랩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만감이 교차해서였을까, 김 대통령은 한참 멀리 공항 근교의 산하를 둘러봤다. 김 국방위원장은 트랩 아래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김 대통령도 박수로 화답했다.

김 대통령은 느린 걸음으로 트랩을 내려왔다. 10시38분 김 대통령은 평양 땅을 밟았다.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 대통령이 10여걸음을 내디뎠다 김 국방위원장이 다가가지 김 국방위원장은 서너걸음 앞으로 나섰고, 두 사람은 뜨겁고 감격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첫 대화를 나누었다. 김 국방위원장은 뒤따르던 이희호씨를 보자 먼저 다가 "반갑습니다"라고 환영했다.

◇...두 정상은 이어 나란히 의장대를 사

열했다. 환영음악대 해입자인 북쪽의 대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도합해 있는 노동당 간부와 평양시당위원장, 보건장 등 10여명을 소개했다. 그는 김 대통령과 함께 걸으며 "날씨가 매우 좋다"고 입을 건넸으며, 김 대통령도 "회담을 하기 좋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10시41분 두 명의 소나가 김 대통령과 이희호씨에게 뒤통을 건넸고, 대통령 부부는 소녀들을 가볍게 껴안으며 입을 맞췄었다.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2분 정도 의장대의 분열을 지켜보며 오른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이어 환영인파가 10분 가량 "김정일" "김대중"을 번갈아 연호하며 꽃을 흔들자 두 정상의 공명반응은 절정으로 달아올랐다. 김 대통령은 잠시 외친 카케트를 벗어 두 명의 시민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49분께 두 정상은 대기중이던 검은색 링컨리무진 승용차 앞에 도착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승용차 뒷자리 오른쪽 상석을 김 대통령에게 권했다. 그리고 자신은 왼쪽문으로 승용차에 오르는 또 한번의 과격을 선보였다. 그는 차량까지 김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이희호씨의 위치까지 살펴보는 세심함도 보였다.

북쪽의 한 안내원은 "김대중은 '장군님이 한민족이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 원래 잘 나오신다. 무더운 날씨를 마다지 않고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10시50분 리무진은 백회원 영빈관으로 향했고, 무성한 북쪽 경호원 4명이 뒤어가며 승용차를 견호했다. 순안공항에는 "김대중" "김정일" 연호가 길게 이어졌다.

평양/정신회담 공동취재단

### ■ 임동원 국정원장 왜 갔나

### 포용정책 주도 '호감' 실질적 협상 이끌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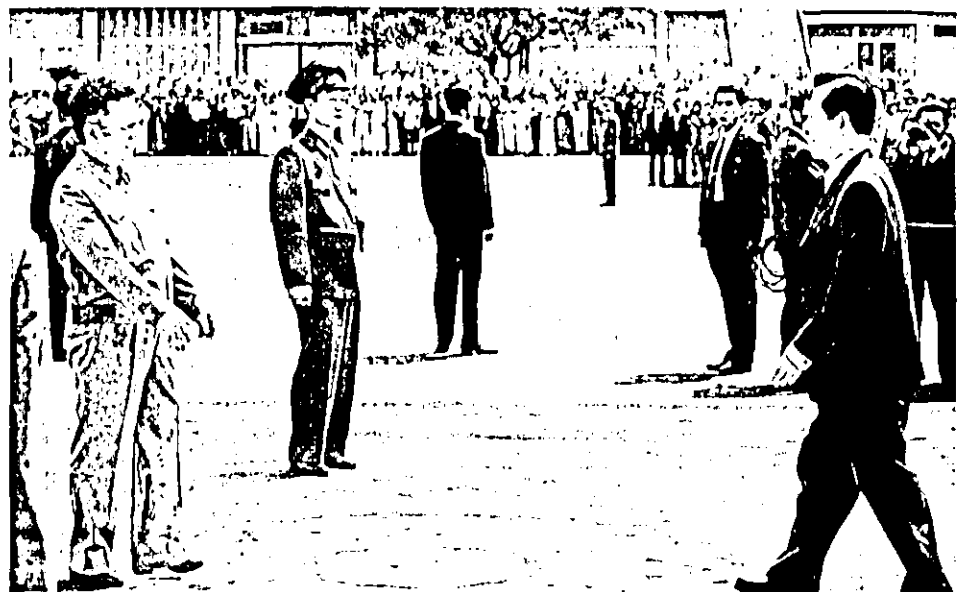
평양에서 보내온 김대중 대통령의 환영 도사 회에서 그동안 내입 속에 가려왔던 '중요한' 남쪽 수행원 한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임동원(60) 국가정보원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동안 임 원장의 수행 사정에 대해 비보도류 유출됐었던 정보도 북한 방송이 그를 방계로 불렀. 이원재 개성,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내방제로 대통령 특명대표단으로 소개됐다. 이를 시 안했다.

연말 보기에 북한의 김정은로서 국정원 해체를 중지시켜 주장해 온 북한이 임 원장의 평양행에 동의했다는 것에 환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정부'의 내북포용정책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쪽이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호감'을 가진 것 안되는 남쪽 정찰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알려졌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의 당사에도 배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번 남북기간 중 북한의 안병수 조광장 시가지장 등 북한의 대남 핵 실험인과 박수 김복을 하며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 남쪽의 회담 진리됨을 이끌며 이번 회담을 사실상 지지하는 역할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이번 비중 때문에 남북정상 회담이 몇 안되는 남쪽의 매석자로 꼽히고 있다.

류세훈 기자 hoone@hwa.co.kr

### 김대통령 문열리자 북녘산하 둘러봐 박수 화답뒤 트랩 내려와 감격의 악수 환영인과 꽃 흔들며 일렬히 환호성 승용차 함께타고 백회원 영빈관으로



다가서는 남과 북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영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다가서고 있다.

평양/청외대 사진기자단

# 세계가 놀란 공항환대·동승회담



## ■ 예상 갯 파격 의전

### 김위원장 통치뒤 처음 의장대 분열 드문사례 회담 '패칭'에 보하는듯

북쪽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습적으로, 그러나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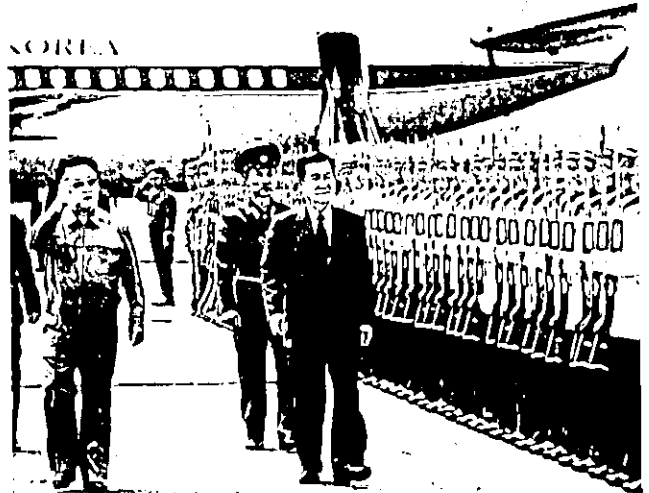
예상을 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 접 공항으로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다. 남북의 국민이나 세계는 그의 이런 파격적 영접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실집직 통치자가 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공항에는 그말고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병옥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쪽 주석단 서열 1, 2, 3위가 모두 포함된 당·장·군 고위층이 출동했다.

이는 북쪽이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고, '최상의 의전'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파격적 의전은 긍정적인 회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그러나 순안공항에서 벌어진 남북 수뇌의 파격적인 만남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김리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깊다.

우선 북쪽이 이번 정상회담을 '국가간 의전보다 더 중요한 민족 내부의 대사'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외교통상부 외신 관계자는 "지방세계에서는 국가원수가 직접 출영하는 일이 없고 보통 외무장관이 나선다"며 "대단히 의미있는



의장대 시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쪽 의장대를 시열하고 있다.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쪽의 관례에 비추더라도 이례적이다. 최고통치자가 나서기는 92년 4월 김일성 주석이 양상군 당시 중국 국가주석을 순안공항에서 영접한 이래 처음이다.

또 이번 행사는 김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쪽이 남쪽을 '정치적 실체'로 세계 앞에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북한 인민군 육·공군 의장대의 시열행 아니라 분열을 받은 대북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의전 전문가는 "보통 국가원수 방문 때 의장대 시열은 하지만 분열까지 하는 것은 드물다"며 "남쪽을 중요하고 실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같이 했다.

김 국방위원장이 공항 영접 뒤 김 대

통령과 함께 의전용 차량인 흰색 리무진 뒷자리에 함께 타고 백화인 영빈관까지 동행한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두 정상이 운전자와 경호원 외에 아무 배식자도 없는 상태에서 돌발의 사고 속박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날 두 정상의 극적인 상봉은 70년 3월10일 동독 에어푸르트 게어스트호펜에서 동시독의 김일성이 처음 만났을 때 발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남제가 참 훌륭하다"라고 말로 건네서, "회담하고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평영스럽게 "사무직"으로 동남한 슈보프 당시 동독 각료회의 의장의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 공항영접 언제냐 김일성주석과 동행 86-90년 단 두차례 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까지 방북하는 외국 정상 영접을 위해 단독으로 공항에 나간 일이 한차례도 없었다. 다만 김일성 주석 생존 때 김 주석과 동행한 사례가 두차례 있을 뿐이다.

먼저 1986년 3월 파넬 카스트로 쿠비 국가평의회 의장 방북 때 김 주석과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 나간 일이 있다. 90년 3월 정쩌민 당시 중국 당 총서기 방북 때도 김 주석을 수행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공항에서 볼 수 있었다.

김 주석은 80년대 중반 이후 건강을 이유로 외국 국가원수를 금수신주석궁(현 금수신기념궁전)에서 맞았을 뿐, 공항 영접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형제국' 정상이 북한을 방문한 때만 예외적으로 나갔다.

90년대 들어 김 주석이 공항 영접을 나간 것은 92년 4월 양상군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와 90년 3월 정쩌민 당시 평양 방문 때 등 두번뿐이다.

80년대에도 임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자오쯔양 당시 중국 당 총서기 영접을 위해 80년 4월 평양역에 나갔던 위와 86년 9월 다녔을 때와 87년 9월 대니얼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10월 호체가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 11월 장반비트만 호 몽골 국가수반 영접을 위해 공항에 나갔을 뿐이다.

정인환 기자 jihwan@hani.co.kr

## “북 큰배려...전망 기대”

### 전문가 '최상의전' 의미부여... '차분함' 주문도

북쪽 관행에 정통한 북한 고위층 출신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안공항 영접 등 파격적 접대와 관련해 "김 국방위원장 뿐만 아니라 북쪽 당·정·군 고위층이 출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쪽이 이번 정상회담을 최상의 의전으로 대하며 큰 배려를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분단 50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염두에 둔 냉정함과 차분함이 결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조명철(내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 국방위원장이 단독으로 영접을 나온 것은 권위를 상징한 뒤 처음있는 일이다. 북쪽이 보여준 예우는 중국 국가원

수가 방문했을 때에 비견되는 것이다. 상상 못했던 원대로 북쪽이 방북 대표단에 큰 배려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같다. 북쪽의 예우는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영환(중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김 대통령 등 방북 대표단에게 의전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김일성 주석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자주 공항영접을 나갔으나 그뒤에는 건강을 이유로 금수신주석궁(현 금수신기념궁전)에서 방북 국가원수를 맞았다. 의장대 시열은 북쪽에서도 국가원수 방문 등 국가 행사 때 하는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과

김 대통령이 인민군 의장대 시열과 분열을 받은 대북에 대한 '북쪽이 남쪽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공식 인정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한성일(중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할 바에는 크게 하지, 볼 크게 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뜻인 것 같다. 이례적인 일로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명의 북한 출신 전문가 = 회담 전에 비관적인 전망을 줄리다 극적 효과를 노린 것 같다. 김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에 나온 것에 흥분해 이를 너무 부각하면 북쪽 의도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김 국방위원장은 방송·언론 등 대중매체의 효과에 관한 한 전문가다. 정상회담 소식이 전세 계로 긴급 타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출한 '극적 파격'에 담긴 속뜻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측근 대거참석...부인은 안나와

## ■순안공항 영접 인물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측근들이 대기 공간에까지 나와 영접했다.

김 위원장 뒤에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영학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출신 남 내각 총리, 김국대(간부 당당) 김왕순(대남 당당) 노동당 비서와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트랩 앞까지 걸어가 김 대통령을 영접해 최측근 그룹임을 과시했다.

김 대통령을 기내에서부터 영접해 눈길을 끈 사람은 김 국방위원장의 의견 담당 비서인 진희정(70)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80년부터 김일성 주석의 업무실 보좌하던 가관인 금수산의사당의 의사국장으로 김 주석의 의견을 도맡아왔는데, 김 주석 사후에도 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다.

의장대 시안을 마친 뒤 김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북쪽 인사 가운데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 등 낯익은 얼굴들도 눈에 띄었다.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양숙씨는 공항에 나오지 않았고,

|     |   |
|-----|---|
| 김종업 |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
| 김영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 조영학 | 군총정치국장  |
| 최대북 | 최고인민회의 의장   |
| 김국대 | 당비서(간부당당)<br>최고인민회의 대외연락처 장사의연장   |
| 김왕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br>민대협위원장  |
| 김윤석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
| 김광순 | 당비서(대남당당)   |
| 강석주 | 외무성 제1부상  |
| 송호경 |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   |
| 안병수 | 평양시 인민위원장(서기)   |
| 안건호 | 조평통 서기국장(평명 안병수)  |
| 진희정 | * 최초 영접자(의견 담당)<br>김정일 의견담당비서, 당총위원<br>김일성 동맹시 금수산의사당<br>(현 금수산기념공전) 의사국장 |
| 여원구 | 여운철 형   |

당 중앙위 비서 가운데 한성룡(김재 당당), 김기남(신진 당당), 김중린(노동 당당), 진병호(군수 당당), 계웅태(공안 당당) 비서 등은 보이지 않았다.

백남순 외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백 외무상이 나올 경우 남북을 공식적인 국가관계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규 기자 ohtak@hani.co.kr

# 북 방송 '중대사건' 대대적 보도

북한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일행의 방북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오후 5시 정규방송대에 김 대통령 일행의 평양도착 사실을 처음으로 내보냈다.

북한은 이어 오후 7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김 대통령의 도착장면과 평양시민들의 인도 환호장면 등을 23분동안 특별방송으로 상세히 보도했고, 8시 정규보도 시간에도 같은 내용을 재방송했다.

이 방송은 "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도착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아나운서의 말로 특별방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정상회담 하루 연기 사실을 장식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던 북한 방송들은 "위대한 인도자 김정일 동지가 김대중 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히 영

접했다"며 "오늘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다. 방송들은 "이번 상봉과 회담은 민족 주체적 노력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해 나갈 거리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면"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방송들은 이어 남북 대표단을 대운 비행기의 도착장면과 군중들의 환호 장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 등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평양의 60만 시민들이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을 풍포에의 정으로 뜨겁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내보냈으며, 특히 평양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방영했다. 라디오방송들은 이날 오후 5시, 25분 동안의 첫 보도에 이어 오후 6시와 8시, 9시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金正日 파격 의전 눈길끈 3장면

### 공명 직접 영접

### '격식 구애안받는다'- 廣幅정치' 과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진 13일의 감동적인 여러 장면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 나온 일이 꼽힌다.

미리 김국방위원장이 영접내와 것인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평양에서 깡깡쇼가 있을 것"이라고 언박을 피했던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막상 김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놀라는 눈치가 역력했다.

진분자들은 이날의 파격적인 공항 영접이 김국방위원장이 평소 지론으로 삼아온 '광복(廣幅)정치'의 철학과 맞닿은 관행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폭 넓은 정치력 펼친다는 의미의 '광복정치'는 김정일식 통치의 한 방식이자 '감동'을 통치 도구로 삼는 사회주의 통치기법의 하나다. '광복정치' 철학은 양회파인 김국방위원장의 개인 정당에도 영접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준비협조 당시 북한의 김정일대표단장이 "영회처럼 멋지게 협력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박재균기자〉

phark@donga.com

### 의장대 분열

### 생략하는 국제관례 깨- 최고의 예우

'인종에는 북한의 심장적인 최고인민회의인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오대북에는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겨 놓고 북한 인민군의 행진을 지켜본다.'

한 의전전문가는 "13일 평양 순안공항 '깡깡 의전'의 하이라이트는 의장대의 분열이었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김국방위원장과 함께 육-공-해군으로 구성된 의장대 시안을 마친 뒤 단상 위로 올랐다. 김대통령은 김국방위원장과 김영남상임위원장 가운데에서 시시 북한 특유의 길도 있는 김을김이로 행진하는 의장대의 분열을 2, 3분 지켜냈다.

의장대 시안은 국빈방문 행사의 주요 메뉴 중 하나지만 분열은 전세계적으로 의전격차가 간소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의장대 대신 군악대가 행진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동승 정상회담

### 백희원 영빈관까지 1시간 밀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차량 정상회담'을 지키던 외교통상부의 의전 관계자들은 "최고의 예우다" "경말 놀란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 정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환영행사가 끝난 뒤 링컨 컨티넨탈 차량에 나란히 탑승, 11시45분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희원영빈관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보통 외국정상 영접시에는 내국 및 외국 정상의 차량을 따로 준비해 의전장이 탑승한 선도차량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도착한 뒤 내국 정상은 관바로 자리부터 뜨는 것이 관례.

박종영 청와대대변인은 "자에서 김위원장은 94년 김영삼대통령과 김영삼주석이 회담에 합의했을 때 김주서의 심정 등을 예기했고 김대통령은 인도에서 환영해준 북측 시인과 동포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발표.

〈윤영찬기자〉

yycl@donga.com

# 활짝 열린 하늘길 “장산곶 보인다” 탄성



## ■ 청와대에서 순안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역사적인 평양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15분 청와대를 떠난 김 대통령을 대운 컨테이너는 9시51분 서해 북방선계선(NLL)을 통과해 북쪽의 국경에 닿은 뒤 10시20분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15분 청와대 비서실 직원과 인근 효자동 주

## 시민들 이른아침 청와대 물려 “잘다녀오세요” ‘우리의 소원’ 올려 퍼진 가운데 평양행 출발

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대통령은 실망민과 주민들 600여명이 모인 청와대 앞 분수대 부근에서 잠시 지체 멈추고 이산가족,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과 임일이 약속을 나눴고, 이어 시민과 어린이들은 “잘 다녀오세요”라며 박수를 보냈다.

김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간 신문을 읽는 등 비교적 편안하고 담담하게 아침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씨가 이날 8시50분에 서남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이만섭 국회의장과 최종영 내무부장,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 15개부처 장관, 주변의교단장 등 기다리던 3부의 요인들과 정경민, 주병 등 1천여명이 박수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맞았다.

김 대통령이 출발행사를 마치고 후임객들과 인사할 나누는 동안 서울공항

에는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우리의 소원’과 ‘고향의 봄’이 울려 퍼졌다. 간단한 환송행사와 3군 의장대 사열을 마친 김 대통령과 방북단 임행은 오전 9시10분에 손을 흔들며 전용기의 트랩에 올랐다. 전용기는 정확히 오전 9시18분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활차게 이륙했고, 약 2년 뒤 취재진과 특별수행원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보인 737기)에는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가 표기돼 있었으며 뒷쪽 모퉁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날 환송식이 열린 서울공항에는 시정촌 대표와 권도갑 상임고문, 한화갑 지도위원, 정근환 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또 지방에서도 김중호 총재권한내행과 오정섭 총무, 김학원 대변인, 한석재 의원 등이 나와 ‘공조관계’를 표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김기에 사무총장 한명만 참석했다.

○…김 대통령 전용기와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는 이날 오전 9시45분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쪽 영공으로 들어갔다. 남북간의 ‘하늘 길’이 막힌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비행기가 북반영공을 넘어 서기 직전 안내방송을 통해 “10초 뒤 38도선을 넘는다. 3시 방향에 우리 영토인 백령도가 보이고 2시 방향에 북쪽 영인 감산곶이 보인다”며 하늘 길의 활약을 알렸다. 대표단은 일제히 창밖의 북한 땅을 보기 위해 창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미집내 북한 땅을 봤게 됐다”는 탄성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상으로 착륙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눈에는 모래기를 위해 곳곳에 물이 차 있었으며 북한주민들이 모래기를 하는 풍경도 보였다. 일부 주민들은 임추를 만수고 대표단의 항공기를 쳐다보기도 했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방송을 통해 “20년 뒤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해 평양을 활게 개이고 기온은 벌써 22도 정도”라고 안내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내통령전용기는 서울공항을 먼저 출발했으나 평양 현지 행사장까지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보다 15분 정도 늦은 10시27분에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었다. 순안공항 주변의 동산에는 돌을 모아 새긴 것으로 보이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눈의 띄기도 했다.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의 바퀴가 평양 순안공항에 완공을 내며 날자 기념에서는 ‘와’하는 탄성과 함께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임석규 총장서 기자  
형일/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아리랑’에 무르익을 화해

### 오늘밤 남북 담테 만난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북쪽 만경대 대관사에서 11일 저녁 만경대 담테 북의 음악가 아우르는 음악을 풍요롭게 연주해 화해의 시를 드러낸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건봉기가 특별히 준비한 김 대통령 주재 만경대 음악은 모두 전통국악으로, 약 60년 음악에서 20년 가까이된 북한 음악으로 선정됐다.

북쪽음악은 모두 아리랑이라는 길이 늘어 된다. 정제철을 리지 않으면서 만경대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과 고된 손적이 있었다. 특히 1990년 남북개교 회관에서 연주한 남북단일팀 난기인

《아리랑》도 만경대에 울려 퍼진다. 북쪽이 작곡해 보낸 악보와 남쪽에서 편곡 연주한 이 음악은 약 10년 만에 다시 남북으로 나뉜 마음을 한데 묶는 데 쓰이는 것이다.

또 유명한 유행음악가인 최옥삼류가 이끌던조가 분단의 이른 역사와 화해·평화의 중요성을 담겨줄 듯하다. 최옥삼은 가이금 산조의 명인으로 유행연주 가이지만 활동정황에 의해 소개됐고, 이제 그의 산조는 남한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다.

민족의 붕을 받는 마지막 음악은 《산년만세》. 한민족이 천년만세 동안 유구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co.kr



13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방문길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평양대 입장에서 배웅 나온 시민 어린이들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대 사진기자단

## 특별수행원 숙소 주암산 영빈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대표단 숙소로 특별수행원 21명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 임력이 비무선 백화원 영빈관과는 10km쯤 떨어진 주암산 영빈관에 머물게 된다.

영빈 주암산 초대소로 불리는 ‘주암산 영빈관’은 평양시 중심가에서 동북

쪽으로 약 8km 떨어진 대성구역 미암동 모란봉 마지막 기슭인 주암산에 위치해 있다. 이 초대소는 김일성 주석의 김포실로 사용되던 금수산의사당(현재 금수산기념궁전)의 부속건물의 하나로 평양을 방문하는 국빈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숙박시설로 걸림, 회의실, 사진촬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암산 영빈관은 89년 1월 장수영 천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시 숙소로 이용했다. 이 영빈관도 호위사령부 2국 소속으로 백화원 영빈관 소장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3당 “성공기원” 한 목소리

이와 관련하여는 13일 일제히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몽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특별선명을 발표해 “이 땅에서 전쟁이 공포할 완전히 일어나고 연착거는 다가올 남북회담의 남을 앞뎌기는 역사전반의

큰 발걸음이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행 출발”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 이분 민족의 앞길을 활하게 열어 나가는데 화합의 동력이 되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이 갈등과 분열로 잠적했던 55년 분단의 역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민족간 중이 이후에도 국민과 민족을 위한 대담함과 정부의 노력에는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원 자민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백성의 유산으로 유익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상황이 되도록 분단 반세기여 대담과 갈등을 뛰어넘는 다리를 건설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용현 인천파 기자 shan@han.co.kr



# 이산가족·경협등 '장밋빛' 암시



## ■ 첫만남서 엿본 앞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말을 심심하게 던졌다.

전통자들은 우선 김 위원장의 "우리는 실리추구 추구하면 된다" "실질치 않게 해주자" "염려마라" 등의 언급에 주목한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비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답을 해줘야 한다... 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대목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단순 교류·협력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대규모 경협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남북의 대규모 투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정상회담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아직은 맑고대로 '장밋빛'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다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세계가 주목한다"는 언급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구한 전 대통령과 허당 노동당 비서의 비밀연담(83년 9월5일 경기도), 김일성 주석과 서동권 전 안기부장의 비밀연담(90년 10월1일 평양) 때 북쪽은 '통일문제'를 '세계의 주목'과 연결한 바 있다. 북쪽 허당에서 통일문제는 주한미군 제거보안, 빈이 등과 직결된다. 남쪽이 회담 자리에서 즉구 피하려는 당장은 '회답이 없는' 주제다.

여론도 김 대통령으로선 남북 첫 남북 정상회담의 공청정담과 승용차 단독회담을 통해 지속적 회담의 계기 마련이라는 이번 회담의 '최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남북 조별회담을 통해 의정합의를 본 것은 남북간

"실리추구... 염려마라... 장관들도 기여할" 긍정발언 전문가 "통일문제 거론할수도"... 만남지속 발판 마련

현안에 대한 상시 대화채널 확보라는 결과 함께 신뢰구축의 첫 단계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견에서 주목된다.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날 저녁 민주대의사당을 찾은 김 대통령에게 남북한 관리들의 상호교류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고 김정일 위원장의 긍정적응을 특종보도한 중국 <신화통신>이 전례는 길을 열었다. 남북 대표단의 경양채류 중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교류의 큰 물꼬를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어는 방향으로 남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앞으로 남북간에 이런 합의가 나오려면 비관 것이 없지만, 온거려할 협력비전 앞에 붙들어야 할 13일 하룻동안 벌어진 정상간의 대화는 그 자체로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수인공원에서 함께 북한 인민군을 사열하고 있다. 뒤로 중앙청사의 김일성 주석의 초상이 보인다. 평양 '청와대' 사진기자단

## 김영남, 남북관리 교류 제의

### 중 '신화통신' 보도

【도쿄=교도 연합】북한을 대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3일 남북한 관리들의 상호교류가 곧 가능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에서 수신된 <신화통신>의 평양발 김정은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의 민주대의사당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합조가 열리면 상호방문이 쉬울 것이라며 "아마 그런 일이 하루 빨리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회담'인가 '환담'인가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남쪽은 '회담'이라고 하고 북쪽 보도기자들은 '환담'이라고 견해 두 정상은 회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옹그 그룹을 떠나 정부의 발표대로 두 정상이 북한원 영빈관 접견실에서 나는 대화를 1차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있다. 불필요한 오해쯤 볼 수가 있다.

회담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 말 그대로 환담을 나눴다.

### '회담'인가 '환담'인가

#### 정부발표와 북보도 차이

그러나 정부는 이 오전 11시45분에서 12시12분까지 27분 동안 이뤄진 대화를 1차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유입하게 어복을 공개한 대 회 내용은 말 그대로 환담이었다. 정부는 아츠아날 두 사람 사이어 단 독화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접견실 환담과 는 별도의 회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는 허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단어가 상견례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배신한 김정은 단비처럼 통해 남북 수평정관들의 소개를 부탁하고 임동원 대통령 북북가 장관을 소개하면서 드러났다. 또 상견례의 면면을 보더라도 '회담' 일 수는 없었다. 이날의 대화는 끝 이 정부쪽 발표를 존중한다 해도 '상봉과 환담을 결합 상견례'인 회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김재훈 기자 kankani@hani.co.kr

## “7천만 민족 전쟁공포서 벗어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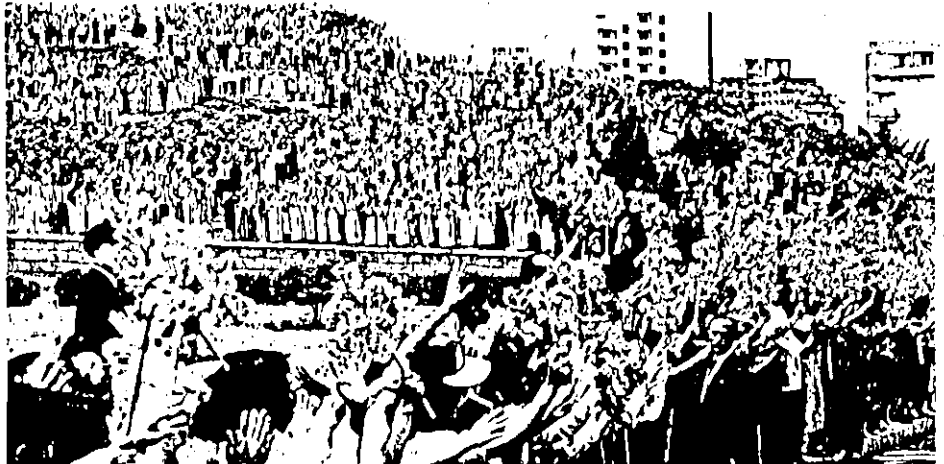
### ■ 평양에서의 첫날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저녁 7시 북측 김원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민문화공전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함으로써 평양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원남 의장은 만찬사에서 “나라의 통일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보냈다”며 “분업은 언제 끝나겠는지 또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겠는지 하는 7천만 동포의切實한 질문에 불응해 북과 남의 정치인류가 대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이번 방문으로 7천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남북 정상은 순안공원에서 나란히 앉은 리무진에 올라 백화인 임민관으로 향했다. 이후 백화인민관까지의 길은 사실상 ‘첫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할 만하다. 두 정상이 백화인민관까지 약 1시간 동안 승용차 안에서 운전사와 경호원 외에는 아무 대식자도 없이 단독 대화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승용차 안 대담 분위기는 두 정상이 11시45분 백화인민관에서 열린 공식정상회담의 모금금 총액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 저녁 만찬 및 오후 관람

김대중 대통령은 내일은 이날 오후 7시10분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남북 회담을 숙연했다. 남북 수행단, 취재단 선원과 북측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은 2시간 30분 동안 무소식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덕위에서도 환영 13일 김대중 대통령 등 남북단이 백화인 임민관으로 향하는 연도에서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황일/황외대 사진기자단

### 백화원 가는길 10km 60만명 환호물결 “김대중” “김정일” 거리메운 박수·연호 인민공전 만찬 ‘임격정’ 최창수씨등 참석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헤드테이퍼 중앙에 앉고 김 대통령 오른쪽에 김 위원장이 앉았다. 같은 테이블에는 김원남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리원규 조국통일민주전선 시국국장, 장삼 이화여대 총장, 이태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원구 지남면 의원 등 남북 주요 인사 18명이 나란히 앉았다.

북측 참석자 중에는 남측에도 잘 알려진 여자 마라톤 선수 정성옥씨, 영화 <임격정>의 주인공 최창수씨 등 인민대우, 북송간 이민모 노인의 딸 이현옥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선생은 김원남 국제음림위원회(IOC) 위원과 사전을 펴기도 했다. 총 37개의 테이블마다 남북 참석자가 짝만 정도씩 섞여 앉았고, 정치 얘기보다는

평양교역단 서울 공연 등 가벼운 얘기 위주였다. 이어 앞서 김 대통령을 백화인민관에서 오친을 마친 뒤 오후 3시 공식 수행인들과 함께 만수대의사당으로 북측 ‘국가원수’인 김원남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대통령은 문비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인사했다. 김 대통령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도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양측 인사가 착석한 뒤 김 위원장은 “평양에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비행은 순조로웠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대통령은 “대단히 순조로웠습니다. 남측도 서울과 평양이 모두 좋았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연적 후도다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노력에 열정

하게 결심을 맺도록 해줘야 하는 것 같다”고 너답을 했고, 김 대통령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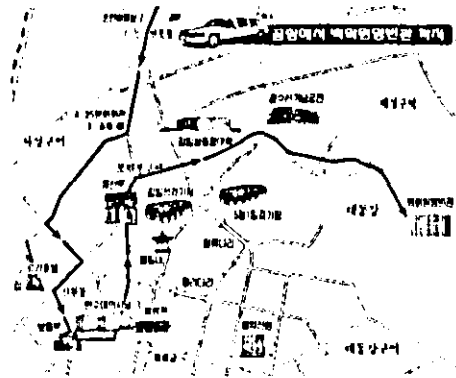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이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시민속무용조의 ‘평양성 사람들’을 관람했다.

### ■ 순안공원에서 백화인민관까지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을 태운 승용차는 오전 10시30분에 공원을 떠나 11시45분에 속초인 백화인민관으로 도착했다. 김 대통령은 오전 11시10분 차량이 평양시 입구인 서성구의 버드나무 거리연못가에 이르자 차에서 내려 길가에 도착한 평양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김 대통령은 북측 화석계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평양시 순안주민회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백화인민관에 이르는 평양시내 10km 거리를 가다 보면 60만명의 평양 시민들은 방문단이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주민들은 전통, 빨간색 꽃을 지니다 손을 들고 흔들며 “김대중, 김정일, 김대중, 김정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일/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 김대통령 ‘평양성 사람들’ 공연 관람

### 외침 맞선 투쟁 힘찬 군무로 그려 ‘춘향전’과 함께 90년대 백미 꼽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관람한 민속무용조곡 <평양성 사람들>은 어떤 작품인가. 민속무용조곡은 전통무용과 개악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연의 한 장르다.

지난 97년에 창작된 <평양성 사람들>은 90년대 북관이 창작한 공연물 중 <순환전>과 함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외침의 침략에 대한 평양성 주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북관은 이 작품에 “우리 인민들의 비참함과 슬픔, 애국주의와 용감성, 근면성이 잘 반영돼 있다”며 “출연자들을 통해 자기 조국과 향토를 무한히 사랑하며 그들 지켜 용감히 싸운 평양성 사람들의 애국충정과 그들의 생활모습을 살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창작한 이 작품은 초·중·고등학교로 이뤄져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군무에서 화려함과 함께 힘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에서는 화려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선율을 서정적인 유희으로 나타낸 여성군무 ‘류경의 봄’과 외침의 침략에 대비해 평양 용역산에서 무술을 익히는 평양성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린 남성군무 ‘평양의 무술사’ 그리고 모란봉의 김치를 처녀들의 장구춤과 활을 쏘아주는 ‘모란봉의 봄’ 등의 장면이 유려하다.

또 남녀 출연자가 북과 남을 통해 외침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그린 남녀 삼중무 ‘승리의 기쁨’ 장면에서는 젊어서 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97년 6월 이 작품의 시연을 보고 기대적인 요구와 우리인민의 민족적 침략과 감정에 맞게 형성했다”고 극찬했다.

## 힘있고 똑똑한 것 같다

■ 시인이 본 김위원장  
여유있고 편안한 웃음  
"틀림 것과 너무 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사십삼 처음으로 남한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틀림 것과 너무 다르다"며 놀라워했다.

서운경(27·회사원)씨는 "여성을 거고 직접 언급이나 여유있는 모습으로 김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김 대통령과 같은 차로 운전하는 등 틀림 바와는 너무 다른 진극적 태도에 호감이 갈 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희진(37·다사)씨는 "이전에는 파벌잡거나 간갈성 혼자라는 등의 말이 많았는데 직접 보니 힘있고 똑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해도 출신의 한 실장인(73)은 "의외로 여갑바쁜 태도에 놀랐다"고 말했다.

컴퓨터통신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 'manhal'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찬란한 게

시간에서 "김정일은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덕망있는 모습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ANIL09'라는 네티즌도 "김 위원장이 직접 마중 나온 모습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이 고도로 계산된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민승(33·주부)씨는 "매우 머리회전이 빠를 것 같은 인상에 말이 거침없고 대화를 주도하는 스타일 같았다"며 "그러나 밖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태도로 보였다"고 말했다. 'as73s0m'이라는 네티즌은 "김정일이 과연 서울에 올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김 위원장의 복장과 물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홍규(35·회사원)씨는 "생각보다 너무 바가 나왔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하고 여유 있는 모습과 편안한 웃음, 김 대통령을 안내하는 자신있는 등짐 등에 시민들은 그동안 품어왔던 부정적 전제근주 이미지의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순원재 기자 shan@hani.co.kr



## 거침없고 자신감 가득

■ 취재단이 본 김위원장  
김대통령에 예의 깎듯  
사안본질 정확한 파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성과는 달리 거침이 없고 단정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김대중 대통령 일정을 초대할 주인이라는 여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였다. 또 격식보다는 내용을 더욱 중시하는 실용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했다.

또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지난 달말 그의 중국방문 때에 이어 그동안 남쪽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것임도 확인해줬다. 서방세계의 정보기관과 언론은 이제까지 그를 음주와 숙도병, 조류형, 비대종성, 야간행동, 환락 등의 부정적이고 칙칙한 성격으로 묘사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일정을 견의할 때 친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날 본인 그의 언행이나 목소리 등으로 판단할 때

겉에서 바라본 김 위원장은 저속히 정상적인 지도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광활하면서도 정확했으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한 때문인지 사안의 본질과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비교적 건강하고 젊은 모습의 김 위원장은 남쪽 기자나 수행원들이 접근해도 전혀 거리는 기색이 없었으며, 주위의 시선이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몸 크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김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방지의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희규 통일부 장관에게 "필리핀에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고 친숙감을 표시하는 여유를 보였다. 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김 대통령이 왜 평양을 오려 하고 김 위원장은 왜 베이징을 가는 의문부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등 세계인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특히 연상의 김 대통령에게 "조선민족의 동맹의 지극 여를 다 갖춰 결연하고 안전하게 도시겠다"고 끈기있게 여유 있는 표정에서 우도적 소임을 갖춘 보통 한국인인 인상도 느낄 수 있었다. 평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김위원장 공항영접 예정된것

안보는 차후 논의 국방장관 동행 안해

### ■ 프레젠테이션 브리핑

양정식 통일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내외신 공식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의 공항 영접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영호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또 "첫 회담에서 국방과 안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합의서 체제를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화원영빈관 만담을 환담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공식 회담으로 보아야 하는가?

백화원영빈관 만담은 회담으로, 두 번의 첫 정상회담은 시작됐다.

-정신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됐나? 또 차기 회담 일정은?

김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북포이 우리를 초청한 목적과 대거하고 싶은 사안들을 분류기 조성 차원에서 얘기했다.

-정신회담 수합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빠진 이유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았다.

인재승 기자 jshn@hani.co.kr

# 남북정상 “새역사 만들자”

김대중대통령·김정일위원장 평양서 첫 회담...화라인 필요 공감

## 오늘 2차회담

남북정상이 만나는 2000년 6월13일. 본 단 55년 만에 만난 남북의 두 정상은 이 날을 역사에 당당히 기록될 날로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두 정상은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남북 정상간의 핫라인 설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7천만 한겨레와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첫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한안에 대해 아무런 격식없는 논의를 통해 합의감을 찾아가기로 했다. 특히 긴장된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2박3일 동안의 정상회담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대한 '다담을 주는 사업'에 김 대통령이 기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뚜렷한 성과를 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높였다.

13일 낮 김 대통령의 평양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끝낸 열린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으며, 김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

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 9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남쪽이 조종전화로 북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다면 다 찾을 텐데"라고 하자 김 대통령은 "직접 연락 했어죠"라고 화답함으로써 중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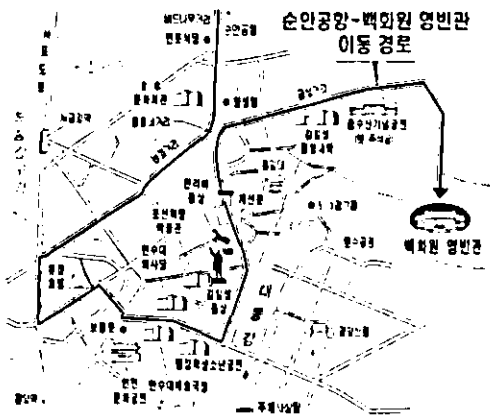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남쪽에선 박재규 통일, 이현재 재정경제, 박지민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평욱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식수용인 전원, 북쪽에선 김용순 이태경화위원회의 원장이 배석했으며 환담은 27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앞서 전용기편으로 오전 10시25분께 순안공항에 내린 김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직접 영접함으로써 최상의 여우를 갖췄으며, 김 대통령과 링컨 리무진 승용차를 함께 타고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1시간 동안 '1대1' 차종 대화를 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파격적 환대 세계가 놀랐다



평양 시민들이 면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남북간의 차관행렬을 향해 꽃을 뿌리 손뼉치며 환대하고 있다.

중과에서사진가사

## 마라도·백령도에도 감동의 물결



### ■ 전국 이모저모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13일 전국 방방곡곡엔 박찬 감독과 회장의 물결이 출렁였다.

동해의 끝산 북도에서 백령도 등 시·도, 최남단 마라도에 이르기까지. 양측측방의 긴장감이 뿔뿔던 휴전선 인근 대신동 마을에도 통일 의 새 기장에 대한 이질없는 환호성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53년 휴전협정 직후 판문점 서남쪽 1km, 군사분계선 남쪽 500m 지점에, 북한의 개성시 기정동 마을에 대해해 조성된 경기 파주시 군내민 조산리 원판마을 대신동 주민들은 이날 삼연 속에 하루를 보냈다. 50여년간 분단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53가구 215명의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변할 때마다 임회일 비해왔다. 주민 김동진(47)씨는 "주민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이 곧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50여년간 사립하는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있는 실향민들이 정상회담을 대하는 눈길은 남다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순안공원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이북5도 총북사무소에 모이 시청한 충북지역 실향민들은 "꿈에도 그리던 통일물결이 이제 제대로 뜨이게



그리은 내고향 55년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13일 낮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실향민들이 망원경을 통해 북쪽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다. 고성/연합

### 실향민들 "꿈에도 그리던 통일물결이..."

#### 북에 미역보내기등 평화기원 행사 다채

됐다"며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북5도 대구지구 회원 130여명은 이날 오전 대구시 태평로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800만 이산가족의 재회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은 기쁜 날, 음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날 대전지역의 일부 음식점과 백화점에선 기쁜 날을 함께 즐기며 음식을 무료로 내놓아 흐뭇함을 더했다. 대전 둔산동 음식점 '어둠' (대표 박영기·45)은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한다며 손님들에게 김삼부터 식사와 음료수 등을 무료로 대접했다. 어림쪽은 식당문 앞에 '축 남북정상회담'이란 문구와 '반갑

습네다'란 인사말 등이 적힌 포스터를 내걸고 15일까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구 월경동 전점우 평민집도 김삼회단 축하 플래카드를 가게 앞면에 내걸고, 신히민 1세대에게는 냄민값을 받지 않았고, 다른 손님에게도 50% 깎아 줬다.

◇"통일을 기원하는 각종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다. 전남 완도군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북한에선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미역을 북쪽에 보내기로 했다. 군은 어민후계자모임, 완도수협 등과 '사랑의 미역보내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성금을 모아 20억원어치의 미근미역을 북쪽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남단 마라도 주민들도 남북정상의 만남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심공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원했다. 2년째 마라도에서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김장민(46)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나오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가 직접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간 모습을 보니 화해의 시대가 싹감난다"며 "정상회담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란 여감이 든다"고 말했다.

휴전선 인접 강원도 북부지방 주민들은 남북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자 "정말 만났구나"라며 감개무량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철원군 변영화와 미수북 철원군 민회장 등 2개 단체의 이근회 회장은 "50년 전 아버지 손잡고 떠났던 고향 마을과 어머니 산소에 갈 기회가 유는지 가슴이 설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철원읍 대마2리의 김정배(37)이장은 "이런 회담이 잡채 분단현장인 마을주민의 고통이 덜어지고 낙후지역 개발도 활성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종합

## “정말 만났구나” 어느새 붉어진 눈시울



### ■ 시민들 반응

입손이 잡히지 않았다. 아니 이런 날 입손이 제대로 잡힌다면 그게 이상한 노릇인지 모른다. 컴퓨터를 두드리면서도,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국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논과 귀를 떼지 못했다.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지켜보며, 가슴이 묵직해져 오는 감동을 즐겼다.

“무작정 택시를 몰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강원도 김화여 부모와 7형제를 남겨 두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국전쟁이 터져 남한에 홀로 남게 된 실향민 조종하(72·서울 삼이택시 기사) 씨는 13일 오전 택시를 세워두고 전자제품 대리점 앞에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고향가는 길이 그리워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감격은 고향이 남쪽인 이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김영수(50·공무원) 씨는 “경양 순안공항 중계방송을 보면서 69년 낱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신비한 느낌마저 들었다”며 “특히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환대하는 것을 볼 때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대했다. 김씨는 또 “경소 평양이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고

## “통일 왜 필요한지 알게 돼” 사무실마다 술렁 북한주민 환영열기에 뿌듯한 동포애 느껴

뒤틀렸다. 전후세대에게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령준 기회이기도 했다. 회사원 임세정(28) 씨는 “경소어는 뭉일이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운몰어 전율을 느꼈다”며 “역시 남과 북은 한 민족이며, 왜 뭉일이 필요하지도 않게 됐다”고 말했다.

주부 정혜원(30)씨도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합성사진으로만 볼 때는 실감이나 감동이 없었는데, 중계방송을 보니 ‘진짜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다”며 “특히 우리 대표단을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뿌듯한 동포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공학 영접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원 이어무개(31) 씨는 “직원들이 다함께 중계방송을 지켜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 전용기 앞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리며 박수가 터져나왔다”며 “김위원장의 영접은 역사적인 만남을 극적인 분위기로 끌어올린 결정판이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참여연대 안진길(23) 간사는 “처음 김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긴장한 모습이라 우리가 긴장했는데, 곧바로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고 두 정상이 함께 손을 흔들자 비로소 ‘정말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안도가 됐다”며 “이제 튼튼 기반을 가라앉히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찾아와야겠다”고 말했다.

현역 시인·사회단체들도 이날 남북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기독교청년회는 “현단 55년의 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새로 만들어 갈 역사

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이산가족의 아픔과 실향민의 고통을 우선 치유하는 인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노련도 “이번 회담을

남북한 7천만 민중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영춘 이태성 기자 jona@hani.co.kr



통일을 위하여!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은 13일 저녁 서울 미포구 신공덕동 칠길주변 회근길 한 선술집에서 직장 동료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이번엔 다르지 안카서...” 부품 기대

### ■ 속초 실향민마을 표정

“고향에 두고 온 딸이 지구 눈에 아른거려서리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 걸 쳐다보고 있으려니가대 가슴이 더 두근거려서리 죽겠다.”

본간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던 날,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실향민촌 ‘아바이마을’은 흥분과 설렘의 도가니였다. 마을 노인정에는 새벽부터 백발이 성성한 실향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오전 10시25분께는 7~8명 남짓한 방에 30여명이 꼭 들었던 채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아내와 두살 난 딸을 두고왔다는 함북 북청 출신의 박수길(79)씨는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엔 정말 고향



서울역 대합실에서도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악수를 나누자 흔히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백발된 ‘아바이’들 텔레비전 눈뭉켄채 마음은 벌써 고향

땀을 뺐어봤으면 좋겠다”며 ‘꿈에 본 내 고향’을 흥얼거렸다.

“이후락이 평양갔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지마, 그런데 우릴 속인 거 아니 가서,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안카서? 저것 좀 보려우.” 함남 홍원이 고향인 김상은(79)씨는 김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는 연신 “꿈만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070가구 3천여명이 살고 있는 아바이마을은 1세대 실향민만 560여명에 이르는 남한의 대표적인 실향민촌이다. 이들은 1·4후퇴 때 주로 함경남도 홍남·원산 등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뒤 고향산천을 지척에 두고 싶어 자연스럽게 이곳에 정착했다. 마을 이름도 함경도 사투리로 남자들을 부르는 ‘아바이’가 됐다.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야 노인네들 힘을 끌어드릴 수 있을 텐데...” 세삼대 홍남부부에서 어카니의 등에 업혀 월남했다는 이인철(53)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남북 경성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어린아이들처럼 흥분한 실향민들은 콧코도 하지않은 채 텔레비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평양거리가 몰라보게 변했어. 평양에도 동무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 가지 않아 있으려나... 내 고향도 많이 변했겠지.” 함경남도 영흥에서 쌀장사를 했다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춘섭(97) 할아버지는 “소시적이 평양에도 많이 갔었다”며 귀가 갈 안뜰란다면서도 고향 얘기로 삼원이 말을 이었다.

“합간 꽃다발 흔드는 것 좀 보려우.

관심도를 잡지 않아요?” 몇몇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잊어간 북한에 대한 앙금을 쉽게 지울수 없는 듯 의욕과 비관의 눈길로 텔레비전에 비친 북한의 도순을 응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향민들은 저마다 고향산천을 떠올리는 듯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려니 고향 동산이 눈에 선해. 동무들과 바닷가에 서 놀던 생각도 나고.”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 땅에 머물러 있었다.

속초·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 “꿈만 같다...통일 빨리 왔으면”



■ 해외동포 반응

일본·중국·미국 등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은 13일 남북한 정상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민간과 총련으로 나뉘어 대립해온 역사적 갈라선 재일동포들은 “꿈만 같다”며 통일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 일본= “정말 감동적이다. 이걸로 다된 것 아니요? 이제 속내라도 들어야지.” 친북한 단체인 재일총련 중앙의 한 간부는 정상회담 소감을 묻자 대답 외치듯이 말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이러니저러니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장에 출근한 모습, 그 한집안이 백마디 밭보다 나은 것”이라며 “역시 우리 민족끼리 남의 간섭 받지 말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에서는 분관 텔레비전 앞에 직원 150~160명이 몰려 환성을 올리고 손뼉을 치면서 두 정상 만남을 지켜봤다. 이런 장면은 재일동포들 모든 가정에서도 펼쳐졌다.

친한국 단체인 민단의 배철은(45) 신진국장도 “너무 감격스럽다”며 “솔직히 말해 만남이 상상될지 말지 걱정했고 북에 불안감도 갖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공장까지 나온 건 예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작이 반”이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유

총련계 민족학교인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총보당당 고석전(37)씨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반가웠다”며 “화면을 녹화해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모두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정상회담 합의 후 학교에 건 둘째 카드를 “통일조국의 유능한 역군이 되기 위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로 바꿨다.

동포작가 양석일씨는 “경제 문화 양면에서 교류가 진척돼 몇년 뒤에는 휴전선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

고 생각하는 게 모든 조선족 동포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재중동포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도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한글신문인 《요녕조선문보》 등에 “남북정상 회담을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로 전면광고를 냈고 문예는 전했다.

◇ 미국=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과 이산가족재회, 경제협력 문제 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원했다.

하계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전날 55년 만에 첫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뤄진 만큼 회담에 차 있다”며 “남북개산 물꼬가 트이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해 재일동포들이 직접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족 로스앤젤레스 평화동맹자 문화의 의장은 “많은 것을 논의해야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한두가지만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통일이 앞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이 고향인 심창민 김도우 건남가주 이북5도민연합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워싱턴/한송동 윤국한 특파원 김태경 기자 sdhan@hani.co.kr

## 휴가원까지 내고 위성방송 지켜봐 “남의 간섭없이 민족끼리 논의 기때”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계속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련 중앙 국제국은 이날 “오늘 역사적 상봉이 전체 재일동포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된 데 대해 감개무량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이 역사적 상봉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억압을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총련 중앙의 공식성명은 입단 뒤로 미뤘다. 민단쪽도 “입단 회담 개최를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다소 신중찬 자세를 나타냈다.

를 걸 수 있게 됐다”며 감격해했다.

◇ 중국=많은 재중동포들은 직장에 휴가원을 내고 이날 하루종일 한국 위성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남북한 정상 만남을 지켜보며 기쁨을 나눴다.

중국 선양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인 윤정삼(45)씨는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직장에 휴가원을 내고 하루종일 한국 위성텔레비전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다”며 “오늘은 온 민족 최대의 경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윤씨는 “남북한이 발전해야 중국과 조선족과 연변도 발전할 수 있다

## “한반도에 새역사...시작 좋다”

### ■ 세계반응

세계 각국의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고 많은 입장이 생중계된 데 대해 놀라면서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 실질적 민족문제 논의할 것

◇ 미국=캘리포니아 헤리슨 우드로윌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김 위원장의 공장입장을 보고 그가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알게 됐다”며 “회담 결과가 기대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CNN방송>은 “새 역사가 쓰여졌다”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ABC방송>은 “남북은 이미 사이좋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평소 대중 연설을 회피하고 외국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 김정일이 이날 따라 매우 자연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북한이 캄페(ROGUE)에서 밋청이(VOGUE)로 변했다”며 북한은 이제 개방한 시간을 갖고 여러번 만나 민족문제를 실질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의 피터 베크 연구실장은 “처음엔 상상적 만남 이상이라 될까 걱정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공장입장을 보고 그가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알게 됐다”며 “회담 결과가 기대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 중국=홍콩·대만=중국과 대만의 주요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사이트를 개설하고 10~20년 간격으로 변하는 상황을 중계하듯 보도했으며, 토론방도 열었다. 중국인들은 이 토론에서 “남북한 두 정상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대만 양안의 현상태를 생각하니 비뚤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동정력이 있다” “조선 지도자는 비교적 젊고 박력이 있다”는 등 부러움섞인 글들이 올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손을 뻗어 김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양국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에 변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홈페이지 특별사이트 개설

◇ 중국 홍콩·대만=중국과 대만의 주요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사이트를 개설하고 10~20년 간격으로 변하는 상황을 중계하듯 보도했으며, 토론방도 열었다. 중국인들은 이 토론에서 “남북한 두 정상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대만 양안의 현상태를 생각하니 비뚤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동정력이 있다” “조선 지도자는 비교적 젊고 박력이 있다”는 등 부러움섞인 글들이 올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손을 뻗어 김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양국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에 변화를 가져오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연보>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반세기의 간극을 깨뜨렸다”고 보도했으며 <시우스카이노보포스트>는 “남북화해를 위한 거대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1면 머릿기사로 이번 회담의 의미를 평가했다.

### 김위원장 답방 가능성 키

◇ 일본=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성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공한까지 직접 출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황으로 보건대 김 위원장이 다음 회담 때 서울에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계이오대 법학부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한측 환대는 중국 정상을 출입하는 것과 밀착할 정도로 융순했다”며 “이산가족 상호방문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 상징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HK 방송>은 김대중 대통령 방북을 내시긴다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도쿄 워싱턴/한송동 윤국한 특파원 원신중합 sdhan@hani.co.kr





### 서해안공단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

# 해주나 신의주나 확정되면 올안 착공

한대의 북한 서해안공단 건설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 김용환 한대야산 이사회 의장과 북한 김봉순 이대 평화위원장 사이에 맺어진 합의에서선 예초 같은달에 확정된 예정이었던 부지선정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착공시기를 올 상반기로 예상했던 한대측 계획도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해안공단 건설사업은 정부와 재계에서조차 남한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각종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원공편 22만명 고용창출  
터 선정 북한과 줄다리기  
수행방목 정몽헌 의장  
'일괄타결' 등 협상 주목**

할 정도로 남북협력사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김일이 본격화되면 착공이 올겨울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한대의 계획은 8년동안 3단계에 걸쳐 2천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공단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3단계까지 마무리되면 850개 업체가 입주해 22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며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정점은 한대가 희망하는 해주나 남포, 북한이 희망하는 신의주 가운데 어디를 택할 것인지를 한대는 남포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과 철도, 도로 등 출산간 기반시설, 수출기지로서의 입지조건 등으로 따져볼 때 해주를 최적으로 선정하고 밀집하게도 그러는 상태다. 또 방위의 해상관문인 남포도 육로수송이 용이하고 전역시장이 다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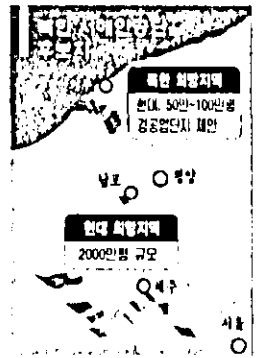
에 비해 상대적 무위험, 지내고 있으며 인력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신의주를 희망해, 지난해 10월 양측은 새곳을 모두 함께 답사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대 방북조사단은 북한측이 "해주와 남포는 준비가 안됐다"며 신의주만 안내해, 나머지 두 곳은 살펴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한대측은 답사 결과 신의주가 너무 지지대이고 남포와의 거리상 불유비용이나 수송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대는 북한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답사준비 중"이라는 응답만 보내오고 있는 상태다. 한대는 지난 2월에는 "해주나 남포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신의주에는 50만~100만평 규모의 소규모 경제개발단지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가제안을 했으나 북한에서 아직 답이 없다

고 한대는 전했다. 한대야산 관계자는 "이번 김용환 의장의 방북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지에 관련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답안이 내려지면 서해안공단 건설에 타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현 기자 inhyeon@hani.co.kr



## 기업인 줄줄이 방북계획

정주영씨-이건희회장 등 추진...외국 상의도 가세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기업인들의 북방 방문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사업과 관련된 방북 위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해 온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은 회담 이후 일제히 방북 추진을 재개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을 주도해 온 한대의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이날 말 줄다리 방북에 김장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서해안공단 부지 선정, 남강산 후속개발 등 대북사업을 알릴 나갈것이라는 계획이다.

북한측으로부터 지난해부터 꾸준히 방북을 요청받아온 삼성 이건의 회장도 이번 유종의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으로 삼성의 대북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르면 올겨울 북한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 부회장이 바로 방북해 김장일 회장을 만나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이 회장은 삼성전자 전자복합단지 건설이 합의되면 방북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한지는 극분부 회장의 이번 방북 뒤 그룹의 대북청구인 엘지상사 이후로 사정 등 고위 임원이 비무장지대 불류센터 건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에 나갈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에 이복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된 고용무시업협회와 소속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정상회담 발표로 연기한 만큼 조만간 이들의 방북을 계속 진행하는 방침이다. 이렇게 주한미상공회의와 주한유업상의 등도 대북사업의 다양한 조사를 위해 부지조사단을 위해 하반기 중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다.

김성재 기자 seong08@hani.co.kr

## 의류업체 북한공장 증설

제일모직·엘지·코오롱상사 등 투자확대 검토

지난 90년대 초부터 대북 의류 임가공사업을 주도해온 제일모직, 엘지패션, 코오롱상사 등 국내 신사복 3사가 남북경협 분위기에 맞춰 뒤 임가공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13일 지난 92년부터 북한에 건설해 커주업 의류 중심의 임가공 방식으로 매년 1500만달러어치의 물량을 생산해왔으나, 경험 확대 움직임에 감안해 올해 예상목표 물량을 약 2천만달러어치로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장 라인을 증설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 이전을 통한 노후설비 교체 등의 사업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지상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약 30만정, 약 300만달러어치의 의류를 북한에서 임가공해 판매해온 엘지패션도 올해 임가공품 매출 목표치를 350만달러로 잡고 공장 증설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상사는 이들 업체보다 앞선 89년에 가방, 양말, 신사복 등의 대북 임가공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중지가 케주얼, 신사복을 중심으로 매년 35만달러어치를 생산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코오롱을 통해 원사, 원단에서 봉제, 의류 임가공분야를 총괄하는 합원화 된 섬유 특화공장을 북한에 설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패션 김중수 이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성과만 있어도 불류비용 감감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 “북녘고향갈 날 멀지않았겠죠”



## ■ 비전향 장기수 표정

“언젠가는 가족들이 사는 저 곳에 가리라고 생각해 왔다. 지금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는 건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한민족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쁨 때문이지.”

대전시 동구 성남동 원석의 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방송으로 지켜보던 비전향 장기수 김용수(63) 최선복(72) 최수일(61) 한장호(71)씨는 감격의 눈물을 닦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60년대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 3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장기수들이다.

최수일씨는 “대통령 방북이 하루



비전향 장기수들이 13일 대전 성남동 원석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중계방송을 지켜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선복 김용수 최수일 한장호씨.

## “한서린 생활 이젠 눈녹듯이...”

### 평화통일 기대감에 가슴 설레

언기였다고 했을 때 ‘평양교엔만 공연도 있고 하니 별일이야 있겠느냐, 잘 될 것’ 이라고 서로 위로할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부직 긴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니 어제의 조바심은 물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눈녹듯이 풀린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수씨는 “그동안 우리가 수 십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

각한 적이 없다”며 “소신에 따라 양심을 지킨 만큼 우리의 희생이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7천만 한겨레가 하나되는 초석이 된다면 여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장호씨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란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루는 걸림돌을 치워나가 만족이 하나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원칙을 미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돼 눈신에 있는 김병수(68)씨, 사림의 곁에 남아있는 함재환(68)씨 등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앞당겨지길 소원하며 김집장을 앞에 두고도 중계방송에서 눈길은 떼지 못했다.

이북 5도민 대전연합회(회장 명노영·73)와 실업민 8가구 19명이 모여 사는 대전 동구 선동 천개마을 주민들도 이날 아침부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와 감격으로 지켜보며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글 사진 대전/송인철 기자  
insong@hani.co.kr

## 평화정착돼 조업규제 풀리길 기대 북한어민과 함께 꽃게 잡았으면...

### ■ ‘서해교전 1년’ 연평도는

북 1년 전인 지난해 6월15일 ‘서해교전’이 발생해 한반도를 긴장감 속으로 휘둘러놓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는 13일 마냥 평화롭기만 했다. 해군 전함선 7~8척이 인근 해상을 돌며 경계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바다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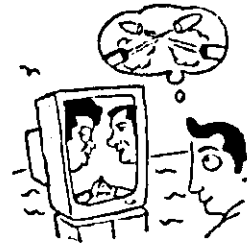
전체 주민 1300여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민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꽃게잡이에 나서거나 그물 손질을 하는 등 바쁘게 일손을 놀리면서도 정상회담 소식이 촉각을 세웠다.

어날 모두 54척의 어선에 오른 주민 200여명은 새벽 5시에 배를

타고 나서면서부터 저녁 7시 상에 돌아올 때까지 배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정상회담 소식을 들었으며, 조업에 나가지 않은 어민들은 집안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며 성공적 만남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곳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남북의 평화통일 갈망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북한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조업이 금지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반면군 주민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 정착으로 이어져 조업 규제도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어민 김아무개(43)씨는 “지난해 서해교전 이후 봉제가 강해졌지만 그 이전에는 북한 어민들과 이야기



할 나누며 꽃게잡이를 했다”며 “북한 어민들과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고기를 잡는 시집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해군 관계자는 “평화의 시대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해교전 1년 기념행사는 엄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방송사 ‘임진각 경쟁’ 3사 임시 스튜디오

“방송3사의 보도본부가 임진각으로 이사할 댐?”

1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한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면서 시작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둘러싼 방송3사의 보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중순부터 정상회담 취재 준비를 시작한 <문화방송>은 인천각 스튜디오에 엔지니어 기술진 등 모두 70여명을 내보냈다.

피알 등 사내문제로 다른 방송사보다 조금 늦게 경쟁에 뛰어난 <한국방송공사>도 지난날 초 현장답사를 거쳐 ‘자유의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상주인원 40여명이 2시간 승차편을 붙여가는 상황을 창고고 있는 <여스비에스> 스튜디오는 뉴스센터 등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정민환 기자 inhwan@hani.co.kr

## 북한민족의 길을 여는 사람들

### 앞선 이들 고난 열매 맺어 기뻐

회담계기로 북녘동포에 더 귀기울여야

#### ■ 고 문익환목사 부인 박용길씨

"문 목사님과 제가 감옥에서 고생했던 일이 다 풀린 겁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장면 을 보셨다면 정말 감사할 줄이라도 추셨을텐데..."

13일 오전 경향 순안공장에서 펼쳐진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상봉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박용길(81) 장로의 눈 언저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 장로는 목회자이자 통일운동가, 시인이었던 늦봄 문익환 목사의 부인이다. 또 그 스스로 지난 95년 6월 김일성 북한 주석의 조문을 위해 북녘땅을 밟았다.

"저도 순안공장으로 입북했지요. 그때도 북쪽 동포들의 환영은 열렬했는데, 오늘 그보다 더 거대한 환영관경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당시 회담 당일 7월31일 판문점을 거쳐 귀경한 그를 기다린 건, 그보다 먼저 허기없는 방북을 감행했던 남녘 문 목사가 겪었던 입춘여섯 주름진 손목을 옥죄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었다.

"일왕이 술저조 조문을 가는데 9년 정상회담

을 불과 2주 앞두고 김 주석이 타계 했지만, 회담 당사자인 우리는 조문조차 안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더욱 냉랭해졌고요.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몸소 가셨겠지만, 김 주석보다 반년 먼저 돌아가신 티라 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뜨겁게 손을 맞잡았으니 그의 감회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수히 답사가 오갔으면서도, 한쪽에선 법을 어기고 방북했다고 속한 사람들이 탄압받았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있었기에 정상회담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쪽 사람들이 한겨레의 북녘 사람들의 얘기를 좀더 귀기울여 들었으면 해요. 그게 진짜 통일맛이 아닐 수 아니겠어요." 순원재 기자 wonje@hani.co.kr

### 민족 간절한 염원 하늘 움직여

굶주린 동포·이산가족 고통 덜어지기를

#### ■ 북한돕기운동 펼쳐온 법륜스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토회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열망을 담은 '기원'이 끊이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원을 뒷사람이 잇는다. 새벽은 개우는 목탁소리처럼 이들의 기원 속에 분단의 벽도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1000원으로 계획한 정진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남북한 정상이 손잡았습니다. 경성을 쓴 으면 천지신명이 감응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이 반세기 만에 결국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벗들'을 이끌며 탈북자와 북한인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47) 스님은 남북한 정상의 만남을 바라보며, 간격을 감추지 못했다. 법륜 스님이 북한돕기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96년 압록강변 '단포'에서 굶주림으로 얼굴이 검어졌던 어린이를 보고난 후다. "같은 동포이면서 서로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도 도움 수 없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그때 감했습니다."

이후 법륜 스님은 지난해 10월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탈북자들 심상을 증언해 이산에 대한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월부터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을 열어 남녀노소가 함께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같은달 '통일 돼지 저금통'을 '분양'해 북한돕기성금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 중국광굴 해매는 탈북자들,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회담이 되길 기원합니다."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남과 북의 간격을 좁히려는 법륜 스님은 다시 한번 사랑과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되뇌었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 ‘정상회담 환영’ 인공기 게양도 처벌

### 검찰 “국보법 위반 범법행위”... “시대착오적 조치”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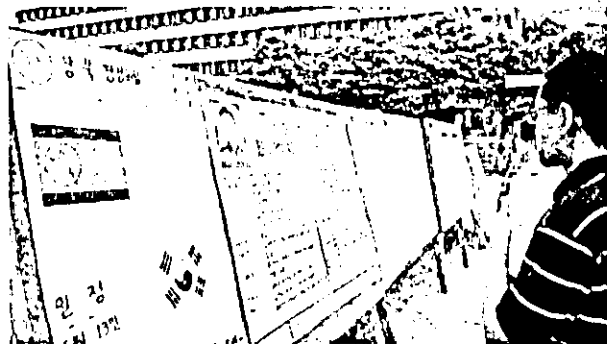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구내에 인공기가 게양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박운환)는

13일 “인공기 게양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며 “증거를 수집한 뒤 주동자들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은 “정상회담 중계방송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거리, 인공기 물결이 안방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인공기 게양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년센스”라며 “특히 학생들이 인공기 뿐 아니라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내걸었음에도 검찰이 서둘러 처벌방침을 밝힌 것은 거리에 희망을 주는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도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공기 게양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위반되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권력을 대학 구내에 투입, 게양된 인공기를 강제 철거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광실 기자 iguassu@hani.co.kr



대학가의 '김정일 대지보' 남북정상간의 첫 만남이 이뤄진 13일 오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북한의 인공기와 태극기가 그려진 '김정일 위원장 바로 알기' 대지보를 학생들이 관심있게 읽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 國民日報

## 北공항 연주곡은 '南고교 교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북한 방문 도차 때 순안공항에서 울려 퍼진 관악대의 음악이 전국 전수 신중교의 교가와 같아 화제가 되고 있다.

신중교에 따르면 이날 연주된 음악은 지난 1910년대 만주에서 위약하던 독립군의 대표적 노래인 '용진가'로 이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부터 교가로 불리고 있다. 작곡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중교측은 원곡에 별도의 가사를 붙여 지냈을 사용돼 오고 있다고는 했다.

이날 교부상과 교장실에서 TV를 지켜본 교사와 학생들은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교가를 따라 부르며 하루내 숙임했다.

조재승 교사(43)는 "역사적 현장에서 교가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홍권기자 ygkm@kmbn.co.kr

## 순안공항자리 옛 삼육대터

평양 순안공항은 삼육대(총장 남대국)의 옛 캠퍼스가 있던 자리이다. 1906년 10월 평안 인근의 순안 석박산 기슭에 설립돼 우리 민족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의명학교'가 바로 삼육대의 전신. 의명학교는 해방후 정치적 격변으로 지난 47년 평양캠퍼스가 폐쇄됐으며, 서울 대령의 천위처에 자리잡고 이듬해 개교 학교 명칭도 삼육대로 바뀌었다.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삼육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캠퍼스 또는 평안북도 설립을 받길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관계당국 및 북한측과 접촉할 방침이다.

남송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관계개선에 필요가 느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의 요망인 순안공항 부근에 삼육대 평양캠퍼스를 복원하거나 최소한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 문화일보

## ON AIR 방송가

## 남북정상회담 시청률 평소 3배 달해

13일 오전 김대중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장면 TV생중계의 시청률은 어떻게 될까. 김대중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기 5분 전인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 두 정상의 만남을 특별생방송한 KBS 1TV, MBC TV, SBS TV의 3개 공중파방송 시청률 합계는 30%. 이는 오전시간대 3개 방송의 평균 시청률 13.9%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시청률 조사기관 TNS미디어코리아의 조성이 팀장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시청한 것은 시청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을 감안할 때 이날 시청률은 60% 수준을 여유있게 상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통계는 전국의 시청자 1000가구를 표본집단으로 산출한다. 시청률 순위는 KBS 1TV, MBC TV, SBS TV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정기자>



세계 이목 집중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외신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모습을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u@hani.co.kr

■ 인터뷰 / 독 '슈퍼겔' 바그너 특파원

# “두정상 만남에 쩡한 감동 너무 높은 기대는 말아야”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중인 바르너 바그너(사진) 독 입 시사주간지 《슈퍼겔》 국동특파원은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할 하는 역사적 장면을 프레스센터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보고 가슴 찡한 느낌을 받았으며, 70년 슈토프-브란트 동서독 총리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0년 전 독일 정부는 독일국민들이 분단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연건기는 한국도 남북간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북한 도착 환영장면도 없고 연도에 늪어선 환영인파들이 부지연스럽다”고 운을 뗀 뒤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으로 남북과의 교류를 원하는지 속단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언론이 정상회담



외부정보 홍수에 북한 개방 택할것

이란 대사건을 놓고 흥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라며 “인내하며 차분하게 보도하는 태도가 이롭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해 독일인들의 관심이 크다”고 밝힌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한국의 분단상황은 차이가 있다면서 “독일은 동독정권이 붕괴된 뒤 분단이 이뤄졌으나, 북한체제는 아직 견재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젊어 단시일 안에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 등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정보의 조류속에서 개방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며 “한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일본 도쿄로 부임한 뒤 아시아의 정치·경제·군사분야를 취재하고 있으며 올초 북한 금강산휴 다녀오기도 했다.

■ 하성봉

사진 김종수 기자 sbha@hani.co.kr

도착장면 생중계 어떻게  
휴대용 위성장비 이용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 도착 순간은 어떻게 생중계됐을까?

남북 정상회담의 국내 방송은 방송사상 초유의 장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획기적인 것은 우리 국내 취재진이 직접 북한에 갖고 간 휴대용 위성 생중계 장비(SNG)를 이용한 것이다.

북한쪽의 기술 협조를 얻은 뒤부터는 온전히 남쪽 방송단이 제작한 내용이 그대로 실시간 위성중계되는 것이어서 남쪽 취재진의 시각이 담긴 화면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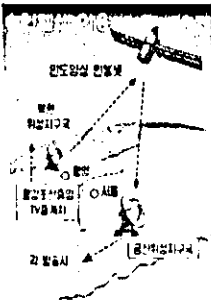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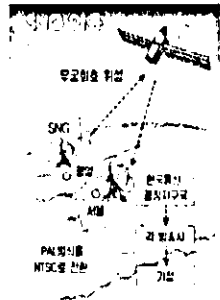
남쪽에서 갖고 간 5대의 이엔지(ENG) 카메라와 북한 카메라가 잠

은 현장은 무궁화호 위성→한국통신 광장지구국→광화문 한국통신 센터를 거쳐 각 방송사로 송출되고, 방송사들은 받은 내용을 곧바로 내보낸다.

북한의 중계차와 방송장비를 빌리는 여건의 방식도 병행된다.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중계차와 이용해 북한 위성 지구국→인도양 상공의 국제위성 인텔샹→국내 금산위성 지구국을 통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보는 방식이다.

장비가 심린 트랙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방송사다. 쉽게 말해 야시안게임 개막식 정도의 중계가 가능한 규모다. 워낙 값이 비싸 국내 방송사 어느 곳도 갖고 있지 못해 한국통신으로부터 하루 2000만원씩 을 주고 빌려 쓰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에스엔지 방식이 될지, 국제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될지는 미리 결정될 바 없다. 방송사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방송단 규모는 모두 25명이다.

박근에 기자  
pgaroot@hani.co.kr

남북 기상교류도 '물꼬'

정상회담 계기 분단이후 첫 정보공유

남북한 기상교류의 첫 물꼬가 터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13일 평양 순안공항의 날씨는 맑았다.

'현재 남풍 초속 1m, 시정거리 10km 이상, 기온 22도, 기압은 1.061헥토파스칼, 맑음, 압은 2시간 동안 상온은 변화 없을 것'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평

공고성통신망(AFTN)을 통해 북한측이 보내준 순안공항 기상상황 그대로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기상 교류시대가 열린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메시지관 평양 순안국제공항과 서울 김포국제공항의 기상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지난 9일 우리측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기상정보교환은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의미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남북이 기상 예보 기술 및 날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강도높은 홍천 재해예방의 길을 닦았다는 데 다른 의미가 있다.

이날 양측이 교류한 기상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 규정에 따라 영문과 자

자 숫자 코드로 된 기상전문형태로 교환됐다. 지난 11일 북한이 보내준 최초의 기상전문 제목은 'METER JKPY11 0000Z'였다. METER는 기상상황이라는 뜻이고 JKPY는 평양순안공항, 11은 날짜, 0000Z는 그리니치 표준시각을 의미한다. 기상청 유상범 공보관은 "기상정보의 직접교류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들 계기로 정제화된 기상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훈기자

11일 북한이 보내준 최초의 기상전문 제목은 'METER JKPY11 0000Z'였다. METER는 기상상황이라는 뜻이고 JKPY는 평양순안공항, 11은 날짜, 0000Z는 그리니치 표준시각을 의미한다. 기상청 유상범 공보관은 "기상정보의 직접교류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들 계기로 정제화된 기상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훈기자  
11@k.yunghwang.com

15일까지 순안·김포 날씨 교환  
예보기술 공조 재해예방 길터

남북시인 김동환 선생 全集 출간

셋째아들이 7년간 작업

남북 시인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1901~?) 선생의 전집(新성출판사)이 나왔다. 총 15권으로 엮어진 전집은 '언론인 파인 김동환 연구'라는 제목에 '신문기자·잡지인'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한국 경성 출생인 김동환은 시인이자 언론인이었으며 출판인이기도 했다. 그의 시들은 일제 강점기 암담한 현실에 놓인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한 민족의 선웅과 고풍을 노래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시인 '국경의 밤'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는 1924년부터 29년까지 한국 남한의 경성일일신문, 서울에서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기자 등을 거쳤고, 29년 4월 월간종합지 '삼천리(三千里·사진)'를 창간했다. 이 잡지는 일류의 편



집으로 독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행부수 1만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복 후 친일행위가 문제돼 김동환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한동안 공민권을 제한받다가 6·25전쟁 때 남북했다. 그뒤 행적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파인의 셋째 아들 영식씨가 지난 7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 엮어낸 이번 전집은 김동환이 쓴 글, 타 언론인이 쓴 글, 전기, 내밀한 가족자료, 참고문헌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송희日記자

월북작가 이쾌대 작품전 고향서 열려

월북화가 이쾌대(李快大·사진)의 작품전 및 학술세미나가 그의 고향인 경북 칠곡에서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에 따라 칠곡군은 오는 20~25일 칠곡군 예관을 종합복지회관 특별전시실에서 '무회' '문상' '무녀도' 등 이쾌대의 작품 25점을 전시한다. 또 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쾌대는 근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란 오명으로 미술사의 현구적으로 머물러졌다가 1988년 해금조치 이후 근대 화단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 94년 미술 전문가들이 선정한 '한국 근대 미술가 10인'에 선정됐고 98년 한 미술잡지의 '한국 유희 베스트 10'에 그의 작품 '문상'이 4위로 뽑혔다.

1913년 칠곡군 지천면에서 태어난 이쾌대는 회화 이충섭 등과 조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성북회화 연구소를 열어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다가 한국전쟁 후 인민군 총군화가로 합류했으며 53년 포로교환 때 월북했다.

칠곡 / 최슬기기자:skhck@k.yunghwang.com

전문가 분석: 남북항로 열린 의미

“영공개방 확대 긴장완화 도움”

한반도의 영공은 전후기의 신속한 김부 가능성 때문에 지상 못지 않게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것이다. 지난 98년 평양과 대구의 비행정보구역에서 만항기가 통과하는 데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북 항공분야 협력이 전무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기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 비행기를 이용한 북한 영토 진입은 남북한 영공 개방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공 개방이란 남북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양쪽의 영공을 개방하고 상대방의 군사정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력 배치상태와 군사활동에 대한 부법성을 제고하여 감시의도가 없음을 확

정찰 허용 군사정보 수집 유럽·중동서도 널리 실시

인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영공 개방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이행하는 데 영공 정찰은 핵심 구실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공 정찰이 실시되고 있으며, 1992년 3월 체결된 영공개방조약에는 27개국이 가입하였다.

영공 개방은 무엇보다도 남북 두루 유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다. 우선, 참관장비에 의한 정보수집 능력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습득하도록 협조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정보수집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력의 대난 열세로 인한 피해의식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수집을 위해 간첩과 잠수함을 남파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이 정보수집 능력에서 북한에 비해 앞서긴 하지만 미국 의존도가 높으므로, 북한이 영공을 개방하도록 해 북한의 군사실태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을 강화할 수 있다.

군사분야에서 영공 개방을 실현하기 전에 준비조치로서 민간분야의 협력을 선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그 첫번째 조치로 기록될 것이다. 북쪽의 수해피해와 남쪽의 산불피해를 조사하는 한검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영공정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반도내너지개발기구(케도) 경수로사업 지원하기 위해 포항과 선덕공항 사이에 민간항로를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성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위원장 “용감하게 방북하셨다” 김대통령 “처음부터 겁이 없었다”

파격적 회동- 예상밖 유머

회동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이었던 남북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예상밖의 유머감각까지 유감없이 발휘해 자칫 경직되기 십상이던 회담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구수하고 해학적인 회소는 주변에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분단 이래 첫 정상회담에서 오는 부담감과 긴장 탓에 평소 입담을 구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더욱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인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어서 13일 정상회담 전후에 김위원장이 보여준 유머감각은 신선한 충격이까지 했다.

김위원장은 우선 평양 순안공항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문화부장관 등 우리측 공식수행원을 소개받을 때마다 “아 그래요”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반가운 표정을 지어 긴장하고 있던 이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

다. 김대통령은 회담장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해 김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남북한 사진기자들에게 “잘 찍어주세요”라고 눈을 던져 양측 관계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회담에 들어간 뒤 김위원장은 “탈레비전으로 보니 아침에 계단 반숙을 절반만 드시고 (서울공항으로) 떠나셨다고 하던데 구경으시는 데 아침식사를 적게 하셨어요”라고 농담섞인 질문을 건네자 김대통령은 “평양에 오면 식사를 잘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해 분위기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이어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이 용감하게 방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김대통령은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고 말해 또다시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접견실을 나오면서 김대통령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안주섭 경호실장과 약속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농담을 건네는 대목에서는 좌중의 목소가 터져기도 했다. 우리측 수행원들은 김위원장의 유머감각에 새삼 놀랐다는 후문이다.

김호경기자 hkkim@kmb.co.kr

김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 예방 “통일열차 타고갈날 머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공식수행원과 함께 만수대의사당으로 북측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

김대통령은 오후 3시20분쯤 케달리 승용차편으로 의사당에 도착, 로비에서 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것인데 김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회답했다. 두 사람은 사진기자들을 위해 잠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한 뒤 접견실로 들어갔다.

먼저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머리대기하고 있던 북측 인사들을 소개했다. 김대통령은 양청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연애 사회민주당위원장, 김운혁 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강홍수 문화상,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과 잇따라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어 남측 외교통상부 손성하 의전장이 박재규 통일부 장관,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의 순으로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김위원장에게 소개했다.

남측 인사들이 착석한 후 김위원장은 “평양에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비행은 순조로웠습니까”라고 인사했고 김대통령은 “대단히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시원과 평양이 모두 좋습니다”라고 회답했다. 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연기후도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훌륭하게 결실을 거두도록 해태를 주는 것 같다”고 덕담했고 김대통령은 “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북행열차를 타고 오신건데 앞으로는 북남이 합심 협력해 통일열차를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김대통령의 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자 김대통령은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25분여 동안 압축 인사간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김대통령은 의사당 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김대통령은 웅장한 회의장에서 총장으로부터 “좌석이 2000석이 되고 대부분 우리나라 대리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모든 것이 수려하다. 아름답고 예쁘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총장으로부터 “원래 설계는 이탈리아 인도 대리석으로 돼 있었으나 김정일 장군께서 우리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외국의 대리석을 사용하느냐고 해서 우리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것을 생 각했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의사당을 나오면서 접견실 옆에 붙어 있는 ‘김일성회화(花)’의 부조 벽화를 잠시 구경했다.

김대통령은 의사당 총장이 “이 꽃이 김일성화”라고 소개하자 “이것이 인도네시아 학자가 연구해냈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사당 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한 뒤 “김일성화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한번 피면 100일이나 간다”고 설명했으며 김대통령은 “그렇게 오래 가느냐”고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정상회담과 '레드 콤플렉스'

지난 1994년 7월 10일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아랍부터 독자와 시민들의 잇따른 질의가 쏟아져 전화통화 열이 났다. "김일성이 주석은 무슨 주석이야" "너희들 빨갱이 아니냐" "그 따위로 신문 편집권 가진 두지 않겠어" "6·25를 누가 알았는데..."

이날 아침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의 제목은 '김일성 주석 사망'이었다. 모든 신문들이 '김일성 사망'이라는 식의 제목을 달았을 때, <한겨레신문>은 그에게 주석이란 직함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가 됐다. 결국 김 주석의 사망은 이른바 '조선과동' 광풍으로 이어져 남북 화해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고, 즉위 세력들은 강인한 '성경력'을 과시했다.

'레드 콤플렉스'의 크고 어두운 그림자는 지난 50년 동안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드리우고 있었다. 90년대 들어서만 박종진 서감대 총장의 '주사과 발언', 현안상 전 통일부총리여 대한 '석 짚은', 근거없는 유괴론 '황정엽 괴담', 이석연 당시 국민회의 의원의 '남조선

명왕 괴담', 최장집-조선일보의 '6·25 성격논쟁'이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 깊은 폭숨을 이어왔다.

2000년 6월 13일 아침 한 중앙 일간지 1면 기사에는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역사적 광양 대화'라는 제목이 올랐다. 이 신문의 어느 지면을 봐도 '용공' 김대중 대통령이 '주사과의 괴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다는 얘기는 없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이들을 친북·용공으로 몰아세우고, 박종·황정엽씨의 근거없는 발언을 대서특필해 '빨갱이 사망'이 앞장섰던 이 신문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2000년 6월 13일은 우리 사회가 과연 빨갱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동북, 좌익, 친북, 안민, 안공가,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을 광범 민족의 호해와 함께 원래 뜻으로, 그 의미의 크기만큼만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음해와 모함의 판기 대신 이성과 관용의 정신을 되새겨 할 일이다.

che@hani.co.kr

## 한겨레

2000. 6. 14 (수)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정상회담과 '작은 발걸음 정책'

#### 구본영의 南北 프리즘

대한매일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객원연구원 역임한 통일문제 전문기자인 편집국 행정뉴스팀 구본영(具本永) 차장의 전문칼럼 '남북프리즘'을 신선했다.

1970년 3월 19일 동독 예르프루브역, 전후 서독 정상이로서는 처음 동독 땅을 밟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플랫폼에서 슈토프 동독 총리의 영접을 받았다. 동독의 견인차가 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서독 정상들의 첫 만남은 별다른 결실없이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브란트-슈토프간 동서독 첫 정상회담 이후 무려 20년이란 산고(産苦)를 겪은 뒤에야 독일은 마침내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이룬다. 이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브란트-슈토프 회담 이후 30년이 지난 2000년 6월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심로 극적인 장면이다. 공식석상에 종착점 나타나지 않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직접 공항영접을 나와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도 55만 명의 남북 정상들의 첫 약속이 분단의 사슬을 끊으면서 평화통일의 틀고를 뜨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법원의 명상 방문은 그 자체 만으로도 엄청난 역사적 합의의 기적이다. 통일로 가는 길 여정에서 분명히 의미있는 이정표가 세워질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간의 우여곡절



과 파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2박3일간 평양 체류로 평화통일의 문이 당장 활짝 열릴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의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도 엄청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현재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 3중고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측으로선 정상회담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체제유지여 최우선적 목표를 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적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양 되면서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 대통령도 서울을 떠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당장의 뾰족한 합의 못지않게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간 각종 대화와 교류 채널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처드 하스 전 백악관 특별보좌관도 국내언론과의 회견에서 "당장 많은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란트의 신동방정책도 참모인 에곤 바 외교안보담당 특보의 "압축을 통한 변화 유도"라는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나중에 외무장관이 된 빌터 هم의 지지할 받아 '작은 발걸음 정책'으로 발전했다가 결국 '신동방 정책'으로 자리매김된 독일식 포용정책이었다.

그런 면에서 김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

ekby7@kdaily.com



## 91년 단일팀 출전 현정화씨 남다른 감회

### “통일의 그날 리분희 선수 만나고 싶어”



13일 하루 동안 감회에 빠지지 않은 한민족 동포가 어디 있으랴.

왕년의 '탁구여왕' 현정화(31·사진·한국마사회 코치)씨는 지난 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했을 때가 떠올랐다.

“제가 경기에서 이기고 울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 때는 서로 얼싸안고 펄펄 울어버렸죠.”

당시 남북 단일팀 '코리아'는 한 반도가 그려진 단일기가 걸려있고, 아리랑 응원가가 울리는 가운데 '합동성' 중국과의 단체전 결승에서 이기고 우승해 7000만 동포를 감동으로 몰아 넣었다. 현씨는 이번 정상회담이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는 각본없는 드라마입니다. 이 분야의 교류가 찾아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벽을 허물다 보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93년 스웨덴에서 열린 제4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그가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느낀 또 하나의 계기이다. 당시 그는 남북 분단의 좌절을 느끼고 또다시 절망해야 했다. “2년간 얼싸안고 울었던 북한 선수들과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제 마음이 어렸는지 짐작 하시겠어요? 정치하시는 어른들이 그렇게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현씨는 이미 선수들 간에는 남한, 북한이 없다고 했다. “외국의 대회에서 만난 남·북한 선수끼리는 아주 친합니다. 다관 남을 규정과 제도가 단일팀 구성을 막고, 우리들 갈라놓고 있을 뿐이죠.”

“통일의 그날”, 특히 친했던 북한의 리분희(32) 선수를 평양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통일을 위해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jtkim@hani.co.kr

## ■ 통일새싹 눈에 비친 정상회담

### '사이좋게 지내자' 말하는 것 같아요



13일 오전 청와대 앞길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일행을 환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미래의 추억이 될 어린이들의 눈에도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대통령께서 처음 비행기 타고 갈 때만 해도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온 것을 보니 북한도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송희·13·서울 삼전초등6)

“4학년 때 중국을 통해 평양에 간 적이 있다”는 리틀엔젤스 출신인 구은희(13·삼전초등6)양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7분 만에 직접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반의 이금감(13)군은 “이산가족이 꼭 서로 만나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고 2002년 월드컵도 공동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들의 눈에 비친 반응은 더욱 순수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사랑유치원에서 친구 50여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김은경(6)양은 두 정상에 압수하며 뛰

라고 말하자 “‘외워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말할 것 같다”고 나뉘는 해석을 했으며, 북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자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서 환영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도 정규 수업을 중단한 채 남북 정상회담 방송을 시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 세원초등학교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전교생이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마다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장면 등을 지켜봤다. 덕수·강원초등학교 등도 교학년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생방송을 시청하게 했다.

송창식 김종태 기자 number3@hani.co.kr

# ‘廣幅예우’ 회담 길조?

## 남북정상회담 **金대통령 맞이**

### 北 전례없는 의전 ‘파격의 연속’ 첫 정상회담 성공 기대감 높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예상외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순안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등 파격적인 예우로 북-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남북한 정상회담의 역사상 첫 상봉은 파

격의 연속이었다. 순안공항 영접, 순안-평양 차량동승, 연도 시범공연 행사,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원남에 이르기까지 김위원장은 회담편의 예우를 갖춰 분단 55년만에 평안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을 맞았다. 국가원수의 광명영접

은 통상 국가대 국가의 의전에서는 예외 찾기 힘들뿐더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특수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원수의 방문때에만 한정된 의전이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 친북대가 의전 일정을 꼼꼼히 챙기자 ‘이와 해: 것이 나 봉크게 처자, 우리에게 맡기 뒤라’고 반 말해왔다. 북측의 경우 김일성(金日成)주석이 1980년초 몽골 대통령을 순안공항에서 직접 마중한 일은 있지만 김주식 사면후 김위원장이 직접 광명영접을 한 전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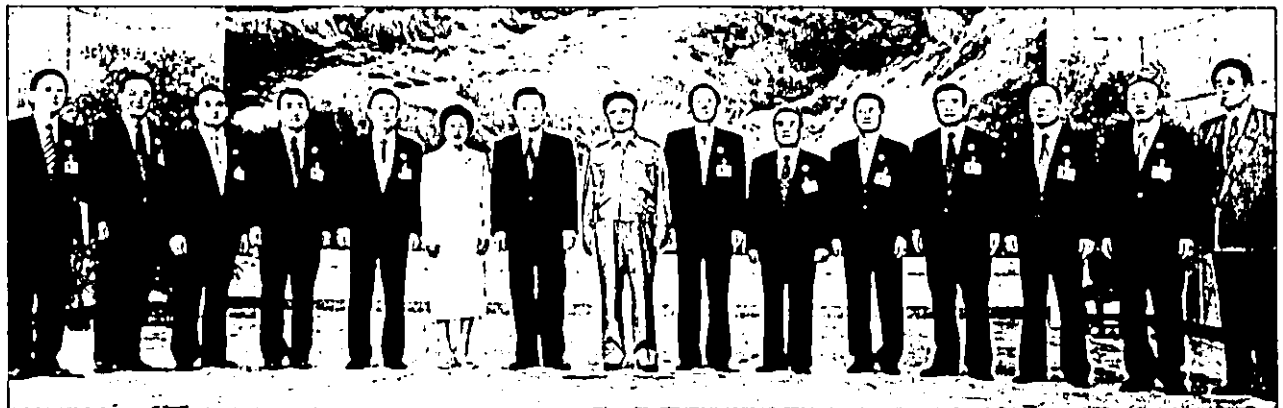
북한 친북가들은 김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김대통령과 차량에 동승한 것은 정상회담의 의전사에서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김위원장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의전을 총동원, 민족간 반감의 의미를 감소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을 위해 의전대 사면선인 등 의정에서까지 마넨, 묵시적으로 “특수관계”로 인정받은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의전관계자들은 “광명 의정행사는 국가 원수나 위수급에 준하는 VIP들을 최고 예우로 대접한다는 의미라든가 북한이 김대통령을 남한의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h101@hk.co.kr



1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있는 남북정상과 남측 공식수행원단의 기념촬영. 왼쪽부터 김하중의전비서관 박준영공보·황철박외교보·이기호경제수석비서관 이현재경정관 이희호여사 김대중대통령 김정일국방위원장 박재규통일장관 임동원국정원장 박지현외교통장 한광욱비서실장 안주실경호실장 허갑범주치의 김윤승노동당비서. /평양·청외대사전기자단

## 생중계 화질 ‘예상밖 선명’

### 도착·영접장면 北카메라 촬영 송출방식 달라 한때 화질우려

13일 오전 10시20분, 한국 방송사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방송 사상 최초로 남북한 방송인이 합동으로 남북한 방송기자채널 변경이 이루어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상봉 장면을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과 김위원장의 영접 장면은 북측 카메라로 촬영해 남측 이동형송신용지구국(SNCG)과 부공화위성을 통해 인방에 위성생중계했다. 남북한 방송 송출 방식이 달라 카메라로 전환해 송출했지만 우려했던 화질 저하 현상 없이 시중 선명화 화질을 유지했다. 김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는 동안 두차례 남북(화면 전환)이 시시각각 나타났다. 현

상이 발생했으나 방송 시청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차례는 한 수행원이 중계하는 북측 카메라를 막아서, 또 한차례는 기술상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방송사측은 밝혔다.

KBS 김덕모도기술통장은 “비록 도착한 방송장비를 통해 사진 영접을 충분히 해 무난하게 생중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 합동 방송단 기자의 도착 멘트와 리포팅도 북한 한 영격의 함성 소리에 간간히 묻혀가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방송됐다.

MBC 영상취재부 조양민 부장은 “북한 방송인의 카메라 중계가 위치가 너무 경직돼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잡지는 못했지만 북측 방송인이 김위원장 중심으로 카메라 촬영을 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을 변각이 보여 줘: 등 균형잡힌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배국남기자 knbar@hk.co.kr

## 회담속기록 30년간 ‘비밀’

### 정상발언 ‘급’ 분류 비공개원칙 합의사안 관련어록은 밝힐수도

13일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쏟아 낸 갖가지 발언들은 어떻게 공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까. 이 발언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에 관한 양측 수뇌의 진솔한 본심을 전파리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현실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는 막중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당국자, 국민 모두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회담장에서 밝힌 주장들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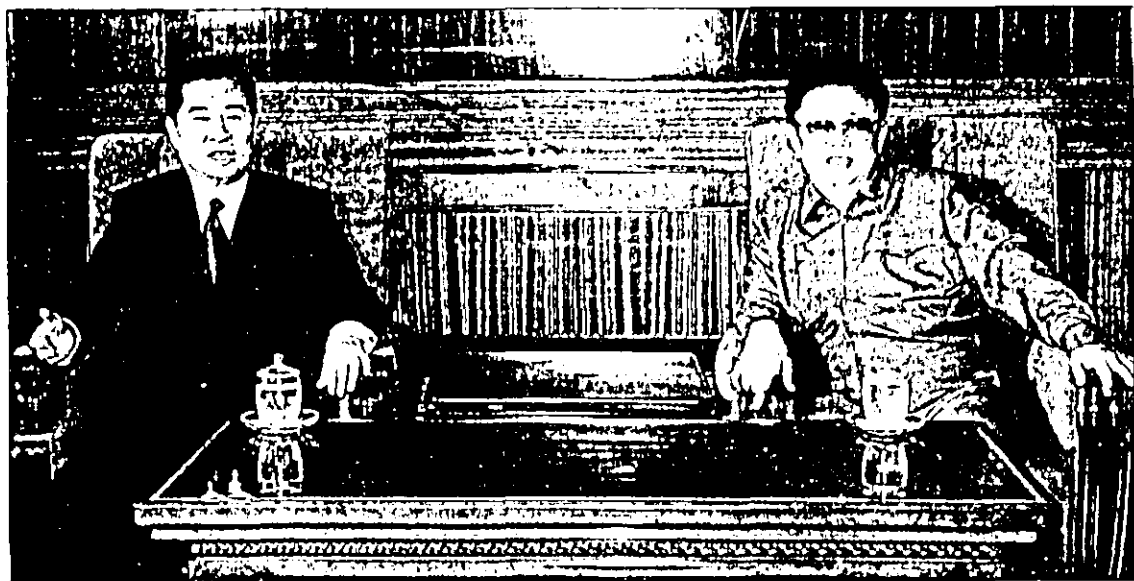
통상 정상들의 발언을 적은 정상회담 속기록은 ‘급’ 비밀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로 30년간 보존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속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하지만 한의 정상회담에서 차림 양측 정상들이 특정한안에 합의할 이후 이따 공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개성명서나 언론발표문 등을 통해 합의사안 관련 발언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다. 또 남측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남측 기자단에 정상회담 내용을 널리알리면서 김 국방위원장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소개 할 수도 있다.

이외관련, 일부 관측자들은 북한측이 최종 합의사안을 담은 발표문 이외에 정상회담 발언내용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는 제한을 대응을 가능성이었다고 본다.

정상회담 속기록은 김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정세에, 평화에, 통일과, 경제관 등이 방리된 북한 관련 최고의 급과유조(金料玉條)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속기록의 원본은 청와대에 보관될 것으로 보이나 필요에 따라 시안이 만들어져 활용될 수 있다.

# “6·13 역사남을 날” “그런역사 만들자” 화답



김대중대통령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환담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13일 오전 11시45분부터 12시12분까지 27분동안 첫 남북 정상

추동 그림입니다. (전금진 아태평외위 참사가 '묘향산의 준하추동을 그린 것입니다'라고 부연 설명.) 김위원장 '김용순 아태평외위원

를 부탁했고 임보좌역이 차례로 장관을 소개했다.)

김위원장 "날씨가 대단히 좋고 인민들한테는 그자체(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어떤 코스를 거쳐 백화원 영빈관까지 움직일 일러 줬습니다. 준비관계를 금방 알려줬기 때문에 외신들은 미처 우리가 준비할

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장에게 친선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위원장 "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과 대구 관제소와 연결하는 것까지 본 뒤에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대통령이) 가지

### ■ 김대중대통령

“평생 북녘땅 못밟을줄 알았는데  
거리 환영인파에 감개무량  
공항 직접영접 성심있음 느껴  
날씨도 화창 성공 예언하는듯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회담을 기뻐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평양 시민이 나와 환영해 감개무량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위원장은 “자랑을 알애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중대통령 (전금진 벽에 걸린 대형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들이니까.”

김정일국방위원장 “원래는 춘하

회 위원장을 향해) 용순비서, 김대통령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오느라 수행관 장관들과 인사할 못 나왔어요. (남측 공식 수행원들을 향해) 환영반문을 환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TV에서 봐서 잘입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때 TV로 많이 봤습니다. (김용순위원장이 임동원 대통령특별보좌역에게 공식수행원 소개

### ■ 김정일국방위원장

“두려운, 무서운 길 오셨습니다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자랑 안앞세우고 섭섭지 않게할터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박3일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해서 (김대통령을 하룻동안) 못오게 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알겠지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김대통령 “이렇게 많은분이 환영나와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북녘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000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

회견에서 게란 반속을 절반만 드시고 떠났다고 하셨는데 구경오시는 데 아침식사를 꼭게 하십시오.”

김대통령 “평양에 오면 식사할 잘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웃음)

김위원장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예절을 지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

하고 싶어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반박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나오고 침잠하다고 하는데 친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통령과 동찬해 힘들,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에게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김용순 위원장을 향해 “오늘 연도에 얼마나 나왔나”라고 물었고 김위원장은 “60만명 기량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나는 4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라고 언급했다.)

김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위원장 “그저게 생방송을 통해 연못에서 초대소까지 (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 주니까 여자들이 명절때처럼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6월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통령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김위원장 “오후부터는 공식 합의된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은 주석님께서 생전에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꽃이 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주석님께서 생존하셨다면(백화원 영빈관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 주석님이 앉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거전까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94년에) 김영삼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에까지 자료를 부탁해 가져왔다는 데 그때 김영삼대통령과 다정다심한 게 있었던 건 직통전화 현물화면 자료를 다 줬을 텐데.”

김대통령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위원장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김대통령이 왜 반박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문부추입니다. 2박3일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사업에 김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양·공동취재단



# 김정일 공항영접-車속 회담

## 남북정상회담 1차회담 안팎

### 공식수행원 전원배석 27분간 진행 김위원장, 이희호여사 각별한 배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은 밤 11시에 '기미없어' 치러졌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험난 길임을 양 정상은 가늠없이 내딛은 것이다.

양 정상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기념촬영을 마친 뒤 오전 11시45분께 전경실로 자리한 윤기1차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정상회담에는 우리측 공식 수행원 전원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이 배석, 확대 정상회담의 형태로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마중나오라는 등 내대적으로 환영해주는데 대해 "감개무량합니다"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김위원장은 회담 도중 "절대 실신하지 않게 해 줘달라" 우려하지 마십시오

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2백30만명(세계에) 대담을 겪어 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 넘친 어조로 분위기를 잡어다녔다. 김위원장은 가끔씩 농담도 건넸다. 그는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잘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우리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주섭(安周燮)경호실장을 알아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날 북측은 상봉을 김한 1차 회담의 시작부터 거의 끝날 무렵까지를 남측 공중취재단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과 같은 승용차로 도착한 김위원장은 차에서 내린 뒤 영빈관 입구에 잠시 서서 뒤차로 도착한 이희호 여사에게 먼저 들어갈 것을 권하는 등 각별히 예우했다.

### "힘 모으면 이루지 못할것 없다" 전배

#### ■ 인민문화궁전 만찬 표정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3일 오후 7시10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만찬에 참석. 남북 화해를 축원했다. 남측 수행원·취재단 전원과 북측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은 2시간 30여분간 우수주적인 분위기에 진행됐다.

메드 테이블에는 김대통령과 김위원장 및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김용순 노동당 비서 겸 이대평화위 위원장, 양정선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리원구 조국통일민주전선 시가국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원구 지민련 의원 등 남북 주요인사 18명이 앉았다.

김위원장은 만찬사에서 "나라의 통일

을 위해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다"며 자주적 평화종교와 김대통령 내외의 남북, 남측 손님과 참석자의 건강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 김대통령이 북측 환대에 대한 감사로 감사할 시작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대통령은 "이토록 지척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간세움이 필요했다"며 김희를 피력하고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건배할 제의했다.

북측 참석자중에는 남측에도 잘 알려진 여지 마리톤 신수 정선우, 영화 '임꺽정'의 주인공 최창수 등 인민배우, 북송된 이인모 노인의 딸 이현숙씨 등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평양=공중취재단



김대중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3일 밤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한주최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두정상 "반갑습니다" 첫인사

#### ■ 평양 순안공항 스케치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첫대면은 예상을 뒤엎고 김대통령이 평양땅을 밟는 순간에 끝바로 이뤄졌다.

김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은 13일 오전 10시27분. 그때 공영입구에서 김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이대평화위원장 등 북측 지도자가 등장하자 마중나온 평양시민들이 진홍, 빨간색의 조화(꽃송)를 흔들며 "경사옹위 김정일 만세" 등의 함성소리를 내질러 공행이 떠나갈 듯했다.대부분의 남측 수행원은 시민들의 함성소리를 듣고 김국방위원장이 직접 마중나온 사실을 알았다.

김위원장은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 김대통령의 전용기앞 대형카펫 중앙에 자리했다. 비행기문이 열리자 김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평양 순안공항과 첫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김위원장은 박수로 환영했으며 김대통령도 박수로

회답했다.

이어 김대통령이 트랜슬 내려와 김국방위원장에게 다가서자 김위원장은 서너걸음 앞으로 나오며 김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인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다. 김위원장은 뒤따르던 일은 흰옷색 안보스 차림의 이희호여사한테 보지 먼저 다가와 "반갑습니다"라고 환영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위원장과 의장대 합 시켰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 함께 걸으며 "날씨가 매우 좋다"고 말을 건넸으며, 김대통령도 "회담을 하기 좋은 것 같다"고 잠시 날씨를 화제로 이야기 나누며 광화 중앙에 마련된 시열대로 향했다.

김위원장은 시열대 앞에 서있는 우리측 공식 수행원과 반갑게 악수할 나중 뒤 김대통령을 중앙 시열대로 안내했다. 김위원장은 앞서 임동원 대정당특별보좌, 한광우 비서실장,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등 우리측 공식수행원을 소개받을 때이다. "아 그래요"라며 아는 듯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평양=공중취재단

## 세계가 놀란 '車회담'

13일 오전 11시45분부터 27분간 진행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양측 정상간 본격적인 대담은 10시50분부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전차량 안에서 시작됐다.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

장은 순안공항 영접행사를 마친 뒤 함께 차에 올랐다. 파격 중의 파격이다. 김국방위원장이 운전사 뒷좌석에 앉고 김대통령이 그 옆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김대통령에게 제공된 의전차량이 김국방위원장이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 김대통령 차에 김위원장 동석 공항~백화원 50분간 단독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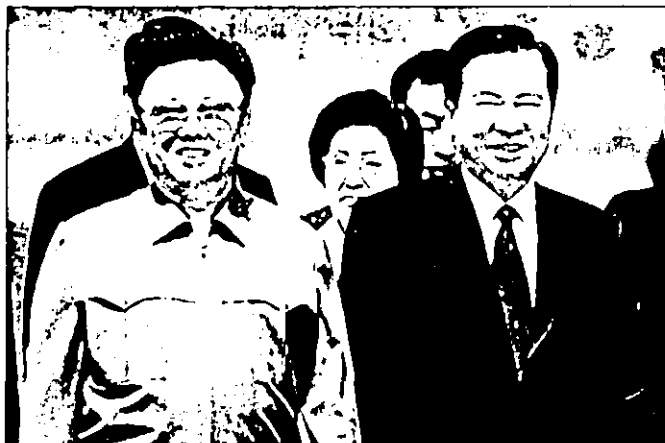
대중 주목되는 대담은 양측 정상이 50분간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22km구간을 함께 이동하면서 배식지와 기록지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차 안에서 사실상 단독회담을 가진 셈이다.

양 정상은 첫 대면 후 순식하고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대화하면서 평양회담에 임하는 양측 자세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 정상들은 백화원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평양 시내 일원의 환영인파에게 손을 흔들고, 잠시 차에서 내려 평양시민들에게 악수로 답례를 표시한 점으로 미루어 일단 평양시내 풍광과 대대적인 환영 등을 주제로 얘깃거리를 피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여기오기까지 참으로 긴세월 걸려”

## 남북정상회담

김대통령 첫날 만찬담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며 웃고 있다 /합영·황희대사진기자단

김정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하신 북녘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일평생에 주신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 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지극히 깊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쪽 지도자들과 만나 거머와 만남을 눈앞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반박으로 7,000만 민족이 천령의 동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방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련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해는 옮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물거야 할 신성한 속대를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희망입니다. 당국자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앞세기는 무한정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쪽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과 마음을 합친 채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합을 하나로 모으다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세가 분담의 시대를 지난간 역사로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정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분명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에는 지금까지 남북 동포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해방면 조양사업 등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평양학생소년계승단'과 '평양교역단'의 공연을 담은 남북 동포들은 감격과 눈물과 박수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남과 북에서 교류와 협력에 협력을 모든 분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내심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귀빈 여러분. 역사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1세기 첫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남 상임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영운을 빌며, 오늘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향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제를 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남 만찬사 “자주·애국의 결단으로 마련된 자리”

김대중 대통령阁下과 리화영 내사, 그리고 남북 손님 여러분. 나는 먼저 김대중대통령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들이 유서 깊은 우리 평양에 오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홍이 오기는 이 자리는 우리들 자신의 자주적인 선택과 애국의 결단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과 마중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현행은 언제 돌장나졌는지, 통일은 또 언제 이룩되었는지, 7,000만 겨레의 이 평범한 몸집이 이제는 북과 남의 착잡없는 한·한일이 대담할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어떤 지난(21세기)과 민족 수난사

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얽힌 부리값은 시대주의의 후과정임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통일을 변경의 인세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겨레와 세계의 관심은 여기 평양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대통령과 이번 평양방문이 바로 짧은 일정이지만 굳센 마음으로 유사같은 평양의 도성과 분과기도 익히면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외의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7,000만 겨레의 넘칠만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대중대통령 내외분의 만해를 축원하여, 남북과 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의 길 찾겠습니다”

#### ■ 김대통령 평양도착 성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동포 여러분. 함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신천이 보고 싶어 여기에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제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비감한 심정에 왔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북의 7,000만 모두가 이러한 소원을 하루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의 우리 일행을 초청해 주신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동포들의 따뜻한 인부의 정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봉일에

앞장 서고자 평양에 왔습니다. 남북 동포가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저의 회담에 가는 기대만큼이나 북녘 동포여러분의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만 같던 남북 정상간의 단담이 이루어진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 반세기 동안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은 온 겨레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회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단담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에게 평양시민과 북녘동포 여러분의 합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읍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앞에 선 점퍼차림 김정일

## 黨政軍

## 수뇌부

## 대거 영접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오전 도착한 평양 순안공항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외에도 다수의 북측 요원이 출영. 남측의 귀빈을 맞이했다.

평양에서의 TV 위성중계 방송 화면에 드러난 북측 인사중 최고위직은 원임상 국가수반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같은 법적 위상 때문인지 김위원장은 이날 공항 환영회에서 두 정장과 함께 의전대 시열대에 서기도 했다.

군에서는 실력자인 조명득(趙明得) 당 국방위원의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의 모습이 보였다. 또 노동당에서 김국태(金國泰·김남당당) 김용순(金容淳·대남당당) 비서, 최고

헌법상 국가수반 김영남  
조명득 軍 총정치국장에  
김국태·김용순 黨 비서도

인민회의회의에서 최대복(崔泰福) 의장과 김영대 상임위 부위원장, 김윤여(金潤林) 상임위 서기장 등도 나왔다. 평양시장 격인 양만갑(楊萬吉)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눈에 띄었다.

의전대 사열을 마친 뒤 김대중과 인사를 나눈 북측 출영객 중에선 강시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의 북측 특사였던 송호경(宋浩敬) 이대평과위 부위원장,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안경호(安敬浩) 인명수·安炳洙) 조평동 서기국장 등의 얼굴도 눈에 띄었다.

이대 비례 북측의 '피스트레 이디'인 김 국방위원장의 부인 김영숙은 환영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백남준(白南準)외무부의 모습도 TV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다.

/빅진용기자 hui@hk.co.kr



## 남북정상회담

외모로 본 김정일

13일 남북 동포들에게 처음으로 실재 모습 보여 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모는 평소 알려져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체격. 우리측에 알려진 김위원장의 신장은 160~166cm. 그러나 이날 김위원장은 173cm로 알려져 있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작아 보이지 않았다. 그 비결은 '키높이 구두'라는데 걸쇠. 실제로 이날 김위원장은 굽이 무척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남북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위원장은 70년대 초년부터 유럽에서 특수 제작한 '키높이 구두'를 신기 시작했다. 80년대부터는 자신의 신발만을 전담 제작하는 제화공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날 보인 '인공키'높이에 비해 구두 굽의 높이는 6~10cm 일 것으로 추측된다.

김위원장의 체중은 80kg으로 알려져 왔는데 소문이 과장은 아닌 듯 했다. 그만큼 비만에 보였고 배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김위원장은 승마 수영 등을 즐기고 전담 관리 부서까지 두고 건강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션 스타일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특유의 피어 머리를 뒤로 넘겼다. 얼굴에는 얇은 갈색의 선글라스를 끼었다. 평소

시력이 안 좋아 두꺼운 근시 안경을 쓰는 김위원장은 외부 행사때는 선글라스를 애용하곤 한다. '위나 밤에 낮게 지어짐에 눈이 충혈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추기 위해서' '안경을 과시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다는 해석도 있다.

옷은 갈색 점퍼와 바지를 입었다. 우리측 시각에서 보면 이는 격식을 차리는 공식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 그러나 김위원장은 30대때부터 공식·사역을 가리지

체중80kg정도 비만체형  
신장은 '키높이구두'로 보완  
피어머리·색안경 평소대로

않고 인민복과 점퍼 등 간편복을 즐겨 입고 있다. 지난 달 중국방문때는 인민복을 입었다. 김위원장이 현재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을 보여준 것은 1992년 제일조선련 상공인들이 기증한 경공업 전시회를 시찰했을 때가 유일하다. 이날 이채로웠던 점은 김위원장이 옷속에 김일정 배지를 달지 않았던 것. 이날 행사의 '주체가 자신임을 과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신효성기자 hsshin@hk.co.kr

## 北방송 오후5시께 일제 보도

첫 만남 상세히 전해  
'김대중 대통령' 호칭  
중앙방송선 특집보도

북한 방송들은 13일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극적인 상봉순간에도 음악방송 등만 내보내 공감을 불러일으키더니 오후 5시부터 약속한 듯 일제히 김대중의 남북시찰을 보도했다. 김대중팀이 평양에 첫 발을 내디딘지 7시간여만이다.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후 5시 정규 보도시간대에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오늘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방송들은 "평양의 60여만 시민이 역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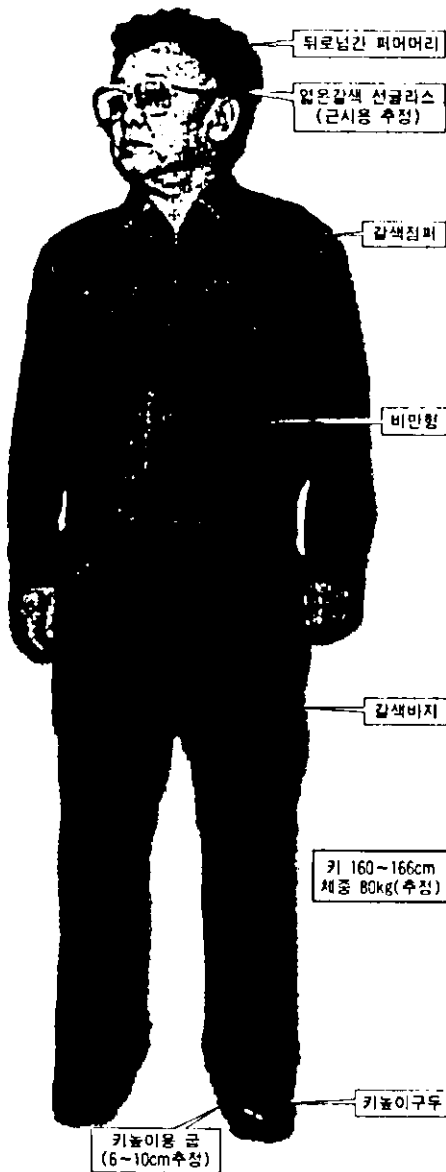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 오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을 동포의 정으로 뜨겁게 환영했다"며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김대통령 숙소까지 동행했으며 숙소에서 환담하고 김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이어 조선중앙TV도 오후 7시 특별보도를 통해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상봉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두 정상의 움직임, 평양 시민의 환영장면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특별보도를 진행한 남녀 아나운서는 "만나면 이렇듯 형제애로 들끓는데 우리는 단일민족임에도 아직도 유일할 분열의 강도에 살고있다"며 "이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가 돼 분열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북한이 남측의 TV4사나 CNN 등 주요 외신채널 두 정상의 상봉을 생중계하지도 않고 지

## 김정일 위원장 외모와 패션



역뉴스에야 첫 보도한 것과 관련, 정부당국자는 "북한은 경호 등의 문제 때문인지 김위원장의 외부행사를 생중계한 적이 없고 보통 1~2일 뒤 보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외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만나오고 감동한다고 하는데 (무관심한 줄로 안다면) 천만의 망심"이라며 "신문과 라디오에는 경호때문에 선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베일벗은 김정일 활달·건강·깍듯

## 여유있고 '통큰 스타일' 92년이후 첫 육성공개

베일에 싸여 있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3일 마침내 세계 속으로 걸어왔다. '은둔자' '에측할 수 없는 신비의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일거에 물리치려는 듯 김위원장은 파격적이고 '통큰 스타일'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나타났다. 공항 영접부터 차량 통승,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2시간여 동안 그는 시종 웃음을 잃지 않은 채 김대통령에 대해 깍듯한 예우를 차리며 당당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이미지가 짐작되는 듯 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 북측 환영객의 합성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대중에 노출되기를 꺼려 공항영접은 고사하고, 정상회담 장면의 근접 촬영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할 뿐 파격적 행보였다. 침피차림에 얹은 반색 선글라스를 쓴 김위원장은 작은 키를 의외, 굵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였다.

김대통령과 11랩 아래에서 손을

맞잡은 김위원장은 북측 고위인사들 소개하고 준비된 차량까지 안내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이기지 않았다. 카메라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자 걸음을 멈추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회동이 김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줄 때는 이희호(李姬鎬)여사의 위치까지 살폈고, 김대통령과 함께 환영객 주변을 돌면서 먼저 박수할 유도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의 '통큰 스타일'은 그가 김대통령을 차량까지 직접 안내한 뒤 옆자리에 동승하면서 걸정을 이뤘다. 이는 김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의 표시이자 한반도문제는 남북정상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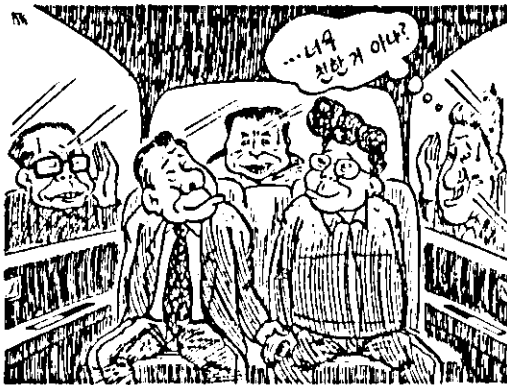
이같은 활발한 행동 이외에 김위원장의 육성도 공개했다. 김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면서 제스처를 세가며 "어떤 코스로 오는지 직접 행거보고 공항에 미중 나갔다"며 스텝없이 말했다. 방송 카메라의 소음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크고 우렁했다. 그의 목소리가 공개되기는 1992년 4월25일 인민군 창군 기념식에서 "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있으라"는 발언 이후 두번째다.

/북진통신기자hub@hk.co.kr

### 한국만평

baek@hk.co.kr

배계규



### ■ 회담장·숙소등은 어떤곳

## 국민급 체류 北 최고 영빈관

### ● 백화원 영빈관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은 북한 최고 수준의 영빈관이다. 1983년 평양의 중심인 중구역에서 8km 떨어진 내성구역 인흥동에 세워졌다. 2~4층 규모로 반관 2개동과 여러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전면에는 여러 개의 분수대가 설치된 호수가 있다. 건물 앞쪽

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뒤편에는 숲이 울창하다.

이 곳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지난 1990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평양 고위급회담 때 남북 대표단의 숙소였고 1998년5월 정주영(鄭周永)전원대영예회장 일행이 묵기도 했다. 1994년 키미 전대통령 부부도 이곳에 머물렀다.

이리중류의 꽃이 많아 '백화원'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 ● 주암산 초대소 모란봉기슭 민간대표단 숙소

우리 대표단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24명은 평양의 주암산 초대소에 집을 풀었다. 평양 중심가에서 동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대성구역 미암동 모란봉 기슭에 위치하

고 있다. 김영삼 주석의 김무실로 사용되던 급수산 의사당(현 김 급수산기념공전)의 부속건물 중 하나이다. 이 초대소는 백화원영빈관에 대항하는 최고급 숙식시설이다.

### ● 고려호텔 45층 쌍둥이건물 '프레스센터'

남측 취재진들의 프레스센터이자 숙소인 고려호텔은 북한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특급호텔이다.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창광거리 평양역 원쪽에

위치한 이 호텔은 지난 85년 8월 연건평 8만4,000㎡에 45층짜리 2개의 쌍둥이 건물로 준공됐다. 두 건물 뒷부분이 북도로 연결돼 있다. 객실은 510개이다.

### ● 순안공항 북한의 관문 유일한 국제공항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받은 순안공항은 북한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90년 우리의 통일촉구단 대표가 이 공항을 이용했다. 북한의 관문으로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22km 정도 밖에 있다.

순안공항 인근에는 평양-회천 고속도로와 평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원활하다. 관제도 국제적인 수준이다. 지난 65년 건설된 이 공항에는 6km에 이르는 2년의 활주로가 있다.

### ● 인민문화궁전 74년 준공... 김일성이 작명

평양 방문 첫날 환영반찬이 열린 인민문화궁전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보통강변 천리마거리에 있다. 지난 74년 4월 14일 준공했으며 각종 국제회의 및 정치집회 장소로 이용된다. 총 부지면적은 8만㎡, 연

감축면적은 6만㎡. 김일성주석이 직접 이름을 지은 이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세계의 큰 건물로 이르지 않다. 3,000석 이 넘는 큰 회의실도 있고 크고 작은 연회장, 회담장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만수대예술극장 北 최고예술단 전용극장

김대중대통령 내외가 13일 오후, 광연을 관람한 만수대예술극장은 평양 중구역 대동문동 서문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연 건평 6만㎡.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만수대예술단 전용극장이다. '꽃

파는 처녀', '위원의 노래' 등이 공연된다.

지난 77년 1월 건립된 이 극장은 건물밖에 여러 그림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극장의 회전무대는 넓이가 2,000㎡에 달한다.

# 경쾌한 '환영곡'에 아리랑도 연주



## 남북정상회담

北공연 관람

### 전통문화 위주로 공연 남북공감 배려한 흔적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내외' 꽃바구니 전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13일 오후 4시부 터 1시간 동안 평양시내 평수대 예술극장에서 북한의 김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위해 준비한 공연의 국악 공연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북측은 공연전 남북 수행단 정례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선전부의 '김대중 대통령 내외부와 인연을 위한 예술공연에 초대합니다'라고 적힌 초대장을 보냈다.

이날 공연장에는 남북 수행단과 북측 관계자들이 50여 명의 공연의 피석을 가득 채웠으며 김대통령 내외부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관례대로 배를 타고

의 '환영곡' 속에 입장하자 박수로 환영했다. 한편 미소를 머금고 입장한 김대통령은 남북 관중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61년 뒤 공연장 앞 쪽 중앙에 마련된 관중석에 착坐了. 관중석에는 김대통령 후쪽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지연 문화관광장관, 김영내 시회민주주의위원장, 고은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의 사기국장, 최규호는 이외수 이사, 몽안 아문정 선생의 딸 리원군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사기국장, 차면서 대안민족예술회 회장, 강연수 평양시당 책임비서 순으로 앉았다. 북측은 김대통령과 이여사

의 피사에 공연 도중에도 프로그램을 위할 수 있도록 소형 스탠드를 설치했다.

북측은 이날 공연 종목을 이념성이 없고,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연주와 무용으로 구성된 공연의 뜻을 나타내며, 주로 전통문화에 기초한 공연을 선보여 남북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먼저 관현악(지휘자 김병희)으로 '아리랑', '청산방에 풍년이 왔다'를 2곡이 연주됐다. 북측의 한 관계자는 "김병희 지휘자는 1950년 일본에서 귀국한 인물로 북한 최고의 지휘자"라고 소개했다. 공연은 이어 무용, 풍광춤, 민중가춤, 천안삼거리(북무), 키춤, 정고춤 순으로 이어졌고, 가이공 독주의 범창에 이어 무용 '노아 내린다' 등 8가지 순서로 전개됐다.

공연이 끝난 뒤 김대통령은 모든 출연자들이 도열해 있는 무대로 올라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내외'라고 적힌 큰 꽃바구니를 전달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할 한 뒤 퇴장했다. 김대통령의 퇴장 때 남북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 ■ 서울출발 표정

민족사의 새로운 장(章)이 열린 13일 아침, 평양으로 떠나는 김대중대통령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일출차 나온 길가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는 모습에서는 국민들의 사랑과 인연에 부응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나왔다.

오전 8시15분에 부인 이외수(李敏喜)여사와 함께 청와대로 출발한 김대통령은 청와대 정문 앞 유치동 관수대 근처에서 차를 멈췄다.

김대통령은 실형만, 주민들과 인연이 깊숙해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고, 시민들은 "정중하고 돌아오세요" "왕 변히 다녀오십시오"라며 여사까지 반목살을 환송했다. 실형만 김경희(金敬喜·77)씨는 부모님의 사정을

#### 이산가족 상봉부탁에 손뼉치며 "알았습니다"

#### 벽찬감회 연도시민들 "잘다녀오세요" 환송

김대통령에게 보여주며 "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 달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대통령은 "알았습니다"라며 두손을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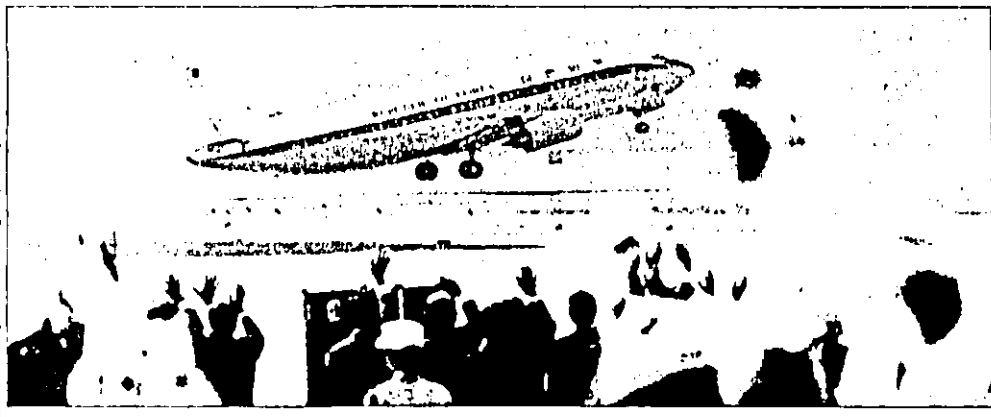
서울공항에는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최종영(崔鍾永)대법원장, 이만동(李萬東)총리서리 등 3부 요인과 전 국무위원,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 이인재(李仁濟) 상임고문, 한나리당 김기배(金紀培)사무총장, 자민당 김종호(金宗浩)총재권인대행 등 국회의원, 일반 국민 등 1,000여명이 환송나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김대통령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안을 직시하는 지분한 마음으로 방북길에 오르다"며 축하 인사말 한 뒤 공군호기 탑승대로 올랐다.

김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공군호기는 오전 9시18분에 평양을 향해 북회 하남을 향해 날아올랐고, 환송자들은 대궐기류 흔들며 장도를 축하했다.

일부 실형만 환송자들은 공군호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서로 인싸임으며 감격을 나누기도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



13일 오전 서울 공항에서 김대중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활주로를 박치고 떠올라 평양쪽으로 향하자 환송객들이 태극기와 손을 흔들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하고 있다

## "여기는 평양" 50여대 전화·팩스 불나

#### ■ 서울 중립상황실 표정

#### 金대통령 평양첫발 맞춰 50여명 24시간 비상돌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서울 소재 50대순번 50대에 이르는 서울중립상황실도 24시간 비상 돌입에 들어갔다.

김대통령의 순안공항에서 김정연(金正演) 관대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순간부터 서울중립상황실의 50여대 전화기와 팩스머신은 24시간 비상 돌입에 들어간 상황을 송출할

없이 돌아왔다. 전날밤 거의 온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한 이종관(李鍾寬)남북대화사무국 상근위원장의 상황실(실장 손인교·孫仁敎) 남북대화사무국장에게 사시각과 보낸 자료와 받아 남측의 총지휘본부와 한 남북정상회담 관련부처 차관회의와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정문해라 배부해 움직였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청와에서 숙직하며 13일 근무를 온 오유권(吳維權)국립중앙도서관 및 언니(嚴君龍)재경·안정식(安正植)중앙·변기문(邊基文)외교·김승(金承)문화부차관 등 정상회담관련 차관관 10여명 역시 밤중에서 온 자료를 받아,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추가 자료 준비를 지시하는 등 분주했다.

서울 중립상황실은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직원 등 중심으로 재경·외교·문화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한 50여명이 24시간 특명 근무중인 서울의 연락장구, 평양 상황실본부다. 현지 상황은 전담번기나 청와대에서 만든 '부채중 국정상황'을 김대중관에게 보고한 자료도 평양상황실로 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명환국장은 "서울상황실은 청와와 백사방과, 부공과 위상을 이용한 비상통신망, 하루에 두번씩 오가는 평양 등으로 평양상황실과 연락을 취한다"며 "서울상황실은 남중에서 평양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받는 첫 관문"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



수행나은 복측 주요인사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13일 평양 순안 공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최고위단 인사 대부분이 영접 행사에 나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복측의 직격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영접 행사에 나온 주요 인물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 위원장, 조광학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국태·김홍순·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으로 이들은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비행기 드림 앞까지 갈아가 김 대통령을 영접했다.

또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 부위원장과 김연희 상임외 사기장도 반갑게 김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청백리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핵심측근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8년 9월 헌법 개정과 함께 신선민 것으로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 지체이다. 외교전문가인 김 상임위원장은 모스크바종합대학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54년 우리의 외교부인 국제부에 배속된 뒤 국제부 요직을 거쳐 83년 방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장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김영남은 북한 외교사단의 세대교체와 관련해 대서방 외교부문을 담아서 김홍순과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되면서 원형하던 외교활동을 사실상 접어들었다.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뇌물도 받지 않는 청백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허만 1세대'이자 북한 권력 사업 2인자라고 군부들 장악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김정일의 군부대 비문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현지 지도에도 빠지지 않고 김석재 군부 장부임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 의장은 김홍순 김국태 김기남과 함께 '비서 4인방'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다. 한때 대남·국제사업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원래 화학을 전공한 그는 당·청의 교육 전문가로 불린다.

교육분야에서 김위원 후계체제를 구축한 '임동생선'으로 인정받고 있다. 80년 정무원교육위원회(교육부처)를 겸임·80년)을 거

최고 86년 12월 당직개편 때 당 중앙위원 겸 비서로 진격 발탁돼 노동당의 중추인물로 떠올랐다.

■김국태 간부단장 비서 김 비서는 70년대 당 선전선동부장을 거친 '선전총'으로 지극한 간부사업과 사상분야 담당 비서를 맡고 있는 김정일의 측근이다. 그는 노동당에서 김국태 하면 '일 잔하는 사람'으로 통할 정도로 혁명2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철학을 전공한 당 사상 이론가 중의 하나로 당대회 보고 등 당 문헌 작성에 참여했으며 68년 2월부터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선전선동에서 맹위를 떨치며 김일성 유일사상세계 확립을 주도한 사람이다.

■김홍순 노동당 대남비서 겸 이대평화외 위원장 금강산관광을 심사시키고 이

년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하고 있는 김 비서는 김 국방위원장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북측인사 중 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나오는 등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얼굴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외가쪽 먼 친척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홍순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2년 간 모스크바대학 연 구원으로 유학한 경력이 있으며 56년 귀국해 당 국제사업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한 외교전문가로 현재 국제·대남사업단 책임지고 있다.

■김연희 최고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 서기장은 정무원 행정경제관료로 금속·건설분야 전문가다. 77년 12월 정무원 사무국장으로 관제에 발을 들여 놓으면 서부터 같은 정무원에서 일했으며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적극 나서 김정일의 신임된 연었다. 86년 6월에 중앙지체총연합상사 총서장, 86년 8월 정무원 제1부총리, 86년 12월에 정무원 부총리 겸 건설경제공업위원장으로 임했다.

김일성父子 의전담당 최측근

■기내영집 전희정은 누구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가 가장 먼저 만난 북한 정부 인사는 누구일까. 바로 김대중을 친유기기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비행기에 직접 올라가 김대중을 기내 영접한 김 국방위원장의 의전담당 비서 전희정(全熙正)이었다. 전은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도 맡고 있다.

전은 오랫동안 의전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80년부터 금수산의사당(주석부·현 금수산기념궁전) 의사국정읍 할아 김일성(金日成)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전을 했었다. 김주석이 외국인을 접견할

때는 물론이고 김주석의 82년 중국 방문, 84년 동유럽 8개국 방문도 수행했다. 김주석 사후에도 김정일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이래 최측근 의전 담당으로 활약중이다.

전은 1930년 3월 강원도에서 출생했다. 50년대부터 외국에서 근무할 시작, 주 캄보디아 대사관 1등서기관과 주 콩고 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뒤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의전을 총괄하는 의례(의전) 국장으로 활동했다.

전은 80년에 노동당 중앙위원이 됐으며 82년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c@hk.co.kr

의사당 안내자는 '빨치산의 딸'

만수대의사당 부총장

이현상 외동딸 밝혀져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소개를 맡았던 여성안내자는 '지리산 빨치산 대장'인 이현상(李玄相)의 무남독녀 장녀(長女)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 출생인 이현상은 해방 후 남포당 지도부의 지시로 48년 지리산에서 빨치산 투쟁을 시작, 51년 7월부터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중 53년 9월 18일 지리산 빗길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다. 그의 빨치산 행적은 '남부군'등의 소설을 통해 남포에도 잘 알려져 있다.

상진씨는 6·25 전쟁중 어머니와 함께 월북, 김일성(金日成)주석의 각별한 관심속에 성장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총



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와 같은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며 도타운 인연을 맺었다. 김위원장은 상진씨가 질병으로 강에 빠지자 직접 약을 준비해 병문인을 가고 강의 내용을 보충하도록 도와준 정도로 상진씨를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진씨는 대학졸업 후 해외공관 근무 등 대외부문에 활동했으며 85년 만수대의사당이 설립되면서 부총장으로 등용됐다. 상진씨의 남편 이영연씨는 르만다와 모디기스카르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의무성 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술하에 딸 1명이 있다. /이태희기자 taehlee@hk.co.kr

임동원 국정원장 특보로 訪北

신분상이유 공식발표안해

김정일에 수행원 소개할아

우리 측의 정상회담 대표단 공식 수행원 중에는 유난히 눈길을 붙잡는 인사가 있었다.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평안 평을 맡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이 그것이다.

임동원은 13일 정상회담에 배석, 남북 공식 수행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보기에 따르면 '이색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가 DJ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임동원은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킨 사실상의 막후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임동원의 대표단 참여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하지만 국정원장이란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 회담의 공식 수행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 평양 60만 환영인파 조화 흔들며 “만세”

한국일보  
2000. 6. 14 (수)

 남북정상회담

평양 연도 표정

## 차량행렬 주요거리 10km 순회 두정상 車내려 시민과 악수도

13일 오전 10시50분 순안공항을 떠난 차량 행렬은 20분여만인 11시10분께 평양시 입구인 연못동에 도착해 정차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은 이 곳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두 정상은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악수했으며 악수할 나누기도 했다. 이곳에서부터는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길가에 줄줄이 서서 진중색과 분홍색 조화(畵花)를 세차게 흔들며 뜨거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시민들은 조화들 아래 위로 흔들며 큰 목소리로 “만세” “김정일 김사유위(柳禹)를 끊임없이 외쳤다. 환영인파는 진화한 숫자를 알 수

없었지만 10km에 걸림이 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줄잡아 60만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북측 안내원은 “남측의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파”라며 “평양시만이 220만명인 만큼 상인들은 거의 모두 환영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내원은 “어제는 날씨가 흐렸는데 날씨도 알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안내원은 또 “김정일 장군님이 광복(廣福)정치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안으시는 것”이라며 “남측 동인시절들이 그런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도의 시민들은 남자들의 권

수 양복을 입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으며 여자들은 대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흰색 지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차량 행렬은 연못동에서 4·25 문화회관까지의 ‘용기리’, 전승기념관까지의 ‘비파거리’, 보봉강 강안도로, 보봉문, 민수대 의사당, 옥류교, 민수대 언덕, 개선문거리, 종로거리, 김일성종합대학까지 평양의 주요 거리들 10여 km 정도 순회했는데 환영 인파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연도를 메웠다.

차량 행렬은 시속 30km 정도의 다소 느린 속도로 달렸고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연도의 환영 인파는 조화를 흔들며 목이 다쳐라 함성을 질렀다.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몸을 들이밀면서까지 반가움을 표시했다. 연도 중간 중간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악대가 나와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55년만에 北하늘이 열렸다

## 태극기·대한민국 선명한 전용기 순안공항 안착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와 특별기가 13일 오전 항로를 통해 북한땅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앉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씨수행원을 태운 전용기와 특별·일반수행원과 공동취재단을 태운 아시아나 B-737기(1002번)는 13일 오전 9시 54분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측 영공으로 들어갔다.

남북간의 ‘하늘 길’이 막힌 지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었다. 아시아나기 기장은 비행기가 북한땅 영공으로 들어가기 직전 안내방송을 통해 “10초후 38도선을 넘는다. 3사 방위에 우리 영토인 백령도가 보이고 2사 방위에 북측 장산곶이 보인다”며 하늘길이 뚫렸음을 알렸다. 창을 통해 들어온 북한땅은 넓은 구름에 덮여 자세한 풍경을 볼 수 없었다. 기내에는 곳곳에서 가벼운 흥분과 승평 기분이 일었으며 55년 동안 막혔던 무기속에 비해 막혔던 장벽은 너무 가볍게 풀렸다.

공동취재단을 비롯한 대표단은 일제히 창밖의 북한땅 풍경을 보기 위해 창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마침내 북한땅을 밟게 됐다”는 탄성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9시18분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도 곧이어 이륙했다.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 특별기는 9시20분 서울공항을 이륙한 직후 서해를 향해 자세를 잡았으며 5분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영종도 산공항 건설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기는 이어 9시40분께 평양을 신화, 북쪽으로 날기 시작했으며 38도선을 넘어 다시 10시께 기수위 동쪽으로 틀어 평양쪽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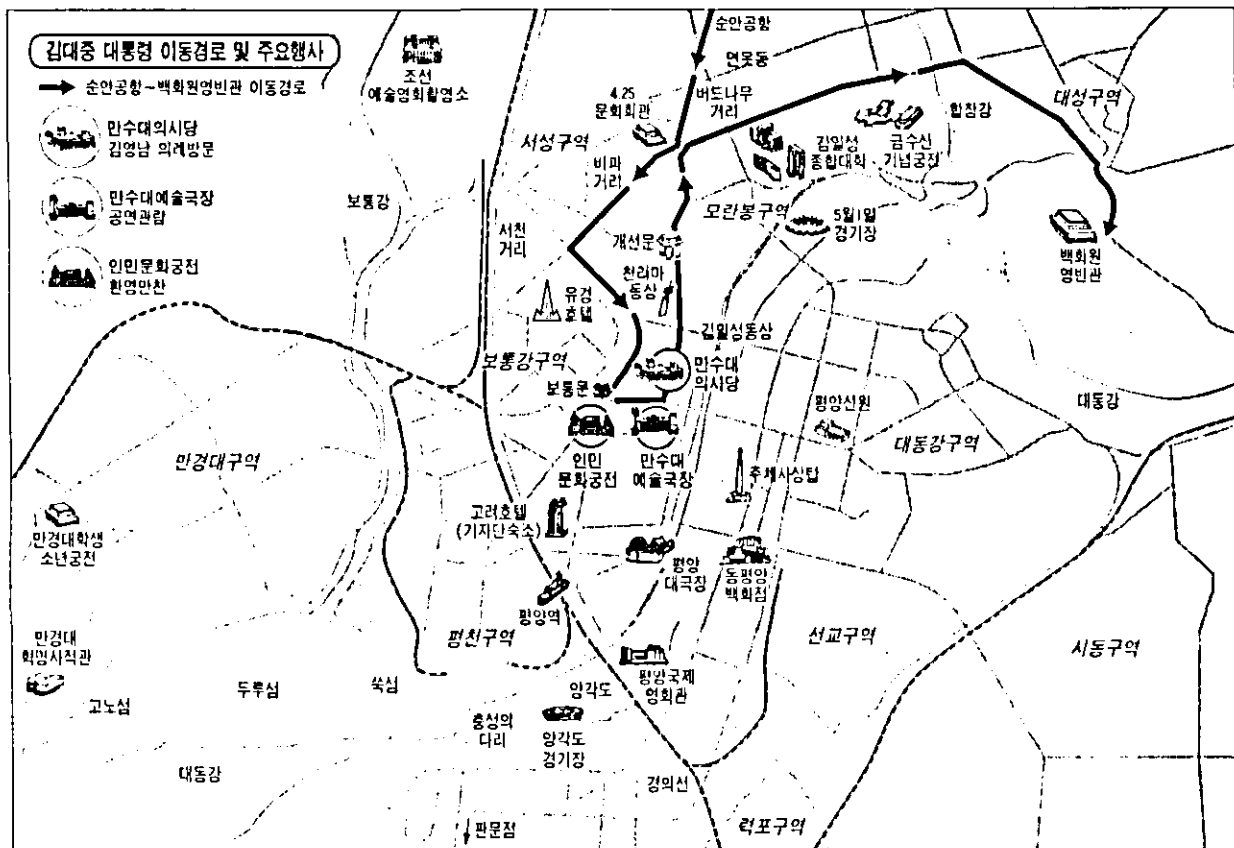
평양 순안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기류로 잠시 기체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창으로 북한땅의 산하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왔다. 기장은 이때 방송을 통해 “20분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며 평양은 현재 맑게 개였고 기온은 현재 22도 정도”라고 연

내하며 회담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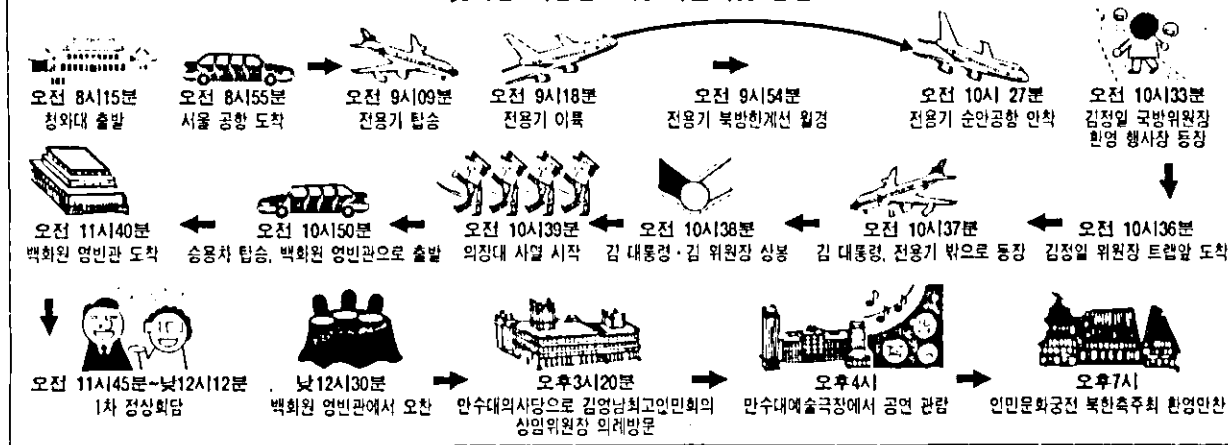
공항 주변에는 북한주민들이 모내기를 하는 광경이 보였고, 일부 주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남측대표단의 비행기를 쳐다보기도 했다. 주변의 동산에는 돌을 모아 세간 것으로 보이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눈에 띄기도 했다. 평양 순안공항 주변은 소박하지만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각종 시설물도 새롭게 단장된 모습이었다. 공항 주변에는 양복과 군복차림의 북측 경비요원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먼저 출발했으며 평양 현지 행사관대로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보다 15분 정도 늦은 10시27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시편히 내려앉았다. 수행원을 태운 아시아나기의 바퀴가 평양 순안공항에 걸음을 내며 놓자 기내에서는 일제히 “와! 하! 탄산과 함께 합한 비수가 터지나왔다.

/평양=공동취재단



### ■ 김대중 대통령 13일 시간대별 상황



## “김정일 공항영접 미리 알았다”

### 경호상 이유 공개안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식(梁養植)4인무치권은 1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정상회담 프

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방위위원장의 공항 영접 시선을 사전에 알았다”며 “남북 양측은 경호문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을 뿐 남측은 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백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측이 남측에 사전통고없이 영접일정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측은 박준영(朴俊榮)청와대공보수석이 13일 오후 평양 브리핑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환영을 받았다”고 밝힌 집중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12일 오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 도착시행방법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점도 시사 사진 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12

일 저녁 늦게나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 출발 직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공항 영접이 있지 공항에서 도착시행법을 발표하지 않고 백화원에서 박공보수석을 통해 이를 공개도 했다.

12일로 예정됐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하루 연기된 것도 김공보위원장의 공항영접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직접영접 놀라운 일” 긴급 타전

## 남북정상회담 해외반응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반도 주변 4강 등 각국별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

### “공항영접 상징적 제스처”

○미국 언론들은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 대령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천명의 환영객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했으며 리무진을 함께 타고 속소로까지 동행했다”고 전하고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을 남포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살해로 노란데 이어 지난해 서대선에서 해군원정대에 교전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정상은 변함은 그 자체일뿐”이라고

평가를 내었다.

또한 유에스에이 부데이오1만 기사로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등 모든 미국 언론들이 중요 기사로 취급했다.

김대중의 순안공항 도착 장면은 KBS 화면을 받아 중계한 CNN도 정상회담을 헤드라인뉴스로 전하면서 “수백명의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대통령을 맞았으며 은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보도했다. CNN의 마이클 차노의 기사는 “김 위원장의 공항 영접은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전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oon@hk.co.kr

### 日외무성 “좋은 성과 희망”

○일본 언론은 13일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및 김 위원장과의 회담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면서 내대북의 관심을 보였다.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45분간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장면을 KBS보다도 동시 영접해 생중계했으며 다른 민간 방송도 모두 이 소식을 중계사로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신문 등의 이날자 시판량 25%의 충실한 영접 취재 기사들 옆으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을 11년 미결기사로 다루고 관련 기사에 3개면 정도를 할애했다. 주요 신문사 언더넷 유메이치의 “남북정상회담” 특집도 기사량이 크게 늘어났다.

NHK는 이날 김 위원장이 공항에 비호를 나옴과 김 대령과 같은 리무진을 타고 평양 시내를 향해 “예상 이상의 이례적 환영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강한 의욕의 표현”이라고 논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대중의 일행의 공항 도착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김 위원장을 북의 최고지도부가 김대중을 맞은 최대의 환영 자체를 보임으로써 남북화해를 위한 역사적인 만남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영문 매체는 김대중의 평양 도착과 함께 “원만한 시작”이라며 3일간의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롯데호텔 프레젠테이션에서 양영식 통일부차관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자 내외신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아미자키 등이치로(山崎一郎) 외무성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공항까지 나와 김 대령을 맞이한 데 대해 “피뜻한 최상급 환영 행사라며 ‘정보의 원만하게 시작됐다’며 ‘양국의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yhwang@hk.co.kr

경문의 기사를 타전했다. 신화통신의 남북정상회담이 일족의 뿌리같은 관습 때문에 해소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첫 회담부터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남북정상회담이 변화와 발전이라는 세계 역사 조류와 남북 국력의 공동 임박때문에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게도 김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김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전했다. 이타르-트라스 통신은 김대통령이 이날 평양에 도착, 속소인 백외위 영빈관에서 김위원장과 25분간 회담한 뒤 민수대 공정을 찾았으며 이곳에서 김연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김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황영식

## 美 “만남 자체가 엄청난 변화” 日 “이례적 환영 北의욕 표현” 中 “남북국민 열망으로 성사”

### 中외교부 “평화노력 지원”

○중국의 당기관지 인민일보, 신화사, 해외일보 등 주요언론 매체들은 13일자에 1면과 6면 3차례만에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포로환, 남북관계 40년 시간 등을 크게 보도했다. 인민일보: 13일자 6면에 “한반도 평화 구축 기대”라; 새망의 기사도 4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전체를 위회시키고 한반도 동북에 나가 기사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자극적인 공헌이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한인 중국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환영,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외교부 주빙자오(朱邦治) 대변인이 밝혔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ong@hk.co.kr

러 “일련한 환영 놀라”

○러시아 인민 N-TV는 13일 첫 오뉴스의 국제뉴스 마트기사로 김대통령의 평양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김대통령이 순안공항 도착을 내려신 북한 주민들의 일련한 환영에 놀라 모음까지 보았다고 소개한 뒤 김대

### 佛 “경험 본격화에 기여”

○프랑스 국영TV인 프랑스2 채널은 13일 아침 7시 뉴스에서 김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위원장과 악수하고 만면에 미소 띤 채 함께 걷어가는 화면을 내보내며 남북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프랑스2는 “북한 정상은 북방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이번 회담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본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 獨 “남북관계 개선 전기”

○DPA통신과 뉴스 전문 N-TV, 공의 방송인 ARD, ZDF 등 독일 언론들은 13일 남북 정상간의 상봉을 매지가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ARD: “1953년 한강협정이 끝난 이래 47년간 중립지대에게 묵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만났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베를린=황

## 남북정상회담 대만 “모델삼자” 중국 “무슨소리”

중국과 대만이 13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양국간의 관계개선 모델로 채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만은 “이날 중국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양국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델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대륙위원회 리정중 대변인은 이날 상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대만과 중국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정치적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남북한 정상회담반식이 아닌 중국의 독자적인 회담방식을 대만에게 지극히 원하지 않 것이라고 밝혔다.

주방자오(朱邦治) 외교부 수석 대변인은 “양국관계는 전적으로 중국 내부문제에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남북한 문제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타이베이=황영식

### ■ 긴장·환호 프레젠테이션

“생각보다 北태도변화 큰듯”

“시작중이나 신중지세 필요”

남북정상회담 취재팀 위해 마련된 서울 송파동 롯데호텔 프레젠테이션도 13일 하루 내내 긴장과 환호의 연속이었다.

남북의 정상이 처음 손을 맞잡는 순간 내외신 기자들도 ‘객관적 기록자’로서의 냉정함을 잃었다. 박수와 환호, 심지어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리려는 것은 TV를 보며 울고 웃던 일반 국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13일 오전 10시33분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예정 없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 선안공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회견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AFP 등 세계 주요통신사 기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김위원장이 직접 영접나왔다’는 한줄을 ‘긴급기사’로 타진했으며, 일부 기자의 예모도 잇은 체이연한 표정으로 대형 텔레비전을 훑어지켜 지켜 보았다.

박수와 환호는 김대통령이 트럭을 내려 마중 나온 김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는 순간, 두 정상이 한 차례 오르는 순간에도 연이어 터졌다. 영국 BBC 방송의 마크 페로 기사는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북측의 태도변화가 큰 것 같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1.200여 명의 내외신기자가 포진한 프레젠테이션은 오전 8시15분께 김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13일 서울 롯데호텔 프레젠테이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마주잡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외신기자들이 한순간이라도 놓칠새라 애의주시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나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먼저 미국 CNN, ABC방송과 영국 BBC방송 등 방송사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김대통령 내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은 화면을 본국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어 오전 9시18분 서울공항에서 김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이륙하자마자 AP, AFP 등 통신사 기자들은 ‘남한대통령, 북한을 향해 이륙하다’라는 긴급기사를 전세계에 타진했다. BBC 등 방송사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프레젠테이션의 생생한 분위기를 화면에 담아 보내기도 했다.

조·석간을 발행하는 요마우리(讀賣), 마이니치(毎日)신문과 지지(野市)통신 등 일본 기자들은 석간 마감시각인 오후 1시까지만 하차 김대통령의 선안공장 도착 표정과 1차 정상회담 개최사실까지 전한 뒤 일단 한숨을 돌렸다.

평양 고려호텔에 설치된 북측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시각각 보내오는 기사를 받아 다시 정리, 본사로 송고하는 국내 보도진도 바쁜기는 마찬가지였다.

○한편 김위원장의 공항 영접에 대해 일부 외신은 신중한 자세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ABC의 존 로워 기사는 “시작이 좋기는 하지만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으며, 아시아워치의 라스미 나카미르 한국지국장은 “초청한 측에서 최대한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측의 환대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날 내외신기자들이 위해 오전 9시30분에 첫 브리핑을 한 데 이어 김대통령의 반복일정이 끝나는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에 공식브리핑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 훈기자 hony@hk.co.kr  
최순진기자 moonsun@hk.co.kr

## ① 중앙일보

2000. 6. 14 (수)

### 역사적 회담 열매 맺길

카터 前 美대통령 [워싱턴 韓=연]지

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정상회담 2000 행사의 오찬에 참석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생산적인 것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받았으나 그해 7월 민주석이 사망해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됐었다.



카터 前 대통령

### 계속 만나느냐가 관건

보즈워스 美대사 [워싱턴=연]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양측이 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지의 여부일 것이라고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2일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미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회담이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

## ② 중앙일보 2000. 6. 14 (수)

# 혹시나... 드디어... “이젠 뭔가 되겠구먼”

### 목메인 해외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평양 선안공장에서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첫 만남을 이루는 장면을 TV나 인터넷 화면으로 지켜본 해외 동포들은 한동안 감격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이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을 향한 큰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흥분의 순간을 보냈다.

“이거 이제는 머이가(뭔가) 되겠구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함복 청진 출신의 장길홍(84)씨는 TV 중계로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을 지켜보다 목이 쏘리리 외쳤다. 부인 장귀여(86)씨는 “일남 하면서 생이별한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눈시울을 적시다 “살아 생전 고향방을 한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며 울며 토포했다.

1947년 월남했던 재미 한승직(79)목사는 TV에 평양거리의 환경인기가 등장하자 부인 한연복(78)

씨에게 “가족·친지들이 있는지 잘 보라우”라고 재촉했다.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방영된 12일 저녁(현지시간) LA 한인타운은 동포들의 눈이 TV 화면으로 쏠리는 바람에 업무가 일시 마비될 정도였다. 율리픽가의 한 한인 당구장에선 손님들이 TV 앞으로 몰렸으며 기원에서도 전원 대국을 중지했다.

재일동포들은 민단·조총련 가릴 것 없이 TV를 지켜보며 감격해 했다. 김재숙(金宰淑)민단 단장은 “너무도 가슴이 뭉클했다”며 “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조총련에 대화를 제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의 차별문제를 다루는 ‘재일코리아인 권협회’ 서정우(徐正禹)회장은 “이번 만남이 재일 동포 사회의 남(민단)과 북(조총련)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 살면서 오늘처럼 기쁘고 뿌듯한 날이 없었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일본의

대우도 달라질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중국 한국인회의 신영수(愼榮洙)회장은 “이제야 마음 한 구석이 자리잡고 있던 용어 하나가 풀리는 것 같다”며 “도대체 오늘의 흥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고향이 강원도 고성군 포외진이라는 재중 동포 함홍만(咸弘萬·극동선박항공회사 사장)씨는 “이렇게 겸사스러운 일이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이젠 중국인들에게 댕뻑해졌다”고 좋아했다.

모스크바에 유학생인 김선호(金善浩·노문학 박사과정)씨는 “러시아 TV들이 중계를 하지 않아 인터넷 동영상만 지켜보면서 우리 역사를 두 팔에 걸쳐 설명해 줬다”며 “회담이 잘 풀려 귀국시 북한을 경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욕·베이징·도쿄=김진·신중돈·유상철·오영환 특파원, LA지사=김성태·김경원 기자 <jinjin@joongang.co.kr>

## “성공기원” 與野 합창

### “민족사적 전환점 될것”

○민주당 당직자들은 13일 대표실에 모여 TV로 생중계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해방이후 가장 기쁜 날”이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과 북이 같은 형제임을 실감한다”면서 “2000년6월13일이 민족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업민인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김구(金九) 선생이 38선을 넘는 사진이 그간 남북관계를 상징했지만 앞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도착 사진이 더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도 “너무도 감동적”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태희기자  
tachee@hk.co.kr

### 李 총재는 생중계 안봐

○오전으로 예정됐던 주요 당직자 회의도 취소한 한나라당은 김기배(金基培) 총장을 서

용공방으로 보내 김대중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 미치지 않겠다”며 “방학 기간중이나 후에도 국민과 민족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는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도착 장면이 생중계되는 동안 TV를 켜지 않은 채 당사 집무실에서 당직자들의 보고를 받았다.

/홍희근기자  
hghong@hk.co.kr

### “파격적 예우 좋은 징조”

○자반련은 김대중 대통령의 순안공항 도착 장면 생중계를 환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당직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한 데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파격적인 예우”라고 말했다.

김종호(金宗鎭) 총재대행은 “북측의 예우가 가식이 아니라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한국일보

2000. 6. 14 (수)

## “추가회담 여부에 성패 달려”

### 보즈워스 美대사

남북한 정상회담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의 척도는 양측이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가 12일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날 미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의 회담이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길에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기대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 “아마도 추가회담 개최에 합의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

## “北책략 아닌 진짜타협 의도”

### 놀랜드 美한반도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12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한 궁극적 의도가 모호하지만 지난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비춰볼때 진솔한 태도는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놀랜드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두 한국의 만남이 갖는 의미”라는 글에서 분석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놓고 자신감을 확보한 김 위원장의 전략적 계도 수장인지 아니면 더 많은 원조를 끌어내려는 책략인지를 저울질해 왔으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이번은 진짜 타협이며 북한의 개방의지가 진지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홍

# ▶ 남북頂上 ‘핫라인’ 의견 접근

역사적 첫회담... 현안 격식없이 논의 합의점 찾기로

金대통령 “전쟁의 공포서 해방·이산의恨 풀어줘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낮 속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상봉을 겸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4일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2박3일 동안 남북간 현안에 대해 아무 격식없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남북정상간 직통 전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지면서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직후 남측에선 박재규(朴在圭)총리, 이현재(李顯宰)차관,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 장관과 한광옥(韓光玉)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식수행원 전원, 북측에선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27분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월13일

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했으며 김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세계가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2박3일 동안 대답해 줘야 하고, 대답을 주는 사안에 김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해 김대통령의 방북을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남측의 구체적 카드를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 만찬담사를 통해 “이번 방문으로 7.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

루어져 노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용기편으로 오전 10시27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녘 동포의 뜻에 따라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에 앞장서고자 평양에 왔다”면서 “김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재결합 실현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와 함께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취재단



류전선 위와 아래

김대중 대통령이 방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한 13일 류전선 너머 북측 개성시 기정동에서는 주민들이 한가롭게 모래가를 하고 있다(오른쪽) 남쪽에서는 외신기자들이 판문점을 방문. 유엔사 장교의 실영을 들고 있다.



남쪽에서는 외신기자들 /판문점-이종철기자

### “南北 기상교류 내친김에 계속을”

#### 상설화면 天災 피해 대폭 줄여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튼 기상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 기상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기상교류가 이뤄진 것은 11일 오전 9시 김포 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이 양쪽의 기상정보를 한시간마다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13일까지만 한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내친

김에 지속적인 기상 정보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한의 매년 기상대별로 평균 1조 원의 넘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격 교류가 된다면 이같은 큰 줄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의 기상 정보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운영하는 유선통신망인 AFTN(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해 가능했다.

### AFTN은 조난 긴급사고와 비행안전 기상정보 등에 관한 각종 정보 교환하는 망으로 남북한은 일본 도쿄(東京)와 중국 베이징(北京)에 각각 통신망이 연결돼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정보를 교환하지는 우리의 제의를 거절, 통신망을 열지 않았다.

기상청 류상범(柳尙範·39) 공보관은 “북에 위치한 임진강 상류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없다면 경기북부의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래준기자 yajun@hk.co.kr

### 각계 정상회담 기간 “집회자제”

남북정상회담 기간 대규모 도심 집회도 부북 줄어들었다.

북상 서울신대계서 하루에 벌어 지는 시민·노동단체 등의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 연수는 6건 정도. 그러나 당초 정상회담 일정으로 잠정했던 12-13일 경합제 접수권 건수는 약 45.55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그나마 12일에는 여정원 집회 가운데 23건이 취소됐다. 특히 광 앞 5년 정도이던 여정원 약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는 정상회담 기간인 13-15일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단합장소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의 경우 하루에 2-3건의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이번 주 만큼은 예약이 전무한 상태. 경실련도 정상회담이 끝나는 15일 오후까지 정서광명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는 다들 일정이 없다. /배성규기자 veyga@hk.co.kr

## 대한매일

### 美 언론론들 김정일위원장 새 평가

#### “카키복차림 공격적 인물”서 “합리적이고 능력이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남북정상회담의 시작과 함께 미국 언론들은 회담의 결과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모에 새로운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공식석상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언론의 평가는 국무부 고위관리 말처럼 “압축속 평가”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3월 베를린 선언을 한달만인 4월초 받아들여 외교적 포용력을 과시한 이후 단단한 지도력을 갖추고 서방과의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는 평을 듣기 시작했다. 또 정상회담 첫날에는 평양 순안공항까지 김대중령을 미중나경 의외의 호의에 이르기까지 미 언론들의 눈에는 그가 과거에 들었던 인물평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북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정상회담과 관련, 김 위원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회담을 비롯한 일정을 수행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란 시작을 기대감으로 표현했다. 미 언론들은 “사실 김 위원장에 대한 서방의 지식은 매우 한정돼있으며 고작 카키복 차림의 괴팍한 성격, 공격적 성향의 인물이라는 단편적인 것들이었다”고 되짚기도 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한때 테러 배후 지원자 혹은 붕괴되는 공산국가 지도자지만 알지못한 그에게 서방언론들은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CNN방송은 미 외교관의 말을 인용, “최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보거나 들은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며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각인된다”고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 美 “잘될것”기대반 “잘될까”회의반

#### 만남자체에 의미 부여 “北과거행태 비취볼때 단기 성과 집착은 금물”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내 시각은 기대와 회의가 교차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에서 한번호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추진에 상당한 의미 부여하고 기대하는 반면 북한이 그동안 핵동기 부여를 높일때 가지적 상대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시각은 북한을 담당해온 국무부 스탠리 로스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가 한 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최근 매일 무슨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긴장감을 가지고 참을 것이다”고 긴박한 상황전개에 한바다로 표현했다. 그는 “은들의 북한 지도자들이 냉전의 고

입이라는 캠페인을 해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고 밝힌 뒤 “그러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북한이 무슨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상반된 느낌을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한 최대연인인 해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억제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기대하는 미국은 초조한 기색마저 보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으로 확인된 남북회담의 진지함이 13일 평양 순안공항까지 아래쪽으로 마중 나온 집에 미워 어렵지 않은 시안부터 고리가 풀리길 기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스 카드면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연은 귀중한 교훈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며 성난한 기대를 피렸으며 조지 부시 후반의 외교안보 고문 존스슨스태드 워포드 조 교수는 정상회담을 장기적 시각으로 보라고 주장했다.

·hay@daty.com



남북정상회담 실행민·시민 표정

“이런 날이 결국 오기는 오는군요.”  
13일 전국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격  
성과 감동에 온통 젖어들었다.

오전 10시37분 평양 순안공항 전용기 도륙  
위에 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눈앞에 펼쳐  
진 북녘 산하를 보며 감회에 젖는 순간, 온 국  
민도 함께 호흡을 멎었다. 이어 북한 김정일  
(金正日)국방위원장이 다가서 김대중명과 굳  
게 손을 마주잡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전국을 휘감았다. 55년 분단의 아픔과 실증이  
돌연 새로운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극적인 순  
간이었다.

실행민 “고향집 벌써 눈앞”  
전국이 온통 감격의 눈물  
비전향 장기수 “통일 만세”  
외국관광객도 “통일” 합창

○이 시각 서울 중로구 구기동 이북5도민  
회 사무실은 “만세”소리에 파묻혔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고향방이 눈앞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단체와 원호는 이내 만세기의 외환  
과 밀접한 그리움이 담긴 울고경으로 바뀌었  
다. 황해도 연백 출신 조재원(趙在元·70)씨는  
“이수 장편을 보니 눈물이 떨어 밧도 제대로  
못하겠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죽기 전  
북에 남긴 동생들을 만났으면 더 바랄 게 없  
다”고 말했다.

○인천각 ‘병희의 중’ 옆에 설치된 대형 스  
크린을 지켜보던 정세훈(鄭世勳·70)씨는 “고향  
방에 선 김대중의 모습을 보니 정말 생애는  
비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며 맘을 잊지 못했고  
학교에서 한창학습을 나온 김소미(金素美·12·서울 중  
업초등교 5)양도 “대통령 할아버지 꼭 통일을  
이뤄주세요”라고 밧에 주위를 잠시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오 통일전방대에서 열린 ‘통일의  
북’ 남북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합세, “통  
일”을 외치는 김동수원 모습이 연출됐다.

○충권사 직원 박명운(朴明雲·34)씨는 “양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객장에 나온 고개  
과 직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며 “이 순간은 주기도 동도 모두의 뇌리에서  
마비”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위기간인 각 대  
하 도시관 입법실도 이날 오전 반값은 텅텅 빈  
채 대신 TV가 설치된 도시관 휴게실에서 연  
신 박수와 환호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 김  
유미(22·아동가족학 4)씨는 감동이 가시지 않

은 표정으로 “8월 김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상사제 김대중영이 영접하는 모습도 보고 싶  
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정보센터에는 이날 오후부터  
이산가족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실행민들의 줄  
이 길게 이어졌다. 황해도 연백 출신 민종현  
(86)씨는 “집에서 현찰을 갖고 부러부러 신청  
서를 쓰러왔다”며 “막상 쓰러니 형제들 어류조  
차 가늠기불하다”면서 지난 50년 세월을 한탄  
했다. 순안공항에서 50리 떨어진 평남평원군출  
신 황정옥(黃貞玉·68·여)씨도 “18세 때 치녀들  
만 잠깐 피란하러기에 ‘엄마 내일모레 올게’하고  
떠난 뒤 백백년을 기다려  
왔다”며 덩실덩실 어깨춤  
까지 추어 보였다.

○전체 3,000여 주민  
중 560여명이 실행 1세  
대인 강원 속초시 청호  
동 ‘아바이마을’ 노인정  
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얼씨하고 울고 웃으며  
하루를 보냈다. 북한에  
아내와 딸을 두고 왔다  
는 여석창(74)씨는 “이

번 회담이 우리에게도 살아 생전 장막 마지막  
기회”라며 간절한 희망을 내보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모여사는 서울 관악구  
방청6동 ‘민남의 집’도 하루종일 눈물과 웃음, 환  
호가 뒤범벅이 됐다. 류은형(柳恩衡·77)씨는 김  
대중이 김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 나오자 갑자기 정중 속에서 한반도기를 꺼내  
흔들며 한껏 목소리를 높여 “조국통일 만세”를  
외쳤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고친유기자 julduc@hk.co.kr

대학 10여곳에 ‘인공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인공  
기와 한반도기, 태극기가 나란히 내걸  
렸다.

서울대 학생회관에는 이날 오전 흰색  
천 3장에 각각 2m 길이의 인공기, 한반도  
기, 태극기를 그리넣고 허단에 ‘남북정상  
회담대환영’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고려대, 경북대, 건국대, 창원대, 한양  
대, 광주대 등에도 인공기들이 게양됐  
으나 동아대와 덕성여대 학생회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12일 밤 인공기를 철거  
했다. 연세대 조국통일위원회는 종이  
인공기를 만들었지만 게양은 보류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대구 "관제 넘겨받아라" 평양 "오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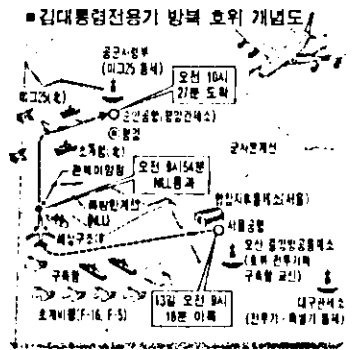
# 대통령 '평양가는 길' 남북軍 한마음 작전

반세기급 대치해온 남북한의 군도 13일 허우먼은 허나원 비음이 됐다.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보잉 737)와 특검기(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37-400)가 서울공항을 이륙, 시해될 거처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할 때까지 남북한 군은 사실상의 합동호위·감호작전을 펼쳤다.

이뤘었다. "이기는 대구..." "이기는 평양..."

우리측은 곧바로 '원제를 넘겨 받으라는 의미의 '핸드오프(Hand of)''를 외쳤고, 평양측은 '오케이, 라지(OK, Roger)'로 화답했다. 평양 근교 북한 공군사령부와 교신하며

전용기와 특검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오전 9시18분, 인근 진주비행장에서 발진한 F16과 F5 전투기 편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 참으며 호위 및 초계 작전에 들어갔다. 동시에 저해상에서는 전용기 항적에 따라 배치된 구축함과 초계함 등이 민첩하게 움직였고



이 민첩하게 움직였고, 민첩하게 사내에 대비해 해상구조대의 정예요원들도 비상대기상태에 돌입했다.

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하며 숨가쁘게 상황을 점검하는 동안, 이날 사령부와 실시간으로 작전시스템이 연계를 합동한 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는 조양권(崔永勳)합천의장과 각 군 지휘부, 위기 조치반 요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전용기와 호위전투기들의 행적을 쫓았다.

상공에 대기하던 미그25기들이 이 순간부터 작전을 받게되었다.

미그기들은 근접경호기 지휘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전용기와 상당한 거리감 유지했고, 편대수도 최소화했다. 북한 초계함들이 해상 경계작전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미끼까지.

오전 9시54분, 전용기와 특검기가 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직전 대구항공교통신제소(ACC)와 평양항공교통신제소 간의 첫 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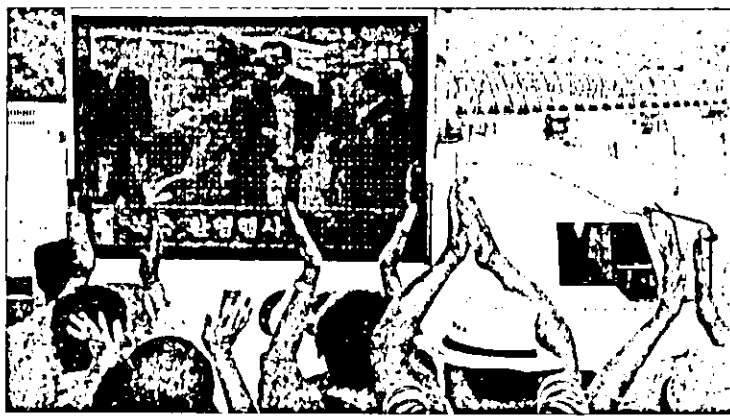
남북합동작전은 오전10시27분 김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69분만에 종료됐다. 군 관계자는 '남북의 군이 같은 목적의 작전을 수행하기는 장군에게 치유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영준기자 naiker@hk.co.kr



## 끝내 터뜨린 눈물

13일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을 서울역에서 TV로 지켜보던 한 노인이 차가 끊어오르는 감회를 억제하지 못한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다. /강태욱기자



13일 임진각에 나온 시민들이 대형 이동스크린을 통해 중계방송을 지켜보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하는 장면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임진각·양태석기자

### 訪北시청률 80~90%이상

방송 3사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생중계 및 녹화 방송 시청률은 시청률 조사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특성상 14일 오전 집계 돼 정확할 수치는 파악할 수 없으나 방송사 관계자와 시청률 조사기관 종사자들은 생중계

방송 시청률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특례비전을 보유한 가운데 80~90%가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했다는 뜻이다. 또 점유율은 100%로 텔레비전을 켜 시청할 모두가 남북정상 회담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가 조태호씨의 휴가로 조삿갓 당분간 없습니다.

# 종합상사, 인터넷 대북사업 본격화

LG, 투자등 온라인상담

현대선 北상품 경매 추진

종합상사들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대북한 관련 사업 인연을 넓히고 있다. 대우도 대북한 투자상사에서 물품거래, 북한상품 경매에 이르기까지 다각화한다.

LG상사는 대북투자상사들에 관심을 갖는 기업에 북한회사와의 상담추진, 사업내행,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lgicorp.com)를 마련, 100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송파이사에 접속해 회사 소개, 자료실, 매출액 등 사업현황 그리고 북한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과

요 등을 기입하면 3~4일 이내에 대북사업 전담팀이 연락을 한다.

LG상사 관계자는 "북한 입각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대종합상사도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송금결제 및 생선잡이망 제공, 기업간 전자상거래사업인 '세이프딜 프로세스'를 북한에 시작하고자 하고 소만간 관련 사업(www.safeddeal.com)도 개설키로 했다.

국내와 업체들의 유통가게, 생산설비를 보다 경쟁적인 가격으로 북측에 공급하기 위한 것. 또 이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농민에 입수하는 업체들에 원부자재 조달 및 생

산제품의 수출 등을 도울 수 있다.

현대상사는 이를 위해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 중소기업연합회 및 기계공업진흥회와 제휴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선미중계선문업체 등 광범위한 제휴선과 고객망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대상사는 이와 함께 옥션(www.auction.co.kr)과 공동으로 북한 상품을 전문으로 경매하는 '북한 상품전'을 계획하고 있다. 상품경매는 우선 건강식품이나 주류 등에서 시작, 중형인-플랜트 제품 등 중대형산업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북사업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SK상사로 손꼽혔던 SK회장의 남북한정상회담 수업을 계기로 북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눈금미안에 나서고 있다.

조재우기자 jwsu@hankook.co.kr

## 한겨레

2000. 6. 14 (수)

# 남북경협예산 대폭 늘린다

통일부, 내년 5000억원 증액요청  
예산처, 정상회담 성과따라 긍정 검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아직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관련 분야의 추가 예산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부처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

금을 내년 5000억원 증액하고 대북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북 보건분야 지원은 국제백신연구소에 출연금의 사용처를 지정해 출연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북한의 면역체계 조사,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자재 공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요구에 따라 5000억원의 증액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남아있는 액수를 5000억원을 더해 1조 원 규모가 된다. 통일부는 남북간 언어 관련 사업개발사업(SOCI) 건설 등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요구한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부처 예산을 집중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예산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재승 기자 jsahn@hann.co.kr

① 중앙일보

2000. 6. 14 (수)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방정원(33)씨는 최근 로동당(rodongdang.com)·순안공항(sunanaairport.com) 등 북한관련 도메인 1백여개를 등록했다.

방씨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북한 관련 도메인을 외국인에게 내주지 않고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도메인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13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관련 도메인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kimjungil-jooche-

北관련 도메인 선점 경쟁

북한의 김경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임명 이첩인 'kimjurnal'의

경우 '.com'은 지난 1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오모씨가 등록했으며, 지난 4월엔 광주에 사는 박모씨가 '.net'을, 서울의 박모씨가 '.org'를 등록했다.

최근엔 모란봉(moranbong)·주체(jooche)·빨치산(partizan)·인민(inmin)·개마고원(kaemakowon)·만경대(mankyungdae)·아오지(aoji)·산리마(chollima)·38선!(38line) 등의 도메인도 등록했다.

김창규 기자 <tcnteen@joongang.co.kr>

# 예상밖 확대... 재계, 北특수 잔뜩기대

## 남북경협새시대 ①

"경협 걸림돌 제거신호" 대북사업 잔걸음  
"경협특수 향후 10년간 200억弗" 전망도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여해 동성이라는 적극적인 재조용 움직임이 남측 경협과 각종 경제교류에 상당부분 재조용 추세에 따라 사업업에 활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경협 대북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할 남북경협 특수기 향후 10년간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상당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남북한 교역액이 3억3,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해 올해 이후 10년간 6배가량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북의 확대가 주요동향인 대북사업에 삼성, LG, SK 등이 가세하고 일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도 진출할 데에 힘입어 동 지역 개발의 열풍이 비껴가고 있다.

금강산 종합개발과 서해안권 조성 등 공적 대북사업을 추진해온 현대는 총 2,000만달러 규모의 서해안권과 동 1,000만 달러 규모의 서해안권 조성부의 시작을 해와

- 남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중 경제분야
- 합의내용
    - ▶ 철도교류 및 지원공동개발
    - ▶ 철도교류협력은 형산강협력사업
    - ▶ 철도교류 비경제협력부문
    - ▶ 투자모집 이종국제투자 참가유치협정 체결
  - 주요기회내용
    - ▶ 육역-상도권등 상호권역보호
    - ▶ 남북차량교류, 공동연구조사, 기술-전문가교류
  - 인원 부속 포함과 남측 협찬한 북부계열
    - ▶ 경인선 철도복원, 호안개성간 북부계열
    - ▶ 남포-온천의발달간 상호교류
    - ▶ 육역 북동 철도 개요한 철도교류등 추진개요
  - 주요국 전기통신교류 비발보장 및 군사적 이용제한
    - ▶ 유전 전기통신교류는 원칙 인도적 사업부터 우선추진



그림으로 만난 南北어린이 "우리가 그림편지로 만나요" 남북어린이가 여의도우에서 우호하는 북한어린이 그림전시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11일 개회. 16일까지 열린다. /신재호기자

합의문부터, 해외TV 대량영입에 나선 계획이다. LG는 예년 북측 대량공 TV수입과 공작과 부품을 공급. 조만간 생산한 20만대 컬러 TV 2만여대를 국내에 반입해 팔았다.

LG는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협력의 분야 확대. 전자제품 및 부품 등 생산업분야에 사범투자사업을 벌이고 2만 대를 공급해줄, 자재개발사업도 3만 대를 공급할 산유화학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대기업 관계자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사업들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경우 국내 기업들은 엄청난 특수산 및 고 가치"라고 말했다.

· 조재우기자 jw@kookjeil.com

### 對北예산 크게늘듯

예산처, 부처요구엔 추가확장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아직 예상하기에는 이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관련부처의 예산요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 예산을 편성해 화 협업을 경우 별도로 예산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최근 남북협력기금을 내년까지 5,000억의 증액하

고 대북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북 보건분야 지원은 국제보건연구소에 출연금의 사용허락 지원, 출생하는 합식으로 이루어져 북한과 면역체계 조산,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차대 공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협력기금이 5,000억의 증액되면 현재 남아있는 적립금 5,300억원에 더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사회인프라(SOC)건설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 이재영기자 doper@kookjeil.com

## 경향신문 2000. 6. 14 (수)

### 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예산처, 對北투자기업 대출확대

남북협력기금 계획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이 1조원으로 늘고 대(北)북한 교류 및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 5천억원 늘리고 대북한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로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8천억원의 예산으로 주로 남북간 문화·학술·체육협력, 경제협력, 보건,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사용되던 차 남아 있는 적립금은 5천3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이 5천억원 증액되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셈"이라며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남북경협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대북 보건분야 지원금으로 55억원을 배정하면 북한의 면역체계 조산, 백신개발을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기차대 공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인원은 대북교역 및 투자사업 지원으로 50억원을 배정, 남북경협 지원 사업을 떠나기기로 했다.

박구재기자 g.j.park@kookjeil.com

## 중앙일보 2000. 6. 14 (수)

### 南北 경협때 북한측 금융창구

### 조선통일발전銀 유력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북한측 금융창구로 조선통일발전은행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 의제는 경제공동위 구성과 투자보장협정 체결·남한통포 투자장려법 제정 등"이라고 전제, "경협실현을 위해 북한의 통일발전은행에 금융창구 역할을 맡기고, 필요하면 남북한 합작은행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 조선통일발전은행은 북한 경공업부 직할은행으로, 1991년 흥공의 투자회사 루비 홀딩스와 합작해 출범했으나 이후 루비 홀딩스의 철수로 요양산은행과 합병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일발전은행은 특히 91년 루비 홀딩스를 통해 국내 기업에 1천만달러 투자요청을 했다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 지평선

울밀대 봉놀이(密巖賞春), 부벽루 달맞이(浮碧玩月), 연명사 가는 길(永明尋僧), 보통강변 능수버들 숲(普通送客), 대동강 뱃놀이(東門泛舟), 연당지 연꽃(蓮塘聽雨), 반룡산 석양(盤龍晚翠), 봉비에 붙어난 대동강물(馬鞭春漲). 조 휘(趙 偉)가 읊은 평양 8경이다. 금수산 울밀대 주변의 경치는 평양의 으뜸경관으로, 특히 진달래와 복사꽃이 만발한 봄날 이 산을 오르며 꽃을 즐기는 평양사람들의 모습이 8경의 제1경으로 꼽혔다.

■ 모란봉 동쪽 깎아지른 침류벽 위에 서 있는 정자인 부벽루에 올라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보는 정취가 두번째다. 침류벽 위에 있던 평양 10대사찰 영명사 가는 길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 절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는 정경을 3경으로 꼽은 것은 마치 그림 같다. 보통강변 버드나무 숲에서 빗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4경으로 취한 것도 선비다운 아취가 있다. 가장 서민적인 풍광은 평양 외성 차피문(車避門) 밖의 대동강 뱃놀이였을까.

■ 연 앞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6경으로 택



## 평양 8경

한 데서 시심 깊은 취향이 엮보인다. 그 연꽃이 어디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느 못이건 8경이 될 수 있음이 평양8경 또 하나의 묘미다. 반룡산 연봉과 구름 위로 지는 석양은 인생 만년의 정감을 상징하는 듯하다. 봄비 끝에 붙어난 대동강 북쪽 마탄 여울에 떠가는 작은 뉘싹배들과, 강물에 흐르는 복사꽃 이파리들을 마지막 경치로 삼은 데는 짧은 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다.

■ 관동8경 단양8경 같은 말들은 우리 귀에 익숙하면만 평양8경이란 것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출근준비를 서두를 때 서울을 떠난 김대중

대통령이 이천회의의 시작 전 순안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방영되었다. 서해 상공으로 우회한 비행시간은 불과 47분. 이토록 지척인 땅에 첫발을 딛는데 55년이 걸렸다. 내일이면 그는 돌아오지 않는 나라를 건너 육로로 돌아온다. 평양8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대통령과 함께 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실학민들이 아니다.

/문칭재 수석논설위원

## 기자의 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비행기 트랩 앞 붉은 카펫 위에 있다. 이윽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전용기의 트랩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대통령은 감개무량한듯

잠시 주위를 둘러 보았다. 6월13일 오전 10시 37분 전용기 위로 펼쳐진 평양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위와 아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국방위원장이 박수를 쳤다. 김대통령도 박수를 쳤다. 친철히 김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왔다. 김국방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김대통령이 마주 잡았다. 분단

55년만의 남북 정상의 악수. 온 국민은 이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봤다. CNN 등을 통해 지켜 본 전세계도 놀란 장면이었다.

김국방위원장의 순안공항 영접은 파격이다.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의 정상을 공항에서 영접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대외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그가 직접 영접을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

## 모두가 놀란 '파격 영접'

상치 못했다. 충격적인 이 '깜짝 쇼'를 통해 그는 남한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한순간에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의장대 사열, 꽃다발 증정 등 환영 행사 내

내 스스럼없는 몸짓으로 김대통령과 이희호(李姬鎭)여사를 안내했다. 김대통령의 옆자리에 타고 회담장인 백화원 임민관까지 동행한 것도 파격이었다. 그는 김대통령이 캐달락에 오르는 동안 왼쪽 차문을 열고 서서 기다리는 정중함도 보였다.

그는 정상회담준비 협상과정에서 '상봉'과 '회담' 분리 논란 등 의전을 둘러싸고 일었던 의구심도 일기에 해소시켜 버렸다. 그가 보여준 파격은 회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55년의 분단체제가 초래한 불신과 대립상태를 끝장내고 상호신뢰와 공존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 보인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wkslee@hk.co.kr



이계성 정치부차장

# 남북 '常駐대표부 설치' 접근

## 金대통령-金永南상임위장 확대회담

## 경제·사회공동위-이산가족문제 집중

# 두정상 오후 2차 단독회담

### 金대통령 방북 이틀째

남북은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담을 갖고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등 각분야교류협력 확대문제와 이산가족 상봉등 민족문제 해결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확대회담이 끝난 뒤 이날 오후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2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측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직접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천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단계로 접근하게 됐다.

남북은 확대회담과 단독 정상회담 중간에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문화분야등 분야별로 별도의 회담을 열고 확대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양측 확대회담에는 남측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비롯, 박재규(朴在圭) 통일, 이헌재(李憲宰) 재경,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과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 안주섭(安周燮) 경호실장,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황원탁(黃源탁) 외교안보수석, 박준영(朴俊榮) 공보수석, 김하중(金夏中)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 의제 분석·전망         | ... 2    |
| 방북 이틀째 스케치       | ... 3    |
| '지금 평양에선...'     | ... 4    |
| 시리즈 '한반도 新질서...' | ... 5    |
| '김정일 행보' 분석      | ... 8    |
| 화보               | ... 9    |
| 주요국 반응           | ...10    |
| 경협 지원 미련 어떻게     | ...11    |
| 평양시장·합복지사        | ...27    |
| 국내외 전문가 진단       | ...28    |
| 시민 '金正日소크'       | ...30-31 |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과 홍성남 내각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 최태복 인민위원회의 의장, 김영배 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 어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이상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장, 정문업 민족경제협력연합 회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확대회담에서 양측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던 남북 경제협력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앞으로는 양측 정부차원의 당국간 협력을 축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양측은 또 분단과 전쟁, 체제 대립 속에서 불거진 상호불신과 대결의식을 완화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당국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회담에서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 사회문화공동위등의 가동문제와 김협 및 이산가족 상봉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기능 정상화 및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문제에 대해 의견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문에 대한 별도 회담에서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 자동차·전자협력사업등 기존 교류협력 사업뿐 만 아니라 철도·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협력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침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마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공보수석은 14일 "서울~평양 정상간 핫라인 설치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날 오전 평양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그 필요성에 관해 의논해 가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석은 또 중국 신화통신이 김대통령과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13일 회담에서 남북한간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취재단>

# 남북 세차례 연쇄회담... 본격 '대화의 날'



## 訪北이틀째 표정

평양에서의 '감격적 첫날'을 보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수확'을 거두기 위해 심층있는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단독정상회담, 확대회담, 부분법회담 등 3차례의 '남북회담'이 잇따라 열린 남북 둘째날은 김대중대통령에게 '회담의 날'이었다. 김대통령은 만경대 소년궁전 공연을 관람하고 목관관 달레연회를 주최한 것 이외의 다른 방문일정 없이 회담준비와 참석에 전념하면서 틈틈이 휴식을 취했다.

회담은 전날의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가져다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

의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다양하다"며 "출퇴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양 시민들은 13일 오후 6시와 8시, 10시 중앙 TV를 통해서 김대통령의 평양도착 장면을 지켜봤다면서 김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상봉'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남북 확대회담에는 북측대표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오고 김정일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확대정상회담'으로 믿기었던 이회담을 '확대회담'으로 정정보도해줄 것을 국내 언론사측에 요청했다. 김대통령과 김영남위원장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눴고 남북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회담을 마친 뒤 이희호여사와 함께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육류관에서 점심식사를 들었다.

●...김대통령은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별도 일정을 갖지 않고 휴

## 공식일정 마친뒤 TV로 세계반응 살펴 수행원과 전략회의... 11시 넘어 잠자리

### 金대통령 평양 첫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평양 도착 첫날인 13일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평양 도착 직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공화 상봉과 카피레이드, 잇단 공연 및 안전한 참석등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 냈지만 이날 저녁 피곤한 기색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김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온 한 단국자는 "김대통령은 이날 상봉 이후 북측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접근 자세에 크게 고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2시간 40분 동안의 만찬을 끝낸 뒤 곧바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돌아왔다.

김대통령은 저녁 9시30분께 영빈관에 도착해 위성 TV방송을 통해 서울의 방송 보도와 함께 조선 중앙 TV로 북측 언론의 정상회담 보도 내용도 함께 시청하는 등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 및 세계 각국의 반응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김대통령은 임동원(林東源) 특보,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영(朴俊榮) 공보수석 등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14일 있을 확대정상회담과 김정일위원장과의 단독회담을 앞둔 사실상 '전략회의'였다. 이날 측근들의 보고내용과 김대통령의 언급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대통령은 "북측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약식회의에서는 또 서울에서 마련해온 다각적인 시나리오별 대책 동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어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고 박준영공보수석은 전했다.

김대통령은 14일 아침 6시10분쯤 기상해 아침에 제일 먼저 보고하러 온 박수석에게 "어제도 날씨가 좋더니 오늘도 아주 화창하다"면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아침에도 "작지만 실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김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 金대통령 6시기상 "날씨-기분 좋다" 냉면으로 점심-소년궁전등 방문 평양시민들 "상봉 장면에 큰 감동" 李여사 이화여고 스승과 감격해후

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날 평양날씨는 양측간 대화의성공을 바라듯 화창했다. 또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중간중간에 경제등 각 분야별로 장관들이 별도로 회담을 여는 등 남북협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14일 오전 6시10분쯤 기상했다고 박준영(朴俊榮)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수석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김대통령이 아침 6시10분에 기상했는데, 기분이 좋고 날씨도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어 "어제 일정을 통해 대통령께서 북측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작지만 실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아침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공한 전복 오이냉채, 생선전단, 삶은 달걀, 완두콩밥, 참쌀 완자찜, 인삼차 등으로 식사를 했다.

●...북측 안내원들은 "평양 시민들

식을 취하면서 오후로 예정된 김정일위원장과 단독회담을 준비했다. 김대통령은 회담관련자료들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수행원 관계장관들을 수시로 불러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회담일정으로 분주한 가운데 이희호(李熙鎬)여사는 이날 오후에는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있는 북한의 유일한 여성종합병원으로 외국관광객들의 단골 관광코스인 '평양산원'을 방문하고 북한 여성지도자 화담회에 참석하는 등 '별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여사는 또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배웠던 스승과 '감격적 해후'를 갖기도 했다.

●...수행단은 만수대 참석사를 관람한 후에 평양지하철을 시승, 평양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고 이산가족인 장치혁 고합회장등 특별수행원 3명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가족들을 만났기만에 만나는 감동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승재·유병권·조용우기자>

## '달변 DJ' 왜 말 아끼나

### '金위원장 생각' 파악에 주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3일 상봉 및 단독정상회담에 비추어 김대통령의 모습은 평소 서울에서보다 말수가 적었다. 김정일위원장은 다변에 가깝게 기침했고 자신있는 말습세를 보인 반면 김대통령은 말수가 적어 얼핏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김대통령은 평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해박한 이론과 지식을 자랑한다. 그래서 김대통령은 남북, 통일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대화를 주도한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대화에서는 말을 아꼈다. 평양의 한 대에 감사하다는 말과 김위원장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시만 했다.

박준영(朴俊榮) 청와대대변인은 14일 "김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서울에서 각종 행사등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라며 "북측은 이미 김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어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는다는 입장"이라고 말수가 적은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집권에서는 평양방문의 소감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등에 대해 비교적 많은 말을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남조선→“남측” 집권자→“대통령” 호칭 차분...여유... ‘준비된 방북대통령’

## 北방송 보도 특징

### 중앙TV 정규방송 중단 金대통령 방문 상세 보도

북한의 방송매체가 13일 오후부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매시간 집중 보도하면서 통일관련 내용을 집중 편성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13일 방북단의 동정을 반복 보도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남북 공동동요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향의 봄'과 북한 대중 가요인 '민간습니다' 등을 자주 내보낸 것도 이같은 배려로 느껴졌다.

특히 남조선이 아닌 남측이라고 표현하고 김대통령에 대해 '남측 집권자' 대신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 우리 대표단을 예우했다.

북한 방송이 김대통령의 평양도착 사실을 처음 전한 것은 이날 오후 5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원일이 끝질이 될 수 없

는 현역의 정인양 같았어 이어졌다"며 김대통령이 평양 도착과 백화인민관까지의 환영행사를 보도했다.

TV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오후 7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별방송을 편성, 첫 보도를 냈다. 중앙 TV는 "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며 김대통령의 방문소식을 소개했다. 중앙 TV는 이어 오후 8시 정규 뉴스시간 전부를 할애, 김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 방송들은 이와 함께 중앙TV를 통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심(敎心)'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 등 김일성(金日成) 주석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 열의'를 부각시킨 프로그램을 수차례 방영했다. 이 영화는 지난 48년 4월18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재정당-사회 단체 연석회'의 장면에서부터 축구·탁구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9년까지 '동일운동 인사' 등을 만나는 김주석의 모습을 편집한 것이다. <이진석기자>

## 金대통령 평양 표정

### 해박한 對北韓 식견-경륜 '실제상황' 서유감없이 발휘

남북분단 50년 이래 최대 사건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시종일관 차분함과 여유를 잃지 않고 있다. 두 달 남게 평양행을 준비해온 '준비된 방북대통령'의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통일전문가'로서 김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해박한 식견과 경륜은 평양방문이라는 '실제상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평양 체류 둘째날인 14일에도 김대통령은 북한의 독특한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게 직응한 듯 안정감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누는 김대통령의 표정엔 진지함과 여유로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김대통령은 13일 첫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사전회담을 하며 남북한 사전기자들에게 "잘 찍으세요"라고 말

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침식사를 작게 했느냐"는 김정일위원장의 물음에 "평양에 오면 식사를 잘 할 줄 안았다"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나오기도 했다.

또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왔다"는 김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에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다"고 응수해 또 한번 웃음을 지어냈다.

이어 이날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에서 행한 담사인담에서는 김대통령의 자신감이 뽐낸 풍기나왔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대목에서 김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우렁찼다.

만수만 예술극장에서 열린 환영공연 마지막 부분에서 김대통령은 전체 출연진이 도입한 무대 위에 올라 가락에 맞춰 함께 흥겹게 박수를 하며 즐거워했다. 앞서 순안비행장 도착 직후 전용기의 트랩을 내리기 전 잠시 왼쪽으로 몸을 돌려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 역시 김대통령의 침착함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이승재기자>

# '당국간 대화'로 自決원칙 예고

## 한발트新질서 급류탄다

### (2) 北 '전향적 태도' 조짐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김대통령을 맞이하는 북측의 태도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통령을 영접나오는 등의 파격적인 모습을 두고 그동안 북한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표연태온 북-미중심의 남북관계를 남북중심으로 풀기요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진행돼왔던 남북관계가 남북 당국간 대화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인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하고 우

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힘이 있을 수 없다"며 "남북한 사이에 산적한 숙제를 풀기위해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대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위원장도 "반일은 언제 끝장나겠는지, 통일은 또 언제 이뤄지겠는지, 7천만 가래의 이 침박한 물음에 이제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

### '通美封南' 노선 변화 가능성

### 남북문제 당사간 해결 확인계기

들이 대답을 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이에 화답했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김수정 침투와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는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등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태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인태(鄭水泰) 민

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일과 김대통령의 극적인 만남은 한반도문제는 남북 당사자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유일체제에서 김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북한 입장이 화실히 정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지도자가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합의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포괄적인 평화선언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위원장이 '섬심치 않게 해주겠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탈태 기존 태도와는 달리 상당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등 '자주'의 문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대남방송을 통해 남측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면서도 미군철수등 외세배척에 대한 심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현중기자>

# '평화정착 공개선언' 최대 관심



## '2차' 무일 논의하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4일 이튿날 회담에서는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와 대외 위법 방언이 본격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첫날인 13일 회담이 김대중령의 평안도착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분위기를

남북간, 당국간 정상대화 재능 가늠받았을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제안이 오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화정착=단독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다. 김대중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 북 우리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 (평양 도착시판),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찬시)는 등 이 문제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도 13일 김대중령과의 '승복차회담'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정착 문제는 장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 상대방의 진심을 잘



평양시 첫 아침식사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4일 오전 평양 백화원업빈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TV촬영>

## 이산가족 상봉 구제안 나올듯 장관급 상설 대화채널 합의 전망

속에 의견적인 대화가 많았고, 이런 측면에서 정식회담이라기보다는 상봉과 회담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튿날 회담은 '본론'을 얘기하는 자리였다.

◆회담형식=이번 회담은 확대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단독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부면별 당국자 회담에 3단계로 접했다. 정상간의 단독 회담에서는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주변질세, 화해와 협력방안에 대한 언급의 인식교훈과 민족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쟁중식과 평화정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정상차원에서 공개 진언하는 '선언'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산가족=확대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1세대의 '한'을 해결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전말이다. 정부대표단은 구체적인 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비료회담에서 제시한 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부는 ▲임100명씩 상봉 ▲임1회 상봉 300명씩 상봉 ▲주소확인용 위한 집단교향 ▲임2회 우편물교환 ▲판문점 상봉문화회소 설치 ▲평양 100명씩 고령 이산가족의 서울-평양방문단 순차교향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협 및 SOC=확대회담에서는 또 남북경협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문제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과 관련해서는 투자보장, 이종과제방지, 청산절차 등 민간차원의 경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간해야 할 제도적 장차마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대화채널 구축=남측은 남북 연대사무소 개설과 남북기민합의서상

의 공동위원회 등을 두가지급 축으로 상설대화체제를 갖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원회의 경우 전변가동이 당장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김대중이 동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영언론기자>

### 김대중령 만찬담사 <요지>

이도록 지체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측 지도자들과 만나 거래의 앞날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 "南北이 하나돼 21세기 헤쳐나가자"

바뀌기를 속심으로 기대합니다. 노임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줘야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신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대화가 지속적인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남녘 농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과 치른바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애의 열정을 갖되 가능한 것부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민족도 남북이 하나돼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족의 명신인 금강산에는 지금까지 남북 동포 2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해공단 조성사업은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첫해에 한반도에서 시작할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길 바라며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남북 북이 남북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남 만찬담사 <요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일행 여러 분들이 유서깊은 우리 평양에 오신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애의 정이 오가는 아 지리는 우리들 자신과 자주적인 선택과 예외의 결단으로 마련된 뜻깊은 상봉의 미담입니다. 본업은 언제 끝났는지, 몸집은 또 언제 아득되었는지, 7000만 겨레

### "분열 언제 끝나는지 대답해야 할때"

의 이 실직한 몸통에 이제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대답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북녘으로 이어진 지난 20세기 민족 수난사는 외세의 간섭과 그에 영합한 불리들은 새대주의의 후계였을 경우 쳐주고 있습니다.

여제 우리들은 자신들이 힘으로 북

일과 분열의 21세기를 일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큰 거래와 세계의 관심은 여기 평양에 모이고 있습니다. 김대중령의 이번 평양방문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편만한 마음으로 평양의 모습과 분위기를 익히면서 공동 관심사 나라의 통일위 위해 의의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 분야     | 발언 내용  |
|--------|--|
| 평화정착   |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대중대통령-13일 만찬시)<br>"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내전중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령-서울출발 인사말)<br>"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 북 우리동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령-13일 평안도착 시판)                                |
| 교류협력   | "자이 평양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령-서울출발 인사말)<br>"21세기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령이 예 방미했는지, 김 위원장과의 승복차회담에 대한 외부부 호응입니다. 24(13일)만 대담해줘야 합니다. 내담을 통한 사업에 김대중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장-13일 백화원업빈관 회담에서) |
| 이산가족   | "자이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제 풀어주어야 합니다." (김대중령-13일 만찬시)   |
| 정상대화   |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신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도 책임있는 당국자들 대화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김대중령-13일 만찬시)  |
| SOC    | "새로운 협력유니 다시 있고 백길도 없고 하늘길도 없애 줍니다." (김대중령-13일 만찬시)  |
| 김정일위원장 | "자이 평양방문을 환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김 위원장에게서 서울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중령-13일 인사말)  |



# “너무 다르더라” 金正日 쇼크



실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민족사랑운동 김덕수(47) 김형위원은 "평범하고 얼굴이 밝은 김정일의 모습에 놀랐다"며 "그동안 김정일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거레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 김태현(29)씨도 "부도덕하다거나 정신이상자라는 소문이 허황이라는 것



## 예우 지키되 거침없는 언행에 당혹 기존 왜곡된 이미지-편견과 대조적 주도권 잡기 '연출된 변신' 분석도

### '신선한 충격' 시민반응

남북 정상회담의 첫 만남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거침없는 행보는 우리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화원영빈관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다정한 '6·13동행'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던 시민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김위원장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신을 통틀어 언론에 공개된 바가 거의 없는 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시민들은 "농담도 건넨 줄 아는 보통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평가할 정도다.

일반 시민과 네티즌 및 사회 각계 각층의 인식들은 이처럼 김위원장의 두꺼운 베일이 상당부분 벗겨지면서 김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균형잡힌 시각을 잡아주는 계기가 돼 통일에 한발 다가서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교대평사 직원 권기정(여·27)씨는 "그동안 KAL기 폭파범의 배후 인물로서 '단아'로만 느껴졌던 이미지가 이번 '공화영집'으로 사라졌다"며 "특히 다리가 불편한 우리 대독련과 걸음을 나란히 하는 모습에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북 강계가 고향인 신양민 김이식(69)씨는 "말나니같은 인상이었는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니 예상외로 소담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몸소 공항에 나오고 자동차에 동승한 것은 놀이

를 알려줬다"며 "한 국가의 원수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고려대 유희일(柳熙日·북한학)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료를 통해 본 김정일은 해박하고 거리낌없이 사람을 대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며 "김정일의 개인적 심향이나 성격은 북한에서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전문가 이원구씨는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정규 고등교육을 받고 30년에 걸친 지도자 수업을 한 사람"이라며 "대학 다닐 때부터 활동적이고 연변이 능했으며 오히려 너무 약삭빠른 것이 달아났다"고 분석했다.

외신기자들도 김위원장의 '이미지 변신'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그 배경에 대해 분석을 내리기도 했다. 독일 주드도이치 신문의 헤리 보크 기사는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내성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과감하고 대담한 측면을 보았다"며 "감각소가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했다.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호리야마 아키코 기사는 "평소 숲을 좋아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 결단력있고 추진력있는 모습을 보여주 당혹스럽다"며 "그러나 이같은 모습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 연출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쇼맨십'에 몰입하며 자신의 지도력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승환·박영훈·홍경업기자>

베일 벗은 김정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그동안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제대로 보도 들도 못했던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등장을 '김정일 쇼크'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 떠도는 소문 이외에는 평가할 근거를 전혀 갖지 못했던 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그의 두꺼운 베일이 하나 툭씩 벗겨지면서 그에 대한 논의도 무성하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金위원장 서울 답방할까?

## 北京외교가 '광복절 訪韓說' 나돌아 극진한 영접으로 '南行 길트기' 가능성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서울을 방문, 서울 정상 회담을 갖는 문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13일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의 평양 도착에서부터 외교적인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분단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외교가 주변에는 김위원장의 방한설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광복절에 맞춰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정부가 항일 무장투쟁을 바탕으로 출범했음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11월 이전에 남북간의 주요 의제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사열하고 분열행진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한 것등 북한이 김대통령에 대해 전례없는 극진한 영접을 한 것에서 답방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북

한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서울 정상 회담에 대한 김대통령의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상'의 단계를 벗어나 '추진중'인 과제이며 남북 양측이 일정 수준이상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13일 출국 인사에서 "이번 평양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서울정상회담 추진을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평양 도착성명에서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2차, 3차 만남을 거듭해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평양 시민과 북녘동포'에게 약속했다.

<이진석기자>

# “거침없고 외향적”

### ‘언론 기피 은둔자’ 소문과 너무 달라

## 모습 드러난 김위원장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영접과 백화원영빈관에서의 회담과정 등에서 독특한 모습을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언론을 기피하는 은둔자 이미지를 탈피, 자신감있고 환담한 외향적 스타일을 선보였다. 또 예의범절을 강조하고 남쪽 사정에 정통하다는 인식도 심어주었다.

전세계에 생중계된 공항 영접행사에서 여유있는 언행을 과시한 것은 지금까지 서방세계에 알려졌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특히 처음 만난 김대통령과 배석자없이 승용차에 동승, 손을 잡기도 하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파격'을 즐기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게 했다. 백화원영빈관에서도 보도진 앞에서 전혀 스스럼없이 행동했다.

김위원장은 또 김대통령과 백화원영빈관에서 가진 1차 정상회담에서 남한 TV를 즐겨본다는 점을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에게 TV로 봐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의 청와대 출발 모습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실용주의자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위원장은 "남쪽에서는 광고하면 잘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된다"며 명분보다 결실 위주의 회담을 강조했다.

<서의동기자>

남북정상

평양 회담

### 李姬鎬여사 '의전'

## 김영숙 안보여 카운터파트 '관심'

이희호(李姬鎬)여사의 북한측 여성 카운터 파트는 누가 될까. 북한 당국은 이여사에 대한 예우와 의전을 놓고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여사가 수행원이 아니라 '영부인'(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방북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여사는 방북 둘째날인 14일 오후 평양산원을 방문하고 북한 여성지도자들과 회담회를 갖는다. 이화여고 옛 수락스승과도 상봉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부인 김영숙씨는 공식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의 예상을 깨고 김위원장이 공함에 나타났듯이, 공식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김영숙씨가 의외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

**여원구부의장·천연옥씨등 거론  
김영남위원장 부인도 '리스트'**

는 김영숙씨가 의외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

만 아직까지는 다른 여성들이 이여사를 접대하고 있다.

이 여사가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할때 이여사와 이화여전 선후배 관계이며 몽양 여운형(呂運亨) 선생의 셋째딸로 우리의 국회 부의장급인 여원구(呂院九·72)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였 자리에 동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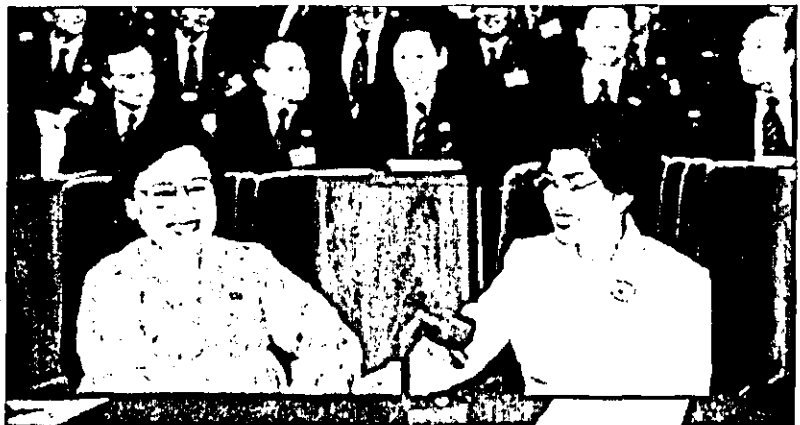
노동당 외곽단체로, 우리로 치면 성격상 사회단체인 여맹의 천연옥(55) 중앙위원장과 노동당의 우당(友黨)인 천도교 청우당 유미영(79) 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이다. 두사람은 모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식서열 2위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인도 예상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이여사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화인 영빈관으로 이동할때는 조선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 부장인 박선옥씨가 차란에 동승했다. <김종태기자>



**만수대의사당 방문** 김대중대통령이 13일 오후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과거 남부군(지리산 빨치산)사령관 이현상의 딸로 알려진 이상진부총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평양=청외대사진기자단>



**김영남위원장부인과 답소** 평양을 방문중인 대통령령부인 이희호(오른쪽) 여사가 13일 오후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공연시작 전 김영남위원장의 부인과 답소를 나누고 있다. <평양=청외대사진기자단>

# 金위원장 파격행보 '개방 전주곡'



## '각뚫한 예의'로 신뢰구축 의지 보여 '베일속 인물' 이미지 불식도 노린듯

### 의미와 배경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파격행보가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김위원장은 핵심측근들을 모두 대동한 채 평양 순안공항까지 직접 나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영접했다. 또 숙소인 백화인 영빈관으로 향하는 김대통령과 나란히 승용차에 동승, 사실상의 단독회담을 갖는 등 적극적이고 대화지향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파격행보가 갖는 의미와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우선 '직대국'인 남한대통령을 최고수준으로 영접하고 60만명이 넘는 평양시민을 동원, 환영하도록 한 것은 김위원장이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남한 국군 동수권자인 김대통령이 북한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한 것도 무리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정영태(鄭永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과 승용차에 동승, 사실상 단독회담을 가진 점은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가 해결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석자없이 남북정상 단동이 승용차에 올라 밀회를 나는 것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일본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을 피해왔던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또 김정일위원장의 절대적 권위를 감안한 때 북한주민의 대남 대견의식을 씻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세현(鄭世鉉) 전통일부차관은 김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남한 국민에게 '예의바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식토록 할 것"이라며 "또 수많은 평양시민이 김대통령을 환영한 장면은 남한국민의 대북 적대감과 심리적 냉전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위원장의 파격행보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김위원장의 공적인 능력은 감추고 일부 사생활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왜곡돼 왔으나 이번 기회에 불식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대결시대에는 대북정보를 독점한 정부당국이 적극 지도자를 '괴수'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김위원장을 왜곡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 앞에 나서기 보다 소그롭단위의 현지지도를 통해 활동해오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자신의 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시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함께 환영 요정으로 시열대로 행하고 있다

<평양·평양대 사진기자단>

습을 전세계에 생중계로 노출시킨 점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더 이상 김일성(金日成) 주석사후에 지속해온 은둔적 '유혹통치'의 좁은 틀안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외교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은둔국가의 베일에 싸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세계무대에 나서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서의동기자>

# 가슴 연 南北정상... '내일은 쾌청' 예보



지금 평양에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무위원장은 13일 역사적 첫 만남에서 "뜨거운 가슴"을 열어보였지만 객관적 '임팩트'를 밝힌 순간도 없지 않았다.

###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두 정상은 이날 순안궁의 영접행사 13분, '차츰(차)대화' 50분, 1차 공식정상회담 27분을 총 1시간30분 동안 만났다. 여기서 나온 '연중유급(連中遊局)'의 '정상대화'는 남북연선에 대한 본격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들에게 "잘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여유를 보였다.

●...김위원장은 낮 12시40분쯤 1차 회담을 마치고 집전실에서 나와 김대중과 수행원들에게 "잘 만나서 지내셨습니까"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우리측 안주심장과 대경호실장과 악수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대중관내에는 김위원장이 영빈관을 지난 뒤 김병철 백화인 영빈관장의 안내를 받아 영빈관에 진시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등류 관상했다. 김관장은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김정일화는 일본 식물학자가 각각 재배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부 관계자는 "환영인파가 흔들었던 꽃송



13일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왼쪽)이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백화인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을 하고 있다.

## 김위원장, 남북경호실장에 "걱정말라"

### "무서운 길 오셨다"에 "나는 겁없어" 응수

예고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다"고 운을 떼자 김대중대통령은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김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김대중 대통령에 왜 반박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2차 회담은 대남대화가 아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김대중은 이날 북측이 주최한 만찬 담사에서 "우리가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 협력에 있을 수 없다"고 뼈있는 답변을 했다.

●...김대통령은 오전 11시 45분쯤 김위원장과 같은 승용차를 타고 속초인 백화인영빈관에 도착했다. 김위원장은 영빈관연구에 사임된 뒤 새로 도착한 이혁호이사에게 먼저 들어가기도 할 권리는 등 각별한 예절을 보였다. 두 정상은 피도치는 바다 그늘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때 김대통령은 남북한 기자

들도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인 것 같다"고 추칭했다.

### '밥치산 대장' 딸이 안네

●...김대통령 내외는 이어 단둘이 오찬을 함께 하며 휴식을 취했다. 오찬상에는 깨알밥 한 덩어리, 생선전과 남새튀김, 찹포, 콩익힘채, 소고기 깨워김, 옥동냉고기, 새우담백볶음 등 10가지 반찬이 놓였다. 김대통령은 "밥이 정말 좋고 정성들이 만들었다"면서 "특히 닭볶음탕에 밥을 말아서 만든 평양만반이 정말 좋았다"고 평했다.

●...김대통령은 오후 반수대회사당을 방문했으며 이때 소개를 받은 안내자는 지리산 밥치산인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성의 무남독녀인 장녀로 알려졌다. 6·25전쟁때 어머니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는 김정일위원장과 김일성 종헌대학과 김제하부 정치경제대학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클라스메이트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의동기자>



평양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저녁 인민문화회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두 정상 대화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무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45분부터 27분간 백화인 영빈관 집전실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음은 두 정상이 나온 대화록 요약.  
▲김위원장은"남북이 대남과 북교인민연립회는 그자체(自)회담에 (중립성을 통해)김대중에게 코스튬을 대접합니다. 준비계획을 금방 알려줬기 때문에 위원들은 마치 우리가 준비를 보해서 (김대중을)하루동안 웃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통령="아쉽게 많은 분들이 (영빈관)에 놀랐고 감사합니다. 평생 식탁만 봐서 못알아들었는데 환영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장은"오늘 아침 (순안)비행

## "앞으론 직접 연락- 모든 문제해결" 김대통령 "세계가 주목-우리가 답을 줘야조" 김위원장

장이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 아침 (김대중)기자회견에서 개인명숙을 알만 드시고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구경하시는데 아침식사를 찍게 하셨습니다.

▲김대통령="평양에 오면 식사를 장만할 알고 그랬습니다. (웃음)

▲김위원장은"자랑을 잃세우지 않고 섬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에 의지국을 지원하고해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중의 용감한 반박에 대해서 인민들이 용감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에는 김

호 때문에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 되는데 모르지만 우리는 참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 이북에서는 TV와 방송에 많이 안나오고 참관한다고 하는데 찬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대중과 동행에 힘은, 두려운, 무서운 감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산민족입니다.

▲김대통령="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라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너무 좋았습니다.

▲김위원장은"6월13일은 역사에 담담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통령="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김위원장은"이제 백화인(대)초는 주석님께서 생전에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백가지 꽃이 피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한민족 산모양이 놀라보십시오. 주석님께서 생전엔 주석님이 아

리 대통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서기까지 그제 주위였습니다. (이)남(김정일)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 자료를 부대하 가지겠다는데 그때 김위원장과 다정다감하게 있었다면 직통전화 한통하면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좋은 관계를 남겼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관계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대통령="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해야죠.

▲김위원장은"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김대중이 왜 반박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차회담은 대남대화가 아니다. 대남을 주는 사업에 김대중도 아니라 정관들도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스케치 종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50년 민족의 이념을 씻어내는 감동적인 사극의 시작이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이같은 역사적인 만남에 남과 북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상봉장면 가슴 뭉클”

●...김위원장의 진격적이고 파격적인 공화합집, 답소를 나누며 다정한 봄은 카펫위를 걷어가며 사일하는 모습, 내한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양 정상 모습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TV 생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지켜본 시민들은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시청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한민국”이라는 글씨와 “대륙기” 문양이 선명한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아지랑이 너머로 친철히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입에서는 “지기가 평양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평양 중앙집이 고한인 이북 5도위원회 평북도민회 이상만 총무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화까지 나와 김대중임을 예우하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참된 것 같다”며 “많은 실형인들이 사무실에서 TV를 함께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인희(여·38)씨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흥분했다”며 “김대중과 김위원장의 상봉장면을 직접 보노라니 감동은 아니더라도 이젠 시인안에 돌입이 된 것이라는 확신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종규(57·서울 강남구 평일동)씨는 “남북대립의 상징적 사건인 아웅산 사건이 엇그제 같은데 감개무량하다”며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 직면을 직접 보게 된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김소희(여·31·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김위원장이 김대중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친형님을 대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았다”며 “이제 50년간 기다렸던 남북통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정일 이석인 사무총장은 “김위원

“아웅산사건 엇그제같은데 감개무량”



국내신문 실패는 외신기자들

외신기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대서특필한 국내신문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있다. <김선규기자>

장이 직접 임집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나 희기적이고 감동적이었다”며 “그러나 너무 성급한 기대보다는 심다례를 푸는 기쁨으로 하나하나 신화들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보다 환담성격”

●...이날 김 대통령일행이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밀디규니를 통해 이를 지켜보던 1000여명에 이르는 내외신 기자들 뿐만 아니라 취재 지원에 나선 민간

도우마들과 롯데호텔 직원들까지 일제히 일어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의 BBC 방송의 한 기자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 남북 정상간의 공화 첫 만남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50년 이상 쌓였던 분단의 이념을 먼저 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공화까지 김 대통령을 위접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共同) 통신의 이와무라 가즈야(櫻村和雄) 특파원은 “김직스런 남북 정상의 만남이었고 한반도에서 세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의 가오허오(高浩) 기자는 “13일 오전 남북 두 정상 만남은 회담이라고 보기에선 부적절하고 환담의 성격이 강하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공화까지 임집을 나온 것 자체로 본 때 환우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경북대 북생활 추진

●...대학가에도 북한관련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14일 그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해 실시해오던 농촌봉사활동을 올해는 북한에서 ‘동일농협’로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이를 위해 기금 발탁 농협추진위원회를 구성, 통일부와 학교측에 구체적인 발탁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 수차례 발탁검침이 있는 육수수박사인 농대 김순권(金順權) 교수 등을 만나 실현가능성등 모색할 계획이다.

김일대 도시환경연구소도 오는 12월 남북한 동시 한 곳에서 김일시대와 공동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과 청사진 구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취재진>



귀경길 청소 김대중대통령의 귀경길이 될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장방들이 14일 삼수차로 도로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등 일찌감치 귀경채비를 하고있다. <임진각=김선규기자>

# ‘對北 경제제재 완화’ 美, 남북회담뒤 발표

## 賀振公 “곧 美관보 게재”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후에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이전에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KOTRA는 미국 워싱턴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동산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 관계자와 미국 상무부 관계

자들로부터 이같은 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소비재 수출입 및 개인과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상업항공을 통한 인적·물적교류 등 8개 항목 대해 취해졌으나 실행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 완화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변화를 개방의 의지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이재교기자>

## 남북정상 상봉·회담 노동신문 1면톱 보도

북한언론들은 13일 오후 5시 라디오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보도한데 이어 14일에도 김대통령의 평양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북한의 '노동신문'은 14일자 1면 톱기사를 비롯, 상세한 관련 기사와 화보 등으로 두 정상 상봉과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4일 오전 6시, 7시에 김대통령의 전날 평양공항 도착사실과 함께 김대통령 등 방북대표단을 위한 만찬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주치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서의동기자>

## 韓·美·獨 대학 공동연구 통일정책 보고서 곧 나와

한국과 미국, 독일의 유명 대학 연구소가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3년간 공동연구한 통일정책 보고서가 곧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미국 칼리포르니아 한국법연구센터, 독일 뮌헨대 정책연구소, 연세대 통일연구원은 오는 23일 서울 아의도 진경연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지난 97년 6월부터 공동연구해온 '한국 통일 요강' 개요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독일의 통일 방식과 비교한 정치체제, 정치발전과 이해집단 문제, 통일과 대외관계 및 내부 안정 등 통일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정치적 문제, 남북한 헌법체제 비교를 통한 통일한국의 헌법체제 등이 포함된다. <최희두기자>

# 전례없는 최고예우

## ‘金永南이 만찬주최’는 논란 여지

### 北 의전 특징-문제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방문 첫날인 13일 북한은 파격적인 '환대'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임접하고 의장대 사열행사까지 미리 준비해 둔 것은 남측으로선 거의 예상치 못했고, 더욱이 김위원장은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위원장이 의전에 얼마나 세심한 신경을 썼는지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곳곳에서 방간됐다. 먼저 공항에 2명의 화동이 꽃다발을 건넨 때도 통상적인 관례와는 달리 김위원장은 빼고 김대통령내외에게만 전달했다. 두 정상이 백하인영변관으로 가기 위해 차에 탈 때도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이 차에 오를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심하고 파

격적인 의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측 시각에서 볼 때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평양 순안공항에서 두 정상이 의장대 분열을 하는 자리에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한 대목이

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 아직은 직인 북한군의 사열을 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크고 김영남위원장은 북한헌법상 국가원수이자 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지만, 정상회담개최 당사자가 두 정상인데다가 두 사람이 갖는 역사적인 상징성등을 고려할 때 단상에 김영남위원장까지 오른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첫날 만찬 주최자가 김정일위원장이 아닌 김영남위원장이었다는 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외교적으로 정상회담을 위해 외국 원수가 방문했을 때 그에 걸맞은 최고 지도자가 만찬에 초대하는 게 의전상 관례다. <조용우기자>

## 林국정원장 ‘대통령특보’로 동행

### 회담 실무총괄... 막후역할 여부 주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이 '대통령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수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국정원 해체와 보안법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을 감안하면 아래지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임원장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을 맡으면서 '햇볕정책의 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대북 대화론자이다.

임원장은 13일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에 열린 첫 정상회담에 배석, 우리측 수행인원 소개한데 이어 김대통령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방문 때도 배석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김용순 대남 담당비서가 임원장에게 수행인 소개를 부탁하는 등 '친분'을 시사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원장은 회담과정에서 북측이 회담 준비 때와 다른 입장을 개진하거나 회담을 임동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경우 준비과정 당시의 북측이 밝힌 입장을 상기시키는 등 사실상 회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으로부터 공식회담을 통해 합의할 수 없는 모종의 특별임무를 부여받아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인사와 비공식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상호간에 서로를 '감시'하는 기관간의 채널구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민기자>

# “철도 통일” 南北연결 멀지 않았다

## 가능성 높아진 ‘화합철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통일철도’ 연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당국은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13일 북측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북남이 합심해서 통일열차를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김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이같은 관측이 급부상했다. 김대통령은 만찬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남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측은 남북 경제협력 방안 중 통일철도 연결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측 역시 경제 실리를 챙기면서 개방에 따른 체제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회담과정에서 양측간 의견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측측에게 통일열차 연결은 김영성(金永成) 주사의 유언사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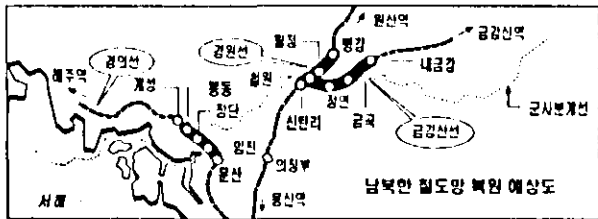
다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고위 당국자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한 철도망을 연결하는 ‘3국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남북한 양국에 강력히 제의하는 등 남북한 내부와 국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있다.

김제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통일철도 개선은 우선 김일성주석이 밝힌대로 통행료·포함, 북측에 즉각적인 수입을 안겨줄 수 있고 불류활성화에 따른 제반 유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철도의 경우 통제가 용이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민기자>

### 金永南위원장 만찬서 피력

### 양측 의견집근 추진 ‘피린불’

### ‘TSR’ 등 국제여건도 조성



## 금강산철도·경의선 재개통 정상회담후 우선 추진될듯

북한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쉬위팅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남북철도연결이 대북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북한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데다 남북한 자동차도로 개통은 북한측이 수색을 표하고 있어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철도와 경의선 재개통 등 남북철도 연결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 관계지는 “김제교류와 함께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묘향산, 천보

산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우리측은 3국을 기치지 않고 직접 내왕토록 할 방침”이라며 “한국에서 새벽 열차로 출발, 관광을 마친 뒤 밤열차로 돌아오는 등 철도관광 코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의 크루즈선 운영방식이 모델이 될 것이며 우리 철도 기관사가 현지까지 열차를 운전해 가는 방안, 평소에는 휴전선 철책을 탈았다가 철도가 통과할 때만 열고 북한측 기관사와 교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구상중인 사해안 공단의 탐동관 수송과 관련해서도 주유소 문

제 등 때문에 철도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강원도 간성~온정간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총연장 30km의 신금강산철도 건설에 가장 먼저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철도 농맥을 잇는 방안으로 부산~시골~평양~신의주, 북포~시골~원산~청진~나진을 축으로 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과 천도노산이 통과하는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공동역을 설치하는 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용승(董龍聲)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철도 연결시 대북투자비가 줄어들 것이나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의 연계방안은 현재 단선인 북한의 철도복 복선화시키는 작업 등 신검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진수기자>

## “핫라인 개설 합의된것 아니다”

### 朴駿奎수석 평양브리핑 “두頂上 필요성 의견 교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위원장이 13일 1차 정상회담에서 핫라인 설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남북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양측간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대처상황에 놓여 있는 남

북의 최고 지도자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고 김제협력 강화 등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자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긴급연락망’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 핫라인 개설 합의로 비쳐지자 박준영(朴準榮) 공보수석은 14일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필요성에 대해 의논해 가는 상태”라며 핫라인 개설 합의를

공식부인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화해 및 협력에 합의한만큼 핫라인 개설은 시간이 문제일뿐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남북 정상간의 핫라인은 기존에 설치된 남북 당국간의 직통전화와는 차원이 다른 통신망이다. 외교·관대상 국가 정상간의 핫라인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며 철저한 보안유지와 안전을 위해 일반 국제전화 통신망과는 다른 비선(秘線)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권기자>



# 대외협력 기금 1조6000억 활용

### 남북정상



### 경협 자원 어떻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남북 경협의 세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이산가족, 남북 평화공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협은 차후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협이 급류를 탈 것에 대비, 구체적인 자원조달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남

## 내년 2000억 추가... 법적 뒷받침 필요 남북협력기금 1조4000억도 사용가능 北제도 우선 정비돼야 국제컨소시엄

북 경협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은 크게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 D C F) ▲국제컨소시엄 등 세가지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91년부터 지급까지 총 1조3502억원이 조산돼 현재 9250억원이 남아있으며 통일부가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88년부터 조산을 시작해 현재 1조3008억원이 사용가능하며, 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과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교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어서 결합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대외경제협력기금법 1조)된 것이어서 결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든지 통일부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범주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유관해석을 하면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을 바

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빈가로우며 유관해석방식을 취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이 경우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돼 외교적으로 미묘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컨소시엄의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해 제3국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금지협정 문제 이외에 합영·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채권법, 외국인기업법, 세관법 등 북한의 각종 법체정이 필요하다. 북한측에서 "고쳐 나가겠다"는 선언만 해도 성공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자존심을 고려해 지원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공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괜히 북한을 자극해 "다인 밥에 새 빼먹을 수 있다"는 압력에서다.

<조해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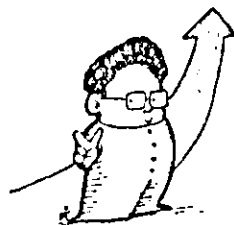
## '김정일 주가' 상한가 행진

### 포스닥 이틀새 1만원 올라 DJ株도 동반 급등세

북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한에 정치인 '사이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주가가 상장 당일인 13일에 이어 14일까지 만일 상한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주가도 같은 기간에 '합체주'로서 고공비행권 계속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통일에 대한 사이비 주식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위원장의 주가는 13일 '포스닥



(www.posdaq.co.kr)' 시장에서 개장초부터 쏟아진 사자주문으로 상한가를 기록, 전일 공모가 5만2000원보다 10% 오른 5만7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위원장의 주가는 14일에도 개장초부터 사자주문 없이 사자주문만 있어 오전 10시 현재 6만742원으로 상한가를 거듭했다.

포스닥 관계자는 "개장과 동시에 김위원장 주식에 대해 5431주의 상한가 사자주문이 쏟아졌다"며 "310주가 거래됐으나 더 이상 팔자 물량이 없어 사자 잔량만 4766주에 이를 정도로 김위원장의 주식은 높은 안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기대과열을 막기 위해 매입 개장과 동시에 내놓는 김위원장의 신주 300주도 13, 14일 이들 모두 순식간에 상한가로 다 팔렸다. 이에 앞서 김위원장의 주식은 정식거래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 예매가 5000원인 주식이 10개가 넘는 5만300원에 공모됐다.

김대중의 주가도 정상회담 전 날인 12일 58만9000원 증가로 마감했다가 14일 오전 10시 현재 1만5000원이나 오른 6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증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준다. <김석기기자>

“생활수준 남한의 30%선 되려면  
北에 10년간 800조원 투입해야”

### 남북통일 경제리스크 증대

이시안 웨스트리트리저널 보도

남북통일 움직임이 한반도의 정치·적 리스크(위험)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경제적·금융적 리스크는 증대시킬 것이라는 외국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런던에 소재한 독립전략연구소(IFS)의 국제전략전문가 데이비드 로제는 지난 12일자 '이시안 웨스트리트리저널'에 기고한 '이같은 초원하는 애국주의'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 700달러로 알려진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금의 대규모 아시아(亞細亞)시대들을 고려할 때 실제보다 10배가량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중앙집권경제의 자산가치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거의 무가치하며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절반수준으로 시속의 4년의 1수준이던 동북보다 배나 많고 ▲현재 남한의 경제력이 동북당시 시속 경제력의 절반수준도 안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 “통일후 북한 생활수준을 남한의 3년의 1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해마다 남한 GDP의 10%에 달하는 700억달러(80조원)씩 통일후 10년간 총 7000억달러(800조원)가 북한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와 같이 친분학적 재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남한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그 부담은 시공간이 흐름속속 민간부문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통일 움직임이 남한의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경제적·금융적 리스크는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경기자>



14일 오전 서울 중로구 직선동 고려당 본점에서 고객들이 남북정상회담 기념케이크를 살펴보고 있다. <신성섭기자>

### 남포·서해안공단 최대관심

기업 임금·물류비 대폭 줄여 경쟁력 확보  
中 경제특구 효과... 北 정치적 결단 필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북한지의 공단설립 문제가 세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부처에 김일성이 돼온 인프라 부족과 높은 물류비용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게 세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측이 해주나 남포를 남안과 가까운 거리의 서해안지역에 공단건설을 허용할 경우 그동안 중국이나 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온 소니세 업종의 기업들은 임금과 물류비용등에서 훨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와 삼성은 해주나 남포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적극 추진중이다. 현대는 해주나 남포부근에 총 2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건설하면 8년후에는 모두 850개 업체를 입주시켜 북한에서 22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연간 20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에 3단계 프로젝트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공단건설 1년내에 100만평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면 200여개의 공장(고용 4만명)을 입주시키고 3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 4년이 걸리는 2단계에서는 세계적인 수출기지를 건설하고 8년후 3단계가 완료되면 중화공업과 신일삼이 본아까지 함께 입주한 복합공업단지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삼성도 50만평규모인 해주 또는 남포지역 전자단지

10년간 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평화자동차는 이미 남포지역에 31만평 규모의 공단조성에 대한 북측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북한내 공단조성은 중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견줄 만큼 개방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향두기자>

### 기업인 방북 러시

鄭周永·李健熙회장등  
주한美·EU상의도 체비

남북정상회담이후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언계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주도해온 정주영(鄭周永) 전현대 명예회장은 6월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진명(鄭鎭名)은 당초 이번 정상회담이전부터 동천공업단지 조성 과 광광위시찰 착공, 서해안 공단부지 선정문제등을 일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했었다.

해주동지에 50만평규모의 전자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삼성의 관계자들도 북한방문을 추진중이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자단지 조성등에 대한 북한측과의 실무협약이 급진전될 경우 이경희(李健熙)삼성회장의 방북도 예상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EU상의는 외국 기업인 경제단체도 투자방문단을 구성하는등 방북 체비를 하고 있다. <박태경기자>

### 벤처기업도 對北사업 가속

벤처기업들도 대북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관련언계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메디슨,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 연구소등은 공장 및 합작연구소 설립, 제품 공급 등 북한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을 기

의 1회용 주사기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주사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공급하고 원자재 대금으로 북한에서 고부가가치 약초를 채취한 뒤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슨은 이 사업에 약 5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8년 북한측과의 통일 문서작성기 제작사업계획을 추진했다가 정부

메디슨 500만弗 투자 의료품공장 설립  
한 컵 문서작성기 제작사업 다시추진  
K T B 지주회사 설립 프로젝트 검토

확했던 K T B네트워크도 북한측과 공동으로 벤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장비제조업체 메디슨은 평양 시내에 의료용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슨은 이번화 회장을 포함한 방북단이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의료용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평양 시내에 한 유류공장을 빌려 주사기 생산조립 공장으로 개조. 연간 약 500만개

추진했다가 정부측 반대로 포기했던 한글과컴퓨터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구

성했다. 한컴 관계자는 "북한에 인구소밀 건립,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 T B네트워크도 자사가 주최한 평양교예단 시공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K T B네트워크는 우선 중국 베이징(北京)에 벤처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북한측과 공동으로 벤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경기자>

# 방송가도 놀란 고화질 '평양생중계'

TV브라운관에 온국민이 '감탄' 된 날이었다. 13일 남북한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국내 방송사상 전과제에의 위풍을 극대화시킨 '사건'이자,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위성방송 메커니즘'의 일대 성공이기도 했다. 국내 공중과 방송사들이 '평양 발(發) 화면'의 리얼타임 중계라는 방송사상 첫 기록을 세우면서 어떻게 지구촌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무엇보다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도착장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상봉장면 등이 국내방송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도된 사실에 놀라는 국민이 많다. 평양에서 촬영된 화면이 먼저 이동형 송신용 위성지국



현재 정상회담을 취재하고 있는 합동방송단의 규모는 한개기자 6명, ENG팀(카메라 5대) 8명, 중계요원 10명 등 모두 25명이다. 방송 4사(KBS, MBC, SBS, YTN)의 인력으로 구성된 이들은 모든 취재와 기사작성을 공동으로 하는 풀(pool)제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남북한 간의 방송용어가 조금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외하곤 북한측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없이 취재에 임하고 있다. 중계차와 방송장비는 북한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특히 북한의 SNG 중계차가 국내 중계차보다 훨씬 신형이고 성능이 더 좋아 놀랐다고 한다.

반면, 생각보다 원활한 북한 취재덕에 방송임정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예상에 없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극적인 등장과 예상 외로 뛰어넘는 길높고 풍부한 화면 때문에 방송임정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북한에서 보내지는 화면들을 우선 방송하다보니 김대중대통령 도착방송 이후에 내보내기로 했었던 대담 프로나 기획물들이 잇달아 취소됐다.

SBS의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영상기획 편성2000과 M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비하 남북교류' 등의 방영이 미뤄진 프로그램들, 심지어 60% 가까이 되는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의 '하준'마저도 취소되어 버렸다. 이는 14일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방송들이 프로그램 편성표에 얽매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프로그램 을 내보낼 예정이다. <우승현기자>

## SNG이용 선명한 장면 송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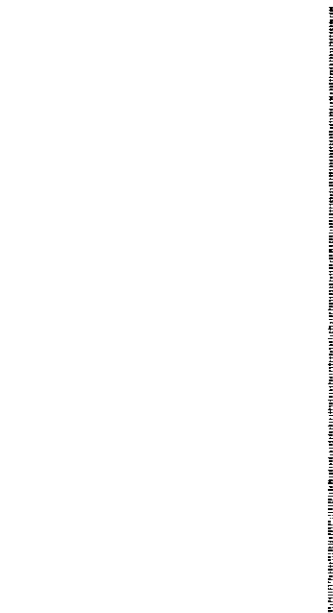
## 北중계차 남북장비보다 신형

(SNG)을 통해 우리의 무궁화위성으로 보내진다. 이 화면은 서울 위성지국국을 거쳐서 한국통신의 광화문전국내 국제텔레비전센터(ITC)에 도착해서 각 방송국을 통해 안방에 중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북한(PAL)과 남한(NTSC)의 TV화면 송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컨버터를 한번 거쳐야 시청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화질의 저하를 우려했지만, 생방송 도중 임정수준 이상의 고선명 화질을 유지해서 시청자들은 물론 방송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생중계의 핵심 기술은 SNG인데 이 기술을 이용해 CNN이 김프진을 생생하게 중계해서 유명해졌다. 녹화방송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촬영된 화면은 먼저 평양 고리초등학교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거쳐 북한 위성지국국에 보내진다. 그곳에서 인도양 상공에 떠 있는 국제위성인 인텔샹에 화면이 보내지고 이를 수신하는 국내와 세계의 방송국을 통해서 실감나는 북한의 거리 풍경 등이 보도될 수 있었다.

# 문화일보

2000. 6. 14 (수)



**어쩔수 없는 직무유기?**

“평양에는 태극기, 서울에는 인공기.”

분단 50년만에 남북 정상이 만난 13일을 전후해 서울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인공기가 걸리면서 검찰이 '어쩔수 없는(?) 직무유기' 상태에 들어갔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 학생회관 출입구쪽에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가 각각 그려진 걸개그림 3개를 나란히 내걸었다. 또 고려대 현안대 건국대 덕성여대 창원대 등에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7조의 개정용 공식 권고한

상대, 남북정상이 분단후 처음으로 만나는 분위기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법집행을 지키고 '법법행위'를 처벌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검찰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안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은 총부리를 어느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고 있다.

공안사법을 담당하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보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근기자>

# 中 “한반도 통일 건설적 역할 하겠다”



## 주요국가 논평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환영'과 '기대'를 표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지속을 기원했다.

미국의 빌립 리카 국무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감소로 나아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

## 美 “남북한 긴장해소 희망적인 조짐 보여” EU “만남자체가 역사적 사건... 화해 기대”

한 환영을 '희망적인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조 록히트 백악관대변인은 "우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받은 따뜻한 환영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주방짜오(朱邦斌)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진일보한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의 동안을 지지하며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T·V로 양측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깊은 감회를 느꼈다"면서 "원만하게 감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오키 장관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모슈코프 외무차관은 이날 "남북한 대화가 시작돼 양측이 건설적인 제안들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 "그러나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안정과 화해의 전망을 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피터 김포드 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50년간 남북간에 지속된 냉전을 해소하는 데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쿄·베이징·워싱턴=이신우·홍순도·민병두특파원, 연합뉴스>

# '총칼을 쟁기로' 첫발 내디뎌

## 해외 주요언론 시설

**美 뉴욕타임스**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개회와 북한을 '강제국가(Rogue State)'로 지정한 명분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급진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이 서로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우병하고 예측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최근 유럽 일본 미국등 서방국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코멘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개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만큼 북한을 더 이상 위협한 강대국가로 취급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워싱턴=민병두특파원>

## 냉전의 얼음 해빙 시작

**中 린인르비오** 남북 양정상의 역사적 정상회담은 한반도로 한 민족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냉전의 마지막 긴요한 얼음을 마침내 녹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와 전체 동북아 역사가 이세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사실도 뜻한다.

정상회담에 따른 양측의 긴장 완화는 아예도 서방의 북한에 대한 감시 정책의 완화

세계 주요언론들은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1면 머리기사 등 주요뉴스로 보도한데 이어 14일에도 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은 특히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등 파격적인 환대를 한 사실에 주목했다.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된 세계적인 언론들의 사실 및 논평을 소개한다.

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 급격히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경제 원조 및 무역 확신화 확대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냉전의 얼음이 하루이튿날에 완전히 녹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총칼을 쟁기로 녹이는 제 모습을 내다봤다. 남북 양방은 여같은 분위기에서 기초해 접촉을 더욱 강화, 상호 신뢰와 인적 왕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베이징=홍순도특파원>

## 지나친 기대 아직 일러

**日 니혼케이자이** 역사적 악수를 남 북공존의 제1보로 삼기를 바란다. 북한이 어떤 힘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지 세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

서로가 포용하는 정념을 보이지 않았지만

양손을 굳게 잡았으며, 이어 양 정상이 나란히 (북한)의장대를 시열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측이 최고의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놓여 있던 장벽에 커다란 통로가 뚫렸다. 우선 김대통령의 특별기 운항을 위해 양측은 천단계로 처음으로 기상정보를 교환했으며 만일에 대비, 평양 시내에 김대통령과 청와대를 잇는 핫라인이 설치됐다. 그러나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55년간에 걸친 남북한의 분단, 그동안 감금이 쌓인 상호 불신들을 한두번의 정상회담으로 풀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도쿄=이신우특파원>

## 美-중등 주변국 지원필요

**英 파이낸셜타임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목할 일은 평양측의 24시간 회담 연기 제안이 아니라 양측이 마침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여정은 길었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의 긴장을 풀어주는 장정을 시작한 셈이다.

북한은 개방을 위해 보다 고무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받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때 대응할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지원 없이는 긴장을 해소하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방정에서 한걸음 물러설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도한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정혜승기자>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한 미국의 CNN방송 등 세계적인 언론들의 인터넷 사이트.

— / '남북회담' 중국·대만의 다른 눈 / —

대만, 부러움속 “兩岸도 대화·협상나서야”  
중국 “남북관계와 달라...” 독자방식 주장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총각과  
가 중국과 대만간 양안(兩岸) 관계  
에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만은 남북정상들의 진격적인 회  
담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서 “왜 양안은 남북 지도자들처럼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나”고 의문  
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중국측은  
“양안관계는 남북관계와 다르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양상이 양안에 틀  
어박치는 것을 애써 막는 태도다.  
대만 행정관 대륙위원회 린송관  
대변인은 13일 남북정상회담과 관  
련, 심경을 발표하고 “남북정상들  
의 역사적인 만남은 대만과 중국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정치적 이견  
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며 “대만과 중국 역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한반도 전문가인 린추산(林秋山) 박  
사는 “남북정상회담을 발화와 반북  
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  
면서 중국과 대만도 남북정상회담

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  
안간 긴장을 완화시키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남 대만과의  
관계개선 모델로 남북한 정상회담  
방식의 외교정책을 채택하기를 거  
부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회담방식  
을 대만에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주방췌오(朱邦斌)  
중국 외교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대만이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  
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전까지는 중  
국은 대만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거  
부할 것”이라며 “대만과의 관계를  
잡아가는데 있어 남북한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서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남북한과 달리 친세  
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공식관계를 맺고 있다”며 “대만은  
제는 전적으로 중국 국내의 일”이  
라고 강조. 양안간 문제해결에 남  
북정상회담과 같은 방식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영번기자>

“北의 對美 위협 美 정치가들이 과장조작”

한반도 전문가 퀴노네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케  
네스 퀴노네스(사진)는 13일 북한의 대미  
(對美) 위협이 미국 정치인들과 친해진 정  
권을 지탱하려는 북관영토에 의해 지나치  
게 과장되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북핵담당관을 역임하고 북  
한을 14차례 방문했던 퀴노네스는 이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인보의 죽임에서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며 “(남이있는)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퀴노네스는 북한측으로부터 다음 남북

때 디즈니사(社)가 제작한 영화들을 갖고  
들어오도록 요청받은 사실을 소개한뒤  
“북한주민들이 5년 안에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상당수는  
미국의 뉴스전문 케이블TV CNN을 시  
청하게 될 것”이라며 “변화는 빠른 속도  
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A투데이는 ‘북한 핵위협 과장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은 퀴노네스의  
분석을 자세히 소개하고 “정치적 생존에  
대한 위협만 없다면 북한이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오남석기자>

# “남북정상 따뜻한 첫 만남 가시적 성과 기대감 커져”

## 독일통일 지켜본 ADR-TV 쉬어리기자

“상쾌한 첫 출발을 보면서 휴전선도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지 뵤만이 아닐 겁니다.”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서울에 온 독일 ADR TV의 도쿄특파원 클라우스 쉬어리(39·사진)씨는 “6월13일은 한반도 뵤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경력 12년의 쉬어리씨는 지난 90년 ADR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도했던 베테랑 기자. 정상회담을 취재중인 500여명의 외신기자중 뵤만이 가져다준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기자중 하나이다. 쉬어리씨는 지난 70년 당시 어린 나이로 동·서독 첫 정상회담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부모로부터 수없이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다.

쉬어리씨는 “30년전 동독 에르푸르트역에서 차가운 악수로 시작된 시독 빌리 브란트 수상과 동독 빌리 슈토프 수상의 첫 만남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며 “특히 당시 동독 정부 당국이 보이쉴던 냉랭한 태도는 회담이후 통일에 이르러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오히려 브란트 수상을 반겨준 사람은 자유를 열망하는 동독 시민들이었다는 것.

당시 “빌리!”를 인호하는 수천명의 동독 시민들을 보며 브란트 수상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고 쉬어리씨는 전했다.

쉬어리씨는 “동·서독 두 수상의 만남과 비교할 때 남북한 정상회담은 축제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정상회담의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외신기자들에게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70년대 동·서독의 상황은 현재 남북의 정치적·경제적 여건과 비슷했지만 남북정상의 첫 만남에서 나타난 충격과는 실질적인 결과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쉬어리씨의 분석.

쉬어리씨는 “독일도 첫 정상회담 이후 20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통일에 대한 신부른 낙관은 곤란하다”며 “남북한 모두 시도를 배려하며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박수균기자>

# 파격행보 金正日 우상화 경계해야 네티즌 반응

13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최초로 TV 생중계로 방영된 뒤 PC통신과 인터넷에는 김위원장에 대해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느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김위원장이 평양순안공항에 직접 마중나오고 웃음띤 얼굴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영접한 데다 정상회담장으로 가는 승용차의 상식을 김대통령에게 양보하는 등 전례 없는 파격을 선보여서인지 김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lolasia라는 네티즌은 하이텔 게시판에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손님을 맞는 여유롭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보았다”며 “김위원장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없애야 할 때가 왔다”는 글을 올렸다. caterpillar라는 네티즌은 “평양 순안 공항으로 직접 나와 김대통령을 맞은 김위원장의 전례없는 환대가 그동안 베일속에 가려진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이런 행동이 남북한과 세계를 향해 한껏 연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제시됐다. LHS9120이라는 네티즌은 “네티즌들과 마스크가 김위원장의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있다”고 경계의 주장을 퍼기도 했다. <강연곤기자>

# 차관등 對北 현금지원 신중기해야

## 이미티지 前美 국방차관보

리처드 이미티지(사진) 전(前) 미국국방차관보는 13일 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공화에서 영접한 것과 관련, "김정일위원장은 체제를 장악할 정도로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의 핵심 외교인보자문역인 이미티지 차관보는 "김정일은 수수께끼같은 인물로 언론에서 묘사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나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체제를 공고히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김위원장이 공화에 직접 환영 나온 배경은, "김위원장이 공화에 영접을 나온 것은 인정자에 대한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본다.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 때도 김위원장이 집회장 숙소를 직접 방문했다. 김위원장이 인정자인 김대통령을 환대할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김 대통령의 공화도착 심명이 없었는데, "정상회담 첫날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김대통령이 사전에 약속했던 공화 인신기회를 갖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해하지 않았던 점이다. 김대통령은 당황해하거나 당혹스러워 하지 않고 자신 있는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1차회담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나.

"상징적인 민남 지체가 중요하지만 서울에서의 2차회담에 대한 확고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관 공여등 현금지원에 북한을 다른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만큼 비관적이지 못하다. 이번 회담은 1994년 북·미합의에 이은 또 하나의 진전이다. 평양회담이 남북관계의 영구적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지 여부는 첫날 회담만을 갖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양자관계의 발전은 확실하다."

-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모를 보았으며 앞으로는 경제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한반도가 더 안전해 지기를 바란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궁극적 보증인이므로 남북간, 북한과 서방국가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 문제 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워싱턴=민병두특파원>

# '통일로 가는 길' 활짝 여는 계기로

## 자오바오쉬 中정치학회부회장

"너무나 놀랍고 유쾌한 사건이다. 회담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중국 정치학회 부회장인 자오바오쉬(趙寶樹·77·사진)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인터뷰를 부탁하자 김로부터 꼬집어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치학자로서 50여년간 남북의 침예한 대립을 목도한 그에게 양 정상역사적 상봉은 아이도 인연을 잊어버리게 만들만큼 충격적인 듯했다.

- 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한미대로 낙관한다. 분단 55년만에 양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사실 자체가 세계적 대사건이 아닌가. 더구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다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조선(북한)도 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 정상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놓고 회담의 계속을 하지 않을리는 없다.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양측이 어떤 식으로 회담을 이끌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공동 관심사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의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구하면서 이견은 남겨둔채 친친히 토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경제 협력은 그 좋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 주변 4강의 입장은 어떤 것 같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반대하는 강대국이 없지 않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72년부터 시작한 남북한 대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외세 간섭 없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

-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무어곡절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외세를 배격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더구나 양측의 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인지는 정답하기 어려우나 통일은 된다고 본다. 정상회담 자체가 통일에 이르는 초입이라고 생각한다."

<베이징=홍순도특파원>

# 국가이익 따지는 '차가운 머리' 필요

허남성 국방대학교 교수부장

남북정상회담으로 흥분과 열광의 분위기가 한 번도를 감싸고 있다. 민족의 염원이었던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민족의 감시안에 들진않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어제 서울공항을 떠나며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는 말을 남겼다. 반세기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매우 유효직접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어제는 뜨거운 가슴만 있었던 날이었다. 55년간 겨우된 총칼을 접고 악수를 나눈 상황에서 감동과 흥분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역시 하나의 냉엄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어야 할 국가 이익이 무엇이나 할 다 냉철하게, 차갑게 분석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

통일과 평화, 안정은 결코 같은 궤적에 있지 않다. 통일에 대한 환상 탓에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건, 다시 말해 마음의 안보가 뒷받침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냉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엄연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이고 예의있는 영접으로 우리 사회는 마치 동원이 곧 이뤄지는 것처럼 들떠있다.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이 상당히 이완된 상태다. 이는 안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궁극적인 목표다. 통일은 과정이 아니라 종착점이다. 평화와 안정이 과정이라면 통일은 그 종착점이다. 따라서 평화와 안정이 잘 진행되고 정착돼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역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과 관련해 심왕삼태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통치, 즉 공권력과 사권은 구분된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원은 이해하지만 인공기 게양이 가져올 여가움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거나 어제 우리에게 질실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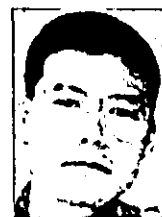
# '주변여건'에 발목 잡히는 일 없어야

김영호 성신여대교수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오는 등 이번 회담에 임하는 김위원장의 적극적인 자세도 특기할만하다.

이러한 순조로운 정상회담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의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비접촉 과정에서 우리측은 오히려 이번 회담의 심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의제들을 기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등과 같은 의제들은 김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이번 회담의 성격을 '상봉'으로 격하시키기 위해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일체의 현안들을 기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에 일단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한 남북 쌍방의 국내 정치적 여론의 판단에 따라 회담의 계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에는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국제정치적으로 아무런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중립상태를 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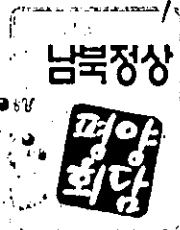
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와 달리 남북한 사이의 독자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회담의결과에 대한 부담을 남북한이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평양도착상면에서 친명함대로 서두르지 말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신중으로 이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 한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성급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7·4공동성명 발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에도 남북한 관계가 대내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번 정상회담도 과거의 나쁜 선례를 되풀이할지 모른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평양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리 민족의 밝아질 미래를 좌우할 것이니 분명하다.



실형민들의 부푼기대 들어본다

드디어 만났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평양 순안공장에서 손을 맞잡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국민치고 알듯할 감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실형민들이 느끼는 감회는 특히 남다르다. 행정자치부 신하 이북5도위원회, 이북총신 800만 실형민외 구심점 역할을 하고있는 행정조직이다. 북이 싫어 북을 잡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반공(反共)이 국시어어 한다고 가장 소리높여 외



쳐대던 사람들, 그로 인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에 적지않은 거부감을 보여온 사람들... 남북정상간 역사적 상봉이 이뤄지던 13일 이북5도위 소속 함경북도지사외 평양평예시장을 만나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보수단체로 인식되는 실형민 단체의 핵심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속에서도 어느덧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젠 통일이후 준비할때

南星寬 함북지사

이북5도 실형민들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은 특히 많다.

북쪽이 싫어 월남을 강제한 실형민들 특징 삼 많은 북한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품고 있지만 함경북도 출신은 그 정도가 심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백두산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한반도 최북단에 살다가 미더면 남한안으로 넘어온 이들 함북출신 실형민엔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더욱 깊은 '북을 잡고'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 것. 남정권(南正權) 67·시진(時進).

함경북도 출신 8만 실형민을 이끄는 함북도 지사를 맡고 있다.

이북5도위 소속 평예시장·군수 등이 많 그 내로 평예시(平例市)에 비해 함북도 지사가 포함된 이북5도 지사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수속 공무 아직 일부선 첩지한 반공의식 마음돌릴 가시적 성과 있어야



보고 이산가족 상봉 상사 들어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지만 '김정은 북한에 또 당하고 말 것'이라며 절신하고 있는 실형민도 적지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남씨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단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가지런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는 일부 실형민들도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원천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남씨는 "북한의 김정 일과방우원장이 직접 마중나오는 등 속속 '통일'의 기운이 풀리고 있다. 남씨는 이번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의 준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실형민 단체가 반공을 정면안으로 확정한 역대 정권에 이용당했던 측면도 있지만 북쪽이 고립을, 남쪽엔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실형민들이 통일 이후 남북간 괴리를 잇는 안건과 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남씨의 설명.

"앞으로 도민회의 청년회 조직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형민 자녀들에게 양질의 통일교육을 참여시켜주세요. 만일 우리 실형민 1세대가 이루지 못한다면 부모의 숙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들이 이뤄야지요." 어느덧 남씨의 가슴속엔 통일외의 낭이 있는 듯했다. <김병직기자>

이산가족 상봉 꼭 이뤄야

尹世鈞 평양시장



'어로부터까지 감시당 엄연할 때 최고의 자리가 평안감사였습니다. 그만큼 인신 좋고 풍경 좋고 미안 많기도 유명했다는 거죠. 또 '평양마시기'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순반과 민청한에 관한한 평안시장을 따라 오질 못했어요."

행정자치부 신하 이북5도위원회 소속 평양 평예시장을 맡고 있는 윤세균(尹世鈞·81·시진)씨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소감을 묻자 "고향재민"부터 정황하게 늘어놓았다.

윤씨의 고향은 평양 남포진, 서울로 치면 남대문 근처이다. 평안 출신가에 인접한 곳이다. 해방 이듬해인 지난 해년 월남하기 전까지 윤씨가 평양에서 겪은 27년간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윤씨의 기억 속에 또렷하다. "대동강 실형민 1세대 67만여명 남아 대부분 고향... 더 늦춰선 안돼

생생합니다. 또 해방전 평양은 기독교가 크게 번창하면서 민심이 뿌리 깊고,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한 자각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남시 '조선 제국의 문화도시'라는 평안인들의 긍지가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상이 개항기 이후에서 윤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일본과 미국에서 마쳤고 '부르주아 냄새' 물씬 풍기는 윤씨의 권력은 해방 이후 윤씨의 월남을 재촉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 회제를 남북정상회담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윤씨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역시 이산가족문제.

"남북 정상회담이건 실무자 회담이건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에 두어야합니다. 북을 떠난 순수한 실형민1세대들은 거의 자갈이 80세 전후가 됐어요. 더 이상 늦춰선 안됩니다." 윤씨 역시 북에 두고온 친여동생(80)이 가슴

속이 험으로 맺

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속이 험으로 맺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속이 험으로 맺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속이 험으로 맺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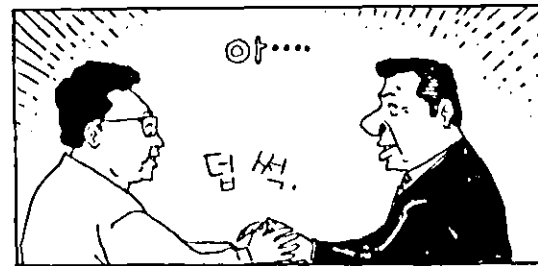
속이 험으로 맺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속이 험으로 맺혀있다. 현재 남한에 생존해 있는 실형민 1세대는 대략 67만여명. 매년 1만여명이 자연감소(自然 감소)하고 있지만 워낙 자연감소 규모가 감소



박시백의 그림세상  
park@hani.co.kr

## 2000. 6. 13



## 동아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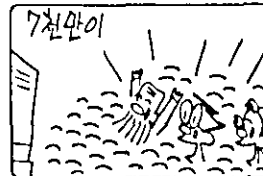
손문상  
smocns@donga.com



## 대한매일

2000. 6. 14 (수)

미주알  
김은호 dochi@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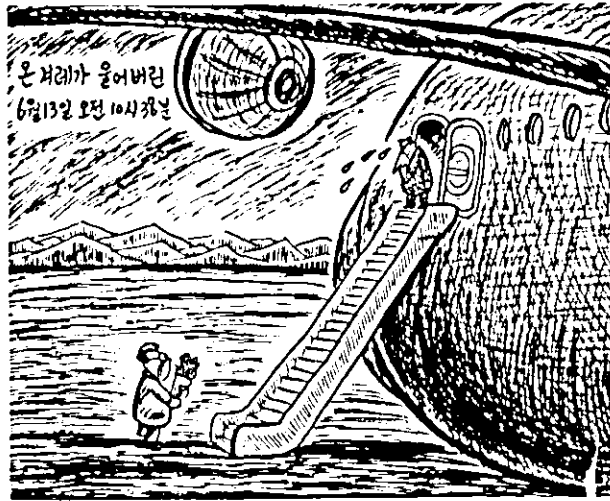


대추씨  
조기영 2296



# 대한매일

2000. 6. 14 (수)



# 世界日報

2000. 6. 14 (수)

## 古界만평

柳基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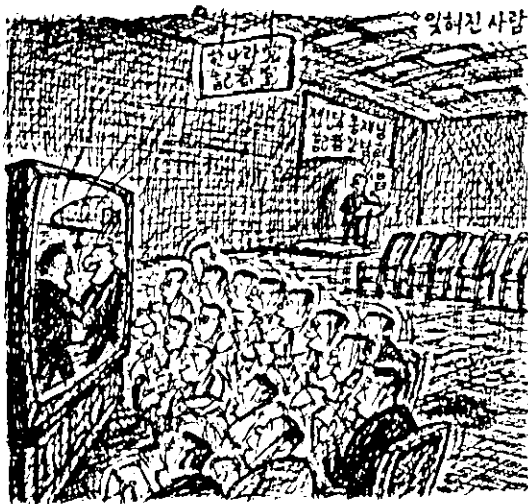
# 중앙일보

2000. 6. 14 (수)

# 國民日報

2000. 6. 14 (수)

## 김상택 만·화·세·상



## 국민漫評

심민섭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14일 오후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담하고 있다.

한영 / 싱가포르 사진가인

# 한반도 평화 새역사 쓰다

## 남북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회담은 50년 여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 사교 이념을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정상화하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유네스코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용 용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      |             |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대통령  | 국방위원장       |
| 김대중  | 김정일         |

김대중

## 새역사 큰만남

### 합의문 서명 인박

55년동안 헤어졌던 분단의 역사가 방북 이후 만에 돌아왔다.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밤 11시20분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합의서를 교환한 뒤 오랫동안 두 손을 뜨겁게 맞잡았다.

## 두정상 서명뒤 뜨겁게 악수 수행원들과 함께 축배·박수

○이날 서명은 김대중과 김위원장이 각각 임동원(林東源) 특보와 김봉순 노동당 대담담당 비서(아태 평화위협장)만들 대동해서 대형 테이블에 마주 앉아 2분여동안 진행됐다. 임측 수행원들은 두 정상의 뒤에 선 채로 역사적인 서명 장면급 격조스럽게 지켜봤다.

서명은 김위원장이 먼저 미쳤다. 김위원장은 전희정 의장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서명 후 김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렸다. 김위원장은 흘림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김대통령은 한자 한자 또박또박 '김대중'이라고 적었다. 두 정상은 합의문을 교환한 뒤 감격에 겨운 듯 두 손을 맞잡고 한동안 힘차게 흔들고 양손을 높이 쳐들었다.

이때 수행원들은 우와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손을 놓은 두 사람은 그대로 어췌든 못 채져 악수하고 상대측 수행원들과도 일일이 손을 잡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 수행원들에게 크게 세스서들 쓰며 악수했다.

○이어 두 정상과 임측 수행원들은 임박해 축배를 들었다. 김위원장은 감격에 겨운 듯 단숨에 진을 들이켰고 수행원들도 모두 기념품에 '원 샷'을 했다.

술을 거의 못하는 김대통령은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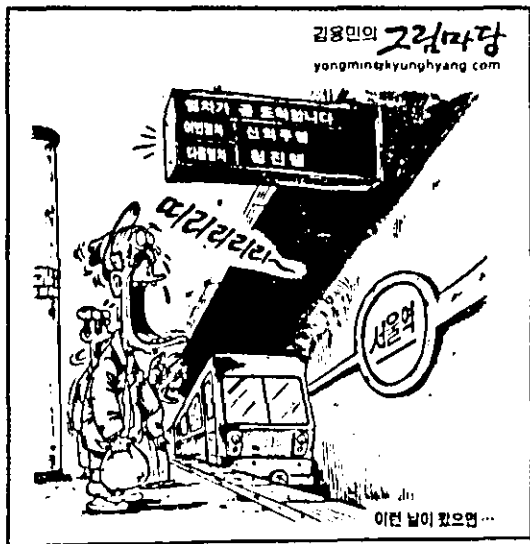
건배를 마친 두 정상은 손을 꼭 잡고 수행원들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서명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백화원 영빈관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10여차례의 박수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김위원장은 시종 분위기를 리드하며 수시로 농담을 건네 백색지단과 복소품 차이였다. 우리측 장군들에게도 자신의 각급을 대하듯 손짓까지 대가며 밝은 견했으며 특히 임동원 대령장특보의 오렷동안 각별히 예기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김위원장은 합의서 서명후 영빈관을 떠날때 다시 한번 김대통령과 우리측 수행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는 등 이국땅엔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위원장은 영빈관을 떠나는 순간 김대통령은 오른손을 흔들고, 우리측 수행원들은 박수로 김위원장을 배웅했다.

한영 / 공동취재단



- ①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② 남·북통일안 공통성인정
- ③ 8·15 친인척 방문단 교환
- ④ 민족경제 균형발전 협력
- ⑤ 합의사항 실천 당국대화

이산가족 남북 고향방문단이 8·15 광복절에 즈음해 교환된다.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연대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위원장은 14일 오후 경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합의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

로 하였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은 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은 이어 "남북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한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협력용 통화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에 옮기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시작한 뒤 1차례 정회를 포함, 3시간이 넘는 미려한 회의록을 합의 끝에 합의록 이끌어냈으며 밤 11시20분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앞서 김대통령은 만수대의사에서 북측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면담을 갖고 남북현안을 논의했으며 저녁에는 목감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담례만찬을 열었다.

김대통령은 15일 김국방위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난 뒤 당초 예정과는 달리 황공기를 이용해 서울로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 공동취재단

### 대한매일

2000. 6. 15 (목)

### 남측 林東源 특보등 3명 北측 金容淳비서관 배석

#### 회담 참가 못했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14일 단독 정상회담에는 4명의 배석자만 참석할 채 진행됐다.

남측에선 임동원(林東源)대통령특보와 청와대의 황원익(黃源益)외교인사·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등 3명이 배석했다. 북측에서 김국방위원장의 연선에 김영순(金容淳)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관 배석했다. 양측에서 국가간 정상회담이었다면 외교부장관과 외교부의 해당 지역 국장이 배석하고 해당 지역 대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 남북관계 고려 외교·국방등 포함안해

그러나 이번 회담은 민족 내부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외교부·국방부장관 등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동원 특보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구체화하고 주도한 남북문제 전문가 중 전문가. 김대통령의 각별한 신임과 90년대 초부터 고위급회담 대표 등을 지내며 대북정책 기획과 회담 진행에 깊게 관여해온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후문.

북측에서 유일하게 배석한 김영순(金容淳)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관은 남북관계의 북한 외교의 단골과 김영을 총괄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중 측근.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 김위원장 '남측용어' 사용 주목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4일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외 기문대 김위원장이 '실형민' '탈북자' '한국 김치' 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실형민'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실형민' '이산가족' 등은 우리측이 써온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형민을 '고향을 등지고 도망간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탐답치 않게 생각해 온 게 사실이다.

#### 실형민·탈북자·한국김치등 북측에서 사용 꺼리는 언어 대화도중 자연스럽게 언급

하는 말언어로 해석되고 있다.

'탈북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북한은 탈북자를 '법외자' 정도로 명화하는 지세를 취해왔다.

김위원장은 특히 '한국 김치'란 표현을 버려 '한국'이란 표현을 간접 사용했다. 금강산 관광객들의 직업관에 '한국...'이라는 표기를 언급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또 하나의 피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의 직업관에 '한국'이란 글자가 들어기면 영문 이니셜 첫 글자인 '에이치...'란 표현으로 대체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한국'이란 단어를 금기시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yunbin@kdaily.com

# 3시간5분 마라톤협상 '열매'

## • 역사적 합의 도출까지

1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라톤 협상'이었다.

두 정상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3시간 5분 만에 걸친 회담 끝에 이산상봉 등 4개항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육관관에서 김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만찬에 나란히 참석,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로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

## 두정상 만찬까지 미루며 産苦 거듭 중간브리핑 '흥금 터놓고 얘기 나눠' 정회뒤 속개 45분만에 극적인 타결

의에 따라 김대통령이 육류관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갖기로 해 오후 3시에 열렸다.

○...인민복 차림의 김위원장은 들어서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괜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도 모든 행동이나 표정은 전날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거침

이 없었다. 두 사람은 중간에 마주 보고 앉았고 김위원장은 비남에 담겨있는 10여쪽 분량의 자료를 자신의 앞에 놓았다.

배석자들이 두 사람의 양쪽 옆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큰 목소리로 "오늘 일정이 아쉽부터 간성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간담과 이날 오전의 안부를 묻는 인사를 건넸으며

김대통령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다.

○...김대통령이 이날 점심때 먹은 육류관 방면이 잠시 회제에 올랐고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분위기를 김위원장이 전했다. 남측도 마찬가지로 김대통령의 회담이 계속됐다. 김위원장은 남측의 TV 방송을 본 얘기를 하면서 "남측 인민들도 다 환영하더라"며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오후 3시쯤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이 시작된 후 양측 수행원들은 회담장 밖에서 초조하게 회담결과를 기다렸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간혹 김위원장이 웅변조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뭔가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2시간 넘게 마라톤 회담을 진

행하던 두 정상은 5시20분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의를 받아들여 정회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각기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6시5분 회담장으로 향하다 입구 복도에서 마주쳤다. 복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김위원장이 먼저 김대통령을 보고 "괜히 쉬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네자 김대통령도 "잘 쉬셨습니까"로 회답했다. 두 정상은 휴식시간 동안 정리된 생각이 많은 탓인지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대화를 계속했다고 박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단독 정상회담장은 당초 김위원장의 집무실로 예상했으나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백화원 영빈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짧은 김위원장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북측에서 전해와 갑자기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金위원장 서울서 다시 만남시다”



더욱 가까워진 악수

본일 /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백화원 명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 성사뎀 회담정례화 새지평 연내에 답방 가능성 높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무르익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담계 민찬에서 김위원장의 답방(答訪)을 공식 초청하고 김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수용,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북정상회담의 2단으로 관심을 모으는 시점이다.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경우 그 의미는 지대하다. 최우선적인 의미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뜻한다. 이번 회담이 55년간 본단의 벽을 허무는 서곡이라면 김위원장의 답방은 그 핵심인 평화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민족적 대사를 남북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목표다. 김대통령이 1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민찬에서 ‘책임있는 담국자간 대화’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도 김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공식 초청한 만큼 그 공은 이제 김위원장에 넘어갔다.

일단 조짐은 상서롭다. 김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봉 큰 정치’의 실현과 두 정상이 보여준 격의없는 대화의 분위기도 모두 긍정적 요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주변 4강들이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후속회담, 그 중에서도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내다봤다.

4대 합의사항 서명에 따른 후속조치의 완성을 위해서도 김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 커 보인다. 실제로 김위원장은 전날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관계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해 지속적인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에서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중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8·15가 가장 모일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지만 두 정상이 8·15에 조율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만큼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봉선기자 lskim@yurhyang.com

# '하나하나 풀자' 남북 협력 구체화

## 새역사 큰만남

분야별 실무협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 특별 수행인원과 북측 관계자들은 별도의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정당 사회단체, 경제, 여성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당 사회단체와 경제분야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1시간15분 동안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

### 간

담회에 앞서 남북 특별수행인들은 조선경비타격사를 방문, 북의 관광 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봤다. 이 화서는 게임, 인공저능, 음악, 전자사 진, 토지관리 등 각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삼성전자와 중국 베이징에서 관련분야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정당·사회단체 분야=남측에서는 김민라(金敏羅) 민주권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혜진(李惠珍) 민주총 정책위원, 김운영(金雲英) 대한체육회장, 장영준(張榮俊)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북측에서는 김영내 민화협회 회장을 대표로 한창호 권도교 부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정공수 철수 등이 각각에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혜진 의원은 90년 1월부터 중단된 남북 국제회담을 재개, 관련법률 각자 만들어오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령하고 요청했다. 김운영 체육회장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팀 동시입장"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단일팀 구성"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참가를 재요청했다. 장 축구협회장은 축구 남북한일팀을 구성해 오는 10월 레바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와 내년 아르헨티나 세계최초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을 재요청했다. 이와같이 한-일이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북한팀이 참가하는 문제점 재론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경기장인 5·1경기장(平壤도 경기장)에서 경기권 치할 수 있도록 재요청하고 요청했다.

정착장은 또 대표단 교환경기, 경봉(京阜) 축구전의 부안 및 현재 한·중·일 3국 축구계가 논의중인 동아시아 지역리그 신설에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북측 관계자원은 "남측의 제안이 참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역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화계를 대표한 재민(在民) 예술인교류단은 "한·남·일·북 등 분야에서의 남북

한 합동공연" "극작가·배우·연출가간의 공동 세미나" "분단 이후 남북 문화특성상의 공동 출간" 등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고(高)민족작가회의 상임고문은 남북작가회의의 개최를 재요청하고 17년 광복절 기념식과 8·15 기념식의 남북공동 개최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공동 응원단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남북의 제외가 본어이자 북측 대표인 김위원장은 "여러가지로 제기된 교류협력의 내용이 진지하게 연구할 경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중내란을 지키기 위한 "서로 사상·이념·제도 차이로 초월해 대 단결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며 "북과 남의 온 민족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삼라간다는 쪽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측 대표들은 간담회가 끝난 무렵 박수모택 논의의 진전을 바라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헤어졌다.

◇경제 분야=남측은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구본우(具本宇) LG 회장, 손길승(孫吉承) SK회장 등 기업인 대표 9명이, 북측에서는 정운영 민경연 회장, 백세운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남측은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협약을 위한 제도적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 경제이 이익질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원 조속해 재개동해 투자보장협정, 2중과세방지협정, 직산경제협정, 지식소유권 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자고 재요청했다. 남측은 또 민간 기업의 본격적인 위에서는 상구민영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약에서 민간기업과 관련한 것을 촉구했다. 북측은 주로 듣는 편이었다. 북측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남측은 "북에 고령을 등 상정된 기업인의 경우 고령에 투자할 의향을 많이 갖고 있으나 남북간 협력이 재개되지 않고서는 단순한 물 자 지원 이상의 협력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행인원들 지하철 시승  
14일 오후 이현재 재검부장관, 박지일 문화부장관 등 남북 수행인원들이 평양 지하철을 시승하고 있다.

## 김일성은 '구성', 김정일은 '향도성'

정상회담 눈여겨보는 북한말

중중용어 '옹위' 그대로 차용 '중대한 사변'은 단골 이념어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원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을 때 한반도를 뒤흔든 주민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만세" "만세" "김정일 김시용위".... 이날 지극한 많은 남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남한의 정상은 환영하는 자리에서 "김시용위"라는 구호가 웅얼었다.

"김시용위"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애써 지키는" 뜻.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북한의 언어에 담긴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북한 언어는 남한과 다른 그들 고유의 언어 습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옹위(擁護)"는 원래 공중 등에서 신하들이 왕이나 왕비 등 지체 높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전통적인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전승태 박사는 "옹위"는 우리 역사상 특수 계층에서 써온 말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런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북한말을 전사자의 도움으로 살펴본다.

◇시업(事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라"(백화원 연민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에게 건넨 편지). 이때 "사업"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력을 높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의미한 "업" "일" 등에 해당하는 용어지만 그 쓰임새는 매우 넓다. 북한의 의미는 부여하는 뉘앙스에 의해 사업이란 말을 골라 쓴다. 남

측에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라"(백화원 연민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에게 건넨 편지). 이때 "사업"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력을 높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의미한 "업" "일" 등에 해당하는 용어지만 그 쓰임새는 매우 넓다. 북한의 의미는 부여하는 뉘앙스에 의해 사업이란 말을 골라 쓴다. 남

측에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라"(백화원 연민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에게 건넨 편지). 이때 "사업"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력을 높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의미한 "업" "일" 등에 해당하는 용어지만 그 쓰임새는 매우 넓다. 북한의 의미는 부여하는 뉘앙스에 의해 사업이란 말을 골라 쓴다. 남

측에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 편안하게 지내시고 사업을 하시라"(백화원 연민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에게 건넨 편지). 이때 "사업"은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력을 높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의미한 "업" "일" 등에 해당하는 용어지만 그 쓰임새는 매우 넓다. 북한의 의미는 부여하는 뉘앙스에 의해 사업이란 말을 골라 쓴다. 남



# ‘거침없는 언변’ TV육성에 놀라

## 새역사 큰만남

김위원장 스타일 눈길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육성( 육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그의 육성은 1992년 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군 사열대를 향해 격려했던 외인 “영웅적 조선인민군 전방대에 영광 있으라”는 한마디가 유일한 것. 이를 제외하면 김위원장의 육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처음 공개된 것이다.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대변(對辯)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냉랭한 시간 이유를 많이 갖고 천천히 잘 드시라” “봄과 시민들이 뜨겁게 맞이했는데 인사가 제대로 된 건가 걱정이다” “식민전이 뒤 떨어진 것은 없더니”는 등의 인사말을 속사 모처럼 이어갔다.

이유있고 거침없는 모습은 선남과 마찬가지로, 간신이 주먹을 쥐고 위협하듯 흐드는 격한 제스처도 취하기도 했다. 맞은편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말한 틈을 주지 않았다. 북한 전문기자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자주 끊는 화법은 어렵음 때문에 발음 ‘재향 수업이 봄에 번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과에서는 내가 온 통풍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대중이 오셔서 언론에서 대변되었다”고 농담.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순발력도 보였다.

“김정 나가는 거야 인사요. 내가 뒤 대변한 존재라고...”라며 풍상 연설과

### ‘친친히 드시라’ ‘불편없나’ 목청 카랑카랑 시종 당당 제스처에 곤잘 농담까지 ‘이미지개선 의도’ 분석도

‘과거 의전’으로 묘사된 남측과 서방언론을 습격 회화하기도 했다. 남측의 방송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자리에서였다.

때문에 자신의 예기할 전세계에 압입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상태였던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날 1차 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평양을 오려 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왜 받아들였는지 의문부족하다. 2박3일 동안 대담해줘야 한다” “남측에선 풍요할 허변 잡히는 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라만 추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는 남측이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머리회전이 빠르고,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변모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남측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어젯밤 늦게까지 남한 TV에서 심형빈과 남북회담 소개한 것을 봤나”는 얘기는 그가 TV를 통해 남한 사회의 흐름을 한눈에 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남에도 “대통령의 출발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봤다” “(박재균·박지현 장관을) TV에서 봤어”란 언사가 있었다.

김위원장의 자신의 집에 KBS, MBC를 포함해 미국의 CNN방송 등 10여개 채널을 설치해놓고 즐겨 시청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전언(傳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북평통신사 kbs@kwanhwan.com**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평양 목관관 민전장에서 두손을 맞잡아 치켜들고 있다.

한영 / 김대중 사진기자단

## 말수 줄인 ‘달변 金대통령’

### 김위원장 의중 파악에 주력

김대중 대통령의 말수가 적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대통령은 14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위원장의 말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위원장이 다변에, 거침없고 자신있는 말수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위원장이 말이 적고 김대통령은 ‘뛰어난 언변’이란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김위원장은 목소리도 카랑카랑해 차분하고 조용한 김대통령과 대조적이다.

자다가 꿈인라는 불일문제 전문기인 김대통령은 평소 남북문제에 대해 해박한 이론과 지식을 자랑한다. 김대통령은 남북, 통일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대화권주도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대화에서 평양의 한테에 감사하다는 말과 김위원장의 말에 능감

을 표시하는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시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정상회담에 대한 김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언론보도도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라며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이한 회담장 시종도 한 몫 했다. 두 정상 앞에 가로놓인 테이블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낮아 보였다. 국제관계상 회담 테이블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었다.

목소리가 큰 김위원장은 익숙했겠지만 김대통령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김위원장 담뱃을 위해 일부러 말수를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김대통령은 상대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바뀌자 비교적 말을 짧게 했다.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내내 김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호기자단 hho00@kwanhwan.com**

## “이른 시일내 당국간 대화할것”

### 박준영 대변인 일문일답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은 14일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브리핑 직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남측을 못박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정일 위원장이 답장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이 적절할 시기인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측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첫대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됐다”

—공동선언에 ‘함께 협력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

“남북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 상호존중하지는 의미다”

—미·일이 대변인에게 요청한 북·일 수교, 핵·미사

일 등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 왔다. 이같은 입장은 북측에도 전달됐다. 특히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가 회담했던 북·일 관계 개선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산가족 고통분과 관련한 장기수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

“합의된 5가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남측이 지정한 협의문이 이 조항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남측이 긍정적 합의했다. 앞으로 남측간 대화를 통해 규모와 날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합의문에 대한 실무자간 대화는 언제쯤 열리나.

“이런 시일내에 당국자간 대화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시일내에 대화를 한다는 문구를 보고 판단해 달라. 당국자간 대화나 분야는 결정되지 않았다”

평양 / 공동체재단

|                       |                      |
|-----------------------|----------------------|
| <b>정상회담 지면안내</b>      | 남북 분야별협력 구제화 .....7  |
|                       | 해외민중-프레스센터.....8     |
|                       | 희보 .....9            |
| 공동선언문 서명 인력 .....3    | 남북 철도연결 어떻게 .....11  |
| 합의도출 약속주의 .....4      | ‘파격 경향신문’ 관심 .....18 |
| 김위원장 서울 언제 올까 .....5  | 기승부분 실정인들 .....19    |
| 평양요청-홍여사 은사 상봉 .....6 | 평양미술 기행 .....26      |

# SOC 확충등 경험 정부차원 격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위협장의 서울 담판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은 본격적인 회담에 협력, 나아가서는 통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을 맞았다. 특히 김위협장의 서울 방문은 포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간 신뢰가 최고조에 이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중과세 방지 협정도 추진전망  
연락사무소·핫라인개설 가능성  
불가침·단계적군축도 추구할듯  
단일팀등 스포츠교류도 급물살**

**김** 위협장의 서울방문은 무척과 파급효과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화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보다 훨씬 더 크다. 향후 남북회담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하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구 연합 수 있다면 '사상상의 정상화'도 불가능한 노릇이다. 평壤(平壤)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이다. 나아가 두 정상은 21세기를 맞아 불행한 20세기 역사를 청산하고 공동강제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수립을 합의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한반도 냉전구조를 대체하고, 남북과 대결에서 회담과 협력의 새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도 쌍방향으로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이산가족은 한반도 내전의 산물로 고향원역시와 따로 파는 최우선적 과제다. 남측에는 이산 1세대만 1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도 25만명에 달한다. 이날 두 정상은 회담에 합의하기로 이뤄 교향방문단 교환에 이어 교환장려금과 생사확인 및 친선왕래의 제도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의 정치 과제도 논의했다.

이내 몇 년내에 고령 김씨의 남북차별 격차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이 개헌·중앙·지방분권 시정개혁(2000)을 추진하면서, 남북간 신뢰의 차이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위협(金)을 위시한 사회·문화·체육 분야 교류는 민족통일 중심을 확보하고 남북 화해·체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무자본·2중과세방지 등 경제적 남북협력 등 후속 제도적 장제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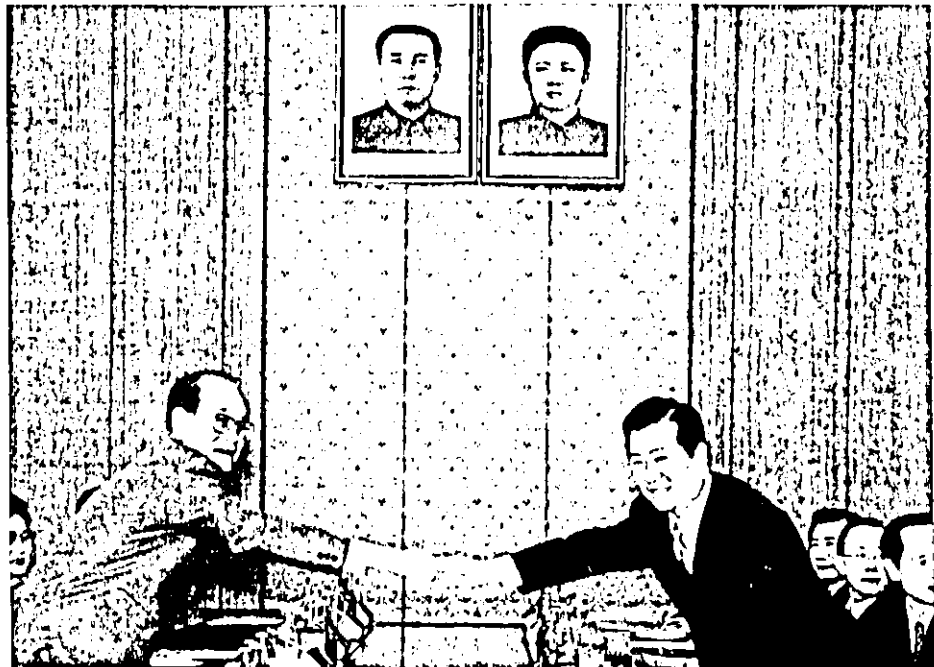
한편도 본회담의 합의는 남북간 신뢰다. 김대중(金大中)의 남북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사상상 대방 제정인 양정, 회담의 문장 밖에 없었다.

또 정상회담 기간 동안 상호방방과 중심을 중대한 것도 화해할 위한 정상회담.

앞으로 남북간 신뢰 제도를 위한 정치·연립 관계 구축과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壤(平壤)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이나 두 정상은 13일 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보인다.

아울러 긴장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침과 군축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기본협정서 상의 군사공동위원회 가능성도 예상된다. 종전협정의 평화 협상 대안은 그 다음 문제다.

조호연기자 hoan@kookmin.com



**김대중·김영남위원장 악수**

14일 오전 민수대의사실에서 열린 공식회담 시각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뒤편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이 나란히 걸려 있다.

## 임동원 - 김용순 '막후 조율사'

• 실무협상 주도 합의도출 이끌어내

남북한 정상이 14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5개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시종일막 막후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시련에 합의되기까지는 막후에서 거의 아무런 지어 놓고 정상들이 마지막 순간만 만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두 정상은 이 만난 지 11년 만에 5개항의 합의가 이뤄져 내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진통기간을 본분. 막후 실무협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김위협(金)이 관건이다. 이번 막후 협상의 수석으로 임는 임는 남측의 양승태(梁承泰) 대외부장(대외부)과 북측 김위협(金) 대외부장(대외부)이 관건이다. 차적으로 보다 두 정상의 협상으로 보다 두 사람이 적기이라는 것이다. 임은 남측의 대외부장(대외부)과 김위협(金) 대외부장(대외부)이 관건이라고 있어 사실상 같은 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은 남측의 대외부장(대외부)과 김위협(金) 대외부장(대외부)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은 남측의 대외부장(대외부)과 김위협(金) 대외부장(대외부)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정상 두터운신임 바탕으로 합의없이 제반문제 협의 후속조치 채널로 유력시**

재의 경우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거의 유입하게 내적협력을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에 수시로 그를 찾아 총에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같은 수련을 뒷받침하듯 두 사람은 실제로 이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양측의 핵심인물로 배서. 정상의 합의도출을 현장에서 도왔다. 또 임은 남측의 경우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평壤(平壤)에 그 역할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합의로 긍정적으로 나소 풀린다.

이같은 지난 4월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김속이 개입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지기가 받고 있는 조직을 임은 두 사람은 끊임없이 제반 문제해 합의해



임동원총보

김용순위원장

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1차 정상회담 때도 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지지할 만이 임위원에게 남북인사들의 소재를 부탁한 것으로 봐 둘은 이미 상당히 교감할 줄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임-김 재회는 수시로 접촉하며 후속조치를 논의·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서로 주고받던 '김정'에 대한 상충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평壤(平壤) 김대중(金大中)의 평壤(平壤)에 앞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공동성명 대략을 조율하는 것도 이들 재회가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흥근기자 heung@kookmin.com

# 새역사 큰만남

남북정상 합의서 서명 이후

## 남북정상회담 5개항

11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 구현을 위한 세부 논의 사항들을 남북기밀언론에서 순분, 점검해 본다.

**남북간 회해 및 통일**=회담의 기본인 상대방 체제인정이다. 상대방에 대한 대량·중상을 용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과거·현재·미래를 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그 약속의 전제조건 체결을 위한 보장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예상된다.

남북역사사무소 복원과 각각 인 개설, 남북대학 장려와 등이 그것이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무엇보다 서로 관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규 모 부대어종과 군사연합의 동분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류 문제, 핵·미사일 등 내란잠상무기의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92년 남북간에 논의했던 비무장지대 내 부역의 후방배치와 무방식 무인공격을 막기 위한 군 직통전화 개설·운영 등도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을 평화정착으로 내세우는 과정도 밟아야 한다. 남북연변 아나리 비무장지대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산가족**=생사확인과 서신왕래의 제도적 운영이 우선

가능한 대목이다. 8·15에 즈음한 고향방문단 교환방문에 이어 적절한 장소에서의 면교소 참치, 문영도 방문이다. 이어 원하는 가족들에 한해 재결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각종 교류협력**=경제분야에서는 참도·도모 등 복면의 사회간접지출(SOC) 확충 방안이 집중 협의될 듯하다.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력분야와 김위원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산업의 협력도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세에 맞는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부자보장장전과 2중과세협정의 체결과 반점조장기구 마련도 시급하다.

서해장난 등 대규모 공동조성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제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날 분야별 회담에서 거론된 시드니회담과 남북간 동시입장, 오사카 세계난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 체육분야 교류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002년 월드컵 남북한 동시개최 방안도 협의될 듯하다.

남북한은 과거 포로부활 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등이 분야 교류 기원이었다.

국회회담 재개와 종교교류, 직능단체 및 학술 교류 등도 남북 회해·협력의 주요한 구현수단중 하나다. 조호연기자

## 부활한 '92년 기본 합의서'

5개항 총망라... '통일 장전' 재확인

11일 남북정상회담의 5개항 실현을 계기로 남북기밀언론의 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합의된 5개항의 기본합의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992년 2월 발표한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통일의 전진'으로 통일 정도로 남북간 회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과 대응을 명파. "이보다 더 중요한 협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사이의 회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이번 합의는 남북간 회해와 통일·긴장완화와 평화정착·교

류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5개항중 나머지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3건의 부속합의서 중 하나에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문화에 합의보다 이젠 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본 합의서가 소적(蘇七)한다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는 데 진담가침을 동의한다. 이종근기자

## 前김일성대교수의 평양이야기

### 유람선...숙소...

### 이색 회담장소 선호



趙明哲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과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모두 김 대북위의 숙소에서 했다. 회담장소를 이렇게 잡은 것은 분명히 김정일 위원장이 접했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제대로 망친 회교 국가원수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갖는다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 선 거의 찾기 힘들리라 생각한다.

### 金日成에 영향 받아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정주인(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밤중에 숙소로 찾아가 만났다. 과거 중국의 5인(五個人)급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에도 종종 이런 형식의 회담이 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안에 대한 예의인간, 뭐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회담방식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김 주석이 소련과 동유럽 등을 방문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정상회담 방식은 "우리로 한번 해보자"고 지시한 적이 있다.

김 주석이 살아있을 때에도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김 주석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랐으며, 죽은 뒤에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 주석이 불기러기를 방문했을 때, 그쪽 공산당수가 김 주석을 공산당 청사가 아니라 집으로 초청해 회담을 기했다. 회담 분위기는 아주 좋았으며, 김 주석도 흡족해했다고 한다.

### 카터와 선상에서 대화

90년대 초 조(北韓)·일 수교회담 때 당시 전인청 북한대표가 일남대표들을 집으로 초청해 비공식 회담을 가진 것도 김, 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91년 카터 부부와의 유람선상 회담도 김 주석의 지시를 업무에 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어이어었다고 들었다. 유고의 티도가 이런 방식의 회담을 즐겼다고 한다. 김 주석이 70년대 유고를 방문했을 때, 산을 끼고 있는 보원호숫가에서 가는 피너클 곁에 회담을 기했다. 이어 티도는 유람선에서도 회담을 하자고 해 김 주석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 주석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운민중(民主)이 그리 싫어하지 않고 김관도 수려한 장소들 볼새, 묘한산에 초대소를 만들어 중국의 고위 대표들과 회담을 갖곤 했었다.

# '파격' 경향신문 1면' 두 정상 큰 관심

기사없이 상봉사진만 실은 14일자 본지 화제

김대통령 "이런신문 처음본다"  
김위원장은 "대대적인 보도군요"  
독자·인터넷신문들 "신선하다"

독립언론 경향신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두 정상은 자신들이 13일 경강 순안 공항에서 두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장면을 글자 하나 없이 사진만으로 14일자 1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한 경향신문을 펼쳐 놓고 한동안 정답답 나눴다.

14일 2차 회담을 갖던 두 정상은 오후 5시20분쯤 휴식을 위해 회담을 일시 중단하기 직전 서울에서 전담진경향신문을 보며 환담을 나누었다.

특히 김대통령은 독특한 편집을 한 경향신문을 화제에 올려 "(1면에) 기사없이 사진만 실는 신문은 처음 본다"면서 "7천만 동포들의 관심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위원장은 "남측신문에 (정상회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군요"라고 화답했다. 김위원장이 남측 언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자 김대통령은 "이 신문철을 드리겠다"며 쪽보에서 김위원장에게 선물했고, 김위원장은 이를 받아 수봉관에겐 "전하" "갑정거라"고 저서했다.



경향신문 14일자 1면

또 뉴스전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14일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한 이날짜 각 신문에 대한 전면비평을 하면서 "경향신문 1면은 제목도 글도 그림도 일말 없었다. 오직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악수장면뿐"이라며 이례적 편집을 크게 보도했다.

이날 아침 경향신문을 받아든 많은 독자들도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 "신선하다" "시원하다" "이 역사적 사건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독립언론을 자랑하는 신문이다"고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열기자 jungs@yurichang.com



경향신문 보는 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2차 정상회담 도중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글자 하나 없이 사진만으로 1면에 보도한 14일자 경향신문을 보며 환담하고 있다.

## 김정일위원장 '서울답방' 이르면 10월께 성사될듯

김대통령이 직접 제의  
공동선언문에 명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에 이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도 곧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14일 밤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상당한 관심사였으나 공동선언 규정으로 방문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제 관심은 방문 시기다. 아직 이에 대해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연내 방문은 분명해 보인다. 공동선언에 규정된 대로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도록 해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을 때해 김위원장이 서울에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월 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김대통령의 정중하고도 따뜻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자신의 평양방문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평양방문을 위한 실무접촉 때부터 자신의 평양방문과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패키지로 상이 취소할 것을 지시한 것

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 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화답을 하지 않았으며 평양에 도착한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직접 제의함으로써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위원장이 평양에 올 경우 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상 의진은 상호주의가 관례이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할 경우 김대통령도 평양에 나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까닭한 예우법 해야 함은 물론이다.

성기철기자 kcsung@kmb.co.kr

## "미, 대북제재완화 25일 이전 발표"

미국은 이달중 대북한 경제제재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부역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늦어도 오는 25일 이전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고했다.

신중수기자

# 김정일 서울行 擇日만 남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탐방(考察) 합의는 평양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기록된다. 또 남북 정상회담 견제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두 정상이 14일 서명한 남북공동 선언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김위원장의 답방을 명문화해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한 화해와 평화정착 등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견제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는 인식 아래 김위원장의 답방에 상당한 공(功)을 들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보았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접촉부터 김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했다"면서 "김위원장의 답방이 5개 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답방은 남북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김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신감 때문에 상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특히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김대중 방문 방북 직후부터 최근 김위원장의 일련의 외교행보를 근거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김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은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제 외교무대에 등장한 만큼 견제안을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답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때 김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설(說)도 나와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한때 노기완장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하기엔 북한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답방을 견제지원 등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기우(杞憂)로 끝났다. 문제는 언제냐. 합의 시에는 '적절한 시기'로 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답방의 구체적 시기는 못박아 말하기 어렵지만 북측의 의견을 들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 제도정비·도로연결 교류확대 구체화

### 경제협력

남북 정상이 14일 "경제협력 등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경제이 양측 정부의 체계적 지원 아래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양측은 투자보장·이종과세 방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한편 직접 투자교류의 통로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수행 중인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업인들은 14일 평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경제부문 간담회를 갖고 이들 현안

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앞으로 모든 경제실무를 논의할 공식 창구로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경제공동위는 양측이 지난 1992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구성에 합의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한 기구.

경제공동위가 가동되면 우선 제도적 투자·교역 안전장치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세방지협정, 대금결제와 분쟁조정절차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투자보장협정은 기업들의 ▶투자원금 회수와 송금보장▶재산의 임의적 수용·압류를 막는 재산보호▶자유로운 경영권 보장▶다른 나라 기업보다 불이익이 없는 내국인·최혜국 대우 등의 내용을 담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들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이종과세방지협정▶사업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때 해결 기준이 되는 분쟁조정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 탁구 단일팀 구성 남북 합동공연 기대

### 문화·체육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화·체육·여성 분야는 가장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2차 정상회담에서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비롯한 4개 분야의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확실해졌다. 또 14일 남북 실무자 회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상대로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이며 북한의 사외문화 민간교류 창구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문화교류가 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측은 1992년 베를린 선언 이후 발표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공연과 교환전시 등 정부

차원의 행사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 중인 차범석 예술원회장은 이날 오후 있는 분야별 회담에서 ▶연극·음악·무용 등 분야의 남북 합동공연▶극작가·배우·연출가간 공동세미나▶분단 이후 남북 문학작품집 공동출간 등을 제안했다. 또 체육분야에서는 남북한이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함께 입장하며 본격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무접촉을 해온 데다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동시 입장하는 모습은 남북한의 통일지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남북 단일팀은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해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이끌어 낸 바 있어 현재로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박소영·정제원 기자 <olive@joongang.co.kr>



연말 7월 10일(사진)

### ‘반갑습니다’

이화호 여사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이화여고시절 은사인 김지한씨(오른쪽)를 만나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여고 은사 김지한씨와 60년만의 해후

## 李여사 “선생님” 포옹

소담하지만 아름다운 만남. 대동령 부인 이화호 여사가 14일 여고시절 은사와 상봉했다. 이어서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교학 60년전, 옛 이화여고(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학선생님이던 김지한씨(85·여)와 짧지만 감격 어린 만남을 가졌다. 이여사가 인민문화궁전에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가서 허안 차마·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장말 반갑습니다”라며 눈물어린 표정으로 남측의 퍼스트레이더가 되어 돌아온 제자를 맞았다. 이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감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눈시울을 적신 노스승과 노제자는 60년 이상의 세월을 지우듯, 서로를 끌어안은 채 란란한 땀어짐 속 즐겼다. 창기된 업공의 이어서는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회상했고, 김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친한 사투리로 화답했다.

“예전모습 생각납니다”에 이어서는 최근 백발의 스승 “알만하니까” (40년 졸업 22회) 30분간 아쉬운 짧은 만남

을 기념해 모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시월에 살아 계시는 당시의 선생님은 흔분도 없고 용역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님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김씨가 “그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요강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어서는 “착하신 선생님이 기억한다”고 추억했다.

노스승과 노제자가 10여년간 묵은 감회를 토로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최은영)이 정부 속에서 60년 전 이화여고 재직시절 어머니가 학생들과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을 꺼내 건네면서 땀안 분위기는 다시 폭폭히 끓어올랐다. 사진을 건네받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길을 떼지 못한 채 잠시 말없이 회상에 잠겼다.

60년의 ‘긴 헤어짐’ 끝에 30년 동안의 ‘짧은 만남’을 끝낸 스승과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안다깝게 서로를 쳐다보며 아쉬움을 나눠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김씨는 해방전까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교편을 잡고 있다가 해방후 남편을 따라 월북했다. 남편은 우리의 국회부의장직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60년 사망했다. 월북 후 잠깐 교육계에서 일하다 84년 퇴직한 김씨는 현재 평안시 중구역에서 살고 있다.

평양 / 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0. 6. 15 (목)



## 한겨레

2000. 6. 15 (목)

### 평양민남 Q&A

## 金正日 “MBC보나~” 남한TV 자주 시청

김태중(金太中)대동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평양 대면은 생강한 용어 등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신문가 등의 설명을 토대로 궁금한 점을 사인하고 짚어본다.

▽방북대표단은 양복 상의 착용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대표단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남북대표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극기 배지를 부착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태극기 사용을 극히 꺼렸음을 고려하면 태극기 배지 부기를 용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국방위원장은 한국 TV를 시청한다=김국방위원장은 13일 백화원정관에서 김대통령에게 “오늘 아침 (김대통령이 시동) 공방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대구관세초와 인접하는 것까지 본 뒤에 (순안) 비행장으로 나가셨습니다”고 말했다. 또 14일 회담에서 “어젯밤 MBC를 보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국방위원장이 남한 TV 방송을 어떤 형태로든 자주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국방위원장은 방에 각종 위성 TV 수신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 北에는 ‘생방송’ 용어 없어

▽‘전금진’은 누구인가=13일 백화원정관에서 김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임김삼번의 그림을 설명하며 “원래는 총하수동 그림입니다”라고 말하자 전금진 조선내대령과 위원회 김사가 “묘향산의 순하수동용 그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등장한 전금진은 심상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북한의 내남부만 간부 전금진의 본명. 그는 30년간 내남시업면 대항리군 내남진분과이다.

▽‘생방송’은 무엇인가=김국방위원장은 김대통령과 회담에서 “그저께(11일) 생방송을 통해 (수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임민관까지 (김대통령의) 행로(행차)를 환송 나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생방송’이라는 용어가 없어 보도진이 북한 특유의 ‘제방송’을 잘못 들었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으로 유선방송이다. 이 때문에 ‘제방송’은 외부인들의 취기가 불가능하다.

### 北의장대는 구호도 외치

▽북한군 의장대는 정치구호도 외친다=“조선노동당총비서, 조선국방위원회위원장,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동지, 조선인민군공군공군민관위원대는 김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김립하였습니다.” 남한의 의장대에 해당하는 북한 편에의장대 대장 자민관대위가 13일 순안공역에서 사인 전에 외친 말이다. 남한 의장대가 ‘북대 지리’ 발언에 충실한 관례에 한 건넌과 외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 북한 편에의장대는 사명이나 발언 순 구할 절차가 일치할 때 한 때는 ‘김에하는 최고사령관 김립을지를 위해 북무함’ ‘생세’ ‘수민의 김립을 축하함’이라는 단체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 “듣던 것과는 다르네요” 모이면 ‘김정일 얘기꽃’

술자리·인터넷등 화제...일부는 신중평가

‘카리스마가 있는 심권자’ ‘회풍하고 여유있는 통치자’ ‘예외비론 대장부’...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남녘 사람들의 술자리에서나 대화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연 최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에 대한 치열한 토론까지 벌어지고 있어 ‘김정일 신드롬’까지 옛보이고 있다.

“아직 미덥지 못하다” “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없지는 않지만 부정입변도의 기준시각을 벗고 ‘호감’을 갖기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진 김위원장의 모습을 지켜본 회사원 송영훈씨(33·현대 PR사업본부)는 “김위원장은 어렵 때 교과서와 만화에서 본 모습과 전혀 달랐다”며 “이회호 역시까지 신경쓰는 깍듯한 예나 성품을 다한 듯한 회담 준비 모습 보여 통치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봤다”고 말했다.

주부 조영란씨(39·서울 노원구 상계동)는 “성격이 회풍하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며 “수수한 인민복을 고수하는 것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심권자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을 봤다”고 평했다.

젊은 층에선 더욱 ‘파격적인’ 평가가 많았다. 고종호씨(20·연세대 사회과학계열)는 “말투나 표정이 너무 당당해 나이보다 훨씬 젊은 신세대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잡숴버려나 동등한 처형도 없진 아저씨들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기 일산 정성초등학교 학생현군(9)은 “욕심 많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약속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우리가 안 싸울 것 같다”고 친근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랄리 박수를 치는 것에 대한 ‘경계론’도 있었다.

‘이산가족 2세대’라는 박미진씨(37)는 “밝게 웃는 김위원장의 모습에서 불의의 세월을 보게 된다”며 “그러나 공산당이나 부자세습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전쟁의 아픔을 겪은 가족으로서 그런 환영할 수 있는지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이기수·임영주·조현철기자  
kslee@yungyang.com

## 대한매일

2000. 6. 15 (목)

### 오늘 귀경길 서울·평양 쾌청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5일 평양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15일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

다”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전날보다 조금 덥겠다”고 14일 예보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도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무덥겠다. ●전영우기자

## 大법, 남북 司法통합 방안 연구 본격화

대법원이 미국에 판사들 보내 남북한간의 사법통합 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는 등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사법체계 통합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96년 북한의 재판제도, 법조인력 양성제도 등을 다룬 800쪽 분량의 ‘북한 사법제도 개관’을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는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던 대법원이 최근에는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 등을 연구하

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소속 이백규(李伯圭·사시 28회) 판사들 미국 캠퍼비이대에 파견, 6개월 동안 독일, 예멘 등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국가들이 통일 이후 이질적인 사법체계를 통합한 과정과 함께 남북간 교류합심화에 따른 ‘과도기’의 사법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도 했다. ●박홍기기자

## 매일경제

2000. 6. 15 (목) ▼

## 전금철 부위원장 전재 파시

□ 북한 화제인물

정덕수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그 동안 우려지지 않았거나 눈길을 끄는 북한 인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특히 14일 열린 남북 공식회담에는 김연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인사와 각계 인사가 참가했다. 이 중 김지하의 문제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기구로 알려졌다고 있는 정금철 방북관계 방북인물과 화제가 김계제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민주대의사단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남부군’의 실제 인물이 지리산 별지산 대장 이현상의 무남독녀 이상진 씨가 안내해 관심을 끌었다.

정금철 회장은 지난 회담 중선으로 92년 7월 당시 김남년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할 때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삼천리문화사 총사장 자격으로 수행했다.

본인 이문영 선생의 방인 리원구 조국통일민주전선 시가국장으로 이번 정상회담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남측

인사 중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전금철 조국통일위원회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전 부위원장은 13일 첫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대중 대통령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안내해 간세를 파시했다.

98년 중국 베이징(北京)의 남북재판관 대표회담 김일 수 건국 안화상과 함께 참가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전 부위원장의 출현을 우리측에서는 그의 방북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속 남부군의 주인공의 현재인물로 알려진 ‘지리산 별지산 대장 이현상’의 무남독녀인 이상진 민주대의



이상진 의사당 부총장



마리도라 정창옥 씨

사당 부총장도 보였다. 김연남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방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사 마리도라 전 수 정창옥 씨와 영화 ‘일평생’의 주인공 최창수 씨 등 일반 배우, 북측인 이인모 노인의 딸 이현옥 씨 등이 눈길을 끌었다.

본문 의견·제보  
politics@mk.co.kr

### 꽃타임스 '남북정상 패션 후졌다' 혹평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역사적 만남은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두 정상역사적 패션에 대해선 모두 '구식'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4일 두 정상역사적 옷차림이 과거 지이르의 독재자 모부부의 패션에 비교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모부부는 표범 가죽을 이용한 '튀는' 옷을 즐겨 입어 화제가 됐던 인물.

이 신문은 순안공항에서의 두 정상역사적 모습(사진)을 게재한 뒤 시시콜콜 트집잡았다. 먼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1970년대 엘비스의 무대의상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위원장의 모습을 '양배추 인형'과 닮았다고까지 지적했다.

더 타임스는 김대중 대통령의 복장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매겼다. 한마디로 너무 헛헛한 50년대

'모두 구식복장' 싸잡아 비하 양배추 인형 등 저질표현도 '흥미위주 희화화' 비난자초

복장감다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서구식 양복을 입었지만 너무 딱딱한 스타일이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더 타임스의 이날 기사도 서구의 일방적 잣대로만 무리한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유력 일간지답지 않게 남북 정상역사적 복장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희화화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 같다.

김근철기자

kohim@kyunghyang.com



## 대한매일

### 남북정상 '역사적 만남' 시청률 경총

방송사 평소보다 2~3배

남북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에 시청자들은 KBS1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들은 평양에서 보내온 화면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예상외로 풍부하고 다양하자 정규 프로그램을 대거 취소하고 평양발 뉴스속보를 집중 편성하고 있다.

14일 전국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오전 10시 20분에서 11시 20분까지 생방송 시간동안 KBS1의 시청률은 평균 11.1%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MBC는 8.7%, SBS는 3.1%

KBS 11%·MBC·SBS 順

50대이상 모든 채널서 높아

를 기록했다.

이런 시청률은 평소 이 시간대 방송 3사 평균시청률 4.6%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KBS1은 평소 시청률 3.4%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반면 SBS는 평소 시청률이 5.8%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TNS미디어코리아 관계자는 "남북정상역사적 만남과 같은 국가 중대사나 대형 사건·사고 관련 방송의 경우 국가 기간방송이랄 수 있는 KBS1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률을 1분 단위로 쪼개봤을 때 김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김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 장면이 방송된 오전 10시 37분에는 MBC가 12.6%로 KBS



남북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에 시청자들은 KBS1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2%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 시청률은 50세 이상이 모든 채널에서 높은 시청률을 나타낸 반면 10~20대의 시청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13일 방송 3사는 정규프로그램을 대거 취소하고 총 방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평양발 뉴스로 채웠다. KBS1은 '제13회 만경대 국제마라톤', '좋은 길 이따해' 등을 모두 취소하고 거의 하루종일 'KBS 뉴스특보-통일로 가는 길'을 방송했다. MBC도 '허준', '비화 남북교류' 대신 '한민족 새천년의 만남, 특집 MBC뉴스'를 긴급 편성했다. SBS도 '드래곤볼', '당신은 누구시길래' 등 정규 프로그램 대신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를 방송했다.

14일 방송에서도 MBC가 '이브의 모든 것', '당신 때문에' 등을, SBS는 '행진', '드래곤볼' 등을 취소하고 평양발 소식을 방송했다. 15일 방송에서도 이같은 이중편성은 계속된다.

김근철기자 lark3@kdaily.com



# 상냥한 평양시민 “상봉장면 감동적”

## 새역사 큰만남

달리진 평양표정·언론보도

창상회담 기간동안 드러난 평양의 빈틈난 모습과 평양시민들의 달리진 태도가 우리 방문단 일행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 평양은 ‘북한=패배자의 영국국가라는 인상을 상당부분 희석시키고 있다.

### 과거의 대화회피 모습 사라져 호텔밖 개인취체 ‘완곡한 거부’ 언론 대대적 특집…‘대통령’표현

○평양 시민들의 태도=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대하는 평양 시민들의 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안내원들은 수행기자단이 배스카를 타고 프레스 센터로 오는 동안 바로 입사실에 앉아 주요 질문을 소개하고 연도 환영인과 눈을 접대했으며 이번 외방의 선반 등에 대해 사치스럽고 장식을 하기도 했다. 과거 고위급회담 때 기념식 무늬를 방문자와 대담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북측 안내원은 취재진 배스카 고래호텔에 멈추자 “밖에서 기다리겠다”면서 “안내가 필요한 언제까지 찾아”라고 말했다.

한 취재기자가 북측 안내원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안내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안내원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예가 대납”고 말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취재가 목적인 이상 이러 할 것”을 하는 것은 반대 발언까지 내린 것이다. 또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안내원은 김수환기독교회를 방문할 때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김수환기독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태도를 담은 영상에 북측 안내원들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평양시민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라며 “개인들이 모토로 삼아서 숙식하고 있어 노동신문의 논조와 시민의 태도로 잘 어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령할 시가지 분위기=과거 시가지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손쉽게 접근이 어려운 연인들도 볼 수 있었으며 비교적 깨끗했다.

북한은 90년대 이전에는 사화연정원(현재 인민묘역)이 손길 잡고 데이트 장소는 연인들만 존재했다.

11일 오전 호텔 주차에서 마련된 관광 기리는 차에서 정해하는 교차로는 가다 없었으며 한계면에 수질미, 수백원짜리 원지어 줄고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이 숙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차분과 김대중 “정신”을 예기할 줄로 보였다.

○북측 언론보도=북측 언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북한-남한 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담”을 보여준 “대담”을 높이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을 높이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을 높이 평가했다.

북측 언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북한-남한 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담”을 보여준 “대담”을 높이 평가했다.



‘조국통일’  
민경대 학생소년공진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한 학생이 ‘조국통일’이라는 내용의 붓글씨를 쓰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 붓글씨 선물하자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

### 소년학생공진·옥류관 방문 이모저모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이날 오전 민주내역시에서 가진 공식행사에서 민경대 소년학생공진 방문, 북측 학생들의 예술활동에 관해 말했다.

연설보다 30분 정도 늦은 11시30분쯤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양학 소년학생공진 총장 등 북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다. 또 임창근(아·10), 리정민(11) 두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북에 입대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사태 초조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 공인후 무대올라가 음악맛튀 박수 옥류관선 북음식 화제로 환담나뉘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이날 오전 민주내역시에서 가진 공식행사에서 민경대 소년학생공진 방문, 북측 학생들의 예술활동에 관해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측에서 처음으로 북측에서 “한석봉이 울고 가겠다”고 말했다.

# ‘한번의 악수와 눈물...’ 세계가 감동

‘우정을 위한 첫 걸음’(영국 BBC 방송), ‘한번의 악수, 그리고 눈물’(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쓰러진 분단 위에 놓인 가교’(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한반도에 솟구친 화해의 기운’(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 일론-몽크-영국 톰 헤비 주교 연례회의 14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사 제목이다. 이들 언론은 이날 1면 머리기사나 헤드라인의 뉴스 등으로 13일째 이어 크게 보도했다.

## 美 “적대감 종식 계기”... 실종미군 거론 日 지면대폭활애... “착실한 대화” 당부 中 현지 韓人 반응 곁들여 매시간 속보

이들은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언론은 아산가족 문제 등 회담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을 경계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남북정상 회담 소식을 시간대별로 전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등 주요 신문들도 두 정상에 첫 상봉 장면 사진이 크게 실리고 주요 기사로 다뤘다. 특히 뉴스위크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8,100명에게 이르는 한국전공 실종 미군에 대해 집중 보도, 정상회담이 이들의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CNN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 도하 등 주요 현상 모습을 전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관계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도 정상회담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오랜 전반기인 머니우스 불협화음의 말미인물, 이산가족 상봉 등려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온기를 유감할 가능성이 있어 슬프리움을 할 수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LA 타임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대통령 공화정당 유 구체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에 대해 신중한 낙관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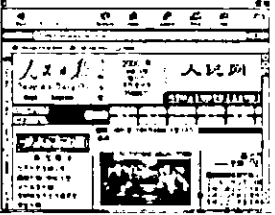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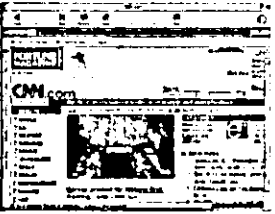
4일본=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1일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두 정상과의 시인과 함께 앞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국제면 등 3~4개면을 함께 큰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지는 “남북의 화해가 차츰으로 대진, 긴장상태가 계속된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향해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다이니치는 사실에서 “미군을 위한 확실한 대화”를 주문하는가 하면 나혼자(자이(日))신문은 “역사적인 악수를 남북공존과 제1보”로 삼도록 당부했다.

4중국=홍콩과 광둥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거의 여섯면 속보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와 사진으로 1면과 거의 제1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거주 한인들이 환영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리아=일본 브리크와 노보스투디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호의적인 태도를 감안 그가 서울 탐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때 남북의 대립정세로 인해 끊어져 왔던 남북 교류와 대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김대통령의 이번 회담이 남북 양국에 대한 10년 동안 7천여명의 미군을 돌려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인표기자 chong@ytn.co.kr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워싱턴이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한 이남자 경향신문 등 조간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 ‘은둔자 발언’에 일제히 폭소

● 프레스센터 주변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도 세계 언론의 관심은 사흘 소문동 못하듯 2주에 걸쳐 프레스센터에 줄 줄였다. 1,000여명까지 이르는 내외국 취재진은 공간에서 할안으로 작은 소식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처럼 프레스센터와 광화문 프레스센터 사이에는 시사작가 임영하는 상하에 대해 견제하며 탐방기 오갔다. 양측의 불협화음은 오후 3시 탐방 브리핑 도중 김대중 대통령 등 공식 남북관계 이후 일종의 소거하다가 탐방 관계자로부터 “오전 전담보고” 오후 3시 정각부터 백희의 경관실에서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기자들은 김대통령을 수호하는 기사만과 후자협력이 자꾸로 묻지 못하느라 곤궁을 보냈다. 한지근은

www.khnews.com

# 國民日報

THE KUMMIN DAILY

2000. 6. 15 (목)

## “北 불량국가 취급 근거 없어져” 각국 주요언론 반응 “김대통령과의 격 차별화 시도”

북한이 불량국가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세계 각국 언론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근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적 평가  
북한이 불량국가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세계 각국 언론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근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적 평가  
북한이 불량국가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세계 각국 언론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근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이념을 뛰어넘어 화해의 길을 열었다.  
미·일·EU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슴벅찬 평양낭보 '잠못이룬 밤'

## 역사적 이산상봉 합의 실행민·시민 반응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14일 밤 8·15 이산가족 친척방문단 교환과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담은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 본 시민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만세"를 연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실행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북으로 달려가고픈 간절한 마음은 하나였고, 가슴 뭉클하게 민족의 지력을 느낀 역사적인 날이었다.

### "두달뒤 北동생 만날수 있다니 꿈같다" 속초 '아바이마을'은 온통 잔치분위기 시민들도 "김위원장 답방때 직접환영"

평북 장주가 고향으로 동생 2명이 북에 남았다는 흥성오씨(70)는 "오메날망 고향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온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며 "두달 후면 북에 있는 두 동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북에 있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제사도 안 지내고 뭐하나"고 책망해 지난해부터 아버지 생신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김도형씨(72·서울 관악구 봉천동)는 이날 평북 의주 땅을 함께 떠나와 먼저 세상을 뜬 부인 사진을 꺼내 들고 "함께 고향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나"라며 히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차 정상회담 서두에 김위원장이 "실행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흥분이 일었던 서울 구기동 이북5도만회 사무실에서는 이날 밤 늦게 남북공동선언 서명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와"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유창순 황해도민보 편집국장(72)은 "실행민의 한이 남쪽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김위원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1·4 후퇴 당시 남하한 실행민 유명철씨(68)는 "먼저 세상을 뜬 친구들의 장례식장에 모임 때마다 늘 고향 얘기를 주고받으며 엉엉 울었다"며 "못난 놈들, 이날이 윤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이날 회담이 시작된 후 웅기종기 모여 TV에 눈길을 모은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도 온통 잔치 분위기. 부인과 딸, 동생을 남겨두고 1·4후퇴때 월남했다는 여석창씨(74)는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느낌이 든다"며 "하루라도 빨리 두고온 가족을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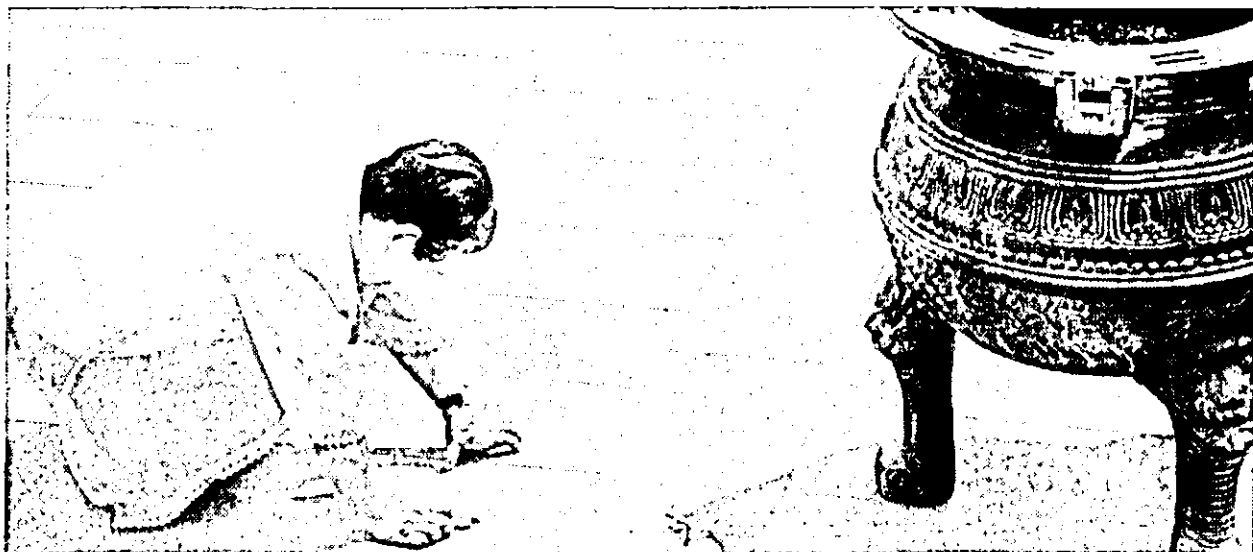
민통선 지역인 경기 과천시 군내면 통일촌에 사는 실행민 장성동씨(68)는 "오늘의 합의가 진전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미력하나마 어려운 고향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 합의 도출에 감격하기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경숙 할머니(71·서울 마포구 연남동)는 "우리 세대가 전쟁으로 갈라졌지만 아들 세대에서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김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면 꼭 거리로 나가 직접 환영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현표씨(31)는 "남북정상이 이룬 값진 결실은 7천만 민족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것"이라며 "한민족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두 정상간에 비전향 잠기수 문제 해결이 합의되자 '한백의 집'과 '만남의 집' 등에 거주하는 비전향 잠기수들과 이들을 도와온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지정용기자 / 전국종합 jfrave@kyunghyang.com



북녘가족 그리워...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4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 실행민이 북녘 가족을 그리며 엎드려 흐느끼고 있다.

정지은기자

# “이산상봉 소망...마음은 벌써 북녘고향에”

##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지켜본 김원철옹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가족의 얼굴과 고향 산천이 떠오릅니다”

간첩혐의로 27년간 복역하다 1987년 석방돼 갱생보호공단 대구지부 생활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김원철(金元哲·83·사진)옹은 기

도하는 심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40여년간 이산의 한을 안고 지내온 그는 14일 TV를 통해 남북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바라보다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김옹이 고향인 평북 철산을 떠난 것은 59년 5월. 당시 40세인 그는 노모(67)와 아내(32), 아들(13)을 남기고 어선을 이용, 부산에 침부했

**간첩혐의 27년 복역 87년 석방  
평북 철산에 사무치는 핏줄들  
40여년 이산의恨 꼭 풀었으면**

다. 그는 동료 3명과 함께 1년여간 간첩활동을 하다 60년 3월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대전·대구교도소 등을 전전하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출소후 갱생보호공단 대구지부 생활관에서 새동지들 틈 김옹은 생활관 청소 등 굵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가족상봉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남파이후 한번도 가족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가족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뵈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을 고대하며 정상회담 속보에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신앙에 의존하면서 쓰러린 과거를 달라고 있지만 한시도 가족 상봉의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지금도 고향 앞바다의 넘실거리는 파도가 눈에 선합니다. 내 고향 철산군 장송리는 조기와 새우젓으로 유명했죠.” 그의 마음은 어느새 고향산천에 달려가고 있었다.

대구/박태우기자 t.kwood@kyunghyang.com

# 고령 69만명 ‘애타는 세월’

###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선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2·3세대 포함)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의 집계에 따르면 767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북한에 살다가 월남한 이산 1세대는 123만여명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통일부가 지난 70년 가족직 등록자 516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의 인구증가를 합계(10.31%)할 감안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북5도 인구가 주장하는 850만여명과 90만명의 차이가 나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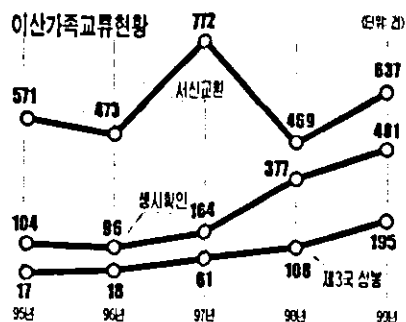
남북한은 지난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정의와 ‘가족 명부제’, 자·외가 4촌의 친척’으로 정했다. 남한에서 말하는 이산 1세대는 지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전에 북한에서 월남한 자 또는 월북(남북)한 자의 가족을 뜻한다. 통일부가 집계한 이산가족 127만여명 중 60내 이상이 69만여명이다. 60대가 42만5142명, 70대는 20만 1131명이며 80세 이상도 6만3727명이나 된다.

이산가족 상봉이 합법화,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85년 9월

### 월남1세대 123만명 생존 공식상봉은 85년 1차례뿐 비공식 생사확인등 8000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회공연단 교환에 자유있다. 남사 북연의 이산가족 50명이 시종로 내려와 각각 가족과 친척을 상봉했다. 이후 남북한은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 이산가족 노무로 방문권에 합의했으나 실무장차 합의과정에서 북한측이 경제조건을 제시해 무산됐다. 또 98년 4월 비공식회담 때도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이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혈육찾기에 나선 이산가족이 많았으며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왔다.

통일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교류는 89년부터 일 3월까지 생사확인 2001건, 서신교환 5131건, 제3국 상봉 496건, 방북 상봉 7건 등이다. 제3국 상봉은 90년 6건에 그쳤으나 이후 매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98년 108건, 99년



195건을 기록했다. 상봉 장소는 중국이 499건(95.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16건(3.4%), 기타 3건(0.7%)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접수된 이산가족 방북신청은 89년부터 지난 해까지 모두 1만3875건이나 됐다. 이 중 76.0%인 1만 513건이 신청부가 들어선 99년 이후에 접수돼 이산가족들이 햇볕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산가족 교류는 주로 권력·권자 등 해외노동 방북, 국내 민간주선단체 이용, 언론매체 활용, 국제행사 참가 등을 통해서 이뤄졌다.

정인 이영훈기자

### 실향민 DB 구축키로

#### 행자부 이산상봉 대비

8·15 남북이산가족 친화방문단 교류가 합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향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과 상봉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이북5도민의 인적사항을 DB로 만들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남 전국 1,663개의 시·군·구와 읍·면에 호적 전산화 작업을 통해 실향민들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실향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호적 전산화가 완료된 3천8백만 명의 주민 가운데 이북이 원적인 사망을 선별하고 이북5도민회에 비치된 도민회 명부, 동화은행 설립 당시의 주주, 통일부에 신청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부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우선 다음달 말까지 이북5도에 고향을 둔 실향민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한 뒤 이들의 원적지를 비롯해 출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등을 DB로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향민 수는 1970년 가호적 취득시 파악한 5백46만3천여명을 근거로 추산한 7백66만7천여명으로 이산가족 2, 3세대를 포함한 수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벌여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탁기자 jontak@kyunghyang.com

### 돋보기

#### 남북토종 진돗개-퐁산개 정상상봉날 감이지 순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던 13일 경기 평택시 한 농가에서 남북을 대표하는 진돗개와 퐁산개 사이에 7마리의 감이지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평택시 서정동 김주현씨는 14일 "남북 정상이 50여년 만에 처음 만난 여제 남한지역을 대표하는 토종 진돗개(암컷)와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퐁산개(수컷) 사이에 7마리의 감이지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태어난 감이지는 암컷 5마리, 수컷 2마리로 김씨는 암컷 감이지들에게는 '평화', '통일', '거래', '민족', '백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수컷들에게는 두 남북정상의 이름을 딴 '대중'과 '정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남북정상회담 심사 소식을 전해 듣고 봉입을 기원하며 남북의 두 토종개를 교배시켰다.

평택 / 김태영기자

kyungh@kyunghyang.com

## 離散상봉 대비 실향민 DB구축

행정자치부는 1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실향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1천663개의 시·군·구와 읍·면에 호적 전산화를 통해 실향민들의 실태를 파악토록 했다. 실향민 실태파악은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3800만명의 주민 가운데 이북이 원적인 사망을 선별하고 이북5도민회에 비치된 도민회 명부, 동화은행 설립 당시의 주주, 통일부에 신청

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부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행자부는 내달말까지 이북5도에 고향을 둔 실향민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한 뒤 내년 5월까지 이들의 원적지를 비롯, 출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실향민 수를 지난 70년 가호적 취득시 파악한 546만3000여명에 근거, 이산가족 2~3세대를 포함해 766만7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金瑛基기자 ngkim@chosun.com

## 이산가족 DB 구축

### 정부, 상봉대비 내년5월까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실향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DB로 만들어 관리키로 하고 전국 시군구와 읍면사무소 등에 현재 추진중인 호적 전산화작업과 함께 실향민들의 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실향민 실태조사는 북한이 원적인 사망을 선별하고 이북5도민회에

비치된 도민회 명부, 통일부에 신청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진다.

행자부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실향민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한 뒤 내년 5월까지 이들의 원적지를 비롯해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등을 DB로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향민은 70년 가호적 취득시 파악한 546만3000여명을 근거로 추산한 766만7000여명으로 여기에는 이산가족 2,3세대까지 포함돼 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 남북잇는 '통일鐵馬' 달릴까



유엔을 가로지르는 남북철도 연결이 대북 시정개발자본(SOC) 사업의 1순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남 총수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대중 총대통령과 만남 자리에서 "앞으로 '통일철도'를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이 우리측은 남북철도회담 이후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철도 연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측 역시 경제의 실리를 생각하면서 개방에 따른 배차 수요를 해소할 수 있어 합의과정에서 양측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철도 현황=남북을 잇는 철도와 같이 잇다가 남북철도 이후 끊어진 노선은 문산~봉동간 20km, 경원선 신탄리~경강간 31km, 금강산선 철원~내금강간 116km, 동해선 강릉~온정리간 113km 등 모두 4개 노선 313km다.

이같이 끊어진 노선에는 경의선 2개의 남북 1, 비무장지대 1과 경원선 3개의 남북 2, 북측 1, 금강산선 12개의 남북

北 김영남위원장 철도연결 본격추진 시사  
南 82년부터 추진 용지보상등 상당한 진척  
북원되면 남북물류망 구축·관광 크게 기여

4, 비무장지대 1, 북측 7, 동해선 7개의 남북 6, 북측 1 등 모두 21개의 역이 운영된다.

◀남북철도 복원사업=전철로 복원은 1992년 1월 정부의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장정협정' 제2조에 따른 대북 시정사업으로 남북철도 복구용 추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의선의 경우 85년 문산~군사분계선간 13km 구간 실시설계를 마친데 이어 97년에는 용지매입까지 완료했다. 경원선 신탄리~물안간 16.3km 구간도 97~98년

실시설계와 용지매입을 각각 마쳤으며, 금강산선 함강~금곡간 21.5km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경에 용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교부 관계자는 "남북철도망은 본단 이전까지 운영권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철로 복구에 애당초 높은 표준궤간 1,135mm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30여년 동안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위한 기본적엔 여전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교부는 남북 철도사업



통합공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철교와 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발주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엔 까지 모두 2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남북철도가 복원될 경우 남북철도 물품의이 구축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의선이 연결되면 우리측이 구상중인 산지관광의 물동량

수송의 용이 수월해진다. 관광 수요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금강산권 비무장 도랑간 철도선 등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서울에서 새벽철도로 출발, 관광한 뒤 밤철차로 돌아오는 등 18~19시간이 가능해진다. 경교부 관계자는 "남북철도복원은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해리를 단숨에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성교기자)

## 朝鮮日報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앞으로 북한이 합심해서 통일열차할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남북간 철도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원이 가능한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등 4개 선로. 이 중 경의선과 경원선은 '단선 구간'이 20~30km에 불과한 데다 철도청이 이미 실시설계와 용지보상까지 끝낸 상태. 정부는 84~85년 경의선 단선구간(문산~봉동 20km) 가운데 남측구간(문산~장단 12km) 복구할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에는 용지 매입까지 완료했다. 경원선도 단선 구간(신탄리~평강 31km) 가운데 남측구간(신탄리~원정리 16km)에 대해 91년 실시설계, 97년 용지 매입을 완료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복원 후 운항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다.

### 남북 철도복원 어떻게

경의선 20km가 1순위  
150억이면 2년내 복원

◀북북한 철도 미연결구간

| 노선               | 미연결구간                                   | 추진상황    |
|------------------|---|---------|
| 경의선 (서울-신의주)     | 남측 문산-장단(12km)<br>북측 장단-봉동(8km)         | 실시설계 완료 |
| 경원선(서울-원산)       |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16km)<br>북측 군사분계선-평강(15km) | 실시설계 완료 |
| 금강산선 (철원-기성)     | 남측 철원-군사분계선(25km)<br>북측 군사분계선-기성(15km)  | 기본설계 완료 |
| 동해북부선-강릉 (양양-안변) | 남측 강릉-군사분계선(100km)<br>북측 군사분계선-온정(21km) | 타당성조사착수 |

전문가들은 경의선을 남북철도 복원 1순위로 꼽고 있다. 철도청 이시용 팀장은 "경의선은 15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19개월 내에 복원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의선과 경원선은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될 경우, 북한은 낙후된 교통신프리를 개선할 수 있는 데다 통관운임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 김일성도 94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간 철도만 복원되면 앉아서도 한 해에 15억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철도가 본격적인 화물수송 무트가 되려면 4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 철도는 단선인 데다 시설이 낙후돼 있어 운행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하다.

/車學기자 hbcha@chosun.com

## 경향신문

# 끊긴 철도 복원 '청신호' 새역사 큰만남

남북정상회담

김영남위원장 긍정 발언' 외신 보도  
경의선·동해북부선 우선 착수 유망  
러시아도 경원선~TSR 연결 관심



경원선 복구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관심이 높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이 노선에 대해 이라나시 예크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강연회에서 "참를 희망하고 있다"고 거의 공식적으로 밝힌 정도다.

무엇보다도 남북철도를 통시 방면, 이 노선 복구문제에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원선은 신탄리~군사분계선~평강의 31km가 끊어져 있으며 경교부는 이 구간 복구를 위한 용지 매입을 이미 마친 상태다.

이밖에 금강산선의 복구도 거론되고 있다. 철원~봉동선~기성의 75km가 끊어져 있는 이 구간을 위해 경교부는 내년 예산에 1백억원의 용지 매입비를 요청한 바 있다. 남북 구간(21.5km) 복구는 대외 도움은 좀 수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의 수송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용익기자 ym46@unhyang.com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는 흥원선의 뜻 많은 차적어 합지도 모른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김영남(총수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이나 친화통신의 보도를 볼 때 흥원선에서 끊어진 철도가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구사업이 시작된다면 먼저 추진될 철도로는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이 유망

한다. 경의선이 이어지면 남북간 교역에 드는 물류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사백만 톤의 곡물을 추진중인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인천~남포의 해상 수송비용이 북측쪽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천~중국 천진(天津)보다 3배 비싼 컨테이너당 1,000여달러나 된다"며 "철도로 수송하면 이 비용을 80%나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의선은 남북은 문산~군사분계선 12km, 북측은 봉동선~장단 8km 등 총 20km가 끊어져 있다. 남측쪽은 복구용지와 이미 이 구간의 땅을 사들여두고 북측은 용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합의만 되면 1~2년 안에 연결 공사가 끝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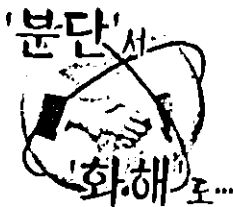
다만 북한측 철도는 전철 위주(전철 비율 79%)로 돼 있는 등 동력 공급 방식이 남북과 다른 것도 노반 높이가 낮아져 이 부분엔 통합하는 데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관한 연구용역 용지매입을 연구용역에 요청해 놓았다.

강원도 김성과 북쪽의 온정리(30km)를 연결하는 동해북부선도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다. 무엇보다 이 노선은 남북의 남야도는 무연단(약 6백만 t)을 복으로 보며 북의 민생적인 전력난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좀 수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의 수송에도 기여할 수 있다.



# 6만명 상봉1순위 '설레는 혈육찾기'



## 남북합의 6만명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오는 8-13에 즈음해 끊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절차와 장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절차와 장소는 아직 양측간에 추가 협의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 시기가 판별될 전후로 잡혔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산가족들은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 대한적십자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소 그리고 1000만 이산가족재추진위원회의 등 3곳에 상봉신청을 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이들의 신청서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보관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상봉대상자로 분류해놓고 있다.

그러나 85년 단 한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함방문 및 여승공견단 교환으로 151명이 이산가족과 만났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11만6000여명이나 신청명단에 올라 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신원조회 등이 끝난 6만여명이 1차 상봉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실 맺읍시다" 건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선언 5개항에 합의한 뒤 평양시내 목은궁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 명단 넘겨주면 北서 생사확인 대상자 통보 14만6000여명 신청 선정작업 1-2개월 소요 판문점 면회소 설치 유력... 온정리도 검토

그러나 한적측은 현재 신청하지 않았다 라도 고령자 등 상봉기회가 적은 사람에게는 10일 정도 추가신청을 받아 상봉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1차대상자는 고령자, 부모·형제 등 직계존비속을 찾을 경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게다가 황해도 등 이산가족이 많은 도의 경우 가중 처벌 부여해 대상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

많게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들 1차 선정자에 대해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거쳐 북한측에 명단을 통보하며, 북한측은 대상자의 생사확인여부 등을 심사한 뒤 무리지어 최종 상봉대상자를 통보하게 된다.

이때 문제는 과연 상봉장소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일단은 판문점에

상봉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그동안 유감선이 들어가는 온정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등 제3국도 검토되고 있으나 민족문제뿐 다른 나라로 가져간다는 것은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기본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미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더라도 과거 상봉 결연 당시 신청회수가 많았던 이산가족 등이 1순위로 선정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성사방포 이후 매년 10여건의 신청건수가 1000여건으로 늘어난 대상선정작업이 1-2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이공초기자 khrk3@kmb.co.kr



# 광복절 이산가족 교환 방문

## 남북정상 공동선언 5개항 합의 역사적 서명

### 김위원장 적절한 시기 서울 답방기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은 11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회담을 갖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 확인, 이산가족 상봉, 경제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날 김위원장의 서울 답

방에 합의하고 오는 8월 15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어 "남과 북은 나라

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

#### 남북공동선언 5개항

통일문제 자주적으로 해결  
남북통일방안 공통점 확인  
이산 등 인도적문제 조속 해결  
민족경제 균형발전 교류확대  
합의실천 빠른시일내 당국대화

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른 시일안에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영(朴俊榮)청와대 대변인은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북측의 의견을 들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차례 휴식을 취하며 오후 6시50분까지 마린톤 회담을 한 끝에 5개항에 합의했으며 밤 11시20분 역사적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남과 북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협의를 이뤘으나 이제는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회담협력을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측도 통일을 위한 회담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와 관계개선 등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독회담에는 남측에서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관, 원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북측에선 김용순 이태평화위원장등이 각각 배석했다. **중앙=공동취재단**





손잡은 남북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만수대사당에서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적인 담화를 갖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영양 = 참외대사진기자단

# 南연합제-北연방제 인정 '자주통일' 첫단추 꿰다

## 남북 합의 5개항 통일 자주적 해결

김대중(중대)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최고인민회의 의장끼리 남북공동선언 채택을 계기로 남북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리 그동안 방한기간에 비롯했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재일있는 남북자간의 논의로 격상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정상은 14일 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를 서로의 발목을 서로 풀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또 남북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제안이라고 규정하고 이 방안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명시된 통일의 원칙은 지난 72년 합의된 7-1 남북선언의 지수, 범위, 방식대안 등의 이념적 조목보다는 실질적 입장과 앞으로 통일의 시작점을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비추고 있다.

이번 합의는 남북 민족의 통일방안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양측의 권익보장에서 통일의 시작점을 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추를 꿰는 것임을 의미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민족의 교류, 문화, 통일방안이라는 3가지에 입각해 6.15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국가연합단계를 2단계 연합제안과 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김대중의 점진적 통일방안 가운데 1단계인 평화국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계를 말한다.

북측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가 아니라 완전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지향하는 고려민주인민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안이란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실과 제도 등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 위에서 공동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기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평화국을 전제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국가주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당국간 통일논의의 불씨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애국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같은 근본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남한측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애국단체 합법화 등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면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재중기자 jkum@kmb.co.kr

## 남북정상 공동선언문 서명

# 이산가족 8·15교환방문 경험·다방면 교류 촉진 빠른시일내 당국간대화 김정일위원장 서울방문

### 남북 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등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맞잡은 손 '번쩍'... 감동의 박수갈채



본보등에 깊은 관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한 국민일보 등 남북신문을 살펴보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통일방안 문구싸고 막판까지 진통

### 공동선언 채택 막전막후

남북정상은 14일 3시간 이상의 마라톤 대화끝에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두 정상이 합의한 5개항 가운데는 북측의 연방제안까지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두 정상이 이날 오후 6시 50분에 정상회담을 끝낸 이후 거의 5시간이 지난 밤 11시20분쯤 서명식을 가질 정도로 막후 진통을 겪었다.

진통의 최대원인은 역시 통일방안에 관한 문구였었던 것 같다. 공동선언문 제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북측의 보수세력들에게 지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회담·발표 9시간 걸려 北 연방제안 일부 수용 향후 논란 가능성

또한 제1항에서 통일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합의한 대목도 북측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올해 8·15를 즈음해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키로 합의해 이산가족상선이란 최대원인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보수계층의 지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공동선언문에 대한 양국 정상의 서명과 공식발표는 그래서인지 계속 늦어졌다. 결국 밤 11시20분 서명식을 가졌으며 날짜를 넘겨 15일 0시 20분에 가서야 박종영 청와대대변인이 이를 공식발표했다.

55년 분단역사에 새 장을 연 회담의 시작에서 합의문 서명, 발표까지 무려 9시간 20분이나 걸린 셈이다.

서명식 현장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히려 쾌활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배가문퐁의 남북간 공동선언이 나온 조짐은 미리부터 있었다. 박신숙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50분 중단됐던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이 속개될 즈음 "남북 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문제에 관해 합리적 도의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광범대를 형성했다"고 말해 합의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오후 6시50분쯤 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복판관으로 자리를 옮겨 김대중위원 초청 만찬에 나란히 참석, 합의를 자축했고 남북 양측 실무진들은 합의문을 다들었다. 그러나 서명은 그보다 몇시간 뒤인 밤 11시20분에 이뤄졌다. 김영규기자

## 김대통령, 오늘 항공기로 귀경

평양에 체류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끝마치고 15일 오후 5시 상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 일행은 탑승 승용차편으로 판문점을 거쳐 귀경할 예정이었으나 김호 등의

이유로 북측이 육로보다 공로법 권유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관양식에 참석할 인사에게 환영행사장 변경을 통보했다.

최현수기자 hschor@kmb.co.kr



이천재 제정경제부장관, 박지민 문화관광부장관(왼쪽부터 차례로) 등 남북 수장들이 평양 지하철에 탑승, 얘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침위대사진기차단



남북의 두 정상이 가이코 큰일을 해냈다. 7000만 민족은 두 사람의 상봉 자체만으로도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 남진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선언 의미·전망

구체적 명시... 실천 가능성 높아  
南 경험 선물에 北 이산상봉 화답  
후속조치 고위회담 줄이울 듯  
각 분야 교류사업 급물살 예상

# 장관급이상 대표로 합의사항 구체 실천

## 남북합의 5개항 당국자 회담 전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제1차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하기로 했다.

남측은 합의 사항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북측에 비해 남북 당국간 회담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측 요구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 당국간 회담을 지난 98년 4월과 99년 6월 베이징 사관급 회담, 2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 등 세 차례에 걸쳐, 그러나 분명한 사실처럼 처음으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남북 당국간 회담의 지속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전수 있다.

특히 1~2만개항의 합의 사항을 논의할 여당이기에 때문에 남과 북의 회담 대표의 격도 상당히 높을 수 있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통일방안과 이산가족문제,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논의하고 합의할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기아도 장관급이

상의 양측 대표가 나와 회담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 사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정례 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북측의 수용 의사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사안별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 회담 대표단의 규모도 수십명씩을 훨씬 상회할 수 있고 분야별 대표도 차관 또는 장관급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논의의 사안의 성격상 일회성 회담으로 그치지 않고 상봉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남북 당국간 회담의 강대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의 준비작업과정에 있어 양측은 남북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며 발표를 느꼈다"고 말했다.

첫 회담 개최 시기도 무척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선언에도 '빠른 시일안'으로 못박았다. 일부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서울 방문 전에 한 두 차례 당국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합의사항 중 남북이 오는 8·15에 즈음에 이산가족과 친척 방문단,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그전에 회담이 진척돼야 한다.

회담도 한반도 내의 장소에서 개최될 공산이 크다. 전경부 출범 후 제 3국을 이용했는데 현재 양측의 대화기류로 봐서는 이번엔 회담을 관공령에서 열리고 회담이 계속될 경우 서울과 평양을 교차로 가능성도 있다.

한민수기자 mshan@kmb.co.kr

경험등 소분야 논의  
일회성 회담 아닌  
상당기간 지속 가능성  
가능한 빠른시일내  
판문점서 회동할듯

민족의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대며 길국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작성,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협회와 같은 민족적 기대와 천재계인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확히 30년 전, 서독의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슈토프 총리가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임정처분 확인한 채 합의문이나 언론 발표문을 작성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평가된다.

남북간 합의문은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92년 기본합의서가 채택돼 온국민을 살리게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두 합의문은 잠시 빛을 발하다 곧 사장됐다. 때문에 이번 정상 합의문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것이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합의문은 통일방안,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장기수 문제, 다방면 교류·협력, 남북지대화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정상 합의문의 특징이다.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합의보다 실천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뭔가 구체성 있는 합의문 도출을 유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김위원장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압박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통일방안에 대해 북측의 기존 요구 가운데, 그안대로 수용한만한 대책들을 세심하게 골라 공동선언 속에 일부 수용했으면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면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북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진방위 대남 평화공세할 작심했던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어렵게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은 선물용 북측에 안겨줄 김 위원장은 그 답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내놔야. 북측의 요구로 화해 및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분야도 합의문에 담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김위원이다.

남북 정상은 또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별도의 당국자회담 개최에도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교류단 대화기 줄이 이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위원장이 오는 8월 평壤를 전후해 서울을 방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급속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성기철기자 kcsung@kmb.co.kr

# 南기술-北노동력 결합 '원원 경험'



## 남북합의 5개항 다방면 교류·협력

**경제협력** 남북한 정상이 14일 김제반야의 교류협력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낸 이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협력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문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한에 따라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대북사업 러시 가능성

남북은 지난 92년 남북교류의 권리장전이라고 평가받는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민간사업의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북의 북한에 대한 시혜에 가까운 지원과 관행에서 탈피, 법과 제도에 근거해 양측 정부가 정식 인정하는 경제교류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협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남북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막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쟁의 효과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남한측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정착되어 따라 국가신용도 상승을 기대할



정경현 현대아시아시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 일행이 중앙 인민대학습당을 방문, 열람실을 둘러보고 있다.

평양 = 협희대사진기자단

## 민간차원서 격상... 국가신용도 상승 北경제부흥 지원책 강도높게 추진될듯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남북한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원배분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또 북한측은 대북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 일본 등 국외로부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에 관련된 이번 합의문은 민족공동체적 믿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의 안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장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가 큰 격차발 보일 경우 엄청난 불일비용이 초래되고 이는 결국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의 경제 수준을 남한만큼은 인되더라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려 원만하게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정 내년 예산에

남북경협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제기구로부터도 원조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보장 협정등 서둘러야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대북사업도 크게 활기를 띠지 마야 한다.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는 양측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의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대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제재 인시들의 방향이 좀더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경협 청사진은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확실한 합의 채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장밋빛 전망에

그침 공신이 크다. 따라서 이미 92년 남북간에 이미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선 남정 시급한 것은 양측 기업의 협동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투자보장, 이종교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절차 절차 협정 등 4대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남한 기업의 투자를 보장하게 된다면 기업인 등의 위함은 줄어들고 투자의 여욕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제도 정비에 기본적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경제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합의에 대한 검토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향후 남북경협의 수준을 단계에 따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초기 단계에서 자칫 기업들간의 과잉경쟁이 벌어질 경우 경협하대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동훈기자 dhee@kmb.co.kr

## 문화교류

남북 정상이 4개 분야 교류에 합의함에 따라 문화분야의 교류는 크게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문화계는 이번이 수행권 자력으로 방북한 박지환 문화정책위원이 경제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교류를 위한 밑거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문화예술행, 관광, 문화재단, 체육, 종교법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교류추진단을 민족사기 세부적인 교류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자방식 예술원 회장과 고은 시인, 강만길 교수 등 문화계 대표가 민간사업의 교류를 위한 교류의힘을 합쳐서 추진한다.

문화계는 우선 순수예술계에선 지난 4월 평양에서 개최하려던 무신영원 소프라노 조수비 등이 참여하는 '333 병화를 위한 국제 음악회'나 전직 남원에서 추진한 한국 '순창

## 예술인 방문공연...유적지 공동조사

진' 평양 공연의 실사가 기대되고 있다. 연희계에선 NSO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정부의 심의신청을 받은 '봉가사'와 '남북한 신의산정을 준비중인 '사랑 사랑 내사랑' '홍길동' '꽃파는 처녀' 등 북한영화와 국내 영화 등을 통해 소개할 전망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씨는 자신의 장편소설 '장길산'을 남북합작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단에서는 북한측과 공동으로 '통일문학전집'의 간행을 추진하고 있다. 방북단의 일원으로 최희정씨는 지난해 3월 문예진흥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통일문학전집' 간행 추진위원회'를 구성, 준비작업을 해왔다.

남북작가의 작품 100권을 목표로 한 이 '통일문학전집'은 정치적인 가급적 배제하되 문학성을 갖춘 걸작을 중심으로 이르면 2002년에 완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극계는 남북간 회귀의 공동집행, 남북연출가와 배우의 교환 및 초청, 남북 합동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통일 문학전집' 간행등 추진

문화계 분야는 정치색이 거의 없어 이란 시인내에 상호교류류분 신신히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반도에너지계

발전기구(KEDO)가 동해안과 인천항 북한의 방남 신보에 건설중인 김수로 워터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공동발굴, 김수로 건설 예정 부지가 270만평이나 되는 데다 동해안을 따라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층이 확인되고 있어 공동발굴을 본격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전선이 한복권을 지나고 있는 강원 원주 후고구리(대방) 공에 도청지도 공동조사 발굴 계획까지도 잡고 있다. 도굴이나 개방부터 피해할 거의 보지 않은 곳이라 한층 기대를 높이고 있다. 미주작지대에는 이곳 뿐만 아니라 확인조차 되지 않은 유적 유물이 사암의 손등 다지 않은 채 묻혀 있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문화유적 보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손수호기자 shshon@kmb.co.kr

국회회담 재개·시드니 단일팀등 제의 "민간경협등 활성화 단일창구 만들자"

분야별 간담회 내용

인민문화궁전에서 14일 오후 이원진 장남·사회단체, 경제, 여성분야 등 남북 간 분야별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협력과 재개 제시됐다.

특히 장남·사회단체와 경제분야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1시간15분 동안 진지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앞서 남북 특별수행원들은 조선컴퓨터회사를 방문, 학의 관련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봤다. 이 회사는 개인, 인공지능, 음악, 전자사전, 토지정보 등 각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삼성전자측과 중국 베이징에서 관련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진출에 합의한 바 있다.

○장남·사회단체분야=남측에서는 김민하 민주평통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산 민주평통새의장, 이원구 자민련의원,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영내 민화위위원장을 대표로 한 현욱 천도교 부위원장, 장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최우진 조병훈 시가국 부국장, 진홍수 조병봉 시가국 참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의장은 지난 90년 1월부터 중단된 남북국회회담을 재개, 관련법률 각자 만들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김재욱회장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팀 동시입장을 제의했다. 국가 대신 올림픽과 각각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달고 입장하고 국가는 아리랑을 대신하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라고 제의했다. 특히 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고 남북단일팀 구성, 백두산에서의 상회 재회, 탁구 축구 등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방안을 협의하라고 제의했다.

진중구협회장은 남북 축구단일팀을 구성해 오는 10월 레마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와 내년 아르헨티나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의했다. 북측 장중 위원은 "남측의 제안이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시드니 올림픽 남북동시 입장 역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제분야=간담회가 시작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무역협회가 먼저 나서 구남부 LG회장, 손갑승 SK회장 등 남북 기업인 대표 9명을 소개했다. 북측에서는 정문업 민경련 회장이 최장을 맡아 백세운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등 6명의 대표를 차례로 소개했다.

남측은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번거워지기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에 의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험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거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측은 남북기인협외사에 따른 경제 공동위협 조속히 재가동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협정, 지적소유권 보장협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양측당국에 촉구할 것을 제의했다.

또 검협학대의 기본요건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측은 이어 민간 경협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참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양측에서 단일창구뿐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데이트 커플·자전거 부쩍 늘어

달라진 평양 모습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고 있는 평양 공동취재단이 보내온 영상자료집 보면 평양시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소 달라졌다. 시가지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념 소박하면서도 깨끗하게 단정했다. 거리와 빌딩 곳곳에 위치한 구호관은 노동당

장군 55돌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많이 교체돼 북한의 속새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청춘남녀들의 데이트 모습도 예전에 비해 진일보했다. 평양 공동취재단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거리에서 연인남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90년대 이전에는 남연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원(현재 인민보안원)이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연인남을 통제했다는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상 개방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도 예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면과 자전거를 타고 자하도를 건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고 공동취재단은 전했다. 북한이 최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과 이에 탈 수 없는 구간, 끌고 다녀야 하는 구간 등을 정한 '운영 규칙'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는 점도 자전거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경찰에 해당하는 '교통보안원'의 명칭이 '교통보안원'으로 바뀐 것도 확인됐다. 이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경찰기구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원이 인민보안원으로 명칭이 바뀐 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송석기자 isch@kmb.co.kr

서울경제



북대중의 평양시 모습은 예전과는 다소 달라졌다. 시가지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념 소박하면서도 깨끗하게 단정했다. 거리와 빌딩 곳곳에 위치한 구호관은 노동당 장군 55돌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많이 교체돼 북한의 속새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정상회담 앞선 대화록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

‘베일에 싸인 인물’의식 농담 ‘폭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부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김위원장은 기침없는 입담으로 화제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위원장은 특히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는 농담의 시각을 의식한 듯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말해 북소류 지어내기도 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대화록.

▶ 김위원장=오늘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대통령=편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서서 감시합니다.

▶ 김위원장=약속하신 대로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알만 대로 장래도 제값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 김위원장=(회의장에 들어서)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긴장되게 했습니다.

▶ 김대통령=여기저기 많이 다녀십니다.

▶ 김위원장=김재리는 권하하셨습니까.

▶ 김대통령=잘하고 육류관에서 뽕뽕도 먹고 왔습니다.

▶ 김위원장=오늘 회담이 오속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자시면 곡수가 맛이 없습니다. 시간 여유 갖고 천천히 할 때가 바람직합니다. 평양시민들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남북 합동음악회도 오신 것에 대해 온 인민들이 뜨겁게 마중하고 있는데 그대도 인사처럼은 제대로 했는가 모른겠습니다.

▶ 김대통령=과분하게 환대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공형으로 미중나 오시고, 캐빈들도 나오시고 한 것을 남북에서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 김위원장=남쪽 테레비 어제 오랫동안 봤습니다. MBC도 보고... 남쪽 인민들도 다 환영해주고, 특히 실향민이나 탈북자들 소개한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속담 태웁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 위원장에게) 심재로 우는 장면도 나왔더라니까.

▶ 김대통령=(서울 프레스센터에) 외국 기자들도 수백명이 모이고 기자들 1,000여명이 기립박수했습니다. 위원장이 공화나와 약속하는 것 보고서...

▶ 김위원장=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됩니까. (공화 간 것은) 인사로 한 것뿐인데, 구리와 사발들은 니보고 왜 은둔생활하느냐, 처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중국, 인도네시아도 비공개로 많이 갔다왔는데 김대통령이 오셔서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요, 그런 말 틀어도 좋아요. 비공개로 갔다왔으니까,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 (웃음) 식민천이라든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어제 남쪽 테레비 봤더니 실향민들 속 태웁니다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공형영접 인사였는데”

▶ 김대통령=음식이 참 좋습니다.

김위원장=지금(지반년에) 중국 갔더니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식 김치가 나와서 남쪽 사람들 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김치를 (세계에) 소문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거부제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김치가 자기네 거라 그래요.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짜고 북조선 김치는 짭이 많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평양/공동취재단

대서특필 南신문 선물받자 김위원장 “잘 챙기라” 지시

2차정상회담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경이 넘는 마려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3시에 시작돼 5시20분 휴식을 위해 잠시 중단됐으며 오후 6시 5분에 다시 시작돼 6시50분여야 간신히 끝났다.

제2차 정상회담은 1차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김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은 형식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하는 동안 양측 수행원들은 회담장 밖에서 초조하게 회담결과를 기다렸다. 수행행진인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간혹 김위원장이 웅변조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분위기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이 남측 언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자 “이 신문철을 드려줬다”며 축식에서 김위원장이 선물했다고 김위원장은 수행원에게 전하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두 정상은 각기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6시5분 회담장으로 향했다. 입구 복도에서 마주쳤다. 북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김위원장이 먼저 김대통령을 보고 “편하 쉬셨습니까”라고 인사할 건데자 김대통령도 “잘 쉬셨습니까”라고 회답했다.

두 정상은 휴식시간중 정리된 생각이 많은 탓인지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대화를 계속했다.

박대변인은 두 차례 회담이 끝난 뒤 “남북 대표단은 합의내용을 정리해 작성하고 있으며 9시쯤에 정리된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장은 당초 김위

“젊은 사람이 가는게 좋겠다”

김위원장이 영빈관 찾아 대좌

“전제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2시간을 넘어가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후 5시20분쯤 휴식에 들어갔다. 6시50분쯤 회담을 재개했다.

두 정상은 휴식에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팩스로 전송된 신문본도 확인하고 나란히 서서 이첩 놓고 잠시 환담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1번 1번 단 제목과 여러 장에 걸친 신문본도 내용을 보고 “정상회담에 모두 관심이 많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사로 가득한 신문들을 보면서 “7000만 동포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남북 북여간 친목파리들 안거줘야 한다는 의중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김위원장은 “남측신문에 김상 회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군요”라고 관심을 표시하는 등 남측 언론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원장의 집무실로 예상됐으나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백화원 영빈관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에서 우리 민족은 동방의지국으로 젊은 김위원장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와 갑자기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김대통령이 육류관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6시 5분 오후 3시에 열렸다.

김대통령은 50분쯤 우리측 관측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현관 앞 카페 휴양에 들어섰으며 이곳에서 김국방위원장을 기다리는 1분 동안 인동원 특별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관아에 달려 있던 현관문이 열리면서 김국방위원장이 먼저 들어섰고 김용순 아내위원장 등이 뒤를 따랐다. 외세 인민복 차림의 김국방위원장은 들어서자마자 우렁찬 북소리로 “편하 주무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평양=공동취재단

# “회담 성공적... 이제 밝은미래 보인다”



## 우리측 답례만찬 스케치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저녁 평양시내 읍서길 복관관에서 이변 회담 마지막 만찬회합 주재하면서 남과 북이 공동 운명체이며 공동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중령 내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

며 이여사에게 뽀개 올 것을 요청.

김대중령 내외와 김국방위원장이 앉은 좌석 테이블 위에는 붉은 색 등회시한 꽃김치가 배치돼 분위기를 돋우고 음료수와 고깃 솥도 차려졌다.

○...김대중령은 만찬시 곳곳에서 김국방위원장에 대해 감사나 찬사를 표시해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지지않은 이해가 형성됐음을 시사. 김대중령은 “만찬 초대에 응해준대 대해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사적 합의의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인도한 김국방위원장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사의를 표시.

김대중령은 특히 김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서거 후 민족 교유의 진보에 따라 3년 상을 치른 사실에 대해 “지극한 효성에 감동했다”고 표현. 또 김주석 사후 권력 승계에 대해 “김국방위원장이 잠시 안장할 이목하고 대외 관계와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덕담. 만찬시반 관내에서 김대중령은

## 김-김 만찬장 입장때 30초이상 기립박수 김위원장, 이여사와 줄곧 대화 ‘화기애애’ 故 김주석 3년상에 “지극한 효성” 찬사

관히 만찬장에 함께 놓여서 110명이 넘는 내정 출에 기다리고 있던 남측 및 북측 인사들이 모두 일어서 30초 이상 박수를 보냈으며 만찬 연설이 10분간 계속되는 동안에도 김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좌측에서 5~6차례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봉양을 미래성으로 접 것이 아니라 현재성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회담했다.

○...김국방위원장은 만찬 도중 김대중령과 자신의 사이에 이희호 여사의 자리를 만든 뒤 줄곧 대화한 간에 만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김국방위원장은 담초 이여사의 자리가 김대중령과 떨어져 있지 “여 이곳 여까지 와서 이한가죽을 만들려고 하느냐”

나시 감사를 표시하면서 시골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어두운 색 일복에 옥색 넥타이 차림의 김대중령은 만찬사에서 “김국방위원장과 저는 정성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평가를 내린 뒤 “이제 바로는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이고 화해와 협력, 봉양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회담 결과에 자신감을 피력. 김대중령은 이어 “사람은 사모에게 일한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이며 이것이 이번 회담의 이유이자 여사가 부여한 사명”이라고 지적. “광동의 운명 속에서는 우리들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평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평양=공동취재단



“일만합네까” 이희호 여사가 인민문화공전에서 이희호고시를 쓴시인 김지한 선생(오른쪽)을 만나 두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황희대신기자

## “선생님 반갑습니다” “내가 호랑이 선생이었죠”

## 이여사, 女高은사 60년만에 상봉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鎭)여사는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지난 40년 서울 이화여고 재학시절 수학선생님이었던 김지한씨(85·여·평양거주)와 60년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여사가 인민문화공전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했고 이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두사람은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현동안 뒀어놓을 뿐이다. 이여사가 삼기된 입술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일만합네까”라고 진한 북한 어투로 말했다.

이여사는 최근 이희호고 동기생들이 합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더니서 “현재 서울에 살아계시는 당시의 선생님은 현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은

희 선생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여사는 “최소한 선생답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최은영씨)이 북무 속에서 60여년간 당시 이희호고 재학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장을 꺼냈다.

손을 맞잡고 지진을 보던 두사람은 언제든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동경여대고능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하고 39년부터 41년까지 이희호고에서 수학교사 겸 학과 장학사로서 수학평으로 옮겨 현 재까지 살고 있다.

두사람은 60여년간의 헤어짐 후 30년간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던지 이여사가 뒤에 자리를 뜨면서도 현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김대중령 만찬사 (요지)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0에서 100년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평화와 협력과 봉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래 전쟁생애를 막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의 화해를 나가시는 3대 원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 두 사람과 체인 있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외에 교류와 협력으로 이룩해 놓고 민족을 뭉치기엔 협력 또한 화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려진 동행이 있습니다. 또 남과 북에서 예니는 신장으로 제갈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이한가죽이 있습니다. 이한가죽은 통일에 힘입어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도적 결단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이 가져다 준 빛의 비를 하복고 이 안에서 진정한 공부를 용이내에 교류협력의 새날이 있는 데 밝고 지혜로 모습입니다.

### 김영남 상임위원장 답사 (요지)

50년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만나 함께 보낸 2일간은 너무나도 오래 헤어져 살아 온 세월과 너무나도 짧은 만남의 순간이 동포에 속에 교차되는 듯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영도자이신 김장일 장군님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고 우리의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감격적 상수 없는 한 화약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교 수 없는 동족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오랜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 의견을 좁히기 시켜야 할 문제들도 있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미래성으로 뿐 것이 아니라 현재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자애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이 온 거래의 숙원인 봉양의 길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과 표명하는 바입니다.

# 화해의 한반도 '5개의 주춧돌' 놓다

김대중 대통령

## “과분한 환대 진심으로 감사 공항서 악수하는 것 보고 외국기자들도 기립박수 했습니다”

### 2차 단독정상회담 대화록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11일 오후 3시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직접 방문, 1시간여 동안 열렸다.

####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백화원영빈관 1층 ‘차철관 출입문’에서 2시36분에 미리 나와 1분 가량 기다렸으며 57분에 김위원장이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김위원장은 여섯발짝 가랑을 섬금섬금 걸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할 나누며 “편히 주무셨습니까”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조용한 소리로 “잘 잤습니다”고 대답했다.

김위원장은 “테레비로 (오셔서) 여러곳 방문하는 것 등을) 봤습니다”고 다시 말을 이었고 이때 카메라 기자들이 “이쪽을 좀 봐달라”고 부탁해 3초 가량 간단히 포즈를 취했다. “역사적 만남인데 소감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북도를 통해 나란히 회의장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대화를 나눴다.

△김위원장 = 오늘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김대통령 = 편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김위원장 = 약속한대로 찾아뵙는 게 좋습니다. 알만 대우 잡해도 제집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20여m 길이와 회의장에 들어서 테이블 중간에 마련된 자리에 폭이 3m 가량되는 회의용 책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회담을 시작하면서 두 정상은 유머와 재담을 주고 받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 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 3명이 배석했고, 북측은 김용순(金容淳) 아태경제협력 위원장만 동석했다. 김국방위원장은 회의 북장에 김일성 배지를 단 모습이었다.

△김위원장 =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긴장되게 했습니다.

#### “예술공연 아주 좋았습니다”

△김대통령 = 여기저기 돌아보고 예술공연도 잘 봤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김위원장 = 잠자기가 편치 않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 “구라파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은둔생활 한대요 김대통령 오셔서 해방 됐습니다”

△김대통령 = 예. 잠자고 육류관에서 뽕면도 먹고 왔습니다.

△김위원장 = 아침 회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했는데 방면은 급하게 자시면 오히려 맛이 없습니다. (웃음) 앞으로 시간 여유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자세요. 평양 시민들 대단히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정말 용단 내리셔서 정말 온 인민들 뜨겁게 마중했는데 그래도 인사됐는가 자기들 격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통령 = 과분하게 환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위원장께서 공항에도 나오시고 시민들도 나오고 해서, 도 폭 함께 숙소까지 동승해서 와서서서 저로서는 감사하기 짝이 없지만 남쪽에서도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 “실한민 우는 장면 테레비로 봤습니다”

△김위원장 = 어젯밤 늦게까지 남쪽 테레비 오랫동안 봤습니다. 남쪽 국민들도 아마 다 환영했을 겁니다. 특히 실한민,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속을 태웁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 위원장에게) 실제 우는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김대통령 = (웃으면서) 외국 기자들도 수백명 등 1000여명이 기립박수하고 그랬다고, 우리 공항에서 악수하는 모습 보고요.

△김위원장 =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뵈니까. (공항 간 것은) 인사할 만 할 뿐인데. 구라파 사람들이나 자꾸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왜 은둔생활 하느냐. 은둔생활을 청산하라. 나는 뭐 과거에 중국도 갔었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외국에 비공개로 갔었는데 나보고 은둔생활을 한대. 근데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생활에서 해방됐다. (웃음) 뭐 그런 말 들으니까 좋아요. (웃음)

△김위원장 = 식반찬은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까.

#### “음식 맛이 참 좋습니다”

△김대통령 = 음식이 참 좋습니다.  
△김위원장 = 지난번에 내 중국 갔는데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식 김치가 나와서 남쪽 사람들 큰 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김치(세계) 소문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김치라고 하는데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짜고 북조선 김치는 풀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김재중·김호경기자 jikm3kmb.co.kr



# 문화개방 잘풀리면 복음화 금류 탈듯



가톨릭교회는 정교회와 남북 종교교류를 촉진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14일 만수대 학생소년관에 들러 학생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 촬영=홍외대 사진기자단

## 남북 종교 교류 어떻게 됩니

### 정교회 답 이후 교류 전망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 종교교류와 복음선교도 새 시대를 맞이했다. 종교교류의 대폭적인 활성화는 물론 복음선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급변하는 남북교회 교류와 복음선교를 위하여 같은 시리트로 씀는다. (문필자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독교계의 남북 교류는 기사계를 떠는 차이를 넘어 교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교회 답이 갖는 예기근급의 위력을 감안할 때 그동안 남북 기독교 교복을 막아왔던 모든 장애물이 일시에 제거될 수 있기에 때문이다.

사실 남북 기독교계는 그동안 꾸준히 남북간 종교교류를 가져왔고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한 여실을 해한다. 북한에는 현재 공식적인 교회가 복수·합동교회 등 2개밖에 없지만 50여개의 기초에서 3만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와 종교교

류 전망에 따라 현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온 평양을 비롯한 북한 교회의 재건이 이뤄지고 북한내 기독교의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 분호를 거방하게 될 개연성이 크며 이는 결국 종교교 및 보장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폐쇄적인 종교정책을 펼치 고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또한 북한 교회 지도자들의 남한 방문은 단상과 같다. 남한 교회인사들의 북한방문은 자주 이뤄질것으로 북한 교회 지도자들 및 방문은 한반도 상사외교 및 남북 대장담과 상호방문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쉽게 실현될 수도 있다. 북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남한방문이 이뤄지면 종교교류와 감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전북지방 뿐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복음사도 등 기독교 보수진영에 의한 종교교류의 활성화 및 가능성이 크다. 해방전 당시까지 일어난 북한 교회의 재건은 북한교회의 업적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안도적 차원과 대북지원 역시 국민적 총화 속에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남북노동운동 국제교수수재단 등 대북지원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된다.

### 대북선교 결정적 전기 폐쇄정책 버릴때 엄청난 진전 읊수도 시행착오 거울삼아 교계 일치행동 보여야

이유로 조속한 시일내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터기에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종교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 5차 기독교 국제협의회(글로벌교회)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KNCC는 그동안 수차례 한반도 내에서 글로벌교회를 개회할 것을 제의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글로벌교회와 국제 개회

이데올로기(Three Dumb Co. kr

글쓴이 순서:

1. 정상회담 이후 교회교류 전망
2. 남북교회교복을 위한 잠정
3. 교회대결운동과 해외 교
4. 이제는 새롭게 접근한다
5. 전문가 화답

## 한겨레

# 시드니올림픽 '어깨동무 입장' 가시권

### 체육분야

남북 정상간의 합의의 계기로 시드니올림픽(9월15일~10월1일)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남북 체육교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용 대한체육회장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등 남북 대표단 특별수행원들은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 체육교류에 대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남북 체육계 대표의 다양한 교류 제안에 대해, 북쪽의 정몽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이날 '남쪽의 제안이 상사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연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회 각 분야 남북 간담회에서 나온 북쪽 관계자의 반응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급이었다.

김 체육회장은 시드니올림픽 남북한립 동

### 올림픽 깃발 들고 '아리랑'장단에 발맞춰 북 장웅위원 "성사 낙관"...단일팀도 논의

시입장을 제외하며 △남북 양쪽의 국기 대신 올림픽기와 각각의 국가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고 △곡가는 <아리랑>을 대신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체육회장은 2001년 일본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도 제외했다.

이밖에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북쪽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며 △남북 단일팀 구성 △백두산에서 성화 제화 △탁구·축구 등 일부 종목의 본산개회 등을 협의하고자 제안했다. <아리랑>은 90년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단일팀 단기로 합의한 노력으로, 북쪽이 작곡한 악보를 남쪽에 보내 남쪽에서 편곡과 연주할 해 지금껏 쓰이고 있다.

김 축구협회장은 남북 축구 단일팀을 구성해 10월 레바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

회를 2001년 아르헨티나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외했다. 그는 한일이 공동주최하는 2002년 월드컵에 북쪽 팀이 참석하는 문제를 재론하 볼 수 있다며 세계여사 가장 큰 축구경기장인 평양 농리도 5:1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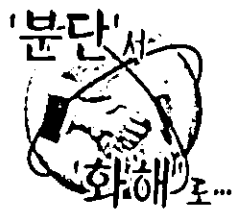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표팀 교환경기 또는 경관축구전을 포함하는 한일 한중일 3국 축구계가 논의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그 신날에 북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북쪽 장 위원들의 답변은 남쪽의 각종 제안에 대해 북쪽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임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입장'을 고집해 거론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사

상 남북이 합의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듯하다. 선수단 동시입장의 상징성은 크다. 동독과 서독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현장상 서로 독자적 지위를 지닌 두 나라였음에도 1936년 베를린올림픽 개막식 때 한팀으로 입장에 아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적 통일외지를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사실 체육분야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직후에도 축구와 탁구의 단일팀 구성 등 해방의 '상징적 절점' 노릇을 훌륭히 해왔다. 남북은 91년 일본 지방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 사상 처음 단일팀으로 출전해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그뒤에도 통일농구대회, 통일축구대회 등 여러 종목에서 꾸준히 실질적 교류가 이뤄져 왔다. 체제문제와 무관하게 비정치적이면서도 민족공동 감성을 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분단 뒤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혔던 남북체육교류의 접근이 다시 터릴 듯하다. 촬영=공명희기자 nomad@han.co.kr

# 北 어린이 '조국 통일' 붓글씨 선물



## 김대중령 민경대등 방문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오전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가진 뒤 이날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 민경대 소년학생공간 등을 돌아다녔다.

##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

〈민경대 소년학생공간 참관 및 공연관람 = 김대중령과 이희호 여사는 오전 민경대 소년학생공간을 방문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살펴보고 학생소년 예술소조의 총합공연을 관람했다. 김대중령 내외는 남초 여중보다 30분 늦은 11시30분쯤 소년학생공간에 도착했다. 김대중령 부부는 먼저 외시 기다리고 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연유하 소년학생공간 총장 등 북측 인사들과 악수했다. 또 양성남(10·여) 권정민(11) 두 어린이로부터 붓다방을 받고 화에 보충을 했다. 어린이들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깃듯이 인사를 했고 현관에 마중나와 있던 다른 어린이들도 일제히 박수로 김대중령 일행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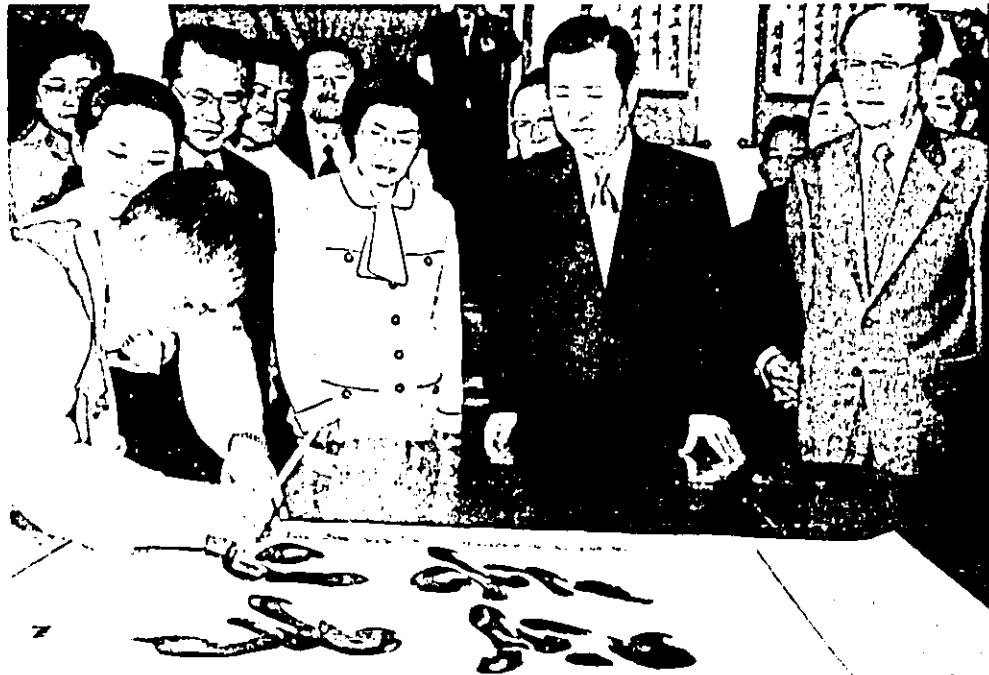
김대중령은 공연 1층 소조실에서 어둠이 번진 현관에 서있던 어린이들과 다정하게 인사할 나였다. 첫번째 무용 소조실에서 어린이들이 무용인형을 하나씩 김대중령이 들이서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환한 박수로 맞았다. 김대중령은 흐트란 표정으로 군말대려 등 음악에 맞춰 연습을 하는 어린이들을 잠시 지켜봤다.

김대중령이 소조실을 떠날 때 어린이들은 또다시 깃듯이 "안녕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쳤다. 두번째 기아군 소조실에서 김대중령은 어린이들의 기아군 인수할 정도로 연유하 총장의 설명을 들었다.

세번째 손장군 소조실에서 김대중령은 어린이들이 소신번호 도라지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내외에 사해 소조실에서는 김대중령이 도착하자 주조조교관이 그 자리에서 "조국통일"이라고 붓글씨를 크게 써서 탁자를 찍은 뒤 김대중령에게 선물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환영합니다"라고 기쁘고 기쁘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수북은 김대중령에게 대면해서 "김대중에게 기쁘게 드렸습니다"라고 우렁차게 말했다. 다섯번째 수에 소조실에서는 학생들이 인어나 수복을 작품을 이어서서 선물했다.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김대중령 부부는 12시쯤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관인장으로 입장했다. 김대중령은 관객들이 깃듯이 박수로 환영하자 손을 흔들며 답했다.



"낙관도 찍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민경대 소년학생공간에 둘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 민내로 서명한 학생이 쓰고 있는 '조국통일' 화를 감상하고 있다. 평양 = 공동취재단

## 공연 끝난후 무대올라 음악맞춰 박수 옥류관 방문 냉면-족발점등으로 점심

45분간 진행된 공연 내용 중에는 4~5세 기량의 어린이가 감격하게 손을 흔들 "장성옥 언니 따라 나오"라고 외치고 "씨름을 무용으로 형상화한 씨름놀이 다의기를 위한 김음의 등이 관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김대중령 부부는 12시47분쯤 공연이 끝나자 환영사에 올라버리는 가운데 김영남 위원장과 무대 위로 올라가 관객 및 출연자 모두와 함께 음악에 맞춰 30초 정도 민방에 웃음을 띠며 축하적인 박수를 쳤다. 김대중령은 퇴장하는 도중에도 잠시 멈춰서 박수로 환호하는 객석들 향해 손을 흔들며 답했다.

12시52분쯤 소년학생공간을 빠져나온 김대중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대동강변에 있는 옥류관으로 이동해 이희호 여사와 평양냉면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 "옥수 만드는데 정성 다했다"

○옥류관으로 = 김대중령은 오후 1시15분쯤 이희호 여사와 함께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2층에 도착. 공식수행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대중령은 지난 김경일 국방위원장의 한대에 오신 확대정상회담이 잘 진행

됐기 때문인지 완한 임상이었다. 김대중령은 박지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저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인연이 어떻게 보드하고 있는"이라고 물었고 박장관은 자세히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령은 확대정상회담이 다소 늦어지 민경대 소년학생공간의 관인양광도 자연히 지연돼 예정보다 늦게 오찬을 시작했다. 옥류관은 김대중령 일행을 위해 소고기 등을 3시간 이상 끓여 냉면국수를 만드는 등 정성을 다했다고 식당간내원은 전했다. 냉면에 앞서 해삼과 죽반점(말죽) 평고기 안자 등이 함께 나왔다.

평양 주유와 송리거리에 위치한 옥류관은 50년래 위에 지어졌으며 10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편에서 가장 큰 음식점이다. 평양 = 공동취재단

## 평양의 자랑 '옥류관 냉면'

"내 평생 옥류관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14일 평양의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기 전 김대중 대통령이 옥류관 책임자에게 밝힌 소감이다. 역시 옥류관 냉면은 평양의 자랑이었다. 북측은 김대중령 등 남북 대표단 인원에게 평양인 옥류관으로 안내해 냉면을 내접했다. 메밀로 반죽한 면질은 서늘의 냉면들과 달랐다. 통장적으로 최고기부 넣은 냉면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비가 없었지만 옥수에 서 차이가 있다. 이날 대표단에 제공된 냉

## 평양기 옥수 '특별한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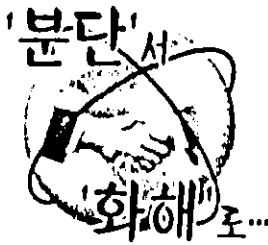
## "김정일 장군 지도로 닭고기 냉면 개발" 자랑

면은 평고기 옥수로 요리된 '특별냉면'으로 가격은 17위(미화 6달러가량) 정도라고 했다. 닭고기부 넣은 냉면은 15위, 모듬 냉면은 4위50원 가량 된다고 한다. 옥류관의 '집대원 선생'은 "최근에 김정일 장군의 지도로 최고기대 닭고기부 넣은 냉면이 개발됐다"며 냉면에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길이 닿았다는 얘기를 잊지 않았다.

냉면에 앞서 입맛을 돋우기 위해 해삼과 발복(서늘의 죽반점)이 나오기도 했다. 만찬때까 마중가지로 40도짜리 '배우산 달복초' 등 다양한 주류도 제공했다. 원석 한복차림의 여성 '집대원 선생'은 냉면의 손님에게 "한 그릇씩 더 하시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어 냉면이 평양의 자랑거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안내원은 "평양 옥류관과 접착한 지역의 옥류관도 생겼지만"이라고 아는 재능했다.

옥류관은 대동강변 옥류교 옆에 있으며 왼쪽에서는 허시보 하면서 대동강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쪽의 편안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평양 = 공동취재단

# “남북경협 획기적 전기 마련” 대환영



## 공동선언 재계 반응

재계는 11일 남북 정상이 김제교류담 포함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데 대해 남북경협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크게 환영했다. 특히 각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 방북단 파견과 투자 확대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김형 회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 삼성李회장 방북·현대 공단조성등 ‘가속도’ 전경련, 과당경쟁·중복투자 자율조정키로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진전하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만간 남북경협 진담 데스크포스팅 구성, 회원기업들의 대북 김합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경협에 가속이 붙어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교류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김합을 위한 실질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권회 회장의 방북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의 한 관계자도 “남북경협이 크게 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가 추진해 온 서해안 공단 조성과 금강산 투자 확대 사업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LG 관계자는 “김상회담에서도 출된 합의안이 실현된 경우 무지워

합 등 남북 김합 위상화될 가로막 있던 걸림돌들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구분부 회장이 돌아오는 대로 상사와 전자 등을 중심으로 김합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교류협력 확대조치는 남북간 상호이해는 물론 경제협력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 김합에서 기업간 과당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자율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사업을 주도해온 중소기업도 이번 합의도 무지않았이 보장되고 원유 등 사회간 진지본이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됐다며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김형 회상이 크게 개선돼 중소기업들의 김합 사업이 합기될 것”이라며 “오는 7~8월 북한을 방문할 중소기업 3차 방북단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김합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PC모니터 위탁가공사업을 법이고 있는 IMR(사) 관계자는 “남북 정상의 합의로 기업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력·물류 등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남북 김합이 기존 단순교역과 위탁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사업 등으로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 기업 관계자들은 남북 정상 공동선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밤 12시를 넘어 이뤄졌음에도 대북사업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15일 새벽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북한에서 전해지는 회담결과 뉴스에 귀담 기울였다. 송세영기자

# “북한 상품 없어서 못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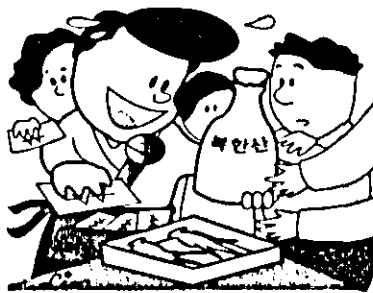
## 유통업체 ‘정상회담 특수’

### 백화점 통일물산전등 매출 폭발 철족술·명태등 인기 ‘날개돋친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상밖 환대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상회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은 ‘민족회합 통일기금 마련 대마자’의 하나로 개최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물산전’ 매출이 지난해 같은 행사 때보다 100% 이상 늘었다. 북한상품 60여종을 포함, 남북한 특산물 190여종이 선보이고 있는 이번 행사의 매출은 하루 평균 1100만원을 넘어 지난해 7월 개최된 남북물산전의 하루 평균 매출 700만원보다 50% 이상 신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명태의 최고장인 철족, 명천산 명태제 찜이 행사 3일만에 준비된 3남 100상자가 모두 동남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평안에 도착한 13일 하루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LG백화점 안산점의 경우 하루 100만원 내외이던 ‘북한물산전’ 매출액이 정상회담 첫날인 13일 300만원 이상으로 200% 늘었으며 구리점도 100% 가량 증가했다. 특히 북측이 김대통령에



개 접대할 술로 알려진 ‘천족술’이 북한산 소주와 함께 날개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LG백화점 관계자는 “함북산 견호두 1만원짜리 봉지가 하루 200개 이상 팔리고 표고버섯과 오미자, 참기름 등도 150개 이상씩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천호진의 남북한 대표상품전에서도 원산 호두와 나진 견표고, 평북 고구마즙 등이 매일 2000만원 이상 팔리고 있고 무역센터점 식음매장의 함북 어망만두, 개성 인삼김치 등 북한상품 매출 역시 하루 1000만원을 넘고 있다.

시골 구의동 테크노마트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하루 200~613명의 통일기원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줬으나 행사가 끝난 뒤 어린이와 외국인 등의 추가 배포 요청이 쇄도, 500벌을 더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다. 송세영기자

# “北지원 비료 조기 선적”

## 농림부, 20만t 20일까지 완료

농림부는 당초 이달말까지로 계획했던 북한 지원용 비료 20만t의 공급을 2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총 지원계획량 20만t중 20차에 걸쳐 13만3000t의 비료가 북한에 운송됐다”면서 “기상조건이 허락한다면 현재 북한에 모내기가 한창인 집울 김안, 20일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한 선적용 마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는 북한에 비료 20만t이 공급되면 2200만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에게 133일간 배급할 수 있는 쌀 48만t을 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변재운기자 jwbyun@kmbi.co.kr

# “北기업 국내證市에 상장 허용을”

## 국영기업등 주식회사 전환... 대북펀드도

“내년 김에 북한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을 주식회사로 바꾸고 코스닥에 등록시키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한과 북한간 경제교류 합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북한에도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거래소 같은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이이넷 무지신문의 조진형씨(37)는 최근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주식제도’라는 제목의 시감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집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지방기자 fattylim@kmbi.co.kr

# 실향민 “대남방송도 음악으로 들려요”



스케치 종합

●...남북 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을 지켜본 세계 각국의 외신기자들은 15일 오전 한결같이 그 성과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국적으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눈길.

일본 기자들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공동선언의 향후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 아키히타 신문의 오모카와(奥川) 기사는 “정상회담 자체로만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상밖의 성과물이 적지 않아 개인적으로 놀랐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은 앞으로 공동선언문의 실천과 교육·인권의 과정에서 발생할 ‘침체상의 위기’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獨기자 다소 감상적 분석

●...이에 반해 중국 기자들의 경우 남북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다. 신화통신사 기호하오(高浩) 기자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 본다”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상들이 도출해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독일 기자들은 과거 분단의 아픈 상처를 경험한 탓인지 동맹상선의 입장에서 다소 감상적인 분석을 내리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 문부사우 신문의 하를트 미스 기사는 “지금 남북의 분위기는 10년전 독일 통일 당시와 흡사한 느낌”이라며 “남북 관계에 큰 발전적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며 흥분하는 모습.

●...미국 기자들의 경우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ABC방송의 조 로워 기사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1차적 목적은 통일에 앞서 남한과 시범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와 투자금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에는 주변 각국의 협력의 정도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미심장한 전망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공동선언이 발표되자 2002



김대중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주민일동이 내건 정상회담 성공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선규기자>

년 부산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는 남북 단일팀 구성과 백두산에서의 신화채화 등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있는 모습.

박세호(朴世浩) 조직위 홍보방송본부장은 “이번 남북 단일팀 참가와 백두산 및 금강산에서의 신화채화를 계획하고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것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단일팀이 성사될 경우 일부 경기의 예선전을 북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도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관광객은 “그러나 금강산의 남과 북 사람들은 13일 오전 경인 순안공항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답게 손을 맞잡은 감동의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했다”고 말했다.

한 관광객은 “산행길에서 만난 한 북한 안내원은 북한 아이들이 김대통령을 ‘동일할아버지’라며 좋아한다고 김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자들은 한국의 위성방송을 운동장에 설치, 오후 9시 뉴스에서 공동선언 합의 제1보가 흘러나오자 일제히 환성과 박수를 터뜨렸다.

민단의 황영만(黃泳滿) 사무총장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간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면서 “우리에게 짐산한 것은 북송동포 3800명의 생사확인 및 일본에의 입시방문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바람을 나타냈다.

●...조총련 본부도 환호 분위기는 마찬가지. 조일남(趙一南) 국제국무국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60만 재일동포를 포함한 온 민족의 장엄한 환영이 담긴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 썩수를 들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8·15를 전후한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남북의 장기수 석방 합의에 따라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고 이것이 그대로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조총련 심요단 등을 통한 ‘국적 바꾸기’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미국 교민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신덕 남가주 이북도민회 연합회장은 “정상회담 개최 발표 때만 해도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교민의 실향민들이 자주 세상을 뜨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중국 교민사회도 5개월 합의발표에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세무(姜世武) 오더링(吳德寧) 교수는 “하나의 고국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200만 조선족 모두의 열망이었다. 그 속임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 참만 같다”고 말했다.

<특필취재팀>

## 외신기자들 “예상밖 큰성과... 놀랐다” 부산 아시아게임 南北단일팀 성사기대 조총련 “재일동포 성요단 하루빨리...”

설명.

●...가슴을 졸이며 밤늦게 TV를 지켜보던 민중신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

최복단(崔福丹) 마을안(馬爾安) 과주시 군내민 조산리(趙山里) 대성농마을(大成農馬爾) 진상관(秦相官) 57)이장은 “남북이(정상회담 개최) 합의했다고 했을때도 첫 만남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50여년을 철책선 바로 밑에 살아 늘 긴장과 불안할 떨쳐 버릴 수 있었는데 이번 대남방송이 틀리더라도 자랑거점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

●...14일 오전 금강호변으로 동해항에 도착한 금강산 관광객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린 날 금강산의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동해항에 도착한 이들 관광객은 55년만에 만난 남북 두 정상들의 소식이 담긴 조간신문을 읽다 읽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금강산에서의 남북과 사람들의 화해

또 다른 관광객은 “북한 사람들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도 남다른 것 같았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 금강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 관광객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관리원들은 ‘정군남이 용단을 내려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에 왔으며 김대중대통령도 어려운 용단을 내려 평양에 오셨고 이에따라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았다”고 밝혔다.

### 북송동포 생사확인 됐으면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켜본 해외교포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남북간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했다. 14일 저녁 일본 오사카(大阪)의 재일교포 모임지회에 위치한 조선 재일교포회 운동장에는 민단과 조총련을 막은하고 교포 약 400명이 모여 축하회를 열었다. 참

# 선글라스... 인민복... 김정일이 뜬다?

### 네티즌 "통크고 대범"한목소리 포스닥선 연일 상한가 행진 패션상가 색안경등 特需 조짐

전국에 '김정일 신드롬'이 돌아오고 있다. 13일 TV수상기를 통해 배양에 가려졌던 김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김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화제인물로 떠올랐다.

또 김 국방위원장의 복장과 선글라스 패션도 유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11일 김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11) 진단체는 "김정일은 한미미로 뽕큰 지도자"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상냥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을 "대범하고 예의바른 정치인"라고 평가한 ID 한소리는 "미리볼 맛내고 종지부를 모을 만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이비 주식시장인 포스닥(www.posdaq.co.kr)에도 김 국방위원장을 연일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개장과 함께 5000주 불량 주문이 몰려 주가는 오후 3시 현재 5만

5220원까지 치솟았다.

시내 주요 상가는 김정일 신드롬에 편승해 인민복과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국방위원장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

두산타워에는 김 국방위원장의 복장과 관련된 주문이 쇄도했다. 최근식 마케팅 차장은 "인민복 색깔인 카키색이 유행을 타고 있다"면서 "이번주내 인민복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여린이 캐릭터 '조선일' '한국화'를 개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티셔츠 1만여장을 무료로 배포했던 테크노마트도 김정일 특수를 맞아 분주했다. 티셔츠 배포용 김 국방위원장의 남한 방문용까지 연장카로 한다고 한다.

서울 신촌 유명 안경점에는 선글라스 주문이 배이상 늘었다. 11일경점은 "윗부분만 검은 색깔을 띠는 '국방위원장 선글라스'가 인기"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에 대해 이회여대 북한연구과정장 장비준영 교수는 "김정일 신드롬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동대 북한학과 정규삼 교수는 "북한은 변화가 없는데 남한만 뜬다"고 우려했다.

정민 이화준기자 mjung@kmb.co.kr



### 실향민들 "TV끼고 살아요" 정상회담장면등 증일 눈 못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문에 온 국민들이 TV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비치 TV중독증 같은 이런 현상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이어졌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있는 2차 정상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쫓겨 기울였다. 이는 실향민들에게 더욱 심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생중계되는 김 국방위원장의 모

습과 평양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업무에 지장을 빚기도 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타미남과 창도역에는 20~30여명의 여행객이 갈갈도 잊은 채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실향민 가족인 회사원 김모씨(34)는 14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TV를 견우 오후 내내 생중계를 시청했다. 아버지가 늘 고향을 얘기한 때문이다.

김씨는 "배양에 가려있던 김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김 국방위원장의 다른 면모에 대한 호기심과 북한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과 현재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심도했다. 민태원기자 twmin@kmb.co.kr

## 북한말·노래도 덩달아 '바람'

### '반갑습니다' 노래방곡 추진 소년단 머리위 인사도 화제

"이제껏 위엄보상이 주세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용운씨(53·서울 중계동)는 초등학교 두 명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잠시 어리둥절했다.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위엄보상이라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후 어느새 북한은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 북한에서 외래어를 손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흥내낸 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북한 말에 관한 수업이 실시한 서울



김대중 대통령에게 손을 처음 인사하는 북한 소년단 소속 여학생 모습. TV촬영

중계동 용동초등학교 오인균 교사는 "아이들이 뜻을 잘 알린 북한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예도를 길그림으로, 앉장을 남작못으로, 주스를 과일 단물 등으로 바꿔 말하곤 한다"고 말했다. 또 평양 소년 소녀예술팀이 서울 공연장시 불렀던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는 이제 휴대전화 벨소리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조수정씨(26·여)는 "음이 밝고 김씨에서 귀

여 잘 들어온다"며 "지주 총일거리다가 이어 휴대전화 벨소리곡 이 노래로 바뀌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노래가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자 대한노래연습장 중앙회에서 "반갑습니다"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북한식 인사법도 화제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던 화동들이 머리위로 손을 올리는 북한 소년단원들의 인사법을 TV화면을 통해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재미있으며 한번씩 따라해보기도 했다.

회사원 김정희씨(28)는 "어제 회사자리에서 부장이 들어오자 모두들 손을 올린 인사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웹다사이너 박정숙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북한 관련 그림을 넣어 달라는 주문이 늘고 있다"며 "김일성 동상이나 평양의 유명 건축물을 묘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 일단 물꼬 텄지만 정치적 결단에 달려

## ③ 이산가족 상봉

1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1,000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교류문제 해결이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전망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알려진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이날 회담 초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북 TV를 통해 실망민들의 눈물을 잘 봤다며 언급하면서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최침조**

두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 양국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상봉사업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 있다.

결국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만큼은 셈이나 북측이

90년대말에 해외 이산가족과의 편지往来와 상봉을 제한적이거나 확대하고 있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남북양국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남북은 지난 28년 4월과 90년 6월~7월 베이징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부각시켰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생사·주소 확인 등을 통해 사진제출을 권유해 상봉 또는 재결합의 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려고 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양국간 해경노력과 병행해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일원이 이날 제공한 「이산가족 교류지원 현황을 보면 생사·주소 확인 해고에 80만원을 지원해는 것외에 ▲생부 180만원 ▲교류자금 40만원 ▲국문포로가족·생존보호대상자·의료보호 대상자 70세 이상 고령자중 강요연금 수급자 2배를 지원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1,030건을 포함, 상봉 362건 등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3.8배, 8.6배로 증가했고 전체실적의 50%, 69%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방문은 지난 28년 1건이 최초 성사된 이후 99년 5건, 올해 1건 등 5월말 현재까지 7건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먼저 이산가족교류에 따르는 제반 절차간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비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범위

###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현황

| 연도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1.5 | 총계     |
|-------|----|-----|-----|-----|-----|-----|-----|-----|-------|-------|--------|--------|
| 신청    | 62 | 275 | 267 | 743 | 651 | 311 | 231 | 761 | 3,726 | 6,847 | 1,062  | 14,937 |
| 생사확인  | 35 | 127 | 132 | 221 | 135 | 104 | 96  | 164 | 377   | 461   | 196    | 2,068  |
| 제3국상봉 | 6  | 11  | 19  | 12  | 11  | 17  | 18  | 61  | 108   | 195   | 67     | 525    |
| 방북상봉  | -  | -   | -   | -   | -   | -   | -   | -   | 1     | 5     | 1      | 7      |

## 금위원장 "실향민 눈물 잘 봤다" 양측 지속적 사업 추진 의지 교류절차 간소화등 과제로

현재 60세 이상에서 이산세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또 이산가족찾기 신청과 접수등 인터넷으로 하는 동시에 현재 74개 항목으로 돼있는 신청서류를 28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산가족 관련 데이터 6만여건을 확보, 현생화를 완료하는 등 이산가족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99년 6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일평균 60여회로 1만9,600여회분 접촉하는 등 99년 6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물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시각이 높다. 남북한은 지난 71년 남북직접자회담을 시작으로 99년 남북차관급회담까지 28년간 이산가족 문제의 진의를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5 전쟁후 북한은 이산가족을 조국을 떠난 참전 용사로서 낙인을 찍은 민간 김 위원장이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지도 의문이다.

/임정욱기자 jryang@sed.co.kr

## 비전향 장기수 표정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15일 국내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인사들은 "이번 합의로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한 통일이 꿈이 열렸다"고 반기면서 북측 두 고은 가족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다.

서울 은평구 갑연동 '만남의 집'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켜본 우용각(72·평북 영변) 씨는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한 기본합의서 등을 믿고도 실행하지 못해 민족에게 큰 아픔을 남겼다"며 "이번만큼은 양측 정상이 만나서 한 선언이니만큼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6동 '만남의 집'에 사는 김석영(87·평양시)씨는 "지난 13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공장에서 열악한 것을 보고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공동성명에 감격스러워했다.

## 출소 北送희망 55명

## 가족상봉 부푼 기대

## "통일 징검다리 될것"

<특별취재팀>

# "색안경 벗자" 북한 바로알기 바람

## 「金正日 쇼크」 확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쇼크'를 겪은 것과 함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어두운 베일속에 가려져 왔던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北실체 뭐냐" 인식 혼란

이는 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을 중심으로 일부층에 한정했던 '북한 바로알기운동'이 주체사상 학습 등 극단적인 사상학습에 검토됐던 양상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사회·문화·정치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안경을 벗고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려는 시민들의 진지한 접근은 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15일 교보문고에는 '50년대의 북핵, 북한 사람들과'와 '김정일의 통일전략'이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 4.5위에 각각 올랐고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김정일'도 4주 연속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다.

'김정일의 생각'이 '결에서 본 김정일'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등도 인기 급상승이다. 인터넷서점 '알리안'에는 지난 13.14일 이틀동안 북한 관련 서적만 70여권의 주문이 쇄도했다.

## 책·영화 보며 진지한 접근

대면서 동구 침남동에서 열릴단체원운영하고있는 최선목(崔善木·72)씨는 "비전향 장기수 같은 워낙 민감한 문제에서 이번 정상회담 때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국한이 곧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너무 기쁘다"고 감격했다.

광주에 사는 김동기(金東基·69·함남 단천)씨는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복송문제는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일에 대한 비전 제시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2월 17명이 풀려난데 이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 '미자막' 장기수였던 남괴간전 신광수(申光秀·71)와 송성모(宋成模·60)씨가 대구와 광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되기 때문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만남의 집'이나 대전 '사랑의 집' 등에서 살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88명중 송환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5명,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만도 12명이나 된다.

<특별취재팀>

북한 관련서적과 영상 음반류 8만여권이 소장돼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35명에 불과했던 이곳 방문객은 4월 2064명, 5월 5489명으로 두달만에 4배 이상 늘었다. 북한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건수도 지난 3월 1만938건에서 5월에는 4만7753건으로 폭증했다.

송승기(宋承基)씨는 "과거에는 대학생이나 관련 학자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찾는다"며 "통일교육을 위해 자료를 찾는 교사와 남북경협 자료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2주 전부터 북한영화들 상영하고 있는 건국대 학생회관은 평소 관람객이 10여명에 불과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40~50명으로 늘었고 통일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홍사단 민족통일연구소, 기독교주교회연합회와 '일민넷' 등 시민단체에도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 시민단체 '통일강좌' 복직

연세대 조혜정(趙惠正·사회학)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 민족이라는 인식과 통일에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갈등적인 사고방식이 공존해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냉전체제에서 생긴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박영출·홍성일·김영민기자>

# 정상회담 '통일수업' 열기

## 초등교실 생방송 시청·토론등 잇따라

만남 55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의 일선 학교에서 '통일수업'을 위한 전교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전북 진주시 송원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13일 각 교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만나는 모습을 TV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학교측은 관련 소감을 글로 적으라는 숙제를 내준 것을 비롯, 이날 밤까지 부록과 대담기 그래픽, 통일운동대과 등의 '통일수업'을 잇따라 펼치기로 했다.

진주 신성초도 이날 각 교실에서 TV를 통해 김대중원의 영양도장 장면을 시청하며 강연에 응화리단 언주악이 교가와 같은 길을 발견하고

이날 따라 부리는 등 가슴 찡찡한 시간을 가졌다.

또 광주시 송원초등학교는 수업중 관련 장면을 시청토록 한 뒤 학년별로 '55년만의 만남' '통일과 정상회담' '우리의 소원' 등의 주제로 가족들의 의견을 장려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숙제를 내줬다.

대구시내와 경북도내 강당수의 중·고교도 김대중원의 역사적인 방북 모습을 각 교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전교생이 시청토록 했다.

특히 경북 봉양교육 지방학교로 지정된 삼수 남장초등학교와 청도 매죽초등학교에서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과제물을 학생들이 제출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교재

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초등학교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TV를 통해 시청토록 하고 학년별로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산남초등학교도 남북정상회담을 교내에서 시청하고 소감을 쓰기 숙제를 냈다.

이 학교 5학년 담임인 김순자 교사(41)는 "많은 아이들이 소감을 통해 '통일'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소풍을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해 이번 정상회담이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 송원초등학교 강인영 교장(60)은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된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삼아있는 수업이 진행됐다"며 "교과서와 다른 학습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북한을 빨리 보고 싶다'는 등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부

### '남북 첫만남' 시청률 7.6%

전국시청률 조사회사인 TNS미디어 코리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0분~11시20분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공항공출발해 평양순안공항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기까지의 평균 시청률이 KBS1 11.1%, MBC 8.7%, SBS 3.1%를 각각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시청률은 평소 이 시간대 방송 3사 평균 시청률이 4.6%(KBS1 3.4%, MBC 4.7%, SBS 5.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여진 것으로 특히 KBS1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시청률은 1년 단위로 분석하면 남북정상

이 약속을 나누는 장면이 방송된 오전 10시37분에는 MBC의 시청률(12.6%)이 KBS1(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NS미디어코리아 관계자는 "월드컵 한국대회의 경우 40% 이상을 차지하던 시청률에 비하면 예상밖의 결과"라며 "평일 오전 출근시간대인 인터넷 방송의 실시간 중계를 차고로는 네티즌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방송 크레디오(www.credo.com)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생중계에 대한 국내외 네티즌들의 접속건수가 총 47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광형기자

## 대한매일

### 金正日 국방위원장 남한TV 즐겨보는듯

한담때 '밤늦게까지 봤다'실로

편지에 KBS등 10개채널 설치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한 TV를 얼마나 볼까. 13일 김 위원장의 딸로 미워보던 그는 남한 TV를 상당히 즐겨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김 위원장은 백희연 명빈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앞서 한담을 나누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남북 TV를 봤

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남한의 MBC와 서울 것 등을 봤다"며 구체적으로 방송사 이름까지 거명했다. 그는 특히 "실정민과 남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 소식을 전할길 수 있지 않나 속을 대운다"라며 자애로 변 TV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그는 13일 1차회담 때에도 김 대통령에게 "오늘 아침 (순안) 비정장에 나가기 전 TV를 봤다"며 TV로 올린 김 대통령을 지켜봤음을 밝혔다. 그는 또 "왜 이북에서는 (정상회담

담보도) TV의 방송에 많이 안나오고 감감하다고 (남측에서 얘기)하는데 친민의 말씀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에게 "TV에서 많이 보셔 잘 알고 있다"고 완연체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편지에 남한의 KBS와 MBC를 포함해 미국 CNN 등 10개채널 채널을 설치, 남한과 서방 세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속기자 bon@daily.com

## 일선 초중고 교육현장 "북한을 뭐라 가르치나"

"초의 시간에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니, 아이들은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B조 P교사·57).

"회담 이후 곧 불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Y초등교 L교사·43).

내북(對北) 교육은 하루 만에 50년을 훌쩍 뛰어넘는 대 변화가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틀째인 14일 교사들과 학생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0군은 "북한 지도자들은 자기 국민을 못살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다"며 "나쁜 사람들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나이는 교사들은 급격한 변화에 난감해지는 모습이 엿보였다. E초등학교 김모(60) 교사는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끔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감(55)은 "북한이 순식간에 태도11 바뀌는 것을 수순 없이 했는데, 만약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가 사대교전과 비슷한 사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하는 노파심에 앞선다"고 했다.

C고 한모(59·교원남) 교사는 "반과 같짓기, 웅변대회 준비도 바빠진 예산의 6월과는 너무 차이가 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옛그제 반공글짓기..." 학생들은 어리둥절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지 어제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생들은 "TV에서 본 김 위원장이 이전보다 낯설게 느껴졌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유연희(15·중3)양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약속하는 걸 보니 김 위원장이 통일에 협력할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정모(15·중3)군은 "비밀 전에 학교에서 '안보 글짓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제 TV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나왔다고"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대균(12·초5)

### "교과서론 설명안돼" 일선 교사들도 난감

젊은 교사들은 친밀한 교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 중학교도 4학년 박모(35) 교사는 "한반도 전체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것이 북한의 통일정책"이라고 시종한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鄭靈鎮기자 sichung@chosun.com /韓在賢기자 rookied@chosun.com /郭鳳儀기자 joywak@chosun.com

# 日 “내달 G8회담서도 전폭적 지지 도출”



## 남북공동선언 각국 반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각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유엔=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한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신기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날 프레드 액하드 유

### 美 “포용 앞세운 김대통령 비전의 결과” 러 “동북아 안정 러시아 이해와도 부합” 유엔 “한반도 평화 향한 전환점 되길”

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간의 새로운 상호 신뢰와 협력 시대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돼 남북한 통일은 물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향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미 정부는 13일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에 고무돼 있다”고 말하고 역사적인 이번 회담이 이 지역의 긴장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조 특히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접촉이자는 논의는 집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는 언급을 피했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감소로 나아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포용을 앞세운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이 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됐으며 그가 북·미·북·일을 비롯한 평양과 다른 나라간의 대화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중요한 단계의 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일본 정부는 14일 김대통

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5개 분야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둔데 대해 한반도 등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일본은 다음달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문서로 표시할 방침이다. 시리아의 고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의 장례식에 특사로 참석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한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이 열렸다”면서 회담의 성과에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 가운데 대북 대화가 가장 늦어져지고 있는데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

◇중국=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에 이어 14일도 이례적으로 빠르고

많은 기사들을 편광과 서울발로 10여 차례나 보도, 회담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민일보, 광명일보, 경제일보, 차이나 데일리, 해방일보 등도 1면 주요기사로 정상회담을 다루었으며 사진도 크게 게재했다.

◇러시아=러시아 외무부는 14일 남북한 정상 5개항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에 남북한의 5개항 협회가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야코베크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분쟁국인 남북한 화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코베크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가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본부·워싱턴·도쿄  
베이징·모스크바=연합



지구촌 전역이 남북정상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정상회담이 8월 자국의 이해 계산에 편주한다. 사진은 장 폴 레오 주한프랑스대사 가운데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 방문용 전송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어머니! 곧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효도 받으셔야죠” 회한의 눈물  
“동생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애타는 심정  
벌써 마음은 고향산천에... 희망 부풀어

## 이산가족 '8·15상봉' 설립

“민식이 조금만 더 살아야... 우리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주석의 합의에 따라 1991년 2사 회담에서 8·15를 즈음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다. 소식에 전례없는 가슴 열매(66)인양 김명진(金明珍)은 30년 동안 수없이 울었다. 그도 아픈 맺힌 세월을 감내할만큼 한미씨에게 김명진(金明珍)이 일인(一人)이 아닌 두 사람이 되니 더 강하게 느껴졌다.

70년 98년 중국 정주에서 동생 김지익(金智翼) (67)이 만난지만 가슴에 맺힌 한국의 정은 서로 다스릴 수 없는 두 세계할 수 없는 가슴에 밀려들었다. 같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있던 김지의 눈물로 뒤덮여진 얼굴, 목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던 민식(69)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도 그 보장이 있는 복된 땅을 고대하던 어머니(77년)와 고국에 한이 개치나리만 일만 다 기쁘고 즐겁게. 한미씨는 하루 3시간씩 4~5회 두 세계할 수 없는 가슴에 밀려들었다.

한미씨는 “남북정상회담 차차 소식을 들은 후 매일 밤을 뜰 정도로 지냈다”면서 “고향 땅도 보고 싶고 나라 정세에 예민해졌던 것 같다”면서도 “가야 마땅한 편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유언했다.

남은 상봉(상봉)에 이바지... 그러나 고국인, 고국인, 어머니를 위한... 김명진(金明珍)은 “민식(69)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김명진(金明珍)은 “민식(69)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쪽 방에서 내려온 김명진(67)도 지난 30년이었던 81년이 누나가 살아있을지, 살아있으면 건강인지 부상을 입었는지 소식을 스스에게 수없이 물으며 하루종일 TV에서 눈 감고 지켜보았다. 김씨는 “두 정상이 개년엔 꼭 만나서 화해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것 같다”며 “어린 시절 나라의 유익한 소식을 알고 친구를 아끼지 않았던 누나에게 따뜻한 편지라도 전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 편에서 고향인 김명진(68)은 “1사 회담 때 남방 나라 민식을 알고 나면 고국에서 먼저 내려왔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는데... 김명진(金明珍)은 “민식(69)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한영준(韓永準) 이북 5도민회 실행인들이 14일 서울 구기동 이북5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한 플래카드를 점검하고 있다. (종합) 김명수기자

## “北의 아내·자식 하루빨리 만났으면”

### 비전향 장기수들도 ‘北출 합의’ 소식에 환호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장기수의 복속이 사실상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남이 함께 모여 시는 서울 봉선동 ‘민남의 집’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비전향 장기수 복속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에 밀려 소홀히 취급됐기 때문에 이남이 느끼는 감동은 더했다. 11일 밤 12시쯤 박준영(朴俊永) 대대변인이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비전향장기수복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들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TV생중계한 지켜보던 비전향 장기수들은 벅찬 감동에 말을 잃었다.

한눈으로 TV를 지켜보던 홍경선씨(76)는 “비북 인생의 전환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후회한 적은 없으며 본안권 조

국의 통일을 위해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홍씨는 지난 67년 남북공작원으로 넘어오다가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31년간의 징역을 살았다. 홍씨는 “북에 남아있는 아내와 3남녀의 자녀를 전액 만날 수 있는 날이 동료들과 고향에 가기로 반갑게 지냈다. 비전향 장기수도 출소에 남는데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102명. 이중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58명이다.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인데다 오랜 수감생활로 지병을 앓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로 복속된 사람은 90년 3월 법정에 간 이인모씨가 유일하다. (종합) 김명수기자



평치산 활동을 하다 지난 63년 김대중(金大中) 소위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씨가 14일 평양에서 TV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종합) 김명수기자

##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씨의 김회

### “다정한 정상학수 통일이 다가온듯...”

“꿈만 같아. 이제 통일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야”

19일 오전 10시3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정면을 바라보던 정순덕(67)씨는 어느새 방에서 눈을 일으켜 TV화면에서 눈물 흘리며 울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주석의 다정한 손길 맞잡고 정씨는 “전직에 한이 있어. 너무 늦은 거야”라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포성이 났을지 10년이 넘도록 유전 사실도 모른 채 지리산을 헤매다 지난 63년에 김대중(金大中)이 ‘마지막 빨치산’.

본년 민식이 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 이뤄지자 본년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아온 5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눈보라에 휘둘러 지리산 이남 모퉁이에서 초리산 천마 앞에서 농지인과 함께 보릿밭에 함께 농작을 하던 13년간의 빨치산 생활. 전주, 대구 등 한국의 고도소도시를 이다하며 1평도 채 안되는, 김명진(金明珍)이 오직 통일의 그날만을 생각하며 살던 23년의 세월.

정씨는 “민식이 함께 서로 지대지마 살아 있지만 이렇게 남북 정상이 다정하게 손잡는 모습을 보니 통일의 그날이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라며 기뻐했다.

50년 가을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산 위의 남관 성곽초대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됐던 정씨는 본년 민세기의 상흔을 온몸에 지닌 채 인연사처럼 한방방의 병상에 누워 었지만 남북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수발이 없었다. 63년 김명진(金明珍)이 송신을 입어 오던 날 다리를 걸었다. 98년 3월 50살 혈로 쓰러진 뒤에는 전혀 팔다리가 모두 마비됐던 것이다.

정씨는 “그래도 나는 편찮아. 몸은 불편해도 이렇게 한이서 감격스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며 “본년 한미회담이 개년엔 새삼을 떠난 정상회담을 볼까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산가족들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김명수기자



### ‘평양 60만 환영인파’... 어떻게 모였을까

#### 지역책임자들이 주민 조직적 동원 웃차립부터 행동요령까지 세밀하게 지도 손에 든 꽃은 진달래모양 본뜬 조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연도를 가득 메우고 연호했던 60만 평양시민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평양인구를 감안할 때 60만 인파는 군중 동원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동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풍경인 파가 온통 꽃은 어디서 구했을까. 남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인사 방문 등 중요한 행사 때마다 지역책임자들의 구역을 맡아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다. 공황에는 출신성분이 확실하고 용모가

순수한 사람들을 골라 배치하고 연도에 늘어난 주민들은 구역을 나눠 우리의 통변장 격인 지역책임자들이 인솔한다. 한경나은 여성들 사이로 보이던 젊은 양복입은 사람들이 지역책임자로 이들은 주민들의 웃차립에서부터 행동요령까지 세밀하게 지도한다. 김일성 주석 생전 8-15 경축행사 때 일어난 비호 한포막을 보면 지역책임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사절하던 인민군 대열 마지막에 시골농민들이 뒤따랐는데 김주익을 처음 본 일부 농민들이 감

격한 나머지 심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세포(당)위원장은 대열이 흐트러진 책임을 물어 인솔책임자를 직위해제했으나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김주익은 화를 내면서 “농민들이 없거나 나뭇 보고 싶으면 그런건노나”고 호통친 뒤 위원장을 직위해제했다는 것. 이와 함께 평양시민들이 두 손에 들었던 꽃은 진달래 모양을 본뜬 조화라고 양복자들은 말한다. 김주익이 진달래꽃 색깔을 좋아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행사 때마다 갖고 나오도록 각 가정에서 나눠준 것이라는 것. 남북자들은 또 연도에 주로 여자들만 보였던 것은 남자들의 옷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자들은 한복차림으로 나오면 되지만 남자들은 초라한 웃차림이어서 뒷편에 서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석필기자 schroh@kmbn.co.kr

### 경향신문 2000. 6. 15 (목)

### 東亞日報 2000. 6. 15 (목)

### “사할린 부모님 눈물이 보이는데”

#### 러동포 3세 특파원 이리나 유 역사의 현장 동참하게 돼 고맙고 흥분 통일되면 해외동포 잊지말고 챙겨야



할아버지와 경남 마산 출신의 할머니, 그리고 정용 현인 2세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원’이라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통일조국의 모습을 예감한 이리나, 그는 14일 밤 늦게도 전화기를 통해 남북 정상이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다.

이리나는 “이 감격은 한반도 안의 7천만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것이기도 하다”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게 돼 너무 고맙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TBA 한국지사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리나는 원래 러시아에서 조그만 컴퓨터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던 경영자. 1997년 말 한국에 1주일간 출장나올 기회를 얻어 조국땅을 밟아본 뒤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조국땅이 나쁜 부런다는 표현이 맞은는지,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밥값이 많이 든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TBA에서 서울특파원을 구한다고 해주셔야 신청할 수 있지요”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지를 강조한 이리나는 “통일만 되면 해외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기뻐할 텐데...”라며 “꿈같이 되면 동포들을 꼭 챙겨달라”는 당부할 잊지 않았다.

최민영기자 mye@kuryoung.com

“남북의 두 정상이 순안공항에서 손을 맞잡을 때 주립진 밥 사이로 허영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가족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 솟아났습니다” 지난 13일 내·외산 기자들로 북적대는 서울 롯데호텔의 프레스센터 러시아방송국(TBA) 부스에서 일시간으로 화면을 전송하던 서울특파원 이리나 유(29·여·사진)는 목이 쪼다. 붉어진 눈가의 물기를 애써 닦으며 이리나는 곧바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로 직행할 것이다. 누구보다 부모님과 아직 살아 계시는 할머니께서 이 장면을 배우고대 해주기 때문이다. 재러 한국인 3세, 일제시대 정음으로 즐겨가 사할린에 정착한 제주도 출신의

#### 횡설수설

#### 빨치산 李鉉相의 딸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등장한 북한측 인사들 중 두 명의 여성이 관심을 끈다. 한 사람은 해방 직후 간국순비위장이었던 여운형(呂運亨)의 딸 여진구(呂麟九)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이다. 여진구부장은 언니 연구(麟九)씨가 작고한 뒤 그 직위를 물려받은 모양이다. 여운형의 딸들은 전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리산 빨치산대장으로 유명한 이현상(李鉉相)의 딸 상진씨가 만수대의사당 부총장이라는 사실은 처음 공개됐다. 상진씨는 옛그제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 임종을 안내했다.

▷이현상은 노동자나 소작농과는 거리가 먼 중농 이상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부친과 두 형이 당시 전북(현재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면장 등을 지낸 만큼 지방 유지였다. 고참고보통 거쳐 중앙고보로 전학한 그는 1925년 조선공산당 항법에 참여했으며 보성전문 법과에 들어가던 뒤 공산당 산하 고려공산청년회 간부로 활동했다. 이때부터 그는 박헌영(朴憲永) 이상룡(李三龍) 이승엽(李承燾) 등 토착공산주의 세력의 핵심권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방 후 북한정권을 세운 이른바 해외파 공산주의자들과 정통성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다.

▷해방 후 일제 감옥에서 나온 공산주의자 집단 ‘경성 콰 그룹’이 조선공산당유 재건할 때도 이현상은 간부로

참여했다. 그러나 미군정 아래서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박헌영 등 남로당계가 북한으로 파신해 가자 그도 따라서 원북했다가 지리산으로 잠입했다. 이때 김일성 당시 북한 수장은 그에게 희망 사장을 붙였다. 그는 “남매의 앞날을 부탁한다”고 대답했다. 그 후 김일성과 김정일이 4남매를 성심껏 보살폈다고 북한 ‘노동신문’은 두어 차례 보도했다.

▷다큐멘터리 소설 ‘남북’의 저자 이래(李泰)는 이현상과 그의 부하들에 대해 “가장 완강한 투쟁을 했으면서도 북한 정권에 의해 버림받은 비운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북측은 지리산에 남은 이현상과 200~300명의 빨치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리산은 다시 수많은 인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장일 수밖에 없었다. 이현상은 6·25전쟁도 휴전된 뒤인 53년 9월 지리산에서 트로브대에 의해 최후를 마쳤다.

(김재홍 논설위원) nieman@donga.com



한마당

김위원장의 화려한 데뷔

14일 아침 국내 신문들은 1면 전체 혹은 대부분을 할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다. 다만 지면도 대부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사로 채우면서 김위원장의 과거적인業績과 거침없는 말투, 남북한 주민들의 환호와 덩그러니 반응은 상대적으로 소거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나 주요 뉴스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TV로 생중계할 공화국 남북회담 소식에서 나타난 김위원장의 언행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종전 북한이 제작한 단정적인 영상물을 통해 김위원장의 모습을 보였던 김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러없이 성장한 면모를 드러내 국내외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것이다. 국내 언론은 배급을 벗어난 김위원장의 활달하고 자신에 찬 모습을 '충격적'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했으며 외신들은 '가장 눈부신 외출'(프랑스 르몽드지), '신뢰구속의 재1보'(일본 NHK방송), '화해를 향한 역사적 노정'(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이라는 말로 김위원장의 동향-언행을 평가했다. 그동안 개방과 친화성을 끌어온 김위원장이 세계 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입식 반공교육을 통해 주민

을 억압하고 황적하게 통제된 북한사회와 융합할 북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위원장의 언행과 평가가 몹시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유형과 예민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김위원장의 스타일이나 말투를 모방하는 '김정일 신드롬'이라고 일컫는 열풍이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미국 무기상의 로버트스틴먼 린다 김이 한때 언론의 자주 모으러다자 그녀가 썼던 연필명이 '린다 김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할 정도로 김이 보면 공연한 격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신드롬이 지지 주권공제 대한 숭배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란과 우려는 그동안 왜곡된 정보전달과 심호비방전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정도가 무엇이며 정부와 권력자 의한 정보왜곡, 간섭이 가져오는 피해가 어찌할지 사사 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던진 충격은 앞으로 북한 심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야, 이해하는 일이 상호교류와 평화공존, 통일의 단계로 가는 첫번째 길목이라는 사실을 입증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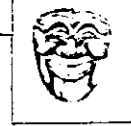
이번 기회에 세계 외교무대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한 김위원장의 계도 기량 나인 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북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큰 정치(공공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김성기는실위원 kimsongk@kmb.co.kr

설왕설래

지리산 법치산대장 이현상 李顯相, 탁월한 계림과 전략가였던 그는 1966년 중남 금산군(당시는 전북) 군북면 외부리의 부농집안에서 태어나 한창시절 사회주의에 심취, 반일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제하에서 12년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이후 남로당의 간부를 지내다가 48년 당의 결정에 따라 지리산에 입산하게 된다. 53년 9월18일 지리산 빗집골에서 토벌대의 집중사격을 받아 사살되기까지 5년간 그는 지리산 남부군의 총사령관이였다.

법치산의 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김일성총대위 경제학부의 같은 학급에서 수학한 동기생으로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뜻하지 않게 '법치산의 딸'의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지리산 회암사 입구에 자리한 토벌대장 차일혁 총경의 공적 비문이 머리류 스친다. "이제 해린(解離)의 때가 무르익었으니 천하의 영봉 지리산을 생사의 터로 삼아 동쪽 산간의 피어린 원한을 풀어..."로 시작되는 비문은 우리에게

게 더이상 남북대립으로 인한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절규나 다름없다. 법치산 토벌에 그야말로 '진실적 공적'을 세운 차총경조차 그의 아들이 발표한 유필 수기에서 "그때 있었던 온일(溫日)은 오늘날 변함없이 흐르는 삼진강 물에 흘러 보내자"는 말로 민족의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 그려진 화애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 그리기를 기대한다.

“남한통치자를 대통령이라 불러주다니...”

귀순자 김성민씨가 보는 정상회담

평양시민들 호칭변화 '주목'... 변화징후로 봐수도

김정일위원장 모습선 입지 굳힌 자신감 엿보여

지난해 2월 귀순한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 김성민씨(38·사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양 시민들이 남한 통치자를 대통령으로 불렀다는 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군 예술선전대 극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그는 14일 "북한이 인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란 호칭을 허용한 이상 다시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3일 정상회담 TV방송을 녹화해 밤새 되풀이해서 봤다"면서도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그치지 않

게 보지 않았다. 인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4년간 살았던 평양과 방송에 비친 평양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는 것. 거기에 나온 평양 시민들은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동원된 모습이 역력했고 평양에서 연주된 조선인민군가 가사도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 부수자'는 내용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을 향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는 "김정일 주석 사망 후 처음 인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완 항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에 대



해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는 자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망 직후 수직하던 모습과 달리 선전용 군사영화 등장했을 때처럼 단정했고 사람같아 보였다. 두드러진 웃음도 되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김위원장은 베일에 싸여 있어야 신비로워진다는 걸 잘 안다"며 "이번 회담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했다고 보는 건 맞지 않고 곧 다시 베일 속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통령에 대한 과거적 예우에 대해선 세계적 관심을 끌어 북한 주민에게 현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회담 진행 과정에서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활거져 나올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러나 김씨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인 명예부대(중요 행사 시 외전 담당 부대)가 김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겠다는 건 믿기 어려울만큼 놀라운 진전"이라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원전자 wita@kmb.co.kr

경북대 '통일융합' 추진 김순권박사팀 후원 8월 발족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경북대 총학생회(회장 김상화·22·고교인류학교)가 올 여름방학 때 북한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총학생회는 "통일융합"을 오는 8월 중순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통일부에 남북정상회담 내 승인받은 뒤 판문점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 대학관계자들과 실무회담을 가진 뒤 구체적인 통일융합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특히 남북 육수수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민과 김순권 교수와 대학측,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후원하여 통일융합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 여부, 북한의 수용 여부 등 변수가 많아 아직 실현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김재삼기자 jsk@kmb.co.kr

# 8월 離散 상봉등 5개항 합의

- ①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② 연합·연방제 통일 지향
- ③ 이산가족 8·15 교환방문
- ④ 경제·문화등 교류 활성화
- ⑤ 조속한 당국 대화 개최

南北정상, 어제 2차 단독회담  
 金위원장 "적절한 시기 서울 답訪"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백회관 영빈관에서 2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원래 8·15 광복절에 즈음해 이산가족을 왕래시키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答訪)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밤 11시 30분 백회관 영빈관에서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의 연합체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산가족 왕래와 관련,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북단을 교환한다"는 데 합의하고 비비김장 정기수 분세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어 "경제협력용 통폐쇄된 국경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언은 이어 "김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장중희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철(朴正哲)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서자 2시간20분만인 오후 5시 20분에 1차 정회한 뒤, 6시 15분에 다시 시작된 정상회담은 45분만인 6시 40분에 끝났다"면서 "남북 대표단이 합의문을 작성해 두 정상의 검토를 거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서 종전 50년 동안을 통해 "두 정상은 남북간 모든 문제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접근을 다짐하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합의담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측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측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등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단독회담에는 남측에서 안동원(安東源) 대통령 특별보좌관, 황원덕(黃源德)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북측에선 김용순(金容淳) 이대평화위원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시점에서 공식명담을 갖고,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용 토대로 한 교류·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합의한 내용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논의해 합의할 이뤄내자"면서 "남북간에 많은 대화들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한·미·일간의 대북 공조는 우리의 자주문제와 관계있는 것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며 남측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대통령은 "3국 공조는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윈-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결코 북한을 배급해 가자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교류·협력용 방해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김 대통령은 "현재 남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국회에 개정이안도 제출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 중앙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金대통령 오늘 항공편 귀환

평양에 체류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일행은 방북일정을 마친 15일 당초 관공정을 통한 육로귀환 계획을 바꾼 이후 오후 항공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평양 방문에 이용했던 전용기편 타고 돌아온다. 특별수색원

과 기자단의 경우 방북 때에는 아시아나 전세기편 이용했으나, 돌아올 때에는 대한항공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5일 오전 중으로 B-777 400기종 1대용 평양 순안공항으로 출발시킨 계획이다.

● 2기류무기단 14일 10시 30분

## 한국일보

2000. 6. 15 (목)



평양지하철 탑승 이한재서경장관 박지민문화부장관 등 남측 수반단원들이 14일 오후 평양 지하철을 타고 보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악수사진등 北도 '대문짝'

노동신문·민주조선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인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자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상봉'과 '회담'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은 전체 6개면 중 4개면을 남북정상회담 기사로 채우는 등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하며 시애틀에서 전날 TV와 라디오가 오후 5시부터 정규뉴스, 특별보도 등을 통해 다른 것보다 큰 비중이다.

두 신문은 1면에서 두 정상이 순안공항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가로 20cm, 세로 25cm 크기로 가장 크게 실었고 평양시민의 환영 모습과 김대통령의 김위원장과의 박수환 반영연서 군중에서 손을 흔들는 사진도 거처했다. 노동신문은 2, 3면을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함께 인민군을 사열하는



남북 정상이 13일 순안공항에서 만나 굳게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을 기사와 함께 1면에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 /TV촬영

모습, 두 정상의 기념사진등을 단아 회보로 제작, 눈길을 끌었다.

두 신문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북대표단 평양 도착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위대한 협동자 김정일동지께서 6월13일 평양비정중계 나가시어 김대중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었다"고 소개했다. 두 신문은 김대통령이 서경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으나 내용은 실지 않았다.

/이동국기자 east@nk.co.kr

##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에 힘써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 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 남북경협기본법 마련    | 2면  |
| 정상회담 대화록      | 3면  |
| 4개부문 의제별 분석   | 4면  |
| 이모저모          | 5면  |
| 남북합의 전문가 분석   | 6면  |
| 북한전문가 평양 좌담   | 8면  |
| 화보            | 9면  |
| 각국 반응         | 10면 |
| 금융권 남북경협 대비책  | 11면 |
| 북한의 전자·정보 혁명  | 13면 |
| 달라진 북한언론 보도태도 | 25면 |
| 프레스센터 이모저모    | 26면 |
| 각계 반응         | 27면 |
| 북한호적 전산화 추진   | 32면 |

### 남북 국회회담 재개 논의

#### 인민공전서 분야별 간담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중인 특별수행원들은 14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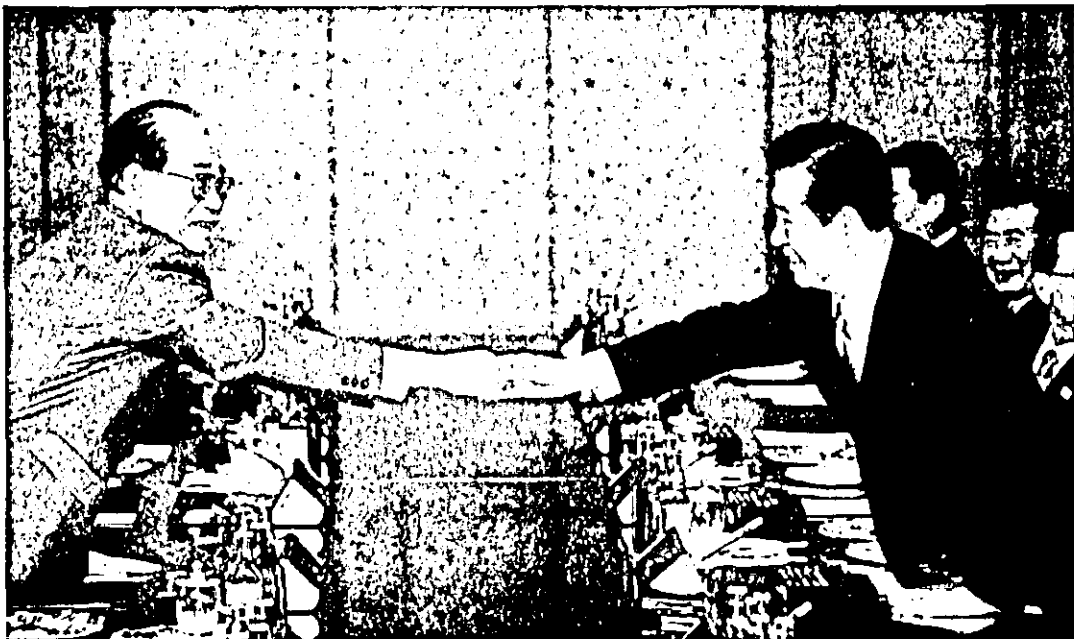
장당·사회단체, 경제, 여성분야로 나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와 남북국회회담 재개,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동시입장 등 각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장당·사회단체분야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의 재개를 요청했다.

경제분야 협상에서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이종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통령 부인 이희호(李熙鎬) 여사가 참석한 여성분야 간담회에서는 정산대 문제에 대한 남북 여성계의 공동 대응 방안과 다음달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민족 여성한마당대회' 준비집속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공식면담 와수 14일 오전 민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남북 공식면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양 청와대사진기자단

### 서울 온다면 언제쯤

평양 순안공항 영접 등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과 14일 2차 단독회담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13일 서울공항에서의 방북 출발 인사말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金正日위원장 답방 시기선택의 문제로

실무직업을 총괄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도 방북 전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통령이 적극적인 초청 의사를 보였을 경우 김 국방위원장이 이달 딱 잘라 거절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답방 시기다.

현재 중국 외교가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내에 방문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그러나 만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합의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라는 식으로 원본적인 표현만 쓰고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이 대내외에 개방을 공식 선언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북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김상연기자

## 철도복원등 SOC투자 구체 논의

### 경제등 다방면 교류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문제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강력한 '동력 토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협력 문제는 지역으로 완전히 복구되기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으로 볼 때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현안이란 인식이 강하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1차 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

대한 대답을 해야하고 대답을 주는 사안에 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기여해 달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방북단에 이현재(李憲宰) 재경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물론, 경제단체, 기업대표들이 대거 포함된 집운 김인하 면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의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민간차원으로 북한내에 경제협력용 당국 차원에서 제도화, 안정화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

분이다.

이달 위해 당장 시급한 투자보장협정과 아종과세방지협정, 분쟁해결절차 문제 등이 정상회담 이후 실무진 차원에서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문제 역시 구체적 진전이 예상된다. 경의선 복원문제와 도로 건설 등이 1순위로 떠오른다. 공장 가동용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 문제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방북단의 기업 대표들은 막후에서 북한 경제전문가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시애한 대규모 공단 건설과 관광자원 개발 문제 등 향후 남북경협의 '밑그림'을 완성할 것이라 추측도 나온다.

●오일만기자



## 남북 이틀째 이모저모

평양 방문 이틀째인 14일 김대중(金大) 대통령은 오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통일의 초석(礎石)을 다졌다. 우리측 대표단도 북측 관계자와 분야별로 회담을 갖고 교류를 다진했다.

### 김대통령 일정

●**합의도를**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양측 수행원들은 회담장 밖에서 초조하게 회담 경과를 기다렸다.

수행중인 박준영(朴準榮) 청와대 대변인은 "간혹 김국방위원장이 웅변조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뭔가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2시간이상 미리문으로 진행되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의를 받아들여 오후 5시20분쯤 휴식에 들어갔다. 6시 5분쯤 회담을 속개했다. 이들은 휴식을 취한 뒤 회담장으로 향하다 입구 복도에서 마주쳤다. 복도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김국방위원장이 먼저 김대통령을 보고 "편히 쉬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네자 김대통령도 "잘 쉬셨습니까"라고 회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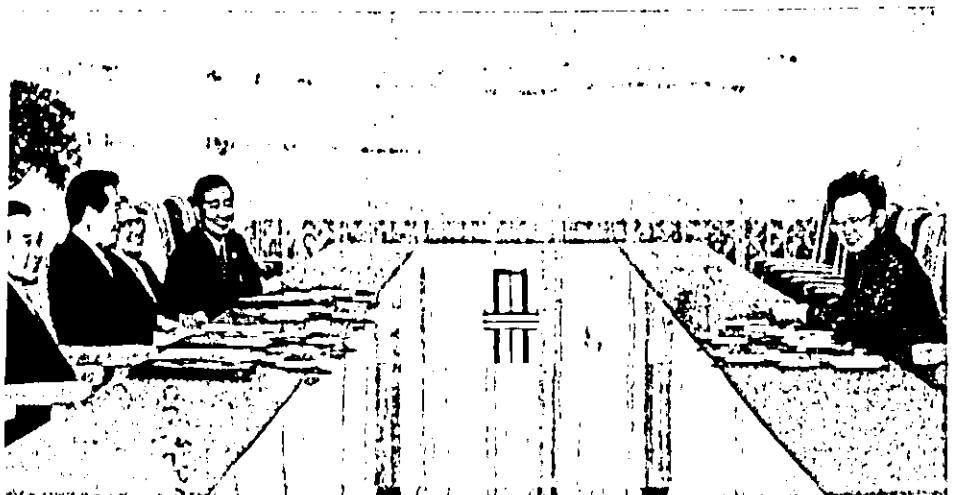
### 회담장 가면서도 대화

두 정상은 휴식시간 동안 정리된 생각이 많은 탓인지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대화를 계속했다고 박대변인은 전했다.

오후 6시5분쯤 속개된 2차 정상회담은 45분 만인 6시50분에 끝났다. 박 대변인은 "남북 대표단은 합의내용을 정리해 작성하고 있으며, 정리된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 두 정상은 1차 정상회담때와 마찬가지로 김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은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담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2시 45분쯤부터 남측 배석자인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



외제 협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외제를 협의하고 있다.

●평양 협의대사진기자단

## 두정상 만남 2시간 넘어서자 '반짝 휴식' 金위원장·李여사 '개성·서울각쟁이' 농담 李여사 떨어져 앉자 "이산가족 되시겠네요"

과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등이 속속 김대통령이 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최종 집결'을 마쳤다.

김대통령은 2시56분쯤 우리측 공식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현관 앞 카페 중앙에 들어섰고 이곳에서 김국방위원장을 기다리는 약 1분동안 임동원(林東源)특보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끝이어서 닫혀 있던 현관문이 열리면서 김국방위원장이 먼저 들어섰고 김용순(金容淳)아태위원장 등이 뒤를 따랐다. 회색 인민복 차림의 김국방위원장은 들어서자마자 무렵찬 북소리로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도 그의 모든 행동이나 표정은 전날 첫 만남때와 마찬가지로 거침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준 뒤 복도를 따라 20여m를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주로 김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이 편하게 쉬었는지를 묻는 얘기였다.

의자에 앉은 김국방위원장은 다시 큰 북소리로 "오늘 원장이 아침부터 긴장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간담과 이날 오전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여전히 차분한 북소리로 인사말을 받았다.

●**민찬** 우리측의 초청으로 평양 모란각에서

열린 만찬에는 남북 대표들이 어우러져 마지막 밥을 보냈다.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은 주안산과 분배주 등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는 등 시종 회기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국방위원장은 대통령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자신과 김대통령 사이에 앙도록 권한뒤 "여기에 와서 이산가족을 만들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대통령이 이산가족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라고 말해 웃음이 터져 나왔다.

### 만찬장 시종 화기애애

그는 또 이여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개성음식은 요만하다"면서 "그래서 개성 짝쟁이란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여사는 "서울 짝쟁이란 말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북측의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남시다"라고 김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국방위원장은 "금강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막았다"고 자랑했다.



## 5개항 합의 전문가 분석

14일 남북정상들의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반도 내전 재발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불모지였다라는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린 반면 "합의 자체가 포괄적이라 집권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



● **김태연(金台淵) 동국대 교수** 90년대 남북기본 합의서에 거론됐던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실현적인 의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를 추월하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마지막인 문제 접근 방식 등으로 미뤄볼 때 과거 합의서의 수준보다 훨씬

그러나 남북정상이 합의한 5개항은 내용면에서 보면 너무나 '보편적'이며 구성성이 결여됐다. 앞으로 이걸 실현하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남북이 합의한 내분과 비교해 내용도 이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명기, 합의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측의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앞으로 남북 합의사항을 실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 하리라 본다.



● **김재환(金載煥) 한림대 교수**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지난 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비교할 때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서 다소 발전된 형태라고 본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 문 도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남북 양측의 광복목표라는 것을 재강화한 것이었다. 특히 건강권회복과 평화정착의 경우 지난 합의서가 소극적 의미의 부려줄듯한 행태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평화목표를 위한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교류협력의 전 부문이었던 것을 별도로 화제로 취급했다. 그동안 이산가족은 재일 교민 처리와 북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입증한 다. 상호 접촉이 전무했던 과거에는 교류협력에 선



14일 백화일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중앙 황외대 사진기자단

## "과거의 합의서 수준 훨씬 뛰어넘어" "내용 포괄적... 시행과정 논란 소지"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과 박정희는 남북간 화해와 통일을 몇 번이나 시도해 왔다. 다른 분단 국가의 경우 긴장 분쇄만 얻는 수준이다. 남북은 전쟁을 겪은 나라이며 민간 평화분쟁을 근본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의제로 합의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의 상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기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다. 남북 양측의 대·대 남북 관계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경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은 이번 합의에서 이행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체와 기본 문제들이 이번 합의 처리되면 지금까지는 남북이 대립적으로 진행돼 남북한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되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다.

●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차관** 전제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자면 50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난다는 상징적 의미와 외형적으로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시켰다는 점을 참고 싶다.

향후 남북관계 사업은 진행하는데 직적 많은 자원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식 의미에 그쳤던 반면 경제협력 등 남북간 민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선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김지성(金濟宗)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 한실장** 두 정상의 합의는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경제통합 이견단체인 경제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수송분야에서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없는 해결하고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전도 여력이야 명실상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종과제제일합 같은 남북간 협력제도도 마련하면서 우리 내부의 많은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벽갑하고 이종으로 돼 있는 사업자승인 방식도 고쳐야 한다. 내국 투자는 그동안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체의 판단과 수익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북한에 동년 진출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

북한 특수성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북 정협은 돈을 벌는 것보다는 북한 경제개선에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 귀환시간 쪼개 "할말 더 하자"

### 방북단 항공기로 오는 까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우리 대표단 일행이 '반공진을 통한 육로 귀환'이라는 당초 계획을 수정, 항공기편으로 서울에 돌아오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

장부 관계자는 14일 "김 대통령의 병영 체류 마지막 날인 15일 안쪽이 추가로 논의할 시간이 많이 촉박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며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육로 대신 항공편으로 귀환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김대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한차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는 편이 2~3시간 걸리는데 비해 항공기로는 1시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얘기도. 대표단 방북 전부터 2~3시간의 임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측이 방북전 합의과정에서

이미 항공편 귀환을 합의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굳이 1~2시간을 절약하느라 특수 수송선이 고동한 얘기를 고육지책을 애쓰며 "남북 정상회담 재연장한 정상을 뽐기용으로 만들겠느냐"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요를 요하는 항공편 귀환을 허부선에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여전히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특히 기자회견과 특별수송선 등을 대우고 올 항공기가 아시안이나 아닌 대한항공 비행기라는 점이 설득력을 더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방북전에 앞서 '할 때는 아시안, 할 때는 대한항공'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다"고 전했다.

민원 김 대통령의 항공편 귀환에 일부러 밝히지 않았던 것은 북한측의 이유일 가능성이 많다. 김 대통령의 방북 출발이 하루 연기된 것에도 일맥상통한다. 이외 함께 우리측이 북측의 입장을 배려해온 것일 수도 있다. 자동차로 귀환할 경우 북한 동호의 모습이 시시콜콜하게 남측 언론의 카메라에 담길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 **김성연기자 carlos@kdsb.com**



# 평화·협력의 새시대 '활짝' ... 역사적 이정표



## 2차 단독회담 4개항 합의내용 뭉개

55년간의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역사적인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남북 정상간 합의문이 채택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2차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4개항은 ▲남북간 화해와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등이다. 두 정상은 21세기 남북 '공존공영(共存共榮)'을 목표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살려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두 정상의 4개 합의내용과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의제별로 알아본다.

## “무력 불사용”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

### ■ 긴장완화·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다. 55년간의 한반도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남북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은 이미 13일 '송암차 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남북 통일까지 '1국 2체제' 형식의 평화공존을 통해 공동번영이란 민족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담임성에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포함,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이질 위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의 재가동 문제도 김숙이 토의했다는 후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거론된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8일 도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전달, 실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임을 지적한 뒤 "북한의 경제회생과 대외개방을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김 대통령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권유했을 것이라 관측이다.

이에 대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향후 "북·미 미사일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원본적 입장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서 분위기 조성 문제도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오일민기자 oimn@kdaily.com

## 관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우선 고려

### ■ 화해와 통일

평양 방문 이틀째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화해와 통일'에 대한 합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정상이 이산가족문제와 경제협력 등 각종 의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경

우 그것을 구체화한 부문별 양측 실무집단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당국간 대화채널을 임시적이 아니라 상설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화 상시화는 남북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측의 집단이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은 관문점에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한다면 통일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게 된다. 공동위 설치에 합의될 경우 김현 등을 다룰 경제공동위나 이산가족 문제 등 다수는 사회문화공동위가 최우선적으로 가동될 공산이 크다.

한쪽에서는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常駐)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라 기대적인 전망도 나온다. 상주 대표부는 대사관이나 답없는 시설로, 사실상 평화체제로 본격 진입하는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김성연기자 carlos@kdaily.com

## 인도적 접근 공감대... 상봉 실마리

### ■ 이산가족 문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한 실마리가 풀렸다.

김정일 위원장은 14일 김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남한의 TV를 보니 실랑이더라는 남북자들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뻗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하더라"고 말했다.

적어도 김 위원장이 남측에서 이산가족 문제 잘 알거나 간접히 원하는가설 알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심장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현재 남북의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자"라면서 "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반드시 부모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김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제안에 동감하고 양측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의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통일선진 담당비서가 접촉,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양측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측 특별수행원에는 이산가족 문제 담당자는 대한적십자사 박기철(朴基植) 사무총장과 장치혁(張致赫) 고압그드 회장 등 북한에 이산가족을 돕기 위한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도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협의했다. ●이도윤기자 dawn@kdaily.com

# '통일의 물꼬' 이보다 더 기쁜일이...



## '합의 서명' 각계 표정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5일 이산가족 상봉 등 6개항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밤 늦게까지 TV를 통해 속속 전해지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접하며 설렘으로 밤을 새웠다.

답북자 정남(鄭南·28·연세대 신방과 1년)씨는 "TV를 통해 평양 거리와 사람들의 보나 활짝 웃음이 쏟아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만 해도 정상회담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

실향민들 "北가족 만날수 있을까" 뜯는 밤샘  
 "통일되면 세금 더 내는것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남북교류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서 추진해야

인 성과까지 나와 감격스럽기 이틀 데 없다"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제일슈퍼 주인 김봉재(金鳳宰·58·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5개항 합의 소식을 들으니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통일만 된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남북 정상이 5개항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통일의 기쁨을 닮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흥분했다.

상지대 김정란(金正蘭·여·시인)교수는 "남북이 합의한 5개항은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포츠 합참니스트 고두현(高斗煥·65)씨는 "사상과 체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문화·스포츠 교류가 우선 확대돼야 한다"면서 "특히 축구·탁구 등의 종목에서 국제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한다면 성적 향상은 물론,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나춘호(羅春浩)씨는 "남북한 사이에 놓여있던 큰 걸림돌이 해소된 듯한 느낌이며 앞으로 남북간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며, 특히 기술·농업을 비롯한 전문 분야 서적이나 공연 등 이념 문제가 적은 부문부터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봉천이 고향인 실향민 김덕환(金德煥·66·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씨는 "남북 정상이 머리맡 맞대고 민족화해를 논의하는 장면을 50여년



14일 전남 진도군 군내면 안농리에 사는 실향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TV로 시청하다 양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있다. ●진도평

동안 기다렸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을 보고 한핏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에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누이들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고향마을로 뛰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월드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무용(李武容·33·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는 "서울에 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다려

진다"면서 "평양에서도 월드컵이 열려 체육 병면의 물꼬가 우선 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중·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의 교류도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우 이창구기자  
 ywchun@kdaily.com

英 디 타임스가 본 兩정상 패션

# “레이건과 엘비스의 만남”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첫 만남은 '외교패션 역사상 하나의 사건'이라고 일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본사 특약)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두 정상 이 첫 만남을 했을 때 관한 미소와 박수로 서로의 만남을 축하하는 등 한 마음이 됐으나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을 보면 두 정상간의 패션 취향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헤어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레이건 양배추 인형'과 '2000년형 레이건'의 만남. 턱수복한 김대중이 스타일의 김위원장과 시구의 명분 사립학교 학생처럼 단정하게 빗어 넣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한 김대통령을 비교했다.

또 타임스는 오랜 기간 서방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위원장의 의상을 70년대 복고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다. 카스트 로를 연상케 하는 무바식 구두, 무릎 밑으



단정한 머리 양복·구두 국가원수 타임



퐁넛은 바지 지퍼달린 상의 70년대 복고풍

로 퐁이 넘어지는 부트컷 스타일의 바지, 비행기 조종사가 여왕하는 스타일의 선글라스, 지퍼가 달린 상의 등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진체적으로 볼 때는 유격대원 복장을 한 엘비스 프레슬리 풍의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것.

반면 김대통령의 의상은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50년대이나 유행했을 법한 양복과 구두, 여기에 레이건식 헤어스타일을 한 김대통령의 복장은 국가 원수들이 즐겨 입는 극히 평범한 패션이라는 것.

남양 의류 잡지에 등장하는 모델처럼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만난 두 정상. 표범가죽 모자를 쓰고 다녔던 모부부 세세 세코 전 광고민주공화국 내통령 이후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은 두 정상이 처음이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차지원기자) maruduk@donga.com



1983년 5월

1984년 5월



2000년 6월 13일

2000년 6월 14일

## 金위원장 옷 차림새 첫날과 크게 달라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차림새가 14일 크게 달라졌다.

먼저 옷은 진남의 짙은-베이지색, 짙어돗에서 회색 인민복으로 바뀌었다. 인민복은 북한의 정장, 평양 순안공항으로 업적 나갔을 때의 김씨 옷 차림과는 달리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2차 단독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한 예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다. 5

## 인민복에 '김일성 배지' 달아 선글라스 대신 금테안경도

월 말 베이징(北京)을 방문,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인민복을 입었다. 김 위원장은 위의 그레리에서 보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와 일의 성격에 따라 인민복과 짙어돗을 가려 입는다. 또 진남에는 달지 않았던 '김일성 배지'도 이날 인민복 왼쪽 가슴에 달고 나왔다.

안경도 달라졌다. 진남은 얇은 색감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썼으나 이날 오후 백화점인민관 회담장에 나온 김 위원장은 진해 색이 들어가지 않은 합성금테 안경을 끼었다. ● 황성기기자 mery01@kdaily.com

## 회담명칭 싸고 한때 혼선

南, '확대정상회담' 미리 보도 회담뒤 '공식면담'으로 수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측 공식 수행원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측 인사들과 14일 오전 민주내의시당에서 가진 '회담의 명칭'을 둘러싸고 한때 혼선이 벌어졌다. 평양 공동취재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날 회담을 확대정상회담이라고 미리 보도하면서 혼선이 벌어졌다.

결국 평양 공동취재단에서 회담 직후 확대정상회담이 아닌 '확대회담'으로 용어를 수정한다고 알려와 혼선은 일단락 되는가 싶다가 '공식면담'으로 최종 정리됐다. ● 김동현기자

우리는 한민족 문화를  
 운영공동체입니다.  
 평화 교육 협력 242 번째  
 동발호 항해 착안하기 편편  
 해 나갑니다.

2000년 6월 14일  
 대한매일

서용진 김대통령

### 김대통령 만수대 의사당 방문특서명

14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공식 면담을 갖기 앞서 방문목어 통일을 기원하는 글과 서명을 남겼다.

● 평양 함의대사진기자단

### 분야별 간담회

●정당·사회단체 분야 지난 90년 중단된 남북국회회담 재개문제와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팀 동시입장,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남북작가회담 개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문제가 논의됐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남북국회회담 재개론을 요청했다. 김운용(金雲濶) 대한체육회장은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과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팀 참가 등을 요청했다.

정몽준(鄭蒙準) 대한축구협회장은 남북 축구단일팀을 구성, 오는 10월 레바논 아시안컵 대회와 내년 아르헨티나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의했다. 나아가 2002년 월드컵 때 북한의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분야 우리 측에서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구본무(具本武) LG회장, 손길승(孫吉丞) SK회장 등 기업인 10명이 참여했다. 북

측에서는 정운업 민경련 회장과 백세운 조선 컴퓨터회사 총사장 등 7명이 지리했다.

### 경협·위안부문제등 논의

간담회에서 남측은 남북경제공동위 재가동과 투자보장협정·이종과세방지협정·청산결재협정·지적소유권보장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대화창구를 단일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분야 남북 여성계가 정산대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문제와 다음달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민족 여성 한마당대회' 준비 접촉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남측에서는 이 여사의 장상(張尙) 이화여대총장 등이, 북측에서는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인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천연옥 여평위원장, 홍선옥 중군위 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왔다.

●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朝鮮日報

2000. 6. 15 (목)

# “北, 美 미사일 공격 계획없어”

## “러 푸틴 訪北 때 선언 예정 ICBM 기술력 없음도 밝힐 것”

국방장관은 “2005년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sihwang@chosun.com

【모스크바=黃震濼기자】“북한은 7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때 미국을 ‘가까운 장래에’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러시아 크렘린궁에 제출된 한 정보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ICBM)을 개발할 기술을 확보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크렘린궁의 한 고위관리는 “푸틴 대통령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이란 선물을 들고 오거나

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레오니드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 국장은 “푸틴 대통령의 7월 북한과 중국 방문시 최대 의제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협정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13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과 가졌던 모스크바 회담에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미



# 陸·海·空路 연결 '곧 가시화'

## ☐ '통일의 길' 열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할 철도·도로·항공·해운 등 각종 교통망 연결사업이 우선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만찬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

의 연계도 강화,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망 구축 계획도 갖고 있다. 남북한 철도 시설 통합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 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역 발주와 철원~군사분계선 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사업대상 용지 18만3,750㎡(5만5,680평)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남북교통망 연결·복원추진현황

| 철도망           | 노선                    | 단절구간                 | 추진현황                                       |
|---------------|-----------------------|----------------------|--|
| 경의선 (서울~신의주)  | 남측 문산~중단 (12.0km)     | 북측 중단~평북 (8.0km)     | - 실시설계 (86)<br>- 임진강교량 (86)<br>- 용지매입 (97) |
| 경원선 (원산~의주)   | 남측 신대리~군사분계선 (16.2km) | 북측 군사분계선~의주 (14.5km) | - 실시설계 (91)<br>- 용지매입 (97)                 |
| 금강산선 (서울~금강산) | 남측 용암~군사분계선 (24.5km)  | 북측 군사분계선~기성 (50.8km) | - 기본 및 실시설계용 (99)                          |

| 도로망     | 노선  | 단절구간           | 추진현황     |
|---------|-----|----------------|----------|
| 국도 1호선  | 간성  | 관동점까지 2차로 포장완료 | 4차로      |
| 국도 3호선  | 평안  | 연천까지 4차로       | 복중요로     |
| 국도 5호선  | 평강  | 관동까지 2차로 포장    |          |
| 국도 7호선  | 점진  | 북진선까지 2차로      | 설계완료     |
| 국도 31호선 | 반천리 | 관동까지 2차로       | 포장       |
| 국도 43호선 | 진북  | 상봉까지 2차로       | 포장       |
|         |     |                | 까지 4차로   |
|         |     |                | 설계 및 공사  |
|         |     |                | 중간까지 4차로 |
|         |     |                | 포장       |

(자료: 건설교통부)

## 철도 한반도 종단·유라시아 연계 철도망 구축 계획 도로 남측구간 우선 복구뒤 남북 7개축 단계적 복원 항공 김포~순안·원산등 주요 지역 직항로 개설 추진

고, 뱃길을 열고 하늘길도 열어가자"고 운을 떼었다. 이에 대해 북측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한 통일철도를 열어 상호방문이 쉬워졌으면 좋겠다"고 회답. 남북한 교통망의 연결사업이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철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교통망 연결사업이 합의되면 곧바로 건설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 확성을 위해 부산~서울~평양~신의주,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읍 축으로 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일반철도와

의 연계도 강화,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망 구축 계획도 갖고 있다. 남북한 철도 시설 통합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 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역 발주와 철원~군사분계선 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사업대상 용지 18만3,750㎡(5만5,680평)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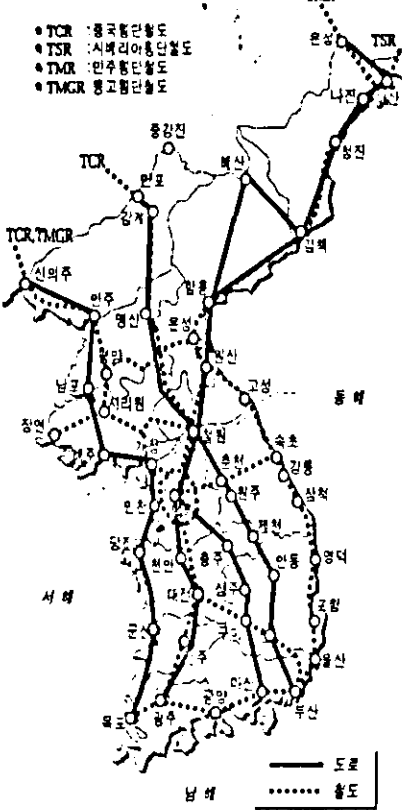
●도로 목표~인천~남포~신의주를 잇는 남북 1축을 비롯, 남북 횡단 7개 축을 중심으로 우선 단절된 국도노선을 남측구간부터 복원한 뒤 북한지역까지 이룰 연장 및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남북 7개 축과 북한의 6개 축을 단계적으로 연결, 남북한 도로망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도 1호선은 단절구간인 관동점~개성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공동경비구역까지 4차로, 관동점까지 2차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다.

●항공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개천·어랑·신의주·청진·원산·선덕·심지연 등)과의 직항로를 개설하고 점차적으로 향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태기자 sung@kdaily.com

남북한 간선도로·철도망 구상 (남북측)



www.kdailynet.com

## “차속 密談 놀랍고 역사적인 일”



남북 정상회담

### 문정인·이종석박사 좌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첫날밤을 평양에서 보낸 남북수령인 중 북한·통일관련 전문가인 문정

### 두 정상 '실사구시 정신'에 큰 기대 '서울 答訪' - 다양한 채널 가동 필요

인(文正仁) 연세대교수,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이 14일 오전 10시 평양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좌담을 나눴다.

●첫날 대화의 의미 "전날 느꼈던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넨 이 둘은 순안비행장에 직접 영접을 나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태도와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에 대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대해 기대를



문정인 교수



이종석 연구실장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교수는 "환영인파에 대한 북한측의 집계는 정부 60만명, 고려호텔 80만명, 백화원영빈관 100만명 등 제각각일 정도로 대규모 환영행렬이었다"면서 "안내인의 말에 따르면 '환영인파가 눈물을 흘린 건 조선역사상 최초' 인만큼 평양시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의사를 표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김위원장이 영접시 상식을 양보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동

승해 1시간 가량 담담을 나눈 것에 대해 "놀랍고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루어졌 일련의 '행위'들이 기존의 적대적인 남북관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분석이다.

●김위원장에 대한 평가 공황영접에서 김위원장이 보여준 '보루담담하고 합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 문교수는 특히 "김대통령의 대



공연학생 격려 김대중 대통령과 이화호여사가 14일 평양 민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 침의대사진기자단

북관련정책 기초에 실사구시(實事求是)정신이 깔려있는데 김위원장의 태도에서도 실사구시를 느낄 수 있어 더욱 기대를 품게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는 김대통령이나 최근 대외경제 개방 등 실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김위원장의 행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2차 정상회담 전망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정상간 첫 만남인 만큼 전반의 '합담'에서 목표의 80% 정도는 달성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실장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합의를 이뤄낸 뒤 남북교류, 경제, 이산가족문제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등을 논의하고 정상회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교수도 "13일 김위원장이 1차회담에서 '전 세계의 공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집실 박복삼기자 ukelvin@kdaily.com

## “한반도에 전쟁 암운 걷히고 있다”



각국 반응

【워싱턴·도쿄·베이징·모스크바 특출호특별원·황성기기자·김규환특파원 15일】 남북한 정상은 5개항 및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합의한 14일 밤 러시아·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곧바로 환영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일본 정부는 1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5개항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둔데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지구촌 유일의 냉전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완화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다음달 오키나와(沖縄)에서 개최되는 G-8(세계 주요 8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할 문서로 표시할 방침이다.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는 합의 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데르 모슈코프 외무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남북한의 5개항 합의가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합의 사실만 알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알렉산데르 아코벤토 외무부 대변인은 본

### 中, “역사적 합의”... 평화정착·통일 지지 日,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안전에 도움

단국인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분광국인 남북한 화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오후 8시12분(한국시간 오후 9시12분) 제국한중앙 단 긴급 영문 기사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평가했

며, 이어 9시7분 더 상세한 긴급 영문 기사에서도 “역사적인 합의서”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8시19분 명량방 긴급 중국어 기사에서는 “남북한이 원칙성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제목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涛) 수석 대변인도 13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

고, 남북한 관계의 진일보한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에 고무돼 있으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조 토크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두 지도자가 직접 만나 논의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김 대통령이 받은 따뜻한 환영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체제 완화 및 북한 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김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직접 모습을 나타낸 것은 희망적인 조짐”이라고 평가한 뒤 “회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 회담은 포용을 앞세운 김 대통령의 비전이 멀거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시내 신문은 매대 앞에서 14일 오후 8시 40분쯤 한 남자가 1원 짜리 공식한 남북정상회담 기사를 진지한 표정으로 읽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관영일보 등 10여개 중국 신문들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60년만의 상봉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공원에서 고교시절 교사였던 김지한씨를 60년만에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 함화대 사진기자단

## 李여사, 86세 은사 만났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李熙嫻) 여사가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공원에서 여고시절 은사인 김지한씨(86·여)를 만났다.

김씨는 이여사가 이화여고에 다니던 시절의 수화 선생님이었으며, 해방직접 남편을 따라 원북했다.

인민문화공원에 별도로 마련된 방

면서 "현재 시골에 살아계시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춘희 선생님이 미국에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웃으며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여사는 "착하신 선생님이요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얘기할 하는 동안 김씨의 딸 최운영씨가 봉두숙에서 60년전 김씨가 이화여고 재직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꺼냈다.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여러 왔던 일제시대를 회상하기도 했다.

김씨는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하고 지난 30년부터 41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 가 해방직전 평양으로 건너왔다. 김씨의 남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계획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60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30년 동안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는지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맛집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이화여고시절 수학선생님 김지한씨

### 30분동안 지난세월 회상하며 '눈시울'

으로 이여사가 들어서자 차마 지고 리립 정갈하게 입고 기다리던 백발의 김씨는 "경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여사도 60년만에 만난 은사의 두 손을 잡고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감기에 걸은 듯 서로 찬이었던 채 한 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이여사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말하자 김씨는 "양반한테까(나를 알아볼 만 합니까)"라고 북한 어투로 말했다.

이여사는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다"

## "남북 평화체제 구축엔 美·日국방정책 딜레마"

### 美 군사전문가들 분석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 도쿄특파원 |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 일본, 미국에겐 큰 골칫거리할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14일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

망의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다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당 교수는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자 중국의 핵억지력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는 주장이다.

### 美 北겨냥 NMD계획 의미 상실 日 '국방력 강화' 설득력 사라져

(National Missile Defence) 계획의 정당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리 하딩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일본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 중지와 북한의 연착륙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범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입장에선 북한 등 '불량국가' 등의 탄도탄 미사일 겨냥에 초점을 맞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개편의 정당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는 원치않는 결과할 부당쓰고리도 미군 철수할 추진할 것인지 여부할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과거 처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여기에 바로 미·일 양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당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남북간 화해로 3만7,000명의 주한미군과 4만7,000명의 주일미군 철수로 귀결될 경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3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유에스에이 투데이지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과장됐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보다 덜 위협적이란 사실을 드러낼 경우 국방정책가들은 미사일 정책추진 속도할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위협으로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y@cdaily.com

## "北의 美위협론 과장됐다"

### 美 한반도 전문가 퀴노네스 주장

로스앤젤레스한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사진)는 13일 북한의 대미(對美) 위협이 과장돼 왔으며, 미국 정치인들과 정권을 지탱하려는 북한인들도 이 위협을 조직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했던 퀴노네스 박사는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또 미국이 지난 3년간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어 미국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북한 정부의 선전이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국제구조기관인 머시코 인터 내셔널(MCI)의 동북아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



### 北의 위협능력 줄었으나 10년간 美선 더 위협 느껴

중인 퀴노네스씨는 "실제 과거 10년간 북한의 대미 위협능력은 감소했으나 미국의 위협 인식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위협적이거나(그 위협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밤 '서명' 낭보에 또 한번 흥분...



프레스센터 이모저모

남북 정상간 첫 만남의 살렘이 채 가지지않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는 늦은밤 평양에서 날아온 '남북공동선언'이란 낭보에 다시한번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오후 7시30분쯤 "남북정상이 4시간여에 걸친 '미라분회담' 끝에 이산가족상봉 등 4개 현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용하던 프레스센터가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찼다.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하던 카메라 기자들은 서둘러 젓가락을 놓고 전세계로 기사를 타전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남북 정상이 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목매어 기다리던 기자들은 오후 11시30분쯤 평양 공동취재단으로부터 "북측이 선언문 서명 및 언론발표 시간과 관련, 조정할 일이 있다고 해 전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오자 "뭔가 잘못된것 아니냐"며 술렁이기도했다. 곧이어 11시45분쯤 평양으로부터 전송된 팩스가 선언문인줄 알고 기대를 높였지만 문제의 팩스가 시인 고은 선생의 '대동강 앞에서'라는 시로 밝혀지자 허탈해하기도. 하루를 넘긴 15일 오전 0시. 안내방송을 통해 "남북정상이 오후 11시20분 백화원인민관에

## 기자들 서명모습 방영되자 '환희의 박수' 金위원장 "술잔 원샷"에 한바탕 웃음꽃

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기자들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잠시후 남북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서명하는 모습이 멀티큐브를 통해 방영되자 기자들도 박수를 치며 이 기념비적인 장면을 함께했다. 기자들은 남북 정상이 잔을 부딪친 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 언론인들을 즐기는 '원샷'을 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고 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따라서 잔을 비우자 또한번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2차 단독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김위원장의 재치있는 발언때문에 프레스센터에 웃음꽃이 피었다.

김 위원장이 "구라파 사람들이 나타러 왜 은둔생활을 하나라고 묻는데 내가 과거에 중국에도 갔었고 인도네시

아에도 갔었다.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생활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라고 하자 멀티큐브를 통해 이를 지켜보던 기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린 것.

●오후 9시 15분 남북 정상의 만찬 장면이 프레스센터에 설치된 대형 멀티큐브를 통해 방영되자 방송카메라라는 돌핀 1,000여 내외신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멀티큐브로 쏠렸다. 기사마감을 막느라 술독립뜰 없이 바쁘게 손을 놀리던 기자들은 잠시 한숨을 돌리며 김 위원장, 이희호(李姬鎭)여사, 김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음식을 드는 장면을 지켜봤다. 김위원장이 예의 장난기 어린 몸짓으로 이여사에게 건배할 제의하며 "건강하세요"라고 하자 또한번 프레스센터가 웃음바다가 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kdaily.com



외신기자들이 14일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자지의 남북정상회담 기사를 유심히 읽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kdaily.com

# 남북 지금처럼 평화로운 때 없었다

## ■ 각국 언론 보도내용

남북한 정상이 5개월의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자 세계인들은 이를 일제히 긴급 특기사로 다루며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성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대통령 포용정책 결실

●미국 CNN방송은 긴급뉴스를 통해 남북한 합의문 서명소식을 전하며 "이번 두정상의 합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합의"라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경제교류가 본격화함에 따라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3일자 사설에서 "남북한이 지금까지처럼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당 행정부가 현명하게 지지한 김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북한의 정거러 미사일 개발 및 그 예측 불가능성 등이 관련된 행정부 무기미사일방어(AMD) 계획 추진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북한이 외교적 개방 움직임으로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만큼 '불량국

가 취급을 면할 날이 옳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 ◆남북협력과 관용시대 개막

●일본 NHK방송은 남북한 정상의 5개월 합의 소식을 이날 저녁 긴급뉴스로 전하고 "남북한이 이제 비로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남북협력과 관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특히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접어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민이 비로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14일 '역사적 약속을 남북공동의 계보로'라는 제목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사설은 "55년 분단역사의 상호보완을 한두차례 정상회담으로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기기자 mary01@kdaily.com

### ◆국제분쟁 뇌관 제거 첫단추

●유럽 영국 공영방송 BBC도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5개월 합의 소식을 특기사로 물리고 "합의문 서명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가 긴장을 끝내고 통일을 향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전쟁이후 적대감

에 시달려온 한반도로서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 평했다. 라베리시옹은 '냉전의 마지막 참조점'이라는 해설 기사에서 "이번 회담이 국제사회 분쟁의 뇌관을 제거하는 첫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단현

### ◆세계적 개방추세 입증한 것

●베이징·홍콩 중국관영 CCTV는 14일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합의문 서명사실을 주요뉴스로 전하며 5가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남북한 화해로 동북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라며 국제전문가들도 4개월 합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14일자 홍콩 언론들도 잇단 논평으로 남북정상의 행보에 주목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반세기동안의 적대관계 해소에 공동 노력해 갈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김대통령 방북 성과에 첫 그림자가 됐다고 논평했다. 명보는 정상회담이 "북한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대외개방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홍콩 현

## 화해길 냉면 인심도 너넉히

### 대동강변 육류관 냉면 담백한 꿩고기 육수 일품

"내 냉면 육류관 냉면을 꼭 먹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14일 평양의 육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기 전 김대중 대통령 이 육류관 냉면가게에 밝힌 소감이다. 역시 육류관 냉면을 평양의 자랑이 있다. 북한쪽을 김대통령 등 남쪽 대표단 전원이게 알소한 육류관으로 안내 냉면을 대접했다. 국화로 완숙한 면발은 서늘의 냉면과 달랐다. 통상적으로 소고기를 넣은 냉면이라

는 집에서는 다들 버가 없었지만 육수에서 차이가났다.

이날 대표단에게 제공된 냉면은 꿩고기 육수로 요리된 '북평냉면'으로 가격은 17원(미화 6달러 가량) 정도라고 했다. 닭고기를 넣은 냉면은 15원 정도, 보통 냉면은 4천500원 정도 된다고 한다. 한 육류관 '집안선생'은 "최근에 김정일 장군의 지도로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은 냉면이 개발됐다"고 최신 냉면 소개도 잊지 않았다.

냉면이 앞서 입맛을 돋우기 위해 새싹과 발효콩(서늘의 죽발효)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과일과 찬가지로 다양

한 종류도 제공했는데 40도짜리 '북부산 물쪽숙'이 나와 손님들을 맞았다.

원색한북처럼의여성 '집안선생'들은 남쪽의 손님들에게 "한 그릇씩 더 하시라요"라면서 친절을 베풀어 냉면이 평양의 자랑거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내원은 "평양 북부관과 한강의 서늘의 육류관도 생경이 면서요"라고 하는 채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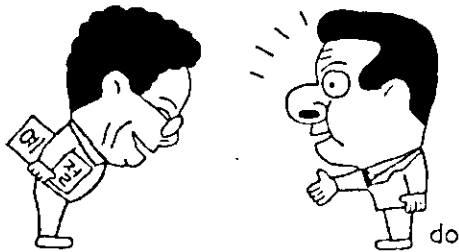
육류관은 대동강변 육류로 알려져 있다. 한쪽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대동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쪽의 풍광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자리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한겨레

2000. 6. 15 (목)



14일 오후 평양시 영광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들이 남북 통일행렬을 보자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정일 위원장 "우린 동방예의지국"

김대통령에 '도덕' 발언  
유교윤리 내세워 눈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방예의지국'과 '도덕' 발언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공산주의의 타도 대상인 봉건사회 유교윤리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김 위원장은 1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외국 수반도 환영하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파 인민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으며 수행한 장관들에게는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에 정통한 사람들은 뜻밖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웃어른을 존경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예절과 효를 상당히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실권자로 부상한 후 '인덕정치'를 내세우

며 70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생일상을 치러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83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산남 당시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선배 혁명가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굽까지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립해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본받아야 할 이상생활의 모범'으로 전형화하고 이를 따르게 하는 '갑화식' 교양방식은 북한 체제유지의 유리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 탈북자는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연장자에게 무례하게 굴면 평양에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혼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사망 후 김 위원장이 3년상을 치르고 유충봉치를 한 배경에도 효를 강조하는 북한의 분위기가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봉건주의 잔재라 하여 금지하던 것도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계기로 대폭 허용했다. /송홍

동기자 scopn@chosun.com

정상회담장 대한매일 화제

김위원장 신문 펴보며 "제호 바뀌었죠"  
김대통령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대한매일'이 화제가 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던 중 서울에서 행낭으로 보내온 신문다매일을 탁자 위에 펼쳐 놓고 보다가 김 국방위원장이 이 중 대한매일을 집어 들고 발을 꺼냈다. 김 국방위원장은 "남측신문에 정상회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군요"라고 관심을 표명한 뒤 "옛 '서울신문'은 제호가 바뀌었다면서요"라고 김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대한매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 국방위원장이 그동안

한 서울신문과 대한매일을 속독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과 관련, 남측신문의 1면 통단 제목과 여러쪽에 걸친 보도내용을 보면서 지면을 평가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이 남측언론에 많은 관심을 보이자 "이 신문들을 드리겠다"며 대한매일이 포함된 신문다매일 족석에서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들 수행원에게 건네면서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매일은 지난 98년 11월 11일 서울신문에서 '제호'가 바뀌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1년 7월 18일 창간했다.

●오동연기자 poonyon@kdaily.com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을 잠시 멈추고 남측 신문을 살펴보고 있다. 김대통령은 보고 있던 이남자 대한매일을 김 국방위원장에게 건네주었다.

●중앙 청와대사진기자단

# 北뉴스에도 훈훈한 화해의 기운



달라진 보도태도

## '남조선 집권자' 대신 '김대중대통령' 첫 호칭 '하시었다' 표현도 '하시었습니다'로 바뀌어 대남 비방도 없어... 조사등 존칭엔 미묘한 차

13일과 14일 저녁 뉴스톱 통해 북한 TV방송을 지켜 본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뉴스가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나운서들이 시청자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종전에 "000께서...하시었다"로 말하던 것을 "...하시었습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위압적인 표정과 강한 억양을 구사했던 남녀 아나운서들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변화된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보도 태도를 순화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양방송은 14일 김정일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통일 노력을 찬양하는 종전 보도를 재방송 하면서 대남 비난 부분은 삭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란 호칭이 방송에 처음 나온 점도 두드러진 변화다. 지금까지는 잘해야 '남조선 집권자'로, 심하게는 '외세의 앞잡이' 등으로 표현해왔다. 대통령부인 이희호(李熙浩) 여사를 '이희호 부인에게...'로 표현한 점도 여유를 갖춘 흔적이다.

김 대통령을 수행한 우리 각료들의 이름을 '통일부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식으로 일일이 거명한 것도 우리 대표단에 대한 심의표시로 볼 수 있다.

뉴스 내용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한국관련 뉴스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미군 철수나 '보안법 폐지' 등 비난성 보도는 들리지 않았다. 회사원 김지일(金志日·33)씨는 "북한식 억양만 아니면 내국면에서는 우리 뉴스와 별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신속한(?) 보도시간도 이례적이다. 북한은 원래 행사 하루뒤에 뉴스톱 내보내는 게 보통인데, 이날은 김 대통령 평양 도착 7시간여만인 오후 5시에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난 사실을 리디오 방송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방송은 두 정상의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조사나 어미 사용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두는 등 일부 개운치 않은 태도도 보이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사진을 찍으셨습니다"로 존칭을 사용한 반면, 김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 김성연기자 carlos@kdealy.com

## '평양 개선문' 기동 연도 의미는

프랑스 파리하면 떠올려지는 개선문은 그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1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동승한 차량이 통과한 평양 Moranong 구역에도 개선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TV 화면을 통해 클로즈업되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평양 개선문의 양쪽 기둥에는 두 가지 연도(사건 점선표시 안쪽)가 표시돼 있다. 즉 왼쪽에는 1925, 오른쪽에는 1945이다.

이 연도의 유래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방송을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북한방송이 '공복의 천리길'이라는 제목으로 고(故)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항일 투쟁을 선전하는 과정에서였다. 당시 북한 방송은 진위불

법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보도했다. "김일성 동지가 1925년 압록강을 건너서서 광복의 천리길을 걷어 일제를 쳐부수고... 1945년 개선했다"는 요지였다.

개선문은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광학학생소년궁전 등과 함께 평양의 이른바 '기념비적 조경물' 중 하나다. 김



25년 압록강 건너 45년 개선  
김일성 항일투쟁 과시 상징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사회주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은 조형물들이다.

개선문은 60m 높이에 너비가 가로 50.1m, 세로 36.2m인 4층 건축물로 수십칸의 방과 승강기 전망대로 갖추고 있다.

● 구본영기자 kby7@kdealy.com

대한매일

2000. 6. 15 (목)

# 800만 실향민 호적 전산화

## 이산가족 재결합·상봉 대비 DB 구축하기로

### 행자부, 새달말까지 실태 파악

정부는 8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실향민의 호적을 전산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재결합 및 상봉 문제에 대한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이산가족 통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주민등록망과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명부로는 관리되지 않고 통계 숫자로만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부터 바로잡기로 하고 전국 1,663개의 시·군·구·읍·면의 호적관련 부서에 이북5도민 호적전산화 작업 지침을 시달렸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향민은 지난 70년 가호적 취득시 파악한 546만3,000명

을 근거로 추산한 766만7,000명, 이산가족 2,3세대를 합한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산치일 뿐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니다.

행자부는 1단계 작업으로 오는 7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자료 파악은 이미 호적전산화가 이뤄진 3,800만명의 주민 가운데 이북이 원적인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과 이북5도민회에 비치된 도민회 명부 35만8,000명, 동화은행 설립시 주주명부 123만명, 통일부에 신청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부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명단이 파악되면 바로 이들의 원적지를 비롯, 출생지, 주소,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호주(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입력작업을 벌여 출력시 원적지 또는 주소지별로 구분

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DB 구축을 마치기로 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2단계로 지금까지 DB 구축이 안돼 전산작업이 어려운 3,158만명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부는 총 6,958만명으로 이중 6,500만명이 입력 완료됐으나 전산출력이 가능한 인원은 3,800만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실향민에 대한 자료가 부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벌여 통일에 대비한 자료 추출은 물론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취기자 sch8@kdaily.com

## 매일경제

# 매경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 문의 쇄도

등록·검색 무료서비스  
옛사진 가져오면  
현재 모습으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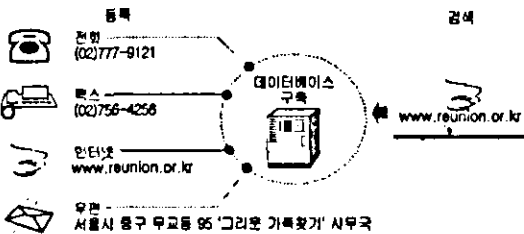
유봉석 기자

남북 이산가족이 인터넷에서 협육을 찾을 수 있는 '그리운 가족찾기' 사이트(www.reunion.or.kr)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트 운영주체인 한국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봉된 홈페이지에 이산가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미 100여 건의 사례가 등록됐다.

한국복지재단 이재구 팀장은 "분단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산가족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최근 하

### 그리운 가족찾기 이용법



부에 30여 건의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 ■이렇게 이용하세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직접 등록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운영요원이 무료로 등록해준다.

문자는 물론 동영상 사진 음성 등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모든 자료는 영구 보존되므로 이산가족 1세대가 상봉하지 못하더라도 2, 3세대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최첨단 정보기술 결합 옛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속 주인공을 현재 모습으로 구현해준다.

이 서비스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컴퓨터소시에이츠의 '모핑'(Morphing) 기술을 기증받고 경찰청 협조를 얻어 제공한다.

옛 사진을 토대로 가족의 현재 모습을 기술적으로 예측해 주므로 가족과 헤어진 뒤 시간이 지날수록 상봉확률이 줄어드는 한계를 보완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순탄'



## 경험 기본틀 어떻게

남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에 사실상 합의해 조만간 두 협정이 정식 체결

## 투자보장협정 내용등 사실상 합의 비용·투자위험 줄어 경험확대될듯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나아가 철도, 도로 등 분야의 투자와 협조, 금융결제방식, 분쟁조정 절차 등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경협 기본틀 마련 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본틀이 짜여졌다. 남북경협의 선결조건으로 합의해 두 협정의 체결은 그동안

본격적인 경협을 가로막아온 걸림돌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경협을 밟고 확대하는 일만 남았다. 두 협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3월 베를린선언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부과하지 않는 협정이다. 대북 투자 비용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처럼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은 북한 당국에 법인세와 거래세 등을 내고 남한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OECD기준에 따르면 이자소득세의 경우 원천징국(북한)에서 거주국(남한) 기업 등에 10%이상, 배당소득은 5~10%이상 각각 과세하지 못한다. 사업소득은 원천징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원천징국의 세율로 과세한다.

● 투자보장협정 세부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자기업들의 자유

로운 과실(果實)송금 보장, 투자원본 철수 보장, 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재산을 일몰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호, 북한이 남한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인 대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이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대북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이 없으면 85년 프랑스자본이 평양 왕각도호텔 건축에 착수했다가 북한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철수했던 사례처럼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손성진기자 sons@cdaily.com

## ■ 김대통령 만찬사 요지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동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비호스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열매를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김정일 위원장과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을 털어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남과 북이 전쟁의 재발을 막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만이 7,000만 우리 민족이 통일로 향하는 가장 탄탄하고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목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

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서로 힘을 합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핵심있는 당국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쌓아가면 협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의 가락이 울려 퍼지고 대동강에서 변영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어도 그러면 통일이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열어야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불신과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에서 애라는 상징으로 자결합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합류의 징을 만날 수 있는 인도적인 결단도 우리는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6월이라는 달이 민족의 비극이 아닌 내일에의 희망의 달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영연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달로 기억되어 하겠습니까.

## ■ 김영남 상임위원장 답사

여러분은 내일이면 역사적인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55년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만나 함께 거리 능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 남북과 화합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협력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버릴 수 없는 동족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아 민족문제를 동족끼리 해결해 나갈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소통한 것은 민족적 단합의 좋은 모습을 겨레앞에 보여 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물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 의견을 접

근시켜야 할 문제들도 있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속에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능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 남북과 화합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주는 기회는 언제나 오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무한정으로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마다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 먼 훗날에도 역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애국자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언젠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김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이 온 겨레의 숙원의 통일의 길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經協자금 뒷받침” 금융권 쟁걸음

## 결제은행·방법·지원 창구등 종합적 검토 北 SOC 개발 ‘프로젝트 금융기법’ 제안

## 신세계 北에 상표 등록 中법인 통해 2년전 韓·英文 등록



은행들 대책마련 분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금융권이 대북 경험 확대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내은행들은 남북한간 경제교류 확대와 관련해 결제은행과 결제방법 확정, 경험자금의 지원창구, 자금지원 대책 등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수출입은행의 관계자는 14일 국내결제은행 선정과 관련,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이 결제은행으로 정해지면 수출입은행이 결제은행이 될 가능성이 많고 중앙은행이 된다면 한국은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의 이재연(李載演)부연구위원은 경험자금 지원과 관련, 은행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사업에 가담할 기업들의 자체 재원

만으로는 본격적인 대북경험이 어려울 것인 만큼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며 국내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자금조달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과 11개 건설회사들이 1조 3,000억원 규모의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을 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협자금의 지원창구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크면 자금여력이 많다”면서 “조흥·한빛·외환은행 등도 지원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신각 쪽 기자와 관련, 대북 송금사업을 추진 중인 한빛은행 차장 최정호는 “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교류 진전과 함께 금융분야의 교류도 일대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원갑기자 eagleduo@kdaily.com



신세계가 발매된 북한에 상표 등록을 마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북한 과학

기술위원회로부터 ‘신세계’와 ‘SHINSEGAE’ 등 한글·영문 두 종류의 상표등록을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김순복(金順福) 상무는 “남한 국외 기업이 북한에 직접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법인을 통해 우회 출원했으며 2년여만에 08년 7월 등록을 인정받았다”면서 “보안을 유지해오다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번에 공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E-MART’도 함께 출원했으나 미국의 ‘K-MART’가 이미 등록을 마쳐 북한 과거위원회가 비슷한 상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퇴짜를 놓았다고 한다. 신세계는 한글상호 ‘이마트’로 다시 등록을 추진중이다. 신세계의 이같은 조처에 유통업체들은 부러움과 시샘이 교차하는 분위기. 특히 평양에 백화점 건립 희망을 밝혔던 롯데는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안미현기자 hyun@kdaily.com

## “인터넷 남북통일”

주)조선인터넷망



한반도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사업은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사업은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예산(백만원) |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본사업자구축   | 내국 통신기법   | 5억      | 20억  | 50억  |
| 유망사업자구축  | 남북경협정보포털  | 3억      | 10억  | 15억  |
| 광고사업     | 북한지역 제작사업 | 5억      | 30억  | 50억  |
| 북한인사발견사업 | 홍보물 제작사업  | 10억     | 30억  | 50억  |
| 북한교육사업   | 국내외 대학교과제 | 5억      | 20억  | 50억  |
| 북한인사발견사업 | 북한인사발견사업  | 5억      | 30억  | 50억  |
| 북한사업자구축  | 북한사업자발견사업 | 10억     | 100억 | 100억 |
| 계        |           | 43억     | 240억 | 625억 |

# 컴퓨터·통신·생명공학분야 남북협력댄 세계최고 도약



### 北 기초과학·항공우주산업 기술 상당수준 고급인력 年 1만명 배출불구 취업률 낮아 통신시장 개척여지 충분...北도 투자 희망

## 기대 모으는 경험분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컴퓨터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통신분야 각종 정보기술(IT)사업이 남북 협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14일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은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같은 도약형 개발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등 첨단 기술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순으로 북한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추격형 개발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자·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개발 비용을 줄이고 북한의 경제개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IT분야

이는 경험 초기단계부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가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술수준은 높고 인건비는 낮아, 첨단 사업에 대한 북한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우주항공산업 분야는 남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우주산업은 수십년에 걸친 미사일 개발이 토대가 됐다.

반면 고급 인력의 인건비는 매우 낮다. 대졸 임류급 프로그래머의 월급은 북한 돈 2,000원(한화 1만4,000원) 정도로 남한의 100분의 1~1,000분의 1수준이다.

북한이 배출하는 정보통신 인력은 매년 1만여명. 이 가운데 10% 정도만 취직할 뿐 나머지는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보통신업체 수는 20개 정도로 취업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북한 유선 및 무선통신시장의 전망은 밝다. 북한의 전화국은 60~70년대 중국과 북

남북한 전자·통신시설 현황 (97년 현재)

| 구분       |             | (97년 현재) |        |          |
|----------|-------------|----------|--------|----------|
|          |             | 한국 (A)   | 북한 (B) | 비교 (A/B) |
| 주요 통신 현황 | 송가입회선 (전회선) | 20,421   | 1,100  | 18.6배    |
|          | 100인당 회선수   | 44.40    | 4.82   | 9.2배     |
| 기타 현황    | 디지털화 (%)    | 65.1     | 4.6    | 14.2배    |
|          | 공중전화 (전회선)  | 339.2    | 2.7    | 125.6배   |
|          | FAX대수 (전회선) | 400.0    | 3.0    | 133.3배   |
| TV관련 현황  | TV대수 (천대)   | 14,870   | 2,700  | 5.5배     |
|          | 100인당TV대수   | 32.8     | 11.5   | 2.8배     |

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

일에서 수입한 수동식 교환기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최근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컴퓨터와 전자 제품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기기 조립 생산 등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지난달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실리곤벨리인 중관촌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kdaily.com



# 울산·인천항 對北전진기지로



## 교역 실태와 창구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울산항과 인천항이 대북 지원화물 수송 및 불류 전초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대북 지원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울산항에 길이 200여m에 이르는 3만급 1선석 규모의 북한화물 전용부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 작년 물동량 43%처리...전용부두 만들기로 인천, 올 교역 62% '독식'...수출98% 수입60% 급증

울산해양청은 총사업비 300억원이 드는 이 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데 이어 자체 추진작업도 시작했다

울산항의 지난해 대북 물동량은 경수로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대한직접자사의 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42만t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대북 물동량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여수항 30만t, 부산항 12만t, 인천항 6만4,000t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울해도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계획에 따라 전체 지원비료 20만t 가운데 울산항에 9만t이 배정됐다. 이달 말까지 모두 10여차례로 나뉘어 비료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지역 비료생산업체의 특수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항은 최대의 대북 교역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울퉁이 지난 4월말까지 우리나라 대북 교역 규모는 1억526만달러로, 이 가운데 62%인 6,522만달러 규모의 수·출입이 인천항을 통해 이뤄졌다. 이 기간 수출은 3,2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1%, 수입은 3,242만달러로 60.3%가 각각 늘었다. 수출의 경우 담배와 컬러TV, 전자기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의류, 아연, 농산물, 한약재 등이다.

이처럼 인천항을 통한 대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운항되고 있는 일반화물 정기노선이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2개 노선에 불과한 가운데 인천~남포가 각각 남북한의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운항거리도 부산~나진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

●울산 김원식·인천 김학준기자  
kws@kdaify.com

## 남북경협 위탁가공무역 선호

### 인천 지역업체 41% 희망

국내기업들은 남북간 경제협력력이 이뤄질 경우 위탁가공무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실시한 결과, 41.8%가 위탁가공무역을 희망했으며 이어 대북투자 29.9%, 단순물자 무역 23.8%, 기타 4.5% 순으로 밝혀졌다.

북한과의 교류 희망 동기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인건비 43.1% ▲북한상

품의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성 3.1% ▲풍부한 자원 3.1%가 뒤를 이었다.

또 대북사업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접촉창구 물색곤란 43.4% ▲체제 특수성에 따른 위험 27.7% ▲정보 부족 19.3% ▲국내에서의 복잡한 추진절차 9.6%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이밖에도 남북경협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정부가 대북정보를 일관성있게 제공하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kdaify.com

## 고대산에 통일관광단지

### 연천군,신탄리역 주변과 연계개발

경원선 철도 종착역인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탄리역 주변과 고대산이 관광지로 개발된다.

연천군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신탄리역과 이곳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고대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78억원을 들여 신탄리역 주변 7만여평에 주차장·화장실·휴게소·특산물판매소·토속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등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해발 832m의 고대산에 수련원·극기장·서바이벌 게임장 등 심신단련시설과 자연휴양림·삼림욕장 등 휴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96년 9월 개발된 고대산 정상에서는 철원평야와 6·25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등 비록한 북한땅이 눈앞에 펼쳐져 평일에는 500여명,토·일요일엔 2,0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연천 한만교기자

■ 남북관계 개선과 미-중 대결

미국 국방부가 지난날 30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진을 담은 <조인트비전 2020> 보고서(합참 전략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20년에도 여전히 국제적 이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



황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해할 같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초기에 견제하지 않게 될 경우, 중국은 궁극적으로 대만을 병합하고 미국에 대만 문제에서 손을 뺐길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위기는 대만의 주권을 폭력시킴으로써 결국 대만제도를 과격으로 할 것 같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역시 중국과 타협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며, 통일된 한국도 민족주의적 상징으로 인해 미군 철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결국 중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 위해 주일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며, 통일된 한국도 민족주의적 상징으로 인해 미군 철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결국 중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극단적인 공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합참보고서의 발표시기가 공교롭게도 한반도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공표되었다는 시의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타난 중국 정적인 주석의 김정

지 역분쟁까지 모든 종류의 전쟁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고 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면 다국적군과 합동작전을 위해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와도 원활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영역 우위'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압도적 병력전개 능력, 정확한 개인 능력, 집약된 군수지원 능력, 전방위 방어능력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잠재 적국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많은 미

미, 중국 패자 부상 경제 균형잡힌 안보전략 필요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유럽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점차 아태지역, 특히 중국의 성장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에 비중을 뒀어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보문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첨단 정보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능력을 더 이상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대내외 우려하고 있다. 즉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 의회의 폭스보그서야 같 나타나 있듯이, 중국이 상업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핵 및 미사일 관련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 군부에서 볼 때, 중국은 대량살상무기들 중엔 미국에 이해에 걸친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우려는 지난해 여름 발표된 <아시아 2025> 보고서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물론 미국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타협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으며, 미국과 중국의 순조로운 관계개선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물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비관론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가산치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향후 25년 안에 중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기술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건

일 초창도 매우 세밀하게 계산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21세기 동아시아 안보구도를 재편하고자 하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우려가 결국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해군과 공군의 소임과 준비태세를 증가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또한 이런 해군력과 공군력의 보장은 지난 수년간 줄어든 방위비를 다시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의 판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조인트비전 2020> 보고서에 담긴 숨은 의미는 거대 중국이 도약하는 시점에서 안보상황의 변화에 유호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선택의 과제를 주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기능이 점차 필요한 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 역시 미래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지속과 강대국간의 군사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외교와 안보전략이 요구될 때다.

김구와 김대중

오 화 석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보면서 반세기 전 남북협상이 생각난다. 지난 49년 4월 김구 선생 역시 38선을 넘어 김일성과 회담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구 선생과 김 대통령은 흥미있는 비교대상이다.

김구 선생과 김 대통령, 이들은 남북분단 후 최상급 지도자로선 유일하게 평화시 휴전선을 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김구 선생은 독립에, 김 대통령은 민주화에 헌신해 '부사의 독립'을 끌어왔다는 점도 유사하다. 독립과 통일에 대한 열정 역시 뜨거웠다는 점도 각별하다.

그러나 비슷한 점 못지않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북한 방문 형태가 다르다. 김구 선생은 김에서 38선을 넘어 반면 김 대통령은 비행기로 날아갔다. 또 김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 방문이지만 김구 선생은 협정관선에 가까운 접경이었다.

이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실은 두 사람의 정치철학 등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즉 김구 선생의 북한은 당시 남한 내 정치집단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쓴 개인적 결단이었지만 김 대통령은 정부 대표로서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또 김구 선생의 방문은 당시 미·소

를 중심으로 포리를 틈기 시작한 냉전 현실과는 유리한 '이상적' 환경인 데 비해 김 대통령은 영광장은 90년대 이후 전개된 냉전해체 상황을 이용한 절묘한 선택이다.

이런 차이는 곧 두 사람의 정치적 신념과 위상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구 선생이나 김 대통령 모두 담대의 뛰어난 지도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근소 중대한 한반도의 총체적 현실 정치적 파외라는 점에서 무력했던 반면 김 대통령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성공한 현실정치인란 점이 다르다.

덧붙여 김 대통령은 김구 선생에 비해 운이 좋다. 두 사람 모두 투쟁에 따른 숭한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암살로 인해 몸을 잡아야 했던 반면 김 대통령은 '인동초'처럼 살아남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통일여의 꿈을 현실로 꿈쳐보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두 사람을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명한 것은 과거 김구란 선구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김 대통령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13일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한 김 대통령은 50여년 이전의 김대중을 넘어 김구 선생과 손잡고 있다.

국회부·김보화@mk.co.kr

무성의한 브리핑

노영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내외신 기자 1200명이 모여있는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취재 열기와는 달리 시사각각 바쿠는 북측 상황 변화를 잡을 수 있는 참구는 극한 제한과 있었다.

내외신 기자들의 눈과 귀는 남측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을 담당하는 양영식 통일부 차관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양 차관의 브리핑은 내용이 없었던 뿐만 아니라 무성의했다. 양 차관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북측과의 회담 참석인원, 시간, 의제 등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는 "평화 상황하의 경정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관객에 있는 박준영 대변인의 발표보다 1시간이나 늦은 9시 30분에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내용은 훨씬 빈약했다. 브리핑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와중에 불길부 관계자는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을 마쳤다"며 "추후 질문은 양 차관이 나가는 도중에 물어보라"고 배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 차관이 브리핑을 떠나는 과정에서 내외신 기자 수십 명의

대거 물러가 양 차관을 어이하고 질문을 위해 불씨를 끄는 '혼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 차관은 박준영 대변인과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한 후 자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 차관은 1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화

영접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준영 대변인이 "공화영접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자 양 차관은 14일에는 전반의 발언을 뒤집었다.

양 차관은 "박 대변인의 발언이 맞는 내용이며 정부 내에서의 착오는 없다"는 굳센 변명을 내놨을 뿐이다. 프레스센터에 모인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북측이 이번 회담 보도에 대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통한 양 차관이 보여준 브리핑 태도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다.

뜨거운 취재 열기에 상충하는 자세를 정부가 보여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외에 올바르게 보도될 것이 아닌가.

특필취재단/rhoyw@mk.co.kr

하나된 南北 물줄기... 통일의 힘찬 물살로



강원 양구 민통선지역 頭陀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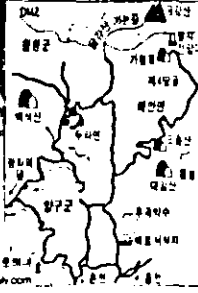
강원도 양구 하나로 한다는 취지의 발간을... 통일의 힘찬 물살로

강원 양구 민통선지역 頭陀淵의 모습

옛 선인들 금강산 오르던 길목 계곡 곳곳 폭포·열목어·회귀굴 친해 秘窟... 통일의 날 손꼽아

옛 선인들 금강산 오르던 길목 계곡 곳곳 폭포·열목어·회귀굴 친해 秘窟... 통일의 날 손꼽아

통일의 날 손꼽아... 옛 선인들 금강산 오르던 길목



강원도 양구 하나로 한다는 취지의 발간을... 통일의 힘찬 물살로

한국일보

“탈북여성들은 南서 직장찾기 힘들어요”

주체합심계 장인숙·경제학부출신 김옥란씨 인터뷰

탈북여성 장인숙 50 세와 김옥란 43 세는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심정이 남다르다.



장인숙(왼쪽)씨와 김옥란씨가 탈북자동지회 회의를 열어 북쪽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안다고 호소했다. 탈북한지 2년만이 되는 두 사람은 그래도 재직처의 상주직원 케이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구직위해 전화하면 “북한사람 안쓴다” 외면 빈곤·자녀교육등 고통 “南北 거리감 좁혔으면”

장씨 가족은 1994년 고려비호포 구소련 대공변의 서울방문 당시 러시아 유학을 떠난 큰아들이 경제를 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탈북시절을 알았다.

## 북한 상품 인기 상한가

### 담배·주류등 백화점서 '불티' 희담 기념주화도 주문 폭주

13일 오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부터 북한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4일(일) 출시된 남북합작담배 '한마음'은 지난 달 말까지 하루 평균 500여 상자씩 한달에 1만6,000여 상자가 팔렸으나 이달 들어서 소매상의 주문이 크게 늘어 주문량만 2만6,901상자에 이르고 있다.

한국조세공사가 2일(일) 남북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매한 기념주화도 지난 이틀새 주문이 폭주했다.

14일 현재 5만인짜리 은동전이 3,000개, 5,000원짜리 동동전이 1,700개 정도 팔렸다.

백화점의 '북한 뽕산진'도 훌륭한 재미를 보고 있다.

S백화점 명동점은 40여종의 북한 수입상품을 준

비켰으나 일부 품목을 재고하고는 하루 판매량을 조절해야 할 정도다.

L백화점 안산점은 하루 100만원 인파이면 북한 뽕산진 매출액이 13일 하루 300만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L백화점 천호점에서는 원산산 견호두가 하루 평균 200만원, 나진산 표고버섯이 130만원어치씩 팔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개성 인삼주, 아바이 소주, 돌죽순, 강계산 머루술 등 주류와 딸린 메뚜기, 장뇌삼, 함북 앞바다산 명태(북한명 금태), 명북 구구마줄기, 함북 어랑인두, 개성 인삼김치, 황해 수리취 인삼이 등도 잘 팔린다.

H백화점 천호점 윤경원(尹敬源) 부장은 "북한 식품 행사장의 하루 평균 매출은 1,00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이 2배 정도로 늘었다"면서 "몇해 전 북한 상품이 처음 소개됐을 때에는 신행인들이 주로 찾았으나 요즘에는 일반 주부와 청소년들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김경은기자

kkwoon@kdaily.com

## 북한은 '선글라스 천국'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TV에 비친 북한 인사들의 모습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점은 선글라스 형태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13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 국방위원장 혼자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던 김경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다.

김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 국방위원장 혼자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던 김경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다.

안경은 안경과 햇빛에 얽은 색깔이 들어간 탐지약한 금테 안경과, 김 상임위원장은 짙은 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선글라스가 보편화된 서방세계에서도 공식 행사에서 고위인사들이 명상시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같은 패션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인사들이 유난히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종의 패션 감각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왜 선글라스를 선호하는 것일까.

유선 일종의 '스타 따라하기'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기 연예인들의 패션을 따라하듯, 선글라스를 낀 김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 너도나도

따라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초 평양공연에 출연한 방한대 선글라스를 낀 북측 관계자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김 국방위원장의 경우 서문살대부터 근시로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밤에 잠들 때 쓰는 스타일이라 눈이 충혈이 때 선글라스를 쓴다는 얘기가 있다.

●김성연기자

### 金永南 등 지도급인사들 대부분 착용 일종의 패션... '슈워워장 따라하기' 분석

## 한겨레

### 푸른숲 백백히 어우러져 소쩍외로 북상하오니 꿈계 무르익어 아름다운 드림으로 남하하소서

남북 정상의 감격적 만남이 이뤄진 다음날인 14일 오전 <한겨레> 편집국엔 고재홍 시인의 푸른숲 시구를 올린 친필글씨를 들고 낯선 손님아 찾아왔다. 글씨의 주인공은 오현필이 쓴 장애인 서예가 권영환(51)씨. 왼손으로 정갈하게 쓴 이 글씨를 지면어 실어달라고 그는 정중하게 부탁했다.

"이번 뜻깊은 만남이 서술에서도 이어질 바라는 마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께 직접 전하고 싶어 쓴 글입니다. 지면을 통해라도 따뜻한 영원이 전해지

### ● '통일시' 보내온 장애인 서예가 권영환씨

## "붓끝에 실린 통일염원 북에 전해졌으면"

길 바랍니다."

한지에 쓴 이 서예글은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본 뒤 한말씀에 싸내려 간 것이라고 한다. 권씨는 "재호를 기원하는 동료들의 꿈을 담고 싶어 생각어 꿈장 붓을 집었다"고 했다. 일곱 투백여 보지만 감격해 보이는 장차 시 글씨에서 간절한 통일염원이 뽐어나온다.

어릴 적부터 서예에 심취했던 권씨는 85년 공장에서 감전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뒤 성남주민주의회의 반민공통체 일을 도우면서 글씨쓰기에 몰두해왔다. 통일시를 글씨로 옮기는 작업은 문인환 특사가 가박했던 89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70~80년대 통일운동가들의 목소리가 그냥 시집이나 책속에 묻혀버리는 거 안타까워 직접 글씨로 옮기게 됐다"는 게 그의 말이다.

지금까지 글씨로 옮긴 통일시는 100여 편. 북한문의 고개령을 비롯해 문곡현, 문명관, 백기원비 등의 시가 주된 소재가 됐다. 오는 8월 그동안의 글씨작업을 모아 거간집도 낼 예정인 권씨는 "기초가 닿는다면 평양전시회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자주 만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되는 거 불가능한가요."

글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김중수 기자 jongsso@hani.co.kr



# “中은 臺灣 통일에 인내심 가져야”

## 리관유 싱가포르 前총리 충고

【베이징 AP 電】중국을 방문중인 리관유(李光耀) 싱가포르 선임장관(전총리)은 14일 중국은 통일에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인터넷 성장을 위해 더욱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리 장관은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비롯한 중국 관리와 학자들의 모임에 참석,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대만, 미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실수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과 근대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매년 대만보다 몇배씩 성장하고 있다” 며 “통일이라는 목표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리 장관은 이번주 초 한 인터뷰에서 양안 문제가 악화되면 아시아 전지역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중국측과 통일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며 “이는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 장관은 중국은 경제개혁의 초점을 첨단기술 분야에 맞춰야 하며 민간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록 중국이 지난 98년 국내총생산(GDP)의 42%라는 높은 저축률을 보였지만 민간자본시장에는 이 자금이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 國民日報

THE KOREAN DAILY & NEWS

2000. 6. 15 (목)

## 경향신문

2000. 6. 15 (목)

# 한반도 평화체제 땀 美·日·中 곤혹

## 美 워싱턴대 교수 “딜레마에 빠질것” 주장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 일본, 미국에겐 큰 감칠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14일 진단했다.

해리 하딩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고 북한체제외 안정화를 꾀하는데 공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범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특히 일본과 미국 입장에선 북한 등 ‘북방국가’들의 탄도탄미사일 격추에 초점을 맞춘 국가미사일 방어(NMD)체제 개발의 정당화

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무릅쓰고라도 주한 및 주일미군 철수할 진지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딩 교수는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NMD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의 해역자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들 때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여기에 바로 미·일 양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도쿄=AP電**

# “美, 북한위협 과대포장”

## • 한반도전문가 퀴노네스 분석



“北·美 정치인이 조작해 왔던것 식량제공 통해 적대감 희석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사진)는 13일 북한의 대미(對美) 위협이 과장돼 왔으며, 미국 정치인들과 정권을 지탱하려는 북한인들도 이 위협을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퀴노네스 박사는 일간 유에스에이 무대에서 미국이 지난 3년간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미국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북한 정부의 선전이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퀴노네스 박사는 “실제 과거 10년간 북한의 대미 위협능력은 감소했으나 미국의 위협 인식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위협적이나 (그 위협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 / 연합**

“이젠 북녘母校 찾을날 올것 같아요”

# 칠순의 여고동창생 가슴부푼 '망향의 꿈'

“이제 더 살아야 할 희망을 갖게 됐어. 명사십리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학교를 갈 수 있을 것도 같아”

함경남도 원산의 '루씨고등여학교' 14회 졸업생 6명이 남북정상 머리맡을 맞대고 아산가족 문제뿐 아니라 14일 덕수궁에서 조촐한 동창회를 가졌다.

매달 14일 모임을 갖고 여고시절과 북한에 있는 가족, 고향 얘기로 심혈의 삶을 담래온 이들은 북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으로 한바탕 이야기 꽃을 피웠다.

56년전 남편을 따라 원산을 떠난 조순덕(趙順德·78·경기도 안양시 관왕동) 할머니는 “남북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데도 50년 이상을 기다려온 게 한스럽다”면서 “이번에는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며 즐거워했다. 금강산 유람선이 드나드는 장전

항이 고향인 최복녀(崔福女·80·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할머니는 먼 발치에서나마 고향마음을 볼 수 있겠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봄 금강산을 찾았지만 끝내 고향집을 보지 못했다. 최 할머니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장전항

## '상록수' 모델 원산 루씨고등여학교 동창회 정상회담 반가운 소식에 고향·학교 '애기꽃'

에 갈 때는 마음놓고 고향마음을 볼 이다니며 헤어진 오빠와 남동생을 찾고 싶다”며 울먹였다.

이야기가 학교자랑으로 이어지자 할머니들의 마음은 벌써 꽃다웠던 여고시절로 돌아갔다.

미국 선교사 캐롤리와 노엘스, 캐나다 선교사 루씨가 1903년 세운 루씨고등여학교는 심훈의 소설 '상록



14일 덕수궁 뜰에서 월례 정기동창회를 가진 함경남도 원산 루씨 고등여학교 14회 동창생들이 남북정상 상봉소식을 전한 대한매일을 펼쳐보고 학교를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좌에 부푼어있다. ●도준석기자 pado@kdaily.com

수는 “전교생이 주재소에서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항일의식이 높았던 학교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4회 졸업생 가운데 24명이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6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창들도 많다. 박용자(朴容子·78·송파구 문정동) 할머니는 “갈수록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주는 것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면서 “모교를 다시 찾을 때까지 건강하자”고 말하며 동지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 ‘北風 신드롬’

“반갑습네다”, “어서 오시라요” 다.

라는 인사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창광유치원생들은 14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회호여사가 방문하자 합창하듯 “반갑습네다”라고 인사했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 본 서울 성북구 종암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

은 반마 “반갑습네다” “어서 오시라요” 유행도”라고 다 옹기 손 들어 올리는 인사법도 시중 화제 말했다.

여 북한 특유의 억양을 섞어 따라했다. 이 여사가 창광유치원을 떠나며 손을 흔들었을 때는 “또 봅시다”라는 인사말이 창광유치원과 종암초등학교에서도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 학교 이미정(李美正·27) 교사는 “아이들 끼리 만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을 시작할 때의 인사도 ‘반갑습네다’로 한다”면서 “아이들이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긴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조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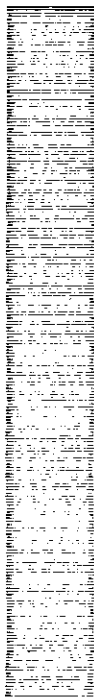
서울 안암초등학교 4학년 박해봉 양(11)은 “북한 어린이들이 지난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대통령과 이 여사에게 꽃을 선물하고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인사법을 재미있게 따라 하는 것이 유행”이라면서 “‘반갑습네다’라는 인사말과 동요 ‘김치깎두기’를 모르는 아이가 없

을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 말을 흉내내는 어른들도 많다. L사 회사원 7명은 13일 밤 서울 중구 무교동 [호프집에서 선천이 황해도 출신인 동료 최모씨(4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얘기하면서 황해도 사투리를 자주 쓰자 “반갑습네다”라고 맞받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착용한 인민복과 선글라스 등도 유행할 것으로 짐치는 사람들도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kdaily.com



### 선보인 '金正日 통큰 정치'

구본영의  
南北 프리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김용순(金容淳) 당비서를 스스럼없이 '용순비서'라고 불렀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남측 대표단 앞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방한대를 쥐고 있는 인물임을 재확인시키는 삽화였다. 60여만명의 현안인파가 걸사응위할 워친 평양 시기도 이를 각인시키는 무대장치였다.

사실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후 북한체제내에서 후계자인 김 위원장의 '카리스마'에 회의적인 관측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추론이 근거없음이 입증됐다.

그런 만큼 다른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본격적 개방노선을 선택하느냐의 여부였다. 이에 대해선 정상회담 성사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렸다. 경제회생을 위해선 개방을 택해야 하나, 이로 인한 체제동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체제의 딜레마 때문일 것이다.

생전의 김 주석도 그같은 진퇴양난의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독일 녹색당 전 대변인 라이너 배닝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즉 "신선한 바람을 위해 칭을 얻어야겠지만, 벌레들이 들어온 것 같아 모기장도 쳐야 하겠지..."라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김 주석이 말한 '신선한 바람'은 선진 자본·기술을, '벌레'는 자유주의 사조나 위부사정을 가리켰다. 사실 오늘의 북한이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개방이 외길 수순이다. '새벽별 보기'나 '고난의 천리마 행군'과 같은 노력동원론으로 생산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14일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남북간 이산가족 교류와 당국간 대화 재개 등 5개항의 공동선언 합의에 응해 개방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한 징후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엿보였다. 김 국방위원장이 김 대총령을 맞으러 순안공장에 나와 집짓 운동자적 이미지를 벗어던진 것도 그 하나일 수 있다. 그는 14일 정상간 환담에서 김 대총령 덕분에 운동에서 해방했다는 농담을 던지는 여유까지 보였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일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 있었던 김 위원장의 베이징 나들이다. 그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후계수업중이던 17년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판이한 태도였다. 당시에 그는 덩샤오핑이 중국식 개방노선을 권고받았으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도 모기장을 친, 제한된 개방노선에서 벗어나 덩샤오핑식 개방을 택할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렇다면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북한이 개혁·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압력선드로 보몬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상임연구원)는 분석이다.

왕돈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개방 폭과 개혁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검토했다는 이치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다만 역대 남측 정부 중 가장 긴장적 대북 포용정책을 펴는 현 남측 체제가 말로 북한이 과감한 개방노선을 펼 칠 기회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그가 그동안 표방한 '평근 정치'라는 뜻의 '평쪽(廣幅) 정치'라는 구호를 어떤 식으로 실천에 옮길지 주목된다.

● 행정뉴스팀 차장 kby7@kdaily.com

### 기고 - 큰열매 맺은 정상회담

## 모처럼 웃은 우리 이젠 더 멀리 보자

오랜만에 우리는 크게 웃었다. 사실상 중전시 상황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만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남북화해와 긴장완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대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설사 이 회담이 다음 회담을 약속하거나 지속적인 교류의 체계를 만들기 놓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50여년 동안 없었던 분단의 장벽을 녹이는 획기적인 첫걸음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실 남북간에는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안들을 그냥 재기해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회담에는 남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확대 방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현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첫날부터 남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남북한 교류 협력 및 대화의 합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수 있지만 그간 남측과 북측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 요구해온 현안들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즉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고 있으나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으며, 남측은 미군 주둔 문제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있으나 북한은 민족 자주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립된 시각의 뒤면에는 북한을 분광국가로 취급하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미국의 압력이 도사리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중국의 압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거스를수 없는 '화해 대세' 체제며나 '민족의 힘'키울 지혜로운 정치력 발휘를

그것은 남북한 당사자가 민족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은 체제의 시각에서 서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았던 지난날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력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남한은 보다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문제를 무조건 인도적인 문제라고 고집하고, 남북자 문제를 인권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50년 동안 하나의 국가로서 유지되어온 북한의 마음을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 북한 역시 남측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미, 혹은 미군침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남측의 입장을 어렵게 하여 긍정적인 결실을 이룩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매우 지혜로운 정치가라는 점을 믿고 싶다.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화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주변을 도사리고 있으며, 그들이 지난 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마당에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중해 참 여유와 안목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남북의 두 지도자는 의무감을 갖고서 이 회담을 바라보는 남북한 각측의 보수 세력을 달래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여전히 남북한간의 대화는 외출타기와 같다.

이 역사적 상봉의 순간을 보면서 흥분하고 감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휴전 이후 지난 47년 동안 남북한간에 소모적인 대결이 지속되었으며, 여러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가버어 보아서는 안된다. 이번엔 상호합의와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 “北, 對美 미사일 공격 포기 선언” 리정보국, 푸틴방문때 발표 전망

1 모스크바 교도團 | 북한은 오는 7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때 미국에 대해 '가까운 장래에' 미사일 공격합 계획이 없음을 선언할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정보국이 14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할 기술력을 확보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러시아 정보수석통들은 이와 관련, 북한이 푸틴 대통령 방북때 미사일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고리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13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과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후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반면 코언 장관은 2006년까지 북한의 ICBM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달라이 라마, 訪韓도 수락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4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국의 70여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한국방문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두 지도자는 결합이 많은 분들의 만큼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야를 갖고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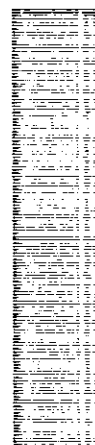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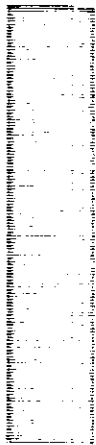
이에 앞서 그는 '대표단' 으로부터 방한 초청장을 전달받고 수락했다.

● 다람살라(인도) 김성호기자

kimus@kdaily.com

### ● 대한매일만평

백무현 bmh@k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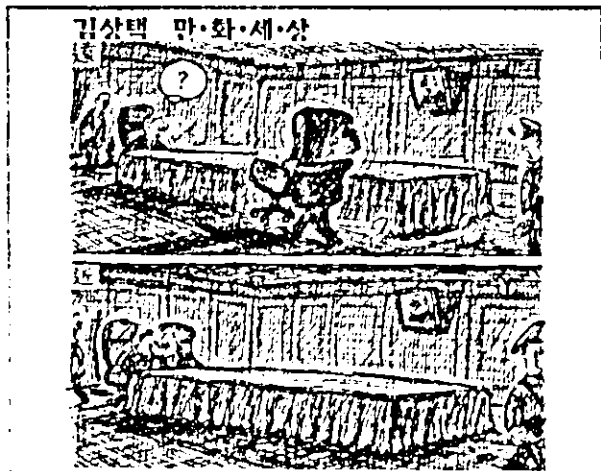


### ① 중앙일보

2000. 6. 15 (목)

### ● 東亞日報

2000. 6. 15 (목)





# 5대 南北공동선언 역사적 서명 金正日 적절할때 서울 방문키로

## 兩정상 어제 2차 단독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평양 백화역 영빈관에서 2차 단독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주된 해결과 8·15 광복절에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연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동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며 경제협력에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1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5개항의 합

의문에 서명하고 15일 0시20분 박정연(朴政演)청와대동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명의로 서명했으며 양측은 이같은 합의 사항이 현국 위해 빠른 시일 내의 당국 간 대화 개최와 적절한 시기에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중기에 마무리 했다"면서 "이제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이며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에서 여타는 심정으로 재결합을 기다리

는 수많은 이산 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합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인도적인 접근도 보여주게 된다"면서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문화가 가득하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반경의 불결이 낫을 것이며 마침내 굽어오 그리던 통일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김위원장, 북측의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남시다"며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김정남(金正南)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이어 대한 답사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미래라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는 김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온 겨레의 숙원인 통일의 길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

명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남북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 의사당에서 공식연담을 갖고 7·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토대로 한 교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교류협력에 방해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임위원장의 질문에 "현재 남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대통령은 또 김상임위원장이 "한기와의 대북 3국 공조는 우리의 자주분쟁과 관계해 있는 것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3국 공조는 북한에도 유리하고 우리

###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

- A2 : 美 中·日의 딜레마
- A3 : 5대선언 항목별 내용
- A4 : 兩정상 대화록
- A5 : 金正日의 일일일
- A6 : 金正日의 20년 경호원
- A7 : 평양 돌피날 이모저모
- A8 : 두 정상 외상-협상스티립
- A9 : 합려 확보
- A11 : 합의문 4쪽 시가
- A21 : 평양의 고구려 유적
- A29 : 兩측남맛이 북한음식
- A30 : 이산가족들 표정
- A31 : 北보는 눈 달라지나
- B1 : 김윤규사장이 본 金正日
- B2 : 경협자금 해외유치한다

▶ 어제도 좋은 '단·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결코 북한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양=공동취재단>

## “이중과세 방지 협정 투자보장 협정 체결”

### 베이징방송 보도

남북한 양측은 14일 오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남(金正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공식연담을 끝낸 뒤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고 중국 베이징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7·4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쌍방 간 민간경제협력조약 정부를 위주로 하는 남북 교류와 협조 문제를 승격시키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협정은 협도 도로 등 분야의 투자와 협조, 금융결제방식, 분할조각 절차 등에 대해서도 포함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베이징=이중환특파원>  
lhzip1donga.com

### 김대통령 비행기로 온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박2일 간의 평양길정을 마치고 15일 서울로 귀환할 때 당초 여정과 달리 육로가 아닌 항공로를 이용해 귀환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북한측이 평양에 머물고 있는 방북단거 10명을 이용하면 김대통령이 피곤을 덜 수 있다"며 "평양~거제도 고속도로 개보수 공사가 완전자로 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평양 수안보역에는 김대통령과 수한위원이 타고간 비행기 두대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은 지난달 19일 김대통령이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는 평양 김포 비행기 이용보다는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다. <경양특파원>  
syell1donga.com



“잘해 봅시다”

중앙대사진기자단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평양 백화영원빈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한 얼굴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간의 회담은 4분간의 환담내용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공식면담 좌석배치도

|                        |                 |
|------------------------|-----------------|
| 정문업<br>인민군계엄부<br>연립위원장 | 이기호<br>평양대 경제수석 |
| 이삼로<br>최고인민회의 부장       | 한광욱<br>평양대 이사장  |
| 이원구<br>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 이현재<br>제정경제부장관  |
| 최태복<br>최고인민회의 의장       | 박재규<br>철강부장관    |
| 김영남<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김대중<br>대통령      |
| 양형섭<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임종원<br>대통령비서    |
| 김영대<br>사민당 부위원장        | 박지현<br>문화관광부장관  |
| 안경호<br>중국문화협동위원<br>회기장 | 황민석<br>외교인민수석   |
| 김영성<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박준영<br>평양대 공보수석 |

## 北 '공식면담'에 黨-사회단체 대표 나와

14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남북 확대회담(공식 면담)에 참석한 북측 인사 9명은 북한의 의회적인 최고인민회의와 정당, 사회 및 경제단체 출신을 망라하고 있다.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관두로 양형섭(楊亨燮) 상임위원장은 최태복(崔泰福)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원구(呂元九)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이삼로(李三魯) 최고인민회의 부장 등 5명은 최고인민회의 직책을 사용했다.

김영남 사회민주당위원장은 강단, 송호경(宋浩景)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경호(安敬浩) 중국문화협동위원회 국장 등은 사회단체, 정문업(鄭文業) 민족제협회장은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한 셈이다. 특히 조명록(趙明祿) 인민군총장처 국장 등 군부 실세와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 등 김정일위원장의 핵심 측근이 참석하지 않아 전체적인 함량은 떨어지는 편.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의 정위원이고 △양형섭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후보위원이며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맡을 정도로 김정일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만큼 “비중있는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규기자〉  
phark@donga.com

# 美-中-日 “한반도 평화는 새 딜레마”



美이당교수가 본 3強정세



해리 하딩 교수

일본은 ‘빅 헤엄치기(Big headache)’에 직면한 것이다. 무엇이 새기였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해리 하딩 교수(정치학)는 14일 도쿄에 있는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유지를 유도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한 관계가 긴장으로 개악된 경우 미국은 개방외교 전략을 택해서 긴장 완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해리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북한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북핵포괄적합의체제(NMD)의 정당성을 입증할 “제 3의 힘”을 찾아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핵수거의 미사일 위협을 NMD의 추진 이유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북한이 위협적인 대상에서 빠져 제 3의 경우 입장이 반감해간다는 것이 해리 교수의 논리다.

중국은 일본의 영향력이 계속 해서 커지고 있는데 한반도 상황이 복잡해진 후한 미국의 김수환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 주변 및 주위 미국의 접근은

해리 교수는 “미국에서 미국이 접근하면 주변 미국의 존재 강도가 강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은 남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전방에 상환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 주변 및 주위 미국의 접근은

## 美, NMD 정당성 입증할 새 敵國 찾아야 할 상황 駐韓·駐日미군 철수판 中·日, 군비경쟁 불가피

김대중대통령의 본격적인 군비확장을 유도할 것이며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아시아해군의 북핵문제 전문가 스노리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여부는 양측이 구체적인 신뢰도를 만들어낸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노리아는 “차라들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다양한 채널의 만남과 함께 정상회담이 제도적으로 진행돼 남북한이 대결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관점에서 양측의 관계가 본체가 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훈기자) [taiv655@donga.com](mailto:taiv655@donga.com)



합의문 교환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밤 백화원 영빈관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임박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이념을 처음으로 잊고 이번 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선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유네스코 8·15에 즈음하여 열린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 분야에 민족자력을 관철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념과 깊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에 동기가 되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직할인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김대중-金正日 회담만 '정상회담'으로 표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에서 잇따라 갖고 있는 각종 회담의 명칭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에만 '정상회담'이란 용어를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평양 만수대(만수)에서 열린 김대중과 김정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및 남북양측 공식수행원들이 참석한 회담은 '확대정상회담'이 아닌 '정상회담(한 남북)'으로 쓰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북측 연기요구 미판 진통 밤 11시 20분경 최종 서명**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 서명 발표가 늦어진 것은 양측간의 이견에 따른 것이었다.

14일 밤 10시반경 백화원 영빈관에 함께 도착한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상무진이 준비한 합의서 검토에 들어가 곧바로 서명을 할 것으로 판인공동취재단에 알려졌다. 북측이 갑자기 서

### 1 통일 자주적 해결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은 첫번째 과제로 통일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합의서 제1항의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통일문제가 남북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남북 정상간에 통일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은 앞으로 남북 드루어 통일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론 정부는 그동안 북측이 강조해온 '자주적 통일문제'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북한에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윈-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듯이 자주적 통일문제는 오히려 남북이 통일 과정에서

### '자주해결' 합의 획기적 신뢰회복 계기 마련

의 걸림돌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이미 실무접합회의서(3월18일)를 통해 정상회담의 의제를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합의했었다. 7·4공동성명의 3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남북한이 최초로 작성한 합의문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미는 남북이 서로 협력을 시작하던 과거 모습을 찾아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주적 원칙을 꺼려온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이 문제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남적 화노선인 통일전선전략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간 신뢰회복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측의 의사를 어느정도 존중해준다는 배려의 의미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식기자>

spearn@donga.com

### 2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55년 분단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정상은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 안과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며 접점(接點)을 찾았다. 남측이 주장해온 '국가연합-연방국가-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국가연합과 북측이 주장해온 '고리연방제'의 초기 단계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연합 형태는 남북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공동체로의 통합을 준비하는 단계. 이는 국방 외교권을 연방정부가 갖는 연방제 국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날 합의는 일단 국가연합을 목표로 '한반도 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 통일방안 공감대 형성 화해는의 물꼬 틀듯

볼 수 있다.

두 정상의 합의는 아직도 먼 길로만 느껴졌던 통일 문제를 남북공동선언에 담음으로써 남북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번 선언은 추속회담에서 스승대체제 인정 △내장 절간집 △삼호 비방 중상 및 파과 전복행위 중지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정치적 화해 조치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논의의 진전에 따라서는 상주대표부 교환 설치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불가침,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제거 등 '지뢰'가 산적한 상황에서 통일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남북정상이 통일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남북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이상(理想)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평가다.

<박제균기자>

phark@donga.com

### 3 8·15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에서 1000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4대 합의 사항의 하나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원칙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매우 커 보인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에 소극적이었던 북측의 최고지도자인 김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합의는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오는 8·15에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준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명시한 것.

이런 두가지 사실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상당한 수준과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김위원장의 이런 전향적 자세는 예고된

### 생사확인→편지→상봉

### 빠른속도 진전 가능성

측면이 있다. 이미 정상회담을 위한 1~5차 준비접촉에서 북측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

두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은 본격적으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상봉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이벤트성으로 방문단을 교환하지만 점차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우편물 교환소 설치 교환 △왕래와 상봉 △자우의 사에 의한 재결합의 순서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월 100명씩 상봉 △월 1회 쌍방 300명씩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월2회 우편물 교환 △판문점 상봉면회소 설치 △쌍방 100명씩 고령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방문단 순차 교환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산가족 문제가 남측에는 '인도적 문제'지만 북측으로선 체제 문제까지 얽혀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 5 당국대화 재개

5대 선연중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개시는 합 의사항의 실천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평양 정상회담이 화해와 협력의 큰 길 을 닦았다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뤄질 구체 적인 사업들은 당국간 대화, 곧 후속회담에서 논의,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다. 이 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으로 답방이 성사되면 당국간 대화가 열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답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위원장이 지난해 중 국을 방문해 화의 순방의 틀고름 틀 데다 미국 도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준비하고 있 다"며 "주변 강자들이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

### 金正日 서울 답방등

### 실무협의를 조속 논의

하고 있는 만큼 답방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전 망했다. 당국간 대화는 또한 92년 남북이 체결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본합의서는 △화해협력 공동 위 △경제교류협력 공동위 △군사공동위의 구성 과 가동을 명시하고 있다. 경험이나 이산가족은 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같은 공 동위와 재구성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당국간 대화가 조기에 개최 돼 본격적으로 합의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이 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설치 △남북 연락사 무소 설치 △사회간접자본 지원 △남북정산간 화관인 설치 등과 같은 현안들도 '제도화된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기자〉

yyell@donga.com

### 4 경제협력 확대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 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만 추진돼 온 이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부간 대화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금강산관광 겸합 스포츠 문 화 교류 등을 추진하면서 남한 정부를 배제한 채 민간 인사들과의 접촉만을 한사코 고집해 왔 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92년 남 북기본합의서상에 합의된 바 있는 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 등 실질적인 정부간 대화 채널의 가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된 바 있는 '민 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부합시킬

### 교류 정부차원 격상

### 對北투자등 교류 탈듯

으로써 어느 한쪽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지원 을 부인하고 공존공영을 지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의 남북 분담의 원칙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 남북은 대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걸림물 들, 예를 들어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나 투자보장 협정의 체결과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협의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연극 음악 무용 분야 에서의 남북합동 공연 △극작가 배우 연출가 간 의 공동 세미나 △남북 문학작품집의 공동 출간 △남북 문화제 교류 등 다양한 상호 교류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올 가을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의 남북한 동시 입장,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단합된 구 상,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개최의 북측 참여, 2002 년 월드컵 분산 개최 문제 등은 남북 체육교류 를 위해 협력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영찬기자〉

yyell@donga.com

# “한강-대동강에 변영의 물결 넘칠것”



## ◆ 김대중 평안시

김정일은 김정은의 남북위원장과 김대중 위  
원장,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김대중님을 성공리  
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로는 민족의 밝  
은 미래가 보입니다.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  
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가둘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화해와 협  
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강제나 위협에 우리 양측의 김정일이 한  
자리에서 만났던 이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김정일의 제방을 막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  
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최대 원  
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20세기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냉전적 요  
소들을 탈락시켜 정상화하고 남과 북이 우선  
화롭게 공존공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쟁으로 남과 북이 서로 헐리하  
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서로 손을 합  
칠 것을 재확인해 바입니다. 앞으로 남북간  
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객관적인 남북간의 지속적  
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화의 협력  
을 확대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문화가  
가득 차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변영의 물결  
이 넘칠다고, 마침내 봄에도 그리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베이징 신문가판대  
중국의 한 요리사가 14일 베이징 시내의 신문가판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담긴 신문을 읽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다.

우리 민족은 이제 불신과 적대감을 버리  
고 화해와 협력을 신념하는 지혜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수많은 이  
산가족이 가까운 시간 안에 협육의 짐을 나  
눌 수 있는 인도적인 길만도 보여주세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  
물고,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며  
교류협력의 시대를 이룩해 온과 지혜를 모  
읍시다.

이제는 6월이라는 달이 민족의 비극이 아  
닌 내일에의 희망의 날로 역사에 기록되어  
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북쪽의 지도자 여러분!  
시오어서 만납시다.

〈평양=공동취재단〉

## ◆ 김위원장 “서울사람도 깎쟁이나”李여사에 농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자유방방하  
고 기침없는 장사는 11일 밤 북한에서 열  
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추모 만찬에서도  
여시없이 드러났다.

김대중령과 나란히 서찬 중앙에 자리잡  
은 김위원장은 이회호(李會鎬)여사가 김  
대중령과 함께이 반어적 자리를 감자 얼음  
원(林東源)특별보좌관에게 첫차말로 “이여  
사님 이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부른했다.  
김위원장은 이여사가 자신과 김대중령 사이  
에 양자 “만찬장에서까지 이산가족을 만들  
겁니까, 그래서 김대중령이 이산가족 문제  
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시요”라고 농담을 던  
져 김대중령 대령의 폭소를 자아냈다.  
김위원장은 특히 “개성 토박이한테 습칙

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파동 요만하게 씹  
어 넣더라”고 손을 모아 제스처를 취한 뒤  
“이여사는 개성 깎쟁이라고 하는데 서울사  
람도 깎쟁이나”고 이여사에게 묻기도 했다.

김위원장을 이어 김대중령이 민진용으로  
서울에서 가자온 봉배주를 가리키며 “이여  
사님 여기서 제일 유명한 술이리면서요”라고  
붙은 뒤 “봉배술은 주왕산 봉로 만들어야  
진짜”라며 남한 민족주의에 대한 감식을 드러  
냈다. 그는 우리측이 준비한 남한 궁중  
음식에 대해서는 “궁중 음식이라면서 왜  
아직도 늦고맛을 사랑하느냐”고 이여사  
에게 붙은 등 시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  
출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 노동신문 6개면중 5개면 할애

北인문 반용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신문과 방  
송 등 인문방송은 13, 14일 사상 첫 남  
북정상회담을 뜨겁게 환영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는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선민족의 최대숙원”이  
라고만 보도했으나 14일자에서는 6개면 중 5개면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남북정상회담  
을 위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평양에 도착했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영접했다는 기사 등 관련기사와 사  
간 11장을 실은 것.

노동신문은 1면에 김대중령 위령의 평양도착 소식과  
함께 김위원장과 김대중령이 악수하는 사진(18×25.2cm)  
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지난날 남 중국을 비방한 반공위원장  
이 장제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사진을 1면  
에 21.9×28.3cm크기로 실은 바 있다.

2면과 3면에는 평양시영과 평양시민 환영 장면, 김위  
원장과 김대중령 두 정상에 기념사진, 두 정상이 양생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주치의 환영만찬 사진 등을 화보로 꾸몄다. 4면  
에는 “민족의 역사적 숙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고 6면에서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김위원장의  
입적”에 대한 기사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해  
외동포 소식도 담았다.

북한 유일의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도 13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인민회의를 위해 오는 남측대표단  
평양도착,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강한 것을 비롯  
해 남북정상회담 속보와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3일 오후 5시 정기  
뉴스에서 처음으로 김대중령의 평양방문 소식을 전했으  
며 조선중앙TV도 이날 오후 7시부터 김대중령의 평양방  
문을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 “金대통령 덕에 은둔서 해방...”



## 김위원장의 말말말-

“구과과 사람들이 나보고 왜 온갖 생각을 하느냐,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거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외국에도 비공개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김대통령이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 이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말해요. 그래도 뭐 좋아요, 남북 관계에 어제 오랫동안 동안 왔습니다. 남북 인민들도 다 환영하고, 특히 심정민 남북자유운동회를 즐기며 이번 기회에 교류소식이 전될 수 있지 않나 하며 속을 내었다” (김위원장의 발언, 14일 평양 백화점호텔에서 김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시작하며).

### 전문가의 발언 분석

#### ‘개방적 모습’ 과시

“김위원(金元均)동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지도자, 평화지도자, 경제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고 있다.

시반언론에 자신감 과시를 꾀하는 “은둔자(exclusive man)”를 직접 언급한 것은 세계가 자신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1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공식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신문기자)

을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남북교류 자신감 표현

김정삼인(金相仁)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은둔자”의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동안 남한에서는 김위원(金元均)주석이나 김위원(金元均)위원장에 대해 이렇듯, 혹은 비정상적인 지도자로 언급을 해왔다. 사실 사 회주의의 경우는 최고지도자의 임

무부담이 많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김정해 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이런 집 에서 김정일위원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호소할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남 려진 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를 바라보는 외부시각이 달라진 것이다. 또 심정민과 남북자 본체까지 언급한 것은 북한김제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제 개방과 남북 교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탈북자 실향민’ 언급 치밀한 계산?

### 유연함 과시-협상전략 분석

북한의 김위원(金元均)위원장이 처음 발표한 발언을 눈여겨 보고 있다.

김위원장은 14일 오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선 평양호텔에서 북한의 “탈북자” “북괴자” “김제” 등 북에(北)사용 하지 않는, 어쨌든 입에 담아질 안 된 “김제(金製)”를 여기서는 표현을 과감히 사용했다. 특히 김위원장의 “북괴자”라는 단어를 사용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의 솔직 담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나”

미 “내가 고국 국경을 넘어 탈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사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입에서 튀어 나온 이런 단어들은 다음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어의성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14일 김대중 위원장의 뒤따른 자세와 기층적인 인사들에게도 볼 수 있듯 북한 세계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이자 동시에 “탈북자(脫北者)의 유인물을 과시 하는 정책(政策)장차”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특히 남한에 대한

자신의 해방을 지식용 자랑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의 현상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통해 상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음의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주도면면한 협상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위원장이 남한의 KFS를 기본 하지 않고 MBC만을 거론한 것도 유의를 대북, KFS의 과거 북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북측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김위원장의 이번 과격적인 언행에 대해 한 대북전문가는 “김위원장은 마냥 자유스럽고 김대통령을 너무나 이적이 무거운 완곡을 안출하는 데는 북측이 심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 말 아끼는 김대통령

### ‘이번엔 주로 듣는다는 입장’

### ‘자신감의 다른 표현’ 분석도

김정일국방위원장과 13일 상봉 및 단독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말수가 적은 모습이였다. 반면에 기층적인 모습의 김위원장과 대조적이까지 했다.

김대통령은 자다가 공인하는 통일 문제 전문가, 평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해박한 이론과 지식 자랑한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대화에서 “초청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 등 필요한 말만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이 다.

이에 대해 박순원(朴順元)최외대교수보수원은 “김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북측에 충분히 알려진 만큼 이번 방북에선 주로 김위원장의 말을 듣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연구해왔고, 방북을 앞두고 2개월이 동안 집중적으로 북한공부한 “은비문 방북 대담형”으로서의 자신감의 다른 표현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donga.com



지하철역 평양 사람들  
14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평양 시내의 영평역에서 다양한 옷차림의 시민들이 개찰구를 빠져나오고 있다.

한위대사진기자단

# “오늘의 평양 어떻게 봐야할지”

뜻밖의 北모습에 일부시민 '정신적 혼란'  
전문가 "들뜨지 말고 냉정-신중한 판단을"

“북한과 그 지도자 김정일의 모습은 무엇인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전례없는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TV를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온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모습은 북한의 극히 일부밖에 지나지 않지만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이 북한의 '김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충격-심리적 혼란** 가깝았으나 TV 생방송으로 펼쳐진 평양과 북한 주민, 그리고 김위원장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혼란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거나 상상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 및 교사의 교육내용과 TV가 보여준 현실이 상당부분 달라 학생들의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해 지나친 현상을 갖지 않을

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 직원 김승모씨(31)는 13일 밤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북한과 김위원장의 '참모습'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김위원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감도 있는 것 같다는 점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동안 TV를 시청했다는 강영석씨(30·시골 노인구 삼계동)는 “깨끗하게 정돈된 평양시내와 농담을 섞으며 여유있는 모습은 보인 김위원장의 모습 등이 그동안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북한 충격'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단절'과 '반북'으로 인한 허상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보다도 북한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문의(金宇澤)박사는 “55년간 정치와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국민이 갖고있는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잠재적으로는 '우리의 적'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돼 이 두 의식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북한



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광운대 북한학과 정규실(鄭圭實)교수는 “한마디로 북한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이 변한 것 때문”이라고 정리하며 “이 같은 이질감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이번처럼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주 접촉해 나가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안은철(安恩哲)연구위원은 “김정일이 신비에 싸여 있다가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허를 찔린 면이 있다”며 “북한에 대해 들뜨기 보다는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정리하고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배·최호원기자>  
rocyryry@donga.com

김정일유머-북한말투 노래 유행

청소년층 '문화충격'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남긴 악수, 그 파장은 우리 사회에 '문화 충격'으로 나타났다. 남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 보즈개 파인 웃음을 짓고, 농담을 던졌던 북한 김정일국무위원장이 그 충격의 중심에 있었다. 그 문화충격은 하나의 이미지로 '김정일'과 '북한'을 받아들이는 남한 사람들의 문화적 소비행식에 의해 확산된다.  
교사 김진아씨(23·부산 해운대구 송운초등학교)는 14일 “학생들이 김위원장의 배가 나온 것을 보고 '텔레도비 났었다'며 흥내 내고, 북한말투 따라하기가 유행한다”고 전한다. PC통신 하이텔 유머방에도 '김정일과 텔레도비의 공통점'으로 '첫째, 통배다. 둘째, 유난히 쾌활하다' 등을 꼽은 신종유머가 등장했다.  
신인가수 통일소리(변명길정회)의 '회파람' 음반은 13일부터 일일판매량이 3배 가까이 늘어 하루 판매량이 100장을 넘겼다. SBS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밤'은 18일 방송분에서 북한 관련 퀴즈대결을 펼칠 계획. 이혜선PD는 “고교생인 출연자 백소영양의 학급에서 김위원장의 카리스

마에 반했다며 팬클럽을 결성하지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예 북한을 부남 없이 '재미있어'하는 것일까. 한 e북(전자책) 지하철 광고가 심마리를 제시한 데 모습을 드러내 보즈개 파인 웃음을 짓고, 농담을 던졌던 북한 김정일국무위원장이 그 충격의 중심에 있었다. 그 문화충격은 하나의 이미지로 '김정일'과 '북한'을 받아들이는 남한 사람들의 문화적 소비행식에 의해 확산된다.  
사회학자 빅대호씨(37)는 “그간 무겁고 암울하기만 했던 북한의 이미지가 즐겁고 가볍게 바뀌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자연스럽게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용구씨(37·안양 중앙병원)는 “김정일 신드롬을 통해 집단적인 카타르시스풍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보면 이것이 우리의 집단 히스테리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기자>  
ryung@donga.com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공연 격려

한위대사진기자단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여사가 14일 만경대학생소년공전에서 특별공연을 마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대형 꽃바구니를 선물한 뒤 함께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있다.

### 김영성 北준비접촉단장 예고없이 南기자실 방문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단장인 김영성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참사(사진)는 14일 오후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과 함께 예고없이 평양 고려호텔 2층의 공동취재단 기자실에 들리 특유의 입담으로 분위기를 잡았다.



김참사는 "기사거리가 없다. 얘기를 해달라"는 기자들의 말에 "부족한 기사에 날 대신 넣으려고 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넘기는 등 시종

"기사거리 좀 달라" 주문에 "날 쓰려고 하나" 입심과시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김참사와의 인문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담방잡지가 최대 관심인데...

"이건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데 너무 엄청난 질문을 한다. 그건 우리 장군님(김위원장)의 길심 여하에 달려 있다."

-이번 회담을 추진한 실무단장으로 로시의 소감은...

"오늘 저녁 10시까지 말해도 다 못한다. 여러분이 이제 직감할 것처럼 (이번 회담은) 민족통일사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 특별한 사면이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기초해서 민족의 단합, 통일을 위해 같이 노력해가자고 말하고 싶다."

-남북지도자가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은 있다.

"그 문제 역시 옷벌들의 길심 여하에 달려 있으니가 기다려보자."

김참사는 수행원의 연락을 받고 떠나면서 기자단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써야 한다. 모처럼 발전하는 북남관계에 좋게 환경을 만드는 데 한몫 하자"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감동주기 즐기지만 쉽게 봤다간 큰코 다쳐”

2000. 6. 15 (목)

□ 김윤규 사장이 본 김정일

98년 10월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이 남북, 백화원영빈관에 묵고 있을 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예고 없이 영빈관을 직접 방문, '왕회장'과 한시간 가량 만났다. '왕회장이 이인이시고 몸이 불편한 것 같아 직접 왔다'는 게 북한측 설명.



김윤규 사장

김위원장은 사진을 찍을 때도 "어른이 가운데 서라"고 양보했다. 북한체제에서 가운데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

김윤규(金潤圭) 현대건설사장은 이따기기로 "김위원장을 다시 평가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대북사업을 추진해온 현대 관계자들이 털어놓는 비화에는 김위원장의 성격이나 임무추진 스타일을 가능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많다. 흔히 그는 분이 크고 감동을 주기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쉬운 협상 파트너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99년 10월 왕회장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가 흥남 서호 초대소에서 김위원장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김위원장은 현대측이 추진하는 서해안 공단개발사업과 관련, "현대가 제출한 사업설명 비디오를 아직 못봤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협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대신 "금강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북사업을 현대가 독점하라" "북한에 석유가 나오면 남한에 먼저 주겠다"고 말하는 등 '입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상대방을 띄워 주는 발언을 계속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물맑고 깨끗한 명예회장의 고향 통천에 투자하라"며 생각지도 않았던 통천공단 조성을 들고나와 현대측이 수락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또 "금강산 사업이 왜 빨리 안되느냐"며 배석한 김용순(金容淳)



청와대사진기자단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과 한담을 나누고 있는 김정일국방위원장.

대담담당비서를 질책, 자신은 대북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고 싶은데 부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하기도 했다.

협상에 능숙한 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위원장은 한국의 사정에도 대단히 밝다.

그는 정한대아산이사에게 "영회에서 서울을 봤는데 일본 도쿄보다 훌륭한 도시다. 단지 공해가 심하고 도시계획이 조금 잘못돼 복잡하다." "남측은 크리스마스 때 노니까 남북농구를 그때하자." "삼풍백화점이나 신수대

교는 왜 무너졌느냐"고 말하는 등 한국의 일화와 뉴스를 꾸준히 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위원장의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의 경제관도 엿볼 수 있다. 그는 "10일유신 때문에 비란은 많았지만 초기 새마을운동을 한 덕택에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것은 훌륭한 점"이라며 새마을운동과 율리 유치를 한국 경제개발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공산당 담수와 사진 찍으면 보안법에 안 걸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다음에 올 때 막걸리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등 유머감각도 여러 차례 과시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 王회장 직접방문 극진 예우

## “대북사업 현대가 독점하라”

## 능숙한 협상습씨 발휘

## “다음엔 막걸리롤” 유머도

# 공손... 호탕... 달변... 연기하듯 변신 능숙



60년대 초 인민군 부대를 방문한 모습.



70년대 후반 해군함정에서.



6월13일 순인공화 김대중대통령 환영행사에서.



6월1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 金正일의 태도 변화 분석

13일 오전 10시25분 광양 순안 공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어 닳게 단의 비행기트랩을 걸어 내려오는 김대중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를 벌리고 신 그의 빛모습은 낭랑함 정도로 낭랑했다.

그러나 김대통령과의 반가운 악수가 끝난 뒤 그는 '예의바른 집은이'로 돌변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쪽 1m 뒤에서 걸었다. 김대통령이 자에 타고 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왼편 뒷자리에 올랐다. 그는 백화인 영빈관의 첫 정상회담에서 말했다. "공산주의 자도 도덕이 있습니다." 11일 2차 정상회담에서는 "김지러가 편했습니까" (국수들) 급하게 자 시면 맛이 없습니다"고 말하며 '어떤'인 김대통령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위원장은 몇개의 일과를 가진 김씨가. 그는 어느새 톱 크고 유머러스하게 다시 변해있었다. 11일 북한관 만찬장에서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의 옆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여사의 웃음을 자아 내게 하는 그의 모습에선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연극의 연출자이자 주인공인 것 같다. 1960년 신진선동부 부부장 시절에는 가극 '피바다' '꽃피는 처녀' 등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주도면밀하고 예술적인 '쇼포먼스'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번엔 자중을 주도하며 안 수 없는 두려움을 생산해냈다. 그는 비록 북한의 '장군주'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정일 시대'인 김대통령으로부터 "어"라는 응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예측불가능하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즐기는 것 같다. 그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긴장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정부터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그의 특이한 생활습 관도 통치술의 일환인 것 같다고 안양중앙병원 김산과 신용구(金龍九)교장은 말했다.

김위원장은 "사실 나는 운동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김 과직으로 운동을 삼고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뛰쳐나왔다. 이제는 극적인 디닝포인트가 필요한 내 복임까.

(이승재기자) sidawdonga.com

## "국제신뢰 확보위해 자신감 보였다"

### 日 전문가가 본金正日 변신

광양 정상회담의 화제는 단연 김정은(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변신'이다. 운동선수 배양에 가려 간 통치자로 알려졌던 그는 환담 한 모습에 거침없는 언변으로 자신에 대한 시방의 고정관념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의 이같은 변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본의 김정은 전문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다.

▽스즈키 노리유키(鈴木典幸) 라디오 프레스(RP)이사=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김위원장이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회담에는 꼭꼭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때문이다. 중국 방문에서 이를 증명했다. 김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김대중대통령을 맞는 연습을 했다.

둘째는 국내의 권력 기반이 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셋째는 한국으로부터 김씨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먼저 손을 뻗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요시다 아스히코(吉田麻子) 사이타마대학 교수=그동안 부친인 김일성주석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한테 비해 자신은 약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일성주석 사망후 자신에 대한 인민의 존경심이 높아지고 군부 지지가 강해지길 기다리 왔다.

그동안 김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위엄한 존재로 신뢰를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김씨 위기가 삼각해지면서 자신이 신뢰받지 못하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 두 가지 이유(국제 제재의 공고화와 국제 신뢰 확보의 필요성)로 김위원장은 멋지고 단정하게 농담을 해가면서 전세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쿄=심규선·이영이특파원) ksshim@donga.com

# 정연한 논리-수치로 상대 설득 **김대통령** 큰 제스처-다변으로 대화 주도 **김위원장**

## 남북정상 협상 스타일

이번 경양회담을 통해 드러난 것 중의 하나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협상력이다. 김위원장은 그동안 협상이나 회담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인식돼 왔다.

김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협상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우선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적극성이 인상적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 잡기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장기지만 이번 회담에선 오히려 김위원장이 대화를 주도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풍 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듯 호방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경양회담에 앞서 베이징(北京)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을 만나 두 팔을 아주 크게 벌려 2,3차례 포옹하고 두 손으로 감싸쥐듯 악수를 한 것 등은 그런 증거다.

김위원장은 말이 다소 빠르고 강황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논리를 갖고 있음도 확인됐다. 이 부분은 60년 북한을 탐험한 최은희(崔銀姬) 신상옥(申相玉)씨가 공개한 김위원장과의 대화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동어반복 등 좋지 않은 언어습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평했다.

김위원장에 비해 김대통령은 품품한 준비와 정연한 논리, 정확한 근거(수치) 제시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차분하고 노련하게 대화를 유도하며 과장된 표현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양도 없다.

고려대 유호일(柳浩烈·북한학) 교수는 "그동안 연구자료를 통해 본 김정은은 허박하고 거리낌없이 사람을 대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문철기자〉

fullmoon@donga.com

# 평양사람들은 '김대통령 방북' 어떻게 알았나

## 북한의 방송 체계

주요사안은 유선으로 방송

공중파 TV는 4개 채널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3일 김대중대통령과의 첫 경양회담에서 "인민들한테는 그저께(11일) 밤에 김대통령의 코스를 알려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1일은 물론 김대통령이 도착한 직후에도 북한의 TV와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은 단 한 줄도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평양거리에서 환영하는 60만명의 시민들은 어떻게 김대통령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았을까.

북한에는 '제3 방송체계'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유선방송은 우리의 케이블TV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전가구를 유선방송망으로 연결, 스피커를 통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종의 사내방송이나 대학방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형태인 셈.

공중파 방송은 외국에서 모니터가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에 주요 사안을 공중파 대신 유선방송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공중파방송도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100% 국영방송이며 방송 방



"오늘부터 중앙TV방송을  
통신위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지역에  
중계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자료사진

북한의 4개 TV방송국 중 유일하게 전국 방송망을 갖추고 있는 조선중앙TV의 방송장면.

식도 우리와 달리 NTSC방식이 아닌 PAL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인만큼 북한 방송에는 상업 광고가 전혀 없다. 대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마다 음악이나 구호가 나온다.

TV방송은 조선중앙TV, 만수대TV, 개성TV, 교육문화TV 등 모두 4개 채널. 이중 조선중앙TV만이 전국 방송망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방송이다. 예술 공연 및 국내외 영화 등을 주로 방영하는 만수대TV는 평양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휴전선 남측 지역을 겨냥한 대남선전용방송이었던 개성TV는 북한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남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NTSC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생 방송으로는 3년전 김국방위원장의 55세 생일에 맞춰 개국한 교육문화TV가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6년 가량 빠른 74년에 이미 컬러 방송을 시작했지만 케이블TV나 인터넷방송은 아직 없다.

방송시간은 방송시마다 다르며 종영시간도 불규칙하다. 전국 채널인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 방송을 시작해 보통 밤 11시경 미친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방송한다. 개성TV나 교육문화TV는 밤시간에만 각각 3~4시간 방송하고 만수대 TV는 주말에만 방송한다.

〈김수진기자〉

sikang@donga.com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인(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부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 1층 '지천관 출입문'에서 2시56분에 미리 나와 1분 가량 기다렸다가 57분간 들어서는 김국방위원장을 맞았다.

김위원장은 북도에서 김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며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큰 목소리로 인사했고 김대통령은 조용한 소리로 "잘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본격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4분이 동안 공개적인 환담을 가졌다.



남북정상 회담전 원담

# “남쪽 TV서 실향민들 우는것 봤다”

□金대통령

金위원장 공항영접 남쪽서도 놀라

말로만 듣던 옥류관 냉면 맛있더라

□金위원장

급하게 자시는 국수는 원래 맛있어

용단내려 오셨는데 인사차림 잘됐는지

▽김위원장=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대통령=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위원장=약속한 대로 찾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만 대우 잡해도 제집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폭 3m 가량 되는 책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김위원장=오늘 위치가 아침부터 긴장되게(원들게) 했습니다.

▽김대통령=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위원장=장자리는 편하십니까.

▽김대통령=예. 한국에서 한번 꼭 가봤으면 하던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고...

▽김위원장=아침 오전 회담이 너무 늦어놓으니까, 급하게 자시는 국수는 맛이 원래 없습니다(옥류관 냉면먹은 것 지칭). 앞으로 시간여유 많이 갖고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평양시민들은 대단히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방북의 첫걸, 정말 용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 우리 인민들은 뜨겁게 마중했는데 인사차림이 잘 됐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과분하게 환대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고 한 것을 남쪽에서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김위원장=남쪽 텔레비전을 어제 밤늦게까지 오랫동안 봤습니다. 남쪽 MBC도 보고..., 남쪽 인민들도 아마 다 환영하고 특히 실향민,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속을 태웁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위원장에게) 실제로 우는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김대통령=(프레스센터에) 외국기자들도 수백명이 모이고, 기자들 1000여명이 기립박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악수하는 장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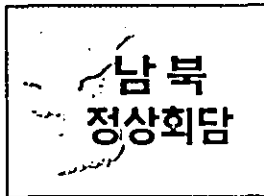
▽김위원장=제가 무슨 큰 잔재라도 됩니까. (공항 간 것은) 인사로 한 것뿐인데, 구리와 사람들은 나보고 왜 은둔생활 하느냐, 처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동안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비공개로 많이 갔다왔어요.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큰 웃음)

▽김대통령=음식이 참 좋습니다.

▽김위원장=지금(지난번에) 중국 갔더니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의 김치가 나와서 남쪽 사람들 환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김치를 (세계에) 소문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기무치라고 하는데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싸고 북조선 김치는 많이 많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의 환담을 마친 후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평양=공동취재단)



5개 합의내용과 추진 과제

停戰→평화 전환 노력

金正日 “원샷” 견배에  
축제분위기



평양 이틀째 이모저모

평양 방문 이틀째를 맞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오후 3시부터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마라톤 회담 끝에 남북간 화해 통일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두 정상은 중간휴식까지 취해가며 총 3시간 50분 동안 회담했다.

“남측 인민들도 다 환영하더라” 반가움 표시

“합의문 異見 있는 것 아니냐” 한때 우려도

합의문 서명 및 민중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은 이날 밤 11시 20분에 두 정상이 공동 서명하고, 12시가 돼서 일본에 그 내용이 공개되는 등 ‘십이시명, 십이시표’의 진가목을 남겼다. 서명식은 백화인양민관에서 열렸는데, 합의문을 2부 작성해 먼저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하고, 김대통령이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서명 직후 두 정상은 북측 김일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과 우리측 임동원대통령특별과 함께 삼매연으로 축하 견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삼매연을 ‘원샷’으로 견배. 우리 수행원들이 웃으며 이를 따라 한꺼번에 뛰어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당초 두 정상은 이날 오후 6시 50분 단독회담을 끝낸 뒤 양측 대표단의 합의문 정리 절차를 거쳐 9시쯤 합의문이 공동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참석으로 인해 삽여까지 지연.

이 때문에 취재진과 대표단 사이에서 선 한때 “합의문에 이견이 있는 것 아

니냐” 등의 의혹이 난무.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은 정상 회담을 끝낸 뒤 이날 저녁 평양 북관관에서 김대통령이 배종 만찬에 참석. 김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제 바로는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며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 답사에 나선 김일남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은 “이번 상황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한 입속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감회를 표명.

○...만찬에서 우리측 수행원으로 참석한 고은 시인은 이날 오전 숙소에서 쓴 시를 직접 남측에 눈감. 고은 시인은 “내동강 앞에서”라는 제목의 자작 시에서 “무엇하리 여기 왔는가/ 잘못이든 밤 자재우고...”라고 읊었다.

마라톤 정상회담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간의 이날 2차 정상회담은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김대

통령의 숙소인 백화인양민관을 갖는 형식으로 오후 3시에 시작.

김대통령은 2시50분경 우리측 공식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일민관 1차 1층 ‘자 한관’ 앞 카펫 중앙에 들어섰으며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면서 김위원장도 들어서서 반갑게 악수.

이어 두 정상은 20여m 떨어진 북도릉 따라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잠시 환담을 나눈 뒤 남측의 임동원특별과와 북측의 김봉순이대변관화 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단독 정상 회담에 돌입. 정식 회담에 앞서 김위원장은 큰 목소리로 “오늘 정상이야 김부터 긴장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안부쯤 묻고 김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등 잠시 공개리에 환담. 김위원장은 남측의 TV 방송을 본 얘기를 하면서 “남측 인민들도 다 환영하더라”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등 기쁨있는 대담으로 말을 이어갔다.

A7면으로 ‘이모저모’ 계속됩니다

화해·통일

최은수·김인수 기자

14일 남북 정상이 ‘화해와 통일’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이 평안된 한층 첫발을 내딛게 된다.

두 정상은 이날 72년 7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일 3원칙인 ‘자유, 평화, 민족대단결’ 방침에 따라 남북이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계

●안목사무소 설치(판문점)-상시 대화 창구

- 남북화해(1장)
- 자체 상호 인정
- 내부문제 불간섭
- 경제상대 → 평화상대 전환
- 이행기구: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 남북불가침(2장)
- 한반도 비핵화
- 무력 불사용
- 단계적 군축 실현
- 분쟁 평화적 해결
- 이행기구: [남북핵문제 공동위원회]

- 남북교육 협력
- 경제분야
- 자문 공동개발, 문자교류, 인적부자
- 공동·도로 복원, 항로·해로 개설
- 이행기구: [남북경제교육·협력 공동위원회]

- 사회·문화분야
- 자유로운 인력 접촉·통행
- 교육·문화·출판·보도·체육·예술 교류협력
- 이행기구: [남북사회문화교육·협력 공동위원회]

- 인도적 문제
- 이산가족 상봉
- 이행기구: [남북이산자 단체]

또한 96년 11월 폐해진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남북연락선을 복원시켜 남북간 대화채널을 다양화하고 교류협정의 촉매로 활용될 방침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금 위해 제의한 특사교환도 가능해져 남북은 중요 현안에 대해 특사를 통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남북화해를 위한 실천과제
- 남북화해를 위한 실천과제 특히 남북은 92년 기본합의서와

같은 화해담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6개항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를 실행해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92년 기본합의서에서 구상키로 했던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같은 이행기구만 만들어 가능할 전망이다.

상호세계 인정은 남북이 상호간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제와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남측이 북측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은 또한 위에서 합의한 상호불간섭 원칙에 따라 앞으로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서로간의 대외관계에 간섭하지 않게 된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남북은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당국자간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는 ‘남북자간 대화채널 구축’에도 적극 합의했다.



## 李姬鎬여사 女高은사 60년만에 상봉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 중인 이희호(李姬鎬)여사는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940년 이화여고 재학 당시의 수학선생님이었던 김지한씨(85·여)와 60년 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여사가 인민문화궁전 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저마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했고, 이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이여사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알 만합네까”라고 진한 북한어투로 말했다. 이여사는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었다면서 “당시 선생님 가운데 현재 서울에 살아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님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여사는 “착하신 선생님이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최운영씨)이 봉투 속에서 60년 전 당시 김씨가 이화여고 재직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 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꺼냈다. 손



평양대사진기자단

이희호여사가 1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이화여고 재학 시절 은사인 김지한(오른쪽)씨를 만나 감격에 겨워 하고 있다.

을 맞잡고 사진을 보던 두 사람은 인제감점기의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하고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광복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불과 30분간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던지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美·中·러·일의 시각

남북한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공동 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자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남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 북뉴스로 남북한이 5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급보를 전하면서...

이제 앞서 걸릴 리커 미국 부대변인은 19일 "이번 회담이 한반도에서 근본적인 긴장들을 풀...

한반도 동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로버트 A 스캅...

한 것은 북한이 취해 온 과거의 입장이 존속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이같은 반응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개척책을 취할 수도...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hjhs@donga.com



중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베이징=이중훈특파원) lhhjz@donga.com

일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hjhs@donga.com



일본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hjhs@donga.com

“냉전서 화해로 극적인 반전”

美, 北 불량國서 제외될 가능성 제시
中 “평화구도 기초 마련” 환영 분위기
러 “동북아 안정기여-러 國益 도움”
日 “신뢰조성 첫발 디뎠다” 큰 관심

▶ 타졌다. 이 통신은 남북정상이 장시간의 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와 평화통일,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교류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의 지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박건일(朴健一) 연구원은 19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이번 합의는 남북한 남한사회에 중저부를 찍는 역사적인 거부”라...

(베이징=이중훈특파원) lhhjz@donga.com



러시아 정부는 19일 저녁에 이미 신속하게 남북 공동 선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러 외무부는 이날 19일 일러산드로 루소프코 외무차관과 11일 일러산드로 아르벤코 외무부 차...

변인이 환경 이타르나스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인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이 긴장완화와 화해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 러시아의 국익에 광범위하게...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달 19일 북한을 방문해 직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 부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타르나스는 푸틴이 약 17시간 동안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러 북관계 정상화가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지만 남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5대항 의고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 미사일 개발문제, 핵도발과 핵문제다. 외무부 아주르부차관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khhy@donga.com

이 5대항에 합의하는 등 당국들 거론해 다져 한반도 동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완화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본은 다음달 오키나와(沖縄)에서 개최되는 GS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관계 개선에 대한 건국적인 지지 표현으로 표시할 방침이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이 열렸다”면서 호감 성지에 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 가운데 일본의 대북 역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염려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협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남북한이 3대항에 합의한데 대해 밤 9시와 10시 뉴스에서 전문가와 해설을 곁들여 가파르게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번 합의는 다성국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서울에서 24시간 동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적인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도 19일 보도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북한이 신뢰조성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전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kky@donga.com





# “보안법 폐지 않나”에 “개정 논의중”



‘평양신문’ 둘러보는 추여사  
대동맹부의 이화호여사가 14일 오후 북한이 자랑하는 신보인대 조문현원 ‘평양신문’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AE면에서 ‘이오저오’ 이어질지나

이화호여사대동맹부 방문길에 평양신문을 둘러본 추여사가 “보안법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의를 건넬 때 “보안법 폐지하면 북한, 중립을 주장하고 이념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화호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화호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민주의 원칙을

이화호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공정관과 이화호 여사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화호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이화호여사 및 수행원 움직임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평양 이화호 이오저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서울에서 보내온 신문철 보며 환담 추여사 북여성들과 교류문제 논의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추여사는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며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다.



# “이런 날 볼줄이야” 목메인 실향민



## 이산가족 상봉 합의 표정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날 길이 열렸다!”

전국의 1000만 이산가족들은 1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0여년간의 기다림이 이젠 결실을 맺게 됐다며 눈물로 환호했다.

특히 60대 이상 노령층인 이산가족 1세대는 “이날을 위해 살아왔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남북한 정상간의 합의서 내용 발표를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은 발표 예정시간인 오후 9시가 훨씬 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자 초조해하며 신문사 등에 전화를 걸어 “혹시 뭐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다 밤12시 직전 합의서 서경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가장 길지만, 가장 기쁜 하루였다”며 감격해했다.

심야서명에 “가장 길고 가장 기쁜 하루”  
“만사 제쳐놓고 고향 가겠다” 설레임도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4일저녁 남북한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향민촌인 강원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여석창씨 가족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실향민이 밀집한 강원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주민들은 이날 밤 이웃끼리 한데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이는 등 기쁨을 나눴다.

남성관(南星寬·67·함북지사)씨 = 솔직히 함북 출신 실향민들은 ‘정상회담이 이뤄질까, 또 이뤄진 다 해도 성과가 있을까’라며 회담 자체에 불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낸 것은 경말 여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서울을 떠날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

동을 느꼈는데 오늘 이런 소식까지 들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북받쳐 오른다.

김태식(金泰植·83·속초시 청호동)씨 = 생후 3일밖에 안된 아들과 아내 등 4명의 가족을 고향인 북강원 이천군 관교면 농촌리에 두고 떠나왔다. 월남가족의 땅에를 쓰고 고생해 왔을 어부의 가족들에게 가졌던 죄책감과 한이 이제야 풀릴 것 같다.

현씨(62·가수) = 경기 성남시 마사리 카페에서 공연하고 돌아가

는 승용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도 내내 2년 전 연변에서 만난 두 동생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8남매 중 평양에 남은 다섯째 명지(58)와 여섯째 김자(56)···, 내일 아침 방송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TV 보느라 잠을 못잘 것 같다. 어제 오늘 설렘 속에서 TV를 봤다. 꿈만 같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두 정상에 감사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만사를 제쳐놓고 고향에 가고 싶다.

조경철(趙慶哲·72·천문화학자)씨 = 살아 생전 동생의 얼굴을 다시 못볼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다. 동생과 헤어질 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 혼자만 동생을 만나고 와 북한에 있는 활약을 두고도 만나지 못해 애 태우고 있는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했었다. 나이가 많아 드신 120만 이산가족 1세대분들은 부디 건강에 신경을 써 꼭 한을 푸셨으면 좋겠다(조박사는 지난해 11월 25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동생 경두(慶斗·66·함흥 영성기계종합중국기독교국)씨와 52년만에 상봉).

김경희(金敬喜·68)씨 = 50여년을 기다려온 보람이 있다. 합의문을 직접 보기 위해 밤잠을 설치다. 대통령이 북한으로 떠날 때 사진까지 보여줬으니 북에 있는 동생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부·이슈부) choi@donga.com

# “북한 외자 145억달러 조달 가능”



### 특혜 보고서

IMF 기입한 27억~45억달러

대입청구권 50억~100억달러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북한 경제 발전 자금으로 최대 45억달러 가량을 끌어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통일부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가능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가입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7억~45억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베트남 등 북한과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이 국제기구 가입을 전후해 지원 받은 전례를 참작해 산출한 것.

한은 보고서는 정부가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앞서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북한의 국가부채를 스빈 펀드가 스핀아웃 해재간한국 스아시아대공양외의 국가로 설정, 해당 국제금융기구의 재원과 지원 권형 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밝

혔다.

이와 별도로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일단락 되면 일본 정부도 대입청구권 자금으로 대출 것으로 예상되는 50억~100억달러를 합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100억달러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계산으로는 각기 않은 규모지만 문제는 실제 지원에 이르러 기가재외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김주현 한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장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은 통일 후 5년 이상 지나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 중도 금액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돕는 것으로 유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빈곤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상당규모의 조달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경수 대외경제협력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력을 갖추려면 경제개발의 자금을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나 무상대여 가까운 형태로 자금 유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외자유치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규 금융연구원장은 “국제기구 가입이 성사되면 북한은 주요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서 대외금융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으로 활용되고 이와 병행해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원재기자



## 北지점 승인요청- 환거래계약 추진 은행들 “바쁘다 바빠”

외환은행이 금강산 운영리에 지점 개설을 승인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요청했다.

조흥은행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지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부 시골은행은 남북한 금융기관간 환거래계약(크레딧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13일 “우리는 이미 한반도에 여러가지가 있어 북한에 추가 지점을 개설하는 데 유리하다”며 “관공력이 많아 환전 요구가 많은 금강산 운영리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

근 남북경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지정개입 승인 등을 경성회담이 끝난 이후로 마비되고 있다”며 “다른 시골은행도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흥은행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 내 지점 설치를 위해 정부 승인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은행 규정이 바뀌고 당초 지난달 초 시작하기로 했던 대북송금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한빛은행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국환관리법 제정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했으며

라 다음달부터는 대북송금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 금융기관이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행처럼 3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남한의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우리 은행에 입금시키면 계약을 체결한 북한은행에 송금해 주고 북한은행은 대금을 북한의 수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환거래 계약은 북한측 승인이 있어 남북한이 각각 청산은행을 두고 모든 수입대금을 입시에 걸기하는 청산결제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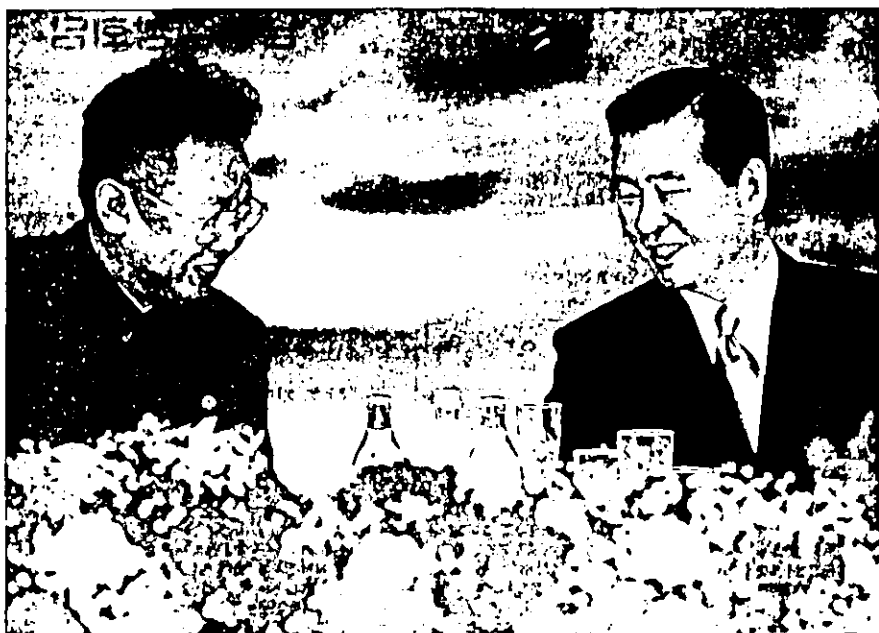
(박원재·이민기기자)

witness@donga.com

## 한국일보

2000. 6. 15 (목)

## 밭길 닿는 곳마다 ‘한마음 한핏줄’



만민청 대청한 두정상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총리. 1998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중 촬영된 사진이다.

### “남북經協 ‘법률인프라’ 구축 시급”

#### 이중과세 방지제도등 필수 분쟁예방 법적기반 갖춰야

남북경협이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기능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법률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정치논리에 기반한 일시적이고 호혜적 성격이 짙었던데 비해 앞으로의 경협은 철저한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94년부터 북한법을 연구해온 김상균(金祥均)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은 14일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 여러 복잡한 다대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이나 국

민이 북한의 재산소에서 재판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원장은 이어 “이같은 분쟁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야 남북경협 등 교류가 남북 모두에 신뢰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대외 경제개방과정에서 치밀하게 관계 법령 등을 준비해 외국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92년에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한 이래 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 94년 합작법, 95년 대외경제계약법과 대외민사관계법 등을 잇따라 제정해 외부에 공개해 왔다. 한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법조계도 이같은 북한의 법을 치밀하게 연구해 경협 관련 협정이

나 법제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은 '북한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에 대해 내려진 외국의 판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국제적 관례인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앞으로 남북한 실무자들이 논의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92년부터 북한법을 연구해온 법무부에서는 경협과 관련해 우선 해결해야 할 법률인프라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제도 △견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商事)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제도 등을 꼽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경협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제화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내에 ‘경협 법률자문단’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 한국경제

# 對北인맥 총동원령...전담팀구성 붐

### 중견기업도 자체창구 잇단개설 사업타진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대북라인' 강화에 총력전을 펴고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축소·폐지했던 대북사업팀들을 재정비하고 대북 협상장구를 복원하는 한편 신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대와 삼성 LG 등과 같이 대북 직접창구를 갖고 있지 못한 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쌍용은 최근 중국 본부장을 지냈던 이은범 전무를 위원장으로 하는 NK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전무는 지난 94년 시멘트 플랜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NK위원회는 산하에 에너지 자원사 회간집시실 등 8개 부문별 사업조직을 두고 신규 대북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화도 각 계열사별로 경협사업팀을 재구성, 서해안 남포공단에 석유화학 및 PVC타일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진·선봉 지역의 정보통신망 및 물류센터 건설사업도 재추진기로 하고 95년1월 방북 인사를 중심으로 사업팀을 짜고 있다.

코오롱은 상사내에 대북사업 전담팀을 구성, 북한내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 북한내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며 정부 승인을 받아놓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원사공장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일모직도 북한내 의류 임가 공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이 사업을 주관해온 해외사업팀을 확대 개편,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대와 삼성등에 비해 대북사업을 소홀히 해온 SK그룹은 이인상 SK상사 정보통신부문 사장과 북한사업 팀장을 맡았던 한일상 전무를 중심으로 대북라인을 다시 구축중이다. (주)대우도 94년의류부장 재직시 북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북사업에 참여해온 장경욱 이사를 중심으로 대북사업 조직을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북한과 교역중인 중국기업체의 리스트를 요구하는 중견기업들의 요청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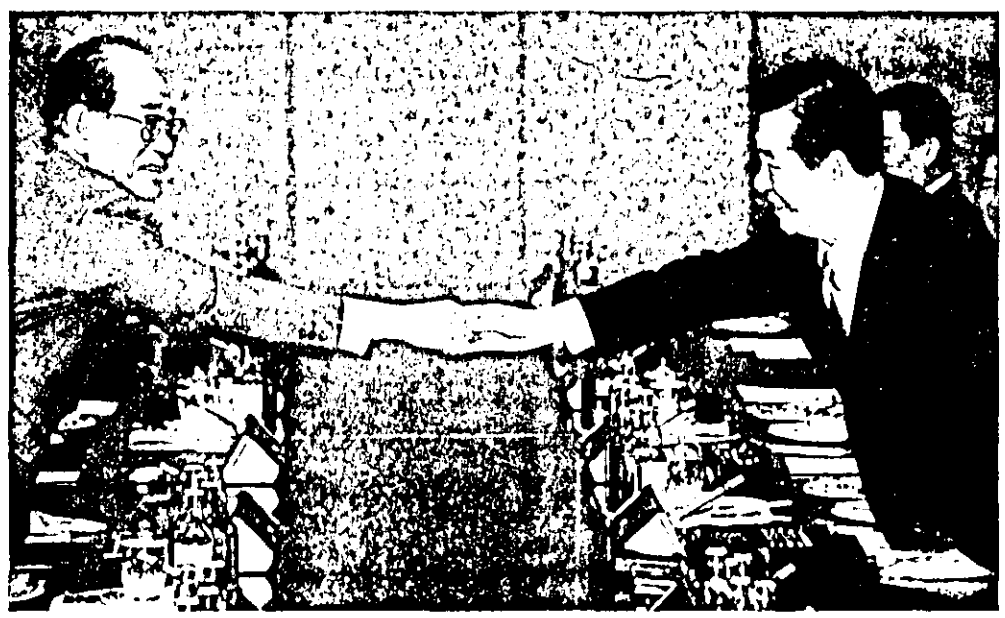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비해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대북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기업들의 대북경협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삼기 기자 sglee@hankyung.com

# ‘통일 대장정’ 첫발 디뎠다



## 공동선언 합의 의미

새 시대가 개막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늦은 밤에 그야말로 ‘꿈’과 ‘공동선언’에 합의, 봉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문유 활짝 열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우회적으로 다짐한 대목이다.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선언 발문에 김위원장의 시종남방을 명시, 앞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협력구도 등 입체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김대통령-김영남 악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화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두정상 서울-평양오가며 협력구도 입체적 조율 교류-경협 실천의지 표출-후속조치 급진전 될듯

대내외에 과시했다. 남북관계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꼽아해도 무리가 없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교류사업 추진등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합의내용은 남북양측이 분단의 벽을 허무는 교류, 협력사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관문점 등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당국자 회담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과 평양의 교류창구도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당시보다 더욱 활발 공산이 크다.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급한 과제여서 남북한의 후속조치가 초스피드로 이뤄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공히 이산가족 문제의 화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측은 △원 100명씩 상봉 △월 1회 쌍방 300명씩 생사 및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등 구체적 제의를 내놓은 상태다. 김위원장은 회담에 앞서 “실형인과 탐복자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측의 기대수준을 뛰어넘는 순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정상이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의 지향점을 모색키로 합의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양측이 이같은 공동인식아래 이날 선언대로 자주적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통일의 그날은 결코 멀지 않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문이 각각 체제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초래한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양후 남북한 내부정비도 이날 공동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승협기자)

# 이산가족 자유의사따른 재결합 추진



## 공동선언 세부사항

남북 1000만 이산가족의 반세기 한이 끊리려나.

남북 두 정상은 14일 2차 단독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합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남북은 이날 합의문에서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한다"고 명시,

## 일회성행사 그쳐선 안돼

### 가족상봉

1985년때처럼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교환방문 정도는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영(朴正榮) 청와대 대변인도 "유일하게 남씨가 지정된 조항"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관건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례화·상설화된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시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쪽 입장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 교환 △왕래와 상봉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순으로 단계적, 지속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

월 100명씩 상봉 △월1회 방방 300명씩 생사와 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월 2회 우편물 교환 △관문점 상봉면회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남쪽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재회가 북쪽으로서는 체제문제까지 얽힌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쪽이 호응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우리쪽 '희망사항'의 최소치에 불과하다.

이산가족 재회가 85년때처럼 일회성에 그친다면 '짧은 만남이 긴 이별'로 이어지는 비극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고향방문단 교환에서 한발짝 나아가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까지 호응,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화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허범규기자)



**건배** 14일 두 차례에 걸쳐 3시간여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룩관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경강=청와대사진기자단)

### 통일방안

남북한 통일방안이 집합을 맞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11월 남북한 통일방안은 우리측의 연합제 聯合制 안과 북측의 연방제 聯邦制 안의 절충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두 방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이 주장한 연합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에서 제1단계인 국가연합 단계가 의미하지만 이 보다는 다소 느슨한 형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연합은 두 개의 서로다른 국가 남과 북 가 시범·국방 등 주요권한만

중앙정부에 일임하고 나머지 권한은 연합국가들이 갖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연합제는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 맡기는 형태로 보면 된다. 이것이 발전하면 결국 '1국가 1민족 1제도 1정부'의 완전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는 '1국가 1민족 2제도(체제) 2정부'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 각기 지방 정부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최종 목표'로 보고 있어 영구분단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비공식적으로 연방제를 잠정적·단계적 과정으로 인식하려 해 관심을 끌었다. 강력히 주장하

던 2제도 문제를 "후대에 맡기자"는 통유연하게 접근해왔다.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건 '느슨한' 연방제 개념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이 영원히 별개의 연방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개념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는 두 경상이 지적한대로 닮은 점이 많다. 남북한이 '서로 잡아먹거나 먹히지 않는다면 두 방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하거나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조인호기자)

### 장기수

1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해 유·8·15에 즈음해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1933년 북송된 이인모(李仁模) 이와 같은 비전향장기수의 북송문제가 공론화됐다.

그동안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문인전부 때 무조건적인 이인모 송환으로 비난 여론이 비등해 공론화가 급가시됐는데 이번에 남북한 공식 의제로 설정된 것이다.

## 북한연고 51명 송환 희망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된' 비전향장기수는 한 명도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사상정향제' 폐지로 지난해 2월 우은자 72세 등 17명이 풀려난 데 이어 지난해말 신광수(申光洙) 71세와 송성모(孫聖模) 69세가 마지막으로 사면됐다. 현재 이들은 서울 '단남의 집'과 대전 '사랑의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기협 등에 따르면 석방된 남과합과 6·25전쟁 포로 등 비전향장기수 출신 중 북한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60여명이다. 이 중 희망 정도가 북송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인서 74, 김영태 71, 함재한 68세 등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 북송된 장기수에는 이렇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전향장기수의 북송문제는 남북한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 공식 집계된 강제남북자 153명의 송환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 앞으로 남북한이 타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준기자)

### 당국간 대화

당국간 대화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교류확대를 위한 안전장치다. 당국간 대화의 통로가 열리면 분단체제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분단 50년동안 수많은 대화 채널을 거쳐 왔으나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당국간 대화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상실되지는 못했다.

당국간 연락을 위해 관문점 남북연락사무소의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은 1992

## 평화정착위한 안전장치

년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관문점 남북지역 평화의 집과 북쪽지역 통일각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 가동했다. 96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원과 전화를 철수한 뒤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남북공동사무소의 개설도 검토된다. 공동사무소는 남북 정부의 관리가 함께 과감해 근무하게 되면 설치 장소로는 관문점 등이 유력하다. 공동사무소에선 현

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교류에 따른 관세·통과 업무 등도 협의하게 된다.

정부는 기본합의서 체결을 복원해 화해 군사 교류협력 시의문화 등 4개 공동위협 가동을 비라고 있지만 경제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공동위 등의 전면 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 사회간접시설 확충, 민간부문의 개혁협력, 농업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룰 경제공동위의 재가동은 예상할 수 있다. (윤상현기자)

### 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14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 교류 수준을 넘어 획기적인 상승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남북한 회담 무드가 남북 양측의 대외 신인도 향상 효과로 기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김시중 대통령이 배웠던 선전에서 밝힌 북한복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된 셈이다.

◀대북 교류 활성화=무엇보다 북한측

## 교역활성화 大전기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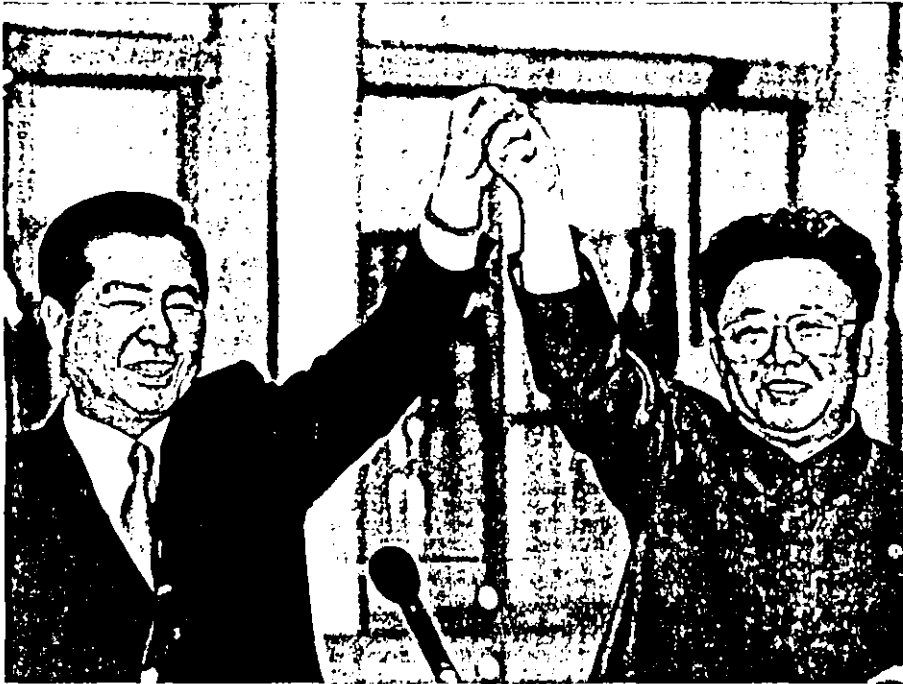
기업이 북한에 안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세 방지협정 체결, 경제제도 마련, 상사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의 문제가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북한 특수 발생 전망=남북이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대북 투자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우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은 남측만 대외신인도 신용등급 상향의 장애 요소로 꼽아 왔

지만이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수요는 거이 무한하다.

▶북한의 대외신인도 제고=그동안 북한의 경제협력은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북한이 국제통화 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으로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들 기금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홍철기자)

# 金正日 연내 서울답방



화해를 향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후 시대에 걸친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하기에 앞서 지속적인 의미에서 손을 맞잡아 올리고 있다. (중앙=합의대사전기자단)

## 비정상회담 이산가족 방문단 8·15때 교환 통일방안 연합-연방제 절충 빠른시일내 판문점 실무회담

###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개선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산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남과 북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평양=공동취재단】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서울 방문 요청을 수락, 빠른 연내에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14일 오후 11시20분 백화원인민관에서 만나 5개항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발표, 김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공식화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선언문에서 8·15 광복절에 즈음해 이산가족과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통일방안으로는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절충해 모색하기로 의견 일치도 보였다.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어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남북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해 판문점 남북대회가 성사될 전망이다.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회담 시작 2시간20분만인 5시 20분에 1차 정회를 한 뒤 6시15분에 다시 개시하는 등 3시간여만에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자구 수정을 번이느라 11시20분에 두 정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은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체제 단계로 접어들게 돼 본격적인 화해협력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 발표에는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두정상은 이날 오후 3시 백화원인민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 작업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남측에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 황원탁(黃源卓) 외교인보수석이, 북측에서는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배석했다.

김대중은 이 자리에서 "남과 북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합의를 이뤘으나 이제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측간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 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방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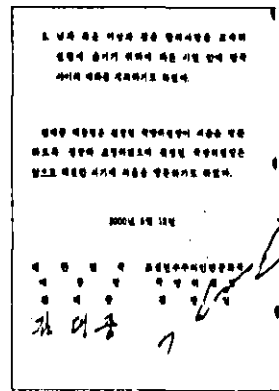
김국방위원장은 "남한 TV를 보니 인민들이 정상회담에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심정민과 탈북자들이 유고 있더라"며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두 정상이 이날 역사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정상간 핫라인 설치와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개설 문제를 가까운 시일내 해결할 전망이다.

## 송대통령 육로귀환 취소 오늘 비행기로 서울에

평양에 체류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방북입정유 미치고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대통령 일행은 당초 평양에서 승용차편으로 관문점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 환영식에 참석한 인사에게 환영행사장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한용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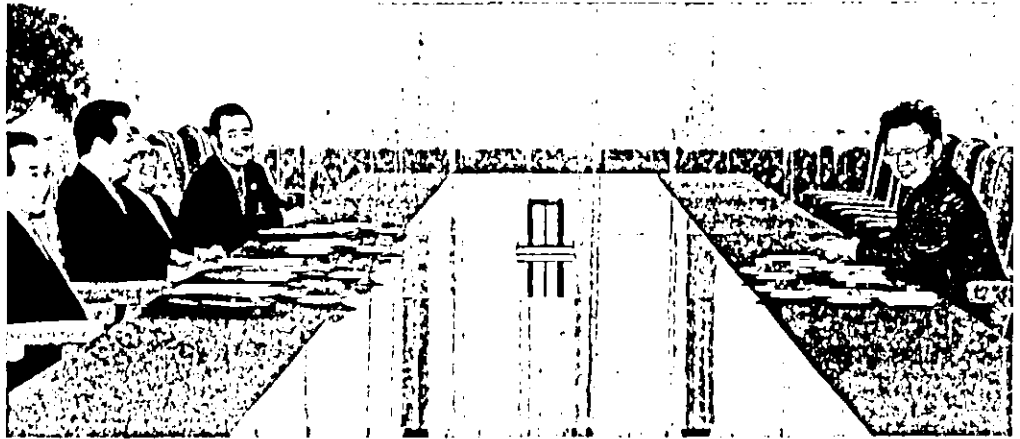


# “냉면 급하게 자시면 맛 없습니다”



## ‘2차 정상회담’ 대외록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간 평양 백암강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은 북쪽에 관영으로 보도된 외산 기사와 사이에 중·영식 기사도 보도되었으나,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의 “1차 회담에 김정일 주석 배치가 되고 재간 없는 안건이 상



### 금위원장

“용단 내려 오신것에 환영 평양시민 지금 흥분상태”

### 금대통령

“파격적 환대 남쪽도 놀라 우리 악수할때 기립박수”

14일 오후 3시 30분경 평양 백암강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 회담은 북쪽에서 관영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와 사이에 중·영식 기사도 보도되었으나,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의 “1차 회담에 김정일 주석 배치가 되고 재간 없는 안건이 상

시간 여유가 가지고 한시간 정도라도 여유롭게 있을수 있다.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내리서서 1시간 30분 정도에 한 시간만이라도 여유롭게 있을수 있다.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와 사이에 중·영식 기사도 보도되었으나,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의 “1차 회담에 김정일 주석 배치가 되고 재간 없는 안건이 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낳았다  
 동맹국들에게서다  
 평화 교육하기 시작하여  
 동맹은 차가 확실하게 맺어  
 하나뿐이다  
 1990년 6월 14일  
 김대중  
 김정은  
 김정은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평양 백암강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북쪽에 관영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와 사이에 중·영식 기사도 보도되었으나, 김 위원장은 서명한 외산 기사의 “1차 회담에 김정일 주석 배치가 되고 재간 없는 안건이 상

### 두번째 대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평양 영빈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영상=평화대사기자단)

## 배석자 극히 제한

### ■ ‘2차 회담’ 참석 인사는

김대중(중산)이 대통령과 김정은(금정)이 국방위원장의 1차 2차 정상회담에는 이날 오전 김대중(중산) 회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장에서의 남측 배석자가 극히 제한된다. 김 위원장의 좌측으로 임준환(남측) 특보와 이기호(남측) 참모장

### 남, 임동원-이기호-함원택수석 북측 김용순아태위원장 눈길 경험문제 논의에 무게 실려

김대중(중산)이 대통령과 김정은(금정)이 국방위원장의 1차 2차 정상회담에는 이날 오전 김대중(중산) 회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장에서의 남측 배석자가 극히 제한된다. 김 위원장의 좌측으로 임준환(남측) 특보와 이기호(남측) 참모장

조선아시아태평양연립회의장이 배석했다. 대정부측은 아니라 최남실(남측) 회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장에서의 남측 배석자가 극히 제한된다. 김 위원장의 좌측으로 임준환(남측) 특보와 이기호(남측) 참모장

# “金위원장 답방시기 아직 결정된것 없다”



## 박준양대변인 '공동선언' 배경설명

박준양(하광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시범 직후인 15일 새벽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문의 내용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박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용.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언제쯤이 가능한 시기인가. 8-15 광복절에 가능한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북측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한때 이뤄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아 말할 수 없다. 남북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향후 남북간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남북간 하라인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없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한 두 정상의 반응은.  
△김대중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합의문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반갑고 훌륭하게 생각되고 있다. 김위원장도 만찬에서 굉장히 대단한 만족스런 표정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분위기를 보여준다.

-북일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한다는 표현은 뜻깊은 북측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  
△남북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용어에



## 두정상 합의문 매우 흡족해 해 남북간 하라인설치 합의 안돼 실무자 대화 빠른시일내 시작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 상호존중하자는 의미다.

-원할때와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키 나간다는 의미는.  
△합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 협의를 통해 여러갈래의 많은 대화 이뤄질 것임을 말씀드린다.

-합의내용을 주변 우방에 설명하나.  
△빠른 시점에 설명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김대중원에게 요청한 북일 수교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 왔다. 이같은 입장은 북측에도 전달됐다. 일본의 모리 수상이 희망했던 북일 관계개선도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은.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두 사람의 대화 중에 특이한 얘기를 소개할 수 있나.  
△적절치 않다. 여기서 소개할 것은 두 분이 회담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설명과 설명을 했다. 그 결과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합의문 5가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날짜가 지칭된 합의문이 이 조항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대북위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날짜가 규정돼 합의됐다. 앞으로 남북간 대화는 물론 규모와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출어선 가족에 포함어부, 납북지도 포함됐나.  
△문구대로만 이해해 달라.

-비전향 장기수와 친화 방문이 동시에 이뤄지나.  
△실무자간 합의에 따라 것이다.

-김위원장의 답방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  
△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다. 북 서울을 방문해 민족문제를 해결하자고 정중히 제안했고 김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군비축소 같은 핵심 문제가 남아 있는데.  
△두 분은 남북간에 서로 생각남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얘기했다.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

-합의문에 대한 실무자간 대화는 언제쯤 시작되나.  
△빠른 시일 안에 당국자간 대화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빠른 시일 안에 대화를 하자는 분위기를 보고 관망해 왔다. 당국자간 레벨이나 분야는 결정되지 않았다. (광일=공동취재단)

## 김대중대통령 만찬사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소 민족의 밤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용인 혼란을 겪을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협력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리세가 첫 해에 우리 양국의 경제에 한 자리에서 만반이 있습니다. 역사적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총명함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남북이 진정한 재평을 받고 상호평화를 해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제언을 양국에게 추천해 왔습니다.

## 김영남상임위원장 답사

50년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만나 함께 보낸 2일間は 너무나 오래 헤어져 살아온 세월과 너무나 짧은 만남의 순간이 돌보아 속에 교차되는 뜻깊은 날과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원도자이신 김정일 장군님과 리사적인 사랑을 하시고 우리의 최고위원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감지할 수 없는 한 약속이며 그 어느 이들에게도 비할 수 없는 동족애를 기를 확인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아 민족문제를 동족애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진

지하게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소통한 것은 민족적 단합의 좋은 모습을 거레안에 보여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사이에는 물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 의견을 접는 시키야 할 문제들도 있고 함께 걸어 나가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야할 길에 대한 걱정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능히 할 수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 남북 회담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문명을 미래의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재화와 힘을 모아 왔습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이 온 거레의 숙원인 문명의 길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정상회담 '정례화' 문열려

## 김정일 서울답방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서울 방문 초청을 수락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길이 열렸다.

초미의 관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이다. 김위원장의 조기답방이 이뤄지고 추가합의가 도출되면 통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만큼 기대가 크다. 연내 답방설이 세를 얻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답방시기와 관련, "올해 추위가 오기 전에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 주변에서도 광복절 전후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일무장분쟁을 바탕으로 출범한 북한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11월 이전 남북간 주요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설까지 붙어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 달 중국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서울 방문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주도를 위해서도 연내 답방을 적극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국정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곧바로 제2차,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란 논리다.

연내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공화국창건기념일(9월9일)과 노동당 창건55주 기념행사(10월10일)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장쩌민 주석의 방북 등을 하반기 일정이 이미 북한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답방시기를 잡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용걸기자)

世界日報

2000. 6. 15 (목)

# "당사자간 해결" 세계에 천명

## 자주 통일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나가는 대장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정상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전세계에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개 강국보다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주체임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킨 셈이다.

두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공존공영(共存共榮)을 도모하고 통일대업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반도 문제의 시발점은 분단이 아니다. 분단 반세기에서 오는 남북간 사회, 문화의 현격한 이질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생겨난 반목과 오해

는 민족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원칙 천명은 남북의 모든 문제가 통일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은 어렵고 실사 이뤄진다고 해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회·문화·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일소했다고도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구축하는게 우선 과제다.

두 정상의 만남만으로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신뢰의 끈을 이어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를 위해 경험과 교류를 확대해 신뢰구축이 이뤄지면 적절할 시기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윤삼환기자)

# “은둔에서 해방”된 베일속 지도자



| ○김정일 주요 발언록   |  |
|---|--|
| ★서중의 모신문 제호가 바뀌었다면서요.   |  |
| ★사건만 있고 기사가 없는 신문은 허를 놓는다.  |  |
| 남한 텔레비전을 보니까 실정인과 발목사들이<br>★눈물을 흘리더라. 그들은 이번 기회에 고압소식이<br>현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축을 대공리다. |  |
| ★구리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은둔생활을 하느냐고 하는데,<br>나는 비록 비공개이긴 하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다.              |  |
| ★중국 갔더니 한국의 정치가 나와 남북 사람들 혼일났다고 생각했다.   |  |
| ★2박3일만에 담 만들어내야   |  |
| ★독립고, 무기를 만들 오았다. 공산주의자도<br>도덕이 있고 우리는 양은 민족이다.                                     |  |



## 어두운 과거사 청산 강한의지 통일문제 적극적 입장 보일듯

### 김정일 발언 분석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정상회담에서도 전남에 이어 많은 말을 쏟아냈다.

이같은 말 쏟아는 종처럼 집하기 힘들었던 김위원장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한 언론인식=김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남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김위원장은 “남측에서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군요”라고 말해 언론 보도 동향까지 민명하게 점검했음을 시사했다.

또 “서중의 모신문 제호가 바뀌었다면서요”라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위원장이 남측 언론을 통해 남한사회와 서구 사회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확인해준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북안문제 전문가들 김위원장이 남한뿐 아니라 세계유리 언론매체를 집하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사회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협상지세=김위원장은 백화인 양반관에서 “유난을 내리셔서 오신 것에 대해 온 인민들이 뜨겁게 마중하고 했는데 인사가 잘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전적 발언이란 해석도 가능하지만 과거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측이 보였던 태도와 입장에 견주어볼 때 이번 정상 회담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남측 인사와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얘기하고 싶다는 입장표명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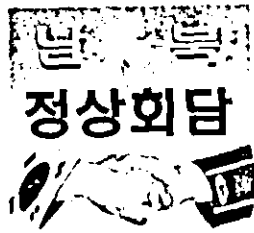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문제 관심=김위원장은 남북자리는 남측 용어까지 인용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당면한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중발방에 대한 간접입사=김위원장은 “구리와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은둔생활을 하느냐고 하는데, 나는 비록 비공개이긴 하지만 중국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이 발언을 놓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서중발방에 대한 간접적 암시를 한계 아니냐는 해석도 대두되고 있다.

(목영대기자)

# “듣던것과 딴판” 김정일평가 ‘혼란’



## 시민들 의외모습에 '중격'

‘불룩 튀어나온 배에 단당한 태도’ ‘주위를 장악하는 화술’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깎듯한 예의’

성격이 괴팍하고 말씨가 어눌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면목이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 곳곳에 ‘김정일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의 영접때부터 14일 오후 백화인 영빈관 2차 정상회담장에 이르는 동안 김 위원장의 성격과 화술·리더십 등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사뭇 달라 TV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대학가에는 김정일의 인물경우 한 대자보가 나뉘고 서점에는 김정일과 북한에 관한 책들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으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했던 김정일의 언행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학 및 정치 학자들은 여태까지 김정일 연구가 단편적이었으며 정치 군사 사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파격적인 공황 영접이나 깎듯한 매너가 고도로 계산된 정치외교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급하고 무분별한 김정일 신드롬에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다.

동국대 북한학과 최대석 崔大錫

### 깎듯한 예의·화술 “괴팍·어눌” 소문과 달라 “고도로 계산된 연출” 일부에선 신중한 반응

41 교수는 “평소 김 위원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통감했다”며 “김 위원장을 정치나 군사부문에 치중해서 연구했는데 그의 문화적 식견이나 그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등으로 연구 방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대 약대 계서관에 나뉘는 김 위원장의 인물경이 그동안 외면을 받다가 그가 TV에 모습을 드러낸 13일부터 학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겉에서 본 김정일’이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담은 이 대자보는 ‘성격이 괴팍하고 능력이 없다’는 평가는 잘못됐으며 ‘기쁨조’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생은 “대자보를 13일까지 불 읽 생각이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보와 종로 등 서울 시내 주요 서점에는 김정일에 관한 서적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직원은 “하루 5~6권 나가던 김정일에 관한 책들이 13일부터 14~15권 정도 팔리고,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김정일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이텔의 한 네티즌 cooljazzchae은 “배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멋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김정일의 공황 영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한 발짝쯤 뒤에서 따르는 배려가 좋았다”라는 네티즌 worx도 있었다.

〈신진호·김용출·황계식기자〉

**다양한 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TV화면 촬영)





모습 드러난 김정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조크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세계 매스컴에 등장한 방식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는 이날 김 대통령과의 환담과 전날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영접 장면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오라고 외치는 듯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김 위원장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파격적인 태도와 자신감=김 위원장의 변모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 단어는 '파격'이었다. 예측을 깨고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오고 김 대통령과 리무진에 뒹군, 즉석 정상회담을 가진 데서 그의 스타일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거침없고 당당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전 환담에서는 "TV를 통해 탈북

소문과 달리 거침없는 성격- 격식파괴 눈길  
유머 넘치는 화술- 좌중 이끄는 능력 뛰어나

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며 예민한 사안을 담담하게 언급하는 여유도 보였다. 그는 또 김 대통령이 영접장면을 보고 외신기자가 박수를 쳤다고 하자 "인사차 갔던 것인데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그러느냐"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까지 보였다.

◇감렬한 키리시마=그러나 남측에 대한 그의 예의바른 태도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공행행사에 나온 평양시 만은 주민인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정일'을 훨씬 더 많이 연호했다. 북한주민에 대한 절대적 장악력이 엿보였다. 선친인 김정성 주석과 김 위원장의 위상이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반증하는 장면이었다. 또 영접시 김 위원장 주변에는 근접 경

호인 외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권력 시위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도 예외가 아니라서 범접할 수 없는 그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게 했다.

◇화술과 어투=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선친 김정성 주석을 닮은 듯 깊고 공명이 컸다. 방북대표단과 취재진 사이에서는 골골한 목소리와 소탕하면서도 유머 넘치는 화술로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항 영접때 김 대통령의 견우를 책임진 안주갑 김호실상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농담 던지는가 하면 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김 대통령의 방문으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창훈기자)

김정일 신상명세서

|              |   |                   |  |
|--------------|---|-------------------|--|
| <b>연 령</b>   | • 국방위원장, 노동당총비서, 최고인민회의대의원  | <b>외 모</b>        | • 인민백 처형, 열매리를 쳐놓은 꼬마리<br>• 키 160~165cm, 골동은 구두      |
| <b>나 이</b>   | • 58년(1942년 2월 16일생)  | <b>어 투</b>        | • 골골한 목소리에 똘똘 말투                                     |
| <b>출 생 지</b> | • 히바르보르스크 소련 국공군 88독립연기지(북청군 현보산 보영주동)  | <b>표 정</b>        | • 청명한 웃음과 다소 건조한 듯한 재치                               |
| <b>본 고향</b>  | • 전주(13대조 전주에서 행정 이주함)  | <b>태 도</b>        | • 연금지 짝뚱이 예우하며 거침없는 스타일                              |
| <b>학 령</b>   | • 남산고급중학교,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동독 항공군사학교 수학  | <b>위 미</b>        | • 숭마, 수경, 영희감상, 시계                                   |
| <b>주요경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6년 당조직 선전담당비서</li> <li>• 1972년 당선전 선동부 부장</li> <li>• 1980년 당정치국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후계자 선연</li> <li>• 199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li> <li>• 1991년 인민군 최고 사령관</li> <li>• 1992년 현수장호 수여</li> <li>• 1993년 국방위원장</li> <li>• 1997년 노동당 총비서</li> </ul> | <b>기 호 물</b>      | • 8대시 국악 선모  |
|              |   | <b>사 령</b>        | • 심한 근사, 많은 갑석의 두꺼운 연금 착용                            |
|              |   | <b>견 강</b>        | • 심장병, 당뇨병   |
|              |   | <b>성 격</b>        | • 결단력과 추진력, 대담하며 의연성                                 |
|              |   | <b>주요 지시 및 지술</b> | • '주체사상에 대하여'<br>• "은 시기를 김정일 주연하게 하기 위한 열가지 문제 대하여" |

자신감 넘치는 대담한 스타일 과시

일본인이 본 김정일

일본의 언론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13일부터 세계각국에 TV로 방송게되는 가운데 공식 외교무대에 등장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노동당총비서 김 국방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을 관심있게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시종일관 여유있고 대담한 지도자임을 과시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에 종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시키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식 외교무대 첫 등장  
변화된 모습 전세계 선풍  
부정적 이미지 전환 속셈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김 위원장이 13일 스스로 평양 순안공항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마중 나간 데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연출주연한 극적인 '외교 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막됐다"며 "체제존속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日本經濟)

신문은 "전격적인 중국 방문에 이어 김총비서의 모습이 장시간에 걸쳐 세계각국에 방영되는 등 배일에 가려진 58세의 최고지도자의 실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계산된 그의 연출은 오히려 발언 및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라디오프레스의 스킵키 노리유키(鈴木 典幸) 이사는 "중국방문시보다 표정이 긴장된 것처럼 보였으나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듯했다"고 말했다.

(도쿄=전원일특파원)

## “일단 金위원장 생각 듣는데 치중”

### 金대통령 왜 말 아끼나

평양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상봉 및 회담 과정에서는 유독 말수가 적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다변에 가깝게 기침었고 자신 있는 모습처럼 보인 반면 김대통령은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치중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김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방문 당시 상대국 정상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설파, '햇볕정책' 전도사로 통했다. 남북문제에 관한 나름의 철학과 해박한 이론이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남북통일문제가 기쁜날 때마다 항상 대화를 주도했고 다변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그런 김대통령이 김위원장과 대화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평양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과 김위원장의 말에 동감음 표시하는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시만 했다. 왜 그랬을까.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서울에서 각종 행사 등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라며 “그런 만큼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집권에서는 평양 방문 소감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등에 대해 비교적 많은 말을 했다. 김대통령은 13일 저녁 인민문화공전에서 2시간 40분동안 열린 남북대표 환영만찬에서는 공연 관람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조남규기자)

## 中서 활동... 對南경협 전담기구

### 공식면담 등장 '민경련'은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남북공식면담'에 나온 북측 인사 중 정운업(鄭雲業)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이 포함돼 그가 맡고 있는 단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경련은 중국 지역에서 남한과 경제협력 문제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기구. 1998년 5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됐으며, 지난 2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민간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 관심을 끌었다. 또 1998년 6월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이 방북했을 때 정운업씨가 이 단체의 회장 직함으로 영접했다.

정부인 시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단체로 출발한 이 단체는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산업은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고려산업은행은 지난 5월 유니언커뮤니티와 한빛은행이 추진했던 재북 이산가족에게 송금이 이체되는 북한측 은행으로 주목 받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전자제품 입가공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세부 남북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한 북측 상대방도 이 단체 산하 개선무역회사였다. 이 회사는 스폰 나이프 포크 등 스테인리스 제품의 수출입도 담당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 '정상'만남 용어문제로 갈팡질팡

### 정부, 정상회담·환담놓고 혼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3일 만남이 '정상회담'이나 '환담'이나를 놓고 혼신을 빚었던 정부는 14일에도 용어 문제로 갈팡질팡했다. 통일부 양영식(梁榮植)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이뤄진 김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접촉을 '확대정상회담'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 뒤 서울 상황실은 평양 공동취재단의 요청이라면서 '확대회담'으로 용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시간쯤 후 서울 상황실은 다시 보도 자료를 내고 확대회담을 '공식면담'으로 다시 바꿨다. 북측 참석자가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

고인민회의의 관계자와 정당 관계자, 민간경제 대표로 구성됐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양차관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는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간 만남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며, 김국방위원장이 아닌 다른 관계자와의 만남은 공식면담 혹은 의례면담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관대상 국가정상간 만남에서 통역 등 소수만 배석시킨채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지면 정상회담, 양국 수행원과 각료 등이 다수 배석하면 확대정상회담으로 부른다.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 헌법상 국가원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 이날 오전 만남을 확대정상회담으로 불렀다가 김정일 위원장과의 오후 회담을 의식해 뒤늦게 정정소동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조남규기자)

# 뜨거운 교류열망... 예정시간 넘겨가며 토의

## 분야별 워킹 그룹

14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뤄진 정당 사회단체, 경제, 여성분야 등 남북간 분야별 워킹그룹에서는 다양한 협력과제가 제시돼 각계와 교류협력에 얼마나 많은 열망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정당 사회단체와 경제분야 워킹그룹은 당초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1시간15분동안 친지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등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워킹그룹에 앞서 남북 특별수행인들은 조선컴퓨터회사를 방문, 북의 첨단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봤다. 이 회의는 게임, 인공지능, 음악, 전자사전, 토지정리 등 각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삼성전자와 중국 베이징에서 관련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진출에 합의한 바 있다.



방북단 참관 방북 대표단 일행이 14일 오전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방문, 열띤담을 둘러보고 있다.

(평양=청의대사진기자단)

## 정당 사회단체 분야

남측에서는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아베(阿部 善吉)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李完九) 재민당 당무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날 워킹그룹은 "남측의 정당은 오직가 세계평구민수교대회에서의 워킹그룹 구성을 재의했다. 특히 2002년 북한 아시안게임과 관련, 북측 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스승님 환영할 구성 스승님 환영회 개최, 개화 스포츠 축구 등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북수행인장은 남북 축구대항을 무전해 오는 10월 레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때

이에 대해 북측 수행인장은 "남측의 제안이 정사상 수 있다고 되었고 있다"며 "사드나 유엔과 남북 동시 입장 역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측에서는 재민당(李完九) 체육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 경제분야

남측에서는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아베(阿部 善吉)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李完九) 재민당 당무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신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보장대책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양측 당국에 추구할 것을 재의했다.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약속했다. 남측은 또 민간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구입해오는

## 올림픽 동시입장-탁구단일팀 구성 제의 연극등 합동공연-문화작품집 공동출간도

북측에서는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아베(阿部 善吉)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李完九) 재민당 당무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날 워킹그룹은 "남측의 정당은 오직가 세계평구민수교대회에서의 워킹그룹 구성을 재의했다. 특히 2002년 북한 아시안게임과 관련, 북측 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스승님 환영할 구성 스승님 환영회 개최, 개화 스포츠 축구 등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북수행인장은 남북 축구대항을 무전해 오는 10월 레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때

이에 대해 북측 수행인장은 "남측의 제안이 정사상 수 있다고 되었고 있다"며 "사드나 유엔과 남북 동시 입장 역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측에서는 재민당(李完九) 체육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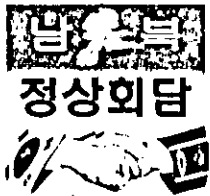
## 투자보호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을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시급

남측에서는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아베(阿部 善吉)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李完九) 재민당 당무위원, 김용욱(金容旭) 대안체육위원, 김동진(金東進) 대안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남북정당간담회를 개최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신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보장대책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양측 당국에 추구할 것을 재의했다. 김영하(金映夏)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약속했다. 남측은 또 민간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구입해오는



# “50년 응어리 풀리게 됐다” 환호



## ‘친척방문 교환’ 합의 소식에 얼싸안고 눈물 꿈속에 그리던 고향에 갈 생각에 잠 못 이루

### 기름 설레는 심방민들

남북 두 정상이 머리물회의 끝에 11일 밤 역사적인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과 심방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밤 늦게까지 기름 쯤이며 TV를 지켜본 심방민들은 종일 8-15에 즈음에 친척방문교환 교환한다는 보도를 듣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죽기 전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밟게 됐다” “남북

간 역사적인 사면이다”며 흥분했다.

“...합의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늦은 밤인 데도 TV 등을 통해 전해지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귀와 눈을 떼지 않았다.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내리곤 이산가족들은 마치없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시울을 적시며 ‘반세’를 외치기도 했다.

신상민 김중환(77)평남출신-인천시부개(50)씨는 “이산가족 상봉이 오는 8월 이뤄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없이 눈물이 나다만 시 “부담후면 6-25해 해어있던 동생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북이 엔다”며 눈물을 글썽했다.

다. “...유정진 인천지의 주민들은 냉전에 밀려 참재했던 지역발전과 이산가족 상봉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이라며 환영.

황원근 반영희 이근희(李根希) 회장은 “공공선언문 채택으로 각종 제약이 반겼있는 최전방 주민들의 절편이 크게 줄어들고 휴전선 인접지의 발전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급강산전선과 강간선 등의 전도도 있고자 하는 주민들의 소원성취 가능성이 분단 이래 어느 때보다 높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동원(60) 이북도원 증북 사업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명으로도 가슴이 벅찼는데 이 같은 성과가 나왔음은 기대하지

못했다”며 “실상명동이 50년간 고대했던 친척 상봉이 두달후에 실현된다는 꿈만 같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박종관(42) 반태송 증북직회 사무국장은 “평양교예단 공연에서 볼 수 있었던 민족 통일회복에 문화가 담긴한 협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998년 합의문이 있으나 성사되지 못한 남북 예술인간 교류가 활발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서울 프레스센터가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2층도 순식간에 환호에 휩싸였다. 특히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이 감격의 추배를 질자 프레스센터에 있는 내외신 기자 500여명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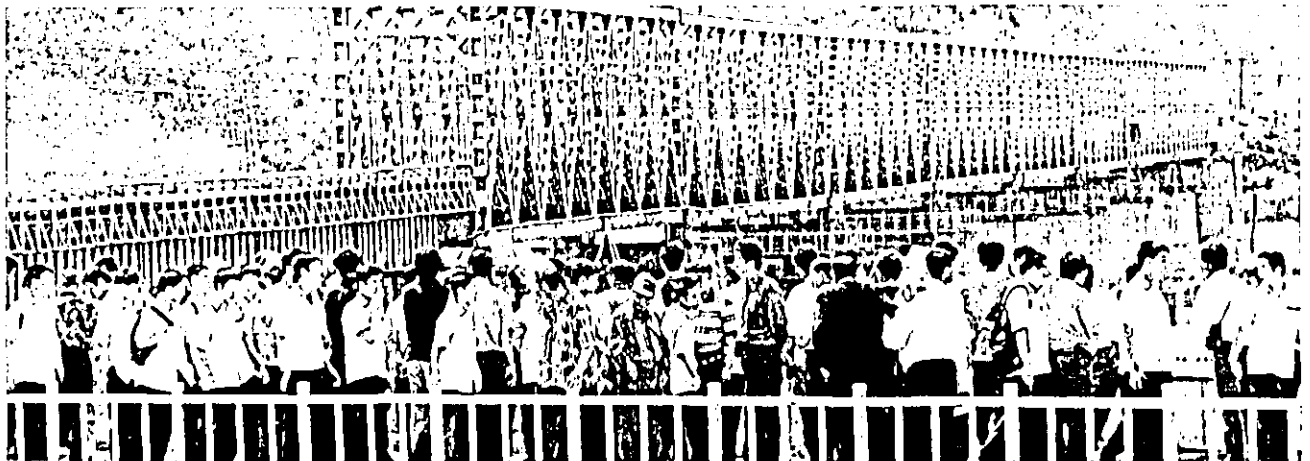
제히 박수와 탄성을 지르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또 두 정상이 ‘말뚱으로 잔을 깨고’ 비우자 프레스센터의 취재인들이 한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36) 북연구부장은 “남북한 정상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발표인 만큼 냉정적 대검구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원연구원 김규성(37) 박사는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며 “다만 7-4 남북공동성명처럼 후속조치가 미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호철(李昊哲·32세)은 “그간 남북의 합의서는 구두선에 그쳤는데 이번 정상간 합의는 삼천 가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번 합의로 남북의 역사는 새로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배영국·신진희·김용술·기자)



자유의 다리 ‘복직’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틀째를 맞은 14일 민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의 자유의 다리가 심방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진각=이세원기자)

## “부드럽고 여유있는 모습 인상적”

‘김정일’역 탭런트 정동환씨가 본 김위원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가 넘치네요.”

97년 KBS 미니시리즈 ‘진부’에 출연 때까지 김적의 국방의 원근 역을 맡았던 탭런트 정동환 씨는 14일 TV화면을 통해 본 김

위원장의 모습이 이국집 아저씨처럼 푸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무용수 신임희씨의 자서전을 각색해 만든 8부작 미니시리즈에서 김씨가 맡은 김적의 위

원장은 고급 위스키를 즐겨 마시고 늘 잘 생긴 여자 인민배우를 곁에 두리었던 ‘황부자’였

다. “성격도 과묵해서 어디로 걸지 모르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을 공약에서 직접 연접하고 남북 수평협

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고 위원이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진감이 넘치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다.”

97년 당시 굵은머리와 김적 선글라스로 분장한 모습이 김위원장과 많이 닮았다는 얘기와 높은 정씨는 날카로운 눈빛과 신경질적이고 역모에 선 명품관 인기할 때 협동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정씨는 “드라마에 묘사된 김이

원장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조금 미안한 느낌”이라며 복스럽게 웃었다.

한편 15년 전 ‘지금 평양에선’이란 KBS 드라마에서 역시 김위원장 역을 맡아 화제가 됐던 탭런트 김명기씨는 화면을 통해 김위원장을 본 느낌이 어떨지 묻자 “어려가지 생각이 들지만 김위원장에 누가 되는 것 같아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구·기자)

# 소년 공전-평양 산원 “필수 관광코스”



## 北이 자랑하는 시설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4일 방문한 평양학생소년공전과 창광유치원, 수예연구소, 평양산원은 북한을 찾는 귀빈들의 필수 방문코스인 북한의 대표적 자랑거리이다.

▷평양학생소년공전=북한에서는 만경대학생소년공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생들이 과학·예술·체육분야 실험과 실습 등 과외활동을 하는 일종의 어린이 회관이다. 30만평의 부지에 1100석 규모의 극장과 500여명용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기타 700여개의 활동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시설로 하루 1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공예교원 공예예술가 공예체육인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600여명의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창광유치원=1982년에 설립됐으며 김정숙탁아소와 함께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시설, 노동당 중앙위 소속 직원들의 주택이 밀집해 있는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당 간부나 예술인 등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며 시설과 급식 등이 북한 최고수준이다. 500여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으며 1만2000여평의 부지에 10층

학생소년공전 700여 활동실 갖춘 어린이회관  
창광유치원 미래 지도자 육성 완벽한 시설  
수예연구소 500명의 뛰어난 수예사들 근무  
평양 산원 개원 이래 42만명의 아기 받아

으로 된 건물과 4개의 부속건물, 야외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 시설과 놀이실 낮잠실 세면장 어린이교양실 등이 갖춰져 있다. 북한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동물의 박제품과 물고기 표본이 전시

돼 있는 동물실과 사과 배 복숭아 감 등 각종 과수가 심어져 있는 식물실이 눈길을 끈다.

▷평양수예연구소=평양시 보봉강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연구소는 지난 48년 개소해 78년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500여명의 수예사와 함께 수예를 위한 밑그림을 따로 제작하는 미술사 100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61년 조선 노동당 소속의 문예기구를 품계합해 만든 북한의 대표적 미술기구 '조선 문화예술 총동맹' 산하기구로 노동당 39호산(노동당 외화관리 전담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예에 자질을 갖춘 여성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뽑아부터 선발, 교육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손수예실 도안실 전시실 기계수예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출품되는 수예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로 수출된다.

▷평양산원=평양시 대동강구역 분수거리에 위치한 평양산원은 지난 80년 7월 개원한 북한 유일의 여성 종합병원이다. 연건평 6만평의 13층 건물로 2000여개의 병실과 1500여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6개의 부속건물, 대항분수가 설치된 '동방식 공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중앙은 화려한 해비리기 상늘리에와 천연보석 꽃무늬바닥으로 장식해 있다.

진료과목으로는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기과, X선과, 물리치료실, 심장 및 뇌기능진단 등으로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건물 1층 대기실에서는 면회객들이 TV화면을 통해 산모를 만나기도 하며 태원형의 수술실 건학당에서는 실험용 망원경을 통해 수술과정을 학습할 수 있게 꾸며놓았다. 개원 이래 42만명의 아기가 이 병원을 거쳐 탄생했으며 쌍둥이 탄생율 나라의 검사로 여기는 북한의 풍습에 따라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양육보조금과 식료품 등 지원되기도 한다. (권민영기자)



반갑습니다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14일 오후 인민문화공전에서 이화여고시절은 사인 김지한(오른쪽) 선생을 60년만에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이희호여사 이화여고 은사 만났다

당시 수학생 김지한씨 60년만에

옛사진 꺼내보며 30분간 애기꽃 피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중인 이희호(李姬好) 여사는 14일 오후 4시45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1948년 서울 이화여고 재학 당시의 '수학생 김지한(85·여·평양 거주)의 60년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여사가 인민문화공전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를 인발했고 이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한동안 벌어진 줄 몰랐다. 이여사가 삼기된 얼굴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자 김씨는 "알만한데"라고 진한 북한 어투로 말했다.

이여사는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다면서 "현재 서울에 살아계시는 당시의 선생님은 한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님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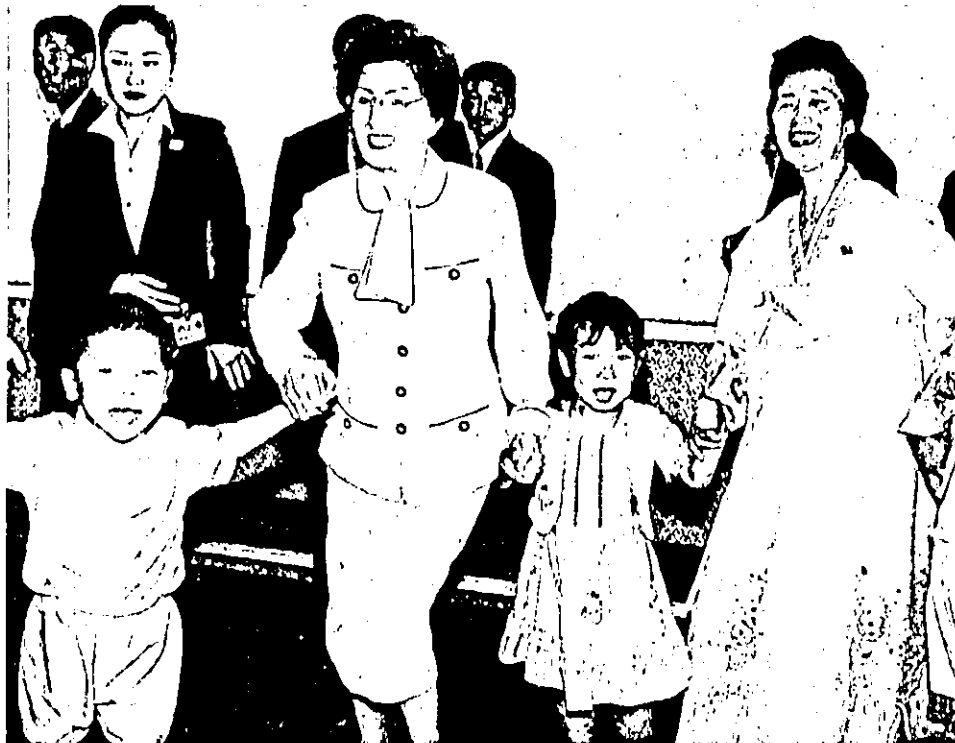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씨는 "그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여사는 "착하신 선생님이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여사의 딸(최은영)이 봉투 속에서 60년전 당시 이화여고 재직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장을 꺼냈다. 손을 맞잡고 사진을 보던 두 사람은 일제시대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여사는 '도교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하고 1939~1944년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광복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60여년간의 이별 후 30분간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던지 헤어지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남북 힘모으면 일류민족 될 수 있다”



유치원생과 즐거운 한때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14일 오전 평양 청광유치원을 방문. 원생과 손잡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지단)

## 평양방문 이름제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희호(李熙浩) 여사는 14일 오전 만경대 소년학생공연을 방문. 학생의 학습활동을 참관하고 학생소년예술소조의 특집공연을 봤다.

김대통령 내외는 당초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은 11시35분쯤 소년학생공연에 도착했다. 김대통령 내외는 만

서있던 어린이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첫번째 무용 소조실에서는 어린이가 무용연습을 하다 김대통령이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힘찬 박수로 맞이했다. 김대통령은 호뜻한 표정으로 ‘군비타당’ 등 음악에 맞춰 연습을 하는 어린이들을 잠시 지켜봤다. 김대통령이 소조실을 떠날때 어린이들은 또다시 힘차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할 하며 박수를 쳤

주군이 눈씨를 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주군은 급씨를 김대통령에게 내밀면서 “선생님에게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렁차게 말했다. 다섯번째 수예소조실에서는 학생들이 양어플 수놓은 작품을 이어서에게 선물했다. 김대통령은 양어수예를 먼저보미 관심을 표명했다.

○…김대통령 내외는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낮12시 김양남 위원장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했다. 김대통령은 관객들이 박수로 환영하자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공연은 45분동안 진행됐다. 공연중에는 4~5세 가량 어린이의 깜찍한 독무 ‘장강육 언니따라 나도 달려요’와 씨름을 무용으로 형상화한 ‘씨름놀이’, 타악기를 위한 검음악 ‘승천고 울라라’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김대통령 내외는 낮12시47분쯤 공연이 끝나자 환영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위원장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 관객 및 출연자들과 모두 함께 음악에 맞춰 30초 정도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박수를 쳤다.

○…김대통령 내외는 오후1시15분 평양방문으로 유명한 육류관 2관에 도착. 공식수행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대통령은 전날 김위원장의 환대에 이날 오전의 확대정상회담이 잘 진행됐기 때문인지 환한 얼굴이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만경대방문 어린이에 꽃다발받고 입맞춤 학생들 수업활동 참관… 공연도 관람 육류관서 냉면으로 공식수행원과 오찬

자 와서 기다리고 있던 김양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임승락 소년학생총련 총장 등 북측 인사와 악수를 했다.

또 양성금(10세·어린이회관·11세·남) 두 어린이로부터 꽃을 받고 입맞춤을 했다.

어린이들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씩씩이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환관에 마주나와 있던 다른 어린이도 일제히 박수로 김대통령 환영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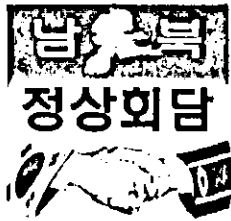
김대통령은 공연 1층 소조실 앞에서 학생들로 이루어진 환영대

를 맞았다.

두번째 가야금 소조실에서 김대통령은 어린이들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엄홍찬의 설명을 들었다. 세번째 송풍금 소조실에서 김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조선민요 도라지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네번째 사에 소조실에서 김대통령이 도착하자 주준호군이 그 자리에서 ‘조국통일’이라고 붓글씨를 크게 써서 박관을 씌운 뒤 김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김양남위원장은 “선생님이 왔다가 듣고 가겠다”고 우스게 소리를 쳤고 김대통령은 호뜻한 표정으로

# 로동신문 6개면중 4면 할애



## 北신문 어떻게 보도했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상봉 및 회담을 6개면 중 4개면을 할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민주조선도 기사내용은 같아

두 신문은 모두 1면에 김대중원과 김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金正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키보는 가운데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사진을 약 가로 30cm, 세로 25cm 크기로 실었다.

1면에는 또 평양 시민이 꽃다발을 흔들며 김대중원 방북을 환영하는 사진과 김대중원이 김위원장의 반수를 받으며 환호하는 군중에 손을 흔드는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두 신문은 '북사정지(北停戰)' '조선총인민대회'라고 표기를 달리했지만 편집만 다를 뿐 기사내용은 같았다.

### "김정일동지 따뜻하게 영접"

두 신문은 1면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북 대표단 평양 도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대한 평양도성 김정일 동지께서 6월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셔서 김대중 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었다"며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만민들의 유구한 민족사에 특기할 18 북남회담의 시에 따라 민족분열시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만남은 민족주체적 노력으로 통일사업을 기여하여 이룩해나갈 기래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시련이리라." "강종석 공화국기가 세차게 휘날리는 비행장에는 북포에의 정과 북위의 열기가 안고 달려나온 각계층 수도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로동신문

인류의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환영하는 사진과 김대중 대통령이 김위원장의 반수를 받는 장면이 크게 실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보도한 14일자 북한 로동신문 (TV촬영)

두 신문은 또 비행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면으로 도착성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으나 내용은 실지 않았다.

### 두 정상 같은 비중으로 다뤄

로동신문은 2~3개면에 걸쳐 김대중원과 김위원장이 함께 인민군을 시찰하는 모습, 두 정상의 기념사진, 두 정상과 남북 공식수행원의 기념사진, 김대중원 내외가 화복으로부터 꽃을 받는 모습, 평양시민의 환영 모습 등의 화보를 실었다.

김대중원의 모습이 정면으로 나오는 등 두 정당한 비중이 사진에 고르게 반영됐다. 4면 김일남 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연회기사는 김위원장의 만찬사와 김대중원의 답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실렸다.

### 평양시민 환영행사 크게 보도

민주조선은 평양시민의 거리 환영행사를 크게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수도의 수십리 연도에 펼쳐진 남북 대표단에 대한 60여만 평양시민들의 환영 모습은 우리의 임상단결의 위력과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뜨거운 협동의 정열을 다시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조민호**  
연장 메모 <정치부기자>

이것만으로도 창피 및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많은 사람이 비무장지대(DMZ)의 최북단과 최남단 길어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참사태야 한다.

김-김 두 정상의 상봉은 어디까지나 양친 품식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단초에 지나지 않는다. 미미한 시작을 장대하게 끝맺음하려면 우리는 주체 못할 뜨거운 가슴을 식히고 차가운 머리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

1991년 12월 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했을 때 한반도에는 초겨울에 봄이 왔었다. 이듬해 여름 대화 중단과 함께 한파가 돌아치 몇년을 고생했던 겨울이 난다. 성급하고 지나친 기대감이 부른 재하(災禍)가 아니었던가 반추해 본다.

# 北관련 방송프로 대수술 불가피

## KBS'남북' EBS'통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에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막연한 북한 알리기에서 벗어나 통일을 전제로 북한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KBS '남북의 창'(목 오후 11시30분)과 EBS '통일의 길'(일 오전 6시) 2개 프로그램이 있다. 3년 전만 해도 MBC의 '통일전망대'와 SBS의 '통일로 가는 길' 등 4개 프로그램 경쟁하듯 방송된 것에 비하면 지금을 오해하 '한가할' 상태다.

각각 80년 3월과 91년 3월 첫 방송된 '남북의 창'과 '통일의 길'은 규범해은 대북 정치권장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생명을 이어온 장수 프로그램들이다. 방송 초기엔 김영삼-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나 생일 치레 장면, 황폐하고 굶주린

북한 실상 등을 주로 보여주는 방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 위급 및탈치를 모아야 무인 살수 있다'는 식의 남북한간 단순 평면 비교는 남한 진보진언의 반발은 물론 북한측의 적개심을 사기에도 충분했다. 북한이 앞선 분야나 고유 민족문화를 계

승하려는 북한의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그만큼 인색했다. 안보 관련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제한된 1차 자료와 화면에 의존한 프로그램의 원초적 한계였다.

이 와중에도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도 있다. 지난 97년 '남북의 창'

요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박동영 KBS 통일부장 겸 국제주관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위선으로 수신하면서부터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적으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실에 접근한 취재물은 아닌 것.

편성상의 푸대접도 문제다. '남북의 창'과 '통일의 길'은 모두 시청 시각시대에 놓여 있다.

EBS '통일의 길'의 방송준 제작위원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워 존속해왔던 것"이라며 "북한과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송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98년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인 '통일전망대'를 폐지한 MBC나 96년 북한 잠수함 사건을 계기로 '통일로 가는 길'을 신설했다가 2년도 채 안된 98년에 프로그램을 폐지한 SBS에 비하면 현재 남아 있는 두개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그나마 어둠을 밝히는 촛불 역할을 굳건히 해오고 있는 셈이다.

(김원기기자)

## 부정적 모습 부각... 냉전 시각 "한계" 통일 전제로 실제적 접근 이뤄져야



○가장 오래된 북한 관련 프로그램 KBS '남북의 창'.

이 국제위협대에 북한 공작원이 개입했다는 일본 방송의 특종보도를 입수해 방송한 것이나 '통일의 길'에서 비무장 지대의 생태를 시리즈로 조망한 것들은 눈길을 끌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북한 위성방송의 국내 수신이 가능해지면서 화면이나 자

북한 잠수함 사건을 계기로 '통일로 가는 길'을 신설했다가 2년도 채 안된 98년에 프로그램을 폐지한 SBS에 비하면 현재 남아 있는 두개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그나마 어둠을 밝히는 촛불 역할을 굳건히 해오고 있는 셈이다.

(김원기기자)

# 중앙일보

## "북한 방송언어도 파격적 변화"

'대통령' 호칭 이례적 대우, KBS 김상준 아나운서 실장 분석

"북한방송이 당연히 '남측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항상 그렇게 써왔거든요. 그러나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직함을 이름 뒤에 붙여 호칭하더군요. 이전 외국 지도자 중 중국 외에는 쓰지 않는 최고 대우입니다."

13일 오전 남북 정상이 상봉하는 순간을 지켜본 김상준(55·사진) KBS 아나운서 실장은 "북한 방송언어가 남쪽에 많이 우호적이고, 통일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10년전 중앙대 신문 방송학과 대학원에서 '남북한 방송언어 비교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래 이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분석해 온 전문가.

"국내 방송 언어가 권력자에서 시청자(국민)입장 중심으로 발전해온 반면 북한 방송 언어는 중공 김일성 부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다면 김일성 동지·김정일

동지 외에는 모두 '○○위원장 김XX' 식으로 직함을 먼저 쓰고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외국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오직 중국의 경우만 '○○총리' 식으로 호칭할 뿐 러시아조차 직함을 앞에 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대통령 김대중'을 '김대중 대통령'으로 북한방송이 호칭한 것은 파격적 대우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회담을 보도하는 우리측 방송언어에도 일부 혼선이 빚어진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 준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 "어제 두 정상의 만남을 보도하던 우리 측 기자가 '김대통령께서 트랩을 내려오게 합니다'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오고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란 멘트도 있었다는 데 역시 '국방위원장'이 바른 표현이죠."

그는 결국 "회담을 보는 아나운서들의 마음가짐이 근본"이라고 말한다. "어제 저녁 어느 뉴스에서 평양의 60만 환인인파동 보여 주면서 '평양시민은 오늘 일하러 보죠'란 말이 나가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아나운서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해무드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되된다면 결코 '북한주민은 묘향산에 해수욕을 다닌다'는 비아냥 보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김찬호 기자

<stoncold@ionkang.co.kr>

# 냉전 마지막 '얼음' 마침내 녹기 시작

## ■ 각국 언론반응

세계 주요 언론들은 14일에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회담내용 등을 주요기사로 비중 있게 처리하는 한편 다각적인 분석기사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세계적 언론들의 보도내용 및 사실순위를 소개한다.

**미국**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간 긴장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미국의 관심사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포스트는 "두 정상간의 첫

회담의 제목으로 14일 미리키사와 국제신문 등을 대폭 할애,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상세히 전했다.

인턴들은 그동안 철저히 모습을 감췄던 김위원장의 김대통령을 직접 마주하는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그가 세계각국의 시선을 의식한 듯 예경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임을 과시하기 위한 '김정일식 외교'를 연출했다고 분석했다. (도쿄=전원일특파원)

**중국** 중국 신화통신은 14일 합의를 시발 직후 긴급 영문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원리에 관한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이 '역사적인 합의서' '원칙성 합의서' '원칙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표현한 것은 합의문이 역사성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런던(메그) 시인(메그) 이날

NYT "이산가족 문제 합의 쉽지 않을 것"  
인민일보 "北 국제사회로 급격히 편입 될 것"  
르몽드 "김정일 권력승계후 가장 눈부신외출"

회담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해도 이 회담의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예상외로 뛰어난 매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시작해 이번 회담이 실패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 사회에 이념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14일 사설을 통해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며 남북 이산가족 재회문제 역시 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일본** 영문판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두 정상의 회담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 소식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등 주요 신문들은 "북한과 평양" 등의 제목의 해설을 주

자 사설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세가 바뀌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냉전의 마지막 막고관 임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상회담을 통한 양측의 긴장완화는 이미로 서방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의 완화를 가져오고 이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 급격히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일 "북한은 한반도의 단합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지난 한세기 동안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온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14일자 제 1면과 국제면의 대부분을 할애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하면서 김위원장의 공약에서 김대통령을 임용한 것은 김위원장의 권력승계 이후 "가장 눈부신 외출"이라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회담을 하루 연기했던 북한은 김대통령을 "인연과 결의"로 대해 왔다고 보도했다. (외신종합)

# 새역사 큰만남

해외 언론 반응

## "한반도 평화정착 출발점"

### '공동성명' 세계각국 일제히 환영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합의문 서명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는 14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진전"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 합법 리거 국무부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서명을 떠날 때 언급한 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한 정상이 5개강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국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아나스타스 톰슨에 남북한 5개강 합의가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4일 합의를 환영하면서 "역사적인 합의문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앞서 주방자오(朱邦治) 수석 대변인도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5개 분야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한반도 등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환영을 표시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이날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외신종합

## 평양발 신화통신 잇단특종

### 현지특파원 2명 밀착취재 눈길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연일 빠르게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회담 첫날인 13일 오전 10시10분 김영일 국방위원장의 순안공항 영접사실을 가장 먼저 세계에 타전한 신화통신은 회담 29째인 14일에도 의문의 북한 관리관 인명, 남북언이 정상 회담을 계기로 이종재방자정

● 13일 10시10분  
순안 김정일영접 타전

● 14일 10시52분  
녀여사 '피아노선물'에  
투자부장협정전 보도

장과 투자부장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오전 10시52분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통신은 또 이회호 여사가 이날 창관 유지권을 방문, 피아노를 선물로 주었다고 남북측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만경대 회담 소년궁, 김영일 총참모장관 동명병원 등 고구려 역사유적을 둘러볼 예정이라고도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신화통신이 밝혀준 보도한 것은 평양 특파원인 리정위(李正宇), 왕하이민(王海敏) 등 기자 2명이 현지에서 북한의 회담을 받아 현장에서 밀착 취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특종배재는 전통적 협력의 중국측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 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긴장완화 막 올랐다”



## 정상회담 = 해외 시각

미국

미국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북방 방문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에 본격적인 긴장완화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12일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 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의 조 바이든(朱)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협의를 가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매카시(麥卡錫) 대변인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한 순간에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미국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매카시는 “구체적인 조약이나 다짐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협의를 마친 후 외교관들이 보고 있을 때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 차관 브리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다문 출신문

중국 베이징 시민이 14일 신문가판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머리기사로 다룬 신문을 집어 읽고 있다. 신문의 표제어는 ‘남북이 함께 새 시대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베이징=연합)

## 만남 것 자체가 중요 北 DJ 환대에 고무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무부의 브리핑 리카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회담을 전담으로 환영하며” “김대중이 김정은(金正日) 국무원 위원으로부터 환영에서 받은 개인

적인 인대는 희망적인 조짐”이라고 회담 경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지했다.

리카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궁극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카는 “남북이 직접 만나 끊임 없이 대화를 갖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두 차례 김씨 방문이 이번 역사

적 회담에 후속 회담을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의 포용정책에 대한 비전이 이같은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초석이 됐다”며 “김대중이 남북, 남북 대화 및 북일과 다른 국가들간의 대화를 지속해 북안이 문을 여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일본

일본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긴장완화 및 평화의 문 열어주는 중요한 이정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력이 이뤄질지 후

## 北측 개방외교 조짐 北-日수교 영향 주목

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자세는 “만남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아노기 비키오(木村) 외무장관은 것이다.

외무장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이 남북 평화의 새로운 문 열어주는 이정표라는 인상을 줬으나 북한의 외교재가 개방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촉구할 때 북한측

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모리 요시로(森) 총리도 지난 8일 오후치 정총리 장례식때 김대중과 가진 회담에서 수교협상 조개재에 의향을 전하며 중점 사항이 있다고 다음날 주요신선(新線) G8 정상회담에서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제안할 방침이다. (도쿄=전현일특파원)

러시아

## 긴장완화 합의되면 통일전망도 밝아져

러시아는 분단국인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분단국인 남북한 회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양예신(梁) 아크멘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아크멘코 대변인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 긴장완화와 회담이 이뤄질수록 최소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나아가 양측이 이번 회담의 회담의 원칙에 입각한 북방의 전망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두 정상의 만남이 남북한을 북방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이끄는 것을 반쪽스런 게 아니고 있다”며 “북방에 남북한 회담의 역사가 첫 만남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연합)

프랑스

## 중요한 역사적 사건 안정-해해 계기될 것

프랑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안정과 회담의 전망을 얻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계속해서 남북한간 직접 대화를 찬성해 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것은 이유로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무원위원장 정상회담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주의 깊게 이번 정상회담의 진전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다른 유럽국가들과 더불어 회담의 연속 여부와 구체적인 회담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연합)

# “南北회담 본받자” “우리와는 다르다”

## 中-미안 지엽한 성명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무원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13일 대한민국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대남정책에 대한 조야하고 지엽적인 성명전이 쏟아졌다.

대한경제와 한겨레신문의 연금(延金) 부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발표된 조야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북한이 개방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양국간의 긴장도 완화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한반도의 긴장완화 개과를 넘어 13일 해군의 해군회의에 대해 “북한이 개방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주한 외교(朱) 대변인은 “양국간에 정상적으로 중국 대북 관계는 좋아진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주한 외교(朱) 대변인은 “양국간에 정상적으로 중국 대북 관계는 좋아진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주한 외교(朱) 대변인은 “양국간에 정상적으로 중국 대북 관계는 좋아진다”고 평가했다.

주 대변인은 이에 “남북정권은 국제사회의로부터 중국국가로 승인받고 있는 만큼 대남정책과 통일시킬 수 없다”며 “북한은 양안 남북 관계를 요구하기 앞서 ‘남의 주권’ 원칙을 수호하라고”고 반박을 하였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권진위(權) 연구원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어떻게 양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남이 양안 앞에 양이고 우리 양은 우리 앞”이라고 강조했다. ( 홍콩=연합)

## 대만 “양안문제 해결 모델로” 中 “우린 내부문제-적용안돼”

한편 홍콩의 링웨이(梁)는 남북한 지도자가 각각으로 방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면 중국은 지리한 공명정만을 받아 국적인 대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링웨이(梁)는 “남북정권은 상호 관계로 중국과 대만은 대 중국과 대만은 도대체 왜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가”라고 재언명하면서 “남이 양안 앞에 양이고 우리 양은 우리 앞”이라고 강조했다. ( 홍콩=연합)

# “통일로 가는 큰 걸음” 환호



## 남북 정상회담

## 시민들 “후속조치 하루빨리 이어져야”

“55년 동로(東上)에 이제 진정한 봄 바람이 불러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동시연설에 합의, 서명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리고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흥분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못지않게 실천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양측이 과감한 협상을 통해 “선언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과 지혜를 보여 통일의 날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회사원 송민석(29)씨는 “희망적인 내용이 많아 대단히 반갑다”며 “통일의 날이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희진(30)씨는 “남북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라고 반겼다.

대학생 박재홍(18·연세대 1년)씨는 “통일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기대치가 큰 만큼 급하게 서두르기만 하고 실천은 못하는 협상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장달중 정치학과 교수는 “합의서의 요점은 남북문제의 방향대가 남북 당사자에게로 넘어온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당히 진보된 내용으로 남북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 게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특히 “남북이 경제협력로 통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합의한 것과 관련, 벤처기업과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험이 마련될 계기가 마련될까 마음 싹트는 표정들이었다.

벤처기업인 ㈜에코에이드 김성태 사장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남북협력에서 활약해 벤처기업들도 부합에 진출, 새로운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환경연합 회장 사무총장도 “양국 정상 회담·교류 등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것은 민족사적 의의를 지니는 대 사건”이라며 “향후 양국 정부가 시민 사회단체들이 환경·복지·노동분야 등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합의만 한 채 진척이 없었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박영국 정책실장은 “그동안 남북이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후속조치와 실천이 따르지 않아 실망만을 안겨왔다”며 “부디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구체적 일정·실천방법까지 합의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강갑생·황재식·이기영 기자 <kkskk@joongang.co.kr>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임진각을 찾은 실랑인들이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산가족에게 쉽게 드리워진 철조망의 그늘이 지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기준 기자





# '8·15 교환방문' 등 5개항 합의

南北정상 공동선언문 서명

- ① 남북통일 자주적으로
  - ②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 ③ 이산가족·장기수 해결
  - ④ 각분야 교류 활성화
  - ⑤ 당국간 대화 조속개최
- 술회장 答訪기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김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연변관에서 2차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答訪)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오는 8월15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공동선언에 담았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박준영(朴準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상호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은 또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차례 휴식을 취해가며 오후 6시 50분까지 마린톤 회담을 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으며, 김 대통령 주치의 만

찬을 끝내고 밤 11시 20분에 역사적인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남과 북은 7·4공동 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합의점을 이뤘으나 이제는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측간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화해·협력의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측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의 관계 개선 등 협력을 강조했다.

/부평=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공동선언문 교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회담과 인접 장소에서 김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연변관으로 자리를 옮겨 밤 11시 20분쯤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부평=동양대 사진기자단

## 全대통령 전용기로 歸京할듯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저녁, 당초 예정과는 달리 전용기편을 이용해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 대통령이 평양에 타고간 대통령 전용기가 현재 순안 비행장에 대기중이며, 이를 이용해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仁仁기자 ginko@chosun.com

## "北위협 변화 발견못해

### NMD는 계속 추진"

#### 美국무부 대변인

미 국무부의 리처드·바우처 대변인은 14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

다"며 "국가 미사일 방위(NMD)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강상 회담이 가져온 결과에 환영하며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美廣中기자 mawa@chosun.com

공동선언 합의서명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선언全文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합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남북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진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3시간5분 동안의 비공식 회담. 4시간여의 조문화 작업, 그리고 한밤중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라톤 단독회담에 들어갔다.

밤 초 오후 6시에 김 대통령이 주최하려던 만찬을 오후 7시로 뒤로 미루며 무릎을 계속 맞대 큰 원칙에 합의한 뒤 실무자들이 조문화 작업에

신 조문화 작업이 깊어지고 따라서 언론 발표 시점에도 이견이 있어 조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진통의 연속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다.

한때 대략 합의는 이뤄졌으나 대 언론 발표와 서명식은 15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11시 20분 마침내 서명식이 이뤄졌고, 이 소식은 15일 0시를 조금 넘어 평양과 서울의 상공

만찬 미룬채 단독회담서 大원칙 합의  
작업 길어지자 한때 "진통" 관측도  
양측 선언문 교환뒤 '원샷'으로 견배  
두정상 들뜬듯 손 마주잡고 웃음·농담

들어갔다. 이후 오후 9시 공동선언이 발표된다는 예고가 나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발표는 없었다. 대

실로 동시에 전해졌다. 서명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 키보로 된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상대방이 서명한 선언을 다시 받아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마쳤다.

공동선언 교환 뒤, 두 정상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악수를 했다. 합의가 이뤄졌다는 기쁨에 밝게 웃으며 두 손을 잡아 수행원들을 향해 들어 올리기도 했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선언 서명을 축하하는 견배를 했으며, 김 대통령은 우리측 수행원과 일일이 잔유 부딪으며 견배했다.

김 위원장은 단숨에 잔을 모두 비우는 '원샷'으로 견배했다. 김 대통령도 이어 입을 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잔을 다 비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손을 마주잡고 몇 차례나 악수를 나눴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크게 웃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명식 후 영빈관을 떠나며 우리측 수행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평양=공동취재단

위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진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첫째날 점퍼 軍부대 시찰때 입어  
둘째날 인민복 공산권 국가의 정장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면서 13일에는 국방색 점퍼, 14일에는 짙은 회색의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두 북장간 차이는 별

회담에 임하며 입고 나온 인민복은 중국의 회맹가 손문(孫文)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손문의 호를 따 '중산복(中山服)'이라고도 불리며 공산주의 국가에선 '정장(正裝)'에 해당한다.

해외 국가원수들 임접하거나 주

요 행사에 참석할 때 착용하며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말 중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방문할 때도 이 옷을 입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패선으로서 이날 김 대통령과의 만남이 '공식적인 것'이었음을 선언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13일 김 위원장이 입었던 점퍼에 대해 북한 전문가 이창규(李昌圭) 씨는 "군복과 같은 색깔로, 김 위원장은 봉상 군 부대에 시찰할 때 이 옷을 입어왔다"고 말했다.

/文甲植기자 gmoon@chosun.com

# “민족경제 차원” 南北경협 본격화

## ‘5개항’ 서명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5개항으로 이뤄진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이 내용은 선전에 따라선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된다.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공급문제의 자주적 해결은 1972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7·4 남북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초가 된 4·8합의서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

이는 남북한 문제점 외재(外勢)의 간섭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한다는 대원칙이다. 남북이 남북한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당사자 해결’ 원칙과 북측이 주장해온 ‘자주·민족대원칙’ 원칙을 집중한 것이다. 이 원칙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합의문이 나온다면 충분히 예상됐던 것(마두북 박과북 외교안보연구원)이다. 통일연구원 전현준(全賢準)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주’ 개념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항상 포함돼 왔는데, 그 부분을 언급 않고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상의 전도(前途)를 반드시 낙관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북병(北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측은 ‘자주’라는 원칙 아래 반(反)외세를 주장해왔다.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북측이 이 합의를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때엔 남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측이 전제조건 없이 당사자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냐에 이 조항의 사문화(死文化)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정욱기자 hongchoi@chosun.com  
◆ 통일방안 논의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양방제’ 안이란 ‘1국가 2체제 2정부’를 상징하지만, 중앙정부의 기능보다 지역정부(남한 및 북한)의 권한을 대폭 늘린 것을 말한다. 즉 국방·외교 권한도 지역 정부가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고려인민정체를 탈칭하기 위해 남·북한의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낮은 단계 양방제’ 또는 ‘노승현 양방제’는 1991년 김영삼 주석의 친



◇만세... 원샷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11시20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왼쪽) 두 정상은 서명후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 건배를 한 다음 삼계탕을 헌병에 미치고 있다. /TV촬영

년사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됐다. 북한이 남북 유연 동시개입에 응한 것도 이같은 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남북연합 단계는 ‘2국가 2체제 2정부’라는 지금의 남북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 확대와 교류협력업 협정

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일방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송민희기자 smin@chosun.com  
◆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의 희망

에 해당하는 국군 포로, 남북 어부 송환 등은 합의에서 제외됐다. ‘인도적 문제점 조속히 풀다’는 표현에 따라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일단 북측이 요구한 비전향 장기수의 복속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현재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

지원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남북간 경협과 선결과제로 재경부 관계자들은 ‘남북 투자보장장서’와 ‘이종과세 방지각서’ 체결을 골고였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 진출 기업의 국내 송금 보장 ▲북한 진출 기업의 재산 보호 ▲남측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회계국 대우 등으로 구성된다. 자금 확보도 중요한 변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7000억원), 국제협력단 자금(400억원) 등의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북측의 시회간접자본 확보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협력금 연기 현재 미국에 의해 ‘내려 지원국가’로 분류된 북한이 빨리 국제기금에서 정상적인 회원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통일 자주적 해결** 통일원칙 타결까지 ‘머나먼 길’  
**통일방안 논의** 체제인정 共感... ‘국가’ 부분 異見  
**이산가족·장기수** 남이산가족·北장기수 주고받아  
**경제 협력** 對北투자 SOC건설 현안 떠올라  
**金正日 서울답방** 經協내용등 충족돼야 성사될듯

/홍정욱기자 junkee@chosun.com  
◆ 당국간 접촉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빠른 시일내에” 당국간 대화할 것으로 한 이산, 배트먼 이달 안으로 차관과 내지 장관급 수준의 실무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국자간의 대화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진행된 것과 비슷하게 남북의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며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연내 성사가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선언의 핵심이었던 수 있는 제1항(자주원칙)과 제2항(통일방안 합의)에 대해 남과 북의 정치현상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경협분야에서도 협상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鄭權희기자 jhjung@chosun.com

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각료회담’, ‘인민교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엔에 2개 국가로 가입했다.  
두 가지 방안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이 통일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양방제는 1국가다. 우리의 남북연합은 2국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국가와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이 있는 2정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단순히 권한면으로

사랑이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북측의 요구사항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두 달 후 시정할 뜻밖의 합의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최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산가족 교환방안이 성사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백진현(白鎭鉉) 서울대 교수는 “이산가족 전원을 상대로 한 시신교환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1회성 이벤트가 추진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측이 요구해온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백기자’로 묶인 반면, 미한가지 인도적 문제로 우리측 요구사항

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5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송민희기자 sk-kim@chosun.com  
◆ 경제 협력  
남북은 ‘경제협력의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했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봉과원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문제가 단독 항목이 되지 않고, 다른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다방면의 교류중의 하나로 취급된 것도 북측의 지존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경제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남북 기업의 대북 진출, 북측 시회간접자본 진출

6·15선언 서명, 기존합의서와 다른 점

# 구체성은 없어도 頂上서명 힘실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서명한 '남북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또 기존의 남북 당국간 합의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내용면에서는 기존 합의서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란 3대 통일 원칙을 천명했다. 또 1992년에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불가침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총 25개 조항의 '기본합의서'를 발표시켰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만 되면 남북관계가 말 그대로 '사실상의 통일상황'까지 발전되는 대장전(大章典)이지만, 8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금껏 남북관계는 합의서 서명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경색국면이 계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해과 미사일이란 새로운 카드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한도 한반도 병전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남북한의 이같은 인식이 상당 부분 합치된 데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이 교감을 이뤄, 김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으며, 이날의 공동선언을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양 정상은 기존의 남북합의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확실하고 권위있는 보장장

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합의서는 비록 양측 정상의 위임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특사'(7·4 공동성명)와 총리(기본합의서)가 서명한 것이었다. 때문에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기존의 합의서를 시대변화에 맞게 쉬운 것부터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두 정상간의 합의서는, 남북한 문제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고, 서로가 가진 통일방안까지 협의하도록 결정해, 앞으로 '평화공존의 길'을 여는 새로운 이정표란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당국자는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그동안 서로 꺼려온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통일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평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합의가 제대로만 실행되면 남북한은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반목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반자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당국간 원칙 진일보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공동선언이, 구체적 이행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말 그대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 해결'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공세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통일방안 논의는 우리 정부가 고려연방제안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3시간 마라톤회담

## 극히 이례적... 하고 싶은말 다 했을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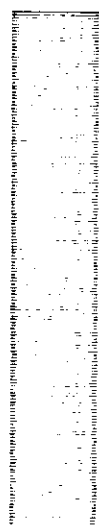
14일 남측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단독 정상회담은 3시간5분이 걸린 마라톤회담이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담은 5시20분에 정회, 6시5분에 속개돼 6시50분에 끝났다.

정부의 의전관계자는 "의전관례상 통역이 필요한 외국 국가원수와의 단독 정상회담도 보통 1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3시간이 넘는 단독 정상회담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주의권에서는 이처럼 마라톤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의 첫 정상회담인 데다 사실상 정해진 의제가 없어, 두 정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李河遠기자 may2@chosun.com



# “한반도 평화공존시대 새로운 轉機”

## 국내전문가 평가와 전망

조선일보(朝鮮日報)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5개항 합의에 대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들어왔다.

### 애매한 절충 안되도록

白珍炫 서울대 교수



14일 공식 연단에서 김대중(金大中) 회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통일 등 정치 관련분야다. 과거부터 우리는 교류, 협력 등을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그 반대 아니었느냐. 기쁜 일속의 입장을 애매하게 절충하는데 성공했다면 이를 현실화하는데는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과거처럼 100-200명의 이산가족을 일회의 이벤트성으로 상봉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전 이산가족을 상대로 한 서신교환 등 제도적이고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南北관계 중요한 근거

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의 정상회담과 통일협력 등 5개항의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접근한 것은 예상외로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적대상태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체제를 본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 이번 의견전환의

내용은 92년 발표한 기본합의서와 비슷한 것이다. 이는 남북 최고 지도자간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교류, 평화공존체제의 구축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할 것 같다.

### 北, 체제회생 자신감

李恒九 통일연구원 회장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 6년째를 맞으며 이제 자기 비전을 제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인민 경제계획을 주민들앞에 내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



◇“남한신문에 잘 나왔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백희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3일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 만남이 일제히 보도된 이날자 남북 신문을 살펴보고 있다. /주필=최영대 사진기자단

## 이산가족, 1회의 이벤트성 상봉 안돼 서신교환 등 제도적 합의 이뤄져야

이 필요하다. 김정일은 최근 중국에 가서 4억달러 벌어들였으며, 조만간 러시아 푸틴 총리가 남북, 도움을 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 갔을 때 중국은 “돈 받기 까다로운 미국, 일본보다 가까운 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지원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북한은 작년 9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 식량도 40% 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일 자신도 독재체제의 권력기반이 다져진 것 같다. 북한은 이제 남한으로부터 대담하게 경제협조를 받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같다. 북한은 체제 회생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고, 김정일은 자신이 나서서 할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 실천가능할것 받아내야

權敏雄 경북대 초빙교수



합의한 5개항 중에 우리가 요구해온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3항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에서는 1항(회해 통일협력)과 3항(서로간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은 1항에서 국내의

법률적 사회간접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3항에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 北 정책적 변화 이뤄져

全賢俊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회담 첫날부터 김정일의 영보첩 보면서 합의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회해와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것이 많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이 면담상부한 실권자 된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과 합의

할 때도 실현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큰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보면 김정일의 전체적 대남 전략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은 우리 대북(對北) 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회해 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 가지급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외국에서는 남북간의 급격한 화해무드를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고 합치게 되면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경계심이 나타날 것이므로, 우선 남북(南北)관계 개선과 북한의 국제단체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송민욱기자 ch\_kim@chosun.com /송도환기자 duchy@chosun.com

# “민족의 100년눈물 거둘때 왔다”

## 2차회담·민찬 표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부터 백화인 연변관에서 단독회담에 들어가 6시50분(휴식시간 45분간)까지 장시간 회담을 계속했다. 이어 실무자들이 밤늦게까지 조찬회 식사를 계속한 뒤 밤 11시20분쯤 한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 ◆정상회담

다라론 정상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밖에 있던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대변인은 “간혹 김 위원장이 웅변조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뭔가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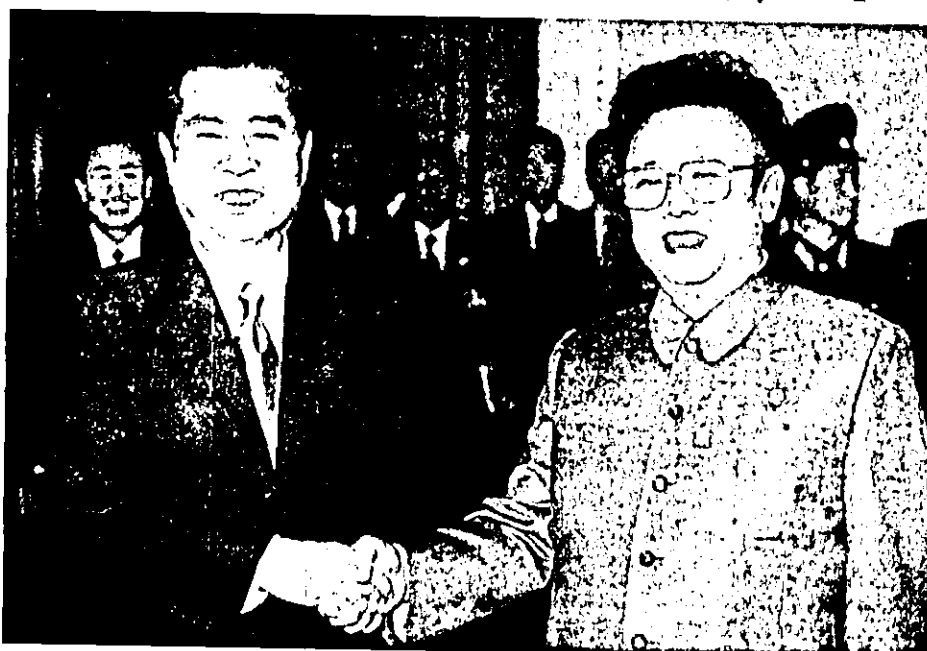
### 신문보도 보여 환담도

두 정상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후 5시20분쯤 휴식에 들어갔다. 6시5분쯤 회담을 속개했다. 두 정상은 휴식에 들어가기 전 서울에서 패스로 전송된 신문을 나란히 서서 보면서 “정상회담에 모두 관심이 많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남측 신문에 정상회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군요”라고 관심을 표시한 뒤 “서울신문은 제호가 바뀌었다면서요”라고 말했고 김 대통령은 “대한매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측 언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자 “이 신문 철을 느꼈다”며 즉석에서 김 위원장에게 선물했고 김 위원장은 수행원에게 전하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오후 6시5분쯤 속개된 2차 정상회담



◇환하게 웃는 남북정상 두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2차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 숙소인 백화인 연변관을 방문. 문 앞에서 기다리던 김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어 3시간이 넘는 다라론회담에서 남북 현안에 대해 5개항의 의견교환을 보았다. /平壤=청와대 사진기자단

## 송대통령 “北 지도자 여러분 서울서 만납시다” 송위원장 “금강산 케이블카 내가 끝까지 반대”

은 45분 만인 6시50분에 끝났다.  
◆목관민 찬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목관민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만찬 참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환담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서 아 합니다. 제가 한라산에 한번 가 보고요”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다리가 불편해서 백두산에 오르는 힘들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자동차가 꼭 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강산은 자동차로 못 올라간다. 젊은이들이 금강산에 사도(케이블 카)를 놓자고 해서 내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며 “나이들어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지, 환경파괴는 왜 하느냐고 반대했지요”라고 말했다.

### 송위원장에 수차례 칭찬

이어 두 정상은 기립박수속에 만찬 장소에 입장했다. 김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다”며 “시오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북에서 애디는 심정으로 재결합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얼룩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인도적인 감정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6월이라는 날이 민족의 비극이 아닌 내일의 희망의 날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연설 도중 김 위원장에 대해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우리는 한민족 관철권  
승영공통이 되나.  
평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반을 함께 착안하기 위한  
해 나감이다.  
2000. 6. 14일  
김대중  
김정일  
서명된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공식적으로 쓴 첫 글씨. 14일 평양만 환수대 의사당에서 는 방명록에 김 대통령은 연도를 학력한 첫인자 '19' 자를 썼다가 지웠다. /平壤=청와대 사진기자단

신경무 朝鮮漫話 ksmshin@chosun.com



민족 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의를 표한다” “김 위원장이 일어난 중국을 방문했잖아 한 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고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등 여러차례 칭찬했다.

만찬사는 “김 위원장, 북측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뵙습니다”며 간담회 제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김 위원장은 김영남 위원장에게 “대신 가서 하십시오”라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답사를 남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인들은 봉역을 미려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金대통령 오셔 은둔생활 해방”

## 2차정상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 김 대통령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에 앞서 2시56분쯤 영빈관 1층 '차 천관 출입문'에 나와 1분 가량 기다렸고, 57분에 김 위원장이 문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심쿵심쿵 김어와 김 대통령과 악수할 나누며 “원하 주 무셨습니까”라고 큰 목소리로 인사했고, 김 대통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잘 잤습니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오셔서 여러 곳 방문하는 것 등을) 데레마로 봤습니다”고 했고, 이때 카메라 기자들이 “이쪽을 좀 봐달라”고 무늬에 3초 가량 포즈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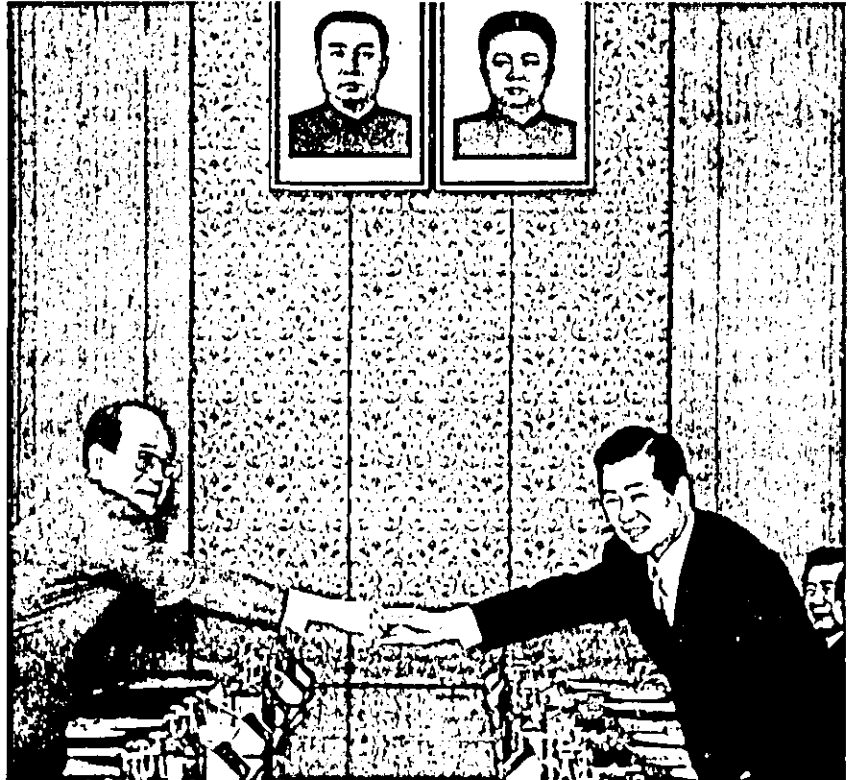
이어 복도 끝 문에 나란히 회의장으로 걸어가면서 김 위원장은 “오늘 피곤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대통령은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했다. 김 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일반 대우 잘 해도 제 집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20여m쯤 걸어 회의장에 들어선 두 정상은 폭이 3m쯤 되는 긴 직사각형 회의용 책상 사이에서 두고 마주앉아 약 6분간 환담했다.

남측에서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 황원하(黃源河) 외교안보수석,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 3명, 북측에서는 김용순 아내편 화위원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시 두 부문의 대화록.

- ▲김정일 위원장=아침부터 건강하게 해 안됐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지는 여기까지 다니면서 좋은 예술 많이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 ▲김정일=참자리라든가 편지 없지 않습니까?
- ▲김대중=고맙습니다. 평소 한번씩 가왔으면 하는데 가보고 뵈면도 먹고...
- ▲김정일=뽕뽕은 아반 오전 해장에 너무 늦다니까 좀 급하게 지시면 국수가 맛 없습니다. 앞으로 지간이유 많이 가지시고 친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평양시민들은 대단히 자급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첫걸 어떻게 정말 용단을 내려 주셔서 이렇게 오신 데



◇ '공식면담' 악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4일 오전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남북 공식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수행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이 면담에서 양측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회담 정상회담으로 전망됐으나 공식면담으로 이틀이 바뀌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불참했다. /부=청와대 사진기자단

“공항서 악수때 외국기자들 기립박수”  
 “직접 방문해 주셔서 평양시민들 흥분”  
 “TV서 보니 실향민·탈북자 눈물흘려”

해시는 우리 인민들이 뜨겁게 맞이 했는데 그래도 인사차원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자신들 각자도 하고 있습니다.

### “국수는 여유갖고 드셔야”

▲김대중=위원장님이 직접 공항에 나오시고 수십만 시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기 딱이 없지만 남쪽에서도...  
 ▲김정일=(김 대통령의 말을 차르며) 남쪽에도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데레비전 봤습니다. 남쪽의 MBC도 보고 서울도 보고, 남쪽 인민들도 아마 다 환영의 분위기고 특별히 또 실향민이라든가 탈북자 애가리든가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

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항 소식이나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김이 빨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김대중=예, 그런데...  
 ▲김정일=(원종 김용순 메시지 쪽을 바라보며, 김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설치 우는 장면이 나오요, 데레마에 나오요.  
 ▲김대중=(서울 프레스센터에) 외국기자들도 수백 명이 있는데, 한참이면 기자들도 모두 기립박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13일 순일) 공항에서 악수할 때...  
 ▲김정일=공항 악수, 그간 원에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인사시요,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다만 적(敵)들은... 외신들, 그 다음에

중국도 갔었고,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외국에 비공적으로 많이 갔었고 했는데, 나보고 은둔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은둔에서 해방됐다’... (웃음). 정말 하여튼 모르겠 됐으니까... 뭐, 식민찬이라든가 불평한 것 없습니까.

### “中國서 한국김치 내놔”

▲김대중=좋습니다. 음식이 잘 맞습니다.  
 ▲김정일=내가 중국 가니까 김치를 내놔는데 한국식 김치야, 그래서 내가 남쪽 사람들이 아주 환영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 金正日の '20년 보디가드'

80년대부터 그림자경호- 공황에도 같이 나와

80년대 이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나타나기 때마다 주변을 지켰던 한 김호원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림자처럼 김위원장을 감호하는 모습이 보자 돼 눈길을 끌었다.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직접 임종할 때 김위원장의 오른쪽 뒤를 따르던 인민군복 차림의 군인이 바로 그 주인공(아래사진 왼쪽)이다. 리에 권총을 찬 그는 김위원장이 김대중과 함께 백화인 양반관으로 향할 때도 마치 연호 '보디가드'의 한 장면처럼 두 정상이 난 캐딜락 리무진의 왼쪽 앞에서 뛰며 주위를 감시했다.

그는 92년인 김위원장이 한 공식 석상에서 임종하는 사진에선 양쪽 자원으로 김위원장을 감호했다(가운데). 또 81년5월 김위원장이 연경포(延亨報)전 김주원총리와 함께 한 산악 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는 김위원장의 왼쪽 뒤에 군복 차림으로 서 있는 강변이 사진에 잡혔다(위). 81년 사진과 이번 평양 사진에서는 그의 왼쪽 팔에 호위사원부를 상징하는 기장이 눈에 띄었다.

이항구(李恒九) 통일연구회장은 "김위원장의 김호는 호위사원부 2층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요 인사의 김호 한편 김호원으로 정해지면 특별한 감호가 없는 한 다른 부대로 옮겨지 않고 재대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곤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 “서울 답방시기 협의 거쳐 결정”

朴峻堃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쯤 서울에 오나, 8·15에 가능한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북도 협의할 것이라서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뜻하는 말할 수 없다.”

-햇나인을 원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됐다.”

-이번 합의문에 대한 두 정상의 반응은?

“김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협의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대단히 만족스런 표정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분위기를 보였다. 오늘 이 합의에 대해 시명한 후에도 대단히 만족스런 표정다 보이면서 공식 수행원들과 হাস를 나눴다.”

-협의를 하지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

“남북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예기다. 상호존중이라는 의미다.”

-연말제안과 양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봉인을 지향해 나간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합의의 문해 여러 차례의 많은 대화이 이뤄질 것임을 말씀 드린다.”

-이 합의 내용을 주변 우방국에 설명하나?

“가까운 시간 내에 설명할 것이다.”

-미일이 대북당에게 요청한 북·위 수교, 예, 미사일 등의 문제 거론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북측에도

두 정상 모두 대단히 만족

주변 우방에 빠른 시일내 설명

‘日·北 관계개선’ 日 입장 전달

입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왔다. 이 같은 입장은 북측에도

전달했다. 북측 위원의 모리 총리가 회담했던 북·일 관계개선도 대북당에 위촉하신 대로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김진의 위원장의 반응은?

“말씀 위장에 있지 않다.”

-두 사람의 대화 중에 특별한 얘기가 소개할 수 있나?

“적절치 않다. 두 분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민족의 기대를 생각하는 말씀은 여기에 합쳐내 있다. 여기서 소개할 것은 두 분이 회담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설득과 설명을 했다. 그 결과 이진 합의가 이뤄졌다.”

-이산가족 교류방안과 미진항상기수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이산가족 문제는 다양성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북당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남북이 규정이 내 합의했다.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규모와 날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출어진 가족에 회담어부, 남북지도 포함되나?

“문구비로만 이해해 달라.”

-미진항 상기수와 친척 방문이 동시에 이뤄지나?

“상호자간 합의에 따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망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시골 방문을 90%가 지지하고 있다. 북시골을 방문해 민족문제를 해결하자고 충고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적절히 시기에 말했었다고 말했다.”

-북측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나?

“두 분은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얘기했다. 구체적인 것 말하기 어렵다.”

/평壤=공동취재단



# 거침없는 言行 '金正日 충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침없는 말과 제스처에 우리 국민들은 또 한번 놀랐다.

14일 오후 3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김 위원장은 "서울의 테레비를 봤다"면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탈북자'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그동안 자신이 은둔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농담을 섞어가며 말했다. 이어 목란관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김 위원장 앞에 있던 김 대통령 이희호 여사와 자리를 맞바꾸어 앉자, 김 위원장은 "왜 연회장에 들어와서 까지도 이산가족을 만들려고 하느냐"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이산가족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고 재치있게 말했다. 남북 공동선언 서명이 끝난 뒤, 김 대통령과 건배에서도 단숨에 잔을 비우는 호기를 보였다.

전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자유분방하고 격의없는 태도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해 놀라게 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훨씬 여유있는 모습이였다. 집퍼 대신 정장형태의 말끔한 인민복을 입고, 갈색 선글라스 대신 색갈 없는 안경을 낀 체 시종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남쪽의 방송도 보고..."라며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또 자신이 그동안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우스갯소리처럼 해명했다. "구라파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은둔생활 하나' 하는데..., 내가 중국도 갔됐고, 인도네시아도 갔는데 왜 나보고 은둔생활을 한다고 하는가. 김 대통령이 북한에 오셔서 내가 은둔생활에서 해방됐다고..." 좌중을 웃거리며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그는 이 대목에서 처음에는 "적(敵)들은..."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급방 "구라파 사람들..."이라고 고쳤다.

이날 우리 국민들은 TV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의 이 뜰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질현(30·대학생)씨는 "김 위원장은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TV에 등장한 그의 모습은 여유가 넘쳐 솔직히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상민(24·LG EDS 직원)씨는 "김 위원장은 귀하게 자라고 예술에 심취해 성격이 까다롭고 괴팍할 것으로 이겼는데, 상당히 호방하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한 표정 집퍼 대신 정장 형식의 인민복을 입고, 색이 든 안경 대신 보통 안경을 쓰고 14일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날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로 거침없이 말을 이어 갔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시종 웃음... 여유... 자유분방한 몸짓... "敵들은..." 표현했다가 얼른 고치기도 "치밀히 계산·연출된 행동" 분석도

의젓하고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독특한 이미지 관리는 영화광에다 TV·언론매체에 대한 오랜 감각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해 우려를 자아낸 후 의표를 찌른 공항영접 등으로 극적 반전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최대석(44·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일반인들이나 언론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지도자로 인식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제왕학'을 30여년간 전수받은 지도자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연세대 동시문제연구소 한종기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 의도대로 초점을 자신에게 맞춘 것"이라며 "그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 속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東雲기자 dskim@chosun.com  
/崔洪烈기자 hrchoi@chosun.com

그러나 '계산된 연출'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험한 김순인(82·황해 해주 출신)씨는 "TV에 나오는 김 위원장은

金대통령 만찬사 <全文>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7천만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여기 평양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전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류·협력 확대 일관 추진

생각해보면 함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평생에 북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감한 심정에 사로잡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 감격을 무었에 비하겠습니까.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난 근대시 100년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배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분단과 전쟁이 그렇고, 지금까지 남북을 갈라놓은 철책선이 그렇습니다.

이 모두 19세기 조선왕조 말엽, 민족적 단합과 근대화의 계류를 요구하는 역사의 요청을 지배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인한 상처를 곱씹아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첫 해에 우리 양측의 정상들이 한 지리에서 만난 이유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시명입니다. 우리는 이 시명을 수행하는 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초척과 오늘 역사적인 정상 간의 협의를 도출하는 데 이념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김정일 위원장과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갈채 보내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결단도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함께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화기인 세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민족의 미래를 크게 열어나가야겠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을 털어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동방에 취임한 이래, 남과 북이 전쟁의 재발을 막고, 산대방을



14일 만찬장에 나란히 앉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식사에 앞서 대화를 나누며 피안대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특유의 활발하고 거침없는 말투로 서중 대화를 주도했는데 농담을 많이 하는 바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TV촬영

민족의 운명 우리 스스로 열어갑시다  
지속적 대화와 협력만이 우리의 살길

헤쳐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20세기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남과 북이 우선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7천만 우리 민족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통일로 향하는 가장 탄탄하고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겨레입니다. 공동의 운명 속에 사는 민족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앞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머지 않아 통일에의 복직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대의 유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 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리는 정정으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서로 힘을 합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채워있는 당국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쌓아가면 더한 또한 화대할 것입니다.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

까지 평화가 가득차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민어의 울림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활신과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몰아내자

또한 남과 북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재결함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인도적인 결단도 우리는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함으로 많은 바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7천만 민족의 긴절한 염원이며 또 저의 평생 소망이기도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한결 같이 간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김 위원장과 저부터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세기의 분단이 가져다 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 땅에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며 교류협력의 시대 열려는 데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이제는 6월이라는 달이 민족의 비극이 아닌 내일에의 희망의 달로 역사에 기록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달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초대에 응해주신 김정일 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김 위원장의 건승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7천만 민족의 희망의 성취를 위해 축배를 들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북쪽의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 “통일을 미래형으로 볼게 아니라 현재형 만들기위해 힘 모아야”

## 金永南 만찬 담사 <全文>

김대중 대통령 각하와 리희호 여사, 남측의 손님 여러분.

여러분은 래일이면 역사적인 평양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만나 함께 보낸 2일간은 너무도 오래 헤어져 살아온 세월과 너무도 짧은 만남의 순간이 동포에게 교차되는 뜻깊은 날과 날이었습니다.

### 우리는 한동족 거듭 확인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정일 장군님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고 우리와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아 민족문제를 동족끼리 해결해 나갈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소통한 것은 민족적 단합의 깊은 모습을 거대 앞에 보여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물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보니 의견을 집근시

키아할 문제들도 있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적지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 속에 헤아릴 일, 가야할 길에 대한 걱정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능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 상봉과 회담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리사가 주는 기회는 언제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무한정으로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미래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 번 훗날에도 리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애국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이 온 거리의 속원인 통일일의 길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기회’는 늘 있는것 아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에게 통일 조국을 안겨주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남측 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진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北방송 ‘김대중 대통령’ 호칭 첫 사용

### 달라진 北 언론 보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다룬 북한의 신문 방송 매체는 몇 가지 점에서 종전과 눈에 띄는 변화가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것이다.

북한 방송은 지금까지 김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 비난방송을 할 때는 ‘외세 앞잡이’ 등의 표현을 써왔다. 북 측은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지만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신 ‘남측’이라는 표현을 썼다. 평소 사용해오던 ‘남조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모두 1면에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사진을 가로 20cm, 세로 25cm 크기로 실었다.

평양 시민이 꽃다발을 흔들며 김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진과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박수할 받으며 환호하는 군중이 손을 흔들는 사진도 1면에 함께

게재됐다.

두 신문은 ‘본사 정치보도반’ ‘조선 중앙통신’이라고 표기를 달리했으나, 편집만 다를 뿐 기사 내용은 같았다.

두 신문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이라는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6월 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어 김대중 대통령을 따듯이 엄접하시었다”며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소개했다.

신문 사진에는 김 대통령의 모습이 정면으로 나오는 등 두 정상간 비중이 크게 반영됐다. 그러나 두 신문은 김 대통령이 시면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으나 내용은 신지 않았다.

/ 鄭權 誌 기자 khjung@chosun.com

# 회담·조문화작업 7시간...한밤 서명후 '만세'



◇“화해와 풍요를 위하여” 민족사에 새 지평을 열 남북 두 정상은 15일 가옥 한계 방문단과 공동 5개항에 합의한 뒤 평양 목련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잔을 부딪히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과 피를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부대=청와대 사진기자단

## 기자수첩

인도에서 한국산 브랜드는 세계 수준이다. 특히 삼성·LG의 가전제품과 현대·대우의 자동차는 인도 내 수시장을 휩쓸며 일본 소니나 미국 포드에 버금가는 제품으로 인식된다.

인도 전체 냉장고·세탁기 시장의 절반을 한국 2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TV, 휴대전화, 컬러모니터, 전자레인지에서도 단연 한국 업체들이 선두다. 작년 인도에서 팔린 자동차 63만대 중 한국산은 18%가 넘는 11만5000대. 진출한 지 불과 3년 만에 인도 자동차회사 마루티 우디오그(전유율 75%) 다음가는 업계 강자로 부상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선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가 1991년에야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선 수 십년 먼저 진출한 유럽·일본 기업들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독 인도에 시판은 아예를 나란히하거나 또는 먼저 진출해 시장을 선점해버렸다.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이 선

공한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치르는 대가도 많다. 인도 매스컴의 주된 광고 소득원이 한국 업체들이라 저마다 한국 기업들에 손을 벌린다. 이 나라 국회의 원이나 지역 정치가들이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헌금’을 적당히 달래는 인도 지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 기업들 간에 일어나고 있다. 지나친 경쟁과 라이벌 의식으로 한국 업체들끼리 이국땅에서 동지가 아닌 적아 돼 눈살을 찌푸리는 인도 밭이라고 한다. 상대 기업의 경영 사정을 꼬집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광고가 매스컴을 타는가 하면 이에 격분한 상대 기업 노조원들의 항의 농성도 일어났다. 눈치 빠른 인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며 조용 조용 일을 해나가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뉴델리=咸永準 특파원 yjhahm@chosun.com



### 印度 진출 한국기업

# 李姬鎬여사, 여고대 스승 만나

### 이화여고 시절 수학선생님 85세 김지한씨와 60년만에

청와대 안주인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14일 오후 4시45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지난 40년 서울 이화여고 시절 은사 김지한(여·85·평양 거주)씨와 60년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 여사가 인민문화공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했고, 이 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이 여사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알만하네까"라고 진한 북한 어투로 말했다.

### 한동안 떨어질줄 몰라

이 여사는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다고 전하고 "현재 서울에 살아 계시는 당시 선생님은 한 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님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 여사는 "착하신 선생님이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최은영)이 60년전 김씨가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꺼냈다. 손을 맞잡고 사진을 보던 두 사람은 일제시대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 이



◀ 이희호 여사가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이화여고 재학 시절 은사인 김지한 선생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平壤=청와대사진기자단

과를 졸업하고 39년부터 44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해방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 "호랑이선생 아니었느냐"

두 사람은 60년만의 해후가 30분간의 '짧은 만남'으로 그치는게 아쉬웠는지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이 여사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평양 시내 유치원과 수예연구소를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평양산원을 둘러봤다. 이들 방문지는 현대적 시설을 갖춰 북한 측이 외국에서 방문한 여성 귀빈들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에게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平壤=공동취재단

## 문화일보

2000. 6. 15 (목)

### 달라이 라마 "회담 성공 기원"

#### 종교단체 방한초청 수락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4일 진행중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오전(한국시간 14일 낮 12시30분) 다람살라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국의 79여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한국방문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달라이 라마는 이날 한국방문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여연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인 일연스님, 개신교의강원릉·김동원목사, 가톨릭의 김수환추기경 등 모두 17명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방한 초청공을 전달받고 "한국방문 초청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락했다.

<다람살라(인도)=김종락기자>

# “韓·美·日 공조 北에도 도움”

金대통령·金永南상임위원장 ‘공식면담’

金永南 “보안법이 협력 걸림돌 아닌가”  
金대통령 “많은 대화로 이견 해소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15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북측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가진 공식면담은 예정보다 길어져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간간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온 것은 우리 민족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세 탓”이라며 “우리 민족이 외세내환을 겪은 적은 있지만 1000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다”며 반외세 통일론을 주장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가 28년 전

7·4공동성명, 8년 전 기본합의사에 합의했지만 실천이 없었던 것이 오늘까지 남북관계에 이어져 왔다”면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합의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해 설명한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대북 3국 공조에 대해 우리의 자주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국가보안법이 교류·협력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통령은 “3국 공조는 대북 정책에서 바로 북측에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모두가 윈·윈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해 이뤄진 것이며, 결코 북측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단계적인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면담에서 장시간에 걸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고, 북측이 이를 진지하게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0. 6. 15 (목)

### 金위원장-이희호여사 “각쟁이 농담”

#### “개성-서울각쟁이 누가 더 인색할까”

14일 경향 목판권 민선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희호 여사 사이에 ‘개성각쟁이’와 ‘서울각쟁이’란 농담이 오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위원장이 꺼낸

개성각쟁이와 이여사가 답한 서울각쟁이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무더운 여름 어느날 서울각쟁이와 개성각쟁이가 누가 더 각쟁이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은 시원한도록 부채질을 하면서도 옆 사람에게 는 바람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기를 했다. 먼저 개성각쟁이가 부채를 얼굴 앞에 세우고 안으로 삼삼 부쳤다. 이어 서울

각쟁이는 개성각쟁이가 삼삼 부채 짚에 “어, 시원하다”고 말한 뒤 한수 더 더서 부채를 얼굴 앞에 세운 채 머리만 좌우로 삼삼 흔들며 개성각쟁이의 기를 질리게 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성각쟁이가 아무리 인색하고 이기적이어도 서울각쟁이보다는 낫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탈북자들은 김위원장이 민선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개성각쟁이를 화제로 이끌어 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석기자 shn@yongyang.com

# “합의사항 조속히 실천”

### 金대통령 항공편 서울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 백화원경비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시간여의 단독 대화 끝에 남북 공동선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문안작업에 들어가 이날 밤 최종 서명했다.

회담이 끝난 뒤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 위원장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토의해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준 두 지도자 간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며 “모든 분야에서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의사항을 발표

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쪽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공보수석은 전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베를린 선언’에서 밝혔던 △한반도 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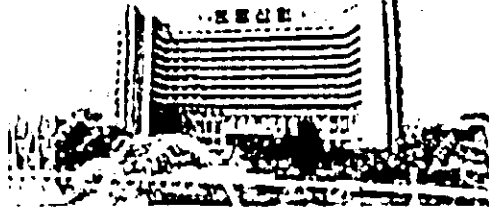
## 한겨레

2000. 6. 15 (목)

종식과 평화정착 △북한경제 회복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단국간 대화 정례회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 정부의 자세를 설명했다. 이날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속소인 백화원경비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남쪽에서 임동원 대통령특보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황원탁 외교안보수석이, 북쪽에선 김홍순 대남담당 비서가 대석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 시작 2시간20

분 만인 오후 5시20분에 1차 정회한 뒤, 6시5분에 다시 회담을 속개해 45분 만인 6시50분 끝냈다.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열린 독방에서의 단찬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의 기운이 넘치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번영의 물결이 넘칠 것이며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2면으로 이어질 평양/공동취재단

제보문의 general@hani.co.kr



북한 의료 실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중에, 지금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가 부담한다고 자랑했다.

형식적 '무상치료제'

또 '사회주의 의하면 예방의 약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매년 질병 예방사업을 한다고 주장한다. 90년분류는 일반의사가 남양구역의 중앙병 의원, 신남시 병원, 전문의사와 원장 등을 하는 '의사남양구역'을 실시

남양구역'도 보통 의사 1명이 2000~40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도 형식적이라고 감 위원은 설명했다.

북한의 의료시설은 총 7800이개로 추정되고, 이중 약 70%는 협동농장이나 기업의 진료소 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급은 40이개로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3년생 準醫'

또 원양과 9개 도청(道廳) 소재시군을 제외하고는 7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칙의사는 거의 없고, 3년제 보건학교를

남한 60년대와 비슷한 수준 의사 1명이 3000명씩 담당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료수준은 남한의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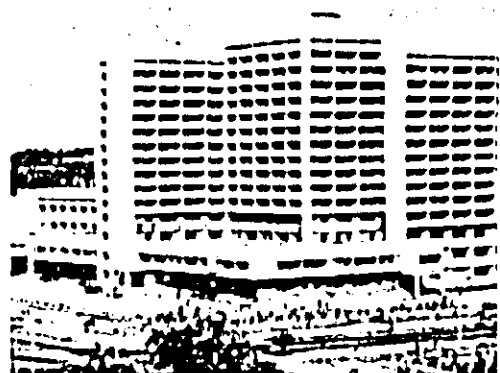
종합병원 40개 불과

북한분체연구소 김석수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매년 받는 임금에서 10%정도만 '복지 후생'에 할당된다. 따라서 무상치료제는 사실과 다르다.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에 왕복을 포함시켜 일부는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

종합한 '중의(中醫)'들이 대부분 진료활동을 해 의료의 질이 낮다. 군과 당의 고위 간부들은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어진 문화전요소, 김만유병원, 남산병원 등에서 치료받는 반면, 일반주민은 간단한 완생제나 연고마지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 위장병 등 간단한 질환에도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천의학을 일컫는 '동약' 또는 '고려약'을 일찍 감지 체계적인 연구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소평양산(원)은 1980년 개원한 북한 유일의 여성 종합병원으로 치상 13층에 산과병실 500여개 등 2000여개의 병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6개동의 부속건물이 있다. 김만유 병원 아래에 세워진 조종원 김만유의 부지로 설립된 북한의 가장 현대적 시설을 구비한 종합병원이다. 1300여 병상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로 신과 군 간부들이 이용되는 병원이다

/서진세경 도시건축전문기자



이희호 여사가 평양산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평양=중앙대사진기자단

유치원서 '어린이와 울동' 수예 硏서 "이 정성 담아 결실"

이희호여사 평양 나들이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11일 오전 평양시내의 창공유치원과 평양수예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희호여사는 먼저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창공유치원을 방문. 김관영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어린이 각 교실을 둘러본 후 유치원생이 준비한 악기연주와 노래 등을 10여분간 관람했다.

통일노래 연주에 '감흥'

이희호는 총 7개로 나뉘어 있는 교실 가운데 학습을 진행중인 첫 번째 교실에 둘러 유치원생들의 학습상황을 지켜본 뒤 두번째 교실인 '춤'로 옮겨 춤을 추고 있던 유치원생과 어울려 2분가량 춤을 추었다.

이희호는 이어 마이애를 가아남 등으로 진행된 악기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중간중간 박수할 처미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이희호는 피아노 연주로 통일노래가 나오자 감회가 깊은 듯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해 잠기기도 했는데 잠시후 어린이들에게 악수할 청하기도 했다.

"남쪽 염색과정도 구경하길"

이희호는 이어 수예연구소에서 방직실 조망의 안내로 수예를 놓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북한의 자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희호는 방조장에게 "이처럼 정성을 담은 수예품 같이 온 가래의 정성이 맑기때문에 되어 정성하담이 붉은 김과를 맺기때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희호는 또 "방조장도 한번 남쪽에서도 직접 염색과정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

했다. 이희호는 유치원과 연구소에 자신의 저서인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내일을 위한 기도' 등 책 2권과 선화 등을 전달했으며 방조장은 '남강산의 상산암'이라는 제목의 선수자수품을 이희호에게 선물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좋은곳"

이희호는 오후 동평양지구 대동강구역 분수거리에 있는 여성종합병원 평양산원을 찾아 현판에서 김진수 원장(64·이)으로부터 산원시설과 진료과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받았다.

이희호는 칸막이로 된 병실에 앉아 화면에 나온 산모와 화상분과를 하며 "회면을 통해 만나봐서 반갑다. 좋은 곳을 방문해 기쁘고 특히 규모가 크고 여성들에게 특별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보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키워준다" 자랑

3층으로 이동한 이희호는 해산실과 산모대기실, 네방동아실, 세방동아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김원장의 설명을 들었다. 김원장은 "북쪽에선 새끼들이 이성을 낳으면 아기 몸무게가 4kg이 된 때까지 국가에서 키워준다. 또 그 이후에도 미역과 보태 등을 모두 공급해주고 여학생들에게는 급반식, 남학생들에게는 은장도탕을 선물한다"고 소개했다.

이희호는 평양산원을 떠나면서 김상복(방명복)에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은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곳에 입원하여 돌보는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평양산원의 부끄러운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 6. 11.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라고 서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실향민 “고향길 열렸다”

남북공동선언 지켜본 市民들

## “이번엔 차근차근 꼭 결실맺길” 주문

### 남북어부·국군포로 언급 없어 아쉬움도

14일 밤 남북한 두 정상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한다”고 합의함으로써 85년 9월 첫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에 이어 15년만에 다시 실향민들의 ‘고향길’이 열리게 됐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게 남북 정상의 합의문 발표를 기다리던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재상봉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대했던 가족들의 생사확인고 서신교환에 관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해 실망하기도 했다.

이경남(李敬南·70) 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생사확인고 서신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또 양측 정상이 공동선언문 합의뒤 두 손을 마주 잡고 자축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의문 내용중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의 공존성 인정’ 등과 관련, 다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부 염준영(廉準英·59·경기 안양시)씨는 “남북 정상은 구체적 결

심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합의 사항 중 이산가족 문제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 수십년 맺힌 민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황현순(34·회사원·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는 “이번 만큼은 남과 북이 가슴을 맞대고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남북 어부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게 약간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공동선언 발표를 지켜본 김종오(金重五·41·자영업)씨는 “통일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외세를 완전히 배격한다기보다 남북이 주도권을 쥐고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鳳善기자 bschung@chosun.com  
/李東赫기자 dong@chosun.com  
/金玟植기자 callin-u@chosun.com



◇외국기자 실향민 취재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기자가 서울 물지모에 있는 울지면옥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 실향민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朱完中기자 wjoo@chosun.com



# “이젠 진짜” 기업들 사업챙기기

## 남북정상회담 新경협시대 (2)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준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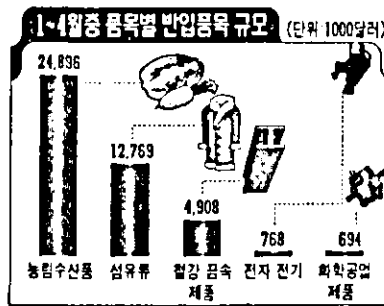
북한사업에 선두적인 현대그룹 외에도 삼성과 LG, SK그룹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앞으로 남북 경협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고 북한 진출 사업내용을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 삼성·LG 전자단지 급진전 기대

삼성은 현재 북한과 합의하고 있는 50만평 규모의 전자단지 조성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 입가공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컬러TV와 전자기, 오디오 등 3개 품목 외에 스피커와 모니터의 북한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LG그룹은 우선 봉제와 전자제품, 부품 분야 시범투자사업에 본격화하고 공단개발과 자원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궁극적으로는 정유와 석유화학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 LG는 또 지난 97년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연간 20만대 생산규모의 컬러TV 합성사업과 연간 50만대 규모의 자전거 합성사업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은 손길승 회장이 방북단에 포함됐지만 주력사업이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 아직은 북한투자에 소극적인 자세. 손 회장은 최근 “인프라 수준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비즈니스관계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며 “상사 등을 통해 북한 상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



승인된 주요 남북협력사업 (자료 통일부)

|       |                     |
|-------|---------------------|
| 현대    | 금강산관광개발사업           |
| 삼성    |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
| LG    | 가리비 양식 생산           |
| 대우    | 남포공단 서초, 기방, 자켓 생산  |
| 태양    | 금강산 생물개발            |
| 복합자   | 발전용 치료제 제조          |
| 합격자동차 | 자동차 수리 개조 및 조립공장 건설 |

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플라스틱가공 분야 합작사업 등에 300억원 정도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청진과 나진 지역에 물류센터 건설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여유전력 송전과 북한 내 신규 발전소 건설, 낮은 발전소 보수 등 대북 전력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위해 최근 전력협력준비팀을 구성했다.

### 韓電선 전력협력 준비팀 구성

종일교 계열 금강산국제그룹의 자회사인 빙화자동차는 최근 남포에 북한 조선련봉총회사와 합작으로 자동차수리·개조공장을 설립했다. 빙화자동차는 또 내년 말까지 자동차 조립라인을 만들어 이탈리아 피아트의 1500cc급 ‘씨에나’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

KOTRA는 최근 설립한 ‘대북 위탁가공 무역 지원센터’를 통해 대북 교역품목 선정과 중개상 알선, 상담지원 등 대북 위탁가공분야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케드랩 등 전자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사는 이달 말중 방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영수 이사장은 “3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대동강 공장에서 회원사들이 신규 입주하는 문제와 대동강에서 생산한 전자부품을 북한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회는 이르면 7월중 30명 정도의 방북단을 파견, 입가공 진출 방안과 시혜한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문제 협의할 예정이다.

### 중견·중소기업들이 더 열심

무역협회 협동할 무역지원실장은 “최근 무역업체 800곳을 대상으로 위탁가공무역 회담 여부 설문조사했는데 240개 업체가 북한 진출을 희망했다”면서 “물류와 전력 등 문제만 해결되면 중소 무역업체들의 북한 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徐敦기 기자 gyoseo@chosun.com



# 美 “서명은 중대진전... 더 지켜보아야”... 러시아 ‘말조심’

## 4強의 시각

미국



미국은 14일 남북 정상회담이 5개항의 합의를 이룬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담 결과가 향후 미국의 동북아 방위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 클라크 백악관 대변인은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가져온 결과에 환영하며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 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클라크 대변인은 “앞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이틀간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제(mechanism)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위상 언급피해

바우처 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이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악적 분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간 합의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미국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을 면분으로 한국가 미사일 방위(NMDS)체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

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진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이 해소됐다는 어떤 변화의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논의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 美北관계 진전 시사

클라크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던데서 얘기하지 않겠다”며 “한반도에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두 대변인은 이날 전날인 13일 1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보다 다소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내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불만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클라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그 정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북 관계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주요기자 mdwar@chosun.com



중국인 한 요리사가 남북정상회담 기사를 보도한 신문물 14일 베이징의 한 기관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 /北京=AFP

# 中 “환영”... ‘대만 불똥’ 우려도 日 “北 개방의지 보여 고무적”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완화 및 남북한 화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아코넨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 “합의사항 면밀히 분석”

아코넨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면밀한 긴장완화 및 화해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나아가 양측이 이미 합의한 화합의 원칙에 입각한 중립의 전망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코넨코는 “한반도가 실질적 평화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정상의 만남이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우호적인 관

위기 속에서 이뤄진 점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스크바는 남북정상회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7월 19일로 잠정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레오니드 이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대외협력 국장은 14일 “푸틴 대통령의 7월 북한 및 중국 방문의 주요 의제는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협정 개정 요구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요구한 크렘린궁의 고위 관리자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중반 전화통화를 통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논의 결과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 사실이 9일 공식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 관리자는 “만약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통해,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 이 ‘선봉’을 띄우고 오키나와 G8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는 푸틴 외교의 대성공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러시아의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푸틴, 미사일 설득할듯

이 관리자는 북한 설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94년 국제사회가 핵문제와 관련, 감일성을 설득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되돌은 뒤,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설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외무부의 한 고위 관리자는 사전(私)을 전제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평화공존을 향한 ‘역사적 걸음’이다. 남북평화공존문제가 남북 불일분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평화공존이 시급한 과제가 분명하다. 장거리 핵화공존이 남북평화를 공고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스크바=주요기자 shwang@chosun.com

## 중국



중국 정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남북간의 대화 방식이 대만(臺灣)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또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한반도 평화에 공헌할것”

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분열 이후 50여년 만의 첫 회담으로, 한반도 형세에 중대한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이에 환영과 지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또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가 외부 간섭 없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적극적인 진전을 얻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인 작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98년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나 남북한 대화 분위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대화 방식을 양안(兩岸)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국제적인 무언의 압력이다. 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미리 답변을 준비한

듯 긴 시간에 걸쳐 답변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전의 산물로, 2차대전이 남겨놓은 독일이나 한반도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동서독이나 남북한은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널리 승인을 받지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강조했다.

### “대만은 중국의 내정문제”

주 대변인의 발언은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성격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양안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철색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주 대변인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한 것도 ‘남북한 화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北京=池海範기자 hbjee@chosun.com

## 일본



남북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던 일본정부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방 영접에 가장 놀란 모습이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외무성 북동아과 관리들은 13일 오전 TV생방송을 지켜보던 중 예상치 못한 김 위원장의 등장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 아오키관방 “감개무량”

정부 대변인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관방장관은 선거 유세차 내려갔던 지방의 공향에서 TV를 통해 이 장면을 접했다. 그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다소 감상적인 논평을 내놓은 것도 남북정상간 극적인 만남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충격 만큼이나 일본정부의 평가는 좋다. 시리아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 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스키점프에 비유해 “훌륭한 활강(滑降)”이라며 “두 리더가 분단민족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북한의 적극적 자세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코멘트했다.

그동안 줄곧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취해온 일본정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일본은 7월 하순 오키나와 G8 정상회담 때 ‘남북대화 촉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 외교공작을 펼쳐왔다. 남북 정상 간 대화로 기폭된 동북아 냉전완화 국면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정부의 기본적 시각이다.

아마사키 류이치로(山崎隆一郎) 외무성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영상이 리얼타임으로 방영되는 것은 북한의 투명성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

원장의 일련의 적극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연출’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개방자세를 의미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일본정부는 해설한다.

### “北, 경제원조 기대한듯”

다만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데는 경제원조의 기대감이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사전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이 북한에 인프라 건설 등의 경제원조를 어느 정도 약속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례적일 정도의 환영은 그에 대한 보답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어쨌든 일본정부로서는 남북 간에 기폭된 대화 무드가 일·북한으로도 이어질 기대한다. 특히 김 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러브레터’에 북한이 어떤 답장을 보내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東京=朴正薫기자 ih-park@chosun.com

# TV마다 회담뉴스로 '통일'

## '생생한 평양' 안방 강타

북한 밤 TV영상이 안방을 강타했다. 기대 이상의 생생한 화질, 예상 못한 풍부하고 다양한 장면 장면들이 이틀째 시청자들을 TV앞에 붙들고 있다. 정상회담은 남북 방송 교류-협력사에서도 새 장을 열었다.

북한시의 생중계가 효음을 얻자, TV는3사는 미리 편성한 각종 특집과 정규방송을 아예 재치두고, 북한 밤 생중계, 녹화중계 뉴스 내보내기 경쟁에 나섰다.

최대 뉴스였던 13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의 깜짝 영접 장면 생방송(10시20분~11시20분)은 평소 13.9%보다 2배 가까운 22.9%(KBS1, MBC,SBS 3사합계·TNS미디어 코리아 조사)를 기록했다.

KBS 기획제작실 박동영 주권은 "북한(PAL)과 남한(NTSC)간 TV송출 방식이 다란데다, 정치적 이유로 자유로운 생중계가 가능할지 방송 직전까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북한 측이 갖고 나온 중계차와 우리 중계요원이 가시간 ENG 카메라, SNG 장비가 힘을 합쳐 생중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스포츠 중계 이외에 북한 화면이 생중계로 우리쪽에 전달된 것은 처음. 한 방송 관계자는 "북한 중계 장비가 예상보다 매우 신형이었다고 취재단이 전했다"면서 "처음 생방



◇평양 화면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 방송사들은 특집프로그램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평양 화면을 반복 방송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풍경. /이응중 paryoan@chosun.com

### 미리 편성된 특집프로·정규방송 밀어내 김위원장 '깜짝 영접' 시청률 평소의 2배

송 그림이 들어왔을 때 '정말 깨끗하다'며 다들 놀라움을 감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방송사들은 '만경대 국제마라톤'(KBS1) '비화 남북교류'(MBC)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영상기회 평양 2000'(SBS) 등 미리 예정했던 프로그램을 취소한 채 '특보'를 내보냈다. 시청률 1위 드라마 '허준'도 결방의 운명이 됐다. 방송3사는 14일도 북한에 나간 취재진들이 새로운 화면과 뉴스톱 보내

을 때마다 정규 방송을 끊고 정상회담 소식 전하기에 나섰다.

MBC 김상균 보도국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 보도국 기자들이 총동원돼 특집프로그램을 만들어 뒀지만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보내온 화면이 더욱 생생하고 뉴스가 되기 때문에 거듭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철기자 kichul@chosun.com

## 서울경제

### 합의문 내용놓고 시종 관심

○14일 롯데호텔 프레젠테이션은 오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후 남북 두 정상간에 합의문이 채택될지 여부를 놓고 대안기자는 물론 외신기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입: 13일 오전 55분만에 두 정상 이 만난데 이어 이날 합의문까지 발표된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 단체 양면

#### 프레젠테이션 표정

장쩌민을 김정일로 착각

합성사진 잘못 게재하기도

식(梁榮植) 통일부 차관도 오후 3시 장례노랑에서 장병간 합의에 추진돼 이한 사안 이라고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

로 밝혀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

○세계 유수의 언론인 미국의 USA투데이가 여지구나 없는 실수할 지질했다. USA투데이 인터넷사이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특보뉴스로 다루면서 중국의 장쩌민 주석을 김정일위원장장으로 착각, 12일 하루동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대통령과 장쩌민주석이 나란히 하고 있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것이다.

더구나 장쩌민 주석의 뒷배경에는 북한의 인공기도 깔려있었다.

이 사실은 식간신문인 분화일보가

14일자 10면에 외국 언론의 관심동향을 다루면서 이 문제의 사진을 게재. 이를 발견한 국정홍보처 담당자들은 크게 불만을 터뜨렸다.

국정홍보처 한 관계자는 "(USA투데이에)당장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평壤레오 주한 프랑스대사가 이날 오후 3시40분께 프레젠테이션 외신기자실에 들러 자국기자들을 포함해 외신기자들을 격려,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양정특기자 jryang@sed.co.kr

김홍길기자 h1anycall@sed.co.kr

해외언론반응

日·北관계에 긍정적 영향

日 NHK·아사히신문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소식에 대해 일본 언론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13일 지정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영 NHK 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자정 뉴스특집 연장하여 이 소식을 화면과 함께 전했다. NHK는 '남북 수뇌(首腦), 합의문서에 서명'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정상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몇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10여분간 방송했다. NHK는 평양에서 12시에 생중계 되기로 했던 박종영(朴鐘榮)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다소 늦어졌지만, 정규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다른 국내 뉴스를 내보내며 평양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방송은 이어 서울 프레스센터를 위성으로 연결해 5개항의 합의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전문기자와 앵커가 합의 내용을 또다시 20여분간 조목조목 분석하기도 했다.

아사히(朝日) 신문도 인터넷을 통해 새벽 0시11분에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신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 등의 역사적 합의가 갖추어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일·북한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전했다. 신문은 또 합의문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분위기와 재일동포들 반응을 전했다. 각국의 반응도 함께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다. 오락 프로그램 같은 진행으로 시청률이 높은 TV 아사히의 '뉴스 스테이션'은 김 대통령이 전남 만천에서 받은 상차림을 재현하기도 하는 등 이번 회담에 얽힌 일본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보여줬다.

/東京=權大勳기자 dykwon@chosun.com

美는 對北정책 재검토해야

美 LA타임스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 북한은 단지 위험한 골칫거리라는 회의론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 세계에 개방하려는 증거들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와 헌법을 개정했다. 경제면에선, 남한 기업이 남북 정부의 축복 속에 북한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북한이 변화하려는 이번 기회를 미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에게 접근해야 하나.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한 걸음씩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큰 성과를 침묵하게 기다리

면 안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을때,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셋째, 북한에 부족한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경제 변화할 거치면서 생기는 불안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북한 문제에는 위협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한다면 북한은 국제사 회로 들어올 것이다.

/정리=金鳳基기자 knight@chosun.com

冷戰-마지막 커튼이 걸린다

英 인디펜던트

냉전의 마지막 커튼이 걸릴 듯하다. 기존 과 경제적 붕괴에 직면한 북한은 최근 이탈리아, 호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에서는 빛이 바랬다. 이것은 현재 전쟁상태에서 이념적으로 견제하는 선단국가,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다. 가난과 퇴보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 북한은 작년 국민총생산의 6분의 1을 국방비에 투입했다.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성공했다. 남한의 국경선은 3만7000여명 주한미군에 의한 '뒤틀림(Trip-wire)'이다. 한반도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종합전쟁의 장소로

첫번째 리스트에 있었다. 따라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친애하는 지도자'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는 하나의 희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6·25전쟁으로 인한 180만 이산가족의 상봉과 하늘, 땅, 바다를 통한 남북간 연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노'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남북한 사이에는 '통일된 독립 한국'이라는 무지개가 걸려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만남이 정례화되어 긴장완을 항구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남북한의 긴장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책임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에 국제사회에 호의적 인상을 주었음지 모르나, 감칠 같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나후된 산업과 파폐된 농업을 구원해 줄 친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이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북한은 탈린턴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정리=蘇羅禮기자 dudmie@chosun.com

두 金씨 善意的 경쟁

佛 르몽드·르피가로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14일자 국제면에 '김씨와 김씨, 같은 역사책에서 뜯은 두 쪽'이란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비하는 기사를 실었다.

'김대중 남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 그들은 둘 다 코리안이고, 그들은 동포의 3분의 1과 마찬가지로 김씨 성을 가졌다. 하지만, 그 외에 그들이 크게 공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 한쪽은 양복 정장을 했고, 또 한쪽은 험이한 점퍼차림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똑같은 한국 역사책에서 뜯어내 나란히 놓은 두 쪽과 같다. 그 역사책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헤어져서 강대국 이익에 봉사한 약소국 국민들의 비극을 들려준다.'

특히 이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앞면성을 지적했다. '흔히들 그가 과묵하고 중중적이고 권위적이면서도 슬과 여자, 영화 그리고 마술을 좋아하는 쾌락주의자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의 3분의 1이 굶주린 빈혈상태의 국가를 통치하는 그의 정권이 군사적 위협이란 패배 이용해서 강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식을 보면, 그의 전술가로서의 재능이 입증된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김일성주의의 후계자는 두 한국의 화해의 장인(匠人)으로 역사에 자리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정치인이자 권력의 지렛대 활용의 달인인 김대중 대통령을 대화 상대자로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르피가로는 14일자 국제면 1개면 전체를 통해 '김씨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남북한 정상의 평양 상봉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수께끼 같은 공산주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김대중 한국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협질을 깨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피리=朴濟益기자 hhpark@chosun.com

"협육은 본래 하나다"

中 신민일보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북한 평양으로 가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저녁, 한국의 진(津) 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김대통령에게 시럽한 편 써보았다. "협육은 나누기가 어렵고 본래 한 기운으로 생겨난 것이다. 나무로 치자면 뿌리는 같고 가지가 다른 셈이다. 물 한 잔도 반드시 나눠 마셔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어느 보통 국민이 조국통일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며, 전체 한민족 공동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남북 쌍방이 서로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올해 4월 북한은 남한에 남북대화할 위한 협조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했다. 드디어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38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 55년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 이것은 민족화해와 조국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염원이며 대세임을 말해주고 있다.

55년간의 분열과 근 반세기에 걸친 냉전을 겪으면서 남북 양측이 갖게 된 의심과 적의가 한 두 번의 회담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화는 대결보다 결국 좋은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심화해간다면 의심과 적의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정리=呂始美기자 sdyeo@chosun.com

# “北은 실리·명분 두마리 토끼 쫓고 있다”

柳浩烈 고려대학교수

高有煥 동국대학교수

金堃允 통일연구원 위원



## 화해하고 악수해도 金위원장 가슴속엔 냉철한 계산 있어

▲유우열=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의 2차 단독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에서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번 회담 기간 이전부터 남북 양측 실무진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13일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승용차 안에서 가진 55분간의 차중(車中) 단독회담은 14일의 합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다.

## 南北실무진 사전 조율한 듯

▲김영환=14일 오후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두 정상간의 대화는 보면서, 상당히 극적인 경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고유환=적어도 13일 밤에 각 분야별로 양측 실무대표들이 비밀 접촉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14일 오전 김 대통령 일행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북측 인사들 사이의 '공식 면담'은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 때 14일 오후의 합의서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했을 만한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도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실무준비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유=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의 자세에 차이가 느껴졌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의지가 명백했다. 반대로 우리 대통령은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만난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처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유어나 이산가족 문제는 들어주겠지만, 그보다 뭔가 더욱 본질적인 사항들을 제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 ‘은둔 정치’ 청산 北 통치스타일 변화 한반도에 큰 영향

### 北, 언제든 협상 카드화

▲김=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과 형태 등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상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13일 환영 만찬에 김정일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14일 오전에는 '확대정상회담'이 '공식 면담'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실리 중심의 전략 속에 남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어떻게 보면 북한은 실리와 명분을 다 얻고 있는 상태다. 어찌 북한 중앙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을 완전히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위기로 보도했다. 결국 북한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한층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우리측 국민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실리뿐만 아니라 명분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고=2차 정상회담의 의제는 처음부터 매우 포괄적이었다. 7·4성명에서 제기된 회해와 단결, 교류·협력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돼 있다. 북한은 이런 의제들을 통해 통일회담으로서 정상회담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이는 과거부터 북한이 취해온 전통적인 자세다. 다만 이번 회담이 과거와 다른 것은, 위 정하는 14일 '공식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보안법 철폐'나 주민안보군 철수 요구와 직결되는 '자주(自主)' 등의 의제들을 남북 당국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이용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철폐하고 일단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유=7·4 공동성명부터 계속되어온 사담들이 '전제조건'에서 '의제'로 바뀐

## 정상회담 분위기 北이 주도하는 느낌 南지원 얻으려는전략

지만으로 보면, 이 문제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인 단어들 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카드화할 수 있고, 상황변화에 따라 이치하는 순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면책사유'로 이용하려 들 수 있을 것이다.

### ‘남한 主敵論’ 상실 직면

▲고=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구도를 미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대해 미·일과의 공조 모기를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구도가 확립되면 주민안보군 철수 문제는 차근차근 나오게 돼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주변 4강들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김=14일 '공식 면담'에 이대평화위원회나 민족경제협력연합 같은 단체들이 공식면담에 참여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를 기구기 앞으로 협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제한 참여하면서, 선보이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김강선 관장은 이대평화위가, 민경련은 대한 기업협동의 창구다.  
▲고=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김 위원장이 '은둔정치'를 청산하고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할 것임을 예고한 데 있다고 본다. 앞으로 김 위원장의 정치적

타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당에 들어가 약 30여년간 막후에서 실권을 행사해 왔다. 80년 6차 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이담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가운데 '당 중앙'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내부적 통치를 해 왔다.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으로 공적활동을 하고, 당내 실권은 은둔한 김 위원장이 행사한 것인데, 그것이 승상화될 것처럼 보였다. 1994년 아버지가 죽고도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그것이 바뀐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은둔 통치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 등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담정은 서울 답방(答訪) 가능성이 높고, 가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 쪽으로가려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지금까지도 김정일은 각지방에서 현지 지도도 해왔고 외국에도 다녀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본인이 스스로 '은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는 과거 아버지 김정일 주석처럼, 이니면 나아가 좀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니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것 같다.

### 지속적 포용정책 필요

▲김=스스로가 바깥에 은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그동안 부각시켜온 '남한 주적론(主敵論)'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는 다가서면서 남한에는 적대적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남한과 공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과연 북한은 남한의 우방인 미국·일본까지 3국과 다 화해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 북한이 그런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면 역설적으로 다시 긴장국면으로 부분적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기법 미국 또는 일본을 주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남북간에 긴장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 美서 정상회담 가장 우려

▲김=앞으로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정치분야의 관계 개선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다.

/정리=박국기기자 dspark@chosun.com  
/金堃允기자 ducky@chosun.com

# 南北통일 자주적 해결

## 南 연합제·北 연방제 공통성 인정

김대중·김위원장 5개항 역사적 서명

이산상봉·長期囚  
8·15즈음 해결  
김위원장 서울 방문키로

‘평’ ‘평’ ‘평’  
2000년 6월14일 오후 11시20분 경 양 백화인 영빈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분단 55년의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쓰는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며 삼대인이 담긴 유리잔으로 건배를 한다.  
공동선언은 5개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두 정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흠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약속했다.  
박준영(朴俊榮)총외대 대변인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송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

정일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5개항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념을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먼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2면에 ‘남북’ 기사 계속됩니다

### ⇒ 1면 ‘남북’서 계속

또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해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겹침을 예고했다.  
또한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 저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 함께 차대변인은 “김대중은 김

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2차 단독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같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선언문의 서명 날짜는 6월15일로 뒀다.  
이에 앞서 차대변인은 “회담 시작 2시간20분 만인 5시20분에 1차 회담을 한 뒤 6시5분에 다시 회담을 재개, 45분 만인 6시50분에 두 정상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차대변인은 “두 정상은 남북간 모든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충고를 내놓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남측에서 임동원(林東源)대통령 특보,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이기호(奇起浩)경제수석, 북측에선 김용순(金容淳)야대 평화위원장이 배석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11시20분 송대룡경의 숙소인 박희진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중앙대사진기자단

### 남북 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인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 문 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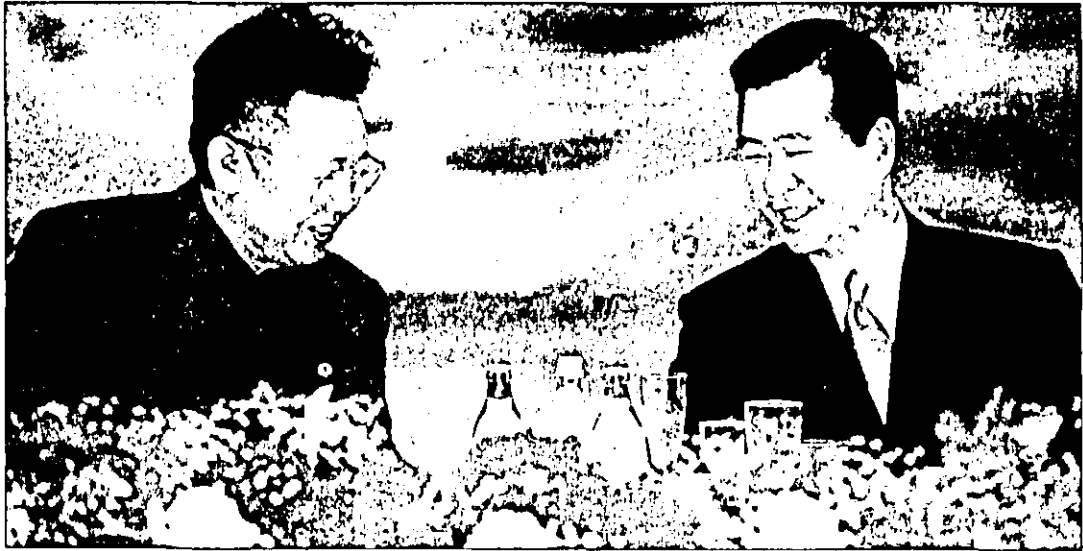
2000년 6월 15일

|      |             |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대통령  | 국방위원장       |
| 김대중  | 김정일         |

www.koreaherald.com



# '6·14 서명' 실천만 남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시내 목감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담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 아래는 남북공동선언에 친필로 적은 남북정상역사적 서명으로 왼쪽이 김대중 대통령, 오른쪽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김정일 '원샷'에 DJ도 잔 비워

한반도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2000년 6월14일 오후 11시20분, 남과 북의 두 정상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백화인양민관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남북 공동 선언'.

합의문 서명에는 우리측에선 임동원(林東源)대통령특별보좌관, 북측에선 김용순 위원장이 배석했다. 합의문서는 우리측 김하중(金夏中)의전비서관이, 북측에선 전희정(全熙正)국방위원장 의전담담비서가 상대측 정상에게 전달했다. 우리측이 준비한 합의문서는 짙은 검색, 북측의 것은 파란색이었다.

양측이 각각 작성한 세쪽짜리 합의문에 서로 서명을 한 두 정상은 합의문을 교환한 뒤 합창에 악수를 나눴다.

연연히 합박웃음,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짚어 만세를 외치듯 두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배석한 우리측 공식 수행원들과 북한측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장의 우레같은 박수가 터졌다.

두 정상은 미리 준비한 삼패인으로 추배했다. 양측 수행원들도 함께 잔을 들었고, 김위원장은 이헌재(李憲宰)재건장관 등 우리측

### 역사적 서명 하던날

DJ "민족 밝은미래 보인다"

김정일 "걱정없이 주무세요"

수행원들과 임원이 간배했다. "뽕" "뽕"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김위원장이 단숨에 잔을 비우자 수행원들도 따라서 '원샷'을 했다. 술이 약간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수행원들이 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네 모금반에 잔을 비웠다. 다시 박수가 터졌고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다시 굳은 악수를 나눴다.

이어 두 정상을 중심으로 양측 수행원들이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다. 회의장을 무리지어 나오면서도 김위원장은 우리측 수행원들에게 일일이 악수와 함께 농담을 건네며 친근감을 표했고 그때마다 앞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위원장은 특히 임동원 특보에게 "그쪽에서 상호주의의 얘기 하는데 우리는 호상주의라고 한다"고 말대 웃음보통 터뜨리기도 했다. 속소탕 황해 해어질 때까지 두 정상이 나

는 악수는 모두 네차례, 표정과 몸짓에선 감격이 넘쳤다. 김대통령과 헤어지면서 김위원장은 "오늘은 근심도 걱정도 없이 마음놓고 올라가 주무십시오"라고 인사했고 김대통령도 파인대소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6·14서명'의 감동적 장면은 이렇게 진행됐다.

앞서있던 만찬에서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감격에 겨워했던 김대통령, 서명 순간에 그런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합의한 뒤 "회해와 협력과 통일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50분 백화인 양민관,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환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다. 3시간5분의 미라클 회담 끝에 5개항을 합의해낸 순간이었다.

회담은 오후 3시~5시20분, 오후 6시5분~6시50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김위원장은 전남의 김해 점퍼항에 인민복 대신 공식 국가 행사에서 착용하는 회색 인민복 정장을 입었다.

두 정상은 양민관내 회의실에서 열린 단독 회담에 앞서 5분간 공개대화를 나눴다.

공동취재단



김대중 대통령과 김경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평양시내 룡관관에서 열린 송대통령 주직 담배인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홍과다사진기자단)

# 송위원장, 李여사에 건배 제의

만찬 이모저모

## “개성·서울 깎쟁이” 농담도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담배 인찬이 열린 평양 시내 룡관관.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회담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두 정상은 오후 8시쯤 룡관관 현관 입구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대기실로 가 녹색 의자에 나란히 앉아 가벼운 환담을 나눴다. 송대통령 옆에는 이희호 여사가, 김경일 국방위원장의 옆자리에는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앉았다.

가벼운 환담에 이어 만찬장에 들어서는 두 정상을 양측 수행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았다. 두 정상은 웃음을 함씩 머금은 밝은 표정이었다.

만찬은 송대통령의 만찬사로 시작했다. 송대통령은 “송위원장과 나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북측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납시다”고 말했다. 송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공식 제의한 셈이다.

송대통령은 이어 송위원장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힘을 합칠 것을 제의하는 바”라며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7천만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여기 평양을 향해 집중돼 있다. 전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에 모아지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거론했다.

송상임위원장의 답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곁에 있던 우리측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에게 불속 말을 걸었다. 헤드테이블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배석하고 있던 이희호 여사를 이쪽으로 모시고 와달라는 당부였다.

차장관으로부터 송위원장의 말을 전해들은 李여사는 송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송위원장이 “(김대통령이) 왜 우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연회장에서까지 이산가족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다”고 농을 건네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테이블마다 음식과 와인인 서빙되면서 만찬장은 활기를 띠어갔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과도그림 앞쪽에 마련된 헤드 테

이블 중간에 송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송위원장이 나란히 앉았다. 李여사는 낮에 입었던 회색 루이스 대신 자줏빛 고름을 단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왔다. 양옆으로 우리측 공식 수행원들이 자리했다.

송위원장은 우리측이 준비해 간 문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중중우리 등을 회제로 가벼운 대화를 이끌어갔다. 송위원장은 특히 원편에 나란히 앉은 李여사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정다운 모습을 보였다.

송위원장과 李여사는 우스갯소리인 ‘개성 깎쟁이’와 ‘서울 깎쟁이’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좌중에 웃음꽃이 터지고 회기에 야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송위원장은 李여사에게 먼저 건배를 제의하는 등 거침없는 모습도 보였다.

송위원장은 “자연환경을 왜 파괴하느냐”며 잘 보전된 금강산 얘기로 화제를 몰아가기도 했다. 또 식탁에 오른 문배술을 가리키며 “주암산 물로 해야 진짜 문배술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주암산 물도 30년 전하고 지금은 달랐진 것 같다”고 하는 등 다양한 것을 화제에 올렸다.



### 남북 정상회담

### 이산가족 상봉

## 만남의 장소 상설화 추진

이산가족 문제는 6·14합의서의 세번째 합의사항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사안이다.

남북은 올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고향방문단은 지난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애송공연단' 당시 교환방문 때 단 한차례 심천된 뒤 15년 만이다.

이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기로 했다. 비전향 장기수는 현재 88명.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중 50여명이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밀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선히 응했다. 김위원장은 회담에 앞서 "어제(13일) 남조선 텔레비에서 심향민과 탐복자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말로 감정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김위원장은 그 대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일러줬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 것이다.

북측은 1990년대 들어 제한적이지만 해외 이산가족과의 편지왕래와 상봉을 확대해 왔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급속도로 진행할 경우 체제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고향방문 정례화 등의 우리측 요구는 추후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서 발표 뒤 "판문점이나, 금강산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남북자 송환과 연계시킨다는 게 우리측 복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는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자와 6·25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문구대로만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

## 南北 통일방안 점목 모색

### 긴장완화·평화정착

남북 정상이 서명한 6·14합의서는 우리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합의문은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진행시키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이 항목이 양측의 통일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김대중이 구상해온 3단계 통일론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고리연방제의 장점을 따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일방안을 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보다는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정부가 추구해온 '냉전체제의 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북 포용정책의 골간을 이뤘다.

어렵게 마련된 당국간 대화가 군사적 대치상태 때문에 일순간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의 시말이 잘 보여준다.

합의서 문구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표현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의 연방제안을 그대로 답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해 '낮은 단계'라는 단서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당국회담에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 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 불가침' 조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박준영(朴俊榮)청와대 공보수석은 합의서의 4개 골자 중 설명하며 이 대목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된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남북 정상회담

양측 秘線 물밑접촉

# 주고받을 '선물' 막후절충

북한 전문가들은 TV화면에 비취지 않은 '숨은 그림'에 주목했다.

정상회담의 진짜 밑그림은 공식 면담 같은 겉으로 드러난 공식 회담이 아닌 벌도 물밑접촉을 통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남북회담 전문가인 김달술씨는 "아마 임동원-김용순 막후 채널이 활발히 가동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남북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주고받을 카드를 최종 흥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임동원 대통령특별보좌관과 김용순 이태경회의위원장(대남담당 비서)팀의 실무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원-김용순 채널은 크게 두가지 분야를 놓고 카드를 주고 받았을 것이다. 하나는 이산가족 상향규모와 후속 적십자회담 같은 주고받을 '선물'에 대한 흥정이다.

또 양측은 남측이 제공할 전력·석탄 등을 포함한 대북 경협 규모와 제공방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을 것이다.

임동원-김용순 막후 채널을 통해 1차 걸려진 협상 내용은 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졌을 것이다.

두 정상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총 3시간50분에 걸친 마라톤 회

담을 엮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정상은 오후 6시쯤 ▶자주적 해결▶통일 방안▶친척 방문단▶남북 경협▶당국간 대화 등 5개 항목에 걸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평화수위위원장이 주로 발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된 경우 정상회

## 정상회담 막전막후

### 14일 오전 공식면담

### 막후채널

- 이산가족
- 경협
- 기본협약서
- 공동성명
- 적십자 회담
- 투자보장 협정

### 담목회담

- 자주적 해결
- 통일방안
- 친척 방문단
- 남북경협
- 당국간 대화

### 남북합의문 발표



임동원 대통령특별보좌관



김용순 이태경회의위원장

담에 배석한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김용순 이태경회의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수 있다.

정상회담 개최합의에서 실제 회담

이 이뤄지기까지 견해차를 좁히는 건인차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후에서 실무를 관장한 이들의 역할이 마지막까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은 6시50분에 끝났다. 두 정상이 도출한 합의내용은 다시 임동원-김용순 두 사람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은 백화원 영빈관 별실에서 머리맡 맞대고 합의문 내용을 최종 정리했을 것이다. 문안정리를 마친 것은 8시30분쯤. 정리된 문안은 다시 두 정상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평화수위위원장과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을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두 정상은 마침내 오후 11시를 넘겨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이 합의문은 남북 역사상 최초로 두 정상의 명의로 발표된 문건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합의문 실천뿐이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김대중 대통령(左)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시작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링컨 컨티넨탈~ 캐딜락~ 행사 차량 값 수십억원대

링컨 컨티넨탈·캐딜락·벤츠... 북한측이 환영행사에 동원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들의 면면이다. 하나같이 고가의 수입자동차들이란 점에서 서울의 차량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14일 GM코리아·포드코리아 등 국내 수입자동차회사들은 전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 공항 출발때 동승한 리무진의 정체를 파악하는 회의까지 열었다.

미국 포드사의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으로 파악됐다.

이 차의 가격을 업체 관계자들은 "최소한 2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한다. 남측 수행원들에게 제공된 30여대의 벤츠를 합치면 이번 정상회담 행사차량의 가격만 수십억원대다.

특히 고급중학교 시절인 16세에 운전습 배워 한때 스피드광으로 불렸던 김위원장은 김비운수부가 수입차 목록을 올리면 직접 차종을 선택한다고 한다. 구입자금은 이른바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불리는 당 자금이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 南北 교류 책임자 40분 상견례

### 분야별로 남북창구 짚짓기 北 민경련 회장 참석 눈길

남북한은 14일 오전 9시 30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면담을 했다.

▶**협안논의**=면담에서 양측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상호협신 및 대결의식 완화,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4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아 남북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남북교류에 대비한 책임자들의 상견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서는 김대통령을 비롯, 임동원(林東源)대통령특별보좌관과 박재규(朴在圭)통일장관, 이현재(李憲宰)재경장관,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 등 통일과 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남북 현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북측 참석자**=북측에서는 김상임위원장이 대표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김영대 부위원장, 이삼로 부장, 최고인민회의 최대북의장, 여원구 부의장, 김영성 최고인민회의 차사 겸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등 최고인

민회의 간부와 남북대화 부서, 경제협력담당자가 배석했다.

남측에서는 정부인사들이 참석한 데 비해 북측에서는 국회적인 최고인민회의 간부들이 주로 참석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면담 배석자들을 업무분야별로 짚짓기를 하면 정치·통일분야에 박재규·황원탁·안경호, 남북경협에 이현재·이기호·정운업, 사회·문화교류에 박지원·김영대·김영성으로 나눌 수 있다.

▶**경협책임자 참석 눈길**=이날 면담에 참석한 북측인사 중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정운업 회장이다. 공식면담이 남북 당국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회장의 참석은 그간 민간차원에서 추진됐던 남북경협이 당국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장은 평남 회창 출신으로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정무원 무역부 과장과 국장을 거쳐 1992년 7월 당시 김달현(金達玄)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할 때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자격으로 수행한 견임도 있다. 98년 민경련이 만들어지면서 회장직을 맡아 그해 6월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창현 기자 <jchmin@joongang.co.kr>

### 공식면담 직석배치도

|                 |                       |
|-----------------|-----------------------|
| 박준영<br>공보수석     | 김영성<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차   |
| 황원탁<br>외교안보수석   | 안경호<br>조평동서기국장        |
| 박지원<br>문화관광부장관  | 김영대<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 |
| 임동원<br>대통령특별보좌관 | 양형섭<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 |
| 김대중<br>대통령      | 김영남<br>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 박재규<br>통일부장관    | 최태북<br>최고인민회의의장       |
| 이현재<br>재정경제부장관  | 여원구<br>최고인민회의부의장      |
| 한광옥<br>비서실장     | 이삼로<br>최고인민회의상임위부장    |
| 이기호<br>경제수석     | 정운업<br>민족경제협력연합회      |



김정일 리더십의 모든 것

修辭學

아침 메뉴까지 챙겨 대화 활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어구사는 치밀·난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유머를 곁들여 상대방의 부담을 누그러뜨려 준다.”

이는 평양장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의 수사(修辭)를 지켜본 우리측 학계·신문기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고려대 서진영(徐鎭英·장지학)교수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제1인자 의식이 그의 거침없고 단정적인 어법에 녹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가 신박한 어휘는 외교적이거나 주연 배우 같은 연극적 분위기도 배어 있다는 것. 김위원장은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도 “구려와 사람들이 지, 뭐라 말하든, 왜 언론생활 할 겁니까”라고 하는데, 내가 왜 언론생활하면 서 침(차음) 나왔냐”고 거침없이 말했다.

회담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과정에서 김대통령의 말을 2~3차례 끊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오셔서 나를 음운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역습적 농담’으로 분위기를 끌어갔다.

전날 1차 회담 때도 그는 김대통령과 우리 임명에게 “합는, 두리온, 무시을 김을 오셨다”고 했다. 오랫동안 각대관계였던 임명에서 보면 위압적이고 긴장을 주는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우회하지 않고 사태의 핵심으로 끌어들여가는 ‘김정일식 어법’인 듯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답변할 요구하는 단정적인 말도 있다. 편만한 환경자리였음에도 그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김대통령이 왜 망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 세계가

주목하는 의문부호에 2박3일 동안 대답해야 한다”는 말로 장식했다. ‘세계가 주목’ ‘의문부호’ 등 분야적(文辭)수사가 연극 시나리오 같은 느낌을 줬다.

“나는 봉치를 하고 있지만 더 좋다” “침착치 않게 해드리겠다”(이상 김대통령에게), “걱정하지 말라(청와대 안보실장에게)”는 예기도 톡톡 던졌다.

임장사인 김대통령을 의식해 ‘동양’의 지극 ‘예절’ ‘도덕’이라는 말도 여러번 사용했다. 예의를 아는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려 했다는 것. 김교수는 “생전의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거침없는 다변(多變), 어려운 분석도 쉽게 말하는 스타일을 닮았다”고 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이미지 관리

의표 지른 행동 ‘연출의 귀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새로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방에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 과파에 상응한 그는 14일 2차 정상회담에서도 또다른 강연한 인상을 남겼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께서”라는 꼭두한 존칭으로 “김자리가 편했느냐” “급하게 자시면 국수는 맛이 없다” “식(식)이 훌륭한 게 없었느냐”며 동양적 겸손이 인상적 예우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광천연결에서부터 이날 회담까지를 지켜본 우리 언론기자들은 “김위원장이 스스로 PD·수연이 되는 한편의 위장재는 드라마

마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소식통은 “회담 일정을 하루 인가, 우리들 자어낸 직후 의표할 짜든 공상양적·동송화남의 극적 반전을 이뤘나만 초점을 놓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 특유의 이미지 관리다운 인상과 TV·언론매체에 대한 오랜 감각에서 비롯됐다. 김위원장은 20대 후반인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60년) 시절 조선인민군임소에 상근하며 ‘미비다’ ‘꽃 피는 처녀’ 등의 영화 제작, 연출능력을 닦았다. 보인드라마 주연이 될 기성명, 주제가 가수 오디션까지 지휘했을 정도.

김위원장이 즐겨본 남한 드라마도 ‘용의 눈물’ ‘모래시계’ 등 역사성과 인성미학이 가미된 작품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전문가는 “김위원장이 인상을 통한 ‘김정일 우상화’의 능력을 인정받아 후계구도들 굳히게 됐다”며 “연출에는 귀재(鬼才)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위원장이 스스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한 게 이번 평양 정상회담.

김대통령에게 차양 상식(上席)을 양보하고, 14일 만찬에선 이희호(李姬浩)여사부터 자신의 연자리로 앉히는 ‘최상층적’ 여성배려’의 면모로 관심을 끌었다. 최훈 기자 <chunhoon@joongang.co.kr>

방송 활용

남한·외국TV 10여 채널 시청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백화인 양민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회담하며 “어젯밤에 늦게까지 남북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고 말했다. 13일 첫 만남 때도 김위원장은 “오늘 아침(순안) 비행장에 나가기 전에 TV를 봤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의 남한·외국 TV 시청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TV를 통해 남북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TV·신문을 통해 한류시대의 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실제 보고는 지난해 10월 김수연(金水淵)선전대

그로 면에 회담과 만남을 때 시용의 발전상황을 세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자신의 지택에 24시간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미국 CNN·일본 NHK 위성TV 등의 수신장치를 갖추고 있고 KBS·MBC 등을 비롯해 10여개의 채널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위원장이 ‘국제감각에 능한 최용주’의 자라는 평가가 나올지도 한다. 두 정상회담의 맨날 행사에서도 그가 TV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위원장은 TV매체 외에도 조선중앙통신이 전세계 뉴스망을 통해 수집하는 각종 정보자료 요의정보도 매일 챙기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보의 김(情)을 당리해 급수가 나면 ‘김고공신’이라는 별도 자료로 배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핵심정보는 ‘1호 문건’으로 재장래 김위원장이 보고된다. 정상회담 준비감독 북측 단장 김영성도 남조선문재인 구소·조국중앙인구원에 근무하면서 남한 경제동향을 분석한 1호 문건의 작성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고위관료들은 노동신문이나 북한 TV로 정보를 획득하기보다는 ‘김고공신’을 즐겨 보기 때문에 대외시장에 밝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현정 기자 <jchmin@joongang.co.kr>



# 한강과 대동강에 번영의 물결



## 남북 정상회담

김대통령 만찬사 <全文>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저의 초대에 가까이 응해주셔서 이차만 상대한 만찬을 가진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7천만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여기 평양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전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의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날이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평생에 보낸 밤을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감한 심정에 사로잡힌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 감격을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난 근대사 1백년을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배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분단과 전쟁이 그렇고, 지금까지 남북을 갈라놓은 침략선이 그렇습니다. 이 모두 19세기 조선왕조 말엽, 민족적 단합과 근대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역사의 요청을 저버린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백년 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일한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첫째 우리 양측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 이유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과, 오늘 역사적인 정상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김정일 위원장과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함께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인 세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민족의 미래를 크게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을 털어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남과 북이 전쟁의 재발을 막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20세기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남과 북이 우선 평화롭게 공존공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7천만 우리 민족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통일로 향하는 가장 탄탄하고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겨레입니다. 공동의 운명 속에

사는 민족입니다. 상의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안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머지않아 통일의 목지지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김영삼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체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상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리는 진정으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서로 협을 합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책임있는 당국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쌓아가면 협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의 기쁨 차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번영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도 그리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얼마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불신과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에서 여타는 심정으로 재검합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합류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인도적인 결단도 우리는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7천만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며 또 저의 평생 소망이기도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한결같이 간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김위원장과 저부터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기쁨을 다지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세기의 분단이 가져다 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를 끝내며 교류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이제는 6월이라는 달이 민족의 비극이 아닌 내일의 희망의 달로 역사에 기록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달로 기억돼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초대에 응해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김위원장의 건승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7천만 민족의 희망의 성취를 위해 축배를 들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북쪽의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 남북 經協 공동위 가동 협의

## 분야별 간담회 국회회담 재개·올림픽 동시입장도



### 남북 정상회담

금대통령과 함께 공인을 받은 중인 북  
 별수협원들은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분야에서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  
 회장·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 등  
 우리측 대표들은 남북간 이종과제 방지협  
 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의 조속한 가동 등 경제협력에 위  
 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당·사회단체 분야 간담회에서 민주  
 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남북 국  
 회회담 재개를 요청했고, 김운용(金雲  
 龍) 대한체육회장은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오사카(大坂) 세  
 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했다.  
 여성분야 간담회에는 대통령 부인 이희  
 호(李熙浩) 여사가 우리측 대표로 직접 참  
 석해 다음달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민족 여성 한마당대회' 준비협  
 측 문제 등을 논의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남북간 주요 합의 문건 일지>

- ▶1972년 7월4일= 7·4 남북  
공동성명
- ▶1985년 8월22일=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  
문에 관한 합의서
- ▶1990년 7월26일=남북교위급회  
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 ▶1991년 12월13일=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정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1992년 1월 20일=한반도의 비  
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년 9월17일=남북화해공동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4년 6월28일=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 ▶2000년 4월8일=남북, 정상회  
담 합의서
- ▶2000년 6월14일=남북공동선언

### <남북 정상회담 지연안내>

- 3면 '新남북시대' 회담 결산
- 4면 합의문 세부 내용
- 5면 2차회담·민간 스케치
- 6면 평양 방문 플랫폼
- 7면 공식면담 누가 나왔나
- 8면 막후접촉 누가 하나
- 9면 회보
- 10·11면 전문가 좌담
- 12면 中·日·러 서명 지지
- 19면 통일교육 어떻게
- 29면 지나친 흥분 말아야
- 30면 북한 열기 확산
- 31면 설레는 이산가족

## “韓·美·日 공조 北도 유리” 金대통령

## “保安法 교류협력에 방해” 김영남

남측과 북측은 14일 오전 김대중(金大  
 中) 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단수대 의사당에서 '공식면담'  
 을 하고 7·4 공동성명 및 남북 기본합  
 의서 이행을 토대로 한 교류협력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한·미·일의 대북  
 3국 공조는 우리의 자주권과 관계돼  
 있는 것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며

남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3국 공조는 대부분  
 책이 북한에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윈-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결코 북한을 해롭게 하  
 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장은 또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교류협력을 방해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김대통령은 “현  
 재 남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국회에  
 개정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美, 대북제재 곧 완화 발표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오는 25일 이전에 구체적인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을 확정, 연방 관보  
 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규제  
 완화 분야·품목은 ▶북한생선 및 원자재  
 수입▶소비재 상품 수출과 대중서비스▶  
 민간차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용 외환 품가  
 투입▶농업·공업·석유·목재·시멘트·  
 교통 부자▶도로·항만 등 인프라와 여  
 행·관광분야 투자▶대북 송금 등인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가 중립이라도  
 미국의 관련 법규를 손꼽아야 하고, 북한

도 국내 법규 개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  
 들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대영 기자](mailto:dasyoung@joongang.co.kr)  
[<dasyoung@joongang.co.kr>](mailto:dasyoung@joongang.co.kr)  
**金대통령 항공기로 귀한**  
 김대중대통령이 15일 오후 관문공항을 거  
 쳐 서울로 귀환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용  
 기를 이용해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  
 다. 한편 금대통령 일행은 하루 더 북한  
 에 체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  
 려졌다. [김종욱 기자](mailto:jwkim@joongang.co.kr)  
[<jwkim@joongang.co.kr>](mailto:jwkim@joongang.co.kr)

#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빛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4일 오전 김경남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을 방문. 한 학생이 '조국통일'이라고 붓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 회담명칭 혼선

확대 정상회담서

확대 회담으로

다시 '공식면담' 수정

남북회담 명칭을 둘러싸고 약간의 혼선 빛이면서 의견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관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한은 두 정상간의 1독회담 사이에 확대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은 당초 1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담이 '확대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하고 김연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오자 우리 당국은 '확대회담'으로 워낙 명칭을 수정해 보고했다. 그뒤 다시 '공식면담'으로 수정 발표하면서 회담 명칭에 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기관지 민주신은 14일자에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회담'이라는 용어를 모다시구반 사용함으로써 금강중류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회담 형식이나 표현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그러나 14일 오후 3시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위원장간의 단독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알려 북측이 정상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사전에 합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혼란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같은 자의적인 입성 조정은 특유의 애매무게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즉 남북 대표단의 교류 내용으로써 일정 조정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김유부각시계 협상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민간교류에 나섰던 남북 경관차들 사이에서는 워싱 합의 및 조정 과정에서의 북측의 애매무게 전술은 널리 소문이 나았다.

한 기업인은 "북측이 남북 직전까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방과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고집해 막판까지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면서 "방북 후에도 예정대로 입성이 진행되지 않고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leehido@joongang.co.kr>

###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간 용어 차이

|        | 남측       | 북측         |
|--------|----------|------------|
|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 북남최고위급회담   |
| 회담명    | 제1차 정상회담 | 역사적인 평양 상봉 |
| 협약문 대표 | 공식면담     | 최고위급회담     |
| 인수인사담당 | 공역연담     | 최고위급회담     |

## 소년공전 학생 DJ에 붓글씨 선물 이희호여사 어린이들과 함께 율동

### 평양 들쭉날 이모저모

학생들이 준비한 종합공연을 관람했다. 안내는 김경남 상임위원장·연운화 소년학생공전 총장 등이 맡았다. 김대중명은 무용·가야금·손봉금 소주상(인습상)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대중명 일행이 사에 초초산에 도착했을 때 학생 주선호군이 축사에서 '조국통일'이란 붓글씨를 쓴 다음 비취한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라며 김대중명에게 선물로 증정했다. 이때 곁에 있던 김연남 상임위원장은 "김석봉이 왔다가 울고 갔었다"고 농담을 던지 일행에 큰 웃음이 일었다. 후에 초초산에선 아희영들이 장수할 상징하는 잉어를 낚아 수놓은 수어물을 이희호 여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유계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김대중명 내외는 12시부터 공연장으로 옮겨 학생소년애 송노조의 민족가악·무용·손봉금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45분간 관람했다.

속류관 풍습=김대중명 내외는 이날 평양만경대로 유명한 옥류관 2관에서 공식 수행인들과 김석봉을 함께 했다.

옥류관 풍습은 김대중명을 위해 최고기 등을 세 시간 이상 하여 명명 옥수를 만드는 등 정성을 다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앞서 해삼과 족발, 꿩고기 완자 등이 나왔다. 옥류관은 50년대 말에 건립된 식당으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최대 음식점이다.

<이희호 여사 별도 일정=李여사는 14일 평양에서의 상봉부분 일정을 김대중명과 별도로 보냈다.

허안 캠프에 얽은 회색 푸리스 차림을 한 이희호 여사는 오후 인민문화공전에서 북측 여성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희호 여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 여성계가 김선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과 다음달 4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인민족어성 한계단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우리측 정상(鄭正)이희아에 총장과 북측 여인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천연옥 여행위원장·홍신옥 중군위 안부 과해사 보살대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는 이어 시내 대중강구위에 있는 여성종합병원인 평양신원을 방문했다. 박동이 임원실·분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둘러본 뒤 병방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은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이곳에 임원하리"고 격려하는 모든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을 염다"라고 서명했다.

이희호 여사는 오전엔 시내 장류거리에 위치한 장류유치원을 방문했다. 이 유치원은 82년 건립된 10층 규모의 북한 내 최대 탁아·유아교육 시설. 이 지역엔 노동당 중앙의 소속 직원들의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희호 여사는 어린이들과 여공의 율동을 따라하며 "만갑습니다"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희호 여사는 이어 보통강구위에 위치한 수어연구소를 방문했다.

<남북 공식면담=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해 김연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면담을 가졌다. 김대중명은 의사당 방벽쪽에 "우리 교류 확대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향해 착실하게 진전해 나갈다. 2000년 6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썼다.

우리측은 만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김상임위원장이 나서 남측 확대정상회담에 대한 명칭을 '공식면담'으로 수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임위원장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했다. "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한 측면이 있다"며 김대중명의 생각을 물은 것. 한·미·일 3국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정면도 내비쳤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견내지 않아온 것은 우리 민족 빛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세 빛"이라며 "우리 민족이 내부의 힘을 꺾은 적은 있으나 1천년 이상 통일국가로 유지해 왔다"고 밝힌 태도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지 아니한 김대중 부부는 김위원장이 안고 있는 관측도 제기했다. 이날 김대중명을 제외한 우리측 대표들은 가슴에 김위원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들은 가슴에 김위원장을 배지를 각각 달았다.

소년공전 확대정상회담 방문=김대중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쯤 이희호 여사와 함께 만경대 소년학생공전을 방문해 학습활동을 참관하고



# 남북 정상회담

박준영 대변인 일문일답

## '자주적'이란 표현 당사자 해결 뜻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의 6·14공동선언 발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한다고 했는데 언론 제품이 적잖은 시기인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북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측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연내에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아 말할 수 없다.”

—합의문에 대한 두 정상의 반응은.

“송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협의를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송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북측이 대단히 만족스런 표정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분위기를 보여줬다.”

—‘합을 합쳐 자주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

“남북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 상호존중하는 의미다.”

—연립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의미는.

“합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일본이 대북정책에 요청한 북·일수교, 핵, 미사일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 왔다. 이같은 입장은 북측에도 전달됐다. 특히 일본의 모리 총리가 희망했던 북·일관계 개선도 대북정책이 약속하신 대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는.

“오늘 합의된 다섯가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날짜가 지정된 합의문이 이 조항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날짜가 규정돼 합의됐다.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규모와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양=공동취재단

2000. 6. 15 (목)



송대통령 “옥류관서 냉면도 먹었습니다”

송위원장 “한국식 김치...탈북자” 용어 사용

## 2차회담 대화록

▶송위원장=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송대통령=편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드립니다.

▶송위원장=약속한 대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양단 대우 잘해도 재정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두 정상은 접견실에서 20여m 떨어진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두번째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폭이 3m 가량 되는 대형 회의용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앉아 또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송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송위원장이 먼저 말을 건넸다.

▶송위원장=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긴장되게 했습니다.

▶송대통령=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습니다. 좋은 여수를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위원장=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송대통령=잘 잤습니다. 경소 한번 곡가 왔으면 한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고 왔습니다.

▶송위원장=오전 회담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냉면은 너무 급하게 지시면 국수가 맛 없습니다(웃음). 앞으론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경양시민들은 대단히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직접 방문해주신 데 대해 인민들이 뜨겁게 맞이하는 했는데, 그래도 인사차림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자신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통령=과분하게 환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송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오시고 수십만 시민들이 나오셔서 아주 저도 감사하기 짝이 없지만 남측에서도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송위원장=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남조선의 테라비틀 봤습니다. MBC도 보고 했는데 남쪽 인민들도 아다 다 환영 분위기고, 특별히 신흥민이라든가 탈북자에 대한 것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소식이나 이번에 전달될 수 있지 않겠나. 그 길이 뻗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속을 태웁니다...(옆에 앉은 김용순 위원장을 향해)십지 우는 장면도 나오더리니까.

▶송대통령=(서울의 프레스센터에)외국 기자들도 수백명 있는데, 1천여명 기자들이 모두 기립박수했습니다. (송위원장 큰소리로 웃음)송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온 것 보고...

▶송위원장=(허허 웃음)공항에 나간 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한 것뿐인데, 내가 무슨 큰 존재라고...그런데 구리와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은둔생활 하나. 은둔생활 하는 사람이 참 나 타났다. 난 과거에 중국도 갔었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외국에도 비공개로 많이 갔었는데 나보고 은둔생활 한다. 송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은둔에서 해방됐다. (일행들과 송위원장 모두 큰소리로 웃음)그런데 들어도 좋아요. 모르게 했으니까.

▶송대통령=야실 단한분들은아실텐데...

▶송위원장=식반찬이라든가 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송대통령=네,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송위원장=지난번에 중국에 갔더니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식 김치가 나와서 남쪽 사람들 큰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김치를 (세계)소문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짜고 북조선 김치는 퓌이 달다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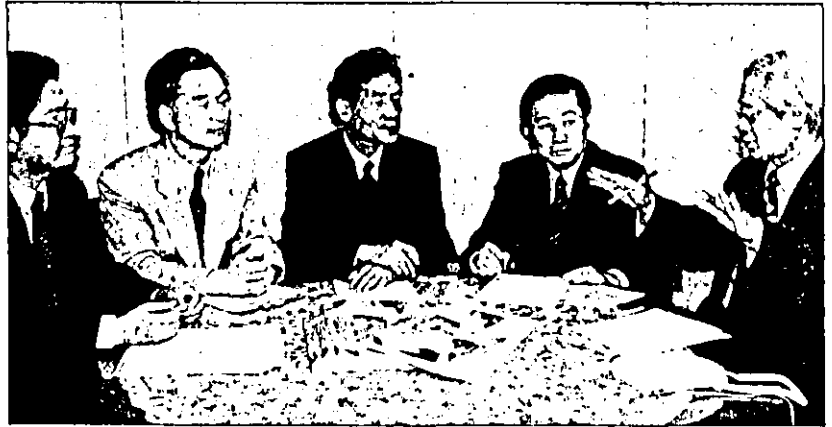
전문가 좌담 ②

13일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본격회담에 들어가 한반도 평화문제 등 광범위한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할 도출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짚어 북한전문가들의 특별좌담회를 마련,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참석자>

- 전인영(全寅永) 서울대 시법대 교수
  - 강성윤(姜聲允)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서주석(徐柱錫)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
- 사회: 김영희(金英熙) 중앙일보 대기자(상구)  
김성룡 기자

# 후속회담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좌담회. ○로부터 서주석 박사, 허문영 박사, 전인영 교수, 강성윤 교수, 김영희 상무, 김성룡 기자

▶사회=14일 오후 2차 단독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해협 및 통일,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등 5개 부문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성윤=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항복입니다. 과연 두 정상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통일 3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 것인지,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김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한 측면이 강합니다. 넷째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남북경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통령이 베푼린 선언에서 발표했듯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문영=일단은 합의서가 나와 봐야 하지만 아무런 두 정상이 만나 남북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이것은 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의 적극적인 자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합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1992년에도 남북이 합의하에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사문서가 돼 있습니다. 이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양측이 이를 지켜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회=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저수준은 뭐라고 합니까.

▶강성윤=실제적 사안들을 다루는 후속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이지만, 일단은 후속 실무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합의선언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문제에서 구체적인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서주석=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한 만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죠.

▶전인영=남북 기본합의서를 마련하는 데에도 2년이 걸렸습니다. 2박3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징성만 갖고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죠.

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합이 옹하고, 저쪽에서는 이산가족의 현을 달래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북한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은 유연해 아졌지요. 노골적으로 '해결하라, 그것 안 하면 경합도 못한다'고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허문영=과거 동·서독도 첫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지만 다시 만나자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합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2002년 월드컵 단일팀 구성이나 시드니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대결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상징적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일본에서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성의껏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장의 방중(訪中)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사일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 위해 중국에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회=결국 이산가족 문제가 최지선이란 얘기군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을 놓고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핫라인이 설치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서주석=핫라인 설치의 남북 정상간의 의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간에 긴장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충돌이나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또한 남북간에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윤=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국 정상의 약속이 아니라 신뢰구축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핫라인을 설치한다면 1백분의 약속보다 더 큰 의미가 있

습니다.

▶사회=김위원장은 전세계를 향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냉전구조를 해체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전파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남더라도 '선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구체화해야 서울담방 성사되면 회담성과 높여

▶서주석=물론 평화문제를 의견교환 수준으로 끝낼 수는 없죠. 두 정상이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수준의 합의가 별도로 나와도 좋고, 명시적으로 나와도 좋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합의가 나온다면 장차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이 중심이 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선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사일 문제 등 경감사항들에 대한 해결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풀겠다는 것보다 미사일 문제가 동북아 안보나 북한의 경제자건에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은 분명히 시켜주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워낙 한 두 발짝만 옮겨도 엄청난 함정과 지뢰가 있는 문제니까요.

▶전인영=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양측이 핵심대화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표량도 첫번째 만남에서 대화하죠. 편히 하지 않음으로써 수세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되 안되는 것은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얘기해 나가면 됩니다.

▶사회=쌍년정책은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공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非)동일정책'인 셈이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평화공존에 대한 공세를 취하진 않을까요.

▶강성윤=북한은 지난 13일에도 민중동원 3대원칙을 강조하며 통일목표로 뉴스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공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임 알면서도 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통일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직접 내신 폭력 중의 하나도 한반도 상황을 통일문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남북 實事求是 DJ 협상력 돋보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날이었다"고 말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5개항에 합의한 뒤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였다. 이어 참석한 남북 고위 인사들을 향해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근대사 1백년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규정했다.

일제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남북을 갈라놓은 철책선 등을 거론했다.

이런 발언들은 5개항 합의에 대한 김대중령의 역사적 소감으로 받아들여졌다.

김대중령은 이날 회담을 전후해 유난히 말을 아꼈다. 그 만큼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다.

김대중령은 회담 전 김정일 위원장이 "(金대통령 방문에)평양 시민들은 대단히 흥분상태에 있다"고 말하자 "감사하기 한량 없다"며 미소로 답했다. 그러면서 김위원장에게 발언을 양보하는 모습이었다. '대북정책의 최고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대중령으로선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김대중령은 이 자리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면서 김위원장의 다변(多辯)과 거침없는 유머를 지켜보았다. 서울의 회담 관계자는 이를 '양보의 협상전략'으로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말수를 줄이는 김대중령의 모습에서 남북문제 돌파에 대한 각오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대중령은 2차 회담에서 이산가족·당국자간 대화 문제를 반드시 풀기 위해 구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위원장이 먼저 '실정만' 문제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보였다.

회담에선 "지금은 영토와 인구가 중시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정보화시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 일류국가로 살 수 있다"고 김위원장을 설득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통일은 절대적인 명제"라고 강조했다. 시대흐름에 맞춰 논리를 제시해 설득하는 DJ 특유의 협상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김대중령은 또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회담에서도 실사구시(實事求是)정신을 강조했다. 면담 말미에 "작

## 상대방 의도 읽고 순발력 있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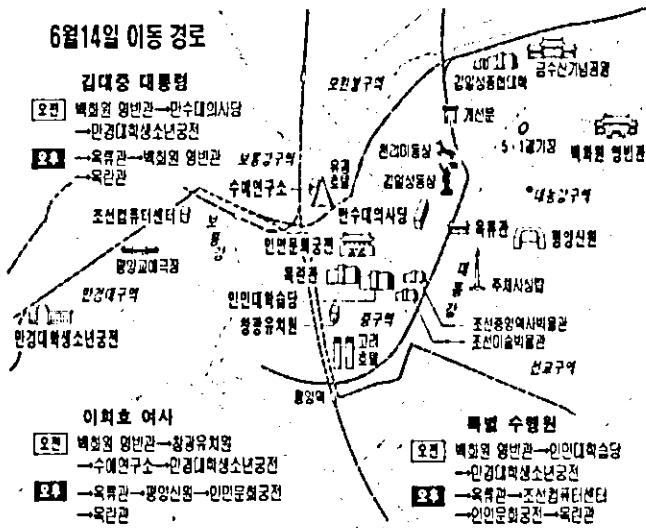
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울에 들고 올 구체적 성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김대중령은 다른 한편으로 민족단결을 앞세웠다. 북측 입장을 의식한 것이다.

"협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13일 밤 만찬사).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14일 만찬사)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 교원·학생 활발한 교류로 물꼬 터야

다가온 '통일교육' - 이질화 극복하려면



##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교육의 공통 가치-남북 모두 교육열이 높다. 김일 우선 학습을 수 있다. 북한에서 숨겨진 출신성이나 중성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은 종합대학·단과대학·고등전문학교로 구분되는데, 25세 인구의 대졸자 학력구성은 14.9%(남녀합 20% 이상)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평균가 중에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초적인 생활규범과 도덕적인 풍경을 강조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교류 강화-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교류는 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맹 등을 교원노조 및 단체가 방북 교류활동을 펼칠 계기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천민갑 박사는 "반독재투쟁을 위한 교육개혁 연구"에서 "방년사과으로 심화해 온 감정을 분석하려면 교원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환 방문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학생의 여수 공연단 교환공연, 공동체육경기대우, 지역 탐사·수하여행 실시 등을 통해 상호 방문 횟수를 늘려야 하는 것. 교사·교수들의 학술대회 개최도 필요하다.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교과서·교재 등 각종 교육 자료가 교류 통계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 교과서 왜곡 시정-북한 교과서에는 남성을 '비제의 직인자'로 묘사하거나 남산

주변을 지주나 사본가의 착취로 인해 함몰되고 굶주리고 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이는 북한 학생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천민갑 박사는 "남북한 교과서 남북사상이 합의점을 구상해 비이데올로기적인 교과과정 합의하고 남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상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교육 보완-남북 교류가 깊숙이 이뤄졌으나 남북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 연남중학교 한 교사는 "지금까지 작으로 인식해온 북한이 깊숙이 화해·협력의 대

### 양측 높은 교육열

### 품성교육 중시 공통점

### 교과서 왜곡부터 시정을

상으로 다가왔는데 학교 교육은 이러한 변화들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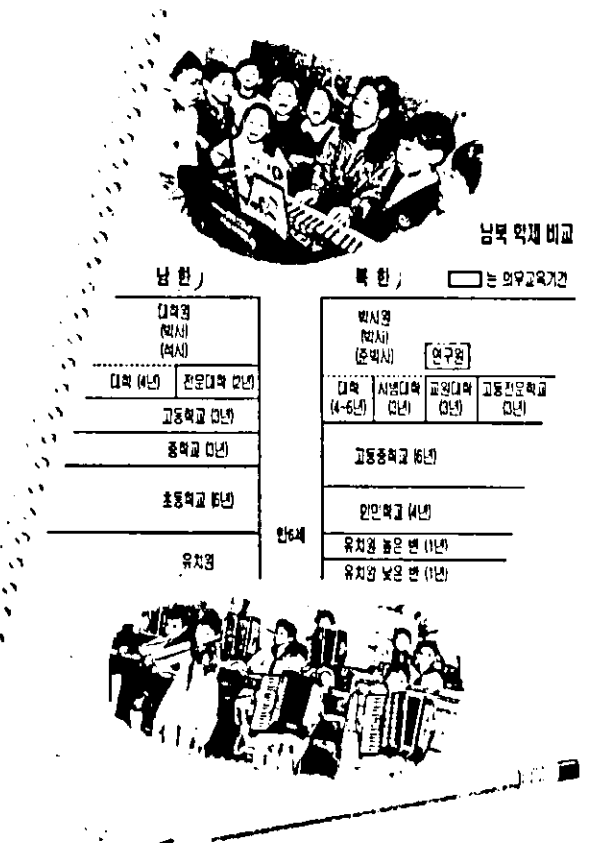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중·고교생과 대학원생 등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북한 지도층에 대해 52.7%가 "엄격하고 싸움이 엄격"으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87%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앙연구원 황병덕 박사는 "지금까지 통일 교육을 체계·이념 중심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생활·문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비교 등 열린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홍준 기자

<kanghu@joongang.co.kr>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교육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작대적 관계였던 북교육의 만난, 이에 대한 관심과 박수갈 지기되며 그동안 반공 교육을 받아온 초·중·고교생들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통일의 길에는 리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일단 55년은 교육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으며, 그만큼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통일 대비 교육의 한수소를 살펴본다. 편집자



## 北, 고등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 학기시작 南은 3월, 北은 4월

### 학제 어떻게 다른가

◀기본 학제-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고교를 중학교 6년, 대학 등 고등교육 4년인 '6-6-4' 체제인데 반해 북한은 의무교육 기간인 유치원 1년, 초등학교(인민학교) 4년, 고등학교(고등중학교) 6년, 고등교육 4년인 '1-4-6-4' 체제로 남한보다 1년이 많다. 북한의 학제는 1972년 최종 개편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민학교는 4천8백13개교에 1백88만4천명(남한 초등학생은 3백93만여명), 고등중학교는 4천8백42개교에 2백1만여명(남한 4백19만여명)이 재학 중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농학·공업·상업 등의 직업교육과정이 없다. 기술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사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뤄진다. 음악·미술·무용 등 여

능 교육은 5~6세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 조기 선발, 별도로 실시한다.

◀의무 교육-남한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유·민·동 지역)이 의무교육 기간이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대도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은 유치원 높은 편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총 11년간 의무교육이 보장된다. 특히 북한의 유치원은 기초적인 문자·숫자 교육일 시기 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다르다. 북한은 의무교육 기간 중 교육비 이외에 학용품·복합·기숙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용품과 기숙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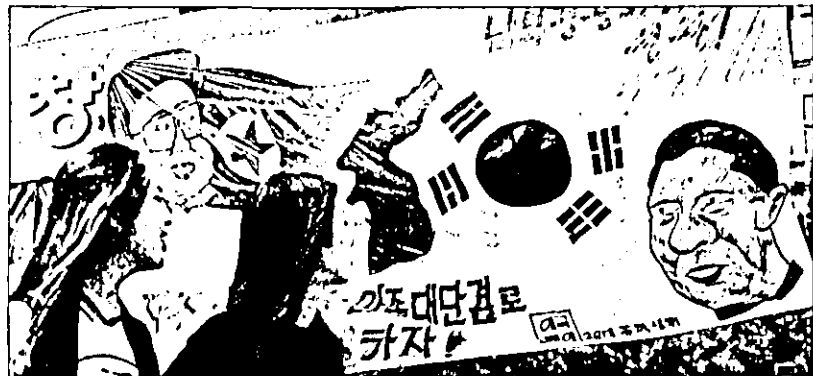
◀학기제-남한은 모두 기본적으로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기 시작 시기가 다르다.

남한은 3월이며, 북한은 9월에서 최근 4월로 변경했다.

◀교육 과정-북한의 인민학교에서는 4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 국어·수학·체육·음악 등 9개 과목을 배운다. 국어 비중이 33.1%로 가장 높고 수학은 24.2%다.

김일성·김정일의 어린 시절 등 정치 사상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과학 과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 동안 총 21개 과목을 배운다. 남한보다 과목 수가 적다. 수학·과학·기술 관련 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정치 사상 교육은 비중이 낮다. 대학에서는 전공 과목과 연계된 노동당 부편사 능력 공통 필수 과목으로 배운다. 강홍준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는 대형 그림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정문에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중근 기자



### 남북 정상회담

## “지나친 흥분말아야” 일부선 경계 목소리

“기승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가워야 할 때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일풍’이 사회 곳곳에 뿜어치는 가운데 “지나친 흥분이나 조급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원 김남경(30)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사람들이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갑작스럽게 뒤바뀌어 버린 느낌”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너무 과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도 “정상회담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새로운 이미지가 많이 긍정적으로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칫 겉모습에만 빠지는 무(無)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은 PC통신과 인터넷의 네트즌들 사이에서도 지적 열기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흥일을 위해 입만 바음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화에 인공기판 내기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제와 세습, 폐쇄적인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떤 체제와 제도가 우위에 있는지 냉정히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이은구 심리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았던 국민이 TV 중계를 보고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화해 분위기의 확산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견속한 행동이나 흥분 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대 손호철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칫 지나친 기대가 만남 자체로도 충분한 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생·김철욱 기자  
<kkskk@joongang.co.kr>

#### 일본 인기 재즈밴드

#### 정상회담 기념 무료공연

일본의 인기 재즈밴드가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티켓값 2만 5천원짜리 내한공연을 무료로 펼친다.  
20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대 대

입홀에서 30인조 '사부사시과주'의 내한공연을 주관하는 기획사 이드 포트대축은 “회담으로 인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돋우기 위해 2천만원에 달하는 개런티와 대관료를 포기하고 무료공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 김일성 일대기 담은 개선문

#### 1925-“조국 독립” 만주행

#### 1945- 광복후 평양 입성

13일 평안 순안공장에서 백화원 원민관으로 가던 김대중 대총림 임성의 차량이 시내 개선문(사진)을 통과하자 TV로 지켜보던 시민들 중엔 그 규모에 놀라는 사람이 많았다. 또 일부는 아치형 문의 양 옆에 새겨진 1925와 1945라는 숫자(선 친 부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했다. 문양에 새겨진 1925와 1945는 김일성(金日成)이 14세 때 조국독립 의지를 품고 평양에서 만주까지 ‘광복의 천리길’에 올랐다는 25년과 광복 후 평양에 ‘개선’한 45년을 나타낸 것.

개선문은 주세사상(1과 함께 8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맞아 화강석으로 세운 기념조형물. 아치형 문의 테두리에는 70회 생일을 상징하는 70개의 진달래 꽃이 새겨져 있다.

모란봉 구역 개선동 개선문장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60m·너비 52.5m로 파리의 개선문보다 11m가 더 높다. 높이 60m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20년과 조국건립 40년의 세월을 상징한다고 한다.

건축 당시 평안남도에서 살어나온 화강암 1만 5백여개가 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높이 27m·너비 18m인 아치형 문의 4개 면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만’, ‘조국해방 만세만’ 등의 주제로 24명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이현상 기자  
<lechs@joongang.co.kr>

# 新 남북시대 <1> 합의 극적 타결

평양에서 남북 두 정상이 연출하는 극적인 장면들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14일의 공동선언 서명은 그 절정. 가히 '신(新)남북시대'가 열리는 순간이다. 과연 어떤 시대일까. 전쟁의 먹구름은 일인히 걷히고 평화의 새 바람만 불어올까. 전문가의 깊은 분석과 전망으로 시대의 기상(氣象)을 짚는다.

남북한 정상은 14일 마라톤회담에서 합의할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예상보다 시작이 좋았고 진행도 구체적이라서 처음부터 기대를 날게 하는 역경이었다.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반도의 골짜기 많은 운명속에 살아온 우리역사인지 며칠 지나면 무덤덤해지기 일쑤지만 13일과 14일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연출한 장면 하나 하나는 놀라움 자체였다.

◇숨겨진 상황=두 정상은 13일 공방연립 행사를 마치고 리무진에 동승해 55분간 대화를 했고 이어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나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남북의 지도자가 만났으니 뭔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건넬으로써 합의에 이를 일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이날 저녁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만찬사에서 '뽕잎은 언제 이뭇되었는지'를 7천만 겨레가 짝박하게 묻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의 회담에 익숙한 전문가들조차 이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은 이미 합의에 이르는 노정을 변방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완장으로선 영접의전을 비롯한 일련의 행사에서 체제안정과 지도자·주민간의 일상단절을 충분히 과시했으니 남은 시간 회담에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14일 오전에 진행된 김대중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고위관계자들의 공식만찬 행사는 회담전분기점조차도 속을 만한 '역사적 트러'이었다. 이 자리는 남북 현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상전례를 하는 분위기가 짙어 단독회담이 과연 열리는 것인지, 실질도어가 가능할지 등에 의문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김대중의 표정도 다소 무거워 보여 뭔가 빠져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았다.

이 상황에서 실은 공식회담에 김용순 대남비서와 송호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불참



유영구  
본사  
북한문제전문위원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두 사람이 단독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합의협정=오후 3시 두 정상과 최소한의 배석자가 참가한 단독정상회담이 일림으로써 실집보의에 들어갔다. 북측에서는 김용순 비서 혼자 배

합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이다.

회담에서 소위완장은 두가지로 강조한 것으로 유추된다. 첫째, 경제적 실리면에서 경제적으로 무엇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둘째, 명분 내지 원칙면에서의 요구가 제시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족대단결이나 자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더 나아가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협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당장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는 남겨 뒀으므로 회담에 장애를 초성한 것 같지는 않다.

◇합의 이면=두 정상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윈-윈게임임을 하자는 감성을 갖고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점하기에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 역사적 드라마의 세세한 부분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의 도출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리무진 동승'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이면(裏面)이 있듯이 이번 합의에도 '숨은 그림'이 흥미를 끌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개최협약에 이른 비공개 접촉 라인이 이번까지 무대 뒤편에서 실무작업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임동원-김용순을 축으로 한 실무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추진, 성과에 도달한 것이다. 사전 정지작업이 없었다면 두 정상이 이처럼 전격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로드맵 제시=공동선언의 골격은 첫째,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둘째, 통일방안 접충 셋째, 8·15 친척방문 실천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 넷째, 남북경협 및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다섯째, 합의 실천을 위한 단국간 대화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를 위한 구

## 한반도 평화공존 '윈윈게임' 서울·평양 대표부 가능성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정상회담 합의서 비교

| 제목         | 서명주체     | 주요내용  |
|------------|----------|---|
| 7·4 남북공동성명 | 이후라, 김영주 | 통일 3대원칙(화해와 협력 및 교류·협력 (4장25조))                   |
| 남북기본합의서    | 정원식, 연평북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 접충, 친척방문, 남북경협 및 다방면 교류, 단국간 대화 |
| 남북공동선언     | 김대중, 김정일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 접충, 친척방문, 남북경협 및 다방면 교류, 단국간 대화 |

석해 단출했다. 우리측의 경우 김대통령 바로 곁에는 '행법정책의 삼계사' 임동원 대통령특별보좌역과 황원택 외교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긴박성 속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두 정상은 국내외에 풀린 시선을 의식한 듯 시종 진지한 태도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소위완장은 예상치 못한 적극자세로 나와 합의에 이르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는 미리 줄거리가 짐작되는 드라마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극적인 상황전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회담에 앞서 가진 환담에서 거침없이 말을 쏟아놓아 파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초 북한이 통상적인 남북대화나 북·미 협상에서 보여온 '일관대결'에 집착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우리측 요구를 수용

체적인 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동선언은 1992년 2월에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세한 합의의 담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합의서를 참고해 구제안을 다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 소위완장의 서울방문이 실현될 예정이며 정상간의 핫라인 설치, 서울·평양 연락대표부 설치 등의 전망도 밝아졌다.

소위완장은 이번 회담과 합의의 계기로 실용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란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가 서울을 방문하거나 국제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nkyoonlee@joonang.co.kr>



# 한반도 평화무드 기대

## ⇨10면서 계속

▶**최문영**=동일문제는 '배를 통일'인가 '바탕 통일'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통일을 하려면 민족의 주체적 능력과 국제적 환경,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여건은 높지만 능력과 국제적 환경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통일방안이 조기·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북측에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변 4강이 분단상태라는 현상이 유지되기보다 통일을 적극 지지하도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운**=본래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 아닙니까.

▶**전인영**=통일문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자주성과 민족성을 과시하는 다목적 효과가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김일성 주석의 통일 유언에 따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장관급 각료들을 포함한 방국자 회담의 장애와 김정일 시류 퇴장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인영**=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봐서 가능성이 크다

## 주변 4강 설득 통일지지 끌어내야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경계를

고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이라 여유도 없고, 자신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서두르지는 않겠지요.

▶**허문영**=오너리도 인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래는 10월에 당 창건기념대회가 있고 2년 후는 자신이 회갑인데다 월드컵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내년에 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지요.

▶**사회**=송위원장의 중국방문 및 남북과의 경제협력을 건부시절 경우 김국 북한이 중국의 개방모멘트를 기준으로 개혁을 채택할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강성운**=송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은 시기를 정상회담 전에 잡아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지 방문 자체를 개혁·개방으로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인영**=송위원장의 방중은 남한과 미국·일본이 포용정책을 쓰는 입장에서 오히려를 틈틈이게 만들려는 보석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의 포용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모임이 북한 입장에서는 급진적이고 그대로 남용하지는 않겠지만 온건한 정도로는 변치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새장'이라든 북한은 폭풍은 내도 모기는 못 할아오는 '모기장'이라는 입장 아닙니까.

▶**허문영**=송위원장의 방중은 하반기 당 창건 50주년에 맞춰(7.7)를 불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회**=이번 정상회담에서 송대통령과 송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해 내비친 구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주석**=침의문안 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정상의 공동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핫라인과 남북 연락사무소, 그리고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위원회를 가동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단국자간 대화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남북 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같은 노력 위에 4자회담의 추가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강성운**=어무래도 한반도 평화문제는 '페리 프로세스'의 범위 내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입도 한반도 평화노력을 지지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생산 중단과 같은 선언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최문영**=남북 기본합의서 5조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이 현 정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합의 발표문이 나와야겠지요.

▶**사회**=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은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인영**=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 문제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잘못 다뤄질 경우에 대해 우려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바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도 한반도에서 '슈퍼파워'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을 뜻해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운**=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페리 프로세스'에 타격이 와선 안된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일본도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주석**=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극동문제에서 소외돼온 러시아는 6자회담을 재의하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동북아에 대한 입장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큼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가 '페리 프로세스'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심 그랬을 수 있으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이나 안보적 적대행위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발상은 우리가 견제해야 합니다. 남북이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제적 동역나 주변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리 자주적 정책을 강조하면 대외적으로 배타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전인영**=아직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對美)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첫 상봉의 감격이 가지지 않아 흥분해 있지만 거품이 빠지면 현실은 흥분상태와 또 다를 것입니다.

▶**사회**=기존의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무시하거나 소홀한 채 4자회담 체제에 신경을 덜 쓰면 잃는게 더 많다는 얘기군요. '김정일 쇼크'로 흥분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몫은 4자회담 및 삼각 공조체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리=강민석 기자 <mksang@joongang.co.kr>



전인영

미·일 현상유지 원해



강성운

北 통일론 부각 노력



허문영

합의 실천의지가 중요



서주석

中·러 회담에 호의적



김명희

4자회담 틀 지켜야



### 남북 정상회담

## 서명직후 평양發 긴급타전

### “한반도 긴장완화 기여할것”

[베이징·도쿄·모스크바=연] 중국은 14일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인 신화통신은 합의문 서명 직후 평양발로 긴급타전한 기사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합의에 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주방짜오(朱邦斌) 수석 대변인은 13일 “남북 정상 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4개 분야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문이 열렸다”며 회담의 성과에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4일 남북한 정상회담이 4개항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날 “남북한의 4개항 합의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문이 열렸다”며 회담의 성과에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4일 남북한 정상회담이 4개항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날 “남북한의 4개항 합의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 외국언론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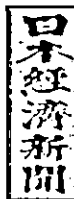
### “지나친 낙관 금물” 지적도

####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미국) =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만남은 남북관계의 고무적 변화를 보여줬다. 식량난 등 북한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와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가 한국의 안전에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회담의 배경이다. 김대통령의 북한 끌어안기 경

색도 한층 짙었다. 냉랭해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우명하고 예측불가의 정부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추가회담, 김형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합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관심을 가진 군사안보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다.

북한의 장기미사일 개발과 외교적 고립·예측불가능은 탈린턴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위(NMD)계획을 추진하게 한 주요 원인이다. 그런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날 북한을 더 이상 위험한 당사국가로 여길 필요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니혼게이치(日本經濟)신문(일본) = 평양에서 세계로 전달된 생중계를 보고 역사가 진동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첫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화해와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이 남북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

대한다. 상황은 첫 단추 끼우기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굳게 닫힌 남북 간 벽에 큰 틈이 생겨났다. 북한의 일련된 원인으로 정상회담에 가는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55년간의 분단, 그동안 쌓인 상호 불신을 한두번의 정상회담으로 푸는 것은 어렵다. 북한은 주

한미군 철수 등을 들고 나오려 하지만 이들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양측이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점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다음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도 양측이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 정상회담을 한차례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 文匯報

◇문회보(文匯報·중국) = 한국의 김대통령이 평양에 도착, 북한의隆重하고 일련된 환영을 받았다. 북한의 지도자 김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김대통령 일행을 환영한 것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또 의표를 찌렀던 부분이다. 한국 매체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문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낙관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눈으로 북한을 보면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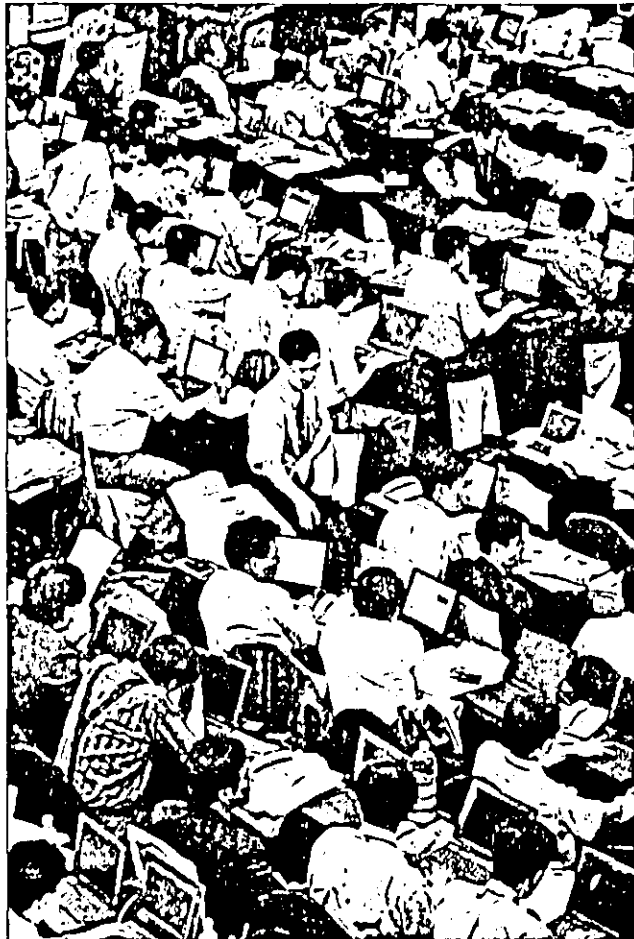
론들은 분석한다. 일부에선 김위원장이 공항에 김대통령을 맞으러 나가고 또 55년만의 분열 끝에 한번 웃었다고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는 안된다 고 지적한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남북한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 Le Monde

◇르몽드(프랑스) = 남북한이 드디어 반세기 동안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정상간의 대화담 시작했다. 이는 50년 전 치열한 내전을 치르고 양측이 서로 각개성으로 상처받아 온 한반도로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

이다. 북한은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열렬한 경의를 표했으며 특히 1994년 김일성(金日成)의 사망으로 권좌에 오른 뒤 가장 눈부신 외출을 한 김위원장이 공항에서 입장한 것은 회담의 중대한 의미를 가늠케 한다. 오랜 시간 계속된 양국 지도자의 역사적 악수는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

호를 받았다. 서울과 평양간 최초의 직항이었던 김대통령의 특별기가 군사분계선을 피해 서해를 거쳐 멀리 돌아가야 한 사실은 남북대화가 깊고 순탄치만은 아닌 것임을 방증한다. 뉴욕·베이징·도쿄·파리 = 신종돈·유상철·오영환·이훈범 특파원 <jdshin@joongang.co.kr>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모인 내외신기자들이 14일 밤 늦도록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발표를 기다리며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북한의 김성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극적으로 전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한층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김정일 수수께끼'다.

회담 전까지 워싱턴에서 일었던 각종 남북문제 세미나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도 대외접촉을 꺼리는 김

위원장이 왜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한 것인가"였다. 김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궁금증은 용어에서 갈 나뉜다. 그에 대한 묘사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은둔형(reclusive)' 또는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이다.

심지어 "수수께끼 통치자(enigmatic rul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너무도 오래 안개에 싸여 있어 그의 존재는 이미 '간 알리지지 않은(unknown)' 차원을 넘어 수수께끼가 돼버렸다는 뜻인 것 같다.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구석의

욕실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가 지남이 알려지는 곳이다. 그런 미국에서 김위원장의 존재는 전설이나 동화와 같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탓인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기가 평양에 도착한 이후 미 언론들이 김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 앞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김위원이 공항 환주모에 서서 남한 대통령을 기다렸다. 그는 카키색 옷을 입고..."

김정일은 항상 비밀리에 움직인다... 전 위원장이 왜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한 것인가"였다. 그의 '갑작 행동'이 좀 보여준 것이다. 수년 동안 그의 건강에 대해 풍설이 돌았으나 그는 워기에 넘쳤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끝난 때쯤이면 미국은 김위원장 연구에서 상당한 소득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위원장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 서방세계에 큰 선물을 주고 있는 셈이다.

<jinjin@joongang.co.kr>

# 陳 대만총통 “우리도 할 수 있다”

## 회담 관련 이모저모

신수이벤(陳水扁)대만 총통이 남북 정상회담을 분반야 안간간 민족 화해할 모색하자고 중국에 촉구하는 등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陳대만총통은 이날 대만 기업인들의 원탁에서 "외세의 시기가 도래했다. 오랫동안 대치했던 남북한이 화해할 이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임무는 안간간 안보와 지속적인 평화 보장이기 때문에 나는 분노에 우로의 손길을 뻗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주방자오(朱邦造)대변인은 "남·북한이나 통·시국 문제는 2차세계대전 후 국제협약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만 문제는 국공내전으로 불

러진 문제이며 또한 외세 간섭의 결과라고 밝혔다.

○...제1인 김계숙(金奎淑)단장은 15일 조총련에 공식 대화할 제의를 개화이다.

반단 매질은(裴在恩)선전국장은 "대화상구 설치와 함께 비정치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할 것"

## 이홍구 駐美대사 인터뷰 쇄도

## 평양 이타르-타스지사 전화 불티

이라며 "대화가 이뤄지면 두 단체가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회담이 끝난 뒤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단과 조총련은 1991년 자파(千帕) 세계단구신수권대회 당시 공동성명단을 만들기도 했으나 94년부터 민

단이 일반 지방선거 참정권 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단절됐다.

○...미 언론의 남북정상회담 보도가 단아오르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홍구 주미대사와 인터뷰를 했거나 요청하고 있다.

李대사는 13일 오전(현지시간)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화출영을 "유쾌한 놀리움(pleasant surprise)"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워싱턴포스트 논설위원 찰스 레인과 단독 대담을 가진 데 이어 14일에는 AP통신과 AP TV 뉴스,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응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일리고 있는 평양

의 이타르-타스 통신 지사는 외국 언론사들에 정상회담 소식을 알리는 '프레스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 취재단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이타르-타스·신화통신·인민일보 등에서 파견된 특파원 4명만이 북한의 취재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회담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외국 언론사 기자들은 십새없이 이타르-타스 지사에 국제전화로 걸어 회담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미 언론들이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희(19일)에서 실종된 미군의 행방을 확인 하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다룬 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도 13일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행방확인 문제를 1면 주요기사로 취급했다.

워싱턴·도쿄=김진·오영환 특파원, 외신종합

<jinjin@joongang.co.kr>

한겨레

2000. 6. 15 (목)

# ‘연합·연방제 통일’ 지향 합의



새역사 연 '합심'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반씩 차켜들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강동에서 회담, 대입에서 협력으로, 본단에서 통일로 전환하는 이종묘의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서명을 위해 북한원영민관으로 들어가기 전 보도진 앞에 흔하게 웃음 띤 얼굴로 섰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 점점찾은 통일방안 '급류'

### 자주 대원칙아래 공감 넓히고 차이 줄이고 민감사안 '회피' 예상해...논의 활기떨듯



#### ■ 연합·연방제 통일 지향

남북 정상이 14일 분단 이후 최초로 양쪽의 통일 방안을 접근시키나가기로 합의한데 따라 통일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남북 공동선언'의 5개항 중 1항과 2항을 그동안 통일방안에 합의했다. 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데 이어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같음을 키워가고 다음을 준비하자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구분        | 남측                                 | 북측                                    |
|-----------|------------------------------------|---------------------------------------|
| 명칭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 통일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국가 건설                               |
| 통일과정      | 고려연방→남북연합→1민족 1국가 의 통일국가 완성 3단계 과정 | 남북·동로 예비연합→연방창립 준비위원회 발족→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
| 과도단계      | 남북연합                               |                                       |
| 통일국가 실현절차 |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
| 통일국가의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연방국가                                  |

는 것이어서 일단 불일치에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은 한민족공동체와 고려연방제로 나뉘어 대립해오던 갈등의 역사에서 합의의 역사로 돌고돌이 뜨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부정함으로써, 이 문제가 남북 화합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도 남측이 통일방안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려고 한 것도 통일방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령 북측의 고려연방제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통일방안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이런 예상을 깨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양쪽 통일방안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간 남측의 통일 방안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명분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강했다.

북측의 통일방안을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만큼 남측의 통일방안도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남측의 노태우 정권 때 수립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으로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인구 4천만의 남측과 인구 2천만의 북측이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 결과는 틀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동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주목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첫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연합단계는 북측의 연방제 주장과 공유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통일방안은 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에서, 남측의 통일방안은 연합 이후 총선거 문제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바로 이 공통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이 남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체를 거론하지 않고 '연합 제안'만을 언급한 것이나, 북측의 통일방안에 '낮은 단계'라는 함의를 넣은 것은 서로의 불신을 떨치고 가자는 것의 의미이다.

통일방안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설계도를 남북과 같이 그려내 되는 사람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연방제라는 말에 '과도한' 반응을 보여왔던 남측의 일부 세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남측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 일회성 만남 아닌 지속대화 화답

#### ■ 김위원장 서울답방 수락 김대통령 적극초청 구체시기는 안박혀 이르면 8·15점쳐져



남북 신문보는 두 정상 14일 오후 백화원명인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역사적인 첫 만남을 보도한 남북 신문을 살펴보고 있다. 김대통령이 왼쪽에, 김정일이 오른쪽에 사진기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되지 않기는 했지만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는 사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김 국방위원장의 방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묶고 할 뜨게 된 당국간 남북 교류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 최고지도자간 항구적인 대화체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70년 동·서독

정상이 처음 만난 이후 9차례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쌓았고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다.

김대통령이 환영으로 환갑 때까지만 해도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

에 대해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대통령과 정부 대표단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대통령은 13일 방북 출발 인삿말에

시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이후 보여준 김 국방위원장의 행동과 말은 그의 서울 방문 가능성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공항까지 김대통령을 마중 나온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김대 총리님 없게 해주려니 어렵게 마십시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433일동안 대답을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날 합의로 실제 김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합의문에 구체적인 방문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라고만 돼 있는 것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아 말할 수 없다. 남북간 합의물 거칠 것"이라는 것이 가장 바깥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무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올해 분단 55주년이자 광복 55년이 되는 8월 15일을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북잡이 본인의 단호했다는 점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분단의 벽을 허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 '평화통일 지향' 남·북 의지 천명

## 이산가족 상봉 큰진전 상호신뢰 밀거름 북, 경험확대 기대...실리추구에 힘써



### ■ 의미

두 정상은 합의한 5개항은 첫째 항에서 통일에 대한 원칙으로서 자주 원칙을 재확인하고 통일로 가는 방식에 대한 공통점을 분명히함으로써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은 새 천년 새시대에 걸맞은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첫출발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통일에 관한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것은 남북이 서로를 관계개선과 통일의 완전한 당사자로 인정

바탕 위에서 내정 불간섭과 당국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이런 공통의 인식은 남북 최고위급의 합의답게 72년의 7.4공동성명과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뛰어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가 하면 3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합의와 4항의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은 이번 합의가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그 자체는 원칙 내지는 목표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추상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남북은 남의 이산가족과 북의 경험확대라는 서로 원하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냄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일궈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어냈다.

단지 남쪽에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매우 민감한 사안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이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는 지혜를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나타난 남북의 화답전략이 북의 '통일'과 남의 '화해·협력'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전망을 담으려는 북쪽의 강한 의지에 대한 남쪽의 양보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쪽은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회담'임을 거듭 강조했다. <로동신문> <평양방송> 등 북쪽 언론들도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전하면서 '통일지도자'로 부각시켰다.

이에 반해 김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에서 드러났듯이 '평화와 화해,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방

안의 공통성 인장은 김 위원장의 '통일의지' 관철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북쪽이 명분으로는 '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리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쪽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마·일 등 서방세계의 북쪽에 대한 '폐쇄국가·불강국가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쪽은 이번 합의의 넷째 항인 경제 등의 교류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험·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는 대내적으로는 '통일', 국제적으로 '개방', 대남 관계에선 대규모 '경제지원·협력' 등 북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이세훈 기자 nomad@hani.co.kr



‘공식면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공식면담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뒤로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보인다. 평양 침묵대 사진기지만

# 말 아낀 인동초 노련한 포석



## 보안법·3자공조 침착하게 우회 답변 이례적 방어자세 치밀한 장기구상

### ■ 김대통령 실리정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 스타일이 봉 끈 '광복정치'라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조용히 그의 광복정치를 받아주면서 얻을 것을 얻어내는 '실리정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인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의 애정으로 풍하는 '인동초 정치'라고도 말

할 수 있다.

자다가 공인하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김 대령은 이번 김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말을 아꼈다. 다변에 거침없고 자신있는 말솜씨를 보면 김 위원장의 기에 놀려 의기소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전공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통일 문제뿐 아니라 어떤 화제가 나타나도 때마다 지지 않고 대화를

주도하는 김 대통령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보안 태도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13, 14일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화법에 대해 평양의 한대에 감시하다는 말과 김 위원장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는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시만 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서울에서 각종 행사 등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태"라며 "북쪽은 이미 김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어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는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김 위원장을 설득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력을 보였다.

그는 또 말을 아꼈으나 할 말까지 안 한 것은 아니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면담에서는 3차 대북 공조에 대한 공격적 질문을 받고 남북에 모두 유리한 '원칙정책'이라고 응수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중"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김 위원장의 2차 회담에서도 "북쪽도 회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번 점에서 보면 김 대통령은 의기소침해져서가 아니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아끼고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한 통일문제 전문가는 남북 정상이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견과점을 이끌어낸 데 대해 "깊은 김 위원장의 패기와 봉 끈 스타일도 돋보였지만, 신중수전 다 겪은 칠순 노정객의 노련함과 침착함은 압권이었다"고 말했다.   
오대극 기자 ohtak@hani.co.kr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2차 정상회담장인 백화원 영빈관의 회담장으로 대화를 나누며 걸어 들어가고 있다.   
평원/청와대 사진기자단

# 물길바꾼 파격 일관된 신념

### ■ 김위원장 광복정치

'광복정치' (봉 끈 정치). 이는 북쪽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치스타일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는 지난 13일 순안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영접함으로써 "봉 끈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줬다. 그리고 1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4개항에 걸친 합의였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첫날 "이북 통안에 세계인에게 말을 보여줘야 한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지켰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크게 노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더욱 확고하게 심어줬다. 모든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물길을 크게 바꾸는 김 위원장의 이런

## '세계앞에 당당히' 확고한 인상심어 '인민이 주인' 인덕정치 이념화 실천

정치행위가 곧 '광복정치'인 셈이다.

광복정치란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봉이 크게 지도한다"는 뜻으로 92년 8월 10일 <로동신문>에서 최초로 사용됐다. 이날 <로동신문>은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논설에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것이 커야 한다", "노동계급의 만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광복정치로 표현했다.

북쪽에서는 광복정치의 예로 주체사상만, 개선문, 뮈강호텔, 5-1경기장 등 대형 건축물을 자주 거론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색조있는 의상 착용 및 압출회장 △보천보 전지역단에 의한 경쾌한 검무와 연주 등 사회변화까지를 김 위원장의 '광복정치'의 산물'로 표현한다.

광복정치와 함께 김 위원장의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데 자주 쓰는 말이 '인덕정치'다. 같은 날의 <로동신문> 논설은 김 위원장이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정치'를 베풀고 있다"며 "인덕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철수를 맞은 주민에게 생활상을 내려보내거나, 세쌍둥이-네쌍둥이 탄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을 대표적인 인덕정치의 사례로 들고 있다.

예로 광복정치나 인덕정치는 하나의 정책 수준이었던 김위신 주석 사망 뒤 김 위원장 체제가 성립하면서 정치이념으로 격상됐다. 그리고 이는 14일 역사적인 남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재를 세계에 보여줬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 “서방선 제가 은둔생활한다는데 김대통령 오셔서 해방됐다더라”

### ■ 김대통령-김위원장 대화록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백화원영 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회담을 시작하며 나눈 대화들이다.

김정일=잠자리는 편치 않지 않습니다?

김대중=잘 자고, 평양에서 꼭 가봤으면 했던 옥류관에 가서 냉면도 먹고 왔습니다.

김정일=아침 회답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급하게 자시면 국수가 맛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 여유 많이 가지시고 친철히 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평양 시민들 지금 대단히 흥분상태에 있습니다. 김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는데, 용단을 내리셔서 오신 것에 대해 온 인민이 뜨겁게 마중하고 했는데 그래도 인사치레가 제대로 됐는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께서 직접 공항

김 대통령

환대 남쪽서도 놀라  
외국기자도 기립박수

어 나오시고 수십만 시민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아주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쪽에서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김정일=어젯밤에 늦게까지 저도 엠비시도 보고 남쪽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만, 남쪽 인민들도 다 환영의 분위기고, 특히 실랑민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많이 소개해주면서 다들 잘 (고향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길이 뻗어오리 오지 않겠는가 하십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 위원장에게) 실제 우는 장면 나왔어요.

김대중=외국 기자들도 수백명이 모이고 기자들 천여명이 기립박

김 위원장

평양시민들 흥분상태  
인사치레됐는지...

수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공항 나와 악수할 때...

김정일=(웃음)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인사로 한 것뿐인데, 저 구라파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하나면 왜 은둔생활 하느냐, 은둔생활 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고 봅니다. 중국에도 갔었고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비공개로도 많이 다녔드랬는데, 나보고 은둔생활한다고, 김대통령이 오셔서 제가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김대중=(웃음)

김정일=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비공개로 갔다왔으니까,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 6·14 역사의 하루

△오전 9시30분=김대중 대통령,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면담. 오후에 단독 정상회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평양에서 전해짐. △11시35분=단경대 학생소년공전어 도착, 어린이 공연 관람. △오후 1시15분=김대통령 일행, 옥류관에서 점심 식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상과 달리 참석하지 않음.

△3시=김정일 위원장 백화원영빈관 방문. 2차 정상회담 시작 △5시20분=2시간여의 마라톤 회담 끝에 휴식을 위해 잠시 휴회 △6시5분=회담 속개 △6시50분=남북 정상 원칙에 합의 △7시=김대중 대통령 목관관에서 만찬 주최 △11시5분=두 정상,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백화원영빈관으로 이동 △11시20분=남북 정상 영빈관에서 '남북 공동선언' 서명 △0시20분=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선언문 발표



오전 7시 30분



이갑석사

오전 9시 45분



만수대의사당에서  
외대회담

오전 11시 10분



만경대 소년학생 공연  
공연관람

오후 1시 15분



육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점심  
(이희호여사와 함께)

오후 3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단독정상회담

오후 6시 15분



외담제기

오후 7시



민선

오후 11시 20분



합의문 서명

오전

9시 40분  
청광유치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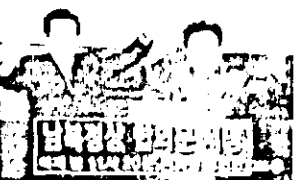
10시 20분  
수해연구소 방문

오후

3시 55분  
평양산원 방문

5시 30분  
북한 여성계대표 집견

### ● 김대중 대통령 2일째 일정



### ● 이희호여사 2일째 일정

##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 만수대의사당면담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15분부터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측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가진 공식면담을 예정 보다 길어져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한 회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약속을 강제한 김위원장은 "회담이 선공적으로 이뤄지면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편안히 주무셨느냐"고 물은 뒤 김대통령이 "그렇다"고 하자 "한시를 낭독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로 배석자들을 소개하던 중 김대통령이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을 소개하자 김위원장은 "방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호소 내용.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해와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신뢰를 높여나가기 바란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21세기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인터넷시대다.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비참해진다. 지금을 세계화 시대다.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에 이겨나가기 바란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자원 자본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인 영토국가의 개념이 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이며, 문화창조의 시대다. 이제는 우리민족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인구의 토지는 많지 않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

지식과 교육수준이 높고 문화창조력이 높다는 이런 시대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일류민족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또 냉전을 선택하면 낙

## 김대통령 흥금털고 화해-교류협력 강화 호소 김영남최고인민위원장 반외세 통일론 주장 북측선 양형섭-최태복-김영대등 고위급 배석

많이 들었다"며 아는 체를 했다.

김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온 것은 우리 민족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세 탓"이라며 "우리 민족이 외우대환을 겪은 적은 있지만 1000년 이상 통일국가들 유지해 왔다"며 반외세 통일론을 주장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28년 전 7·4 남북공동성명, 8년 전 기본합의서에 합의했지만 실현이 없었던 것이 오늘까지 남북관계에 이어져 왔다"며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해 설명한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대북 3국 공조에 대해 우리의 자부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국가보안법이 교류협력에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3국 공조는 바로 북한과 우리에게도 유리하고 모두 이기는 윈-윈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니 결코 북측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해 논의중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날 면담에서 장시간에 걸쳐 마음에 담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고 북측이 이를 진지하게

오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불합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합을 주장하면서 50년을 분단상태로 살았다. 7·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에서 화해-통일, 비핵화 등에 합의한지 8년이 지났으나 진전이 없다. 남북관계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니다. 또 문시가 부족한 게 아니다.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서로 만나 오해를 풀고 우리끼리 협력해 나간다면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유엔연합(UN) 국가를 방문했을 때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기입이 있었다. 나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했다.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주변국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도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 교류협력을 하면 인프라이와 세계 최고인 인력이 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의 공식수행원 정인규와 북측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부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대중 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 여인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송호경 여대위 부위원장, 안경호 조령동 시가국장, 이삼모 최고인민회의부장, 정은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 회장 등이 배석했다.

(원망=공동취재단)



임동원 국정원장



김용순 비서

# 임동원-김용순 물밑조율

## 포용정책 전도사-서방통 세심한 막후협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남북의 막후재난은 '임동원(국가정보원장)-김용순(아태평화위원회-대남담당 비서) 라인'으로 분석된다.

양쪽의 정상들이 최종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집스카드'를 주고 받으며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 없는 물밑 협상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들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임 원장과 김 비서는 각각 강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를 '카드'로 사용하면서 숨막히는 '시소게임'을 벌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 이 최종 합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문구 하나하나까지 이들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4일 열린 남북 단독 정상회담에도 배석해 예상대로 양쪽의 '핵심 인물'임을 과시했다. 남쪽에서는 임 원장 외에 황원탁 외교안보수석과 이기호 경제수석이 배석했으나, 북쪽에서는 김 비서가 단독으로 배석했다. 김 비서는 전

남 백화원 영빈관 1차 정상회담에도 북쪽의 유일한 배석자로 참석해 김 위원장의 최측근임을 과시했다. 특히 이들은 전남 백화원 영빈관 1차 정상회담에서도 이전부터 상당한 교분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김 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 원장에게 남북 공식수행원의 소개를 요청하자, 임 원장이 남북 수행원들을 일일이 소개한 것이다.

김 대통령 특별보좌역으로 방북한 임 원장은 대북 포용정책의 상안과 실행은 물론,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91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참석하는 등 북쪽의 대남 핵심인과의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비서는 국제부에서 35년간 일해 북한 고위층 가운데 서방인물들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또 아태평화위원장으로 시 북-일 수교뿐 아니라 현대그룹과의 금강산사업 등을 총괄해 지휘하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북 전금철-송호경 라인, 남 국정원팀

# 정보입수 막후 전략기획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남쪽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번 회담을 배후에서 지원한 북쪽 인물들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 등 주로 대남사업 부서 관계자들이 추정된다. 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과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안강호 조평통 서기국장, 리종희 조국통일연구원장 등이 그들이다.

전 부위원장은 98년 중국 베이징 차관급 비료회담 결렬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인물이다. 전문가들은 김강익 화살이 나돌던 그의 재등장을 '대남사업 무대 복귀'로 해석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4·8회담이서 서명했던 송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도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와 함께 이번 회담의 막후에서 활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남북대화 주무부서인 조평통의 안 서기국장도 배후를 수 없다. 그동안

남북 접촉 때 안병수로 알려진 인물이다.

남쪽에서는 이른바 '전략수행원'들이 핵심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변화하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그때마다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움직이는 참모부' 구실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현 총리실 특별보좌관, 장재명 외교부 차관보, 김국현 국방부 국장, 서훈 청와대 국장, 김창기 통일부 정책실장, 김진식 통일부 과장 등이 이들의 핵심 인물들이다.

남한의 대북관련 주무부서는 공식적으로 통일부다. 북한 방송들도 남북 방문단을 받으면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1순위로 소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지휘하는 범동맹가 중심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 북쪽 실무실체들과 교류하며 협상을 벌이는 주역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대한매일

2000. 6. 15 (목)



## 2차 정상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56분 백화원 영빈관 1층 '치연관 출입문'에 미리 나와 1분 가량 기다렸으며 2시57분에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여섯 명씩 기량을 점검성검 검어와 김 대통령과 악수할 나누며 "변히 주무셨습니까"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할 했고 김 대통령은 조용한 소리로 "잘 왔습니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텔레비로 (오셔서 여러

- 김 위원장 잠시라는 편하셨습니다.
- 김 대통령 잘 자고 육류관에서 땀만도 먹고 왔습니다.
- 김 위원장 오늘 회담이 오후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지시받았이 없습니다. 시간 여유 갖고 친히 할 도시기 바랍니다. 평양 인민들이 평강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서 오신 것에 대해 온 인민들이 뜨겁게 마중하고 했는데 인사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 대통령 과분하게 환대해 주신 것 감사입니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에도 나오시고 한 것을 남쪽에서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 김 위원장 남쪽 태레비 어세 오랫동안 봤습니다. 남쪽 인민들도 다 환영하고 특히 심양민과 탐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 소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속을 내옵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에게) 실제로 우는 장면이 나오다라니까.

● 김 대통령 (프레스센터에) 외국기자들도 수백명이 오시고 기자들 1,000여

# “남쪽TV 보니 실향민들 애태웁디다” “과분하게 환대... 남쪽도 다들 놀라”

곳을 방문하는 것 등을) 봤습니다"고 다시 말을 이었고 이때 카메라가 "이쪽을 좀 봐달라"고 부러져 3초 가량 간단히 포즈를 취했다. 역사적 만남인데 소감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북도 톤 높해 나란히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다시 대화를 나눴다.

● 김 위원장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 대통령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쉬어서 감사입니다.

● 김 위원장 약속한 대로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앞만 대우할 강해도 제법보다 낫다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200m 길에서 회의장에 들어서 테이 불 중간에 마련된 자리에 폭이 3m 가량 되는 회의용 탁자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정장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 김 위원장 오늘 일정이 어김부터 긴 장외회 했습니다.

● 김 대통령 여기서가 돌아보고 예술 공연도 잘 봤습니다. 많이 봐서 아주 좋았습니다.

말이 기갑 배우셨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공항에서) 악수할 하는 것을 보고

● 김 위원장 재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공감 받은 것은) 인사한 것 뿐인데 구라와 사람들은 나뉘고 왜 언론생 안하는데.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거 중국, 인도네시아도 비공개교 없이 갔다 왔는데 김 대통령께서 오셔서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김 대통령이 오셔서 언론생에서 해방했다. 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비공개교 갔다 왔으니까. 식민정은 불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 김 대통령 음식이 잘 좋습니다.

● 김 위원장 지금 (지나번에) 중국 갔더니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 김치가 나와서 큰일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김치만 (세계에) 소문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김치라고 하는데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싸고 북조선 김치는 많이 많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상호방문 정례화 '반세기 한' 풍다

## 비전향 장기수 송환 길터



■ 이산가족

### 남북관계 일정

- △48년 4월 : 남북 인식회의
- △51~53년 : 정전협상
- △71년 8월 :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 △72년 7월 : 7·4남북공동선언
- △72년 8월 : 남북적십자 1차 분회담에서 5개항(주소 및 생사확인, 방문, 상봉, 서신거래, 재결합) 논의
- △72~73년 : 남북적십자분회담 평양·서울 교환개최
- △78년 5월 : 남북 체육회담
- △81년 9월 : 북, 남한 수레뽑기
- △85년 9월 : 이산가족, 예술공인단 서울·평양 방문 및 가족 상봉
- △90~92년 : 남북 고위급회담
- △91년 12월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산가족 서신거래, 왕래, 상봉, 방문, 재결합 실현 명시)
- △94년 6월 : 남북 정상회담 예비 접촉
- △94년 7월 :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정상회담 무산
- △95년 6월 : 남, 북에 쌀 15만톤 무상 제공
- △97~98년 : 4자회담 분회담(평화체제, 긴장완화 토의)
- △98년 4월 : 베이징 차관급회담
- △98년 11월 : 금강산 관광 시작
- △99년 1월 :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번영구조 해체를 위한 보편적 방안 제시
- △99년 4월 : 베이징 남북차회담
- △99년 6월 : 베이징 차관급회담(6·3합의, 이산가족문제우선협의)
- △2000년 4월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 △2000년 6월 : 6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들이 14일 단독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두 정상은 일차적으로 8월15일 무렵 이산가족의 시범적 고향방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5년 남북 50명씩의 이산가족이 고향을 방문한 이래 수차례 취소됐던 이산가족 고향 상호방문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인모 씨의 송환 이래 북쪽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도 실현되게 됐다. 북쪽은 최근 8월15일 이전까지 비전향장기수의 무조건적 송환을 주장해왔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쪽에는 68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생존해 있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북관으로의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두 정상은 또 추가적인 인도적인 문제들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들 논의하기 위한 기십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적십자회담에서는 고향 방문단의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경제적인 부담을 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10차 적십자분회담 이래 중단되었던 적십자회담이 부활되고 이러한 기본들을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

의사의 이산가족 조항이 되살려질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선 회담에서 국내언론의 이산가족 문제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입안에 대한 이해를 표시해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합의 결과에서 보듯 이산가족 문제는 소망스럽지만 부담스런 의제였던 것임에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의 첫 단계인 생사확인 및 클린업이라도 마땅히 계속 논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 회담 당시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월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 △월1회 쌍방 300명씩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평양교한 △월2회 우편물 교환 △반년씩 상봉면회소 설치 △쌍방, 100명씩 교환이산가족의 서울·평양 방문단 순차 교환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소규모의 고향방문단이라도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반세기 복은 이산가족들의 비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남과 북은 추가적인 적십자 회담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복되고 평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류재훈 기자 hoon@hani.co.kr

## 2·3세대 포함 남쪽만 760여만명

### ■ 이산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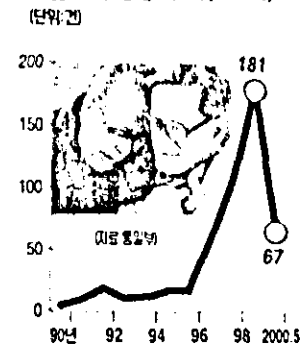
이산가족들은 지금 시간과 '전쟁'을 받고 있다. 이산 1세대들이 너무 많이 앞으로 빛년만 지나도 심장이 사산할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현재 이산가족이 1세대가 123만명, 2·3세대를 포함한 경우 7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70살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25만명 정도다. 이들 70살 이상 이산가족이 상봉의 최우선 대상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상봉이 성사된 것은 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인단' 교환이 유일하다. 이와 달리 1988년 7·7선언 이후에는 비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찾기가 이뤄지. 올 3월까지 생사확인 2004건, 서신교환 5134건, 제3국 상봉 496건이 성사됐다. 그러나 생사확인에 평균 2000달러, 서신교환에 3000달러, 상봉에 5700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다, 출재인의 왕복과 사기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심각한 이산가족 심내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 차원의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767만명이란 숫자는 1970년

### ■ 이산가족 상봉 추이(제3국)



까지 이뤄진 전국민 호국장비 피상에서 북한을 가호적으로 신31회 546만3천명보다 1071~1096년의 인구증가율 40.31%를 감안한 추정수치일 뿐이다. 아직 진수(현재 인구) 조사를 통한 이산가족 실내 파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구보존을 위해 98년 출범한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가 확보한 자료는 겨우 14만6161명(2000년 1월 현재)에 불과하다.

정재권 기자 jk@hani.co.kr



## 합의문서명 이모저모

2000년 6월14일 밤 11시20분, 남북의 두 정상은 55년의 한반도 분단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이 선언문은 온 민족에게 발표됐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봉합의 역사로 돌아서는 대전환의 순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백화원인민관에서 역사적인 선언에 서명을 한 뒤 화해와 공존의 새시대를 기념하는 건배를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삼폐인을 단숨에 들이쳤다. 김 대통령도 잔을 놓지 않은

## 두 정상, 상대 손 번쩍 치켜들어 축하 김위원장 '원샷' 김대통령 4번 나눠마셔

채 네번에 걸쳐 모두 마셨다. 양쪽 수행원 모두 두 정상의 노고에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역사적인 선언문 서명은 이날 밤 11시20분 백화원인민관에서 이뤄졌으며, 남쪽에는 15일 0시3분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서명장면이 중계됐다.

두 정상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3쪽 분량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김 대통령 앞에는 임동원 특별보좌관이 앉았으며, 김 국방위원장 옆에는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이 자리했다.

김 대통령은 선언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서명했으며, 김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고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자 두 정상은 받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으며, 상대방의 손을 번쩍 치켜들고 합의를 축하했다. 두 사람은 이어 축하의 삼폐인을 치켜들었다. 김 국방위원장은 서명식에 참석한 이현재 재경, 박지민 문화관광부 장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남쪽 수행원들과 일일이 잔을 부딪쳤으며, 김 대통령도 김용

순 위원장과 잔을 부딪쳤다. 김 국방위원장은 삼폐인을 단숨에 들이건 뒤 김 대통령과 다시 굳게 손을 맞잡았다.

### 화해와 공존의 건배

◇박종언 청와대 공보수석은 15일 0시20분 평양 고려호텔의 프레스 센터에서 남북 공동선언 선언문 전문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방금 전에 서명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또박또박 선언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화남 김계삼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울과 평양의 보도진은 열제히 환성을 질렀다.

◇이날 두 정상은 예상을 깨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단독정상회담을 계속했다. 특히 두 사람은 회담이 길어지자 45분 가장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등 '합'의 향기를 감행꾼을 했다.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백화원인민관에서 오후 3시부터 회담을 시작한 뒤 2시간 이상 계속되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후 5시20분께 휴식에 들어갔다.

두 정상은 휴식에 들어가기 전 서울에서 신문보도청이 전달되자 나란히 서서 이를 놓고 잠시 환담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1면용단 제목과 여러 쪽에 걸친 신문 보도내용을 보고 "정상회담에 모두 관심이 많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다.

김 국방위원장이 "남쪽 신문에 정상회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군요"라고 관심을 보이자, 김 대통령은 "이 신문철을 드리겠다"며 즉석에서 김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수행원에게 신문철을 건하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오후 6시5분께 속개된 회담은 45분만인 6시50분에 끝났다.

### 서울서 온 신문 펼치며 환담

◇김 국방위원장은 오후 2시57분께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과 백화원인민관에 도착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전날 입었던 특유의 심피 대신 인민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중국 방문에서 장쩌민 주석을 만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차림이다. 안경도 엷은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 대신 투명한 유리의 금테안경을 쓰고 나와 훨씬 '공식적'인 인상을 풍겼다. 평양/공동취재단

## 예상갯 마라톤회담... 역사적 서명 '결실'



### 정당·사회 경제협력

## 국회회담 재개·작가회담 거론 투자협정·단일 민간창구 제의

#### ■ 분야별 협의내용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14일 오후 이뤄진 정당·사회단체, 경제, 여성분야 등 남북간 분야별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협력과제가 제시돼 각계가 교류협력에 얼마나 많은 업량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정당·사회단체와 경제분야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1시간15분 동안 진지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 ◇ 정당·사회단체 분야

남쪽에서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자민련 의원, 김은용 대한체육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장 등이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등 중진시 키기로 했다. 북쪽에서는 김영대 민족협 위원장을 대표로 해 한형욱 천도교 부위원장,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조영봉 서기국의 최우진 부국장, 전중수 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 의장은 지난 90년 1월 중단된 남북 국회회담을 재개해, 관련법을 각자 만듦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김 체육회장은 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팀 동시입장을 제의했다. 그는 남북 양쪽의 국가 대신 올림픽기와 각각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기를 들고 입장하고 국가는 <아리랑>을 대신 사용하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단일팀 구성도 제의했다.

문화계를 대표한 차범석 예술인 회장, △연극·음악·무용 등 분야에서 남북 합동공연 △극작가·배우·연출가 사이의 공동세미나 △분단 이후 남북 문화작품집의 공동출간 등을 제안했다.

#### ◇ 경제분야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무연협화장이 먼저 나서 구분부 없지 회장, 손길승 에스케이 회장 등 남쪽 기업인 대표 9명을 소개했다. 이어 북쪽에서는 정문업 민경련 회장이 회장을 맡아 백세운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등 6명의 대표를 차례로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남쪽은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당국간 협회에 의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험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거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쪽은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육류 조속히 재가동해 투자보증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청산권계협정, 지적재산권 보장협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양쪽 당국이 촉구할 것을 제의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 1면에서 이어짐

김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환국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결단도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단수대의사당에서 김일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회담을 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공식회담에는 남쪽에서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 공식수행인 8명이, 북쪽에서도 김 상임위원장 이외에 양형삼 부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한편 분단 55년 역사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남북한의 합의할 이글러낸 김 대통령은 애초 차량을 이용해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전용기편으로 15일 오후 4시30분 서울 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김정일위원장 방한시기 협의뒤 결정"

### 박준영 공보수석 일문일답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한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은 15일 0시20분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공동취재단과 일문일답을 했다. 보도진의 질문은 선언문 발표 이후 최대의 관심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탐방 문제로 집중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이 적절한 시기인가. 8·15 광복절에 가능한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쪽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쪽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연내에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아 말할 수 없다. 남북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화려함을 없기로 합의했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

-협을 합쳐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

=남북 본지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문어어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 상호 존중하자는 의미다.

-연말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합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 협의를 통해 여러 갈래의 많은 대화와 이뤘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북·일 수교, 핵, 미사일 등의 문제는 거론됐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한·미·일 3국은 전혀 이견이 없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해 왔다. 이번 입장은 북쪽에도 전달됐다. 특히 일본의 무리 총리가 희망했던 북·일 관계 개선도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은?

=그에 대해서는 말할 처지가 아

니다.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등 해결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

=오늘 합의된 3가지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날짜가 지정된 협의분이 이 조항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밝혀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날짜가 규정돼 있지 않다.

-순측과 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데?

=두 분은 남북한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서로 이렇의 뜻을 밝혔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

-합의문에 대한 실무자간 대화는 언제쯤 열리나?

=이른 시일 안에 당국자간 대화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이른 시일 안에 대화를 한자는 문구를 보고 판단해달라. 당국자의 급이나 분야는 결정되지 않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평양-서울’ 길고 긴 이야기꽃

## 북북회담 이틀째

어딜 가나 넘치는 풍요의 근  
근한 정... 통일과 평화를 위한  
회담... 평양 방문 이틀째인 14일 김대중 대통령 등 방북단 일행의 역  
사적인 발걸음은 계속됐다. 김 대통령은 오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연담을, 오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정상회  
담을 열어 7천만 겨레의 비원을 하나씩하나씩 짊어나갔다. 부인 이회  
창도 평양 창랑유치원과 수여연구소, 평양산원 등을 찾아 북녘 동료  
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평양/침략대 사진기자단



무럭무럭 자라라 새싹들아

대통령 부인 이회창씨가 평양 창랑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장군님 공항영접 그자체가 큰선물”

김림성 北참사 일문일담

김림성 최고인민회의상임위 합사는 11일 오후 방북을 전(在 北) 통일부장관과 예고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문일담을 가졌다. 김 참사는 기자회견 “기사가 없다. 얘기 좀 해달라”고 하자 “부족한 기사에 남 대신 넣으려고 하나요? 농담을 하는 등 시종 여유있는 태도로 기자들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김령위 국방위원장님도 남북합 자가 차대 관심인데.

—스어전 공식기자회견이 아쁘는데 너무나 엄청난 기분입니다. 그전 우리 장군님 김참사하에 둘러앉아

—이번 회담을 추진한 김부위원장으로서 소감은, 스오날 저녁 10시까지 만해도 다 못한다. 이러분이 어제 직감한 것처럼 민족분열사에 하나의 돌 파국을 막아낸 특별한 사명이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가로해서 민족의 단합, 통일위 위해 같이 노력해가지고 말하고 싶다. —신용 보따리를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 스어곳에서부터한 것을 주지 않았다. 장군님이 천 길간이 귀한 시간들 내 비껴잡아 마르다라고 40

#### 민족분열사 특별한 사면 회담성과 기초 통일노력

분이상 동행하고 백화원에서 20분이상 만난 것 자체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서울에서 열릴까 기회를 봤다.

—스어전하 같은 질문입니다. 김위원장님한테 대한 같은 질문이라는 뜻이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시면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마르다갈 것이다.

스어가 좋은이요. 인사가 그렇게 되겠소.

—남북지도자가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스어 문제 역시 외사당들의 관심하에 둘러앉으니까 기다려보십시오.

—판사시일이 오늘도 손을 흔들며 환영해준다. 스어하게 우리는 6월 행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참사는 수경위의 안락을 받고 떠나면서 기자단에 “북남관계가 발전시키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날을 많이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 이바지하고 시기에 뒷받칠 수 있다. 기자는 정의와 양심의 선도자라고 하지 않다. 모처럼 열린다는 북남관계에 기자가 더 도둑 잡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고 말했다.

—인민 방위군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준비상황과 예견과 관련된 모습 등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을 설명했다.

북참사는 “북쪽이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대단한 차원 100여대의 차량들을 새로 받았었는데 회담일자를 발표로 하면서 내가 단 차량의 평양 2000.6.11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연도를 배당”고 밝힌. (평양=공동취재단)



이희호 여사가 인민문화공전에서 이화여고 시절 은사 김지현(前)선생을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중앙대사진기자단)

## 이희호 여사 女高은사 만났다



이화여고 시절 이희호와 김교사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복권을 받은 중인 부인 이희호씨가 14일 오후 4시 45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지난 1940년 서울 이화여고 재학 당시 수학 교사였던 김지현(前·85·평양 거주) 씨와 60년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씨가 인민문화공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차머, 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했다. 이씨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이씨가 상기된 일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알합네가”라고 친한 북한 어투로 되물었다.

이씨가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다면서 “현재 서울에 살아 계시는 당시의 선생님은 한 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당시 내가 ‘요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하자 이씨는 “착하신 선생님이요 기억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 최은영 씨가 가지고 온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에는 60년전 당시 이화여고 재직시절 김씨가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사진 속의 주인공들과 일제시대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이 고를 졸업하고 지난 30년부터 41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해방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60년만의 해후가 30년간의 “짧은 만남”으로 그치는데 아쉬웠던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속에서 60년 전 당시 이화여고 재직 시 김 교사와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꺼냈다. 손을 맞잡고 사진을 보

던 두 사람은 현재사태의 어려웠던 세월의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도쿄(東京)여자고등사범학교 이 고를 졸업하고 1939~41년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해방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60년 간의 해후가 30년간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던 자리에서 위해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한편 이희호와 동기생자인 김남희(姜南熙·78)씨는 “자명회교를 졸업하고 관매로 근무한 김선생님이 현재 지고리 고을을 함께 매교 다니던 모습이 기억된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화여고에서 이희호와 동문수화한 동기생장(前) 모은 1백30여명, 이중 20여명이 지금까지도 매교 22여 시읍에서 모이고 지난 5월에는 100여 60주년 기념식까지 개최하며 김남희도 오강을 이어 갔고 있다.

이씨는 평양에 잠시 동안에 계 “후에 있는 중문과 김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와 연락”고 부디, 만남을 개시할 것으로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최현철 기자 <chdeok@joongang.co.kr>



### 이희호씨·고교은사 60년만에 '감격상봉'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복권을 받은 중인 부인 이희호씨가 14일 오후 4시 45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지난 1940년 서울 이화여고 재학 당시 수학 교사였던 김지현(前·85·평양 거주) 씨와 60년만에 감격의 상봉을 했다.

이씨가 인민문화공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차머, 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김씨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했다. 이씨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랜만의 만남이 감격에 겨운 듯 서로 끌어안은 채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이씨가 상기된 일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알합네가”라고 친한 북한 어투로 되물었다.

이씨가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였다면서 “현재 서울에 살아 계시는 당시의 선생님

은 한 분도 없고, 음악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당시 내가 ‘요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하자 이씨는 “착하신 선생님이요 기억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 최은영 씨가 가지고 온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에는 60년전 당시 이화여고 재직시절 김씨가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사진 속의 주인공들과 일제시대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이 고를 졸업하고 지난 30년부터 41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해방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60년만의 해후가 30년간의 “짧은 만남”으로 그치는데 아쉬웠던 자리를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깜찍솜씨에 손잡고 즉석 춤... 짧은 하루

## ■ 평양체류 들쭉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중인 부인 이희호씨는 14일 김 대통령만류이나 바깥 하루를 보냈다. 김 대통령과 함께 민경대 학생소년공전과 옥류관을 방문했고, 별도 일정으로 창광유치원, 수예연구소, 평양산원 등을 찾았다. 또 북한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씨는 14일 오전 9시30분께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창광유치원을 찾아 김춘영 원장으로부터 한참 설명을 듣고 유치원생들과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드루 7개로 나뉘어 있는 교실 가운데 수업이 진행중인 첫번째 교실에 접근한 뒤 두번째 교실인 '춤'에서는 우

치원생들과 함께 2분 가량 춤을 추기도 했다.

이어 방문한 중앙수예 연구소에서는 5백여명의 수예사들이 일하고 있는 수예실, 도안실, 전시실 등을 돌아본 뒤 방진실 소장에 "이렇게 장성을 담은 수예품집이 온 겨레의 경성이 될거라"라며 경성화단이 좋은 걸과를 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35분경 민경대 학생소년공전이 도착한 김 대통령과 이씨는 1층 소조실(분야별 학습실)로 이동하면서 현관에 나와있는 아이들과 다정하게 인사했다. 프콩소조실에서는 어린 아들이 김 대통령 일행을 "안녕하세요"라는 우렁찬 목소리와 활찬 박수로 맞았다. 서어소조실에서는 한 어린이가 "조국통일"이라고 붓글씨를



대통령 부인 이희호씨가 14일 오후 평양산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친하게 못하고 있다.

평양·청의대 사진기자단

## 유치원·수예연구소·평양산원 등 찾아 김대통령에 '조국통일' 붓글씨 선물 려원구씨 등 북한 여성계 대표 면담

씨 선물하기도 했다.

◇...이씨는 오후에는 동경양지구 대동강구역 풍수거리에 자리한 평양산원을 둘러보며 입산모듬과 견의하는 장담을 나눴다. 이씨가 입산중인 산모 2명과 얘기를 나누며 "산후에 미역국도 드시나"고 묻자 김진수 원장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마다 5~6명의 산경

과를 통해 미역을 보내주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중앙 인민문화관에서 려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등 북한 여성계 대표 7명을 만나 남북 여성단체 사이의 교류협력과 근위안부 문제 등을 주제로 40여분동안 얘기를 나눴다. 이 여사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여성들이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여 부의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대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과 남의 여성이 민족화합과 단합에 힘쓰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남쪽에서 장성 이희호대 총장 등도 북쪽에서 려 부위원장을 비롯해 천연옥 여성연공위원장, 홍선옥 중군의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장, 임경숙 개성상, 유미영 천도교중앙당 중앙위원장, 인연태우 김경희, 마리봉선수 장성이 들어 참석했다.

려 부위원장을 중앙 려원경 개의 셋째 딸이자 려연구회의 총장이다. 또 북한 여성단체장은 이그는 천 의실장과 총 위원장은 드루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한 인물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톱뉴스 또 간다...시시각각 타전



## ■ 프레젠테이션·외신 이모저모

### “북 의도적 ‘연출’ 시각은 잘못” 분석

○...일부 내외신 기자들은 평양에서 나오는 톱뉴스의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남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김파와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며 평양에서 송출되는 화면에서는 유대지 못했다. 몇몇 국내 언론사 기자들은 송출된 시간을 아끼고 상속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이 심어진 서울 송출용 대조판에 객상을 잡아두는 속하기도 했다.

외신기자들은 기사를 보낸 뒤 같은 나라에서 온 사관들끼리 둘러앉아 드라마같은 상황전개와 한반도 통일전망은 주제로 얘기를 피우기도 했다.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영국(BBC방송)의 폴란드 여객자는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똘똘했다”며 “한국인 모두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위기와 관련해 “한국의 위기”라는 책을 내기도 한 (인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도널드 키크 서울 특파원은 “지난 72년 남북공존상태,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유무효화되는 것을 직접 지켜본 나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김파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고 정상회담에 인색한 점수를 주면서도, “민약 가까운 시기 안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임을 타명한다면 남북관계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USA투데이의 홍콩 특파원으로 정상회담을 취재중인 톰 와이즈먼 기사는 “이번 합의로 남북간에 두드러진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뻐질 것”이라며 “특히 괴팍한 성격의 인물로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과 교류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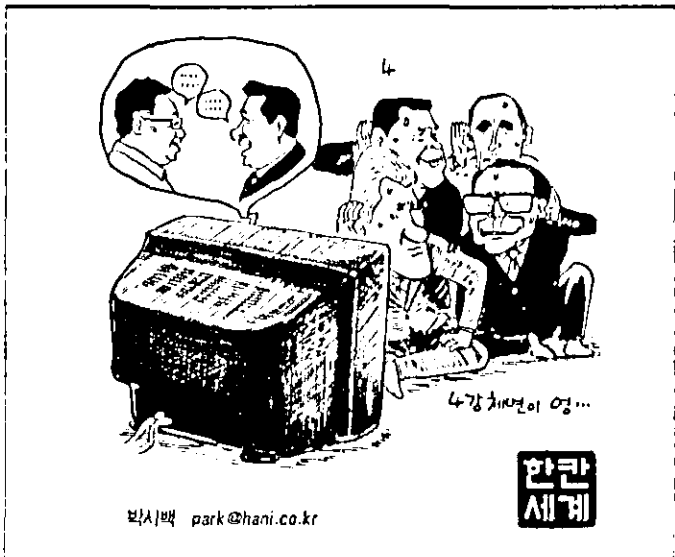
속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대 국가’라는 이미지가 지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내었다.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첫 만남의 순조로운 분위기와 그것이 남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회담의 성과로 연결될지는 법계의 문제”라면서 “김 위원장

의 원대는 남북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전례·도모 등의 인프라 장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일정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마키 데루오 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본부 연구장은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문제 등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곤란에 처해 교섭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5년 만에 국가예산을 발표하고 유류에 광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김 위원장도 경제제재를 전두지휘하는 등 변화의 발걸음을 타고 있는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영 김태경 기자 gauzari@hani.co.kr

○...13일 순안공관에서 정상회의의 뜨거운 반향으로 ‘송각’에 휩싸였던 1천여명의 서울프레젠테이션 출입 내외신 기자들은 14일 10시 정상이 또 다시 단독회담을 개최하고 11시 40분 4개 합의사항에 서명하자 “또다시 톱뉴스를 잡아간다”며 분심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외신기자들은 프레젠테이션 상에 표시된 대령명단과 이름을 보며 정상회담 개최와 합의서 서명 소식을 환호하며 보고하는 한편 국정홍보처에서 내주는 자료와 브리핑을 차례로 규약된 상영을 다정하게 지켜봤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소속사 취재기를 지휘하고 있는 일본(NHK방송)의 모치주키는 “정규뉴스는 물론이고 시음과 도료품 오가며 진행되는 톱뉴스를 만드느라 바쁘다”며 “하루 17시간씩 강경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뉴스데이)의 가간 기사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은 서방세계에 테러리스트로만 알려져 있었다”며 “그러나 순간순간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어 이를 따라잡기 바쁘다”고 말했다.



## 중 “회담 최대수혜자” 희색

### 남북통일되면 미국대신 동북아 주도권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가운데 중국의 표정이 가장 밝다.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자신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할 근거를 없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대양양연구소 부젠이 박사는 13일 (인민일보)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 나와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미국의 계속 한반도에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전미문제연구소인 스태프모도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평화 정착할 경우 중국은 주변미군의 원상 복구 또는 동북아시아의 주권 미군의 집단 수송으로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미국이 남긴 공

백의 일부분은 중국이 배우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북한 위협론이 현실성을 잃으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도 낙담이 줄어들 것이다. NMD가 북한이 라크 등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믿는 중국으로서서는 커다란 군사적 위협을 당게 되는 셈이다. 현재 27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며 해마다 공식적으로 126억달러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중국이 지고 있던 대북한 경제원조의 부담을 한국에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중국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대만에 대한 통일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태프모도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김태경 기자 gauzari@hani.co.kr

## 일 “대북경협 요청 가능성”

### 남한의 북한투자 자금력 한계로 물밑준비

일본이 대북관계에서 지닐 수 있는 최대 무기는 돈이다.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가 지향하는 북한 소프트웨어 및 대외개발 투자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대북경협이고, 그 핵심에 50~100억달러로 추산되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관련 배상금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별도로 머쓰비시 등의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현대 등의 대기업들과 비공식적으로 대북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 합작사업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쪽의 대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비공식 차원에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내에서는 대공선불행식의 대북 경제 지원책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무

상 자금협력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인 입안경제협회 후지무라 마사아 회장도 이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본자세를 지키고 있다. 경제지원은 북한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 등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에서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안보를 관여할 수 있는 최대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뒤 한때 등 한국기업 관계자들의 일본 출장이 빈번해지면서 대북 한일합작사업 추진에 관한 추측들과 한국정부가 이들 중개 또는 보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승봉 특파원 sdhan@hani.co.kr

## '통일 열차'로 남북 먼저 잇는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제2차 단독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협력도 다방면에 걸쳐 급진전환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두 정상간 합의가 아직은 원칙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경제협력에 위한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산업 등에서 대북투자 및 경제협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남북 결합 전망을 알아본다.

남북도로망 연결 추진 현황

| 노선     | 단절구간   | 추진현황  |
|--------|--------|---|
| 국도1호선  | 판문점~개성 | 중동경리구역까지 4차로, 판문점까지 2차로 포장완료                                |
| 국도3호선  | 충의~경강  | 월정리까지 2차로, 연천까지 4차로 확장완료                                    |
| 국도5호선  | 화천~경강  | 성창까지 2차로 설계중, 금곡까지 2차로 포장                                   |
| 국도7호선  | 간성~장천  | 휴전선까지 2차로 설계완료, 봉길전망대까지 2차로 포장완료, 현내까지 4차로 설계중, 간성까지 4차로 확장 |
| 국도11호선 | 양구~백현리 | 임당까지 2차로 포장   |
| 국도13호선 | 신철원~근동 | 성창까지 2차로 포장, 김화까지 4차로 설계 및 공사중, 신철원까지 4차로 확장                |

### 북 "김일성 전주석 유훈사업" 적극적 경의선등 추진...주변국들도 큰 관심 공항·항만은 합의만으로도 교류가능

#### 남북철도 연결

남북한 경제협력에 가능한 분야 가운데 남북한의 의견과 이해가 가장 접근한 분야가 철도 연결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 환영만찬에서 "앞으로 북남이 합심해서 통일열차를 기쁘게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답사에서 "합을 합쳐 끊어진 철길을 다시 잇고 뱃길을 열고 하늘길도 열어가자"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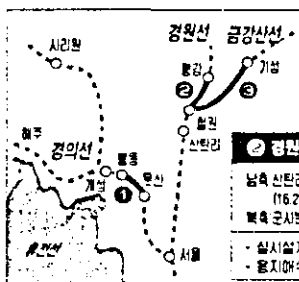
특히 남북한 철도협력은 지난 9년 사단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사망 나올 전에 거론한 바 있는 '유훈사업'이어서 북한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 적극성을 보이

고 있다. 김 주석이 당시 언급한 서울~신의주~개성간 경의선 복선화와 중국항단철도(TCR) 연결에는 주변국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외자조달 등 현실화 가능성도 높다.

현실적으로도 이 노선이 연결되면 북한 서해안공업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국~남북한~일본간 교역량도 증대시킬 전망이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철도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철도의 기본 골격이 잡혀 있을 때 놓여졌기 때문에 레일의 폭이 대부분 1435mm의 표준궤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남북간 이어진 선로만 연결하고 통과 지점에서 기관차만 바꾸

#### 남북 철도망 연결 추진 현황



- 1 경의선(서울~신의주)**
  - 남측: 문산-진단 (12.0km)
  - 북측: 진단-북경 (8.0km)
  - 실시계획: 85년
  - 임진강교량: 허부보강 '86년
  - 물차: 100수('97년)
- 2 경관선(서울~임진)**
  - 남측: 신철원-군사분계선 (16.2km)
  - 북측: 군사분계선-홍간(14.8km)
  - 실시계획: '91년
  - 물차: 100수('97년)
- 3 금강산선(서울~금강산)**
  - 남측: 철원-군사분계선(24.5km)
  - 북측: 군사분계선-기성(50.0km)
  - 기본 및 실시계획: 중 '99년

는 방식으로 당장 사람이나 화물을 옮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단선이 97% 이상인 북한 철도의 복선화와 남북한 간에 서로 다른 전기방식을 맞추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복선화 공사가 본격화하면 수송량의 반약화 확대는 물론 국내외 건설투자 수요의 대거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신의주간의 국도 1호선 등 국도 6개 노선의 복원도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은 남북간의 제도적 합의만으로도 당장 수송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미 평양과 대구 항공관제소 사이에는 직통전화기 있으며, 부산~나진과 인천~남포간에도 지난 95년부터 컨테이너 잠기항로가 운영중이다.

여인호 기자 yeopo@hani.co.kr

# “대결의 시대는 갔다” 박찬 감동



“한편의 다큐멘터리 본듯...양금 씻어낼 때”  
군대 보낸 부모들 “다리 뻗고 잠들게 됐다”

방식이 합의됐다는 소식은 '병역 비리'에 끼지 못한 '못난 부모'들에게도 큰 선물이었다. 막내아들을 지난 1월 군대에 보낸 육정화(52)씨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 늘 불안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정상이 서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니 이젠 다리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향해 겨는 총칼은 마치 우리 부모네들을 향한 것 같았는데, 이제서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 시민 반응

이름만이였다.

그러나 그 이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대결과 분열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5일 자정계 통일문제의 자주적 노력과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5개 항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텔레비전으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드디어 화해와 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환호했다. 그리고 늦은 밤, 그 짧은 만남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었음을 확인하고 설렘과 희망으로 박수를 보냈다.

회사원 김병수(33)씨는 “밤늦게까지 합의문 발표가 나지 않아 불안했는데, 두 정상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는 것을 보니 잠을 못이룰 것 같다”며 “우리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날 손에 손에 뜻을 들고 거리로 나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상기된 반응을 보였다.

영화광인 안은주(35)씨는 “마치 한편의 대하 다큐멘터리나 스펙터클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며 “화해의 길을 열기로 나선 김 위원장을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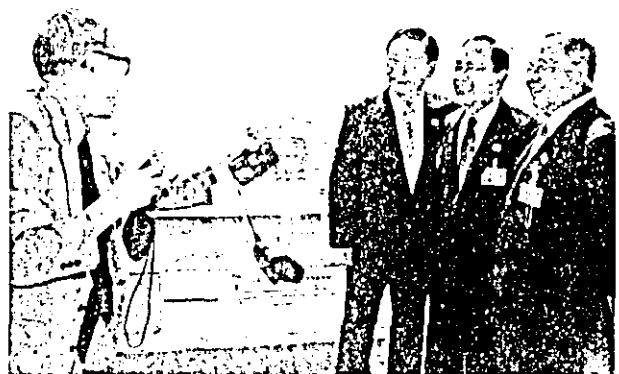
자신을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아무개(64)씨는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는 북쪽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살아왔지만 두 정상이 건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양금이 씻기는 느낌이었다”며 “이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온 겨레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 사이에 상호인정과 공존에 의한 통일

김정화(33·여·경기 고양시 일산동)씨는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남북간 교류를 사회·경제는 물론 환경·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통일은 물론 우리가 어느나라 못지 않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겪은 정은용(77)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원장은 “평화와 화해를 통해 한반도에 다시는 노근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근리 못지 않은 비극을 겪은 이산가족들도 8·15 상호 방문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영춘 김규원 기자 jona@hani.co.kr



평양시내 배경으로 한국신동합회 회장인 박찬(왼쪽)이 시장 오봉복(두번째)과 시민 고은배(왼쪽) 등 남북 다국적 동맹이 14일 평양 만민대학을 방문한 후 김정은(가운데)을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촬영하고 있다. (가운데) 김정은, (오른쪽) 오봉복, (가운데) 고은배, (왼쪽) 박찬

평균 시청률 34.5% (연속3차)

남북 두 정상은 만남은 국민은 기대
최대의 관심사였다. 남북의 두 정상이 평
양 순안공원에서 악수할 한 뒤 평양 시민
들의 환호를 받으며 백화원 입반점으로
가는 모습이 생중계된 13일 오전 10시20
분부터 11시20분까지 한시간 동안 시청
률 조사기관인 디앤에스미디어코리아가
조사한 전국 평균 시청률이다. 이는 평소
같은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이 20.4%였
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13일이 평일이었
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시간 텔레비전을 앞
에 두고 있던 사람이라면 빠짐없이 텔레
비전 생중계에 눈과 귀를 모은 것으로 판
단된다.

에이시뉴스의 조사에인 13일 하루 남
북 정상회담 관련 방송 평균시청률은 24.
9%, 김유를 (전체 시청가구 중 남북 정상
회담 시청가구의 비율)은 72%. 오전 시
간대 평균시청률은 25%로 집계됐다.

방송시점으로 살펴볼 때 이날 오전 10시
20분~11시20분 생중계는 <한국방송공
사>가 11.1%로, 각각 8.7%와 3.1%를 기
록한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보다 높

남북정상 만남
시청률 34.5%



평양·창외대 사진기자단

평소 20.4% 크게 웃돌아
인터넷 생중계 접속 폭주

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저녁 종영뉴
스에서는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가 28.
7%를 기록해 방송공사의 <뉴스9>(17.2
%)와 에스비에스 <뉴스>(13.9%)에 연
도적인 우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현
상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한국
방송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시
청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화
방송과 에스비에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였다.

인터넷서비스의 조건인 평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접속자가 늘기 시작해 두
정상이 순안공원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시간인 오전 11시에는 평소의
3.5배 이상의 네티즌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볼 수 없는 해외
시청자들과 그 시간에 업무상 보고 있던
직장인들이 주로 인터넷에 몰려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됐다고 방송3사 관계자
는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국일보

2000. 6. 15 (목)

매일경제

2000. 6. 15 (목)

북한 軍 비방방송 크게 줄어

최윤수 기자

북한의 대남 체
제비난 방송이 김

대중 대통령의 방북입장이 시작된 13일을 기해 수위가
낮춰졌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발표된 뒤 휴전선임대에서 북한의 대남 체제비난 방
송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김 대통령에 대한 비방 방
송은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 합의 후 남
한체제를 비난하는 화성기 방송이 종전의 3분의 1로
줄었다"며 "화성기 방송이 양방향 중동부진전은 13
일 이후 우리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
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체제비난 방
송이 서부진전 일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
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비방방송은 계
속되고 있다"며 "차이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비방
방송의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김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비방방
송의 수위를 낮춘 것은 방북 중인 김 대통령을 '배
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평양도착 시청률 34.5%

평소 같은시간대의 2배

대의 시청률 17%의 두배에 달했다.

13일 TV로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 장면의 시청률은
평소 시청률에 비해 두배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기관 TNS 미디어 코리
아에 따르면 김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한 1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한
시간동안 생중계한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가구 시청률은 34.5%로 평소 같은 시간

한편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집중 방송된 10~11
이틀간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MB
C의 '평양교역단공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률 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11일 방송한 '평
양교역단공연'의 시청률은 22.4%를 기록,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다음은 SBS '평화통일콘서
트'(14.5%), KBS '최초공개 김일성종합대학'
(10.9%), KBS '북한의 여성'(9.1%) 순이었다.

/배국남기자knbae@hk.co.kr

중앙일보

2000. 6. 15 (목)

남북정상 만남 생중계

시청률 평소의 두배 넘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한 지상과 방송3사
의 시청률은 평소보다 두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조사회사 TNS
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20분~11시20분 방송 3사 3개채널

(KBS1·MBC·SBS)의 종합시청률
은 30.0%를 기록, 같은 시간대 5월 평
균시청률 13.9%를 크게 앞지렀다. 채널
별로는 KBS 1TV의 시청률이 11.1%
로 가장 높았고, MBC 8.7%, SBS 3.
1%를 기록했다. 김대통령이 TV를 본 사
람까지 합하면 실제 시청률은 훨씬 높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남 기자

<choonam@joonwang.co.kr>

중앙일보

2000. 6. 15 (목)

TV 3社 특별보도 평균시청률 24.9%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TV 3사가 20여시간 방송한 정상
회담 관련 '특별보도'의 평균시
청률(KBS1·MBC·SBS) 종합이
24.9%로 집계됐다. 시청점유율
도 59%에 그쳐 TV를 켜놓은 10
집 가운데 4집은 다른 채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C 닐슨
의 조사에 따르면 13일 오전 시
간대는 5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대보다 3.6% 포인트 높았던 반

면 오후 5시~오전 1시는 오히려
1.3% 포인트 낮았다. 김대중(金
大中)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한
오전 8시15분경이 37.1%, 평양
에 도착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
원장의 영접을 받은 오전 10시
30~50분 시간대는 24.8%로 비
교적 높았다. 밤 9시뉴스 시간
시청률이 56.2%(74%)로 가장
높았다.

<허 영기자>

hee@donga.com

금강산관광개발

추가개발 심도있게 추진

편의시설 확충·관광상품 개발 가시화

30년간 금강산에 대해 독점적 관광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은 고성항 횡단, 온정간, 문화회관 등 1단계 개발 거쳐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2단계로 빠른 속도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집중된 현대와 안의장은 북쪽 관계자들과 금강산 추가개발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대는 우선 2004년까지 스카이 숙박시설 확충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관광선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는 이를 위해 3억달러를 투입해 허름길, 삼일포, 온정리 등에 호텔 8개, 칸도 4개, 모텔 6개를 지어 9천실을 짓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야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도 추가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쪽 관광객이 북쪽 지역에서 숙박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현대는 또 현재 민물상, 구룡폭포, 해금강 등에 한정돼 있는 금강산 관광을 앞으로 내금강, 홍성정 지구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낙시관광, 해상관광 등으로 다양화하며, 나아가 삼악~금강~경강 연계 관광상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대는 이를 위해 관광선 3척과 피수선 5척을 새로 투입해 금강산 당일관광까지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2005~2030년까지의 3단계 기간에 현대는 이번 금강산관광을 더욱 확대해 관광코스별 금강산 전역을 물론 원산까지 확대하고 유로 및 항공 등 교통권도 다양화하는 방침이다. 유로관광은 북쪽이 난색을 보여, 아무래도 협도가 앞설 전망이다. 남쪽 간성에서 북쪽은 정리까지는 30km(신금강산)에 불과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현대는 말했다. 현대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금강산관광 개발 전반에 대한 이런 사항을 북쪽과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대는 칠보산, 도항산, 개마고원 등의 관광지 개발에도 전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전자부품

“복합단지 건설등 가속도”

기존 사업계획 큰폭수정 불가피할 듯

전자부품에서 대북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삼성과 엘지는 이번 회담으로 남북 협력이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남북 실무자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투자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북사업 방향과 일정 등 관련 계획을 새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간 철도 복원으로 유로수송이 개시되면 물자교류의 폭이 크게 넓고 물류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해 전자부품 생산과 교역 품목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기존 사업 중 우선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던 남포·해주 지역 전자복합단지 건설 사업과 동동 스포츠센터 개발, 전자제품 위탁가공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그동안 남북 요청을 받아들인 이견의 회장이 올해 중 방북력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투자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엘지도 그동안 지연됐던 컬러텔레비전 합성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엘지전자들 중심으로 한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성남전자, 세광테크노전자, 커드림 등 10여개 업체가 이미 북한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 전자업체도 이달중 10여개 업체가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유로 개장으로 물류비가 줄고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현재 북한의 삼성, 엘지 공장에 공급해오던 전자부품을 늘리는 등 대북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김삼재 기자 seong58@hani.co.kr

자동차부품개발

최초 합작사업 ‘파란불’

완성차 조립공장 건립도 활기 띠 듯

북쪽에 최초의 남북 합작자동차 회사를 세우는 평화자동차의 사업 진행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평화자동차는 현재 1단계로 북한의 기계공업 전문회사인 조선연봉총회사와 합작으로 이달말에 14만평 규모의 자동차 수리·개조공장을 평양에 세운다.

평화자동차는 1차산업 중심의 남북 협력이 2차산업, 특히 중공업 분야로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상징적 조치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 평화자동차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교류방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완성차 조립공장 건립이라는 평화자동차의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평화자동차는 오는 8~9월경 100여만평의 부지에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공장건립을 마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말 또는 2002년초에는 이 곳에서 남북합작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남쪽의 평화자동차가 70%, 북쪽의 연봉총회사가 30%의 지분을 갖는다.

조립생산품은 이탈리아 피아트사 승용차인 램프과 모델이 중심이 된다. 평화자동차는 2006년까지 모두 3억달러를 들여 연간 1만여대의 피아트 모델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1300~1000cc의 소형 승용차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께부터는 북한 이외에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제3국 수출도 활발히 전개할 생각이다.

평화자동차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둔에 따라 전반적인 남북협력 분위기에 맞춰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다른 자동차부품회사의 진출, 나아가 현대대우가 이 같은 완성차업체의 직접진출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에너지

남 무연탄 북 공급 1순위

전력계통 남북연결 방안도 검토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남한의 무연탄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이 꼽히는 것은 남과 북과 과·부족이 맞아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어느 부문보다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전용 석탄 공급 부족이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공장 가동률을 크게 낮추고 있는 반면, 남한에는 무연탄 소비감소로 1000만 가량의 재고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간에 직접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방안은 북한의 남한기업 전용동력이 온정제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북한과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서는 북한 전역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에서는 남가도는 심야전력 등을 이용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여객철 일부 시간대만 회고는 북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은 해주공단이 건립되면 문산~해주 사이 80km의 송전망을 짊어 송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 합작으로 발전소와 정유소를 건설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신 남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남한으로 송전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남한도 발전소 입지 해결, 환경문제 경감 및 피크수요를 발전소 투자비 절감 발전소 이용효율 향상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유소를 공동건설해 휘발유 등 경질제품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남한으로 공급하고, 벤키유 등 중질제품은 북한에서 소비하면 남한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고도화살비 투자비를 절감하면서 중국 과잉생산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동시베리아에서 몽골시아 알타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거나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하는 프로젝트도 관련해서도 남포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소비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환 기자 minhwan@hani.co.kr

## ■ 이산가족 상봉사

"아버지."  
 "아, 금단아."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잘 있어요."  
 "그래 나도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

1961년 일본 도쿄에서 북한 육상선수 신금단(당시 26살)씨가 아버지 신문준(당시 49살·83년 사망)씨를 만난 것은 남북으로 갈라진 혈육간 상봉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도쿄올림픽을 하루 앞둔 그해 10월9일 신 선수는 서울에서 달려온 아버지와 23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71년 2월 일본 삿포로 겨울올림픽 때는 더욱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다. 이 대회에 북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선수로 출전한 한필화씨는 1·4후퇴 때 단신 월남했던 오빠 필성(당시 38살)씨와 일본 <아사히신문>의 주선으로 국제통화를 했다.

"여보세요, 나 한필화입니다."  
 "오빠 오빠 나야. 필화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두 남매는 흐



갈라진 남과 북의 만남. 1985년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호방문단을 교환하면서 눈물의 혈육 상봉이 이뤄졌다. 우리쪽 고향방문단 대표인 홍성철 전 내무부 장관이 누님 겸애씨를 감싸안고 있다. (위) 북쪽에서는 아들 서형석씨는 남쪽의 노모 유모술씨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래)

- 64년 - 도쿄 신금단 부녀 상봉
- 71년 - 한필화 선수 남매 통화
- 85년 - 50명씩 첫 공식적 교류
- 지학순 주교 남매 해후
- 90년 - 한필화 남매 극적 만남
- 이후 - 동포·중국등 통해 활발

느꼈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필성씨는 그 길로 도쿄로 달려갔지만, 만남의 희식을 놓고 남북한 당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속절없이 되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남북한은 70년대 들어 직선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에 한발짝 다가서려 노력했다. 그러나 금방 상봉에 도달하는 듯하다가도 정치적 대치상태가 걸림돌이 돼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남북한의 첫 공식적인 이산가족 교류는 분단 뒤 40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성사됐다. 81년 여름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을 남한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일시적인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물이었다. 50명씩으로 제한된 수였지만, 이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반세기 가까이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났다. 당시 천주교 원주교구 지학순(93년 사망) 주교가 짧은 해후를 아쉬워하며 예순이 넘는 누이동생을 꺼안은 사진은 온 국민에게 이산의 아픔을 생생하게 아로새겼다.

이 교류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이산가족 만남이었다.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갖지던 남



북 당국의 약속은 그 뒤 번번이 깨져 결심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념대결도 혈육상봉의 비원을 완전히 가로막지는 못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냉전종식 분위기를 타고 각종 국제회의나 체육행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은 많이 자유로워졌다. 90년 3월 겨울철아시아대회가 열린 일본 삿포로에서 한필화·필화 남매는 19년 만에 감격적으로 만났다. 그해 10월에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이회택 감독이 아버지 이용진씨를 상봉했다.

남북 교위급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90년 10월엔 남한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김영춘 총리 등이 북쪽의 주선으로 누이동생 등 가족들을 만났다.

국내의 이산가족 상봉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과 친지 상

봉은 비공개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80년대 이후 미국에 '이산가족찾기후원회' '귀향회' 등 몇몇 단체들이 생겨나, 재외동포들과 북한내 친지들간의 서신 교류 및 상봉을 주선했다.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공포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93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98년 4월과 99년 6.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생사·주소확인→서신거래→상봉→재결합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노력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제 '1천만 이산가족들'은 뜬노으로 밤을 새우며 상봉을 구제화해가는 남북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정재권 기자 jik@hani.co.kr

# 오마니, 제발 살아계셔야 합니다



## 이산가족 잠못든 밤

“오마니!”

남북의 두 정상이 오는 8월15일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과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는 등 갑작스런 협육의 상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5일 새벽 평북 정주 출신인 오운석(9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씨는 부인 유한 김(80)씨와 어깨를 부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북에 어머니를 찾았다.

“삼아 계시다면 벌써 130살을 훌쩍 넘기셨을 우리 오마니, 삼아 따뜻한 밥 한술 못 퍼드린 이 협육지식이 이제야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마니, 제발...”

중국 남장대학을 마치고 해방과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온 오씨가 어머니께 손녀할 제물을 맛보인 것도 잠시, 그는 이념적 격변에 휘말려 1년에 만에 북을 떠났다. 그때만 해도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끝이 아닌 한쪽편만 찾아 영영 이별의 길이었다.

어머니가 그러워, 북친하는 유엔군을 따라 평양까지 갔다. “그때 죽더라도 오마니 대신 정주에 가서 모시고 왔어야 하는 건데

... 훨씬 남아서라도 가이다. 오마니 보러 가이다.”

남북 정상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소식이 760만 이산가족이 반세기 만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세남이 열리며 전해진 협육 상봉의 소식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북녘을 향해 달렸다. 이산가족 상봉 소식만 들리으면 ‘이번엔 흑시나’ 하는 기대에 마음을 쏟고, 남기고 온 협육만 생각하면 입술 눈앞이 아득했던 이산가족들은 입을 잊지 못했다.

부모님과 오빠를 북에 두고 남편과 함께 월남했다는 김옥(83·서울 동대문구 창광리1동)씨는 “이제 만나는 날까지 죽지도 못하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벌써 이틀째 잠 한술 제대로 못자고 잘 들리지도 않는 탈베미전에만 눈을 붙박았던 김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 남호병(63)씨는 “어려다 어머니의 심근경색이 더 악화할까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두 정상의 합의가 이행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순민(90·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는 “평화선언이나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라며 “어릴 때 뛰어난 신의주 고향이 눈에 아련거린다”고 말했다. 홍씨의 어머니는 토지개혁 때 한뼉의 땅이라도 받으려고 홀로 북쪽에 남았다. 그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지, 묘에 가서 불초자가 왔다고 묻기라도 하겠다”고 했다.

함남 함흥이 고향인 이명중(68·서울 강북구 수유동)씨도 “홍일몰 위해 넘어야 할 수

많은 고개 가운데 가장 큰 고개를 넘은 것”이라며 “고향에 가면 가장 먼저 어머니 산소를 찾겠다”고 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동생 건우(66)씨를 52년 만에 만난 한국우주과학연구원소장 조경철(72) 박사는 “다시 한번 동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새벽에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 지난 48년 조 박사와 아버지는 남으로, 동생과 어머니는 북에 남아 52년을 ‘갈라져’ 살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끝내 재회하지 못한 채 남과 북에서 흡족한 최후를 마쳤다. 조 박사는 “나는 그대도 허투리도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며 “이번 약속이 꼭 실현돼 따뜻한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이 모두 협육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지난 98년 함경남도 단천에 사는 여동생 김갑자(57)씨를 만난 가수 현미(64·본명 김명선)씨도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 모두 부둥켜안고 난리가 났다”며 “만문정에 면회소라도 설치해 가끔 만나 물건이라도 전해주고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더이상 바랄 게 없었다”고 기대했다.

함남 북청 출신의 통일입(77·속초시 칭호동)씨는 “이산가족 상봉 합의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스 말이 필요해요. 당장이라도 북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족사의 새날이 열린 날”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반세기를 이기지 못했다.

이재성 순천제 김소민 기자 hrib@hani.co.kr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4개항이 합의된 1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실형민 전영권 씨의 부인인 김영옥씨가 고인의 영정을 보며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 장기수 송환 뜻밖 '남보'

# “생이별 30년 세월 이제야 훌훌”

“기쁩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남북 공동선언에서 미완성 장기수 문제의 해결을 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만남의 집’ 장기수 출신자들은 벅찬 감격에 솟구치는 눈물을 감지 못했다.

30년이 넘는 옥고와 모진 고문을 버디며 끝까지 견지해왔던 자신들의 신념과 통일외의 꿈이 성취 나가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건디가 힘들었던 생이별한 가족을 그리며 지새워야 했던 쓸쓸한 밤들도 이제 울음 필할 수 있게 됐다.

평안북도 박천에 아내와 5남매를 두고 온 온경선(76)씨는 “협의로 발표를 듣는 순간 눈물만 났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눈에 선하다”고 기뻐했다.

45년을 약역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영(70)씨는 “기쁘다. 반겼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나마 건강한 몸이라 좀 낫지만, 밤마다 시달리는 다윈 선생님들은 하루빨리 이북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두 정상의 합의를 반겼다.

최근 들어 급격히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이종(90)씨와 ‘최후의 여자 빨치산’ 정순디(67)씨 등도 새벽에 들려온 뜻밖의 남보에 감격스러워했다.

현재 남쪽에 생존해 있는 미전향 장기수는 모두 88명이다. 미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권오현)는 이 가운데 북쪽으로 가길 원하는 이들은 5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90살 이상은 류한옥씨 등 2명, 80~89살은 김석형씨 등 10명, 70~79살은 김인수씨 등 32명, 60~69살은 김동기씨 등 10명, 60살 미만은 이재흥씨 1명이다.

손현재 기자 wonje@hani.co.kr

# “오늘같은날 못보고 가시다니...”

## 어제 새벽 숨진 팔손 실형민 유족들의 통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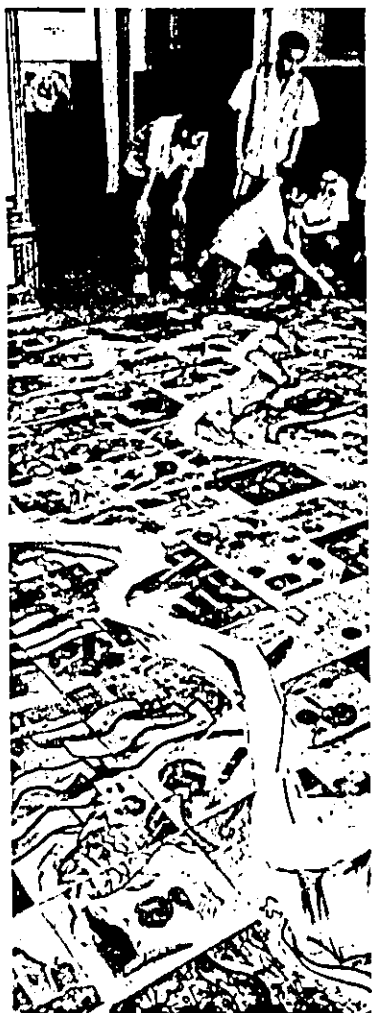
“며칠만 더 사셨어도 기뻐하셨을텐데...”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 날, 팔손의 한 실형민이 세상을 떠났을 등졌다.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전영권(85)씨는 14일 새벽 그토록 갈망하던 고향생분 김이 열린다는 남보를 눈앞에 두고 14일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20여일 전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을 잃으셨죠. 좋은 날을 못보고 가시다니...” 유족들은 전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 목이 메어 입을 잊지 못했다.

해방 뒤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던 1916년 두 남동생과 함께 월남한 전씨는 맨주먹으로 모진 타당살이를 이겨냈다. 그러나 여느 실형민처럼 전씨도 생전에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여동생 생각을 한순간도 떨치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전씨의 차남 병철(44·수원대 교수)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색도 안 했지만 정성회담 당사 소식에 입을 잊지 못하고 가슴 벅차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두 동생과 함께 해마다 함흥시 신희면 사람들의 모임인 ‘면민회’에 나가 신희의 아픔을 담고, 10여년 전에는 고향시랑들과 돈을 모아 건기도 양주군에 선산을 만들기도 했다. 또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도 제사도 지냈다. 그러나 몇해 전 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전씨의 슬픔과 외로움은 더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 통일아, 사랑해!

선린중학생 통일그림 공동작업

최근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교장 장명화) 본관 1층 현관 바닥에는 통일 염원을 담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한반도 그림(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1학년 전체 학생 210여명과 미술부 학생들이 지난 5일부터 점심zeit 만든 이 작품은 가로 41cm, 세로 32cm 크기의 캔버스 180개를 맞춰 그린 '컬작'이다.

백두산의 '귀여운' 호랑이, 평양의 '홍일 호털', 서울의 '남북정상회담 중계센터' ... 인색의 아크릴 물감을 써서 그린 이 상상화에는 조각조각마다 남북한 할 것 없이 한반도 3천리 방방곡곡의 지역특색이 학생들의 기지 넘치는 상상력에 어우러져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술부 정연우(15·3학년)군은 "통일 위의 한반도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다"며 "북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jtkim@hani.co.kr

## “평양은반 한번 먹어보자” 북한음식 회담특수 특특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 14일 서울시내 북한 음식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평양회담 특수'를 누렸다.

더운 날씨 탓인지 이날도 평양냉면이 많이 팔렸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평양에서 첫 김밥식사로 맛있게 먹었다는 '평양은반'을 찾는 손님도 많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모란각에서는 닭국밥 육수에 냉고기와 밥을 얹은 전통 평양음식인 온반을 주문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인 김은하(41·여)씨는 "평소보다 30% 정도 손님이 늘어났다"며 "특히 '대통령이 들었으니,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라며 온반을 찾는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더워 평소여 온반을 찾는 손님이 10명 안팎이었으나 오늘은 40명이 넘었다"고 귀띔했다.

북한음식 전문점인 강남구 역삼동 육류판매도 점심시간 전인 오전 11시30분부터 평양냉면과 평양온반을 찾는 손님으로 남녀 1~2층 자리가 들어났다.

종업원 권영희(30·여)씨는 "평소 점심 손님이 300명 정도였는데 오늘은 500명이 넘었다"며 "어제 방송을 보고 일부러 온반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온 손님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온반의 경우 날씨가 덥고 평소 많이 찾지 않아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한 탓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손님 이유선(40·주부)씨는 "평소에도 북한 음식을 즐겨 먹었지만 오늘은 특히 평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상사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친구들과 북한음식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성영 기자 chung@hani.co.kr

## 민족화합 기원 비목공원 옛 빨치산 본거지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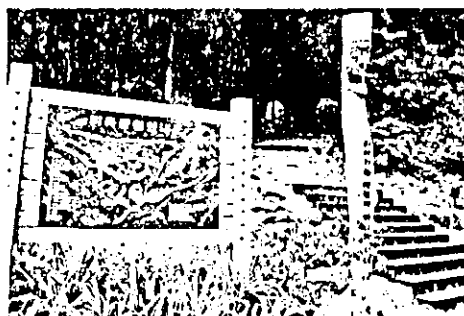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빨치산의 본거지로 이용됐던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장리 화문산 중턱에 민족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비목(碑木)공원이 조성됐다.

시부지방산림청리와 순창군은 화문산 일대 3만m에 모두 5억4000여만원을 들여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을 상징화한 체침코스, 화합의 광장, 평화의 탑, 소망의 숲 등을 갖춘 비목공원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원은 하늘과 땅, 인간을 상징하는 태극모양의 평화의 탑과 하늘에 소망을 빌 때 쓰였던 솟대 21기가 세워졌다. 또 높이 2.5m 길이 40m '시련의 터널' 체침 코스를 만들었으며 해안·비목·사색의 길에서 역사적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상기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산교육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남북 경제협력

남북 정상  
만남은 냉전의  
맥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협력  
의 핵심 조치들  
이 합의됨으로  
서 공동번영의  
가나인 일보달  
내디뎠다.



김연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실 91~92  
년 남북교류협  
력부속합의서에서 경제협력  
의 제도들이 대부분 합의된  
바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치들을 실천할 계기를 맞  
았다.

이 중에서도 투자보장협정  
과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제도  
적 장치들은 남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다.

투자리스크가 그만큼 줄어

로 그리 길지  
않다. 현재 조  
성되어 있는 남  
북협력기금을  
확충하면 이 구  
간의 공사는 지  
급도 착공이 가  
능하다. 그러나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  
기 위해서는 북  
쪽 구간의 복선  
화 공사가 필요  
하다. 이 구간의 공사는 유럽  
연합과 일본 등이 직접적 경  
제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  
반도의 평화정착이 가시화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  
제나 추가 경제완화 등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일방지원 아닌  
공동번영의 길

든 것이다.

이제 섬유, 의류, 전자조립  
등의 업종은 해외로 나갈 필  
요가 없다. 언어와 문화가 같  
고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는 북한에 진출하면 된다.  
새로운 산업협력의 길이 열린  
것이다.

둘째, 철도 연결 역시 중요  
하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 철도 연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언급한 바  
있고,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 연결에 적극적이었다.  
강령남 위원장이 만천사에서  
동일업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이  
견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조  
치다.

그동안 해상물류 방식은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북한  
의 저렴한 인건비를 상쇄하기  
도 했다. 나아가 철도 연결은  
한반도가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경제권과 일본 등의  
해상경제권을 이어주는 실질  
적인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만들 것이다.

물론 자원마련이 문제다.  
사실 경의선과 경원선의 미연  
결 구간은 각각 20km와 31km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다.

이제 직접투자 국면은 시작  
되었다. 물론 경제협력화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필  
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안보와  
경합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이 군사적 긴장완화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험 관련  
정책의 개선과 총관기구의 정  
비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추가  
완화되어 수출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 국  
민의 인식전환이다.

경제협력은 결코 북한에 대  
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다. 남  
과 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길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  
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기업 역시 경제성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  
이 기업이나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만남의 역사적 의미가  
경제협력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 경험 재원은

남북 경험의 문을 활짝 여는 중요  
한 열쇠 하나가 바로 자금이다. 남  
북 경험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  
설(SOC) 확충 등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서, 언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문제는 남북 경험의 성  
공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 경험을 위해 동원 가능  
한 재원으로는 △남한 정부의 직접재  
원 △민간기업의 투자 △국제기구의  
자금제공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남  
한 정부의 자금지원이다. 현재 남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는 △  
남북협력기금 5천억원 △대외경제협  
력기금 7천억원 △한한국제협력단  
자금 400억원 등 모두 1조2천여억원

당장 쓸 수 있는 돈  
정부 1조2천억보유  
협력기금 증액추진

세계은행·IMF 등  
북 가입 지원방침

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남북협력기  
금을 1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  
다. 최근 통일부는 2001년 예산 요구  
에서 남북 경험에 필요한 사회기반시  
설 건설자금으로 5천억원 증액을 요  
청했으며, 예산당국도 긍정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남북  
경험이 분쇄도에 오르게 될 경우 자  
금조달의 핵심창구가 될 전망이다.  
현대의 서해안공단과 삼성의 전자복  
합단지 건설사업 계획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투  
자는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IBRD)과 아  
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의 자금제공도 기  
대해 볼 만하다. 다만 이들 국제기구  
로부터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회원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  
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  
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지  
난달 타이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 이한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원국들에 북한의 가입 지지할 요청  
했다. 인쇄승 기자 jsahn@hani.co.kr

## ■ 김대통령 맞은 유명인들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현장에 혁명1세대인 여운형, 이현상, 김책 등의 아들·딸과, 마라톤 선수 정성욱, 영화배우 최창수씨 등 남한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3~14일 민주대예술극장과 평양 학생소년공전에서 김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비운의 정치가인 몽양 여운형의 셋째딸이다. 지난 91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여성회의 때 북쪽 대표로 참석한 러연구씨의 동생이다. 몽양이 암살된 뒤인 47년 3월 연구씨와 함께 월북한 러 부의장은 모스크바대학에서 공부하고 김책공대 교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친 뒤 연구씨에 이어 범민련 북쪽본부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최고위직에 올랐다. 연구씨는 지난 96년 세상을 떠났다.

북한은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당을 이끌며 독립·통일·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려다 희생된 몽양의 두 딸을 '혁명 유자녀'로 최고의 교육과

## 혁명 유자녀들 대이은 중책 눈길

여운형 딸 원구씨, 이현상 딸 상진씨 등 중추적 역할  
인민배우·마라톤선수 낯익은 얼굴 방문현장에 등장



이현옥씨

이상진씨

최창수씨

정성욱씨

대우를 한 셈이다.

13일 김 대통령이 민주대의사당을 찾았을 때 안내를 맡은 이상진 부총장은 전설적인 빨치산 지도자 이현상의 외동딸로 알려졌다. 이 부총장은 아버지가 치열한 빨치산 활동을 벌이던 한국전쟁 중에 어머니와 함께 월북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다녔으며, 김정일 국방위원

장의 동기동창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장은 지난 85년부터 부총장직을 맡아왔다.

이현상은 일제 때 조선노동당의 간부로 활동했으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 즈음인 48년 지리산에 들어가 한국전쟁때까지 빨치산 활동을 계속했다. 이현상은 휴전협정 뒤에도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관으로 활동

하다 53년 9월18일 지리산 빗검골에서 토벌대와의 전투 중 죽었다. 정치영 감독은 이를 소재로 한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또 13일 김 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 도착 때 김 국방위원장과 함께 마중 나온 김국태(76) 당중앙위 비서는 김일성 주석의 혁명동지인 김책의 딸 아들이다. 혁명이 가족만이 다닐 수 있는 명경대 혁명학교와 모스크바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장,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등을 거쳤다. 북한 공작자 인사의 키를 쥔 인물로 알려졌다. 김정일 체제 구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 13일 만찬에는 지난 93년 북송된 이인도씨의 딸인 리향옥(51)씨와 99년 세계유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선 우승한 정성욱(26) 선수, 남한에서도 방영된 영화 <관객정>의 주연으로 인민배우이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장인 최창수(55)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규원 기자 che@sham.co.kr

## 세계日報

2000. 6. 15 (목)

## 대학가 對北 교류추진 '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대학과 총학생회가 북한교류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학들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은 축구대회나 농촌봉사활동에서부터 식량난 해결을 위한 학술·기술교류, 남북학생회담 등 여러가지다.

전국대 전북대 등 전국 55개 대학으로 구성된 '새로운 전국적 학생회 연대기구'는 남북학생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에 예정된 통일행사때 남북학생회담을 갖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며, 남한 학생들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북한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이나 일본 등 제3국에서 만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튿날인 14일 서울대 학생회관에 태극기와 한반도기, 인공기 오른쪽부터가 나란히 게양돼 있다.

(조은상기자)

## 8월 통일행사때 '남북학생회담' 정부와 협의 訪北 학술교류·봉사활동·北학생 초청등 검토

이화여대는 김일성대학과 공동으로 북한 현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현장방문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북한주민접촉 허가승인을 받아 북한측과 접촉을 추진중이다.

서강대 학보사와 동국대 학보사도 북한의 교육정책과 대학생 생활상, 유적지 등을 보도하기 위한 방북 취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월중 6박7일 정도의 일정으로 방북할 계획이다.

또 전남대 총학생회는 오는 8월17~25일 북한을 방문해 역사와 유물을 체험하는 행사를 갖기로 하고 답사단 모집에 나섰다. 학과별로도 오는 9월중

북한알기 행사와 학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도 오는 9월 열리는 학교축제기간에 북한 대학생들을 초청, 남북통일기원 축구대회를 열기로 하고 대학당국과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대의 '남북한 농업분야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위원회'는 1998년 9월 북한 농업과학원과 200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농업·축산 분야의 공동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대 총학생회는 오는 여름방학을 이용, 북한 농촌지역에서 '통일 농촌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종합)

# 금강산도 뭉클 통일 애기꽃

■ 관광객이 전하는 북주민 반응  
 “통일 할아버지 북 아이들에 인기 대단  
 우리민족 힘 합치면 세계 최고국가”  
 북 관리원-남 안내원 통일커플 ‘밀애설’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위대한의 취재 제언으로 김병애가 가리키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 주민들의 반응이 11일 북매체로 돌아온 금강산 관광객들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때 직원들과 관광객들은 북한 동포들이 정상회담 첫 행진 뒤 헌혈 증표와도 친근함을 드러냈으며,

북강한 통일국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예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 동해강에 도착한 한 대 금강산 직원들과 관광객들은 “장건이었다 온종일 등의 감도습은 비교적 기분 좋았다. 북한 관리원들은 정사(관)에 큰 감사와 기대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때 직원들은 “남북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서로 화기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일찍 산에 오른 관광객들은 정상간의 만남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오후 들에 한때 직원과 금강산 사이의 무언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공화 영감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평양의 소식은 관광산에 퍼진듯이, 이후 김일성상을 주제로 관광객 등 남한 사람들과 북한 관리원 사이에 여기저기 퍼졌다”고 관광객들은 전했다.

이제용(37·인천 서구 심곡동)씨는 “한 관리원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도착을 알려주자 ‘내 내기으로 환영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며 “이런데 북한이 무슨 게기인 것 같은가, 이산가족과 견제하여 문제가 나오겠냐”라고 되물어 헌정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홍성표(47·대전서 대덕구 오곡동)씨는 “김정 전 만민상징에 도착했을 때 20대 초반의 북한 남자 관리원들이 ‘김 대령님이 잘 도착했다’고 말라갔다”며 “관리원은 다시 ‘보통 보장이 뭐하는 데다’라고 묻는 등 남한 사회의 직언이나 견은 관에 관심 없으며 해를 많이 받은 주교만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해어질 때 력소주 하나를 선물로 주자 관리관리원은 ‘칭의를 의미하지 못하겠다’며 받은 뒤 ‘자주 놀라오자고’ 불성이 되면 북한이 유혹을 해 줄 것이고 싶다’고 말했다.

백영숙(48·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한에서 만난 북한 관리원이 ‘조선 아이들에게 김 대령님의 인기 가 참 많은데, 아이들이 김 대령님을 ‘뽀람 뽀아저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체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양숙(42·여 서울시북구 방배동)씨는 “관리인들이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일수도 먼저 마셨다’며 “그들이 ‘최근 김정리관과 남쪽의 인애인 사이에 있었던 북 김씨 자는 쌍이 생겼다’는 말도 귀해했다”고 말했다.

동해/충청서 기자 number3@hani.co.kr

## 지자체 남북교류 물꼬 튼다

■ 각 시도 움직임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교류에 커다란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교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 도시간 교류=대전시는 북한 도시의 세계화추진사업(WT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사업은 98년 대전시가 주축이 돼 세계 각국의 기층자치단체 교류 분야에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등 13개국 27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시는 이번 회담으로 남북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 최대 국제기층도시인 과학기술도시인양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 교류 연구단체와 협회 등에 많은 북한 도시를 유치 중인 민간단체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교류를 시작한다. 지역별 연을 맺으면서 인접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영화 상영한다

◇ 북한영화 일일상영=인천에는 16일 일일상영(대중에게 개방)을 제정할 계획에 따라 북한 영화 5편을 특별히 선정해 무료 상영한다. 상영영화는 <추천전>, <영웅을 알리는 저녁>, <도시지나리 김일성>, <공작사냥>과 애니메이션 <호랑이와 사냥꾼> 등으로 16, 18일 상영한다. <공작사냥>은 8월

조선애용인화협업소에서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SF영화로 지난 2월 일본 ‘니카타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호평을 얻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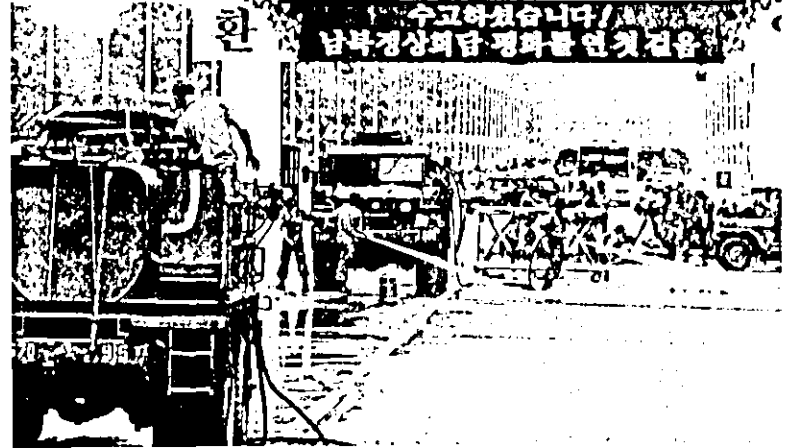
경기 평화도시 건설계획

◇ 시회간접사업 북한·화중=경기 제2청은 권역별의 기반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의 중추적 구실을 해낸 시회간접사업 화중을 시두르기로 했다.

제2청은 또 휴전선 인근에 남북 자원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평화·생태도시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시 평화의 연천군 신서면 대평2리 신탄리의 주변 과 고대산이 관광지로 개발된다. 연천군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신탄리역과 신탄리역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고대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태백 석탄보내기운동

◇ 활발한 대북지원=경남 태백시, 진주시의 민간지역 사회단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동포 석탄보내기 운동본부’(본부장 이장진) 북재는 국제금융 완화와 북한 갈수록 기부시간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가 북진하자 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천 대연 출현 의정부/김영환 순규정 김중화 치환할 기자 ywkim@hani.co.kr



김대통령 귀경맞이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 방문단이 예초 위원에 이송하기로 돼있던 경기 피주시 문신읍 통일대교를 군인들과 군정 직원들이 14일 오전 삼수시 통을 등한히 일찍이 정초하고 있다. 피주/연합

“울 여름방학엔 북한서 농한”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은 대북사회의 북한교류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이미 90년대초부터 진행해온 자매결연은 물론 북한지역에서의 농촌활동과 사적지 탐사 등 대북교류가 꽃피고 있는 상황이다.

문어대 농학회는 재해지역대책인 농가에도 친선의 오징어를 지원 제재(해빙)과 상조(농산물)를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농학회는 이번 여름방학 중 농촌활동과 탐사 등 대북교류가 꽃피고 있는 상황이다. 농학회는 이달 말에 농학부에 농학(농산)사업(농)과 제3차(농) 북한대 학생(농)을 만나 국제적인 농학(농)을 할 계획이다. 농학회는 이 화교 농학(농)과 김대중 교수(농) 활동하고 있는 북한(농)을 농학(농)을 통해 대북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김대중은 ‘사회간접사업 분야에 농학(농)사업 구축을 위한 남북(농)과 12일(농) 시(농)이다. 평양(농)에서 일(농)이다. 부산 대(농)최(농)원(농)대(농)원(농) 기자

북한가요 노래방서 주문 쇄도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북한 가요 때문에 고삐가 풀렸다. 14일 대전미디어, 아라동 관련업체들이 따르면, 최근 평양소년애소년단과 평양교향악단 시용곡인 ‘남북정상회담’ 등이 따라 남북화해 분위기를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래방 입주율로부터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시(농)만(농)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북한 가요들을 신속으로 도입해 되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 이들 북한 가요를 대타입과 해(농)고도, 공급(농)이(농)고 있는 상태다. 대전미디어 조(농)주(농)업(농)은 “북한 가요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아 프로그램을 다(농)입(농)해(농)놓(농)았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농)공(농)급(농)할(농)못(농)하고(농)있다”며 “북한(농)의(농)해(농)로(농)아(농)이드(농)인(농) ‘조선(농)의(농)로(농)망(농)’에(농)저작권(농)문(농)제(농)를(농)분(농)의(농)할(농)계(농)획(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농)연(농)영(농)순(농)기(농)자(농) jskim@hani.co.kr

# “한핏줄” 동질감 회복이 통일 초석



### 김금대담

남북 정상이 본격적으로 합의문을 서명하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는 답답이로 불만이 일 것 같은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복잡다단한 과정에서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남북의 신뢰고 애매가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국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폭넓게 짚어보고, 민족경제상 회담과 내각 정세의 지류 등 통일의 밑거름이 될 대외부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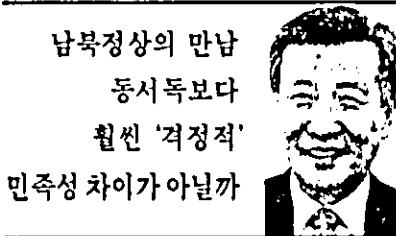
도정일 경희대 교수(왼쪽)와 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통일을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국 기자 jmk@hnews.co.kr



**직접 만나 마주보고  
서로의 숨결  
느낄 수 있어야  
통일 필요성 체감**



**남북정상 만남  
동서독보다  
훨씬 '격정적'  
민주성 차이가 아닐까**

### 대답자

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도정일  
경희대 영문학학과 교수  
매: 14일  
곳: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도정일 = 이번 순안회담에서 만난 때 어떻게 인식했는지 관심이 많았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부동불변은 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시장 경제처럼 한순간에 변하는 건 역사적 의미의 중대한 표현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두 정상은 약속도 포용도 아니고 두 손을 얹서 잡았다. 한국적인 것 같고 체제적 의미도 미처 미치지 못했음을 표시한 게 의미 있는 인사법이었다.

권태준 = 1970년 동서독 첫 정상회담 장면과 비교한다. 당시의 그림을 보면 상당히 사무직이라는 느낌이 든다. 장소도 수도꼭지 아닌 조그만 중수도시었고, 한원정도 속소 배의 수백명뿐이었다. 당시보다 긴장상태가 더 짙어졌던 우리가 그들이었다 훨씬 격정적인 모습으로 만난 건 민족적 차이가 아닐까 싶다.

도 = 첫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합의 분위기가 이뤄진 것도 더욱 흥미를 갖게 한다. 흔히 정서적인 접근은 순진하다고 말하는데, 민족 정서가 북쪽 지방

상의 지류로서, 현실적 계인의 말이 깔리는 바탕은 봐야 하지 않았다. 이삼가 독감병에 대해 정신이 붓을 일어난 사실도 그림 속에서 의미가 크다.

권 = 침착했으나 아산가족은 통일에 대해 특별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남북 총인구의 과반 수를 차지하는 북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기대를 하기 어렵다. 불안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인도적인 관점이나 길라잡이 민족이 협조해야 한다는 민족적인 기대를 하게 한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안건까지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 =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약속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겐 통일의 필요성과 방위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 최근 평양교역단과 평양학생소년학생소년의 공연은 다수의 남북 주민이 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매우 많이 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매우 많이 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매우 많이 북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매우 많이

권 = 그동안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갑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겐 통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 어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방송에서 교역단 공연을 본 어떤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 사람들 많이 우리의 똑같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였다. 남한의 어떤 학생들이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같은 말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남북한이 차이점 배우기 위해 경제적 접촉보다 문화적 접촉이 더 중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최근 평양교역단 공연 등을 보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접촉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낀다.

### 문화적 접촉이 더 중요

도 = 북한이라는 걸 추상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젊은 세대가 그들의 체감은 느끼게 함으로써 통일을 발견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전쟁하기 싫다는 공감대가 남북의 생활감정 속에 깊이 뿌리박힌다면 그 자체가 커다란 안전장치가 된다. 북한을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던 젊은 세대들에게 냉정한,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친선방법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이라 부르지만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 전기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접촉이 계속돼야 하고 정부 당국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접촉이 이어져야 한다. 남북간의 믿음이 쌓이고

평화정도가 지속되면 양국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촉이 필요하다. 권 = 남북의 화해와 관련,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란 원칙을 최대한 내서 평화상태 지속의 여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두 정상과 한반도 주민들이 믿게 된다는 건 큰 성과다.

권 = 남북의 화해와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남북 모두가 분단과 전쟁에 대해 받아들이는 데도 기억을 가진 세대

를 나누어 있다는 점이다. 앞세대는 전쟁으로 인한 치명적인 기억이 남아 있는 반면, 뒷세대는 매운 기억담백이 없다. 이제 새로운 평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들 세대간 갈등이 정서적으로 온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통일 앞길에서는 지역적 경제적 갈등이 생기기지만, 분단시대에는 문화적·역사·정치·경제의식 등에서 갈등이 증폭되지 모른다. 그 점에서 앞세대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오고 있는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 = 그 문제는 우리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 젊은 세대가 교과서를 통해 '전쟁도발 책임이 북에 있다' 등 통상상을 일관성 북과 공존할 수 없다'고 배웠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의 상처를 국

회복이 한다. 평화의 위대한시에는 결국 북

회복이 한다. 평화의 위대한시에는 결국 북

### 젊은세대 새로운 방식 필요

권 = 대중에게도 남북관계가 주로 좀 안전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의 의식, 접촉 붓고와 남북 등에 대해 변질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 학습 과정에 대해 어떻게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도 = 구체적인 교류 분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화해들이 오가며 감화하는 시도를 제안해보고 싶다. 또 언어 아갈화는 양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떻게 우리말을 세계 문화사원으로 만들 것인가는 공동관상이 될 수 있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국어사전도 필요하다. 어느쪽도 아직 지방화 만한 사건이 없다. 문식 등 민족을 뜻하는 또 어떤가.

권 =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일찍이으로 분단된 생태계와 생태학적 지식을 복원하는 일이 있다. 공동연구조사는 방법도 좋고 남북자간에 그런 인식조차 없다. 비무장지대에는 원시적 유물상 생태계가 조성됐는데, 앞으로 남북공동대안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다. 생태 분야는 정치적 의미가 없이 같이 할 사업으로 아주 적합하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교류조차도 정치적 도구이거나 화의를 갖게끔 기화·연공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학습감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는 접촉을 어떻게, 누가 주도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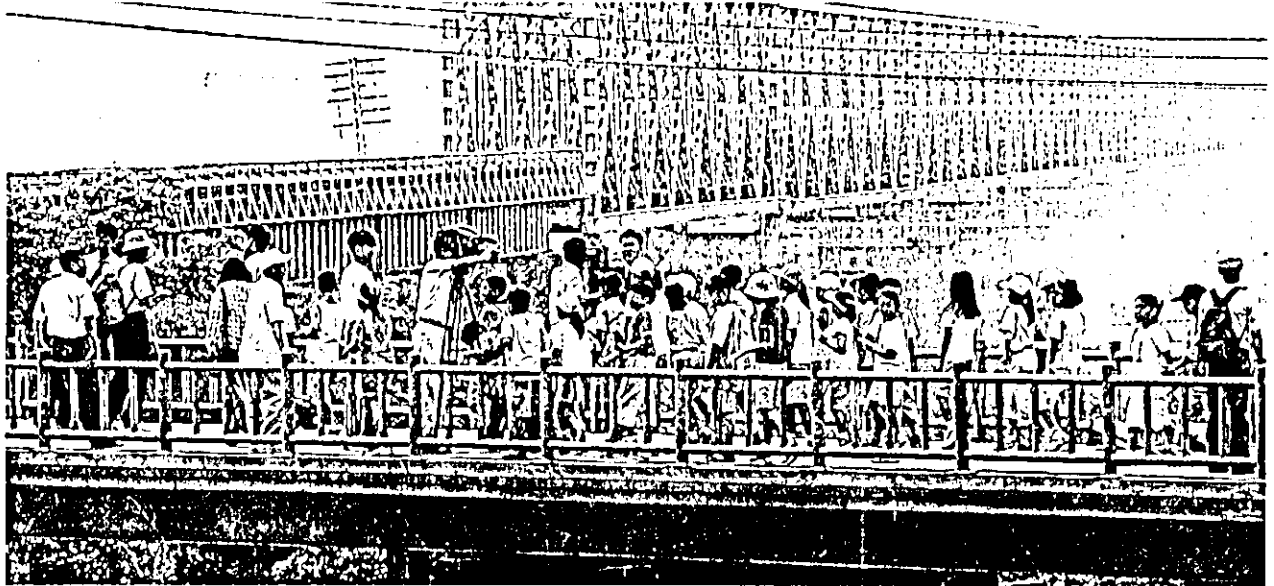
김지태는 중앙일보 기자 겸 시사칼럼

들어줘야 한다.

도 = 그동안 북한쪽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민간 접촉을 추진할 만한 사회구조나 조적이 있었는지 회의적이였다. 이번 회담에서 보면 북쪽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 어떤 레임이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기대해한다. 각국 공화물 만들어 내는 것은 남북한 양쪽 주민이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대지 없이 불가능하다.

권 = 지금까지 북한은 문화·예술, 비정치적 분야 공중관계에서의 접촉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국제기구끼리의 접촉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국제기구 통해 남북이 접촉을 하면 서로 계면도 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다차원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불모지한 민간 교류의 태도 변화가 기다려질 필요가 있다.

질리·빅토럼 권희준 기자 joo@hnews.co.kr



걸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임진각 동 안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한강학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임진각/김진수 기자 jskim21@hani.co.kr

■ 보수 논객들 시각

깊은 당혹감속 '만남' 긍정평가

남과 북의 정상이 뜨겁게 두 손을 맞잡았다. 한반도를 지배했던 두꺼운 냉전의 얼음장에 태양이 가는 소리가 난다.

가대를 넘어선 북한측의 파격적인 입장과 그에 따라 남한 시민사회에 밀려든 통일 의 기대와 감격의 물결은 일탄 반공·우익 인사들조차 미끼까지 않고 흔들여놓은 듯하다.

남북의 역사적 만남을 여전한 의혹의 눈초리로 노려보면서도 민족회합의 분위기에 당황해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공지에 떨어진 북한이 머지못해 쫓겨간 거대한 한민족의 '쇼'에 놀아나는 꼴"이라는 침언을 잊지 않는 이들도 있다.

지난 김영삼 정권 때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김영삼 정권은 북한과 전쟁을 각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던 조갑제(55) <김간조신> 편집장은 "13일 하루 만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심식적으로 보면 모양이



이철승 대표



이도연 발행인



조계재 편집장



오세도 변호사

남쪽 반공체제 무너뜨릴 것

정상회담 용어조차 불쾌

김위인장 영접 모양 좋아

평양동포 환영 감개 무량

좋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김정일 위인장이 직접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 파격에 대해 "예초 우리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해방공간의 대표적인 '반공검사' 출신

신 오세도(83) 변호사는 "김정일 국방 위인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맞고 60만 평양 동포가 환영하는 장면을 보고 나도 감개무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인사들은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불쾌감과 함께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78) 대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에 반공체제를 무너뜨리는 견과를 남겨 둘 것"이라며 "요 며칠 우리 방송은 평양방송인지 남한 방송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보수우익 월간지인 <한국논단> 이도형(67) 발행인은 이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55년 만의 두 체제 정상회담'이라는 의미 부여에 대해서도 "55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상관없다"며 단호히 부정했다.

손원재 김소민 기자 wonje@hani.co.kr

■ '국시' 발언속고 유성환 전의원

좌경매도 앞장선 이들 방북환영 "담담해요"



니다."

지난 80년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을 통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

라 통일이며, 어떤 체제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국시는 전'을 일으켰던 유성환(68·사진)씨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본 소회의 첫 마디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이 발언이 벌이가 왜 면책특권까지 박탈당한 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연설문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이방적으로부터 '연설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수십년 동안 가슴에 담아온 믿음을 철회

할 수는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지난 6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신군단 부녀 상봉사건을 본 뒤 '이산가족 변화소' 설치할 요구하고는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한약의원 시절 침도침을 상대로 '풍암호와 새마을호의 동남을 맞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치 전도' 불 바로잡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을 좌경분자로 몰아붙였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와서 대통령의 방북을 두손들어 환영하는 것에 대해, 그는 "역사적 모순이

라기보다는 옳 것이 너무 늦게 왔을 뿐"이라며 담담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97년 늑고막에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해 지난 2월 '대북 포용정책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민족통일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에게 민족이나 통일보다 상 위개념은 없습니다." 유 전 의원은 "두 정상이 서로 다른 체제의 대표로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한민족의 대표라는 자세로 대화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원영근 기자 jona@hani.co.kr

북한특산품 매출 경중

유통업계 정상회담 특수

남북 정상회담에 힘입어 13일 하룻동안 백화점들의 북한 상품 매출이 그 전보다 대폭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부터 '북한 특산품'을 열고 있는 영자백화점 안산점의 경우 하루 100만원 인원이던 행사 매출액이 13일 하루 300만원이 넘었다. 이 백화점 구리점도 13일 이전까지 하루 평균 200만 원이던 북한상품 매출이 13일 400만원으로 늘었다.

'남북한 통일특산품'을 열고 있는 롯데백화점에서도 남한 특산물 매출이 부진한 반면, 표고 버섯, 명태, 들깨술, 머루술 등 북한산 식품은 13일 매출이 그 전보다 22% 늘어났다. 특히 술의 경우 14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



서 역시 이날 북한특산품 매출이 평일에 견줘 15% 정도의 신장세를 나타냈으며, 북한 전품종을 비롯해 깃털부채, 그림 액자 등의 민속 공예품은 3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영자백화점 김창민 대리는 "남북 정상이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물론 판매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일본오픈탁구대회에 불어오는 '평양 훈풍' "남+북=단일팀+α?"

엄청난 전력상승 우려 각국선수단 관심 촉각

평양에서 부는 훈풍은 일본 교베의 '녹색데이탑' 위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매마침 15일부터 열리는 일본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베에 모이는 세계 각국 선수단 덕분이다.

이들의 화제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 일본방을 밟자마자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들은 게 '평양 소식'이기에 한국선수단을 만나면 깃 마디로 강상회담 얘기를 꺼낸다. 그리고 운동선수단계 대회는 자연스레 남북탁구단 일원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11일 경으로부터 2001오사카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특히 한국대표팀과 같은 호평에 부속하고 있는 중국선수단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지난 9년의 저마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감독도 소상히 기억된다. 식당에서 마주친 세계여자랭킨 1위의 왕난(중국)은 진

지한 표정으로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베시립중앙체육관에서 연습 중이던 단연 스웨덴팀의 만트라 코치도 "남북단일팀은 지난 9년 '1+3'임을 보여줬다"고 회고했다.

대표팀 윤창문 감독은 내년 세계대회에 단일팀이 출전하면 이차단체전에선 해를 만하다고 전망했다. 지바 대회 당시 '녹색데이탑의 마디' 팀이 링이 이끄는 세계 최강 중국팀을 꺾고 단체전에서 우승한 여자팀의 감독으로서 단일팀이 가져오는 엄청난 상승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그의 기대는 더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뿐만 아니라 전력상으로도 북한엔 세계 강상급 여자선수 김연희가 있어 큰 보탬이 된다. 윤감독은 김연희가 저급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탓에 랭킹은 낮지만 실제 실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내려갈 앞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 힘이 나네요" 대표팀 주장 김태수의 말이다.

교베=류경호기자 khyoo@kmb.co.kr

문화일보

인터넷으로 북한미술품 감상하세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사회각분야에서 북한특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분야의 한 벤처기업이 남북미술작품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스템개발분야 벤처기업인 유니카이아(www.unikaia.com)는 최근 시범법인 남북코리아 미술교류협회와 공동으로 남북미술작품 교류·전시회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시·판매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회사측은 올해안에 국내에서 남북작품의 교류 전시회를 갖기로 하고 미술교류협회와 함께 북측 미술계인사들과 구체적인 접촉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카이아는 현재 인민예술가 김성민의 '삼인무(三人舞)' 등 150점의 북측작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시하고 있으며 이중 20점의 작품은 실물을 입수, 보유하고 있다.

실물 작품 20점은 판매도 가능하며 인터넷 전시 작품은 조만간 1000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회사측은 또 운보 김기창 화백을 비롯한 국내 유명화가들의 작품 300여점을 북한 작품들과 함께 인터넷에 전시하며 남북미술품의 실질적 교류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6년 '시스넷 통일연구소'로 출발한 유니카이아는 시스템개발과 전자컨설팅 등을 주업

무로 해오다 지난 해 서울 관악구 벤처육성기업으로 선정되며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 뛰어들었다. 이후 유니카이아는 벤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남북미술의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전시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미술교류협회와 북한 미술품 전시판매에 관한 독점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 시보현(徐輔賢·46·유안대교수) 대표이사는 "오는 8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남북미술품을 직접거래할 수 있는 판매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올해안에 실물작품의 교류전시를 개최해 미술벤처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기자>

매일경제

확대정상회담→확대회담→공식면담

'만수대 만남' 명칭 한때 혼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틀째 된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연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

13일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만수대 만남의 정상회담북측 참여라는 최고위(급회담)인사 아니면 회담인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는 김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은 만수대의 회담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

남측 정무는 만수대 의사서에 따른 김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확대정상회담'으로 규정했고, 오전 9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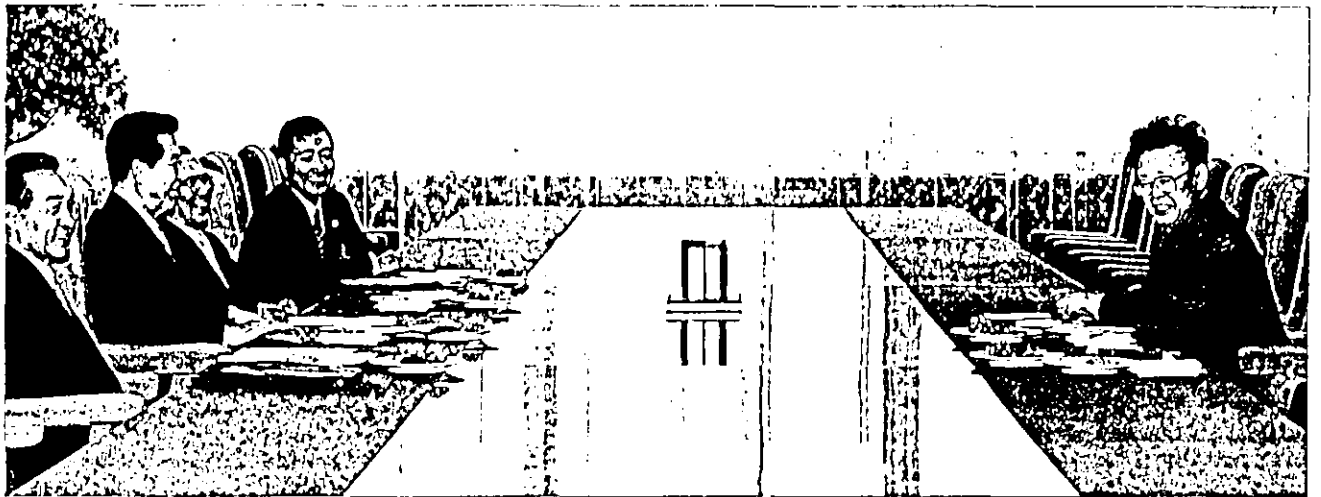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통령 방북 1주년을 맞아 열린 '만수대 만남'을 통해 정상회담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지 마자 중앙공보위원회는 '보도 합요자료'를 통해 '확대회담'으로 용어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 이상 흐른 밤 12시에 평양 취재단은 확대정상회담도, 확대회담도 아닌 '공식면담'으로 회담을 규정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양 차관은 결국 이날 오후 3시 장제 브리핑을 통해 공식면담 혹은 의례면담으로 이해해줄 것임을 밝혔다.

# '6·15선언' 한반도 평화대장정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오후 백화관 명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한담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당국 채널 통한 상봉물꼬 비전향 장기수 北送할듯

6·15 선언은 당국선 공식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남측의 이산가족은 북측 위문과 상봉하게 되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산 가족상봉은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자동적으로 예상되고 예단이 나왔다. 남측측은 이산가족 문제에 해결의 반데, 남측측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허용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적·제정식으로 이뤄지 원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당국선 합의에 따라 공식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가족간 문자와 전화와 서신교환, 장거리 조식을 해3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직접 없는 공식적 비호까지 수행되고 북측 단종의 북이 아래 작위 받고,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이산가족 문제가 첫 제기된 것은 1971년 남측 청진자 회담 지금까지 30여차례의 직접적 회담이 있었으나 남측 남측 합의로 상봉이 이뤄진 것은 1985년 남측 이산가족 20여명만 및 해공이었다. 교외 방문에 뿐이

었다. 당시도 남측 35명과 북측 30명만이 가족을 만났다. 이산 가족문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강요 온 북측의 태도 때문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북측과 차관급 회담 등을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일부 이산가족의 상봉을 눈감아 주던 북측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안전부만에 관련 기구를 설치, 북한내 실패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정상회담에서 70여개 이상 고령 이산 가족 25만명 중 매년 1만명씩 상봉을 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재결합의 시급성을 역설했고, 이에 대해 김정은(金正日)위원장도 비전향 장기수들도 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 합의점을 찾게 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당국선 후속회담을 통해 ▲고령층 상봉을 우선 추진하며 ▲1-2차례 시범적 이별특정이 아닌 지속적인 상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남측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중 북측을 희망하는 사람은 55명이다.

/북진용기자 hdd@hkk.co.kr

### ■ 평행선 통일방안 집적찾아

## 南北상호 체제차이 인정 점진적인 통일국가 추구

남측 정상은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협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던 양측이 처음으로 통일의 구체적 방법론에서 협정을 찾았다는 의미로 지낸다.

이같은 정책적 대전환은 남북 양측이 상호체제의 공동번영 단계로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이 각각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전자의 핵심은 상이한 상호체제 인정, 상당기간 2국 2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체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호 체제 인정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천만 민족간 화해적 공언에 이뤄진 뒤 국기일체로 나아가겠다는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두 정상은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방제인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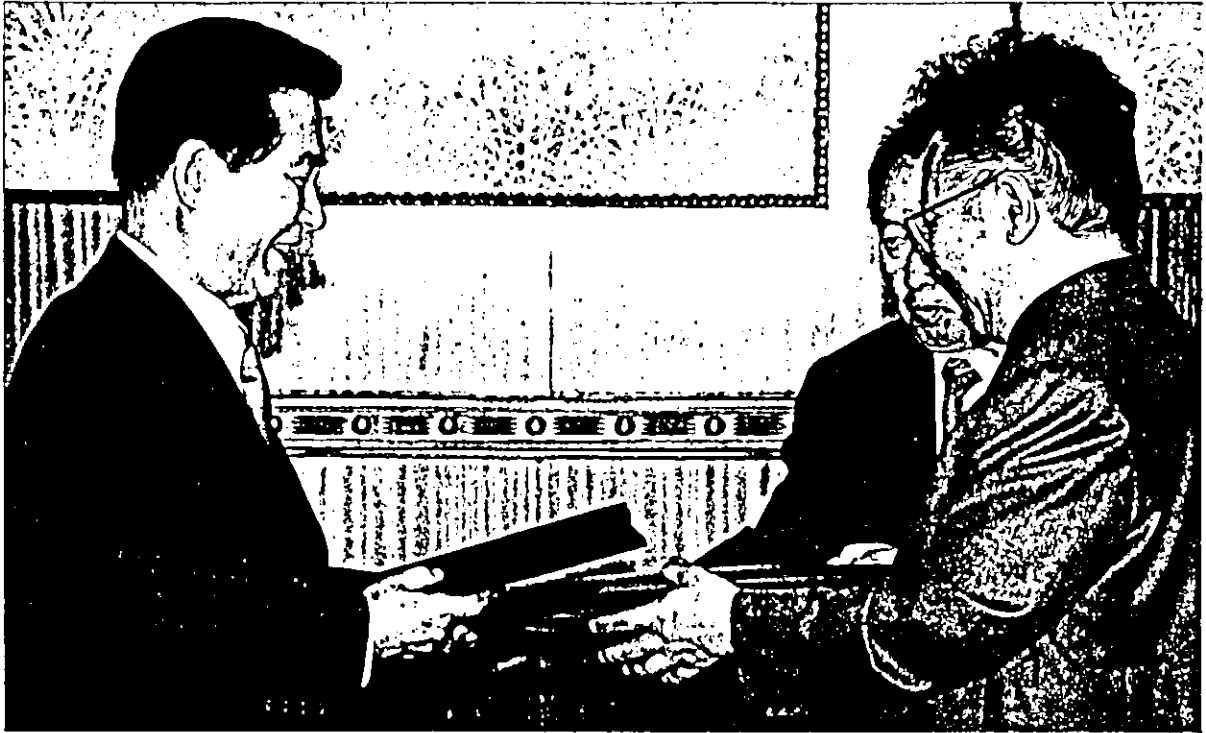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와의 선언은 향후 남북 양측에 통일 방안들에 대해 논의의 불을 지펴 실천가

능하고 합리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노력에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이 내세우는 3단계 통일방안이 주목된다. 김대중은 집권하기 이전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남북연합'에 이어 '연방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비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노동당의 6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이래 김일성(金日成)주석 사망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이어져 왔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1민족 1(연방)국가 연방도(체제) 2(지역자치)정부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1980년대 연방형 연방제에서 집중적·단계적 연방제로 그 성격이 변했다. 당시 김주석은 제도통일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제도통일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제도통일 후대인, 지역지치정부의 권한강화(외교권, 군사권, 내치권)를 주장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통일방안의 영역을 고려민주연방제로부터 초국적일 3대 연정으로 확장함으로써 집중, 완해, 대화를 통한 남북간의 협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용주의를 가미시켰다.

/김승일기자 ksu@hkk.co.kr



## 선언문 교환 '역사적 순간'

역사적인 순간 2000년 6월 14일 오후 11시 20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 방송을 열반관에서 열린 북측과 다발을 열어 북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교환하고 있다. 한국 역사에서 세 번, 열리는 순간이다. /중앙·통신사 사진기자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김 대통령 숙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5개항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

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8·15에 즈음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선언은 또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며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틀 시일 안에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차례 휴식을 취해가며 오후 6시50분까지 다라몬 회담을 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으며 밤 11시20분에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와 관련해 박준영(朴俊榮)청와대공보수석은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북측의 의견을 들어 상

호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합의를 이뤘으나 이제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측간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측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관계개선 등 협력을 강조했다. /중앙·공동취재단





# 남북정상회담

5개항 남북공동선언 의미와 전망

## 김정일 답訪 약속 화해상징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양측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절묘한 합작품으로 볼수있다. 남쪽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북쪽에서는 대외정책의 전환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합의에는 양측의 이해가 심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양측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 끝에 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하다. 정상간 합의인 만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여타 합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양 정상이 국제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분단 당사자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은 향후 양측 당국간의 책임있는 노력을 함축한 것이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양 정상이 남측의 한민족통일방안(국가연합통일방안)과 북측의 고려연방제의 공통점이라할 수 있는 상호 체제 용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동업의 공통점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범민족적인 화해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다.

아울러 양 정장은 85년 고강방문

단의 사례처럼 올 8월 15일에 즈음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상호 교환키로 해 이산가족 문제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발맞춰 남한내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점도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협력의 추진키로 하고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대목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깊어진 협력을 갖고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태를 조성하려는 김대중대통령의 베풀린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당국대화를 개최키로 해 이러한 합의사항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한 대목은 양측 체제간 화해의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등 세계 각국이 평양정상회담의 성공 평가기준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회를 꼽았던 점을 상기하면 김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은 평양회담의 성공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①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 ② 兩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 ③ 8·15 친척방문단 교환
- ④ 經協, 민족경제 균형발전
- ⑤ 합의실천 당국간 대화

## 김정일 적절할때 서울방문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인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출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을 '6.15 선언'으로 명명합니다. 서명은 14일 밤 11시 20분 이뤄졌지만 공동선언은 15일자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 밤 11시20분 역사적 서명

14일 밤 11시20분 백화원 영빈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광동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클라이막스로 장식했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 끝에 5개항 합의라는 '옥동자표'를 남긴 뒤 만들어 낸 드라마였다. 이에 앞서 남북정상간의 2차 회담은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5시20분에 1차 정회했으며 오후 6시5분에 속개해 45분만에 대담원의 문을 내었다. 밤 9시에 이뤄진 것으로 예정됐던 역사적인 선언문 서명식은 양측 대표단 문안 교환 과정에서의 진동때문에 밤 늦게까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밤 11시20분에 성사됐다. 역사적인 서명식장은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였다.

## 남북정상회담

이모저모

### ● 서명식

김대중원의 숙소이자 2차 남북회담장이었던 백화원 영빈관내 소회의실에서 이뤄졌다. 밤 11시20분 두 정상은 회의실내 카디안 바순기나 탁자에 서로 마주 앉았다. 김대중원의 왼편엔 임동원(林東源)부모가, 김위원장의 오른편엔 김용순(金容淳)이내평화위원장이 자리했다. 두 사람이 선언문 도출과 작성의 숨은 주역임을 알게 하는 장면이었다.

김대통령은 김하중(金夏中) 의정부서기관이 푸른색 표지에 붉은 선언문을 앞에 끼 주자 맨먼저로 서명했고 김위원장은 진희성 의정부남무시가지 김대준 간석표지의 선언문에 맨먼저로 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썼다. 김하중은 양측의 의정부서기관은 두 정상은 서명한 선언문을 바꿔 각자의 정상 앞에 끼 놓았고 두 정상은 상대방이 이미 서명한 선언문에 다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김대통령원에는 우리측 공식수행위원이 도우며 있었다.

두 정상은 서명을 모두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문지방 교환한 뒤 양측 배석자들의 박수 갈채 속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쉬웠다. 두 정상은 이어 테이블 옆으로 이동, 나란히 서서 사진기자들에게 두 손을 맞잡아 들고 포즈를 취해 줬다. 서명식을 모두 마치고 두 정상과 배석자들은 삼패인잔을 들어 입맞춤을 건네고 한 뒤 '원 샷'을 했다. 이어 두 정상은 배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손을 굳게 맞잡아 이마를 누르며 '우의'를 확인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김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 1층 현관까지 나와 김위원장을 배웅했고 김위원장은 "오늘 근심과 걱정없이 마음놓고 사흘과 같이 주무십시오"라며 김대통령에게 인사한 뒤 자신의 기차로 떠났다.

### ● 합의 도출

이에 앞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4개항에 합의, 이날 밤 서명키로 했다는 정보는 오후 7시에 먼저 나왔다. 오후 6시50분 정상회담이 모두 끝나자 남북대표단은 합의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고 있으며 9시에 정리된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박종영(朴正榮)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이뤄져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문 서명식은 심지어 한 이르지 않았다. 두 정상이 각자의 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저녁 평양 육탄관에서 김대통령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분단 55년에 걸친 불신과 대결의 참상을 다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건기자단

## 185분 마라톤 단독회담

오후3시경 회담시작 5시20분에 1차정회  
오후6시5분 속개 45분만에 5개항 옥동자  
문안절충 진동끝에 한밤서명 대단원  
서명마친 두정상·배석자 삼패인 '원샷'  
김정일 "근심없이 서울처럼 주무십시오"

찬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동안 서명식 개최 소식이 들리지 않자 대표단 사이에서는 "하루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신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밤11시20분경 서명식이 이뤄졌다. 소식에 전68지연시 분위기는 급변전했다.

### ● 전후반 회담 약간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오후3시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하는 동안 양측 수행원들은 회담장 밖에서 초조하게 회담결과를 기다렸다. 두 정상은 회담이 2시간 이상 마라톤으로 진행되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후 5시20분경 휴

식에 들어갔다 6시5분에 회담을 속개했다.

두 정상은 휴식에 들어가기 전 시종에서 백서로 전송된 신문보도합이 보고되자 나란히 서서 이마 놓고 잠시 쉬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남북언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자 "이 신문보를 드리겠다"며 즉석에서 김위원장에게 선물했고 김위원장은 수행원에게 전하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상회담장은 당초 김위원장의 집무실로 예상했으나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백화원 영빈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김위원장의

집무실에서 진담회담을 하는 것이 선배이나 우리 민족은 동방예지국이므로 젊은 사람이 백화원으로 오겠다는 뜻을 김위원장이 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2차 남북정상회담

1차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오후2시57분에 영빈관 현관문이 열리면서 김위원장이 먼저 들어섰고 김용순(金容淳)이내평화위원장이 뒤를 따랐다. 회차 인민복 차림의 김위원장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대통령에게 위수령을 받으며 우렁찬 북소리로 "편히 주무셨습니까"하고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의 회담은 20분 이상이 회의록을 쓸 수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세장 종이에 마주 보고 앉았다. 김대통령은 왼쪽에 임동원(林東源)과 이기호(李基浩)경제수석, 오른쪽에 황원만(黃源萬)외교안보수석을 배석시켰다. 김위원장은 왼쪽에 김용순(金容淳)이내평화위원장을 배석시켰다. 김위원장은 비닐 서류봉투에 넣어 있는 10여페이지분량의 자료를 자신의 앞에 놓았으며 김대통령도 노란색의 두툼한 봉투를 앞에 놓았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손을 잡아주고 화해와 협력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평양=참가대사진기자단

## 김정일 교환방문단 함께 올수도

### ■ 언제 서울 답방할까

#### 年内 방문 성사 불투명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서울을 찾은 '최적한 시기'는 언제일까.

박종영(朴政榮)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남북 정상에 6·15 남북 공동 선언에 서명한 뒤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맞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북측의 의견을 들어 상호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미뤄 방문시기에 대한 두 정상간 의견 조율이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연내 방문'이라는 단어가 공동선언에 없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연내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가능해야 할 것 같다. 연내 방문이라면 우선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는 55돌 광복절을 짚을 수 있다. 이산가족의 희을 씻고 분단국가간에 식민지 해방의 검축일을 함께 맞는다는 정신이 발휘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8·15 이후에 성사된다면 9월, 10월의 유엔행사 등 국제일정,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10월 10일) 등 북측의 스케줄로 인해 11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올 노동당 창건기념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수립을 원경짓는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10월 서울방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김국방위원장의 연내방문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많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최고통수권자 서명 '실천력'

### ■ 91년 기본합의서와 다른점

#### 통일방안 공통분모도 찾아

남북공동선언은 민족 봉일의 대장전이라고 불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서명의 주체다. 6·15공동선언은 양측 최고통수권자간에 작성했으나 기본합의서는 8차례의 총리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합의 주체의 차이로 실천의 정도가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공동선언은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대목이다. 공동선언은 항상 대립했던 양측의 통일방안에 조화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고 반면 기본합의서는 양 체제간 화해와 협력, 분기점에 초점을 맞춰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기본합의서가 90년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체제가 상당히 수세지일 때 마련했다면 공동선언은 북한체제가 적극적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데서 특징을 지닌다. 이는 북한이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

할 것으로 보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선언은 화해 교류협력에 첨가점을 규정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되살려야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합의서에 지세히세 명시된 화해와 교류협력 첨가점 조항 등이 실천돼야만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부 당국자들이 향후 추진될 남북 대화의 형태로 기본합의서상의 공동위원회를 기념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남북정상회담

## 전문가가 보는 '남북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명백히 긍정적이다. 화해와 평화,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각종 교류문제 등에 대한 합의는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인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를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남북간 교착상태를 일소하는 계기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면 실질적 남북연립의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끈질긴 포용정책이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주도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패해 낸 결과이다. 이렇듯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 김정일체제의 자신감이 여기에 위축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는 실패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박건영  
차별대·기동력대 국제관계대학원장

## 남북 교착상태 일소하는 계기

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분명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북 합의할 과도한 국민적 기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합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안정적 남북관계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국제외적 제 조건들을 국익과 민족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조정·관리해 나가야 한다.

실경과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요인은 주변국들의 협력이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계명의 또 다른 행위자인 미국 등 주변국들의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 미국정부의 노선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기 정권은 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해야 한다. 단편적 미국 정책결정 과정에 일방적으로 작용할 반감의 영향력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능력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의지와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그렇게 된 경우에 비로소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남북 최고지도자간의 따뜻한 만남과 그 결실은 우리 민족에게 감격과 희망을 주었다. 아제는 한미 관계를 전방적으로 재조정하고 중국 일본 등의 건설적 역할을 자극하는 작업에 주축해, 그러나 분열력을 가지고 조선스럽게 착수해야 할 때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명한 5개항 의제들 보면 포괄적 내용으로 채워진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남북한 화해 및 협정,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은 전부진 준비 접촉 과정의 의제와 대응소이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준비접촉때 3인인 교류·협력에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사회·문화 교류 등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5개항은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후속적 실무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 합의에서 5개항



송영대  
宋榮大·전통일원차관

## 포괄적인 내용 실무협의 필요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천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과거의 남북대화 사례를 보면 북한은 의제 설정과 원칙에만 합의한 뒤 이행과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지연하거나 피기함으로써 합의문을 묵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5개항 합의는 실천 과정과 상관없이 잘 지켜야 한다. 이번은 원칙 합의에 남과하다고 봐야 한다.

또 북한 방송이 14일 민주대의사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공식면담을 가진 것을 '북남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북측은 '상봉'과 '회담'을 분리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위원장의 면담을 공식 회담이라고 밝혔다. 이 대목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14일 오후 김대중과 김영남위원장이 3시간가량 만난 것을 두고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김영남 위원장이 면담과정에서 우리측에 한·미·일 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것이 양측 실무협의 과정에서 감춰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일 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것이 양측 실무협의 과정에서 감춰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일 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것이 양측 실무협의 과정에서 감춰질 수 있다.

## 가명쓰는 對南전문가

### 가명 본명

전금철→전금진 내각참사

백남준→백남순 위무상

안경호→안경호 조평통국장

원장 직함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은 전금진 처럼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백남순(白南淳·71)외무상도 한때 백남준이란 가명으로 더 알려졌다.



전금진



백남순



안경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3일 백악관 임박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한담했다.

김대중이 양정실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 묻자 김위원장은 "전금진(全金鎭) 조선 이시야 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가 묘향산의 춘하 추동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이 언급한 전금진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지만 실은 전금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1958년 김일성총대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그는 1970년부터 30여년간 대남사업에 종사해온 대남협상 전문가다. 그는 일련의 남북회담에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1988년 남북 국외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장을 맡았으며 남북고위급 회담 때는 북측 대표위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95년에는 남북 철도회담 북측대표, 98년에는 남북 차관급 비료회담 북측 대표를 맡았다. 그는 현재 내각 책임장시뿐만 아니라 조평통 부위원장과 조선 이태평외무 부위원

장도 맡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은 전금진 처럼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백남순(白南淳·71)외무상도 한때 백남준이란 가명으로 더 알려졌다.

남북 고위급회담때도 백남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1998년 9월 북한이 외무상에 백남순을 기용했을 때 우리 국정원과 통일부조차도 백남준과의 동일인인지 확실하지 못해 애매 뱉었다. 그가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으며 폴란드 대사,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 백남순은 그러나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나왔을 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70)도 99년 3월까지의 안변수리는 가명을 사용했다. 강원도출생이며 조평통에서 전배가 굵은 대남 전문가다. 남북 국외회담 준비접촉 대변인,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을 맡는 등 인연이 뛰어나 남북협상에서 주로 북측의 입으로 왕조에 왔다.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과 법민인 북측 본부 부의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14일 민주대의사장에서 열린 공식면담에 북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이명섭기자 ymings@hk.co.kr

## 우리측 "공식면담" 北 "최고위급회담" 보도

### 송대통령-김영남 만남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공식면담'을 북한 언론보도로는 처음으로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8시에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공식 면담'을 '북·남 최고위급 회담'으로 지칭했고 김대중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중앙TV는 8시 보도 첫머리에서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회담이 14일 민주대의사장에서 진행됐다"고 말해 남측의 '공식 면담' 표현과는 달리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정상회담 개최 장부부터 서적 성격과 '최고위급 회담'의 성격 규정을 놓고 빚어졌던 논란을 상기시키면서 북측이 굳이 '상봉'과 '회담'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되풀이보게 했다.

# 냉랭했던 독일과는 '천양지차'



## 남북정상회담

동서독과 비교

### 70년 브란트 그야말로 '만남'에 의미 南北 모두 적극적 자세 실질적 합의

13일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은 20년전의 동·서독 정상회담과는 정반대 첫 상봉의 격식, 회담의 내용과 진전속도 등 여러 면에서 큰 대조를 보였다.

1970년 3월 19일 당시 동독의 조그만 국경 도시 에어푸르트시에서의 서독 브란트총리와 동독 슈토프총리의 첫 만남은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동독령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어푸르트역에서 짧은 인사를 주고 받은 두 정상은 의전행사도 없이 곧바로 회담장으로 직행했다.

이와 달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첫 상봉은 세계가 놀랄 만큼 파격적이다. 두 정상은 김위원장의

공한영전, 3군'의장대 행사, '승용차회담', 백화원 영빈관에서 1차 정상회담 등 첫날 일정에선 14일 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남북이 55년의 반목을 녹이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이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브란트총리의 부엔파트 나치수용소 현화 때 예포를 쏘고 회담의 리본에 '독일연방공화국'이란 서독의 국호를 적어넣은 것 등은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전은 동독정부가 국제법적으로 동독이 국가로 인정받아 공산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동·

서독 정상은 두 차례의 확대회담과 한 차례의 단독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공동합의문이나 언론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 정상은 첫 대면 이튿날에 남북간 화해와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5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김위원장이 13일 첫 상봉때 "섭섭하지 않게 대화하겠다"고 말해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했으나 단 세차례의 정상회담만으로 이처럼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표면상의 겉과만은 두 회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동·서독이 첫 만남에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 19년이 걸렸지만 남북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동서독과는 달리 격식을 버리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한 남북 정상들의 첫 만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앞당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 "이제 민족눈물 거둘때 왔다"

### ■ 김대통령 만찬사 요지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삼 위원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날이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동안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첫 해에 우리 양측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 이유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큰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남과 북이 함께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인

세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민족의 미래를 크게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을 털어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겨레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법치 없이 통일예의 목적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 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진정으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서로 힘을 합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쌓아가면 협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가 가득하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번영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 여러분, 이제는 6월이라는 달이 민족의 비극이 아닌 내일への 희망의 달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달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 마치 스타탄생? '김정일 쇼크'

전국이 울릉 남북정상회담 신드롬을 앓고 있다. 직장 학교 거리에서, 혹은 최근후 기차와 승선에서도 다른 회자가 깨어날 여지가 없다.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단 한차례 인수만으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이미지가 단번에 격상됐는가 하면, 생경하기만 했던 북한의 노래·머리위가 어느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전 통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이상기화와 과도한 기대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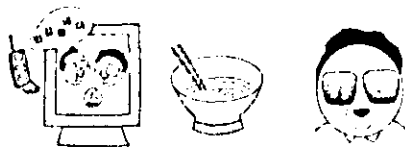
### ■ 김정일 이미지

"귀엽다." "멋있다." 13일 오전 한 방송사 관계자는 함께 TV를 보던 여성방송작가들이 터뜨린 환호에 직감이 닿았다. 첫날 환영행사와 14일 정상회담장에서 보여준 김위원장의 기이없는 재스치와 농담까지 된 채는 어유에 그에 대한 부정 일문도

### ■ 김정일 마케팅

김위원장의 선글라스 등 '패션'도 인기몰이로 조심할 모양이다. LG유통 관계자는 "된다 김의 선글라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듯 올 여름에는 김위원장의 선글라스가 50대 중년남성들에게 이쁠까? 걱정"이라고 내다왔다. 실제로

“멋있다” “귀엽다” 반응까지  
포스닥거래서 연일 상한가  
선글라스·키높이구두 인기



북한 노래 휴대폰 벨소리로  
북한식 머리위 경례 유행도  
'평양온반' 인기메뉴로 자리

의 인식이 동반된 것.

회사원 유승환(劉承煥·31)씨는 "선글라스적이고 권병진 편집장직 복재지라는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다"고 탄어났고 심지어 김운진(金潤珍·26)씨는 "평을 받다니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다"고까지 말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 사이버공간의 전자인 주시시장인 '포스닥'(www.posdaq.co.kr)에서 김위원장의 주시는 13일 상장이후 연일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공시가 5만200원으로 첫거래가 시작된 김위원장 주시는 당일 최고 상한폭(10%)인 5만95,220원까지 올랐고 14일에도 '지자'주식이 밀려 다음에 6만95,220원까지 치솟았다.

'인경나라' 친호칭 관계자는 "김위원장의 선글라스는 70~80년대 유행하던 것이어서 지금은 생산이 안되지만 벌써 문이기가 있어 일단 재고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재화업체 관계자도 "김위원장의 키높이 뽕글구두도 다소 주춤해진 키높이 구두 시장을 잠정회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방에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14일 북한관련 책으로는 처음으로 대형서점 전자·사회부서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진입하는가 하면, 한 벤치기업은 벌써로써 김위원장의 캐리커츄 넣은 머그그린 생산에 들어갔다.

### ■ 휴대폰 벨과 컴퓨터 화면도

완전히 '50년대풍 구나라'로 외면받던 북한노래가 휴대폰의 벨소리

등으로 차용되는 등 일련 유행의 최첨단으로 부상했다. 아츠키뮤니케이션 등 휴대폰 벨소리 제공업체들은 최근 재발의 '빙김습니다' '평양의 노래' 벨소리 서비스에 포함시켰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이용자 조회수가 각 5,10위권에 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파람" 등 다른 북한 노래도 서비스에 될리는 고객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송민(29)씨는 14일 오전 한 신빙 인터넷 사이트에 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다음날이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새로 단장했다. 송씨는 "말째 우리 회사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들이 속속두 장상의 역사적 만남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다분히 장난스럽게 '빙김습니다'라며 손을 머리위로 들어 북한식으로 인사하는 모습도 젊은이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쉽게 눈에 띈다.

### ■ 북한 특수

'남북정상회담 기념 무료 생면 이벤트'를 열고 있는 귀순자 김 용(金勇·30)씨의 '노란리'를 비롯한 북한 습시 전물품들은 밀려드는 손님으로 겹꺼울 바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까지 극찬했다는 '평양온반'은 요즘 밀당기에서 점심시간 최고의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정보 및 비즈니스정보 제공업체 '조선인터넷 닷컴'(http://dprk.com)이 10여억원의 상금을 걸고 벌여온 '평양의 날 맞이하기'도 하루 2~3명 정도였던 응모자가 13일부터는 수십배로 폭증했다.

### ■ 지나친 미화는 말아야

명사대 배성동(裴成東·북한학)교수는 "지금은 남북 북 모두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때인데 다소 열기가 지나친 느낌"이라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보면 큰 일을 그럴 수 있다"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류길재(柳吉在)교수도 "TV화면에 열거 나타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외교부대에 대비하기위해 연출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과 행적 등을 감안해 종합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준현기자dcjavu@hk.co.kr 김태훈기자oneway@hk.co.kr

# 부정적 이미지 극적반전 효과

## 김정일위원장의 파격성동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교수는 김위원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예우와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일단 "이번 금 남북대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김 위원장(金正日)교수도 "김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 굳게 단결할 방침을 밝히고 한반도 문제는 양쪽 남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내 정음(鄭容)교수(鄭容)교수는 "김위원장의 행동을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간 대사부신의 개성이 강했음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고비용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파격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세계적 상대로 하는 구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연희정교수는 이런 점에서 "김위원장의 행동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박탈시키고 '핵안정'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자체로 김위원장의 변화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큰 의미가

## 남북정상회담

## 전문가들이 본 '김정일의 파격'

'공정 명칭' '승용차 동승' '제1, 2차 정상회담 등에서 보여준 거침없었고 자신에 찬 행동' 등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무위원장이 우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맞는 과정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예우와 행동이 앞으로 남북관계 전반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지가 관심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의 파격적 행동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침투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김위원장이 14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의 방문을 계기로

동생회에서 해방됐다"고 농담한 김위원장의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또 김위원장이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순간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전세계인들에게 자신의 완전히 노출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극적인 이미지 반전을 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내실을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낙관론도 있으나 유보적인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

### ■ 도움말 주신 분들



김규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희정  
명지대 법정부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항구  
통일연구회 회장



정용석  
단국대 북한학 교수

## 세계적 이벤트 의식 신선했던 연출 즉흥적 아닌 오랜준비 있었을것 베일속 그동안 과소평가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윤덕민교수는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한 데 따른 부담을 감내하고 남의 사람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는 시가를 보였다."

또 이런 점에서 공화연정도 김위원장의 파격적 행동이 그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 현상으로 구체화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통일연구원 김대중(金大中)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예상외로 많은 의전과 예우를 김위원장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또 북한 내부에서 꾸준히 준비가 있었고 남북한 사이의 준비도 비정기성을 포함해 약 2년동의 준비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을 요구한 한 국제연구기관의 북한문제 전문가도 "김위원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비(對美), 대일(對日), 대(對)외관계까지 포함하는 면밀한 계산

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측 선으로 국내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항구(李恒九)통일연구회회장은 김위원장에 대한 보다 솔직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회장은 "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됐고 김위원장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30대에 불과한 연배에 당당했으며 30여년간 영도주요직을 받은 사람의 정면적으 보면 놀라운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김위원장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그동안 남북간에 많은 준비가 있었고 김위원장의 변화가 아주 극적이었고 보는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전환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본격적인 것이냐에 있어선 좌절은 논란도 제기됐고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견해도 상당했다. 김규현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이 집권한 만큼 남북간에 내용적으로 의미



평양시인 정상회담 축하 평양시내 지하철 영광의 구내에서 한 평양시인이 로동신문에 실린 남북 정상회담 기사를 읽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있는 합의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후속회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정 교수도 "이번 회담에서 경험부족은 일단 물꼬가 트일 것이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의 전개와 가능성도 커 그것만으로도 참나래를 펼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용석 교수는 그러나 "50여년간의 대결관계가 공화연정 제1차 정점으로 해소될 수 있었을"이라고 반문한 뒤 "체제대립이나 체제보전에 따른 기본적인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윤덕민교수는 "김위원장은로서는 남측으로부터 경험자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그대로 부각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통일방안 등 대외적 명분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명분집착이 향후 대화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항구회장은 "북한의 변질이 변했다"지만 "파괴되어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의도에 호응하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태성기자 ts@hk.co.kr

“선생님...” “내모습 알만합니까”

# 이희호여사 60년만에 은사상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중인 이희호(李姬鎬) 여사가 14일 오후 4시45분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지난 40년 서 울 이화여고 재학 당시 '수학 선생님'이었던 김지한(여·86·평양 거주)씨와 60년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이여사가 인민문화궁내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서자 하얀 치마에 저고리를 치러입은 백발의 김

도 없고 음익을 가르치던 이순희 선생님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내가 '호랑이 선생'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 여사는 "착하신 선생님이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10여분간 얘기하고 있을 때 김씨의 딸 최운영씨가 봉투속에서 60년전 당시 이화여고 재직시절 학생들

### 前이화여고교사 86세 김지한씨와 인민문화궁전서 30분간 눈물 만남 빛바랜 흑백사진 보며 추억회상도

씨는 "정말 반갑습니다"를 연발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이여사도 "선생님, 반갑습니다"라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60년만의 만남이 믿어지지 않는 듯 서로 끌어안은 채 간동안 땀어질 줄 몰랐다. 이여사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예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고 하자 김씨는 "알만합니까"라며 진한 북한 이투로 답했다.

이여사는 최근 이화여고 동기생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해 모인 사실을 알리며 "현재 서울에 살아 계시는 남시의 선생님은 한 분

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사진 두 장을 꺼냈다. 손을 맞잡고 사진을 보던 두 사람은 일제시대 어려웠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잠시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씨는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를 졸업한 뒤 39년부터 44년까지 이화여고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광복 직전 평양으로 옮겨 현재까지 살고 있다. 두 사람은 60년만의 해후가 30년간의 '짧은 만남'으로 그치는게 아쉬웠던지 자리잡 뜨면서도 한동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희호여사가 14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화여고 재학당시 수학선생님이었던 은사 김지한(86·여)씨를 만나 두 손을 잡고 반가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정상회담

만찬 이모저모

따로앉은 **金대통령부부**  
**김정일 "이산가족되면 안돼요"**  
**"제가 한번 한라산 갈테니**  
**백두산 한번 오르십시오"**  
**南수행원 즉석 점심초청도**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을 위해 평양 폭관관에서 만찬을 주최했다. 만찬장 분위기는 행사 말미에 김위원장이 즉석에서 김대통령내외와 남측 공식수행원 1남 1수행원 50여명을 15일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만찬은 두 정상에 인솔한 참석자들의 기념박수속에 임종이면서 시작됐다. 5남여동원의 김대통령 만찬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다. 김정일위원장은 김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가 헤드테이블이 아닌 앞쪽 일반 참석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산가족이 되면 안된다"고 밝히 폭소를 자아낸 뒤 김대통령과 자신의 공간에 새로 자리를 마련,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배려했다. 김위원장은 "개심 음식이 맛있었고 개심 토박이에게 음식을 청했는데 맛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고 이여사는 "시골도 많이 적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미남들이 평양보다 "너무 크다"고 평하기도 했다.

두 정상에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동안 남측

입동원 대동령특보와 북측 김용순 아태위원장은 수시로 두 정상에게 다가가 귀엣말로 보고할 하고 즉석에서 지시할 받아 이들이 공동선언문의 조인 역할을 맡았음을 알게 했다.

밤 9시50분에 사지(使者)들을 통한 공동선언문 박판 집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 남측 수행원들에게 일일이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탄으로 나의 손을 마주 잡아 올라며 "완전한했음을 보고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파격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잡시 후 사진기자들이 자리를 비워 이 장면을 담지 못했다. 박준영 공보수석의 말에 김대통령은 다시 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탄앞에 나와 "조금 전에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다. 우리가 또다시 공동선언에 완전합의했다. 여러분 축하해 달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위원장은 "내가 연탄에 두 번이나 나갔으니 출연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농담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30여분동안 헤드테이블 주변에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중심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참석자들의 건배가 연쇄적으로 오갔다. 특히 김위원장은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인민군 간부들에게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김대통령에게 손을 건할 것을 지시, 시신을 모았다. 이에 박재규 대장 등 인민군 주요간부 6명이 함께 나와 김대통령앞에 도열한 뒤 먼저 박대장이 김대통령에게 손짓을 권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진을 비웠다. 김대통령은 다른 인민군 간부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다.

만찬에 앞서 가진 두 정상의 휴게실 탕에서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백두산에 한 번 올라가 시야 합니다. 제가 한 번 한라산에 가보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한려산,안개속해 한경 등에 대한 소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제가 너무 강가방동한 것 같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췄고 김대통령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김위원장을 배려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대중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가 14일 평양 창공거리에 위치한 창광유치원을 방문, 북한 어린이들과 손유 맞잡고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 /평양=창광대사진기자단

## “金대통령 오셔서 은둔 해방”

### ■ 2차회담전 대화록

**“잘자고 옥류관 냉면 참맛있어”**  
**“中갔더니 한국김치나와 놀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께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6분동안 환담을 나눴다. 다음은 대화록.

**김정일위원장**= 오늘 일정이 아깝부터 긴장하게 해서 안됐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여기저기 좋은 곳 많이 다니고 좋았습니다.

**김위원장은**= 즉 집자리가 편치 않았습니까.

**김대통령**= 잘 자고 옥류관 냉면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김위원장은**(진짜히 식사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 좀 급하게 지시면 국수가 원래 맛이 없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지금 대단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북의 첫걸음 정말 용단을 내리 여기에 오신 데에 대해 온 인민이 뜨겁게 맞이 했는데 인사차림이 제대로 됐는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김위원장에서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오시고 또 연도에 수신만 시간이 나와 환영해주고 해서 지로지도 아주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쪽에서도 모두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김위원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테레비(TV)를 봤습니다. 남쪽 MBC도 보고 서울 TV도 보고 했는데 남쪽 인민들도 다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실용이라든가 항목지를 소개하는데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기회에 고향 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나. 그들이 뺨라 지지 않았는가 많이 생각을 한다고 소개할 하십니다.

**김대통령**= (시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외국 기자들도 수백명이 나와 있는데 기념박수할 보내고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장면을 보고...

**김위원장은**= 원래 내가 어제도 말쑤드렸지만 인사죠...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아마 지금 법나게 외신들, 그리고 구라파 사람들이란 지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왜 은둔 생활을 하나. 은둔 생활을 하는 사업이 처음 나타났나...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에도 갔었고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외국에도 바 공개로는 많이 갔다오고 했는데 나보고 은둔생활을 한다. 그래서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모두 웃음) 그러면 듣기도 좋아요. 하도 모르게 했으니까.

**김대통령**= 일고 게실 분은 더 일고 게실대... (모두 웃음).

**김위원장은**= 중국에 갔더니 김치가 나오는데 한국 김치가 나와서 남쪽 사람들이 큰입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김치를 (세계에) 소개하게 하고 다시 일본에서 기무치라고 하는데 북조선 김치가 없어요. 남조선 김치는 좀 짜고 북조선 김치는 물이 많이 들어가... 차이가 있어요.

/평양=공동취재단

# 한맺힌 이산가족 모두 767만명

## 남북정상회담

### 진정한 이산 1세대는 123만명 생존 2,3세대포함 국민 100명당 17명 아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이틀 동안으로 이별감을 지기엔 이산가족은 하나도 없었을까. 정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96년 기준)은 이산 2,3세대포함 모두 767만여명. 국민 100명중 17명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셈이다.

연령 분류기준상 이산가족은 80세 이하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남측으로 유자 있는 경우로 1978년까지 북한지역으로 귀국지 친교한 사람이 516만8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미신고자 추정치 30~40%

를 가산해로 620만의 인구증가율(40.34%)을 감안할 때 96년 현재 이산가족 수는 760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부모·형제·자녀와 헤어져진 진정한 이산 1세대(1953년 7월27일 휴전 이전에 북한지역에서 귀환한 사람 또는 남한지역에서 귀환한 사람)의 가수는 123만명이다.

60세 이하가 54만여명이며 60~64세가 24만 8410명, 65~69세 17만6792명, 70~74세 12만 1301명, 75~79세 7만9830명, 80세 이상이 6만 372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만 60만명에 달해 남측 이산가족교섭의 통일이 지연될 경우 이산1세대 상당수가 고령화와 가족을 보지 못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 실정이다. 1세대 가운데 일부는 제3국에서의 생활, 북한 방문, 고령방문단 등 비공인채널 등을 이용해 북측 방문경로를 만들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많은 자연과 인공을 품은 채 반반의 달만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 생각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 사람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가장 가까운 황해도 출신자들. 이산가족 전체의 25%에 가까운 191만 6000여명(96년 기준)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다. 두번째는 배에 몸을 싣고 평사의 용남반출을 시도했던 함경남도 출신으로 169만2000여명에 달한다. 평안을 포함한 평남이 150만여명이며 평북(118만3000여명), 함북(83만8000여명), 경기(30만5000여명), 강원(14만3000여명) 순이다. /배성규기자 vege@hk.co.kr



85년 고향방문단에 참가한 이산가족이 상봉후 감격하는 장면(사진위)과 83년 카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KBS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산가족 출신도별 현황

| (단위: 천명) |       |       |
|----------|-------|-------|
| 1996년 현재 | 기초력   |       |
| 황해       | 1,916 | 1,365 |
| 평남       | 1,590 | 1,130 |
| 평북       | 1,183 | 841   |
| 함남       | 1,632 | 1,207 |
| 함북       | 838   | 597   |
| 경기       | 305   | 217   |
| 강원       | 143   | 102   |
| 계        | 7,667 | 5,428 |

※자료: 통일부

#### 이산1세대 연령별 분포

|        |          |
|--------|----------|
| 60세 이하 | 540,076명 |
| 60~64세 | 246,442명 |
| 65~69세 | 176,792명 |
| 70~74세 | 121,301명 |
| 75~79세 | 79,830명  |
| 80세 이상 | 63,727명  |

※자료: 통일부

## 연령·출신지 고려 추첨후 단계적으로

### ■ 상봉인원 선발 어떻게

남북 이산가족간 상봉은 연령, 출신도별 선발과 추첨당시도 가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이북5도연회, 통일부 이산가족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정식 등록원 사항은 총14만6,000여명이며 99년 9월이후 신청해 계류중인 경우는 2,200여명에 달한다.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경우 상봉신청자 수에 따라 1차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우선 선발 기준은 연령, 고향지일 수 뿐 상봉 0순위다. 또 다른 기준은 출신지역, 이북5도별로 상봉인원이 고르게 배분된다.

이에 따라 전체 상봉인원이 결정되면 1차로 2~3배수만큼 선발한 뒤 컴퓨터 추첨을 거쳐 최종 상봉자를 결정하게 된다. 통일부측은 이북5도연회와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 상봉 이산가족 선발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세부 방침을 정해 오래 전부터 민방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고찬욱기자 junda@hk.co.kr

## 90년 85건서 99년 1,318건으로

### ■ 이산가족 교류실태 ■ 중수교이후 크게늘어 ■ 비용·사기피해 부작용도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통일 대응가능 기반이지만 분단 55년간 거의 전질을 보지 못한 단계중의 단계였다.

1971년 최두선(崔斗善) 당시 대외직접지자 총재가 특별명령을 통해 처음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제안한 이후 20년 동안 이와 관련한 남북간 공식·비공식 접촉이 100여 차례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실을 맺은 것은 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속·생인단 교환 방문 단 한차례에 그쳤다.

9월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35명과 북측 30명이 평양과 서울을 교환방문에 참가한 장면은 이렇다. 수간, 구명단은 호랑이를 배를 타고 이주했다. 남측의 아버지는 이미 자신처럼 돌아야만 북측 가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었고 북측 가족은 '맛있다'고 북이 나타리부

린졌으며 요·개어만 했다.

그러나 당시 고향방문단은 단 한차례의 '정시상 사업'으로 끝났다. 92년 7차고위급 회담에서도 노무현 고향방문단이 합의되었으나, 휴전직선 북측이 을지포스 캠프 운영을 이유로 중단된 선언, 방금을 되돌려야 했다.

90년대 들어서는 분단의 벽을 무회해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크게 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90년 85건에 불과하던 교류가 지난해 1,318건으로 늘어났다. 월당에서는 5월말까지 761건에 이른다. 직위 상봉 사례는 97년 61건에 비해 98년 110건, 99년 200건으로 98년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생사확인 및 서신원래도 97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에는 직위 북방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났던 경우도 7건이 있었다. 지난 3월 방한을 방문해 북방을 간직적으로 보내는 조경현(趙景賢)의 귀국추진위원회(구추진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태웅기자 oneway@hk.co.kr  
정복용기자 trees@hk.co.kr

# “꿈만 같다”

“살아 생전에 꿈같은 날이 읊 좋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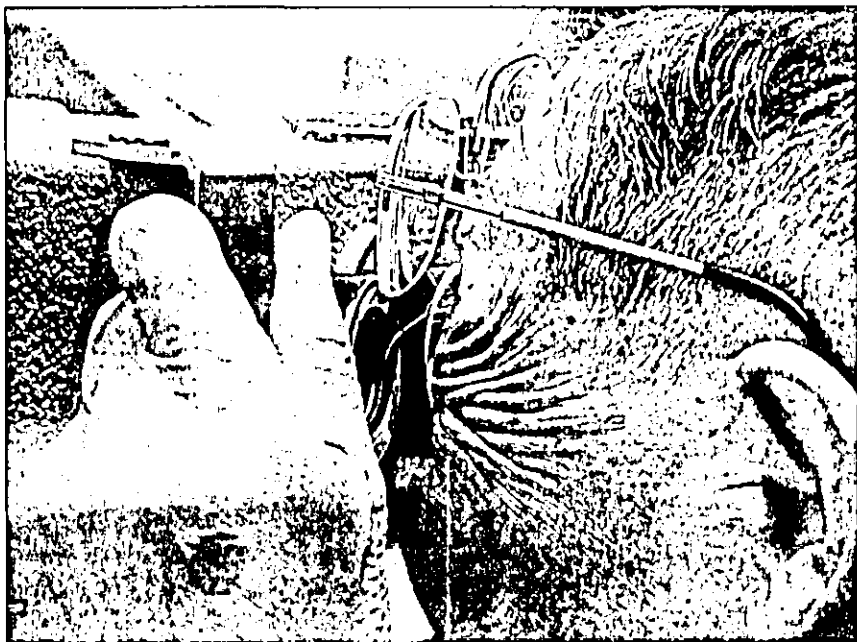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4일 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이산가족상봉 등 4개항에 합의서명했다는 소식을 TV를 통해 지켜본 신헌민과 이산가족들은 50년 비원(悲願)이 이번 만큼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에 연신 눈물과 환호를 터뜨렸다. 이들은 벌써 고향 땅을 찾아 그리던 가족들을 옆씨안은 듯 어깨춤까지 추며 가족상봉에의 벅찬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신헌민 등은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믿을 도록 없자 “혹시나”하고 초조해 하다가 서명소식이 보도되자 “이제 안심이다”며 또 한번 환호했다. 가수 천미(63·본명 김명신·金明善)씨는 이산가족상봉 합의소식을 듣는 순간 환호를 지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천미씨는 “평양과 함경도에 있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표정



마음으로 보는 북녘 고향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한 신헌민 노인이 망원경에 빨려들 듯 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박서감기자

## “기적같은 현실” 연신 환호·눈물

는 두 동생을 어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생각 뿐”이라며 “2개월 남은 8·15가 20년 세월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 출신 김동숙(金東淑·90) 할머니는 “합의 서명장면을 녹화하면서 동생들과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 오랜 세월이 길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난 뒤 죽기전에 아버지 산소를 찾아 50년 효도를 속죄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에 모친상을 당한 평북 의주 출신 신헌민 정경국(鄭京國·67)씨는 “어머니가 일주일만 더 사셨더라면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셨을텐데...”라고 흐느끼면서 “꿈 속에서만 그리던 북의 가족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고 기뻐했다.

함북 청진 출신 고재연(73)씨는 “북을 떠날 때 임신 3개월이던 아내와, 예비없이 자랐을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만세를 외쳤다. 함북 용기 출신 유재원(柳載元·74)씨는 “이번에는 웬지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것 같아 어제 교향지도를 뒤져 가리면서 고향 마음을 찾아냈다”면서 “지도에 나온 산이 내며 마음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는 생생하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원기자 spark@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 합의문 발표 첫대면때보다 ‘큰박수’

### ■ 프레젠테이션 발표 몇차례 연기에 한때 술렁이기도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 합의문이 채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산가족들과 롯데호텔 프레젠테이션에 운집한 1,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온갖 의혹과 초조함으로 예뻐대웠다. 15일 0시55분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추배 모습이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중계되자 이산가족들과 기자들은 절날 남북정상 첫 대면 때보다 더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앞서 수시간 동안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도우미들이 자료를 한달걀 들고 나타나자 기자들은 “합의문이 왔다”고 소리치

며 달려가다 헛걸음을 치기도 했다. 이런 소동이 서너차례나 반복됐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기자들 사이에 ‘합의문 발표가 연기된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남북이 이견을 빚고 있다는 추측이 급속히 확산됐다. 밤 11시25분에 북측이 조정을 요청해 발표가 늦어진다는 평양취재단의 급보가 날아들자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술렁거렸다. 15일 지정 박준영(朴俊榮)공보수석의 브리핑이 예고되면서 취재진은 기다린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이산가족들도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훈기자 hoony@hk.co.kr



# 北 SOC 구축이 經協 핵심

## 남북경협 새시대 <2>

### 철도·도로·전력이 3대 사업 '통일열차' 복원 현실성 높아 北 SOC시설 南 75년 수준 10년간 70조이상 소요될듯

남북한 경제협력의 핵심은 철도·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이다. 철도와 도로망이 부실하면 엄청난 물류비용 때문에 무역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공단을 설치해도 전력이 부족하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

이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사업은 남북한 철도복원이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김경남(金敬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통일열차를 할 날이 멀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철도 남북 분단이후 철도운영이 중단된 노선은 경의선·문산-봉동(평부선)간 29km를 비롯해 경원선·신안리-평강(경원선)간 31km와 금강산선·활천-내금강간 116.6km, 동해선·강릉-온정리간 145.0km 등 모두 4개 노선 312.6km이다.

정부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경의선(서울-신의주) 일부 구간 가운데 남측의 문산-장단(12km)과 북측 장단-봉동(8km), 경원선(서울-원산)은 남측 선철의-군사분계선(16.2km)과 북측 군사분계선-평강(14.8km)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또 금강산선 서울-금강산·중·남측 활천-군사분계선(24.5km), 북측 군사분계선-기암(30.

8km)을 연결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 도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X자형 태의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 건설을 위한 부산-평양·신의주, 독포-서울-원산·충진-나진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승객철도 등의 문제로 건담차는 운행지만 도로망 연결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도 1호선 단절구간인 판문점-개성을 연결하기위해 공동경비구역까지 4차로, 판문점까지 2차로 포장을 완료했다. 또 협천과 평강을 잇는 국도 3호선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원정리까지 2차로, 연천까지 4차로 확장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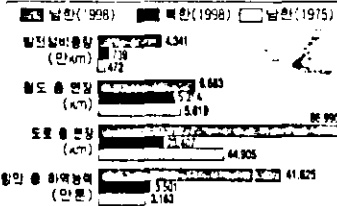
▲ 전력 전력부문의 경우 난점이 많다. 1998년 기준 북한의 전력소비량은 남한 전체의 6% 수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사회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에 무연탄을 공급하거나 발전소·송배전시설 설비를 개보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남한 전기로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난점이 많다.

▲ 문제는 1998년 기준으로 북한의 SOC시설은 남한의 75년 수준으



한대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한대야산 조찬동이 14일 오후 남북회담회담을 TV로 시청하면서 남북 정상이 주고받는 한대야산 한마디 속삭임을 근무하고 있다. /신재우기자

### 남북한 사회간접자본(SOC)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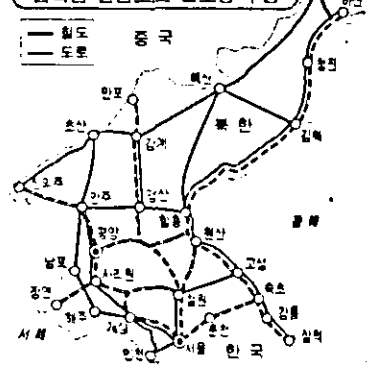


로 평가돼 이를 90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0년간 70조원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결국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두환은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으로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의 합작·합영에 의한 대북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조재우기자  
jo0920@kookil.co.kr

### 남북한 간선도로·철도망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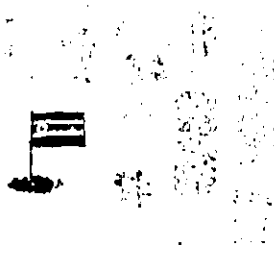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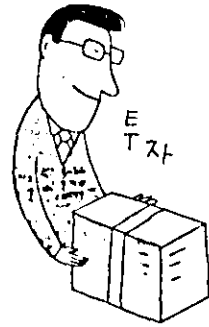


# 북한 투자·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독자와 함께

고 상담 창구는 어디인지, 이를 위한 자금증자는 있는지 알고싶다.

이종만·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동



### 투자·위탁가공·단순교역

대북 경험의 형태 대북 경험의 종류는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우의 남포공단 조성 혹은 평화자동차의 평양 자동차 수리공장 설립처럼 현금이나 기계 등을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협력사업이 있다. 둘째는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위탁가공사업으로 PC모니터 등을 북한의 공장에서 생산해 남한이나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셋째, 남북한 상품의 단순교역을 들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총투자 및 교역액은 작년말 현재 3억 3,000만 달러 정도이며 읊들어서는 위탁가공 사업이 인기를 띠고 있다.

### 정부 승인절차 3단계

상담창구 및 절차 모든 대북경제협력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 과정은 대북 접촉 승인, 방북 승인, 협력사업 승인의 3단계이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과에서 대북 투자업무, 교역과에서 대북 위탁가공 승인업무를 각각 담당하며 대

북투자 유의점에 관한 간단한 상담도 한다.

이외 함께 상담과 파트너 연계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OEX),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남북교역팀은 대북 접촉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권련법과 제도 등을 설명해준다. 또 대북 투자방법, 선박스케줄, 북한의 무역중개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KOIST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북한실과 사업부, 북한경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실에서는 100여개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북한경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일반인과 유관기관에 보고, 발표한다. 사업부는 국내 투자지들과 북한파트너와의 연계사업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정보센터는 북한경제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kotra.or.kr/nk)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합장장학원 역시 경험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 북한측 경험파트너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북 사업 상담을 해주는 민간 기업도 있다. LG상사는 최근 북한 입가공 무역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투자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lgicorp.com)를 개발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사소개,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현황과 북한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품목과 개요 등을 기입하면 3~4일 내로 대북사업 전담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 경험자금 50%까지 융자

남북협력기금 활용 대북 경험을 위한 공식 자금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있다. 대북교역 및 경험관련 손실보조, 대북 기술 지원

인력 투자, 위탁가공용 자재나 설비 반출 등의 사업에 대출된다.

손실보조금(90%이하)외에는 모두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용지되는데 상환기간은 1년에서 7년까지이다. 중소기업이나 농업 및 어업분야의 사업자가 우선지원 대상이며 남북교역협력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행사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신용불량정보대상자, 주채권은행이 회생불가로 분류한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금리는 손실보조(무이자, 수수료 1%)를 제외하고는 연 6%선이다. 통일부에 지원신청을 하면 위탁관리를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받게 되는데 지급보증서, 예금, 채권, 연대보증인 등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왕구기자fab4@hk.co.kr

# 국내 외국기업도 北 진출 눈독

## "노동력 값싸고 우수"

## IT업체등 큰 기대

## 주한 美상공회의소도

## "제재해제때면 방북" 추진

외국기업과 외국경제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북한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보기 부흥의 빛에 어지른 관심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산만 조식부터 면연제부터 북한에 진출할 대세다. 대표적 업체는 세계적 지계사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의 아시아본부 팀

라크머티리얼앤테크놀로지(AMH A).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북한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여건이 조성되지만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선 창원에서 생산하는 지계차 원성품을 직접 수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 나아가 북한내 공장을 설립, 북한노동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내 정보통신분야도 외국기업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요인이다. 한 업계자에 따르면 북한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기술인력은 약 10만명, 이중 5,000명 정도만 권

련업무에 종사할 뿐 나머지는 유훼인력으로 방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용 반도체 솔루션 생산업체인 미국 커넥션트시스템스의 국내 지사인 커넥션트시스템스코리아의 박덕준(朴德俊) 사장은 이에 대해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의 성향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내 인력 활용도 충분히 가능한 예기"라고 말했다.

국내 외국경제단체들도 북한을 주목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 회장은 최근 25일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지면 늦어도

하반기 중 주한 미상의 투자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의 데이 오버비 소장도 남북정상회담 당사 발표 직후 "북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감소될이긴 하지만 1,000여 회원사들은 대북투자 등에 관심이 높다"며 "북한과 공화, 비공식 접촉 창구할 의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투자사절단을 해마다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유럽연합협상공회의소(EUCCK)는 이미 상의내 북한위원회 등을 통해 상당한 대북자료류 확보, 외국 기업들에게는 "대북정보 창구"로 봉한다.

진성훈기자 bluein@hk.co.kr

# '경제통일' 토대 마련

## ■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의의미

### 經協 정부차원으로 승격 투자보장등 후속도 기대

남북정상이 14일 '경제교류를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등 교역·투자의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물물·대면교환, 제3국 경유등 불완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경협은 미지않아 '국제규범에 따른 직접교역·투자' 형태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의는 두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각종 협정체결 주체가 정부인 만큼, 그동안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후선으로 빠진 채 민간차원에서 전개되어온 남북경협이 정부간 레벨로 공식승격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와 교역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협 인프라'가 구축돼 국내기업의 대북진출과 남자의 반출입을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정치적 통일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선(先)가동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조기가동 및 정례화다. 공동위는 투자보장협정등을 포함한 모든 협정사무를 논의할 유일한 정부간 공식채널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차관(남)과 무역성 부상(북)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는 91년 '남북합의서'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나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 협정, 어떤 내용담나 교역·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는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상사분쟁협정, 청산결제협정등이 있다.

## ■ 정부간 남북경협 과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가동

투자보장·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 교역·투자협력

청산·결제은행 지정 및 국내은행 진출  
: 금융협력

물자교류 및 인원왕래 위한 교통로 개설·복원 : 통행협력

투자보장협정은 ▲자유로운 송금보장 ▲진출기업 재산보호 ▲내국민·최혜국대우등 내용을 담게 된다. 이종과세방지협정의 경우 남북한 기업이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역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절차권 등을 상사분쟁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있는 교역대금결제도 양국 금융기관 직접 결제방식 전환될 전망이다. 92년 '부속합의서'에 의해 남북한 거래결제은행은 '청산결제(반출입차액결제)'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청산결제은행은 양국 중앙은행, 결제 통화는 달러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 후속 수순 교역·투자 관련 협정 체결이후 경협이 확대될 경우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복원·개설도 기대된다. 우선은 제한적 형태의 임시도로 및 평로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활동량이 증가하고 인원왕래가 늘어난다면 끊어졌던 도로복원이 예상된다. 육로의 경우 경의선철도와 문산-개성간도로 복원, 항로는 김포공항-순안비행장간 개설, 해로는 인천-부산·포항항-남포-위산항-진장간 개설등이 우선적 과제다.

이처럼 남북을 잇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경제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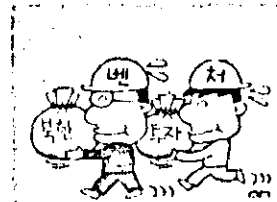
/이성철기자 sclec@hk.co.kr

중소·벤처업계에 전례없는 북한시장 개척 바람이 불 조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북한투자가 직접투자로 바뀌고 빈만한 모험투자라면 뛰어날고 보는 벤처기업들의 북한투자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굴곡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남북경협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벤처경협'으로 발전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 벤처-中企도 北특수 바람

◇북한 진출 노리는 벤처기업=국내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메디슨과 한글과컴퓨터 등은 북한에 공장과 합작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첨단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은 평양에 의료용품 공장을 지어 의료용품을 생산해 제공하고 대신 약초를 북한에서 재배해 국내로 도입한다. 메디슨의 경우 이민



기업=직접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전자분야 중소기업들이다. 삼흥사 한국단지공업 극동음

## 메디슨 평양의료품 생산 공장 건설 협의 한글과컴퓨터 통일문서 작성기 제작 재추진 중소업체 전자 전용공단- 직접투자 모색

화(李珉和) 회장 등 방북단이 지난달 13~1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의료용품 생산 공장을 평양시내에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한글과 컴퓨터는 1998년 무산된 통일문서작성기 제작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KTB 네트워크도 중국 베이징에 벤처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북측과 공동으로 벤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투자 추진하는 중소

향 등 10개 중소전자업체는 오는 20일 평양을 방문, 공동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부품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공동진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상의'는 북한에 '대구상의전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 섬유안전업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 협의체'를 구성, 대북 공동진출을 꾀하고 있다.

(임정민·류영현기자)

# “北특수 선점하자” 은행·보험 각축전

## 남북정상회담

### 합작銀·환거래제휴등 다각적 방안 추진 SOC건설·수출입 보험유치도 경쟁치열

#### ●금융기관 대북사업 추진현황

| 금융기관 | 내 용                 |
|------|---------------------|
| 국민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농협은행 | 남북국제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협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한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영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협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협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 신협은행 | 북그랑은행과 환거래계좌 개설 추진중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업들 못지않게 금융기관들도 치열한 '북한 특수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북한 은행들과 환거래계좌·합작법의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북한 진출 기업들에 종합컨설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 상은행과 환거래계좌를 맺기로 하고 곧 정 부와 협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 계자는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북한의 경 수로 건설현장에 출장소설 두고 있는 외환 은행은 '북한판 첫 한국의 은행'이라는 연고 로 독자제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15일 국내 200여개 기업 관계

자들을 분담으로 초청, 대북교역 전문가인 유엔무역개발기구(UNIDO) 전문가인 김사로 초청한 가운데 '북한 진출과 교역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은행은 북한의 외 러은행과 시중에 한적은행을 설립하는 방 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빛은행은 정부가 북한 실정에 맞게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하는데로 북한의 고리 상은행과 '이산가족 송금'업무제휴 계 약 을 맺기로 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대북 무 지사업에 상호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 한 산업은행은 유엔측과 본격적인 협력사 업 분야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해보험업제도 대규모 공공건설과 수출

입 관련 보험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다 양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대북 보험'의 선두주자인 현대해상의 경 우 지금까지 금강산 여행상품 등과 관련해 가맹원인 여행 관련 보험료 수입이 63억원 가량에 달한다.

앞으로는 공공건설 및 수출업, 문화교류와 관련한 보험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9년간 공사금액이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의 경우 건설공사보 험, 조립보험, 자중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총보험료가 약 1,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LG화학은 주권사 모 5개 손보사가 공동인수한 상태다.

향후 공공건설과 수출입 등이 늘어날 경

우 건설공사보험, 직화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놓고 국내 보험사들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유치 경쟁도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손해를 신중히 입 지 않아 외국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대북 특수를 빼앗기지 않으려 는 보험사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이영대기자 ylee@hk.co.kr

### ■ 농촌경제연구 분석

정부의 비료 20만톤 지원으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48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 센터는 14일 북한의 농업 여건을 감안할 때 비료 20% 한 부대를 투입하면 약 48%의 쌀 생산효과가

## “비료 20만톤 지원, 쌀 48만톤 증산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주민의 하루 정상식 량배급량이 547g(쌀 164g, 잡곡 383g)인 것에 비추어 보면 쌀 48만 톤은 북한주민 2,200만명의 4.4개

월(133일)분 소비량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5만 26톤으로, 1kg의 비료를 추가로 투입하면 약 3%의 쌀을 더 수확할 수 있다. 따

라서 비료 20만톤을 지원하면 60만톤의 쌀 증산을 기대할 수 있 으나 농업용수, 농약 등 농자재 부족, 토양 산성화 등 북한의 농업여 건을 감안하면 80% 수준인 48만

톤의 증산이 예상된다고 연구원 은 분석했다.

한편 농림부는 6월말까지 북한 에 지원기로 한 비료 20만톤중 11 입 한데 13만3,000톤(66.5%)을 북 한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물량도 최대한 앞당겨 지원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김성철기자 skim@hk.co.kr

## 한겨레

2000. 6. 15 (목)

# “상생의 경제협력 가속도 붙는다”



경제부처·재계반응

### 예상밖 빠른 진척에 놀람속 기대감 산자·건교 “에너지-SOC확충 기여” 투자보장협정등 조속체결 주문도

14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자 사법 리자 경제부처와 재계단체 기업들은 예상 밖의 빠른 진척에 놀라움을 표시 라면서 남북간 경제 교류가 가속되 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계에서는 이와 함께 투자보장협정 등 법·재 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며 북한측 에 일방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남북 이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시간 경 회회담을 끝까지 내내 성의 보다 빠른 진척에 감동할 국면이 온 것

이 공감을 얻었다는 것 이상으로 놀 랐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간에 실 계적인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산자부 차관에서는 산자와 함께 남북간에 우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부문에서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예상보다 진 척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평가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인 사회 기반시설 SOC 협력의 대안으로 이 미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용성 이 대안으로 추진된다면 남북간 교류

전경련 관계자는 “남북 경제발전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경제 부문에서 더욱 활발한 남북교류가 시 도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한 정부 는 투자보장협정 등 법·재도적 부 편도 갈라져 남북 기업들이 활발 한 교류협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계 속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동철 무역협회 무역지원실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전반적인 회 회 분위기가 속속 화랑기를 띄어 분다”면서 남북 경제가 엄청나게 활 발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속 협상을 통해 투자보장협정 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사실상 남북이 없을 정도로 공 황이었던 관계자는 “그동안 한때 이·북교류가 북돋아졌지만 이·북교류는 북돋아졌는데 이번 정상회담 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가속화되면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금강산 개발과 서해안공단 입지선정 등 현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남북 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자북협단체 건설을 희망하고 있 는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단남 에서 협의회까지 나왔으니 남북경협 의 속도도 빨라지고 협력분야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이 추진하 고 있는 전자·외국인·관광·스포츠·역 어 개발 등 분야에서 예상대로 협력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스케이그룹 관계자는 “남북경협 의 실질적 투자가 아니라, 여흥 들어 날것으로 북한에 수출을 도와주고 한국 기업도 이익이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인증권투자회사 인혜진@hani.co.kr

# “南北함께 벼를, 평화를 심자”



## 남북정상회담

### DMZ 칠원평야 여의도22배 휴경기 공동경작단 춘천시민 1년먹을쌀 생산

칠원 남북공동경작 대상지역



저수지의 물줄기는 한국전쟁 후 북  
한측에 의해 재경변이 북으로 돌려  
졌다

50여년간 버려져온 주변 농토는  
남북한 군인들이 경계를 위해 수시  
로 잡초와 갈목 제거작업을 계속해  
온 탓에 밀밭처럼 초목이 우거진 다  
한 DMZ 지역과 달리 지금까지도  
물만 대면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칠원군 주민들은 이날 “북측이 물  
을 대고 남측이 영농기계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공동경작에 수확을 나  
눠가지만 된다”면서 이직은 때이른  
기대감을 한껏 피뎠었다.

／칠원=리영송기자 yskwak@hkc.co.kr

남과 북의 농민들이 함께 어울려  
농사짓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원 칠원군민연맹이 남북정상회  
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남  
북에 걸쳐있는 칠원평야 한복판  
드넓은 들을 남북한 양측이 공동  
경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  
섰다.

칠원군 농민들에게 50여년간 버려  
져 수목 한송만 나오게하는 땅은 칠  
원군 북면에서 북한의 북강원도 평  
강군 남면에 걸쳐있는 6.454km<sup>2</sup>(1.936  
만평)의 휴경기. 공동경작할 경우 연  
간 3.007만t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는 것이 이 곳 농민들의 추산이다.  
이 정도의 면적이면 여의도의 22배  
에 달하는데다 쌀 생산량은 20만 톤  
천시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정

반이다.  
반경의장 이근희(李根熙·60)씨는  
14일 남북한 협력이 진전되고 협정자  
역지원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남북  
양측 마을 농부들이 공동으로 이곳에  
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정  
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곳은 원래 일제시대인 1922년  
일본의 분리통일론이 만주와 백러시  
아에서 대러군 노동자들을 동원, 현  
재 북한원도 평강군 남면 나래리에  
봉래저수지를 축조한 뒤 개간해 경작  
하던 화급 습역이다.

지수면 4.545만평에 만수면적 5  
64ha, 유효면적 1만5,209ha나 되는  
초대형급 봉래저수지는 주변 광활  
한 평야에 물을 공급, 전국에서 으뜸  
품질의 ‘칠원쌀’을 생산해 왔다. 이

### 올 對北교역 한국 1위될듯

남한의 대북 교역 규모가 올해  
중국과 일본을 앞질러 1위를 차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14일 윤봉이 4월까지  
지 남북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0% 증가한 1억522만달러  
로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4월 이후 6월까지 지  
위다가공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45%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  
상남 실적도 35%으로 늘어나 조만  
간 중국과 일본의 교역규모를 추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 기자>  
yiyonz@donga.com

## 대한매일

## 현대鄭명예회장 對北 ‘히든카드’ 있나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  
켜보며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그는 98년 소떼를  
풀고 방북, 남북교류  
의 큰 물꼬를 댔다. 누가 뭐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일조한 장본인이  
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란 것 같다고 현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어느 때  
보다 밝아보였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

### 정상회담뒤 월말께 방북 추진 금강산 개발·서해공단 사업등 對北천안 매듭 전력투구 예상

다.  
현대측에 따르면 정 전 명예회장은 정상  
회담 첫날인 13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4시쯤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아침식사를  
마친 뒤 남북정상회담의 상봉과정을 담은 TV  
화면을 줄곧 지켜봤다. 14일에는 두 정상간  
의 본격적인 ‘협약내용’에 촉각을 곤두세  
웠다고 전했다.

정 전 명예회장은 정상회담이 끝나는 때  
로 이달 말쯤 방북을 계획중이다. 남북화  
해할 위한 자신의 역할이 작아진데다, 나  
이도 많아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방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만큼 정 전 명예회장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연기됐던 금강산 개발사  
업, 창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  
업, 서해안공단건설 부지 선정 등 현대의  
최대 현안인 대북사업을 매듭지으려 할 것  
이 분명하다.

대북사업의 전권을 떠맡긴 정몽헌(鄭蒙  
憲) 전 현대 회장에 대한 마지막 배려의 성  
격도 있는 듯 하다. 장교(長考)에 들어간  
정 전 명예회장의 ‘방북카드’가 주목된다.  
●주범필기자 bcjoo@kdaily.com

## 문화일보

##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협정’ 급진전 전망

### 경제협력 합의 이후

남북 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한 만  
족경제 구현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당국자간 회담에서 이중  
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협상에  
급진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  
부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오래  
전부터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  
보장 협정을 연구해왔다”며 “투자  
보장협정에 합의하면 우리 대표단이 이

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서언  
을 갖고 방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북  
을 수행한 이현제(李孝宰) 재경부장  
관과 이기호(李基浩) 청와대 경제수  
석이 남한측 서언을 놓고 북한 당국  
자들과 상당히 깊숙이 의견을 교환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중과세방지  
협정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  
(원천지국)와 출생국가(거주지국)에  
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  
고 동등한 방식과기 위한 위임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함  
길무 원천지국은 북한이 되고 거주지  
국은 남한이 된다.

전문가들은 남북간에 체결된 이중  
과세방지협정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어  
찌 80년대 초반에 미국, 일본을 배  
뚫한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  
정을 체결한 중국의 예를 많이 참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  
국식 모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모델은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제  
연합(U.N) 모델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원천지국(북한)이 OECD모

델에 비해 더 큰 조세권을 향  
있게 돼 있다.

남북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  
의 내용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  
한에서의 세금납부여부등 결정하는 ‘고  
정사업장’의 범위,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임야(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등이 협정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투자보장협정은  
▲북한인출기업들이 소득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송금보장’ ▲북한이 남한  
기업들이 생산된 임의적으로 송금하거  
나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보호’  
▲다국적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혜 대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해동기자>



<재외동포 반응>

“직접 北과 사업했으면...”

■ 재미동포

재미동포들은 14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데 대해 감입과 이산가족재회, 경제협력 문제 등이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최근한 LA 한인회장은 “전단 55년만에 첫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이뤄진 만큼 희망에 차 있다”며 “남북개척선 물꼬가 트이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해 재미동포들이 직접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계학 LA 권회장은 “13일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100여 국가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북 양국자만이 공식 국호를 기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LA지역 한인 TV와 라디오 방송들은 이날 오후부터 하루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방북 모습 등을 위상으로 생중계했다. 또 현지 한국어 신문들도 일제히 1면 머리가 시와 남북정상회담의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LA 미주본사

O~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갑남)는 13일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100여 국가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북 양국자만이 공식 국호를 기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1972년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있었으나 후속 관계 구축과 통일 의 타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남북이 상호의 실체를 부인하는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홍

“東北경제 활성화에 도움”

■ 재중동포

55년만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본 재중동포들은 어느 나라 동포들보다 감격과 흥분에 잠겨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산업이 부흥되면 재중동포 집단지주자인 동북의 지린(吉林) 라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성에 ‘동북 경제열기’가 돌아오르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 친북 재중동포들이나 북한 국적 동포(조

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장군의 이미지가 개선돼 다양”이라며 “건강이 나쁘다, 과피하다 등 오해가 많았는데 단번에 오해가 풀렸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헤이룽장 신문사 홍만호(洪滿浩) 사장은 “한반도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기회가 왔으니 잘 잡아먹는다”며 “남북한이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는 끌어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큰 성과” “냉정해야” 교차

■ 재일동포

재일동포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눈물, 기대와 냉정함이 엮여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의 민단 중앙본부에는 14일 30여명의 민단 직원들이 한국에 위성방송인 KN TV 앞에 모여 뉴스를 지켜보았다. 전날보다 흥분은 많이 가라앉았으나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반응과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진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교차했다.

도쿄 치요다(千代田)구의 조총련 중앙본부에서도 100여명의 직원이 뉴스시각마다 TV 앞으로 모여 들었다. 한 간부는 “흥분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합력 화합과 민족 대단결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총련계 동포 1세인 노점(盧点伊·75)씨는 “김대중령의 발이 북한 땅에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베는 일본에 묻혀 되겠지만 하루 빨리 오랑인 마신의 뿔과 뿔이라도 만져보고 싶다”고 남북한 화해에 강한 기대를 표했다.

동포2세인 최양일(崔洋一·50) 감독은 “김동적인 장면이지만 통일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육성 컨실턴트로 유명한 동포3세 신숙옥(辛淑玉·41)씨는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없는 현실”이라며 “앞은 얘기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김위원장, TV통해 세계읽나

남쪽사정에 비교적 밝아 CNN등 10여개 채널설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13일 남쪽 텔레비전 오래도록 봤다”고 밝히, 김 위원장이 외국 텔레비전을 어느 정도 시청하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서두에 남북 텔레비전을 보니 “남쪽 인민들도 다 환영하고 특히 실컷만, 남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영빈관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도 “오늘 아침 (순인) 비행장에 나가기 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공항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 비행장으로 나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지연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에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남쪽 위성텔레비전 등을 보며 남쪽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한뿐 아니라 세계의 유력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탐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 24시간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인 미국의 <CNN>은 물론이고 남한의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10여개의 채널을 설치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외국 방송 시청이 그가 국제 감각과 실용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설에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식 사망 직후인 94년 8월 <CN N>이 평양 현지 방송을 통해 김주식 사후 북한의 분위기를 세계에 다진하도록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정재권 기자 jk@hani.co.kr

북 신문도 '정상회담' 대서특필 '평양방송' 대남비방 삭제 방영

■ 달라진 북한 언론

북한 언론은 지난 13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일행의 방북사실을 대대적으로 다룬 데 이어 14일치 북쪽 신문들도 김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크게 보도했다.

14일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남북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20x25cm 크기의 사진을 신는 등 6개 면 가운데 4개 면에 걸쳐 김대중령 관련 기사를 다뤘다. 1면에는 각각 평양 시민이 잣대밭을 손들며 김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진과 김대중령이 김 위원장의 박수 속에 손을 흔들며 답을 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두 신문은 모두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한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늘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6월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어

김대중 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었다”며 “평양 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특기할 4.8 북남합의서에 따라 민족 분열시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만남은 민족주의적 노력으로 통일성업의 기어이 이룩해 나갈 거래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이라며 “김홍석 공화국기가 세차게 팔리는 비행장에는 동포들의 정과 통일의 열기를 안고 달려나온 각계층 수도시민들의 운집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남 방송인 <평양방송>은 14일 대남 비난없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통일 노력을 찬양하는 종전 보도를 재방송했다. 이 방송은 이전 보도에서 남한 당국을 ‘분열주의 세력’으로 남한을 ‘실망한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조선’이라고 비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외신들 “상상 못한 일 일어났다”



## 남북정상회담

5개항선언 해외반응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2차 단독 정상회담에서 5개항에 합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하며 향후 지역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합의 내용을 잇달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CNN 방송은 “남북 정상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처럼 빨리 합의문을 내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남북한 신뢰구축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캐니언스는 평양발 보도에서 “남북한 정상이 이렇게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짓눌려온 냉

키나(朝鮮)에서 개최되는 G8(사상선진8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할 문서로 표시할 방침이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번 합의는 1972년 7·4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일, 북·미 회담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남북한 정상 합의문 시범으로 한반도는 긴장완화, 평화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도쿄=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합의문 서명 직후인 오후 8시22분(한국시간 오후 9시12분) 제국을 한층만 단 긴급 영문 기사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어 9시7분 더 상세한 긴급 영문 기사에서도 “역사적인 합의서”라고 보도했다. 당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이 “역사적인 합의서” “원칙성

합의서” “원칙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표현한 것은 합의문이 역사성과 원칙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주판 자오(朱邦濤) 수석 대변인은 13일 이번 정상 회담을 지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러시아 외무부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5개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레산데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아타르타스 톨신과의 회견에서 남북한의 합의는 분명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부터는 합의 사실만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그 내용을



요리사 복장을 한 중국 시민이 14일 베이징의 신문 가판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머리 기사로 보도한 신문을 읽고 있다. /베이징 AP=연

### 美 “향후 지역정세 상당한 영향” 日, 전폭지지 G8 문서표시 방침 中 “역사적 합의”... 논평은 자제 러 “환영한다... 내용은 검토할 것”

진의 기운을 녹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향후 지역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13일 이번 회담이 이 지역의 긴장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조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접촉이자 논의는 전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서 “우리는 김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vonn@hk.co.kr

○일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본은 다음날 오

쿄도(京)에 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7월1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 17시간 동안 평양에 머물며 1건 이상의 공동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평壤=연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가 지난 한세기 동안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분단된 한반도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남북한간 새로운 조화의 한 상징은 그동안 약마의 현신으로 묘사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가 이제 는 오래 이어졌던 영제의 이미지로 급격히 변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던=연



미국 뉴욕타임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각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을 13~14일자 1면에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하는 등 비중있게 취급했다.

# 민족사의 쐬거

## “실천만 남았다”

### 정상간 합의 역사적 전환점

**김** 대종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5개항에 합의·시행한 것은 남북의 관계가 40년 여역사가 전라점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화해와 통일, 김정일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교류협력 위치에 의거한 일치된 보고 합의에 이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일단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이 합의는 1972년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기본합의서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거의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상간 합의의 성격은 두가지 차

이 과거와 다르다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남북이 40년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이관하여 국제사회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잔재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과시했다. 점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회가지 돌파구가 마련됐다. 세계가 주목하고 지지하며 유엔과 로마교원까지 축원을 보낸 그야말로 세기의 역사적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합의는 국제정치적으로 고도의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또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



**남주홍**  
南柱洪·경기대 통일인문대학원 교수

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실천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자신만만하고 여유있는 김정일의 개방적인 모습은 북한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이건 대내외 정책에 변화할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월의 민족사적 의의 언급이나 정상합의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모를 것을 속단하기는 아니다. 그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문제는 실천의 지에 있다. 북한이 과연 개혁·개방을 할 것인지, 이관비 '조선식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로 체질이 개선되고 체력이 보강된 북한이 '자주적 통일의지'를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인지 등 아직은 많은 부분이 분와 실한 상태다.

###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첫** 해남 두 정상은 두 손을 맞잡은 역사적 장면으로 정상회담은 이 미 목적을 달성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반세기 냉전의 벽을 녹이는 해빙의 순간으로 55년만의 첫번째 만남은 충분했다. 사실 남북한은 이미 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대원칙에 합의했다. 1991-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의 대강을 이미 마련했다. 많은 협상을 했고 화해협력의 길이 뚜렷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양 정상은 이어 둘째날 정상회담을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화해협력의 구체적 길을 제시했다. 지금 가능한 실천

적 조치들은 일단 시행하고 어려운 문제는 후속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기시적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합도연결, 무자보장형성, 이종과제 방지형성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김씨의 제도적 장치들이 실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역사적 대화는 시작되었다.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평화는 소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단란의 세월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년과 대



**김인협**  
金仁協·심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화가 오해와 불신을 씻고 새로운 한의 길을 열 수 있었음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다.

정상간 직통전화 문제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오해로 인한 우발적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해나 마지막 문제 등 국제적 현안이 있지만 남북한 화해협력 기류는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확신이다. 평화정착의 편익이 분담비양된다 할만 강제적이라는 지해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이제 시작되었다.

### 너무 지나친 기대는 경계

**남** 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5개항의 합의는 평화 통일을 위한 전위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관을 원시 합의가 안착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남북대화를 돌아보면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있었으나 1년만에 중단됐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으나 오래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는 성과가 뒤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정상들간의 합의가 실무진에서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전례화할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남북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김영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한 서울을 방문할 수도 있고 양측 학자들이 남북 북을 오고갈 수도 있다.

동일문제에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경제협력 분야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원칙적인 장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해가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북측이 너무 연연하게 환영하면



**함택업**  
咸澤業·강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오늘의 합의는 자결한 성과로 비칠 수도 있다. 너무 지나치게 기대할 것 필요는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은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사망 세계에 노출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위원장은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은둔생활을 벗어나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 같다. 김위원장의 북한 내부 기반 강화는 이미 이뤄졌으며 김위원장은 이번이 이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의 시점에 대해 보수주의자들 도 과거 우리처럼 잘못도 된 것이다. 김대종 대통령은 노련한 정치인이다. 김대종 대통령은 회담에서 작은 양보도 하나라도 중대한 국가 이익이나 안보에 문제가 되는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식면담' 누가 배석했나

인민회의·對南기구  
고위관계자 대거 나와

14일 반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 '공식면담'에 북측에선 최고인민회의와 대남사업기구의 고위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지도기관이란 점에서, 대남사업기구는 남남과의 회담이란 점에서 각각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위원장 오른쪽에 앉은 양형섭(楊亨燮)은 최고인민회의 상임 부위원장, 왼쪽의 최태복(崔泰福)은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이다. 양은 김영성의 고종4촌동생인 김신수(金信洙)의 남편으로, 77년 귀순한 왕장인(黃長燦)씨와 함께 주체사상 이론을 집필한 대표적인 사상·이론가이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두 차례나 지냈다.

최태복은 노동당에서 교육·국제관계 담당 비서를 맡아왔으며, 권력시절 20위권 인원에서 물러진 적이 없었다. 최근엔 김정일의 국내 시찰에도 늘 수행할 정도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선 이철 외에 봉양(步陽) 여운형(呂運亨)의 딸인 여원구(呂源九) 부의장과 이삼로(李三魯) 부장도 배석했다. 여원구는 대남진위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이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성총합대 동거동향으로, 태극주체 대사를 지낸 실세이며, 90년대 초반 북·일 수교회담 북측 대표단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나, 국가보위부에 첫 발을 디딘 후 국장까지 지냈다.

사민당 위원장인 김영대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의장으로, 남북 민간단체 교류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조국통일위원회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산하기구. 안경호 서기국장은 우리에게 안병수(安炳洙)로 알려진 인물이다. 90년대 초 고위급회담 때 북측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대남한 독실가(高吉家)로 알려져 있다.

송호경(宋浩京)과 정운업은 모두 대남사업 전담차구인 이대평화위원회 소속이다. 송은 부위원장으로 박지원(朴智元) 문화부 장관과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이끈다면 인물이며, 정운업은 남북교역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위원장이다.

/송仁기기자 ginko@chosun.com

확대정상회담→확대회담→공식면담

오전 만남 명칭 놓고 '혼선'

우리 정부는 14일에도 진남에 이어 남북간 회담의 형식과 명칭 문제로 혼선을 빚었다.

양영석(梁榮錫)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정례브리핑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남북한 관계자의 이날 오전 접촉을 '확대 정상회담'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2시간쯤 뒤 서울 상황실은 "쌍방 공동취재단이 용어교정을 요청해 왔다"며 "김영남 위원장 등과의 '확대정상회담'을 '확대회담'으로 용어를 교정한다"고 발표했다. "확대회담은 공식 면담으로서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면서 "'정상회담' 표현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참석한 회담에 한한다"는 설명이었다. 또 1시간쯤 뒤 서울 상황실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확대회담' 대신 '공식면담'으로 용어를 재차 교정했다. 확대정상회담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공식면담으로 뒤바뀐 것이다.

중앙 정상끼리의 만남에서 양의 등 극소수의 배석자만 남긴 채 두 정상이 별도 회담을 갖는 형식(남북)정상회담으로, 방문하는 측의 공식수행인과 초청국의 각료 등이 배석하는 것을 확대정상회담으로 각각 부른다. 우리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이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Head of state)라는 점에서 이날 오전 만남을 확대정상회담으로 불렀다가 격(格)의 문제점 뒤늦게 의식, 용어를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洪錫復기자 udo@chosun.com

경협株 다시 뜨나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5기부문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중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시전문가들은 양국 정상회담 결과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한외보 파리기' 나온 만큼 남북경협재료가 지지부진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국가위험도(金利리스크)가 기기적으로 낮아져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외국인 투자증가→중시상승세동의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중시전문가들은 전폭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 예상밖 보따리 상승 모멘텀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단연 남북경협주의 약진이 돋보였다. 건설·시멘트·비료주 등 남북경협주에 개장초반부터 매기가 율리면서 주가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남

남북 공동선언문 호재

"당분간 테마주 가능성"

어제 건설주등 강세반전

북정상회담 첫날인 13일 일제히 위세급 보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정상회담의 순항은 비단 경협주외에 핵심우량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시키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대중주들에 대한 개미들의 입찰로 이어져 중시전세를 떠받치는 대항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협주가 인과성이 아닌 장기성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중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동원증권 정동희책임연구원은 "투자보장업종 등 남북경협 위상화의 기반이 마련되면 경협주가 화실한 테마주로 자리잡으면서 다른 주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정세에서 소외됐던 전통산업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 남북경협주 중에서 선두주자는 건설주. 남북경협에서 항만·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업종중에서 건설업종이 가장 리라폭이 컸다는 점에서도 남북과대주중 중심으로 지지율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북사업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대건설, 한라건설과 나산·선양지구에 진출해 있는 동양시멘트를 비롯해 한진·한국형신 등이 대북투자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협력에 강화된 경우 식량지원사업 등과 관련, 비료주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또 섬유 신발 기진기진 조립등 북한의 지원하고 풍부한 인력동원이 가능한 입가 공분야 관련주도 관심이다. 코오롱상사 남예회와 고달 삼성전자 삼성정밀 등이 주가에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 인터넷과 컴퓨터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점을 감안, 대북투자중 타진중인 케드롭 기리정보통신 한국과 컴퓨터 메디슨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김영주기자 hjkim@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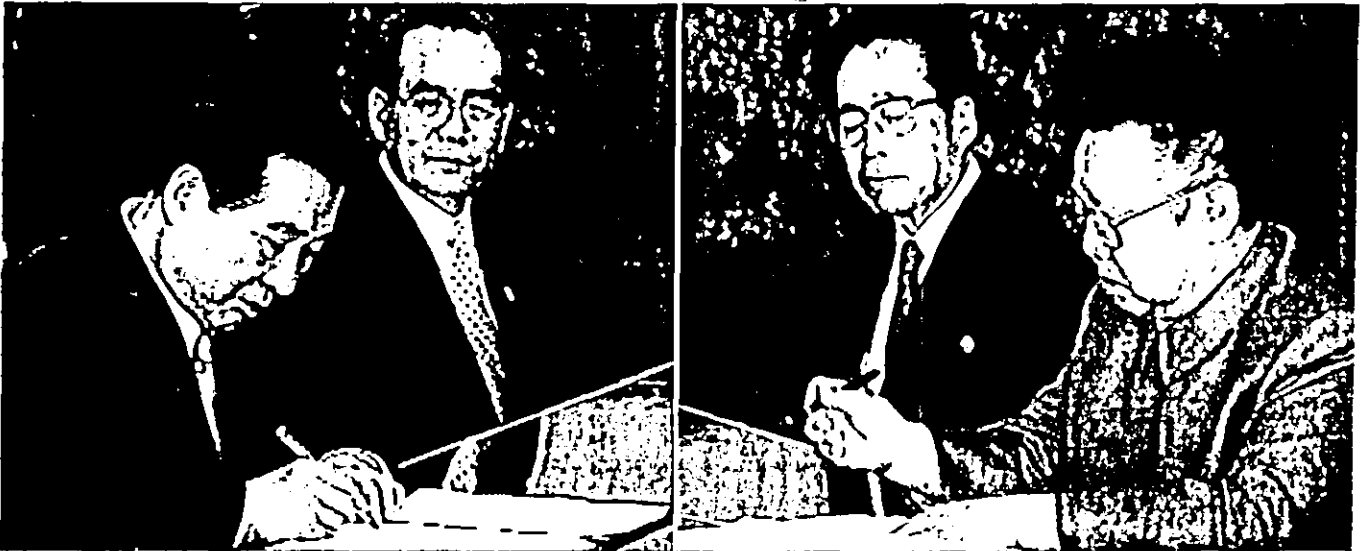


● 남북경협 관련 유망종목

| 사업분야   | 종목                               |
|--------|----------------------------------|
| 건설·SOC | 현대건설 동양시멘트 한진 한국형신 한라건설대림산업 LG건설 |
| 일기품    | 고일 한일합성 국제상사 코오롱상사 삼성전자 LG전자     |
| 농업     | 남해화학 조비                          |
| 관련     | 현대상선                             |
| 철당기술   | 케드롭 기리정보통신 한국과립 컴퓨터 메디슨          |

(출처: 대우증권)

# 南北 침략도 위협도 없기로



세계 눈 쏠린 역사적 서명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이 14일 밤 11시20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남측의 임동원대통령특보와 북측의 김영순조선아태평화위원장이 두 정상의 서명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TV촬영>

## 남연합-北연방제 공통점인정 自主통일 8·15 이산상봉-金正日 답방 준비 착수

### 南北 이대중 장관급 접촉 후속조치 합의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조만간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정부차원의 각 분야별 대표단을 구성, 이달 안으로 북한측과 당국간 회담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김대중정은 15일 오후 2시30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김대중정과 김위원장은 14일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력화 약속을 받았으며 남측대표단은 15일 평양을 방문중인 남측대표단은 15

일 배포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 정상은 "전쟁방정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북한이 대미,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권유한 것으로 밝혔다. 김대중정은 평양 방문 마지막날인 15일 김정일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후 전용기 편으로 귀한길에 올랐다. 김대중정은 서울공항에 도착,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상회담 결과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현종기자>

### 두 정상 '6·15 공동선언'

- ① 통일문제 자주적으로
- ②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 ③ 이산가족-장기수 해결
- ④ 經協, 민족경제 균형발전
- ⑤ 당국간 대화 조속 개최

2면에 계속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밤11시20분 김대중령속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후 교환하고 있다. <평양=침의대사진기자단>

### 당국대화 재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이룬 시인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척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이 가져온 중대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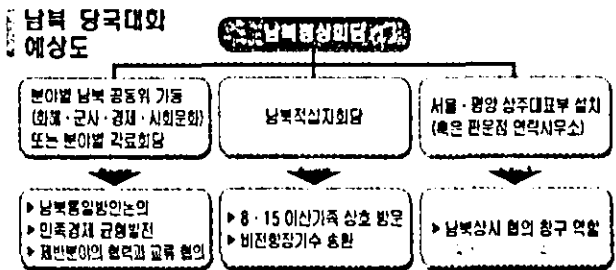
지난 92년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 9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남북당국간 지속적 본격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달중 장관급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키라고 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정상화 준비에 돌입하는등 대화체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향후 남북대화는 어떤 궤속에서 진행될까,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한테는 지난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등 4개 공동위의 가동이다. 화해·군사공동위에서는 남북간의 자주적 통일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공동위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방안, 사회문화공동위에서는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력을 향상화하는 방안이

## 지속적 본격협상의 큰틀 세워 '협의채널' 확대재편 뒤따를듯



협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정상이 남북문제에 근본적 해결전망을 제시한다 김정은(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화성되는 등 남북관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공동위원회라는 단이 격에 맞지 않는 지적도 있다.

이에따라 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각료급 회담으로 격상되거나 김제회담, 체육회담 등 부문별로 장관급이 참석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번 공동선언이 체육·보건·환경 등 기존 공동위에 담기 힘든 분야들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 나가기로 하는 등 한반도 분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들과 다른 특단의 협의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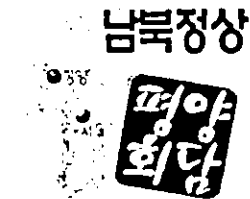
당국간 대화가 본격화할 경우 상시 대화채널의 확보를 위해 단순히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복원뿐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의동기자>

# 한반도에 이젠 統一의 역사를...

## 민족문제 자주 해결

15일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의 첫 항목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해결하자는데 남북이 동의했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72년 7·4공동성명에서도 남북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통일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선언은 당시와 본질상 차이가 없고 '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이 '해결해 나가



## 합의 5개항 분석

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남북 양측이 이 선언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와 이

## 통일방안 공통점 인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5일 '남북공동선언문'에서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55년 분단사상 획기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양측은 분단 이후 55년간 서로 여러차례의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으나 한반도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인정할 적이 없었다.

남측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적화통일의 또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의심했고, 북한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을 흡수통일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문에 양측이 발표한 통일방안은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목과 불신을 불러일으킨 주된 요인이 됐다. 특히 남한에서 고려연방제에 대한 언급은 곧바로 용공으로 해석되는 분위기가 계속돼 왔다. 통일방안이 상대방 공격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통해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남북 어느 쪽이든 이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식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교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대로 김대중대통령의 통일방안은 '3단계방안'이다. 그 중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남북연합회의(국회)와 연합정당회의, 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

해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1단계인 연합단계다. 이는 남북 양측이 모두 현 체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이 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채택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91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어 사실상 국가연합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당초의 연방제안은 단일 연방정부가 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 남북의 지방정부는 내부제도만 달리 운영하는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였다. 그러나 91년 김영삼정부가 신년사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언급한 이후 80년대의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단계적 연방제로 성격이 변했다.

그이후에도 북한은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2개의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쪽으로 연방제의 내용을 수정해왔다.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보다 체재보존이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게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정상이 발표한 '통일방안의 공통점'도 바로 이런 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낮은단계 연방제'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이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한 인식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은기자>

## 北 수십년 '通美封南' 전략수정 민족自決 원칙 당사자 협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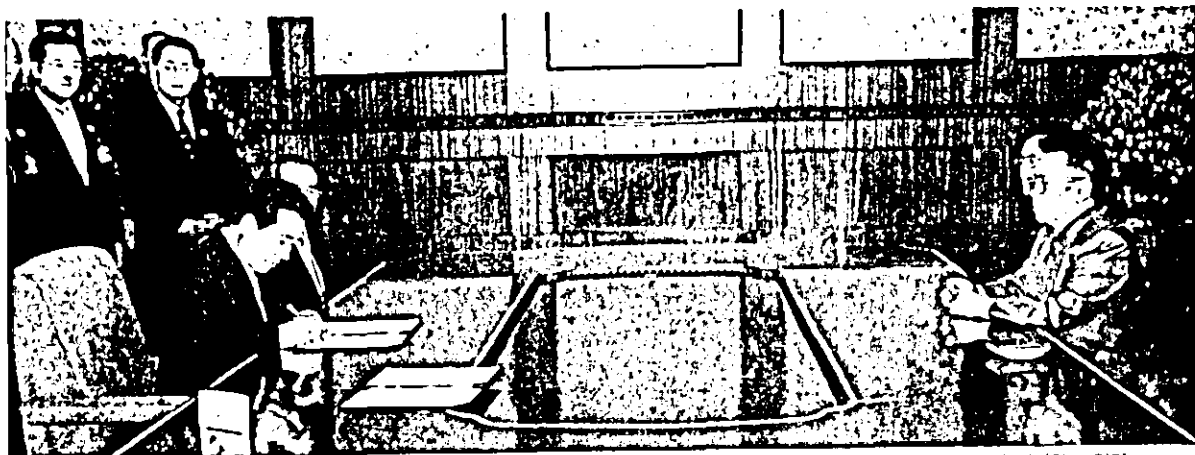
기로 했다'는 의지적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또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라는 '외세'에 대한 직접언급을 생략하고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 주목된다.

이번 선언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 등 외세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수정, 남북 당사자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했음을 암백히 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을 '미제(美帝)의 식민지'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동등한 민족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전환

과정에서 견해차와 난관들을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다. 7·4공동성명 이후에도 남북은 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탄생과정에서 7·4공동성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 당국의 실천의지와 이행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7·4공동성명이 남북단국이 밀사교환을 통해 급조한 것이라면 이번 선언은 남북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정상이 상호신뢰의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민족문제를 논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서의동기자>

## '서로 무너뜨리기식 과거' 청산 "現체제 온전히 유지" 인식공감



선언문 서명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4일 밤 백회원영빈관에서 남북정상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離散의 江' 넘어 온겨레 함께 가자

##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金大齊)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4일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등을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정상은 이산가족 상호방문 시기를 '올해 8·15에 즈음하여'로 명기하고, 비전향장기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남한이 요구해 온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요구해 온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해결하

한체제의 무원칙을 실천하는데 이용됐고 남측도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남북정상에 머물렀다. 현재 남측에는 88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있으며 이중 55명이 복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남북정상들이 공식합의한 만큼 당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



## 합의 5개항 분석

### 이산가족 관련 일지

- ▲71년 8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직접자 회담
- ▲72년 8월 남북직접자 1차 분회담 5개항 논의(주소 및 생사확인, 방문, 상봉, 서신거래, 재결합)
- ▲72~73년 남북직접자분회담 평양·서울 교환 개최
- ▲85년 9월 이산가족,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방문 및 가족 상봉
-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산가족 서신거래, 완례, 상봉, 방문, 재결합 명시)
- ▲93년 3월 이인오씨 송환
- ▲99년 6월 베이징 차관급회담
- ▲2000년 6월 8·15일 이산가족 상호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 합의

## 1회성 아닌 정례화 가능성 커져 장기수 문제도 해결 '윈-윈게임'

는 '윈-윈 게임'을 펼친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그간 남북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돼 왔으나 '상봉'에 성공한 경우는 지난 85년 10월 남북한 151명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상봉을 한 것이 유일하다. 남측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시안으로 간주한 반면 북측은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시안으로 인식하는 등 현실적인 입장차이가 보여 좀처럼 성사되지 못했다. 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도 지난 93년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오씨가 북

측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정치문제와 분리,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정례화하고 서울이나 평양, 판문점 등에 상설 상봉면회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다 상봉규모와 절차, 장소 등 실무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병권기자>

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부어, 선법인이 넘어날 수 있다.

상봉장소는 이산가족이 직접 고향을 찾아가기보다 지난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처럼 상대방 지역을 방문한 뒤 특정장소에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판문점이나 금강산 운정리 등 제3의 장소에 상봉면회소 설치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후 상봉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산가족이 월 100여건에서 10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구제적인 상봉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상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1~2개월 가량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유병권기자>

## □ 상봉대상자 선정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은 2·3세대를 포함해 모두 767만여명(06년 기준, 통일부 집계)이며, 이중 북한에 살다가 월남한 이산 1세대는 123만명이다.

특히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69만여명이며 이중 70대와 80대가 각각 20만1131명, 6만3722명에 달한다. 남측은 지난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의장의 '가족, 방계 8촌, 친·외가 4촌의 원칙'으로 정했다.

## 고령자-직계존비속 찾는 경우에 우선권

이산가족들은 일단 이후 가족상봉을 위한 눈물겨운 노리를 기울어 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상봉이 성사된 것은 지난 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유일하다.

반면 비공식적인 이산가족 찾기는 지난 88년 7·7선언 이후 휘거를 띠기 시작, 통일부통계에 따르면 월 3만건에 달하는 2001건, 서신교환 5434건, 제3국 상봉 496건이 성사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 대

한직접자, 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14만6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신청서를 받아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에 자료를 보관하고 상봉대상자를 분류해 놓고 있다.

이번 광복절 이산가족 상호교환이 성공할 경우 상봉신청자중 친연조항을 가진 6만여명 가운데 고령자, 부모·형제 등 직계존·비속을 찾는 경우 순으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황해도 등 이산가족이 많

## 민족경제 균형발전

남북공동선언 제4항중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대목은 한 치 남짓 경제력의 침체와 기본생활을 위협하는 것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는 민간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남북경협을 정부차원으로 공식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민족경제'라는 개념은 상호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민간경제'를 포괄하고 개인 국가로서가 아닌 민족이라는

## 경협 정부차원으로 공식 격상 '민생의 경제' 지향 강력 의지

큰 틀에서 상호보완적, 대외개방적인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된다. 여기에는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공동번영을 이뤄 종국적으로 통일국가의 탄생을 마련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해 김대중(金大齊)대통령은 지난 해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북측에 제안했고 올 1월에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의했다. 북한도 최근 '자립적 민족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외무역을 강조해왔다.

이와함께 '균형적 발전'이 공동선언에 명기된 것은 남북한 '상생(相生)의 경제'를 지향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서로 결합할 경우 ▲생산의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입비율감소 ▲간접적인 군사비 감축 등으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은 공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국가자간 회의에서는 원활한 경협 확대를 위한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을 비롯, 투자보장권, 이종교체방치위원회 제정 등 경협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재기자>



# 남북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방안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의 연합체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중합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이같은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간 대화단 개최하기로 했으며 김정일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걸친 2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역사적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이날 밤늦게 서명한 뒤 공식 발표했다.

두 정장은 선언문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 3시간 마라톤 회담 심야에 극적 서명

두 정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걸친 2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역사적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이날 밤늦게 서명한 뒤 공식 발표했다.

두 정장은 또 남북이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권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장은 선언문에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남북과 회담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두 정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20분까지 단독회담을 가졌으며 45분간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6시 5분에 회담을 속개. 45분만 6시 50분에 회담을 끝냈다. 이후 두 정

장은 방양 북한관에서 민중행사할 결연 뒤 11시20분께 백회관 연민관에서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김대중대통령 방북대표단은 15일 부속회담 등을 한차례 더 가진 뒤 돌아올 예정이다.

김대중대통령은 회담에서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 많은 합의를 이뤘으나 이제서야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 간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모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대통령은 또 "지금의 영토와 인구가 중시되는 시대는 아니다. 지식정보화시대도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계 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면서 "따라

서 이 시대의 동력은 절대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북측도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적극적으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남측과 북측은 김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사상에 공적연담을 갖고 7·4 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토대로한 교류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한·미·일의 대북 3국공조는 우리의 자주주권과 관계에 있는 것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며 남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대통령은 "3국공조는 남북정착이 북한에게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윈-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결코 북한을 해롭게 하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합의했어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밤11시20분 백회관민중관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할 뒤 손을 맞잡고 들어 참석자들의 박수에 답하고 있다. <평양=청외대 사진기자단>

##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다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이산사 참상으로 인한 이념 심화와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권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의 연합체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중합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열어진 가족친척 방문단담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안도착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산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산 시업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金正日

## 홍금 터놓은 대화... 회담→발표 '8시간 대드라마'

### '공동선언' 뒷얘기

14일 오후 3시, 회담 연민관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50년 분단사의 그림자도 깊어질수록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두 정장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 서명식 한때 미뤄져 "축시나..." 긴장감

올려 놓았고 김대중대통령도 노란색의 누운 날개를 준비했다. 김대중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50년 분단사의 그림자도 깊어질수록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될 때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진석기자>

## 8·15전후 방문 가장 유력할듯

### 김정일 언제 서울오나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저녁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공식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예상한 관심이 높고 있다.

14일 밤 남북 공동선언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정장이 합의한 '적절한' 답방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올해 분단 55주년이자 광복 55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전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복절은 분단의 단초를 제공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분단의 백을 허무는 뜻깊은 의미와 있다.

또 상징적으로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삼기 기자

sglee@hankyung.com

# “만나면 풀린다” 정상회담 정례회 새지평



## ‘서울담방’ 의미 시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방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불모를 뜬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해도

## 1회성 이벤트 아닌 지속 대화채널 구축 남북 조만간 구체 협의...年内방문 확실시

과연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두 정상간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위원장의 서울 담방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출국 인사에서부터 “이번 평양 방문은 한번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평양정상회담에 이은 서울정상회담의 추진을 다짐했었다.

김위원장의 서울 담방 수락 역시 반세기만에 걸치 쌓인 ‘냉전’이라는 민족최대의 난제를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두 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김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대중과 김위원장이 합의한 ‘직접관’ 담방 시기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주변정세등 복잡한 ‘계산’이 놓여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이날 남북공동선언 서명직후 김위원장의 서울담방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측의 의견을 들어 상호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단은 회담의 예측대로 일단 55주년이자 광복 55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이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인내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남북공동선언의 경제협력 구상이 상징적으로 구체화하는 남북한 철도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나 남북공동선언 2환에서 규정된 남북간 통일방안의 접근이 일정수준 이상 타결되는 조금 먼 장래에야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진석기자>

## 金대통령 “공항 직접마중 남쪽에서 놀라” 金위원장 “金대통령 오셔서 은둔서 해방”

### 두정상 대화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속소인 백화양양면관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6분 임빈관 1층 ‘차현관 출입문’에 도착했으며 이어 1분 뒤인 57분 김장일 위원장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다음은 두 정상간의 대화 내용.

△김위원장=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대통령=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김위원장=약속한대로 찾아뵙게 좋습니다. 일반 매우 갈해도 체감보다 못하다는 말도 없지 않습니다.

△김위원장=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신장되게 했습니다.

△김대통령=여기저기 많이 다녀셨습니까.

△김위원장=잡자리는 편하셨습니다.

△김대통령=잡자고 육류관에서 뽕만도 먹고 왔습니다.

△김위원장=오늘 회담이 오후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지시만 맛이 없습니다. 시간 여유 갖고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평양시민들이 굉장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용단을 내리셔서 오신 것에 대해 온 인민들이 뜨겁게 마중하고 했는데 인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통령=과분하게 환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오시고 한 것을 남쪽에서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김위원장=남쪽 텔레비 어제 오랫동안 봤습니다. 남쪽 인사들도 다 환영하고 특히 삼강만, 탁복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 소식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속을 태웁니다. (옆에 앉은 김용순 위원장에게) 심세로 우는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김대통령=(프레스센터에) 외국기자도 수백명 모이고 기자들 100여명

이 기압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우리 둘이 악수하는 것 보고.

△김위원장=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공항 간 것은) 인사로

한 것뿐인데, 구라라 사립들은 나보고 왜 은둔생활하느냐, 치욕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중국, 인도네시아도 비공개로 많이 갔다 왔는데, 김대통령이 오셔서 해방됐다고 그걸요. (웃음) 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비공개로 갔다왔으니까, 식민지는 불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대통령=음식이 참 좋습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대중대통령이 14일 오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틀러 김영남(오른쪽) 상임위원장의 안내로 서예반의 한 학생이 쓰고 있는 조국통일 회호를 감상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반세기 반목' 녹인 파격의 연속

## 남북정상



예상 뒤엎은 '2박3일'

### 김대중 2박3일 방북입지

- 13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오전 10시 25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봉(오전 10시37분)
- ◆두 정상 승용차 동승 및 차내 단독대화(50분 가량)
- ◆백화원양빈관 1차 남북정상회담(오전 11시45분부터 27분간)
- ◆만수대의사당 방문 및 만수대에술극장 공연관람(오후)
- ◆김영남위원장 주최 인민문화공전 환영 만찬(저녁)
- 14일 ◆김영남위원장과 만수대의사당 공식만찬(오전 9시45분부터 1시간 가량)
- ◆만경대 초연학생공연 방문 및 공연관람(낮)
- ◆백화원양빈관 2차 마라톤 정상회담(오후 3시부터 3시간50분 가량)
- ◆각 분야 특별수행원,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측과 분야별 간담회(오후)
- ◆이회호이사, 참관유치원 및 평양신인동 방문(오후)
- ◆김대통령 특빈관 탑레만찬, 김위원장 참석(저녁 8시부터 3시간가량)
- ◆두 정상 '6·15 남북 공동선언' 서명(밤 11시20분)
- 15일 ◆평양 닭공장 방문(오전)
- ◆김정일위원장 주최 오찬(낮)
- ◆평양 순안공항 출발(오후 4시)

## 엷히고 설킨 난제 풀 실마리... 첫 방북에 큰 결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방북 2박3일은 지난 5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남북 정상 의 첫 방북이란 역사성에 무게를 더하는 듯 파격이 연속이었다. 집권전까지 치른 서로 다른 체제가 정전(停戰)하에서 총부리를 마주 가두던 반세기의 긴장과 거리감은 일시에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가였다.

13일 파격은 김대중대통령이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이날 예상과 뒤엎고 직접 공항에 나와 전용기에서 북한에 찾발을 내딛는 김대중을 영접했다.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위원장이 공항에서 외국 고위인사를 직접 영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위원장이 김대통령과 공항에서부터 백화원양빈관까지 동승해 50년간 대화할 나을 것도 아예지인 일이었다. 두 정상의 회담이나 회담에 대한 생중계는 물론 취재차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양측의 합의와 달리 백화원 양빈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남측 공동취재단 기자 2명이 김관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 및 공식수행원과 각자를 처리지 않고 거침 없이 말을 이어갔다.

14일 방북 2일째인 1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일일 양측 대표단의 만담도 예상밖의 원칙으로 진행됐다. 우리측은 김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측에서는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위원(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위원장 대신 나서 결국 '공식만담'으로 각이 낮춰졌다. 지인하 확대정상회담과 달리 친이일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40여분간의 상근대에 머물렀다.

파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날 오후 3시부터 김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양빈관에서 진행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단독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10여분간 환담후 본격회담을 시작, 중간에 45분간

휴식을 취한 뒤 6시50분까지 무려 3시간 50여분간 마라톤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간 공동선언문 서명과 방북도 심야에 이뤄지는 친기회를 놓았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1시20분에 선언문에 공동 서명을 했으며 선언문의 서명일자가 15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12시가 임박해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날 밤 김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55년의 거리를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밤 9시 50분쯤 공동선언문에 대한 박판 질곡이 상징적으로 끝나자 헤드테이빙에 있던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올라가 함께 손을 들어올리며 큰소리로 "결정 합의했음을 보고한다"고 선언했다.

15일 김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 역시 당초 육로로 귀환하려던 계획을 깨고 오후 4시 순안공항에서 대기중이던 전용기에 올랐다. <박민기기자>



北소년들과 기념촬영

김대중대통령 내외가 14일 오전 만경대학생소년공원을 방문, 북한 어린 이들의 공원을 관람한 뒤 화환을 건네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두렵고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백두서 한라까지 평화 가득찰것

### 쏟아진 회제의 말... 말...

남북 두 정상은 2박3일동안 12만 5000의 강기를 뛰어남기에 총련과, 가슴깊한 문공들을 전세계에 늘려갔다. 역사에 기록된 두 정상의 열정을 시종내내 정려해 본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원심을 적시려는 처분한 미려를 가지고 방문간에 오셨고자 합니다."(김대중대통령, 13일 방북 대국민 인사)  
▲"그 간 세월을 험고 온아 이해가 있

습니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김대통령, 13일 평양도착 성명)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퇴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신민족입니다."(김정일국방위원장, 13일 1차 정상회담)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김대통령, 13일 1차 정상회담중 '무서운 길을 왔다'는 김위원장의 말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박

3일동안 대담해 주어야 합니다."(김위원장, 13일 1차 정상회담)

▲"우라와 사립들이 내가 운명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어디인 갔다였다. 김대통령이 오셔서 운명생활에서 해방했다고 한다."(김위원장, 14일 2차 정상회담)

▲"노더야 백두산에서 한려산까지 뽕과가 가'차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민간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김대통령, 14일 만찬서)

▲"(김대통령이) 왜 우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인회장에서이산가족 만드느냐. 그래서 김대통령께서 이산가족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다."(김위원장, 14일 만찬 오찬 이회호이사님 김대통령과 자신의 옆으로 옮기도록 배려한 뒤)

<김종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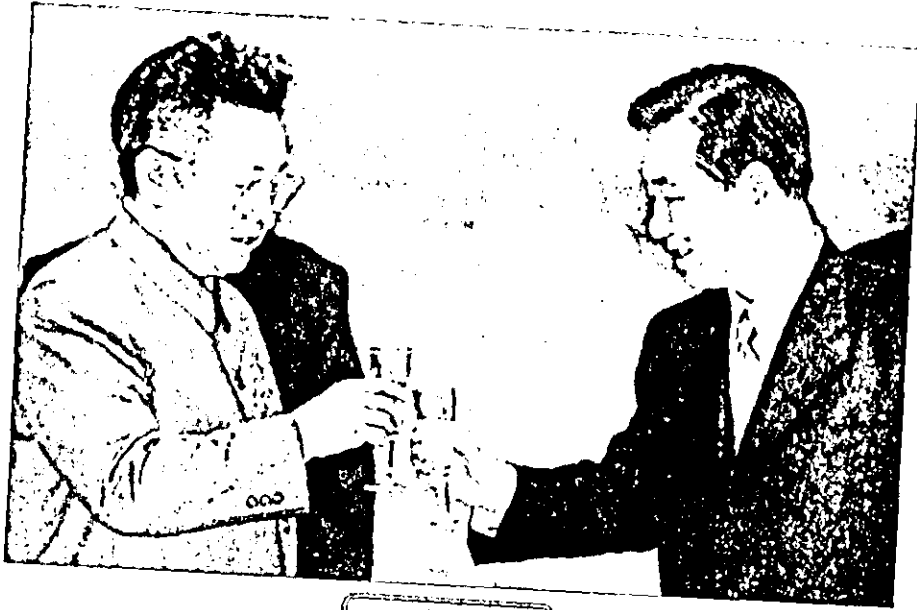
## '6·15선언'으로 표현

### 14일 서명... 공식입자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자정쯤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15일 "두 정상이 14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지만 선언문에 서명일자가 15일로 돼있고 15일 공식발표문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며 "공동선언의 서문에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과거형으로 표기한 것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민기기자>

# 林東源-金容淳라인 막판까지 '물밑조율'



## 공동선언 도출 '산파역'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뒤에는 회담 진전을 위해 막후에서 움직인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남측에선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 왕인탁(王仁卓)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양인식(梁榮植) 통일부차관 등이 꼽힌다. 심밀적인 대북진출과 정보수집, 전략기획 업무들을 수행한 국정원 실무지원단도 빼놓을 수 없다.

북측에선 김용순(金容淳) 조선아태평화위원장, 송호경(宋浩敬) 아태평화위원부장, 장금실(全君實)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안길호(安吉浩) 조평통서기국장, 이종여(李鍾여) 조국통일연구원장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남측 임동원원장과 북측 김용순위원장은 임의문 도출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김' 체인은 임의문 사방이 이뤄진 14일 2차 단독 정상회담에 두사람이 배석함으로써 표면에 드러났다.

임동원은 이날 왕인탁수석, 이기호(李基浩) 김세수수석들과 함께 배석한 반면 북측 김용순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단독으로 배석해 김정일위원장의 부티운 선임을 과시했다. 오래전부터 친



분을 다지은 '안·김' 두사람은 이번 임의문 도출과정에서도 두 정상 의 절대적인 선임을 바탕으로 막판까지 물밑에서 줄다리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자체를 심사시킨 남측 박지원장관과 북측 송호경위원장은 잘 알려진 막후 주역들이다. 북측 진급청부위원장은 98년 중국 베이징(北京) 차관급회담 결렬이후 견강하심이 나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복귀했다.

특히 이번 김대중령의 방북기간 동안 각종 회담과 행사등에는 김정일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끄는 얼굴은 공동선언문 시범배 배석한 임동록 당제1부부장, 대남 문제를 다루 온 실세지만 지금껏 북한 언론에조차 거의 보도된 적이 없는 인물이다. 분화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선전부 지도원, 과장등을 거쳐 88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9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됐다. 하지만 우려로 치면 중간 간부급이어서 참

## "화해·평화를 위하여"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 저녁 마리톤 회담끝에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뒤 목란관 만찬에서 환한 표정으로 건배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시진기지단>

모정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지도 있다.

현재로선 김정일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당 '4인방'이 견제할 듯하다. 일단 김용순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도 단독으로 배석해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고 담비서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은 이날 오찬에 일련 공식연단에 참석했다. 김국대 담비서는 김대중령이 도착한 남 순안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김기남 당선전비서만 눈에 띄지 않았다.

군에는 첫날 순안공항에서 진용기앞까지 가 김대중령을 임접했던 조명목 국방위제1부위원장이 실세로 거론된다. 김영춘 군총참모장과 김일철 인민무력상도 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김일철 무력상은 시리아대통령 조문사절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시업 2위인 김일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원칙상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라는 점에서 측근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우기자>

# 두 정상 자정계 작별...취침전 간이 참모회의

## 2박3일 일정 마무리 귀환길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5년의 한반도 분단사 중식의 출발점이 된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마지막 오찬'을 가진 뒤 오후 4시 특별기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다.

○...김대통령은 전날 밤늦게까지 '격무'를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5

와대 대변인은 김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 2차 회담에 들어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한 14일을 '김대통령의 가장 긴 하루'라고 표현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밤 11시20분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뒤에 (안도의)간 숨을 내쉬었다는게 우리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목련관 만찬이 끝난뒤 숙소인

## "6월14일은 金대통령생애 가장 긴 하루..."

### 北안내원 "정말이나" "큰일 해냈다" 환호

입 오전 6시를 조금 넘겨 평상시와 같이 눈을 떴다.

평양은 김대통령이 도착한 이후 줄곧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날씨가 참 좋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서울 출발을 앞둔 이날 오전에 별다른 일정없이 영빈관에서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와 함께 평양 도착후 처음으로 산책을 하면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공식 및 특별 수행인들은 이날은 오전 평양 시내의 '달공장'을 방문했고, 공동취재단도 동명왕릉을 구경하는 등 모처럼 평양 시내 관광을 즐겼다.

○...김대통령은 15일 새벽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박준엄(朴俊諤)청

영빈관으로 돌아와 김위원장과 공동선언에 서명한뒤 자정이 다 돼서야 김위원장과 작별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과 공동선언에 대한 긴박한 총평및 향후 대책들에 관해 논의한뒤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14일 밤 12시 박대변인이 고려호텔에 있는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합의문 서명 사실과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자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던 북측 안내인과 호텔 직원들은 "정말이나" "큰 일을 해냈다"며 환호를 질렀다.

특히 기자 안내원들은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 합의문을 남측 기자들로부터 구해 읽어보면서 "서로 자기 입장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주적으

로 해결하지는 데 대해 전 인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새벽 2시가 남도록 호텔 바에서 남측 기자들과 합의 내용을 토론했다. 이들은 김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3단계 통일론'을 다듬어오면서 과거 정권으로부터 음해와 박해를 받아온 사실을 들어가며 "민족사에 사변적(회기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측 언론매체들은 15일 이른 아침부터 남북공동 선언 합의서명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은 오전 5시부터 매 뉴스시간에 머릿기사로 합의 사실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내외 등 대표단의 평양활동을 보도했다.

평소 사진 제작하는 '노동신문'도 14일 밤 늦게 서명된 공동선언 전문을 15일자 1면 머리에 한면의 3분의 2 정도로 크게 실었다.

그 아래에는 김 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서명하는 사진과 관련기사를 보도했으며 2면에는 화보와 함께 김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찬에 초대한 사실까지 자세히 알렸다.

<평양=공동취재단>

### 남측신문 보는 두 정상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4일오후 백화원영빈관에서 2차정상회담도중 휴식을 취하며 두정상의 첫 만남이 보도된 남측 신문물 살펴보고 있다.

<평양=청와대시진기자단>



# 김대통령 “北지도자 서울서 만남시다”

# 김위원장 “금강산케이불카 내가 반대”

## 평양 마지막날 만찬 대화록·스케치

이번 정상회담 기간중 하이라이트인 14일 만찬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만찬장옆에 대청빙풍으로 가려진 휴게실에서 잠시 담소를 나눴다.

●...김대통령이 휴게실앞에 걸린 대형그림을 가리키며 묻자 김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의 실제 정경입니다. 중국쪽에서 본 것보다는 우리쪽에서 본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참외대에도 백두산 사진이 있는데 저쪽(중국쪽)에서 찍은 것입니다”고 말했다.

### “칠보산도 절경입니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께서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한리산에 한번 가보고요”라고 말하자 김대통령은 “다리가 불편해서 백두산에 오르는 힘들다”고 답했다. 김위원장이 “자동차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고 설명하자 김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 김위원장은 “금강산은 자동차로 못 올라갑니다. 젊은이들이 금강산에 사도(케이불카)를 만들자고 했는데 반대했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느냐고 반대했지요”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백두산 천지만은 사도를 냅습니다. 파괴된 것도 없어요입니다. 사도는 산장에서 밑에까지 가로질러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금강산 못지않은 칠보산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4번 갔다왔는데 아직도 채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금강산처럼 바다를 끼고 있어 절경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중국 사람들이 관광지로 개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다”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이 “대통령께서 모범을 보였으니 장관내리들도 각자 분야별로 복원할사를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제의하자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말씀은 북쪽 지도자들도 남쪽을 답사한다는 의미”라고 화답했다.

●...이에 김위원장은 “서로 오가는 것도 좋고 관광해서 인연 이익도 많

지만 손해보는 것도 적지 않다. 다소 과장됐지만 금강산 갔다는 남쪽 사람들은 자기네 설악산은 오봉투성이라고 했다더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모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환경과 개발의 이중성을 지적하자 김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동감을 표시시켰다.

김위원장은 자신이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느낀 탓인지 “제가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습니다”며 자제하려 했으나 김대통령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라며 김위원장을 배려한 뒤 “서울은 공해가 문제입니다. 옛그제 중랑천 물고기가 죽은 기사들 보고 심각하게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 두정상에 3분간 기립박수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헤드테이بل에 도착하자 미리 자리했던 양측 참석자들은 3분동안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먼저 김대통령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5분여동안 만찬사를 낭독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전대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지극한 효상에 감동했다”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했다.

김대통령은 감회가 새로운 듯 “저는 지난 40년동안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무엇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말하자 만찬장에는 다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 南수행원과 일일이 건배

김대통령은 끝으로 김위원장과 북쪽 지도자를 거론하며 지난 72년 서울장충단공원 대통령 유세 때 “칭와대에서 만남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만남시다”라며 연설을 맺었다.

●...이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

회의상임위원장의 답사가 끝난 뒤 김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은 미리 치러진 남측 소주와 문배주, 궁중 음식 메뉴 등을 화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때 김위원장은 이희호(李姬鎬)여사가 헤드테이블이 아닌 앞쪽 일반 참석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산가족이 되면 안된다”며 폭소를 자아내게 한 뒤 김대통령과 자신의 중간에 새로 자리를 마련, 이어서에게 앞도둑 배려했다.

밤 9시50분경 만찬장 밖에서 별도로 진행된 공동선언문에 대한 탁관길총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김정일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남측 공식수령인에게 일일이 건배를 제의했다. 이때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이끌고 나와 손끝 마주잡아 들어 울리며 “완전 합의했음을 보고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선언하는 과격적인 모습을 연출했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이어 축하 건배병진은 밤 10시 15분쯤 돼서야 진정됐으며 김대통령은 포도주 4.5잔을, 김위원장은 10잔 가까이 마셨다. 10시25분경 박재규(朴在圭)장관이 다시 연단으로 나와 “김정일위원장의 명을 받아 나왔습니다. 남측 특별수행인중에 유명한 시인이 계신데 시 한수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은(高銀) 시인이 나와 “오늘 아침 숙소에서 우리민족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다”면서 원고지에 직접 적은 ‘대동강 앞에서’라는 시를 감격에 겨운 격렬한 몸짓과 목소리로 낭송했다.

### 김위원장 포도주 10잔비위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만찬을 끝내고 일어나 승용차편으로 공동선언 서명식장으로 출발했다. 승용차에 오르기 전 김위원장은 “내가 얼마 전 김영희에게 남측에서 출판한 ‘손합단’이 분선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진’자를 ‘던’자로 잘못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던’이 맞더라”고 말해 따라가던 양측 일행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평양=공동취재단>

# 양형섭 부위원장등 각계 망라

## □ 공식면담 北 참석자

장덕수 기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남북공식면담에 우리는 정부 인사들만 참석한 반면 북한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측근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석했다.

북측 인사들이 공식면담에서 사용한 직함을 놓고 볼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관계자가 모두 5명이며 정당 관계자가 1명, 사회·경제단체 관계자는 3명 등이다.

특히 정운업 민경련 회장은 이

기호 김제수석 바로 맞은 편에 앉아 앞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총 관 업무를 맡을 것을 예고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상임위 부위원장은 북한 지식계를 대표하는 이문가다. 특히 김일성의 큰 고모의 딸인 김신숙의 남편이어서 김일성 집안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창 승진 가도를 달리다 80년 7월 사회과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치위원과 비서에서 물러나 답직에서 맡아줬다가 지난 93년 12월 13년 만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송호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전문가

다. 96년 7월 당 중앙위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96년 10월 조·인 우호친선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88년 8월 남북국회회담 준비집족(1~8일)차 북측 대표로 나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90년 9월 남북고위급 회담(1~8일) 때는 북측대표 대변인으로 활동해 우리에게 비교적 낯익은 얼굴이다.

이상으로 최고인민회의 부장 역시 적십자 중앙위 책임지도원과 해외담당 국가보위부 국장, 외교 순회대사를 역임한 외교전문가다.

## 문화일보

2000. 6. 15 (목)

## 중앙일보

2000. 6. 15 (목)

### 특집

김대중(金大君) 대통령 임행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 보잉 737기가 남북 첫 항로를 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을 통과한 시각은 6월13일 오전9시18분. 1년전 바로 이 시각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5도 NLL 해상에는 남북 함정이 대치한 채 전쟁의 미궁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6월15일 오전 정진립장 조인후 남북 정규군간의 첫 전투인 서해교전이 발발했다.

### 연평도의 6월15일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오늘도 남 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대역사를 이끌어낸 감격의 날로 역사에 기록됐다. 전쟁과 반목이 일순간에 평화와 통일의 기대감으로 뒤바뀐 것이다.

시해사태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시 북한김비정 3척이 꽃게잡이 어선 30척을 호위하며 NLL을 침범하면서 시작됐다. 9일 양측 해군 함정간의 첫 충돌사고가 벌어졌고 11일 우리 해군고속정의 '충돌침범어내기' 공격으로 북한김비정 4척이 신체 손상을 입고 침수,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북한 해군은 15일 오전 6시10분 또다시 NLL을 침범, 급기야 오전9시28분 북

한김비정 1척이 우리 고속정 2척에 20mm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시작, 14분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우리 해군의 완승이었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 해군이 최소 30여명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했으며 어뢰정1척이 침몰하고 김비정 5척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에비해 우리 해군은 9명이 경상을 입었고, 고속정 4척과 초계함 1척의 기관실과 신체 일부가 파손됐다.

만약 서해교전이 화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햇볕정책은 중지부를 찍고 남북 정상회담 대신 반쪽과 대결의 냉기가

한반도를 더욱 얼어붙게 했을 것이다. 당시 급강산관광으로 손꼽을 타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안팎의 거센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었다. 서해교전 결과 '안보능력'을 검증받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탄력이 붙었고 꼭 1년만에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한 평양선언이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한순간의 무리충돌로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NLL 완충구역에서의 공동조업 방안을 비롯한 집경시대 무리충돌 방지취침등 안전관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정충신기자>

## 박치기·美人... 文化의 고장

### 내 고향 평양은...

이북5도청 소속 윤세금(尹世金) 평양 명예시장이 말하는 '내 고향 평양 모습'을 소개한다. 그는 1946년 3월 월남, 남한에 정착했다.



윤세금 명예시장

신문·TV 등을 통해 평양모습을 실컷 봤다. 내가 살 때의 모습은 간데 없어 아쉬웠지만 벽간 가슴을 누를 길 없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어릴 적 고향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조선시대에 평양감사가 지방감사 중 최고 자리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평양이 인심 후하고 풍경 좋고 미인 많기로도 유명했기 때문인 것 같다.

'평양 박치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순발력과 민첩함에 관한 한 평양사람을 따라오질 못했다. 해방 전 평양은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 비해 잘 살았다. 기독교가 번창하면서 민심이 팽라졌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대한 자각도 뻬했다.

때문에 당시 '조선 제1의 문화도시'라는 평양인들의 긍지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된다.

대동강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해업 치며 놀던 기억도 생생하다. 조선시대 김황원(金黃元)시인이 대동강을 두고 '장강일면용수(長江一面窟窟水)'라고 읊었을 정도로 긴 강에 맑은 물이 장관을 뿜었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함경도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평양에 많이 내려왔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지식층이던 평양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며 월남을 많이 했다.

평양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나뉘져 있었다. 북쪽인 구시가지 쪽엔 주로 우리 민족이 살았다. 1910년 전후 일본이 조성한 신시가지엔 일본사람들이 살았다.

모란봉·을말대·부벽루 등 경치 좋은 곳은 대부분 구시가지 쪽에 있었다. 만약 평양에 갈 수 있다면 모란봉·을말대에 올라 그 모습을 보고 싶다.

# 한반도 新질서 급류한다

## 불신·대결서 신뢰·화해로... '역사의 U턴'

### ③ '6·15공동선언' 안팎 <관>

김대중(金大)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에 합의,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불신과 대결로 집결된 55년 '분단 역사'를 신뢰와 화해의 '통일 역사'로 바꾸는, 역사의 유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미묘한 문제인 통일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남북 양측이 공통의 출발점을 찾은 것과 함께 양정상이 만나 직접 서명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어느 남북간의 합의서보다도 확실한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양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간주돼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무드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5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측의 명분과 실리를 십분 반영했다. 남측은 북한을 개방의 무대로 끌어내 냉전체제 해체라는 성과를 얻었고, 북한도 대내적으로는 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개방과 경제지원이라는 실리를 얻어냄으로써 '윈-윈 선언'이 됐다.

우선 두 정상은 통일문제에 대해 '자주'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통일노력 원칙을 분명히 했다. 72년 7·4남북공동선언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통일문제 해결의 주체를 우리 민족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자주'문제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외세 배격을 전제로 남한정부의 자주성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일치했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양정상이 자주의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무게중심이 남북간 대화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번 공동선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남북양측의 최고책임자가 상호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과도기적인 통일방안으로 사실상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인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논쟁을 야기할 사안으로 보인다. 합의자체가 추상적인데다 남한내부에서 보수층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산가족의 재회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우리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를 수용했다.

이같은 제반 화해와 협력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기로 한 것은 선언의 실천을 위한 이행기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양정상이 이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나 미사일 문제 등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쉬운 것부터 합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증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14일 한 요리사(왼쪽)가 시네 중심가의 신문판매대 앞에 서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다. <베이징=AP촬영>

# “통일 향한 첫길 뚫렸다”

### 세계 주요언론 일제히 특뉴스 보도

14일밤(한국시간) 남북한 정상회담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사실이 전해지자 전세계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통일로 가는 첫길이 뚫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 냉전구도 깎 내용 합의

◀미국=뉴욕타임스는 이날 ‘남북한 정상 냉전완화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공동선언문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핵심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5개 합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 신단국력은 물론 남북한 모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충실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수백만명이 희생된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 동아시아 정세 큰변화

◀아시아=NHK방송과 아시아·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남북공동선언 서명소식을 머릿기사와 특집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합의로 지난 50년간 냉전구조를 유지해 온 남북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향후 한·일 및 북·미 관계를 포함,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영자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날 남북공동선언 서명소식을 머릿기사로 전하고 “이번 합의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고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화해의 새 태양이 떴다

◀유럽=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오랜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갈등을 넘어 통일로 가는 첫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날 인터넷판 머릿기사에서 “마침내 조국통일과 화해, 평화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발언 인용,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슈피겔과 쥐트도이체 차이퉁, ARD방송 등 독일 언론들도 남북공동선언 서명소식을 크게 전하면서 “이번 합의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남북한의 최종목표는 통일”이라고 평가했다.

<오남석기자>

# “동포애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티즌 반응

김정욱 기자

‘하루종일 TV를 봐도 즐겁기만한 하루였다. 김 대통령에게 우리 가족의 사랑을 전합니다. 45세 주부’(네티즌 iamthat)

‘요즘 갑자기 나타난 북한 미화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머리는 차가운 이성급, 가슴은 따뜻한 동포애급’(네티즌 minuki)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인 14일 IC통신과 인터넷에는 남북 지도자 만남에 대한 감격과 기쁨,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격려 등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www.cwd.go.kr) 홈페이지에는 시민 진상민 씨가 ‘저는 두 번 울었습니다’란 제목에서 “중학교 때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를 듣고 평생을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면서 “오늘도 감격해서 또 한 번 울었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토로했다.

마산고 2학년생인 최진관 군은 “제 삼촌 선생님이며 저는 저의 재능에게 품입을 위해 진정으로 힘쓰신 분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자신했게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제, 장복적인 건의와 함께 경제의 복소리도 많이 나왔다.

조현호 씨(hhcho)는 “수재의언급 모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때처럼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상금을 모금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국민 상금을 비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원 씨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남북한 국기를 서울 시내에 걸어 세계 만방에 알리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된 대로 김 대통령이 친히 임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프레스센터 두차례 박수세례

이석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14일 오후 들어 성적이 다른 박수소리가 터져나와 눈길을 끌었다. 첫 박수는 오후 1시경 터졌다. 미국 프로야구 엔에이 다저스 소속 박찬호(27)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 스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완투승

을 거두는 장면이 방영되자 내외신 기자들이 박수를 친 것이다.

두번째 박수는 오후 3시를 넘기면서 터져나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이 오셔서 내가 은둔생활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하자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함께 폭소를 터뜨린 것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 긴장의 1년... 이젠 '꽃게전쟁' 없겠지요



### 서해교전 한들... 연평도 르포

“이제 정상회담이 잘 치러졌으니 황금어장에서 마음껏 꽃게를 잡아

올릴 수 있겠지요.”

15일 물안개가 심을 운동 뒤였던 오전 5시 서해 연평도, 서둘러 그물을 손질한 뒤 석항구를 가로지르며 꽃게어장으로 출어행진에 나선 꽃게잡이 어선 55척 300여 어부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 ‘황금어장’ 못들어가 생계 타격

정확히 1년전인 지난해 6월15일 발생한 북한측과의 서해교전. 이로 인해 이곳 어민들은 꼬박 1년동안 준(準)전시상태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생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때문에 이날 평양에서 타진된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발표는 가슴뛰는 남보였다.

어부들은 벌써 남북한 어선이 평화롭게 고기잡을 수 있다는 꿈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연평어민회 총무인 이진구(李鎭九·41) 씨는 “이북이 바로 옆이라서 그동안 야간조업, 일몰·일출시간 엄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했다”며 “이제 남북한 배가 평화롭게 조업하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어민들은 연평지선어장 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은 ‘황금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

#### 정상회담 성과에 함박웃음

다는 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꽃게를 비롯, 각종 어류들의 서해안 최고의 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한측이 주장하는 12해리구역 사이인 이른바 완충지대 부근. 지난해 ‘꽃게전쟁’도 북한측 어선이 이 황금어장에 들어와 조업을 하다 우리측 함대와 충돌하는 바람에 빚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이곳 황금어장에서 조업은 철저히 금지됐다. 근각전지역인 탓에 해군함정과 울진군청 지도선, 해경지도선 등이 따라붙어 어부들은 단속을 피하려 쫓고 쫓

#### 남북 함께 ‘평화조업’ 했으면

기는 숭바꼭질을 벌여왔다.

신승원(申承元·61) 어민회장은 “어민들은 어느 곳보다 이 황금어장에서 평화롭게 조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어부들은 우리 당국이 안전을 위해 설정한 ‘지선어장선(線)’을 단 100만 명어도 어획량은 10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에서 수획공판장에 넘기는 양계 1kg(3마리)가 2만5000원을 웃돌 정도로 꽃게는 ‘금게’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 없다. 연평도 해역에서의 꽃게어획량은 연간 3291t으로 국내 총 꽃게 어획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도=홍경업기자>



▶남북한 해군사이에 서해교전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15일 오전 꽃게잡이에서 돌아온 연평도 어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발표 소식을 듣고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 스포츠맨 땀으로 남북화합 선도

## 양측정상 '공동선언'에 포함·실무자 세부사항 의견접근 올림픽 동시입장·탁구단일팀 구성등 구체적 성과 가시화

### 남북정상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그간 체육계차원에서 논의, 제의됐던 각종 남북스포츠교류가 구체화, 현실화의 전망이다.

그간 제의됐던 각종 남북교류에 체육교류는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이라는 단서 때문에 구체화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체육교류는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 한하여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지겠다'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으로 어느 분야보다 더 활발한 정책으로 이끈사이에 구체적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통령을 수행한 김용봉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이 북측 실무자들과 만나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가장 먼저 오는 9월 시드니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동시 입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남북직접대화남북회담이 2차 회담에 참석한 김용봉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 동시 입장'과 '2001년 오사카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제의, 북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장이 다음 사안에 앞서 이들 두 가지 안을 먼저 제안한 것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림픽동시입장은 이미 지난날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가체육총연합 총회와 참석한 북측 관계자와 실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한 상태이고 IOC도 사마란치 위원장이 남북 양측 정상에 제의,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은 탁구가 이미 지난 91년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도 이번 정상회담기간중 2002년 월드컵의 분산 개최와 단일팀 구성, 교환경기 등에 관해 북측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91년 지바세계탁구선수권에서 단일팀을 구성, 이차대회에서 우승한 남북선수단이 환송식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92년 보도사진연감>

합의에 이르게끔으로 알려졌다. 축구는 우선 오는 10월 레바논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과 남북교환경기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합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월드컵대회의 분산 개최 문제는 오는 11월에 제12회 FIFA대회장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함께 북측을 방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대어선의 주도로 열린 '몽의 농구대회'

도 남북 국가대표간 정기전으로 승격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올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안컵유도대회의 북한 참가, 씨름대회 등 불발 교섭중인 수많은 교류 방안들이 현실화의 전망이다. 정치적 문제로 종전까지 폐쇄적이었던 북측 체육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귀환 남북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 것이 분발해 남북 체육교류는 때아닌 빛깔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북광재가지>

## 남북 올림픽 동시입장 한다면...

'한반도 올림픽' '원강, 원대, 문화 올림픽'이 될 것으로 알려진 2000시드니올림픽은 '한반도 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의 남북한 동시 입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지구촌에서 유일한 한반도 국가인 한국과 북한에 올림픽을 전

이후 동·서독간의 활발한 스포츠교류가 있었던 점에서 남북체육교류에도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동시입장은 양측 모두 정치외교 협의면으로도 현실화할 수 있다. 사마란치위원장 제의대로 올림픽기와 각각 NOC가만 필요할 뿐 크게 신경을 쓸 만한 안안이 없기 때문.

북측 남북한 관계자들은 NOC개보다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 '한반도기' 앞세워 통일외지 만방에 선포

### 지구촌가족에 '세계평화' 메시지 각인

한편 입장하는 장면은 50여 지구촌 가족들에게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메시지를 함께 남북한이 자주적 통일 메시지를 알리며 새 천년의 첫 걸음을 신사하게 걸었다.

남북한 동시입장은 이미 종합예선전이 마무리, 단일팀 구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대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후안 원대(IOC)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아테네로 예정된 동시입장은 특히 1991년 동시입장 50년 백만명 올림픽에서 동·서독이 함께 입장했던 전례가 있고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NOC개보다는 '한반도기'가 더 상징성이 높다는 것.

남북한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드니에서 종합예선 운동선수들이 각종 장비에 경쟁사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제12차 총회기간중 사마란치위원장이 서울과 평양에 아이디어를 타진해 이뤄지는 올림픽 동시입장은 북측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체육교류 어떤종목 가능할까

축구 및 탁구 단일팀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 외에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스포츠교류사업은 농구와 씨름, 태권도, 사이클, 아이스하키, 복싱 등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고 남북 모두에 실리할 안가지로 분석됐다.

한편의 주안점으로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교환경기를 치러 남북화해의 침방 역할을 해온 농구는 이제 국가대표단간 정기전으로 승격을 바라보고있다. 한때 미국프로농구(NBA) 진출을 타진했던

세계 최정신엔터 이영호를 포함한 '남북한 드림팀'을 구성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방안도 거론할 수 있다.

씨름도 민족교류의 전통 스포츠라는 점에서 '민족 흥업'의 상징으로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입삼탁씨름연맹총재는 "아태북태권연맹을 가동, 남북한 총체 원석의 씨름대회를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르면 올 하반기 태연맹에서 우리 씨름 선수들과 조선족 선수, 북한 선수와 어울리는 무대가 마련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태권도도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갈라져 김기규씨가 다르지만 남북회화가 앞서다 서민단

을 구성, 서울-평양을 오가며 증세사범대회 등을 통해 남북대교동향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남북총단사이클대회도 참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젠. 인호 조희호 대한사이클연맹회장이 서울과 평양을 잇는 도로사이클 개최 의사를 밝혔을 때만해도 민선만이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

지난 2집 중

### 농구 정기전 승격등 사실상 전종목 거론

### 씨름 태권도 전종스포츠 조기 실현될듯

나 "앞으로 서로 돕고 지내다"고 약속한 아이스하키도 교류가 급물살을 탈 종목으로 꼽힌다. 특히 북한 아이스하키가 동유럽과의 교류로 수준급 기량을 보였는데다 다른 종목에 비해 남한에 대한 자신감이 두드러지 교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복싱도 한류에 뒤처지지만, 친원칙인 '월드 그리 스포츠'에서 남한에서는 무명주자 배출되지 않아 저출하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가속화한 북한의 개방에 따라 무력 해자로 세계스타를 꿈꾸는 북한 선수들이 세계무대에 나선 것으로 보여기때문이다.

# '밤새 핀 통일 싹' ... 꿈이냐 생시냐



'6·15선언' 시민반응

"북녘 하늘이 우리 앞으로 한걸음 상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북이 함께 통일 노래를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에 머리를 맞대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15일 온 국민의 마음은 온통 북녘으로 향해 있었다. 실향민·남북지가족·합북자·일반시민·시민단체 등 구별이 필요없이 모두 한마음이였다.

북쪽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을 에타게 그리워하던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은 앞으로 두달만 지나면 지난 반세기동안의 한(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 관련단체 등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의 공적자도 이번 6·15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서 "통일은 이제 막연한 염원이 아닌 실현해야 할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실향민 박임학(71) 씨는 "통일이 되면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휴전선에서 가까운 이곳에 자리잡은 저가 빌라 50여 채가 됐다"며 "고향방 버스를 탈 때까지 앞으로 남은 두달은 20년의 세월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경북 죽강진이 고향인 이상만 이북청도민중앙연합회 총무부

장은 "남북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 만세를 불렀다"며 "고향의 친척들을 만나는 꿈까지 이루었"고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남북지가족모임 대표 최성용(50) 씨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거론됐지만 남북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며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0, 90년대 과거 실정법을 여기면서까지 남북, 육교를 치르면서도 통일을 앞당기려 노력했던 이들은 15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통일의 싹이 피었다"며 반겼다.

### 실향민 마음은 벌써 북녘 고향땅에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한뼉 눈물 이젠 차분한 실천으로 큰 열매 맺자

지난 80년 북한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5년여의 옥고를 치러야했던 소설 '장길산'과 '무기의 그늘'의 저자 황석영(57) 씨는 "방북 이후 10여년을 기다려온 변화의 물결"이라며 "더 노력해서 빨리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이 앞당겨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고 밝혔다.

98년 11월 방북했던 한양대 리영희

(71) 객원교수는 이번 회담을 "갑은 줄 알았던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코케르니쿠스적 대진항에 비견할 만하다"며 "양자간의 신뢰형성 등 기대 이상의 성과로 찬양없는 통일에의 길이 열렸고 세계 냉전의 종지부를 찍는 거사를 이뤘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통일운동가로 허기없이 남북, 육교

를 치렀던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갑씨는 "문목사님과 제가 감옥에서 고생했던 일이 꿈만 같다"며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셨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박씨는 본인이 96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조문윤 위해 방북했었다.

91년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후 독일로 망명, 7년여간 배후진영활동을 해야 했던 박상희(29) 씨는 "낯익은 평양거리의 모습에 박차오르는 감동으로 할 말을 잃었다"고 감격해 했다. 지난 94년 남북, 박 씨와 함께 배후진 방청하던 공동사무국을 운영했던 최정남(31) 씨도 "이제 남은 일은 협의사항을 지켜 정상회담이 통일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비전향 장기수들이 15일 오전 남북공동선언 발표 소식을 듣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팀제원'에 모여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인영(72) 안희섭(71) 조합순(72) 유한욱(90) 씨. <심민수기자>

# 北자생력 키우기 기반 조성



## 균형발전 어떻게

남북정상은 6·15 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의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향후 본격화할 남북경제 협력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란 남북을 별개 국가가 아닌 하나의 '경제공동체' 단위로 인식, 유기적 공동발전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특히 '균형발전'이란 대목이 의미하듯 남북한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주안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10년간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정도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특히 김일성(金日成) 주석사후 지난 5년간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했다. 북한의 주된 교역상대국인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극심한 자연재해의 결과였다.

그 결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는 과거 통일당시의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벌어졌다. 북한의 가장 최신 통계인 98년말 현재 경제지표와 비교하면, 남한의 국내총생

## 경제격차 극심... GDP 25배·수출 236배차이 북한의 저임·숙련인력 활용방안 모색해야

산(GDP)은 외환·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161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북한은 126억달러로 남북한 격차는 25.1배로 벌어졌다. 1인당 GDP는 남한이 6823달러인 반면 북한이 573달러로 11.9배의 차이가 있다. 지난해 남한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을 이룬 점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간 가장 큰 격차가 나는 대목은 수출부문. 수출규모는 남한이 1323억 달러, 북한은 5억6000만달러로 남한이 236배나 많다. 무역총액도 남한이 156.7배나 높다. 남한은 일제강점기 '수출입국'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한 데다가 주요수출시장이던 사회주의 블록 붕괴 및 미국의 북한고립 정책등의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90년대 들어 교역량이 격감한 걸이다.

위기는 변화를 불러왔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0월22일 자강도의 '암록강 타이어공장' 현지지도에서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조건에 맞게 기업소 경영관리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하되 무역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개방의 친명어였고, 이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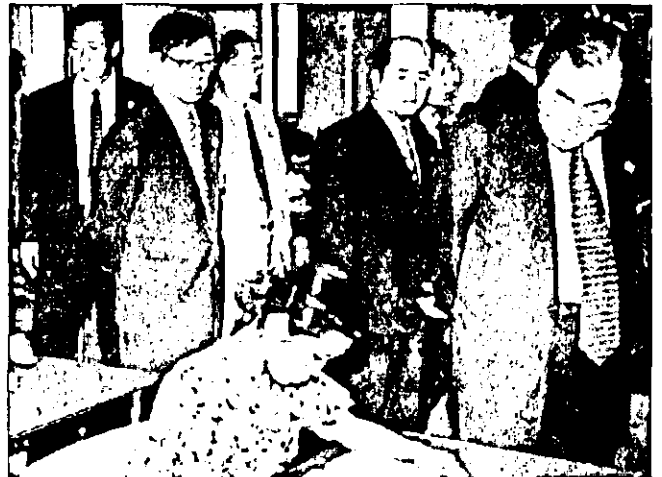
남은 과제는 어떤 방식을 통해 남북간 경제격차를 단기간에 좁힐 것인가이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작

업이 얼마나 오랜기간 순탄히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민족경제 균형발전 방식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경제력이 우월한 남측의 상당부분 지원 방식이 불가피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자생력 고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북한의 풍부한 저임·고학력·숙련 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투자관계로 북한과 접촉이 많았던 한 재계 관계자는 "북한은 고등학교 교육까지가 의무화돼 있고 대졸인력도 풍부하며, 임금은 원 200달러 수준이면 충분하고, 작업속도가 높으며, 언어장벽이 없고,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 어느나라보다도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인력활용방안이 현실적 접근방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긴장완화를 통해 군축에까지 도달함으로써 현재 북한예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군비부담을 줄여 이 재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투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태권기자>



인민대학습당 방문 정몽헌(오른쪽에서 세번째) 현대아산이사, 윤중용(오른쪽에서 첫번째) 삼성전자 부회장등 남측대표단이 14일 오전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격인 평양 인민대학습당 열람실을 둘러 보고 있다.

# 단절된 철도·도로망 연결 '1순위'



에너지 발전소건설-석유·천연가스 공동 개발  
 정보통신 北 유능한 인력 발굴 SW 함께 연구  
 농업 영농 장비기술 보완... 공동어로 추진

구된다는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북 경협이 이뤄질 각 부문별 과제와 전망등을 짚어본다.

◆사회간접자본=남북 경협이 황성 화를 위한 필수조건은 철도·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다. 특히 북한은 여객의 8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철도망연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경원선(신리리~군사분계선) 16.2km ▲경의선(문산~정단) 12km ▲금강산선(철원~군사분계선) 24.5km를 우선 복원, 북한측 단절구간과 각각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정부는 경의선의 '남북 연결'을 위해 97년 용지매입에 착수한데 이어 다른 선의 연결을 위한 용지도 매입,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도로망의 경우, 국도

1호선은 단절구간인 판문점~개성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공동경비 구역까지 4차로, 판문점까지 2차로 포장공사를 각각 완료 상태에서 북한측 단절구간까지의 사업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인원 ~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남북 1축을 포함, 남북횡단 7개축을 중심으로 우선 단절된 국도노선을 남북구간으로부터 북한안 뒤 북한지역까지 이접 연결 복원한다는게 정부의 복안.

◆자원·에너지=자원·에너지분야에서 북한과 자원 또는 교류할 수 없는 분야는 발전소 건설 등 전력사업과 무연탄 자원, 석유·가스공동개발 등이 다. 정부는 우선 우리측의 무연탄 비축량이 1000만 t(추진치)인 만큼 무연탄은 비교적 '간단한' 지원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무연탄 수송을 위해서는 항만·하역시설의 건설 등 수

송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전력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이 현대건설등과 공동으로 평양인근에 10만~20만kW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거나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등으로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발전소 건설과 함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한 송·배전 설비를 현대화하는 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을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컴퓨터·정보통신=김정일국방위원장자 컴퓨터·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분야의 경협이 크게 활기를 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북한진출업체는 평양에 모니터용 PCB공장과 모니터 원재료 공장을 설립한 아이엠퍼와 이외 북한에서 전화기·오디오 키세트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가 전부. 컴퓨터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는 그동안 북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입가공형태나 중국 대리점을 통해

일부 북한에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업체의 북한 직접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의 북한내 생산보다 중요한 게 남북한 통신망 통합구축 사업. 과거 독일정부가 통일과정에서 동·서독간 통신 인프라 통합을 위해 '텔레콤 2000 프로젝트'를 구상한 사례를 염두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합의의 계기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일찍이 북한에 유능한 인력을 발굴, 국내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농업·어업=정부는 당초 6월말까지 북한에 보내기로 한 비료 20만 t을 20일까지 앞당겨 보내기로 하고, 지원량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논농사 중심인 남한 농업과 밭농사 중심인 북한농업을 잠점기술위주로 상호보완하면서 구지역 방역과 신방역, 수출육파리 방제 등 공동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농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과 물자, 종자와 농약도 대북지원 대상분야다.

어업분야에서는 어선과 유류등을 지원하고 어망의 북한 노동력을 활용, 북한 해역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특기>

## “투자보장·통신인프라 확충

## 실무차원 후속조치 있어야”

### 재계반응

재계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대 원칙'에 경제협력부문에 포함돼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정부차원으로·각성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등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빈약한 SOC시설과 남북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북한 SOC확충과 공단조성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골판지와 의류, 모피 등 입가공사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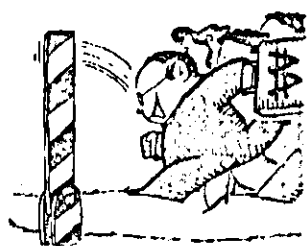
유류설비등 중소기업의 남북교류 문제들이 앞으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기업들도 “남북간 협력사업분야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 투자보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번 합의내용은 비록 포괄적 내용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가 추진중인 서해안공단사업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경험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도 “첫번째 만남에서 합의시까지 나왔으니 남북경협의 속도도 빨라지고 협력분야도 더욱



투자보장협정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 의류입가공, 소프트웨어 개발등의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는 “정상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투자보장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긴밀한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실무차원에서 급진전된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계획해온 대북사업의 실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현대아산 직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로구 계동본사에서 대북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 “걸림돌 없어진다” 대기업 ‘젠걸음’

현대 서해안공단 부지선정·금강산 추가개발

삼성 남포·해주 일대 50만평 전자단지 추진

LG 물류단지 검토 통일 車조립공장 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현대 삼성 LG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북측과 합의해 온 공단 조성 등 대형사업을 본격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경협사업의 걸림돌이던 투자보장 문제, 이종과세 방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북투자계획을 검토중이다.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은 오는 28일 정몽헌 현대 아산 이사와 함께 방북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의중이다. 현대는 서해안공단 부지선정,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경의선·금강산선·경원선 철도 연결사업 등 대규모 현안을 조속히 풀어나갈 방침이다. 현대는

지난해 10월 북한측과 서해안공단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뒤 부지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중이다. 남한지역과 가깝고 항만시설 등 수출여건이 좋은 해주지역에 2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4단계로 개발함으로써 8년후에는 850개의 회사를 입주시켜 매년 20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수출단지로 키운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동석동 관광코스 추가 개발, 관광선 부산출항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가면서 국내의 자본을 유치하고 금강산 일대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문종용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경협조사단의 방북이후 북한의 남포와 해주일대에 향후 10년간 5억달러를 투자, 50만평규모의 전자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삼성은 지난 3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과 소프트 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출범시켰다.

또 이달안에 평양체육관에 'ATA E.SAMSUNG'이라는 브랜드가 새겨진 대형 컬러 전광판을 설치하고 기념식을 가질 계획이다. 삼성은 이 건희 회장의 방북도 추진하고 있다.

LG는 대북 걸림에서 물류단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보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전자·화학분야의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초 북한에서 자동차조립공장을 착공한 통일그룹 계열 금강산국제그룹은 이 공장에서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의 모델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형두기자>



한반도 주변 4강 시각

남북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마·일·중·러 4강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반적인 환영 분위기가 속에서도 마·일·중·러 정부는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한 반응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의 공동선언문 도출에 대한 4강의 입장과 시각을 살펴본다.

긴장완화 환영... 파급효과 촉각



남북의 정상급 5개항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뒷날에 비해서는 다소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으로 풀려났다. 이날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에서 나온 반응은 "정상회담 합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합의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사항 보장장치 필요 北미사일위협 감소안돼

다(도 퍼독트백엔대변인).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사일 위장에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어떤 근거도 없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대변인)는 등 방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이같은 냉정한 태도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5개항 합의배경과 의미하는 바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대변인과 관계 당국자들은 한기상에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아는 바가 없어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같은 모이준 미국정부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미국과 관련된 2가지 이슈, 즉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문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른바 '불안국가' 북한이 미사일 개발 포기문제는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미국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접근방법도 제를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방우측파인>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독립과 경제교류등 5개 원칙의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제2회 북·일 국교정상화

본교섭이 북한측에 의해 급기연기됨으로써 인해 정제감을 맛보아 했던 일본측은 이번 남북회담의 성공이 북·일협상을 촉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저녁 시리아에서 귀국한 고노 요헤이(野田浩二) 외상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일·북 수교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제이당인 민주당도 이날 당회를 발표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연결될 것이며 현안인 일·북 국교정상화협상이나 마·북협상의 성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회담의 성공을 한·미·일 3국의 협조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

동북아 안보에 긍정효과 일·북 수교협상 촉진 기대

내성있는 포용정책의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3국협조를 대북정책의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굳히는 한편 이당중이라든 3국의 고위급 조전그룹회의를 개최, 정책조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안고 있는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과 핵·미사일 개발의혹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새로운 대북 경제지원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자세다. 그러나 한국에 의한 북한경제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자금지원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납치 의혹과 자금지원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난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사전에 북·일 모두에 어이 되는 키워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신우특파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에서 남북 남북간 해결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남북정

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인 수밖에 없다. 관영 신화(新華)통신과 당 기관지 런민보(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과 같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지 對北영향력 약화 부담감

논평한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내선으로도 그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 수 있다. 더구나 남북의 긴장완화가 동북아의 안정외에는 말로 자국의 도출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이나 일부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개인 심은 충분히 있다. 우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경제 원조등을 통해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한국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직접하게 '불안국가' 식의 한반도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긴장완화는 이런 구도를 급변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관계 개선의 결과로 인한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 영향력 약화도 중국에는 부담일 수 있다.

조선족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의 조국에 대한 조선족들의 열망이 소수 민족 문제가 복잡한 중국에는 불리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외에 양안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하나의 중국'을 지상경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베이징=홍순도특파원>



다음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어느때보다 깊은 관심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알

렉산드르 로슈코프 아태담당 위무차관과 알렉산드르 아코벤코 대변인은 14일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로슈코프 차관은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 정상이 5개항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 협정이 체결된 것은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코벤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이 긴장완화와 화해의 원칙에 합의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차격적 입장을 드러냈다.

아코벤코 대변인은 "러시아는 남북한 두

한반도 통일전망 청신호 남북대화애 최대한 협력

지도자가 만난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한 화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긴장완화 및 화해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나아가 양측이 이미 합의한 화해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전망도 밝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특연이 '국제사회의 불안국가'에서 벗어나기를 비라고 있으며 오키나와 신진국(G8)회담 직접 방북하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개발 중단문제등과 관련,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 남북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북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청춘세기>



# “4강 동북아전략 수정 불가피”

## 英FT ‘美 영향력 현저히 감소’ 전망



### 해외언론 반응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공동선언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남북한 정상회담은 복잡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외교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전망이다.

### 韓·日 주둔 정당성 사라져

미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분분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그동안 행시해온 영향력을 현저하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한 미군의 영분이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일본의 미군 주둔에도 상당한 위화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한반도에 평화 기운이 깃들일 경우 주일 미군의 존재 근거도 실추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진부한 상황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남북한 관계의 호전은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사일방어체제(NMD) 계획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가 NMD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쌍용국가’ 북한화의 모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희석되면서 NMD의 필요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NMD의 정당성을 입증할 ‘새로운 작’을 찾아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日 군비확장 본격화 우려

일본은 향후 예상되는 주일 미군 철수에 대비, 본격적인 군비확장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김대중에게 맞먹는 군사력을 과시할 계인이 없지 않은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는 중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과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아시아 안보상황을 이유로 내세워 군사적 영향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남북한의 화해를 러시아가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된 남북한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한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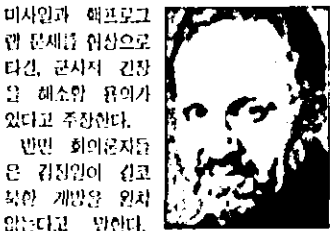
# 美 조야 ‘향후 대북정책’ 양분

## 美 LA타임스 짐 만 분석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고집 칼린니스트인 짐 만(사건)은 14일 ‘장제적인 북한’의 대담한 조치’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가 북한 김씨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보편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지.

김정일이 북한의 거둔진리를 바꾸고 경제 개혁을 추진자로 김정일인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과 최근의 대외관계개선 입장이 단순한 전술적 조치인가. 미국의 한반도 관측자들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신봉자는 북한이 광범위한 개혁의 한기운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평양 정상회담이 이런 과정의 첫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엘 모트는 “앞으로 더 대담한 구상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하면



미사일과 핵프로그램 문제를 전제로 타당,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김정일이 김고 북한 개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김정일이 정권과 100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원조를 받아내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이다. 척 다운스 전 미국 국방부 관리는 “북한 외교는 정권 증대를 강화하려는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며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군사력, 특히 전략 병력보다는 장거리(미사일) 공격력 추구라는 새 진리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김정일이 미국에 협력을 내기 위해 남한이나 이탈리아와 호주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 문호를 개방기로 김정일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기자>

### 의견

## 언론보도 냉정한 분석을

남북 정상회담은 제논의 여지가 없는 대사건이다. 온 국민의 사정이 회남에 흘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회담을 보도하는 언론은 역사관과 원칙을 따져서 냉정하고 정중하게 보도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문과 방송은 감성만 있고 이성은 없다. 원칙도 수권도 없이 ‘츄츄깡’을 떠는 인성이다. ‘역사적 만남’ ‘과격적 환대’ ‘이례적 영접’ ‘역사적 새로 쓴다’ 등 온갖 찬사가 난무했지만, 차분하게 만남을 분석하고, 따듯한 온수를 하는 언론은 없었다. 마치 내일 당장 불만이 될 것 같이 야만법적이다.

언론은 김정일의 고향 환대는 크게 부각시켰지만 첫날 만찬에 김정일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예뻐 눈을 감았다. 정상회담 첫날 만찬은 초창자가 내는 게 관례이자 예의 아닌가. 방북 동행한 김석연도 그렇다. 예 김대중의 카운터파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그런데도 방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고하는 “요약적”인 걸 생구조작 같고 있다고 치켜 세웠다. 이어가 있었다.

제발 언론만큼은 냉정하게 일부를 붙잡 아는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우리는 이제 남북통일의 첫 발을 디딘 것이다. /沈榮宰 43 회사원 겸기고사

## 北주민의 일광적 환대

남북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처음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연도에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장면이었다. 60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나왔다고 했을 만큼, 그들의 환대는 상대

고도 뜨거웠다. 우리 대통령이 북쪽에서 그렇게盛大한 대접을 받고있다는 사실에 세상 ‘미는 몸보다 친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 북쪽 주민들의 환대가 우리가 삼척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열광적으로 조화(造化)를 흔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상, 거의 실신할 듯 만세를 부르는 이상, 거의 흥분을 말릴 수 없는 귀중한 광적인 환대였다.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과공미례라는 데 남과 북이 단절된 상태로 50년 이상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가 이뤄져서 상았기 때문에 미묘

된 구구함이 아닐까 진정으로 바란다. /윤미숙 29 주부 서울 마포구

## 지방語를 보존하자

요즘 각 지방 고유어(語)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 고유의 말은 오랜 기간동안 조상의 삶을 담아왔기 때문에 조상들의 삶이 담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이 지방어가 사라지고 있다.

지방어가 사라져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고유의 지방어를 한단계 낮은 사투리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 들어 드라마에서도 지위가 낮거나 한부로 서는 사람은 지방어를 무뎠하게 변질시켜 쓰게 하고, 지위가 높거나 우아한 사람은 소위 서울말을 쓰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어도 일마든지 집값과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투박하게 강조시켜 격을 떨어뜨리고, 지방어를 쓰는 사람을 천기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리고, 우리의 지방어와 지방어에 붙어 있는 지방 토속문화를 잘 보존하자. /盧慶順 45 주부 서울 영진구

# 통일만 되면 노벨평화상이 문젠가



김선미기자

세상연보기

## 남북회담과 노벨상

노벨평화상이 한반도로 실금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그를 반갑게 맞이해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두 정상이 민족의 영원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긴 이들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함께 리무진 뒷자석에 올라 대통령 속 초인 배화인명비관으로 향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볼때부터 자연스럽게 '노벨평화상'을 떠올렸지요.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분단 55년 동안 한강과 대동강으로 허입없이 흘렀을 1000만 이산가족의 눈물.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수건을 꺼내놓았다는 사실과 노벨평화상과의 상관관계에는 이윤의 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아옵니다.



kim@munhwa.co.kr

었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NCND(남침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인 셈이었는데, 그 관계자는 "매년 2월 수상자 후보 추천을 마감한 올해 노벨상

상장을 추리해보듯, 내년에 남한의 김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는 꿈을 그려봅니다.

## '마지막 냉전지대' 해빙... 공동수상 기대감

### '개인 몫' 아닌 7000만 민족고통의 산물

2000년 6월13일 0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첫 역사적 평화회담이 열리는 날이 카운트다운 순간. 기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을 기차지 않고 노벨평화상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직접 국제전화로 걸었습니다(노르웨이는 한국보다 8시간 늦다).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듯, 노벨위원회 주요관계자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기자는 표박표박 자신을 소개하고, 그 관계자에게 "한반도에서 일리케 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운을 뗐습니다. 관계자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코멘트였지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관계자는 "분단된 한국에서 열리는 역사적(historical) 이벤트로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기자는 "김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 왔고, 이번 정상회담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뤄볼 때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도 김치 할 수 있는 지"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노벨위원회로서는 오는 10월 수상명단이 있기 전까지 아무 화인도 해 줄 수 없지만 김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후보는 모두 150명이었으며, 그 중 배우 극소수의 아시아인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수상자는 물론, 후보와 관련해 어떤 화인도 해 주지 않는 노벨위원회 관계자의 아같은 발언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의 태도가 시종일관 긍정적이고 상냥했음도 꼭 밝히두고 싶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그동안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은 파놓은 당상'이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남사업이건, 북남사업이건 아무도 노벨평화상이 어느 개인의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의 동맹에 대한 의지 뿐 아니라, 분단 55년이 초래한 남과 북의 시대적 요청, 주변국들의 상황인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7000만 민족의 고난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초석이 김장명씨의 '무공화빛이 피었습니다'를 읽으면서 양국

왜 올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내년의 노벨평화상을 운운하느냐 하면, 노벨평화상은 매년 2월1일까지 각국의 국회의원과 행정관료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중순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내년 2월까지 후보자추천을 받아 내년 10월 수상자로 함께 선정되는 경우를 기정하는 것이지요.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국경없는 의사회'가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분쟁지역에서 평화나 인권활동을 촉진한 사람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또 지난 70년 베트남전쟁 종전에 기여한 공로로 헨리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월맹측 평화협상대표 레독도가 공동수상한 것을 비롯, 지난 70년 이후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 중 공동수상이 무려 11번이나 됩니다.

다소 상급하게 노벨평화상을 언급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적 갈등을 내려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들이 앞으로 잡어지고 나아가 한 '동양의 빛'을 화인시키 주고, 남남사업과 북남사업의 동맹에 대한 간절한 임의를 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노벨평화상을 책임감있게 받을 준비를 하자는 의미이지요.

<kimsunmi@munhwa.co.kr>

남북정상

평양 회담

‘민족동질성 회복’ 힘찬 날갯짓

문화예술 교류

14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사회·문화 등 4개분야 교류 합의에 따라 순수 및 대예술인들이 남북간 문화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적 냉전 분위기 속에서 전혀 이뤄지지 못하던 남북 교류의 첫 문물인 것은 지난 85년 미인가족 교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이어 90년 평양과 서울에서 ‘반민족 민족통일음악회’와 ‘송년통일전통음악회’가 교환공연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98년 ‘리플렉스예술단’ 남북공연과 ‘재외 한인상 통일음악회’, 99년 대중가수들의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와 ‘민족통일음악회’ 등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지난달 말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과 평양교향단의 공연은 일축한 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문화교류이므로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결정적 변수를 점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분야별로 문화교류와 협력과 전망을 짚어본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본격화된 남북문화교류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서울 공연으로 남북 대화합 분위기를 크게 기여했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서울에 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김남경기자>

남북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성사될듯

**음악·공연** 남북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적인 공동연예로 불리는 음악 분야의 상호 방문 연주 및 합동공연은 필연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시화차 정박준씨는 관문지에서 남북과 북측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이 함께 출연, 베이스의 합창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휘자 김재희는 지난 4월 평양에 들어가 시간이 허락하면 유라시아와 아시아와 북반구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합동공연을 추진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남북평화회담이 국제음악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건이다. 남북평화회담이 국제음악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건이다. 남북평화회담이 국제음악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건이다.

안방선 이미 첫선  
극장 개봉도 추진

**영화** 북한영화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작품인 ‘볼가사라’ (공작 신상옥)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심의를 신청중이며, 이르면 7월 중순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반지연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5월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영화의 국내 상영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영화 ‘볼가사라’의 관련을 지난 고려미디어(대표 변태규)는 지난달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심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통일부·국가정보원·검찰과 이 직종의 국내 개봉에 관한 협의를 끝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반갑습니다’ 흥열

**대중음악·방송** 대중음악위원회에서 남북교류는 지난해 12월 평양문화예술극장에서 SBS가 개최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연에는 북측의 최고 인기 가수 김재경 등과 남측의 패티 김, 태진아, ‘방구’, ‘제스키스’ 등이 참여했고 남북 악수 모두에서 큰 장외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실 이 공연이 전부터 북에서는 최하의, 조영민, 심수봉 노래가 흥이 예상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남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특수를 타고 ‘환대방’, ‘반갑습니다’ 등의 북한 가요가 소개되어 거부감을 줄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김지영 국민연방이 직접 지사로서 북에서 ‘보통의 전지약’을 탄생시킨 만큼 젊은 음악이 편익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유물교환 전시  
DMZ 공동조사

**문화제** 문화재청의 남북교류는 민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즉각적이고도 다양한 교류가 펼쳐지는 한편 단군왕릉에서 보듯 세계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방인 측면도 강조했다. 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가지각지로 진행할 수 있는 남북 문화재교류로는 ▲비무장지대 문화유적지와 자연자원 공동조사 ▲남북문화재 교환전시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문화재전문가 교류 ▲차료 교환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궁예도성유적 남북이 공동 발굴하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간의 유물물 교환전시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재유적이 산재한 곳으로 고고학계 등에서는 다산·선봉사구의 경우 개방에 앞서 반드시 남북간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인 평양과 황해도 일대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 보존적인 측면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어이질화’ 연구  
상당수준 진척

**학술** 지난 3월 중국에서 열린 38사 국제표준화기구 문자코드위원회 회의에는 남북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상 최초로 공동연구자로 참가해 국제표준문자표준 논의했다. 학술계의 남북교류는 이처럼 무리없는 측면도 강조했다. 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학계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학회와 대학들도 부쩍 늘었다. 홍익대는 평양국제사범대학을 위해 조선대 준비기체단원 모집, 오는 10월 10일 개교기념일에 남북공동행사를 공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건국대·한양대 등도 학술대이나, 스노우크리크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던 김성애(고려대 총장) 남북회담에서 개최하기 위해 북측 정부 진과 협의 중이다. <문화부>

# “교류 물꼬 터졌다” 바빠진 官街



## 정부 각 부처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4일 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환경·복지 등 사회 제반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에 따라 사회관련 각부처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국방·교육·환경·노동·복지 등 사회분야 부처들은 성급한 낙관보다는 차근차근 통일 실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본 방침 아래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류 및 협력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등 전반적인 실무준비에 나서고 있다.

<행정팀>

### 환경협력 분위기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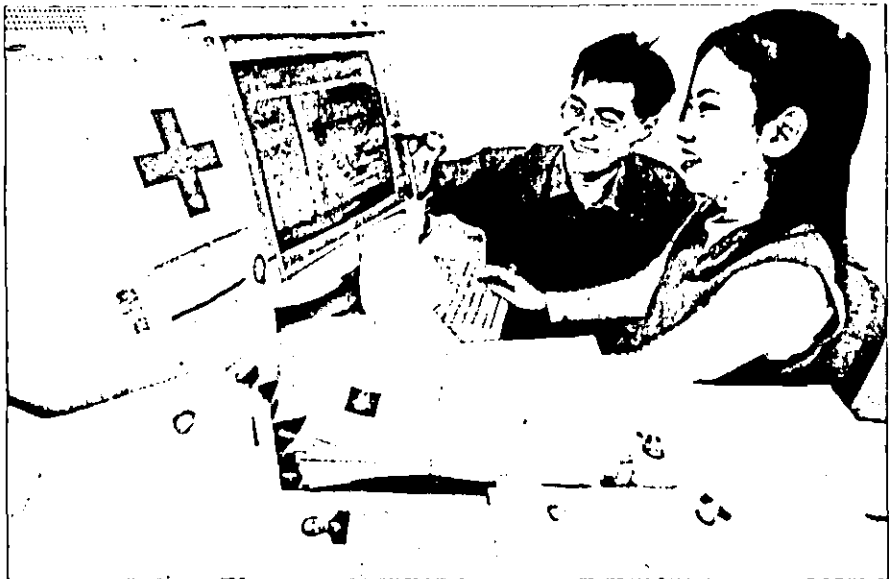
**환경부** 김경실국방위원장이 14일 남북정상 만찬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금강산 사도(개이불)를 농치고 해서 환경과 교류에 하느니라 반대했다”고 말하는 등 환경 문제를 회제로 올려 남북한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언급 고조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남북관계에 추진 가능한 환경분야 협력사업으로 국립공원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남북한의 자연생태계 조사, 철새도래지 공동 조사, 환경오염실태조사, 북한 산림복구지원 등을 꼽고 있다.

특히 “21세기 한국 자연사박물관” 여차 센터에 보고된 불리노 비무장지대 생태보전사업은 환경분야 우선 순위 대상에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동맹국의 상징적 사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무장지대 생물종은 남한의 1102종을 넘는 12205에이나 31만 무리나라에만 있는 두루미와 흰종박이 오리·독수리·희모리독수리·만달곰·표범·담비 등 희귀종이 많다.

남한이 비무장지대 생태 공동조사에 합의한 경우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승인할 거쳐 조사단이 구성되는데 한 달여 시일을 걸린다고 예상될 수 있는데 양측 공동조사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 상봉 방안이 구체화하자 15일 오전 대전직접지사 이산가족대책본부 직원들이 우편접수원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있다. <심민수기자>

진보적 생태계 조사사업에는 백두산과 금강산을 포함한 백두대간도 포함될 수 있다.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교류도 붓음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산림복구 지원단체인 ‘평화의 숲’은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6일 밝혔다.

### 말라리아 공동방역 기대

**보건복지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공들이 추진해오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말라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공동방역사업은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 양측의 공동목적을 위한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복지부는 그동안 남북공동방역 성사에 공을 들여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북경지역의 감염질환’을 의제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남북실무회의를 추진해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나 북한측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공동방역사업에 앞서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50만달러 상당의 말라리아약품을 북한에 지원할 한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와 지원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한반도북부지역에 북한 내진·진동지에서 ‘보트제약’이란 이름으로 9억원을 들여 건설중인 한센제 등 기초약품 생산공장을

비밀해 의학약품공장이나 종합병원 설립 등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요지인 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군비통제대비 대책마련

**국방부** 국방부는 평양선언 채택으로 92년 2월19일 발효됐으나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작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군비통제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제12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동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과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92년 9월17일 발효된 부속합의서 제3장 ‘상호 비방·중상증제’와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기간에 회담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김국현 군비통제관을 파견했던 국방부는 김 통제관 귀환후 남북 군비통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근로자 노동현안 검토

**노동부**는 남북 경협이 활발해지고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필수적으

로 요구될 인력 공급, 현지 근로자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 문제가 최대 노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방안을 점검·검토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북한에 진출해있는 업체의 사업장에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꼽고 있다.

북한에 희망한 경우 북한에 국내의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학교와 유사한 시설을 마련해 훈련교사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국제기능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기로 예정됨에 따라 서울대회가 중요한 남북한 기능인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해위주 통일교육 연구

**교육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초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 분야의 교류도 급속하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장기적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거의 안보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규교과과정에서는 북한사회의 특수성과 통일의 단위상에 관한 교재내용을 학생들의 참여 및 체험적 학습으로 전환하며 상호 이해와 객관적인 비교가 이뤄지도록 시청각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 金正日 국제무대 등장 '성공적'

## 서방언론도 칭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외신 보도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서방 언론의 인식 변화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차분함'이 '차이'로 '따뜻하고 다정다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일부 외신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같은 이미지 변화에 대해 '개성된 연출'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서방언론 데뷔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

가가 일반적이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을 공화에서 임집하는 모습에서 따뜻하고 다정다감 '주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공식 사진에서보다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았고 비만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굵이 매우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미국 CNN=14일 일인 두번째 단독 정상회담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놀라움과 함께 시작했다. 평소 은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회담에 앞서 김대중과 잠시 담소하며 미소를 띤 편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 서방언론의 직접적인 취재가 허용하지 않고도 김 위원장은 세계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김 위원장은 이번엔 은둔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친근 플레이보이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다. 모든 시금들에게 매력적인 면모를 과시했다. 평양공항에서 김대중을 임집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그는 아주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지(日本經濟新聞)=베일에 가려져 있던 58세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압하강이고 젊은 시절 노동당 신진을 담당한 경력이 있어 언론에 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런 연출도 나름대로 국제정세 분석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

▲벨기에 르 우아르=각종 영상, 자료가 풍부한 이 시대에 전세계 사람들이 김 위원장의 모습이 궁금해 TV 앞에 몰려들었다. 이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지구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려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인들의 이같은 호기심에 멋지게 응답했다. 신경을 쓴 헤어 스타일이 평양의 가벼운 비압에 흐트러지기도 했으나 마오쩌둥 스타일의 북장 색깔도 마오의 회색과는 다른 색을 직접히 선택했다.

▲대만 중국시보=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그를 만났던 당자시인(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반응이 신속하고 민중에게 지지받았고 건강했다"고 말했다. 남한 평론가들은 김 위원장의 타인용 사로잡는 장악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권력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르 우아르 공항영접서 완전한 주인 행세 CNN 도덕성-품위 갖춘 지도자 모습 니혼게이지 연출이라도 국제정세 분석 바탕

기를 받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눈에 띄는 길가는 '수수'께 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 변화이다. 사람들 앞에서 기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오만하고 총동작이라는 평

한 자세로 TV화면에 등장했다. 외부세계의 인식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며 김 위원장은 도덕성과 품위를 갖춘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김 위원장은 박제돼 있는 기존



외신기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소식을 서방에 축하의 박수갈채 보내고 있다. <김낙중기자>

## "어릴때 온순했지만 대담한 측면도"

### 지인들의 평가

'김정일의 쇼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연시, 어정시 등을 함께 보냈거나 상임고 사내의 친인척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무즈메카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김바실라(56·부인임)씨는 지난 48년 북한 최고재판소 소장으로서 있던 부친 김동철을 따라 일본, 3년이후 그와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이며, 김씨는 "어린시절 김 위원장 장래는 항상 모험사 능 일만

가정에서 보기 힘든 장난감이 많아 부러움을 샀고 이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다"며 "7~9세 어린시절 김 위원장은 아첨을 것이 없는 부자 김 아이를처럼 성격이 순한 편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의 평양 남산고급학교 선배인 김나리사(52·동역사)씨도 "이번 회담을 남북의 연인들뿐 아니라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는 해외동포들에게도 커다란 희망을 던진 일"이라며 "하고 후에로서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동원 조국의 첫 걸음이 되도록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방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지난달 29일부터 북한에서 4개월간 체재중인 문민지(文民志·71)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 위원장의 성격은 내성적이 아니라 대단히 남성적"이라며 "조심하고 즉흥적인, 나약한 형태"라는 세간의 평가를 일축했다. 30번째 권위를 승계하면서 주석직을 계승한 뒤, 이러한 강제사상에도 98년 8월에 임수정씨를 발사한 것 등은 김 위원장의 '대담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문씨는 또 "김 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 다해다듬어면서도 입에 있어서 철저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며 "인물 하대 궁극연계 있으면 한 발짝이라도 진화를 강어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평가를 지냈다"고 전했다. <홍성철·박선호기자>

■ 남북통일案 변천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우선적 통일방안으로 합의했지만 지난 55년동안 남북의 통일정책은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북한당국은 '연방제'를 집요하게 주장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사실상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규정, 거부해왔다. 또 우리정부는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을 최대목표로 지향했으나 북측은 이를 사실상 독일식 흡수통합방안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은 역대정권의 성격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화를 겪어왔다. 김대중정부 이전까지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정책이 주류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승만(李承晚) 정부와 장면(張勉) 정부는 유연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단순한 개념 이외에

南 자유총선거 정부구성 → '국가 연합'  
北 '연방제' 줄곧 주장 내용 조금씩 바뀌

별다른 통일철학을 정비하지 못했다.

박정희(朴正熙) 정부와 전두환(全斗煥) 정부는 통일방안을 정교화시킨 시기였다. 전자는 국제적 평화공존 기류가 조성된데 힘입어 74년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통일방안으로 발표했고 후자는 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등의 원칙에 입각, 통일헌법 제정 및 단일 주권국가로 완성시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밝혔다.

6공정부와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냉전체제 해체라는 국제환경의 급변에 부응해 '단계별 통일론'을 구상했으나 북한은 이를 흡수통일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6공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화해 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을 내걸었던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모두 남북간 교류확대를 중

시했으나 북측의 뿌리깊은 불신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같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대통령은 98년 취임사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적 극 추진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실천해왔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도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방제' (60년대), '고려연방 공화국 국호의 남북연방제' (70년대), '고려민주연방제' (80년대) 등의 명칭 변화를 겪어왔으나 본질적 한계는 분명하다. 남한정부가 '제국주의 식민정부'라는 인식 아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선결조건'으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조용우기자>

연합-유대정도 낮아  
연방-1개 국가 인정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연합(confederation)과 연방(federation)은 국가와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정치적 실체간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지만 그 차이가 학술적으로 정확히 구분돼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고려연방과 남한의 국가연합은 둘 다 영문으로는 'confederation'으로 발표됐다. 다만 현실정치적으로 연합은 유대의 정도가 낮은 상태를, 연방은 유대의 정도가 높아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는 상태를 각각 지칭한다. 연합과 연방의 차이를 국방·외교권의 소재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연방정부가 국방·외교권을 행사할 경우 연방이고, 이것이 없을 경우 독립국가간 연합이라는 것이다.

<공영운기자>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 대비표

|     | 남측의 '국가연합'   |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li> <li>▲두 지역국가가 국방-외교권까지 보유</li> <li>▲두 지역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li> <li>▲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 조직</li> <li>▲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li> <li>▲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외교권을 남북 지역정부에 대폭이양 주장, 사실상 2국가 성격 감해짐 (필요한 경우 공동기구 구성해 관리)</li> </ul>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의 체제공존 인정</li> <li>▲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li> <li>▲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li> <li>▲지역정부간 협력제도 설치</li> </ul>            |   |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국가의 존재유무</li> <li>▲군사·외교권 행사의 주체 및 강도</li> </ul>   |   |

# “한반도 해빙에 동아시아질서 재편 급류”



**남북정상  
평양 회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한반도가 해빙의 급물살을 타면서 동아시아 세력균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태동을 진단하기 위해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칼럼니스트 톰 플레이트, 일본 외다 히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중국 광닝(房寧) 서우두스관(首都群籍) 대학교수 등 전문가 3인에게 같은 질문응답을 통한 '3각인터뷰'를 실시. 주변4강의 입장과 대응을 들어봤다.

**美·中·日 전문가 시각**



외다 히루키 <고쿄대학 명예교수>



판닝 <중국 청화대학교 교수>



톰 플레이트 <LA타임즈 칼럼니스트>

판닝 **美·日 영향력 中·러 비해 상대적 약화**  
 외다 히루키 **北외교전략 전환-美·日 보다 한국우선**  
 톰 플레이트 **통일은 느슨한 형태 연방제로 출발을**

-남북한 정상간 역사적 공동선언문 5개 항목이 합의됐다. 남북한 관계 급진전이 동북아 세력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플레이트=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동이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은 ▲해부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일 한국 ▲간코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양군 주한미군 ▲김제직으로 상호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한국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고 이해를 구하느냐에 따라 동안이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러시아가 실랑이국기문과 정상회담이라는 2가지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 재개입하는 것도 흥미롭다. 앞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외다=이번 회담은 남북한 화해의 제1보라 할 수 있다. 물론 협력이나 화해가 현재의 페이스대로만 진척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판닝=일단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의 한국 의 실현 가능성이 국지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절대적 지위를 차지했던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 개인성이 있다. 미군 철수도 원천까지

는 않더라도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군비 확충이나 갈등 고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만을 대화상대로 고집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한 배경은.

플레이트=최근 김용순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더 이상 식량과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들은 바 있다.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내릴 헌덕인 중국이 그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외다=북한은 오랜동안 한국·미국·일본과  
의 관계개선과 관련, 어떤 전략과 순서로  
처리해나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왔다. 물론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지껏 한국을 제치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세스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엔 한국과의 교섭을 우선 순위  
로 올려놓는 전략으로 대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외다=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북한이 한꺼번에 바뀔 것으로는 보지 않는  
다. 북한에게 있어 개혁·개방이 살길이라  
는 집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다. 이 문제  
와 관련해서는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최  
근의 중국방문중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한데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진작  
으로 중국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심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쪽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는 집일 것  
이다.

평남=양 정상이 5개항에 합의했다는 사  
실은 앞으로 북한이 빈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폭적  
개혁과 개방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물론 이 경우 북한이 서서히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런 변  
화에 대한 적응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개혁, 개방에도 인착점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해빙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감소되는 것 아닌가.

평남=세계 최강 미국이 인구 2천만명에  
불과한 북한의 군사력에 우려를 갖는 것 자  
체가 낡은데다, 국가미사일방어체제나 진  
악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따라서 별로 신동  
력이 없다. 단언컨대 북한의 군사력은 방  
이용이지 공격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미, 북-일 관  
계개신으로 연결된 가능성은.

플레이트=냉전체제, 분단체제, 휴전체제  
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그  
당사국으로서 이 변화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빌 클린턴대통령이 김  
정일위원장의 서울방문 전에 평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고집강립니스트로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16일자 칼  
럼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 것이다. 클  
린턴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한반  
도의 평화체제진행을 촉진시키고 미국이

이에 기여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  
여주어야 한다.

외다=북한이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단  
계 수준을 높여 미국이나 일본과 접촉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은 한국측과  
대등한 입장임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그런  
만큼 한국에서만 경제인조를 받으려하지 않  
고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도 인조를 기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조건이다.

평남=남북 대립으로 상대적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의 영향력 약화가 예상된다. 물론 북과의  
수교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집은 나  
름대로 틀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  
시아는 잃을 것이 별로 없다.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 될 경우 주한 미  
군의 계속 주둔 여부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의 향후 위치에 대한  
견해는.

외다=북한은 반드시 기쁘고 싶어할 의  
제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아니라는 집은 북한  
측도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쁘더라도  
문제제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테이블 위  
에서 북한측의 자주성을 강조하거나 주한미  
군 철수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평남=주한 미군의 점진적 축소가 불가피  
하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증대가 어느 정도  
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는가. 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다=한국이나 일본의 대북강령 지금은  
모두 공공자금이 기반이 될 것이다. 이들  
자금은 북한내 경제위기의 해소는 물론, 생  
산·판매와 외화획득을 가능케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자립에 도움을 줄게 확실하다. 게  
다가 북한내의 수요확대가 한국이나 일본의  
민간경제계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  
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배상  
금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평남=북한의 경제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북한은 생존을 위  
한 경제 운용에 전력을 쏟았으나 앞으로는 발  
전을 위한 단계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 전체로는 내수로  
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인 인구 1억  
에 집군이 가능하게 됐다는 집도 부수적 효  
과일 것이다.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지  
지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북한 특수가 기

대된다. 북한은 아직 지하자원의 상당량을  
개발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일부 분야에  
서는 경쟁력이 있다. 정말 매력적인 요인  
이다.

-남북은 이번 합의문에서 남측의 연합제  
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했다. 남북  
통일의 가능성과 그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  
가.

플레이트=남북한간의 모델과 동서독간의  
모델은 다르다. 급격하게 하루 아침에 이루  
어 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안된다. 가  
장 느슨한 형태의 연방으로 통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긴 시간을  
요구한다. 짧아도 10년 이상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단계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과정  
과 단계, 개혁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인  
내심을 갖고 한 단계 한단계씩을 진전시키  
야 한다.

외다=통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통일의 프로세스가 얼  
마나 평화롭고 단계적이며 통제된 형태  
를 취할 것인가이다. 일기에 한쪽이  
무너지는 형태는 반드시 회피해야한다.  
그런만큼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이같은  
집에서 대만과 중국의 한단계, 즉 대만  
인의 중국방문이나 중국내 투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한국은 대만 중국방식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으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북한측도 좀더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평남=중국이 주장하는 1국2체제 같은 방  
안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이번엔 양측이 합의한 자주적인 연합 연  
방제 통일 방안 논의는 바로 이의 전단계라  
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일로 가야 하겠  
지만 이는 분단과 갈등이 길었고 참여했던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  
로는 짧으면 수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이 언제 되느냐  
보다는 모순과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  
한채 남북 회합을 위한 내부 조율을 끈질기  
게 이뤄내는 것이다. 통일이 이제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다 는 점에서 양측 국민 모  
두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도쿄·베이징·워싱턴=이신우·홍순도·민  
병두특파원>



# 남-북 軍직통전화 추진

## 정부 후속회담 대표구성 착수...경의선 연결도 논의

정부는 남북한 상호 군사적 돌발 사태 예방을 위한 군사 직통전화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철도 연결도 추진된다. 남북정상회담 기획단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장성급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구성, 이달 내 북측과 남북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유

신추진사업으로 워싱턴 주평택역 공동직업과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역원, 경산경제-무지모자 등 남북협력 일프라지만, 2000년도내에 남북공동 2002월드컵 분장거리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상호 입장을 감안, 병사 및 주소역원, 상환, 용해 및 재결합 등 단계적 해결방식을 적극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소니당 보트위스 추방 미국 내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유감연담 대표부 대사로에게 남북장 상회담 개최를 설명하고, 만기문(滿基文) 외교장관부 차관을 이남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왕광나(王光華) 외교장관보수국은 16일 미국·일본에 특사로 파견할 계획이다.

조호연기자 [chohyun@koryon.com](mailto:chohyun@koryon.com)

# 美, 對北제재 내주 해제

클린턴 행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다음주 부분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임스는 경제제재 해제로 북한의 원자재 및 상품의 대미수출, 양국간의 공방 및 항공 개방, 미 기업들의 농업·산업·도로·양구·관광분야 부

### 달라이 라마 "11월 방한"

달라이 라마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오는 1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 라마는 14일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집무실에 서 한국의 70여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한국법문추진위원회' 대표단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받았다고 "11월 중에 한국을 공식방문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뷰 15면

워싱턴/이승철특파원

## “한반도 긴장완화 획기적 계기”

### 美·日·中·러 반응

남북 정상회담 5개월 후의 발표된 미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뉴스를 대조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도 매우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남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도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음달 오키나와(沖縄)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남북대화를 전면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15일 “G8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관해

### 남북 공동선언 환영속 큰관심

선명적인 지평대개를 위해서도 요청, 정상회담의 중요한 촉구사항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훌륭한 점”이라고 논평했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는 특히 남북간의 민족대립을 위해 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상회담 성과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외신종합 [ky@koryon.com](mailto:ky@koryon.com)

### 평양도 가보니까 情 많은 한핏줄의 땅 북핵·미사일·주한미군 문제 등도 논의 “나이많은 나도 왔다” 김위원장 답방 설득

# “더이상 전쟁 없는 남북공영 새날 열자”

● **귀환인사** 역사적인 방북인무를 내리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다. 평양도 주무시지 않고 청명한 국민에게 충심으로 감사한다. 평양시민의 환영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에게도 새날이 밝아온 것 같다. 55년 분단과 천대에 주사부질 뛰고 민족의 새 역사에 전기를 열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 **평양 인상** 만년 것이 중요하다. 평양도 가 보니까 우리 땅이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모습의 민족이었다. 남북 동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참이 깊어 보였다. 것을 조금밖에 보았을 수 있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명, 나날 때 30만~40만명, 1백만명의 평양시민이 열렬적으로 환영·환송해준다. 저는 이런 평양시민의 환영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북측 설득** 북에 이야기 했다. 우리는 지금 지식경제와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에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남북 협력안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이상 적대상황 안 되고 흡수분류 안하고 남북이 서로 공동강제해 나가며 자유 분방의 길로 가지, 21세기 인류 민족을 만들자고 북에게 역설하고 그쪽도 공감했다. 안보, 대한민국에 주재성 등은 수요도 공급이 없겠지만 협력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중국에는 동양의 길로 가야 한다. 이번에 북측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해지고 했다. 내 삶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 전할 것이다.

● **공동선언문 해설** 예, 미사일, 주한미군, 핵개발, 국가보안법 이야기도 나왔다. 그 가운데 매우 유익했으며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여러번씩 공동선언문에 대해 간단한 말을 들려줬다.

● **통일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7.4공동성명에도 있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보려고 했지만 2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 또 92년 2월 남북합의서에서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안책을 주장하던 7.4 공동성명과 좀더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남북합의서와 남과 아주 구체적으로 논해 온 것 정부와 실천을 보여주자.

우리가 주장해온 남북 연합, 2차에 2정부는 현저하다. 이를 그대로 바꾸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 장관·각료급 회의, 국회와의 등급 구성체, 합의기관을 만들어 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에 대해 북한은 80년에 연방제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집부가 외교관과 군사권을 갖자는 것으로 이뤄질까싶다. 북한이 수정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중앙집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중앙집부는 형식이다. 심지어 우리가 주장한 대로였다. 상봉하는 길이 많아 양 대표가 같이 토론해보자고 했다.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 **아산가족** 오는 8~15월 즈음에 출렁이 산가족과 삼천포 방문단을 파견하고 미진항상기수첩 해결하는 문제다. 어디까지나



상대방 아산가족 문제가 첫째이다. 6월부터 적십자사가 가능하게 했다. 모든 차원에서 서연로 들어간 적십자차에 응징해 북과 대화해줬다고 했고 김위원장은 축하하고 했다. 그래서 아산가족의 신심, 감동, 믿음이 일어나 감동으로만 칭찬한 것보다는 이 문제가 시작일 것이 확실한 것임을 북측에 확인했다고 보고드린다.

● **경상·교류** 시와 문화·체육·환경·민선 등 제반 분야의 교류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 개 사정이다. 우리 협력에 도움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 참도 않고 관여할지 모르니 도와줄까 고민하셨을 것이다. 공산민중의 건국할 때, 우리 경제는 남한 내부의 경제에서 일부도 전개해 오고 있다. 남과 북은 권력대립 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차로 3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걸어서 25시간 동안에 갖게 되지만 이틀이면 된다. 걸어서 25시간 동안에 갖게 되지만 이틀이면 된다. 걸어서 25시간 동안에 갖게 되지만 이틀이면 된다. 걸어서 25시간 동안에 갖게 되지만 이틀이면 된다.

기차가 전역에서 북한을 거쳐 유입으로 갈 것이다. 한(韓)의 새로운 삼크로이드 생겨날 것이다. 남북 양측의 경제 개방시대가 될 것이다. 그 외 북한 노동력은 대단히 우수하다. 또 노동도 재능이다. 남북이 좋아도 북한은 좋아도 안된다. 누가 좋아야 오라고 하고 화해도 할 수 있다. ‘원인전파’로 나가야 한다. 이런 교류하면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통하는 것이 김위원장과 화상해 협의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남북권이 집행한 남북차관이 관 복현과 접촉해 협상 진행을 할 것이다.

● **서울답방**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협의의 본에 합의했다. 그러나 결국 김의 입장은 우리라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김위원장은, 나는 김위원장에 이야기했다. 남한에서 서울에서 우리 민족이나 세계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 내일 가고 안오면 알려서 그러 생각한다. 우리는 예의를 충상하는

동반에지국인데 김위원장 보다 10년 위인 나이 많은 노인이 여기 왔는데 당선이 안온다는 게 많이 되느라고 고맙다.

● **소회** 다시 한번 북한은 다같은 우리 강산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데고, 한국 사랑의 생각과 인정과 생활환경을 가깝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정권을 분남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고 반드시 공동공영과 우리 현민족이 서로 손잡고 새 21세기에 인류국가로 나갈 것이다. 우리 주변의 나라는 시장이다. 지적·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시대의 현상을 해어나가자는 각오를 갖고 협력 분야 북한을 대해남다. 안보는 철저히 해서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결국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하기 위한 안보로 나갈 것이다. 조항과 김위원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변경권 조국 유승훈에게 들려주 것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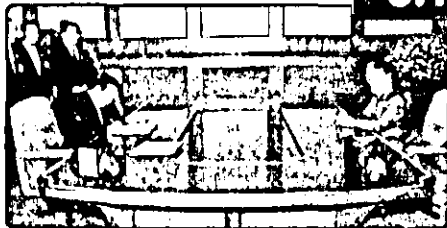
최우규·이동욱기자 [lee@kookilnews.com](mailto:lee@kookilnews.com)

### “우리의 소원은...” 하나되어 합창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이 15일 백화관 영빈관에서 열린 대표단 환영 오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www.kookilnews.com](http://www.kookilnews.com)

2000.6.13

- ▶ 광양 순안공항 도착(10:27)  
김영남위원장 직접 영접,  
두 정상 악수
- ▶ [김두진 동승]  
55분 차내 정상회담
- ▶ [백희원영빈관] 1차 정상회담
- ▶ [인민호텔공전]  
김영남위원장 초청 만찬



6.14

- ▶ [민주대의사당] 김영남상임위원장과  
공식 면담 4시간대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15:00~)
- ▶ [백희원영빈관]  
김대통령 초청 담판 만찬  
(김정일위원장 참석)
- ▶ [백희원영빈관]  
공동선언문 서명(23:20)

6.15



- ▶ 김영남위원장 초청  
고별오찬
- ▶ 순안공항 출발(16:25)

# 김대통령 “젓먹던 힘 다했다” 김위원장 “섭섭한 말 하겠다”

불꽃 튀었던 '3시간50분'... 합의도출 뒷얘기

15일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오기까지는 두 정상간의 토론과 협상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 중 반강제 사안의 하나인 제2 양의 연방제 '연방제'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쓰여진 것은 김대통령이 김위원장을 생애처음 만났던 김대령과 박준우 대령인이었다.

북측의 공식적인 연방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외교의 관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위원장을 단독회담에서 이를 계속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령은 "그렇게 되면 국제기구에서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다"고 전제조건 설명, 지방정부와 외교의 공식회담을 시도하는 의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했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박대령은 "중개 과정에서 김대령이 생애처음 연방제를 갖고 싶었다"며 "생애처음 연방제와 외교관이 있는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대령은 퇴장 후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결성되게 설명했다"고 55분 분의기를 고백했다는 박대령이 전했다. 이어 김대령은 "3시간 50분이었지만 3시간 40분은 김장의 안색이었다"며 "두뇌 분열이"

에 대해 두 정상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부연했다.

○...공동선언의 문안을 확정하는 밤까지 만개에서도 싸웠던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위원장에 서명하는 자막을 누르도 할 것이냐고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북측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닌데 내용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위원장과 김위원장의 서명위원장이 아니라, 두 정상의 명을 받아 다른 무사안이 하는 내일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에서 "우리는 김대령과 김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 결국 김대령과 김위원장이 서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동선언 작성과정에서 두 정상은 큰 틀에서 합의만 했고 문안은 오후 8시30분부터야 실무진에서 작성하기 시작했다. 양측 실무진은 두 정상이 회담장에서 만났던 때는 도중 공동선언 초안을 마련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가 결정, 이 때 김위원장이 김위원장에 먼저 서명했다. 김위원장은 초안을 검토한 뒤 임무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남측의 임종영 특사에게도 설명했다. 다시 임종영이 김대령에게 보고하는 등 박우 조영작업이 무사하게 이뤄졌고

는 자리에서 자신을 놓지 않게 다른 기사도 보고 청문회 표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대령은 김대령의 인성역할, 정치역할에 대해 이러한 존경심을 표시했다는 게 박대령의 전언이다. 김위원장은 "이러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발언을 보고도 진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김대령은 이날도 북측에 대해 시종일관 김위원장을 향해 말했다. 박대령은 김대령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시종일관이라고 했는지 적지 않다는 것인데, 김위원장은 "이러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발언을 보고도 진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김위원장은 "이러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발언을 보고도 진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김대령은 김위원장의 얘기를 모두 김위원장이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김위원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김위원장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김대령이 소개했다. 김대령은 "서로에게 이해가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남북이 모두 잘 살아야 한다. 민족분쟁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 / 공동취재단

• 김대통령  
“낮은단계 연방제” 문구삽입 예로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설득  
• 김위원장  
“우린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은 모순”  
상대주장 합리적 판단엔 진항적수용

##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 오셨습니다”

두정상의 어록

북한 55년만에 처음 만난 남북 북의 정서는 243일 동안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김대령은 131하게 초회와 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고, 김위원장의 243일 동안 단독회담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김위원장은 직장에 유배당할까봐 수도, 사상으로 내달린 이성이었다. 김대령은 131의 남북대립 인내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명한 지시하는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말씀에 응호하시라 한다”며 어떤 정서과남을 내리는 말을가슴다 말했다.

박대령은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령에게 매우 나

“뜨거운 가슴  
차분한 머리...  
새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은둔에서  
해방시켜 줬다  
제가 워 큰  
존재라도 됩니까

은 김위원장의 첫인상은 “반갑습니다”였다. 반세기 방랑의 임당배를 녹인 말이였다.

관와 박대령 연방제 김위원장에서 기권 1차 회담에서 두 정수는 서로 백사위 맞수듯 대화할 어이없었다. 김위원장은 “6월13일은 역사에

남편하게 기록할 날”이라고 했고 김대령은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방문, 두려운, 무서운 길은 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하자 김대령은 “우리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라고 회답

다. 김위원장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령이 왜 반겼는지, 김위원장은 왜 순안공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243일 동안 대립을 견뎌왔는지”라며 회담에서 세계가 인정할 '원래'를 부연하게 해 있음을 사지했다.

15일 오후 박대령 연방제에서 김위원장은 김대령에게 공식과 장사의 눈의 안부를 묻는 등 뜻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김대령은 “위원장님 공경까지 내와 영접하는 것일 뿐 남북에서는 기념행사가 아닙니다”라는 말에 김위원장은 “제가 워 큰 존재라도 됩니까”라고 김대령을 모욕할 모욕이 없다. 이어 “나보고 영문장만 남는다고 하신도 못이 되겠습니까” 김대령은 “오셔서 은둔에서 벗어난”고 말해 김대령의 북측은 “자네는 등 유언대 내고순의 분이였다. 김대령과 김위원장은 15일 광양 순안공항에서 “삼거위” “사슴”에서 삼거위라고 인사말을 말했다.

최우규기자 [hoon@kookjeil.com](mailto:hoon@kookjeil.com)

# 南트롯트도 좋아하는 실리주의자

## 방북 핵심당국자가 본 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남한시절에 매우 밝으며 언행에 거침이 없고, 실용주의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위원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핵심 고위 당국자의 다음과 같은 체험담은 김위원장의 단면을 드러낸다.

○...김위원장은 일과에 무관해서는 남과 이변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했다. 당초 13일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오후 확대 정상회담을 뜻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었으나 김위원장이 이 순서를 바꿨다. "오전에 단독회담 할 시간 여유가 적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삼호주의, 삼호주의 하는데 그렇기 삼호주의 한번 해봅시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들이 김대중의 숙소방문을 편견없이 받아들여준다고 했다. 그는 "정순애씨가 내가 김대통령을 찾아 다니는 것을 반대했다"며 "정순애씨가 자꾸 반박문을 써는데 재차로 반박신문을 배려해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 최근 민류 불구 DJ속소 방문 거침없는 언행에 자신감 넘쳐 인회석상 "이미지들 좋아한다" "서울 왜 뉴욕답나" 환경 강조

다. 그는 "다른 외국수반도 잘 모시는데 내가 김대통령을 잘못 모시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남쪽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는 데에서도 그의 거침없는 성격이 잘 나타나다. 총명오찬 자리에서 남북연의 상호배방 문제가 거론되던중 박지연(朴智蓮)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한기자들의 방북 필요성을 제기하자 "8-15전에 오면 잘 모시겠다"며 즉석에서 초청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정순애도 언젠가 방북도 오시오. 최고로 잘 모시겠습니다. 용선애씨도 서울에 갔다 오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박지연이 서울 방문을 요청하자 "꼭 가라"며 "가서 박지연을 3선, 4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조크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남한의 언론을 거의 심사적으로 잡고 있는듯 했다. 15일 그는 "여제 지어 만찬후 새벽 3시까지 남측 텔레비전 왔다. 남한 TV가 곧장 틀려나. 내가 입의사에 수간(水干)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말했다. 언론자리에선 "내가 좋아하는 미자(미이자), 연자(김연자), 김세라, 은병을 지어 다 왔으면 좋겠다. 조봉암, 남진, 나훈아도 잘 안다"고 했다.

○...김위원장은 스스로 "나는 실리만 따진다"고 말한 정도로 실용주의적 인식이 깊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김위원장은 얼마전 서울 공연을 가졌던 평양소년예단 단원 관계자들이 선화예술학교 교실에서 태극기를 뽐낼 것을 요구한 사실을 놓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서방이니까 태극기가 있는 것이고, 남북 사이에 공연에 오면 민기가 많다 내려야 하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고 북측 관계자가 전했다.

○...김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중이 "환경이 워싱턴과 같아지기가 비슷하다"고 하자 그는 "서울은 왜 뉴욕을 좋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환경은 관광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박지연의 의견에 대해 김위원장은 "나는 환경을 중시한다"고 겸손하기도 했다.

# 두정상 손잡고 '통일이여 오라' 합창

## 새역사 큰만남

환승오찬·평양출발

## 김위원장 이룩할때까지 서서 손흔들어 오찬선 '의자 더 편하게' 김대통령 배려

김치영(金志英) 위원장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뜨거운 포옹으로 개성공단의 깊은 만남을 아끼워줬다. 이에 앞서 백의당 영빈관에서 열린 환승오찬에서 김대중과 내외와 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우리의 조국'을 합창해 눈길을 끌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의 귀경 간에도 또 다시 공원을 나와 환송했다. 김위원장은 오후 4시경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이 승용차에서 내려기류 기다리다가 인민군 의정대 사령관 안내했다. 환영 시민들이 꽃송이 송아리 열풍적으로 "반세"와 의자 김대통령은 손을 들어 환송에 참여했고 1~3층 뒤를 따르던 김대중과 박지연이 있었다.

김대중은 박지연과 임영이 열수를 나누던 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내의 발언에 김대중과 박지연이 열렬히 찬성하며 박지연이 박지연에게 "반세"와 "반세"를 외쳤다.

○...이에 앞서 백의당 영빈관 1호관에서 열린 환승 오찬에서

김대중과 내외와 김위원장, 연수 김지연은 박지연(朴智蓮)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외에 따라 손을 맞잡고 박지연이 '우리의 조국'을 합창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과 이교(李孝) 여사의 사이에서 맞잡은 손을 앞으로 걷는 등 정중하다는 모습이였다. 공원의 노력이 끝나자 박지연은 앞으로 나아가 "김대중과 김위원장은 21세기 새천년에 우리의 평화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연은 즉석에서 내외에 있어줘 "우리 너무 함께 헤어졌어 요할 연이여 복귀 약속을 받았다."

○...이날 환승오찬에서 김위원장은 내외와 박지연과 함께 김대중에게 대해 격찬할 예정인 데 눈길을 끌었다. 인민군 사령관 김위원장은 박지연이 김대중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은 색깔이 없는 의자라 보여있자 바로 뒤에 서 있던 공화국의 의정장을 불러 "김대통령께 관공리가 있는 의자를 갖다 주시오"라고 명령했다.

○...김위원장은 환승오찬에서 전담 지어 만찬을 위해 예기를 끌어 나갔다. 김위원장은 자신이 변신해 김대중을 맞이 한 사실이 남측 언론에 소개된 것을 들어 "모두들 김위원장의 숭상력을 알게되길 바란다"고 겸손하며 "순정령이 (박지연) 김위원장을 만나"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이 "저는 네번째 김지연이라고 하고..."라고 말하자 김위원장은 김대중에게 "네가 순 내산 곳도 있다"고 지시했다.



**환승**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환승기 트레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흔들어 배웅하고 있다.

## 한강도 대동강도 통일로 흐르고

### 6·15 공동선언

5개항 집중분석

남북통일방안 비교

|           | 북측안   | 남측안  |
|-----------|---|--|
| 발행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
| 일기        |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80-10-10)에서 발표  | 김영삼 대통령이 8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
| 정치        | 자주-평화-통일-민주주의   | 자주-평화-민주   |
| 과정        | 남북 제정당 시로단체 해외민족단체 예비회담 - 6자회담 - 남북회담(남북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통일준비위원회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6자회담 - 남북회담(남북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 남북 국제 대표가 통일방안을 협의(중립적 차 주변) - 통일국가(공산제 - 통일국체 - 통일정부) |
| 연방·연방단계   | 1단계 (국가 2개도 2정부)<br>연방정부(남북)<br>↓<br>고급민족연방위원회<br>(남북 동수체 대표와 4당수체 총의 필요 다자대화 구성)<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1단계 (국가 2개도 2정부)<br>연방정부(북)<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연방정부(남북)<br>↓<br>고급민족연방위원회<br>(남북 동수체 대표와 4당수체 총의 필요 다자대화 구성)<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연방정부(북)<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연방정부(남북)<br>↓<br>고급민족연방위원회<br>(남북 동수체 대표와 4당수체 총의 필요 다자대화 구성)<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연방정부(북)<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연방정부(남북)<br>↓<br>고급민족연방위원회<br>(남북 동수체 대표와 4당수체 총의 필요 다자대화 구성)<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연방정부(북)<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 연방정부(남북)<br>↓<br>고급민족연방위원회<br>(남북 동수체 대표와 4당수체 총의 필요 다자대화 구성)<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연방정부(북)<br>↓<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남북한 주요 합의    | 주요 합의문건  | 서명주체      | 일자   | 주요 내용 |
|--------------|----------|-----------|--|-------|
| 7.4공동성명      | 이회창, 김영주 | 71-7-4    | - 자주-평화-민족통일 3원칙   |       |
| 남북기본합의서      | 홍문기, 연병철 | 81-12-13  | - 남북고유성, 불가침, 교류협력 4대 원칙                                       |       |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홍문기, 연병철 | 82-1-20   | - 핵무기 4월 제로 생산, 중추 보유, 저질 핵비 사용금지 등 8개항                        |       |
| 6·15공동선언     | 김대중, 김영삼 | 2000-6-15 | - 자주통일 남북공동방안 공표, 민중이신가족회 창설, 통일장기추진 4대항, 교류협력 강화, 대외 통일외교 4대항 |       |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국무총리는 남북 공동선언에서 자주통일과 민족통일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이같은 원칙은 역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담겨

지만 남북한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두리 의미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은 남북한간의 통일은 이제야 문을 열었다.

#### ▲ 자주적 통일

○ 자주 평화통일 원칙 = 지금까지 남북한은 자주 평화통일을 목표로 말하면서 그 의미는 서로 달랐다.

남측은 남측과 재국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데 비해 북측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 대목을 주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측과 중심이 자주 통일 원칙을 확인한 것은 한반도와 주인인 남북한 당사자간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했다는 것을 말한다.

남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동맹과 협조를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추구해나갈 뜻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제 따라 남북한은 한류 자주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각종 단국간 협회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추진중지된 남북정상회담도 다제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는 4자회담과 별도로 남북한 동국가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일방안 차이가 없어  
〈남북한의 통일방안〉"남측과 연합(단)과 북측의 남한 단체와 연합(단)이 서로 공표하고 있다고 인정한다(6·15 남북공동선언문)

남북측이 서로 상대방의 통일방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북 협조와 통일방안이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남과 북은 '주국통일 3대원칙'을 남측과 북측이 공유하고 있다. 이 3대원칙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원칙사항으로, '남북협조 4대항'을 요건화한 7·4와 '한민족 건설'을 전제로 하여

## '통일 3대원칙' 의견차 극복 민족운명 스스로 해결 천명

주적으로 형성하고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무력봉사에 의거하지 않고 경제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해 우선 친선과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합의한 이 3대원칙은 이후 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과 1994년 남북기본합의서 제정 등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의 기본조항이 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이 3대원칙에 근거해 마련했다는 자기의 통일방안을 보여 의견을 차이를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양 지도자로서의 남북연합에 이념(연방)을 통해 남북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북측도 정치적, 단계적 통일방안인 고조연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3대원칙이 모두 3대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이라지만 대외적으로 제시한 통일목표(도리)를 갖고 있다.

남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남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남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남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남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북측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주체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민주주의 사회에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했다.

# 백두서 한라까지 '상봉의 부푼꿈'

## ▲ 이산가족

이산가족 분야 합의는 '6·15 남북공동선언'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합의 사항이다. 다른 합의사항들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8·15 즈음"으로 시점을 못박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다. 박준영(朴埈榮) 청와대 대변인도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전해 김대통령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했다.

## 당국차원 정례화 첫발 장기수 先요구맨 힘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모두 45명으로 알려진 민간인 남북자나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로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품연락' 교환 이후 15년만에 당국 차원의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물론 그동안 가족 간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산상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철저 않은 비정규 감수해야 했으며 그 숫자도 88년 7·7선언이후 월 3개까지 생사확인 2,001건, 서신교환 5,434건, 제3국 상봉 496건 등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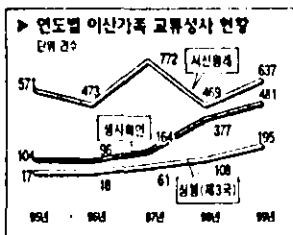
이번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규모와 절차, 장소 등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향후 적십자회담이나 남북 당국차원 실무회담 등을 통해 논의되겠지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중 고려자이면서 부모·형제 등 직계 존·비속을 찾는 신청만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의 한(恨)을 풀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동선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맞물려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김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도착 회견에서 "어디까지나 살형민, 이산가족이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오늘도 공화에 나오면서 다시 김영관장에게 '몽크게 한번'



경제인들도 함께 건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연회에서 정몽헌 전 현대회장 등 남측 특별수행원들에게 산삼술을 따라주고 있다.



## "몽크게 한번 해보시죠" 출발직전 공항서 당부 후속회담 틀마련 시급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밝히는 장기수문제도 내가 국민과 상의해보겠다고 예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신(先) 이산가족 교환, 후(後) 비전향 장기수 복송의 순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패키지로 묶어 비전향 장기수 55명의 복송을 우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문제중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1회성이 아닌 제도화 수준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모든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사확인-무연통 교환-방과와 상봉-자유여행사에 의한 재경험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도 첫 단추인 생사확인의 제도적 접근이 마련되지 못했다. 남측은 실무 협상 등 후속회담에서 이 문제까지 논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 셈이다.

남북의 당국차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차제에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북측의 접근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북기간중 보여준 친화적 자세를 감안하면 의욕이 빠른 속도의 성실한 수준으로 이산가족문제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갈수록 이번 합의는 단순한 해결의 실마리차원을 넘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청결근기자** [news@kookmin.com](mailto:news@kookmin.com)

▲ 당국간 대화

합의사항 실천 논의  
상시 대화시대 예고

공동선언에서 밝힌 사실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것은 가장 실용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남북 간에 합의된 항목 중 합의는외교 이산가족 상봉 등 모든 사실에 남북간 대화의는 통로를 통해 이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이 합의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남북간 '상시 대화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대화 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상 이 직접 체결한 공동선언은 '대화의 길을 가는 것'보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불행이다.

남북간 대화는 시간의 따라 분시·비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한 현안사태 소나 이산가족 상봉과 유엔 변호소 남북 정상간 회담의 실제 등 각각 성격이 다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이 더없이 불가피하다. 여전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푸는 해결되는 현실적사가 유례하게 반복된다. 이번 남북간

장관급 협상체널 거른  
개치지는 관문적 유력

남북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약서와 실현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당시 기본합약서는 '경제협력 공동체' '경제교류협력 공동체' '사회·문화교류 공동체' '군사공동체' 등 네개 공동의 구성에 합의했으나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남측은 남북우호협력과 신뢰를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구성해 남북 교류협력 협의체 개편을 기대해 왔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체육·보건·환경 등 기존 교류협력으로의 총괄적이 어려운 분야들이 다져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층의 대화 채널도 생각할 수 있다. 장관급이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공동체는 개개 분야에 국한된 지각도 있다. 이 때문에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수석대표로 하는 협의체로 개편되고 있다. 한반도 남북관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우선 협조구구 구성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남북간에 유력한 대화 채널 확보를 위한 경우 장소는 이번 정상회담 관련 협력이 열린 관문들이 개척자가 될 것이 기대된다. 이 때 남북 통일이 합의된 내용과 협조체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장관급 회담이 남북관계를 차관급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면모가 될 것이다.

박재홍기자



송별 오찬도 '화기애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낮 북한형 영빈관에서 열린 송별 오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체육교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육분야에서도 남북교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월 시드니올림픽 때와 남북한 공동입장이 유망해, 경주속구 국제, 12월이 끝날 아시안컵 축구대회와 2001년 도사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연습경기 대상,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분상기 등 다각적인 교류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체육교류는 만일대 승전이나 월드컵 본선 개최 등 단순한 교류에만 그칠 수 없다. 남북한은 이미 체육교류를 통해 지난 1991년 탁구과 축구가 단일팀으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과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의 성적을 올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은 두 번 다시 공백을 할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체육교류는 이제 슬슬만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논의와 추진을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되며 지원된다.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은 남북한이 서로간의 교류

단일팀구성등 전종목 확대  
자연스런 '통일연습' 기회로

를 인정하면서 공동경쟁의 길로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본말한 것은 적어도 스포츠교류에서 남북한이 '같은 통일팀' 이력 공유적으로 우리 민족이 자랑해야 할 통일팀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난 1991년 남북탁구 단일팀 출전과 이번 월드컵 전 대한탁구협회 부총장이 "단일팀 재구성 자체도 역사적인 일이나 1991년보다는 더욱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당시 단일팀 출전이 나선 유력후진 "남북한 북식 다문화의 전지훈련 기간중이나 아호 기간중 같은 단일팀으로 출전을 앞세우자"고 제안했다. 이후 남북 단일팀을 의미하는 전지훈련을 처음으로 남북한에서 실시한 단일팀을 북한에서 개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일팀 선수대원은 공식적으로 양측 선수들의 방을 방문하며 남의 방문 목적을 다지는 바도 그렇다.

최종단 소련의 통일팀이 합의된 전지훈련 경기장이나 연습장, 그리고 숙박시설 마련하는 등에서 '반쪽 통일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외 이번에는 어느 쪽이든 단일팀을 관하여 남북한을 오가며 같은 팀에서 훈련받을 경우면서 전지훈련을 함께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연습'을 하게 된다. 통가 팀을 만들고 장래의 통일팀을 준비하면서 한나 유력후진 승전 후의 단일팀이 되어 우리 국민을 위한 스포츠로 앞으로 남북의 사람들이 오가며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가 통일팀이 아니라 남북

# ‘南과 北의 포옹’ 전세계 톱뉴스로

각국 언론들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일제히 긴급 뉴스로 내보냈다. 자국 이해에 따른 문제점 지적도 있었지만 이들 언론은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문 발표는 남북한이 분단된 지 50여년 만에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남북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석발의 포옹을 하는 장면을 남북화해의 상징으로물로 주목했다.

美 미사일·미군 문제 거론 없어 ‘섭섭’  
日 동북아의 안정위한 3국연대 강조  
中 위상강화 기대·日 군사력증강 우려  
러 한반도 화해 ‘베를린장벽 붕괴’연상

• 미국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북한의 잠거리 미사일 및 핵개발 등재를 비롯, 북측이 좁기치게 요구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남북 정상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남북공동선언 발표에 환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전했다.

MS ABC방송은 이번 합의를 담담한 언어는 향후 어떤 대립의 여지가 있을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일본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의 5개항 공동선언을 일제히 1

면 톰단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인의 남치 의혹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사카이 마사키 오사카의 거류민단과 조총련 동포들이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축하하는 도임을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

북간의 현안인 일본인 납치 의혹과 미사일 문제도 일단 호담이 열렸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연대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진전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고 일본의 자금 협력이 그제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홍콩·대만

중국 언론은 이번 회담 성과를 긴급 뉴스로 전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은 북한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공경 신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남북 공동선언 합

의로 미국은 제2의 후안지자인 천극을 포기 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콩의 평보는 남북 관계 정상화가 중국을 영향력을 넓혀주는 반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연합당도 남북이 50년의 심연을 뛰어넘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만은 일단 호담 양사의 압력을 더욱 심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러시아 신문 이즈베스티야는 남북정상 회담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유하면서 한반도 화해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동-서 독재의 남한에 흡수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흡수를 사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기자 2000.6.16. 10:00



재일교포들도 ‘축배’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14일 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축배를 들고 있다.

2000.6.16



# 짧은 만남... 긴 여운..

## 아쉬운 이별



“다녀왔습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15일 오후 북한 방문에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로 향하던중 광화문 네거리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환영인파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극적으로 데뷔한 김위원장에 대한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상공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 “개혁주도 고르바초프 연상”

■ 세계가 다시 본 김정일위원장

패쇄적이고 초전직이며 음험한 이미지만 인식돼온 그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하며' '자신감에 찬 비결을 갖춘' 지도자로 각인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전보작 지식인들은 그의 이미지에 반신을 놓고 1980년대 말 옛소련의 개혁·개방을 꾀고온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연상시킨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김위원장의 이미지 변화"라면서 "83년 다윈산 시대 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 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이날 "김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세계에 비친 부정적 인상을 반전시키게 됐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에 변덕이 심한 클레이보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었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면모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4일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는 그의 옷 스타일과 같은 지시적용을 무분까지 다루며 세계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켰다.

남북 김합이 있는 미국의 전보작 전문기관이 보는 김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난해 5월 미 전문가들의 급작적 지지 선언 직후 미 국방부 직영으로 운영됐던 조영 워트 인부킨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인 "김정일의 이미지가 진짜 많이 해리되어 왔다"며 "그는 영리한 사람으로 김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



공손한 태도 긍정적 평가  
폐쇄·호전적 이미지떨쳐  
일부 '계산된 연출' 분석  
실질 변화인지 의구심도

라를 다스림 준비를 해온 매우 강철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는 15일이 시작될 때만 해도 김위원장에 대해 "너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이었지만 회담이 끝나면서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일본 일부에서는 그의 과격적 행보가 '계산된 연출'이라고 분석하면서 과연 실질적인 변화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관세당 장관 때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국장을 지낸 디그 램은 "남북 공동선의 합의는 긍정적 뉴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에게서 큰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이승철특파원·조홍민기자

ryc@kwpj.yonhap.com

### 김위원장 “北경제 어렵다” 시인

방북 수행 이현재 재경 TV대담서 밝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우리 대표단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재(李憲宇)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밤 SBS TV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집프로그램에 나와 "방북기간 중 김위원장이 내게 '북한 경제가 지난 10년동안 제대로 발전을 못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장관은 따르면 김위원장은 또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우리 대표단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우리 대표단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관은 "장부는 남북 양국의 안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용가능한 것부터 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ryc@kwpj.yonhap.com

### 남북경제인협의기구 설치합의

중소기업 투자단도 8·15전후 방북키로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남북한 경제인들을 남북 경제협력과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와 협심화하기로 하고 이후 뒷받침할 민간 차원의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 8·15를 전후로 50명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단이 방북한다고 15일 북한 방문을 마친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밝혔다.

손 부회장은 북측에 "투자모집 22종과 세 단계 등 제도적 감항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손 부회장은 세계 인사를 지난 14일 서울 맨해튼경제협력개발기구 정상회담, 조국통일연구원 박동근 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경제협력 실무협의할 기간이 없다.

손 부회장은 이와 함께 "장부

한에 대한 이사가 '서호안광단 조상사업은 한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 서해안공단 사업이 국내 기업간의 긴소 사업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중소기업 대표로 방북함에 나섰던 이원호 중소기업 협동조합 부회장은 "8~9월경 5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 투자조사단이 북측 기업 관계자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 새역사 큰만남

해외반응/인터뷰

## “남북관계 정상궤도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유희교수 인터뷰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유희(宋斗誨) 독일 뮌헨대학 교수는 15일 남북 정상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교수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간의 합의는 특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 당시 독일에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나선던 송교수는 지난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에 참석한 예상이었으나 한국의 출범시약서 제출 요구에 귀국을 포기한 바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빨리 남북 정상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74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 관계를 규명하는 기본 합의가 이미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남북간 관계가 정상 궤도에 놓이신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사상을 대외에 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자주적 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자주적 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 공동선언에  
美·日 내심 불편할수도  
동일방안 공통성 인정  
구체적 이견은 대화로”

—이번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내심 불편해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은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위엄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법(NMID)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시사하는 등 남북간의 자주적인 통일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밀적인 통일방안과 무엇인가.

“자주적인 통일의 원칙이 세력권 이산,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이견은 중요하지 않으며 합의는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동선언에서 남북 핵이 상대방의 통일방안에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통일 논의에 단박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3년간 교착을 빚었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이산가족 상봉, 미얀마 장기수용처 해방 등 인도적 문제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해외 입시의 입학 문제도 진척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협력 등 기타 분야에 남북관계 전망은.

“남북공동선언 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개별·개방’이라는 용어 대신 ‘민족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런 세계화 시대의 개념이 내재하고 있다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민족경제를 근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범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백래운/연합**

# 새역사 큰만남

국내 전문가 좌담

■ ‘평양 2박3일’ 수행원들의 감회

## “함께한 역사적 현장 감격 억누를길 없다”

평양을 다녀온 공식·비공식 수행원들은 한결같이 “역사적 장소에 있었다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행원들의 발문 소감.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장과 만나 국외 회담 재개 문제를 요청했다. 양현삼 부위원장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노동당 쪽에서 협의를 회담을 주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의정 단 선에서 서로 연락을 할 것이다.

·박기훈 직입지사 사무총장=평양시민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좋았다. 우리의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직입지사쪽 인물은 만나보지 못하고 이종현 민회원 부의장을 만났다. 지난해에 비하면 훨씬 고맙다며 덕분에 평안이 들었다고 했다. 윤래도 재 태 보내달라고 했다.

### “이번엔 잘 될 것 같은 예감 많이 받아”

·정몽헌 현대이산 이사=9년, 9년 두차례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뭔가 참된 것 같은 예감을 많이 받았다. 북측의 경제인들을 만나 투자보장협정과 2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이남일 방북에 서해안 관광사업 투자선정과 금강산 종합개발 사업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구본우 LG 회장=북측이 우리에게 보여준 협력 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북측 기업인들을 만났지만 개별적인 접촉은 없었다. 경험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무장지대에 국제물류센터 건립 등 시안별로 대북사업을 구체화,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성은 뒷잡스러리고 시심도 쏘았다.

·손길승 SK회장은 평양을 계획도시로 계획하고 공해도 없으며 관리정돈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측 인사들은 남북경협에 기대가 크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재외에 담라고 말했다. 개발기업끼리 사업을 해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민간차원보다 당국자가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부자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 “곰발바닥 요리등 최고의 대접 받아”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남북이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지는 제외에 북측은 “당시 김정일만 우리는 한다”고 회담했다. 남북간에 참모는 확실해 다진 것 같다. 지금까지 경협은 시험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큰 규모의 경협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15일 점심은 곰발바닥 요리, 아지숙에 사슴민감 넣은 음식 등 최고의 요리로 대접 받았다.

·송원두 전경련 부회장은 평양 시민들의 표정 속에서 뭉툭 민족애와 통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제도적인 합의 갖기되면 민간 차원의 경력이 협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인 방문 때 베이징(北京)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야 한다.

### “다녀와보니 아주 가까운곳 실감”

·장치혁 교협회장은 평양에 먼 곳인줄 알았는데 다녀와보니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어딘지 잘 모르던 김치맛을 오래간만에 왜 세 사람이나 먹었고 평양도 부산보다 친숙해서 먹었다니 배만이 나고 말했다. 현지들을 만났으나 직격공속들은 다 돌아가지고 먼 친척들만 볼 수 있었다. 이전에도 걸은 때부터 몇차례 평양을 방문했지만 항상 가서 보면 짐짓가 잡 돼 있는 것이 가장 부끄러웠다.

·강창모 러시아코리아 시장은 51년만에 사촌누이뻘 만났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모처럼 추억 등 여러점 이야기만 하다보니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김정일 위원장은 친척이라고 속삭여 보였다. 국가간의 관계발전은 위해서 내외가 일어나 중요하지만 깨달았다. 관 가지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백래운·최재영기자** [www.koreatimes.com](http://www.koreatimes.com)

전문가 의견

공존기틀 마련  
이젠 신뢰 중요

통일연구원 허문영(許文榮) 통일정책연구소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언급된 남북한 통일언의 공존성이 '공존기틀'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남북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로 이뤄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번족 1국가 2정부 2제도' 형태의 '고려연방제'를 내세우고 있다.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와 북측의 고려연방제는 비슷한 점이 있다. 내성은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학교·국방 등은 중앙정부가 갖는 형태다. 공동선언에서 서로 공존성이 있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지역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형태로 분석된다. 남북의 지역자치정부가 대칭뿐만 아니라 외교·국방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정책실장)

통일에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는 엄청난 차이를 안고 있다. 남북이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할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공동선언의 것마련에 따른 통일문제의 차수상 대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반선언도 이해하는 '차수=중요도'로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할 것이다. 중대하고 문제가 감당되어 되기는 어렵지만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후에 이미 조해영의 고대원장에도 건명된 남북의 협의사이다. 통일에 대한 원칙만 같다면 이부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공동선언에 내포되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분구 그대로 받아들여야 신뢰가 중요하다. 정리/양호기기자

서울 언제오나

金위원장 답방  
10월초 가능성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언제쯤 상사일까.

새로운 약자의 등장으로 신 년병도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김위원장의 서울행은 확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김대통령의 초청은 김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외교적 관례"라고 말했다. 공동선언이 밝힌 것처럼 그의 답방(訪韓)은 이제 시기의 선택만 남았다는 예이다.

김위원장으로선 크게 세가지 정도의 이벤트를 감안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러시아를 따라다니던 푸틴 대통령이 오는 7월 중순 북한을 방문한다. 중국 정체인(江澤民) 국가주석도 8월쯤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6일부터 8일까지는 남북 두 정상 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지 문제이긴 하나 오는 10월 중순쯤에 있을 노벨 평화상 시상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해 할 때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유엔총회를 전후한 시기가 될 공산이 크다. 김위원장의 10월초 서울 방문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그의 서울행에 변수가 없지는 않다. 공동선언에서 드러난 합의사항 이행 진척도는 그 중 하나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비전향 장기수의 복송 등 가시적 성과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맞물리는 사안으로서 큰 장애물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초창기적인 남북의 분위기 조성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초청의 서울 방한에서 "남측 국민의 80% 이상이 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으로 20%에 달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의미로 풀린다. 김위원장의 서울방문 결국 남북 내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동선기자 [harubang@kyunghyang.com](mailto:harubang@kyunghyang.com)

정상회담 후속조치 주요내용

|                            |   |
|----------------------------|---|
| 남북회담대비<br>세제 집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의사항 이행 협의 개시</li> <li>-대표단 구성 협조</li> <li>-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li> <li>▲남북연락사무소 기공 직상해</li> <li>-연락사무소 조직 및 기능진비</li> <li>▲김위원장의 서울 방문 준비</li> </ul>   |
| 분야별 협력<br>방안발굴,수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 직통전화 개시 등 추진</li> <li>▲난제지:경제적 지원 추진</li> <li>-경의선 철도 연결, 인천강 수방 대책 등 우선 추진</li> <li>▲경의의 개도해 인프라에 대한 방안 제시</li> <li>-민간차원의 대북경매 기업협력제 활성화</li> <li>▲민간의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분야분야 협력 추진</li> <li>-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인사</li> <li>-2001년 세계탁구대회 참가권 부여</li> <li>-2002년 아시안게임대회 북측내 프란 참가</li> <li>-2002년 월드컵 본선 개최 및 단거리 선수</li> <li>-계열축구대회(또는) 북측축구대회(북측) 추진</li> <li>▲유전선 확대 협력사업 추진 등 보건·환경 협력 추진</li> </ul> |
| 대북 정책에<br>대한 국민적<br>공감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일관성 및 관행 유지</li> <li>▲내부사업 추진시 국민 협조 및 관여단체 의견 수렴</li> </ul>   |
| 국제적 협력<br>지속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위 공동 강령 및 북한에 국제사회의 참여 지원</li> <li>▲대북 정책과 해외 프로젝트 병행</li> <li>▲차별선언에 국제적 보좌 유도</li> </ul>  |

후속조치 어떻게

'신중하고, 내실있게'  
우선 통신시설 확보

정부는 15일 '정상회담 결과 해산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일단 사상 첫 정상회담으로 합의내용의 실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치밀 없이 이종화했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후속조치 방안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당히 추진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서서히 내실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이일부터 직접 자위남 등을 통해 우선 협의하고, 김일 등 문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다루어간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또 남북간 통신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단체 및 민간과 협조하면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종전 법정부 지원의 조직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논의해온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구성해 후속조치를 밟겠다는 뜻이다. 남북의 당국간 대화뿐 아니라 민간단체간 협의 등을 대비해 대대적인 관련 협의체들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 사무국이나 전문관 연락사무소는 물론 후속조치 이행과 관련된 있는 부처내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직통전화 개시 등을 위해 군 남북의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mailto:harubang@kyunghyang.com)

# 실향 1세대·고령자 '방북 1순위'

##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오는 8월15일을 기해 남북한 고향방문단을 교환기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15일 월요일,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청, 각 언론사 등에는 '고향가는 길'을 묻는 심향인들의 문의가 잇달았다. 민세기나 지나서야 찾게 될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큰 때문인지 모두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가이 한다"며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차크'한장을 손에 쥐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절차·규모 85년방문단 관례 따를듯 고향마을·친척 직접방문 가능성 커

▶절차=공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간 실무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봉 절차와 방식, 방문지, 방문단 규모, 상봉할 심향인들의 우선 순위 등이 결정된다. 실무회담이 끝나고 이산가족이 각자 따로 고향방문단에 들어가 심향인들을 선정한 뒤 해당 인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누가 가게 되나=한국에 살고 있는 심향인들은 7만6천여명에 달한다. 심향인만 1~3세대이다. 이를 중 70%가 남은 26만여명의 고향자를 포함한 1만2천명의 심향인 1세대들에게 우선 순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위 중 90%를 남북적십자회담이 상봉대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방북대상자를 33%만 여명이 '순회'할 가능성이 크다.

▶선정 방법=85년에는 우선적십자사가 주축이 된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방문지를 결정했다. 이번 고향방문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연은 순회 방향자와 상자가 해당된 심향인 중 '1세대인 고향자'라는 사람이 먼저 순회방향자는 편·안적인 경우 등을 우선으로 선정

했다. 여기에 출신지 및 남녀비율을 고려해 배정한다. 1999년 8월 현재 민간단체를 통해 북에 가족 등의 생사가 확인된 심향인만 1,250여명에 이른다.

▶방문단 규모=85년의 경우 북한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단단 1만명씩 심향인들이 31명, 남한을 찾은 북한 심향인들만 단단 1만명씩 심향인들은 36가족에 불과했다. 이번 고향방문단 규모는 당시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방문 방식 및 방문지=상호 고향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본업'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85년처럼 방문지가 서울·경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향적인 고향방문은 초기 위에서는 심향인들이 자신들의 고향마을을 찾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향방문 한차례만인가=통일부 관계자는 "앞을 15일만이라도 고향방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실한 심향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쪽에서도 이북5도청과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비전향 장기수 '북녘 가는길' 전기

### 송환논의등 가시화

#### 복송등 처리방안 마련심 관련법규 개정 잇따를듯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이산가족과 함께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포함됨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기수 현 관제자는 15일 "남북화해를 극대화하고 남한수도 합의를 위해 이미 조국본부의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인도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송환절차와 기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지 법무부가 파악하는 비전향장기수는 1996년과 지난해 3차에 시안을 통해 약 26만명.

이 중에는 지난해 2월 군사특수동원령(주선 특사)에 40여년째 복역하고 있는 최재익, 최정기수, 최영각(북한인민군)을 비롯해 23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17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훈포장의 구형사제인 등 26%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는 국가보안법, 반군법 등으로 7만2천 복역자를 기준으로 한데 남한이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송환추진위는 "개인보안법과 군법 등 33종의 복역 규정의 개정 등을



비전향 장기수 출신 최영규씨(왼쪽)와 장병덕씨가 15일 이산가족 및 장기수 문제 해결 등을 보도한 이남지 경향신문 남북정상회담 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로 송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과거 전향외사를 통한 장기수 3명도 복송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조국본부를 설득하고 있다.

장기수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송환외사를 타진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전향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복송을 요청한 심향인들 송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를 두고도 정동으로 별다른 검토·확인·검열 등에 등 3명을 비전향장기수로 남쪽에 송환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송환을 93년 이남노인 복송추진위 고도의 정치환경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고는 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고려연방 통합을 위한 고차 단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송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북에 국적자인 국민으로서 2만여명 남북간담인 43(2만여)에 달하고 이남도 노년과 송환이 북과 북조선으로 분담한 전향자를 통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외사를 송환외사로서에서 국민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기수기자 이남지 경향신문

## 우익단체들 '좌경화 우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대북외교에 "북한 바로 알기" 열풍이 불어 치는 가운데 지난 11월이 끝난 우리사회를 지배한 반공논리로 부각된 우익단체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386세대와 86세대 진주세대로서 우리사회의 대안체력으로 부각되면서 반공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는 내세우며 반공시대 시나리 상의 변질을 막기 위해 보수주의 목소리를 더욱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자유민주연합이 발간하는 기공지 '민족중흥'의 편집장 강성홍씨(73)는 "우리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적인 심정은 지나친 좌경화를 불러와 북한의 전락에

"북전략에 말려들 수도"  
"김정일에 면죄부 준셈"  
경직된 반공논리 비난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실정법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인적사항을 입양이 강제해야 하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 접수할 때는 것도 서슴"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연합회의 이철중 대표도 12일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아웅산 대령, KAL가 북과, 최은화·신상옥 남치, 이현영 피살 등 여러 가지 죄악을 지지한 김정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이 합해한다는 주장도 일부 우익단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보수 우익 집단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원씨(67)는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김정일과의 만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며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수많은 피와 희생을 흘린 이 땅의 값진 시민들과 건국주체들만이 분업의 주체가 되어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난 반세기의 발전을 바탕으로 송화사가 위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겪어온 극우반공논리에 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민주적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난할 것임을 통해 해결하는 논의에도 할 것임을 지적하며 "국민투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재현기자  
www.koreaherald.com

## 백화점 '정상회담'특수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화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특산품'을 선보인 것은 상남 삼성프라자 백화점은 첫날부터 평소 매출액보다 20%가 증가한 하루 1천여명이 넘는 방문객이 관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백두산 특산물, 인삼술, 개성인삼술, 아미아 밀짚술 등 2만~3만여명의 북한산 주류가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 4만5천여명의 송화기부와 오미자, 도토리묵 기부, 동해산 차 등의 권감상품도 많이 팔리고 있다.

대구의 동아백화점은 지난 9일부터 '북한산품 모음집'을 전시해 6만건 주류와 농산물 등 1천여명만 들어치질 않았다. 또 대구백화점은 지난 12일부터 북한산품전시회 통해 하루 평균 1만500여명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연산 명태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상남/척해습기자  
www.koreaherald.com

# 통일대비 법률재정비 시급

·간대중 대법원과 김정은 국방위안장이 5개항의 남북교류협약안에 합의하는 등 통일을 위한 법적요건이 빨리되면서 행정실정에 바탕을 둔 국내 법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법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 협약을 규정하는 현행 남북교류 협력법이 다른 관련법에 우선해 작성되는 초보적인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기회에 관련법 정비를 통해 법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장부는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대외무역법·예산회계법·형법·중입국관리법·외국환관리법 등 남북관련 법령 120여건의 개정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국가보안법=대북 관련 법의 가운데 가장 큰 걸림으로 부각되는 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과 북핵 수반을 어떤

## 정부 대북관련 법령 개정작업 착수 국가보안법 현실반영못해 핵심쟁점 이산가족관련 가족법 손질도 필요

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직간접했기 때문이다. 국보법 개정·폐지안지침은 "남북정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합체·쌍관 체계'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데 바탕에 국보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법적 현실 사이에 괴리만 생길 것"이라며 국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령들=북한을 '반국가적정권'으로 규정된 '국외 및 일부 지방명목지도'에 사용에 관한 고시, 북한을 적대시하는 '수발' 또는 '미수처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처선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시급히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2월 김정은 주미 보좌관에서 이 부보를 지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된 남북법률사무협약의 실현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가족법·재산권 대책=연합에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이중적인 문제나 상속·친족 범위 등 가족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통일후 북한지역의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잠정적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원안작성 후 국무총리가 1949년 동북청권 수립 이후 철수한 재산은 모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백만 건의 소송이 제기돼 일부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신법 제정 필요성=법무부와 검찰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정호 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남북 민간 친목과 교류에 대해 '위시서 금지, 예외적 허용' 입장을 취하는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됨에 따라 주체로 규정된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며 "이런 폐지하는 대신 '남북외교협력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관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양면·향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합작투자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이 기자

min@kpa.com

## 국가보안법 개·폐론 다시 고개 '찬양·고무죄' 폐지 한목소리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온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김정일 마제당'에 따라 김정일 캐리커처를 담은 배지나 김정일 신상카드 등을 판매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팔고 다니는 등 현행법은 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듯 이번 장상회담은 '수사'에 대해 사용되는 '법'으로 국보법을 만들어낸 국민들의 가까운 곳에 국보법의 권이 놓였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폐론의가 새삼 힘을 얻고 있다.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국보법 개·폐 논의는 현재 전면적 재검토, 개정론과 현행유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국보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양·고무죄 폐지 "일부만 개·폐해야 한다"는 개정론자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7조 '찬양·고무죄'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경우" 7조는 전체 국보법 시행의 80%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조항이다.

민주사회의 위헌 변호사모임의 김기영 사무총장은 "국가의 존립을 해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강요로 드러난 행동으로 추징해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많다"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돼야 할 대상이지만 특히 7조가 우선 폐지조항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론자들은 명시적으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장부'를 찬양하는 행위엔 공개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 3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



민주회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외집회를 열고 있다. (가좌)가

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켜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토록 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유지할 수 있다는 북한이다.

국보법의 위헌조항 역시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죄의자에 대한 50일간의 구속기간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30일보다 길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장문 잠수단업무시정 등들을

이 찬양을 행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국보법 개·폐 논의에 소극적이다.

송성대 강경권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분명히 존재의의가 있다"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고치기만 한다면 국가안보를 지키는 규범으로서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승욱·최정열기자

min@kpa.com

# 투자보장책 최우선 과제



## 0 제도 개선·재원마련

남북 경협이 14일 민족경제협약 규약적으로 발전시키기도 전제 합의에 따라 남북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남북한 경협 증진을 1992년 남북협약이 채택한 '남북교류·협력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의미하며 민간 중심의 단순교역에 머물렀던 남북 경협이 국제 규범에 따른 직접 교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남북 경협의 실효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

제안보호·송금보장·최혜국대우 필수  
이중과세 방지·상사분쟁 협정등 긴급요  
정부, 국제기구 통한 자금조달 강구

치 마련이 시급하다. 재정경제부 대영석(A美前) 경제협력국장은 "남북 경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상사분쟁협정, 청산결제제도 등 이른바 4대 협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벌여온 남한 기업들은 투자보장책 미비로 고전해왔다. 북한과 첫 합영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우 남포공단 사업은 적지않게 번진 못했고 대부분의 참가기업도 까다로운 교역절차로 수익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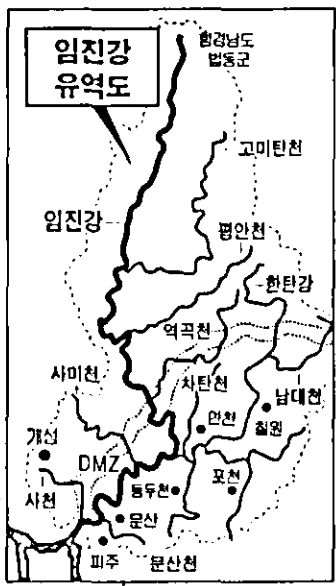
지 못하고 있다. 남북 경협의 전제조건이 된 투자보장협정은 ▲남북 양측 진출 기업의 재산에 임의적으로 수용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 보호 ▲투자원금 회수와 송금보장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남이이익 방지 없는 최혜국 대우 등으로 골격이 짜임 전망이다.

또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세금 중부 부과되지 않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남북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기준과 절차 등 상사분쟁협정이 마련돼야 하며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있는 교역내금 결제제도도 남북간 직접결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0 남북경협 재원조달은=남북 경협의 최대 장애물은 재원조달 문제다. 최근 LG경제연구원 '대북지원 자금 마련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간산업 재건에 모두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남북 경협을 위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협자금은 ▲남북경협자금 5천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7천억원 ▲한국국제협력단 자금 4백억원 등 모두 1조2천4백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경협자금을 조달하거나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북한과의 구성무역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재기자 gjaek@kbs.com



## 임진강유역 '相生의 사업'

정부 예산...北 산림복원·南 홍수방지 효과

정부는 1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명의의 공식지료를 통해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제시했다.

남측과 북측에 같이 참여할 안목을 대표적인 '상생(相生)'사업으로 꼽힌 것이다.

임진강은 유입하게 북한(함남 덕원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이다. 총연장 255km 중 북한지역에 163km가 있어 64%를 차지하고 있다.

유역면적도 북한지역(8,117㎢)이 남한(3,008㎢)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최근 상류쪽인 북한이 극심한 예년지탄을 겪으면서 이 지역 산림이 황폐화되고 이에 따

라 여름철 집중강우때 수량이 급격히 증가해 하류 지역인 과주·연천·포천 등 경기 북부지방이 거의 매년 수해를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임진강 유역에 홍수 경감시설을 설치, 공동으로 운영하고 북한지역 산림의 녹화사업을 벌이게 되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통일부 등과의 협의 끝에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실무진속을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남한은 수해방 예방할 수 있고 북한은 하천 준설과 함께 산림을 복구하는 큰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김용석기자 kimsy@kbs.com

# '긴장완화' 환영속 4강 전전긍긍

## 남북정상 공동선언 발표이후 국제사회 반응

남북 정상회담의 첫 대외와 민족화합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반응은 단연 열렬한 환영 일색이다. 그러나 이같은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한반도의 위상을 특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른바 '주변 4강'의 입장은 복잡하기만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은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자국의 한반도 내 이익에 끼칠 영향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 한반도 기존질서 재편후 이해관계에 촉각 통일한국대비 파워게임전략 수정 불가피

○4강의 공통된 불인감= 주변 4강은 한반도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이를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아울러 핵무기를 한 통일한국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된 경우 4강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있는 기존 질서가 깨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의 불안정까지 4강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 단상(山崎)내의 보병 장교(국제정치학)는 15일 인터넷을 해킹해 드러내놓은 기고문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통일 전망을 저해한 뒤에 일어나겠다고 경고하고 만의 통일한국이 탄생할 경우 이들 4강의 파워게임에서 장기간의 '동(東)'로 남아있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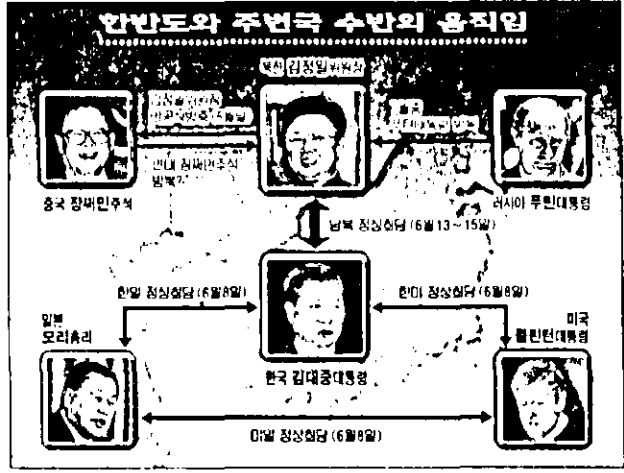
○미국=미국 행정부 관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는 가운데 대외 의사직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회담 이후 미국이 높아지게 될 북남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주도권 장악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은 북남관계와 관련해 2000년 연차당 차이를 추구해 왔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되고 시장경제적인 나라로 변모시키려 노력해 왔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대변은 미국의 이해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나 러시아도 배우자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변화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북핵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에 집중해 있다. 미국의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관측하고 있는 2중적 입장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마치 대치방안처럼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사안법(NMID) 개제 구상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강제로 합의점이 크게 약화됐다. 또 북한이 남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지원금을 중단함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남북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누려온 지혜를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

○중국=중국을 단·중기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전환된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직전 비공식에 중국을 방문한 사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러시아=한중수(韓中水) 교수는 중국을 특히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호전을 북핵체제의 붕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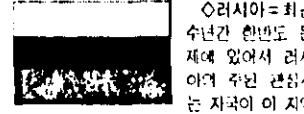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일한국을 성립할 때 한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종재사 역할을 자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주동원 거부함으로써 주일 미군도 철수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유로운 흐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일본의 대(對)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현상유지 정책과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원충지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이를 위해 미군을 한국서 일본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저지하는 것도 일본의 목표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한반도를 권력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 있어 일본의 중요 이해는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해 역사적으로 갖고 있던 속국의 지

위로 넘어가서 안도록 제어한다는 문제에 걸려 있다.



○러시아=최근 수년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자국이 이 지역 문제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94년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자국이 포함되는 다자간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자국과 일본을 배제한 한반도 4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회담 직전 블라디미르 푸틴 내각총리의 북한 방문계획을 적극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주변 4강중 유일한 유라시아 세력임을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이 미사일 개발로 미국에 NMID 개제 강행의 구상을 재검토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변 4강 가운데 러시아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철홍기자 [chulhong@kpa.co.kr](mailto:chulhong@kpa.co.kr)





# 이산상봉 적십자회담 이달 가동

## 남북정상 침략·위협행위 없기로 '외교·군사권 각자보유' 단계통일

### 김대통령 역사적 방북마치고 歸京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경일(金敬一)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리를 인정(인양) 정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종원(朴宗元)정외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북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군사권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외교 및 군사권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이런 합의는 이념과 체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남북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통

일방향이 급속히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들 자체까지도 합의했다고 남측 대표단이 배포한 해설자료에서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또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미사일 문제 조기 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협력을 조속히 해결해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북측이 백화원 임박관에서 배분 한송이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4시30분쯤 특별전용기를 타고 순안공항을 출발, 5시3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김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이달(6월)부터 (남북) 적십자회를 관마로 가동, 상당한 규모에서 (방문단 교원이) 시작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북한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관련해 "2차제 2장부는 현재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 각료회의, 국회회의를 구성해 협의기관으로 만들어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김인실급 최고 25km만 이으면 유럽으로 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협의의 신탁조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체성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받아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jhk@kmb.co.kr

### 〈정상회담 관련기사〉

- 2면 평양출발서 서울도착까지
- 3면 후속조치 어떻게
- 4면 서울출발 시기는
- 5면 연합제-연방제 비교
- 6면 이산 상봉규모 얼마나
- 7면 주변 4강의 시각
- 10면 각국·해외언론 반응
- 11면 검정 발걸음 빨라졌다
- 12면 회담수행 경제인 소감
- 19면 체육교류도 빛날 것
- 24면 지지체 대북교류 러시
- 25면 '담방'에 시민들 '환영'
- 26면 심형민·남북여부 '회비'
- 27면 대북외교 변화 물결
- 29면 대북선교 개선방향
- 30면 꾸준한 지원이 회해 초석

## 군사 직통전화 추진

### 정부, 연락사무소·경의선철도 연결 제의키로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경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군사직통전화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한 남북의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광물 수방대책 수립을 남측 실현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설정, 첫 남북 당국자 회담에 우선 제의하는 한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청산강제 및 무자모장 장시금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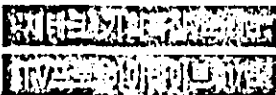
정부는 또 8·15 광복절에 즈음해

교원끼리 한 이산가족 고상명문단 규모를 지난 85년의 50명보다 훨씬 많은 500~1000명 정도로 하고 이단 경제회화할 것을 제의키로 했다.

정부는 체육분야 협력을 강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 2001년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안 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본선 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원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또 추진선 임내에 벨라리아의 한레라 광물방제를 실시하는 등 민족 공동의 입장에서 보강·원조협력에 강화하기로 했다. **성기철 경제총기자**

kesung@kmb.co.kr





마침내 포옹... "서울서 만남이다"

분단 55년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로를 껴안고 이수문 이별곡 등을 나누고 있다. 김두봉장관 김두봉총리가 중앙계도호텔 대회의장에서 조찬 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을 국경선에서 영접했다. **평양=원외대사진기지단**

## 남측언론사 사장단 8·15전 방북초청

### 김정일위원장 밝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5일 평양 북한청 연변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고별 오찬 자리에서 남측 언론사 사장단을 통해 8·15 남북통일 전에 방북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지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개인 자격으로 남측 신문, 방송 사장단을 초청하겠다"면서 "8·15 전에 오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오찬에 참석한 최화려 신문총회장과 박관상 방송총회장에게 "북남 로상

간에 비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언론사 사장단을 한번 초청하면 (내가) 모시고 오겠다"고 말하자 김위원장은 즉석에서 남측 언론사사장단 전원을 8·15 전에 방북하도록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양=중앙통신**

# 國民日報

2000. 6. 16 (금)

##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北, 이번엔 수용할까

### 대사관 설치 전전단계 국기계양등 부담 많아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의 정상화를 들었다. 이르면 연락사무소 조직 및 기능과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 조치가 기본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협의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연락사무소가 정대로 지정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9년 남북간 합의에서 합의되었던 중공화국이 여러 북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장미 앞방적으로 해치울 바 있다. 설치 당시 남북은 '연락사무소가 서로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와 북측 남북관계의 개선하고 중화외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 조속히 조속히 북측은 1개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측은 1개 사무소를 설치한다.

남측은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로를 껴안고 이수문 이별곡 등을 나누고 있다. 김두봉장관 김두봉총리가 중앙계도호텔 대회의장에서 조찬 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을 국경선에서 영접했다. **평양=원외대사진기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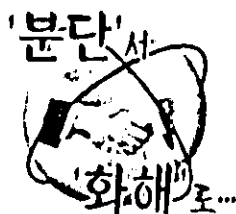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데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서울-평양간 상주 연락사무소가 들어가고 민족 정부 관리가 근무할 한다면 이는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시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5년 남북기본합의서 협정과 합의서 양측 수단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거절했고 다시 우리측은 정초는 권문집으로 한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계속 지켜야, 북측 연락사무소는 남측지역에 두자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군문집에 각자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어느정도 신뢰와 의견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북측이 우리측 요청대로 서울-평양간 연락사무소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비무장지대에 다른 부와 대치할 합의의 전제조건에 있다.

또 연락사무소가 들어갈 전 지역과 지역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이 합의한 지역과 지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은수기자 hns@kore.com**

# “노인이 평양까지 왔는데...” 答訪 얻어내



## 평양 출발서 서울 도착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평양에서 마지막 임무를 소화하고 오후 5시20분쯤 전용기 편으로 귀국했다. 김대중령은 평양 순안공항까지 배웅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뜨거운 포옹을 한 뒤 비행기에 올랐으며 서울공항에서는 귀환보고를 통해 6·15공동선언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서울공항=공항 환영식에는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현동 총리서리 등 3부요인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그리고 삼성반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했다.

김대중령은 3군 의관과 및 리더내 시열을 마치고 환영객들과 임일이 손을 잡은 후 20여분간 귀국 보고를 가졌다.

## 두정상, 3차레나 끌어안아

김대중령은 “김위원장의 서울남방을 힘의내는데 상당히 힘들었다”며 김위원장의 서울남방이 이루어지기까지 직면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대중령은 “동방예의지국에서 10여상이나 뒤인 노인이 여기(평양)까지 왔는데 내이 작은 사람이 인연면 되느냐. 외국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위태롭지 않나라지 하한다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김위원장이 서울에 꼭 방문해 하 것을 요청했다”고 뒷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순안공항=김대중령과 김위원장은 서로 뜨겁게 끌어안으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김대중령이 2박3일간의 성실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기 위해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반웅나온 평양 시민들은 진



“수고하셨습니다”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태극기와 꽃다발을 든 환영객들과 악수하고 있다.

## 실향민 등 1천여명 마중 ‘성공’ 축하 출발전 김위원장과 포옹 ‘석별의 정’

분송의 꽃송이를 흔들며 임원하 ‘만세’를 연발했다.

오후 4시쯤 선도 차량이 도착하자 반송객이 일제히 붉은색 꽃송이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고 이어 김대중령이 김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한 차에서 내렸다. 이날 공항에는 출발 한시간 전부터 인민군 육·해·공군과 항공 인파가 김대중령 임행할 기다리고 있었다.

김대중령과 김위원장은 13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처럼 군악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민군 사열을 받았으며 그 뒤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간부와 현관국 청와대비서실장 등 남측 공식수행원이 따랐다. 김대중령 내외는 북측 간부와 임일이 악수할 한 뒤 전용기 100여m 앞에서 화중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다음 순간, 만세가 연어 처음으로 두 정상간 뜨거운 포옹이 이어졌다. 김대중령이 전용기 트랩 앞에 도착했을 때 김위원장은 김대중령에게 다가가 최우 어깨를 번갈아가며 3차례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환송객들의 ‘만세’소리는 하늘을 뚫었다. 김대중령 임행이 전용기에 갈 때까지 김위원장은 자리를 뜨지 않고 트랩 바로 밑에서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계속했고 전용기 문이 닫힌 뒤에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측근들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 “팔걸이 있는 의자 드려라”

순환오찬=백화원 임원실에서 있는 대표단 환송오찬에서도 김위원장은 예외 과정과 함께 김대중령을 뜻하여 예우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령 내외에 뒤이어 오찬장에 들어선 김위원장은 예드데이난에 착석하면서 김대중령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놓여있지 바로 뒤에 서 있던 군복사장의 의전장을 불러 “김대중령께 팔걸이 있는 의자를 갖다주시요”라고 지시했다. 김위원장은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라며 새 차레나 관계자를 질책했다.

임원대통령 특보가 예드데이난에서 일어서 “우리는 2박3일간의 평양방문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을 감어 없다”면서 “700만 민력의 열원에 평양도 웃고 서울도 웃었다”고 말했다. 김대중령은 감자에 겨운 듯 임 특보의 뒤서기 전행하는 동안 시종 눈물 감은 채 생각해 집었다.

김위원장은 좌중에 앉자마자 전단 만찬 때의 ‘거만 슈퍼’를 주제로 얘기를 꺼냈다. 김위원장은 “모두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술 삼려이 날카롭다고 하더구만, 술 삼려이어 불임부 장군이 나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령은 “저는 내 변에 걸쳐서 미고...”라고 했으며 김위원장은 김대중령에게 북측 대신 포도주를 권했다.

순안경대 닭곰장=김대중령을 수행한 남측 공식·특별 수행단원은 15일 오전 만강대구의 집강소에 있는 만강대 남곰장을 방문했다. 지난 6년 10월17일 원광군이 공경은 김위원 주석의 직접 현지에 나가 공경터전을 삼아주고 김주석과 김위원장이 각각 수차례 현지 지도한 공경이며 최근 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측에서 최진석 삼비를 들여와 현대적으로 모습을 바꿨다.

평양·공동위재단

# “평양 가보니 우리땅 한핏줄 이었다”

김대통령 귀국보고 요지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다. 55년 분단과 각박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란 님는 시점에 왔다. 떠날 때 절망적인 생각 가진 적 여러번 있었지만 돌이 협력해 합의에 도달했다.

만남 것이 중요하다. 평양도 가보니 우리 땅 이었다. 평양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하든 마음속으로는 남쪽 동포에 대해 그리움과 사랑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화해 협력 통일도 합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더이상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안되고 공존공영해 나가면서 통일로 가는 길로 임하는 것을 북한에 역설했고 그분도 공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것이 같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억지시지 입장에서 생각해라 한다. 안보, 대한민국의 주체성은 추후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협력해 쉬운 것부터 중국에는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고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문 서로 만들어 왔다. 핵,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 했다. 국가보안법, 미군 문제도 나왔다. 그 대화 때 매우 유의했으며 아주 좋은 전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 말하겠다. 첫번째 자주적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노력은 7·4 공동 성명에서도 나왔다. 북한 사람들과도 얘기했다. “7·4 공동성

## 1 자주적 해결에 대해

“7·4성명이 본보기... 손에 쥔 것부터 해결하자 강조”

## 2 2체제 2정부에 대해

“北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연방제 이행 불가능 인식”

## 3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통크게 쓰면 장기수 국민과 상의하겠다고 전달”

## 4 경제협력에 대해

“북에 공단 하나 만들면 한반도 전체가 발전”

명 이후 28년간 아무 것도 되지 않았다. 92년 합의서 발표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안됐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손에 쥔 것부터 실천을 하자고 했다.

2층은 현재의 2체제 2정부로 그대로 두고 양쪽에서 수뇌 회의, 각료 회의, 국회 회의 등 정상하고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연방제는 처음부터 중앙 정부가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갖고 지방 정부는 내정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처에 북한도 이런 연방제가 전혀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가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을 채택했다. 이것은 상통하는 점이 많기에 양측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토론해보자고 했다. 이는 통일운동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번째는 흡어진 이산가족의 문제로 오늘도 논의했다. 공창에 나오면서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8·15까지 통크게 한번 하시오. 그러면 장기수 문제도 내가 국민과 상의해 보겠소”라고 얘기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6월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될 것이다.

네번째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을 균형 발전시키고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들어가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항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북한에 공단을 만들어 나갈 때, 남한 내부민의 경제가 한반도 전체로 발전한다. 경의선은 25km만 이으면 유럽과 이어질 수 있고 한·일 해저 터널을 뚫으면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생길 것이다. 남북경협의 원칙은 남북 양측에 다 좋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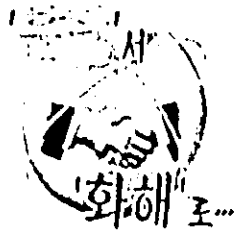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오후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윤여홍기자

김정일 위원장은 결국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결심했다. 나는 “당신이 서울에 와야 남북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외국에서 알게 된다. 김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절을 잘 지키는데 나이가 10여살 많은 노인이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단문대까지 맞이 되겠느냐”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인정과 생활방식이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 특유의 성의와 노력으로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자. 북한도 우리 동포다.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강을 이겨 재국주의가 아니라 거대한 우리의 시장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우리 특유의 높은 교육열, 지식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산업 시대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외에도 김위원장과 여러가지 양대원 좋은 일이 있으니 적당할 시기에 밝혀겠다.

# 당국대화체제 전환...

## '실천' 다채널 가동



### 후속조치 어떻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공동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가 급유를 띠고 있다.

정부는 회담 평가에 들어가는 동시에 5개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간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회담 대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남북지는 15일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남북간 회담을 개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며 "합의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게 김대중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 구성 작업이

### 분야별 장관급 회담 동시개최 가능성 8·15 이산상봉등 '뜸'안들이고 합의 장소 판문점 유력... 월내 시작 될듯

신속하게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남북간 회담이 양측의 최고위 지도자간에 합의된 시안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길이 예전에 비해 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과 북이 논의할 문제가 오는 8·15에 상사해야 할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부터 통일 방안 등 이념화·제도화 문제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경우 남북간 첫 단을 통해 정부차원의 협력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교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 분야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 토대로 양측의 통일 방안이 심도 있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 체널로는 우선 지난 92년 발표된 기념협약서에 따라 공동위담 가능, 회담-군사-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측의 상황이 달라졌고 일부 분야의 경우 공동위의 범위

벗어나는 게 있어 부분별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지난 89년 경제회담처럼 각 부분별 장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회담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채널로는 양측의 직심자사가 유리하고 있다.

회담개최 시기도 현재 양측의 기류들 따지는 건게 틈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발돋움 된어진 분야다. 이미 김대중령을 수행한 공식 및 특명 수행인들과 북측 고위 관리들이 별도의 부분별 회담을 거쳐 구체적 항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진행된 상태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만 중에 첫 남북간 회담이 스타트를 끊을 개연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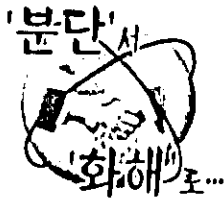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 유력하다. 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굳이 제3국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인수기자 mshan@kmb.co.kr



"우리의 소원" 손잡고 합창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희호 여사가 백희원 영빈관의 환송 오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고 있다.   
촬영 =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대통령 장시간 설득 '낮은단계' 합의



## '남북공동선언' 뒷얘기

남북공동선언은 사안의 민감성만큼이나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일 방안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남북간 이견이 컸던 대목이었던 만큼 두 정상간 가까워진 과정과 상호 신뢰의 숨은 과정이 있었다.

비공식 회와대면인은 공동선언 제2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당 시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측의 공식적인 연방제안은 통일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김위원장은 남북회담에서 이를 계속 주장했으나 김대통령이 "현재 지구에서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선별 보강만 할 것"이라고 장시간 설명. 지방정부와 외교와 군사권을 갖도록 하는 의미의 '낮은단계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회담후 "내가 찾아낸 편까지 내지 않았는데 설명했다고 회담 분위기가 심해졌다고 반대편은 전했다.

공동선언의 통일을 뒤집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김대중은 자비를 두루보 할 것이라며 늦게 합의가 있었다는 운운. 북측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원칙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닌데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김대중 최고안보회의 장인 위원장이 하거나 두 정상의 위임만이 다른 두 사람이 하는 대안(공동 제시했다는 것. 그러나 남에서는 "우리는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대중도 김위원장을 공동으로 꼽았다.

공동선언 작성 과정에서 두 정장은 한 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백희영명인관에서 열린 김위원장 초청 환영 오찬에서 피안대소하고 있다. 명인 = 황희대사진기자단

## 우리측 "김위원장이 '북지도자'... 정상서명 관철 납축설명 합리적 판단엔 즉각 수용하기도" 김용선이 남북정상 오가며 합의문 폐신저택

역시만 합의했고 문인은 8시30분부터 김 위원에서 장시간 계속.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10분전인 오후 7시30분에 최종 합의. 이 과정에서 김용선 위원장이 김대통령을 납축 인사하고 김위원장을 방문이 오가면서 폐신저택에 왔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에서 김위원장은 자신의 주장과 기립없이 떠나거나 납축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합의가 가능하다고 반대편은 전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의 발언 중간에 "나도 납축단계 있는데 말씀 좀 하겠다"면서 "우리는 협조하게 하는 데 남측에서 동의하게 한다. 이렇게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설명을 보냈다고 북측에서 회자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러면 북측까지 위대하게 되는 것들을 받고도 김대

중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통령의 인생 정치역정에 대해 어렵게 관감을 표시했다고 반대편에서 전했다. 반대편은 "김대통령은 서로간에 친선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말했다"고 김대통령도 김용선 김 위원장을 회담의 도발 등에 어떤 식으로든 분쇄시키려는 행동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무리 반쪽의 비전할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장기적으로 북안이 왜야 하고 그 관에는 공동명언에 한다"며 "이들 위에서는 이안 가족 설명과 김원 총 교섭의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것이 남과 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안-원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두 정상 사이의 공작하고 전장일 논의가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오해 중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반대편에서 전했다. 명인 = 공동취재단

## 김위원장-임동원특보 묘한 '친밀'

14일 밤 11시30분 명인 백희영명인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이 이뤄진 뒤 김위원장은 우리측 수행원 가운데 유난히 임동원 특보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에 임동원은 불려 귀속말로 몇가씩 얘기한 뒤 가족 제운 포도주잔을 함께 단상에 비웠다. 임동원이 자리에 돌아와 앉자 김위원장은 "다 미쳤느냐"고 물어보고 임동원은 잔을 뒤집으면서 다 미정임을 보여주자 포도주잔 직접 따랐다.

김위원장은 15일 백희영명인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방북시 직방인 '대통령 포도주 따리주며 귀엣말

'포용정책 진도사' 인식 풀이

백번외교관이 아닌 "임국가정보장" 하고 부활 강도였다.

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의 이같은 극적인 배려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임동원은 남도 김대통령 방북을의 공식 수행원이 아니었다. 북측은 그가 국장일장 신분임에도 원대했다. 아마도 임동원이 임동원 특보로 "대북 포용 강세 진도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원이 어떤 정황하에서 핵심적 인 위임을 수행할 준비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서명할 때는 북측 김용선은 아내명외의 위임장과 함께 두 정서 옆에 앉아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본다. 일부에서는 김위원장이 정황하로 정상사위 위해 직권직으로 임동원만 임동원은 눈여겨 봤기 때문에 유독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민수기자 mshan@kmb.co.kr

# 김대통령-김위원장 노벨상 후보 부상

## 사다트-베긴 등 분쟁지역 지도자 '평화'공로 수상사례 많아

김위원장을 통해 15일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올해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래로 세계 평화에 공헌한 지도자들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다. 특히 김대중은 지난 87년 이후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매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던 '노벨 노벨'이었다. 올해까지 11번이나 주

보로 올랐다. 분쟁지역에서 극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평화로 이끈 여러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70년 노벨평화상 수상 노벨 노벨의 남도(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남북전쟁을 종결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화합을 증진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있다. 1978년 사다트(이집트) 대승리와 베긴(이스라엘) 총리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평화회담을 성사시켜 78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뒤 1991년 오스카

노벨평화상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위대한 평화협정에 참여한 공로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지프 에스라,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팔레스타인(기후)의 아사드 아라파트 의장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 때 아시아국가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극해 있다. 한 평화상 후보는 몇 년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노바(일 칸)사아 총리, 제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행한 인물들이 포함된 11명만 포함되며 10년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수기자

### 분쟁문제 해결로 노벨평화상 수상한 역대 인물들

| 연도   | 수상자   | 업적       |
|------|---|----------|
| 1957 | 리프 시에호넨(핀란드), 루리  | 중립적분쟁 해결 |
| 1957 | 알리 아흐메드 자피르(수단)   | 중립적분쟁 해결 |
| 1971 | 레오 카시라(미국), 리오 카시라(미국), 리오 카시라(미국), 리오 카시라(미국)            | 베트남전쟁 종결 |
| 1978 | 안와르 사다트(이집트), 이츠하크 라빈(이스라엘), 지프 에스라(이스라엘)                 | 중립적분쟁 해결 |
| 1987 | 안와르 사다트(이집트), 이츠하크 라빈(이스라엘), 지프 에스라(이스라엘)                 | 중립적분쟁 해결 |
| 1988 | 넬슨 만델라(남아프리카)   | 인종차별 철폐  |
| 1991 | 리프 시에호넨(핀란드), 루리, 알리 아흐메드 자피르(수단), 리오 카시라(미국), 리오 카시라(미국) | 중립적분쟁 해결 |
| 1991 | 안와르 사다트(이집트), 이츠하크 라빈(이스라엘), 지프 에스라(이스라엘)                 | 중립적분쟁 해결 |
| 1998 | 리프 시에호넨(핀란드), 루리, 알리 아흐메드 자피르(수단), 리오 카시라(미국), 리오 카시라(미국) | 중립적분쟁 해결 |
| 2000 | 김대중(대한민국),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북공동선언   |



“안병히 가세요”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평양 순안공항의 휴먼행사에서 북한 회담으로부터 돌아오는 김정은 국방위장장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평양=청의대사진기자단

# 北이산가족 이 끌고 8월15일 서울答訪 김위원장 ‘감격 드라마’ 연출할까

### 화해분위기 고려 연내 들뜬 광복55돌 상징성 커 유력 유엔 동반참석 가능성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제 시정망 남았다.

문제는 두 정상이 10일 밤(또는 다음날)에 한양궁에서 열리는 “자살자 시가” 기념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케냐로부터 “김위원장은 우리의 ‘합의관’ 시절 안에 서울을 방문하셨다”고 밝힌 부분을 본다면 이미 서울 방문 일사가 기념행사 구상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단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가 연내 가 될 것이라는데는 정부 관계자 및 정부 기밀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김대중령의 방북을 본래 극적으로 조성된 민족적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김위원장의 방북으로 간직시키지 못하고 온데가 떨어질 경우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유엔 오는 8월15일 광복절 정국에 유력하게 보인다. 이번 방북이 5월 50주년 이자 광복 55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의미가 배가된다. 특히 두 정상이 공동선언문에서 8·15에 즈음해 양측 이산가족 방문 문제를 교환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북측 이산가족들과 함께 김위원장이 서울을 찾는 민족적 화해의 장면이 실현될 수 있다.

김대중령의 방북이 지난 4월8일 우리측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차관과 북측 황우길 조선인대평화위 부위원장이 합의 이후 2개월 뒤 최자진 전대로 비워 김위원장의 8월 방문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실무적으로도 여러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서울 방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 근거로는 오는 9월16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질 일련의 “유엔 방과내 연 김장외”를 들 수 있다. 두 정상이 방과내 연 남북 정상회담을 뒤 시장 최초로 10여 개국 장부장이 참석하는 방과내 연 정상회담에 나란히 참석,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관이 협상전략 차원에서 서울 행을 10월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정세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특히 연내 진행중인 북미간 핵-미사일 협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김홍경기자 hkk@kmb.co.kr

## 장치혁 고합회장등 방북수행 기업인 3명

### ‘남북선언’ 발표순간 ‘이산의恨’ 달랬다

#### 평양시내 호텔에서 협육상봉

“6·15 남북공동선언”이 공식 발표된 15일 0시 평양시내 호텔에서 조만간서만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다. 김대중 대통령 수반과 이산가족 기업인 3명이 6·25 때 헤어져 북에 남아있던 원유(元裕)프락트 상봉의 사색을 가진 것이다.

남북김대중위원 위원장인 장기혁 고합회장, 김장보 김대중 김대중이산가족위원장, 박남근 안세혁이 이산가족 원유(元裕)프락트 상봉에 참여하며 50여년 재회에 성공

반년 오래 회담의 사정을 험기하게 다녔었다.

세 이산가족의 만남은 남북 화해담이 북고 있는 고리호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재만에도 사전 통보없이 장외접은 정황후반, 김위원장은 시간호반, 백이사장은 한성호텔에서 방북과 상봉했다. 상봉 시간도 11일 오후 1시30분으로 알려졌다가 계속 미뤄졌다. 5분초기 2명씩 방문한 백 이사장 등은 방 북도복 숙소에서 북측 연관을 조호하게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들은 또 한차례 긴 기다림을 가진 끝에 그들은 1949년 1월15일로 말려다가 50년 “이산의恨”을 기꺼스로 수습할 수 있었다. **평양 공동취재단**

# ‘평양선언’... 이것이 궁금

남북 정상이 합의 시명한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알아보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11일 오후 3시에 시작된 회담이 5시30분까지 계속됐고 휴식용 가져 다시 45분간 대화했으며 9시로 예정된 발표시점이 11시20분까지 미뤄진 것은 최종문안 작성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자주불만을 표명한 제1차과 비전협상 기술 문제까지 적시한 제2차은 북측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주’는 북관이 추진해온 현수봉 기념제 참가 허용하는 것으로 남측에서 보면 부당스러운 표현이다.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우리측 실무자들은 이 표현을 피하기 위해 무시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제1차과 기념제 이산가족 방문 단 교현을 남측 요구를 북측이 수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북측이 이를 신랄 비판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령한 의지가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제2차에서도 북측은 순수 의미의 ‘합의’를 고집했으나 김대중위원이 “남은 단계”라는 수식어로 고집에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에 보수주의자들의 입

**‘장기수’ 양보 불구 반대급부 포기 이유**  
北의 미군철수 겨냥 ‘자주’ 문구도 의문

김위원장은 “자주”라는 표현이 추진해온 현수봉 기념제 참가 허용하는 것으로 남측에서 보면 부당스러운 표현이다.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우리측 실무자들은 이 표현을 피하기 위해 무시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전협 장가수 문제 역시 남측이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축소된 비전협 장가수와 강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남한에 이른바긴 하지만 반대급부 포기 한다는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6·25 당시 국군포로와 남북이 부 등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남측은 비전협 장가수문제 밖 포항시까지 최소한 남북이부 총선 문제만이라도 함께 표기하지는 주장을 했음을 분명하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영인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 국무위원 장의 서울 방문은 남도 김위원장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김대중령이 직접 삼척과 광동선연으로 넘어 갔으로 확인됐다. 김대중령도 서울 귀환행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구체적어 문제는 회의로 미루어지고 국제상이 김대중 위원에 북측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지원이 핵심인 김위원장이 관계되는 공동선언에 남측 강수 확보는 관측스 러워할 수 있다는 남측의 배려로 분석 된다. **성기철기자 kcsun@kmb.co.kr**

# 거침없는言行... 술도 ‘원샷’

**회제에 오른 김정일 스타일**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기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거침없는 화술이었다. 김위원장은 21일(연내) 16세 연상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짝이 예 무해면서도 유머와 농담을 적당히 섞어 가며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회담장과 오찬장, 한 잔씩은 술을 마시며 한마디에 웃음꽃이 만발했으며 철저한 배연에 빠져있던 김위원장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술마시는 스타일도 어부만남이나 거침이 없어 술잔을 즐긴 ‘원샷’으로 비쳤다.

특히 김위원장은 김대중령을 배려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지난 13일 백화연 연방에서 열린 장전례를 겸한 1차 정상회담에서 “자리를 알지 못지 않고 심심치 않게 해드린다고”며 “동방에 외사이어리는 도덕을 갖고 있는데 김대중령의 방북강을 위한 인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사과와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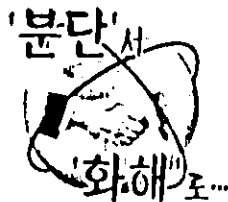
김위원장은 또 “무서운 김일 소집입니다. 하지만 원수주의도 노내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이라며 “6월13일은 역사에 남을 기념일”이라며 김대중령의 북한방문을 환영했다.

김대중령의 평양 방문 이틀째인 11일 김위원장은 남북 대표단과 평양 대회를 나눈 때문인지 더욱 친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북한에서 열린 김대중령 수회 만찬석상에서 김위원장은 이희호(李喜浩) 여사가 1949년 태어난 여아에 있는 것을 반견하고 “여자가 외국에서 이산가족이 되면 안된다”며 이어서는 엿볼 수 있게 했다. 술마시는 스타일도 어부만남이나 거침이 없어 술잔을 즐긴 ‘원샷’으로 비쳤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에 들어가기가 김대중령과 장사 환담하는 자리에서 “무과와 사담하는 나날도 왜 은은장외 외사이어리는 도덕을 갖고 있는데 김대중령의 방북강을 위한 인연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사과와 뜻을 표했다.

이희우기자 hwlee@kmb.co.kr

# 상호체제 인정... 'CIS형' 통일정부



## '연합'과 '낮은 연방' 비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  
민위원장이 합의의 방정으로 제시된 남북의  
연합체제와 북측의 낮은 연방체제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선 '연합'과 '낮은 연방'은 독립제국을 지향하는 정  
치의 실재간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연합'  
은 두 정체가 각각 군사·외교권을 행사하는 유대  
강도가 낮은 결합을 맺고 '연합'은 두 정체의 군사·외교권을 인정하여 하나의 유대관계의 일관  
한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소련)과 그 해체 이후  
창립된 독립국가연합(CIS)을 생각해 보면 된다.

두 정당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  
교와 군사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았거나 아니라  
지급치 않 남북의 지방정부가 각각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즉 독립국가인  
한과 같은 형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두 정  
당은 남북의 연합체제를 'Confederation', 북측  
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Loose Form of Federa  
tion'으로 각각 정리했다. 두 정당은 외교·군  
사권 행사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 南 '연합제'

한민족공동체 3단계간  
국가연합거처 완전통일

### 北 '낮은 단계 연방제'

남북한 동등한 권리·의무  
과도체제 없는 단일주권

중앙정부가 외교·군사권을 갖는 경우 국제기  
구 가입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남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화해·협력, 남북연  
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우선  
화해·협력을 위한 이행을 조속하고, 국가인  
연단계를 거쳐 완전통일을 이룩하는 점진적  
통일방안이다. 중·장기적인 남북연합은 2개 제  
제, 2개 정부, 1개 국가 형태다.

북측도 60년 남북연합제 이후 30일까지의  
과도기 조치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해왔으나  
80년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고려연방제  
임을 내세웠다. 이는 남측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지방정부들 운영하되 연방정부의  
지도권을 갖는 방식이다. 즉 과도체제 없이 단  
일주권의 연방국가와 동등 방식의 국가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이같은 모순을 해  
소, 남북평화와 정위 이전에 안착이 상호 체제  
를 인정하는 데서 동등하게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낮은 단계는 곧 국가연합에  
가깝게 한다는 의미  
를 갖는다.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로 건설하는  
방식에 있어 남북한  
이 총선거부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  
하는 남북지간 정치  
연합 방식을 택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김재홍기자



## 동맹왕릉에 큰 절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대표단이 15일 평양  
교외에 있는 고구려 동맹왕릉을 돌이보고 있다. 왼쪽을 돌리고 있  
는 사람은 서안 고은씨. 평양 = 평의대서진기자단

### 남북한 통일 방안

|              | 남한                      | 북한                               |
|--------------|-------------------------|----------------------------------|
| 명칭           | 연합체제에 관한 3단계 방안<br>연합   | 고려민주주의사회주의 공화국                   |
| 통일과정         | 외교·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br>건설   | 남북동포(배려)간-연방제입-통일<br>국가-연방제-국가통합 |
| 통일원칙         | 평화·공존, 반과격화, 반외침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 통일국가<br>형성   | 1원칙 1국가 1체제 1정부         | 연방국가(고려민주주의공화국)                  |
| 과도체제         | 남북연합                    | 없음                               |
| 통일국가<br>실현절차 | 남북연합에 대한 남북간 민주<br>사실합의 | 연방회의의 방식의 정치연합                   |

## '7·4공동성명' 토대위 시대에 맞게 발전

###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은 3차례 단절되고  
7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을 이후 지금까지 통일  
강화에 방기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  
1조에 나오는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의 초점이  
있지 않 이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김영삼  
외적 기조에 따라다. 6·15 선언을 계기로 유  
산 이후 연세 정부의 통일정책은 찾아본다.

그날 정부 82년 1월 21일 김대중(金  
大中)은 국회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을 발표했다. 이는 민족화합을 위한 이해  
민주적 절차를 따르되 방면으로 통일이 차  
근대적 실현을 위한 원칙에 입각, 통일방안  
을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하는 통일방안 수립

관국가로 완성시킨다는 것이 기본 골자  
다. 통일국가의 국호, 정치이념, 정부형태,  
총선의 방법과 시기, 경제 등을 '민족통일  
협회의'를 구성해 협의토록 했다.

△68 정부 - 노태우 전대통령은 89년 9월  
자주 평화 민주적 원칙으로 한 '민족화합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건설을 채택하고 과도기적  
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방안을 제정한다  
고 합의함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민주적 통  
일국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영삼 정부 - 김영삼 전대통령은 현민  
주권론에 통일방안을 모든 발전시킨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여러 차례 강연하며 단  
사에서 제시했다. 이 방안은 화해·협력 단  
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

로 통일 민족국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첫  
단계는 긴장 완화, 두번째는 남북 합의에  
따른 연합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 '1원칙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  
의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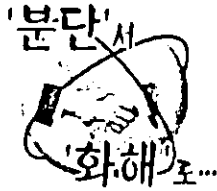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 = 현 정부의 내각 포용정책  
은 일체의 무력포용, 북용, 흡수통일, 대북  
북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등 3방면에 입  
각해 있다. 국가연합을 김대중(金大中)의 이른바  
'6단계 통일' 중 첫 단계로 이바 7·4 체제가  
다른 두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관  
리관 '남북연합협정'에 따라 통합과정을 관  
리한 남북연합을 실시하고 최후의 시점까지  
구로 남북 정상회담, 대외기구로 남북연합의  
의, 진행기구로 남북간교섭회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김의규기자 egkm@kmb.co.kr

### 역대 주요 남북합의서

| 시 기                   | 합의문건<br>(서명)                 | 내 용   |
|-----------------------|------------------------------|---|
| 7·4년<br>(52.7.4)      | 7·4 남북공동성명<br>(이승만-김계성)      | 1차, 2차, 민족 통<br>일 3원칙서, 74년   |
| 6·15년<br>(90.12.15)   | 남북공동선언서<br>(김영삼-김계성)         | 남북화해, 분기점, 교<br>섭, 협력에 4선 2조  |
| 6·15년<br>(92.1.15)    | 남북동포화해협력<br>선언서<br>(김대중-김계성) | 이방기 지원, 화해, 협<br>동, 흡수통일, 남북 지<br>간, 통일방안, 6·15                     |
| 6·15년 정부<br>(99.6.15) | 6·15 남북공동선언<br>(김대중-김계성)     | 자주통일, 남북 화합<br>민족화합, 비전, 3원<br>칙서, 협력, 대남<br>교섭, 4선, 2조, 내<br>국 5개항 |



# 이산상봉 규모 수백~1천명 유력



남북 실무협상 전망

## 고령자등 1차대상자 선별 정례·제도화도 적극 추진

남북 두 정상이 15일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5개 합의사항 중의 유일하게 남파가 적시된 항목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부분이다.

오는 8월15일 즈음으로 남파가 지정된 이유와 관련된 박준경(政)총리와 공보수석은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남파가 규정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산가족 상봉 시기 만큼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아들여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중연도 대국민 귀국 보고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키기 위해 광장 출발 직전까지 김광원장을 상대로 여는 사실을 공개한다. 그만큼 앞으로 두달 뒤에 있을 이산가족 상봉 규모 및 내용은 과거와 달리 긴장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선 규모와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



분주한 외신기자들 남북정상회담 취재차 방한한 일본 기자가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계 보물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문예홍기자

과 1000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의 예상은 남북당국 차원의 유일한 사례인 지난 85년 교환방문단 규모가 151명(여승공연단 등을 제외한 실제 이산가족 방문단은 61명)이었고 92년 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됐다 무산됐을 때의 규모도 '100명의 노부모 방문단'이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 이상의 대규모 방문단 교환은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위협 수준이 될 수 있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합의주체와 성격에 있어 과거와 수준을 달리하고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게 유력시되기 때문에 수백~1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중령이 "이산가족 상봉의 범위가 넓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김대중령이 밝힌 대로 당장 이담부터 협상에 착수하게 될 남북한 정상직접사는 규모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선별직접을 법외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교환방문단에 포함될 1차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부모·형제 등 직계존비속을 찾는 경우로 한정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상봉 외의 상·주소화인 및 서신교환 방안, 관문장 등에 상주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상봉장소는 1차적으로 서울과 평양이 꼽히고 있지만 협상 진전에 따라 교환방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밖에 남북자, 비전향 장기수들의 교환은 민감한 문제여서 협상과정에서 어떤 결심이 나올 지 주목된다. 김홍경기자

## 남북 군사직통전화 이르면 8월 개설 가능

우발적 충돌방지 '방화벽' 될듯

남북 정상과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군사 당국자간에 직통전화 개설될 지역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화가 개설되면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군당국자는 설명했다. 직통전화 개설됐다면 지난해 6월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해군간 충돌도 교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한다.

이처럼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북간 군사직통전화는 이미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개설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남한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군사직통전화는 양측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하되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과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양측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측의 군사직통전화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양측에서 각각 3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만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원 법이게 된다. 군당국은 북한이 군사직통전화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전화개설까지는 3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8월중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 군사직통전화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염성력기자

# 갈채...기대... '감동의 2박3일'

## 막내린 정상회담 시민들 표정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남북정상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던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원하며 온통 축제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실천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치포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 곳곳 일손 잡고 '성공적 개최' 이야기 꽃 "실천 통해 신뢰회복" 당부도 잊지않아 "수고하셨습니다" 연도마다 환영 물결

○...시민들은 2박3일의 광의정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서울공항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대접기를 흔들며 "수고하셨습니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서울공항을 나간 김대중령은 이동중 여러차례 차에서 내려 시민들의 손을 잡으며 화기애애했다.

일부 어린이들은 "대통령 한이까지 사랑해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반세"를 부르기도 했다.

김대중령의 차량 행렬이 임제사거리와 강남대로를 통과할 무렵엔 퇴근길의 시민과 직장인들이 기둥로 뛰어나와 김대중령 일행과 따뜻한게 맞았다.

김대중령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난 때엔 오색동산 2만여명과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 올라 환영분위기를 높였으며 시민들은 '우리의 소원'을 부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청미유 대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그간의 유분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양국 국민들간에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착한 남북간의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 합의를 전제시킨 가운데 비호소 가능한 것"이라며 "남한의 경우 남북간 이해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정하고 화해와 교류를 촉진시키는 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남북화해를 위한 시민사회의 일방적 실천운동 등에 힘입어 기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은 "반영의 필요를 느낀 시민들 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차장은 "김구선생의 연금지법 비준과 의정모라는 혁명적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자"고 주문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환 교수는 "김정일 학병위협전의 명백 시가된 논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남북 화해 무드된 조상하고 그뜻 받아야 한다"며 "이런 국가보안법과 같이 대결구도일 재정비라는 준비를 떠나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실업민족인 김원 숙초시 아카데미를 후원하는 이날 아침부터 환한 마음에 조연도 모기할 새 못미엔 기적사실을 깨내 놓고 교향과 가락을 떠돌았다.

아카데미를 후원하는 노민회장으로 최선군 이 교향인 유정영씨(67)는 "14일 밤 남북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발표된다고 방송에서 예고가 나와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50년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며 "이게 믿기지 않지만 정말이지 모르고"고 감개해했다.

서울 구기동 이복도정사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산가족찾기 신청 김차를 받는 문의전화가 폭주, 다는 업무는 아예 마비였다.

광남동강이 교향인 김경희씨(68·서울 서대문구 남가동)는 이날 이복도정사 찾아 "인간사상적정 후 인간군이 되자하면 이수리삼 속

에서 부모와 형제 9명과 헤어진 죄인인데..."라며 감동한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는 "큰 술공장과 사과나무 과수원도 있어 10남매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삼았던 고향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내지말 신고 어서 놀아가 형제들과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느꼈다.

1948년 정사를 하겠다며 남으로 혼자 남은 뒤 그감로 부모와 3살난 형, 동생들과 헤어져 살았던 김씨는 "우리 대표단이 반장으로 떠날 때에도 삼바하는 생각에 찬성할 참조차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성사했다는 것을 알고는 새벽같이 달려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회담 성과를 축하하는 갖가지 이벤트도 잇따랐다.

광주 동구 자선동회 동산복합당은 15일 하루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손님 정원에게 무료 폭죽을 제공했다. 광주 광진구청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화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선 거담리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산재단과 농림은 이날 오전부터 3일간 강원 철원군 철원읍 옛 북한 노동당 철원군 당사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할지기로 했다.

○...재일동포 출신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봉양 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았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남도지회는 15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인 대성산업(주) 대표 김용지씨(72)가 '남북 통일사업에 세 참여'며 1억원을 맡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초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을 지켜보고 감동을 느꼈다"며 "겨레의 영원한 남북통일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어 성금을 냈다"고 밝혔다. 전국총합

# ‘새로운 鐵의 실크로드’시대 보인다

### 경의선부터 복원... 부산~北~中~유럽 구상 北 연간 1억弗 현금수입·남측도 물류비 절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남북협력1호’ 될듯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5일 평양에서 귀환한 후 서울강화에서 가진 내국인모임에서 남북관계 유럽을 잇는 ‘새로운 鐵의 실크로드’를 언급함으로써 부산에서 출발, 북한과 시베리아·중국 만주 등을 통과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21세기 실크로드’(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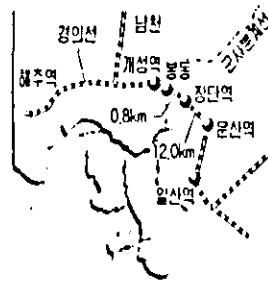
특히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는 우선적으로 실전 가능한 남북 경관 사업으로 꼽히는 경의선 철도 연결을 통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삼천김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철도가 건설될 경우 북한은 연간 1

천리 이상의 현금수입을, 우리나라도 연간 2000만~5200만달러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돼 양측 모두에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기초교통신망구축계획(2000~2019년)에도 중국대륙과는 신의주~단둥~중국횡단철도(TCR)-만주횡단철도(TMR)-몽골횡단철도 등을 통해, 러시아와는 청진-나진~횡산-시베리아횡단철도(TSR) 노선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남북한~유라시아 대륙 연계철도망사업이 들어 있다.

경의선의 경우 단선 구간이 문산~양동 구간 29km에 불과한데다 철



남북한 경의선 복원·연계도

<자료: 건설교통부>

도철의 이미 81~85년 남북구간(문산~장단 12km) 복구할 위한 실시계획을 마치고 97년에는 부지 매입까지 완료했으며 철도복원 후 운영에 대비해 남북간 철도차량과 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개발을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복원에 어려움이 없다. 대략 1500억 원을 투입해 10개월 정도만 공사하

면 복원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협력사업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진강은 유역면적 817km<sup>2</sup> 중 510%가 북한지역인데다 총길이 251.6km중 92%만 남측에 위치해 있어 상류지역인 북측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없이 임진강 하류의 강기도 과주, 문산, 연천, 동두천 등의 침수는 불가피하다.

또 북측도 지난해 임진강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각각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광물수자원 조사용 불해계회충수렴을 신청한 뒤 수계 독의 폭과 높이 등을 검정한 다음 준설을 통한 하상강비를 임진강의 치수사업은 물론 농업생산 및 수도사업 등 이차(利水)사업, 하천환경사업 등을 한다는 것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b.co.kr

## 經協인프라 구축 준비작업 착수

정부는 남북 당국자간 경제교류 협의체담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에 따라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 15일 발표한 ‘남북협력 방안 발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1대령정에 대한 남북 방안을 마련해 북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대북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재산권 보장과 세금 문제 등이 해결돼야 남북 기업들의 불안감이 풀려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92년 교류협력 부속 협의회에서 협력 방법과 제도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놓은 상태여서 이 협의체가 기본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보장 협정은 북한 진출 기업의 투자보호 및 자유 송금을 보장하고, 북한기업이 남한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제국 대우 및 조세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남북교역을 외국과의 거래로 볼 것이냐, 국내거래

### 청산결제·투자보장협정등

### 남측 방안 北에 제시키로

### 장관급 격상 새창구 모색도

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과세방지 협정은 나진·선봉사유무역지대의 사례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강우 남한기업이 북한에 법인세와 거래세 등을 내고 남한에서는 그만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종과세 우리가 있는 조세의 대상과 기준, 이종과세 방지 방법 등이 무엇인지 외국과의 협상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청산결제는 대상품목과 규모, 청산기간 강제화, 청산은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상표권 등 남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장제도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는 남북자간 협의체담을 어떤 형태로

기동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부속협약에서 규정한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급 본격 가동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남북 경제차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된 새로운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차원의 대북협력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나이가 예 시독과 대만이 ‘반관반민’ 형태로 실시한 상공·나관·리소와 해협교류가급화와 같은 기구들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현대의 급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한 북한의 아·태방위위원회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차원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정부직제정비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 “냉전의 마지막 전선 해빙되다” CSM



## 정상회담 각국 언론 반응

“냉전의 마지막 전선에 해빙이 찾아왔다”(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중국과 통일로 향하는 협력 환경에 서명하다”(유에스에이투데이) “50년만의 화해 모색하는 정상 재회”(뉴욕타임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남북한 공동선언 발표사실을 1면 또는 주요 기사로 취급하면서 특히 두 나라의 그 지도자가 아모써 모두가 특을 기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 뉴욕타임스는 6-15 공동선언이 미국 미래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안보협약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전문가는 양국관계에 이따 김정일의 긴기가 마련됐다고 낙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 새방외교관의 말을 인용, “김정일님은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역대나 현대관 ‘파트너스레인 지라르(스탠리 큐브릭의 동명 영화에 나오는 핵전쟁광)라는 이미지의 국가비서장방어(NMD) 구축계획을 둘러싼 의회관계에 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인 주요신문들은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1면 부단으로 보도, 세계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린 신문가판대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마주 잡은 사진을 실은 신문이 진열돼 있다. 대만 국민들은 양인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 대만 정상회담을 열망하고 있다. 타이베이 = AP통신

- 美, “김정일 ‘핵 전쟁광’ 이미지 벗기 성공”
- 日, “신시대 맞아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
- 中, “가장 씩씩한 국가는 미국” 분석 눈길

적인 뉴스로 평가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 관련 사건은 물론 외국의 뉴스를 확대해 잡지의 1면 부단으로 보도한 것은 드문 일이다. 요미우리는 “김정일이 반한을 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분단 후 첫 김정일회담에서 생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양 정상이 앞으로도 유지, 확대하는 것이 광복운동에 명문화함으로써 한 반도는 긴장완화와 남북의 평화공존, 나아가 장래의 통일까지 전망하는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논평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1면 전체에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합의”라

는 제목의 분기사와 함께 남북공동선언의 진문을 실고 “남북이 화해와 신뢰조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으므로 양-북, 북-북 관계는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 중국언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분석하면서 미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만을 놓고 볼 때 가장 씩씩한 국가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민일보는 15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남북안이 가장 관심있게 논의한 부분을 경제분야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개발로 형편 사정 등의 복구에도 도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 일간 브레자 노보스타는 15일 미국과 일본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했지만 미국의 경우, 그동안 수습금지조치는 이용한 대북 압력이 한국의 대북지원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일본은 통일한국이 일본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남북한 공동선언이 북한의 김정일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거둬 주장할 기회를 주는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약화시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TFI TV는 남북 공동선언이 “화해의 조짐스러운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

‘공동선언’美전문가 평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예상

스.제임스 칼리 전 주한 미대사 - 김위원장의 말을 믿고 싶다. 장기적으로 군사비 삭감과 대량살상 무기 생산 중단 등이 관건이며 앞으로 지켜보아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으로 풀려야 할 것이다. 그는 2년 전 취임사에서 대외 강권에 강한 집권을 보였고 전대의 급강한 사업과 기업인 방위를 허용하는 정경 분리 정책을 취하는 한편, 지난해 사해교린에서 모든 안보에는 한자도 알리지 않는 탄압으로 김위원장의 방음을 이강시킨 셈이다. 김위원장으로서는 조심스럽겠지만 갈수록 자유를 병행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을 불만이고 한-중-일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으려면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만이 내국 수요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참된 의미며 미국은 이제 한발 물러나야 한다. 스티븐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 남북군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칼리 전 주한 미대사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짐 만 LAETIAMS 칼럼니스트

칼리 “미국은 이제 한발 물러서야”  
피터 “經協 이어질때 엄청난 효과”  
짐 만 “北 개혁 원하면 北 감축 노력”

위한 대화의 중심이 된 것은 건전한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다.

두 지도자들이 다른 문제들은 직간접하고 흥분할 것들이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립적인 태도가 담인해 일러야 할 장소인 서울과 평양으로 되돌아 온 것은 건전한 일로 생각한다. 남북한간의 대화에는 이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스피터 백 한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의 속담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대성공을 거둬주며 공동선언은 지난 90년대 초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작은 숫자의 이산가족 재봉음이려면 북간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협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는 확실한 단기적 효과로 기대되며 한-미-일 등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플링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빈이든 상징적인 빈이든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상징적인 평화 협상 과정이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너무 성급한 기대는 금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만한 경제협력으로 보인다.

스탈리그 해리슨 샌주리재단 수석연구원 - 김위원장의 광학 출연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 앞서 중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방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스즈미 만 LAETIAMS 칼럼니스트 - 북한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김위원장이 결코 북한 개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김위원장이 정권과 100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원조를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김위원장이 미국에 협정을 내기 위해 남한이나 이탈리아와 호주 등 다른 미 동맹국들에 문화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는 미국이 자신과 거래해야 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위원장의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단서는 그가 북한 경제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될 것이다. 김의 목적이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을 더 번영케 하는 데 있다면 군대를 감축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김의 전략이 외국과의 식량 및 기타 원조를 북한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면 군사력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군사적 위협은 김위원이 외국에 눈물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윌링턴-로스앤젤레스-출

“주변 4강국에 ‘자주통일’ 강력한 메시지”

在獨 송두율교수 인터뷰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독일 위스도대학 교수(사진)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의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가진 인디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특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0~80년대 군사독재 권력단체 독입에서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나섰던 송교수는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5-18 광수면수리운동 20주년 기념 국제학



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국이 준비사항이 부족해 참석을 포기하겠다고 지난해 67년 독일유학 이후 단점을 한반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스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된 것은 ‘7-1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 등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이미 마련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자주적 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

합의 정세가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통일 원칙을 견명한 것은 주변 4강에 대해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변 4강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는가.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대성공에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사안법(NMII)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등 남북한간의 자주적인 통일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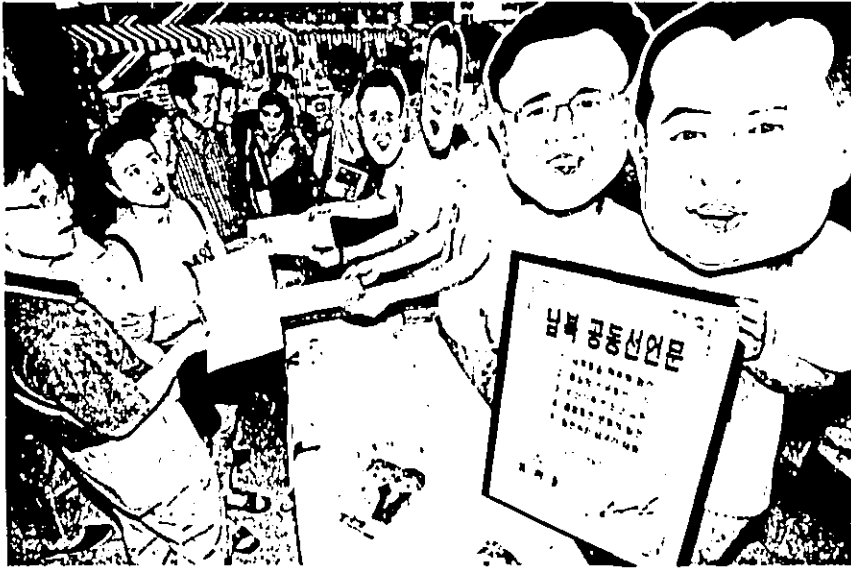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해외인사의 입국 문제에 전환적인 개선이 있었기를 기대한다.

경제협력 등 기타 분야의 남북 관계 전망은.

△남북공동선언문 중 경제 협력 분야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 대신 ‘민족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의 개방이 내세라고 해도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은 민족경제를 궁극적으로 발전시키야 한다는 명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참된 일이다. 핵무기나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북한은 단언히 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돼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베를린-출



“공동선언문 보관하세요”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15일 직원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총장의 캐릭터가 면을 쓰고 5개항의 남북 공동선언문이 담긴 전단을 고려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박경근기자

南·北 경제력 차이는

남북간의 경제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남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남한의 경제규모(명목 국민총소득)는 북한에 비해 약 25배, 1인당 국민총소득에선 약 12배에 이른다. 교역 규모에서는 남한이 무려 156배나 크다.

이같은 격차는 남북한 비교통계를 낸 지난 90년 이후 꾸준히 벌어져왔으나 IMF 체제에 들어선 98년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다소 좁아들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98년도 남한의 경제규모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413조원, 북한은 17조원으로 25.2배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 1인당 총소득도 남한이 954만원으로 북한의 80만원에 비해 11.9배나 된다.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14억 달러로 남한의 157분의 1 수준, 북한의 교역규모는 수출과 수입의 큰 폭 감소로 97년에 비해 33.9%가 감소함에 따라 남북간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확대됐다. 박종태기자

“經協확대” 발걸음 빨라졌다

'6·15 선언'이후의 제계

제계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 따른 경협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경협 확대에 걸림돌이었던 무자보장 분세, 이종과제 방지 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이면 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했다고 보고 효과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지도록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창구들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권과 대한성의 무한 등 경제 5단체들은 지난 9일 단체장들이 모여 남북 경협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논의의 시동을 조속히 살린다는 계획이다.

각 기업들도 기존에 구상했던 대북 프로젝트의 실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대북 사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 경협사업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사업 규모가 가장 큰 현대는 새로운 현대의 대북사업 추진보다 지난해말 무지산정,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청도·함양 건설사업 등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내성있게 펼칠 방침이다.

삼성은 북한의 남포와 해주유전에 주유관제차와 비슷한 50만평 규모의 전차단지급 조성, 10년간 5억~1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

획 이에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삼성은 또 북한내에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평양제국관에 북한 최초의 대형 컬러 전광판을 설치, 이담 중 기념식을 가질 계획이다.

LG의 대북경협 창구역할을 하는 LG산사는 대북 경협에서 물류단지 확보가 필수적이라 보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전자·화학분야의 불우단지 건설

경제 5단체 '공동프로젝트' 박차 현대·삼성등 공단-전자단지 계획 북 출신 기업들 중소형공장 추진 주한 외국기업도 조사단 파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6년 평양 시내에 설립한 컬러 TV 일가공 공장을 통해 올해 1억5000대의 북한산 TV를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다.

또 전경련 산하 남북경협위원회는 중심으로 한 이복출신 3~4개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무지산사업이 조만간 착공할 방문, 평양과 원산 등 이북 5도에 중소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북한출신 기업인들의 대북교역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진흥위원회는 오

는 8~9월로 예정된 제3차 중소기업 방북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북 위탁가공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로는 전체의 70%, 교역규모로는 30~40%에 달한다”며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건설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중앙회 산하 전자조

항도 평양지역에 2만평 규모의 전자 부품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삼성사 캐드캠 기지점모형인 조합내 10개사가 오는 20일 평양을 방문, 공동특유기지 건설 등의 문제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PC모니터 제조업체인 IMR사는 현재 진행중인 모니터 위탁가공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하고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의 공동개발과 일본에 합작법인 설립 등을 조만간 완료하기로 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조만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중 무지산사업을 북한에 파견할 방침이며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도 대북 투자 왕조의 북을 넓힐 방침이다. 신홍수 송세경기자

sysohng@kmb.co.kr

## “北 SOC 확충비용 최소 10조원”

###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최소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북한 SOC 확충을 위한 비용전망’에 따르면 전동공민 등 북한내 경험 유력 예상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SOC 확충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한 9조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경의선(경양~신의주)과 평부선(경양~개성) 복선화, 개성~돈산 구간 확충, 관련 주요시설의 개량 등 철도부문 확충에 약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요 산업단지의 항만 연계를 위한 고속도로, 국도 등의 확충, 포장 도로 확충에 2조2000억원, 주요 산업단지 소요전력의 무선 공급시설 설치 및 보원에 2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포, 신의주, 나진, 원산항 등의 시설 개선에 최소 6000억원, 주요 산업단지의 통신망 설치에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같은 SOC 확충비용을 마련하는데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며 우선 2100여억원 규모의 가용 남북협력기금과 민자유체가 재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진영기자



‘글로벌 리눅스 2000’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 리눅스 이벤트 ‘글로벌 리눅스 2000’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전시된 리눅스 운영체제를 시험해보고 있다. 국내외 80여개사가 리눅스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 이번 행사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이동희기자

## “남북경협 분위기 조성 ...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 정상회담 수행 경험의 소감

남북 정상회담 수행을 마치고 귀국한 구분무 LG회장, 손길승 S K회장 등 재계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북한의 한때 크게 감명받았다고 전하면서 남북경협이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선결 조건인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분무 회장은 “경협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

### 투자보장·이종과세방지 협정등에 북측 호의적 민간차원은 물론 당국자간 구체적 합의 이뤄야

기로 정부당국과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남북공동 위원회 설치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 경협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길승 회장은 “만경원 회장 등 북측 경제인들에게 기업개리 사업을 해보니 어려움이 많은 만큼 투자보장 선별인전 제도보장이 선행돼야 하며 남북경제협력 공동위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손회장은 “북한의 컴퓨터엔터는 일정계도에 오른 것으로 보였고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다”며 “시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농촌에서 모내기하는 모습과 옥수

수가 자랑 모습을 보고 식량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운영부회장은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를 재회하기로 양 정상간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경협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의 대북사업 발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의 진전과 사업 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측과 개별협력을 가진 적이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그러나 이렇듯 장구한 현대명 여회장의 방북이 구체적인 협상을 발발케 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어 “장진명여회장과 함께 방북해 사해안 풍만부지 선장과 금강산종합개발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대표로 방북길에 나선 LG 회장 손길승은 “최근에 중소기업연합총회중앙회 이원호 상근부회장은 “최근선 근처에 중소기업연합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오는 8월이나 9월을 중소기업인 50명 정도로 구성된 방북단을 파견 북한에 경협관계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림

## ‘정상회담 주가’ 왜 폭락?

### 4개 금고 영업정지등

### 악재 출몰이 표면 부상

### “독일처럼 상승” 기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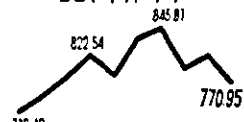
15일 주가폭락은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져 있던 악재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때문이었다.

최근 2주 남짓한 주가의 급상승에는 물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추진력이었다. 무엇보다도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하나의 테마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라는 재료는 주가폭 대 상승세로 물러날 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 의미는 크지만, 남북이 결핵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갈길이 너무나 먼 것이다.

따라서 이쯤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앞다퉈 수익실현예보를 내놓았고, 결국 종합주가지수를 48.32포인트나 끌어내리는 계층시정문 개찰의 분석, 광고업계도 이날 금융감독원이 4개 금고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을 경우의 자금

### 종합주가지수 추이



악화세가 돌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됐다.

대신증권 조영환 연구원은 “부실권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했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당장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우증권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개월 만에 독일의 주가가 33% 상승했다”며 “기대 이상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선익기자

## 國民日報

2000. 6. 16 (금)

## 정상회담 관련 ‘합구’ 보도지침 말썽

### “기간중 견해 표명삼가라”

### 연구소 연구원들에 공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국제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방적 입술을 입지 않도록 제시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국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재경경제부 장관 명의로 ‘정상회담중대 언론 홍보방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제연구소 등에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정부는 이 공문에서 정상회담중대 의한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은 각급

회담대표단 보도자료 원안에 충실하게 하고, 상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했다. 또 국제연구소(현은·수출입·산업은행 포함)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에 개별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제연구소 A 연구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지 궁금하다”면서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협상에도 유리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연구원들의 입을 막는 것은 연구원을 따나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을 토로했다.

반동통신사 hdbark@kmbb.co.kr

# 빛장플린 남북체육 교류

## 김운용체육회장 밝혀

축구와 탁구의 단일팀 구성이 가시화되는 등 91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스포츠교류가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빛장플린 이룰 전망이다.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은 15일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수행을 마치고 귀경한 직후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단일팀 구성 외에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 등 체육분야에서의 남북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탁구 및 축구 등 단일팀 구성

91년 세계청소년탁구선수권과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는 탁구와 축구는 축적된 경험을 살려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빠르게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운용 대한체육회장과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중 북한 실무자와 원칙적인 합의를 본 만큼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 탁구, 월드컵·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가시화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선수교류등도 가능성

올 11월의 아시안컵축구 본선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겨냥할 단일팀 구성이 한층 밝아졌다.

김회장은 이와 함께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고 일부 종목은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밝은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김운용 회장은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지원 아래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을 공식 제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여기서 나아가 공동훈련과 공동훈련 등도 북한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에서 김회장과 유성일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이 이 문제를 논했다.

어쨌든 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면 한 민족은 세계인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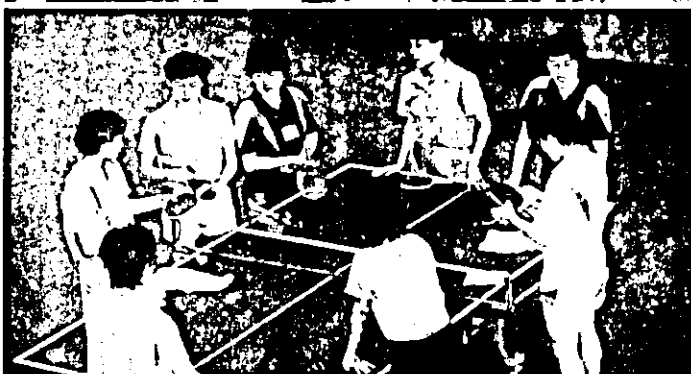
### ◇그외 체육교류

민족 스포츠인 태권도에서 상호 교류가 급격히 이뤄질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갈라져 대립했던 태권도는 남북이 시범단을 구성하고 경기규칙을 통일하는 방안이 실무자회담시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도 서로간 한바탕 화합의 무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농구는 지난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대회를 실시, 남북화해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어 대표팀 교환경기과 선수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NBA 진출을 모색했던 리명훈 등 북한 선수들의 국내 프로농구 영입도 이뤄질 수 있다.

사이클도 국토종단대회를 개최, 분단의 불교를 풀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8월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조인주와 북한 국적의 조총련북서 흥창수의 세계타이틀전을 계기로 프로복싱의 교류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기자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북 스포츠교류가 빛장플린 이룰 전망이다. 사진은 90년 남북통일축구 2차전 경기로 마친 선수들이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장면 위)과 남북공동팀으로 출전한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여자선수들이 전략을 상의하는 장면. 국민일보 자료사진



### 김정일 서울 오면 섭섭지 않게 해주자

# 시민들 “答訪소식 반갑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에 쏠려 있다. 심형민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15일 남북공동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걱정할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평양 시민들이 보여준 현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도 김위원장을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사했다.

#### “통일이 보인다” 환영무드

평북 중앙도민회 총무부장 이상만씨(65)는 "마음을 열고 심형민에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생애 최고의 선물을 던져준 만큼 김위원장을 기대감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고향인 함북인 노병근씨(73)도 "분단 55년 동안 김일성(金日成)주석과 김위원장을 많이도 미워하고 욕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통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말했다.

#### “직설적 회법·유머 인상적”

주부 김남숙씨(47·서울 역삼동)는 "우리가 평양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을 친근한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김위원장이 서울에서 지내는 모습이 북한에 방문한

다면 북한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회사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여러차례 손을 맞잡고 건배를 하며 "원샷"을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김위원장 특유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회사원 정모씨(31)는 아버지에 못지 않은 카리스마와 여유ful 기질 김위원장을 외화 '대부'에 출연한 영화배우 달 과치노와 비교하며 "영화배우같은 이미지를 갖춘 그가 오는 8월 15일 판문점을 넘어오는 마차 연회속의 김면을 연출하지 않았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행원 최모씨(30)도 "TV에서 비춰진 김위원장의 직설적인 회법과 유머가 무척 인상적이었다"며 "김위원장의 실제 모습을 꼭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울 시내 유명호텔들은 벌써부터 축구를 준비하고 있다.

#### 호텔들 벌써 투숙유치 촉각

특급호텔 관계자는 "김위원장이 청와대 대신 시내 호텔에서 머무른다면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sjcho@kmb.co.kr



북한의 인기가요가 국내 인터넷 노래방에 떴다.

인터넷 음악방송국 핫웨이브(www.hotwave.net)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취파람' 등 북한 가요를 따라부릴 수 있도록 북한가요 노래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 ‘취파람’ 인터넷 노래방에 떴다

### 음악방송 ‘핫웨이브’ 北가요 10곡 서비스

현재 핫웨이브에 올라 있는 북한가요는 모두 10곡. '너는 꽃이래네' '행복' '시간 속에서' '상처' '내 이름 묻지마세요' '축배를 들자' '선생님 생각' '행복은 어디에 있나' '어머니 생각' 등 서정성 짙은 대중가요가 대부분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핫웨이브에 접속, 노래방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노래를 클릭하면 된다.

북한가요의 육성 원음 및 반주와 함께 가사가 흘러나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핫웨이브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남북간 대중음악의 교류에 기여하는 취지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가요를 노래방에 올렸다"며 "남북화해와 대중음악 분야 교류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욱기자 jwcho@kmb.co.kr

# 평화로 가는 한반도...

## '대북 작표'는 어디로...

남북정상이 5개월의 광동선언을 이행함에 따라 문화 교육계, 법조계는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보수단체도 상황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굳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태도이나 역시 새 진로 모색에 분주하다. 무엇보다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은 이의 개편 수위가 필요한 실정이고 교육계는 통일교육의 위상 정립에 부심하고 있다.

### “主敵개념 신축적 조정”

국방부는...

#### 신뢰관계·투명성 확보돼야

국방부는 남북 정상의 광동선언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적 개념을 보완한 가치관 훈련문제,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 문제, 군사대립 태세 등을 시대정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냉정히 지켜보면서 공동선언의 합의이행 등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분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참에 대해 “현재로선 반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남북군사분쟁의 획기적 변화는 인적교류, 감시협력, 신뢰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한 듯하다. 위공의 신뢰관계가 다져지고 군사서 무법성이 확보돼야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문제 등도 다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지화노선을 주적 개념을 넘어서는 단계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남북정상이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대남전략에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면 주적 개념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중단한다면 대북합의권의 주체성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안법 개정 전향점토”

법무부는...

#### 다양한 입장등 조정 거처야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이념에 따라 서로 입장을 차이한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는 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법을 바꾸지 않고는 실질적인 남북 대립을 해결할 수 없다는 관념에 따라 개정보다는 진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편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항은 2조1항(반국가단체)과 유엔인권위로부터 개정권교류 방법 7조(간담·교부

키)가 꼽힌다. 2조의 경우 반국가단체 개념에 “정부를 인정하거나 국기를 변경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교섭행위는 반국가단체와의 교류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을 반국가단체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조의 경우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규정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을 중앙 교무 선동할 때 처벌되는 이 조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10조(보급지치)의 국보법위반 사범의 경우 원형 형사법과 달리 구속기간을 50일로 규정된 19조2항도 개정대상이다. 법정기자 bkpark@kmb.co.kr

### “동반자 관계 가르친다”

교육부는...

#### 환상 갖지 않도록 균형유지

초·중·고 교육현장이 김대중이 이후 반공 교육과 통일교육의 균형점을 갖지 못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6·25남북 및 반공정기 및 포스터 그리기 행사도 해야합니다”(서울 초등학교 교장 김경)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북한이 우리보다 나 앞에서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지 한사...교육현장의 지평은 개편되고 있습니다”(대전초등학교 교장 김경)

초등학교의 경우 TV에 보인 북한사회 모습이 교육내용과 너무 달라 교사들조차 난감해하고 있다. 대전초등학교 현인 교사는 “반공사 모습이 북한 실재를 대변한 게 아니라며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도 중학교 대변을 담고있는 교과서도 문제. “통일”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교재에는 “북한 인민군은 농사지 관리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므로 방한에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부조리한 대화와 협력에 남침한 모두 시는 길이다”라는 내용이 동시에 실려있어 교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8월부터 교과서 개정작업에 착수, 남북협력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경호기자 khiee@kmb.co.kr



들뜬 서울 15일 북한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을 맞아 서울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김민희기자

### “북한의 본질 바로보자”

보수단체는...

#### 무비판적 찬양교무 경계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15일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반면 “국군포로 등 현안 문제 해결이 없는 반평등 회담”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수호라는 이념에 바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양승조)은 성명을 내고 남북한 남북이 광동선언에 담긴 위공정신을 존중,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새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세로 실무진속에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사회 양부의 무비판적인 북한세제 찬양교무행위에 대해서는 광동선언 이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자유민주총연맹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철승 총재는 “이번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북한 인권유린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겐 변화의 갈 줄 것을 촉구하고”고 비판했다.

6·25전쟁동지회 관계자는 “해방무드가 초창기인 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북한의 변신이 반영되고는 보기 어렵다”며 “미군수들과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기자 mjung@kmb.co.kr

# 설립... 아쉬움... '눈물 뒤범벅'

## 편지로만 그리던 아들 "이젠 죽어도 여한없어"

**'실향 아들' 홍진영씨**

"6월 30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점에 아버님이 방학에 누우셨다니 눈물만 나오는데요" (2000. 5. 19 응직 유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 남북정상회담 5개항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14일 밤 잠정민 1세대인 홍진영씨(80)는 이날로부터 받아장봉 시합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색미엔 편지 꾸러미를 훑었다.

누렇게 변한 한지 위에 깨알처럼 빼적혀 써내려간 시간 가운데 하나를 또 한번 소리내 읽은 홍씨가 흘러 내렸다.

50년간 가슴에 붙여 두었던 망향의 세월이 주미동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서신으로만 생사만 확인할 수 있었던 처와 두 아들을 이젠 볼 수 없다는 기대에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921년 평안과 신의주의 중간인 평북 정주에서 태어난 홍씨는 전

개이 티끌 때까지 친도교 간수원 지어세입지:가 억압하는 등 정치와 동영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인민군의 압박이 심해 지자 1·4후퇴 때 지 김희석씨(81·전 평북 정주 거주)와 큰 아들 정석(59·기계수리공), 둘째 응직

**10년간 꾸준히 서신왕래**

**빛바랜 가족사진 보며**

**'처와 두아들 볼수 있다'**

**새벽까지 잠 못이워**

(53·트레디 운관)씨를 남기두고 친(83년 작고)과 함께 남으로 내려왔다.

홍씨는 "남으로 내려올 때 1주일 후에 차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반세기가 훌쩍 지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홍씨 형제는 부산에서 피란민을 상대로 찜질사를 시작해 어느정도 기반을 잡은 뒤 91년 4월 고향 친



실향인 홍진영씨가 15일 5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북한에 아들 형제와 인편을 통해 보내온 여러 통의 편지를 꺼내보고 이산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홍씨의 아들이 보내온 편지이다.

홍진영수기자

구(99년 작고)의 도움으로 고향에 살고 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홍씨는 "나는 편지란 물에 기척의 생지라도 확인했지만 그렇지 못한 심정만들은 이번 정상회담 간담회가 열린 날이 보였을 것"이라며 "결국 만난 두 아들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안이 없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민태원기자 twm@kmba.co.kr

조선기는 사해로 사해로 이  
33 건너지가나

1921년 고향 '5월 16일' 기념으로

1921년 5월 16일 기념으로

1921년 5월 16일 기념으로

1921년 5월 16일 기념으로

1921년 5월 16일 기념으로

**남북 동진호 선장 딸 최우영씨**



백령도 부근에서 지난 87년 남북동진호선사의 딸 최우영씨가 15일 아버지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며 남북통일 국민 가족사진을 들고서 있다. 이동희기자

## 생사도 모른채 13년째 '望父歌'

**17살때 '헤어진' 아버지**

**"이번 아니면 기회 없는데"**

**"우린 언제쯤에나..." 한숨**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됐으나 남북자와 국군 포로문제가 제외돼 아들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

남북자 가족인 최우영씨(30·여)는 15일 "방새 잠도 한숨 자지 못했다"며 "북인은 자국민을 위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왜 아무말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87년 백령도 부근에서 초업을 하던 중 북측에 피랍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동진호 선장 최종석씨의 딸로 지난 2월부터 "남북자 가족모임"을 만들어 대표까지 맡아가며 남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씨는 "김정주 지갑까지 모두 45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모임을 꾸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전화할 허방 기어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족

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냈다.

최씨는 "이번에도 만나지 못하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른다"며 "실무협에서 남북자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 협의 과정에 꼭 포함돼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북자 가족모임은 성명을 내고 "북수 이산가족이라고 정부가 알맹한 남북자 문제 또한 조속히 다루시는 안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으로 남북자 송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군포로추진 실무관(7)도 이번 회담에서 지신들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씨는 "국군포로들은 한평생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2세날도 출신장분이 나쁘다며 다음 직업도 갖지 못한다"면서 "북측에선 50여명에 불과한 비전향 장기수 문제만 놓고 나오는데 왜 우리는 300여명이나 되는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했다.

최씨는 1953년 7월13일 금희관주에서 포로가 됐다 북한을 탈출, 98년 9월 극적으로 귀국했다. 이종철기자 neolee@kmba.co.kr

# 한반도 전쟁 포기... 대화로 통일

南北, 통일과정 외교·군사권 각자 보유  
離散상봉 다룰 적십자회담 月內 시작  
군사직통전화 개설·경의선 철도 연결

金대통령, 평양방문 마치고 어제 귀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김 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 로 가는 과정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합) 정부가 아니라 지금 차갑기 '지방정부' (남북한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당은 14일 밤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양측 통일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박종영(朴鍾榮)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전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정부(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온 가운데 우리 측의 '연합' 정부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통일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진기할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변인은 "회담에서 김대통령이 '사료간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자'고 말했고, 이에 김위원장은 남북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배포한 '남북공동선언'과 해산자료를 통해 "두 정당이 14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부려먹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도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전쟁행위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 행위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북측과 협의, 군사적 동맹 시대 예방을 위한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해회담 중지, 비파·진해항위 중지

등의 조치될 것에 나가기도 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전결제, 무자보장 등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해 북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남북경제에 있어서 정부는 북측의 수용여건과 남측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와 점진주의 원칙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은 민간에 관련단체가 주도하되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체육분야 교류와 관련, 정부는 ▲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상 ▲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 경명숙구 대회 부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휴전선 일대의 방과리아·올레라 공동방제도 추진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광복절 전후 대규모 상봉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전후에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날중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의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시종관장에게 도착, 대국민 보도를 통해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협력·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오전 김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평가

## 정상회담 관련기사

|                |     |
|----------------|-----|
| 평양 오찬-귀경 스케치   | 2면  |
| 金대통령 '평양 54시'  | 3면  |
| 새해일반안 의견접근 인문  | 4면  |
| 6-15공동선언 구체화초치 | 5면  |
| 정상회담 결산 직담     | 6면  |
| 취재원장권 인터뷰      | 8면  |
| 정상회담 회보        | 9면  |
| 6-15공동선언 각국 반응 | 10면 |
| 광고 본 남북검첩      | 11면 |
| 표진경연무회장 방북기    | 13면 |
| 남북 스포츠교류       | 22면 |
| 수행일이 정하는 평양    | 23면 |
| 프레스센터 이모저모     | 25면 |
| 마음은 북에 고향에     | 26면 |
| 귀경 연도 환영       | 27면 |
| 지저귀 교류특대 방안    | 29면 |
| 정부 각 부처 움직임    | 32면 |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김대통령은 또 최규하(崔圭夏)·전두환(全斗煥) 두 전유대통령과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최종업(崔鍾業) 총리서리 대법원장, 이만동(李萬東) 총리서리 등 3부 요인인 청와대로 초청, 방북 성과를 설명한다.

김영삼(金泳三)·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은 중추역 분당중이다.

●임승현 이도모기자  
yankok@kddnet.com

## 金大中대통령 귀국 인사말

역사적인 남북 업무협 체결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임무달수할 수 있도록 반쯤을 지지 않고 성원한 국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55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종국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데 보탬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자체가 중요하니까. 평양도 우리 땅이고 평양시민들은 우리의 같은 맛줄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곁으로 뒤편고 이야기했던 남북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진이 짙어 배어 있었습니다.

1,300년간 이어온 통일민족이 55년의 분단 때문에 임원히 외면하고 잠깐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평양에서 우리가 미래에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측(김정일 위원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연방역사상 혁명시대에 들어갔고 부한경쟁시대에 같은 민족끼리 내부의 합을 뒤흔다면 결국 우리 민족이 근대화에 실패했던 과거의 진실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변 4대국은 우리들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시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 이상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안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하면서 차츰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자고 재언급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21세기 세계 일류의 한민족으로 만들자고 했고, 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역사지지(史地地志)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체성은 추후도 흔들림 없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 가면서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번 남북회담 북측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분자로 만들어 전달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 없이,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 없이, 함께 공존공영하면서 새로운 21세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린 것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한반도,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것을 확신합니다.

# “北에 정신대 공동기소 제안”

## 정상회담 여성계 반응

### “남북 여성교류 물꼬 형용”

여성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공동대처 등 남북 여성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감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5일 이희호(李熙嫻)여사와 북한 여성대표팀이 11일 평양에서 가진 남북여성분야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대협은 이에

앞서 정상회담 비공식 수행원인 장상 이희여대 총장을 통해 북측의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 진법 국제법정’에 남북 공동으로 기소장을 제출하자는 제안서를 보냈다. 장대협 공동대표 김윤옥씨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뿐 아니라 민족적 지존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통일 만드는 여성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93년 도쿄회의 이후 중단된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재개 등 남북여성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여권 장대협 한국교회 여성연합 등이 주축이 돼 지난 91~92년 도쿄 평양 서울을 오가며 열려, 남북 민간 외교의 물꼬를 튼 행사다. 한편 여권은 “합의서 내용중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여성문제도 포함되겠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추후 부문의 협상과정에서 여성 관련 의제를 포함시키고 여성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했다.

김재림기자 mskim@kmb.co.kr

## 현장기자



박 병 권  
사회부

### 北의 ‘국가보안법’ 형법은 뇌물건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는 민족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측에 개정을 요구한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동압적인 형법과 노동당 규약을 갖고 있다.

북한 형법 47조(공민의 조국반역죄)는 북한 주민들이 외국사립에게 값을 인내하거나 봉역하거나 물질적 지원 등으로 도와준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11조(국가주권전복음모죄)는 폭력 및 무장폭동 또는 그 밖의 음흉한 방법으로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전복음모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자는 재산몰수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조계의 시작이다.

민족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에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15대 국회 때 이미 당시 국민회의가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개정을 수차례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우리의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법 조항을 두면서도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현 법보다 상위에 속한다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아예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은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는 이 당의 목적을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공업의 완수라고 규정할 뒤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앞으로 기회를 보아 북한의 법체계 가운데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 고치려는 요구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byark@kmb.co.kr

### 데이콤 위성전화 이용 ‘방북단’ 서울과 연락가져

경양에 체류했던 남북정상회담 대표단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과 통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콤은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이 국가지휘 통신수단으로 저계도 위성 글로벌스타를 이용한 위성이동전화 15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스타는 지상 1414km 상공에 떠 있는 48개의 저계도위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지상기지국이 없어도 이동통신을 할 수 있다.

글로벌스타 위성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의 이동전화 사용준비는 데이콤과 청와대측이 한달 동안 극비리에 진행했다. 퀘컴칩이 들어간 단말기가 미국 상무부의 ‘적성국 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이동중 국가지휘 비상통신이 필요하다고 북한측에 요청해 북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런 사전작업을 미친 뒤 데이콤은 북한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통화 방해를 드청시도 전화를 받지 않도록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청와대는 방북 직전 자유로탑 시속 160노로 달리며 글로벌스타 단말기의 통화품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손영욱기자 yosohn@kmb.co.kr

# 지자체 대북교류 추진 '러시'

도시간 자매결연, 직항로개설 영화제초청등

아시안게임·전국체전 백두·금강산 성화채화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남에 따라 부산 인천 광주 경북 전남 충남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교류 추진분야는 경제협력에서부터 문화 예술 스포츠교류, 보건·의료지원 등 다양하며 향후 전개될 남북화해 시대를 감안할 때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5일 북한 함구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교류사업안을 확정하고 시 단위와 대북교류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가 아닌 화강한 사업은 원산 또는 청진과의 자매결연, 부산-원산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 오는 10월 부산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2002년 아시안게임 백두산 성화채화와 부산 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초청 등이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직항로가 개설돼 있는 북한 남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통일

부의 허가를 얻어 남포시와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북 교역량의 62%를 차지하는 지역내 기업체들을 지원하고 교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광주시도 여건이 유사한 남포시를 비롯해 함흥, 청진, 신의주 등 4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대표단을 이끌 4개 도시에 보내고 보건의료, 문화예술, 농업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밖에 인도적 차원에서 시의사회와 전남대 조선대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이들 4개 시에 의사를 파견하고 의약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사회 경제적 거리적으로 여건이 비슷한 북한 개척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뒤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교역단 초청과 북한관 개설을 추진한다 무신원 경북도는 새롭게 조성된 남북화해무도어항입어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돕기 위해 종자 및 씨대지 제공과 선진 농업기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주니어 역도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내년 10월 전주에서 열릴 제1회 세계소리축제에 북한 관계자들 초청하고 민간주도로 추진했던 관소리 춘향전의 평양공연도 도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충남도는 오는 2002년 태안군 인연에서 열릴 꽃박람회 북한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진을 구성,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꽃박람회 조직위 최민호 사무차장은 "전시장에 북한의 아성회를 비롯해 '김정일화' 및 '김일성화'를 전시하기 위한 '북한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부

## 민단-조총련도 "우린 하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 반목 벗어나 화합 분위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지난 50년 반목과 갈등으로 잠흔래 온 재일 한인종포사회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은 15일 성명을 발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해 "단결과 통일 의의 시기에 서 있다"며 동포사회와 통일 실현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총련도 이날

"모든 재일동포가 사상과 단체의 소속을 넘어 조국통일을 위해 다 같이 함께 나갈 것을 엄렬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남북 분단 이후 반목을 계속해온 두 단체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동포사회의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넣고 있다.

한국적과 조선적이 존재할 촉구함을 들고 있는 요코하마한 재일

조선인측구협회 최영수 회장(41)은 "지난해 가을 남북 재일팀을 만들려는 계획이 여러가지 장애로 실현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합의로 감개무량하다"며 흥분을 떨치지 못했다.

서울대 유학중 북한 긴급 함의로 검거돼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재일한국인 서승 린메이간대 교수는 남침시대에 불필요한 희생이었다고 회고하고 "회담이 예상 외로 우호적으로 전개돼 좋은 예감이 든다"며 "동아시아 평화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남북간 합의를 평가했다. 김광현기자



남방민들이 15일 남북정상회담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서울 남산 대한적십자사로 찾아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최흥희기자

##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선정

적십자사, 신청자중 나이·직계존비속 순

고령자 추가신청 받아

대한적십자사는 올 8·15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한다는 남북공동선언 채택에 따라 15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나이, 부모·형제 등 직계존비속 순이다. 그러나 한적족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고령자들 상봉 기회가 남아 남지 않은 사람들에겐 10일 정도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다가 환포도 들 이산가족이 많은 드의 경우 가중치

를 부여, 대상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 많게 배정된다. 현재 상봉 신청자는 14만8000여명이며 이중 신원조회 등이 끝난 6만여명이 1차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적족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선정작업만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대책본부 박성운 팀장은 "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첩부터 이산가족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그러나 이산가족 방문단 규모 등 세부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정자 작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인기기자

mjung@kmb.co.kr

# “민간 對北경협창구 설치”

## 北 ‘민경련’ 파트너로 중복투자 방지 등 조정역할

### 孫전경련부회장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 전망”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제공동체 설치와 별도로 북측 경제단체와 대화할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창구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북측도 이에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손부회장은 방북단에 포함된 경제인 10명은 지난 11일 북한 평양에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련) 회장 등 북측 경제인사 7~8명과 가진 부분별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부회장은 “민간경협창구의 북한측 파트너는 기존 대화창구인 조신에대방과위가 아니라 북측 경제단체인 민경련이 맡게 될 것”이라며

“민간경협창구는 대북경협의 창구 외에 경제단체간의 협의기구 역할과 남측 기업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조정역할도 맡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자격으로 남북정상회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시위 고합회장은 “경협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고 북측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장회장은 “남북의 경제인사 만남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투자보장협정이며 이중과세방지나 국제금융거래 등 참가를 위한 모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예기했다”며 “이 문제는 조만간 남북한 당국간에 모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세영기자 sysohn@kmb.co.kr

### “美 1주일내 경제제재 해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50년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이후 북한에 가해진 광범위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방침임을 앞으로 1주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로 미국에 원자재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양국간 영공과 신지 항로 개방도 이뤄지게 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또 미 기업들이 북한의 농업을 비롯해 관광, 도로, 항만, 여행,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말했다. **뉴욕=**

# 與 “총칼을 보습으로” 환영 野 “核문제 등 미흡” 지적

### 정치권 ‘訪北’ 엇갈린 반응

정시권은 6·15 공동선언에 대해 1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남북적 지지를 보였고 자민련은 환영한다 감성적 통일론의 강계남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문제삼을 내세웠다.

민주당 시영훈(徐英勳)대표는 당 6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전과 후는 시기와 시편(史觀)까지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며 “부조진 북을 적대

시했던 대서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에서 총칼을 보습(擧기)으로 만드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원 대변인은 특별성명을 통해 “공동선언은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로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 평화의 일대 전기로까지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대변인은 “분단 역사에 종지부쯤 찍는 결정적 초석”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감성적 환상적 통일론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직 대동

력이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 남북정착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지만 지적하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권정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선언문의 ‘자주적 통일’부분이 북의 주권비준 전후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계해야 한다”며 “북의 연방제안은 ‘1국가 인정’논리인데 ‘연방제안과 연방제안의 광복상’은 무엇인가”고 의문을 던졌다. 권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폐기처분으로 연계시킨 점, 국군포로나 남북인사 송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공동선언에 대한 이회창 총재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17일 인수회담에서 김대중에게 사실상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동재 김영호기자 djlee@kmb.co.kr

# 김위원장 “對南비방 하지말라”

### 국방위 비상소집... 무력시위 6·25행사도 중단 지시

북측을 앞으로 휴전선의 대남비방을 비롯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50주년을 맞는 6·25행사도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했던 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김위원장이 고별오찬 자리에서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를 비상소집,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든 절대로 (남한을) 비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위원장은 또 회의에서 ‘10일 있으면 6·25이지만 (비방·무력시위) 하지 말라’며 6·25 행사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6·25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기념식 외에 군의 퍼레이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최현수기자**

# 주도권 집착않는 '相生의 게임'으로



남북경협 '성공조건'  
(전문가 시각)

남북의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일정수준으로 올라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협력 관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남북경협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에서 탈피해야 하고 특히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홍지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실장=서로 다른 체제의 남과 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길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집착해 고압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한 정책을 써야 한다. 남북한 철로를 연결한다고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내 철로의 연결이 더 시급하다.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북한내 철로망의 연결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기술지도 등 인적 교류와 함께 현재 중국을 경유하는 통신부문의 교류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남한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관심을 두고 접근한다면 남북경협은 실패한다.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임가공산업의 경우 북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진출한다면 북한의 관련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상생(원연)의 게임이 아니라 상극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또 기업과 정부의 틀이 분명해져야 한다. 경협은 큰 그림은 정부가 그리되, 프로젝트 설정은 처음부터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남북경협에서 민간주도형 남북경협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팀 연구위원(전 김일성대학 경제학부교수)=남북이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를 대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로 서로 생각이 다른 측면(제도나 정치)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경협은 누가(남한 또는 북한)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호협력한다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민간 역시 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 '시혜' 아닌 南北협력·상호보완 관계를 北 산 노동력 눈독보다 고급기술 전수 정부-민간 역할조정해 '비효율' 없애야

일부에서 남북경협을 냉정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문제는 그것이 경제든 정치든 고압권 분위기를 송화시켜 빨리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협력하며 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분위기가 식어버리면 코스트(비용)가 더 드는 것이 남북관계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남북경협에 환상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으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겠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도 사실 대북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대북투자는 당장 돈이 되지 않을 뿐더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대북 프로젝트에 무지할 만큼 여유가 없다.

이번 선언문 가운데 경제분야는 그 내용이 본다면 지난 92년의 기본합의서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임축이 진정으로 경협문제를 발전시키려는 열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경협은 한쪽 상대인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북한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마디로 북한 부자는 당장 현금화는 안되면서 리스크가 크고, 북한의 상황은 남한과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주현 한국은행 북한경제팀장=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시혜적 차원이 아닌 협조적 차원에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경협대상도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자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경협관계가 원만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결국 통일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 남북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로의 통계를 교환, 적절한 정책협의를 가지면 경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의 중앙은행이 출자해 합작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박현동기자 hdpark@kmb.co.kr



# 남북화해 새질서... 주변4강 '利害' 신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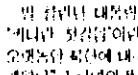


미·일·중·러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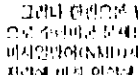
## 각론별로 조심스러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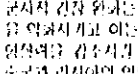
**미**국은 공식적으로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리처드 스타인 대변인이 "이번 김대중의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는 높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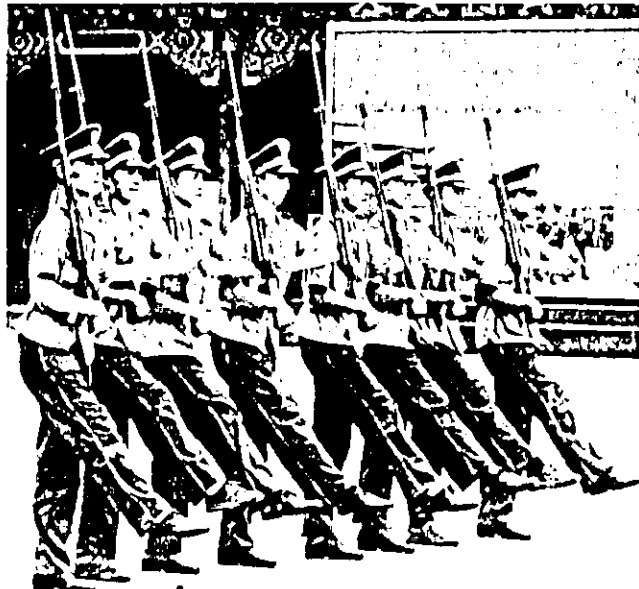
일본은 이번 남북 화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 화해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리처드 스타인 대변인이 "이번 김대중의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는 높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남북 화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 화해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리처드 스타인 대변인이 "이번 김대중의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는 높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번 남북 화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 화해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리처드 스타인 대변인이 "이번 김대중의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는 높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과 중·대한 관계 증진 방침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중국무장경찰이 15일 베이징에서 행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베이징·북경**

## 美, 환영속 '동북아 맹주' 득실계산 日, 對北수교등에 미칠 영향 저울질 中, 대만과의 관계에 불똥될까 경계 러, NMD 고집 美 난처해져 큰 實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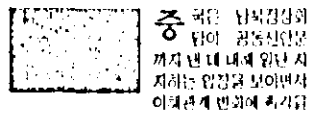
남북 정상회담의 워낙 성과가 다들 예상 오키니와 수교(개국)와 관련된 공동선언에 포함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 정부는 공동선언문의 '동일 문제의 평화 해결에 자주적 해결' 사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 공동선언을 가장 중요시해온 일본에서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 수급이 장기간에 걸쳐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외무성 관리는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지적,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통행의 사항 이행은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 외무성 관리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남북 화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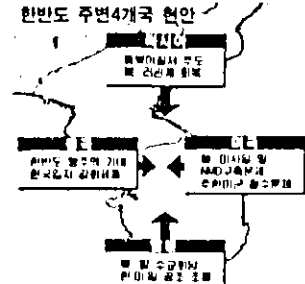
일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섭이 있는 8월15일 광복절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남북 화해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방한'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리처드 스타인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남북 화해에 대해 기대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중현기자 gkkm@kmb.co.kr**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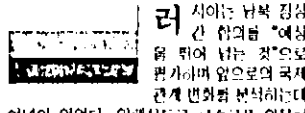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이 공동선언문까지 낸 데 있어 남과 북이 자주적 해결을 지향하는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동일 문제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간다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자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중국이 명심할만한 중국의 맹주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간의 급속한 관계 개량이 자칫한 한 정정체나 양심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내재하는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뢰협정은 "북과 남은 이념적으로 한데 서서 북이 남에 남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의한 반응을 보인다.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지적한다. **주병지기자 jhjk@kmb.co.kr**



1일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전의 산물로 동지족이나 남북관계는 정정체 분리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축소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간여자들이 받아들여(TMD)를 미국이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베이징의 자방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표현적으로는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도 한반도가 '현상유지(status quo)'되기를 바란다며 오랜 스탈린주의 맹방인 북한이 무너지지 동북아에 통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내성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par198@kmb.co.kr**

### "北 미사일관련 美 우려 덜었"



러시아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국제 관계 변화와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15일 이르라 디스 통신을 통해 "러시아는 남북관계 개선이 시작되고 민족화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합의가 핵대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 남북한 정상회담 고조된 한반도 문제에 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배제하고 직접 만났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련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았던 러시아는 이번 회담 결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입장인 김정일측을 지지, "이는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오니드 아바쇼프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 국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의 출범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그동안 남북한 군사 갈등을 시베리아의 원거리로와 침묵하던 남북한은 북방 러시아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개입이 일치할 경우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정홍훈기자 chungh@kmb.co.kr**

## 광복절 이산가족 교향합창 주시

일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 외무성 관리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남북 화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섭이 있는 8월15일 광복절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대결구도 뿌리뽑고 평화의 싹 틔우기



## '6·15 공동선언' 구체화 조치 어떻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각 분야의 협의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후속조치와 내용을 점검한다.

###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 분야                  | 주요 내용  |
|---------------------|--|
| 남북회담 준비 및 군사적 충돌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구성 직접 협수</li> <li>•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li> <li>• 남북연락사무소 조직 및 기능 정비</li> <li>• 김정일위원장 서울방문 준비</li> <li>• 군사적 충돌 완화 개입</li> </ul>  |
| 남북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 추진</li> <li>•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추진</li> <li>• 남북의 공동이익 사업, 복속이 제기하는 사업 추진</li> <li>• 청신갈채, 루지보장 등 우려를 방안 제시</li> <li>•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회 활성화</li> </ul>   |
| 사회 문화 체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해 주도적으로 추진</li> <li>• 휴전선 일대 밀려러야 풀려려 공동방재 추진</li> <li>• 2000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li> <li>•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li> <li>• 2002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li> <li>• 2002년 월드컵 본선개최 및 단일팀 구성</li> <li>• 경매(홍일) 옥구대회 부활 등 추진</li> </ul> |
| 국민적 공감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와 화해 협력 병행 추진의 일관성 견지</li> <li>•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li> <li>• 관련단체 및 민사와 의견 수렴</li> </ul>   |
| 국제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미 밀 공조 강화</li> <li>• 대북정책과 패러 프로세스 병행</li> <li>• APF(7월), UN총회(9월), ASEM회의(10월)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 유도</li> </ul>   |

### ● 이산가족 상봉

## 고향방문단 교환 첫 단추

고향방문단으로 오는 8월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남과 북한의 15일 공동선언에 따른 고향방문단 교환협약에 따라 대상자, 규모, 후속 조치 등이 관심거리다.

앞으로 협의과정 남북 양측은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위한 후속협의를 이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방문단 교환시점인 8월까지 협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직접사 회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등에서 직접지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문 규모와 대상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고향방문단의 범위와 규모 양측이 협의할

이산가족과 함께 예술공연단과 취재기자들도 각각 50명, 30명씩이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최소 50~100명 이상의 이산가족들로 방문단이 구성될 것이며 취재기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입장 고향방문단 교환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여는 계기로 보고 있다. 생사확인·시신교환을 비롯해 면회소 설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영회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시신 교환·상봉 등이 정례화,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방안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면 이같은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비전향장기수와 남북자문제 정부는 비전향장기수와 남북자문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서도 신속적인 상호주의를 적용,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취임 후 여러 차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속적인 적용이란 점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전격 복송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 50~100명선 구성 방침 장래에 면회소 설치 등 추진 비전향장기수도 신속 접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85년 전례가 참고 될 전망이다. 당시 양측은 50명씩의 이산가족을 교환했다.

● 이석우기자 [swlee@kldaily.com](mailto:swlee@kldaily.com)



합의문 교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11시20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공동서명하고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중앙청외대사진기자단

## 점진적 완전 통일국가 지향 **김대통령** 단번에 옛소련식 연방 창설 **김위원장**

### ■ 남북정상 통일관 비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일관은 과거에는 다른 점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김 대통령의 통일관에 김 위원장이 가까이 다가가는 황국으로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김 대통령의 통일관이 바이츠로 뜻을 피울 것 같은 분위기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는, 두 정당은 상호 체제의 존중을 인정하고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점에서만 시기가 비슷할 뿐 구체적인 통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남북연합→남북연방→1민족 1국가'의 점진적 통일방안이다. 반면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고

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 위원장은 단번에 연방국가로 창설하자는 쪽이다. 궁극적으로 김 대통령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지향하는데 반해 김 위원장은 옛 소련식의 연방국가로 꿈꾸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김 위원장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2개의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연방제 방안을 수정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달말 중국을 비공개방 방문했을 때 중국의 '1국가 2체제' 통일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렇다면 14일 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북한의 '3단계의 연방제'는 김 대통령의 남북연합 구상에 매우 근접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김성연기자 carlos@daily.com

### ■ 연방과 연합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 등 몇가지 낯선 용어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연방과 연합은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방(federation)은 같은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합중국이다. 현재의 미국이나 브라질, 옛 소련과 같은 국가형태다. 1국가 1체제의 유지가 전제된다.

반면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상이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연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제법적으로 외교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연방과는 차이가 난다.

국가연합은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이 조약에 의한 일종의 '동맹'으로 볼 수 있다. CIS라는 국가연합이 외교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그루지야 등의 소속국가가 독자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연합은 독립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 관계

#### ● 연방 같은 이념바탕 1국1체제

#### ● 연합 상이한 체제 인정 전제

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기업이나 합퇴가 연방에 비해 쉽다. 또 독자적인 군대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방은 지역정부 자체로, 개별적인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군통수권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지난 91년 수정한 고려연방제안은 전통적인 용어정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상이한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1국가 2정부 형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confederation을 쓰고 있다. 남북연합은 이보다 한 단계 덜 진전된 2국가 2체제인 셈이다.

● 구본영기자 kby7@daily.com

# “연방제 앞에 낮은단계 명시” 김위원장 설득

## ‘자주 해결’ 표현 수용하고 ‘나머지 4개항’ 끌어내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농담 섞어 答訪 요청



김대통령의 '평양 54시간'

8.15 남북공동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5일 오후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대중(金大) 대통령에 귀경인사들 하는 자리에서 그 '공급증'을 풀어주었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과 나누는 대화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종철(朴正植) 청와대 대변인도 평양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3시간50분 동안 출가편에 편지했던 지난 정상회담의 박정파 후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회담시간은 3시간50분(중간 휴식 45분 포함)이었지만 3시간40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그만큼 진지했고 신뢰를 쌓는 대화였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밝힌 김 위원장과의 대화내용과 박 대변인이 전한 회담 주본에 기록을 묶어 김 대통령의 ‘평양 54시간’을 재구성한다.

### ■ 통일방안 의견접근

15일 새벽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서 제2항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표현은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오랜 시간 설득해 얻은 결과로 밝혀졌다.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동원했던 연방제와 북한 연방제”의 차이를 “중앙정부의 존재와 권력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풀어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연합’에 대해 ‘연방제 2단계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양측에서 수뇌회의, 각료회의를 구성, 합의기관으로 만들어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수용토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 “젓먹던 힘까지 내 설명”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순간에도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연방제 형태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외교와 군사권한을 갖는 의미로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를 명시하자”고 설득, 결국 김 위원장의 동의로 인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 대통령은 “젓먹던 힘까지 내서 진실되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양측의 대화와 협조,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통일운동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는 게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 ■ ‘자주적 해결’

김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 표현을 북한의 요구대로 공동선언에 사용하는 대신 제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나머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관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했음을 내비쳤다.

14일 신야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자주 해결”이라는 말은 7.4 남북공동성명에도 있는 것”이라며 이 표현을 선언문에 넣을 것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옛날과 똑같이 자주, 평화, 민족 등 원칙만 얘기했다면 세계가 실망할 것이니 2항부터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내놓자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자주 해결은 당연한 말이지만 7.4선언 이후 지난 28년동안 아무 것도 되지 않았다”는 김과 2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화해, 불가침·교류협력 등을 선언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친 것부터 실천을 하라고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의 협상방식을 시

시하는 대목이다.

### ■ 공동성명 서명 논란

누구 이름으로 공동성명에 서명하느냐도 ‘논란’이 됐다. 북측은 국방위원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므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두 집단의 명을 받아 다른 두 사람이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측은 “우리는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상륙, 결국 김 국방위원장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 ■ 이산가족 교환방문

김 대통령은 도착인사에서 “공동선언의 조항은 어디까지나 실상민과 이산가족이 초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가 명시된 데 국내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언급이다.

### “8·15까지 통 크게 한번 하시오”

김 대통령은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다시 김 위원장에게 8·15까지 (이산가족 교환방문) 통 크게 한번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장기수 문제도 내가 국민과 상의해 보겠소. 먼저 잘 하시오”라고 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승용차 안에서(김 위원장에게) ‘서울 가는 즉시 직접지사에게 요청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7월부터 직접지사가 곧 가동될 것”이라고 말해 이산가족 문제 잘 해결해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 ■ 김 위원장 서울 방문

김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 “합의를 보는 데 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이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김 위원장께서 서울에 와야 민족과 세계사람들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1회성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에 김 위원장이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 ‘동방의지주’ 등의 말을 한 점을 지적, “김 위원장은 동방의지주의국의 예의를 굉장히 숭상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수록 위하고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안 온다면 뉘였느냐고 농담도 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답방을 약속받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김 대통령은 “회담과정에서 때로는 필명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몇번 있었으나 상의껏 노력하고 김 위원장도 상당히 협력해 우리가 (국민에게) 바친 정도의 합의물 도출했다”고 말해 회담과정에서 몇차례 교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이 우리와 합의된 시안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남방시기에 대해 이미 남북간에 어느정도 의견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 ■ 회담 분위기

3시간 50분 동안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퍼다가지도 남측 설명이 합리적이면 즉각 수용하는 태도도 보였다.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 방문 중간중간에 “나도 심심한 게 있다”며 그동안 남측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안들을 기탄없이 얘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원만하게 하는데 남측이 모순되게 한다. 그래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잘지 않게 다른 기사를 보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 서운했던 점 기탄없이 토로

반면 김 대통령의 정치역경에 대해서는 “여러번 북측까지 위대하게 하는 탄압을 받고도 김김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차례 존경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에 김 대통령은 북측에 대한 서운한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정 집수정 철폐사건이나 서해교전 등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해도 미사일로 얘기했고 주한 미군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다”면서 “대화는 매우 유익했고, 그중에 아주 좋은 진방을 발견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고 회담결과를 나란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통일영도자'로 변신한 '통치술 대가'



## ① 총론

대한매일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배일 속에 감춰졌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언행 및 활동 모습이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를 시도 하는 기획 연재물을 시작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사십의 세계적인 평의용인대통령과 또 한사십의 '스타'가 탄생했다. 평화용인대통령은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이고 남북정상회담 신드롬을 끌고온 사람은 바로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다. 그동안 김씨의 언행은 온통 해운 김정일이 배일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김정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연중의 귀재로 변신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0년 김일성총수령대에 이어, 동시에 관심을 보여 시지한 이후 약 33년간의 후계봉 차수업,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93년부터 이마 지인 김일성과 함께 해운 1년간의 공동총지, 91년 7월8일 김일성이 나게 이후 요성을 앞세 운 3년간의 유운총지, 97년 10월 10일부터 추대

술직함·유연성·치밀함 혼용하는 '실리형'  
33년간 '대권수업' 받으며 인민 '취락파락'  
재평가는 시간 두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에 이어 98년 9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이후 40년간의 대변신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61년 김일 인제자구에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됐을 김일할 때 정치적으로로는 김대중영이 훨씬 앞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도 60년대부터 혁명가인 아버지 밑에서 후계수업을 받아온 데 이어 6년간 1만 봉지할 해운 민관 봉치술에서는 대단한 노하 우남 숙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복정치, 인민정치로 내내우며 북한을 다스려온 김정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이고 외교할 뻔한 언행으로 관심을 보였다. 김대중영이 평양공방에 도착한 13일부 터 귀환한 15일까지 김정일은 온 세계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텔레비전을 통해 비친 그의 여유있는 모습, 거침없는 언행과 재스처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까지 존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이제 까지 우리 국민들사이에 각인돼온 김정일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초 김대중 대통령은 회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에 대해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상당한 직능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

담용 통해 그 평가가 율렸음이 입증된 셈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봉년 지도자임을 온연 중 내비치며 유연함과 치밀한 계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심리할 행기는 변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정일은 지난 14일 김대중영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선 회담에서 심정민, 박남자, 한국외 김지 등 북에서 급기시하고 있는 11인날을 거침없이 사운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면서도 내급대로 치밀한 계산에서 발코를 갖이라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동안 무역협약에 의한 통일관용류 구사해 온 김정일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할 보인 것은 무역협약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공동상을 인정한 점이다. 북한은 회담 하루 전날 12일차 노동신문은 정운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철학이자 통일철학은 '자주'라고 밝혔으며 '조국통일의 구상(敎想)'이라며 대대적인 신장을 펴고 있다. 김정일은 그동안 조국통일 3개원칙, 3원칙 후 대대전 10대강령, 고려민 주인명공과국 창

법방입통 3가지원 조국통일 3개원장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주석의 유충을 받들어 반드시 우리대에 통일위업을 이룩하자고 강조해왔다.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합의문에 김일성주석이 제시했다는 조국통일 3개원칙을 명기하고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포함시킨 데서 김정일이 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김정일이 지난달 29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1국·2제에의 통일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의 군사에 관한 권관을 연립(연방)장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남북이 별도로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역사적인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재평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김정일이 김대중영과의 회담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치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 가운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한 점과 의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계산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직함보다는 '강군남'이라는 호칭 사용을 선호하는 김정일이 앞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그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 유은필기자 eky73002@hcdaily.com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흘

|         | 6. 13  | 6. 14   | 6. 15  |
|---------|--|---|--|
| 복장      |  |   |  |
| 카키색 점퍼옷 | 카키색 점퍼옷  | 회색 인민복  | 카키색 점퍼옷  |
| 안경      | 얇은 검은색 선글라스  | 굵게 무색 안경  | 얇은 검은색 선글라스  |
| 김일성 배지  | 미부착  | 부착  | 미부착  |
| 파격적 행보  | ▲평양 순안공항 영접 나눔<br>▲공항서 태화원 영빈관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동승<br>▲김대중영과 인민군 외장대 사열·분열   | ▲2차 단독정상회담 3시간 5분간의 이례적인 정시간 회담<br>▲심야의 남북공동선언 서명<br>▲공동선언 남북 정상 서명후 즉하주 '원 샷'  | ▲영빈관 환송오찬서 남북 기업인들에게 일일이 술을 들림<br>▲평양 순안공항 환송 나눔   |
| 어록      | ▲투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도 도둑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인입니다. (백화원 영빈관 1차 중상회담에서)<br>▲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 2박3일동안 대담해줘야합니다. (··) |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백화원 영빈관 2차정상회담에서)<br>▲어제밤 남북 테러비 왔습니다. 실랑민과 탈북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속을 태웁니다. (··)<br>▲옛 서울신문은 제호가 바뀌었다면서요. (2차 정상회담 중간휴식중 대한매일을 보면서) | ▲모두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술스러이 날키롭다고 하더구만. 술스러이야 통일부장관이 나보다... (영빈관에서 환송오찬서 14일의 만찬 때의 음주를 회재로 올리면서)<br>▲김대통령께 팔같이 있는 외자를 갖다 주시오. (환송오찬서 김대통령이 팔같이 없는 외자에 있어 있는 것을 보고 외친 것을 불러 호통치면서) |

대한매일  
2000. 6. 16 (금)

# '통일로 가는 길' 공통분모 찾았다



## 통일방안 의견접근 안팎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미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이 외교와 군사권을 남북 지방정부 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 일단 서로 오가며 돕는 '사실상의 통일' 공감대 남북 연합단계에 근접

이같은 '속보'는 11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지 하루 만에 나왔다. 숨겨진 전전인 민간 통일방안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일반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으로 남북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대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합의는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 양측이 통일로 가는 로드맵상의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특히 양측이 당장의 법·제도의 불일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잘 알려진 대로 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간의 협력관계로 제도화에 합리적 통합을 이룩하는 남북연합이 1단계다. 이는 우리의 역대 정부가 다들어온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성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번 북한이 지난 80년 채택한 '고려연방제안'은 단번에 1민족1국가2체제로 가지는 안이었다. 그 후 91년 김영삼(金泳三) 주석이 남북 지역정부에 대입을 권할 줄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별칭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일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천거한 시차가 있었다. 북측 안을 낮은 단계나 제도 1국가로, 남측의 남북연합 단계는 2국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남측의 연합 단계에 근접한 상황으로 볼어진다. 이는 여차와 완전 통일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서로 오가며 돕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단계로 간 뒤 제도적 통합은 뒤로 남기지는 발상할 수도 있다.

●구본영기자 kby7@kdaily.com

| 항목    | 남측 (South)   | 북측 (North)   |
|-------|--|--|
| 방안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
| 원칙    | 자유·평화·민주   | 자유·통일·평화·민족대단결   |
| 과정    |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성립,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장차 마련-통일국가 (통일제-통일국회-통일정부)  | 남북 세력당 사회단체 해체민족 단체 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이유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   |
| 연방 단계 | 1민족 2체제 2정부<br>연방정부(聯)<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br>(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연합' 방안 제시. 이대 '남북연합'을 실시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둠)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br>연방실현위원회(연방정부)<br>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 동포 대표로 구성)<br>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
| 주요    | 통일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  | 내정권은 지역정부, 군사권·외교권은 지역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있음.  |
| 최종 형태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br>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 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br>통일국가는 참칭적,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 맡기심.                                   |

## 남북은 '2국가 인정' 중국은 '실체 부정'

### ■ 中 '1국2체제안' 과 차이점

남북간의 합의한 통일방안과 중국의 1국2체제 통일방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국가 실체인정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 남북간은 두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의 1국2체제 통일방안은 두개의 실체를 부인한다. 고도의 자

치와 자유권을 부여하지만 하나의 중국만 인정한다.

- 국방·외교권 "하나의 중국원칙"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게) 국방·외교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 중국의 통일방안의 특징.
- 국제적 대표성 국제기구, 올림픽 참가 등을 별도의 이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완에게 병합되던 '다이베이' 자

이아'라는 이름으로 고도의 자유권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 중국방인의 특정 타이완을 여러 성(省)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라고 강조한다. 현재 본격적인 중앙과 지방관제를 상징하는 미국식 연방제에 가깝다.
- 남북한 합의의 특정 남북한은 동등한 관계로 설정한다. 그러나 민족대부 관계라는 커다란 지평 아래 두 국가를 포함하는 형태다.

●이석우기자 swlee@kdaily.com

## 미군철수등 조건없어

### 北측 진의 우선 파악을

●김영호(金英浩) 성신여대 교수 연방제 관련 통일 체제를 견제해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헌법에는 미 연방국가는 동맹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북측이 제시한 연방제는 이같은 연방제 사이의 연방을 상정하고 있다. 양측의 각각 상이한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를 건설하고자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국가연



합안과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연방정부로 나가는 과도기에서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합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은 언제나 주권미준할 수, 국가보안법 전체 등의 견제조건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연결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그러한 견제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제언

●이서항(李瑞恒) 외교의보연구원 외교수석 장성이 합의한 통일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측의 통일방안을 인정한 데서 출발한 방안 첫걸음이다. 김정은(金正日)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낮은 단계의 연방'은 우리측 통일방안의 집행을 위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이행되려면 남



북간의 대결 구도가 먼저 완회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신뢰조치가 없으면 이행될 수 없다. 본사로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상사되지 않은 때는 통일방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에게 양한 연방제를 인정하라는 논의가 진전시킨 데 대해 이번의 방안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다.

## 대결구도 먼저 완화

### 군사적 신뢰조치 필요

북간의 대결 구도가 먼저 완회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신뢰조치가 없으면 이행될 수 없다. 본사로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상사되지 않은 때는 통일방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에게 양한 연방제를 인정하라는 논의가 진전시킨 데 대해 이번의 방안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다.

# 김위원장 공항까지 배웅... 3차례 포옹



## 평양 환송·귀경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내외는 2박3일간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마치고 15일 오후 5시25분 성남 시골공항을 통해 무사히 돌아왔다. 앞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남북 두 정상은 뜨거운 포옹을 나눈 뒤로 기차위탁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공항 환송 오후 4시15분경 공항 환영식장에 도착한 김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13일 도끼배와 마찬가지로 군악대의 연주 속에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들은 환송 나온 평양 시민들의 환송에 간간히 손을 흔들거나 박수로 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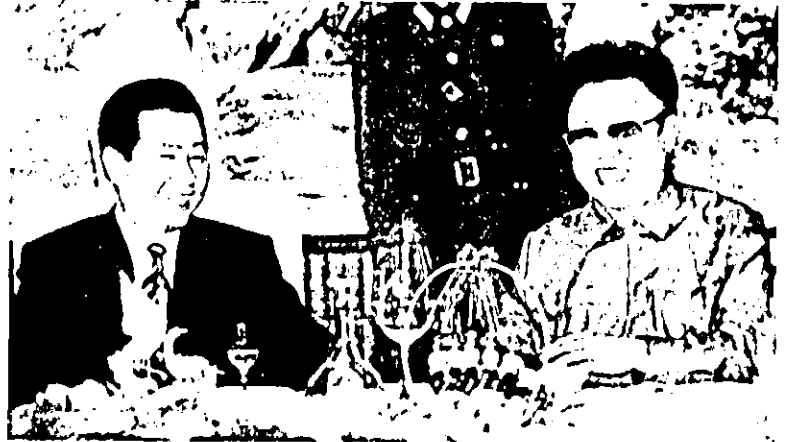
김국방위원장은 또 이희준(李熙純) 여사와 오랜동안 손을 잡고 있는 등 2박3일동안 "같은 집"을 나누었다. 이어 사노 북한측 대표단과 위원이 인사할 나았다.

김대통령 내외가 오후 4시13분경 건담기 안에서 돌아갔는데도 김국방위원장은 자리를 뜨지 않고 트럭 밑에서 손을 흔들고 박수와 지어 배웅을 했다. 김국방위원장을 옆에 도우며 있던 김 여사도 김위원장을 배웅도 건담기가 이륙할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다.

## 의전장 3차례나 집책

●출발 오한 김대통령과 이여사들 뒤따라 민전장에 들어선 김국방위원장은 헤드테이بل에 착석하면서 김대통령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은 팔걸이 없는 의자로 놓여 있지 바로 뒤에 서 있던 군복차원의 의전장을 불러, "김대통령께 팔걸이 있는 의자를 갖다주시요"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에스무타 준비하지 말고"라고 세 차례나 관계자를 질책했다. 끝까지 김대통령에 대한 까닭없는 예우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조병창 총정지국장은 오찬사에서



짧은 만남 큰 성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낮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송별 오찬에서 밝게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평양 총화대 시즈키지단

나타났다고 하더라도"하며 "어제 10잔이나 마셨다"고 장난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대통령이 "4차례에 걸쳐 먹었다"고 하자 김국방위원장은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라고 겸손해하며 김

## 양복 차림 趙明祿군총정지국장 눈길 오찬사 낭독... 軍 공동선언 지지 천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위해 15일 평양에서 열린 오찬 및 순안공항 환송행사에 군부 실세로 당 시절 3차 위임 조명록(趙明祿)군 총정지국장이 양복 차림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조 총정지국장은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서방 언론에 비추면 그의 모습은 예의 없이 군복 차림이었다. 때문에 우리의 전문가들조차 그를

금방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조 총정지국장은 이날 오찬 식장에서 김대통령을 대변해 오찬사 낭독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과시했다.

그는 오찬사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통일 건설에 대해 만족한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북한 군부의 지지의 분명을 밝혔다.

●오일민기자 oim@kcdaily.com

## 오찬장선 "팔걸이 의자 드러라" 세심한 배려 延享默비서 백화원 오찬때 처음 모습 드러내

했다. 한복을 쉽게 차림은 평양 시민들은 반갑게 반겼을 뿐 아니라 "반세"를 외쳤다. 동향도적 환영행사에서는 "반세"와 "김정일"을 외쳤다.

## 탑승후에도 자리 안떠

공항에는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유중(金裕中) 야대변위원회의 위원장, 안경숙(安敬淑) 차장도원(趙明祿) 조 총정지국장 등 북측의 핵심 인사들이 15일 오후 4시 15분경 순안공항에서 열린 오찬때부터 처음 모습을 선보였다.

공항에서 양복차림으로 출발할 때처럼 송용차(宋容 차) 함께 타고 공항에 나온 두 정장은 헤어지기 이전인 듯 3차례에 걸쳐 뜨거운 포옹을 했다. 김대통령은 "도 만났구나"라고 다짐을 약속했다.

"두 분이 천리헤안으로 만독이의를 첫째로 반복하여 역사적 결단을 내리 주었다"고 위해 두 정장과 김석지등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유리측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가 앞에서 "7,000만 민족의 염원에 평양도 물고 서울도 물었다"면서 "특히 공항에서 김대통령이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세삼 김희에 맞은 표정을 지었다.

## "어제 10잔이나 마셨다"

김대통령은 임복모의 담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기에 거운듯 시종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 잠기는 모습이였다. 담사가 끝난 뒤 두 정장은 서로 진을 마주치며 간담을 했다.

전날 서명서에 서명한 뒤 "일상"으로 속해의 잔을 들었다 김국방위원장은 "모두들 김정일 위원장이 술집력에

대통령에게 독주 대신 모도주를 권했다. 그는 또 헤드테이블의 이희준(李熙純) 장외대 경제수석관 향해 "이집에 화공장 시설을 보라고 했는데 잘 보았느냐"면서 "외국에 많이 다녀왔을 테니까 다른 곳과 대비해 어땀다"고 물었다. 이에 이수석은 "연간 100만마리를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로 자랑하됐다"라고 하자 김위원장은 "그렇다"며 흠뻑했다. 그는 이유에도 계속 피종된 주도하며 대화할 이끄는 호반한 스타일을 과시했다.

이날 오찬에서 남한측 기업인들은 김국방위원장에 "앞으로 허여의 기원하는 뜻에서 술을 한잔씩 권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국방위원장은 남측 기업인들에게 술을 한잔씩 들었다. 김석지장은 백지현(柏智現)은 원부장관의 제의로 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우리의 소관"을 힘잡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대

## "새달 G-8회의서 지지 성명"

## 모리 日총리 밝혀

【도쿄 15일 연합뉴스】일본은 남한과 남한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서명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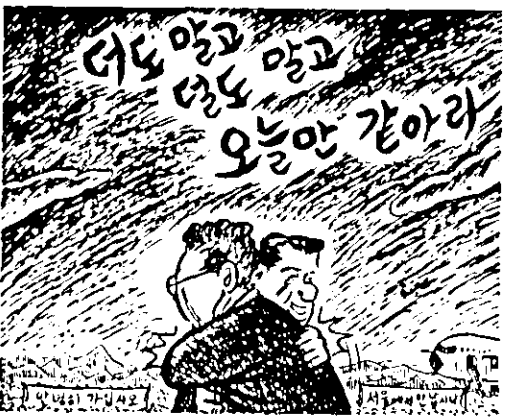
라 다음달 오가니와(ワシントン)에서 개최되는 G-8(미국 주역 8개국) 정상회의에서 남측 대표를 전면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도록 한 방침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는 15일 "G-8에 한반도의 분열과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관해 전면적인 지원 태도를 취하도록 요청. (의견) 모리 총리의 중요한 촉구사항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 대한매일민평

백두현 bnh@kcdaily.com



# 金·金 트랩앞 ‘환송포옹’에 기자들 갈채



## 프레스센터 이모저모

“충분과 긴장을 가라앉히고 이제 차분히 후속조치를 지켜보자”

서울 초강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서울프레스센터는 15일 오후 9시 공식 개관, 복음이 울려지듯 급박했던 지난 서울간을 정리했다.

공식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구경처럼 몰려들던 방송 카메라, 사진기자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브리핑을 끝으로 상당부분 철수했고 취재기자들은 외남 마지막날을 결산했다.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명에 귀국 소식을 마지막으로 다녔던 대우보 외신 기자들은 취재장비를 추스리며 떠날 준비를 했다.

한국인 남변을 둔 영국 BBC방송국 폴란도 기자 라나다 김(여)은 사진임을 전제로 “남편의 조국에 맞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기 바란다”면서 “남북정상 합의된 서명은 대단한(Great) 일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진정어를 내비쳤다. 그는 “김대중영이 공방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충천에 있는



내외신 기자들이 15일 서울 롯데호텔내 남북정상회담 프레스 센터에서 김대중 대통령외 방북 마지막 날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프레스 센터는 이날 오후 폐관된다.

●이언티기자 ut@kdaily.com

## “합의문 서명 대단한 일... 후속조치 지켜봐야” 외신기자들 “金대통령 귀국” 타전후 짐 챙겨

시기를 반전에 말(6)과 함께 시간을 보낸 예감”이라며 감을 표했다.

●오후 4시 김대통령 임명이 순안비행장에 나와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필리핀 브릴 통해 지켜보던 기자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트랩에 오르는 김대통령을 포옹하지 마지막 박수갈래를 보았다. 첫날 “깜짝” 영감에서도 약속만 나왔던 남북정상들의 뜨거운 포옹이 케렌을 앞두고 식어간 프레스센터의 열기를 다시한

오랫동안 이날 오후 내외신기자 및 행사 관계자들을 위호하는 송별리셉션을 주최했다.

세계적인 이벤트팀 취재하느라 파급치가 됐던 기자들은 다과를 즐기며 못나한 얘기꽃을 피웠다. 한국방문 준비기간도 취재자에게 기금기반과 합기도구함을 선물, 유종의 미를 거뒀다.

●홍길성기자 uk@kdaily.com

번 달군 순간이었다.

●3일동안 프레스센터 운영에 불신앙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롯데

## “공동선언 실천 힘 모으자”

### 시민·노동단체 환영성명

시민·노동단체들은 15일 일제의 남북공동선언 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도 달한 것은 냉전적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넘어서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고 5개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 통일연회는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려면 군비축소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냉전적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는 후속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화해협력국민연합회(민화협)는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최대 아픔인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긴장감이 됐다”면서 “남북 동포 모두는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상호 신뢰회복의 길로 보고 북한 노동계와의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면서 “예상산업노련의 외국인 신원용 북한신원인도 내세우는 사업, 월도노조법 중심으로 한 남북합동사업, 예능인노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예능인 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00 통일업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 등 남북 노동자의 자주교류와 통일 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면서 “북쪽의 조선직업노동총과 남쪽노동자축구대회와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어 추진계획을 협의할 것이며, 축구대회 이전에 남북노동자 통일포럼을 열어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온건대량화해연진 행사준비위원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등도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 “오랜만에 편안히 꽃게 잡아요”

### ▶ 서해交戰 1돌 연평도 표징

15일 북한발과 불교 10여㎞ 떨어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역. 지난해 바로 오늘 남북한 임금이 맞붙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평온한 가운데 꽃게잡이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껏잡고 꽃게를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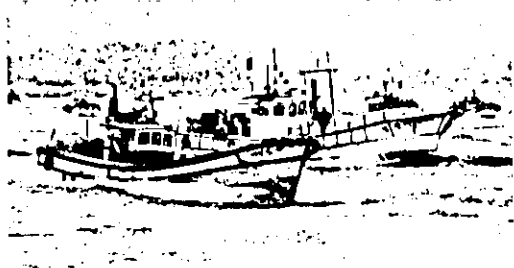
지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꽃게 낚는 데 위기 상황을 맞았던 북한어선들이 올해는 자취를 감추며 그물망 잡아당기는 어민들의 손은 가볍기만 하다.

### 남북화해·꽃게잡도 좋아 신나게 그물 당겨

### “조업규제 완화... 공동어로구역 신설했으면”

지난해 ‘연평해전’으로 원폭폭발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북한이 발표한 통장갑사로 긴장감이 가시질 않던 연평도에도 보충방 범선이 찾아온 것이다.  
15일 1주기를 맞은 연평해전은 북한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일 남여은 북한한계와 우리 해군이 맞붙어 우리측은 3명의 부상자가, 북한측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이로 인해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해

어떻게 10여일간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신장장애 배를 묶어둔 채 애달 대위 어민였다.  
그러나 요즘은 55척의 어선이 총출동해 꽃게 한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드리우고 있다. 긴장적인 꽃게 출어로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들었지만 가격이 좋아 신이 나았다.  
연평도 어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업규제 완화라는 꿈보



서해교전 1주년이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5일 연평도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활차게 꽃게를 가리며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다.

●연평도 김명국기자 Deunok@kdaily.com

날 낚수 있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민회중 신승원(申承元·61)씨는 “장상회담으로 계기로 남북한 어선들 간에 반규제 없도록 공동어로구역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조업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평도 김희준기자 hjun@kdaily.com



# 美 “남북 통일 향한 거대한 첫걸음”



## 주변 4강 반응

○ **미국** | 워싱턴 특별대표팀 |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 새로운 남북관계가 구축됨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4일 남북 정상회담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한 공동선언문 서명용 "의망직"이라고 평가하고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합의에 대해서도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특히 리처드 마우셔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회담에서 아주 중요하고 환영할 소식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김대중총리의 비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조 록하드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정세브리킹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회담을 열 것 자체가 중요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환영의 뜻 외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질지 대해 우려의 감정을 내비치는 한편, 북핵미사일-핵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 부담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록하드 대변인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출발을 한 적이 있다"면서 "회담 결과와 공동선언에 따라 관계 풀려갈지 어떻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hwy@kubly.com

○ **일본** | 워싱턴 특별대표팀 | 일본 정부는 5개항의 공동선언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리 요시로(森田) 총리는 15일 "베트남 정변이 무너진 것과 같은 분위기를 한반도 면에서 느끼고 있다"며 7월의 오키나와(沖縄) 신년 8개 국(G8)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민족통일과 위한 건전한 지평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요케이(河野) 외상은 "두 정상이 직접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이 북-일 수교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이 국제 외교무대에 일출을 도라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향후 대외 정세에 커다란 변화의 시작으로 인식, 수교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합의문서에 마-일의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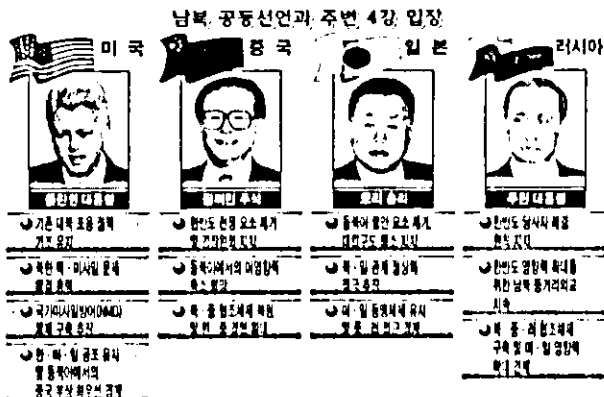
## 日 “5개항 지원”... 북·일 수교협상 기대감 표명 중 “역사적 중대사건” 축하... 역할 확대 저울질 러 “한반도 문제 자력해결 적극 기여할 것” 성명

관심사인 핵-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과 관련, 향후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shin@kubly.com](mailto:shin@kubly.com)

○ **중국** | 베이징 특별대표팀 | 중국 정부는 15일 외교부발 불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저행된 정상회담에 중요한 성과인 것은 역사적인 의의가 담긴 것은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회담이 성공을 기대에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기대를 느끼고 있으며, 축하를 표시한다"고 하며 각국적인 지지의사를 표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측은 남북 정변에 계속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상호 신뢰를 증진사



○ **러시아** | 워싱턴 특별대표팀 | 러시아 외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지극히 반격하고 있으며 남북한 협력의 내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 성명은 이어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과 포화, 그리고 평온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려는 양측의 진지한 의도와 신의의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러시아는 이같은 과정에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 이라면서 "이같은 의사는 최근 발표된 러시아 대외영의 남북한 양자 자도차외의 접촉 계획에서도 입증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로우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은 자국에 고무적이며 커다란 나날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우코프 차관은 이날 이타르 타스 통신을 통해 "러시아는 특히 남북한간 대화의 시작되고 민족화합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kkm@kubly.com

##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 맞았다”

### 각국 언론 보도내용

○ **워싱턴 포스트** | 워싱턴 특별대표팀 | 미국 언론들은 남북 공동선언 합의 소식을 알리며 긴급뉴스로 대외에 이한 한반도 화해, 통일을 환영 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한간 이같은 조치가 남아있어 통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뉴타이프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11일

로 이집트 1면 머릿기사로 올리며 "민주주의 영웅의 무사히 지위를 공헌 김 대통령이 남북한간 대화를 복원함으로써 한국 현대에서 커다란 변화의 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한국측이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핵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유에 대해 북한에 양해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CNN, ABC 등 방송들도 전세계의 최대 뉴스라고 보도하며 기리한 초석이 놓였

### NYT, 이집트연속 1면 톱뉴스로 佛TV “화해의 조심스러운 시작”

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 문제 및 북한 정세에 미사일, 핵개발 등 두개의 전략적 관심사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일본** |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15일 5개항에 걸친 남북공동선언을 일제히 1면 톱뉴스로 보도, 세계시각 뉴스로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김정서기, 방한을 수락"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는 긴장완화와 남북 평화공조, 나아가 통일까지 전망하는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는 밝혔다.   
○ **중국** | 중국 언론은 환영과 지지로 표했다. 신화 통신은 합의문 서명 직후인 14일 오후 8시20분(현지시간)부터 "역사적 합의서", "원칙상 합의서" 등의 표현으로 합의문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 **유럽** | 프랑스 TF1-TV는 14일 남북 공동선언에 "화해의 조심스러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 15일자는 정상회담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로 '수수계 지도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 변화를 접했으며 북핵의 리드오세치 치이흥, 슈미켈 등은 "통일의 초석"이라는 장에 의 미부여했다. 영국 BBC도 공동선언 내용과 김정일 위원장의 담판 합의의 소식 등을 비중있게 전했다.

# “제2차 정상회담 예고 서울 答訪 중요한 의미”

미국의 세계적 석학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박사(81·버클리대 명예교수)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함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과 관련, 연합뉴스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했다.



스칼라피노  
美 버클리대 명예교수

반세기여 만에 처음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신뢰 구축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적 합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평양행의는 특히 몇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경제협력 증진에 조기진전을 약속하고 있다. 합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공동선언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들

또 김정일 위원장이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합의한 것은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담의 중요성은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한 과정의 시작이나 여부에 있다.

추가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러 단계의 실무급 회담도 열려야 한다. 경제적인 양방대화들 통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자와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하는 비공식적 대화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통일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남북이 직면한 모든 현안이 포함된 것은 이를 향후 의제로 다룰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단, 조 심할 필요는 있다. 과거에도 주요 합의가 있었지만 단행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회담결과에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국이 그렇다. 김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조화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가 하는 중대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한 북쪽은 북한의 불모나 전방의 결과로만 가능하다. 이는 남한이나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 개방을 위한 시간을 갖고 김정일 위원장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다. 시한이 정해져서도 안되

며 위협이 있어서도 안된다. 더욱이 통일과 주제는 남북이 지 외세 열강들이 아니다. 두개의 정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체(confederation)가 가장 현실적인 발전형태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한가지 큰 정책 변화가 진행중인 것이 분명하다.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경제개혁과 고립종식을 위한 외부세계 진출이라는 새 전략을 걸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변화가 계속될 확률이 65%로 보고 있다. 어느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북한에도 필요할 것이다.

## 北 정책 근본적 변화 시도

이직 ‘개여’이란 용어를 사용할 순 없지만 북한이 점점 확산되는 경제 변화 과정에 수용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법과 경영, 각종 전문분야의 훈련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어 점차 엘리트층이 이남에서 테크노크리트로 바뀌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김정일은 지식이고 전문에 능숙 보인다. 심각한 경제시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력이 위태롭지 않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군부의 뒤흔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부패와 정부의 경제통제 약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부가 위엄하다는 조짐은 전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 정책 임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당서요강(黨書要綱)이 된 이 시점에서 예측하면 어렵지만 당의 노선을 추구한다면 동북아에 미칠 효과는 극적일 것이다.

# “남북 화해 美최대희망 실현된것”

주한미군 위상 당분간 변화 없을것

## 보스워스 주한 美대사 CNN인터뷰



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화해, 협력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 “외교와 (군사적) 역지력의 조화를 통해서 최선의 희망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위상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이날 서울말로 방영된 CNN 방송의 남북한 정상회담 관련 특집프로그램에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형성됐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 안정의 원소가 남북한 대화라고 생각했다”면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미국의 정책이 실현됐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보스워스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 변화로 불완전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할 수 있는 척도는 북한의 행동과 발언”이라면서 “북한이 한국의 화해 촉구에 진지하게 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산된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해 북한의 변화와 미사일 방어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美對아시아정책 재검토해야”

## 李洪九 주미대사 교도통신 인터뷰



은 향후 수년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북한의 위협에 반대한다고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과의 대북 경제개조 조치 해 제 방침에 대해 이대사는 “미국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한국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변화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이 북방을 향해 나아가자” 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핵무기 제조에 나서는지, 또다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구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대(對) 동아시아 정책의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가 14일 밝혔다.

이대사는 이날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합의한 직후 워싱턴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앞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 및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차기 대통령

# “감격과 영광의 연속” 역사의 현장

## 동참 가슴벅차

대한매일  
2000. 6. 16 (금)

### “北측 동포들도 김대통령 통일철학 신뢰해”

●김민희(金民熙)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머물렀던 243명은 감격과 영광의 연속이었다. 북측 동포들을 만나보니 남북 통일에 대한 큰 희망과 우리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철학이 가지는 진효(眞效)다. 남북한 7,000만 동포는 물론 전세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



남북간에 서서히 화해의 기운이 짙고 있다.

롯한 북측의 지도자들이 김대통령의 통일 철학에 신뢰할 기운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하고 회담이 나온 것 같았다. 대화 의지가 열렸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수행한 130명의 공식·비공식 수행원들도 얘기 보따리를 한 아름씩 들고 왔다. 수행원들이 전해온 생생한 평양 소식을 모았다. (무순)

수행원이 전하는 평양소식

### “경험 물고 확실히 튼 것같아... 협력에 만전”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 회장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확실한 불쏘시개 갖 것 같아 경제단체장의 현시점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투자보장 및 이종과제방지,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경제단체는 기업이든 협력할 준비가 다 돼있음을 함께 확인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외세줄 배제하고 자주적 남북 경협을 통해 강대국으로 거듭나자”고 말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했다. 특히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정운업(鄭雲業) 회장은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경제협력의 구체화시키자고 강조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정부의

### “金위원장 만나니 인간적인 품모 물씬 北에 통합문학독본 함께 만들자 제안”

#### 만천장서 자작시 낭독 고은시인

시인 고은씨(高銀·67·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는 15일 “북한도 이제까지의 대결구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각상을 보여준 것 같았다”고 243인 동인의 방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저녁 서울에 도착, 청와대 연무관 뒤뜰에서 북한을 함께 다녀온 특별수행원들과 기념촬영으로 해단식을 대신한 뒤 삼기권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사이에 몇 차례 합의서 작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언어’로만 남았지 진전이 없었지 않느냐”면서 “그러나 이번 방북에서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은 공존의 인식을 새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만찬을 베푼 자리에서 “대동강 앞에서”라는 제목의 장시(長詩)를 낭독하며 분위기를 속연케 했었다. “시는 그날 아침에 쓴 것”이라면서 “당초에는 낭독할 계획이 없었으나 시를 썼다는 사실을 김만길(金萬吉)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중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동명호텔을 방문했을 때 큰절을 올린데 대해서는 “고구려를 세운 고구몽은 우리 시조”라며 자신이 동명왕과 같은 고씨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히 웃었다. 특히 북한에 머무는 동안 사회문화단체총합하는 김영대 민회협 위원장 겸 사회민주당 위원장과 만났다고 소개하고 “그에게 ‘통합문학독본’ 같은 것을 만들어 남북이 함께 공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문학독본”을 만드는 공동작업의 가능성에는 “8·15 이산가족 상호방문 이 성과를 거두고 양측이 공명할 양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낙관하는 표정이었다. 김정일위원장의 인상은 “처음 만났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면서 “속어 있는 말을 결코 예루지라도, 꾸미지도 않는 허심탄회하고 인간적인 품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08년7월 보통 동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고씨는 “그 때와 지금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순간에 동참했다는 감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기자 dcsuh@daily.com

### “끊어진 국토와 민족의 핏줄 잇는 큰 사건”

●강만길(康萬吉)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15년만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현장을 목격한 것은 천마대로 엄청난 감격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끊어진 국토와 민족의 핏줄 잇는 초석이 된 사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어 피격적으로 환대했다. 그동안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대단히 원만하



한 역사와 사자들이 만남을 기대했으나 이번 일정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고 소개하는 인상을 받았다. 또 약속할 하는 손이 힘이 들어 있었다. 방북시대는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으며 공명해 보인다는 인상은 느껴지지 못했다. 출발전 북

### “남북한 작가 작품 100권 발간 협의끝내”

●차범석(車凡錫)예술원 회장 35년만에 기다려온 보람이 있었다. 서로 머리 맞대면 심미리가 풀릴 줄을 왜 그렇게 오래 믿기를 놓아왔는지 돌아해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방북의 성과물은 “통합문학독본” 발간이다. 남북한 작가의 작품 100권을 실는 김만길 발간은 북측 민회협과 협의할 못했다. 예정했던대로 2000년까지는 완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들의 눈높이 모두 찬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방북길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환영·환송식에 나온 시민들의 열광적인 표정들이다. 우는 사람도 많이 봤다.

### “北측 정성어린 환대... 잘못된 선입견 달라져”

●이원구(李元九)자민련 외무 이번 방북 방문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내 생애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의 100만 원 소리까지 들었던 환대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순안 비행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뜨겁게 악수할 나뉘는 순간은 마치 참치된 횡동사전을 보는 듯했다. 회담의 평정은 남북정상회담



였다. 종영을 마치는 의지였다. 그동안 북측에 가졌던 이미지는 모두 잘못된 선입견이었다.

이러기보다 가족친화회담이라고 불렸어야 했다. 한 민족이라는 강한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북측 인사들은 우리를 따뜻하고 정성어린 진심으로 환대했다. 종영을 마치는 의지였다. 그동안 북측에 가졌던 이미지는 모두 잘못된 선입견이었다.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급진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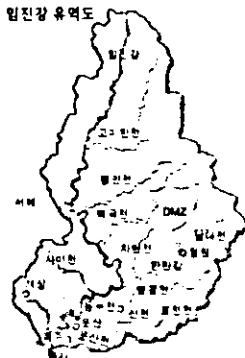
## 홍수방지 위한 '남북 협력사업 1호' 될듯

남북협력사업 중 가장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떠올랐다. 경의선 철도연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으나 당장 유역 홍수에 대비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남북협력사업 1호'로 기록될 것 같다.

임진강 지역은 해마다 여름철 홍수로 막대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유역면적 8,117.3㎢, 유역연장 254.6㎞의 3년의 2가 북한쪽에 있어 남북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으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기북부 지역의 수해방지책 위해 북한측에 임진강 유역의 공동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의한 바 있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사업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남북한이 갖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에 대한 강우와 수위자료인 수문(水文)자료를 교환하고 전문기술인력 교류, 수계 현장답사 등 인적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남북 공동 수자원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공동 수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홍수방과 특의 높이, 폭우 결정해 존살을 통한 하상정비 등 개발사업은 벌이고 임진강의 치수 및 하천환경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경보시설 공동 설치와 운영, 하천정설 및 골재채취, 독축조 등 치수사업과 농업홍수 등급 및 수도사업 등 이수사업 중 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할 예정이다. 양측 협력의 폭이 진전될 경우 정부가 임진강 지류에 추진 중인 다목적댐 건설방안을 수정, 북한측 본류에 다목적댐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임진강 수방대책의 핵심인 홍수조절용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 지류인 한탄강과 영평천에 각각 1곳씩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 후보지 선정작업을 해 왔다.

●특정기자 sung1@kdaily.com

# "서울·평양 자유롭게 오가며 노래부를 날기대"

## 재일 한국인 오페라 가수 전월선씨

"남북 두 지도자가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장면 을 보고 흥분이 다가오고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재일 한국인 오페라 가수 전월선(田月仙·41·여·도쿄 거주)씨는 남북 장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남다른 감회감을 느꼈다. '남과 북이 모두 조국'이라는 신념으로 20년 가까이 노래를 불러온 그녀로선 자유롭게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공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85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음악제에 초청돼 김일성(金日成) 주석 앞에서 북한 가곡을 불렀던 전씨는 93년 조선 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북한 땅에서의 공연이 불가능해졌다. 한국 국적 취득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무대에 서고 싶어서였다.

그녀의 부모님도 국적이 다르다. 경남 출신으로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온 아버지 석만(萬·72)씨는 해방 전의 조선국적을 유지해오다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어머니 김갑선(金甲仙·75)씨는 아직까지 조선국적을 갖고 있다. 그녀의 친척은 남북 양쪽에서 살고 있다.

전씨는 "시즈오카(靜岡)에 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북이 만나는데 50년이 넘게 걸렸구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94년 서울에서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고 97년 5월에는 광주 '통일음악회'에 참가하기도 했던 전씨는 "남북 예술인 교류가 본격화되면 평양의 무대에 서서 다시 통일의 염원을 담은 남북의 노래를 부르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임진강' 등 북한 노래 CD도 발매할 예정이다. ●특정기자 mary01@kdaily.com

# "재일동포 시절 조국에 못다한 보답 하고파"

## 통일기금 1억 기탁 경남 하동 산림경영인 김용지씨

경남 하동의 전문 산림경영인 김용지(金龍智·72·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33의1)씨가 통일기금 1억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김씨는 지난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방문을 지켜보다 거래의 염원인 남북통일에 정성을 보태기로 결심하고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 전달했다.

하동읍에서 태어난 김씨는 모친 가난으로 살길이 막막하자 10살 되던 해인 지난 38년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하고 돌아온 재일동포 일본인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막노동 을 하고 생활했지만 정직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했다.

지난 70년 귀국한 김씨는 다른 재일동포들과 달리 육림사업을 시작했다. 6·25당시 조국이 풍진동화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징집직령이 됐지만 외국에 살면서 참전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 아 이를 풀기위해 나무삼기에 나섰다. 만학 이 때 국내에 살았다더라면



전사했을지 모르는데 외국에서 일신을 편히 살았으므로 늦었지만 조국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김씨가 심은 나무는 모두 38만여그루로 편백나무와 느티나무, 화백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며 면적은 129ha에 달한다. 나무삼기에 나선 이후 대일 도시락을 싸 들고 조림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산봉에방기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올해 식목일에는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은 국민이 열망하는 조국통일에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성공을 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동 미중기자 jeong@kdaily.com

# 대한매일

2000. 6. 16 (금)



# '평양의 환대' 서 經協결실 예감



6월13일 오전 9시48분.  
"지금 38도선엔 남과 남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비행기를 타고 38선을 넘는 게 시원한가? 봄이 아니겠지... 가을은 흥분이 앞이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으나 베이징에서 비자가 안나오는 바람에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하루가 안가게 걱정이 앞섰던 터였다. 38선을 넘었다는 얘기에 기쁨이 앞서서 사라졌다.

해안선을 따라 흘러갔다. 남강 근안공원에 접근할 때는 한강 모래기르는 북녘 농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정은리가 자로 샌드했다. 북녘 땅을 직접 보자 가슴이 울컥했다.

순안강가에 최남 원집단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연호하는 인파를 보고 "이번엔 뭔가 걸림과 앓을 수 있겠구나"라 생각에 스쳤다. 시인 고은 선생과 같은 초가 돼 천지를 타고 가며 차강 밖 연도의 시민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불연의 열기가 느껴질 수 있었다. 걸림이 뭇봉을 건 듯 넘어선 연도의

##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의 '평양 2박3일'

안개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듯 광경이었다. 동충한 안개들은 '옛날 쿠바 키스트로나 캄보디아 시아누크가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속소연 주임산(周麗山) 조대소에 여장을 풀었다. 비위에서 숨어 나왔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곳. 부백부와 대동강 놀이도 유행대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팔로 이따다운 곳이었다. 바로 집집을 먹고 만수대 예술극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평양시 예술인들의 답사-무용조합 관원'이라는 대명판이 우리를 맞았다. 아리랑, 삼산병에 흥년이 왔다네, 천연강기리류 등은 일경들의 입장은 숙연해져 있었다.

평양의 첫 날은 흥분과 감격속에서 보냈다.

다음날 인민외교부와 평양내 소년공간을 둘러본 뒤 육류관에서 뽕뽕을 배부르게 먹고 '조선컴퓨터회사'를 찾았다. 북한의 컴퓨터 기술수준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듯했다. 특히 회사를 충실히, 실감이 보여준데 감명을 받았다. 모든 것들이 개방하고 솔직하게 서로 주고받지는 자세로 보였다.

이어 인민문화공원에서 경제진이 회의할까 했다. 우리측 특별수행원 2명 중 김재와 관련해 받았던 우리측 인사 10명과 북한측 경제관계자들이 얼굴을 마주했다. 북측에서 정영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을 비롯, 박동진 조국평안연구원장, 정명진 민족경제협력연합

회 감사, 김경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박세유 조선컴퓨터회사 총서장, 조현주 조선아시아대평양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다양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은 것은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역시 처음이었다. 북한의 정 회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다.

"이렇게 만나게 돼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평양이 안내 신호 재력의 남비가 심했습니다. 이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 각 부문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족통일을 위한 심재적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92년 기념의 사명을

장업장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북측 인사들에게 말했다. 92년 기념의 의사가 내리왔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 하 무속려 설치해야 한다.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종과제 방지협정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및 신분보장 등 속려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남북 참가문제는 우리측 경제단체들이 상의해서 북측과 대화해법을 마련하겠다. 중국어 투자유치를 위해 대민기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남민기업에도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지난번에 개정한 외자유치법에서도 남민기업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동진 감사는 "남측에서는 남북관계 특수

## 조선컴퓨터사등 산업시설 최신설비에 놀라 北 재계 인사들과 '제도개선' 격의없는 대화

여의 실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개관적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진행된 민간협력은 일부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합류 강화하는 데 대결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갖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족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 얘기가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낼라"라고 덧붙였다.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 회장, 이원호(李源浩) 중소기업 부회장과 참석 인사들은 대대로 남북 경제협력에 92년 한의 한 기념 물대에서 빨리 이뤄져야 하며 무지보

가 있다고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평양에 오실 때 기업인을 많이 내동, 구체적인 장려안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그게 먼저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김재철 회장의 말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까지 알고 있을 만큼 우리 남북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회의문 5개항 합의가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방북단을 목안관으로 초대했다. 국민 대상을 위해 특별히 지은 곳으로 한쪽 벽에는 동해 바다 볼거리의 찬란한 위풍을, 반대편은 감지연의 불꽃은 듯한 일몰로 장식된, 대단한 민천장이었다. 이날은 이례적으로 한에서 간 요리사들이 남북요리를 만들어 내었다.

민천은 화가에세하고 파격적인 민간의 강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일몰이 진을 돌리며 우리 기업인들과 간배를 했다.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 평양에서 50km 떨어진 닭공장 '동희협동농장'을 찾았다. 캄비나는 한대로 돼 있어 농장에서는 옥수수나 참을 재배하고 사료를 만들어 닭, 오리, 돼지, 거위 등을 키우는 곳이었다. 특히 최신설비가 갖춰져 사료 제조와 알 부화가 자동 처리되고 있었다. 이곳은 김 위원장이 세번이나 와서 현장 지도를 봤을 정도로 현대화된 공장이다.

잠시 때에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이 식사를 배웠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나날 비롯한 경제인들을 따로 불러 직접 술을 따라주고 간배를 제의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잔을 부딪쳤다.

역사의 현장, 평양의 2박3일은 파격이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경제협력에 한없이 확대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김계인으로서 진한 감격을 느꼈고, 그것은 햇볕정책이 거둔 결실이였다.

● 정리 김태규기자 wrdsea@kdsaily.com



손병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평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남북대표단 환영오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신상술을 받은 뒤 환담하고 있다. 손 부회장 오른쪽이 이원호(李源浩)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명(金東明)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 정명진(鄭明進) 현대인산 이사가 서있다. ● 평양 해외대사진기자단

### ●경제협력

## '민족경제 균형 발전' 차원 교류

### 北측 전향적 태도변화 감지 실질적 대규모 경험 가능성 투자협정등 제도 장치 계획

남측 교섭이 '민족경제 균형 발전' 차원 발전 차원도 고취하는 것은 남북을 통일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끌어올려 경제협력의 새장을 열겠다는 의의가 클 수 있다.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경제공동체 지 의미를 담은 '남북평화 이념' 분구기 이번 선언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남측에 크게 치우쳐지는 북한경제를 남측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성공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뒤지던 현상을 인정하고 남측의 기술과 자본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남북간 협약에서는 실질적이며 대규모적인 경제 사업의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사회간접비용(SOC)특수** 경제적 발전의 추진 방향을 크게 두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비용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진출,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김정은 북한 총리에 협력할 분야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 해

SOC사실이 매우 나중해 있다. 군비 조달과 식량난에 허덕이는 바탕에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로, 항만, 발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년 말 기준으로 말진도 가동률이 20%밖에 안돼 전력난이 극심하다. 발전소를 가동할 식유와 석탄 등 에너지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호주의와 점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SOC 해소 방안은 경제선 정도 연결과 임진강 수방 대책 수립이다. 김의선 정도는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남북 철도 왕래의 핵심 교통망이다. 남북방한 계선이 가르고 있는 임진강의 수해 방지 시설도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북측을 생산기지로** 개방 균형 발전 방안의 다른 하나는 남측 기업의 북한 진출이다. 신발, 완구, 전자부품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한으로 옮겨 값싼 노동력으로 원가를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가 추진중인 서해안공단 건설도 속도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산경제나 투자보증협정, 이송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의 내국 기업 기업현의세를 완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대폭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성진기자** [sonc@kdaily.com](mailto:sonc@kdaily.com)

### ●체육교류

##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우선추진

### 北도 공개석상 긍정적 반응 세계탁구 단일팀도 가능성 개방효과 큰 교환경기 역점

남측 스포츠교류의 구체화 조치는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2001년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와 오는 10월의 아시안컵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북반세계연맹 북한 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분산개최, 축구 교환경기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올림픽 동시입장이다. 김문관 대한체육회장은 북한측에 이를 제안했고 북한의 정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참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사 기 능을 높이는 요양원 ▲북한 체육계 교류 및 참가 이해를 위한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마시제 C 위원장

이 이를 재언함으로써 IOC 내부 의견 조정이 수월하다. ▲과거 동·서독의 동시입장 선례(1968년 뮌헨올림픽)가 있다는 점 등이다.

체육회는 또 정부 및 해당 경기단체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4월 오사카에서 열릴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파견하는 문제 등을 주요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도 아시안컵축구대회 단일팀 구성과 남북이 오가며 교환경기를 펼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컵대회 단일팀 구성은 북한이 출전권을 얻지 못한다 따른 자존심 손상 등의 우려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컵대회 2개팀을 북한에 배정하는 문제 역시 실사면의 북한 경기장 시설 조사 등 검토가 필요해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키로 했다.

반면 문화 개방 효과가 큰 교환경기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교환경기는 남측 대표팀, 청소년대표팀, 클럽팀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해욱기자** [hac@kdaily.com](mailto:hac@kdaily.com)

## 한반도~유럽 '철의 실크로드' 추진

### 金대통령 귀국성명서 구상 언급 남북~일본은 해저터널로 연결 실현엔 日~和蘭 43시간에 주파

남북측과 일본을 해저터널로 잇고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남북 공조를 기반으로 큰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대통령(金大宇) 대통령은 15일 오후 남측 정상 회담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귀국 성명서에서 '철의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철도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착수되기 전인 9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던 중국철도청도(CDQ)와 시베리아철도청도(SZR), 한-일-일 해저터널의 연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앞으로 각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국 교통전문가들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이 개척되면 동북아와 유럽을 육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와 유럽 간의 육로 수송시간이 2일 이내가 될 경우 속도가 느린 해상운송과, 수송함에 제한을 받는 항공운송 대신 대량 화물수송이 가능해지 양 대륙간 활발한 물적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철도 확충에 관광영사차 운행하면 두 대륙간 인적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기차가 한탄하 파리로 갈 수 없는 것은 김의선이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김의선이 이어질 경우 유럽까지 뚫어가고, 한-일-일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선 김의선 단절구간의 분산-분동 20km 구간 연결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 같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고속철도의 건설속도 300km를 고려할 때 요코하마-로테르담간 1만3,000km를 열차로 43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박성태기자** [sung@kdaily.com](mailto:sung@kdaily.com)

## 금융부실 막기 부채비율 100% 이내로 자회사도 소액주주 보호위해 상장 허용

### ■ 지주회사법 문답질문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수단으로 허용할 금융지주회사법이 15일 공개됐다. 핵심을 문답질문로 알아본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금강위 인가할 분야이다. 금강위는 심사에 신청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순수지주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는 사업지주회사와 허용하면 부채비율 100%를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부채비율은 1,400%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경영관리 이외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인여자 자자선 범위내에서의 유가증권투자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전성 감독**은 어떻게 하나 지주회사 설립인가 때부터 자회사의 자본총합과 및 경영상태에 양측이 모두 감시해 인가하게 된다. 또 분기별 경영보고서도 금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를 합산함으로써 3개월안에 공고해야 한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손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지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이내로 규제하는 이유는 부채비율의 통제 연결과 관련 도한 부채조달을 통해 부실에 참여자 금융

### 금융지주회사법안 주요내용

| 항목     | 내용   |
|--------|--|
| 설립대상   | -민간기업  |
| 자회사 범위 | -금융기관 금융관련업무 수행하는 비금융기관<br>-증권지주회사   |
| 소유구조   | -은행법과 통용한 한도(4%) 적용<br>-금융관련업은 예외  |
| 지배구조   | -시리아의 지배수 선임<br>-감사위원회 설치 등 권리포함 강화  |
| 감독     |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br>연계정보 공개<br>-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자기자본의 100%이내)<br>-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br>자본이내로 제한<br>-지회사간 출자도 금지 |

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 또 순수지주회사는 영업활동용 수송까지 없어 외부로부터 자금의 지원할 동기가 크지 않다.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및 상장여부는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검토중이다. 그러나 연결관계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주회사는 상장이 필수적이며 자회사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관련업의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자발적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지연정치가 있다. 금융관련업은 3세대 기업집단에서 계열관리된 50년 이상이만 지주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또 5년내로 종신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거래를 금지한다.

●**박성태기자** [esuloduc@kdaily.com](mailto:esuloduc@kdaily.com)

# 經協협의회체 구성 '경제통일 첫발'



## 당국간 대화 새달 본격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 정권이 6월 15일 대화가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 전문가들은 15일 남북한이 정권 또는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협력회의체를 구성, 협회 대화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 경제협력회의체로는 기업합의서에 따라 2002년에 창시된 경제교류공동위원회(위원장 채정승, 남측 차관)가 있다. 하지만 당국간 협의는 곧바로 이종과세방지협정 같은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된 공신이다. 이종재(李鍾宰) 재정부장관이 수석대표로 나가고 권영부(權英夫) 차관들이 대표로 참가하는 방식이다.

재정부의 복건주 파견은 계획경제를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박남기) 경제협력회의체 아래는 분야별 실무그룹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간 경제 논의의 핵심은 11개 세계시장

## 투자보장·이종과세방지협정 우선 체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핵심논의 대상

모인다. 민간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당국이 직접 나서 해결할 위와 민간업체 합작과 지원방안이다.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 방지협정, 정산결제 방식, 분쟁조정절차 같은 제도적 인프라는 민간차원의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남측이 정산 회산 과정에서 김현의 양측인 투자보장과 이종과세 방지협정의 세부적인 방안까지 북측에 제시하고, 서로 상당부분 의견집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북 대표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에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 협정문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협정 체결은 외교부장관의 몫이지만 남북간 특수관계 때문에 재정부나 통일부장관이 맡을 것으로 전망 가능하다. 조세제도도 없는 북한과 어떤 형태로 이종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 당국끼리 해결할 일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다. 북한의 건력난 해결은 하루가 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북한의 총배전 시설은 직물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망 건설, 경의선 철도 복원 같은 민족경



● 그래픽 이예선기자

### 남북 당국간 경제협력 내용

- |                             |                               |
|-----------------------------|-------------------------------|
| 경제교류공동위원회                   | ● 투자보장협정                      |
| 이종과세방지협정                    | ● 이종과세방지협정                    |
| 분쟁조정절차                      | ● 분쟁조정절차                      |
| 정산결제 방식                     | ● 정산결제 방식                     |
| 한미 송백지 시설 복구                | ● 한미 송백지 시설 복구                |
| 물산-개성 도포 면역                 | ● 물산-개성 도포 면역                 |
| 경의선 철도 면역                   | ● 경의선 철도 면역                   |
| 원자력-북부 원자력발전소, 평안, 함흥 철도 면역 | ● 원자력-북부 원자력발전소, 평안, 함흥 철도 면역 |
| 어음-평양 철도면역                  | ● 어음-평양 철도면역                  |
| 민간 투자 협력지원                  | ● 민간기업의 남북 진출 지원              |

제 대응책을 잇는 사업도 벌어져야 한다. 서울과 평양간 항공로와 해로 등의 국-해-공 교통망 연결도 협의대상이다. 남북 당국은 남측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하

일도 맡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진척이 가파른다는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 '남북회담 주가' 하락 왜?

'주가'는 귀신도 모르는 길까? 남북회담선언이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15일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의 공황상태를 자아냈다.

이날 시장에는 획기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48.3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가까스로 7701선을 지켰다. 장시황판 3일 동안에만 주가는 무려 75포인트가 떨어졌다.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이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비유에 대한 부담감이 왜래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억측도 돌았다.

중시 전문가들은 "주변국 악재는 없었다"면서 투자자들의 고요적인 과잉반응과 함께 채굴도, 남북경협이 주가 심판의 동시적 요인이었다고 꼽았다. 또 시장내의 분배로 외국인 매도세, 5월 1일 자금약화설 등을 원인으로 보

## 3일동안 무려 75포인트 하락 돈의 논리가 시장분위기 압도 투자자 현실 오판 일시적현상

다. 신용증권 리서치센터 이필호(李弼浩) 연구원은 "최근 시장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만큼 이번 하락은 단기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나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박진권(朴鎭權) 연구원은 "오늘 시장은 공중선언이라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냉정한 '돈의 논리'로 움직였다"면서 "개성과 함께 외국인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시장분위기를 악화시켰는데 신유남고 5개 영업일자, 주선 1과 자금약화설이 나오면서 하락



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90년 독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3개월동안 무려 주가가 33%나 급등했다"면서 "한국 상황도 독일과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발표가 정거점으로서는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 나민호(羅民浩) 투자분석팀장은 "어찌도 시장의 불안요소가 남아 남북공동선언이 주가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남북한 이종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체결되느냐가 향후 남북경협 수혜주의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현식기자 hyun00@kdaily.com

## 鄭周永 전 명예회장 28일 방북

장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이 28일 북한을 방문, 김장성 국무위원장과 면담한다. 현대이산 관계자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15일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성진 명예회장이 오는 28일경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鄭周永) 현대이산 이사 등 현대 대북사업 관계자 60여명이 함께 수행한다. 장 전 명예회장은 방북 중에 차려진 1997년 사업 지원선과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금강산 철도연결사업 등 유 논의한다. ● 주병철기자 bcjoo@kdaily.com

## 금강산생물 오늘 첫 입입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념하듯 '금강산 생물'이 16일 처음 국내에 들어왔다. 금강산 생물은 북한 조선농림수산식품부와 남한의 (주)대원이 합작해 설립한 금강산생물학연구소에서 생산한 생수이다. 동남아에 대한 물과 이날 오후 2시 동해안을 통해 국내에 첫 반입됐다. 금강산 생물은 금강산 생태보전특별구역인 금강도 요령군 온천리에서 생산한 것으로, 산갈과 농약살포가 소멸했다는 뜻에서 북한에서는 '살개수(殺개水)'로 불리고 있다. ● 김성업기자

### ●전쟁 재발방지

## 호해·신뢰 바탕 냉전 종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서로 침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호 무력 남사판 및 분기침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같은 기본정선에 따라 양국은 ▲군사직통전화 개설하고 ▲상호비방을 중지하며 ▲파괴·전북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들을 위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호위협감소 및 호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냉전종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회담내용이 알려지지 공식

### '무력불사용' 합의 후속조치 군사직통전화 개설등 검토 군사공동위 복원 시급 인식

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양 정상이 조속한 시일 안에 열기로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2년 9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신뢰구축 방안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조 친화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히 분석,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어떤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수준의 논의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 될 군사 직통전화 개설이 이뤄질 경우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상호 비방행위, 위협적인 군사행동 중지 문제도 당국간 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군사직 신뢰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와 우선적인 복원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룬 시일내에 북측에 군사공동위 가동용 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사일 문제 조 기 해결을 위한 남북간 대량살상 무기 개발 중지 와 폐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노주석기자 joo@kddaily.com

### ●북한 핵·미사일

## 결림돌 안되게 조기해결 유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 일은 물론 주한미군 문제까지 논의됐음이 확인됐다. 이들 문제는 남북은 물론 주변 우방들 사이에서도 "결코려운" 문제인 까닭에 남북 정상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온 사안들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 귀국보고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에서 핵·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까지 나왔다.

### 美·日등 주변국 주요 관심사 對北 관계 정상화 연계 상황 필요성 거듭 강조 북한 설득

대화가 유익했고 아주 좋은 진영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문제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관심사항임을 김정일(金正日) 국방 위원장에게 주지시키면서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당국자의 진언이다. 이외엔 미·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도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대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항우 조·미 미사일 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을 것인 관측이다.

"유익했고 진영이 밝다"는 김대중의 판단에 비추어 앞으로 김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카드'를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회생에 직접 활용,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 관망이 우세하다. ●오일민기자 oim@kddaily.com

### ●당국자간 대화

## '남북연락사무소' 부활 불가피

### 95년 北 철수로 폐쇄상태 빠른시일내 당국대화 합의 양측 즉각 개설 합의 가능성

14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양측이 빠른 시일 안에 정부당국간 대화를 원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95년 폐쇄됐던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양측이 개설을 합의, 3년여간 운영됐던 연락사무소는 95년 북측이 정전연락 부활의향 선언하며 원 방향으로 철수한 이후 지금까지 폐쇄 상태에 있다.

판문점 남북 평화의 길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북측 통일각에는 '북측연락사무소'가 각각 설치돼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서로 전화나 면담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연락사무소는 가장 초보적인 상호 대화기구라는 점에서 양측이 즉각 개설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도 양측은 판문점에 남과 북의 직 접심화회가 운영하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연락관 접촉을 하고 있어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양측 정부가 운영하는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 92년 당시 남북은 연락사무소 조성을 국장급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4까지로 정했었다.

●김성연기자 carlos@kddaily.com

### ●전염병 공동방제

## 말라리아 유행예측 조사사업 검토

### 北지역 방제사업 적극 추진 환자 많은지역 예방약 지원 콜레라 예방 공동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휴전선 일대에서의 말라리아 방제와, 콜레라 조기경보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휴전선 일대 지역에서는 지난 98년 말라리아 환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휴전선 북쪽지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유행 예측 조사 사업을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지역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

기의 밀도가 높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약품을 지원, 북한의 방역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환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콜레라는 휴전선 일대 시해안의 해수온도가 17도를 넘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남북 공동으로 시해안의 해수온 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휴전선 일대의 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온 조사를 하면 남북 공동으로 콜레라 조기경보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남북이 함께 할 방침이다.

●유성영기자 yoon@kddaily.com



# 지자체 南北교류 추진 '붐물'



## 7개 시·도 계획수립 현황

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는 15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남북교류 협의기구급 구성,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지침에 내리오는 대로 남북 관련 전문가들로 협의기구급 만들어 북한경험과 관련된 연구와 분석, 정보제공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기업 경제협력사업 추진 ▲2002년 아시안게임 북한참여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선화 채취(백두산과 금강산) ▲부산국제 영화제에 북한영화·영화인 초청 ▲나진~부산간 직항로 확충과 및 신규 항로개선 등을 적극 추

## 부산 "백두산 성화봉송 모색" 전남 "농축산 협력" 인천 "남포시와 결연" 강원 "설악~금강 관광개발"

진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14일 오후 행정부시장 주재로 기획관리실장, 부산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신남지식산업 협동조합,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등 대북사업 추진 단체와 부산상공회의소, 학계,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또 전남도는 남북정상회담의 5개항중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관련, 농·축·수산업이 대북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북한 농업관계자들을 초청,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종자도 무료 지원해주는 등 농업교류를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축산과 수산업에서는 소와 돼지, 축염소 등의 수장기술과 어망제작 및 음파탐지기침 이용한 물고기 추적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줄 방침이다.

전북도는 11월 전주 아시아 주니어 역대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에 같은 곳에서 열릴 세계소속주제에 북한공연단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단종 문화관광부담 방문, 지난해 6월부터 진행중인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방역에 대한 내용과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계비와 기반시설비 등 180억원의 사업비 지원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7월중 서울에서 전국 기업체 및 상공인 등을 초청, 설악~금강 연계개발 사업설명회 등 갖고 민자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현대건설, 외국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연계개발 영역은 설악권과 집강권, 금강권 등 3개 권역을 7개 거점으로 나눠 국제수준의 관광휴양벨트급 구성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설악~금강권 일대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완대북 완화하는 국제관광 자유지역 지정 등이 북한측과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직항로가 개설돼 있는 북한 남포시·충남도는 황해도와 각각 지매결연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중이다. 인천시의 경우 대북 교역량의 62%를 차지하는 인천 지역 기업체들을 지원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사다.

한편 경북도는 어린 모퉁이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배 육묘공장을 개설 등 북한지역 3~4곳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국 11

## 대학생 72% "남북회담 큰 성과"

### 배재대 500명 설문조사 57% '10년후 통일' 예상

대학생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높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배재대가 15일 교내 학생 500명용 상대로 설문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큰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72.6%, '약간 있다'가 27.4%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큰 성과로는 47.4%가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꼽았고 97.6%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회담이 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도 96%에 달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57.6%가 10년 후로 예상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에 따른 경제 강대국화로 국민생활의 질 향상'(41.8%), '한 민족이기 때문'(30.27%), '이산가족·장기수 등 민족분단의 고통해소를 위해'(26.40%) 등의 순서로 응답자가 많았다. 통일의 장애물로는 '남북을 둘러싼 미·러 등 열강'(47.03%)과 '남북의 인식차이'(2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kdaily.com

## 정상회담 축하 열린음악회

### 오늘 강동구 해공공원에서

서울 강동구(구청장 金忠瑛)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16일 오후 7시 관내 천호동 해공공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축하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실향민들의 이픔을 위로하고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공연에는 귀순배우 김혜영씨가 출연, 북한에서 유행하는 인기가요 '반갑습니다' '위파람' 등을 소개하고 직접 부른다. 또 개그맨 김중식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가수인 치환씨가 '우리의 소원' '고향의 봄' 등을 들려주고 색소폰 연주자 허영범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이밖에 현숙씨 등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청소년 합창단, 북공연, 스포츠댄스, 산녀춤, 정고춤 등이 공연된다.

특히 '실향민과 함께 하는 즉석 한미당'을 통해 실향민들의 애환을 직접 들여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동구는 관객 모두에게 태극기급 나눠주는 한편 불꽃놀이 행사까지 정상회담 축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kdaily.com

# 시드니 올림픽 “손에 손잡고”

## ▶▶▶ 심투이 핏대 된다

### ① 스포츠교류 무엇을 어떻게

남북간 스포츠 교류가 급물살을 달리는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 Jong일 국방위원장이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다양한에 걸친 교류에 합의하고 체육 실무자들이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세부 시안에서 상당한 의견충돌을 본 데 따른 것이다. 북한측과 의견충돌을 이룬 스포츠교류 내용과 역사적 의미, 세부 추진 사항, 전망과 기대효과, 북한 스포츠의 현주소 등을 시리적으로 짚는다.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한 김윤용 대한체육회장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14일 인민문화공전에서 가진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각종 스포츠교류방안을 제안해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김 회장은 우선 이 자리에서 추안 안토니오 시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대로 오는 9월 15일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할 것을 제의, 사실상의 합의를 보았다. 김 회장은 종목별 경기단체의 예산이 거의 끝나 단일팀 구성이 시간상·기술상 어려운 만큼 파급효과가 크면서도 절차상 복잡한 문제기적인 동시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남북

### 남북 체육교류 입지

| 날짜             | 장소      | 내용   |
|----------------|---------|--|
| 1929. 10. 8    | 서울 용산   | 경관군 선봉구대(146년까지 지속)                                    |
| 1963. 1. 24    | 호진(스웨스) |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12차례 출전 기록)                               |
| 1979. 2. 27    | 만주리     | 제1차 남북체육회담 대표회담(제35회 평양세계학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합의 결정)         |
| 1984. 4. 9     | 만주리     | 제1차 남북체육회담(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결정)                          |
| 1985. 10. 8    | 호진(스웨스) | 남북체육회담(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합의, 87년까지 4차례 출전 기록)          |
| 1989. 3. 9     | 만주리     | 남북체육회담(북측 아시아인게임 단일팀 구성논의 9차례 출전 기록)                   |
| 1990. 9. 28    | 평양      | 북측 아시아인게임을 남북교류 공동축구대회 개최(10월)에 관하여 서울에서 협의            |
| 11. 29         | 만주리     | 남북체육회담 제2차(19년 제1차 세계학구선수권대회와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파견 합의) |
| 1999. 8. 10~14 | 평양      |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만주리 개최당 37명 합복)                            |
| 9. 27~10. 1    | 평양      | 평양축구대회(현대남대축구단 합복)                                     |
| 12. 22~26      | 서울      | 평양축구대회(북한 선수단 6명 합복)                                   |

## 국가는 '아리랑'... 오륜기 앞세워 동시 입장 탁구 단일팀 구성... 월드컵 분산개최도 논의

선수단이 오륜기를 앞세워 뒤 각자의 국가 대신 국가올림픽위원회(NOC)기를 들고 입장하는 한편 국가(國號) 대신 '아리랑'을 쓰자는 내용 등이다. 김회장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의 정몽준 IOC위원은 세부적·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남측의 제안이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시드니올림픽의 남북 동시입장 역사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밖에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내보낼 것과 북한의 2002년 부산아시아인게임 참가를 제의했

다. 부산아시아인게임 때는 제주도에서 성화봉화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자리를 함께 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그간 구준이 제기해왔던 오는 10월의 아시아인축구선수권대회(레바논)와 200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이르헨테나)에 단일팀을 참가시키자고 제안했고 2002년 월드컵대회의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을 타진, 이 가운데 우선 아시아인 게임 단일팀 구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여러 제안과 합의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올림픽 동시입장이 좁혀



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개 NOC의 동시입장은 1988년 말바른올림픽 당시 동·서독이 함께 입장한 선례도 있고 남북한이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계 만방에 남북이 한마음 한뜻이 됐음을 알릴으로써 지구촌 전체에 감동을 안겨줄 가장 좋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서독의 말바른올림픽 동시입장이 1970년 분단 23년만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말바른이 됐듯이 남북 동시입장도 스포츠는 물론 다방면의 교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몽준 올림픽심판회 회장(59·한국체육대학 교수)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과거에도 회담은 많았지만 결실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포츠교류의 물꼬가 트겠다고 본다. 이는 곧 민족동일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회장은 그러나 "너무 조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박해욱기자 hcc@kdaily.com

# 대한매일

2000. 6. 16 (금)

## “남북합의 토대로 스포츠교류 증진”

### ■ 김윤용 대한체육회장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수행하고 돌아온 김윤용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 동시입장 등 남북스포츠 교류가 활발해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 합의 있었다. 나는 김대중대통령의 수행원 중 한사람이었다. 대통령이 놀랄만한 입담이 많아 보였다. 그 속에 문화·체육 등의 교류가 들어 있다. 그 바탕에서 스포츠교류가 추진될 것이다. 교류에 대해 북한의 정몽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잘 될 것으로 공식에서 얘기했다. 앞으로 부

산아시아인게임 단일팀 추진과 몇개 종목 분산개최, 합동훈련 등 할 수 있는게 많다. 장웅북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비방에서 모 든게 잘 될 것으로 얘기했다.

●실무자들이 만남 계획은 있다. 이번에 확정되는 것은 대통령이 여러 항목에 걸쳐 합의할 이룬 것이다. 우리는 그 테두리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선안은 이상으로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 그 이상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과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부산아시아

## 부산아시아인게임 단일팀·분산개최 등 논의 장웅 북한 IOC위원장 남북제안에 긍정적



게임 북한 참가 등 이외의 새로운 협력 분야가 있다.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십가지가 있다. 결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 많다.

대변도 교류도 이야기했다.

●북한 체육관계자들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이었다. 기대할 만하다. 체육분야는 정상회담에서 잘 안 다뤄지는 게 관계인데 이번에는 성과가 좋았다. 김정

일위원장은 소탈하고 호랑하고 명석하고 주관이 뚜렷하며 민족동일성에 대해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4일 실무회담의 카운터파트는. 장웅씨 등이었다. 장웅씨는 그전에 만찬에서도 몇 차례 만났다. 14일 모임에는 장웅씨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관계자들이 나왔다.

●올림픽 동시입장을 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나. 장웅씨가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남북 정상에게 직접 제안한 건데 그대로 잘 실행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 박해욱기자

# “장한일 하셨습니다” 박수·환호 ‘물결’



귀경연도 환영

2백3일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가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오후 6시10분쯤 '대국민 보고'를 한 뒤 서울공항을 나선 김대중 대통령은 공항을 나오다가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환영 나온 시민, 어린이들과 손을 맞잡고 기쁨을 함께 했다. '대통령님 힘내서 사랑해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어린이들은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15일 서울 지하철 양재역 앞에서 시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태극기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일행의 차량이 양재 네거리, 강남대로 등을 지날 때도 시민들은 환박 웃으며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울시청 앞에서도 포근길의 시민,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대통령 일행에게 환호를 보냈다. 육교와 건물에서도 직장인들이 창문 너머로 혹은 육상에서 대통령 행렬을 환영했고, 건너편 차선으로 달

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후 7시35분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차량에서 내려 5분 가량 시청앞 분수대를 돌며 손을 흔들어 대통령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수많은 환영 인파에 답례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열광했다. 이 때 본단 55년에 365일을 갠

## 시민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열광 김대통령 수차례 차세우고 환영객과 악수 자유총연맹 '축 남북정상회담' 현수막 눈길

리던 차량 운전자들도 차량 세워 박수를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달리는 차량 너머로 환영 인파에 화답했다.

길가에는 '햇볕정책, 통일의 서곡입니다' '햇볕정책의 결실,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었다' 등이 적힌 축하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내건 '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현수막도 눈에 띄

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후 7시35분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차량에서 내려 5분 가량 시청앞 분수대를 돌며 손을 흔들어 대통령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는 수많은 환영 인파에 답례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열광했다. 이 때 본단 55년에 365일을 갠

숫자인 2만75개의 5색 풍선과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올라 환영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창우(李昌우·서울 도봉구 창동)씨는 "남북 정상에 손을 맞잡은 김대중을 누를 길이 없어 시청 앞까지 일부러 나왔다"면서 "남북공동선언이 잘 실행돼 하루빨리 통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버스탑 새내 시청 앞으로 나온 유순덕(柳順德·62·여)씨 등 시청민 45명은 "강한 일을 하신 대통령을 환영하고 도와 함께 나간다"면서 "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화문 4거리 교보문고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이희호 여사와 함께 100여 m를 걸어가며 환영인파에 화답했고 오후 7시35분쯤 효자동을 거쳐 청와대로 들어가 남북 정상회담의 여정을 마쳤다.

● 전영우기자 ywchun@kdaily.com

# “회담 결실맺자” 후속대책 분주



## 각부처 움직임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정부 각 부처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산·각별로 관련 시안을 검토했다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법정부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결실을 위해 '현의회' 성격의 실무기구 신상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통일부** 정상회담 기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서울 상환실을 중심으로 업무상 진행해온 통일부는 정상회담의 기술적인 마무리에 돌입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정상회담 준비 체제를 후속



실례는 이산가족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실향민 부부가 15일 서울 구기동 이북 5도청에 마련된 남북이산가족찾기 참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남상민기자

sangn10@kdaily.com

## 통일부 이산교류·經協 실무준비 작업 본격화

## 노동부 북한투자 대비 근로자 보호조치 강구

## 환경부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등 검토

남북간 회담 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교류, 정부간 경험 확대 등을 위한 남북협상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실무 준비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한 기업, 민간인 차원의 남북신청 등도 폭주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중이다.

●**외교부** 반기문(潘基文) 차관으로 하이금 스타틴 보즈워스 주한 미대사를 비롯,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에게 공동선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 담당자는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에 회담 경과를 설명하고, 반응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오는 7월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계기마다 국제적 지지할 확보키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법적질차,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등을 다루는 법무실과 검찰국은 수시로 TV뉴스 속보물 청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

가족 상봉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북5도민화담 중심으로 정확한 이산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북한의 인사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 최고 실력자가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 등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후속조치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우선 이산가족 증가에 대비해

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 등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후속조치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남북간협이 본격화되면 노동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근로자 보호조치,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 실향민투자가 이뤄져 우리 근로자가 북한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 대비, 근로자 보호조치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 우동정 박용환 이지문기자 j@kdaily.com

# “두분 만남 21세기 세계평화의 최대 메시지”



## 朴智元장관 귀경 인터뷰

“21세기 새 천년에 가장 큰 변화의 메시지답두 본이 전세계에 던진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15일 저녁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서울사대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4월10일 베이징에서 비평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인 박정관은 “지난 2개월동안 하루도 잠잠할 때대로 지내 못했다”면서 2월3일 동인의 남북정상회담이 축적의 파격적인 한때의 열도에 임하여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깊은 흥분과 감격의 여운이 서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정관은 “북한측 의견장이 방북 첫날 우리 기대로 김대중령을 임했다고 할 때 김위원장이 곁에 나섰다고 보여줬는데 보냈다고 할 때 어떤었다”고 진해하면서 “막상 남북정상회담이 방상 순안공정에서 만나 상봉의 약속을 할 때 나온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회고했다.

그가 그동안 가장 조심스러웠던 대목은 ▲이번 두 정상 만남의 의미가 ‘강남’이나 ‘김정일담’이 아니라 ▲남북합의문의 사명주제 ▲김일성표어 김대중표어 등 3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측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수연하다고 말했다.

박정관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위원장과 가장 많은 대화할 나을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김위원장이 “평정한 실용주의자”이며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최근 서울에 왔던 평양소년에소년단에 신화계교를 방문했을 때 교실의 대기가 참기시전을 둘러싼 피눈물 보고받고 김위원장이 “남측 대표들이 평양에 왔을 때 평양의 인공기를 모두 내려야 합니다”며 역정을 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박정관은 “김위원장이 오랜 지도자수업을 받아 (동양적인) 예절이 몸에 배어 있다”면서 여

담할경우 한 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도록 합시다”고 제의, 모든 합석자들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를 때 김대중령과 김위원장은 함께 손을 잡고 흔들며 매우 감격해하는 표정이 어려졌다.

통일의 노래가 끝나자 박정관은 앞으로 나가 “김대중령과 김위원장은 21세기 새 천년에 최대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던졌다”며 “문화부장관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면서 축사에서 ‘내 고향에 있어라’와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등 연이어 불려 박수를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2월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15일 오후 귀경한 박지원 문화부장관

## 송위원장 ‘실용주의자’... 환경문제도 큰 관심 고별오찬서 ‘우리의 소원은...’ 합창유도 감격 하루가 55년처럼 느껴져... 일 잘풀려 후련

리치에 순간적인 워드간격이 뛰어났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위원장이 원천히 북한정권을 장악,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위원장은 김일성(金日成) 추석 사후 정치와 군사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경제문제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과거 구정치언어에 한담하고 후회하도록 하자”고 외쳐 우리 측 김석자로부터 박수할 만큼 정도로 새로운 애미지급 느꼈다고 말했다.

박정관은 15일 낮 평양에서의 고별오찬에서 기

박정관은 이어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지지만 김위원장이서 꼭 사물에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박정관은 언변예속가로 호명하겠다” “내 특 사물에 기렸어”라는 화답을 받아냈다고 한다.

김위원장의 시골남방 시기와 관련, “북한 내부에서는 자기들 일도 예기를 안한다”면서 “우리가 남북이 하루 연기됐을 때 김대중령은 ‘55년도 기다리는 대로 하루정도 더 못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나는 하루가 55년처럼 느껴졌다”고 긴장된 순간을 되새겼다.

이어서 “이번 방북기간을 도내로 앞으로 남북이 대결구도도 지양,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상호 화해와 신뢰의 시대로 간다면 믿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북측이 체재유자와 직접 관련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이번엔 받아들일 것임을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들었다.

●정음서 정치팀장 eton@cdaily.com

## 정상회담 이후에도 윈윈전략으로

### 구분영의 南北 프리즘

“기는 꼭 함에도 못먹어 가져” 요즘 평양이 나 금강산 등 북한에서 가장 자주 눈에 띄는 구호라고 한다.

과거 흔했던 ‘인민의 나쁜’ 등의 공허한 구호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는다. 김정대국을 표방하는 북한인구자담까지 사상의 강과 군사력의 강국임을 대세우지만 아직은 경제의 강국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고 있었을 존재했을 때다.

이는 북한지도부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협의의 발판 중의 하나였을지 하나.

시금 오늘의 북한에 치한 곤경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존재한다. 김정일 유일사상과 폐



쇄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집한 데 따른 자업자득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가

그러나 다른 한편 오랜 동서 양국 대결구도에서 ‘줄을 잘못산’ 결과 손해를 본 측면도 없지 않다. 미국 등 서방의 경제 봉쇄로 뒤로가 치닫되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 등으로 활로를 찾아온 점도 일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빈번히 남쪽이나 미국을 상대로 ‘배달사정권(브랑크셔프)’을 구사해왔다. 그 결과로 얻은 오점이 이번 ‘불꽃(rogue)’국가였다. 남한 또한 냉전의 패배자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남북간 소모전에 따른 피중 한 군사비 부담이 신진국 본타에서 휘청거리게

한 한 요인인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5개항 공동선언은 여간 다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제로섬(zero-sum)게임에서 벗어나 윈-윈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북측이 시로가 개리던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한 것은 ‘공동 승리’를 추구하겠다는, 상징적 대시념으로 평가된다. 남북 통일방안의 국가연합제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의 최대공약수불 찾아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 곳곳에서 그러한 상호주의적 양보 자세가 엿보인다. 예컨대 아무래도 남측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남북경협과 북측이 그동안 기피했던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함께 합의한 대목이다.

물론 이번 역사적 합의는 그야말로 ‘공동선언’일 뿐이다. 앞으로 당국간 실질대화를 통해 내용의 구체성을 채워 실천해야 할 과제가 남은 까닭이다. 어쨌든 시로가 시간을 버는 평화공존에 합의했을 뿐이지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당국자 대화에서도 정상간의

윈-윈 정신이 이어져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가능한 한 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부터 합의, 실천에 나가고 합의가 어려운 분야는 일단 뒤로 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손발 잡으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다. 남북 상호 연결 사업 하나만 상징해보자. 남북을 걸쳐 유리사야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가 부상한다면 남북 모두가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북 모두 동원 가능한 내부 예비지원이 거의 고갈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최근의 상황이다. 총체적 경제난에 빠진 북측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 겪는 남측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은 의기투합한 아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new frontier)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케네디 행정부의 미국이 디아상 개척할 서부가 없지 우주제회과 과학기술 진흥에서 승부할 길이었어 많다.

●정음서팀장 kby70@cdaily.com

#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합의 가장 큰 성과”

대한매일  
2000. 6. 16 (금)

##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 **김삼웅 주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개 항목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분남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가 도출된 것은 세계 정상회담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다 이같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7,000만 민족의 염원과 소망이 담겨져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선언의 의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전인영 교수** 남북관계를 시공간 초유의 정경화담이 감지된다는데 의미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통일외교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합의에도 도달 수 있었습니니다. 특히 김정일이라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전면으로 나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승희 원장**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고, 그동안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됐으나 이제 당사자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북한 입장은 북동맹이지만 남한은 북한을 대외의 상대, 대과 파트너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

북한의 낮은 연방제(Loose Form of Federation)가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연방국→중원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의 첫 단계와 북한의 고리연방제의 초기 단계가 비슷하다고 해서 '1단계 연합→북한의 낮은 연방제'의 통일론을 지향하겠다는 것인데요.

● **전 교수** 두 방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같은 초기 단계가 많고 특수성을 인정하면 연방제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제도 연방제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 문제가 있고,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남북이 서로의 공통점을 연계하는 선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최 원장** 두리축의 연합과 북측의 연방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2국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연방제는 1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결산 좌담

## 사상 초유의 정상회담 金正日위원장 전면 등장 남북관계 새 패러다임 구축

워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김 주필**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개항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아닐까 합니다. 이는 한반도가 '반독 자위'라는 차원에서 남북이 통일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배타적인 의미가 아닌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전 교수**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주변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고, 주변국에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끌리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주적 해결을 선언했다고 해서 미국이나 주변국을 배제한다는 자주선언으로 외전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 원장** 그렇습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보면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언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남북 문제가 새롭게 해결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을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연합·연방제 통일지향

- **김 주필** 남북이 연합제(Confederation)와

북한의 주장은 정치적 통일과 달리 하자는 내용이 강하고 연합제는 정치적인 통합이 안돼도 경제문화 등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은 '1국 2 체제'인데 연합과 연방제를 짐작하다 보면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장기수송환

- **김 주필**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이 8·15 이산가족 방남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입니다. 현재 70세 이상 이산가족은 현재 1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시급합니다. 또 장기수송환은 이미 상호 동등적인 관계가 이뤄진 만큼 공한에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 **전 교수**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기대했던 문제입니다. 민일 강대국들에 해결 못했으면 "땀 흘려 갔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또 남북이 부 문제도 함께 가려내야 합니다. 장기수는 보수적 연세대로 비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로 조속



全亨永 교수·국정정치학



金正雄 대한매일 주필

## 남 연합제·北 낮은단계 연방제 초기 단계에서는 공통점 많아 서로 연계하는 바탕에서 결과 진전

히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제도화 시키어합니다. 한편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시키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될 것입니다.

● **최 원장** 이번 정상회담의 만남이 너무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 평행론이라는 지 새로운 자신감을 보여준 만큼 생각합니다. 쉽게 풀릴 것입니다.

### 경제 문화교류

- **김 주필** 이번 회담의 성과에는 경제문화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합의, 서명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에  
 7,000만 민족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매일은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전인영(全寅永) 서울  
 대 사범대교수(국제정치학)와 김규  
 좌담회를 마련,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각 분야별 실천 방안을  
 짚어봤다. 좌담은 김상용(金相勇)  
 대한매일 주필의 사회로 진행됐다.



左承勇 한국경제연구원장

류 협성화가 촉매제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이라든지 해외노동 투자 등이 활발하  
 게 이뤄지리라 믿어 공과제 방지문제, 투자문제,  
 상거래 투자협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  
 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좌 원장 경험은 정부시절에 아니라 민간주  
 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의사  
 에 반대 경험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불확실한 진출과  
 관련해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기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상치(商止) 남북 공  
 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격화

전입니다. 종속관계가 아닌 남북 상호 발전 분  
 재인데 이는 정보화·인더스트리·벤처산업이 어  
 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컴퓨터와 소프  
 트웨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데 경제 교육협  
 려가 기존 전통산업보다는 새로운 IT산업에서  
 장려돼야 합니다.

●전 교수 남북 경제발전은 통일의 기반 조성  
 과 이질감·적대감 해소에 중요한 요소인데 문  
 제는 재건입니다. 105원을 100원만 무자재 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외 자본  
 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은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능력에 한계있을 때 문  
 재가 생각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민간기  
 업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관  
 심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김 주필 문화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북남은 통일이전에 브래킷의 긴밀을 공동  
 으로 추진했습니다. 70년대부터 시  
 작한 이 전집은 이  
 세 31권에 다음 예  
 장입니다. 우리도  
 선재로 전집을 추진  
 한다든지 남북간에  
 정산적인 교류가 선

●좌 원장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김정일 쇼크'에 빠져 있습니다. 답답은 김 위  
 원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확인시켜주  
 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국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당한 시장을 봐 답답을 감정할 것  
 으로 보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김 주필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신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가 핵심고리인데 주변 4강이 움직임을 간략하  
 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 교수 새로운 역할 구도형성과 시작 단계  
 입니다. 주변 4강은 자국의 국익이 어떻게 영  
 향 받을까 신경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추진한 세계 전략구도가 흐트러지는 날치한  
 일종일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재정에 대한 요구에  
 대한 처리가 주목됩니다. 중국은 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중 국방 방  
 문,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  
 편은 이번 회담으로 초화되는 것이 아닌가 초  
 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월일로서도 그  
 양어만 있을 수 있다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러시아는 대량양 세력안에도 한반도에서 신세

**이산가족 8월15일 교환 방문  
 비전향 장기수 송환길 열려  
 남북 어부문제 거론 안돼 아쉬움**

행해와 일제강이 형  
 상한다고 보는 데  
 요.

●전교수 위발된 교  
 육가 예상됩니다.  
 병영교역단이 오고

상해도 실질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좌 원장 자주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메리트  
 입을 천명함으로써 '성자는 우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일로부터 김대중에게 해  
 데 등 수혜할 반응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 토**

●김 주필 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은 부연일하  
 요.

●좌 원장 논의한 모든 이가기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  
 다. 이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새로운 언장  
 서 남북 국민에게 공존공생(共存共生)의 희망  
 을 안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산업사회  
 에서 뒤떨어진 국가 강화에 앞선다면 친중국  
 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불안이 없고  
 평화공존의 기쁨을 마련하면 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교수 우리에겐 참 오랜만의 남북였습니  
 다. 임시적으로 나쁘지만 사려지면 안됩니다.  
 과거 7·4 남북공동성명이라든지 남북공동선  
 언 등이 '약해'가 나니면 힘을 잃는 역순환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7,000만이 안심하고 경제  
 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  
 합니다.

●총리 김홍영 조현식기자

제육교류가 이뤄 지는 등 이미 시작했습니다.  
 학술분야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당국대화와 서울 답방**

●김 주필 조속한 당국간 대화할 계획해어 합  
 니다. 상호 비방 중단, 연락사무소와 핫라인 설  
 치 등 당국간의 회담이 실천돼야 하는데요

●전 교수 각 분야별 후속조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주장한 것  
 을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양측 정상에 불모를 틈 반군 아제는 직접 가서  
 대화할 하는 게 중요할입니다.

●좌 원장 두 정상에 쉽게 대화하고 마음을 연  
 어 앞으로 당국 대화도 쉽게 풀릴 것입니다.

●김 주필 김대중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을 제안했고 신뢰구축을 위해 답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교수 이번 회담에서 가장 놀라웠 것은 북  
 한의 새로운 연방 발전관 것입니다. 북쪽도 남  
 한이 열방화 상리고 뒤는 모습을 보면 더욱 당  
 려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경협전담반 구성 투자보장등 관련법 준비

## 정부 후속조치 마련 착수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합의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남북경협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 방지협정의 체결과 대금결제 및 분쟁조정 절차 등 남북간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시안을 조속히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한간의 공식 경험창구가 될 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 관련, 남북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재경부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각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후대보다 위험부담이 큰데다 이익을 내기까지 상

당한 기간이 걸리는 집유 감안해 조세환방에 크게 맞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도 이날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남북협력 작업반을 편성,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작업반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남북 교류사업을 집대성하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안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농업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보완적 농축산구조'를 갖고 있어 다각적인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임진강 수해방지 등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이 시작되면 대북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금투입이 시급한 금액은 우선 해당부처 예산을 전용하되 추경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수목·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 HSD엔진 “北전력난 내게 맡겨라”

“북한의 전력난, 우리가 해결하겠다.”

김상희남양 계기로 한반도 길 북한 투자 가운데 대표적 분야로 꼽히는 게 전력 부문. 북한은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해 남한측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정이 짙다.

한진 현대 등에서 전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시간'.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박엔진 통합법인인 HSD엔진은 15일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맡겨달라”면서 발표한 ‘대북 마케팅’에 나섰다.

HSD엔진측이 북한 전력난 해결책으로 디젤엔진을 이용한 ‘내연발전기’를 제시했다. 5만~10만kW급의 설비로 발전 용량은 적지만 짧은 시일에 ‘뚝딱’ 지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당장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 사정에 적합하다는 것.

HSD엔진은 이미 이 발전기를 그리스 인도 터키 파푸아뉴기니 아프리카 등에 수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금은 통일부와 발전기의 ‘대북 수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근삼(金均燾)사장은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마케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최근 수년간 계속 악화해 김책제철소 등 핵심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추진중인 서해안 공단 건설 사업에서도 전력난은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이명재기자〉

mjlje@donga.com

# 세계, 인프라-안전보장등 정부지원 기대

세계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 대해 15일 일제히 환영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한층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경협 확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 등에 각종 주문도 내놓았다.

삼성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기업으로서의 사업 기회가 많아지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김제관 냉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북한의 정차한 경제 실태와 시장조사 등을 선행하면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경제력에서 나왔고 앞으로의 성공 여부도 경제력이 핵심이므로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G그룹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계열사인 IG상사 이종근(李鍾根)부장은 김철 확대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남북간 석집 생산 △철로나 도로를 통한 육상 교통과 물류 구축 △보편적전기구 설치 △직접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이고 세부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부장은 또 기업의 대북 사업 승인에 ‘균등한 기회’와 대북 투자를 둘러싼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역할을 주문했다.

현대 관계자는 “남북 경협 사업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북측과의 신중하고 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전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 외에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외적 환경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자총협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남북 경협 확대 합의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 투자 기업 주재 인력의 신변 보호 △안전정된 경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인력의 환남 방안 강구 △대북 투자에 필요한 북한 관련 인적 물적 자료를 관련 기업에 신속 정확히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부 산업팀〉



# 이산가족 8·15前 상봉

## 적십자사 이달중 준비 착수 방문단 대규모 구성 가능성

南北 군사-외교권 각자유지 통일 추진

### 김대중령 어제 귀경

김대중(송수중)대통령은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8·15 광복을 전에 시작할 것이라며 이날 외교 6인중 적십자사가 준비작업에 참여하게끔 결정된(송수중) 4명외의장과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또 김위원장이 남북의 차이를 줄여 서로를 방문하게끔 했다고 밝힌 두 정상간에 두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될까에 관해가 이렇듯 입을 다물지 않았다.

김대중은 이날 2명의장과 남북정상회담 입장을 마치고 언론보도로 시정공청에 도착해 TV로 생중계된 회담 경과 보고서에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은 이산가족 상봉과 비결정가능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어디까지나 이산가족 문제가 첫째"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김위원장에 먼저 연락을 크게 하시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제가 어떤과 상에서 해결한다"라고 해서 "그러므로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또 "북의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규모로 시작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이산가족 상봉의 대안으로 6월 15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중은 이어 함께 북·미에 이

번 회담에서 남북이 일단 외교 군사권을 유지한 채 통일을 추진하는 "빛을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에 동의한 것은 남북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통일운동 사상 아주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한 획기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대중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이어 앞서 평양을 떠나면서 "두 사람(김대중과 김위원장)이 합의한 평화 선언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며 "민족을 위한 역사적 결단에 기개가 더해준 김위원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이어 "이로써 남북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에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김위원장과 자주 만나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상어나고 결단"이라고 다짐했다.

(송수중기자·평양·공동취재단) [isongke-dongja.com](http://isongke-dongja.com)

### 언론사 사장단

### 8·15前 訪北 초창

#### 김위원장

김위원(金正日) 위원장은 15일 평양 백화연인민관에서 열린 김대중(송수중)대통령과의 60분오전 자리에서 남북 언론사 사장단을 8·15 전에 방북토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지연(朴智燕)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사 사장단을 한번 초청하면 (내가) 모자란 오겠다"고 재언하며 "주방위원장은 모든 김정일 개인 자격으로 남북 친분 방송 사장단을 초청하겠다"며 8·15 전에 모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복기자) [ymooko-dongja.com](http://ymooko-dongja.com)



“서울에서 다시 만남시다”

연방제 시점기자단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로 포옹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를 나누고 있다. 포옹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고 긴 듯 보였다.

# ‘낮은 단계 연방제’ 수용 北 설득



공동선언 합의 직전 김대중

15일 오후 3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식 정상회담이 휴어가 된 뒤 11시20분 공동선언문에 합의 시분까지 계속 두 정상과 방송 대표단원들은 숨가쁘게 줄다리기와 있었다.

## “젓먹던 힘까지 내서 성명”

‘연합제’와 ‘연방제’ 갈등 과 인 제2차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대중이 김정은위원장을 설득시킨 실용적 기대로 박종언(朴鍾彦)대통령비서실이 전했다. 북측의 공식적인 연방제안은 ‘중립정부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 김위원장은 반대하면서 이렇 게 계속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김대통령이 “그것은 국제기구나에서 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잠 시간 설명에 지반정부와 외교와 군사적권을 갖도록 하는 의미의 ‘낮은 단계의’라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회담 후 “내가 젓 먹던 힘까지 내서 김委員長께 설명 했다”고 회담후담기사를 설명했다 고 박수익은 전했다. 그는 “회담 시간이 3시간50분이었지만 (10분 휴) 3시간10분을 권장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통일방안에 대 해 두 정상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부연.

## 서명주체 놓고 줄다리기

‘합의문 서명주체 논란’ 선언에 시인하는 서명할 수권도 유 것이 다들 북쪽 회담장기가 없었다. 북측은 김정은위원장 직책이 합의 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닌 명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적 공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대중(金大中) 최고인민회의장명의로 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5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오찬 도중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공동선언 합의까지 |             |
|-----------|-------------|
| 14일 2차회담  | •양정성 리틀 합의  |
| 밤 8시50분   | •실무전문인 식성   |
| 안찬 도중     | •공동성명 초안보고  |
|           | •일부수정 의견조율  |
| 밤 11시10분  | •남북 최종문인 합의 |

명하겠다. 두 정상의 말을 받아 다른 두 사람이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나 남측이 “우 리는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고 김에 김차 두 정상이 서명하는 것으로 김은.

‘합의문 서명 주체’ 두 정사 만 합의했고 합의 문안은 밤 8시 50분경부터 남북 임동원(林東源) 국방위원장과 북측 김봉순(金奉淳) 아태평화위원회 총 사무처에서 작성하기 시작. 양측 사무진은 두 정상이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는 도중 공동성명 초안과 마련해 변천장으로 남고 김대통령위원장이 김국방위원장을 먼저 보고했고, 김국방위원장은 이후 김도원 뒤 일부 수정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남측의 임국방위원에게도 설명했다.

다시 임국방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박수익이 술기쁘게 이회관 후 장소를 백화원으로 옮겨 공동성명이 발표되 기 10분 전인 밤 11시10분에서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위원장이 김대통령을 비롯한 남북 인사들과 김국방위원장의 말을 번갈아 오 가면서 머릿자 의문을 남다.

## 김위원장 보안법제치 주장

김정일위원장의 북만토로 상의 남에서 김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기점으로 귀는 스피커에 있었다. 김국방위원장은 회담이 시 김대통령의 발언 중간중간에 “나도 심할 게 있는데 말씀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남측에 대한 불만을 거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김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위 관외계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외 계 한다. 그래서 합의가 무슨 의 미가 있겠느냐”며 한때 국가보안 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 지다. 김국방위원장은 또 남 측 신분이 자신을 쫓지 않게 다 한 기사를 보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

김대통령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서운한 점을 김국방위원장에 말했다. 박수익은 김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운하다 고 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김수익 김부사신이나 인력해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합의하지 않았 겠다는 관측이 대두.

박수익은 “김대통령은 서로간 에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고 말했다”고 견해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 이 런 식으로는 본체 재기가 있었을 을 서사.

박수익은 “대대로 김국방위원 장은 적극적인 원기를 이룬다 는 자세였다”며 “김대통령이 이 러면 북측까지 위대하게 되는 단 업을 받고도 참견했다는 것은 상 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김대통령의 정치역정에 대해 여러 번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 다”고 전인. <중앙-공통취재단>

## 北 軍최고실세 조명록 양복차림 오찬辭 눈길

### ‘군부도 남북화해무드 지지’해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방문 마지막 날인 15 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오찬에는 남북정 상의 회색은 신세가 다량 히 오찬사의 단서를 주고 받아 눈길을 끌었다. 북에서는 최고의 실세 인 조명록(趙明祿)인민군총정치국장이 오찬 시를 했고, 대령(大령)보좌관으로 방북한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위원장이 단서주 었다. 이는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앞으로 획기 적인 진전을 가져올 단초라는 김에서도 의미 가 짝지 않다.

이강구(李尙九)총연원구좌장은 “조명록군 총정치국장은 북한을 심각적으로 이끌고 있는 군부의 대표인물이라는 점에서 군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섯의 인민군사수인 그가 공식식사에서 군복이 아닌 사복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남북간의 화해 분위 기에 맞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북) 국방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의 평 안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통일강화에 대해 민족통일 행위를 갖고 높이 평가한다”고 이강 구 관측을 뒷받침했다.

사실상 북측에서는 김봉순(金奉淳)노동당 대남담당부서장이 이번 정상회담과 대남사업 을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그가 조명록군총정치 국장보다 시간이 늦다는 점에서 북측이 김대통령 위원장에 대해 더 깊은 대접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 <중앙-공통취재단>

# '통일 자주적 해결' 당사자 남북이 주도 의지



## 6·15선언 Q&A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북방위원장이 합의한 '6·15'선언 5개항은 △공공의 원칙 △통일방안 △이념가족 상륙 △교류협력 △난국간 대화 재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자구(字句)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표현이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이 적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도청보급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언급 중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 Q: 평화정착 신뢰구축방안 왜 빠졌나.

A: '6·15선언'의 특징 중 하나는 남북간 통일방안과 교류협력방안 포함돼 있을 뿐 평화정착이나 신뢰구축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 이는 북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핵 및 미사일 등 내안합성무기의 개발 억제나 군비축소, 남북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현안에 대해 일정장간에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평화정착이나 신뢰구축 방안은 남북 양측의 '기본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렵고 해결도 간단치가 않다. 이 때문에 김대중(金大中)도 11일 31일간에 걸친 김대중(金大中)과 김정일(金正日) 회담에서 "선언이 아닌 '합의'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은 특히 "북측이 경제발달을 내안합성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반도 주변국 군비증강의 방비를 제공할 조치가 있다"며 "무기개발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동 지론을 김위원장이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 실질적으로 김위원장이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구했던 미국측의 사색을 반영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환송의 꽃다발

김대중대통령 내외가 15일 평양 순인공화 출발에 앞서 김정일북방위원장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북한 회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Q: '통일문제적 자주적 해결'이란.

A: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3대 원칙' 중 하나인 '자구'를 재확인한 것. 남북은 당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김대중(金大中)이 강조한 '자구'의 의미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천에 기초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대중(金大中)은 도청보급에서 "북측인사들에게 '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

타리 해심할 수 있는 수많은 합의(合意)가 놓쳐져 있다는 점.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논리로 인용할 수 있고 주변국들의 견제압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Q: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이란. A: '연합'의 조어가 있는 내북이다. 원래 우리가 주장해온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북측이 주장하는 '국가연방(federation)'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북측은 '연방'은 북측의 주권

가 2체제에서 '2국가 2체제'로 통합의 초기단계 구상을 비평적으로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 연합'의 단계로 접어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 남북 수뇌부간 정례적 회의체가 마련되고, 정부 각료와 국회의원 등이 서로 협의기구들 만들어 하나씩 양측의 정치체제와 정책을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 Q: '남북자간 대화는 언제 이뤄지나.' A: 합의의상 남북자간 대화의 시기는 '빠른 시일 안', 김위원장이

위해 '8·15' 이념가족 상륙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올 가을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자간 대화는 양측 회고 위 지도자간 합의사안인 만큼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대표로는 남측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북측은 김용순(金容淳)이내내외위원장이 거론된다. Q: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A: 향후 남북경협의 철학적 골간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 경제가 낙후된 북한을 남측이 적극 지원하라는 의미로 나타나겠지만, 골미로는 남북 두 주체가 '상생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민족경제를 완성, 통일에 이르렀다는 '탈(脫)분단경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 Q: 평화정착방안 왜 빠졌나 北核등 현안 합의못했지만 심도있는 대화

## Q: 연합-연방제 공통성인정 北 '2국가2체제'로 근접- 우리주장 수용한셈

## Q: 김위원장이 서울 담방 언제 이르면 8·15 늦어도 내년초 성사 가능성

## Q: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란 南자본-北노동력 결합 '相生의 경제' 지향

를 인정, '1민족 2국가 2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연방'은 '1민족 1국가 2체제'로 단일 주권을 유지한다. 김대중(金大中)은 도청보급에서 "북한은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대통수권을 갖고 남북 양측은 지방정부로 내각만 관료화 하겠다" 주장했는데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며 "근자에 북한이 이를 수정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외교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데는 실제 우리가 주장해온 대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과 '연방'의 공통성이란 표현을 택한 것은 곧 북한이 '1국

의 서울 담방은 '적절한 시기'라고 표현돼 있다. 하지만 두 중심의 합의과정에서 남북자간 대화나 김위원장의 담방 시기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 김대중(金大中)은 "6월 안에 연속 남북자간 김 위원장이 있을 것"이라며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협의하는데 매우 힘썼지만 김 위원장이 합의한 사업 안에 (남을 때론)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과 김위원장이서 서울방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시한(時限)'에 대해서는 합의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는 즉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8·15' 이념가족 상륙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올 가을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자간 대화는 양측 회고 위 지도자간 합의사안인 만큼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대표로는 남측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북측은 김용순(金容淳)이내내외위원장이 거론된다. Q: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A: 향후 남북경협의 철학적 골간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 경제가 낙후된 북한을 남측이 적극 지원하라는 의미로 나타나겠지만, 골미로는 남북 두 주체가 '상생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민족경제를 완성, 통일에 이르렀다는 '탈(脫)분단경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북자간 대화는 양측 회고 위 지도자간 합의사안인 만큼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대표로는 남측은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북측은 김용순(金容淳)이내내외위원장이 거론된다. Q: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A: 향후 남북경협의 철학적 골간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 경제가 낙후된 북한을 남측이 적극 지원하라는 의미로 나타나겠지만, 골미로는 남북 두 주체가 '상생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민족경제를 완성, 통일에 이르렀다는 '탈(脫)분단경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은 "대한민국 경제가 남한 내부에서 한반도 전체로 발전할 경우 북도 남도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등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현황을 보완적으로 보완하면서 공존공영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경우 서로가 이익이 되고 남북 경제의 균진화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 민간차원에 국한했던 남북간 김합을 정부차원으로 개방시키겠다는 두 정상간의 의지도 반영됐다. 남북간에 정부차원의 김합이 추진될 경우에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주자보장합성 △이종과제방 지원합 △직적재산권보호합성 △재산권 및 권역권 보장조치 마련 등 북한 내 법적 제도의 김합을 제기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 [www.yonhap.com](http://www.yonhap.com)

# 100명 이상 月 1, 2회 상봉 추진

## 이산가족 재회 어떻게

'부둥켜안고 오위하며 뽀뽀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들, 오빠와 여동생...'

8·15 광복절 즈음에는 시골과 평양에서 이산 장민을 복기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공동선언에서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 85년 이후 15년만에 재개

남북 당국이 '공식후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은 꼭 15년만의 일.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했지만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것은 85년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예송간담회' 교환 단 한차례뿐이었다.

이번 '8·15 방문단'과 관련된 관심사는 상봉의 규모와 절차, 지속성 여부 등.

## 적십자회담서 규모등 논의

규모와 절차 문제는 이남측 기능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문단 수는 견해를 동가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공화 도청보고회에서 "상당한 규모로 시작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85년 교환방문단 때는 각 151명이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 방법으로 물다간 했지만 89년 2차 교환방문단 교환 합의 때는 각 300명씩을 보내기로 했었다.

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첫 시범사업으로 교환이산가족 100명을 포함한 240명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송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됐다.

##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 필요

그러나 정부가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1년의 예송단 방문단 규모보다 상봉사업의 지속, 확대하는 문제다. 정부가 북측을 설득해 관철시키려는 안은 '100명 이상 규모, 월 1, 2회'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의 수준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모든 이산가족의



### 남북한 이산가족 협상일지

|                |   |
|----------------|---|
| <b>71년8월</b>   |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첫 남북적십자회담.  |
| <b>72년8월</b>   | 남북적십자 1차 본회담서 주수 및 행사 확인, 평양, 상봉, 서산거리, 피출입 등 5개항 논의.           |
| <b>85년9월</b>   | 이산가족 및 예송관련 서울-평양 교환 방문과 가족상봉.                                  |
| <b>89년11월</b>  | 2차 교환방문 및 예송관련 상봉방문 합의, 북측의 예송가족교환 제안으로 무산.                     |
| <b>91년12월</b>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후 18주에 이산가족 서산거리, 평양, 상봉, 서산거리, 피출입 등 이산가족 교환방문 합의.  |
| <b>93년3월</b>   | 비전향장기수 이만오모든 북한 송환.   |
| <b>94년4월</b>   | 북측이 남측을 초청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북측은 비준안 논의하고 있음.      |
| <b>99년6-7월</b> | 북측이 남측을 초청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문제는 서대교섭 등으로 무산. |

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사의 주춧돌, 상봉, 양려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단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유럽은 분기 상봉시대에 대비한 이산가족 자료정비에도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남은 내 이산가족이 1세대 120만명, 2, 3세대를 포함하면 7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통일부 산하 이산가족정보지원센터가 보유한 자료는 15만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 풀기자)

fullmoon@donga.com

## ● 東亞日報

2000. 6. 16 (금)

## "美, 對北경제제재 곧 풀것" 외국기업 北진출준비 박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한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위한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기점으로 북한과 일본, 중국 등 대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빠르면 25일 대북 경제 제재금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외국 업체들의 북진행위 가속화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음성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업체인 스티텍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3일 북한 조선제철회사(KPCC)와 인터넷을 통한 음성데이터 전송(Voll) 등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설의 공급계약을 발표했다. 미국 통신관련 회사가 북한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 최명남 조선제철회사 부사장은 "많은 미국기업으로부터 계약분할이 있었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넓은 통신망을 확보하고 있는 스티텍과 손잡게 됐다"고 말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내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 김우 소북관상봉 및 원자재 수입 협소비재상봉 수습과 금

용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합자 투입 △노동력 관리 석유 북제 시멘트 교역에 대한 투자 △도로 횡단 광물 등 인프라와 여행 관광분야 투자 △대북 송금 △신약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 수송 △상업항공기 운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북관외위원회"의 제프리 존스 위원장은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하반기중 투자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합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대북 한류 차례 북한에 파견해 온 '대북 투자 조사단' 파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과 유럽기업의 합작 대북 진출도 추진할 방침.

한국 외국기업협회 이상원(李相源) 전무는 "다음달중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모여 대북 투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북한에서 생활용품을 주문 생산하고 있는 흥광 7기업이 한국의 지사를 거점으로 합작을 계획 중"이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외국 기업 대북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자홍기자)

bonhung@donga.com



# “다시 만나자” 공항서 작별의 포옹

## 서울도착-평양출발 표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부터 3일, 와 5시간 동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평양행'을 마치고 15일 오후 경원역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 6·15선언의 의미 상세히 설명

【서울도착】 김대중대통령은 15일 오후 5시 남 서울공항에서 이명동(李鳴東)국무총리(국무총리) 이명삼(李鳴三)국회의장, 최정호(崔正浩)대법장과 민주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영접을 받은 뒤, 태극기를 흔들며 보도에 출진하는 시민들의 환영속에 청와대로 도착해 여권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공항 수문장들을 손잡은 채 1시간 30분여 만의 30분 54.24분경 서울 공항에 도착, 30분 의견교환(意見交換)을 끝낸 뒤 임금이 도착할 때 여권교환의 도착보고를 통해 30분 54.24분경 공항을 출발해 조종조종 비행했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서울에 입성 기념행사의 '우리과 소원'과 '북

방의 나라로'를 불러 분위기를 돋웠으며,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주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눈길.

한편 특별수용관으로 동봉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구급차장은 2002년 월드컵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복속과 합의했다고 공개.

이날 서울공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거리에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나와 김대통령을 환영, 시민들은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환영해요' 등의 격찬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에 탄 차가 지나갈 때는 "만세" 함성을 지르며,

김대통령 대외가 서울시청에 이르는 수문장의 문신으로 만든 대형 아크(10여미터)를 설치해 경선이 화려로 꾸며지고 시민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을 지내 분위기는 감격에 도달.

## 소위원장 직접 배웅

【평양출발】 김대중대통령은 경원역에서 15일 오후 11시 40분경 김대중대통령을 배웅, 이날 공항에는 김대중대통령이 출발하기 한시간 전부터 북한 국경선과 한송이대가 김대중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1시 40분 선두차량이 도착하자 환송객들이 일제히 붉은색 조화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함께 한 차에서 내려 주악이 울려져 가는 가운데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 이때 김위원장은 김대통령과 오른쪽 뒤로 걷는 등 극적인 예의를 짓고, 김연남(金延南)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등 복속간부와 한송이(韓光熙)대통령비서실장 등 남북 수협원이 함께 떠났다.

이어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전용기 트랩 밑에 도착해 작별의

포옹을 나눴다. 두 정상은 서로 차례 몸을 가볍게 부딪치며 그간의 우의를 다졌다.

김위원장은 김대통령 대외가 드림을 물러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김대통령 대외가 전용기 탑승에서 손을 흔들자 박수를 치며 인사했고, 이후에도 김연남(金延南)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함께 김대통령의 전용기가 공항을 완전히 이륙할 때까지 손을 흔들며 인사.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함께 30.33분경 김일성종합대학 앞 금성거리에서 도착해 평양시민들에게 환송인사.

특이한 것은 김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할 때 시민들이 "만세"와 "김정일, 김사공의"를 번갈아 외친 것과 달리 이날 환송행사에선 "만세" 한가지만 나왔다.

## 김대통령 서울도착 보고 (요지)

### “열살위인 나도 왔는데-” 김위원장 담방 설득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남 서울공항에서 기자 간담회와 특별행의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담방문자에 대해 '김의' 뜻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일 담방문자와 대한 김대통령의 '해설'.

#### 통일방안 토론 합의

기자회견 해결원칙, 연합제안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합제안-자주적 해결원칙은 우리 남북공동선언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원상만 얘기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복속을 강조했다. 연합제약 추진방안도 북한은 최근 중정부부가 지방정부에 되돌리고 군사권을 내놓는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선회했다. 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인 남북정상회담과 상응하

는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자고 설득, 합의했다. 이는 통일운동 사상 획기적인 계기이다.

“이산가족 방문단교원 및 비정형 정기수 문제-중환자나오면서 김정일위원장에 '8·15전까지 여러분이 만한 대로 한번 큰 크게 하시오. 다른 문제는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6월부터 적십자를 바로 기증하겠다고 하니 김위원장도 좋다고 합의했다. 상당한 규모로 시작할 것이다.

####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

구체적협력-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서 협조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은 최근 중정부부가 지방정부에 되돌리고 군사권을 내놓는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선회했다. 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인 남북정상회담과 상응하

## 김대통령 평양출발 인사 (요지)

준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료 여러분.

이제 저는 2박3일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렬한 성원과 환대는 영정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반기겠습니다. 감격의 민남이었습니다.

저는 북녘동포 여러분이 보여주신 민초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와 열정을 남북동포들에게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분단 50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갈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평양선언'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민족을 위한 역사적 걸음이기에 합의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남북이 열과 성을 모아 이룬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순세로써 민족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이룩했다는 믿고 부끄러움과 겸손을 다 합니다. 우리의 남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준경하고 사관하는 평양시민과 북녘동포 여러분, 그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 단원부속장사, 만세 민남입니다.

# “北 경협 적극적... 정말 뭔가 될것 같다”



## 방북 경제인들의 소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수반하고 경제인간 북방을 방문한 뒤 15일 서울로 돌아온 경제인들은 이날 가진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소감을 밝혔다.

경제인들은 방북후에 대부분 자국에 돌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으며 북한측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인품과 방북기간 중의 몇 가지 비화도 남겼다. 다음은 경제인들이 밝힌 방북 소감.

### 진심으로 환영받은 느낌

“김승범(金承範)·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북한의 환영과 표창과 자애를 받았다. 동원한 계단과 김정일로 환영하는 느낌을 받았다. 김정일위원장님께서는 북측 인사 모두 남한 인원을 상냥히 보는 것 같았다. 방북은 자신들에게도 감사할 때마다 북에 유지를 바랐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편지가 남측 교민에게 실린 이야기를 해 우리 일원에 모두 감격스러웠다.

우리 경제인들은 두 기업장에 남한 기업인들을 재향한다. 조성에 관한 근무에 대한 남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했다. 좋은 마다 남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노력해 다시 북방을 위해 할에 노력을 해왔다. 15일 오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유머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박경삼 KBS 사장에게 “나는 남한 방송 중 KBS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 MBC, SBS도 좋아한다”고 밝힌 뒤 “어서 광명천을 만나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남방에 친선의 뜻을 재언했다.

“장지혁(張致赫)·고협 회장” 우리 기업인들은 방북후에 귀국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조성과 이종재투자협정을 재조성 강하게 마련을 요청했고 북한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경제인들은 방북후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을 강력히 요청했고 북한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방북후에 귀국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조성과 이종재투자협정을 재조성 강하게 마련을 요청했고 북한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달라 있던 분위를 느끼는 것 같다. 일 일차간적 두 사람이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참 재미있었다.

### 의사소통 전혀 지장없이

“김재철(金在哲)·무역협 회장” 북, 미국 등과 대화할 때 일차간적 말이 고, 있을 같은 생각했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15일 방북을 주관하게 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많은 오해를 해소해서 가장 뜻깊었다. 금방부터 유감도 받았었고 이차회담에 참여 지느라미를 늦은 유리는 최고였다. 김정일위원장님께서는 대단히 솔직하고 소담하고 미리회신이 바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친근함을 보이는 김위원장님에 보였다.

### 北 컴퓨터분야 관심 높아

“김순길(金孫吉)·SK 회장” 방북 기간을 떠날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정일위원장이 귀국에 직접 영접을 다시고 김대중위원장과 자문자도 같이 다고 말하면서 두 분이 모두 맞잡는 것도 보고 영접이 왔다. 김대중위원장을 본 것은 별로 알지만 북한에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김정일 위원장께서도 오셨는데 보았고 북한 인사 접견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다. 시골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북측에서 무대개는 모습과 외국 주수가 가진 모습을 보고 직감은 북측은 관광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칼리TV공장등 추진

“구본무(具本武)·LG 회장” 개인적으로 첫 방북에서 상평을 갖고 떠났다.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기까지 내내 북한이 보여준 일차간 환영에 감명을 받았다. LG도 현재에 대북사업 일환과 계획을 중심으로 칼리 TV 공장등 추진이다. 비무장지대에 국제방송센터 건립 등 사업으로 대북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가속화시키 나갈 계획이다. 방북 기간 중 북방도 감은 없었다. 유감도 받았고 소망도 지사도 좋았다.

“이윤홍(李潤洪)·56·삼성전자 부회장” 경상도나를 계기로 남방 방문 분기가 재향해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확장이 계획되고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남방 투자에 대한 접근과 사업 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정종현(鄭宗顯)·현대인사이자



6·15선언 합의 촉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등 남북대표단이 15일 평양 박희원영빈관 1호관에서 열린 환영오찬에서 6·15 공동선언문 서명을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다.

북한측과 구체적인 사업문제에 대해 논의하게는 없었다. 이날 방북 김승범 전경남에이강의 방북 때 북한측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무자조사단 긍정적 반응

“이원호(李源浩)·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우리측은 주로 참여하는 일차간이었다. 북측은 이번 기회에 뭔가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 같았다. 북측의 의지가 느껴졌다. 8, 9일경 50명 규모의 중소기업 대북투자조사단이 방북해달라고 우리가 제안했고 북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남측 입장에서 참유다 건너 사람이 좋은 유진진 근처에 중소기업 건립을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백낙홍(白孝亨)·인제대학 이사장” 북한 비정기에서 내리다보니 모대기가 이미 끝났어야 할 시기인데 강행도 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행에서 방양으로 가는 길을 아주 깨끗하고 잘 가꿔져 있었다. 김정일위원장은 약속을 잘 순도 하고 짜 같았다. 그는 우리가 강행하는 것처럼 무자조사단이 없고 유진진이 있었다.

유감으로 해해달라고 조성된다면 언제까지나 비정기적 복원에 대해 여왕이 인정해주실 등 유 무요로 사용되고 있다. 단 북측에이강의를 다뤄야 수주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를 사달라고 자 중상을 건넬 수 있다. 언젠가 평방 김승에 방북을 갖고 싶다.

“김재부(金在夫)·금공부

## 北 “하고싶은 얘기 다 해달라”

### 남북경제인 평양서 한자리에 경협 확대 방안 모색해 논의

15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공원에 열린 남북 경제인간 한 자리에 모여 경제인간 방북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남측에선 방북 기업인 전원이, 북측에선 평양인 민족경제인간 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북이 안돼 기업인들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하느라 제이름 남비었다’면서 ‘92년 남북 기업간의 사정도 아직 심각한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 기업인들은 정치권에 말을 남으며 ‘이, 정말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이 즉석에서 ‘북한과 대상을 금대어 한다는 마음 같으려나’면서 ‘제 재가 나와 경제 분야에 참여도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잘 접근해야 한다’고 답사를 했다. 김희철은 ‘무자보장협정, 이종재 문제 해결, 신형 보상 등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원호(李源浩)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북측 민간기업 등 여러 다면 정기적으로 만나 민간 부문

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구조로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재언했다.

김승범(金承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92년 합의와 남북경제공동체와 민족경제 논의에 있다’면서 ‘중국에 대안해 했던 것처럼 남한 기업에 대한 무대개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철(金熙哲) 무역협회장” 김대중 위원장은 ‘남측 몇몇 인사가 통일 중인 고강우지회의 회장이 정상회담 이후 더욱 힘있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김승범(金承範)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92년 합의와 남북경제공동체와 민족경제 논의에 있다’면서 ‘중국에 대안해 했던 것처럼 남한 기업에 대한 무대개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범(金承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92년 합의와 남북경제공동체와 민족경제 논의에 있다’면서 ‘중국에 대안해 했던 것처럼 남한 기업에 대한 무대개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철(金熙哲) 무역협회장은 ‘북측 민간기업 등 여러 다면 정기적으로 만나 민간 부문



수행원들 동명왕릉 견학

중앙대사진기자단

15일 오전 남측 특별수행원들이 평양을 떠나기 전 시간유 내 북한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동명왕릉을 둘러보고 있다.

원송오찬 스케치

손에 손잡고 '우리의 소원' 합창

○...김대중령의 숙소인 백화권 영빈관 1호각에서 열린 대표단 환영 오찬에서도 김위원장은 예의 과식을 보이면서도 김대통령에 대해 깃듯이 예우.

간편복 차림의 김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앞서 백화권영빈관에서 김대통령 내외와 함께 30분간 티나임을 가진 뒤 낮 12시20분쯤 박수 속에 오찬장에 입장.

"판걸이 의자 갖다드려라"

김위원장은 레드네이블에 앉으면서 김대통령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이 판걸이가 없는 의자인 것을 보고 바로 뒤에 서있던 군복 차림의 의견장을 불러 "김대통령께 판걸이 있는 의자를 갖다 주시오"라고 호령한 뒤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라며 세차레나 관계자를 질책.

이어 조평북한인민군총정치국장과 임동원국가정보원장의 오찬사 및 답사에 이어 간배제의가 나올 때마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서로 짐을 마주치며 간배. 김위원장은 이어 지리에 앉자마자 잔담 만찬 때의 '기관 술과 타'를 주제로 예기담 시작. 김위원장은 "모두들 익시 김정일위원장의 숭신력이 남가롭다고 하더라도, 숭신력이야 통일부장관이

나보다..."라고 농담. 이어 김대통령이 "지는 네번에 걸쳐서 마시고..."라고 말하자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에게 독주(毒酒)대신 포도주를 권유.

○...오찬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돌아가자 남측과 북측 대표들은 한사람씩 나서서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에게 인사하며 술잔을 권했고 두 정상은 이들의 권유에 일일이 대응하며 남북관계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를 들었다.

오찬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측의 경제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김위원장에게 잔을 줄 것을 요청했고 뒤이어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도 나와 김위원장에게 차례로 술잔을 받았다. 김위원장은 이때 개방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정몽헌(鄭夢憲)한대이산이사에게는 "곧 다시 오신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정주영 전현대엔지니어링)을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김위원장과 간배한 뒤 김대통령에게도 간배 제의를 해 김대통령이 이들에게 술을 따랐다. 이를 지켜보던 김위원장은 "이런 사면이 있을 때는 과거에 CNN을 데리고 갔었는데 간 배도해 주기 바란다"고 보도진에

말을 걸기도 했다.

박지원장관 애창곡 열창

○...김대통령과 김위원장 주변에 있던 참석자들이 함께 시시 기념관임을 하자 박지원문화관광부 장관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도록 합시다"고 제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이때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함께 손을 잡고 흔들며 매우 감격하는 표정.

박지원장관은 "문화부 장관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겠다"면서 즉석에서 '내 고향에 있어줘'와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연이어 불렀다.

○...이날 원송오찬에는 북측이 새롭게 개발한 다양한 메뉴가 나와 눈길. 배를 뜨게 속살을 통통하게 파낸 뒤 그 안에 김치를 넣어 익힌 '배속김치'와 아자얼매인의 불을 뽀 쪄김치 상어지느러미를 넣어 끓인 '아자상어 날개탕' '참방뽕탕' 등이 그중.

김위원장은 또 여러가지 북측 진상품을 가져오게 해 남측인사들에게 나누게 했는데 '도토리산삼술', '구름이슬' 등을 포도주와 함께 내놓았다.

(평양-공동취재단)

# “離散상봉 다른문제와 연계말아야”



5대선인 전문가 진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11일 합의 시명한 '6·15 선언' 5차장은 과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까. 한영남은 김문기3의 분석과 평가에 대해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김대중대통령이 해외대사로 향하던 도중 서울시청 앞에서 연도에 환송 나온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 1 통일 자주적 해결

## 北 주장 강하게 반영 美軍철수 요구할수도

▽김성운(姜承允)동국대 북한학과 교수-통일문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일단 만 사(事)를 놓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분단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그 해석을 놓고 일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이 남북공동선언 합의의 첫번째 조항으로 들어간 것은 북측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측은 꾸준히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안을 민족문제의 측면에서 접근해왔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이 조항에 근거해 주한미군 철수나 외세 배격을 인민합의회의를 남측으로 할 수도 있다.



그동안 북측은 평화분쟁에 관한 것(사)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이 정전협정의 남측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도.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한미군분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측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자주적 분단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통일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 같다는 것이다.

### 2 연안-연방제 인정

## 평화 첫 걸음은 '공존' 완곡한 표현으로 인정

▽허문영(許文寧)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분열에 대한 남북정상 합의는 한민족의 미래 지향성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 나타난 진신은 크게 화해와 통일 문제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화해는 '20세기 과거 청산'이고, 통일은 '21세기 평화 체제'라는 점에서 한민족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의시 1, 2항 모두가 분열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은 북한측으로 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강제 문제만을 이니라는 점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열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통성 강화와 위상 제고 차원에서 열린 회담임을 시사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연방과 연방제에 대한 언급이다. 남측의 '연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북측의 연방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측간의 '공존(共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통일 열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공존을 인정할 것에 대해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화해와 통일의 핵심이 '공존'이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처음 기했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 3 이산가족 상봉

## 인도주의 입장에서 접근 실무협의 계속 돼야

▽최성호(崔成鎬)중앙대법대 교수-남북공동선언은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의 시범적 실시,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인도적 문제 해결 등 3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추후 실무 협상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청사진을 띠고 있다. 이번 선언은 과거의 어떤 합의보다 실천성이 강하다. 92년 5월 남북기본합의서 나침을 기념하기 위해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속난 교환'에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보았을 때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현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계속되면 남북차 회담이다. 남북적십자회담, 또는 실무 협의가 계속돼야 한다. 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지속을 위해 이산가족의 범위와 상봉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규정했듯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결코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

북측으로선 이산가족 상봉은 방문사례도 수도 있다. 이를 강하게 정통시인 등 지체 분야에 이행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4 경협·문화교류

경제 균형발전 큰 의미  
이질감 극복 기대높아

▽동용승(東龍昇)삼성경제연구소 북핵연구팀장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전 지양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까지는 사실도 있고, 일단 중추의 원리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절히 배합될 것 같다. 아주 중요하고 원점상의 문제를 앞에 세우고 실천적인 문제를 뒤에 붙여 진행하기로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교류문제는 원칙적인 것을 시작했고, 특히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지원의 남위상을 제재할 수 것으로 할 수 있다. 당후 경제교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다.

▽임권택(林權澤)영화감독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이 문화의 이질감을 넘어선 합작영화의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남북의 시교류 기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는 정치 군정교류에 따라 남북이 거부감을 덜 갖고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5 당국대화재개

北 경제적 필요성 따라  
후속대화 빨라질수도

▽유호열(柳浩烈)고려대 교수 "이번 회담의 주대안 사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자신의 활동이 남화에 어떻게 제도화될지 관심이 많고 이제도 있을 것 같다. 이번 회담을 통해 김위원장은 서울 방문이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듯하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용감하다고 평가할 만큼 본인도 '용감하게' 서울을 방문할 마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관 시제'라는 전제일 단 것은 이남가족 교환 방문이라는 것 김위원의 도태가 마련되는 등의 계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예이다. 김위원장은 또 피폐한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 볼 필요성을 느꼈 것이다.

남북간 후속 대화는 별도 회담에서 무차별한 접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듯이 북한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형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공동위가 수립될 수도 있고 관공정인과 사무소 같은 것이 생각 수도 있다. 서울 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는 아직은 좀 먼 예가 아닌가 싶다.

비전향 장기수 北送해법 관심  
국군포로와 형평성 논란 일듯

남북정상이 6·15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남에 대한 북한 송환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으나 이 경우 국군 포로 및 남북 이북 송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향 장기수 실태** 비전향 장기수는 사상 강압을 거부한 채 수십년간 북한 인민군 포로와 남과 간첩 등을 일컫는다. 김정부 출범 후 세 차례의 사면에서 26명이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리나 현재 북의존인 비전향 장기수는 한 명도 없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 등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88명으로 이중 북송 희망자는 58명.

**북송 절차 및 전망** 대남 교류 관계자는 "비전향 장기수 북송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의 문제"라며 "김대중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이들의 북송에 따른 특별한 법적 절차나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의 상당수가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신분인 만큼 사면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국군 포로 및 남북 민간인 교환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왔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 북송이 추진되면 보수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상호주의' 또는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 같다.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따른 일부의 비판적 여론을 어떻게 수용해 묘안을 찾는지 주목된다.

<임기대기자>  
keee@donga.com



“고향 갈 수 있을까” 신병진기자

비전향장기수 송신들이 공동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 팀제일'에서 안희섭(71·인천) 유한욱(91·기온대) 양희철(66) 등 3명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보도한 동아일보를 꼼꼼히 읽고 있다.

# 經協속도 조절... 남북 함께 잘사는 길로

남북정상이 경제분야에 대해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경제협력과 함께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고심 끝에 내놓은 발표문이지만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언뜻 보기에는 남북 양측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경협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개념을 현실성부한 한민족 경제동태를 구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협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을 감안해 경협의 속도와 목적을 조절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라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적 발전'에 머물러다 보면 자칫 남북경협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발전은 남한의 대북한 지원=남북경제연구소를 결성한 수석연구원은 "남북경협이 균형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남한이 북한의 경제개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를 접목하게 선했다는 설명.

지금 당장 경협과 남북관계를 본위로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수용능력과 남한의 투자는 매우 제한된 한계가 있는 만큼 순차적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협 규모를 넓혀가자는 합의로 풀이된다. 우선 남북경협을 본체로써 양측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국·국제금융계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정신이 92년



'민족경제 균형발전'

## 무관세교역맨 결국 통일비용 감축 효과 구체적 설계도 없으면 하향평준화 위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정된 경제교류 및 협력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재와의 공동개발, 그물자교류, 스물자교류 등에 나서며 남북간 교류를 민족화부 거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를 불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관세 교역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 모두에 이익=이번 발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지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대외 개방 의지를 자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경제력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이 서로 협상하기 위한 전제조건"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

한류은행 김주현 북한경제발전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경협을 통해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도 그에 상응



'남북 경제협력에 과연 동성회일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가 북녘땅 곳곳에 스며들 수 있으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4일 오후 퇴근 시간을 맞아 귀가를 서두르는 중앙시인들.

하는 이익을 챙겨가는 만큼 동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경협의 목적을 한쪽 없이 남한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남측도 협력적인 범위 내에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예시라는 것.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결합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협력모델로 꼽힌다. 남한은 산방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핵심으로 이전,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은 여타지 도로 향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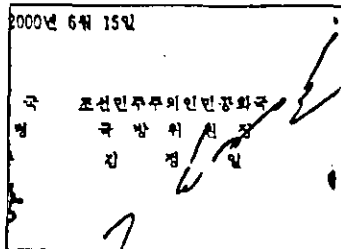
무관한 경제자간의 기쁨을 마련하는 식의 맞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위동원연구원은 "남북간의 경제력 차를 인정해 인도적 지원 성격의 경협과 '순매로 발전' 스의 경협이 병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를 지원, 결과적으로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 金正日の '주체 필법'

## 45도 방향 뻐쳐올려 서명 '상대방 위축시킨다' 자랑

14일 밤 늦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문에 나타난 김위원장의 서명이 눈길을 끈다.

김대통령은 정자(正字)로 또박또박 '김대중'이라고 썼지만 김위원장은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뻐쳐 올라 자신의 이름을 날려 쓴 것. 인뜻'보면 '김정일'이라는 이름 서자가 눈에 잡들어오지 않을 정도다.

김위원장의 이같은 서명은 북한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독자적인 필체로 알려져 있다. 이 필체는 작고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이미 많이 애용한 이른바 '주체(主體)' 필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자주 다녀온 한 기업가는 "북한관리들이 김주석의 필체가 '적의 간담을 썩늘게 하고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위력적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김주석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위원장이 이 필체를 따라 배운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필체에 대해 원광대 여대명(余泰明 서예과) 교수는 "김위원장의 서인을 특정한 서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런 필체를 통해 자신있고 힘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kywll@donga.com

# “꿈만 같았던 54시간”

## 수행원들의 방북소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함께 2박3일 동안 평양을 다녔던 공식 비공식 수행원들은 한결같이 "역사적 장소에 직접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감격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언행과 스타일에 대해 매우 감명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수행원들의 방북 소감.

### 세계와 경쟁 길 열려

▽김운용 대한체육회장=5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회담에 와서 한 민족의 하나가 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우 명석하고 جوان했다. 나에게 "계속 분야제인 뭐가 재의 중이다"고 묻자 "스포츠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강력소속대는 방북에 남 의미가 없다. 북측에 국외여행 재개 문제를 요청했다. 노동당 주에서 김대중 회담을 추진하고 약속했다. 앞으로 여당 단선에서 서로 연락할 것이다.

### 가족끼리의 만남같았다

▽이원구 자민련 의원=총각 고사였다. 강성태(姜成泰)가 되고는 가족끼리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았다. "일과 하나였던 것이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라는 사뭇 밝은 표정이 총리의 발언이 생각났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신뢰관계가 쌓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 '위대한 사건의 증인' 뿌듯

▽고은 시인=원반도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한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감각을 이루는 것이 없다. 현대사와의 동감성 등을 회복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8월15일 이후 기자회견 등으로 강행한다.

▽박관상 방송협회장=역사의 개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분단의 현실을 상호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분단의 고통을 다는 현실적 접근이 마련됐다. 심전 가능성은 합의가 나와서 라고 고무된다.

###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

▽박선숙 청와대 부대변인=감격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란 느낌이다.

▽최화래 신문협회장=50년 남북 교류담 2차회담 때는 분위기가 아

주 냉랭했고 평양에 한 사람의 환영객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뤄지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고 김씨가 아주 좋았다. 무인기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다.

### 김위원장 리더십 가치

▽이종호 청와대 통일비서관=20년 동안 남북분리를 당해왔는데 그 감정을 2003시간 가는 것 같아 지난 시간이 결코 잊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김위원장은 집중한 대로 집중한 모습이었다. 갖고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직권 등을 갖고 있었다.

### 시간갈수록 분위기 좋아지

▽김철진 대통령정보비서관=신방대로 들어가 보면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사가 있고 매우 자부심이라고 느꼈다. 세계와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도 감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졌고 매우 진중해졌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김위원장의 위상은 한강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평양을 위선만을 보았으나 지금은 뉴욕을 넘어간다"고 말했다. 내가 "평양이 앞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하자 "평양과 나해서 뭐 하느냐. 인간은 인간이 맞는 부(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15일 양면과 총방오관에서 내가 두 번째 노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은 한반도에 꽃이었으나 노래는 개신되었다'고 하자 "박정관 3대, 4대 시절 가방어. 가서 박정관 3대, 4대 시절에도 운동해 주셨어"라고 조그맣게 강조에 목소리가 터졌다.

### 위안부문제 공감 가며

▽정삼상 이화여대총장=북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남북 공동의 양민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회의에 참여할 것을 초청하고 제안했는데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얻어 기쁘다. 위안부 때 고한일 광복 운동기를 떠났는데 50년 만에 방북하니 "김씨가 갔었다"다.

▽최경범 대통령주치의=이제야 고한이 바로 김위원장과의 평양에서의 만남이라는 문대였다. 워낙 많이 면해 찾을 수가 없었다. 북측의 의견사항을 직접 물리보고 김위원장의 위안부 문제의 주제를 만나 김위원장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 지 묻고 싶었는데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장치혁씨 김성모씨 백낙한씨

평양동행 이북출신 기업인·의사 3명

호텔방서 '짧은 혈육재회'

'인제 오려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까.'

14일 밤12시경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돼 한반도가 온통 흥분에 휩싸여 있던 시각, 여산가족 기업인 자식으로 방북한 장치혁(張致赫·68·고합 회장)전경련 남북 김위원장, 김성모(金成模·67) 연나이코리아 회장, 백낙한(白樂汗·74)인제화학 이사장 등 세명의 노기업인들은 곧 '상봉을 북녘 함양들을 자기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평북 영변에 고향인 장위원장은 평소 북한 출신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고향투자사업 협의회'를 결성해 '양양(양州)의 하천협'을 탈레왔다.

김회장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 46년 13세 나이로 월남했고 현재 이북에는 사촌 등 친척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백이사장은 평북 경주 출신.

이들 3명은 상봉 시간이 흐추

4시간으로 예정됐다가 밤12시 김영이 만남이 이뤄져 7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마음을 조였다.

다만 이들의 만남은 취재진에게 잠깐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됐다.

백이사장이 5촌 조카 2명을 만났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장위원장과 김회장의 구체적인 상봉 내용은 15일 오후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남북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중 방북단의 가족상봉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북측은 이날 상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투자' 연계 방안에 대한 관심을 은근히 드러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그동안 방북한 우리측 회담 대표 중에서 이처럼 사전약속 없는 비공개 상봉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평양=공동취재단>

독자의 편지

南北통일비용 日도 분담해야 서울~평양 고속도 만들자

박정호(공무원·부산 동구 초량6동) 석진선(강기 용인시 수지구)

바이흐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다. 이산가족문제, 김일성릉 등 현안들이 신적해 있다. 하지만 역사 대다수 국민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 때문에 귀는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독일의 예를 통해 잘 보아왔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와 본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통일비용 일본분담론을 강히 주장하는 바이다. 본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당연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평양 순안공원에 도착한 김대중대통령과 비행기 드랍까지 영접나온 김성일국방위원장이 반갑게 두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남북이 연결되는 통일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다. 서울과 평양, 평양과 서울이 연결되고 관리하면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일다가 마련됐으면 한다.

남한의 산업기술과 북한의 천연자원이 만나 통일제품을 만들어 통일고속도로를 거쳐 외국에 수출됐으면 좋겠다.

“美, 對北경제제재 일주일內 해제”

NYT “테러국서도 수개월내 제외 가능성”

미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25전쟁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 왔던 각종 경제 제재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일주일 내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미국에 원자재와 상품 등을 수출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양국 간의 항공기 및 선박 안해도 가능해진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농업과 광산개발 도로 할만 관광분야 등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국가명단에 올라있는 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첨단기술이나 군사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거래는 금지된다.

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정신병자 운동자 남



치병 등으로 여겨왔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김정일식 경제개혁' 작년 플러스 성장

## 북한경제의 인주소

북한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지난해부터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 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해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수십년간의 경제집제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소진된 데다 도로도 길도 전차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극도로 위약해 성장에도 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북한 경제의 현 주소와 개발전략을 진단한다.

▽북한의 경제지표 1999년말의 각종 발표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정해 김과 지난해 북한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한 성장률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김과는 국산이 상승추세로 전환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전환이라는 분석.

농업과 건설부분을 중심으로 상품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철강 화와 운수업등의 지표도 개선됐다. 국립생산량이 조카 기준으로 42%나 오르며 전년보다 40% 늘어난 것을 비롯, 1~9월 중 전력과 식량생산이 각각 13%와 3% 증가했고 김정은은 상

## 북한의 대외교역 주이

|      | 1970년 | 1980년 | 1990년 | 1995년 | 1998년 | 99년상반기 |
|------|-------|-------|-------|-------|-------|--------|
| 수 출  | 3.4   | 15.7  | 19.6  | 7.4   | 5.6   | 2.3    |
| 수 입  | 4.0   | 18.8  | 27.6  | 13.1  | 8.8   | 4.2    |
| 무역수지 | -0.6  | -3.1  | -8.0  | -5.7  | 3.2   | 1.9    |

(단위: 억달러)

반기 중 80% 늘었다.

북한 내부의 상품경제는 호전됐지만 사회주의 자급경제 노선을 고수한 탓에 대외교역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북한이 지난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물자는 98년보다 16.9% 증가한 4억2900

## 분권화-외資 유치로 60년대 이전수준 회복

## 국가신용도는 바닥권

만달러, 반면 대외교역 규모는 98년 14억4000만달러에 불과했고 99년 상반기 중에는 6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더 줄어 들었다. 이같은 공식수치에는 미사일 등 비밀 무기거래가 빠져 있어 실제로는 늘어날 수도 있다.

98년말 현재 북한의 대외채무는 총 121억달러. 이중 대부분이 미상환 상태여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신용도가 바닥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남북협력이 본격화하더라도 국

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민간기업들이 신평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김정일식 경제개혁으로 돌파구 모색 = 김정일식 경제개혁의 관건은 경제관료 제도당 비교적 경제개혁이 관철됐던 60년대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 70년대 들어 도입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나치게 강하게 강령어를 받아드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표방한 것은 외형상 보수적 경제관리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개혁적 조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식 경제개혁의 주 내용은 △북한특유의 기대 공기업단인 연광기업소의 해체 △과거 기술 개발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 △수출합동회 등으로 요약된다.

<박원재기자>  
parkw@donga.com

## 북한 SOC는 어떤 수준

# 경제난 영향 관리도 안돼 통신 전력 낙후

경제난 이후 대북 부자가 분기되면 김과 가장 시급한 분야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시설이다. 김과간의 경제난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낮은데다 효율성이 떨어져 보수 및 성능개선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송망과 전력 관련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철도 = 북한의 핵심 수송 수단. 총 연장 5211km(98년말 기준)의 95% 이상이 단선이며 김과 노반 기판이 노후화됐고 전차 및 여객차 부품 등의 위약으로 운행속도가 시간당 30~40km에 불과하다.

▽도로 = 30km 이하의 근거리 수송 수단으로 상도수송의 보조

## 남북한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현황 비교

| 구분(단위)         | 북한(시)  | 남한(시)   | 비교(B/A) |
|----------------|--------|---------|---------|
| 철도 총연장(km)     | 5,214  | 8,683   | 1.3     |
| 전차 총연장(km)     | 4,132  | 661     | 0.2     |
| 도로 총연장(km)     | 23,407 | 110,397 | 3.7     |
| 고속도로 총연장(km)   | 682    | 2,678   | 2.9     |
| 항만 화역능력(만t)    | 3,501  | 41,625  | 11.9    |
| *전화회선(수만회선)    | 110    | 2,009   | 18.3    |
| 전화보급률(100명당 회) | 5.0    | 43.2    | 8.6     |
| 발전시설용량(만kW)    | 738.7  | 4,340.6 | 5.9     |
| 전력 발전량(만kWh)   | 170    | 2,153   | 12.7    |
| **상용 전력(만kV·A) | 7.0    | 243.8   | 34.8    |

\*는 북한의 경우 98년 통계치임.  
\*\*상용 전력의 단위는 Base Per Cream Day의 약치임.

자료: 한국산업은행/대한건설협회

기능에 머문다. 98년말 현재 총 연장은 2만3107km 정도. 고속도로도 1~6급 도로 등 7개 등급의 도로가 있는데 1급 도로 이상은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폭 2.5m 이하인 4급 도로가 70%를 차지한다. 포장률은 4% 정도.

▽항만 = 컨테이너 전용설비물 갖춘 곳은 청진항이 유일하다. 하역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며 하역능력도 5~20t급 소형 크레인 이 대부분. 총 하역능력은 98년말 현재 3501만t이다.

▽에너지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공업 육상 전력, 사회주의

권의 원유 원조 급감으로 심각한 수급난을 겪고 있다. 순배전 시율의 노후화에 따른 높은 누전율(30~50%), 저질한 대량 생산에 따른 낮은 원효율, 낮은 기동률 등도 전력난을 부추기는 요인. 발전량은 시간당 170억kW(98년말 기준) 정도.

▽통신 = 가장 취약한 부분. 통신망과 시스템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 조립해서 쓰고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이 주종이다. 98년말 현재 전화 회선수는 110만회선.

<황재성기자>  
jsonhg@donga.com

“北으로-南으로” 문화·스포츠 교류 급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대령위인장의 '6·15공동선언'으로 김대중 시와 문화 등 각계의 대북 사업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될 정부 각 부처의 대북 사업을 정리해 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김대중부처들은 남북이 경험을 합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 기업에 대한 이종과제방지, 투자보장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김비집금을 위해 남북간 협 비용의 60%를 상회하는 불류비를 낮추는 문제점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성사가능성이 높은 사회 문화

교류분야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남북간의 공동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단합단을 구성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 출전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 언어이집화 국어·영어 연구하고, 북한의 교육 개혁 등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발굴작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별로 남북한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peard@donga.com

공동선언 법적효력 있나 없나

“신사협정” “국가간 협정” 논란

6·15 남북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 또는 규범인가.

법조인들은 이 선언문을 일종의 ‘신사협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간에 신의(信義)에 기초해 마련된 약속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동선언을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남북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북한은 내남 적화전력을 포기했으며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양국의 합의 있는 아편을 상호 약속하는 임종의 공동선언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문에는 신사협정 이상의 ‘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한다. 신시대 법대 조시현(趙時顯)교수는 “이번 선언은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법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 끝에 서명주체로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기한 것은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AP와 AFP 등 해외통신사들이 이번 선언문 ‘선언문(Declaration)’ 대신 ‘합의문(Agreement)’으로 표현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이번 공동선언을 신사협정 이상의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는 국가 간의 합의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동선언에 기초해 체결되는 구체적인 합의서와 계약 등은 국제조약이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sooh@donga.com

남북정상회담이후 정부의 주요 대북 사업계획

| 부처       | 대북사업  | 국내사업   | 비고                   |
|----------|---|--|----------------------|
| 행정자치     | △남북한 도시간 자매결연   | △통일대미한 지방자치 관련법규 정비  | 장기사업                 |
| 교육       | △남북한교과서 개정 △미술 교과서 △컴퓨터 등 교육관련 기자재 지원 △학성교원 방문 △북한지역에 대한 분교설치   | △교과서 북한관련 기술 개정 △통일 교육 내용 보완 및 강화 △교육 분야 남북교류의 원리 정립 △관련법규 정비                      |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장기사업 |
| 문화관광     | △언어이집화 국어방안 연구 및 국어사전 공동편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 공동추진 △사료교원 및 역사학자 공동학술회의 △국악기 개정 공동추진 △관광역단 교류 및 공동유적의 개척 △통일문화전집공동발간 △종교인상호방문 △국학자담(조선왕조실록 등) 국역성과 상호교회 및 통한문 제작 △남북한 상호 초청 도사전 개최 △남북한 지역간 중거리구 설립 △남북한작 영화제작 | △북한영화 정기 시사회 △고향(북한)에 찾은내 기 운동 △이집화된 북한언어 자료집 발간 △북한 예술품 반입관련 법규 재정비               |                      |
| 문화관광(체육) | △경명축구부별 △축구 농구 탁구 등 단일팀 구성 △2002 월드컵 분신개최 △12월 고려 아슬 유도 북한 초청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 △관광 스포츠 연계 망양투어  | △서서울인 평양강가대회 △미리문 씨름 등 남북 전통체육교류 △남북 사이를 연결중추 △남북미리문 공동 훈련 △선드림 망궁 등 북한선수 파견선수촌 훈련 |                      |
| 산업자원     | △남한 비축 석탄 지원 △전력확충 지원 △이르쿠르크 가스전 개발 및 남북한간 배관망 건설   |  |                      |
| 정보통신     | △남북한간 직통 유선전화회선 확대 △공공망 등 일부지역 무선통신망 구축 △남북 이산가족간 통신수단확보 △남북 통일 한글 자판 △무궁화위성 남북한 공동이용 △북한통신망 현대화사업  |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발행 △남북정상회담 기념 전화카드 발행   | 인간업체 주도 예상           |
| 보건복지     | △말라리아 치료약물지원 △비무장지대 공동방역작업  |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대한적십자사)   |                      |
| 환경       |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 △해안대동조사 △국립공원관련 남북 정보교류 △환경사 관련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  |                      |
| 노동       | △직업훈련 지원 △APEC형 소년 국제 기능경기 초청 △남북노동자 서울 축구대회  |  |                      |
| 건설교통     | △경원선 경원선 금강선선 동해선 등 철도연결 △국도 1, 3, 5, 7, 31, 43호선 등 도로연결 △북한영공통과 항공로 개설 △북한내 공단건설 △연선 건설  | △철도와 도로 남북 구간 우선 복구  |                      |

## “南北 사회-문화통일은 인터넷으로”

### 각종정보 제공 이질감 해소 관련 사이트 잇달아 개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통합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같은 ‘한강의 벽’을 해소해 보려는 취지에서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잇달아 개설되고 있다.

▽문화통합 프로젝트([www.multimedia.org](http://www.multimedia.org))=학술진흥재단 후원으로 시작된 ‘문화통합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이트. ‘남북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남북자 및 사회화 인류와 심리의 정치와 교수들이 모여 발원에 따른 사회 문화적 갈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인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북한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풍요공간과 문화 △삼남 분단의 언어 등 다수의 연구자료를 한글과 영어로 올려놓았다.

▽레디고 북한영화([www.dprkfilm.com](http://www.dprkfilm.com))=영화전문 인터넷 사이트 무비랜드가 북한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11일 개설한 사이트. 관복 이후 현재까지 북한 영화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한 북한영화사, 북한영화제작시스템, 장르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배우 감독 작가 등 북한 영화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남북문화통합관([www.met.go.kr/arirang](http://www.met.go.kr/arirang))=문화관광부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남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사이버 문화공간 남북한의 다양한 문화재를 멀티미디어 자료로 볼 수 있다. ‘비교 남북상’은 남북한의 유물이나 유적을 시대 주제별로 비교 탐방할 수 있는 코너

로 현재 북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북한자료센터([uniboo.unikonet.go.kr](http://uniboo.unikonet.go.kr))=통일부가 8년부터 운영해온 북한자료센터들 98년12월 인터넷에 옮겨놓은 사이트. 원하면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뢰를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정보문화 언어 종교 문화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영화도 정기적으로 방영한다.

▽북한문화예술사전(203.234.233.2/n--korea)=방대한 규모의 북한 문화예술 데이터 베이스. 북한의 문화예술용어 천연기념물 민속지 문화유적 문화유산 문화예술단체 인명사전 등 많은 자료가 소장돼 있다. 동영상 자료도 20여 가지 제공한다. 용어와 인명을 검색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정영태기자〉  
ebizwiz@donga.com

### 역대합의서와 6.15공동선언

| 주요 합의문건   | 시행주체 (일시)           | 주요내용   |
|---|---------------------|--|
|  | 이후락-김영주 (72.7.4)    | <p>▶포국을 남포대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li> <li>• 평화유지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li> <li>• 민족대단결 사상과 이념체제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li> </ul>   |
|  | 최한호-변영욱 (91.12.13)  | <p>▶정치군사적 대립구분을 해소해 민족통일을 이루고 유해에 의한 청결과 송출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보장하며 다자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회담 연례사무소 설치 운영 등8개항</li> <li>• 남북불기침 남북군사공동위 운영 등4개항</li> <li>• 남북교류협력 이진기축성협정 등9개항</li> </ul>                             |
|  | 연대주-김정일 (2000.6.15) | <p>▶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이해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평화통일 실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li> <li>• 연합체제와 낮은 단계의 연합체제간 공통성 인정</li> <li>• 이진기축성 협정단 교환 및 비전향 장기수문제 해결</li> <li>• 민족경제 균형발전 및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li> <li>• 빠른 시일내 양국간 대화 개최</li> </ul> |

### 연합체와 낮은 단계 연합제 비교표

| 남측의 ‘국가연합’   |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2국가 2개도 2정부</li> <li>• 두 지역국가가 국법 및 외교권을 각기 보유</li> <li>• 두 지역국가의 협력기구</li> <li>• 제도화 남북연합정당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리크워치의 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1국가 2개도 2정부</li> <li>• 연합국가를 두 지역정부 조형</li> <li>• 연방국가제, 국법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연방국가의 국장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위할 수 있음.</li> </ul> |
| <p><b>장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li> <li>•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포기 및 평화공존 지향</li> <li>• 2개의 독립적 실제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li> <li>• 지역정부간 협력제도 설치</li> </ul>  | <p><b>이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국가의 존재유무</li> <li>• 국법 외교권 행사의 주체 및 정도</li> </ul>  |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합이란 ‘노순환 영내외 연합’이란 뜻임.



“잘 가세요”

김대중대통령과 이회호여사가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공군1호기의 트랩 위에서 환송 나온 김경일국방위원 장 등 북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남북체육교류 급물살

축구-탁구 단일팀 구성 유력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체육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 동시입장과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 단일팀 구성문제는 사실상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이 감격 다시한번'. 90년 10월11일 평양 농리도 5-1경기장에서 남북은 통일축구를 매개로 한 민족임을 확인했다.

최고 인기종목 축구 FIFA랭킹은 139위



현재 세계무대에서 북한축구의 수준은 하위권. 203개국에 이르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62개 회원국만 보더라도 한국은 42위, 북한은 139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66년 월드컵대회에서 러시아 이집트와 함께 8강에 오른 것으로, 비록 포르투갈에 3:5로 이겼지만...

아시아경기 예선 출전 멤버는 91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 '코리아팀'의 북한측 코치였던 문기남감독을 사령관으로 골키퍼 한성호, 수비 이태용, 미드필드와 공격전에 김영삼 김철손 주성원 이명철 이경민이 나왔다. 또 18세의 신예 골키퍼 이이경이 눈보았다는 평가. 조총련계 양궁사 등 일본에서 활약중인 선수들도 선보였다.

Table with 4 columns: 선수명, 생년월일, 포지션, 주요역할. Lists players like 정성욱, 계순희, 이명훈 and their details.



북한의 체육영웅들

미려한 정성욱 유도 계순희 농구 이명훈

女強男弱- 김현희 두정실 김향미 '女삼총사'



현재 북한 탁구는 전미대로 '여강남약(女強男弱)'이다. 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 '코리아'로 출전한 이후 북한 여자탁구가 꾸준히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 키워온 반면, 남자탁구는 세에 교체에 실패해 최근 몇 년간은 국제 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바 탁구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중에서는 김향미가 아직 스켈레톤 합마 클럽에서 뛰고 있다. 김향미의 공식 나이는 22세. 그러나 실제로는 37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이크 핸드 드리브로 전향한 최정실(28)이 김향미 이관상을 이을 선수로 꼽혔으나 최근 국제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대외의 95년 방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잇따라 북한에 패했다. 그러나 북한여자탁도 몸 팔리영프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홍콩에 패하는 등 전혀 악화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 여자탁구의 선두 주자는 김현희(21), 원순 세이크핸드 전진 공격형 선수로 작은 체구에 날렵한 탁구를 구사한다. 두정실(22) 김향미(21)도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세대 스타'들. 둘 다 모두 요정순 세이크 핸드 전장이 다. 이밖에도 북한여자탁도 노련미와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위병순과 신예 김향미가 뒤를 받치고 있다.

이자라리온 정성욱 여자유도 계순희 남자농구 이명훈. 이들은 북한의 영웅이자 세계적 스포츠 스타다. 이들 중에서도 스페인 세비아 99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2시간28분50초)한 정성욱(26)은 반 중의 법, 김성욱이 우승하자 북한 노동신문은 '하늘 높이 제2의 인공자구위성 발사한 것과 같은 주석 조선의 기상'이라고 했을 정도다. 정성욱은 북한전진 수립 이후 체육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김성욱의 인기는 지금도 북한에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모든 분야에서 '김성욱 따라배우기'가 유행을 이루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어린이들이 '정성욱 따라하기' 춤을 선보였을 정도. 김성욱은 만찬장에서도 북한 한의 체육선수로는 유일하게 선보였다.

계순희는 예장만다움클럽에서 일련의 영광 따우라 표코를 둘러치고 우승, 여성과 같이 등장한 짝꿍 스타. 최근엔 다소 인기가 떨어진 농구이지만 시드니올림픽에서 그가 골때렸을 때면다만 다시 한번 북방의 영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명훈은 2m35의 세계최장신 농구선수. 북 미 수교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연내에 미국 NBA 진출도 이뤄질 수 있다. (김희성기자)mas@donga.com





줄 잇는 상봉신청

시연수기자

친척방문단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15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실형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신청으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이북5도청 실형민 특적

“離散상봉 누가 먼저 하나”

15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북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실형민들로 북적였다.

“O...센터를 찾은 이산가족들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냐” “8월15일날 만나는 사람들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등을 물. 어보며 대상자 선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일부 신청민은 신청에 필요한 증명사진 등을 준비하지 못해 발을 구르기도.

센터 직원들 “관심진만 해도 3, 4건에 그쳤던 신청이 여제는

15건, 오늘은 오전에만 이미 38건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은 14만8000여명인데 남북정상회담에서 친척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했으니 그 수는 계속 늘 것”이라고 예상.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위해 전북 익산에서 이날 오전 첫차를 타고 올라왔다 는 조하림씨(75)는 “어젯밤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에 두 짐장이 시연한 후 몇시간 동안 TV에서 한 송만도 눈을 땡 수가 없었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원하는 걸과를 얻어온 김대중대통령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하기도.

O...오전 임직원보다 이북 5도청 사무실을 찾은 실형민 1세대들은 서로의 고향과 북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사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크게 들뜬 분위기. 북에 7명의 동생을 남겨두고 내려왔다는 최인찬씨(82·서울 동작구 흑석동)는 “과거의 여러 만남과 달리 이번엔 양쪽 짐상들이 만났으니 어느 때보다 확신하다”며 “죽기 전에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밤에는 잠이 안 왔다”고 눈물을 글썽. (최희원기자)

bestiger@donga.com

보안법 피고인 이례적 保釋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도 앞으로 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송인호부장판사)는 15일 ‘국제사회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29·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고 박씨를 풀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대화기의 인공기 계약사건에 대해 ‘법의(規意)를 따져 처벌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운기자)

lightee@donga.com

사이버 공간에도 ‘회담 잔치’

퀴즈-통일메일등 행사 다채

남북정상회담을 소재로 한 폭 폭 뛰는 아이넴들이 사이버 공간에 크게 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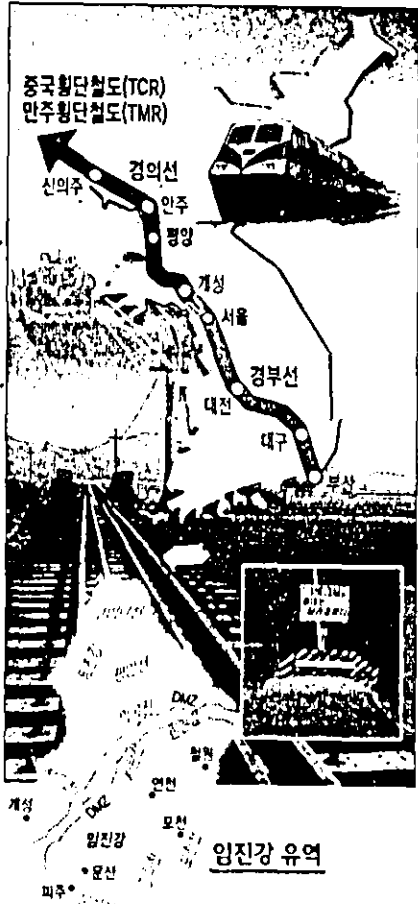
유니텔과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이 시작된 13일 ‘온라인 국토 중년 릴레이 퀴즈’ 행사를 시작. 30일까지 계속한다. 한반도 남단부터 퀴즈를 풀며 만주평안까지 올라가는 이벤트. 지도를 클릭하면 문제가 나오고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4200명이 넘는 네티즌이 퀴즈에 참가했다.

캐릭터 메일 사이트인 씨즈메일(www.cizmail.com)은 13일 ‘통일임원메일보내기’ 행사를 시작했다. 씨즈메일은 이틀간 175통의 통일메일이 들어왔으며 55만개의 메일이 모여면 청와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단 55년만의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평양교예단의 모습을 본뜬 다양한 캐릭터(사건)를 이용해 친구나 친지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인터넷 음악방송국 핫웨이브(www.hotwave.net)도 14일부



터 인터넷 노래방에 ‘위파람’ ‘너는은 꽃이라네’ 등 북한 인기 가요 10곡을 올렸다. 핫웨이브 사이트의 노래방 코너에서 원하는 노래를 클릭하면 가수의 육성, 반주, 가사가 함께 나와 그대로 따라 부르면 된다. 시비서비스는 무료.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 임진강 수방사업으로 스타트 끊어진 경의선 복구 뒤이을듯

## 남북경협 최우선사업

임진강수해 방지와 끊어진 경의선 철도  
를 복구하는 작업이 새로운 남북경협  
의 스타트를 끊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간담교섭부 등은 15일 '06·15 남북선언'에서 명시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교류촉진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경의선 철도 연결과 여름철 홍수에 대비  
한 임진강 수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려면 빈약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  
OC)을 확충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  
에 따른 것.

## 상류에 댐건설도 검토

▽남북경협 1호는 임진강 수방사업=남  
북 모두 작년 여름에 경기북부 지역의 수  
해로 엄청난 피해를 치렀고 여름 장마철  
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가장 앞설 것  
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북한측에 임진강 수방대책을 공동으로 수  
립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임진강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남  
한 단독의 수해방지 대책은 실효성을 기  
대할 수 없다는데 북한도 개방 등 임진강  
유역 농경지가 붙어 감기는 수해를 슬하  
게 겪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입장. 임진강  
은 유역면적 8117㎢ 중 5108㎢가 북한지  
역인 뿐만 아니라 강의 총길이 251.6㎢  
중 92㎢만이 남측에 위치해 있어 상류인  
북측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없이는 하류의  
감기도 파주 분산 동두천 등의 침수가 불  
가피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임진강 상하류 일대의 강  
우량과 수위 기록 등 남북한 양측이 보유  
하고 있는 자료를 교환하고 수자인 전문  
가들도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수계 폭의  
폭과 높이 등을 측정한다는 방침. 임진강  
유역에 홍수감시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  
고 하천순찰 및 공제채취, 독 축조 등 치  
수사업을 벌이며 장기적으로는 상류에 댐  
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대륙 연결 대동맥역할 기대

▽경의선이 연결되면=철도는 북한 여  
객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특히 경의선은 남한 경제의 핵심부인  
서울 등 수도권과 중국 대륙을 잇는 대동  
맥이어서 전구간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남북간경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과하는데다 서울과 평양을 곧  
바로 연결, 여행시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현재 경의선 남측 단절구간인 문산~강  
단 12.0㎢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은 실시  
설계와 용지매수에 착수한 상태. 정부는 이  
구간부터 독자적으로 연결한 뒤 북측  
의 강단~봉동 8.0㎢와 연경와 계획인데  
거리가 짧아 1년7개월 정도면 개통이 가  
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병행해 평  
의선(평양~신의주 221.5㎢)과 평부선(평  
양~개성) 복선화, 개성~문산 구간 확  
충, 주요 지선의 개량 등도 남북 협력프  
로젝트로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의선이 완공되면 강북고  
속철도와의 연계로 통해 부산~대전~시  
골~평양~신의주를 거쳐 만주와의 유라  
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가대 교통망을  
확보하게 돼 한반도 경제권이 새롭게 도  
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현대도 북한 SOC 화중사업의 일  
안으로 경의선 미연장구간 복원을 비롯해  
경의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총 255.  
5㎢를 잇는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 “남북경협 특급 타라” 정주영-이건희회장 잇단 방북

## 재계 발빠른 영보

‘대북사업 특급에 올라타라.’  
남북 정상회담 6·15선언 이후 각 기업의 대북  
사업단이 바빠졌다.

세계는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민족경제의 균  
형발전’이라는 어구로 한국측 자금지원 아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활성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북한특수’까지 기대하고  
있다.

가장 발빠른 영보를 보이는 곳은 역시 현대.  
김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이 28일경 북한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예  
정이다. 이번 방북에는 김홍권(金弘權)현대아  
산 이사와 김용규(金龍圭)현대건설 및 이산 사  
장이 수반한다. 80년 ‘원희정’의 방북 이후 10  
이년간 부자해운 대북사업에서 이제 수위를 건  
여올린 때라는 게 현대측 판단이다.

현대측은 이번 방북에서 남북간 철도 미연장  
구간 255.5㎢를 잇는 강단기 사업을 확정할 계  
회이다. (1단계로 경의선 미연장구간을, 2단계  
로 경의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3개 철도노

선의 미연장구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번 방북에서는 또 신시해안관광 부지 신정  
△금강산 위락단지 △봉천경공업단지 등도 논  
의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역시 이견희(李健熙)회장이 직접  
방북, 남포와 해주 일대의 전자복합단지(50만  
평 규모)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측  
은 북한에서 컬러TV와 전화기 오디오 제품 및  
스피커를 임가공 생산해서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90년 평양에 컬러TV 임가공 공장을 설립.  
올해 1만5000대의 북한산 TV를 반입한 LG전  
자는 북한에 부품생산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계  
회. LG방사는 북한에 전자 및 불유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중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도 신시해안관광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국내공급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의 공  
장을 북한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세계는 경제교류가 급진전되는 과정에  
서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의 남북경협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했다.

〈이병기기자〉

ey@donga.com

자수성가 중소기업인 '통일기금' 1억원 기탁

경남 대성산업 김용지대표

자수성가한 재일 동포 출신 중소기업인 김용지(金龍智·72·경남 하동군 하동읍 대성산업 대표·사진)씨는 15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 1억원의 "통일기금"을 기탁했다.

김씨는 "텔레비전에서 남북 정상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다"며 "미래이나마 보내기 위해 기금을 냈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는 이 돈을 재계 통일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전담하는 분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동의 민농 집안에서 태어난 김씨는 일할 때인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



끝에 식당과 배빙포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고 60년대 중반부터는 고향을 오가며 지의 발전에도 힘을 기르었다.

그는 특히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을 가둬야 한다"는 입념으로 30여년 동안 하동지역 40여만 평의 산림에 낙엽송을 심는 등 육림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90년 영주 귀국한 김씨는 자녀들에게도 "일군"을 중 점도로 입념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김정훈기자> manman@donga.com

클로즈업 남북정상 만찬 빛낸 문배술 제조 이기춘씨

"평생 '평양의 물' 그리던 선친생각에 눈물"

"문배술은 주암산물로 만들어야 제 맛이요..."

11일 평양 북한관 만찬식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준비해 간 하얀 사자도자기병의 문배술을 꺼내자 북한 김정일(金正日)북방위 원장이 이희호(李姬嬪)어사에게 이리저리 따졌다.

남북회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온 문배술, 이 술도 고향에 가니 제 대접을 받는 듯했다. 이 문배술을 빚은 문배술제조 중요무형문화재 이기춘(李基春·58)씨도 서울의 집에서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뿜 나왔다. 고향 평양에서 원한 뒤 양곡관리법에 부어 희석 산소주박에 만들 수 없게 되자 "양곡유에 물을 탄 술을 어떻게 마시게 하느냐"며 문배술 공장 문을 닫고 평선 고향의 물(평양 주암산 샘물)로 빚은 제대로 된 문배술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타계한 선친(이길찬·93년 작고)이 생각나시었다.

이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문배술 제조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맛을 내려면 평양 대동강변의 주암산샘물과 고향에서 나는 수수와 조로 빚어야 한다"면서 "김위원장님 문배술을 제대로 마시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평양 북쪽에 있는 주암산샘물에 얽힌 전설을 소개했다. "단 요지가 위독한 어머니에게 주암산샘물을 떠다 드리자 어머니가 왜 이리 행복한 술을 주느냐고 한 뒤 금방



이기춘씨가 15일 자신이 빚어 남북정상의 만찬 때 회제가 된 것과 같은 문배술을 보여주고 있다.

병식을 편지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씨는 주암산 부근 평선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 문배술 전수과정일 거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현재 인허대에서 명숙과 막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의 이름도 발표공과가 농화학을 전공해 가입을 이룬 예정이다.

<조성희기자> summer@donga.com

"北 남포시와 자매결연"

인천 내년초까지 추진

인천시는 남포항이 있는 북한의 남포직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직항로가 개설돼 있는 남포시와의 자매결연을 용해말 또는 내년초 맺기로 하고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요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항이 대북 교역량의 6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교역의 중심항구인 남포항 관할지역인 남포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인천시는 또 북한 황해도 장산곶과의 직선거리가 16km에 불과한 옹진군 백령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법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재일동포 힘합쳐"

통일위해 노력하자"

민단-조총련 각각 성명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재일동포 사회가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단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총련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조국의 평화통일과 동포사회 통일을 위해 대화와 교류를 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조총련도 이날 "모든 재일동포가 사상과 단계소속을 넘어 조국통일을 위해 다같이 함께 나갈 것을 엄명히 촉구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요=이영미특파원> yes202@donga.com

# “차분한 마음으로 민족화합의

## 21세기 평화재단 南北포럼

### 金學俊총장-韓昇洲교수 특별대담



**南北의새창**

분단 반세기여 만에 남북정상으로는 처음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11일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의 합의는 한반도는 물론 북방외교장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사는 15일 21세기 평화재단 이사인 김대중 총장(前99세-김 외부부장관)교수와 인연이 깊고 김학준(金學俊-동아일보 고문)총장과의 대담을 마련, 공동선언에 담긴 의미와 향후과제 등을 살펴봤다.



김학준 총장

스미츠 박스그대 정치학박사  
△사립대교수, 국회의원, 청와대내빈인,  
민선대 개교교수  
△한 동아일보 편집국장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한국정치학회장

▽김총장=무엇보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공동선언문까지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김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이 5개장에 합의한 뒤 한쪽 옷은 모습이 TV와 신문에 나간 것 자체가 7000만 민족 모두의 마음을 얻어냈다. 또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이산가족 재회는 많은 기대를 받게 했다.

▽한교수=간혹적으로 아주 강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림'이 좋았다. 우리측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림'은 사실 김위원장의 작품이다. 김위원장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과 가치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그림'을 내놓았다고 본다. 우리는 회담이 보이는 것에 따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배경과 동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김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남한의 대통령과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서 통일문제의 관련에 부족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보충하는 효과를 도모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남한 사람에게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김위원장이 갑자기 평화애호주의자로 변해 곧 평화와 봉인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진전이다.

▽김총장=적절한 시적이다. 공동선언문 내용은 과거에도 남북 사이에 비슷하게 합의되고 발표되었다. 7·4북방선언만 해도 봉인의 고대 원칙만 아니라 남북조항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문서로만 끝났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 선언은 남북합의가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갖고 있다. 5개 항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번째 문이다. 남북이 '지역'은 국가안정체인과 북측의 경제개

### 金正日 화려한 데뷔 긍정적 통일 과도기간 인정 큰진전 대표부 언급안된 점 아쉬워

은 양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은 불가피하다.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정한 것이다. 통일과정의 '강제성(強行性)'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과거에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긴장만 조성되는 일이 많았다.

▽한교수=사실 연합제와 일방제 방안은 진전된 봉의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다. 한편 북측은 지금까지 세 세우지를 위해 남한과는 건대관계망, 모든 받아들여진다.

▽김총장=관심사 중 하나는 김위원장의 태도이다. 한국수 지체된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돼 있지 않는데, 김위원장의 시골 탐방 때 남북에 '신분'로 주리는 전라에 따라 남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김위원장은 진해과정을 보면 김위원장이 북측에 지명하게 순방해 회담이 북측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보였다. 회담 안건도 그러한 전라의 신랄한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 시골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등 교환 설치하는 문제가 논

## 치밀한 外交로 美-中-日

내부적으로는 패배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노동신문에 김대중과 사견을 커다랗게 내리고, 방송에서도 김대중에게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해주고 한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 의문이다. 김위원장은 무슨 도박이다. 그러나 사회관상과 정치현상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회담만큼 보고 보면 김위원장은 패배상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접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동선언문의 김주 정황들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느꼈다. 이산가족문제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김위원장이서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합의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이상하다.

▽한교수=문제는 남북의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은 김위원장이 등 다른 부분에서 협상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이를 확실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조치들까지 김위원장이서 합의할 필요는 없다. 김위원장의 시골 탐방 이전이라도 대표부 설치 민회소속지 등을 임의는지 합의할 수 있는데 북측은 왜 김대중 대표부 요구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별다른 주요한을 수 있는 점이 마땅하다는 점이 다량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별다른 요구받고 싶어도 이르렀다.

▽김총장=우리로서도 남북정상회담

# 길 찾자”



한승주 교수

△미국 UC버클리대 정치외교학사  
△뉴욕시립대 부교수, 외무부장관, 스턴  
퍼스트 교관교수  
△한 교리대교수, 이태안보안연구소 이사회 공  
동위원장, 유네스코 석좌교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면 부담감이 덜 것이다. 또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방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라는 것,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구축을 추진해온 미국은로서는 걱정이 완화된다.

3만7000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로서는 군사분계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일단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고 싶지만 최근 전략적으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있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회담 이후 남한의 분위기에 따라 상승·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해과 미사일에 관해 북한과 협상을 위치에 있지 않자면 측면에서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다. 김정희 남에서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해과 미사일 문제의 진전이 남북 협정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때문에 회담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반도 분해에 강하게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즘은 이 같은 의도를 드러내놓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 금위원장 사회·정치적 도박 北 폐쇄적 운영 변화견우듯 홍분·감격 배경도 따져봐야

이 지난 몇달 서울 동안의 흥분과 감격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따져 볼 때가 이르다고 본다. 김대중씨 자신도 평양에 도착해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라고 말했다. 이것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자세가 되어 준다.

▽한교수 = 흥분과 감격은 감회연감이 줄 것이다. 왜 그랬는지 사문화 성격에 봐야 한다. 김대중씨가 평양에 가서 아주 처절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김홍준 = 김대중씨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장하는 동안에, 이번에 평양에서는 말을 아끼는 등 원만한 면모

인공분해 등에 대해 함정이 많지만 자체를 속인도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북한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전방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기우로 비관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다. 군함을 찾는 게 필요했다. 과거 북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느낀다는 느낌이다.

▽김홍준 = 국제사회로 시야를 돌려 보면 한반도 주변의 4강은 이번 회담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다음 수 있다. 특히 미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상과 회의가 필요하다.

▽김홍준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중국 정세변(江澤民) 주석과의 회담은 그 점을 예고한 것이다. 또 앞으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수교협상이 본격화되고 푸린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한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휴전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을 차이의 이해관계로 정하게 파악하면서 기민하게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주변 협상이 남북정상회담의 긴장도를 높이고 명분과 현실성에 입각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적인 우호 친선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교수 = 김위원장의 방중은 결국 북한의 부분개방으로 체제가 위태해질 가능성이 대변해 중국의 지원과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로서는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지원이 많아져 중국측의 부담이 적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체제 존속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환영한다. 한편 지금은 강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경쟁구도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언뜻 19세기말 상황과 비슷하지만 우리와 크게 우위를 잃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로서는 ‘양상’과 ‘양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친구를 만들면서 과거 분쟁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 또한 필요하다.

〈정리 = 송승식·부형권기자〉  
kongdonga.com

## -러 협조 얻어내도록

를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교수 = 김위원장이 김대중씨를 데리고 가 애비에게 이리저리를 떠는 것처럼 보여기도 했다. 자연스러운 것만 보여준 것만 보인다. 자연스러운 것만 보여준 것만 보인다.

▽김홍준 = 평양의 혼란스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김위원장의 모습도 그렇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선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의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제 논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교수 = 사실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위원의 모습은 이전 아이치와는 다르다. 여기에는 북한이 인종하고, 보여준 것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말만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정상회담 분위기가 해로 실지 없기 때문에 북한

국은 남측이 북한 해과 미사일문제를 거론하기를 바랐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쪽으로부터 지적하고도 숨지 않는 심정을 드러낼 것이다.

▽한교수 = 외교적으로 제일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대외는 주로 미국이 주도했는데 이제 두대 조양에 중국이 참여한 셈이 됐다. 김위원장이 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전개되는 정상회담은 앞으로 표현하면 “복합다기산 축복(mixed blessing)”이다. 일단 한반도에 시 무력분쟁이 가시점이 없어지면 환영과 위이다. 그러나 미사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해과 미사일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 “평화 향한 큰걸음” “환상 주변 안된다”



南北의 새 장

## '6·15 선언' 각계 반응

2박3일간의 남북정상 공양대회와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의 변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들여보았다. 남북정상 5개항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데 대해서는 우선 환영하는 목소리가 주류였지만 남북의 앞날에 대한 생각은 다양했다.

## “이번만은 진심이길” “건국이념 붕괴됐다”

### 증 평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우리는 사회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북측이 통일문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양인석 변호사=과거에 남북 정치인들이 여러번 국인을 속인 경우가 있었다. 이번만은 진심이기를 바란다.  
△차창균 현대경제연구원 기획실장=원칙적인 합의였던 것 같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화와 관련한 명확한 선언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김우창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양

측이 직접 평화에 대한 신뢰와 화해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진전이다.  
△이동훈 자유총연맹 운영본부장=남북경제협력시대를 이끌어낼 계기를 마련했지만 공양사정을 모르는 국민에게 일시적 환상을 주진 않된다.  
△이철순 자유민주연합의 대표상임의장=김정일은 1석4조의 결과를 얻은 반면 우리는 건국이념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6·15선언은 실질적 법적 효력이 있고 실효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

## “점진교류로 물꼬를”

## “평화협정 전환시급”

### 지유·연합·연방제 통일

△최대석 동국대 북한학과교수=통일 논의의 계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조금 성급했다는 감도 있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통일을 성급하게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위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최석만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고속 실무화합을 통해 경제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윤기원 변호사=통일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언방제 등 연합제든 느슨한 형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잠정적 교류를 만나야 한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일방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통일방안은 상당히 접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남한경제 부담안줘야”

## “이해득실 집착말아야”

### 경제협력

△양인석 변호사=경제협력이 남한 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차창균 기획실장=미국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이 당장의 이해득실에 집착해선 안된다.  
△정문건 상무=우리의 자본력과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북한은 우리의 사할산업을 보완하는 등 서로 특이 되는 협력사업이 많다.  
△이동훈 운영본부장=민간 중심으로 민간권 경제교류를 당국자간으로 바꾸고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철순 대표상임의장=남한도 국제 통화기금(IMF)사태로 죽을 지경인데 겹쳐질 걸로 봐서 경제가 과탄에 이른 북한을 도와주다니...

## “보안법 이전 폐지를”

## “노동당규약도 고쳐야”

### 장기수·보안법 문제

△염무웅 영남대 교수=국보법은 철폐해야 하며 공산주의사상도 과격적 행동이 아니라 이념의 형태로 있는 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윤기원 변호사=김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국기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통일을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최석만 교수=국가보안법은 상호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당연히 개정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TV에 인공기가 비치는 현실이다. 보안법은 저급로 사문화될 것이다.  
△정영일 변호사=우리가 국보법을 폐기한다면 북한도 노동당규약에서 격화합을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 “北 개방지속 필연적”

## “아직도 획일적 체제”

### 북한의 변화

△윤기원 변호사=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회적 소폭 개방이라고 보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양인석 변호사=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떤 활동을 보면 아직도 북한은 획일적 집단체제라고 생각된다.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경제분야에 대한 개방된 접근이 좋지만 나머지 정치 사회분야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박찬석 총장=앞으로 북한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제 붕괴로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다.  
<임규진·이승재기자>  
mhjh22@donga.com

# 북녘땅에도 큰 충격이...



## 北언론 수일전 “남조선 파쇼” 비난서 태도 돌변 “최고지도자 변신 北주민 쇼크 남한보다 더 클것”

“평양 시민들은 대단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겸 14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국 국민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과 혼란을 겪었듯이 같은 기간 북한 주민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과소 도담’으로 비난하던 김대통령 등 남한 지도부의 방북과 이들에 대한 김위원장의 환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의 한 안내원은 “김위원장님이 이번처럼 흡족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흥분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인제(今) 통일입니다”라며 기대감에 부풀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15일 강원 동해시에 도착한 금강산 관광객들은 북한 관리원들이 “김상성이 민났으니 우리도 친해 봅시다” “장군님과 김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몽글하고 눈물이 났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국에 존재적이었던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위원장의 과거적인 환대는 처음 있는 일이고 언론 보도도 72년 7·4공동성명, 8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와 크게 달랐다. 8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발표를 위한 제6차 고위급 회담 때 북한은 17분간 이 경연을 TV로 생중계했지만 평양의 거리는 한산했고 평양 시민들도 대표단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신문과 방송이 김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큰 영

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일보는 4월10일 남북정상회담 협의를 간략히 보도하고 이를 뒤 “남조선 파쇼 미제 식민주지”라는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다 갑자기 정상회담에 대대적인 ‘찬양’을 퍼부었다. 이런 변신이 북한 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나온 일부 주민들이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풍모 쪽으로 몰려들어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은 워낙 통제된 사회여서 최고 지도자의 변신 모습

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자 김영도(鄭明道·42·경민대 교수)씨는 “북한이 김위원장이 김대통령보다 낫고 통일을 실현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해 주민의 단결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충격은 향후 정상회담의 진전과 북한 지도부에 따라 언제든지 ‘격대감’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통일문제연구소 전현준(全賢俊)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지도층의 자세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우기자)

hawoo@donga.com

### 말 말 말

수류전선은 남아있지만 이음의 벽은 무너졌다(김준근기자, 15일 북녘의 평등의 정상회담 성공 축하 합동 ‘도화에서’).

김대중대통령의 기강 강 허후였다(박준영총의대대변인, 15일 남북 정상회담 축하 기념 글에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실명할 수 없는, 민간교류의 특수성이 적용한 것 같다(장부 관계자, 15일 남북 정상회담 10시간 남북 단판 것은 외교 의견상(장우,이해침이과제).

▽아이들은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오히려 남정체제에 익숙한 나이든 교사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본다(이강원 전교조 통일국장, 15일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홍원부 공무원, 15일 합 영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연다는 시련감으로 즐겁다며).

▽배가 나왔다, 유난히 쾌활하다, 시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박원순, 15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텔레보의 공동선언이라 PC통신에 소개한 후스개).



“철길을 이어주세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끊어진 철길이 다시 이어질까, 전방을 견학 중인 경기 부천 수주초등학교 어린이 40여명이 15일 강원 철원군 철원을 횡령의 끊어진 철길 위에서, “철길을 이어주세요”라며 외치고 있다.

홍원부·이준우기자

# 클린턴 “南北선언 희망적”

### 주변 4강국 반응

### 긴장완화 일제히 환영 日“G8 지지성명 추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은 일제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들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자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탓인지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공통선언 시명작무원 11일 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측에 남한과 대화하도록 촉구해왔다”면서 “회담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 공동선언문을 희망적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산가족 교환방문 합의에 대해서는 “기다란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서 이 선언이 북-일 교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북지원과 정에서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총리는 15일 내각 오키나와(沖縄)에서 임리는 선진 8개국(G8)회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무부 이주국장을 서울로 파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례적인 특별성명에서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대사건”이라며 “남북 양측이 계속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가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5일 “이번 회담은 안정과 평화를 목표로 자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측의 진지한 의도”라며 “러시아는 이같은 과정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도쿄·베이징·모스크바 =한기홍·심규선·이종환·김기현특파원〉eligiusdonga.com



美·中·日·러·佛  
전문가 시각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번 남북정상 회담을 바라보는 세계 주도국들의 시각은 미묘하다. 한반도의 오랜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발걸음에서 ‘중요한 공전’을 했다는 원론적 혹은 외교적 평가의 이면에는 ‘강국의 의견이 충돌하는 김집’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국의 복잡한 심사가 감복해 있다. 각국 전문가들의 기교를 통해 그 입단을 들여다본다.

## “급진적 개방 강요면 北 빛장 다시 걸 것”

### 러시아 이반 자하르체코



두 집장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었다. 정상회담은 현재의 적대적인 정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용기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런 노력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남한의 벽을 허물려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돼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원칙을 어떻게 실천시키느냐가 앞으로 과제다. 72년 7·13남성명과 92년 남북한 총리가 합의한 기본합의서처럼 실제로 성과가 없었던 역대 합의의 운명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공동선언 내용이 실천되지 못한 경우 남북한 국민은 좌절을 느끼고 남북 관계는 오히려 후퇴할 것이다.

많은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에서 건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이적 단체’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괴수’를 서울로 초청해 회담을 갖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에 너무 급진적인 개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문을 열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경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한은 6·15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원칙에는 충분히 의견의 일치점을 했다. 더 이상 새로운 합의와 선언보다 약속의 실천이 중요하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 등 서방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서방의 도움이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한 미군 문제가 언젠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군의 주둔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모습을 공개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인들이 TV를 통해 그의 육신과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저어도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 합의 사항에 대한 실천이 어느 정도 이뤄진 8월경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도 남북간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직대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리·모스크바 = 김기현특파원〉  
kimkilyu@donga.com



이타르타스통신 기자

## “南北정상 서명 의의 일부 조항엔 우려감” 한나라당 성명

한나라당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평화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노력”만 높이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權哲顯) 대변인은 신명에서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동선언이 갖는 6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첫 번째는 공동선언 1장의 ‘자주적 통일’이 북측의 태도 이하에 따라 주한 미군철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2장의 ‘남측의 안전제안과 북측의 안보제안의 공동성’이 불분명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3장의 이산가족 상봉을 비선량 장기수복소와 ‘해키지 식’으로 연계시킨 것도 지적할 유감이라고 이 성명은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한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꼬집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 동아회평

신문상 smoonsdonga.com





“不信의 벽 허물고 평화공존시대로”

美 조엘 위트



남북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남북 협력이 모두 승리한 회담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산 가족회화와 남북 단교간 대화...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사...



미 브루커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사...

라고하고 있다. 주축과 한미간 이견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한미일간의 협안과 관련...

中 장 임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풀렸다. 이같은 대화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회담을...

한반도문제 해결이 비로소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집어주지돼 왔다. 남북한 스스로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쌍방은 당사자 원칙을 확인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는 것이...



중국 지역사회과학회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보다...

“한국, 한반도문제 해결 주도권 회복”

을 썼으나 그 후 북핵 핵문제까지 제기면서 김 위원장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실권이었다.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적 공세에 대해 몇 군사 정세에서 진정한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인지, 혹은 최소의 김씨를 넘어 외부로부터 혜택을 받아내려는 또 다른 책략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정상회담에 대해 내심 불쾌하게 생...

심할 인식해야 한다. 남북이 냉전시대의 내치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군주권을 통한 외교 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남북간의 회개가 진전이 되면 한국은 주변미군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맺은 이 같은 일이 위안이 된다면 미국은 남북관계에 변화대응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정리·최성현-한기홍특파원) elgius@donga.com

“남북한 국제사회 발언권 강화 계기”

다. 비로소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 주변 강국에서 한반도로 옮겨졌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변 강대국들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새로 조정해야 하게 됐다. 그동안 한반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의견이 충돌하는 접점이였다. 한반도를 보는 4강의 입장은 모두 달랐다.

미국은 “1호(超)대강(多強)”으로서 21세기에도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한반도는 군사 안보, 경제 이익, 미국적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에서...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돼왔던 것이다.

러시아는 번으로부터의 위협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크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점에서 극동지역도 두텁기라웠다. 한반도 남진 구도의 위해에 러시아가 보다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김씨가 중반기 ‘중흥반남국가’를 지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런 점에서 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정리·배이징-이종훈특파원) ljhzip@donga.com

日 고마키 데루오

이번 정상회담에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시골 방문을 수락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공동 체제로 갈라지기 위해서는 두 정상에 상호 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통선언에서 이산가족의 심통 문제를 합의했다는 것도 큰 성과다. 이산가족 심통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 정부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분위 문제는 남북의 접근 방법이 달라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주간

한국과도 협력하는 방식을 완결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건...

민간 차원에서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북한은 한국이 양방면으로 주도하는 데는 지장감을 가질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가 진전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프라 지원부터”

다. 합의문에 ‘민간차원’ 자원으로 해결하자는 북한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남북이 배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양측의 동의 범위에...

남북 교류 부분에서는 북한이 경제 지원을 식량 안보에 대해 경제 원조에 국한한 지원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경제 원조를 과거 경제에 국한하는 것으로 했다. 남북의 교류를 통해 북한은 대외 경제 교류가 빈번해질 때 리스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공산 정부 지원이 앞으로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로 대규모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차원’ 원칙은 분명하면서도 나라 경제 협력에도 해당된다.

분명히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된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의 소용돌이 항지도 모른다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국간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당사자인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시적이 북-일 관계에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정리·도쿄=이영익특파원) yes202@donga.com

佛 기 소르망



북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지배계층은 하나의 북적벽에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 북적벽에 도전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왔다. 여기에는 침범 협상도 포함돼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북한정권에 있어 현상유지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제는 위협했다가 오늘은 도분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북한의 지금까지 스토리이다. 위협보다는 협상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대통령과의 만남을 북한의 의도가 바...



프랑스 전 총리경제교문

첫걸음을 뒤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역사적인 첫걸음이 남한에서 임박하는 소프트 랜딩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인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북한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

웠다든 조짐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한국도 북한정권의 내도에 남여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협박과 협상에 의미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북한이 스스로를 개혁시킴으로써 믿지 않는다. 경제부분에서도 북한이 개혁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중국보다도 훨씬 완화된 속도로라도 북한의 시장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쩌나. 북한의 기업가들이 어디 있는가. 노동당의 중진간부나 정부관리들을 찾볼 수 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재산 출처에 회의적이다.

나는 물론 남북한이 화해할 잠재 내리던...

대타에 의해 내부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그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문제를 서로 풀어가야 할 사람들은 북한사람들 자신이다.

김위원장에게 영화 애호가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많은 영화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만 한다. 전세계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장면들을 통해 또 다른 영화를 만들려는 그의 꿈은 실현된다.

(정리·파리=김재일특파원) claire@donga.com

# “속지말자” 편견 버려야      걸모습으로 판단 말자

김정론

‘김정론의 충식’, 그것들 어떤 사람은 최정삼, 김남균의 이미지가 주는 긍정적 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동안의 무사한 가문이 다른 가문으로 바뀔 때 빠른 충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된 것은 무겁고 괴기한 이미지가 깨지는 데서 오는 충격이라는 점, 그래서 그런 김대중과 김근환 이미지에 대한 호감은 우리를 금지 못하는 사실일지도 있다.

이것이 호 불호나 왜 불호, 혹은 김남균 등과 같은 정권에 대해 감정을 표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우월과 비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폭력인가에 대해서는 김

## 이미지란 만들기 따라 달라

### ‘가벼움’ 느껴야 적대 벗어

게 말리지 못했다. 김정론이 한 생각이라는 사실에 놀라 그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인위를 보여주는 법에 저속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말이다. 그러나 ‘적’은 언제나 못생기고 괴팍하며 무시무시한 인상에 상투 리터올 사냥이라고 생각과도 못생김이라 한다. 그래서 ‘적’의 새로운 모습에 “속지 말자”고 겁쟁이라 한다면, 앞으로는 저 충식을 기대해서 만일 것이 분별하다. 이 ‘적’은 것이 이미지 조작이므로 그것에 “속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어떤 요점에 “과학적” 논리를 제공하는 듯하나, 그러나 이미지 “조작” 없는 정치는 없다. 방송과 언론이 김정론의 인상을 하는 현대의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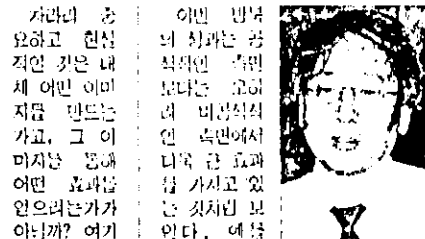
‘복합’이 하나의 문화기호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 복합 관련 상품이나 화제가 흘러 넘치고 일각에서는 급격히 ‘김정론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화 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며 김대중과 김근환은 무엇인가, 시각의 차이일 지닌 두 학자의 글을 살핀다. <편집자>



박대호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반대로 가볍고 쾌활한 이미지, 호화한 이미지에 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편견이다.

무겁다는 것은 현재의 자리, 현재의 격매, 현재의 지배적인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가볍다는 것을 쉽게 마냥 수 있음을 뜻한다. 정상회담이 현재의 현실, 분단과 상호적대, 혹은 그로 인한 각각의 이익과 문제 등을 떠나려는 것이지만, 더불어 남북의 ‘인민’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적대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면(이게 아니라면 내게 그런 회담을 위하여 하는 것일까? 이게 아니라면 동맹은 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좀더 가벼워져야 한다. 서로의 편향에서 기법과 유쾌함을 느껴야 한다. 긴장감이 무거움은 아닌 것이다. (사회학박사-연구공간 ‘너머’ 연구원)



유식춘

어떤 방법의 청탁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의 청탁은 오해와 비합리적인 측면에서 더욱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남북간 양국사의 모임에서 주요행은 인사장이, 재공급된 편향된 느낌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의 ‘참자리의 뱀장어’를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은근’에서 나뭇잎에 중 김대중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이 생중계를 통해 기습적이긴 했지만 남과 북 모두 국민적공감 계층에서의 유머감각과 정서의 공유를 재삼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떤 기호가 ‘정확’ 독재로부터 ‘인간의 원상’도 있는 제재로 북한을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의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엔 우리가 짐을 수 있었던 이미지들이 지금까지의 ‘빨’ 달린 ‘빨갱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평양시대를 가끔 때문 시민의 환호와 함께 등장한 ‘젊은 석관과 김

김계론

은 크기의 조류’, 그리고 이를 ‘남’은 방법으로 흔들리는 차인하면 ‘홍분’될 위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방법은 장바 차인의 ‘워레모비’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범주로 인식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속재로 담겨주었다. 김정론이 처진 김일남과 김대중의 해남: 또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속재에 담겨 마장가시다.

방법이 어느 방향을 소재로 한 강요나 유머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지배’이냐 ‘반감’이냐와 같은 북한 주요의 음반면에서 상충하고, 심지어는 ‘김정론 현상’을 김성공했다는

## 평양의 화일화한 홍분동

### 진군대적 현실 바로봐야

화일이 있는 조류도 된다. 반북의 제재는 문화적 충식을 흡수하는 과정이 충성으로 부딪히게 될 때라는 위험 요인이 산부만 수분으로 판가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인기 TV 드라마 ‘대중’을 보고 과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생활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배우고있듯이 북한이 보여 준 현대의 이면에 숨겨진 북한 생활의 현실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화의 그늘’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번의 충식은 오히려 ‘안’에 큰 안이 될 수 있다. 당국자가 요구하는 예제의 대상으로 전근대의 북한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다가올 뿐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북한영화 보러오세요”

인천 ‘황해예술제’

‘불가사리’등 상영

오늘부터 사흘간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인천지부가 주최하는 ‘제5회 황해예술제’(16~18일)에서 북한 영화가 상연된다.

16일과 18일 이틀 동안 인천 종합문화회관 소공연장과 국제 회의실에서 무료 상연되는 북

한 영화는 ‘순창진’ ‘남을 안고 사는 처녀들’ ‘도시치니 시집와요’ ‘불가사리’와 예년에 이선 ‘호동왕자와 나랑공주’ 등.

이 중 ‘불가사리’는 1986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SF영화로 올 2월 일본 ‘니가타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호평을 얻기도 했다. 032 867-0449

(인천=박희재기자) min07@donga.com

# 南北정상, 전쟁방지 공감대 확고

## 침략포기 확인... 외교-군사권한 각자보유 추진 합의

### 조만간 北과 협의 경의선 복구 방침

#### 김대중총리 역사적 평양방문 끝내고 귀환

김대중 총리(중) 평양방문 11일 경의선 철교다리 국방위임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로 주한미군, 국기반납 문제 등을 북측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총리는 이날 오후 평양강변의 북한호텔에서 김대중총리와 김대중총리 부부(왼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이날 김대중총리는 "북측은 매우 유익했으며, 그중에는 아주 좋은 제안이 담긴 제안도 있었다"고 말하며 김대중총리의 방북에서 중요한 전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북한계 방송은 김대중총리를 "김대중총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고, 김대중총리의 방북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총리는 방북기간에 평양에서 김대중총리와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김대중총리는 평양에서 김대중총리와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김대중총리는 평양에서 김대중총리와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김대중총리는 평양에서 김대중총리와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정상회담 관련기사)

- 2면 귀국보고 요지
- 3면 북 남북시대
- 4면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5면 풀거야할 과제들
- 6면 '공동선언' 후속조치
- 7면 평강 마지막 표정
- 8-9면 해외의 시각
- 10면 중치권 반응
- 11면 회보
- 20면 다시 본 김대중-이보
- 21면 북한 신드롬
- 22면 김대중총리부 시만표절
- 23면 보안법 문제 일러미



김대중총리는 "이날부터 남북정상회담을 가두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총리는 귀국길 서울 역에서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김대중총리는 귀국길 서울 역에서 김대중총리 부부(오른쪽)를 만나 회담하고 주한미군과 국기반납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귀환은 두정상 김대중 총리와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헤어질 모습. 이사진은 뒷모습에 포착되고 있다. (중앙=중앙아시아기자)

# ‘공동선언’ 합의사항 곧 구체화

## ■ 김대중 귀국보고 무엇이 담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귀국보고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사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설명을 통해 상당 부분 풀어줬다.

김 대통령의 ‘해설’에 따르면 이번 공동선언은 어느 남북간 합의서보다 확실한 실효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훈명 문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점은 이를 역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 대통령 귀국보고는 공동선언

의 합의사항이 조만간 구체화되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 처리할 수 있도록 남북이 임명한 당국자가 곧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당장 현실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이당부터 남북적십자사를 가동하고 상당한 규모의 이산가족 고창 캠프를 즉시적 짓음을 단언했다. 김 대통령 발언수위를 볼 때 이산가족

문제가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이산가족 교관방문단 규모도 기류에 있었던 수백명 단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도 기대된다.

무’ 관점에서 풀이한 뒤 북한이 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인식, 사실상 연합제와 수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연방제는) 전혀 이런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 先 이산가족 상봉·後 비전향 장기수 송환 ‘北核·미사일·주한미군 문제도 거론한듯

특히 김 대통령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산가족이 먼저이고 비전향장기수는 다음 문제”라고 확연한 태도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쪽이 비전향장기수 복송을 고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제동을 걸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잠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특임협의 합의했다”고 강조 “선 先, 이산가족 교관방문”을 김 위원장에게 다짐받았음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집권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연합제” 남북연합의 북한이 통일방안인 “연방제”의 차이점을 “대외관계의 존재와 관한 무

“근자에 북도 이 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 정부가 ‘존재(존재) 외교권과 군종 수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이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등을 다 얘기했다”며 “아주 좋은 진영을 발전한 적도 있다”고 말한 것은 남북이 겹겹하게 여기는 모든 사항을 남김없이 논의했음을 의미한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그의 여러가지 양해된 좋은 일이 있으나 밝히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해 미공개 합의사항이 많음을 시사했다. (허범규기자)

#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었다”

## 대표단 침수오한 표정

김정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15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1호차에서 열린 대표단 환송오찬에서도 김대중을 곁눈이 예우의 눈길을 끌었다.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앞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중, 이희호 부인, 여사와 함께 인민복만 따로 티셔츠를 가진 뒤 남·북·남북을 남북 대표단과 북측 참석자들이 반수준 환영하는 가운데 민천장으로 입장.

김 대통령과 이 여사들 따라 민천장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헤드라인에 등장하면서 김대중의 자선과 복간이 광범이 없는 의자로 옮겨 앉아 바로 뒤에 서 있던 남북회담의 오찬장을 둘러 “김대통령께 광범이 있는 의자를 갖다주시오라

## 金대통령에 팔걸이의자 주문 세차레나 관계자 불러 질책

고 “조령” 김 위원장은 특히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러더 세차레나 관계자를 불러 질책하기도.

조령에 한해 조선인민군 총정치부장은 “총비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명에 의하여 김대중의 평양방문과 출항할 기일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면서 “두 분이 천리호연으로 민족이상을 초월로 세 민족에게 역사적 경단을 내려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총정치국장은 이어 “우리 국민은 물론 김대통령의 건강과 복귀를 위하여 다량한 물질 지원에 대하여 민족한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수하도 정상과 참석자들의 반수를 받았다.

특히 임동원(林東源) 대통령보좌가 해드라이블에서 있어서 “우리는 2000년간의 평양방문 임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면서 “김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 만나 활짝 웃으시는 가운데 손잡는 모습이 전파를 타고 온 우리에 걸쳐 감격”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100만 민족의 염원에 평안도 울고, 서울도 울었다”면서 “북한 동맹에서 인민군 외장대장 김대통령이 사형한 것은 김대통령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특보는 또 “평양시가지의 엄청난 환영, 환대와 오찬에 참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한 시기에 국 석연에 오셔서 우리의 정례를 받으주시기 바란다”고 해 역시 반수준(半) 받았다. 김대통령은 김대중이 계층 “오찬”의 당시가 진행되는 동안 신중함을 갖춘 채 말하게 했다는 뜻이었다. (평양=공동취재단)

# 南 1국가 1정부 - 北 1국가 2정부 지향

## 남한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통일방안은 '주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1998년 김대중 총재가 대정당에서 발표한 뒤 정색의 입장선장에서 정부 공식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관계와 남북연합관계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김장현 부총리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일방안은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내용적으로 종전과 다른 차명적용되기 시작했다. 김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했던 '남북연합 국가인민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방안에



에 따라 통합과정을 관리하게 된 '남북연합'을 상징하고 이 기구의 최고지도직장기구는 '남북연합장관회의'가 된다. 그 밖에 대외기구로 '남북연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남북은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 국소지향적 군사안 환경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이같은 관계발전은 토대로 삼아 연방정부가 외교, 국방, 중요한 내정권을 갖고 연방

## 북한

북한 통일방안은 연방제 실현을 전제로 한 '고려민주인민공화국 창립방안'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합제(60년대), '고려민주인민공화국' 국호의 남북연합제(70년대), '고려민주인민공화국' 등의 명칭 변화를 꾀하였으나 본질적 한계는 분명하다. 남북정부가 '제국주의 식민정부'라는 인식 아래 주미비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결조건으로 깔고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와 달리 통일을 '통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 '해방과 혁명'의 개념으로 보는 게 북한 시각이다. 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에 손쉬운 길을 열어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해법보다 체제 보존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정당이 발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점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현(金尙勳) 국방위원장장은 김 주석과 차명성을 보이기도하는 김 주석의 구상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게 총평이다. 북한 연방제의 원수소가 사실상 국가연합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김은 남북한 통일방안의 집합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느슨한 연방제'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으며 91년 김 주석이 신년사에 밝힌 '1

### 김대통령 3단계 통일론의 1단계 2단계 외교 국방권소유 연방-지방정부 3단계 남북한 정치-군사적 단일국가

임권민 대북 로동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 통일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임종환(林鍾煥) 국정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정책의 핵심은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첫 단계로서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추진, 법적인 통일보다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이루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정부방안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김 대통령이 3단계 통일방안으로 차이를 분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무리모란 봉황(鳳凰)을 상징하는 화해, 협력, 자주 추진이라는 대북적 3원칙을 확고히 정립,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1단계로 하고 있다. 남과 북은 독립 국가로서 주권과 모든 권원을 보존한 채 협력기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소년 봉과 후 수립된 독립국가연합(CIN)을 모형으로 삼은 개념이다. 이 단계는 양국이 상호이익을 남북연합인민

대통령 친축, 연방의회 구성 등을 하며 남과 북에는 지역자치정부가 들어서서 '연방제'다. 현재 미국의 채택하고 있는 연방제의 내용으로 흡수한다. 마지막은 완전한 '통일국가' 지대로 남북안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단일국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단계다. 6-15 공동선언에서 밝힌 남북의 '연합제안'은 김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북의 연합제안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단계에 속하는 것인데,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1단계와 관련된 것이지 해석이 분분하다. 통일연구원 김병로(金炳魯) 선임연구원은 "연합제안은 정부 공식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라든가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 중 1단계 남북연합도 비슷한 의미로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남(金根植) 이해관계인민연구원장은 "정부 공식입장인 김, 김 대통령의 구상인지 논란이 있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김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김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반영된 제안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 연방제 전제한 사실상의 국가연합 2개 지방정부에 군사-외교권 이양 화해-협력 제도정비는 후대에 맡겨

북한 '고려민주인민공화국 창립방안'은 91년 이후 차츰 변화의 길을 걸었다. 김일성(金日成) 주석은 91년 신년사에서 '1민족 1인민국가 2개 체제'도 2지역자치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언급, 통일국가 형태가 80년대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 단계적 연방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완성형 연방제는 단일 연방정부가 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 남북의 지방정부는 내부제도만 독립 운영하는 완전한 형태의 연방제였다. 연방제 실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 영구불만 개념이 강했다. 북한은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2개의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쪽으로 연방제의 내용을 수정해왔다. 국가연합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그동안 강하게 주장하던 2제도 분제도 '후대에 맡겨'는 입장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왔다. 남북이 통일하기의 핵심단계로 설정한 화해협력과 이점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는 최로 이루어지는 입장이다. 북한이 제도통일의 후대론, 지역자치 정부의 권한강화반 외교권, 군사권, 내지권과 같은 다른

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김장현(金尙勳) 선임연구원은 "낮은 단계, 단기 화해-느슨한 연방제의 개념은 남북 지역정부에 외교, 국방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91년 김 주석 신년사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고려민주인민공화국 김 대통령의 연합제를 염두에 표기하면 같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연방(federation)은 같은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데 비해 김 주석이 말한 '상이한 체제' 인정하는 연방이란 '국가연합(confederation)' 또는 '느슨한 연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표기할 때는 'confederation'을 쓰고 있다.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정부, 즉 기존의 남북한 정부가 군사-외교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가운데 1단계인 '문화-경제연합'에 의한 국가연합단계와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하법규기자)

南 '연합제안' - 北 '낮은단계 연방제안' 비교

남북한 정상이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양쪽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대립 해오던 갈등의 역사를 접고 타협의 역사로 들어 서기 시작했다. 남북은 이제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공통분모를 확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단일안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방안내용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김대중 3단계 통일론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
| 통일철학      | • 자유민주주의                        | • 개방적 민족주의<br>• 적극적 평화주의<br>• 전지구적 민주주의        | • 주체사상                   |
| 통일원칙      | • 자주-평화-민주                      | • 자주-평화-민주                                     |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
| 전제조건      | 없음                              | 없음   | •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
| 통일과정      | • 회해협력-남북연합-1민족1국가<br>남북연합      | •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 •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
| 과도체제기구    | • 남북정상회의<br>• 남북각료회의<br>• 남북평의회 | 남북연합<br>• 남북정상회의<br>• 남북각료회의                   | 없음                       |
| 통일국가 실현절차 |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통일            | • 남북연합에서 연방으로 이행시 북한이 정치적으로 다당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도입 | •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
| 통일국가 형태   | • 1민족 1국가 1체제<br>1정부의 통일국가      | • 1국가 1정부                                      |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   |
| 통일국가 기구   | • 통일정부<br>• 통일국회(양원제)           | • 구체적으로 명시없음                                   | • 최고민족 연방회의<br>• 연방상설위원회 |



한반도 통일 밑그림 그렸다

남북한 단일 통일방안이 나올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과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에 합의한 만큼 단일 통일방안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일 통일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 1항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은 두 정상은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통일원칙에 대해 북쪽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쪽은 자주평화민주를 내세워 경쟁선을 다했으나 두 정상은 공통분모인 '자주의 원칙'에 도달했다.

그러나 남쪽은 '자주의 원칙' 해석을 둘러싸고 있다. 남쪽은 우

리 민족의 역력에 의해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룬다는 당사자 원칙으로, 북쪽은 자주를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남쪽의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해왔다. 통일안

두 정상 '자주의 원칙' 합의  
연합-연방제 공통성도 인정  
'하나의 통일안' 도출 가능성

구원 김성철(金成哲) 선임연구원위원은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두 정상의 행동은 개념의 해석에 얽매이는 차이를 벗어났다"며 큰 맥락에서 볼 것으로 주문했다. 공동선언 2항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은 두 정상이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은 것

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양쪽 통일방안을 접목시켜 리는 의의가 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분단 이후 여러차례 통일방안을 발표했으나 상대방을 인정할 적이 없다. 남쪽은 북쪽의 '고려연방제'를 적화통일로 의심했고, 북쪽은 남쪽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의 의도로 파악했다.

아태평화재단 김근식(金根植) 책임연구원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의 등을 구성해 교류하는 것이고,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도 단일 중앙정부하에서 남북 지방정부가 내부제도만 달리 운영 하는 것이어서 비슷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상환기자)

# ‘낮은 단계의 연방제’ 北 설득하느라 진땀

## ‘공공선언’ 합의도출 뒷얘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공동선언을 도출하기 위해 강장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벌였다.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15일 기자회견에 합의의 도출 뒷얘기를 상세하게 전했다.

공동선언 중 민감한 사안의 하나인 제2차

## 서명자놓고 줄다리기 문안확정 막판 진통

## 임동원특보-김용순아태위원장 물밑 조율

의 ‘연합제’ ‘연방제’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당시간 설득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공식적인 연방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단독회담에서 이를 계속 주장해 왔으나, 김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국제



동명왕릉 방문 15일 공왕시내 유적지 방문에 나선 우리측 특발수행원들이 동명왕릉을 둘러보고 있다. (중앙=청와대사진기자단)

기구에서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오랜 시간 설득해 지방정부가 외교와 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의미의 '낮은 단계'라는 표현을 쓴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문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는 추문. 북측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형식적으로는 국기인수가 아닌데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측에서 "우리는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설득, 결국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 수석은 또 김 위원장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펴다가도 남측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민족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김 위원장이 세계 변화를 보는 시각과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따라 뒷부분이 바뀌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한 중간중간에 서로에 대한 불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도 했다는 전언.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김 대통령의 반

언 중간중간에 "나도 섭섭한 게 있는데 답하겠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한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 그래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국기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남측 신문들 김 대통령과 함께 보는 자리에서 자신을 좋지 않게 다룬 기사를 보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 반면 김 위원장은 "여러번 독술까지 위태롭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집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대통령의 인권연장에 대해 존경심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김 대통령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장수정 침투사건이나 서해교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협의했다는 관측도 대두됐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서로간에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고 전해 북한의 도발 등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두 지도자간의 이같은 솔직한 고집질된 논의가 두 사람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하게 해 그간의 오랜 중상당부영유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공동성명에 대한 뒤후 조율작업도 숨겨지게 진행됐다는 추문. 본격적인 문안 작성은 양 정상이 큰 틀에 대한 합의된 규범 오후 8시30분쯤부터 본격화했다.

양측 실무진은 두 정상이 복린관에서 만찬을 하는 도중 초안을 마련해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에겐 전달,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임동원(任東元) 특보를 통해 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율을 거쳐 11시30분쯤 최종 합의한 뒤 두 정상에게 보고했다. 두 정상은 2분 전에 서명식장에 입석해 오후 11시30분 서명했다.

(중앙=공동취재단)

# 與 “평화의 대장전” 野 “통일노력 평가”



## ‘공동선언’ 정치리만용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민주당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한나라당은 총론에서 긍정 평가하면서 서로 각론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중자세를 취했다.

민주당 정동영 원내총무 대변인은 15일 특별성명을 내고 “선언의 본질은 총합을 넘어 평가를 만드는 데 있다”며 “반목과 대결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미래로 가는 대장전”이라고 말했다.

서경문 유정희 대표는 당 6월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는 시간과 사건까지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북을 적대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시각과 시야를 넓혀 이번 선언이 한반도에서 총합을 보습으로 만드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두(金九斗) 사무총장, 김국환(金國煥) 원내총무는 “이제 큰 정치로 나아가야 하며 남북공동선언을 여가간 정당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대국민 순보합회 강화 등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일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구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회담 성과 보고대회를 가진 뒤 곧바로 지구당별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위해 이날 당부터 통일논론 공모, 통일주부백길장 개최, 정상회담 관련 인터넷사이트 활성화 등과 이번 대선 행사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 표명은 16일로 일단 유보하고 대신 권철현(權哲顯) 대변인의 성명으로 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한편 여론의 반응을 탐색한다.

권 대변인은 김 대통령 귀국 성명을 통해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당의 자세를 나타냈다.

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동선언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이 향후 나오겠지만 남북공동선언이 갖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권 대변인은 남북공동선언 가운데 자주적 통일 부분은 주한미군 철수로 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하면서 연합제안과 연합제안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비전향장기수 복송과 연계시키면서 국군포로 납북인사 송환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태도라고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핵, 미사일 제한



“무슨 기사 냈나” 15일 민주당 당부회의에서 김국두 사무총장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한 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지차수기자)

- 민주당  
“이젠 큰정치 넘어  
정쟁이용 안된다”
- 한나라 .  
“두정상서명에 의미  
통일방안 불분명”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남북특별위원회 회의와 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연 데 이어 16일 주요인적 자회와 총재단회의를 잇따라 열어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황용호기자)

世界日報

2000. 6. 16 (금)

## 현장 메모 <편집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취재한 외국기자들이 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식상에서 웃으면서 지적했듯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베일 속에 가려진 은둔생활자로 봤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그런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지난 2박3일간 진행된 정상회담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과 한국 공동취재단 앞에 나타난 걸로 그들 둘러싼 의문점과 오해는 풀리기 시작했다. 평양순안공항에 나타난 순간부터 김 위원장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나

오늘의 세계에서  
는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다룬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국제적으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가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실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돼 있다.

만남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나  
는 인상을 주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생각해 온 큰 이유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극히 적었던 것일 것이다.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만이 증대돼 온 것이다.

북 투명성 아직은...  
평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편 이번 회담을 위해 서울 시내에 준비된 프레스 센터에 모인 외국기자들은 한국공동취재단이 평양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회담시작 일정이 13일로 연기된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작은 문제부터 투명성을 높여야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행사를 취재한 많은 외국기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 美-日의사 간접화법통해 전달

## 두정상 核-미사일 문제 거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3일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때 공동선언 도출의 산과 역을 한 두 인물이 열 자리에 배석, 서명을 지켜보았다. 임동원(林東源) 국무원장과 김용순(金容俊) 조선이태경회위원장이 그 둘이다.

이들은 막후에서 보이지 않은 줄다리기를 벌이고 공동선언문 드문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전날 백화원 영빈관 1차 정상회담에서부터 상당한 교분이 있음을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용순 위원장이 임 위원장에게 남북 수협원의 소개를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일일이 인사시키는 등 첫대면이 어땠음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주최의 고별오찬에서 고별사를 한 점도 눈에 띄었다.

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방북한 임 위원장은 대북포용정책의 성인과 실행을 통한 이번 정상회담을 선사시키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지난 11년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참석하는 등 북쪽의 대남 핵심라인과 두드러진 인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현안 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부연설명했다.

학·미사일 문제에 대해 김위원장도 입장을 피력했고 두 정상은 상당한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대화는 매우 유익했다"고

말해 가까운 장래에 뭔가 가치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핵개발과 증정거리미사일 개발 문제는 미국과 일본 그

에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실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55년만의 정상회담인 만큼 '기법적' 방북하고 싶었던 김대통령이 접어한 이해관계가 얽힌 핵과 미사일 문제를 꺼내줄 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 대통령은 북한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대

립하고 한국의 아담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초 "이번 정상회담

절망적이라면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삼독을 했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후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이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당초 언급에 없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은 주변강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김 정상회담에서 "자주적 통일을 위한 것만도 미국 일본을 자극한 관인데 그들의 주문 사항을 외면했다"는 통일 노정이 함락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인호기자)

## "서방서 대접받기 위해선 '어떤조치' 필요" 설득 김위원장 고개 끄덕끄덕- 곧 가시적 성과 있을듯

## 임동원-김용순 라인 공동선언 도출 '산파'



林東源



金容俊

김용순 위원장은 국제부에서 35년간 일해 북한 고위층 가운데 서방인물을 가장 잘 아는 대남담당비서다.

이들 외에 남측에서는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장관,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 양영식(梁英植) 통일부차관 등이 막후에서 활동했다. 박지원 장관은 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등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한 밑사역함을 수행했다.

북측에서는 손호경(孫浩敬) 이태경회위원장, 전금철(全金哲) 조국경회총괄위원부위원장, 안경호(安敬浩) 조국경회총괄서기국장, 이종혁(李宗赫) 조국경회연구위원장이 꼽힌다. 송 위원장은 박지원 장관 카운터파트로 정상회담 자체를 성사시켜 국내에 잘 알렸었다. (한용길기자)

### 취재 노트

趙南奎 <정치부기자>



趙南奎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만남에 국내외 언론과 방송은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는 2131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동안 김위원장의 표현대로 흥분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정상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옷차림새 하나에 이르기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첫 남북정상회담은 이처럼 급위 원장의 순안군항

첫 남북정상회담은 이처럼 급위 원장의 순안군항

서, 총체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반목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도 아니다. 55년 세월이 만든 불신의 늪이다.

과거 남북은 정권유지차원에서 남북문제를 악용,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지난 달 경향신문소년애소년단 방문 당시 군정장 태극기를 잠시 내린 것과 관련된 논란에서 보여지듯, 답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준협한 대북접근기류가 엄존한다.

북한 또한 남북 관계 경제 책상에 자유롭지 않

다. 대북지원 식량을 싣고 들어간 배와 선원을 정찰함정이라는 괴물을 붙여 억류하고 로동신문에 실린 김정일 사정을 휴지봉에 넣었다는 이유로 북한 거주로 건설된 장에서 방송려는 근로자들 감금, 남한내 대북경정 악화에 불미줄 제공했다.

이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인태간 불씨를 여하히 봉입과 번연의 불꽃으로 피워올리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직은 거기서 쉬운 바람 앞의 촛불, 과거와 같은 농경논리로는 불꽃을 살려내길 수 없다.

### 인식의 틀을 바꾸자

"위대한 영도자가 남조선 괴뢰 정권 수반을 괴물이 대하는 판에 북한주민이 눈물을 흘려도 결코 우리보다 작지 않음을 것이다. 해방 이후 남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 세계무대 당당히 나선 金正日



## 시진으로 보는 어제와 오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전례군주의 부친적 이미지를 과시했다.

### 합당-각듯-새로운 모습

의표를 찌르는 기함없는 인견 속에서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호(李會浩) 이사를 '뜻뜻이 배려하는 예의바른 차장'은 당적 습관을 침투하면서 비친상장이다. 과격해 보이는 교정적 인식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오랫동안 권한 외수에 온 그의 전면모습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김정일(金正日) 나치보기 긍정성도 있고 있다.

### 과파하다는 소문 뒤집어

세계인들은 김 위원장의 선장기 시문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담은 리본을 읽을 개해관으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그를 조망해보자 한다.

그의 선장기는 선친 김일성(金日成) 주석으로부터 받아 온 후계자 수임과 이어 놓을 수 없다. 해외에 역사적인 20여 무임승차 김 주석을 따라 헌장지도로 나타난 그의 선장기직은 회담에도 잘 나타나 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관영 고명명칭을 통해 정상적 여망으로 많은 말을 쏟아 내면서도 김 주석 범하지 않은 김 위원장의 수도명명함은 어린 시절 재한학의 연상이 있다는 것이 최문기의 분석이다.

### 이런시절부터 '제왕수업'

그는 20여 주파 노동당 선정전공부 부부장들 지내며 '비바다' 붓피는 처녀들의 연회를 직접 재학했다. 후계 구도도 확고히 하게 된 그는 입장을 통한 김일성(金日成)의 승인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 金正日 새시작 조망 필요

또 주재시절과 비호 무용 등 예종은 김일성(金日成) 사지도 다음 세 있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권의 평강해 있는 조망으로 연중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의 선장기직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이해 작업이 화강의 선정전을 받게 된 것만을 분한다. (이상훈기자)



아버지인 김일성 추석과 얘기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보기 드물게 인견을 벗은 모습이다.



현지 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구감예방위원을 방문, 관개지의 실명을 들으며 현지지도중 하고 있다.



혁신이 진한 앞-앞-앞

△세계 최후의 냉전지대에 권위가 움수 있다던 뇌슨-모태중회담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뒤 것이다.(일본 닛케이신문 11일자 사설)
△남북정상회담, 이제 방향이 녹기 시작했다.(일본 아사히신문 15일자 사설)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은 근대 한국역사의 거대한 변화의 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미국 뉴욕타임스 11일자 1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 13

일자 1면)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노력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폐쇄시대로부터

△이번 만남은 1997년 대통령선거 이후 아시아의 만달라라는 범람을 일으킨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민 성공적인 결과다.(스페인 엘 문도 14일자 사설)

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것은 1994년 김일성 간 추식 사망에 따른 그의 승계 이후 가장 눈부신 위중이다.(프랑스 르 몽드 13일자 1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한국인들은 한기증을 느낄 정도다.(미국 뉴스위크 14일자 9면)

△이번 회담은 바로 세계 대세의 흐름이자 민심의 향방이다.(중국 신화사망신 13일자 7면)

△남북정상회담은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협상회담에 비견되는 사건이다.(미국 LA타임스 13일자 1면)

△남북정상회담은 마일-중거리의 간섭으로부터 동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4일자 13면)

김대통령의 오랜노력 클라이막스
김위원장은 폐쇄상태로부터 탈출

더의 과감한 탈출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13일자 28면)

△비록 길잡은 없지만 이번 회담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길이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13일자 사설)

△남북한 두 정상은 약속은 냉전체제의 습관한 유물이 드디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준 것이다.(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14일자 사설)
△김정일 위원장이 트랩을 내려오는 김

“가자 北으로...” 經協 확산 기폭제

경협 빠른속도로 진행될것

순영두 전경련 부회장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측의 민간 경제단체간 협의기구도 구성된다. 또 현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해인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참여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북측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민간 차세를 볼 때 남북경협 사업도 예상대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정상간 합의된 남북공동선언문



에도 들어오고 부속한이(사)에 구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 북한측 경제인들이 남북공동의 구성 이전 또는 구성후에도 민간단체간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한 공동체가 가동되면 대북사업의 확대와 관련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에 방지, 신용보장 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이다.



수업 경제인 訪北소망

남북정상회담 수습을 마치고 돌아온 경제인들은 한결같이 이번 남북한 경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경제인들은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제방지협정 체결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삼을 나눠먹어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둬에 따라 남북부터 북한삼을 나눠먹을 것을 약속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5일 대전시 서구 금강동 대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교를 이르는 표창을 받고 있다.

투자보장등 협정체결기대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상의 만남은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민족이 협력의 길로 나가는데 특유의 초석이 된다. 특히 남북경제 협력분야에서도 원칙과 교류를 합의하기 위해 단기간 협상을 하기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경협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본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거행 추진 협정사항을 위해서는 이번



데 논의된 투자보장, 이종과제방지협정 등 투자협정 등 경제, 법적, 제도적 문제가 남북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 국지간 대화의 진척과 사업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제공동체 설치돼야

손길중 SK회장

남북경협 활성화의 전제로 이종과제방지, 투자보장, 신용보장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했다. 북측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저유 함께 사업을 하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남북경제 공동체인 공동기구 구성을 위해 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를 김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는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등 동차기 산업분야에서 남북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도적장치 보완부터

구본무 LG회장

경협은 북한측은 물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성과를 갖고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남북공동위원의 설치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



면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도 현재의 대북 사업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인터넷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비무장지대에 국가보안센터 건설 등 사전발로 대북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가동하게 나갈 계획이다.

신위원장 아버지 건강 물어

정몽헌 현대인사 이사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인측 경제인들과 많은 교류의 기회가 있었지만 개별 접촉을 지지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달말 정몽헌 정몽헌 회장의 남북과 구체적인 협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몽헌 회장이 함께 남북한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사업 분야를 논의할 것이다.



사기업은 북측 인사와 교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북한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그 말고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北기업인들 상당히 호의적

정치희 고합회장

남북경협 추진 국지적 차이에 있어 가장 호의적인 반응은 북측 기업인들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우리 기업이



남북경제공동체인 공동기구 구성을 위해 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를 김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는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등 동차기 산업분야에서 남북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산상봉’ 이벤트성 행사 안된다”



## 이산가족

남북 두 정권이 오는 8-11월 즈음에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꿈에도 그리던 합육 상봉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아직 속재로 남아 있다.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은 단 한차례뿐이다. 1985

### 국내 766만명 - 60세 이상 60여만명 실제 상봉은 85년 단 한차례뿐

년 열린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전격 합의되면서 그해 9월 남북 이산가족 35만명과 북쪽 30만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

80년에도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북측이 '피비다' 등의 시골공민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문제 등으로 또 부진에 어려움을 더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이산가족은 766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광복절을 즈음해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들을 인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실향민과 남북자와 국군포로, 비전향장기수, 탈북자들의 실상과 상봉 전망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 풀어야 할 과제들

민중으로 추산된다. 이중 이산 1세대인 55세 이상은 123만명, 60세 이상 고령자 60만명 정도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1970년 기초적 귀독시 파악한 516만3000여명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는 셈이다.

어렸을 정부는 나 이 많은 이산 1세대 합 최우선적으로 신 반해 고향방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나 상 분자 수가 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어 보다 많은 시골노에게 상봉 기회를 주기 위해선 이산가족 민회소 설치와 상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북도민회측은 “최근 지체 여론조사에서 고향방문이 안 되더라도 귀문집이나 급강산에 민회소 설치해 자유롭게 민회방이라도 할 수 있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산가족들은 한두차례 고향방문단을 통한 이벤트성 해결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영국기자)

## 世界日報

2000. 6. 16 (금)

### 국군포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한국전쟁중 포로가 된 국군포로의 귀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생존을 확인하고 밀단을 해명한 국군포로는 231명이다. 이는 탈북 귀순자와 귀환한 국군포로의 증언을

### 학도의용군등 포함돼 상당수 北 “다 송환” 주장-귀환 불투명

통해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97년 발표한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자는 1만1000명으로 이 중에는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숫자는 국제적 차이에 있는 인원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이나 유격대요원 등을 포함하면 국군포로는 5만~8만명에 이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4년 조창호씨에 이어 97년 양승용 씨, 98년 장부원 김복기 박동익씨 등이 귀환하면서 이들의 증언으로 국군포로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북한군에 재징집돼 전장에 투입되거나 긴급복구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휴전 후 1956년 북한공민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북한공민으로 편입된 뒤에도

이들은 여전히 북한 계급내 최하층의 노동현장에서 일해야 했고 관산이나 공장 집단농장 등에 거주

하면서 국가보위부에 등록돼 일기수입 부족을 감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의 귀환이 언제 성사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와 이산가족 문제는 제기됐지만 국군포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군포로는 이미 종전 이후 다 송환됐다는 게 북한측의 입장이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궁금하다. (한경호기자)

**납북자**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으로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선언함에 따라 억류돼 있는 납북자들도 놓이길 노니 믿지 않을 것 같다. 납북자가 동등한 상한 유류증제를 맞아야 자살까지 하는 등 고봉의 난관을 맞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6·25이후 납북된 사람은 3756명에 달하며 이 중 15명이 억류 중이다. 한국장기말선연구원은 최근 납북된 지 30년만에 돌아온 납북여부 이재근(62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납북자 등을 추가 461명이 북한에서 감금이나 다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5년 5월 서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대한민국 선원 10명을 북으로 끌고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어부와

**어부·유학생 등 무차별 끌고간 장기수와 맞교환어부 관심 증폭**

한글기, 박사,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갔다.

북측이 저지른 납북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60년 12월 승객

- 주요 납북사건 일지
- 1949.3.21 **강릉항 서울항 대한항공기 탑승 51명**
- 1970.6 **해군 함정 1-2 8선사 20명**
- 1971.4 **독일구제 한국대사관 유성근씨 가족 4명**
- 1977.8 **전남 울도에서 고교생 2명**
- 1978.4 **노론에서 오승문씨 전 수도대교 교사 고승문씨**
- 1987.1 **서해 공해상에서 동인호 선원 12명**
- 1989.7 **유엔여부 공이던 피이유학생 이태환씨**
- 1995.7 **8국에서 선교합동 공이던 연6은 박사**

**○납북자와 어류자 현황(1999년)**

| 구분 | 계    | 어부   | 이재자 | 유학생 | 교사 | 기타 |
|----|------|------|-----|-----|----|----|
| 납북 | 3767 | 3667 | 51  | 49  |    |    |
| 역류 | 464  | 411  | 12  | 41  |    |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으로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선언함에 따라 억류돼 있는 납북자들도 놓이길 노니 믿지 않을 것 같다. 납북자가 동등한 상한 유류증제를 맞아야 자살까지 하는 등 고봉의 난관을 맞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6·25이후 납북된 사람은 3756명에 달하며 이 중 15명이 억류 중이다. 한국장기말선연구원은 최근 납북된 지 30년만에 돌아온 납북여부 이재근(62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납북자 등을 추가 461명이 북한에서 감금이나 다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5년 5월 서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대한민국 선원 10명을 북으로 끌고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어부와

**10여만명 1-러서 정치없이 해매 '공동선언'서 언급 안돼 실망키**

의 이같은 추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많아야 1만~3만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차이는 납북자에 대한 개념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말하는 납북자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얼마 후 돌아가는 북한주민을 모두 납북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최근 납북자가 크게 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31일 중국이 자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핵과 중국 국경지대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제적인 난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측에 납북자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호성기자)

**탈북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공주립과 지방정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탈북자는 물론 국내와 인권단체에도 큰 관심이었다.

그러나 14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는 탈북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들을 실망시켰다.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앞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 미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억압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북을 탈출.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지를 떠도는 탈북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들

**10여만명 1-러서 정치없이 해매 '공동선언'서 언급 안돼 실망키**

의 이같은 추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많아야 1만~3만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차이는 납북자에 대한 개념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말하는 납북자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얼마 후 돌아가는 북한주민을 모두 납북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최근 납북자가 크게 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31일 중국이 자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핵과 중국 국경지대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제적인 난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같은 민족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측에 납북자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호성기자)

**비전향 장기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8·15 무렵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급가시된 비전향장기수 북송 논의가 공론화됐다.

이번 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라는 표현 대신 우리 정부가 사용을 꺼린 '비전향장기수'라는 표현이 쓰인 데북은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에 북측이 적극적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남북은 당국간 대화와 통해 구체적인 송환대상과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은 실무협상에서 1993년 이인모(李仁模) 노인 경우처럼 '무조건적인 송환'이나, 아니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군포로 등과의 맞교환'이라는 방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는 6·25때 붙잡힌 2만명의 국군포로 생존자와 1955년 5월 대한민국 선원 10명의 피랍을 시작

**102명-58명 北行 희망 송환방법싸고 진통 클듯**

으로 계속된 이산·형제·가족 납치로 끌려간 강제납북자 433명이 억류돼 있다.

무조건적인 이인모씨 송환 이후 비남여군이 비등했던데다가 정부 또한 지난해 2월 '사상진항제'를 폐지하고 우용각(72세) 등 비전향장기수 17명을 한꺼번에 사면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지난 9일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수 출신 비전향자는 모두 102명으로 이중 31년간 복역한 우씨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사면된 신광수(申光洙·71세)와 손삼모(孫三模·70세) 등 북에 연고된 등 58명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3차례 사면으로 장기수 26명이 풀려남으로써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는 한 명도 없다는 게 공식적인 법무부 입장이다.

그동안 북한은 줄곧 김인서(75), 김연대(70), 함세권(68)씨 등 6·25전쟁 와중에서 체포된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앞으로 북송될 장기수에 이들이 우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희준기자)

# “평화정착 전기... 동북아 질서 재개편”



## 주변 4강등 핵위 시각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북한이 미국 등의 제압 없이 남북한 직접 회담에 나서 남북 해마다 이번 회담 성과에 미국이 긴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백악관의 조 바이든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향후 과정에서 과거 2년동안 그들이 합의한 중요한 작업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이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대변인은 “이번 회담 결과가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북한 핵 및 미사일

## “회담성과 고무적이다” 합의사항 이행이 중요 핵등 언급없이 아쉬움

문제를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미사일 방위(NMID) 체제를 구축하려면 계획에 아직은 변화가 없다는 게 바우처 대변인의 설명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다른 기술-성능-개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올 가을 60억달러가 드는 NMID 계획을 감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장 무드가 조성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데 정치적 부담이 따른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 미국 일본

일본 정부는 남북정상이 도출시킨 역사적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유세중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15일 오전 지바千葉현에서 연설을 통해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역사적 패기여서 이를 환영하고 싶다”며 “베를린장벽 붕괴로 동서간 대결이 종결된 것과 같은 평화적 개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요헤이(野澤平) 외상은 “남북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합의문서에 조인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담 결과가 남북국교 정상화 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 공동선언 “역사적 패기” 수교협상 재개 기대감 남북관계 北 주도 우려

일본 정부내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외무성 고위간부) 등 소극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수락, 이산가족 상봉 등 뜻밖의 성과가 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은 빠른 시일내에 한-미-일 3국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회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3국 공조체제 강화 방침을 확인한 다음 대북 대차관대출을 새로 검토할 방침이다.

5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남북 수교협상은 북한 측 사정으로 아직

도 담보상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지 주시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남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대일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일본간에는 일본인 납치 의혹 등 난제가 많아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번 남북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요구한 미사일-핵문제 등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북한 주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공동선언’ 긴급 보도 CNN 런민리모  
 人民日報 동 세계 주요 언론사의 협사  
 이트가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 공동선언 서명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CNN.com** Search CNN.com

myCNN | Video | Audio | Headline News Brief | Free E-mail

June 15, 2000 -- Updated 03:40 a.m. EDT, 07:40 GMT, @ 3:1 SU

**BREAKING NEWS** North Korea bids elaborate farewell Details soon.

World U.S. WEATHER BUSINESS SPORTS TECHNOLOGY SPACE HEALTH ENTERTAINMENT POLITICS LAW TRAVEL

**人民日報** 2000年6月16日 星期五 第15715号

People's Daily Online English 日本語

本報新聞中心 全國總發行所 網絡總發行中心

今日新聞 國內新聞 國際新聞 體育新聞 影視新聞 專刊副刊

本報地址：北京東黃城根北街2號 電話：(010) 67077214

本報網址：http://www.peopledaily.com.cn

本報郵政特准掛號認爲新聞紙類 國內訂閱每份0.35元 零售每份0.35元

本報廣告部電話：(010) 67077214 廣告部傳真：(010) 67077214

本報印刷部電話：(010) 67077214 印刷部傳真：(010) 67077214

本報發行部電話：(010) 67077214 發行部傳真：(010) 67077214

本報訂閱部電話：(010) 67077214 訂閱部傳真：(010) 67077214

本報廣告部地址：北京東黃城根北街2號 廣告部郵政掛號：京字0011號

本報印刷部地址：北京東黃城根北街2號 印刷部郵政掛號：京字0011號

本報發行部地址：北京東黃城根北街2號 發行部郵政掛號：京字0011號

本報訂閱部地址：北京東黃城根北街2號 訂閱部郵政掛號：京字0011號

중 국

중국은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을 공식 발표.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한 성과를 거둔 역사적 중대사건"이라며 "남북 양측이 앞으로도 계속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방싸오(朱邦彦) 외교부 수석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이 공동선언 서명을 '중국 외교의 성공'이라고 평가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에는 '북한 카드'를 이용,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일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한이 남북한

"역사적 합의 적극 지지" 한반도 평화유지 지원 내심 영향력 확대 기대

사이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인정한 견과라고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가 분석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중국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남북 합의 내용을 특히 반기고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제되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며,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동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 지역에서 '뜨는 중국'과 '지는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철강국가'가 아닌 '정산국가'의 면모를 보여 한-미-일 삼각공조도 이완될 것으로 전망돼 중국은 이들의 위상이 줄어드는 '폴리스 알파'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청중기자)

러 시 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지극히 고무적이며 커다란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관영 이타르타스통신을 통해 "러시아는 특히 남북한간 대화가 시작됐고 민족회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환영하고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타르타스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이번 공동선언을 국익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월19일 북한을 방문해 김

"평화공존 첫발 내디뎈" 협정체결 훌륭한 징조 선언내용 면밀히 분석

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의 국가비밀정보법(NMII) 계획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잃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내달 평양방문 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에 러시아와 일본이 추가돼 한반도 평화문제를 협의하는 '4+2, 6자회담' 구상을 거듭 재외해 한반도내 영향력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업기자)

유럽-아시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남북한의 평화통일 합의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영국 정부는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정상회담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공식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평양에서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지하며 경의단 표창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회담에서의 좋은 분위기는 남북간에 긴장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으며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또한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

프랑스 "한반도 안정 중요한 첫걸음" 대 만 "남북분반야 양안안정 모색" 이스라엘 "남북화해-협력 중대 전환점"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면서 중국에 양안간 화해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합의는 한반도 안정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친수이벤(陳水扁) 총통은 앞서 14일 "오랫동안 차지했던 남북한이 화해할 이룰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김 대

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분반야 양안간 민족 화해 모색이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북한의 평화통일 합

의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11일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는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가 한반도를 조속한 재통일의 길로 이끈다"고 말했다.

(런던-타이베이-하노이-예루살렘=연합)



# “예상 뛰어넘은 놀라운 성과”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행하고 있다

일본언론들은 15일 3개항의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공동선언을 일찍히 톱뉴스로 전하는 등 회담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3대 일간지는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합의' 이사회 '김 총비서 방한수락' '요미우리' '김 총비서 서울방문 수락' '마이니

북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했다. 신문들은 그러나 두 정상이 남북통일의 길잡이를 제시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문제를 중요시하는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남한간의 의견대립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앞으로 이번 회담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역사적인 합의서' '원칙성 합의서' '원칙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표현한 것은 합의문이 역사성과 원칙을 조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홍콩 신문과 방송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동선언문 합의로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추구해온 남북화해정책의 효용성이 입증됐다"고 진단한 뒤 "김 대통령은 또 북한 언론들로부터 '남조선 괴뢰정권 괴수'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베이징=홍콩=연합)

## 미국 "50년대결 종식... 화합의 신기원"

## 일본 "지금 빙산이 녹기시작"대서특필

## 유럽 "통일기반 조성... 골 해소가 관건"

치 '남북통일 자주적 해결'(산케이) '남북통일 합의 합의'(니혼게이지) 등 특대호 제목으로 1면통단으로 보도했다.

신문들은 국제면 2개면은 물론 정치면인 2~3면까지 남북정상 합의의 관련 소식에 할애하는 등 마치 자국의 경사처럼 대서특필했다.

NHK 등 주요 방송사들도 15일 0시 뉴스에서 남북정상 합의문 조인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7시, 9시 등 국민들이 지켜보는 시간대에 톱뉴스로 관련 소식을 소개했다.

다시히신문은 '지금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동성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일을 향하는 연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이 확인했다는 사실'이라며 "부동·不動했던 빙산이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공동선언문 서

면 사설을 여러차례 긴급기사로 취급했으며 홍콩 언론들도 공동선언문 발표 배경·경과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합의문 서명 직후인 오후 7시2분 한국시간 오후 9시2분 "남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긴급 영문 기사를 타전한 데 이어, 8시4분 평안남 긴급 중국어 기사에서는 "남북한이 원칙성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제목 아래 "김 위원장과 김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이

## 러시아와 유럽 주요 언론들은 15일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한간 깊은 골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유력 신문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기대 이상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2개 한국의 통일은 아직 먼 상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처럼 남한에 의해 흡수분할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협상을 서두를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BBC방송은 남북공동선언문 발표사실과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특히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하는 획기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파리=베를린=런던=연합)

## 뉴욕 타임스는 15일 "놀라운 속도와 열정

으로 두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실현되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냉전을 종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합의서는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주거나 안보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간 적대관계를 청산할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기사 첫머리에 "남북이 지난 50년간의 대결을 뒤로 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회담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그러나 "일반적인 합의내용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마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서도 "비록 (합의문은) 모호하지만 전례가 없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남북 화해는 미군의 아시아 주둔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 및 동북아의 정치적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15일 "놀라운 속도와 열정으로 두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실현되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냉전을 종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합의서는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주거나 안보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간 적대관계를 청산할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남북한 합의사항에 대해 냉전종식을 향한 첫번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널은 "이산가족 재회 합의는 김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CNN과 ABC, NBC, CBS 등은 합의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향후 이견과 갈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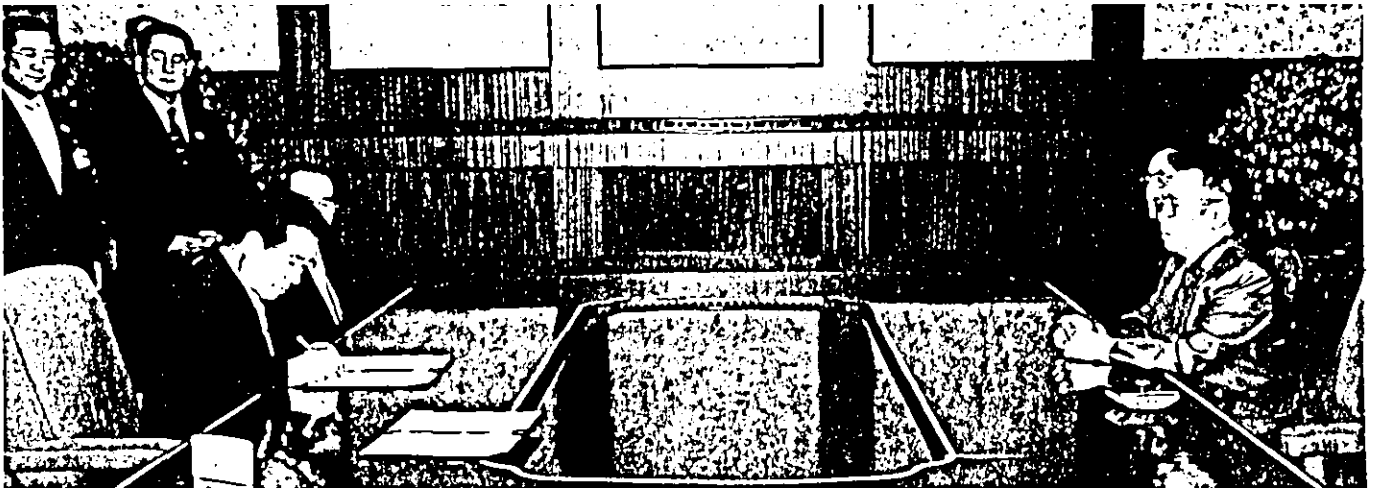
# 동질성 회복-시너지 효과 극대화 초점



## 공공사업 분야도 후속조치

분단 55년사에 처음 그은 남북정상 회담과 5개항의 공동선언 합의단은 향후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세 분야에 걸친 남북 교류에 붓줄을 열어 놓을 전망이다. 현실로 상륙 다가온 남북 교류와 화해무드는 남북 특이 체제의 이질성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남북 교류의 가속화는 점차 지역을 넓혀가면서 이념과 체제의 벽을 충돌어뜨리고 통일을 향해 가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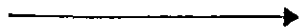
권필자 주



역사적 서명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밤 평壤원 영빈관에서 마련한 회담 끝에 타결한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광양=청와대사진기자단



# → 北투자 적극 유도

**경제** 남북 정상이 상호 경제협력의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는 이제 우리 경제의 '거대한 물결'이 된 것이다. 정부는 곧 남북 경제협력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재원조달=남북한 경제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 전문기술을 다자간 국제협력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이종과세방지등 제도적 장치 마련**  
**北, 세계은행등 국제기구 가입 지원**

장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태국에서 열린 ADB총회에서 회원국들에 북한의 가입지지를 요청했었다. 북한이 이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면 장기지원의 용이할 뿐만 아니라 20억~40억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지원용 이관어는 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활용가능한 자금규모는 △남북경제협력기금 50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7000억원 등 1조2000억원 정도이다.

○투자 인프리카육=정부는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협약 분쟁조정절차 4개 협정을 우선 협의할 방침이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재산권과 투자이익의 송금을 보장해주고 이종과세방지협정은 투자이익에 대해 남북한 두 곳에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 군사 핫라인 개설

**사회** 환경 보건 등 사회분야 관련 부처들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비교적 쉬운 남북협력사업부터 해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직통전화=정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서로 무력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북측과 군사직통전화개설 등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군사직통전화는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에 따라 우리 국방부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예방=기상청은 기상자료뿐 아니라 기상관측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호우나 폭설에 따른 풍수해를 예방함으로써 비용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상상황을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산습수에 지역인 경기도 문산 언천 동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정보 교류-재해 상호 대처**  
**DMZ생태계 조사등 환경사업 협력**

남북 협력 사업의 하나로 임진강 중상류

지역에 홍수조절 가능성을 건설하고 재의할 방침이다.

○보건 및 질병예방사업=보건분야의 남북협력은 위생 백신 등 어린이를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과 군사분계선 일대 등 중상류로 확산되고 있는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관리등 위한 필수약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남북협력기금에서 50만달러 상당의 말라리아 약품을 북한에 지원키로 한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절차와 방법을 논의중이다.

○환경보건 사업=남북간에 추진 가능한 환경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산남북구 지원,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 협사이동경로 조사, 서해오염 실태조사, 국립공원 협력사업 등이 꼽힌다. 북한 산남북구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시창 김영춘)은 북한의 산남북구 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 공연물 합작 추진

**문화-예술**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끌어냄에 따라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남북교류가 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연 교류는 이미 몇번의 전례를 구축한 것이어서 쉽게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극협회는 남북공동 제작이나 공동연출 등의 작업을 구상중이며, 정병호씨가 주도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관문위 공동공연은 비롯해 금나래계의 민요공연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영화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첫 작품인 '봄가시리'가 7월중 남쪽에서 촬영될 예정이다. '정신과' '아리랑' 등의 남북합동 제작 움직임도 있다. 문화 주에서는 남북동일문화재단이 추진중이다. 또 남북관공관협 회의를 위해서 규강산행 남북공동 인간작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중음악 쪽의 교류도 관심거리다. 대중음악 교류는 이미 지난해 평양 정명훈-금난새씨 판문점 공연 구상 문화예술특사 북영화 첫 삼영-문화재 공동 발굴 등에서 개최된 '2000평화

천선음악회'에서 문화가 뜨인 바 있는데 남북의 가수들이 북에서 크게 환영을 받기도 했다. 남북한 문화재 공동발굴이나 문화재 교류전시회는 정책색을 띠고 있지 않는데다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문화교류의 최적 소재로 손꼽힌다. 문화재단은 '남북기본합의서' 3개항에서 밝힌 이후 △남북한 문화재 전문가 교류와 자료교환 △남북한 문화유적지 공동조사연구 △남북한 문화재 교환전시 대비 무장지대 자연유산 자원 공동조사 △남북한 무형문화재 합동 공연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하고 있다. 특히 국제 고고학계에서 일제강점기 추진해온 비무장지대 자연유산자원 공동조사는 '비무장지대'라는 관례의 자연조건에 힘입어 도굴이나 개발로부터 철저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유적이 널리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립계위를 갖고 접근한 한다면 역사연구에 큰 진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드니'서 첫 수확

**체육**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북체육교류는 교류방안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교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한 김용을 대한체육회장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북측 실무자들과 세부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우선 대한체육회는 9월15일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선수단의 동시입장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주 남북교류대책위원회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을 시작했다.

체육법로는 탁구협회가 15일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단일팀 결성을 살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먼저 교류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탁구는 지난 자바 세계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했던 경험이 있어

**동시 입장 종목별 단일팀 진행**  
**京平축구-월드컵 분산개최 모색**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도 9월15일 경평(京平)축구구를 서울에서 개최시키고 10월 아시안대회 및 11월 아시안청소년선수권대회를 위한 단일팀을 구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 경우 2년 앞으로 다가온 단일 월드컵축구 분산개최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복안이다.

또 농구는 이미 평양과 서울에서 친선경기를 가진 경평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대표팀간 정기전으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교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씨름은 민족교유의 전통 소호추리는 점에서 민족색을 축제 분위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방안을 놓고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될 남북교류 리안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태권도도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갈라져 경기규칙이 다르지만 남북 협회가 월드컵 시합단을 구성,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품새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먹거리도 노래도 패션도 '北風'



## 온나라 특집 신드롬

“북한신드롬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북한 기요음반과 관련 사적들이 붐비기에 평양 앨범과 평양음반(平壤音盤)을 찾는 손님들로 북극음식점들이 북수도를 누리고 있다. 젊은 층에선 북한 기요 멜로디를 한 핸드폰 벨소리와 특유의 인사법 등 ‘북한식’이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는 ‘김정일 100문 100답’ ‘김정일 통일전략’ ‘현대 북한의 지도자’ 등이 전자-사적관련 사적 베스트셀러로 올라섰다. 또 ‘평양서본 김정일’ ‘이제 백제는 평양이다’ 등의 책들도 젊은 세대가 무척 늘었다.

또 ‘휘파람’ 등 북한가요 7곡을

### 젊은층 핸드폰 벨소리로 북한노래 대유행 정상회담 첫날 점심메뉴 평양음반도 불티 김위원장 선글라스 여름패션가 인기플뒸

모아 김정일 19가 구입한 음반 ‘평양소녀’가 2주전부터 발매된 네 이어 평양음반소녀에 음반이 붙었던 ‘평양소녀’는 젊은층에서 휴대용 벨소리로 폭발적인 인

기를 모으고 있다. 이 노래의 벨소리 다운로드 순위는 지난달 21위에서 12위로 경천 뛰었다. 특히 ‘휘파람’은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밤새 멧날새



“통일맹면 맛보러 왔어요” 15일 낮 서울 강남의 한 북한음식 전문점에는 평양음반과 평양맹면 등을 먹으려는 실행민과 인근 주민, 직장인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연합)

붙었다. ‘휘파람 휘파람...’이라는 애조 편 가사로 50~60년대의 순수한 국민정서를 자극해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휴대용 벨소리 제공업체인 (주)세인지벌의 한 관계자는 “북한가요 ‘휘파람’에 대한 신장도 많이 들어와 벨소리 북극에 올라가도 했다”면서 “우리 이바 제일 좋아 ‘다사 만다사’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노래 인기의 노래방으로도 이어져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에는 노래방기계에 북한 노래를 넣어야 한다는 업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서울시대 북극음식점에는 회담 첫날 김대중 대통령의 집삼으로 나왔던 평양음반과 평양맹면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초등학교들 사이에선 평양시를 찍은 채로 머리위로 반짝 드는 인사법이 이틀만에 전국으로 번졌다.

이밖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에게 건넸던 ‘입삼지 없게 해드리죠’도 유행에 대열에 올랐으며 김 위원장이 착용한 선글라스도 유 여름 최고의 유행상품 반열에 오를 것으로 짐치되고 있다. (심정미기자)

## 지자체 對北교류사업 봇물

### 지자체간 협력시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북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을 비롯해 공동사업,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의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의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

- 인천 남포시와 자매결연 추진
- 군산 해주에 양식-수산기술 제공
- 강원 철결퇴치등 대북지원 확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15일 남북 지방교류개발에 있는 북한 남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자매결연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남포시의 정복을 기약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원도도 해주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80만 원 ‘해주시와 자매결연 및 어업

협력’을 위한 교류추진허가서 등 중앙부에 제출한 예정이다. 군산시는 해주시에 양식 및 수산인력 정비-시설-기술 등을 제공하고 해주시는 풍무산 인력을 투입, 북한 이장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양식을 해 일일비유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원도는 현재 2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백여명으로 늘리고 북한 강원도의 김해피지, 김산아동들기 등 인

도차차간의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군은 북한측과 남북한 공동 비무장지대에서의 농토 경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역군은 분야 협력 등 어류사업이 부분군 군사분계선 인근 수역에에서 남북 공동어장 운영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청장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서해안 남포 또는 해주 지역 공업단지에 내년부터 2008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부산신만천유공단유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종합)

### 해외교민 반응

해외거주 교포들은 15일 남북 공동선언 발표에 기대감을 표명 하면서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재일교포들은 남북정상회담 뉴스를 서울로부터 워선 생중계한 해외방송에 눈과 귀가 고정자라고 일부 교민들은 라디오방송의 질이 생중계를 청취하느라 밤잠

속되는 남북한간 만남을 통해 합의된 방안을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옮겨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일교포들도 신문용 위으며 삼삼오오 모여 남북공동선언에 관해 얘기를 나누며 기쁨을 나눴다. 소망을 위해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지역에 나갔다는 박영순(68세)은 “통일이 당초에 이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함에 도란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 두 정상만남 300점취도 모자라 兩分 재일교포사회도 화해촉진

을 살치기도 했다. 남캘리포니아의 교민사회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교민신문은 정상회담 소식으로 뒤덮였다. 미국인라디오방송인 NPR, LA 방송 TV방송인 KCOP와 라디오방송 KCRW 등도 한인사회의 반응, 전문가 대담 등을 내보냈다.

서선덕 남가주 이북도민회연합회 회장은 “교류의 실행민들이 자주 세상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미동포시무인회합회는 ‘재

말했다. 오사카(大阪)시 이쿠노(生野)구에서 식품집을 운영하는 김한주(48세)는 “두 정상의 만남 자체어면도 100점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300점을 취어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일대한민국민(한민)이 이날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의하고 조총련도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남북정상회담이 재일동포 사회의 화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신종합)

# “동북아 ‘DJI시대’ 막을라”

## 美-日-中-러 주변4강 ‘공동선언’일제 환영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예고한 남북한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는 대강으로 일관해 온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간 극히 압박에 따라 한반도에 이른바 DJI(D+J+I)의 약어로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일본 아리산(利根山) 공조체제가 성립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냉전의 마지막 고조(高潮)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19일 미국 대통령은 14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모리 요시미(森 洋司) 일본 총리는 15일 “역사적인 쾌거”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루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극히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대사건”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남북한 직접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한반도 분체에 소외됐던 러시아의 위상을 강

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날 평양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의 역학구조에서 새로운 균형추가 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공식적인 외교를 펼칠 태세다.

중국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에 대한 입김 강화의 초거로 삼고 있다. 주방콕외(朱邦高) 외교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일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도 한반도에서의 이

항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명분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주변이권 분배, 북한 핵 및 미사일개발 문제 등 미국의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방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주변 4강 중 대북 대화가 가장 늦어지는 데 대한 견제감을 드러내면서 한-미-일 3국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 6. 16 (금)

# 北, 對南비방 일체중단

### 金正日위원장 지시 올해 6·25·50돌 행사도 않기로

북원은 앞으로 휴전선의 대남비방을 비롯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6·25에도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김위원장님이 고별 오찬 자리에서 ‘오늘 오찬 남북위원장 회담 비정상적,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든 정대로(남침을) 비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위원장은 또 회의에서 ‘10일 있으면 6·25지만(비방 부러지우면) 하지 말라’며 6·25 행사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25 행사를 하지 말라

는 뜻이 기념식 외에 군의 퍼레이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관계자는 “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군을 가만 놔두면 상대 발을 비러보다가 주지 개념을 갖게 된다.’

주지 개념을 안갖도록 경의선 농운 때 철도철 건설하도록 군을 농

원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김대중령에게 “과거 대결시대의 구 정치인 같으면 이번 남북공동선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대중령과 내가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기를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황정미기자)

# ‘離散’상봉 적십자회담 추진

### 이달중- 정부, 고향방문 대상자선정 착수

#### 北과 이달내 당국자간 대화

#### 비전향 장기수 50명 전원송환

정부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후속조치의 하나로 남북 적십자대표단 회담을 이달중 추진하는 한편 8·15일 광복절을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에 대비,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공림내 이산가족만회소 설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중 사업상 협의단체에 이은 남북 정상간 3차인 개성과 상호 군사적 협력 방안을 위한 군사직접대화 개설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이달 안으로 북측과 당국자간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산가족 방문단 구성은 일단 70세 이상 고령으로 하되 북한내에 부모·자식·형제 등 직계존비속 생존자가 있는 이산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남한내 70세 이상 고령자는 25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비전향 장기수 90여명 가운데 북송을 희망하는 김인서(金仁瑞·74) 노인 등 50여명을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유주 초 국무총리의 책임하에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산가족 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소집, 국무위원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정승목기자)

# 환영인파에 血肉의 情 느껴



## 송대통령 귀국보고 요지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올 것 같습니다. 50년 분단과 적대관계에 종사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각에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 확대,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첫 걸음이 됐으면 다 이런 바램이 없었습니다.

김위원장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환대를 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迎하고 오느라 애용해 공항에도 환송을 다녀왔습니다. 외무부에서는 때로는 감동적인 생각을 가진 때도 몇몇 있었지만 우리가 갈 의지 노력이 김위원장을 성실히 할 일을 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안성에 들어갈 때 60만, 다음날 30~40만, 모두 100만여의 환영이

동원을 이복한 지도 1,000만이나 됐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분과 50년의 분단 때문에 인공화 시로 되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남북의 인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회해도 할 수 있고 협정도 할 수 있으며, 통일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솔위원장도 공존·공영에 동참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선 말엽 때부터 전쟁이 불 임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만국의 상을 입고 이제 50년, 8·15 광복, 6·25 전쟁, 청토방을 사이에 놓은 데일, 100년의 앙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는 지식 강변과 시대라는 인류 역사를 최대의 행진에 들어가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와 시대로 참여하고 있는 이란 때에 우리 민족끼리 내부에서 침울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최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대국이 우리 사상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 현몽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적대화할 도 안되고, 흡수정복도 안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하면서 차츰 통일로 나아가자. 민족을 위해 가려는 길 초의 시대에 세계 인류의 한반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북한측에 역설했고 그분들도 동감할 표시했습니다.

## 가보니 평양도 우리땅... 서로 반영해야 사상·체제 차이 차근차근 해소필요

말이 양심적으로 지를 환하고 원수에 갇습니다. 평양 역사상 처음 있는 큰 군중의 환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환영시연의 환영에 대해, 같은 환영의 정으로서 환영해준 그들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강소국가 못됐을 때 그 입장은 파멸, 우리가 상강적으로 있을 때 가지를 세계사상 큰 명칭이 걸렸.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온갖 선의의 제재를 다과적이고 빛만이나 다들했습니다.

반반 것이 좋습니다. 환영도 가 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환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마음으로 민족이었습니다. 반반도 통일 우리 민족은 통일민족으로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셈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것이야 인내성과 성의도 필요 합니다.

일시사태에 선대만 입장에서 생각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양보와 대한 민족의 주체적에는 추후도 공존이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할 일하고 싶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동족한 동양의 길로 나아가는 게 중요 합니다.

예, 미사일, 수년미론 국가비판 법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외는 유익했고 이후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 북한 통일방안 수정

남북통일방안(가)에 대해 방북자의 생각입니다. 첫째,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해답을 내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단에게 7~10년정량이 필요한 것은 20년 전인데 아무 것도 되지 않았고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걸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에 큰 것부터 실천에 우리가 보여주자. 이 김정일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는 좀 구체적인 것에 합의했습니다. 2항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한 통일입니다. 즉, 2세대정부를 한때대로 되우고 남북 양쪽에서 주회회의-강도민회의-국회회의를 구성해 차츰 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80년에 헌법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을 다 가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행 불가능한 애기입니다. 북한은 군사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헌법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갖겠다는 외교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끊어진 철도연결편 유럽까지 승승장구 하해-협력으로 하나된 새조국 물러기야

북한은 남과 북이 8·15를 즈음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정규적인 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휴여정 이산가족의 문제가 초점입니다. 공항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번 8·15까지 이러한 판대로 말이 크게 한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발한 장가수 문체 등을 국민하고 상의해 처리하겠소. 먼저 잘 하시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부터 직접사자가 곧 가옵니다. 이것도 오늘 협의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놓은 즉사 직상사사에 요청해 북측과 접촉하라고 하겠다고 했고 김위원장은 좋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그 범위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교류증대로 남북 다같이 혜택

북한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할 일을 하고, 남측에서는 해준다면, 모든 상반 불신 등을 해결하고 공익을 만들어 전출할 때 남과 북은 다 같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차가 왜 천천히 못가고 왜 버리는 못갈까? 김의성과 김위원장이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의성은 북과 25년 정도 끊어지었습니다. 이것만 어쨌든 25년보다 30년 정도 걸렸다고 주장했는데 훨씬 줄어 듭니다. 북한이 그런 해결하면 우리

는 유럽까지 남북해운로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천년의 길로 로드가 될지라도 남북 양국이 크게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남한에서 김위원장이 아 한 공조기임으로 북측에 가면 충분히 김위원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장기간으로 해야 할 것은 양국이 다 좋아야 하고 그해야 회개와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대만 내왕은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남북사상이 북향하고 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길 것입니다.

## “서울 안오면 말이 되느냐”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위한 해에 후 합의 했습니다. 그러나 김국 김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한 사항중에 내해리 직통을 방문하겠다고

고 했습니다.

김위원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이 서울을 와서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내만 왔다 가고 김위원장이 안오면 거짓 위화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위원장은 동방의지국의 예의를 잘하는 분으로하는데, 내가 김위원장보다 10이세 위로 당선보다 더 나은 어떤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오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도 다같은 우리 간선이다.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며, 다같은 한국사상의 생각과 인성, 모든 생활관 같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아주 성의한 사상적 동양에서, 그런 정치체제 아래서, 그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으로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지금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양 남한과 북반이 생기고 아래는 위치를 것입니다. 그런 또대만 되어주고 재가 물러난다면 또 뒤에 오는 것이 절망적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전쟁을 없다, 직 화와양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공존·공영에서 한민족이 새로운 21세기에 손잡고 한민족이 세계속에서 인류 국가로 살아야 한다. 한반도는 한민족이 하나 된 민족을 막기 위한 안보, 한국은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 조국이 들고 힘입어 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아갈 원전 것으로 나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한반도 전체의 조국, 영원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는 바입니다.

# “남북頂上 악수- 화해는 시작됐는데...”

## 국가보안법 ‘존폐딜레마’

### “北 ‘敵’ 규정 이젠 기만행위- 손질해야” “적화통일 노선 불변- 폐지는 시기상조”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된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 또는 중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개·폐론자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내 언론의 호의적 평가, 그를 찬양하는 북한 언론 보도, 인공기 등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 뿐 아니라 법조항도 남북화해 무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15대 국회때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반국가단체에서 북한 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80~90%를 차지하는 7조(찬양고무)의 개정 또는 폐지 △불고지피 사색을 담은 개정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북 정상간 ‘정치적 화해’와는 별개로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 행위조항의 변화여부만 살펴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반수사외교 위한 변호사의 모임” 윤기원 사무총장은 “국가보안

법 조항을 역면 그대로 적용하면 김대통령의 방북은 ‘화해에 해당한다’며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동반자 관계임을 정치적으로 인정한 마당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국보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국보법은 남북이 다른 길을 극복하기 위해 1992년 합의한 남북합의서 정신에도 어긋난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마당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법 한 판사는 “북한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위협성이 실증되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폭력을 사용해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다면 사상을 진화하는 것은 허용해야 하고 따라서 7조(찬양고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직화 통일 전략’을 드러낸 행위이나 노동당 규약을 준수시키는 한 실정리 국보법을 개폐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자유총연맹 이동훈 운영본부장은 “남북대치 현실에서 원전



철도 증단점 견학 6·15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15일 전방견학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강원도 철원군 철정리 서울·원산 경원선 철도 증단점을 둘러보고 있다. (철원=남세현기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진우 변호사는 “헌법에서 국보법은 국가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틀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지법 김재기(金在基) 1차장은 “국보법은 상대(북한)가 있는 문제인데 성급한 판단은 급류”이라며 남북화해분위기에 양측에 민감한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영순·왕종명기자)

## ‘金正日 팬클럽’ 인터넷에 등장

회원 4명-20대가 운영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김정일 팬클럽’이 등장했다.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인 ‘다음 카페’(cafe.daum.net)에는 최근 ‘김정일 팬클럽’과 ‘북한정상 김정일 동무 I Love You’ 등 김위원장의 팬클럽 2개가 새로 등록됐다.

지난 13일 결성된 ‘김정일 팬클럽’(cafe.daum.net/jungill) 회원은 현재 4명. 이 팬클럽의 운영자인 김문갑(29)씨는 팬클럽 게시판에서 “그동안 배일에 가려져 있던 김위원장님이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났다”며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시길”을 글을 올렸다. (곽민영기자)

## “대학가 人共旗 관대조치”

검찰 보안법 탄력적용 시사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대학에 인공기를 내건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임휘순(任煥鎔) 서울지검장은 15일 “남북화해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공기를 태극기, 한반도기와 나란히 건 것을 두고 북한을 찬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사과정에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입건유예’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김재기(金在基) 1차장은 “남북정상간 공동선언 채택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급변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공기태양 치방여부만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순기자)

검찰은 대학가에 인공기가 내걸렸던 지난 13일 “관련자들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북한측이 관련자 처벌방식에 대해 방북단체 ‘유감의 뜻’을 전한 집외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방북 이후 지난 13일부터 18개 대학에 인공기가 걸렸으나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선 15일 걸거됐다.

김희세로운 北연고 5人

국군포로도 빨리 귀환돼야

脫北포로 조창호씨

"한국전쟁 후 5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돼있는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1994년 10월23일 북한군 포로가 된 지 43년만에 북한을 탈출, 귀환한 조창호(趙昌浩·71세



는 남다른 감회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자게 보았다. 인천시내에서 기원을 운양하는 조씨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국군포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인모씨 등 남쪽의 비전향장기수와 같은 차원에서 국군포로문제를 다루면 될 텐데 아예 언급이 안됐어요. 앞으로 당국자회담에서라도 국군포로 문제가 거론되길 바랍니다." 조씨는 "장남은 결혼을 시켰으나 둘째아는 결혼을 앞두고 탈출해 늘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에서 8·15이산가족 상봉신청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여승철기자)

아내-두아들 많이 변했겠조

비전향장기수 이종씨

"비전향장기수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북에 있는 아내와 두아들을 죽기전에 꼭 봐야 할 텐데..."
15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신모병원 918호에 입원중인 최교섭 비전향장기수 이종(89세



는 남북 정상이 장기수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쏟아냈다. 비전향장기수 6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민남의 집'에서 살아온 이

씨는 최근 뇌경색과 최후이상기 악화돼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자 가족과 함께 이북으로 피난했지만 북한정부의 명령으로 53년 4월 군산에 남파되었다. "완수처럼 지낸 반세기는 민족의 수치"라는 이씨는 "가족들을 꼭 한번만이라도 만나기 위해 모진 목숨을 앓고 있다"고 눈물을 닦았다. (김용출기자)

남북자 송환 최우선 해결을

피랍어부부인 김태주씨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뉴스만 TV와 통해 전해 듣고 남북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3년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



역에서 조일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동진27호 어로장 최종식(崔宗植·56세)의 부인 김태주(金太珠·51·부산시사하구당리동303의11)씨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

되는 순간 "죽기전에 남편을 만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 김씨는 "남편은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교류의 묘목가 열린 만큼 남북자 송환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씨 등 동진27호 납북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기자)

아버지 생사부터 확인했으면

프로축구감독 이희택씨

"하루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 산소를 찾고 싶습니다."
15일 전남 광양시 급호동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감독직에서 TV로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뜬눈으로 밤을 세운 이희택(李希澤·55)씨는



지 걱정애 애간장을 대우나 뿜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1990년 10월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이 감독은 아버지 용진(73세)와의 상봉을 떠올리며 흥분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93년 이후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이 감독은 "아버지의 생사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 분재만이라도 해결돼 갈리저 산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계식기자)

못다한 효도 맘껏 하고싶어

귀순 유학생 김지일씨

"심장이 마구 떨리면서 이제 부모님을 뵈게 된 남도 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998년 러시아 유학 시절 귀순한 김지일(金志一·36)씨는 역사적인 6·15 남북선언 발표를 접한 15일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가슴이 벅차 울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보도가 흘러나온 두달전부터 감을 못이룬 남이

많은 김씨는 최근 며칠간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평양에 있는 부모님과 두 여동생 얼굴이 수시로 아팠기 때문이다. 북에 두고 온 가족만 생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악착 같이 매달린 김씨는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면서 마음이 급해졌다고 한다. 그는 "불안이 된다면 부모님한테 큰절부터 올리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맘껏 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형구기자)



# “이산상봉 赤十字 이달 가동”

## 南北, 침략·위협 양기로

## 군사·외교권 獨自보유

## 통일방안 추진에 합의

### 북한 核·미사일문제 美입장 北 전달 金대통령 정상회담 마치고 도착성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왔다”며 “55년 분단과 적대(敵對)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뒤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243일 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오후 4시30분쯤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오후 5시 25분쯤 서울공항에 도착, 귀국 보고를 통해 그같이 말했다. “우리 두 정당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회담에 임했으며, 회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불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능성은 보고 왔다.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이야기했고, 주한미군 문제와 보안법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이산가족들의 8·15 교환방문을 위해 “이달에 적십자가가 가동될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에서 이 문제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고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히, 대규모의 교환방문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6월중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통일방안과 관련해 “2체제 2정부급 현내대로 두고, 양측에서 수뇌회의를 구성하고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급 회의를 구성하고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차츰 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국가연합’ 안(案)”이라며, 북한도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대통솔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래의 연방제 안을 지금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 경험과 관련, “북한의 전러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철도 양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관계에서 정칙은 양측이 다 함께 하는 윈-윈(win-win)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은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모간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해설자료를 통해 “김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기자 jdo@chosun.com



◇작별의 포옹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별을 주고받고 작별의 포옹을 나누고 있다

# “對南비방 하지 말라”

## 北韓 경제제재 美, 1주내 해제

NYT紙 보도

### 金위원장, 軍에 지시... 언론사사장단 訪北 초청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5일 오전 국방위원회를 소집, 인민군은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든 대남 비방을 하지 말고, 오히려 50주년을 맞는 6·25 때도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정상회담 공

시 수행원으로 방북했던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측 대표단을 위해 배편 작별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남 호상간에 비난을 하지 말자, 나쁜 것만 보고 꼬집어서야 되

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과거 대간의 시대 구(舊)정치인들 같았으면 이런 일(공동선언)을 하지 못했을 텐데, 김 대통령과 내가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찬 직후, 박 장관이 “언론사 사장단을 8·15 전에 한번 초청하면 (내가) 모시고 오겠다”고 요청하자,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개인 자격으로 남측 신년·방송 사장단을 초청하겠다”면서 “8·15 전에 오도록 하라”고 수락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全昌均기자 ck-kim@chosun.com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50년전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이후 북한에 가해진 광범위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방침임을 앞으로 1주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로 미국에 원자재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양국간 영공과 선적 항로 개방도 이뤄지게 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또 미 기업들은 북한의 농업을 비롯, 광산, 도로, 함안, 여행,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말했다.

/뉴욕=鄭

### 클린턴 ‘全世界 고무’ 모리 ‘역사적인 쾌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가 남·북한 정상 회담에 고무됐다”며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일”이라며 “남·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역사적인 쾌거”라고 평가했다.

모리 총리는 7월 하순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G8 정상들의 메시지가 특별성명 형태로 천명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朱廣中기자 midway@chosun.com

/東京=朴正薫기자

jh-park@chosun.com

### 八面鋒

金 대통령, “화해도 힘도 통일도 할 수 있다 화산.” 민음이 화하면 산도 옮긴다 했다...

○  
삼천민들 벌써부터 고향방문 신청 붐물. 55년 동안 기다려온 감동의 명화 ‘만남’ 개봉박두.

○  
클린턴 美대통령, “남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방향을 뒤흔들 건 아니오.

### 軍事직통전화 개설 추진키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상호 군사적인 불안정성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남북경협은 북측의 수용여건과 남측의 능력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와 집단주의 원칙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수방(水防)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안자료’를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南北관계 차원이 달라진다

## 한반도 新시대 <1>

남북 신관계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제도와, 단국간 합의의 통해 통일방안의 집행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북자보강-이중과제 방지협정 협의,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15일 아침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내용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다. 김대중(송사) 대총리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공동선언으로 '남한 측의 보원정책과 북한 측의 대화 기법'으로 요약되던 기존 남북관계가 변화의 급류를 탄 것이라는 예상이다.

### 北 국제위상 크게 높아져

김대중은 이날 서울 도착행에서 기자회견도, 흡수분할도 아닌, 공존-공영에 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의 예상을 깨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김 대총리와 공동선언에 합의한 점, 서울 방문을 환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확실히 남북관계가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한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우선 남북간 대화가 주목된다. 남측은 이 항구를 통해 통일방안,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 정치문제를 비롯, 비정치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김 대총리와 김 위원장간 직접 대화 설치 문제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두 정상간 직접 대화 채널 구축은 평화체제 해제의 대표적 상징이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북한을 대외 지원국에서 제외할 것이고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 협상을 급진전시킬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더 이상 북한은 고립국가가 아니다.

### 美軍문제 등 걸림돌

사회·문화·체육 등의 교류 협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통일전선 수립까지 공조, 대미, 세력구분과 공동위상 문제부터 예상교류, 김정일(金正日) 추경 부활 등까지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남북이 하나되는 정치분야에서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추가임에도 있는 남북간 교역(99년 3억4430만달러로 98년과 비교해 50% 증가)과 함께 경제력이 분야에 걸친 '동일'에 실용 다각화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은 이날 일본에서 중일-남북협력을 거쳐 유엔에 까지 이르면

'정(鐵)의 실크로드'를 비롯해 북한 의 진해, 도모, 한반도해협까지 가 된다.

이러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가 시도되고 점차 확대되면 일단 후-시독 주된과 같은 '정치적 통일'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이런 바 '근본

## 두頂上 직통채널 구축땐 '冷戰해체 상징' 사회·문화 교류서 '정서적 통일'로 진전

문제'인 주안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철회할 것이냐, 견해를 통한 실리추구 외에 대규모 인적교류를 수용할 태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측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한계

로 지적된다.

서울대 백인현(白仁顯) 교수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와 흡수조치가 잘 될 것으로 보지만, 북한이 통일협상, 정치협상으로 끌어가지나 않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本報기자 bmcbo@chosun.com



◇손잡고 입모아 "동일이오 오라" 15일 백희원 양민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장 주최 대외단 환송 오찬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평양=청화대 사진기자단

### 기자수첩

"이제 '글로벌 패스트리빙'은 끝났다."(우카가와 유키코·이오이바에하 교수)

남북정상회담의 촉제 분위기에서 깨어난 것은 일본이 한방 뻔했다. 김대중(송사) 대총리의 환영을 증언하기 전부터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반도를 겨냥한 견고음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간 '한반도 열풍'이 불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신문이 연일 1면 끝이었고, 방송은 환영과 서울의 움직임 등 시시각각 쏟아졌다.

한 TV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 참석권을 재현·시각하는 극성을 피우기도 했다. 이번주 일본에서도 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두 정상이었다. 촉제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15일 새벽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이 일본인의 '계산 분당'을 자멸 모양이다.

특히 민족자유 원칙에 거부할 수만 반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본의 공식입장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피로겨냥 환영은평 뒤에선 남북협력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치닫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으로선 한국이 3국공조 대일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가장 걱정된다.

북한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일본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의 '오해'를 살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는 게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본심인 듯하다.

이날 대만 북한의 외세에게 논리를 수용한 것은 '남측이 당한 꼴'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한 신문은 이선가속 교양(교양)을 8월 15일로 잡은 데 대한 일본정부 관리의 불만을 전했다.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일본의 분해 재기에 지니친 점도 없지않아 주변국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 대총리께엔 우방의 환영을 달래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어찌보면 '민족적 해방' 원칙과 '국제 위상'의 현실 사이에서 고난도 국제비행을 거듭해야 할지도 모른다.

【本報 東京特派員 in-park@chosun.com



잔치와 뒤풀이

# “남북 共存의 길 찾았다”

## 金대통령이 공항서 밝힌 ‘남북공동선언’ 의미

金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공항공항에서 도착보고를 하면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시범적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환호적으로 환영했다.

▲공동선언 정신=우리가 정신사리 시 뒤라내지 않고 싸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 있어도 니 이상 죄와 용임도 안 되고 용수용임도 안 되고 공중공명에 나가면서, 그에서 용임로 가는 길로 일해야 한다. 전세계 세계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을 북한에 역성했는네. 그 분을도 공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련의 끝이다. 지는 가능성은 보고 왔다. 우리는 시련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신의가 필요하다. 의지 사서 위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 주체성 흔들림 없어

연로, 대한민국의 주체성은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선 안되고, 뒤는 깰수록 총극에는 불의의 길로 나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 이밖에 북측에 대해 ‘사모 하고싶은 말을 나누자’ 하면서 내가 하고싶은 말이 호시성을 분사하듯 만들어 왔다.

해, 미국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북측이 어떤, 미군 문제도 나왔다. 그 때 국가 매우 유망했으며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다.

▲남북문제의 자주적 해결(공동선언 1항)=7·4 공동선언에도 있다. 북한 사람은, 이게 이야기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 나가자. 그러나 7·4 공동선언 이후 28년 동안 아무 것도 되지 않았다. 92년 남북 합의서 발표해서 해, 참가점, 교류점이다. 미해와 친화했지만 안 됐다. 내전 실패를 중점해서 7·4 공동선언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한 기본합의서가 효과 될 못 됐다.이해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 문제주사. 어떤 정쟁(政爭)은 실천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행동과 행동이 행동(行動)화해서 세계도, 민족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항 이하에는 구체적인 이야기해 이야기했다.

▲통일방안(공동선언 2항)=29항은 2개에 2부분, 현재 그대로. 양사에서 수뇌회담을 구성하고, 장관 간담회를



○2백30명의 평양 환영을 미치고 15일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이 청의대로 가는 길에 서울 세종로 앞 길에서 차에서 내려 시민들의 환호에 담고 있다.

/康承南기자 rainman@chosun.com

의를 구성하고, 국회 의의를 구성하고,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사중사중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국기연함이다. 연방제는 처음부터 대외외교권, 군대(軍)을 중앙정부에 가지야 한다. 이것이다. 지방정부, 내정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근처에 북한이 이를 수정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만 이념으로 중앙연방이 갖겠다는 외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거지도 좋다고 했다. 이것은 상동하는 것이 없기에 양측 대표가 앞으로 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고 했다. 학자들도 오고, 전문가들도 오고, 우리 통일운동 현장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학자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 北, 연방制입장 수정

▲이산가족 교환 방문(공동선언 3항)=8·15에 즈음해 방문단 교환하며 비전상 장기수용제 제기한다. 어디까지나 실천면, 없어진 이산가족의 문제가 첫째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러분들이 말한 대로 볼 단계 한 번 하십시오. 먼저 잘 하십시오. 그러면 장기수용제도 내가 국민과 상의해 처리하겠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6월부터 직접(直接)을 할 가능성이다. 직접사상에 요인에서 그렇게 했기다.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가 그 범위가 얼마만큼 감시 보르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이 문제가 시작할 것이 틀림없다고 북한과 합의했다.

▲경협 등 다방면의 교류(공동선언 4항)=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재능 등의 분야에서 교류(交流)를 증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으로 돌아가서 진리문제 잘 해결하고 도로-양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북한에 공란을 만들어서 해 나갈 때, 남한 내부의 경제가 한방도 내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아니라 지금 우리 기차가 왜 연년을 못하고 파리를 가지 못하나? 경의선, 경원선이 끊어져서 못 간다. 만주에서는 기차가 자유스럽게 가지 않나? 경의선은 25km에 불과하다. (연결하면) 불규대량이 대폭 절감된다. 우리는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유럽까지 승승장구 갈 수 있다. 한-일 해저(海底)를 열면 일본도 갈 수 있다. 새로운 살코르드가 열린다. 그 외에 북한의 노동력이라든가, 이것이 우수하다는 것은 여러 번 신문에 봤다.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 가면 경쟁력을 갖는다. 남북관계에서 정치는 양측이 다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래가고, 화해와 협력이 있다. 원·위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 당국자 자주 만날것

▲남북 당국 간 대화(공동선언 5항)=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이 위법한 당국자들이 만난다. 김정일 위원장의 시종 발언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데 힘이 좀 들었으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하고 합의한 사실 앞에 시종을 꺾었다는 것을 감명했다. 나는 “당신이 시종을 봐야 민족이나 세계 사람,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 1회성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봐야 된다”고 했다. “당신은 예외가 없으니까, 심의할 많은 노력이 어떻게 됐는데 뒤집어 씌우면 안 되겠다.” 이런 농담도 했다. 북한은 다 같은 우리의 감상이고, 다 같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洪鐘健기자 udo@chosun.com

6·15 공동선언 <1> 통일 자주적 해결

의미 다른 '自主' 해결했나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규정한 '6·15 남북 공동선언' 1항은 이중적 의미와 구조를 담고 있다. 우선 '자주'라는 말을 보는 남북 양국의 인식 차이가 크다. 우리 측이 사용하는 '자주'라는 단어는 '한반도 문제의(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반면 북측이 '자주'를 말할 때는 주변국인 침수 등을 포함한

'외세 배척'을 뜻한다. 7·4 공동선언에서 채택된 '자주' 원칙은 이후 출간 남북간의 논란이 계속되어온 대목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논란은 김대중(金大

中) 대통령의 회담 채류 중에도 있었다. 14일 오전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에서 '자주' 원칙과 한·미

·일 공조 문제의 상관 관계를 거론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3국 공조는 북측에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모두 이기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南 당사자원칙 北 외세배격 '상반' '서로 편리한대로 해석한듯'

6·15 선언의 '자주'라는 표현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분분하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북측이 주변국인 침수 등 외세배격의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민족 문제의 당사자 해결 구도라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식(申榮錫) 소장은 "6·15 선언 1항의 자주는 '한·미·일 공조 배격'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간 하시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베이징 영빈관에서 열린 대표단 환송 오찬에서, "앞으로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술을 한 잔씩 권해달라"는 남측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고 술잔을 들리고 있다. /한국기자 dspark@chosun.com

"섭섭한게 있는데..." 서로 털어놔

金·金회담 이모저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시행 후 "내가 짓먹던 위까지 내서 진실되게 심명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설명했다. 회담 분위기는 심명했다고 박준영(朴俊榮) 청와대 공보수석이 15일 전했다. 박 수석은 "회담시간이 3시간50분이었지만 3시간40분은 김산의 연속이었다"며 "북이 통일방안에 두 정당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부연했다.

회담은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얘기를 모두 경청한 뒤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선의 있고 친선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박 수석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피다카도 김 대통령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상당한 합의가 가능했다고 박준영 수석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김 대통령의 발언 중간 중간에 "나도 섭섭한게 있는데 말씀할 수 있겠다"면서 그동안 남측에 대해 불유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기탄없이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 이어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침만을 토로하고, 국가보안

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남측 신문들 김 대통령과 함께 보는 자리에서 자신을 좋지 않게 다룬 기사들 보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도 나름대로 북한에 시운한 점을 밝혔다고 박 수석은 말했다. 박 수석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참수정 침부사건이나 시해교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수석은 "김 대통령은 서로 간에 진정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서명 주체싸고 한때 승강이

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을 상담 시간 실효한 걸리라고 했다. 김 대통령은 "(북측 안에 대해) 국제기구에서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장시간 설명, '낮은 단계의...'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날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인생역정, 정치역정에 대해 "아리만 북송까지 위대하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집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이러한 존경심을 표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회담 후 북측은 김 위원장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남측에서 "우리는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김 위원장이 서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

(2) 국가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 '2정부·2체제' 서로 공감 국내 이념논쟁 불붙을듯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4일 시명한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언어 서로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불안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영문으로는 모두 'confederation'이다.

그러나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의미하는 남북연합과, 연방(federation)을 표방하는 고려연방제는 서로 다르다. '연합'은 상대적으로 긴축과 유네의 정도가 느슨하지만, '연방'은 내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는 수준이다.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타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관지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가는 단계이다.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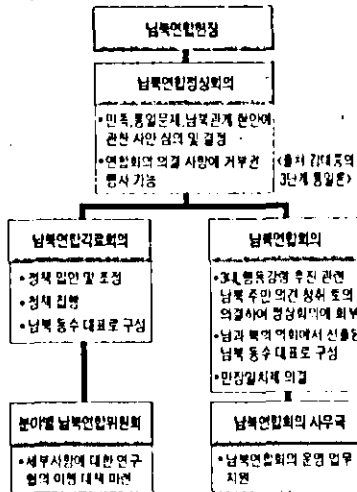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연방정부가 국방 및 외교권을 행사하고, 지역정부는 다른 체제와 자치권을 서로 인정받는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낮은 단계) 연방제"를 처음 꺼냈다. 완전한 고려연방제 남침에 앞서 잠정적으로 지역정부에 국방·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 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치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나 둘이냐의 차이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남북회담 전문가 이종복(李東福)씨는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대비표

|     | 남북의 국가연합   |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
|-----|--|---|
| 내용  | -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br>- 남·북지역 국가권 및 외교, 연방국가의 군사 및 외교에 무관<br>- 두 국가간 협타기구 구성<br>- 국가적 협력 강화 |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br>- 연방 국가가 두 지역정부 권한<br>- 연방국가의 군사 및 외교에 무관<br>- 협타기구 구성<br>- 연방국가의 군사 및 외교에 무관<br>- 국가적 협력 강화 |
| 공통점 | -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 - 1민족 2체제 2정부   |
| 차이점 | - 연방국가 존재 유무, 군사 및 외교권의 주체 및 관여  | - 협타기구 존재 유무, 군사 및 외교권의 주체 및 관여   |

김대중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연합의 기구



"북한의 연방제에는 '자주' 등의 전제조건들이 붙어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전제조건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교수도 "마치 북측의 연방제 안에도 우리의 남북연합 안을 포함시킨 한국어라 적지 않은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급변 8·15 때 다양한 통일논의가 이루어지고, 북측이 범민족대회 등을 열 경우, 이념논쟁이 시달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방제 논의를 수용할 것이지만, 연방제 자체를 수용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사실상 평화공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仁희기자 ginko@chosun.com  
/洪錫復기자 udo@chosun.com

## DJ의 統一論 30년만에 꽃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안은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 대통령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과 함께 미·일·중·소 4강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4대국 평화보장안을 제시했다. 범전체제 최전선에서 던져진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김권세력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됐고 이후 김 대통령의 정치적 수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대통령은 72년 7·4 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했고, 73년 7월 일련도

교의 외신기자 클럽에서 '공화국 연합제 통일'을 제안했다. 91년 김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방안을 '3원칙 3단계 통일안'으로 재정의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아래 1연합 2독립정부, 1연합 2지역 자치정부, 1국가 1정부 단계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 71년 3단계론 제시... 95년 집대성

김 대통령은 지난 95년 당시 임동원(林東源)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 등의 도움 아래 '3단계 통일안'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남북연합, 연방을 거쳐 완전 통일로 가는 방안이다. 김 대통령은 이 중 1단계인 남북연합단계가 가장 중시됐으며, 이 단계가 이뤄지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金昌희기자 ck\_kim@chosun.com

(3) 이산가족·장기수 해결

# 방문규모 줄다리기 예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정상(南北) 공동선언의 제언이다.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제 시험은 이제부터 남북이 협상해야 한다.

## 그동안 南“대규모로” 北“되도록 적게”

우선 협상 골자는 직접지사가 될 것이다. 85년 고함방문단(남)과 북 각각 151명, 86년 남-북간 직접지사 집사로도 참가했다. 방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측은 가능하면 직접 교환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북한 측의 수위어부는 불투명하다. 그것이 안 되면 남측은 방안에, 북측은 시골에 방문단을 보내 상봉을 상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북한의 호응

| 시기        | 우리측 노력                                      | 북측 호응                 |
|-----------|---|-----------------------|
| 89.11     | 이산가족회의 2차대담(남) 합의문에                         | 200여명 방문단(남) 파견       |
| 90.7      | 방사선조사 6만 5500명, 6만 4천여 명                    | 각수 1만 5천              |
| 92.5      | 7차 남북 고함(남), 이산가족 240명, 5차로 방파나 방예(남) 교환 합의 | 방문단에서 600명, 2차에서 100명 |
| 93.3      | 이산가족 상봉에 이관 직할지(남) 재개요구                     | 각수                    |
| 96.4      | 이산가족 상봉(남) 재개요구, 비공식방문(남) 이관                | 비공식방문 20여             |
| 2000.6.15 | 이산가족 방문교환 및 친척방문 장기수결 해결                    | ?                     |

사시킬 수 있다. '교환'이라는 표현에 충실하면 그렇게 되는데, 85년과 같은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체제 부담 등을 고려하면 북측이 이 방법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난제는 규모다. 우리의 경우 이산 1세대는 1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들의 가족 상봉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이다. 1990년 정부의 방북신청 접수 결과, 6만 1355명이 신청했다. 접수기간이 불과 4일간이고 방북 가능성이 희박했는데도 그 정도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결과로 이산가족 방북신청을 받는다면 훨씬 많은 숫자의 신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직접지사 회담이 시작되면 늘 대규모 방문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달랐다. 항상 축소지향이었다. 정부 남북자는 "대규모의 고향방문단 사업이 진행될 경우 북한 측은 체제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배일을 밟고 서방세계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번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이 변화를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고함방문 成事·상봉 정례화 여부 관심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여부도 관심인데 공동선언은 언급이 없다. 오히려 8·15라는 시기를 임시로 교환에 합의한 점을 보면 정례화보다는 '1회성'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그러나 면회소 설치 등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최소한 생사·주소 확인, 사신왕에 등을 북한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한은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합의 아래 상봉한 시에는 85년 고향방문단 때가 유일하다. 남과 북에서 151명씩 시골과 평양을 방문, 북에도 그러한 가족을 보냈다. 가족단위 상봉은 남 7, 35가구, 북 30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후 몇 달씩, 사회적 장애 제거를 내세우며 회담을 거부, 1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崔秉謙기자 bchoi@chosun.com



◇“안녕하...” 15일 평양을 떠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기 트럭 위에서 이대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법안·정외대사진기자단

### 장기수 문제 어떻게...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미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따라 미전향 장기수들의 선대와 북송(北送) 방식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미전향 장기수의 개념부터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와 인권단체는 "현재 북의 중인 장기수는 없다"는 입장에 선 일지언정,

그러나 축소판 미전향 장기수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측은 비공식적으로 ▲98년 3월 7명 ▲99년 2월 17명 ▲99년 12월 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4명 미전향 장기수로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일부권

## 정부 "26명" 송환위 "88명" 숫자 큰차이 北送은 李仁模노인 방식 따를 가능성

위원회 관계자는 "생존 중인 미전향 장기수만 88명이고, 이 중 북송을 희망하는 사람은 5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차이는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전향을 거부한 채 감화 등 이유로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를 미전향 장기수로 분류한 반면, 송환추진위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군법, 사회안전법 위반 등으로 ▲7년 이상 복역한 양심수들 장기수로 분류하고 있다.

동반제 문제는 이들의 송환절차,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양측이 협의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원조계에선 지난 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되돌아간 이인보(李仁模·83) 노인의 경우가 선례가 될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방북 절차'를 밟아 이례적 북송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엔 방북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이례의 송환을 대법원의 인도적 처원의 '통치행위'로 규정, '무기한'으로 해 그의 방북을 허용했다.

/李恒濬기자 hangseul@chosun.com

### 人物相

김(金)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상징한다. 그런 나눔은 국경선의 역할도 한다. 우리 북쪽의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과 한반도를 구분짓는 국경선이 되어 있다.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집안(集安), 후려의 역사영토 그 남쪽에 압록강이 흐르고 그 이남(以南)이 우리의 이북(以北)이다. ▶ 요즘도 쓰는 '강 건너 불 구경'이나 '강 건너 호랑이'라는 속담은 강의 폭만큼 '나와는 상관 없다'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했다. 그러나 강은 김(金)이 기도 하다. 배를 띄우면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갈 수 있다. 나눔의 경계를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는 것이 강이다. ▶ 체코에서 발원하여 북부 독일까지 북해로 흘러드는 엘베강은 유럽에서 9번째로 긴 강이다. 옛 동독의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오염된 엘베강은 서독을 지나갔다. 엘베강은 유럽에서 가장 길이가 심한 강이 있으나 서독 단독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댐을 후 엘베강은 되살아나고 있다. ▶ 문답을 하고 흐르는 강은 우리나라에도 많다. 북한강의 방원지는 금강산이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임진강은 고령도 북부를 흐르면서 고대산천과 방원천을 합류시키고 경기도 인천에서 정원과 평강을 거쳐 온한강과 만난다. 한강은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북과 남을 낚는다. ▶ 강은 공권적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서는 이승(李滉)과 저승(鄭澈)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그런데 이승은 비로 내가 있는 곳이고 저승은 한번 가면 올 수 없는 곳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이산(離散)의 강'에 배를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큰 배가 뜰지 작은 배가 뜰지, 한번 갈 배가 다시 올지 안 뜰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너무 뜰까봐 안된다. '강은 건너와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만했다.

(5) 당국간 대화

# 장·차관급 회담 상설화 할듯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한·남·북 각 대표단 간 대화할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표단 수행원 중 회담 관계자 일부는 15일 김 대통령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평양에 남아 당국 간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15일 발표한 '정신(正心) 해산차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의 급(級)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진행한 남북고

위급회담을 총리급이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990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 장·차관급 상설 대화 기구 마련을 제안한 적이 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협의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차관급 회담에서도 논의할 가

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본문제 등 중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회담을 상설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관련 회담의 경우, 장관급 회담에서 큰 골기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의정서 시안은 경제부처 차관급 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남북(宗訪) 문제는 장관급회담에서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개최도 박지원(朴智元) 문화부 장관과 송호경(宋浩景) 아태평화위원회의 부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는 당국 간 회담보다는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지난 96년 일방적으로 철수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협·답訪 장관급서... 이산가족은 적십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도 추진**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한광욱과 언행록 김대중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1호실에서 15일 열린 대표단 환송 오찬에서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언행록 북한 차관급 당 책임비서가 나란히 앉아 있다. /TV 촬영

## 김정일 위원장 광복절 답訪?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회담기간 중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향후 남북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간의 지속적인 대화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 될까. 많은 국내외 관측자들은 분단 55주년이자 광복 55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8·15를 전후해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김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극적으로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합의만 이뤄진 상황에서 연내 서울 방문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공동선언으로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방만 마련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의 정치협상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경협 분야에서도 남북이 '싱크있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서울 답방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다.

/鄭權益기자 thung@chosun.com

## 90년대 6차례 회담... '불바다 발언' 등으로 결렬

남·북한은 1990년대 들어 이십 차례 남북간 회담을 가졌다. 현 정부 들어 이번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두 차례,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 세 차례, 그리고 6공 때 한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 회담은 작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차관급 회담. 이 회담은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의 비공식 차관급 접촉에서 비롯됐는데, 차관급 이산가족문제 논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서해 교전이 일어나, 비로 10일 1만 지원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1990년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

| 시기             | 회담명칭           | 장소 | 의제-내용   | 결과                      |
|----------------|----------------|----|---|-------------------------|
| 1999.6.22-7.3  | 차관급회담          | 北京 | 이산가족 문제와 상호협력사  | 서해교전으로 결렬               |
| 1998.4.11-16   | 차관급회담          | 北京 | 이산가족문제 이산가족문제   | 서해교전으로 결렬               |
| 1995.6-10      | 차관급회담(영미간)     | 北京 | 대북(韓北) 환15만 1차원 10만, 대북(韓北) 환15만 1차원 10만, 대북(韓北) 환15만 1차원 10만 | 환 15만 1천 지원 12월 우선으로 교환 |
| 1994.6.28-7.8  | VPO 차관급회담(영미간) | 香港 | 회담개최 문제   | 최종합치 합의시 대북 김의의 사방으로 불명 |
| 1993.10-1994.3 | 차관급 회담(미·북한간)  | 香港 | 서해교전 문제   |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결렬 |

11일부터 18일까지 차관급 회담이 베이징에서 원래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등 연계해 논의했으나, 상호주의가 제기되어 결렬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사교한 차관급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북측 대표단장인 박영수(朴英洙)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결렬됐다. 94년 6월에는 캐나다 전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당시 실무접촉 합의서까지 타결했으나, 김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로 끝났다.

/송민희기자 ginko@chosun.com



# 두 頂上 '통일方案' 싸고 팽팽한 토론

## '6·15 南北공동선언' 뒷얘기

### 평화공존 제안에 '연방제' 응수 첫 정상회담 고려 막판에 수용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엄청난 산고(辛苦)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자주적 원칙' 표현 비주장 반영

두 정상이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벌인 대목은 통일방안 문제였다고 한다. 당초 우리 측이 준비한 '평양선언'의 핵심은 평화공존이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는 이러한 표현이 빠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이 무력도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려연방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고려연방제안은 북과 남이 서로 먹거나 먹히지 않는 몽양만민"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두 정상 간에 상당히 긴 토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막판에 우리 측이 연방제안을 '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대입 지어졌다.

엄청난 국내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수용한 것은 지난 55년 만의 첫 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다.

'자주적 원칙' 부분은 입장론 같으나 표현 문제로 역시 상당한 시간을 걸었다고 한다. 우리 측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이란 용어를 고집했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적 원칙'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발미집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목 또한 결국 우리 측이 북측에 양보했다는 것이다. 북인부의 한 당국자는 "이들 '남북공동선언'이란 것은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이란 표현이 북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이산가족 문제들은 쉽게 합의

8·15 이산가족 상봉과 다방면 교류협력, 단국간 대화, 김 위원장의 시골 답방(答訪) 등 4가지 사항은 별 어려움 없이 합의됐으며, 선언문 안 작성 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선 북한이 회담 전부터 "(남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서울에서 회담을 지켜보았던 정부 관계자는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에서 아마도 60~70%는 '6·15선언'의 1항과 2항을 합의하는 데 소진됐

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항과 2항은 우리 측이 북측에 준 '선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金仁機기자 ginko@chosun.com

◇역대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내용 비교

|       | 7·4공동성명(1972.7.4)        |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 6·15공동선언(2000.6.15)         |
|-------|--------------------------|---------------------|-----------------------------|
| 기본원칙  | 자유, 평화, 민족적 대단결          | 남북최대, 불가침, 교류 협력    | 자유평화, 통일방안 공동선언, 이산가족 장기수해결 |
| 실천방안  | 남북조철우원칙 실시               | 분리별 우원칙, 공동위원회의 실시  | 남북자간 대화                     |
| 시행주체  | 이후각 측사, 김영주 특사           | 차관직 물러, 연평북 물러      |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
| 이후 변화 | 남한은 유신체제, 북한은 유일사상체제간 강화 | 북핵문제의 국제분쟁화         | ?                           |

### 이번 합의 공식명칭은 '6·15 남북공동 선언'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합의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실제로는 3시간5분 동안의 마라톤 회담과 4시간여의 조분화 작업 끝에 14일 밤 11시20분에 서명됐다. 이는 '6·14선언'으로 부딪힐 수도 있었지만, 발표 시점이 15일 0시를 조금 넘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243일 평양 방문기간의 마지막 날이 15일이란 점에서 '6·15선언'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또 "선언문 서두에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서술해 있어, 선언문의 날짜는 15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성과는 마지막 날 종합적으로 발표하기로 남북한 간에 사전에 약속해 있었기 때문에 선언문 명칭도 전작 그렇게 정해진 측면도 있다.

/ 洪錫復기자 udo@chosun.com

# 또 보안법 '몸살'

## 여당·일부 시민단체 "개정해야" 법무부 "아직 이르다" 부정적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남북 협의를 확대하는 공동선언문의 채택된 바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은 8년 법 제정 이후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반국가단체를 친양·고부(7.25)하거나, 간첩임을 원천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10.26)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는 대부적으로 "우리 법을 고치려면 북한 법도 고쳐야 한다"며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국 친북 음모를 가담하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북한 헌법의 반국가 범죄, 남한 사회주의의학을 복교로 하고 있는 노동자 규약이 위헌의 산이었던 현실에서 우리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천 영안에 제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개입주의의 견해이다. 이명박 민주당이 이란의 반대 등으로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16대 국회를 남겨둔 국가보안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시민단체에도 개정법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16일 기자】 wcho@chosun.com

### '평양 2박3일' 金大中대통령과 金正日위원장



스물일곱이 말을 쏟아내는 디번가(多辯者) 김경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김순환도 김영록은 표정만 지어모이는 김대중 대통령. /TV촬영

## 차분·점양 vs 활달·多辯

2박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 중 두 수장의 표정과 화법, 행동은 온통 세인의 화제였다. 남북협력을 통한 새 세계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경일(金敬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일가수 일동복을 전이로 들추어내고 보는 듯했다.

평소 기가 높고 김대중을 대항해 치받았고 김경일로 원경했다는 게 소문이다. 김대중은 원상치사라면서 대항할 수도 없어, 이 때문에 디번(多辯)이라는 별호를 붙였다. 그러나 이번 북한 방문 중 그런 김대중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대항해 말을 하였다. 두 정상에 대해서도 화법을 먼저 꺼내는 경우가 적었다.

김대중은 김 위원장을 대하는 행동에서도 지극한 '점양'으로 대했다. 자신보다 인제가 18살이 나 어린 김 위원장과 지난 15일 방북연락 발간에서 견제하는 순간을 봐도 이는 화연된다. 김대중은 오랫동안 대항해 화법을 먼저 꺼내는 정을 김 위원장의 장 아랫목



스물과 북 정상간에 놓이게 다르게 부딪치는 두 술친. 김대중 대통령은 '점양'을 발휘해 김경일 국방위원장의 한 이례적에 자신의 잔을 들었다고 있다. /平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에 부딪혔다. 또 공적 발언사 등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자"라고 호칭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왕의 지나치게 치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큰 목소리나

수다에 기개를 정도의 디번이었다. 13일 김대중과의 평양 도착 직후 김대중은 숙소인 메리워워 명관에서 가진 첫날 저녁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그의 디번은 15일 고별연까지 이어졌다. 때로는 그는 김대중의 말 허리를 자르며 질질끄고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여유있는 표정에 황당한 스타일로 외부 세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낯선 농담을 끄집어내 화제를 웃겼으며, 특히 "중국어 인도네시아 등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구라에서는 나를 은둔생활한다고 한다"(14일 남북 정상회담), "내가 원했던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역시 숨을 참한다'고 썼다구면"(15일 오전)이라는 말은 화제가 됐다. 14일 저녁 북연락에서 열린 김대중을 주최 발간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치사"해, 김대중에게 충성을 자칭 권하도록 하기도 했다.

【平壤 16일 기자】 jcho@chosun.com

### "섭섭지 않게..." "한라산에 오를것"

#### 金正日위원장의 발발말...

그동안 '공화국'로 알려져 있던 김경일(金敬一) 국방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원망 받은 기간 동안 많은 '말'을 쏟아냈다. 특히 원상치사인 김대중에게 악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공인 지도자임을 과시하려는 듯 대항해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메리워워워워 및 김경일(金敬一)에서 "치사를 잊게우지 않고, 침착하게 해"라고 말했다. "남북의 의사상이라는 도너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 선봉과 데이트에 김대중의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남쪽에서는 권요" 하면 잘 되"는 보도지만 우리는 선리만 추구하면 된다"며 "위도, 두리, 무시는 감을 오셨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종언 내내의 각 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대중왕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수났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2박3일 동안 대항해"라고 했다"며 지극성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2차 정상회담에 이례적으로 "남쪽 데이트를 이제 수컷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남쪽 인사들도 다 환영하고, 친화 선형, 남북지도를 농담을 유머에 이번 기회에 고항소식이 장강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조종 대항해"라며 남쪽의 반응에 관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쪽 언론의 지탄에 대한 반응에 삼이라고 한듯 "제가 무슨 큰 재래도 됩니까"라며 "구라와 사립들은 다보고 왜 은둔생활 하느냐, 처음 내내다"고 그러는데,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도 비공개도 많이 갔다 왔"데, 김대중왕이 오셔서 해방했다"고 그대"라고 말해 목소리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발간에서도 김대중왕에게 제두산 등만을 권유하면서 "제가 한라산에 연인 가보"고"라며 삼방(三訪)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내외 도출 우스갯소리로 곤란 했다. 발간장에서 이희호(李熙浩) 여사가 해드데이인 아닌 내외 자리에 앉자 "이산가족이 되면 연된다"고 말했다. 15일 고별 오찬에서는 자신의 술 심려에 대해 "모두들 역시 김경일 위원장이 술 심려에 날카롭다고 하더군요. 술 심려야 흥입부 정권(姜世鈞·朴在圭)이 나오다 (9)..."라고 말하기도 했다.

【文甲城 기자】 gsmoon@chosun.com

# 분단·敵對 종지부... 민족史 새전기

## 金대통령 도착 공항회견

24일 15시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방북 경과를 매우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례적이었다. 평소 순리 위주로 설명하던 방식과는 달리 국정을 방문했던 개인적인 소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였다. 방북 방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룬 데 대한 감사가 새 기사서 않은 표정이었다.

### 南北교류협력 보탬되길

다음은 김 대통령의 방북감과 보고 내용 중 이번 회담의 의미와 개인적인 소회다. 방북 대목이다.

“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북 주무치지 않고 최면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 왔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장기를 뒤를 서항에 왔습니다.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더 이상 대담이 없었습니다.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친히 생각지 못했던 환대를 재배 해주었습니다. 공항에 출입하고 환송을 나눴습니다.

정신회복을 준비하는 도중에는 김일성인 생각을 한 때가 몇 번 있었으나 우리가 찾아왔 노력해 김 위원장이 친남한 인사를 하고 해서 그 정도 불편감도 줄었습니다.

### 민족에 대한 책임도 거둔

평양시에 들어갈 때 평양시민이 60만, 나갈 때 30만~40만, 약 100만명의 평양시민이 열광적으로 환송하고 환영해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처음으로 큰 군중 환영이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시민의 환영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환영의

정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 여론이 한결같이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칭찬해 왔고, 언론 보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양에서 30대의 TV와 신문도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보도를 많이 받는 것은 참으로 최후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화합하느냐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양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반일 성공 못했을 때의 엄청난 과장, 성공했을 때 가지를 세계 사적 발전과 진보를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정의와 노력을 더하자고 다짐했습니다.

### 화해·협력 통일 확신가져

민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양도 가보니 우리 편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같은 마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모퉁이 휘라고 하는 마음 속으로는 남북 동포에 대해 그리움과 사랑이 같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55년간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으로 내려왔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지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55년의 분단으로 정신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화해 협력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장 풀일은 안되더라도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하기도 되고, 길도 되고, 학교도 되고 환대 협력하고 지역개발도 시키고 나간다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능력 전통과 문화 장의력으로 꼭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뉴거음기자 may2@chosun.com



◇다시 서울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15일 오후 2431경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 공항청사내에 마련된 환영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남북 공동선언문 4強 반응

미국



“한반도 안보공약 확고... 앞으로가 더 중요”

미국 정부는 14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총론으로서는 적극 환영을 표시했지만, 각론에 들어 가지는 평가가 유보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국가 마사임 위원(NMD) 체제 등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행위 권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불거진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기본에 충실하다”고 코멘트했고,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조 클라크 백악관 대변인).

“정상회담이 가져온 결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어나갈 바란다”(리처드 매우시 국무부 대변인) 등 진부적에도 일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빛이 나지 않았다. 클라크 대변인은 “앞으로 경계를 벗어 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이집트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메카니즘(mechanism)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이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 “어서 분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미국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매우시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 마사임 위원(NMD) 체제의 필요성이 이번 정상 회담으로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NMD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했다.

클라크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한 질문엔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 단계에서 얘기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朱廣中기자 midway@chosun.com

러시아



“러 國益에 도움... 駐韓미군 지위 흔들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대우 큰 반쪽짜리를 표시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자-러 국교정상화 때 카타나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15일)은 밝혔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야나르 디스 블

신을 통해 “러시아는 남북한 간 직접 대화 가 시작됐으며, 민족회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슈코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일 북한 방문을 “지거지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외교 실무 책임자인 게오르기 로로리아 아주 제1국 부국장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국익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내의 다른 한반도 관계자들은 “현재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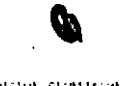
때, 미국-일본 등 다른 외세가 한반도 문제 해결 논의구조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 외교에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주한미군의 지위가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고 분석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스크바=홍중기기자 hwang@chosun.com

“對北 국교교섭 당장은 불가능”

일본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들은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화해 분위기가 양-북 관계에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두 정상에 직접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정상끼리 사상 처음으로 서명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선언은 원칙을 결정한 것이지만 두 정상 모두 국익의 실현을 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의사와의 친화를 타공했다. 고노 외상은 또 양국간 원-북 국교 정상화 교섭에 대해선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의식과 원칙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양-북 간에는 일방적인 단선적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국에게도 (한계제한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자민당 노니카 히로무(野田昭務) 간사장은 공동선언을 “남북 두 정상의 뛰어난 결단”으로 평가하고 양-북 수교정상화에 대해선 “기대수 내로워야 결정된 총비서에 대한 관계제한의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東京=杉正雄기자 sh-posit@chosun.com

“한반도 평화노력 전폭 지지”

중국



중국은 15일 정부 성명을 발표, “남북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치있는 조치로서, 전적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주방자오(朱邦君)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이 자주적 통일 추진 등 5개항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평화 회담의 중요한 성과이자 중요한 출발”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가치있는 조치로서 중국은 이를 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양국이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존중하여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우리의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주방자오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인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北京=池海龍기자 hilee@chosun.com



15일 베이징 영빈관에서 열린 우리 측 대표단 환영 오찬에서 안수섭 대통령 경호실장(왼쪽)과 김용순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다한이 앉아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회의 조진철(앞) 박민재(왼쪽)과 배일갑(뒷편)은 조현제 부장이다. /경남-경외대 사진기자단

# “金위원장 경의線 복원에 인민軍 투입”

## 訪北대표단 平壤 김위원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표단은 15일 귀국 후 평양에서의 경험과 소감을 다양하게 털어놓았다.

○...북한의 김위원(金委員) 국방위원장은 15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을 위한 5명 오찬시사에서 “시골에 가셨다”고 남방(南訪) 의사를 거듭 밝혔다.

오찬에서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이 “유엔 너무 위계 해어졌어요”란 대중가요를 부른 뒤 “위원장님, 꼭 시골 오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그 칸이 나쁘다고 박 장관의 노래 곡조에 대해 “인민애호가 수준”이라고 칭찬했다고 김시사가가 전했다.

## 朴문화 노래 예술가수준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이 이란 국방위원회를 초청해 대한 내방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북쪽은 개방 두면 늘 주저(主敵)이 두루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지않게 해서만 일과 시가야 한다”면서 “경의선 철로 복원사업이 벌어진다면 인민군을 투입하면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김시사가가 전했다.

이런 방문전에 공식수행원으로 다녀온 한 인사는 북측이 김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에 대해 김인성 사제가 인치원 금수산 의사당을 참배하거나 주체사상탑을 방문하라는 요청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4일 평양을 위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오찬에 참석하고 김 대통령과 김위원(金委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의 ‘공식명분’이 오히려 참여있었다. 북측이 남북 정상 회담을 오찬에 하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두 일정을 바꾸어, 남북회담에서 두 정상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 林국정원장에도 친근감

○...방북대표단의 한 당국자는 “14일 만찬 후 헤어질 무렵 김인성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내일 공화에 나가 대통령을 환송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오찬도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김 위원장 일정을 북측이 사전에 화안해 주었음 같아 스스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은 한결같이 김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했는데 특히 국내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대북(對北) 포용정책을 추진할 결심 높기 사내라고 전했다.

북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친 김정은은 우리라고 대화하자고 하면서도 밖에서는 봉쇄정책을 썼다. 외교할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 버렸다. 그러나 김 대통령을 우리



○15일 평양 백화원 연민관에서 가진 고별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 방북단이 둘러본 닭곰탕에 대해 “시골이 어떠냐”며 우리 측의 소감을 묻기도 했다.

가 이란이라, 원리원과 관계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 관계자들이 “김대중령이 방북한 것은 용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임종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한 인연을 기념해 오찬에서 ‘주암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두 부회장은 “북방수행원(北訪團)이 북에서 주암계(主岩界)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않았소?”라는 말을 자주 했고, “신의급 지킴시다” “6-25, 7-27 때 북교류(北交遊)만 지”고도 하더라고 했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고은(高銀) 시인은 북측에 대해 ▲남북이 함께 얻을 수 있는 남북 통합의 문화복원을 위해 발원자 ▲북한 시인들 초대에서 남북에서 시 낭송 모임을 갖고, 남북 시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자 ▲문화사공의 부대가 됐던 곳을 상호 탐사하자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金昌均기자 ck\_kim@chosun.com  
/徐容기기자 ayoseok@chosun.com

## 高銀씨 남북시인 교환방문 제의 김위원장, 北선 KBS 먼저 시청 특별수행원 24명 ‘주암계’ 조직

도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도 옛 민청회 신도사 역할을 수행한 참에 대해 참 안고 찬근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순방두(徐炳斗) 전경원 부회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서 받은 인상을 ‘만만하리 빠르고, 유머있고, 화장을 리드하는 능력이 있으며, 예의바른’ 인물로 표현하고 “제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만찬 때 박경량 KBS 사장에게 “나는 남한 방송을 볼 때 KBS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MBC, SBS를 본다”면서 “역시 우리는 권영(官營)을 먼저 봅니다”는 말로 웃음이 터지도록 했다고 순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정몽헌(鄭夢憲) 전 한내외장에게서 전 주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건강 등 안부를 묻은 뒤 “다음 번 방북할 때는 꼭 보시고 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리 그는 “정 명예회장이 방북할 때는 꼭 살리도록 꼭 가져오시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순 부회장은 전했다.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인 10명을 비롯한 특별수행원 24명은

○...우리 측 특별수행원들은 14일 남북 정상이 5개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기념해 속소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축하 축하를 기뻐한 것으로 전해왔다. 구본무 LG 회장이 가져갈 만년달인 17년산 맥을 꺼내주고, 유종용 삼천포시 부회장이 속소방에 있던 술을 꺼내와 “이렇게 기쁜 날 축하 건배없이 지나갈 수 없다”며 세이시가 남북교류를 비축했다고 했다.

## 鄭周永회장 안부 물어

○...김재철 회장은 15일 김위원 위원장이 배풍 오찬에서 김 위원장의 특이한 편인 장정대의 권유로 해근대(海根代)로 김 위원장에게 술잔을 권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김 회장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빨리 가동하자”고 제의하자, 김위원 위원장은 “노력합니다”는 말로 화답했다.

○...한 특별수행원은 북한 시인들,에 대해 “나 팀이”고 말했다. “네네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제가 많이 바뀌지

# “몇년 안에 다 이를 것처럼 흥분하지 말자”

▲정세현=6·15 선언의 특징은 그간 논의 지체를 피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 내지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 원칙으로 7·4 공동선언에 천명된 3대 원칙 중 ‘자주(自主)’를 부각시키며 명기한 것도 눈에 띈다.

▲연하청=91년 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북 최고 권력자간의 합의이고, 남북 정상이 협의를 모두 거른 것이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또 과거 남북합의들은 실무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장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공개 시명해 상대적으로 주목도를 갖는다. 김성일이 첫날 회에서 “세계가 지켜본다”고 한 부분은 3만 4천여 명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 ‘평화’ 빠진 이유 주목

▲하영선=이번 공동선언을 21세기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선언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7·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은 채의 유사한 역사적 선언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원칙상 5개항으로 돼 있는 공동선언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①(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②(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③(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④(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⑤(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⑥(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⑦(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⑧(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⑨(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⑩(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⑪(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⑫(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⑬(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⑭(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⑮(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⑯(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⑰(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⑱(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⑲(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⑳(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㉑(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㉒(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㉓(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㉔(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㉕(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㉖(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㉗(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㉘(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㉙(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㉚(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㉛(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㉜(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㉝(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㉞(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㉟(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㊱(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㊲(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㊳(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㊴(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㊵(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㊶(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㊷(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㊸(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㊹(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㊺(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㊻(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㊼(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㊽(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㊾(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㊿(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 이산가족 해결 제도적 장치

▲정=이번 선언은 과거의 합의들과는 배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7·4 공동선언이나 기본합의서 모두 북한 체제가 첫걸음을 느낀 선언에서 위기관리층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기에 국제적응 능 상황이 비워진 지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선언은 우리의 햇볕정책의 입장에서 나왔고 북의 대응이 개선도 작용했다. 남북정상 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의 사대주의에 대한 필요한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기반을 위한 것이다.

▲연=비슷한 성격이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북한의 경제위기는 98년 하반기부터 ‘미사(米沙)’인 모면의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의 주민 생활에 대한 해악적인 영향을 모두 반체

정부 확보라는 작전이 다이상 미치지 않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 과정의 핵심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특강이 상호평화 ‘특수관계’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국가로서 인정하고 공존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시작했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

丁世鉉 前통일부차관



河英善 서울대교수



金正日위원장의  
서울答訪 시기는  
經協진척도에 달려

남북 ‘自主’ 선언에  
美 미묘한 반응...  
세련된 外交 펴야

▲하=이번 선언을 21세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미한 21세기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의 관건은, ①(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②(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③(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④(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⑤(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⑥(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⑦(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⑧(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⑨(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⑩(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⑪(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⑫(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⑬(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⑭(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⑮(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⑯(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⑰(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⑱(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⑲(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⑳(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㉑(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㉒(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㉓(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㉔(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㉕(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㉖(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㉗(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㉘(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㉙(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㉚(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㉛(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㉜(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㉝(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㉞(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㉟(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㊱(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㊲(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㊳(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㊴(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㊵(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㊶(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㊷(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㊸(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㊹(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㊺(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㊻(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㊼(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㊽(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㊾(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㊿(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정=공동선언 요점에 나온 ‘연화’ 또는 ‘연방’이라는 표현은 내용이나 그 단어의

상징성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94년 원조조선 인티뷰를 보면, 김 대통령은 남북연합을 10여년 계속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연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자체가 국가연합적 구상을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4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조립위도 초보적 단계의 국가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제는 정세현 총장을 중수 있지만, 사실상 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원인 것이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

## 계속 ‘뜨거운 가슴·차가운 머리’

▲연=하지만 97년정시상 윤관이 될 수 없다. ‘김정일 쇼’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 전문가 좌담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무게를 배경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합의·서명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정세연(丁世鍊) 전 통일부 차관과 하영선(河英善) 서울대 교수, 연희청(延희淸) 명지대 교수는 15일 오전 본사에서 긴급 좌담을 갖고 6·15선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가졌다.

음직임을 보면 북한도 패러다임을 바꾸어 21세기적으로 진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선언은 남북 당사자간 내부적 필요에 의한 합의이다. 이번 선언이 장기적 발전계획 하에 된 것이라면 국제정세에 잘 대처할 경우 모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선언에 명시된 남북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놓느냐

의 합의 이행은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조정해야 할 것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북한의 입장도 고려할 것은 충분히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도 너무 단기적인 흥분감에 휩싸이면 안된다.

▲정=이산가족 문제가 명문단 교원쪽으로 얘기했는데, 이산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다. 지속적인 서신교환이라도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다. 방문단 교환도 좋지만 우편물 교환소 설치같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담판 여부와 시기는, 대북(對北) 경험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 북한에 부담 주는 행동 조심을

▲하=6·15 선언 이후, 국제 문제가 일정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의 여하관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윈-윈(Win-Win)'이라는 김 대통령의 실명이 북측이 공감한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무부의 논평은, 역사적 중요성을 환영하면서도 회담의 성과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으로, 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을 완전 만족시키면 북한이 침입할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만족하면 미국이 침입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걸 위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전략이 필요하다.

▲정=한·미·일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해과 미사일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북, 안·북관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미·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해·미사임을 주(主) 의제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남자사 원칙'을 중심으로 단결히 부상하는 데 대해 중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능동적인 4강 외교를 펼쳐야 않으면, 한반도 문제가 다시 4강들의 여하관계 속에 피분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여기까지 오기도 상당히 힘든 길을 왔다. 6·15 선언이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언론이 무슨 연에게 행사할 다루는 것처럼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등을 조심스럽게 따지지 않아서, 강부도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저지 않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오히려 이번 일에 대한 흥분감 줄여야 할 것이다.

▲연=김 대통령이 떠날 때 뜨거운 가슴, 차분한 머리라고 말했는데 그 자세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기대와 괴일 흥분으로 문제가 이기될 수 있다.

/하극權기자 dspark@chosun.com  
/金德翰기자 ducky@chosun.com

延河清 명지대교수



## 성급한 北韓동경으로 우리 정체성 흔들리면 남북관계 발목 잡는 꼴

최근 대만에 인공기(人共鼎)가 나붙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과대 평가와 신난한 동경으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내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아 합의의 시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하=문제는 연합과 연방의 이론적인 차이보다 현실구조와 관련돼 있다. 북한의 과거 분간들을 보면 이념과 체제를 날리라는 정부와 연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반(反)외세, 자주와 인권 탄압의 원칙을 지키는 상내이어 한다는 부분도 중년 강조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21세기적 신념에서 나왔다는) 신뢰가 있으면 그때 이론적 차이의 문제도 넘어갈 수 있다.

▲정=최근 대외 관계 개선 노력 등 여러

점이다.

▲연=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워낙 없으면 통일을 할 수 없다.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대북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지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쉽운 것은 제도적인 이산가족 재회문제가 명기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앞으로 남북간 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한번 떠났다 그만두면 안 된다. 또 장기수 문제만 거론되고 국군포로 등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하=①-② 할이 구내의인한 해석에 의해 음반적인 난관을 빚을지 않는 한 ③-④할

# 김대통령에 팔걸이의자 따로 준비

## 평양 환송오찬·공항이륙 스케치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1호각에서 있는 대표단 환송 오찬에서도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 대해 격조한 예우를 했다.

○...13일차남 다시 짐과 차림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과 이 여사를 뒤따라 만찬장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헤드 테이블에 착석하면서 김 대통령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이 팔걸이가 없는 의자인 것을 보고 바로 뒤에 서있던 군복시인의 의전장을 불러 "김 대통령께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갖다 주시오"라고 '초립'한 뒤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라며 세 차례나 관계자를 질책했다.

조명목(趙明祿)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인사말에서 "총비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인에 의하여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훌륭한 과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면서 "두 분이 친리해안으로 민족이익을 쫓게로 해 민족 앞에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총정치국장은 이어 "우리 국방위원회는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통일전선에 대하여 만족한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가 헤드 테이블에서 인어서 "7000만 민족의 염원에 평양도 웃고 서울도 웃었다"면서 "특히 공항에서 (인민)군 의장대를 김 대통령이 사열한 것은 김 대통령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대통령은 감격에 겨운듯 임 특보의 담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눈길 같은

채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리에 있지마져 전날 만찬 때의 '거한 술 파티'를 주제로 얘기할 시작, "모두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술 실력이 날카롭다고 하더구만"이라면서 "술 실력이야 통일부장관이 나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통령이 "저는 내년에 걸쳐서 마시고..."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에게 독주(高酒) 대신 포도주를 권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헤드 테이블의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을 향해 "어침에 닭공장 시설을 보려고 했는데 잘 보았느냐"면서 "이 수석은 외국에도 많이 다녀왔을 테니까 다른 것보다도 다른 대외 대비에 보려고 가보"라고 했다"면서 "어떻디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계속 좌중을 주

趙明祿차수 "두분의 역사적 결단"  
林東源특보 "평양도 서울도 웃어"

도하면서 대화할 이간했다.

오찬에서 남측 기업인들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앞으로 협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술을 한 잔씩 권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남측 기업인들에게 술을 한 잔씩 권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박지원(朴贊元)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합창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있는 김 대통령 환송식에도 나왔다. 환송 군중들은 첫날과는 달리 "김정일"을 연호하지 않고 "만세"만 외쳤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한 다음, 김 대통령을 전용기 트랩 앞까지 배웅했다. 김 대통령이 트랩 위로 올라가자 박수를 쳤고, 김 대통령도 박수로 답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않고 자리를 지켰다.

/평양=공동취재단

## 朝鮮日報

2000. 6. 16 (금)

#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양측 '통일 전문가' 있었다

南 林東源 대통령 특보

北 金容淳 이태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배후에는 양측 정상(頂上)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통일전문가'들이 있었다.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조용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와 김용순(金容淳) 이태위원장의 위헌장이 그들이다.

두 사람은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개라시(開拉市)로 합의한 사안을 받아 차우(차우)하다 하나를 따지긴 후 공동선언의 초안(草案)을 만들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4일 평안도주, 바지가 정족을 위해 별도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임 특보는 김 대통령의 보충장제의 핵심 감보이다. 이번 정상회담도 사실상 그의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1



○임동원 특보



○김용순 위원장

林, 1월부터 北과 접촉  
金, 10년간 대남사업 총괄

부터 베이징(北京)에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북측과 접촉을 시도,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회담 전일까지 수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추진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선 사람답다면, 임 특보는 뒤에서 모든 것을 기와-조정하는

대통령의 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한다.

김용순 위원장은 노동당 대남비서까지 겸하고 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뢰는 남다르다. 공식 회담에서도 '용순 비서'라고 부를 정도다. 원래 북한에선 대남사업 책임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쉽게 교체하지 않는다. 정색의 연속성과 함께 비공격적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김용순 위원장이 지난 90년대 초 대남사업 비서에 오른 후 남한의 상대역인 통일부장관은 무려 7-8명이 바뀌었을 정도다.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와 노동당 국제부 시립에 가까운 지남 인연으로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 사한 때 동행하는 것은 물론, 사적(私的) 자리에도 늘 참석할 정도로 신뢰가 각별하다고 한다.

/全仁執기자



## 들뜬 분위기 가라 앉혀야

분단 55년 만의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그러나 흥일이 금방 이루어지더라도 할 것처럼 들떠 있는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조금 걱스럽다. 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김정일이 왜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방송 등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가 지난 이틀 동안 민족의 영웅이 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가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호탕'하고 자신만만한 김정일에게 왜 우리는 씀이며 비료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사회에 냉정함을 요구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 발표가 더없이 반갑지만 이 같은 원칙의 해이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곽성근 43 수습팀 경기 안성시

## 朝鮮日報

2000. 6. 16 (금)

### 확성기

▶“이제는 신화화 현실로 만들 차례다.”-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차분히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정일(金正日)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1인의 정상회담이었다.”-한나라당의 한 당직자, 남북정상회담을 김정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며,

## 해외언론반응

### NYT·WP·CNN 등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신문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일제히 15일자 1면에 게재했고, CNN 등 방송계도 해드리언 뉴스로 내보냈다. 신문들은 '남·북한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이 50년 만에 회담을 추구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제목과 함께 합의의 전모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앞장이지만 반세기의 적대적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회담은 놀랄 정도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합의문은 비록 모호하기는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썼다.

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양국 지도자가 서명

### 반세기 적대 청산 기회

했고 실질적인 과정들이 수반됐다든 점에서 과거 남북 합의와 다르다"며 "주한미군,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는 상호신뢰가 구축되기까지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판 보도에서 "남북의 화해는 장기적으로 아시아 주권 미군과 국가 미사일 발원 체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13일 밤 남북공동선언 합의 발표를 긴급보도한 뒤 15일까지 잇따라 내보낸 속보들 통해 남·북한이 지난 194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불신과 적대성을 제거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주영중기자 m.dwp@chosun.com

### 中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들은 14일 밤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선언 합의 소식을 사실 위주로 중요하게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면 하단에 '조선과 한국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제목의 기사들 통해, "조선의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한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새벽 공동선언에 서명했다"며, "이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선반도의 통일과 각 부분의 협력 및 교류를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공동선언이 14일 오후 4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달성·서명된 것"이라며, 서명 후 양국 정상은 굳게 악수하고 축배

### 통일 희망 싹튼다

를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소상히 전했다. 인민일보는 또 국제면에 '한민족의 역사적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정 평론을 실어, "남·북한 정상역사적인 약속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세계적 주류에서 한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니즈데일리 외 대중조간지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 등도 남북 정상역사적인 합의문을 합력사건으로 칭고, "남북이 획기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관영 중앙TV(CCTV)도 이날 새벽부터 남북공동선언 합의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北京=송홍기기자 hbee@chosun.com

### 미아니치·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남북 정상이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친 데 대해 '환영' '기대 이상의 성공'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 등의 표현을 동원해 크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가장 성공한 당사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라는 인식도 보였다. 미아니치(毎日)와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15일 회담의 결과와 5개항 공동선언을 일제히 1면 1차로 보도했다. 미아니치(毎日) 신문은 '김 위원장 사을 방문 수학'이라는 제목 아래 1면 거의 전부를 정상회담 기사에 할애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는 대륙연합 국가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정상이 직접 결단했다는 의미가 있

### 金 위원장이 가장 큰 이득

다"라고 분석했다. 7개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요미우리(讀賣) 신문도 "한반도는 긴장 완화와 남북의 평화공존, 나아가 장래의 통일까지 전망하는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논술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합의의 확실한 이점도 안보가 흔들려서는 얻을 수 없는 만큼 3국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1면 전체에 "통일을 북으로 한 남북 합의"라는 제목의 본기사와 함께 남북공동선언 전문을 실고 "남북이 회담과 합의 조성을 함께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일·북·미·북 관계에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東京=대키기자 dkw@chosun.com

### 러 이즈베스티야 등

"대(大)한국 정변에 길이 가기 시작했다." 15일자 이즈베스티야(俄)는 14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남북합의문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구 상에 마지막 정치적 정변을 허무는 역사적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이 급년 가을 유엔 '평화니즘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러시아 정통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외세의 중재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성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표현적인 환영과 달리 '미국은 주한미군의 원형을 고안해

### 마지막 정치장벽 허물어

됐다"고 보도했다. 네바비시아(비)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점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 지도자의 이미지였다"며, 김정일의 역사적 이미지 탈피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최대성과라고 보도했다. 반면 모스크바(러)는 "평장이 국경을 개방했으나, 아직은 오직 김대중만을 위한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신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가보안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홍기기자 shwang@chosun.com

# “경협 제도마련 제의 북측도 공감했다”

## 경제계대표들 방북 소감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경제 인사들은 북한 측에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신변보장 등의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오는 8~9월중 50여명의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대북투자자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북쪽 휴전선 근처에 조성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재계인사들은 이날 서울에 돌아온 뒤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방북 기간에 북한의 정무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등 북한의 남북간인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회장은 “큰 규모의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측이 제기했고, 북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손길승(孫吉承) SK 회장은 “방북 기간 중 김철의 위원장에게 ‘남북 경제교류와 관련,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니 ‘더같이 노력하자’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특히 북한의 컴퓨터센터는 일제강점기에 올라 북한도 컴퓨터분야에는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전했다.

구본부(具本茂) LG회장은 “방북 기간 중 북한기업인들도 한났지만 개별적인 접촉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컬러TV 합성공장 설립과 비무장지대 국제물류센터 건립 등 사안별로 대북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북측이 남북경협에서 민경선을 대표창구로 하는 만큼 우리 경제단체들도 논의를 통해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재철 회장



○구본부 회장



○손길승 회장



○정몽헌 이사



○윤종용 부회장



○손병두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원호 부회장은 “8. 9월중 중소기업인 50여명으로 구성된 대북투자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북한측에 제의했으며 북쪽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휴전선 근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건설하는 방안도 북한 측과 논의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측과 개별 접촉을 가진 적이 없고 그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이날 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방북 때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용 삼천전차 부회장은 삼성의 대북사업 방향과 관련,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는 않는다”며, “하지만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사업 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기자 gysco@chosun.com

/중북기자 jacho@chosun.com

# 鄭周永씨 28일 訪北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이 28일중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대북 경협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김교중 부사장은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오는 28일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주영씨의 이번 방북에는 정몽

헌(鄭蒙憲) 현대아산 이사를 포함해 현대아산과 현대건설 대북사업 관계자 상당수가 수행할 계획이다.

정 전 명예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시해안공단 부지 선정문제를 조율하고, 아울러 정전할 일대의 해상호텔 신차와 강선-운정리 간 30여km의 신규강산선(가칭) 철도 건설 문제 등을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기자 santate@chosun.com

# “통일로 가는길 스포츠가 앞당길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다른 분야보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스포츠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그 동안의 교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육대학 이상철 총장과 이학래 한양대교수(한국체육학회장)의 대담을 통해 앞으로 남북 체육교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짚어 보았다.

▲이상철=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가장 많은 협력을 맺었고, 또 확실한 성과를 내놓았던 것이 스포츠 교류다. 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처럼 한민족에게 기쁨을 주었

## 많은 교류로 이질감 없애야

던 적도 있고, 반대로 63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90년 북경 아시안게임을 앞둔 체육회담 등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던 시기도 있다. 그동안은 정치적인 입김으로 위축된 적도 있었으나 남북 정상이 만나 회담의 협력의 사대를 연 만큼 앞으로의 남북 스포츠 교류는 한 단계 발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래=우선 과거는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 교류다. 워낙 시일이 촉박해 단일팀 구성은 어렵었지만 '동반 입장'과 종목별 합동 훈련, 공동 응원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동반 입장과 합동 훈련 등이 이뤄지면 전세계에 한 민족은 하나라는 동질성을 과시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도 보여줄 수 있다.

## 독일은 4년 논의 끝 올림픽 동시 입장

▲이상철=동서독은 52년 합성계 올림픽에서부터 동시 입장을 논의하기 시작해 56년 베르겐 올림픽에서 가어로 삼사시켰다. 국가는 분단 이전의 통일 목표의 것만을 사용했고 국가는 베르겐의 2번 교향곡 합창으로 대신했다. 이미 지난달 국기올림픽위원회(ANOC) 총회가 끝난 뒤 시아라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91명장이 남북한의 두 정상에게 동시 입장이 바람직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게 일 정상이 만났고, 김은용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서한 언급 삼사 가능성이 높다.

▲이학래=시드니 올림픽 이후엔 10월의 아시안게임 축구대회, 2001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등 단일 종목에서의 단일팀 구성이 이뤄질 것이다. 단일팀 구성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선수 선발이다. 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때도 비슷한 대부분 공격수였고, 남측은 수비수여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응적인 민족 화합 차원에서 양측이 양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종목별로 서로 우수한 선수를 나누어 출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시계과 여자 마라톤 등이 강하다. 심우회담을 통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남쪽이 하나가 되면 양측 전체 이상의 힘이 나온다. 타구가 우수했고, 조국은 세

## 南北스포츠 본격 교류 긴급대담



○이상철 한국체육대학 총장



○이학래 한양대 교수

계 8강에 올랐다.

▲이상철=경기적인 측면 외에도 체육 교육, 체육 학술 연구에서의 교류도 필요하다. 스포츠는 순기능의 감동을 주지만 교육과 학술은 영원히 남는다. 각급 학교간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학래=남북 체육교류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교류도 일적 교류는 북한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1 단계는 대규모 일적 교류 부담이 없는 학술교류가 되어야 한다. 2차적으로는 남북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내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국체전이 나 범민족 체전, 북한의 일반 체육대회에 일측 대표단이 상호 참가함으로써 서서히 양측의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3단계로 종합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삼사시키는 게 순서다.

▲이상철=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가능성도 크다. 월드컵 공동 개최 문제는 국제 축구연맹(FIFA)도 적극 지지하는 편다. 북한에는 15만명 수용의 5-1경기장과 10만명이 들어가는 집일성 경기장 등이 있다. 문제는 북한의 통신·교통·숙박 등 제반 여건이다.

▲이학래=과거 북한은 대규모 일적 교류로 인한 체제 붕괴를 의식, 체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까지 했고, 5가지 합의문에 일 정상이 서명했다. 이런 바탕에 대규모 일적교

## 단일팀 구성 선수선발이 난제

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2년 월드컵을 현안 개최해도 이를 유인할 능력이 생겼을 것이다.

▲이상철=부산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는 남북 체육 교류의 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배두산에서 성화대 채화대 부선까지 부송하면 그 효과는 그대로 통일도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단일 국가로 부산대회에 참가하는 방안,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 남북이 함께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 남북이 함께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통일의 바로 전 단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학래=이번 6-15 공동 선언은 최고 정상간 합의

## 2002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기회

다. 전 세계에 공개되고 비공식 없는 남북 최고수층의 약속이다. 향후로 반세기간 어렵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세계 최초의 일이다. 한 서독도 단일팀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이상철=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가지 사항은 분야별 통일이 없거나 성실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스포츠는 이미 공동화 있는 분야인 만큼 쉽게 교류가 이뤄질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스포츠가 앞당길 수도 있다.

총리=고석태기자 kst@kbs.or.kr  
사건=임병천기자 bnt@kbs.or.kr

# “시드니올림픽 南北 동시입장”

김운용회장 “北 긍정 반응”

오는 9월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이 확실시 된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오후 평양 실무회담에서 잠정 북한 IOC위원 겸 체육성 부상(차관)에게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참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웅 부상은 이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올림픽 동시입장은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직접 제안한 것이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김 회장이 전했다.

## 탁구 단일팀 등 제안

김 회장은 이날 귀경 직후 63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가 실무회담에서 제안한 동시입장, 공동응원, 공동훈련을 북한측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축구의 경우, 오는 10월 레바논 아시안컵 단일팀 출전, 경광축구, 축구협회 간의 교류, 2002년 월드컵의 참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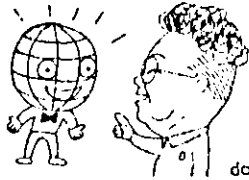
김 회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만찬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면 가장 전력이 극대화될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고 소개하며 탁구나 유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옥대환기자rose@chosun.com

## 특파원 메모 金위원장言行에 깜짝 놀란 美언론들

지난 3일간 남북한 정상회담이 ‘공동 선언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 언론에 또 다른 최대 주목거리는 바로 ‘신미’에 싸여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밤 갑작스레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들어 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 전 세계에 갖가지 의혹을 자아내더니, 회담 첫날에는 뜻밖에 ‘인사’로 공항에서 직접 김 대통령을 영접해 국내외 언론에 놀라움을 던져줬다.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같은 조선민족” “내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되느냐, 구라파 사람들은 나 보고 왜 은둔생활 하느냐고 하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해방됐다” 등의 발언과 이따금 그가 던진 농담은 CNN 방송과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미국 내 주요 매체들도 자세히 소개했



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볼출 행동자’나 ‘플레이 보이’ 또는 ‘전쟁광’ 등으로 그려지던 김 위원장이 보여낸 평양의 ‘개방적이고 온화한’ 회담 분위기는 그만큼 미국 언론에도 ‘뜻밖’이었다. 김 위원장의 “온 인민이 뜨겁게 마중했는데, 인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 “제가 경거망동했다”는 발언은 75세의 노(老) 대통령을 “짜뒀어” 대접하는 ‘갑손함’과 ‘정중함’도 비쳤다.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은 자신의 대외 이미지를 바

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 세계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깜짝 놀라움’에는 이번에 세 번모름 보여주려고 애썼을 그 자신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해 외부세계가 그간 품어왔던 무지(無知)의 깊이가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이 5개 합 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선 ‘예측 불가’나 ‘의외’보다는 ‘예정대로’가 보다 지배적이었으면 한다. 양측이 선언의 취지대로 찬찬히 수순을 밟아 가는 절차만이 요구된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를 흥분케 했던 감각이 얼마 뒤 기억조차 희미하게 됐던 남북한의 교류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더더욱 그렇다.

/뉴욕=李哲民기자

chulmin@chosun.com

# “가장 커다란 선물 받았다”

## 고향방문 신청 평소10배 “서신교환 등으로 확대를”

### 실향민들

남북 정상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실향민들은 흥분과 신세를 감추지 못했다.

계몽길(計蒙吉·41·68)씨는 15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으나, 만족한다”며 “대통령이 실향민에게 최대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10년 전 북한에 살고 있는 이동생 한민화(韓民化·전 국가대표 스케이트 코치)씨의 동경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던 한광성(韓光聖·66)씨는 “두 정상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가슴이 불렀었다”며, “아직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북5도청 이산가족종합센터에는 실향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향방문 신청과 이산가족 상봉 신청 문제를 논의하는 진화도 북주했다. 이산가족종합센터에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몰려들 실향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산가족종합센터 김대열(金大烈·30) 계장은 “신청자가 평소 10

배를 넘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센터 개신 이래 최대 접수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돌발적 성격 때문에 또 내뱉지도 모를 일”이라며 경계심을 보이는 실향민도 적지 않았다. 또 고향방문단 규모와 일자를 정하지 않고 8·15 즈음이라 고만 병시한 합의문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승봉(劉昇鳳·77)씨는 “생사화인도 안하고 고향에 갔다가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호 방문 차원을 떠나 생사화인과 시신교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실향민들은 85년차립 극소수의 상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체 실향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부설 동화연구소 이기원(李基元·50) 실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고향방문단 상호 교환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생사화인과 시신교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萬善기자 bschung@chosun.com  
／李世城기자 jolilee@chosun.com



◇뜯뜯 실향민 15일 오전 서울 남산 적십자 남북교류사무실을 찾은 실향민 부부가 황해도 황주가 고향인 아내의 가족을 찾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있다. /李惠宗기자 paryoan@chosun.com

## “北으로 돌아갈수 있다니...” 한데모여 가슴벅찬 나날

### 비전향자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어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에 합의한 소식에 전해진 14일 밤 이후 서울 관악구와 은평구에 모여 살고 있는 출소 비전향 장기수들은 들뜬 가슴을 날래이 시간을 보냈다.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장기수들의 집 ‘우리 향채원’, 몇년 전부터 발육 잃은 류한욱(劉漢旭·80)씨는 간밤에 들은 소식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류씨는 54년 원북 신의주에서 내려와 간첩혐의로 재포된 뒤 37년간 수감됐었다. 고향으로 간다 해도 살아있을 유일한 혈육은 73세쯤 됐을 남동생 하나. 때마침 5년 전부터 이 집의 장기수 5명을 돌보는 자원봉사팀 해운 최용직(崔龍澈·48·두리출판사 사장)씨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

왔다. “큰 고통을 잘 이겨오셨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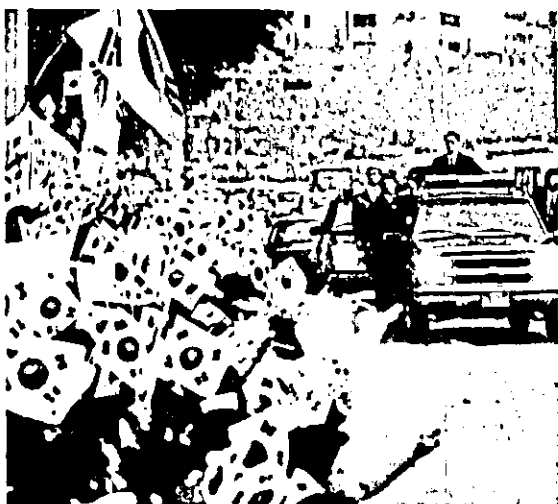
다 큰 장기수 조항순(曹昌孫·71) 신인영(申仁永·71) 안학심(安學燾·70)씨 등이 모여 케이크 촛불을 끄며 감동을 나눴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자원봉사자들, 재야단체, 언론사의 축하전화도 새벽부터 쏟아졌다. 신씨는 “방북 첫날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환대할 때부터 예감이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만남의 집’에 사는 장기수 5명도 감격에 젖어 밤잠을 설쳤다. 이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우용각(禹用瓘·72)씨는 “나보다 나이 많고 병든 년이 먼저 고향에 가면 좋겠다”며 “복에 두고 온 아들(45)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걸 본다면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李圭鉉기자 while@chosun.com  
／韓在賢기자 rookey@chosun.com



◇부푼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들이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지신들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창순, 류한욱, 신인영, 안학심씨. /崔淳澤기자 chosh@chosun.com



○15일 오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을 태운 차행렬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조준호기자 leedh@chosun.com

## 길가 태극기 물결 '돌아온 DJ' 환영

오색풍선·비둘기등  
수만명 환호로 맞아

김대중(송사리) 대통령이 24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15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연도에는 시민 수만명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김 대통령을 뜨겁게 환영했다.

귀환 직후인 이날 오후 6시10분쯤 '대국민 보고'를 마친 김 대통령은 서울공항 입구에서 차에서 내려 환영 인파와 악수를 나누는 등 시민들의 인사에 화답했다.

서울 시청구 앞재동 테거리, 강남대로 등 김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길마다 시민들이 울려 환영 인사를 보냈으며, 운전자들은 차를 멈추고 악수를 했다.

길가에는 "한민족에 파이팅" 등의 문구와 작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다.

김 대통령은 오후 7시5분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차를 멈추고 내려 5분이 시청 앞 분수대를 한 바퀴 돌며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호에 다시 화답했고, 이때 오색풍선 2만여개와 비둘기 수천마리가 날아올라 환영 분위기를 북돋웠다.

시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남북 통일을 기원했다.

김 대통령은 10여분 뒤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차에서 내려 부인 이희호(수정) 여사와 함께 광화문 쪽으로 100여m를 걸어가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 뒤, 오후 7시35분쯤 청와대에 도착했다.

/ 이영희기자 dng@chosun.com

## 백연필

선화예고 태극기 때낸 일  
송위원장, 관계자 꾸짖어

○...북한의 김정일(송사리)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 서울을 방문한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이 선화예고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태극기를 때낸 관제자들에게 대해 보고 받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대단히 야단을 쳤다고, 김대중(송사리)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방문했던 정부 외 한 고위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 "그곳이 서울이니까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내리려 했느냐"고 질책하면서 "남측 사람들의 평양에 오면 우리는 (인공기) 내리느냐"고 지적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이야기를 북측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 김경희기자 mckim@chosun.com

北군악대 연주 '용진가'  
전주신흥고 校歌와 같아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3일 평양공원에 도착했을 때 북한 군악대가 연주한 독립군가 '용진가'가 전북 전주 신흥고의 교가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주 신흥고 역사교사 조재승(44)씨는 15일 "김 대통령의 평양 도착 장면을 교실에서 TV로 보다 교가와 같은 군악대 연주곡이 나와 학생들과 함께 따라 들었다"고 말했다.

1900년 설립된 신흥고 교사(校史)에는 1910년대 이 학교에 재직했던 최남식 교사가 고된 이 학교 김천향 교사가 가사를 붙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교사는 "당시 우리 학교의 여러 선생님이 민족의식 강한 정주 오산학교와 평양 송림학교 출신이었고, 이 분들이 독립군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독립군가가 교가로 도입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全州=全昌坤기자 cskim@chosun.com

## 金正日 위원장은 '와인 애호가'

지난 14일 평양 북부 지방의 역사적인 공동체인 시방이 있는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에게 '와인 샷'을 제안한 것은 와인 애호가였다.

김 국방위원장은 알코올 도수 12도 안팎인 화이트와인을 본인 재의 대로 '와인 샷'으로 한 번에 다 마셨으며 술을 잘 못하는 김 대통령은 몇 차례 나눠 마셨다. 김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 오전장에서 김 국방위원

장에게 "(북에서 한번에 다 마시지 못하군) 네 번에 걸쳐 나눠 마셨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크게 웃기도 했다. 14일 김 대통령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도 국산 와인인 마주양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 김 대통령은 와인을 서너 잔, 김 위원장은 얼간이까지 마셨다. 남한의 분배술, 진로소주도 예민하게 반응에 난감해 놓여 있었다.

두산주류의 현재진 상황은 15일

"건배"하며 단숨에 비워  
만찬때 10잔가량 마셔

"청와대에서는 행사 때마다 마주양 와인을 써왔으며 14일 저녁 평양 북부에서 열린 김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 나온 와인도 마주양 화이트와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고령 오산에서도 레드 와인을 먼저 맛을 본 뒤 김 대통령에게 권할 정도로 '와인 애호가'로서 면목을 과시했다.

/사정호기자 swpark@chosun.com



# 南北 '침략·위협 포기' 합의

## 외교·군사권 각자 보유 통일방안 추진하기로

### 김대통령 역사적 평양방문 마치고 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聯合)정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각자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준원(朴尊元)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연합' 개념은 '컨페데레이션(Confederation)',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은 '무스 쏘 오브 페데레이션'(Loose Form of Federation)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서울공항도착 환영회에서 "한 걸음도 그대로 두고 안쪽에서 수뇌회의와 장관·각료급회의, 국회 회의권 구성해 서로 협회기관을 만들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연합방안"이라며 "앞으로 양측 대

표가 이 문제를 토론했다고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김대통령은 "화자·전문가도 얘기해보자고 합의했다"며 "통일운동 사상 구체적 합의를 발견하기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력감람을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남북 대표단이 전했다. 김대통령도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에 핵·미사일·주한미군·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왔으며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김대통령이 순안공항을 떠나올 때 김위원장은 직접 공항 관공실에 참석했다.

◇통일방안=두 정상은 14일 2차 정상회담 결과 중안정부가 외교·군

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금까지 중안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우라측 관계자는 "남북의 이런 합의는 이념과 체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남측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남측과 북측의 통일방안이 급속히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 방지=박준원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서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며 "두 정상간의 논의에서 남북간에 전쟁이 있었을 일련되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상호 군사적인 돌발사태 예방을 위한 군사적통제회 개편, 비방 중지, 파괴·진북행위 중지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북한 조병국(趙炳國)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환송 오찬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는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통일전선에 대해 만족한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고 해 군부차원의 지지인정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합의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와 합의된 기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 시기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세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月內 이산상봉 적십자회담

“千여명 8·15때 평양行”

장기수 송환 法개정 검토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 도  
착신방에서 “이산가족 상봉사업 범위  
(규모)가 얼마나 잡지 단정할 수 없지

만 상당한 규모로 시작될 게 틀림없으  
며 북한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송대통령은 이어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십자사가 이남 내 가동  
할 것”이라면서 “곧 적십자사에 요청  
해 북과 접촉토록 하겠다고 하니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좋다고 했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 평양을 함께 다녀온 한  
기업인은 “1천여명의 이산가족이 오  
는 8월 15일 먼저 평양으로 가 북한에  
생소한 친인척을 만나고 평양 시내 관  
광도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은 후속 대책  
미련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이남  
초격전산회를 통해 실향인의 정확한  
산대금 파악하도록 전국 1천6백63

개 시·군·구와 읍·면에 입부지신  
을 시달렸다. 행자부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정확한 실향인 숫자를 파악한  
뒤 이를 통일부와 협조, 데이터베이스  
로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는 비친할 장기수의 송환과  
관련, 친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규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  
족 상봉에 대비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컴퓨터 추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 상봉추진 단체와 긴밀히 협의, 북  
한의 이산가족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  
다. **고윤희·김기찬 기자**

<yunhee@joongang.co.kr>



# “정상회담 성공적” 9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우리 국민은 김대중(97.4%)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분리의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의 공동선 인정, 이산가족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김제천려, 남극간

## 본사 여론조사 “6·15선언 이행될 것” 75%

내화 조속 합의 등 5개항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75%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앙일보가 15일 전국의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전화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관계기사 8면> 국민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으로 이산가족 상봉(50.7%)을 꼽았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사회도 ‘변할 것’(73.4%)이라는 낙관적인 희망 또한 감추지 않았다.

남북 통일이 가능한 시기도 ‘10년 이내 가능’이라는 답변이 과반수(56.8%)나 돼 과거와는 달리진 분위기를 반영했다.

대북경제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76.6%가 ‘세금 부담’의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평가에 힘입어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4·13 총선 당시 45%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 71.1%로 26.1%포인트 상승했다.

| 항목   | 성공적  | 실패적  |
|------|------|------|
| 회담성공 | 97.4 | 2.6  |
| 회담실패 | 2.6  | 97.4 |
| 회담성공 | 75.9 | 24.1 |
| 회담실패 | 24.1 | 75.9 |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거의 모두가 찬성(95.8%)했으며, 회담 이전과 비교해 김위원장의 이미지도 ‘좋아졌다’는 국민이 대다수(97.0%)였다.

김철 전문위원

<khaing@joongang.co.kr>

# 김정일 위원장 “6·25행사 말라” 지시

## 국방위 비상소집 휴전선 對南비방 금지 南 언론사 사장단 초청… 박지원장관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5일 오전 국방위원회 비상 소집, “휴전선에서 (남쪽에 대해)비방과 무력시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체류 중 북한 군부에 내렸던 김위원장의 지시 시강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6·25 행사와 갖지 않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심각적인 국가비교 의사결정기관으로 군부 핵심인사가 망라돼 있다.

이날 오후 평양에서 돌아온 박지원(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은 “김정의 위원장이 김대중평을 위한 고별 오찬에서 “오늘 국방위원회를 비상 소집,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는 (남한을)비방하지 말 것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차장관은 “김위원장은 또 ‘입을 잃으면 6·25지만 행사할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남북 언론사 사장단을 8·15 전에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고별 오찬 때 “우리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남과”는 차장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국방위원장 또는 김상일 개인 자격으로 차장관과 남측 신문·방송사 사장단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호신권에 비난을 하지 말라는 뜻을 (남측) 언론에 전해 달라”고 요청한 뒤 차장관은 “언론사 사장단을 한번 초청하면 (내가

모시고 오겠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초청 의사를 표시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 DJP 20일 회동 갖기로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회동이 20일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핵심 관계자는 15일 “김대중 평이 김명애총재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평은 이에 앞서 17일 천안과 남이회창(李會昌)총재와 단독으로 만날 예정이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 클린턴 “남북 공동선언 희망적”

### 中·日·러 회담 긍정평가

[워싱턴·도쿄·베이징=김진·오영환·유상철 특파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14일 남북한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환영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공동선언문 서명을 “희망적”이라고 환영한 뒤 “이산가족 교환방문 협의는 (교류·협력의 위전) 커다란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도 이날 “제정된 장벽이 붕괴된 것과 같은 분위기를 한꺼번에 반이므로 생각하며 동북아의 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다음날 오키나와(沖縄)에서

일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민족통일 위한 전면적인 지원태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주방짜오(朱邦造)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평양에서 거행된 정상회담이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인식하며 역사적 의미가 컸다고 평가한다”면서 “쌍방이 계속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서 부단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자주·평화 통일을 창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베트남·태국·이스라엘 정부 등도 외무부 성명으로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생산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jinjin@joongang.co.kr>

# 인정 남북연합 출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대표단 환송오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전쟁 공포서 해방 6·15선언 뒷받침

### 상호불가침 합의 의미

남북 정상에 상호 불가침(不可侵)과 위협행위의 중단을 사할 서로 확인한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서 못 말릴까 봐 걱정이다.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이념이 특 고된다. 김정은(金正日)을 평양산언이 '백지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반대로 전쟁이 발발하면 민족평화를 가 지를 것이며 전쟁을 통해 이득과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국민의 심리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군사도발 불용(不勇)' 될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의 반목·대결은 6·25전 쟁의 상처와 이로 인한 전쟁 불안에 기인한 바 크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과 남북간 화해협력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도 인식이 같이했다. 즉 핵무기(核武器) 장악과 대변의 반대다.

이런 언급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 간 내용을 재 확인하고 있지 않, 각별한 의 미를 담고 있 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2조의 주무불가침 이행·준수할 위 한 부속협약(附屬協約)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으로 ▶무력 군사행위▶무방비 공격을 예방 조치▶미사일·중장 중거리탄핵 군사행위의 원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93년 초 북한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14가지 남북관계가 김대중이면서 기본합의서는 사문화(死文化)이다 시피했다. 여기에 96년 9월 북한의 강습함 강습사건(江浦事件) 98년 8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이어져 남북관계는 꼬여만 갔다.

두 정상의 정기화 확인은 기본합의서 복원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속조치로 '군사 위협중화(脅威의中化)' 개념을 추진 카로 한 것은 불가침 합의가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 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또 북한군 최고 사령관 조영달(趙英達)·국방위 제1부 위원장(副委員長) 조창지(趙昌智)가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환영 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동양건설에 대해 민족통일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 군부의 지지의사를 밝힌 김도 군사적 긴 장관회의 이념 가능성을 크게 해준다.

시동의 북한 정권개는 "김대중이 순안문화에서 북한 군 명예위원의대 사령관 받은 순간 군사문화 구축의 첫 단 주는 까워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의 방안은 앞으로 계속될 남북 군사문화의원외의 동 목해 대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군사행위의 동 목·중재할 비로써 ▶군 인사를공류 및 강도문화(強道文化) 대우 상 상무가 제1차 등 단계가 군속을 포함하는 방안등 논의될 수 있다.

이영훈 기자 <yjlee@joongang.co.kr>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 북한                      | 통일정책           | 통일정책         | 통일정책         | 비고                    |
|-------------|-------------------------|----------------|--------------|--------------|-----------------------|
| 1948년       | 유공훈장, 남북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
| 2000년       | 남북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유공훈장, 유공훈장   |                       |
| 3·4월        | 신경남, 통일                 | 자유, 민주, 단결, 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7·4 남북공동성명            |
| 5월          | 민족통일 민주주의 선언 (최초의 통일방안) | 자유-평화-민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기본합의서의 발전, 통일방안 마련  |
| 6월          | 한반도공동미래발전               | 자유-평화-민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기본합의서상생의 조종, 평화의 실현 |
| 문민정부        | 민족통일 통일방안 (2차 3가지)      | 자유-평화-민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기본합의서 재확인           |
| 김대중 3차 통일방안 | 3차 통일방안                 | 자유-평화-민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교류-상생이행-통일 | 남북기본합의서 재확인           |
| 북한          | 고려민주인민공화국 통일방안          | 자유-평화-민족통일     | 민족통일         | 민족통일         | 남북기본합의서 재확인           |

##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큰 차이

### 北 '낮은 단계 연방제'

### 91년 김일성 新年辭서 밝힌

### '느슨한 연방제'의 동일

남북 공동선언은 남측의 연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 방안에 시공의를 제정하게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측의 남북연합안은 헌법에 두 개의 다른 체계가 있다고. 헌법(憲法)을 바탕으로 상호 권력(權力)이행과 민족사회의 동등성과 동등성(平等)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체제가 남북연합을 거쳐 궁극적으로 1면, 1국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귀국 후 대국민 연설에서 '남북연합'에 대해 "연방의 '2단계'가 '느슨한 연방제'라고 하고, '3단계'가 '강력한 연방제'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 단계로 발전해 갈수록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왜냐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최소한 1면에서 의미가 불분명하다. 북한 신문(新報)은 김일성(金日成)주석이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느슨한 연방제'가 현재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것이 '낮은 단계'는 통일(統一)을 완성하는 해: 연방(聯邦)은 국민이건에 있어서 상해(上)의 지평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참가하는 단

계를 의미한다. 연방(聯邦)의 중점은 북은 남북 권력(權力)의 상징적 위상을 수반하며 지역정부, 즉 기존의 남북한 정부가 군사·외교권을 보유한다는 의미다.

김대중은 "느슨한 연방제"를 "중립(中立) (중립)의 외교권과 군부수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연"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은 또 "이 중앙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88년에 나온 '고려민주인민공화국 정부(政府)에서 민족통일론' 주장, 남북 두 지역 정부의 대외관계 조정 등을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달랐다 것이다. 사실상 두 개의 중앙정부가 연방의 대외(對外)에 시공(時公)할 것이다. 정정현 기자 <jehmin@joongang.co.kr>



# “기차길 이으면 새로운 실크로드”



## DJ의 5개항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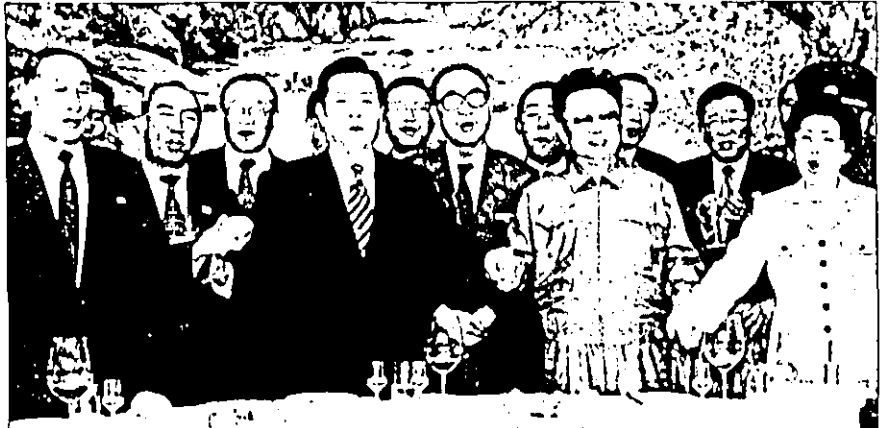
2박3일간의 역사적 평양방문을 끝내고 1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6·15 평양선언의 5개항 협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일부 대화 내용도 생생히 소개했다.

다음은 김대중권의 설명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자주적 해결이란 7·4 공약(명예)도 있다. 북한에 얘기했다. 7·4 공약(명예) 28년이 돼 아무 것도 없었다.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6·15(김정일·김영일)·비핵화 등에 합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원칙을 주지만 7·4 선언, 구체적인 방안인 기본합의서에서 성과를 못 보았다. 이제는 성과를 보여주자.

옛남과 같이 민족·자주통일·평화 등 듣기 좋은 말만으로는 세계도 민족도 살릴 수 없다.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아야 하고 얘기했다. 2항과 3항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우리가 주장한 남북연방 방안은 한 정부를 그대로 두면서 양측에서 수뇌회의·각료회의와 국회등 구성해 협의기관을 만들어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해: 연방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 통수권을 갖고 재정부만은 내정만 한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근처에 북측도 이 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은계하)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갖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양측 대표단이 15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 1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견오찬에서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 양쪽 수뇌·각료·국회 협의 “모든 문제 차츰 풀자” 설득

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해: 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양측 대표와 학자·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기해 보자고 했다. 통일 운동 시장 구체적 협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화기작 계기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 8·15에 즈음해 가족·친척 방문권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실정만과 줄어진 이산가족 문제다. 공장에서 다시 얘기했다. 순의 원강에게 “꼭 크게 한번 하시요. 그러면 나도 국내와 상의하겠소. 먼저 잡히시요”했다. 그렇게 하자고 했다. 6월부터 직접자사가 곧 가동한다. 곧 직접자사에 요청해 북과 접촉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정일도 좋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

봉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단언할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시작할 것이다.

◇인종경제의 균형 발전 -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에서 절도 잡고 긴기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지원할 때, 공단 만들때, 한국의 경제는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북도 남도 큰 혜택을 볼 것이다. 기차가 외련선을 못가고 파리를 못가나, 김의선·김원선 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김의선은 단지 25km 끊어졌다. 이으면 간다. 물류 비용이 30% 감소하고 수송용지도 줄어났다.

유류까지 승승장구 뺏아갈 수 없다. 양반은 현해탄을 거쳐, 북한을 거쳐 유류까지 간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대어

난다. 남북 양측이 경제 번영을 누리려는 시대가 온다.

북한 지도자들에게 북한 인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을 얘기했다. 노답도 지엄하다. 남한의 중소기업은 북에서 경쟁력 있다. 남북관계는 양측이 다 손이 오래 가고 화해와 협력에 된다. 원·원으로 가야 한다. 남북이 문화체육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허자는 것을 확실히 합의했다. 실천하기 위해 남북 양국사들이 곧 접촉해 구체적으로 일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정일 답방 -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합의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합의된 기약 안에 어떻게 해서든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했다. 서울에 와서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믿는다. 내년 가면 평화적으로 생각한다. 남은 통일 여의지국의 여의를 중시해: 10·4세 위원 노안이 왔는데 남신이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남도 했다. 최상진 기자

<choisy@joongang.co.kr>

## DJ 안보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서 평양 방문선언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

김대중 대통령은 “안보는 정통권이 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남북이 화해하기 위한 안보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 조상과 하늘이 도와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

을도 얘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한 미군은 물론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대화는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승만(내·평화)전외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측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선언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일은 김대중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

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무형상 선제무 연금해주시길 희망해 왔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에서 상당한 성과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외에도 양측은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밝힌 5개항의 합의와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된 논의 외에 추가 합의 내지는 의견교환 사항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전쟁개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다. 남북 상호간에 무력결과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결정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가는 선을 보고 왔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안내상과 상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너 이상 적화통일도 안 되고 흡수통일도 안된다”며 “한반도에 너 이상 전쟁은 없다. 같은 상식을 갖고 있으며 평양과 경이 오가고 이례가 일지 한다”고 평양 방문의 소감을 정리했다.

이종민 기자 <jmlce@joongang.co.kr>

## “北核·미사일·주한미군 얘기도 했다”

# 선언문 서명 누가 하느냐 진통 두頂上 손잡고 “우리의 소원...” 합창

## ‘6·15 공동 선언’ 이모저모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뒷얘기를 남겼다. 공식행사도 갈수록 양측의 친밀감이 느껴져 15일 고별만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고, 공창의 작별예선 두 정상의 포옹도 있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공동선언 중 제2항의 ‘연방제’ ‘연방제’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장일 위원장을 상담시간 심복한 권과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측의 공식적인 연방제 안(案)은 중앙정부에서 외교·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김위원장은 단독회담에서 이를 계속 주장. 그러나 김대통령이 “그 방안은 국제기구에서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심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잠시간 설명해 지방정부가 외교·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의미의 ‘낮은 단계의...’ 라는 표현을 쓴다는 내 합의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회담 후 “내가 져먹던 합의까지 내서 진심되게 설명했다”고 회담분위기를 설명했다. 차대변인은 “회담시간이 3시간50분이었지만 3시간40분은 김장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통일방안에 대해 두 정상이 많은 시간을 합애했다”고 부연.

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 대해 “세계 역사와 조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문제에 대해 남 특이 되면 금방 수용하는 등 원가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 공동선언 문인확정 = 공동선언 문인확정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도 직장은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 특히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것. 북측에선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형식적으론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일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두 정상의 말을 받은 다른 두사람이 서명하는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나 남측에서 “우리는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을 남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서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급박했던 공동선언 작성 = 공동선언 작성과정에서 두 정상은 큰 합의 합의만 했고 문안은 오후 8시 50분쯤부터 실무진이 의해 작성되기 시작. 양측 실무진은 두 정상이 워낙해서 만찬을 하는 도중 공동선언 초안을 마련해 만찬장으로 들고 들어갔고, 김용순 이태평화위원장이 김위원장에게 먼저 보고, 김위원장은 초안을 검토한 뒤 일부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며 이를 남측의 임동원 특보에게도 설명했다.

다시 林 특보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막후 조율작업이 부산하게 이뤄졌고, 다시 장소를 백화인 영빈관으로 옮겨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10분 전인 오후 11시10분에서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순 위원장이 김대통령 등 남측 인사들과 김위원장의 방을 번갈아 오가며 메시지 역할을 담당. 최종 합의 뒤 실무진이 이를 두 정상에게 보고했고 두 정상을 각각 2분 전 서명장에 입석, 밤 11시30분 서명했다.

◇ 두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 = 김장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퍼다기도 남측의 선명이 합리적이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상당한 합의가 가능했다고 차대변인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회담에서 김대통령의 발언 중간 중간에 “나도 섭섭한 게 있는데 말씀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남측에 대해 불유쾌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을 기다없이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 김위원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 그래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또 남측 신문을 김대통령과 함께 보는 자리에서 자신을 좋지 않게 다룬 기사를 보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것.

반면 김위원장은 김대통령의 인생·정치역장에 대해 여러차례 존경심을 표시했다고 차대변인은 전했다. 김위원장은 “어려운 목숨까지 위대롭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집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논평했다는 것.

김대통령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서운한 점을 김위원장에게 말했다. 차대변인은 김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운하다고 했는지 직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김수정 침투사건이나 서해교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차대변인은 “이런 김대통령의 문제제기, 김위원장과 논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 김대통령의 비전제시 =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서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남북이 모두 잘 살아야 한다. 민족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감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주변국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나라도 있지만 남북이 전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한다”고 설명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비전을 여러가지 제시했는데 “장기적으로 통일이 돼야 하고 그 전에는 공동번영해야 한다”며 “이달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등 교류를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취재단

# 6·15선언 DJ 통일론 決定版



## 新 남북시대

"맛있는 집까지 내시 친밀하게 심변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남북공동선언 시명 직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에 높은 정성을 아꼈다.

외교(交誼)속의 30여년간 소중히 보듬어온 DJ(당위당)의 결집을 안내한 친분과 조화가 친하게 매어 있었다.

박승원(朴承元)장외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 3시간50분 중 3시간 40분은 김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통일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김대통령은 상당한 안내집을 갖고 살뜰했다"고 전했다.

우라주 수행원인 "자신의 통일론 때문에 정치역경 내내 색깔시비를 받으면서도 북방연두에 입장을 보여준 김대통령



15일 오후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로 가는 도중 서울 세종로에서 잠시 차에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안성식 기자

## 인내심 갖고 김정일 설득

은 도쿄(東京)남자사건, 80년 사형선고 때를 빼곤 6월 14일 가장 가난 하루를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6·15 공동선언은 평화통일 3원칙(자유·평화·민주)과 3단계 통일론(국가연합-연방-완전통일)으로 짜여진 'DJ통일론'과 김권주의 '햇볕정책' 구상이 낀 김정일이다.

선언문 중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한 1항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명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2항이 통일론의 골간.

DJ의 통일 3원칙 중 '자유'가 반영됐고 '평화'는 '선언문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정상간 대화에서 전경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차대변인)는 것.

김대통령이 30년 통일론의 승부권을 잡았던 대북은 바로 남북한 통일론을 세운 2항에 이르러서다.

북한은 그간 DJ의 3단계 통일론에서 1단계인 국가연합(1연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을 생략하고 박마로 연방국가로 가자는 고려연방제(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를 고집해왔다. 하나의 중

### 30년 연구 熱情 끝내 결실 맺어

안정부에서 외교·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자는 것.

김일성(金日成)주석이 1991년 신년사를 통해 "힘의 합계를 이루기 위해 김정적으로 연방공화국내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인도 합의합동의가 있다"고 한 게 여지를 보였던 유입한 대목.

그러나 김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외교·군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이념·체제는 물론 외교·군사에 관한 권한도 남북이 그대로 유지해 평화공존·교류협 하며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자"고 김요한 심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6시50분, 거듭된 논쟁속에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챘던 김위원장은 결국 DJ의 심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방정부가 외교·군사권한을 갖는 의미로 수정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표현에 동의한 것.

DJ통일론 1단계(남북연합)의 행동

김원인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도 선언문의 결집·이산가족·당국간 대화 등으로 배색이 담겼다. DJ통일론 30년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한 수행원은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견국 모두 이기는 장기를 둔 셈"이라고 이 순간을 표현했다.

동국대 강상운(姜相雲·북한학)교수는 "북한은 지방정부에 외교·군사권을 준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김위원장이 인입을 거쳐 연방제로 가자는 김대통령의 헌신분에 인입 받은 것 같다"고도 했다.

김대통령은 공동선언 시명 직후 "민간이 교차하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88년 서경원(徐敬元)의원 김립사건으로 김립조사를 받았던 임, 3단계 통일론에 쏟아졌던 "고려연방제와 동일한 안"이라는 음해.

이선삼(李善善)김립사건 등 국적국적한 공안사건, 선거 때마다 색깔론에 시달렸던 임, 김권후 보통정책이 김립 잡수 정경부·서해교전 사건 등으로 거센 위풍을 맞았던 임 등...

김대통령은 회담과 간담의 교차속에 편입의 마지막 말을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DJ통일론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맞게 됐다.

최훈 기자

<choiljoon@joonang.co.kr>

## 비행기 이륙까지 北지도부 박수

### 평양 출발 이모저모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트랩에 오르기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뜨거운 포옹을 했다. 두 정상은 3일간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는 듯 양쪽 볼을 번갈아 맞대며 작별인사를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과 김위원은 오후 4시쯤 검정색 리무진을 함께 타고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대중은 일행이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연도에는 13의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40여 명의 평양시민들이 몰려나와 김대중을 환송했다.

공항에서도 수백명의 평양시민들이 손에 꽃을 흔들며 “만세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김정일” 연호는 없었다. 두 정상은 함께 의장대장의 신고와 육·해·공 3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어 트랩을 향한 붉은 색 카펫 위를 걸어가자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김대중과 이희호 여사는 미소를 띠우며 간간

이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김대중은 친철타 김어가며 역사적인 북한 방문을 되새기는 듯 감회에 휩싸였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 걸음 뒤에 서서 따라갔다. 군악대의 연주가 계속됐다. 김대중은 내외는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은 뒤 북한측 인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정일 위원장도 우리측 대표단 일행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이어 곧장 비행기 트랩으로 향했다.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출발성명은 없었다. 김위원은 김대중을 뜨겁게 포옹하며 “또 만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은 내외는 트랩 위에 올라가 박수 배웅자들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다.

4시16분 김대중이 탄 특별기가 노란색 선도차의 안내를 받으며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다.

김위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김국대 당 비서·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연길목 국방위원·김용순 당 비서 등 당·군·정 최고 실세들과 비행장에 서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박수를 보냈다. 공동취재단

### 회담전문가 김달술씨

## 김정일 1인 4역

## 北 경험·통일

## 두마리 토끼 잡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3일 간에 김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쟁기 보따리는 무엇이었을까. 1972년 7·4 공동성명 시점부터 남북 회담 임무를 담당해 온 김달술(金達洙·사진) 전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으로부터 ‘김정일 입장에서 본 남북 정상회담’을 들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는 최대 성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체제가 탐구수를 찾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난 93~99년 기간 중 풍미봉남(通風封南)전략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김위원은 기존의 자력경쟁 노선을 고수하느냐 또는 대외개방을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주의자였던 김일성과 달리 현실주의자인 김위원은 대외개방 쪽으로 정책 선회를 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개방의 탐구수를 서울로 잡은 것입니다.”

—김위원이 6·15 공동선언문에서 달상한 것은.

“북한은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 중 1항, 2항을 확보했습니다. 북은 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최대목표인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명분 확보가 아니라 실행까지 담보한 것입니다. 선언문 중 4항 경험과 5항 당국간 대화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액셀러레이터인 반면 1, 2항의 통일은 남북관계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김위원장 개인적인 의미도 상당히 개선됐죠.

“김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획·연출·각본은 물론 주연 배우도 자신이 맡는 등 1인 4역을 했습니다. 그는 13일 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을 영접하는 등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한 데 이어 14일에는 김대중과의 한담 자리에서 ‘은운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등 여유민만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또 CNN 등 전세계로 중계된 TV회면을 통해 남한 국민은 물론 그동안 서방세계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 부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최원기 기자

<brent1@joongang.co.kr>

## 김정일 “내 술실력만 집중 보도”

### 고별 오찬 이모저모

### 연청목내총리도 참석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의 거침없는 언행은 15일 백화원 영빈관의 고별오찬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위원장, 그리고 참석자들은 오찬이 끝난후 박지현(朴智現)문화관광부장관의 제의에 따라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했다.

지난 13일 순안공항 증편 당시와 같은 간판복 차림의 김위원은 헤드테이블에 착석하면서 김대중 자리에서 자신의 것과 똑같이 말걸이없는 의자가 놓여진 것을 보곤 군복 차림의 의전장을 불러 “김대중에게 팔걸이 있는 의자를 갖다주세요”라고 호령했다.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라며 새까맣게 질책하기도 했다. 양측 대표의 추배 제의가 끝나자마자 김위원은 전날 만찬장과 공동선언 서명 후 마셨던 술이야기를 집어냈다.

▷김위원장=“기자들..., 오늘 아침 보도에 김위원은 술실력으로 시위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술실력이라 (박재규)통일부장관이 나보다 더 마셨는데 어떻게 되서 나한테 자꾸 화살이 집중되나 모르겠어요(웃음).”

▷김대중=“저는 (삼페인 천진을)네번에 걸쳐 마셨어요.”

▷김위원장=“대통령께선 연로하신데 대통령 술마신 것은 전혀 맞고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술실력이 낫다(장내 웃음)...다 좋은 얘기입니다.”

김위원은 이어 “나는 원래 포도주밖에 못마신다”며 놓여있던 추배(삼페인)잔을 물리친 뒤 “(임동원)국정원장께서도 (어제)좋은 포도주를 소개해 줬으니까 내 것도 맛보시지요”라고 말하며 재련된 서구식 매너로 새 잔에 따라진 포도주를 시음했다.

“좋아”라며 고개를 끄덕인 김위원은 참석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를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위원은 이날 오전 닭공장을 둘러본 남측 수행원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김문에는 닭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김위원장=“닭공장 가보셨어요.”

▷이기호 경제수석=“오늘 갔다 왔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돼있고 생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위원장=“난 다룬데 하고 대비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세계 여러나라 많이 다니 보셨으니 어느 수준 되겠는가...”

▷이수석=“제 경험으로 인간 백만마리 생산인 것으로 아주 대규모입니다.”

▷김위원장=“지게 천오백t인데 대규모에 들어갑니다.”

▷이수석=“예.”

김위원은 김대중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사람이 삼만마리를 관리한다 그러대요”라고 끼어들자 “삼만마리”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과거 남북회담 당시 북측대표(총리)로 활약해 낫이 위은 연행복(延亨福)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국방위원회 위원도 참석, 우리측 인사들과 반갑게 이야기할 나였다. 공동취재단



### 新 남북시대

#### 긴장완화 후속조치

정부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쟁재난 방지와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방방간 군사 직통전화 개설 등 제반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지난 14일 평양 백회원 연인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무력침략 의사가 없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전북(前線)행위 금지▷상호 비방중지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우선 의제로 검토키로 했다.

남북안이 서로 신뢰를 쌓고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이다.

반약 남북 군 당국자간에 이같은 직

## DMZ 확성기 철거 검토 군사공동위 가동 모색

통신화가 있었다면 지난해 6월 15일 연명해진 당시 방방간 무력충돌과 인명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직통전화 개설·전북행위금지·상호비방중지 등 세 가지 방안은 1992년 2월에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도 모두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측이 우선적으로 제안할 '군사 직통전화'는 남북한 군 당국이 합의한 하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다.

양측은 92년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군사직통전화 설치할 위해 실무차원의 협상을 끝내 놓은 상태다.

한국통신과 북한 당국도 판문점에 전화선로 단자물 이미 설치해 놓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동안에도 이 선로를 통해 50개의 전화회선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한군을 연결해주는 직통전화는 판문점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연락장교

사이에 설치된 것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상호 비방중지'는 방송 등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자는 취지다. 남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설치한 확성기를 통해 체제선전 등 심리전을 펴고 있다.

우선은 양측이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거나 민감한 지역의 확성기만 철거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도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있다.

'파괴·전북행위 금지'는 남북이 상대방에 대해 테러·포섭·납치·살상(殺害)·선동 등으로 상대방 시산과 체제를 파괴 또는 전복하지 말자는 대목이다.

에건대 북한에 의한 KSI기 폭파사건(87년)과 어부 납치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긴장완화·신뢰구축의 후속조치를 위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하거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kimseok@joongang.co.kr>

## 國保法 손질 움직임 본격화

### 분주한 법무부·검찰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일선 공안 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7조1항(친양·고무죄), 7조3항(이적단체 구성죄) 등이 주요 개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정부와 합장하거나 국가를 반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반국가 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집

단체인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간양·고무·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7조1항)는 부분도 개정 대상 가능성이 크다.

엄격하게 따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표시한 김대중 대

### 2조 '반국가단체' 등 대상 조항 전면폐지는 안될 듯

령이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도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죄도 손질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현재의 법 조항은 이적단체를 구성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다 제2조의 개정으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로 지적돼 온 제10조(불고지죄)와 제5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지원 및 금품 수수),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등도 손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과 검찰공안부의 병검 변경 문제로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무산됐고 우익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대신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단서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법 적용이 지나치게 지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만연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분간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에 앞서 북한측 환승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최와대사진기자단

# “10년內 통일될것” 57% “주한미군 단계감축” 69%

## 본사 긴급 여론조사

### “보안법 부분 개정해야” 6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본사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산가족 상봉(50.7%)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남북한 긴장완화(24.1%), 통일의 방안에 대한 협의(10.3%), 경제협력(7.3%), 사회문화적인 교류 확대(4.2%), 주한 미군 철수(1.9%), 한반도 비핵화(1.0%) 등을 들었다. 바람직한 통일 형태로는 한 상태에 시의 교류강화안(44.7%)을 가장 선호했으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적용안대(33.8%)가 두번째로 거론됐다. 남측의 연합국가 원시는 15.3%, 북측의 연방제 원시는 2.1%였다. 이전의 조사 등에서 남측의 통일안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과 비교하면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변 변화가 개관 것이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2명 역시 선택이 난국였다. '5년 이내' (13.5%)와 '5~10년 이내' (43.3%)가 합해 56.8%로 과반수에 달했다.

반면 '10~30년 이내'는 30.9%였고 '30년 이상' (6.5%)과 '불가능하다' (3.9%)는 비관적 견해는 크게 줄어 들었다.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73.4%)은 '변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1명(25.8%)만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는 국민 여론도 유엔 해졌다.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개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감축' (68.8%)이라는 신중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일면 철수'도 1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수준을 유지' (18.8%)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와 남북한 교류 방해 요소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66.6%)한다는 유효적 태도가 다수였으며 '상호인정 분위기에 폐지하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8.5%로 조사돼 '완화 및 폐지' 쪽의 견해를 합하면 85.1%나 됐다. 그러나 15.2%(무응답)가 강박한 것도 유념해야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 (70.9%)하라는 여론

| 구분     | 내용                        | 비율 (%) |
|--------|---------------------------|--------|
| 남북정상회담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산가족 상봉        | 50.7%  |
| 남북정상회담 | 남북한 긴장완화                  | 24.1%  |
| 남북정상회담 | 통일의 방안에 대한 협의             | 10.3%  |
| 남북정상회담 | 경제협력                      | 7.3%   |
| 남북정상회담 | 사회문화적인 교류 확대              | 4.2%   |
| 남북정상회담 | 주한 미군 철수                  | 1.9%   |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                   | 1.0%   |
| 남북정상회담 | 기타                        | 0.5%   |
| 남북정상회담 | 통일 형태                     |        |
| 남북정상회담 | 한 상태에 시의 교류강화안            | 44.7%  |
| 남북정상회담 | 남북한 통일방안의 적용안대            | 33.8%  |
| 남북정상회담 | 남측의 연합국가 원시               | 15.3%  |
| 남북정상회담 | 북측의 연방제 원시                | 2.1%   |
| 남북정상회담 | 기타                        | 0.5%   |
| 남북정상회담 | 통일 가능한 시기                 |        |
| 남북정상회담 | '5년 이내'                   | 13.5%  |
| 남북정상회담 | '5~10년 이내'                | 43.3%  |
| 남북정상회담 | '10~30년 이내'               | 30.9%  |
| 남북정상회담 | '30년 이상'                  | 6.5%   |
| 남북정상회담 | '불가능하다'                   | 3.9%   |
| 남북정상회담 | 기타                        | 0.5%   |
| 남북정상회담 |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             |        |
| 남북정상회담 | '변할 것'                    | 73.4%  |
| 남북정상회담 | '변하지 않을 것'                | 25.8%  |
| 남북정상회담 | 주한미군 단계감축                 |        |
| 남북정상회담 | '단계적으로 감축'                | 68.8%  |
| 남북정상회담 | '일면 철수'                   | 10.7%  |
| 남북정상회담 | '현재 수준을 유지'               | 18.8%  |
| 남북정상회담 | 국가보안법 개폐                  |        |
| 남북정상회담 |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 66.6%  |
| 남북정상회담 | '상호인정 분위기에 폐지하므로 전면 폐지해야' | 18.5%  |
| 남북정상회담 | '완화 및 폐지'                 | 85.1%  |
| 남북정상회담 | '강박한 것도 유념해야'             | 15.2%  |
| 남북정상회담 | 대북정책 추진 방향                |        |
| 남북정상회담 |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     | 70.9%  |

를 보여주고있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상호 주의로 진행' (24.0%)과 '적대 및 견제대상으로 간주' (4.1%)하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대북 지원을 위한 자금 부담 용의율 설문 결과 역시 대부분(78.4%) '부담 용의가 있다'는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부담 용의가 없다'는 19.2%에 불과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이념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47.3%)을 꼽았으며, 주변 강대국의 간섭(22.3%)·남북한 대화 및 교류부족(19.1%)·남북한 지도자의 의지 부족(8.3%) 등도 꼽힘으로 인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71.1%로 취임 초와 비슷한 수치로 보였으며 상반년 72.1%·여 70.0%·연립명(20대 73.8%·30대 71.3%·40대 67.9%·50대 이상 70.7%)·지역별로도 고르게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김형 전문위원 <khaing@joonkang.co.kr>

# 실무기구 구성 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 南 6·15선언 후속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을 위한 실행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16일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차원에서 6·15선언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대 이병주 중정상회담 지원특위(위원장 李和瓚 정책위의장)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중영의 집권 후반기는 6·15선언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대중총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남북자간 대화와 분야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북한관 만찬사에서 "새 입장은 남북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위원장은 역시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과시했다. 남측의 견합 확대·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부 등 16개 부처로 구성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남측사회당은 양측의 각료들이 집단으로 참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만큼 과거의 고위급(총리) 회담보다 실무차원에서 일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견제부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 위각에선 당국사회담과 경제회담을 아예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전력·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경제특구 개발지원 등을 하려면 양측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증협정·이중과세보장협정 등도 산별과제다.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이달에 열리는 등 급진전망 전망이다. 두 정상은 8·15에 즈음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일단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영식(梁榮植)차관은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군사분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한 관계자는 "김대중총리가 제안한 핫라인(직통전화)개설도 송위원장의 서울방문시 성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차원의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양수 기자 <yalslee@joongang.co.kr>

# 경제 살리기 가속 페달 答訪 준비 나서

## 北 6·15선언 후속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협력사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의 경제부서들은 남북검합과 경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고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준비를 위한 명단정리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남북 공동선언으로 충격을 받은 군부 실득과 일반주민 교양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의 만찬과 15일 오찬에 군부총 대표로 조명복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현철해·박재경 총정치국 부국장 등이 양복을 입고 참석하게 한 것은 군부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간의 첫 접촉은 경제분야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은 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균형적 발전'이란 결국 낙후한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남북 경제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급류할 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검합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심신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시범사업으로는 건의선 철도 연결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북측은 철강·기계·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남측의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집중 논의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1993년 이후 수립하지 못한 신경제계획을 세워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3차 7개년경제계획(87~93년)이 실패로 끝난 후 93년 12월에 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성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북한 경제는 90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률 벗어나지 못해 아직까지 새로운 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에 실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남북검합을 통해 얻는 재원을 밑자본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송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러한 전반적인 후속 준비작업의 진행과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인 송위원장의 피격행동은 볼 때 서울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광복 55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 전후해 송위원장의 서울 방문설이 나오고 있으나 방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송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며, 당국간 회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방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 정상교의 교환 방문 길을 열어 남북 협력관계의 새로운 틀을 정착시키는 출발점인 뿐 아니라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창현 기자 <jchmin@joongang.co.kr>



15일 오후 북한에서 돌아온 김제철 무역협회 회장이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 新 남북시대

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남북 교역이 제3국을 통한 간접 교역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갑자기 변경으로 대다 수출품 등을 감안하면 거래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남북간은 이미 1992년 9월의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할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청산결제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청산결제 방식이란 매년 거래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적어놓았다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

# 교역代金 결제제도 도입 시급

### 남북 경협 전망

남북 경협이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양측 정부간 실무협의로도 교류가 늘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원만한 협상을 위해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조정절차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대해 북측과 이관 사업 안에 합의할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공동사업과 철도·도로 등 끊어진 남북 교통망의 연결사업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도 시급한 협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 대책은 양측의 이해가 함께 걸려 있고 여당정 우세가 임박한 만큼 협력이 가장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대안작성(자사) 통해 북측에 임진강 유역 수해 공동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여름철 수해를 겪어 온 임진강의 경우 유역(총면적 8천 1백km<sup>2</sup>, 연강 2백50만t)의 3분의2가 북한쪽에 있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홍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측 판단이다. 특

히 하류인 남반쪽은 상류인 북반쪽 유역의 경우·수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집중호우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남쪽이 이 분야에서 우선 협력을 수 있는 것은 각종 경우·수위자료의 교환과 기술교류다. 정부는 남쪽 용이할 경우기에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시설을 공동설치할 것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남북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함께 수

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해주평단 등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북한의 기존 선로를 연장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발전소를 직접 지어주는 방안 ▶북한의 기존 발전소를 정상가동하기 위해 석탄·가스 등 원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발전용량은 7백만kw 정도로 남한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한에서 북한에 전기를 직접 공

급받을 금액을 가려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92년 당시 남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대거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간의 수출입거래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환이동에 의해 상대가 이뤄지는 환결제방식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장협정 등 체결 = 투자보장협정은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 진출 기업이 소득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송금보장' ▶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수용하거나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보장' ▶북한이 남한 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인 대우' ▶다른 나라와 시장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혜국대우'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북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안이 동시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마련돼야 한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과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내용 등이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방향은 남북의 조세제도가 워낙 달라 예측하기 어렵다. <이재훈·홍병기·서경호 기자 >  
<ilhoon@joongang.co.kr>

### 임진강 수해 방지·발전소 공동건설 추진

###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협정 마련해야

계 전장을 탐사·측량하고 계획홍수량을 산정한 뒤 하상준설·제방축조·산림복합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북한도 갖고 있다.

우리측이 오는 2009년까지 8천2백억원의 들여 건설하기로 한 임진강 홍수조절 다목적댐 계획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북한측 수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두곳의 후보지만 골라놓고 있으나, 북한이 협조할 경우 더 적합한 곳을 고르기 위해 공동 제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협력사업 = 정부는 심각한 북한의 전력난을 감안해 남북간 송전선로 복원과 발전소 공동건설 등

급할 경우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도 많다. 북측은 엄격한 전기생산사정으로 전류의 흐름이 일정치 않고 전기 품질이 떨어져 남북간에 선로용 인건했을 경우 난측 선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후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전력협력사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소규모 발전소를 지어주거나 남쪽의 유류 발전설비를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청산결제(清算決濟) 도입 = 정부는 남북교역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금결제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시



전문가 좌담 ③·끝

남북의 정상이 15일 '평화의 자주적 해결' 등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그 이전과는 판이한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중앙일보는 13, 14일에 이어 15일 사흘째 특한 전문가들의 특별좌담회를 마련, 이번 공동선언문의 배경 및 의미, 그리고 파장을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

〈참석자〉

- 장달중(張達中)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서진영(徐鎭英)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 박준영(朴俊英)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배중열(裵重烈) 수송업협회 선인연구위원
- 사회: 김영희(金永熙) 중앙일보 대기자(상무)

▶사회=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화려한 변신과 연성대법집 목격했으며 손에 밥을 먹고 화장 1백85분만에 걸친 2차 단독회담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5개 항의 공동선언이 과연 '한반도에 밥'을 가져 올 것인지, 또 통일 대장정은 시작된 것인지 그 상성을 규정해주시죠.

▶서진영=이번 공동선언은 1972년 7·4 공동성명과 92년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간적인 형태입니다.

7·4 공동선언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남북기본 합의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포괄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구체적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방 당사자가 선진적인 양국지도자 레베키가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나 7·4 공동성명처럼 일방이 쉽게 무시하거나 편이대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또 7·4 공동선언은 당시 미·중 관계 개선으로 조성된 대담부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인만큼 처음부터 양측이 진지하게 추진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의 위기가 깊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번은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생존방식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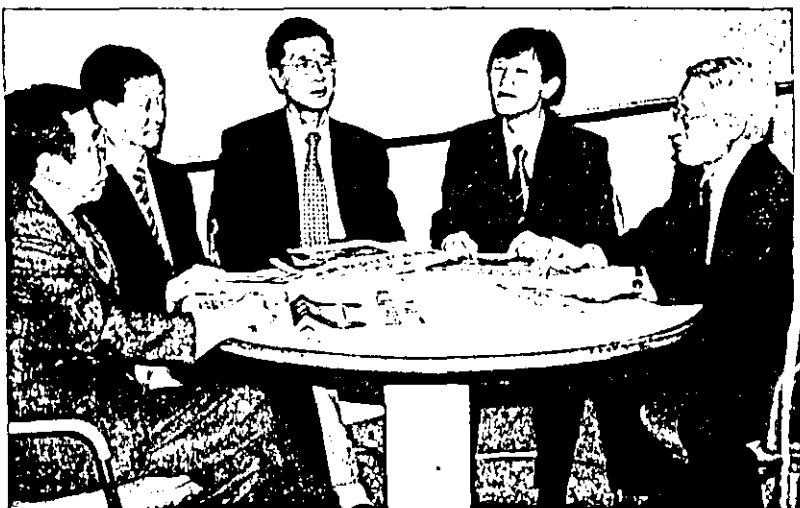
남북도 그렇고, 북쪽도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합치시킨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달중=개념적 유희라도 마련했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남북관계의 이대유로기적 유희은 주적(主敵) 관계였습니다.

이번 선언은 남북이 이같은 격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행하는 돌파구를 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모를 '북한국가'로 보았으나 앞으로 정상관계로 이행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북한 사회에 준 충격은 7·4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 합의서보다 이번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문제가 북쪽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관리하겠다는 관에서 그들의 목적이었던나 대내외적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남북 적대관계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좌담회. ○부터 서진영 교수, 박준영 교수, 장달중 교수, 배중열 위원, 김영희 상무, 최정훈 기자

관외협력과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교환시도가 주요한 합의의 토대가 된 것도 7·4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와는 성격으로 다른 것입니다.

반쪽 내부 분제이면서 국제적 분제라는 이중성을 띤 남북체제를 남사자 문제로 좁히진 수 있도록 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도 큼니다.

▶배중열=금위원장의 남북관계와 금대통령의 북방정책이 겹침을 맞은 때 나온 결과물이라 볼 수 있죠. 북한은 올해 선연에서 경제강화내국의 원년임을 찬양한 만큼 경제분해 해결이 관내적이었으나 기존의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중국과 남연북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순회하는 금위원장의 새로운 전선에 시작할 것이라는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겠죠.

▶박준영=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금위원장과 금대통령 두 정상간의 합의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주 평화 민주화라는 원칙의 7·4 공동선언은 강조해도 남북기본합의서는 소홀히 대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7·4 공동선언을 조조한 한 반면 남북기본 합의서는 중시해왔죠.

남북한 합의를 도출하려면 서로 겹쳐놓은 부분은 토론하지 않는 것이 중요, 이번 공동선언은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렇지 7·4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금대통령과 금국방위원장은 15일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대한 권한을 연합(연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협의했다고 박준영(박준영) 장외에 대해문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큰 진전 아닙니까.

▶장달중=독가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남북 공동선언을 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북한의 연방제 불허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 탈냉전시대 양측 이해 점점 찾아 국제역학관계와 조정 주요 과제

는 의욕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대통령은 공동선언 2항이 곧바로 이행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와 같이 화해·협력의 물결 남북연합관계로 가는 게 우리의 불허방안을 제쳐 두더라도 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공동선언 2항과 더불어 남북간에 있을 수도 있는 이견을 시간에 차이를 위한 조치라고 보여 줍니다. 지금까지 차이는 우리의 불허방안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메시지만 북한이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진영=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금대통령은 3단계 통일에서 과거 정권과는 달리 남북 지도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든지 연합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단계 안에서 임의든지 남북간에 화해·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금대통령과 금국방위원장의 그러한 합의는 바로 금대통령의 평소 주장대로 곧바로 연합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배중열=남북이 사실상 체제를 인정하진 했지만 북한은 연방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원칙적인 논리를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99년 5월말 개최된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비롯한 법규의 개정대상은 외국투자자에 한정되고 못박고 있습니다. 남북간 합의 없애, 외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침을 착수관계로 보는 것이지 원칙논리로써 국가로 인정하진 않는 것입니다.

▶박준영=상호개선을 인정하는 것은 불리도 북한이 유엔비안까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불합점이 있습니다.

다-11면에 계속

# 전략적 동반자로 이행

## ⇒10면서 계속

▷사회=평동선언문 첫 조항인 '동맹관계의 자주적 해결'에서 '자주적'이라는 말이 무시되어 탄저를 과장한 느낌입니다.

▷정당중=지금까지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초미의 관심사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명화 유지군책'인 성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얘기죠. 하지만 기존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을 자주라는 틀 속으로 옮겨놓으면 남북관계는 기존의 4자회담체제에서 남북관과 미국의 3자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진영=자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의미 부여한 것은 당사자적인 것입니다. 북한입장에서는 외세의 간섭, 특히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없는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남북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북측의 의미가 부각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쟁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영=앞으로 남북한·미국간 3자회담 형식의 모임보다 한·미·북·미, 한·미·일, 남북관대의 회담이 시리즈로 끊임없이 전개될 수도 있죠.

▷정당중=>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집권층 내부에는

지원에 일본이 돈을 내리면 소비세를 올려야 하는데 김프 전 때도 전미(戰費) 3백억달러를 내고 소비세를 3% 인상했다가 자민당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회=북한 지원용 외자유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동선언 구도가 흔들릴 우려는 없습니까.

▷정당중=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경험자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치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험효과가 기대처럼 발동 경우 공동선언의 특 자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북한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죠.

▷사회=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면회소 설치 등의 언급이 없습니다. 합의상으로 할날 가능성은 없네요. 또 선언문에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언급하고 국군포로 문제는 언급이 없는데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박준영=이산가족 문제는 영구적·상실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북이나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서로 대쪽 안보해 '인간적 송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도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평동선언에 해 미 사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요.

▷박준영=이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부터 미국이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협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김대통령 귀국 후 미국이 강하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정당중=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됐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4자회담 체제가 3자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할 김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과제입니다.

▷사회=이번 선언으로 햇볕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까요.

▷서진영=햇볕정책 성패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단기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점이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공존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새로운 전략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정당중=>향후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축을 얼마나 주도할 수 있지가 변수입니다. 비단 보수세력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진영=우방과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페라 프로세스' 못지 않은 'DJ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합외교로 돌리했지만 의외로 국민을 설득하려면 경험·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통일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쏘는 치열한 통일외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지도자들의 비전과 추진력이 얼마나 국가 진로를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장달중

美 아시아전략 바뀔듯



서진영

北지원 미·일 도움필요



박준영

'인간적 송환' 이뤄져야



배종협

北 수출형 경공업 지향



김엄희

연방제 합의는 큰 진전

## '自主' 남북 해석 달라... 문제 소지

### 공동선언 성패 경험성과에 달려

주한미군에 대해 상당한 의색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주' '자주' 하는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향하는 세계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호전성이 아시아 주권의 대의변화이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회담상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주한미군의 주권을 정당화할 신(新)종이(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남북경협에는 속강이 60조~70조원, 당게는 1백조원의 전문화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진방은 어떻습니까.

▷정당중=우리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다시 민족적계 부활 차원에서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는데 정부가 얼마를 지원할지 '합부프린트' (청사건)가 없어 답답합니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긴급기금을 얼마 안되고 국제금융기구에서 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서진영=우리 역량만으로 북한경제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용있는 지원을 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배종협=최근 김위원장의 방중(訪中)으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하면 다음은 미국과 일본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위원장은 군사 문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만큼 과거 박정희사의 모태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 및 일본과 타협가능한 수출지향형 집공업육 육성할 것이죠.

하지만 미·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당중=일본은 현재 리더십 부재상태라 외국성이 지원하자 해도 내정장이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 자본을 얻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경협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김대통령 귀국 후 미국이 강하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정당중=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됐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4자회담 체제가 3자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할 김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과제입니다.

▷사회=이번 선언으로 햇볕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까요.

▷서진영=햇볕정책 성패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단기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점이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공존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새로운 전략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정당중=>향후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축을 얼마나 주도할 수 있지가 변수입니다. 비단 보수세력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진영=우방과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페라 프로세스' 못지 않은 'DJ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합외교로 돌리했지만 의외로 국민을 설득하려면 경험·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통일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쏘는 치열한 통일외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지도자들의 비전과 추진력이 얼마나 국가 진로를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정리=김민석 기자 mskang@joongang.co.kr >

## DJ 치켜세운 김위원장

### “전라도 고집 세더라 김치 세계화 한국 功”

김정일 위원장은 ‘뽕큰 지도자’로서 여러가지 면모를 과시했다. 우리측을 ‘한국’이라고 호칭하며 회제를 이끈 다가 온근히 북한 체제의 비교우위를 과시하기도 했다.

만찬에서 김위원장은 “일본이 온단을 전세계에 보급한 것처럼 김치를 보급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이 큼니다”고 평가.

이이 김위원장은 “평양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워싱턴과 같다. 그런데 서울은 뉴욕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차나 사람을 현재 숫자 이상으로 (평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창조한 부에 의해 인간이 멸망한다”면서 환경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집념을 보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걸쳤고, 김위원장은 “(金대통령의 고향인) 전라도 고집이 이렇게 셀 줄 몰랐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전했다.

이이 김대통령이 “어디 쇼케냐”고 물었고 김위원장이 “전주 쇼씨”라고 대답. 그러자 김대통령이 “나는 김해 쇼씨이니까 김위원장이 진짜 전라도”라고 해 웃음이 터졌다. 옆에 있던 이희호(李姬鎬)여사가 “제가 전주 쇼씨”라고 끼어들자 김위원장은 “우리 외가 만났습니다”고 해 웃음이 이어졌다.

김위원장은 또 김대통령에게 “옛날 정치인 같으면 이런 일(공동선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金대통령과 내가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군인은 가만 두면 주적(主敵) 개념만 늘어난다. 김의선을 놓을 때 군인을 동원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평양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때 학교에서 태극기를 내린 것을 보고받고, 김위원장은 “서울이니까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공기를) 달지 않는다”며 (태극기를 내리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지나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를 꾸짖었다고 한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 조명록 차수 환송사 임동원 특보 답사

### 이례적 환송 오찬

15일 백화연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환송오찬의 인사말은 북측에선 조명록(趙明祿)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많았다. 답사는 임동원(林東源)대통령특보가 나섰다. 이례적인 의전이었다.

총정치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국방위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계급은 차수(次帥·원수 아래)다. 13일 순안공항 환영행사 때 김위원장 바로 뒤에서 따리와 심세임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군부령 대표해 남북 공동선언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더불어 마련된 통일건설에 대해 반박한 생각을 갖고 높이 평가한다.”

우리측 관계자는 “군이 앞서는 선군(先軍)정치의 북한에서 趙의 발언은 정상회담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해 인경감을 주기 위한 충성선언의 뜻이 있다”고 분석했다.

총정치국장은 양복 차림이었다. 군복이 아닌 모습의 TV등장은 처음이다.

함께 참석한 한철해(韓哲海)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박재기(朴在慶)선전담당 부국장 등 군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측 특보는 국정원장으로서 회담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다. 김정화 기자

<wormhole@joongang.co.kr>

## 김영숙씨 끝내 안나타나 ‘퍼스트 레이디 회담’ 불발

남북한 퍼스트레이디간의 만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평양방문 2박3일 동안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의 북한측 상대역은 매번 바뀌었다.

방문 첫날 순안공항에서 백화연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조선이시아대평양평화위원회 박선옥 부장이 안내를 했고, 만수대에습극장에서 열린 환영공연 때는 최고인민회의 여원구 부의장이 후여사의 옆자리에 앉았다.

둘째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여성계 인사와 간단 회담 친연옥 여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급기야 이날

정상회담 후 만찬장에서 후여사는 북한측 파트너 없이 이 일반참석자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이튿날 김정일 위원장이 “이산가족이 되면 안된다”며 헤드데이칼로 찢러 올리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김위원장의 부인 김영숙(52)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5년 만에 처음 있는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에 북한측 퍼스트 레이디인 쇼씨가 불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5일 우리 국경지 좁배이지에는 김영숙과 관련해 ‘중앙당 타자수 출신으로 1973년 김정일과 결혼, 딸 설송을 출산했으며 현재 별거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2박3일 정상회담 중 순한 회제를 낳았다. 백화원 영빈관 회담장에서, 목관관 민찬장에서 그는 엄숙하고 딱딱하게 초를 수 있는 분위기를 유머와 재담으로 녹였다. 순간 포착에 능했다. 담과 담 사이의 틈을 잡지 못하는 듯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하리쯤 자르기도 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희호(李熙鎭)여사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격의 없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김대통령은 17년 아래인 김위원장의 그런 언행을 기꺼워 했다.

겉잡힌 목소리와 환담한 손짓·몸짓이 그의 말에 생기를 더했다. 김위원장의 대화엔 한국 언론의 보도내용이 자주 소개로 올랐다.

다음은 김위원장이 쏟아낸 말말. 그의 말엔 독백투의 존재감과 반말이 섞여 있어 그대로 옮긴다.

◇폭소 자아낸 장면들

▶(외중을 향해)오늘 아침 (남한신문)보도에 김위원장이 술실력을 시위했다. 그렇게 나왔어. 어떻게 돼서 나한테 자꾸 화살이 집중되는지 모르겠다. (김대통령이 “저는 네번으로 나눠 마셨습니다”라고 하자)대통령께서 연로하시니까 대통령 술마시는 얘기는 전혀 없고...역시 김위원장이 술실력이 (억양을 올리며)났다. (주변의 웃음이 그치길 기다려다가)거 좋은 얘기지요. (15일 마지막 오찬회동에서)

▶테레비 보니까 (서울)프레스센터가 장바닥 같더라. (15일 오찬에서)

▶개성 토박이한테 음식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과일 요란하게(손을 모아 개스처)잡어 넣습니다. 여기서는 개성 개장이라고 하는데 서울사람도 걱정인가요. (14일 만찬에서 이희호 여사에게)

▶우라과 사람들이 자꾸 니보러 뭐라고 말하니까 왜 온통생합 하나, 온통생합 하는 사람이 참 나타났다. 난

과거에 중국도 갔었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외국에도 비공개로 많이 갔었는데 나보고 온통생합 현대. 김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온통에서 해방했다. (모두 웃음)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모르게 했으니까. (14일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전 환담에서)

▶(외중을 향해)왜 우리(김대통령과 추여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회장에서까지 이산가족을, 만드느냐. 그

것 뿐인데. (14일 환담 중 김대통령이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김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온 장면에 담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자)

▶제가 너무 견거멍똥한 것 같습니다. (14일 만찬에서 혼자 계속 말하다가.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며 웃음)

▶갑갑이 의자 갖다드려. 애초부터 준비하지 않고... (14일 만찬시작 때 김대통령의 의자가 자신과 똑같이 팔

▶(우리는)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13일 첫 환담서)

◇언중유골(胸中有骨)도 있었다(14일 비공개정상회담)

▶나도 섭섭한 게 있는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동안 남측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기탄없이 말하러. 김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서운한 길을 김위원장에게 밝혔다

▶(우리는)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입니다. (13일 첫 환담서)

◇영화·환경·관광문제 등 다양한 관심표출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남측에서 출품한 ‘송환된’이 본선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전’자름 ‘던’자로 잘못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던’이 맞더라.

▶서로 오가는 것도 좋고 관광해서 얻은 이익도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적지 않아요. 이터리와 유교 사람들은 관광이 돈벌이에는 좋지만 자기 땅이 황폐화되고 바다가 오염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모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소 과장됐겠지만 금강산 갔다는 남쪽 사람이 듣어 자기네 실업률은 오물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14일 만찬에서)

◇드러나지 못한 표현들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이 왜 방문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무부호입니다. 2박3일 동안 대답해줘야 합니다.

▶김대통령의 용감한 방문에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 나왔습니다. (이상 13일 첫 환담서)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15일 마지막 오찬 회동서

“TV보니 프레스센터가 장바닥”

14일 직접 공항엄접 박수 보냈다하자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13일 백화원 영빈관 첫 환담서

“공산주의자도 도덕 있습니다”

래서 김대통령께서 이산가족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 (폭소·14일 만찬장에서 김위원장이 일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추여사를 헤드 테이블로 모셔 오도록 조치하면서)

▶내가 연단에 두번 나갔으니 출연료를 받아야 겠다. (14일 만찬장에서 견배제의 등을 위해 마이크를 두번 잡은 뒤)

◇존경과 예의, 겸양과 동양적 효심 등 표시

▶여러번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집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4일 정상회담에서)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순안비행장에 나간 것은)인사로 한

갑이 없는 의자인 것을 보고 관계자에게 호통치며)

▶알만 대우 같 해도 제 김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4일 환담 중 김대통령의 전날 잠자리를 열려 하려)

▶오늘은 근심도 걱정도 없이 마음 놓고 우리가 주무십시오. (14일 밤 남북 공동연언에 서명한 뒤)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존하셨다면 (비행장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오는 승용차 좌석에)주석님이 앉아 대통령을 영접했을 겁니다. (13일 영빈관 환담에서, 한편 김대통령은 14일 만찬사에서 “3년상을 치를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며 김위원장을 칭찬했음)



新 남북시대

외신 서울특파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최고지도자 합의문 서명  
양국관계 커다란 진전  
이산상봉 규모등에 관심

남북 정상회담 귀재질 위해 서울에 특파원 외신기자들은 15일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화해의 거대한 물결을 예고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궁금해 했다.

◇반응=외신기자들은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차후 남북교류의 추진과정에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

오카모토 겐고 (岡本健吾)NHK 특파원은 "이번 회담 결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승리이자 남북한 긴장완화의 신기원을 이룬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의 하워드 프렌치 기자도 "미 정부와 국민들도 남북 공동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무력 위협을 줄이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가오하오롱(高浩榮)중국 신화(新華)통신 서울지국장은 "남북한 정상 이 만나 공동선언문에 합의·서명한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7·4공동성명 등 이미 두차례에 걸쳐 남북한 사이의 합의문이 발표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 최고지도자가 나란히 서명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통신·항공 분야의 교류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산케이(産經)신문 구로다가쓰히로(黒田勝弘)서울특파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측이 기대하는 것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을 새차례 방문했던 르몽드의 릴랍 풍스 도쿄특파원은 "이번 공동선

언에서 남북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뤄 북측이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관심사항=외신기자들은 이날 남북 공동선언에 발표된 남북 교류의 향후 추진과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규모에 관한 추가발표를 기대했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북한문제 전담 소니 에이프런 기사는 "이산가족들이 어디서 어떠한 형식으로 만나게 될지 가장 궁금하다. 우선 오는 8월 상봉의 구체적인 절차가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BBC의 찰스 스킵런 도쿄특파원은 "서방세계에선 남북 경협의 규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남북간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 해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포함한 특집방송 준비를 한 독일 ZDF방송팀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 시민들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예측불허라는 점을 냉정히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고 전했다.

미국 등 서방기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언급됐는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했다.

특히 김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핵 미사일 문제를 얘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좋은 전망이 담긴 얘기도 있었다고 밝히자 긴장감을 나타내

며 내용 확인에 주력했다.

◇전망=영국 더 인디펜던트의 리처드 페리 기자와 기디언의 존 기팅스 기사는 이번 회담을 통한 남북한의 관계 진전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으로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의 의미를 진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으며, 장차 한반도 통일 뒤에도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미국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증진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국내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르몽드의 풍스 특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성과를 얻은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에이프런 기자도 "미 정부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 정부로서도 그다지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외신기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였다고 입을 모으며 향후 김위원장이 일본·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면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외교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었다.

이상언·장정훈 기자 <joonny@joongang.co.kr>



외신기자들의 취재경쟁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도착 장면을 대형 TV로 지켜보고 있다.

신인섭 기자

각국 정부 반응

한반도 주변 4강국 등은 14일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의 협의를 환영하면서 이번 협회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길 희망했다. 다음은 각국 정부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공동선언 발표’ 파격적



◇미국=남북 정상회담의 민남 자제만 해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산가족 상봉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선언까지 발표한 것은 ‘파격적’이라고 환영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매우 중요한 뉴스를 내놓고 있다”면서 “금대통령의 비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핵과 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 구축 계획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北·日 관계개선 기대



◇일본=고노 요헤이(野田洋平) 외상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면서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두 정상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반드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계개선의)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에 회담 성공 축하



◇중국=외교부의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은 15일 “중국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공헌을 했다고 믿으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 남북한에 축하를 보낸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관련, 다양한 방식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신화사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

“남북공동선언 역사적 합의서”

“한국 현대사에 거대한 변화”

주요 언론들 반응

외국 언론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사실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합의문 내용이 획기적이며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55년 동안 깊게 팬 굽음 때우는 일이 쉽지는 않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朝日)·요미우리(読売) 등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5개항 공동선언을 일제히 1면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4~5개면을 할애해 해설기사 등을 실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외국 소식을 특대호 합자의 1면 1면으로 보도하는 일은 드물다. 이들은 “전쟁 종결 후 세계

가 주시한 정상회담은 21세기급 북핵 사태 두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14일 밤 평양에서 긴급다룬 기사에서 이번 남북 공동선언을 ‘역사적인 합의서’라고 표현하면서 “남북관계의 원칙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 소식을 1면 머릿기사 등으로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북한이 협력에 합의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측이 반세기에 걸친 대결에서 한발 물러나 용인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민주주의의 인용으로 지위를 굳힌 금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경제대사이에 둔 남북 양측간의 대화의 복원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서 거대한 변화의 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

실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은 14일 남북한 정상이 획기적인 합의에 이했다고 보도하면서 “양측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를 이룩했다”는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프랑스 TF1-TV는 남북 공동선언 발표는 화해의 조짐처럼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서로의 간격을 줄이는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김성일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떠맡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 유엔에서 열리는 ‘새 천년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워싱턴·뉴욕·도쿄·베이징·파리=김석환·김진·신중돈·오영환·유상철·홍파영·정은  
<kslips@joongang.co.kr>



북로동자 김정일 평가

북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결과 중 하나가 '수수백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 변화였기 때문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15일 보도했다.

북수가 결코 배타적이며 오만하고 총동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 내내 육체 남치며 경솔하고 다정다감한 면모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공상에서 영감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너그럽고 여유 있는) '집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외국 언론들은 북한이 김대중을 믿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디 불확실한 것은 없느냐며 김대중과 수반으로서의 충성을 단지 수려도 보였다고 전했다

"집주인 역할 완벽 수행 이미지 변신"

"과거를 잊고 우리에게 김정은 (북의 이목에 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인간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르몽드는 덧붙였다.

공식 시진보다는 좀더 주눅이 없었던 지만 경호차림을 높은 유우를 입고 자신의 비위에 크게 개의치 않는 태도에서 상황의 완전에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군부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한 것은 집주인 주

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이같은 작업이 끝나면 그는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이같이 대인간 홍보기술을 구사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1993년 아웅산 폭파사건과 KAL기 폭파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지는 15일 1면 머릿기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거만하고 괴짜스러우며 신경질적이었던 통제의 이미지를 가신었고 후에 감각이 뛰어나며 한국 지도자와 함께 일하려는 의욕을 보인 인물로 바꾸는 대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문은 아랍인들은 인상으로 불구적이고 일부 기자들은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 퍼뜨린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 합리적 준비된 개인에 불과하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이탈리아 특파원 <cielleu@jeuneanet.kr>

남북한의 심한 낙관

◀러시아=외무부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간 회담과 관련해 지극히 낙관하고 있으며 남북간 협의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양은 이어 "이번 정상 회담을 인정과 공화, 그리고 평온한 상황에서 지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측의 진지한 의도와 신의의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亞大지역 힘 균형 도움

◀영국=외무부는 정상회담 협의를 의 국제적인 대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50년 만에 만나 평화회담과 이산 가족 상봉, 협력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해외 반응

자외 한국동료들은 남북 공동선언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조총련도 환영을 내는 등 교민사회가 흥분 속 저변의 기운이다.

○...자일동료들은 심상오 모데 공동선언에 관해 이기를 나눴다. 오사카(大阪)이쿠노(生野)에서 신동경을 운영하는 송형주(48)씨는 "두 정상에 단상 가져오면도 1백원을 주려 했는데 이기는 3백원을 줬다"고 말했다.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의 김우순(68)씨는 "북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격해 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은 공동선언 뉴스를 상중계한 한인방송들에 눈과 귀를

고집이 강하며 TV를 시청하느라 반갑게 삼치기도 했다.

▶선언과 남구주 이보도민회(회장 최호진)은 "회담까지 발표 후인 것도 장담할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교외의 실업인들이 자주 세상을 뜨는 상황에서 이사가 교육방송으로 다뤄선다"고 말했다.

○...자일 한국인단은 15일 조총련에 대해 남북 공동선언의 진상을 바탕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협상만하게 이회하고 교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기숙(金基淑)단장은 "한수(韓水) 조총련 외향 요로 보내는 자외에서

이년 가바(加巴)세계한국인수련 대회에서 함께 동원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의 내용과 방향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조총련도 환영을 내며 "모든 자일동료들이 사상을 단제 소속의 자일 동포들 불일 의 협상에 협조해 나갈 것을 결심해 호소한다"고 밝혔다.

○...남북 모두에서 환영을 한 바 있는 자일동로 요로과 가수 김형진(金炯鎭)씨는 15일부터 남북회담의 열정을 담은 자신의 가곡 "고려산신 내사랑"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받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www.wolsol.com.

日 조총련·民團 '한마음 축제'

▶북은 이 작업을 지원해줘서 조총련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 협의로 일한 계획보다 앞장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은 1998년 평양에 가 당시 김일성 주석 앞에서 노래했으며, 1999년에는 서울에서 오페라 카바레의 주연을 맡았고, 1999년 서울에서 일본노라를 처음으로 부른 바 있다.

한편 자일동로(한정) 아이키(아이키) 형 분부와 자일조선청년동맹(조선청) 아이키 형 분부 등 한년·학생 5단체 대표는 이날 나고야(名古屋) 시내에서 합동회견을 하고 남북 공동선언 등의 회담 성과를 축하하는 발언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주)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공동선언이 채택된 뒤 AP통신과 외신통신사 기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을 축하했다. 그의 성명 미 함참의장도 "정상회담만으로 주한미군 축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라고 밝혔다.

○...자일스 회의 전 주한 미대사는 "이번 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의 운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며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한국은)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대통령이 남북교류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절찬이며 미국은 이제 한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yw@red.an.egg.or.jp>

남한말 북한말

바벨탑의 전설에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神)의 경고가 깔려 있다. 벽돌로 탑을 쌓아 신이 있는 하늘까지 닿겠다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를 꺾기 위해 신이 부린 솜수가 언어교란이었다. 갑자기 사람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지니 알아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 공사는 자연히 수포로 돌아갔다. 기원 전 3세기 바벨론의 신관(神官)이자 역사가였던 베로수스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벨탑의 실패는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록, 역사가로서 '오집'을 남겼다. 바벨탑의 전설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지구상에는 약 6천종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한 7천만 인구가 공용어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사용인구로 따져 세계 20위권에 드는 언어다. 개몽적으로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된다. 같은 어족에 속하는 몽골어·몽골어·타타어 등과 구조적 공통성을 보인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이 그렇고 관계대명사와 성(性)의 구별이 없는 점이 그렇다는 것이다. 타타어에서 출발, 바이칼 호수와 몽골·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정착한 삼족의 일파에서 한국어의 기원을 찾는



하설도 있다. 분단 5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똑같은 한국어지만 남한말과 북한말 사이에는 격차는 차이가 생겼다. 1960년대 중반 김일성(金日成)의 교시로 문화어가 만들어지면서 차이는 더 커졌다. 그 가운데는 이대물고기 냄새를 맡게 풍기는 말도 있지만 순우리말로 꾸며 다듬어진 말들도 많다. 짚신(습리퍼),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물맞이칸(샤워실), 갑작바람(돌풍), 칠십지(도화선) 등이 그런 예다. 구광동(디딤돌), 물레김(뚝김), 뜯개부부(사실혼부부)처럼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도 있지만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2박3일만에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는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서로 언어가 달라 통역이 필요했다면 것처럼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언어는 한 사회집단이 '합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의적 음성 상징체계다"는 미 언어학자 버나드 블로치의 정의가 생각나는 이집이다.

정상회담 이후 바빠진 문화계

15일 막을 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벌써부터 문화예술단체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해진 문화교류를 겨냥해 문화관광부와 통일부는 문화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북한공연에 적합한 작품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연극·오페라등 평양行 준비 분주



◇음악=지문위원들은 음악계에서 교육 가능성이 가장 큰 작품으로 오페라 '순환전'을 꼽는다. 북한에서도 오페라·악극으로 제작과 정도가 공감대가 넓기 때문이다. 한국오페라단의 오페라 '황진이', 예술의 전당이 제작한 오페라 '심장'이 북한공연의 모범 중이다. 지난날 말 평양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이 끝난 자리에서 박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측 예술감독에게 '맞춤형'의 서울공연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 KBS교향악단은 북한 평양교향악단과의 합동·교향 연주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중 남북한 지휘자를 교환하여 연주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카이안 국제지휘콩쿠르 입상자인 평양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익진씨가 KBS교향악단을, KBS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 박은상씨가 평양교향악단을 각각 객원지휘하는 것.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가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유러시언필하모니이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에 해당하는 평양교향악단에 견줄 만한 대표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서로 격을 맞추기 위해서다. 독일 케네 인스티튜트는 지난해 무산된 '평양 음악상 관현악단'의 서울공연을 추진 중이다.

◇연극=남북교류는 여성극극 '순환전'이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극예술협회(이사장 박양애)는 호암아트홀(7월 2일)에서 공연 중인 '순환전'을 오는 8월에 평양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마지막 초연작임을 밝히고 있다. '순환전'은 판소리담 가본으로 현대적 스토리와 연가적 결합한 일종의 한국판 뮤지컬.

박이사장은 "보단 50년 동안 남북도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전통의 소리와 몸짓이 담긴 여성극극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연 중인 '순환전' 출연진과 북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평양에 이어 서울과 해외동포 밀집지에서도 남북합 동공연을 할 생각이다.

문장 추방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서울 공연의 흥겨운 리듬에 섞어 국내외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 퍼포먼스



1998년 5월 평양공연을 할 리코엔젤스 단원들이 민중대 학생공연예술단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동질성 회복에 초점 맞춰 작품선정 여성극극 '순환전' 8월쯤 北서 공연 합작영화 '춘사...' 올가을 촬영 예상 광복절 기념 합동 미술전시도 계획

'난나'도 북한공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영화=합작영화 제작도 시사권 전망이다. NS21은 '춘사 아리랑'을 남북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보애 NS21 회장은 최근 "1995년 북한 조선수출입영화사측과 합의한 상태이므로 이르면 가을쯤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자 주인공은 남한에서, 여자주인공은 북한에서 기용하기로 하는 등 이미 주인공 캐스팅이 끝난 상태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그린 '명성황후'의 공동제작을 비롯해 남북 공동영화제 개최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김호선 감독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남북간 교류 분위기가 급변함을 타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소설가 황석영씨도 자신의 소설 '장길산'을 북한과 손잡고 영화화하겠다는 북한을 찾고 있다.

남북합작부자는 아니지만 북한 현지 촬영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6·25 전쟁때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아름다운 시절'의 이광모 감독은 실연민의 이야기를 자신의 두번째 작품으로 정했다. 이광모 감독은 촬영을 반드시 북한에서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통일부 등에 협의하기

를 요청해왔다.

◇미술=한국미술협회는 광복절 55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관동감 자유의 집에서 '남북 미술인 합동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와 북한이 고향인 남한 원로작가 30여명이 자유의 집에 작품과 함께 등장한다는 계획.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간접 교류를 통해 북한측에 초청장을 요청해 놓았다. 한국미술협회는 남북미술인 합동전시회가 성사되면 한국작가 중 희망작가와 북한 미술인·해외동포 작가들이 인터넷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한민족 사이버 순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술=그간 교류가 뜸했던 화술계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단군학회장은 김장애 고려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해 고려대와 김일성종합대가 비정식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외에, 북한 사회과학원과 2000년 평양에서 남북화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군학술교류 모임을 열기로 했다. 현재 제3국에서 실무자끼리 접촉해 제1차 발표지와 내용 등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올 가을엔 한국 통일포럼과 북한의 사회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회가 열린다.

◇방송=실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북한방송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는 정상회담 이후 협회 차원의 방송을 예정하고 있으며, 북한 내 배우들·유명한 등 생태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역사물·문화유적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협회의 한종관 사무총장은 "방송의 특성 상 재한 교류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교=조계종은 지난 8월 만주공동체 추진본부로부터 유남 불의한 '남북 불교 교류제'나 개최를 위한 협의할 것을 시 작할 예정이다. 앞서 부처님 오신날에 북측 조선불교도인명과 공동 법원문을 발표한 조계종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조선불교도인명과 다양한 공동행사 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예총 조세현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북측의 대남시업창구가 아태평화위원회로 일원화되면 과도기에는 가능하겠지만 부문간 교류가 확대될 경우 업무비례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폭이 넓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예총은 북한 문예총과 일정한 예술단체간 공동작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대중문화팀

# “이제 고향 갈 수 있다” 뜯눈 밤샘

## 비전향 장기수들 “통일 염원의 결실” 환영



### 新 남북시대

“우리들의 송환이 자유로운 남북 왕래의 시초가 돼 통일을 담담기기를 바란다.”

1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비전향 장기수 살터 ‘우리 텃밭’원, 유한옥(柳漢玉·90)씨 등 5명은 남북 정상회담 동선언 소식을 “통일로 가는 큰 걸음”이라며 반겼다.

병석에 누워 있는 卍씨는 고향방문 이야기에 눈물을 주부루 흘렸다. 양희철(梁喜哲·65)·인희삼(安喜三·70)·신인영(申仁英·71)·조창순(趙昌順·71)씨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쁜에 밤을 지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45년을 복역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金善明·75)씨를 비롯, 홍경선(洪慶善·75)·손성모(70)·유은형(76)씨 등 비전향 장기수 7명이 함께 살고 있는 ‘봉천동 탄남의 집’에도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

평북 박천이 고향인 김석철(金錫哲·86)씨는 “복역은 아노와 4남 2녀가 있다. 8월이면 그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 현번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장호(張浩·80)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도 “오는 8·15를 즈음에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환호했다.

노동신문 기자로 1958년 간첩혐의로 수감돼 41년 풀려난 卍씨는 “57년 7월 지방에 장기 출장을 떠났다고 속이고 평양에 두고 온 아내(65)와 아들(42) 도습이 눈앞에 이젠 거린다”면서 “내가 북으로 가는 것보다 민족분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출소해 서울 은평구 ‘탄남의 집’에 살고 있는 우용각(禹用角·72)씨도 “남북 정상이 두번에 단독회담을 했다는 소식에 모종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충실히 이행돼 북쪽에 두고 온 처와 자식들을 만나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뻐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환(權五煥·63) 상임대표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 염원의 결실”이라며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99명과 지난해 세차례 사면으로 석방된 26명, 법무부는 현재 복역 중인 장기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인사들이 15일 우리텃밭원에서 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실린 신문을 보여 기뻐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은평구 길천동, 파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8곳에 민간협동 단체인 ‘탄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협·천주교정의구현사

재단 등 26개 종교·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결성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정부 발표와 달리 비전향 장기수는 현재 88명이며 이 가운데 55명이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전향자 중 김승덕(68)씨 등 3명도 송

환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환 희망자는 90세 이상이 2명이며 80대 12명, 70대 32명, 60대 11명, 60세 미만 1명이다.

이무영·이기영·정희식 기자 <mooyoung@joongang.co.kr>

### “남북자·국군포로 왜 빠졌나”

#### 송환 언급없자 가족 침울

15일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남북자 가족과 민관단체들은 남북사·국군포로 귀환이 합의문에서 빠진 데 대해 침울함을 나타냈다.

지난 2일 결성된 ‘남북가족포럼’은 이날 창간에서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남북 정상회담 진전에 포함시킬 정도로 자국의 보초에 성의를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몇몇 선기를 검토할까’ 하는 조심성 때문에 본체제까지 못 찾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우리 정부가 양우 실무협상에서 남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면운동·무임부 형의방문 등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의 김용진(金龍鎭)상임의장은 “우리 정부는 북송을 마쳐 고국을 위해 싸웠던 국군포로들과 남북관계의 개선들이 원귀와 내면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3천 7백 50명 중에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한 사람은 4백61명이다. 또 한국전쟁 당시 납치된 국군포로는 5만명 이상이며 이중 2백60명이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재식·이기영 기자 <angelha@joongang.co.kr>

### 訪北 기업인 3명 혈육 만났다

#### 장지혁 고합희장동 ‘감격’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남북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한 15일 0시 평양시내 호텔에선 김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남북간첩위원회의 위원장인 장지혁 고합희를 회장·김성모 만나이코리 아 회장·백낙한 인제학원 이사장 등 송대통령을 수행한 3명의 기업

인이 북한의 혈육들을 만난 것. 6·25전쟁 이후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살아온 50년 만의 재회였다. 세 기업인들과 북한의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찾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뜨겁게 끌어안았고, 상봉 내내 두 손을 놓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당초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가 지경까지 계속 이뤄졌던 탓에 더 극적이었던 공동취재단



# 이인모씨 전례 따라 '訪北' 형식 갖출 듯

## 민족경제 균형 발전은

# 소득 수준차 해소 의지 하향 평준화 막아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립을 남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남북간의 경제협력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경제협력과 강화하겠다는 "전면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그 뜻을 새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남북 경제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전문가가 많다.

박영근(朴映根)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은 "합의안은 남한이 북한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박석삼(朴錫三)주사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아주 어려운 만큼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사는 인연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규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경제의 이익과 발전에 부합한다"고 입을 맞춘 것도 이런 주장일 수밖에 없다.

사실 남북한의 경제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 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1998년 기준)은 6천8백23달러로 북한(5백77달러)의 12배에 달하고, 국민총소득(GNI, 3천1백68억달러, 98년 기준)도 북한(1백26억달러)의 25배가 넘는다.

특히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한의 사회간접비용 등을 지원해 북한 경제의 회복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사정도 그리 좋지 않은데 북한을 지원하면 남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남북한 경제의 하향 평준화될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북한 지원 규모나 개인지원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 세금(재정)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국제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대기업의 북한 진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추진세력이 여러모로 맞지 않다.

정부는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자금 지원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상원조를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북한이 호혜적인 협력을 해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pakj@joongang.co.kr>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남북 정상 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남북한은 1993년 3월 이인모(李仁模)씨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의 전례를 만든 경험에 있다. 인민군이었던 주씨는 한국전쟁 때 더유산 동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52년 체포돼 34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에도 끝내 전향을 거부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 들어 남북간 연대권 접촉을 통해 송환 시기와 방법을 사전 조율한 후 주씨를 판문점 평화의 집을 거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주씨의 북송 형식은 '방북'이었다. 주씨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북 3일간 ▶방문 대상은 평양의 부인과 딸 등 가족 ▶방문 목적은 고향방문과 가족 상봉으로 기재한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통일원에 신청, 증명서를 받았다.

법무부와 통일부에서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방향이 확정될 경우 주씨의 전례에 따라 송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산가족의 상

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는 점에서 93년 양강적인 주씨 송환이라는 '외교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는 입장이 남아 있다.

국방부는 98년 국회에 비전향 장기수류 북한군부와 병교관들은 병사들 간의 친연관계를 북한은 휴전 이후 국군부로는 물론 남북재: 전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국방원도 지난해 2월 55년 이후 북한에 워·남북한 4백4명 중 22명이 북한 정착을 수락한 후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남괴간접 송환 문제도 남북간에 는 미묘하다.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인민군은 남북간합이는 송소 후에도 전향을 거부했다면 비전향 장기수다. 그러나 정부의 한 남괴자는 "북한행을 원하는 남괴간접에 대해 장악 북측이 모르는 이들 이라고 하면 서로간에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북괴이 송환된 주씨를 통해 수십 년간의 옥살이와 고된 노동으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남한 비방에 나섰던 전례도 정부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채병진 기자 <mfmc@joongang.co.kr>

## 고민에 빠진 6·25 기념행사

50돌을 맞은 6·25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다.

남국은 50돌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盛大하게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북한이 6·25 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더욱 곤혹스럽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행사를 취소하는 등 조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오는 19~21일 제3회 도순산 건국문화제를 여는 강원도 양구군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도순산전투 승전기념 촛불행진'을 '홍익인간의 숭고정신'으로 이념을 비웠

- 50돌 맞아 성대한 준비 ▶다. 대신 '북한 평화 상인' (7권)을 행사에 추가했다.
- 지방자치단체·군 당국 ▶16일부터 6·25전쟁 및
- 일부행사 취소·조정기로 ▶순천내일 50주년 기념사업

을 펴는 유공 방학(학내)도 마찬가지. 부대 관계자는 "남초 통일기원 경기대회·군악연주회 등盛大한 행사들 준비했으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감안해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3일간 '남북간 세계평화제단'을 여는 경북 김천군은 남도 인민군 포로로 불렀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전쟁 당시 미군 입원 라이언(68)씨 등 8개국 참전용사 24명을 초청하고 진흥국·전쟁 영화제·거간지남사 등의 행사를盛大하게 치를 예정이었다.

군정측은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를 감안, 전쟁 회고보다는 평화복에 무게를 두도록 행사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남초 없기로 한 6·25 관련 행사 중 ▶김천가족 초청 위안곡 연(25일·리대호출) ▶국기를 위한 기도대성회(28일·충무체육관) 등 2개 행사를 취소했다.

인천시도 올해 9·15 인민선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규모를 예년보다 크게 축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준호·이한호 기자 <chojh@joongang.co.kr>

### 교과서 북한 내용 내년에 대폭 개편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의 도덕·사회교과서가 북한의 사회·문화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남북의 화해·협력강조하는 등 대폭 개편된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체제 비교의 우위를 강조하는 주안식 교육 내신 도본·놀이와 문화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참여·세정 학습이 확산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최장에 내년부터 개편되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 심의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비전향(非)·도덕 교과서에는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북한 정보 이해하기▶통일의 지고취 등 남북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뤄진다. 중학교에서는 ▶북한 바로 알기▶안보와 평화▶통일준비·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등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강조된다. 강희준 기자 <kanhji@joongang.co.kr>

방북단이 전하는 北인상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한 기업인과 문화계 인사들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영광을 평생 간직할 것이며, 대접을 아주 잘 받고 왔다"고 방북 소감을 말했다.

주요한 초대소에서 묵은 특별수행원 24명은 14일 밤 남북 공동선언문 합의 직후 숙소 1층 응접실에서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축하 파티를 벌인 뒤 숙소 이층을 편 '주말제(夜)'로 조별해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이들은 구본무(具本武) LG회장이 준비해온 양주 두병이 바닥나자 증중용 심성건가 부회장이 술을 더 가져와 마셨다. 북한은 이들이 묵은 방마다 특곡술·간짜 포도주·퓨즈(오리간자숙) 등을 남장고에 가득 채워놓았다.

손병두(孫炳斗)김경현 부회장은 "김집 때 냉면 두그릇을 먹은 것은 처음"이라며 "맛있더라 서너그릇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티민·시계 등 선물을 준비했는데 북한 안내원과 운전기사가 받지 않아 모두 모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행원들은 김정일 국방의 원장에 대해 여러가지로 경이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가는 방송은 KBS뿐 아니라 MBC·SBS 본다. 역시 우리 관안을 먼저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의원장은 특히 정동진(鄭東進)현대인사에게 "또 만나 반갑습니다. 이따님은 잘 계시나요. 다음에 꼭 같이 오십시오. 울짜 파격리도 갖고 오세요"라며 반겼다는 것.

김재섭(金在奭)무역협회장은 "북한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한 사람이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실린 것을 알고 있다고 할까 놀랐다"며 "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그들은 남한을 침략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희장은 "공짜바닥과 아저 속에 산스크린 넣은 요리도



먹었다"면서 "목관공의 시상이 대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호(李源浩)부회장은 "8. 9월께 중소기업 대책부가 조사단이 방북하기로 했으며 북측과 중소기업 전문공단 설립·위탁가공업 확대 문제 등을 논의

를(달라)를 주려 했으나 누이가 한사코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북 출신 기업인 장치예(張致喆)고협 회장은 "이번에 가보니 가까운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인척들은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곽희장은 "북한에서의 일정은 만족스러

이 바래고 있지 않으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앞에서 북한의 개방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車炳錫)예송원 회장은 통일문화 전담 공동연, 남북한 공인인력 교류 등에 대해 북한측 문화·스포츠·방송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 전 연희전현 동창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이계상씨와 인민애우 전두영씨를 만나고 싶었으나, 이씨는 연애이 되지 않았고 전씨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종석(李鍾奭)예송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일민경제대학 은기정 총장·조국통일연구원 박동근씨 등을 만나 대화했으며 '반반도 평화'를 위한 전담(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주길장은 또 "순안포항 연합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관건 중 결합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있는 '지도자'였다"며 "회담 기간 중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고 민족중흥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세로 방북단원 용 분식했다"고 말했다.

박기봉 직접자사 사무총장은 "평양에서 마주친 시민들은 모습이 상당히 밝고 활기차 보였으며 시가지도 깨끗하고 북치 공해가 없어 짜릿했다"면서 "여운형씨의 딸인 여원구씨와 인연이 매우 활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여성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만난 북한 여성 대표도 당당했다"고 말했다. 쥬츨장은 "이제 세상이 달

냉면맛에 반해 3~4그릇 먹기도 푸른 들판 보고 식량난 해결 예감 개인 선물 안받아 모두 모아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부회장은 "14일 오후 경양 인민궁전에서 남북한 경제계 대표들이 1시간15분 동안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손길승(孫吉承)SK회장은 "중에서 모아기하는 모습과 옥수수가 자란 모습을 보고 식량 문제가 골 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희장은 "순짜 오찬은 자유롭게 술과 추배를 권하는 자리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교류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자 송의원장이 '합계 노력하자'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강성모(姜成模)라니아코리아 회장은 14일 밤 고창인 함남 북청군 신묘리에 살고 있는 사촌 누이동생을 평양에서 만났다. 그는 준비한 시계·화장품·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약간의

고 모두 잘 다뤄주었다"면서 "머리로 생각하던 북한과 가슴으로 느끼는 북한이 너무 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큰 가지적인 성과는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생각하는 16일 중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구본무 LG회장은 "성원을 갖 고 떠났는데 일정이 바빠 현지 기업인과 개별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다"며 "북한의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편리하고 잘 가꿔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희여대 장상(張賞)홍장은 "북한은 많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며 택시사가 발달해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여성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만난 북한 여성 대표도 당당했다"고 말했다. 쥬츨장은 "이제 세상이 달

사회부·산업부·문화부·정보과학부

"이산가족 재회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재회추진위원회 조동영 사무총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약으로 나와 김대중 대통령과 약속: 모임을 모교선 기층이 좋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 습니다. 빨리 1천만 이산가족이 북한에 남겼던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회장 趙東英)의 조동영(趙東英·76)사무총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타지면서 이산가족 재회의 기대로 꿈에 부풀어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최사규총장은 1947년 화업을 위해 서론에 왔다가 전쟁이 나서면서 실업인이 됐다. 4남2녀 형제 중 자신과 다른 형제 1명만 북한에 그동안 공직·연공에 몸담아 오면서 풍속에서만 북한의 4형제를 만나온 지 어언 50여년.

한개 누이 한 명만 신의주 인근에 살고 있을 뿐 다른 형제들은 모두 고인이 됐다.

"85년 남북에서 각각 50명의 이산가족이 휴전선을 넘어 가족을 상봉한 뒤 89. 92년 두차례의 남북 방문단은 논의만 되고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방문단의 이유에요 없이나 컸는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 중 현재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가족을 상봉한 사람은 5백여명뿐.

"이산가족 중 80세 이상의 노인만 8만여명에 이릅니다. 이산가족 재회는 하루가 시급한 것입니다."

이산가족재회추진위는 82년 '이산가족 문제해 결세계에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북 출신 실업인들이 모여 결성했다.

96년에는 세계 1백53개국 2천1백20만명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반일 시장 확대 서명'이라는 기록을 게네스북에 올리기도 했고 매년 9월 20일 이산가족의 날에는 남북 인권대 및기 등의 행사도 주최하고 있다.

"북에서 전래해: 뉴스를 보면 북한의 대외가 이전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개방 시선교화와 가족상봉이 기대되었으면 합니다."

성세운 기자 <scopip@joonang.co.kr >

# 원샷, 흘러쓴 필체 거침없는 김정일

## 전문가 분석

인일 계속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격적인 언행을 심리학자나 역술인들은 어떻게 볼까.

이들은 "금위원장의 말투와 글씨체, 언뜻언뜻 스치는 행동에서 성격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금위원장은 지난 14일 밤 남북 공동선언문에 친필 서명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렷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데 비해 잡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큼지막히 5도 각도로 이름을 흘러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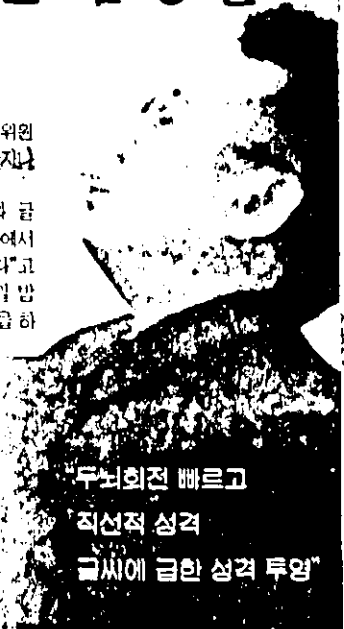
그는 이어 촉매를 들면 서도 본인이 먼저 잔을 단숨에 비워 외교 석상에선 이례적으로 '인샷'을 보여 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 하는 직선적 성격에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일 것"이라고 유추한다.

집신분석학계의 원로인 장병립(張炳立)서울대 명예교수는 "글씨가 크고 틀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건 제재 없이 성장했으며 몸이 건강하고 폭이 큰 스타일임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張교수는 특히 "긴장하기 쉬운 공식석상에서 적절한 유머를 자주 구사한다는 건 학습의 결과이기보다는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역학자인 백운산(白雲山)씨는 "인샷 등 거침없는 행동으로 볼 때 그가 모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주관하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것 같다. 또 급한 성격이 필체에 투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金東元)한국민족역학연구원장은 "다소 과장된 필체로 볼 때 속 마음은 오히려 유약할 수도 있



두뇌회전 빠르고  
직선적 성격  
글씨에 급한 성격 투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다"며 "인샷도 '자기 방어'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회면에 비친 금위원장의 손바닥이 김대중명에 비해 유난히 붉은 것을 놓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호사가들의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피부질환 등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손이 붉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세희 의학전문기자, 이상복 기자 <jizhc@joongang.co.kr>

## 통일기금 1억 쾌척

### 경남하동 김용지 시장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본 경남 하동의 독지가 김용지(金龍智·72)씨가 15일 통일기금으로 1억원을 내었다.

하동시외내스주치장 운영업체인 ㈜대성산업 대표인 김씨는 "14일 밤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문 내용을 듣고 너무 기쁘기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 기증했다.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 “큰일 하셨습니다” 환영물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분단 56년의 첫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고 15일 북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방북단 일행에게 시민들은 환경삼이 큰 박수를 보냈다.

시민들은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무중단 선명 메시지를 안고 온 방북단의 노고를 축하하면서 남포에 입성한 대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기원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성남시 서울광장에 인적란 방북단 일행이 차량을 타고 광장 입구로 나서자 길가에는 늘어서 있던 수천명의 학생·시민들은 “와”하는 함성과 함께 손들고 박수를 외쳤다. “노조원 알아서 사 해결요” 등의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금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고 이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등의 뜨거운 인사를 받았다.

양재역~강남대로~한남대교를 거쳐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거리의 시민들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을 축하했다. 강남구·서초구 일대 대로변에는 ‘분단을 뛰어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등이 적힌 수천개의 환영 현수막이 길과 분위기를 더욱 돋웠다.

간혹 분위기는 서울시장 앞에서 김씨에 날렸다. 오후 7시쯤 방북단 일행을 태운 차량 행렬이 도착하자 시장 수변에 모여 있던 시민 5만여명이 위새기 환영을 펼쳤다. 방북단 일행이 5분 기량 일행이 있는 동안 이들은 “김대중 ‘남북통일’을 인도했다. 금대통령은 잠시 차에서 내리 위새기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시민들도 갖다줄을 건네며 뜨겁게 맞이했다. 이때 시청에서 준비한 오백 봉선 수천개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회사원 송재훈(53)씨는 “간편 화단을 통해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김대중 국방위원장이 남북에 직접 와서 우리의 입장을 보면 개방과 협력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사회부·전국부



15일 오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 교보빌딩 앞을 지나자 환영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변산구 기자

## 전국 곳곳 축하 현수막 연도시민들 합성... 박수... 金대통령 下車해 악수

하지만 시민들은 금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북과 귀국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 지나간 기대감이나 선부론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강변연(49)씨는 “남북간 군사대치의 긴장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장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축하의 함성은 지방에서도 메아리쳤다.

대구시 중구 시민회관 3층에 자리한 이북5도민위원회 대구사무소 사무실에는 실감만 20여명이 모여 대통령의 귀국을 지켜봤다.

고장이 빵의 손안팎을 자라라는 한 응수(42명·73) 알아버지는 “옛 모습 찾아보기 위해 TV를 켜어저러 보았는데 자식을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너무 쉽게 정상회담이 진행된 게 걱정될 정도로 성공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강원도연합회는 이날 모임을 갖고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광고를 언론사에 내기로 했다.

## 실함민의 부문 꿈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15일 서울 중로구 이북5도청 이산가족상봉신청센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위해 전국 각지에 장문기 기자

남북자 가족 최우영씨

왜 아버지 얘긴 없나요

“왜 우리 아버 얘기는 한 마 디도 없나요.”

1987년 1월 백령도 인근 공해장에서 조업 중 납북된 동진 중 어로장 최종석씨의 딸 우영(私英·30·사진)씨는 15일 “하루 내내 서러움으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14일 밤 보도된 남북합의서 전문에 북한은 우리측으로부터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약속받았으나 남북



자 송환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崔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이후 아버지가 납북 이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10여장과 16년전 찍은 가족사진을 손에 든 채 한시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빠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며 “정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의 섭섭함은 정부가 동진호 선원의 송환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무상으로 일관해 왔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崔씨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 지난해 1월에서야 부친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崔씨는 “어머니가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김대중령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뭔가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에 14일 남북신참까지 했다”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납북자 송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한 기대를 밝혔다.

한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비전향 장기수 이증씨

北서 가족과 살았으면...

“북에 송환되면 아내와 두 이들을 만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918호 병실. 보름째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있는 최고령 비전향 장기수 이증(李鍾·90·사진)씨는 장기수 문제 해결소식에 눈물을 글썽였다.

“같은 민족끼리 반세기 넘게 대화할 중단한 채 사는 게 참 수치스러



웠는데 정상회담이 열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역시 역사는 발전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911년 충북 영동의 가난한 양반 집에서 태어난 그는 일아홉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운집하던 교학당(敎學堂)에 다니며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해방 직후 교학당에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던 그는 수차례 투옥됐으며,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50년 6·25 발발로 인민군에 의해 끌려나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

53년 가족들을 남겨둔 채 임무를

띠고 남한으로 내려온 그는 59년 검거되면서 기나긴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김기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4·19를 맞아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69년 석방됐지만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15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87년 6·29선언으로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88년 석방됐다. 이후 그는 장기수들이 모여 사는 서울 관악구 병천동 ‘ 만남의 집 ’에서 살고 있다.

병상에서 가족 얘기를 하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경의선등 철도복원 준비 박차

정부, 임진강 공동 치수사업도 北에 제의키로

L G, 비무장지대 인근에 국제물류센터 추진

정부는 경의선과 김원선·금강산선 등 끊긴 철도 복원을 위해 용지 매수와 기반설계·실시설계 등 남한 구간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북한에 선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수자원 관련 자료교환과 공동 수자원 조사·치수사업 등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역 우·수위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홍수 공동 예·경보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남북 결합은 북한의 수용 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합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는 북한이 제기한 것을 추진하면, 다음엔 남한이 요구하는 것을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남북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산결제·투자보장·이종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민간 차원의 대북 결합 기업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LG그룹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4백만평 규모의 국제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평양에 다녀온 구본무(具本茂)회장은 15일 그룹 측근에게 이같은 사실을 언급해 그동안 그룹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국제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그동안 개성과 해주 등 비무장지대 서쪽 지역에 국제교류협력지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북한과 중국·러시아로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한 종합 물류기지로 국제회의장과 전시장도 함께 서울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3단계에 걸쳐 10억달러로 잡고 있다.

김영욱·이재훈 기자 <youngkim@joongang.co.kr>

# 이산가족 상봉대규모로

## 적십자회담 이달 가동

###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기 합의 남북 '2정부 유지 통일' 추진

#### 김대통령 서울도착 연설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우리와 합의된 기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가 남북 양쪽 사이에 이미 합의됐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관련기사 2 3 4 5 6 7 8 9 10 11 13 16 17 18 19 21 23번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합의보는 최종 합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를 위해 바로 이남부터 남북 적십자사회담을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결합의 범위는 단연할 수 없지만, 상

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해결에 북과 합의됐음을 보고드릴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 "(연방제는) 전혀 이행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근자에 북도 이 점을 인식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존재하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체제, 2정부는 현재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 각료(장관)회의, 국회회의를 구성해, 합의기관으로 만들어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남북 견해가) 상통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회자와 전문가들도 포함해 양쪽 대표가 얘기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

장과) 회, 미사입 예기도 했고 주한미군 통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다"며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협력·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고 가능성을 보고왔다는 것일 뿐 인쇄실과 심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주체성만 추해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많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이날 북한의 조영목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으며, 오후 4시20분쯤 2박3일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상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김위원장 "남쪽 비방말라"

#### 국방위에 지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5일 오전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남쪽에 대한 비방 금지령을 지시했다고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했다.

이날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들에게 "유전적이고 어디서도 갈대로 남쪽을

비방해선 안 된다"며 "실사 남쪽이 먼저 비방을 하더라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장 10여일 남아있는 6·25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측근들에게 "그거 잘 안 되면 어제 공동선언 또 휴전조각한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남쪽의 일부 공시 수행인들에게도 "그거(북쪽에 대한 비방) 잘 조절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박 장관이 덧붙였다. 임석규 기자

#### 공동선언 후속조치 곧 협의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남북회담 대미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15일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어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쪽과의 협의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단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따른 준비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로 남북협력방안을 발굴해, 북쪽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오재규 김민한 기자 ohtak@hani.co.kr

## 정부 "보안법 정비"

정부는 남북 정상 6·15공동선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할 적극 추진하고 개폐 전까지는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 관련기사 16번

김장 교위관계자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남북교류문제는 지금까지 별지행와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해 왔지만 김장회담을 계기로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여러 개의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임희은 서울지검장은 이날 "법은 그대로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시안은 동가-배경을 잘 따져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학가의 인공기 계약 사건에 대한 '임종 처벌' 방침을 철회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제보 문의 general@hani.co.kr

# 남북정상 끌어안고 아쉬운 작별



## ■ 귀환하던 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틀 전 도착 순간 단풍이나 겨울의 가슴을 울리는 배웅을 했다. 두 정상은 헤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서로를 끌어 안았다. 2박3일 동안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고 통일 의 씨앗을 품은 대통령 전용기와 수행원 및 기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서울공항에 내려 앉았다.

◇...김 대통령은 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정상회담 과정의 뒷얘기를 풀어놓으며 자신있는 목소리로 남북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몇 차례 있었지만 김 국방위원장이 상당히 합리해 공동선언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해 어려운 순간도 있었음을 전했다.

또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합의한 과정을 설명하며 "당신이 서

## "만세"함성속 김위원장 극진한 환송 오찬때 손맛잡고 '우리의소원'함창 김대통령 "몇차례 고비도" 뒷얘기

올에 와야 세계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믿는다. 동방예지국과의 여의가 충실하다면서 10여살이나 나이를 더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에) 오지 않을 수 있느냐고 놀랄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경양을 출발한 지 1시간10분여 만인 오후 5시 25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 대통령은 이관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한동 총리서리 등 마중 나온 3부 요인과 김정대표, 심향린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이철호 씨는 경계에 겨운 듯 간간히 손수건 훑는가에 가까웠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보내는 김 대통령을 반웅하는 등 마지막까지 극진한 대우를 보였다. 오후 4시경 공항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인민군 명예의령대와 수박관의 환영인파, 근엄대 앞을 차로로 지나 전용기 트랩에 도착한다. 4~5초 가량 끌어안고 뺨을 맞았다.

김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는 동안 김 국방위원장은 트랩 바로 앞의 뒷좌석을 지고 서 있다.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도둑이 되듯 했다. 김 대통령은 트랩을 타고 내려 보 돌았다

마지막으로 복엽 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눈을 맞추며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전용기 문이 닫힌 뒤에도 김 국방위원장은 김정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인사들과 함께 전용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주민들은 전용기가 이륙할 때까지 발을 동동구르며 연이어 "만세"를 외쳤다.

◇...김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3시35분경 김일성 종합대학 앞 등성 거리에 도착해 평양시민들의 환송 꽃다발을 받았다.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성) 여성 악대의 음악과 연도에 모인 시민들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 대통령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반대편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내렸다. 김 국방위원장은 김 대통령으로 손을 들어올려 박수를 친으로써 시민들의 환호를 유도했다.

김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할 때 시민들의 구호는 "만세"와 "김정일 열사들의 영령들"이었다. 이날은 "만세" 한 가지로 바뀌었다. 환송인파는 10만 명 정도로 보였으나 열거된 환송은 이를 건다 카이 가 없었다.

◇...이날 오전 환송을 위한 김 대통령은 오후 12시 중앙거리의 마지막

공식일정의 환송 오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면복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복 대신 깔끔한 양복을 입고 나와 고별사를 끝낸 건배자의 역할을 했다. 그는 "이후 7천만 명의 상봉을 위한 순발"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우리측 답사를 맡은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남북간 화합과 단결, 교류와 협력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고 말하는 등 4~5차례 박수를 받았다.

오찬이 끝난 뒤엔 남북 7인단이 김 국방위원장이 "오찬으로 협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술을 권하달라"고 주문하자 김 국방위원장은 이들에게 술을 한잔씩 불렀다. 이어 김 대통령도 잔까지들게 술을 권했고, 박지원 문화부 장관의 주례에 따라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추창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또한 김 대통령에 대한 사실적인 평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대통령 자리에 자신과 똑같이 끝까지 앉지 않는 의자가 놓여있자, 최근 상을 불러 "김 대통령께 끝까지 있는 의자를 갖다주세요"라고 "추천"하고 "이제부터 준비하자고"고...라고 여러 차례 나 길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 특유의 말솜씨도 보였다. 그는 "모두를 큰 무언장이 술 실력을 고사했다. 역시 김 의위원 술 실력이 압도했다"고 호기심을 나타내며 고종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 대통령도 "나는 내년에 김 위원장이라고 할라고 말하 웃음을 보였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편안하고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15일 오후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서울공항에서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 '원샷' 삼패인 물꼬전환 상징

## ■ 합의 안팎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합의서 명문 14일은 한마디로 극적인 반전을 연출한 하루였다.

이날 오전 민수대의사당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확대정상회담'이 확대회담, 공식면담으로 민남의 성격이 격하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지체에 대해 한때 '회의론'이 제기됐다. 더구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차 단독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서울프레스룸에 앉아 있는 기자에게 김 대만 △김 대통령의 오후임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점 △전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일 뵙겠습니다'고 밝힌 적이 있어 2차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옥류관에서 오후 10시 일행만의 식사였다. 잠오 직전에 보내온 방송용 줄기사에서 오후 단독정상회담을 예고하는 기사가 송고됐지만 개최시간과 장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서울과 평양 양쪽 당국자들이 회담 개최사실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켰던 것이다. 회담장도 애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무실로 예정되었지만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백화원 양민관으로 변경됐다. 한밤중 남북의 실무진들이 밤을 새워가며 협상을 계속했다는 얘기다.

평양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화원에 나다니던 '역사적'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오후 2시56분 김대중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양민관 1층 차현관 출입문

## 철저보안 정상회담 한때 회의론

### "서명" 긴급타전에 프레스룸 출렁

앞에 수행원들과 함께 나와 있었다. 1분 뒤 현관문을 들어선 김 위원장은 성급성급 김어와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큰 목소리로 인사했고 이날 회담은 시작됐다.

6년여 동안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회담을 나는 두 정상은 남북에서 임동원 대통령특보, 황원탁 외교안보수석과 이기호 경제수석, 북쪽에서 김용순 대남담당비서관을 배석시킨 채 회담에 들어갔다. 남북의 기본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 가 된 이날 회담은 예상외로 길어졌다. 회담장 밖에선 "간혹 김 위원장이 웅변조로 뭔가를 설명하려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올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됐다. 7시로 예정됐던 김 대통령 주회 만찬은 회담 이후로 연기됐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2시간을 넘기면서 두 정상은 5시20분부터 휴식에 들어갔고, 남북한 화해와 통일 등 4개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평남으로 전달된 남북의 조간신문을 함께 보며 휴식을 취하던 두 정상은 6시5분부터 회담을 속개해 6시50분 마침내 원칙에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시간 3시간50분 가운데 3시간40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면서 "80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망인도를 받았을 때를 빼고 아마도 가장 긴 하루였다"고 술회했다.

두 정상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8

시 목랑관에 나란히 입장했다. 이날 만찬은 한반도 평화원칙에 합의한 두 정상의 흥겨운 축하파티였다.

이때부터 박후에선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작성에 들어갔다. 9시 목랑관에서 서명이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지구 하나하나를 합의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렸다. 북쪽에선 문장가로 알려진 립동욱 노동당 제1부부장(대남담당)이 문안작성에 참여했다.

오후 11시20분 백화원으로 돌아온 두 정상은 최측근인 임동원 특보와 김용순 비서가 배석하고 공식수행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두번의 서명을 했다. 이날 극적인 드라마는 서명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삼패인을 단숨에 들이켜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밤이 늦어 15일 서명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문안작성자들은 서명일을 15일로 기록해두고 있었다.

서울 프레스룸에 이 소식이 전해진 시각은 거의 모든 기자들이 하루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짐을 챙기던 12시5분 전이었다. 평양공동취재단의 기자가 국제전화통해 "11시20분 공동선언이 서명됐다"고 긴급히 알린 사실이 전해지자 프레스룸은 일순 술렁였다. 다음날 조간신문들의 기사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냉전종식 한민족 세계무대 우뚝

## ▶한반도 새질서

### 교류활성화로 이질감 해소 금물살 4강 입김 축소 남북 주도권 커질듯

6·15 남북공동선언을 본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 정상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은 계속 교류하는 가장 근위임은 본사로 평가받을 것이다.

또 남북 정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의 반목을 벗고 협력과 협력을 통해 남북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가 이 주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이 아니라 세계적인 협력과 교류를 주도하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역사적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우선 통일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 가지 합의사항 중 첫째 둘째가 지속적인 통일 운동이며 남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할 바탕 위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 단계에서 자국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북쪽이 '자주'와 '주권'인 경우 본지를 지켜서 해

선하며 하면 미국 등의 반발은 물론 국제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선언은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를 급속히 해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의 정상회담 기간 중 남북이 특별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안중을 보고 가장 놀랐듯이 이번 선언에 따라 활성화될 다변화 교류는 북쪽이 북한 남북의 인식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냉전 기

후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고 국가 보안법 같은 남북교류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대한 개헌 움직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 활성화는 선진 국가와 개도도상국의 중간에 끼여 애초에 끼여 있는 남북교류에 큰 틀로써 자극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 교류·협력은 북쪽을 개척·개발으로 이끄는 구실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

쪽은 '김 국방위원장이 유엔 총회 영웅 대그를 영웅으로 칭찬한다'는 발언을 전대통령의 '대통령'을 칭찬한 것이다. 2000년 6월 16일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일간의 정통성을 높인 것은 의미깊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이번 선언이 개발과 경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은 모두 협조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남북의 주도권이 강화되며 그들의 이익이 침해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수적 우위는 냉·전쟁을 끈두서야의 상충의 변화를 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대 기자 ohkang@hanm.co.kr

## "인민군 된것도 반공청년 된것도 모두 시대의 선택이었을 뿐..."

### ■ '반공포로' 인정일씨 김희

"이제 와서 얘긴데, 어차피 저들이나 난 '아님'에는 큰 관심 없어요. 인민군이 된 것이나 반공포로가 된 것이나 다 시대가 선택한 것이었지. 내 선택은 아니었거든."

대한반공청년회 총무국장 인정일(70·사천)씨는 지난 4월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한 다음날 밤처럼 밤이 한순간 어둠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말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한 숨처럼 내뿜었다.

고향인 평안남도 남포(현 남포직할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일씨는 1950년 9월 4일 공적으로 인민군에 징집됐다. "호의장의 광양체육관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어대어리하게 맞아서, 그런 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자라 인민군이 아니라 일가가 속임으로 모두 징집되더라. 그러고 1주일 동안의 신체

검사 뒤 부대에 배치됐지."

인민군이 북쪽감 중부에서 국한 피포작할 때, 안씨는 전열에서 벗어났다. "부조연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전열이 너무 불리했거든." 그러나 민간인 웃음으로 의정하고 길을 가던 안씨는 '남북미가 남북미' 남한 중추관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22년 8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휴전을 맞은 안씨는 유엔군의 심사시기를 통해 풀려나기도 구원청제도 못한 채 다시 인민군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북쪽으로부터 석달 동안 '실용공작'을 받았으나, 결국 남쪽을 선택했다.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때는 미군의 힘으로 봐서 아군이 이복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거지. 당고향에도 갈 수 있을 테고"

남에서 살아가 있던 인민군 출신 안씨는 그런 세월을 '남공청년'으로 살았다. 그동안 그는 고향에서 살고



있을 부모의 할아버지, 동생들 여기를 건져 가져다 달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신타처럼 곁에 두었다.

안씨는 오는 8·15 이산가족 상봉이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고 했다. 어차피 대상을 선정할 테고, 자신 같은 반공포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씨는 "이런 시" 일안에서 인민청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활활하듯 말했다. 글인양은 사진 김희 기자 ohkang@hanm.co.kr

## 김정일 위원장은 환경보호론자?

### '금강산 케이블카 반대' 개발-보존 애로 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기간 중인 14일 잇달아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단천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케이블카가 금강산에 삼도(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했다. 높은 사람들이 올라나 한다고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고 할 때, 남쪽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과는 대조를 이뤘다."

그는 또 휴무산을 소개하면서 "중공사람들이 금강산으로 개발하려고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에게도 말하고 본공회 통해 자연보호 의지

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순경에서 얻은 이익도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다소 과장됐지만 금강산 산다는 남북 사람들이 지켜내 실익이 많은 국립공원이라고 했더라'고 남북의 국립공원 오염 실태를 조망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연개발과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그 도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환경과 개발의 이질성을 지적해 김대중 대통령의 "케이블카로 어차피 안되는 등 수순보은 환경의 지를 과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상급한 환경보호주의자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로 보아 앞으로 남북환경 협력사업의 경우 별 충돌 없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성명 기자 chungsang@hanm.co.kr





웃음꽃 송별 오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백화관 영빈관에서 열린 송별오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담소하고 있다.

황명/청와대 사진기자단

## ■ 전문가들에 들어본 '공동선언' 5문5답

이번 공동선언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큰 선언이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소지가 많다. 권만학 교수(김희대·국제지리학),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에게 공동선언과 관련해 제기된 수 있는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편집자

1. 통일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 주장 아닌가?
2. 남북의 연합제인과 연방제인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북쪽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 아닌가?
3. 당국사회의 대화를 열기로 했는데 어떤 대화가 우선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보는가?

4. 남쪽은 애초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체제를 논의한다고 했으나 공동선언은 이 내용이 없는데.
5. 김정일 위원장의 답변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또는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 자주적 해결 당사자 원칙 남북 모두 필요 연합-연방제 북 '점진적 통일안' 수용 중요



### ◇ 권만학 교수

1. 공동선언 1항의 '주인' '자주'는 동상 북쪽의 인습체제다. 북쪽에서 자주는 주권군과 연결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주를 '당사자 원칙'으로 설명해왔다. 둘 모두 담고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분구 자체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당국간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2. 우선 통일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먼 일이다. 앞으로 임박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가능하다. 북쪽은 80년 '고려민주연방제' 이래 90년대 들어 통합적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91년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내놓는 등 간헐적으로 언급해왔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남북의 지역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사·외교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남북(북·남)인

합체 안에 급급해 들어온 것이다.

3. 공동선언 4항의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라는 전제에 비춰볼 때,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을 다룬 당국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당국간 대화의 범위가 공동선언 합의 내용으로 국한돼 제한적인 의제들 다루게 될 것 같다는 점이다.

4. 속직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주제는 '평화(남)와 '경제'협력(북)이다. 협력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평화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긴장완화와 냉전 종식 등 평화 관련 부분들 공동선언에 독자적 항목으로 넣었어야 했다. 유추해보자면, 남쪽은 주권군 문제 가 기동되는 것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쪽은 회담 기반전략상 평화 문제에 대한 언급을 원치 않는다. 공동선언 문구대로라면 북쪽은 '경제'협력은 남쪽에서 받고 평화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5. 남북합의 것이다. 북쪽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최대한 지킨다. 답답 시기는 경제협력의 진전 정도와 합수관계에 있다. 김현이 실질적으로 진전된다면 답답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보다는 '언제' 등 좀더 구체적인 시점을 합의문에 담았다라면 좋았겠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 서주석 연구위원

1. 이번 합의서는 일방의 의견만 반영돼 작성된 것이 아니다. 양쪽에서 서로 최대한 합의한 것을 담았다. '자주 통일'도 남북 모두의 의견이 담긴 것이다. 물론 이 말에 대한 뒤임은 남쪽이 더 많다. 이번 합의된 '자주 통일'은 어느 한쪽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양쪽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쓴다는 점을 서로 인정한 것이다. 서로 다른 뒤임스때문에 남북 사이에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2. 남쪽의 남북연합은 통일 전까지는 2개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 북쪽이 최초로 주장한 고려연방제나 느슨한 연방제에서는 1개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으로 어쨌든 남·북은 정부, 체제, 이념에서 광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향해 간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북쪽이 남쪽의 긴장완화방안을 이해한 점이다.

3.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대화가 우선 될 것으로 본다. 통일방안 합의 등 정치적인 문제가 원칙적인 문제들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산가족 회담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앞두고 총리회담(외교급 회담)을 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총리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4. 두 정상간에 논의는 있었을 것이다.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전제는 서로 합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서 의견차이가 보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 여간대 북쪽에서는 한-미-일 3차공동 파키나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왔다. 남쪽도 북의 대량상항 무기 개발 종단을 요구해왔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체제의 핵심적 성격과 연결된 문제다.

5. 8월은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있고, 10월에는 아령 회담이 있어 시기 신박하다. 합의는 양자면 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로 봐서 언대 방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지는 않을 것이다. 박범수 기자 suh@hani.co.kr

## 북 처음엔 연방제 주장

김정일 위원장 불만·서운함 솔직히 토로

### 박준영 대변인 뒷얘기 소개

남과 북의 두 지도자는 14일 밤 11시30분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솔직하고 진실된 논의로 그 동안의 불신을 털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대변인은 15일 두 강상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김국 서로 신뢰를 높여 갔다고 진남 있었던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애초 중앙정부에서 외교·군사권을 가진 연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국제기구에서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심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감시권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정확한 힘까지 내서 진실되게 설명했다"고 박 대변인에게 전했다.

또 공동성명의 문안을 확정하는 막바지 단계에서도 김 국방위원장이 형식적 국가원수가 아니라고 서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북의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밝히 김국 김 위원장이 서명하게 됐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기침없이 퍼다가도 남쪽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는 김 위원장이 세계변화를 보는 시각과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은 또 적극적이고 믿음을 이루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김 대통령의 발언 중간 중간에 "나도 심심한 게 있는데 말씀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남쪽에 대해 불유쾌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을 기탄없이 솔직하게 털어 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데 남측에서 모순되게 한다. 이래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인생역정, 경제역정에 대해 여러번 존경심을 표시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집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논평했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얘기를 모두 경청한 뒤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의있고 진실되게 설명하는 식으로 김 위원장과 격의를 좁혀 나갔다고 박 수석은 소개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서운한 점을 김 위원장에게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운하다고 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수경 침투사건이다 시해교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박 수석은 "이런 김 대통령의 문제 제기, 김 위원장과 논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서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남북이 모두 잘 살아야 한다. 민족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평양/정상회담 공동취재단



# 김정일 위원장 서울서 만남시다 김대통령 섭섭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장



■ 말로 본 두 정상

### 외신들의 말-말말

△남북 정상회담, 이제 반년이 북이 시작됐다(아시아) 15일(사상)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은 '군대 한쪽의 시의 거대한 변화의 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 확실하다. (뉴욕타임스) 14일(1면)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왕 승리의 김일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에이비엔뉴스) 14일(제)

△남북 정상회담은 1970년 브린턴-슈모브가 맺은 동서독 정상회담에 비견될 것이며, 훗날 한반도 평화의 초석으로 간주될 것이다. (리브도이제타임) 14일(사상)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수혜자는 남북

###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 김정일 '눈부신 외출'

인연만이 아니다. 이태의 세계 북과 미국도 수혜자가 된다. 주한 미군의 부담이 줄고 미국의 방위예산도 부담도 줄어든다. (샌프란시스코포스트) 13일(제)

△남북 두 정상의 약속은 냉전 정세의 응축된 유물이 드디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트시애틀라) 14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제) 대대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매혹한 것은 91년 김정일 전 주미 사장에 대한 그의 권력 승계 이후 '가장 눈부신 외출'이다. (워싱턴) 13일(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세계 최초의 냉전 정세에 종말을 부를 수 있다면, 이는 72년 11월 11일-1972년 11월 11일(제)

전종희 기자 sybio@hani.co.kr

###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냉전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평양방문은 한반도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 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출판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과 북 우리 동포 모두 평화롭게 갈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 (13일 평양 도착)

△"평양에 오면 식사를 잠깐 줄 알고 그랬습니다." (13일 오후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걸에 계간 반속만 드셨다더라"라고 하자)

△이번 방문으로 7000만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까지 진심으로 기대한다. 노령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 그들의 현을 이제야 풀어주어야 한다. (13일 저녁 민찬사)

△남북한 사이에 붙어있던 얽힌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을 있는 남북간 대화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굳어진 마음을 다시 잊고 햇살도 받고 하늘길도 열어봅시다. (13일 저녁 민찬사)

△앞으로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나 가야 한다. 북한도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 교류협력을 하면 인프리와 세계

평양 오면 식사 잘할 줄 알고...  
남과 북이 힘 합치면 일류민족  
철길 잇고 뱃길 하늘길도 열고  
나는 네번에 걸쳐 마셨다

최고인 인력이 있다. (14일 오전 공식연담에서)

△3차 공조는 대북 정책에서 매우 불확실하게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모두가 되는 윈-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결코 북쪽을 해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14일 오전 공식연담에서)

△남북관계는 말이 부족한 게 아니다. 또 문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14일 공식연담에서)

△한반도에서 20여개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만듦과 청산하고 남과 북이 우선 평화롭게 공동공영화하는 것이다. (14일 저녁 민찬사)

△남과 북의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까운 시일 안에 행복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인도적인 감탄도 보여주게 될 것이다. (14일 저녁 민찬사)

△앞으로 남북간에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과 체결되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14일 저녁 민찬사)

△김정일 위원장! 북쪽의 지도자 여러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14일 저녁 민찬사)

△이번 시대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산과가 봉의리 자신으로 일류민족으로 갈 수 있다. (14일 공식연담에서)

△나는 네 번에 걸쳐 마셨다. (15일 오전서) 김 국방위원장이 건넨 밥 공동선언 접이 뒤 관해하며 관할 관습에 비문 자신에게 술을 건넬 때는 많이 있다고 하자. 전종희 기자 sybio@hani.co.kr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리를 앉혀주지 않고 침입시 없게 해드리겠다. (13일 오후 1차 정상회담에서)

△남쪽에서는 종교를 하면 잘 되는데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된다. (13일 오후 1차 정상회담에서)

△공산주의지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13일 오후 1차 정상회담에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왜 남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다. 2003년 동안 내담, 재이 한다. (13일 오후 1차 회담에서)

△저 구라와 사람들은 니보고 은둔생활한다고 하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제가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14일 오후 2차 정상회담에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지도 연비지도 보고 남북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봤지만, 남북 인민들도 다 환영의 분위기고, 특히 심한편이라고 듣기 남북지리대가 많이 소개해주면서 다음 잠 잘 수 없었는게, 그같이 텔레비전 오지 않았는게 가라더라. (14일 오후 2차 회담에서)

△우리는 원광되게 하는데 남쪽에서 모순되게 한다. 이에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14일 오후 2차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불응 주장하며)

△어려운 북송까지 위태롭게 되는 탄압을 받고도 김대중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다. (14일 오후 2차 회담에서) 김 대중의 인성역정에 존경심을 표시하며)

김대통령 오셔서 은둔서 해방  
우린 실리만 추구하면 된다  
만찬장서까지 이산가족 만나  
연단 두번 섰으니 출연료라도

△만찬장에서까지 이산가족을 만드나. 그래서 김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14일 저녁 민찬사에서) 이 회담에서 총연담이름이 아닌 양연담이름에 맞아있지)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서야 한다. 나도 한 번 한라산에 가보고. (14일 저녁 민찬사에서)

△어거지는 개신 쪽이라고 하는데 서울사람도 컸잖아. (14일 저녁 민찬장에서) 이회호씨에게)

△실은이름이 금강산에 착도(개이름)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 높은 사람들이 없애나 된다고 지인원경을 훼손하느라 반대했다. (14일 저녁 민찬장에서)

△공중 음식이라면서 왜 아직도 못그릇을 사용하느냐. (14일 저녁 민찬장에서) 우리 북에 손바닥 굵은 음식이 못그릇에 담겨있는 것들 보고)

△내가 연단에 두 번이나 나갔으니 출연료도 받아야 되겠다. (14일 저녁 민찬장에서) 공동선언 합의 발표 뒤 사진기자들을 위해 김 대통령과 연단에 두번씩 서며)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다. (14일 저녁 민찬장에서) 김 대통령에게 질문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참 얘기한 뒤)

△모두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술 실려서 남가겠다고 하니까, 술 김대중이 불평부평한 나보다... (15일 오전에서)

전종희 기자 sybio@hani.co.kr





■ 평양현지 직담

강만길  
민족해협리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고문

“한 뿌리 확인한 민족사 최대축제였다”

김재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은 기념코도 먼 길이었다. 동시에 2백만인 55년의 분단을 뛰어넘는 위사의 시간이었다. 본사는 대동강 특설수출연으로서 55년 만의 만남이자 2000년 남북의 큰 만남을 함께 할 강만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과 고은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고문에게 미리 질문을 해 평양 현지에서의 회담을 마련했다. 평양에서의 이번 회담을 장려해 왔다. 편집자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가?  
강만길=7·4공동성명과 남북합의사가 선언으로 끝났다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것들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건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양은 성격적이었다. 평양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또 긴 시간을 요하는 일에서 또 미진함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두 정상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와 실천의치으로 보아 이번에는 긴 시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원전 통일까지는 긴 시간이 요할 것이다.

만남자체 이상 큰 수확 얻어  
고은=이번 회담은 행운의 극치다. 지난 남북관 밖으로부터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자주적인 공동노력에 의해서 천년 55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회담 실현의 국제적 환경으로서 한반도 지역에 각각 자기네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4강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시장경제의 권폭적인 남북화해 시대의 확고한 지지가 있

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국제환경 역시 김대중정부의 진지한 외교노력이 이룩한 성과인 것은 틀림없다.

-이번 회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강=우리가 한반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11월 공동선언에 합의 한 뒤 위안북한관에서의 실천화는 그것을 실증해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고=완전히 현대사 최대의 축제다. 나는 직관한다. 결코 한번의 만남 이야기가 아니라 사상류.

-남북은 이제 평양의 먼 장정을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가?  
강=7·4공동성명과 남북합의사 교환, 금강산 관광사업도 평양의 과정이었고. 정상회담의 성사로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양은 사이공 함락이나 베르린 장벽 붕괴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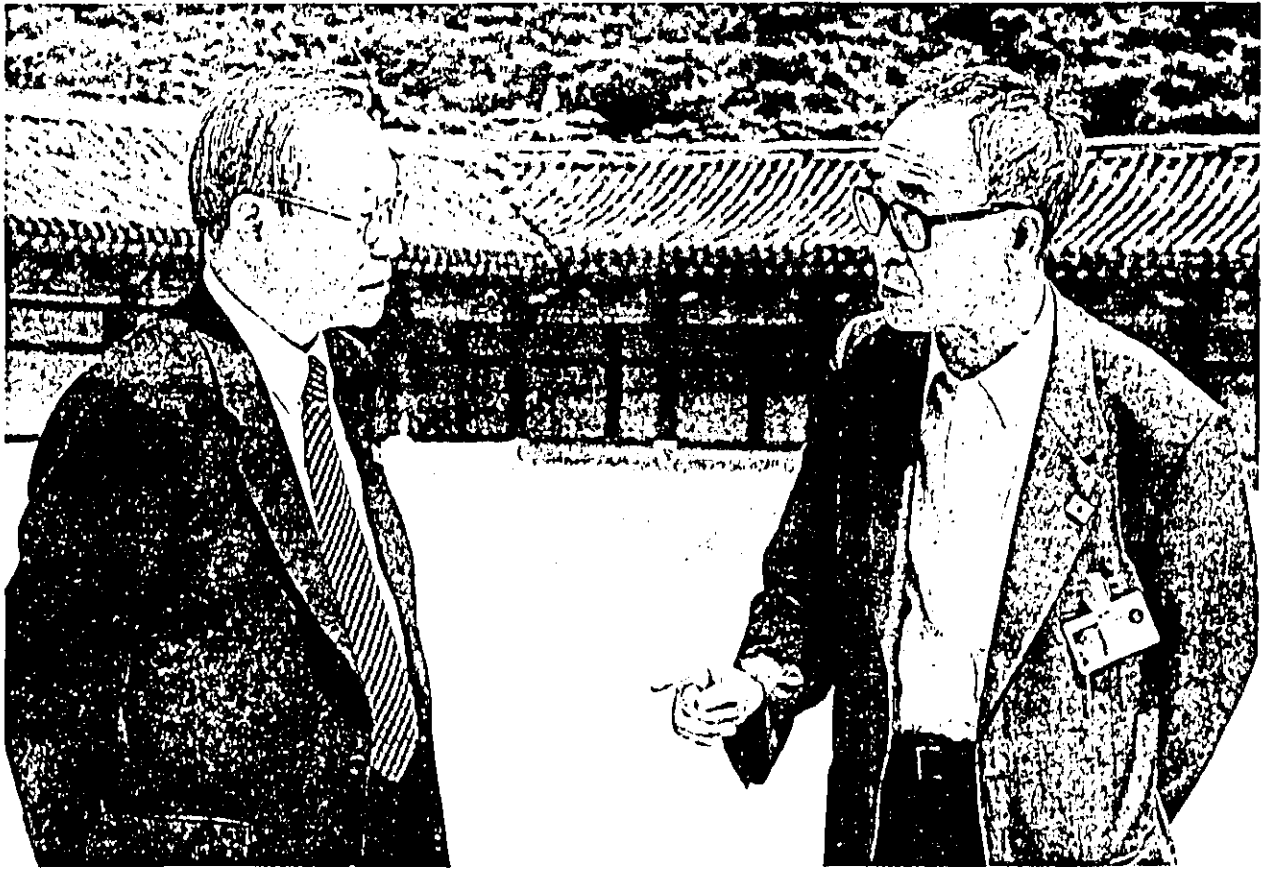
고=물론이다. 그동안의 분단 속에서 통일 의 중심 늘 김집에서 시련선으로 일정한 후퇴를 거듭해왔다. 이제 평양의 행진은 시작됐다. 다만 몇년 뒤의 통일 전제 부과는 논의 변경되지 않도록 정밀로 가는 국민적 운동체가 움직여야 한다.

-민화협 상임의장으로서의 의견?  
강=북쪽 민화협 강연회 회장을 만나 7·4 공동성명 발표 공동기념식, 8·15 공동기념식 개최와 시도나 중립적 공동경인단 결성을 제의하고 회담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가  
고=마지막날 북한관 맨관에서의 두 정상은 거의없는 연등으로 보아도 김 위원장의 답방은 직접한 시기에 가능할 것이다. 만만 자재에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만만 자재의 의미에만 국한시켰다면 이번 회담의 역사적 평가가 적다. 중어했다. 만만 이상이었다. 이 회담은 연속된 것이고 회담에서의 합의사항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역사 이전의 시간이 아니라 역사 이후를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솟아난 사건이다.

-가짜이 시 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강=쾌활하고 솔직한 분으로 여겨졌다. 약속하는 손에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  
-평양 땅에 찾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강=기슴이 벅차서 부어과 구제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고=순안공화 환영식에서부터 이미 회담 성공은 예측했다. 나는 평양 창사 연의 풍로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번 회담은 강력으로 끝날 것을 알았다. 대동강을 바라보며 온 몸을 뒀었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앞 때 어디에 있었는가?  
강=인민대학습당, 컴퓨터 연구소 등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간 고은 민족문화직기회의 상임고문(오른쪽)과 강만길 민회협 상임의장이 15일 오전 고구려 유적지인 동암정릉을 둘러보면서 회담에 대한 소감과 느낀 점을 털어놓고 있다.

## 강만길 “통일문제 전주곡 지나 본연주로 돌입” 고은 “민족 자주적 노력으로 일군 결과 뿌듯”

가졌다.

-북한 시정 등에 대한 인상은?

강=모두 다 우수적이고 신선했다. 특히 김정은 총리의 인내는 재삼하고 찬탄적이었다. 그동안 남북사정을 비교적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리간 별로 못 느꼈다.

-북한 시정 등의 반응은?

강=대변인 교무직이고 회담적이었다.  
고=참로 임했다. 듣고 싶은 것들 여러 번 보았다.

-북한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강=관 다시 만나 무의결 본뜻히 합니다.  
고은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고=남북 정상회담의 한 증인으로 이제 아무 여권이 없다. 특별한 것은 본란의 시대로부터 통일된 시대로 건너가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 현재상황으로 지향되고 있다. 모든 조건을 비껴서 탐망 참여하는 것 아니다. 여기에서 남한에서의 관망적인 본란 남북역사가 통일되어 마땅하다. 너무 앞선 것도 너무 뒤처지는 것도 다같이 역사인식의 틀 안에서 조망되어야겠다. 북남에 대한 적대감정은 체험적으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강=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라 생각한다. 7·4 공동선언, 남북합의서 체결, 금강산 관광 등이 서편이고 전주곡이었다면 정상회담으로 통일문제는 본연으로, 본격적 연주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경제협력부터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일반 민간인 못만나 아쉬움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조미 관계도 한-중 관계만큼만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그 이상 더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고=아쉬움이어야 한다. 나는 1990년대 초반 4분위원 오스트리아가 정령군 4개국에 대한 한반정 상황을 통해서 통일을 위한 사감을 떠올린다. 4강 및 주변정세의 복잡성이 야말로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는 큰 걸기기도 하다.

-이번 평양에서 아쉬웠던 점은?  
강=일반 민간인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60만명의 엄청난 환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아쉽다. 김일성대회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가웠다.

고=아쉬움 점 없다. 아쉬움 점 없다는 사실이 이번 회담의 신적일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하였고 우리 수령인들도 만족한다.

-이번 평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강=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그렇게 유쾌하고 솔직한 인물이 정말 없었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고=합의서의 사항들이 실현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이제야말로 낙관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담 것 같다. 역사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고=우선 4강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것인가?  
강=우리가 4강에게 끌려가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4강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립이었던 것처럼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역이고 비. 중 등이 조역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정상간 합의로 경제협력 급류탈것”



■ '남북경협' 좌담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

김장균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실장

윤덕홍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사회: 김형배 《한겨레》 편집국 부국장  
때: 15일 오전 10시  
장소: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민간차원의 제한된 것이었지만, 남북 정상간 합의로 이제는 남북경협이 양쪽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아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렇지만 아직은 남북의 경제협력을 하고 민족경제를 균형발전시키자는 원론적 합의 수준에서 대강해야 할 과제도 많다.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과 긴급 회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경협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남북경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편집자

김형배 부국장(사회) = 남북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의 의의를 서거 보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김장균 실장 = 그동안 남북 경협을 확대하러 해도 법·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이번 회고 남북자간의 합의는 민간경협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윤덕홍 교수 = 개인적으로는 공동선언에 광화에 대한 의지 전환이 빠진 것이 아쉽다. 하지만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다보면 긴장도 완화될 것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선언은 “민족공동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 = 남북한이 통일에까지 이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국가간 경제협력의 분석하는 두가지 틀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적 관점이 있다. 남북관계의 민족의 특수한 내부관계로 볼 때 배후관선인을 기점으로 정경연계가 아닌, 정경연계 관계로 진화해 왔다. 윤 교수 의견처럼 민간 사이에 협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었지만 다시 정치적 문제가 터지면 민간교류가 걸림돌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런면에서 남북간 합의의 의미가 큰 것 같다.

윤 교수 = 남북한의 경우 기능주의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인 국가,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참여한 긴장관계가 없는 나라들끼리는 기능주의적 입장이 제구실을 할 수 있지만 남북한의 경우 긴장이 매우 고조돼 있어 기능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통해 경제교류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신기능주의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사회 = 이번 남북 정상간의 합의는 지난 92년 채택한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이번 합의가 여태까지의 합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대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 북, 중국식 개발모델 따들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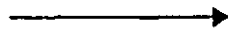
김석중 본부장 = 대응보다는 상황이 많이 난리였다. 그때는 민간교류가 별로 많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긴장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교류가 한계는 있지만 그 때에 비하면 활성화돼있는 편이다. 그런데 최고책임자간 합의가 이뤄져 그동안 민간교류의 발목을 잡아오던 장벽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 교수 = 기본합의서 때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대회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필요가 없게끔 이끌어내려고 할 수 있다. 또 그때는 남북 양쪽의 외교 책임자끼리의 합의가 아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명은 북한에선 반드시 심인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심한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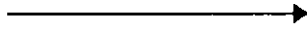
사회 =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의의 의미는 이 정도로 정리하자.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떤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얘기해보자.

김 본부장 = 그동안 남북경협이 개방화·신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이제는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마스다 플랜을 짜서 실현 상황에서 차근차근 협력을 추진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윤 교수 = 그동안 대북 교역은 임가공 위주의 낮은 단계였고, 교역 규모도 작았다. 앞으로는 북한에 투자부자가 이뤄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북한에서 면허생산하게 한다든가, 사베리아 개발 등 제3국 사업에 북한과 공동 진출하는 등 높은 차원의 협







남북검찰청인민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10일 열린 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남북 합의가 과거 합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남북경협에 대한 높은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일관성·계획성 갖춘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특구부터 확장 바람직

### 북한 초보적 개혁은 외자유치에 큰 도움



김석준 본부장



김정진 실장



윤덕홍 교수

들이 깨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김 실장=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고위급과 만나서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중국시장 진출 등 합의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중점을 맞춰야겠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중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응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봐야겠다. 구체적 협력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사회=남북관공감제에 대해 어췌고, 북한과 경제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북한의 상황을 봐야겠다. 그러나 남한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은 있을 것이지가.  
김 실장=북한은 90~100만, 10만 원짜리

어디스 신청을 했다. 특히 전역군이 신청한 것이다. 전역(전향)도 직제만 존재하지 않아 워낙 남아 30~50%가 무직이라고 들었다. 인가권을 하고 있는 북한 공장들도 다양한 관료들이 사재관리를 해서 공장을 개성한다. 전역(전향)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 본부장=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주체적 태도, 헌법, 정도, 모순 등 경제 환경에 접근할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야 한다.  
김 실장=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하면 모두를 유치할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계면에 여자가 개성하는 게 아니라, 특구부터 중심으로

외개념에서 필요한 쪽부터 생산성으로 차장에 개발한다 하면 자금투입이 된다.  
김 본부장=가스, 철도 등의 개발에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윤 교수=남한 기업이 북한과 교류에 갖는 관심을 북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남한 기업인을 위한 유대조직을 만들어 유인책을 쓰는 것이 북한에도 유리하다. 사회=앞으로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자본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할 것인가.  
김 실장=전통적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나아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교육이 잘돼있어 입가공 의류의 경우를 보면 남한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한다. 중국이 전체보다는 개인을 칭찬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처럼 북한도 당장 전반적인 부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내부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근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적어도 경제특구의 경우 북한 사회주의정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윤 교수=현재 북한은 공식적인 체제와 달리 사실상 시장경제로 돌아가고 있는 편이다. 북한은 초보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하고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 초기 자본주의적 폐해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면 오히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고 외부자본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 기업에 금강산 특구 개발권 같은 메디컬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도 있리라 본다.

김 실장=북한 입장에서도 경제특구가 있으면 외부 기업 관리가 훨씬 쉽다. 사회간접적으로 인센티브제를 공에서 사회간접자본을 유치하는 것인데 일부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회=북한이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은 어떤 것일까?

김 실장=중국의 모방을 김정은 개혁정책을 띄웠다. 먼저 국내 특구를 지정해 성공을 가두면 그 다음 다른 곳을 지정하는 식으로 갔다. 본체가 나타나면 개선하고, 또다시 본체가 나타나면 고쳐주고 하는 식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중국 법규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불평도 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북한도 중국식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 대북제재 해제 지원해야

사회=미국 일본 등 외국의 북한 투자자가 가능할까?

김 본부장=일본 김정은 관계자들은 대북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안전문제와 투자에 대한 보충조치가 있어야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사회=북한과 교역 및 투자를 재전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북한 투자가 어렵다. 이를 풀는데 남한권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김 실장=지금은 북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길이 원천봉쇄돼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북한 상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 길을 잠시라도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풀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윤 교수=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 철도가 이어지고 김일이 평壤까지 온다면 우리 기업이 활용무대가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개념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때김수수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호국에 투자해온 나라들과 가까워진다.

정리=홍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 교류협력 길 닦기 각부처 쟁걸음



## ■ 후속대책 준비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이 나온 뒤 정부 주요 부처는 15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검토해왔던 남북교류사업들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부처별 표창과 준비중인 후속대책 등을 정리한다.

### ◇ 법무부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이 나온 뒤 법무부는 15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실·국별로 관련사안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법적 질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 등 관련 실·국 감사와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긴급한 뉴스 속보를 수시로 챙기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분주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법적 질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지금까지 검토해온 문제들을 위주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10여년 전부터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법 정비

등을 준비해 온 터라 이번 후속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태도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0년 북위공원을 연구한 유해조사단을 중심으로 전담 팀을 만들어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토지 등 재산문제, 호적문제, 북한관련법 정비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해왔다.

또 우선적으로 개폐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김정일 현 정권의 전인자인 박상천 장관 시절부터 비공식 여론조사와 사례연구할 때 이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송헌법논의가 나올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이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교과서 보완·'안보교육' 개념 재정립 나서

### 남북 생태계 공동조사·기상정보교환 추진

### ◇ 교육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 분야에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간간히 추진돼온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교원·학생 등 남북간 교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교과서가 국가간 연합 방안을 인정했으나 남북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연합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점을 감안해 통일부의 방침이 나오는 대로 교과서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전후해 일선학교에서 읽고 있는 훈련이 안보교육을 반공교육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안보교육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 훈련의 소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 ◇ 문화부

민간 차원의 남북 문화예술 교류 또한 교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연말 평양에서 열린 '2000년 평화 친선음악회'를 비롯해 지난년과 이달 초 북한 소년예소년과 광양교예단 서울공연 등에서 보이듯 문화교류는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가 다른 분야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교류 중심의 원칙을 계속 지키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더욱 넓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화부는 문화유산 등 공공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올해 안에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지구 자원사업은 가장 현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당장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시할 가능성이 높다.

### ◇ 노동부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돼 노동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근로자 보호조치,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에 실비투자자 이뤄져 우리 근로자가 북한에서 근무할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조치와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을 돕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 기상청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공청 기상정보를 북한측과 교환한 것을 계기로 향후 건넌적인 기상상황을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송의 청장은 "기상정보 교환만과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서로 돕는 안목이 도움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남북이 기상정보를 일상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쪽에 기상정보 교환을 정식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상자료 교환뿐 아니라 기상관측 공동 연구 및 기상 장비 제공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초우나 폭설에 따른 기상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비용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권사회1부 society@hani.co.kr

## 이적단체 가입혐의도 보석허가

### 서울지법 이례적 결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희 부장판사)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물(IS)'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박현정(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한 뒤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말 트로츠키의 연구회명의로 따르는 '국제사회주의자물'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지닌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정식 기자 kimcs@hani.co.kr

● 우선 경험사업 어떻게 있나

## 임진강 수해방지 '1순위' 유력

### 양쪽 물난리 예방 북 상류지역 대책 시급 자료교환등 추진...홍수경보시설 설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협력사업 1호'인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폐수분산 등 임진강 유역에 대규모 수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북한도 개성 등 임진강 주변 농경지 등이 최근 어려서 수해를 입어 시급한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남북간의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홍수나 대동결을 앞두고 당장 아남부터 협력사업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칠는 다소 심각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남북 어느 한쪽만으로는 임진강 유역의 일괄적 수해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진강은 유역면적 8117.5km<sup>2</sup> 가운데 2/3인 5108.8km<sup>2</sup>가 북한지역인 뿐 아니라 강의 총길이 254.6km 중 92km만이 남쪽에 있어 상류지역인 북쪽지역에 대한 수해대책 없이는 하류의 과수 원산 인진 동두천 등의 침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산림 황폐로 인한 강우 유출과 토사 퇴적 등을 막기 위한 하천관리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남편쪽은 일단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르면 이날 말부터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의 강우 및 수위 자료등 교환하는 한편, 인적·기술교류도 추진한다는 게 건교부의 구상이다. 건교부는 홍수의 즉시 예·경보가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각종 자료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수자원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임진강 수계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홍수 예·경보시설 공동설치 및 운영, 하천 준설과 관제 정비, 제방 축조, 산림복원, 농업용수 공급 등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임진강 유역의 근본적 수해예방을 위해선 강 본류인 북한쪽에 대규모댐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



유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11일 임진강 홍수방지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 실무협축을 제의한 바 있다.

이현호 기자 yeopo@hani.co.kr

## 경의선 철도복원 양쪽 크기대

### 교류활성화·북 SOC 구축 '두토끼' 문산~장단구간 용지매수 진행중

남북한이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의선 철도 인건은 그동안에도 '남북교류의 본격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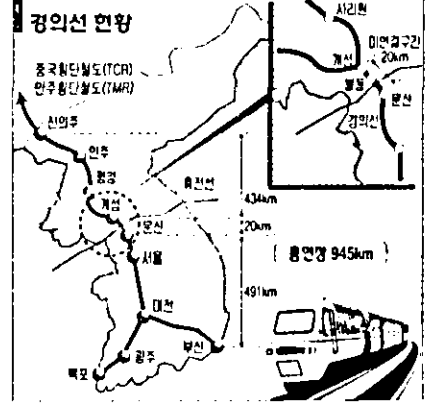
북한내 여객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망의 복원과 인건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도 서울~개성~평양~신의주 등 잇는 경의선 복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아왔다.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은 지난 1991년 사망 직전 경의선 연결과 북선화를 기원하면서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대상품을 날라다주기도 해도 1년에 4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지난 96년 북한의 총외국교류 19억8천만달러의 20%에 해당하는 기액이다.

이와 함께 경의선이 연결되면 대우암연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남포 공단은 물론, 해주 또는 의주에 건설될 서해안공단(현대)이나 전자복합단지(삼성)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인천~남포 사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수송비용은 인천~대연 운임의 2배 정도인 약 1000달러이지만, 경의선이 연결되면 200달러 선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의선의 남북 단절구간인 문산~장단 12km에 대해서도 지난 85년 설계설치를 마치고 97년부터 용지매수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약 15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앞으로 1년에 단에 복원작업을 마치고 북쪽 단절구간인 장단~봉동 8km도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부선의 고속철도화에 맞춰서 경의선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북선화와 함께 노선 전체를 개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의선 구간 중 평양~신의주의 경의선 221.5km와 평양~개성의 평부선 북선화, 개성~문산 구간 화물 전용 단장 시급한 개량작업에만도 4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호 기자 yeopo@hani.co.kr



# 민단·총련 '얼음장벽'도 봄눈 녹듯



## ■ 해외동포 반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념 및 조직적으로 갈라져 있던 재일동포들 사이에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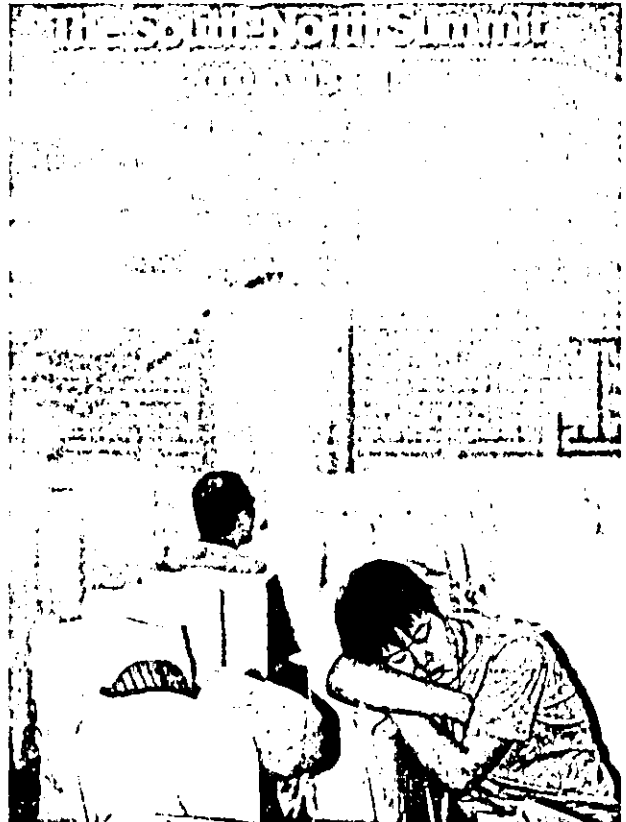
친한국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친북한계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총련), 재일한국민주주의연합(민주연) 등의 동포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갈라졌던 단체끼리의 화해 협력을 소리높여 주장했다.

민단 중앙본부는 15일 정상회담 성명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화남관계에 대해 "관심을 들여 위대한 지지"라고 밝히고 "민단과 총련을 거듭해온 재일동포 사회도 이제

## 재일동포 단체들 환영성명 민단, 조건없는 대화 제의 총련 "사상초월 한길 함세"

화해와 협력을 희망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재숙 민단 단장은 한미수 총련 의장 앞으로 보내는 제의서에서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국제기 공헌사회의 통일실현을 위해 조선총련과 아무런 조건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교류해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총련 중앙상임위원회도 "역사적인 광양산봉으로 이뤄진 북한 공동선언을 엄격히 지지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모든 재일동포들이 사상과 단체소속의 차이점 초월해 화해의 한길에 함세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다. 친중선과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연성회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화해로 반전에서 통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90년대 초반 <한겨레>의 민족노예 방출·방포 사업에 동참했던 재일동포 2대 오빠대 가수 권환신씨는 당시 활동했던 '고려산간 내사관' 등 남북 정상회담 기념으로 이날 인터넷(www.wolson.com)에 무료로 공개했다. 오사카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념하는 풍모 축하 마당이 펼쳐졌으며 민단·총련 구별없이 참가했다. 도쿄/한승동 특파원 ssha@hanu.co.kr



한승동원 취재진. 밑을 세며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던 방송보조요원들이 15일 낮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의지에 있는 채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정철규 기자 chang21@hanu.co.kr

## 각국 기자들 반응 미묘한 차이

일, 복새카드 쓸듯  
중, 경제교류 늘것  
미, 한미관계 관심  
독, 생각차 극복과제



헤이리 히사시, 왕린칭, 뚠 와이즈먼, 구나 허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 기자들은 화남 결과를 놓고 국제적에 따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헤이리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 베이징 특파원 =이전의 7·4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정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것이란 차이가 있다. 미국으로선 국제기비시업방어(NMID) 계획의 명분이 약해진 것이고, 일본도 안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한·미·일이 동맹의 '삼각관계'에 북에 압박을 가했으나, 이제 북은 3국이 '문도차'를 느끼므로 '중·러'라는 새로운 카드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왕린칭 중국 <인민일보> 서울 특파원 =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를 재빨리 전환시켜 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약속이다. 중국은 그동안 입장에서 남북 관계에 의한 불안을 주장해왔다. 남북간 긴장완화는 양-미-일노조

약 등의 조처를 합동요청해 만들 것이다. 반면 중국과 한국 및 조선(북한)과의 경제교류가 강화될 것이다.

◇ 뚠 와이즈먼 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 홍콩 특파원 = 김장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담으로 북한이 대외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양쪽의 자주적인 통일노력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에서 관심사로 남아 있다.

◇ 구나 허위 독일주주진 <모구스> 뉘른베르크 특파원 =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교류는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원로 원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과의 문화가 같다 하더라도 양쪽 국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달라야 내한 교류가 과제가 될 것이다.

글 이합성, 사진 정철규 기자 ssha@hanu.co.kr

## "미·일 내심 불편할 가능성"

### ■ 송두윌 교수 인터뷰

송두윌(66·사진)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는 15일 남북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주변 4대 강국에게 통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80년대 독일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펼쳤던 그는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합의에 이룬 것은 7·4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이미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남북한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자주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변 4강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나?  
-미국과 일본이 내심 불편해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벌써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추진중인 국제기비시업방어(NMID)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는 등 남북한의 자



주적 통일 논의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가 곧 처리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라과 맞물려 왜곡된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

-비밀적인 통찰 방안은 무엇인가?  
-자주 통일 원칙을 세운 이산,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통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33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려던 당국이 준비사항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비경향 강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해외 인사의 입국 문제도 조항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베를린/연합**

## 정상회담 남북 큰변화 국가보안법 고칠 계기

남북 정상회담! 무척 가슴 설레는 희망을 갖게 된다. 세계의 눈과 귀가 유일 분단지역인 한반도로 집중되고, 신문과 텔레비전, 주변 이 어기는 온통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 된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화합과 평화, 봉안은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개다. 대중매체에서는 뜨겁게는 평양의 남씨가 보도되고, 시류에 편승해 이북 관련 특집이 연일 계속 방송되고 있다. 엄청난 변화다. 우리 모두가 원하던 봉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조금 엉뚱한 걱정이 생긴다.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뒤가 걱정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그동안 탄압에서는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또는 구속 수감됐다. 김 대통령 역시 이 법에 묶여 엄청난 고초를 당했다. 김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일을 위해 김장의 국무원직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그것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이적 행위가 된다.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꼭 이뤄내야 한다. 이상훈/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 대학 회담한영 인공기 검찰 처벌방침 한심해

남북 정상회담은 7천만 겨레의 가슴을 북돋게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반도 단일기와 태극기, 인공기를 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주동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니 그들의 구시대적인 발상에 혀웃음을 참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와 민족의 화해 분위기에 감동을 끼었던 그 방침을 단상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안을 방문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날이기만 말든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 당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수많은 애국자들과 선구자들의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하나됨을 영원하는 본 가래의 힘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다. 어떤 이념과 체제도 '민족' 앞에 우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두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정/광주 북구 신인동

## 남북화해 밀거름된 문익환 재평가해야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정상이 나란히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이 사진 찍던 모습이 떠올랐다. 누구도 고운 눈길로 보지 않았던 분 목사님의 발복과 북한 잡아안기는 오늘의 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광의 뒤편에서 그 영광의 보이지 않는 고종의 순간을 예언자적인 고뇌로 감당하셨던 사람들, 특히 고 문익환 목사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명식/충남 아산시 권곡동

## CNN '일본해' 표기 공식적 사과 받아야

《CNN》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에 관한 스페셜 기사에서 한국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태평양은 한국과 북한의 명칭인 '동해' (East of Sea)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해' (Sea of Japan)를 비웃어 적어놓았다. 전세계에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뉴스에도 동해명칭은 일본해였다.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한국의 지도에 일본해 명칭을 쓴 데 대해 나입워너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명선/경기 부천시 역곡동

## 국도변 반공표지판 냉전유물 철거해야

미결 전 여러남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을 가게 됐다. 그런데 시골 국도변을 지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폭력전쟁 도발하는 북괴군을 때려잡자" "자유주의 위협하는 공산당을 몰아내자" 등의 이승만,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에 세워진 것 같은 뜻깊은 도로변에 비웃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 뒤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민족화해와 교류, 평화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런 뜻밖이 아직까지도 방치돼 있어서야 되겠는가. 북한을 아직도 같은 민족이 아닌 적으로만 바라보는 관리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호 이해와 협력이 '햇볕정책'의 근원이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할 것이다. 김명식/광주 광산구 칠곡동



그림/김영호 기자  
kimyh@hani.co.kr





"민기협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전향장기수 인영기(72·38년 복역)씨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기협 목요일식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woo@hani.co.kr



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오른쪽) 주석과 나란히 선 문익환 목사.

## 보안법 개정수위 관심

### 법무부, 대체입법등 3개안 검토

심상회남 이후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과 교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의 방향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난해 개폐운동을 주도해온 시민·인권단체들도 다시금 운동에 나선 새비결을 서두르고 있어 개폐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정 필요성을 공언했음에도 개폐 논의에 잠겼다. 시민·인권단체들도 국내 115개 사회단체가 발간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와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연대회의' 등 양대 조직을 통해 지난해말까지 시범운동과 탄성농성을 벌였다.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98년 무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 위반 기소자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발표한다 이어 지난해 11월 또다시 7조 폐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여론도 이 법 개폐에 힘을 실었다.

이런 국내외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국민회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장부 감청' 부분을 없애도록 북한을 제외시키고 △7조(교무·친양 및 이적단체 기압·구입)를 대폭 개정하며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자반관과 한나라당이 보안법 개정 반대 태도를 바꾸지 않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걸친 남북 교

류가 논의의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법 개폐 작업은 예상외로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민중정보보호법' 등으로 대체입법 △7조 등 문제조항의 삭제를 통한 개심 △안보에 필요한 조항만 행법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조항은 폐지 등 세가지 큰 방향을 정해놓고 사태 추이에 따라 방향을 정해놓고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검찰에서도 법이 개폐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을 내역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과 자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또 시민·인권단체들이 '완전폐지'라는 원칙론적인 목표와 '7조 완전 삭제'라는 현실적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주목된다.

김정식 기자 kims@hani.co.kr

## 고 문익환 목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에 화두 던져

### 89년 방북때 허담과 논의 91년 김주석 신년사 발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등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고 문익환 목사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영삼 주석이 91년 신년사 때 발표하고 '느슨한 연방제'를 뜻하는 말이다. '느슨한 연방제'는 그 신년사 이전에 북쪽이 주장한 '연방제'와는 구별된다. 무엇보다 '느슨한 연방제'는 외교적과 군사적용 지원장부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북쪽 통일방안에 어떤 반공을 위임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는 것이다.

문 목사는 80년 3월말 방북해 그해 4월2일 당시 북쪽 조광범 위원장인 허담과 연방제안을 포함한 '공화국연합 원칙 9개항'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연방제'로 합의하는 것은 두 지역간의 실질적 차이와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비수어 원형'이라면서 "그 구체적 실현방도는 남(북)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김주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북쪽이 남쪽의 '정치적 변화'를 최초로 수용한 것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당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문 목사의 아들 안희배우문신군은 "이런 아버지가 당시 김일성 주석과 2차례, 7시간 회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문씨는 "당시 김 주석이 아버지 속소에 맞고 연방제에 대해 설명하자 아버지가 '그 많은 것을 한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 낮은 중간단계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주석이 '그러도록 하자'고 답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당시 중안당 수에 의해 '북쪽의 반공 체중에 놓아난 것'이라며 때때로 문 목사의 방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익환-허담 평화통일 원칙이 발표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느슨한 연방제'가 발표돼, 이에 문 목사의 의견이 반영됐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문 목사와 허 위원장은 협의한 평화통일 원칙을 각각 남북 정부에 설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김주승 변호사 겸재심장은 "남북 정상 협의에 한 가반이 됐던 '느슨한 연방제'가 민간 통일방안에 의해 유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앞으로 통일정책수립 때 민간단체의 활동방향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은 기자

## "산림복구도 함께" 지원단체 방북계획

### 북한 산림복구 지원단체인 '공회'의 숲' (이시강 김영훈)이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에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숲은 15일 북한의 산림 피해 실태를 직접 돌아본 뒤 북한 산림당국과 함께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방임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성명 기자 chung@hani.co.kr

## 위안부 피해 남북 공동기소 추진

### 정신대대책팀, 북에 제안

남북한 민간단체들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5일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7개국 민간단체 모의법정'인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에서 남북한이 기소장청 공동으로 작성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번 내용의 제안서를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인 정상 이후에내 청정부에 건네, 북한 '중공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중태위)의 홍신옥 위원장에게 전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대협 관계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분단 이전 상황이고 피해자도 같은 민족인 만큼, 남북한이 함께 법치를 고발하는 기소장을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대협은 북한 정태위가 지난 3월과 5월 요청받은 남한쪽 피해자 진상조사 자료와 국제법 관련 자료 등도 장 총장을 통해 건넸다.

북한쪽이 정대협의 제의를 받아들여, 7월말 옌리민 미남리에서 열린 2000년 법정 '국제심판위원회' 회의에서부터 남한쪽 김시인 변호사 변호사 등 남한한 관계자들이 기소장 공동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기자 kjsb@hani.co.kr



# 남북왕래 길목 개발 부푼 꿈



## ■ 휴전선 접경 주민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의 휴전선 인접지역이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이는 바깥에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강원도=우선 접경지역은 경원선 철도와 금강산선 경로의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강원도 철원군 원정리의 사이 16.2km가 복원되면 서울~원산간 철도를 이용해 남북간의 물자물류 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비무장지대에서 걸린 금강산 관광까지 다시 이어지면 금

강산 관광길이 한걸음 수월해진다.

비무장지대의 침입을 막아줄 공동 경각사업도 당국의 의지인 만큼 착수될 수 있다. 6천여ha(1800여만평)에 이르는 북면밭은 개간될 경우 연간 3만여t의 쌀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최북단에 자리잡은 고성군은 휴전선 인근 바다에서 공동어장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역은 남북한의 어선이 반세기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한 덕분에 정착성 어종인 문어, 진돗개, 가지미, 상게 등이 매우 풍부하다. 따라서 어로자원 부족에 시달리던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민들은 또 현대건설이 남쪽의 고성군 간성읍과 북한의 고성군을 연결하는 30여km의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자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사업의 실현 기대에 부풀어 있다. 양구군과 인제군도 금강산으로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 화포정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도=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되고, 철도 복원 등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상습수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덜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속조

## 철도·도로 복원 물자수송·인적교류 기대 공동어장·경작지 개설 생산증대 계획도



경기도 연천군 신탄면 경원선 신탄리역 철도중단점.

치로 경의선 복원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는 남북한 물자 수송과 인적교류의 기지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한 공동 '광화사'와 세계적인 '생태관광단지'를 비무장지대에 조성하는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파주시와 연천군은 최근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홍삼 생산 증대를 위해 민통선 지역에 대규모 인삼

밭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지의 어민들은 지난해 서해교전의 방탄이 된 못개잡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고, 이로 국역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봉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에 중진·확대되고 이를 위한 남북 철도 연결 등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한필 기자 hanphil@hani.co.kr  
손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 ■ 고국땅 밟은 카자흐 동포2세대

# “남북정상 만남 깊은 감명 통일조국서 살고 싶어요”

“한민족은 합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하나니까요.”

역사적인 남북 광둥신문 발표로 7시간 거리가 남과 있던 15살 한민족 청소년의 모친은 기대지 않은 중앙아시아 거주 동포 2세대가 금강산에도 고국 땅에서 남북을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중앙아시아에서 뜨거운 손을 맞잡은 지난 13일 사단법인 한-카자흐친선위원회(회장 이옥란) 조직으로 서울에 온 카자흐스탄 동포 2세대들 때마침 열린 정상회담을 줄곧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남다른 감회에 있었다.

임재시대 때 부모가 카자흐스탄에 정착했다는 김대호(68·연세대)씨는 “무 정상의 만남에 감명받았고, 합의

문 발표에 놀랐다”며 “한민족의 서로움이 벗겨나가는 것 같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상회담을 감명하고 있는 한민족(63)씨도 “국제경기를 볼 때마다 남과 북 모두를 응원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따뜻한 만남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감격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이역만리 중앙아시아에서 살지만, 모국의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한민족으로서 나름의 봉헌을 제시하기도 했다.”

92년 북한을 다녀왔다는 정영진(60·5남)씨는 “남과 북이 똑같은데 왜 갈라져 살아야 하나냐”며 “남쪽은 잘 산다고 북쪽을 무시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역시 조국은 하나”라며 기대를 나타낸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15일 오전 모함제철소를 찾아 공장전경을 담은 축소모형을 보고 있다.

지 말고 북쪽도 이념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정씨는 “많은 중앙아시아 한민족이 착박하고 고온스러운 이역 땅에서도 한민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 고집스럽게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한민족의 증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1998년 옛 소련에서 스텔라의 강

제이주정책으로 낯선 땅 중앙아시아로 옮기다 사립계 삼았던 이들은 서무론 한국말이지만 “광명의 역사를 감냈고 통일 조국에서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7박8일간의 임원으로 남한 판 구식구석을 둘러보고 있는 이들은 20일 출국 직전에는 청와대를 찾아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만남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 평양의 열기 철책녹여 서울로



## ■ 김대통령 환영 물결

### 육교에서 빌딩에서 시민들 환호 광화문앞 '우리의 소원' 합창 절정

들어오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대통령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열광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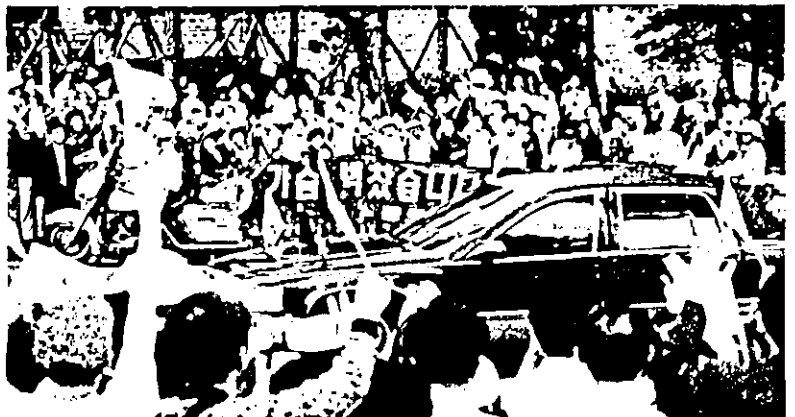
평양에서 시작된 분단 극복의 열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온 15일 서울 물로 물결처럼 번질었다. 10여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남북 화해시대의 개막을 기대하는 박수를 보냈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했다.

탈북비전을 통해 김 대통령의 남북 민노교섭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김 대

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박수와 갈채를 보였다.

김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울공항에는 300여명의 실업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었다. 공항 환영행사장 인은 물론 서울 곳곳에는 '이북5도민노교섭이 북5도민중앙연합회' 이름으로 '실업민의 아픔을 풀어주세요'가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서울문장 전문 앞 귀빈로에도 강남 시민은 물론 경기도 일대와 서울에서 2만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관공버스와 학교버스를 타고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환아복귀고함합니다'



24일 일요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의 차임이 15일 오후 서울 중문구 효자동 거리를 지나가자 인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chang21@hani.co.kr](http://chang21@hani.co.kr)

성을 질렀다. 김 대통령도 차에서 내려 "대통령 취임하기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았다.

서울 거리에도 시민과 태극기, 현수막이 함께 파도가 되 넘실거렸다. 시민들은 인도에서, 육교 위에서 발 딛고 서서 대통령 일행에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 일행의 차량은 서울시청과 공회관 나거리, 청와대 입구에서 환호와 함성으로 정삼화광 상공을 지지하는 수만명의 환영인파를 만나며 잇따라 움직였다. 저녁 7시3분 김 대

통령은 시청 정문 부근에서 오후에 차에서 내려 시민 수만명의 환호와 함성에 답했다. 오세훈선 수송대가 하절로 이동했다.

시민 유경삼(73 서울 송파구 봉하동)씨는 "김정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을 대역사들이 태극기를 들고 비견할 볼 수 있어 감사할 일이다"며 "이렇게 수만명 인파가 나온 건 본디로 분할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장담했다. 7시11분 공회관 나거리 입구 부근이 부른가 시작한 <우리의 소원>이 이새 거리 전가로 울려대자

시절했다.

광소 입적이 드문 청와대 주변에서도 주민 3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카바리는 물론 전교까지 들고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청와대로 가는 김 대통령 일행의 뒷모습을 들켜 지주본 김기순(43·여)씨는 "너무 기쁜 마음에 거리 주변으로 뛰고 돌며 주민들과 함께 나왔다"며 "이전 통일도 유 허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음향식김동훈기자number3@hani.co.kr

# 함께 가자! 민족경제 번영의 길로



'개방'과 '폐쇄'의 분단경제 반세기만에 청산  
남자본·기술, 북노동력 합치면 잠재력 엄청  
균형발전 터닥기 '미래를 위한 투자' 견뎌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단독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  
족경제의 균형발전"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50년간의 '분단경제'를 '민족  
경제'로 전환시키는 발로뚫은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최수  
영 박사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1992년 남북 당국간의 '남북 기본합  
의서'에서도 논의됐지만 이행 정치가  
보장되지 않은 탓에 결국 실현되지 못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우리 민족과 전세계  
를 향해 다수한 것인 만큼 실현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3시  
간 이상 회담을 한 것이 비호불 때 여  
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  
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은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상의 '남북 교류·협  
력' 이행 준수율 유한 부족합의서' 내  
용과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북측합의서는 스라브의  
자원 공동개발 스라브 내부교류로서  
의 물자교류 스라브직무자 등 경제교류  
와 협력의 실현을 통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  
의 복과 향상을 도모하기로 한다고  
발했다.

사실 남과 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의 경제 분대여서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고, 그 결과는 지금의 현  
격한 경제력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과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출발한  
남과 북의 경제는 70년대까지만 해  
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과 북은 60  
년대 이후 같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한쪽은 '수출입국'을 가치  
로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자립경  
제'로 나섰다. 75년 남과 북의 1인  
당 국민총생산(GNP)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59달러, 북한이 415달러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전후발전강대

나 1인당 에너지 공급량 등 일부 분야  
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력이 앞섰  
다. 70년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140억  
kwh로 남한의 92억kwh보다 1.3배  
 많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남한은 자유  
경쟁경제를 추진 반면, 북한은 대  
외경제를 강화하면서 양국의 경제력  
차이는 심화됐다. 특히 옛 소련 등 동  
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북한의  
경쟁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  
경제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과  
계속하면서 지난 98년 1인당 국민총  
생산이 남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안되  
는 573달러까지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 고  
일동 박사는 "북한은 소련의 붕괴  
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위협 속에  
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며 "결국 북한의 경제난은 분단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인사승기 기자 jahn@hani.co.kr  
▶22면으로 이어짐

### ▶21면에서 이어짐

분단경제의 모순은 비단 북쪽만의  
집중이 아니었다. 한화 전체 여산의 20  
% 가까이를 무방비로 쏟아붓는 남  
쪽도 발전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국가산업을 재고하는 늘 한민도  
의 발전상대가 결핍됨을 좌절하면서  
남쪽의 대외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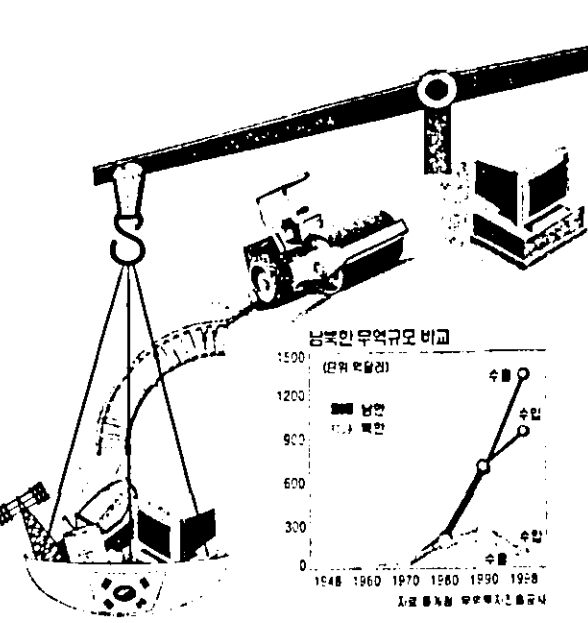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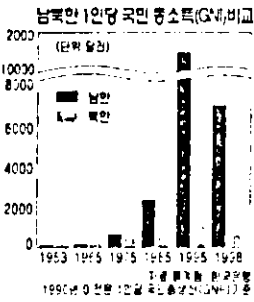
결국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민족경  
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로 한 것  
은 어느 한쪽의 지향과 다른 한쪽의  
수용과 같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다. 남북 교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한 선택인 것이다.

북의는 고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여가여 남쪽의 기술과 자  
원이 결합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시장의 시장확대를 남북합  
작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남과 북의  
경제적 결합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경제력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수 있다. 남북간에는 교류와 협력이  
일종의 선에서 북한과 중국을  
가져 유럽과 신흥시장과 더불어 인  
력과 협력이 이동하게 된다. 이뿐만  
이 아니다. 남북의 긴장완화는 양국  
양쪽 모두의 대외산업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다. 이후 앞으로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이 가져올 혜택을  
대요할지라도 결코 없다.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남쪽과 중국과 자원을 북쪽이 필요  
한다. 즉 남북간의 협력은 한쪽  
이 단독으로 성공할 수 없다. 양국간  
은 우선 양쪽의 경제를 결합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의 선언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방  
을 위해 사회기업(SOC)과 남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의  
지를 밝힌 바 있다. 북이 다른 지원을  
바로 우리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은 그리 할지 않을 무렵을 위한  
목표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가동 합의



### ■ 방북 재계인사들 뭐하고 왔나

## 투자보장 등 법적장치 제안 남쪽기업인 8월까지 방북합의 "개별 구체협상 못해 아쉬워"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협으로 동행했던 재계인사들은 15일 오후 서울 도착 뒤 북한 경제대표단과 1992년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서'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화를 가동해, 남북경협 문제를 풀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계인사들은 개별협상을 통해 준비하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추가 방북을 통해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명예회장 방북에 현안 협상"

◇...정몽헌 현대인산 이사회 의장은 방북당시에 대해 "협정이 완벽히 개별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이달말 김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다시 방북하면 좀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서해안공단 타 선장과 관련해 "이미 실시한 신의주와 함께 해주, 남포지역 실시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도금강산 추가개방도 논의할 데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장은 남북철도 복원이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 "컬러TV 합업공장 구체화"

◇...엠텔 구분두 회장은 "북한 기업인들이 우리 기업의 대표진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남북합업을 계기로 성의를 갖고 정부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이들 사업 안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남북경제공동위 설치 등 눈에 보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 마련해 북한 기업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큰 몸집이 가진 민중 조급한 정성일 손오빈 경협은 당장 불씨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북사업 현물과 계획을 직접 챙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비전 합업공장이나 비주장시대 국제물류센터 건설 등 사업별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방북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첫 방북이어서 그런지 북한 땅을 밟을 때 울컥했다"며 "방북기간 내내 사람들도 친밀했고, 깔끔한 음식맛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 "컴퓨터분야 상당한 수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에 들어온 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상선전자 임원들로부터 휴대전화용해 인사를 받고 "방북기간 중 북쪽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또 정상회담에 대해 "통일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다들 평을 수성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부회장은 앞으로 삼성의 대북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남북 공극간 대화의 진전과 북한의 인프라 개선 정도에 맞춰 대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 "노력하자" 화답

◇...손길승 에스케이 회장은 "중앙은 계획대로 저국하고 공화도 없으며, 김리장님이 갑 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감을 먼저 밝혔다. 그는 "인민회숙관·도서관·고무시설·합동강 등을 둘러보았다"며 "북한의 컴퓨터산업은 실정적으로 오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북쪽 고위인사가 '남북협력이 대한 기대가 크다', '남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저의 해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오찬에서 '남북 경제교류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의원장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밝혔다.

### 북 민간경제대표와 회담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15분 동안 인민문화회 전 회의실에서 우리쪽 경제대표와 북쪽 민간경제협력연합회 간부들이 중점이 된 북쪽경제대표들과 논의했다"며 "정몽헌 북한 민관협 회장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잘 배워가'는 인사말을 했고, 우리쪽도 '우리는 이제 큰 몸집의 협업을 할 의미가 있으나 남북경제공동위를 하루종일 가동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 "철도·도로 연결해야" 공감

◇...이철호 중소기업진흥진흥

협회 부회장은 "북쪽 경제대표들과 남북 경제공동위를 구성해 이들과의 방북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이 갖춰져야 남북경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북쪽이 경제강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남쪽에서도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산업강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경의선과 고성-원산 철도 또는 고속도로 연결공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남북은 특전선 인근에 남북중소기업 전용공단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는 8-9월경 중소기업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 30여명으로 방북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자, 북쪽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14일 남한 경제인사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정몽헌 현대인산 이사회 의장이 그냥 지나치지, 김 위원장이 '아반남은 건강하시나, 아반남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며 "김 의장은 '서울에 가서 아반남에게 꼭 답송드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북한 경제계 인사들이 의세를 배제한 채 남북경협을 추진하자는 뜻을 비추었다고 덧붙였다.

### 북 "관문점서 만나자" 제안

◇...이복 출신 기업인으로 방북했던 강치현 고합그룹 회장은 "몇차례 방북했지만 이번 만남은 이전과 방북했을 때와는 크게 달랐다"며 "이복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 이야기가가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한이 크리아 강성모 회장은 "14일 만찬이 끝난 뒤 밤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양쪽 경제계 인사들이 다시 만나 논의할 했다"며 "이 자리에서 남북이 각자 공식청구를 만들어 제3국(베이징)이 아닌, 관공권을 통해 서로 경협문제를 논의하자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김중일 국방위원장이 수한한 경제인들에게 "공동성명을 같이 할시다", "잘 배워가"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제부 디지털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낮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대표단 환송오찬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오른쪽에서 옆모습 보이는 사람)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김 위원장 오른쪽) 등 우리측 수행원들에게 산성술을 따라주며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취재단

## “북한도 실질적 경제협력 원해”

###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남북 정상회담 수행을 마치고 귀국한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5일 저녁 7시30분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기간에 남북한 경제대표들이 만났을 때 북쪽 인사들도 실질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논의사항 가운데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가장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합과 관련해 얘기를 내놓 기회 있었나?

=남쪽 경제인 10여명이 방북 플랫폼 오후에 인민문화공원에서 북쪽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 등 북쪽 경제인시들과 1시간여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나 김합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는 아니었다. 다만 장 회장이 원고를 들고 나와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아 북쪽은 상당한 준비를 한 듯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나?

=장 회장은 사상을 초월해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실체적 조

건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개별적이고 시범적이라며 세계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많이 접촉해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했다. 좋은 구상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북쪽 제의에 우리측은 주로 당국간 남북경제공동위를 통해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에스케이 손길승 회장은 15일 오찬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제공동위를 이룬 시일 안에 구상해줄 것으로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회 고함그룹 회장, 강성모 린 나이코리아 회장 등 실용인 1세대들은 고함투자단에 대한 희망을 주로 피력했다.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은?

=경제협력에 활성화되면 당국간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경제단체 사이에 단일창구를 먼저 만들어 북쪽 민경련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대면



해본 인상은?

=판단력이 빠르고 유머감각 있는 데다 순발력도 있는 것 같다. 회의장을 주도해가는 능력도 탁월하다. 특히 연장자인 김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예의가 인상 깊었다.

손 부회장은 “떠나기 전에는 기대와 함께 걱정도 있었지만 평양 순안 공항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임접하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 뭔가 이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사용기간은 운통 감동과 흥분 속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

### 서울~평양 연결

### 데이콤 위성전화 사용

남북 정상회담 기간중 남쪽 대표단의 주요 통신수단으로 데이콤의 글로벌스타 위성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콤 관계자는 15일 “평양을 방문한 참가단이 15대의 글로벌스타 위성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남쪽과 통화했다”며 “주로 우리 경호원들간의 통신수단과 서울~평양간 통신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콤의 글로벌스타 서비스는 지구상공 1400여km의 저궤도에 위성 48개를 띄워놓고 전세계 38개의 지구국간을 연결해 장소 제한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위성통신서비스이다. [한석진 기자 sjham@hani.co.kr](mailto:sjham@hani.co.kr)

## 축구 남북단일팀 전망은

### 10월 아시안컵 시금석

#### 경평축구 계승 가능성도

90년 10월 서울과 경양에서 열렸던 남북통일축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두둑해졌다. 특히 축구는 과거 서울과 경양에서 열렸던 경평축구(46년 이후 중단) 개최의 전경이 있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교류에 이은 단일팀까지의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남북 당시 북한 관계자들과 통일축구에 관해 논의할 한 바 있어, 곧 시드립 채취 실무회담에서는

통일축구 개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리바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는 단일팀 상사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이 5월 남북 단일팀을 수용하기로 결정과 사실상 북한의 '검단'만이 남았다.

이밖에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와 2002년 월드컵 때의 단일팀 구성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창길 기자 kimck@hani.co.kr

## 탁구도 또 단일팀 나왔다

### 지바 감격 다시 보인다

'91년 지바의 영광과 감격'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4일 2001년 일본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고, 북한의 김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남북의 제안이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또한 국제탁구연맹 아담 시라라 회장이 이달 후반까지 경양을 방문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탁구협회는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 체육회담에서 단일팀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협회의 관계자는 "단일팀이 구성되면 시너

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91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불과 2개월여 만에 타결된 전례에 비해 이번 단일팀 구성문제가 오히려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체육회담에서 단일팀을 구하기로 하면 합동훈련센터, 선수단구성, 단가, 국호문제 등은 91년 경험이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탁구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단일팀에 선발될 북한 여자대표선수로는 세계 8위권의 김철희 선수가 꼽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세계랭킹 8위인 유자혜 선수가 91년 현경화-리분희 편처럼 김철희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ap209@hani.co.kr

## 부산아시아게임·월드컵은

### 세계규모 종합대회 북한 참가엔 대사전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서 여러차례 조우했지만, 한반도 안에서 열리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서로 교환한 건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수백명에 이르는 선수단을 남쪽에 장기간 체류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충분한 신뢰와 교류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 위상의 변화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2월드컵의 경양 본산개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수안평의 외국관공관이 임시로 북한 내무에 들어오는 월드컵(국제축구연맹은 경기장장르의 50%를 무조건 외국인에게 임대하려고 있다)은 북한에게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과 월드컵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이는 단순한 스포츠 차이를 넘어 남북교류의 획을 긋는 절경의 대사전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은 그동안



91년 일본 지바-한에서 열린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한 리분희(왼쪽) 선수와 현경희 선수가 복식경기를 벌이고 있다.

## 남북 합동훈련 추진

### 김운용 체육회장

남북은 오는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동시입장 행 아니라 공동응원 및 합동훈련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은 1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미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북 정상에 요청한 사안인만큼 성사될 것으로 본다"는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말을 소개하면서,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이 확정되면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과 합동훈련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느 종목이 (남북이) 합치면 세계 제일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유도 태권도 등 주요 올림픽 종목에서도 단일팀 구성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이인우 기자 iwlee21@hani.co.kr

# 남북 침략·위협 행위 양기로

## 양쪽정상 '외교·군사권 따로 보유' 통일추진방향 합의

### 金대통령 귀환 "이산상봉 상당규모로 이뤄질 것" 적십자 이달 가동... 金위원장 답방시기 합의 시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역사적인 2백3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김대통령은 도착 직후 '대국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도 새 날이 밝아온 것 같다"며 "55년 분단과 적화에 총지부름 피고 민족의 새 역사를 전개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한국 우리와 합의된 시안 안에 서명을 방탄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히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산가족 교환방문에 대해

"지금으로선 상봉·결합의 범위(한 단언할 수 없으나 상당한 규모에서 시작될 것이 틀림없으며 이점 북과 협의했다"며 "6월 부터 적십자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해 이산가족 문제를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설명하며 남북한은 앞으로 느슨한 단계의 연방국가화 의미하는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하되 외교와 군사권은 연합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권을 갖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온 북한이 남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

이다. 김대통령은 이어 "(회담에서) 핵, 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얘기가 다 나왔다"며 "그 가운데 매우 유익했으며 아주 좋은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고 회고. 이날 문아에서 의견 집권이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한편 박준영(朴俊英)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려 참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정상이 선행제방 방식의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래동·안호기기자 hork@youthwing.com

## 북, 對南비방 방송 중단

### 金위원장 지시... 南언론사 사장 전원 방북 초청도

#### 어제 고별오찬서 밝혀

북은 15일부터 휴전선 대남 방송을 비롯해 각종 선전매체할 통한 대남 비방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했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고별오찬 자리에서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를 비상소집, 휴전선을 포함해 어디에서든 잡대로 (남

한을) 비방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위원장은 '엄중 있으면 6·25지만 6·25 형사도 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서로 나쁜 것만 보지 말자, 사사건건 대결하면 되겠느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김대통령에게 "옛날 정치인 같으면 이런 일(공동선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대통령과 내가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국 언론사 사장단이 오는 8·15 이전에 김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고별오찬 자리에서 배석한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남측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불편을 표시하며 "남측 신문·방송·방송사 사장 전원을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며 "8·15 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호기기자 hork@youthwing.com

# “군사·외교권 각자보유 단계통일”

南北정상 ‘통일방안’ 합의... 北 우리측제의 수용

## 상호 침략·위협 없기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종영(朴政榮)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두 정상은 14일 회담에서 집중토

론을 벌인 결과,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또 상호 무력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제하기

로 합의했다. 남측 대표단은 15일 배포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두 정상이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일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승 오탐 후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순안공항으로 나와 김대통령을 환송했다. /평양=공동취재단

# “이산상봉 상당규모 될것 북한核·미사일문제 거론”

金대통령 귀환... 金위원장 답방시기도 합의 시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상당한 규모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될 것임을 북한과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남북직접상봉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인사말을 통해 “순안공항으로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김정일(金正

일)국방위원장에 8·15까지 봉크게 한번 하라. 그렇게 하면 비전향장가수문제도 내가 국민과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김위원장과 회담에서 핵·미사일 이야기를 했으며 주한미군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다”며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중에는 아주 좋은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고 빌해 한반도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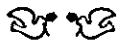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김위원장은 우리의 ‘합의원’ 시절중에 백해 서울을 방문하셨다고 겸손했다”고 말해 이미 방문시기와 형식, 기간 등을 놓고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DJ “젓먹던 힘 내 김정일 설득”

남북정상



6·15선언

## ■ 정상회담 뒷얘기

5년 55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2백여명의 북측 정상의 말과 움직임을 지켜보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흥과 열정이 가득했었다.

### 2차 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 작성과정

○2차 정상회담의 문건을 마련하는 데까지 단계에서도 서명자의 놓고 조율해가다 가는 과정이었음. 진전이 없었다. 모든 문건은 2차 회담 전 직전에 국가 위수가 이를 대담원과 함께 서명해; 것이 적당하지 않더라. 김영남 회담위원회의 책임위원이 회담도 진행

해, 김대중에게 나온대로의 표현에 합의가 이뤄졌다. 김대중원은 회담 후 “내가 몇시간 뒤까지 내지 강요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박대변인이 전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피하기도 남측의 정세가 합리적이고 반동봉제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박이해 즉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회담도중 김대중원의 발언을 듣고서 “김위원은 왜 만나면서 ‘우리는 왜 관둬야 하는데 남측에서 못수되게 한다’는 등 1998년 남측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항 등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 또 남측 정세를 김대중원과 함께 보면서 자신을 좋지 않게 다룬 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박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김대중원의 인생여정과 정치의정에 대해서는 “복잡까지 위대하게 되는 발언을 받고 감명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추후에 존경심을 표시했다고 박대변인이 전했다.

김대중원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사소한 점을 김위원장에게 말했다. 박대변인은 김대중원의 “저로건에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환한 김대중대통령 내외가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태극기와 불타달을 든 민간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서울공항·삼화대사진기자단

## 연방제에 진통끝 ‘낮은단계...’삽입 北 선언문 서명자 한때 김영남 제시 김정일 경의선 복구때 軍동원 시사

의 명을 받아 다음 사람이 하지 않을 것임으로 하지했다. 그러나 남측의 서명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군대도 정상이 서명해; 것으로 간주.

○2차 정상회담 문건의 차이에 하나인 제2권의 ‘연방제’연방제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라고 표현한 것을 김대중원이 김위원장을 통해 서명자의 강;로 간파하고 이를 통해 연방제에 대해 전했다. 남측의 공식적인 연방제안은 중립적분기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리를 갖 것으로 김위원장은 회담에서 이를 계속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김대중원이 “연방제에 대해 각국에서의 활동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내 여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했다고 전해 지해 교섭을 북한의 도발 등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2차 정상회담을 놓고 북측에서는 북한이 회담에서 나타내었다 “북측도 고집들이 등 전, 2차회담에 간담했다. 회담위원장이 잠시 두 차례였다. 모든 김위원장은 “북측도 고집들이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고 농담을 던지자 김대중원이 “북측 김위원의 경우도 사정이야. 친구 김위원 김위원장의 친해 친해도 사정”이라고 말하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정일위원장**

○2·15의 유엔(UN)조사 결과로 공개되지 않았다. 김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담

없는 대담의 수사학적 화법을 선보였고 김대중원에게도 적당하게 예우를 해주었다고 남측 대표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지원(한림대)문화관광부장은 김위원장이 “유승배(새김용중추이사)가 김대중원이 머무는 백의관 연방관에 기차 말리고 했는데,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가는데 왜 김대중원이 왔는데 내가 못가겠. 나가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을 따라 하루 한 차례의 김대중원과 오찬 또는 만찬을 하며 북측 대표단에게 여러명의 김대중원에게 먼저 손을 권하는데 하는 등 대담 때에도 친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도 또 김위원장의 “북측은 이번 회

담만 한 일이 없지 않더라면 바라던바 수적(手數)의 의미만 만나면서 “북의정의를 풀 때 공을 동원해 갖”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또 1990년에 일본이 은단을 전세계에 보급했는데, 갑자기 세계의 등지로 번들 것은 전적으로 대미관계의 공;이라고 추측해왔다고 박지원이 말했다. 김위원장은 “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차원으로 이해에 한번 하겠지만 “대중에서 가장 유용한 우리 민족어 이해는 대미관계는 서장을 찾아 하지 않더라”며 회담도중 김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박지원기자 ban@kookje.com

# 김정일, 對南비방 중단 지시

## 南에도 對北비방 말도록 요청

북한은 앞으로 휴전선의 대남 비방을 비롯해 각종 선전매체업 중인 대남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도 50주년을 맞는 6·25 관련 행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방북했던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에 따르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환송 오찬 석상에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를 비상소집, 휴전선을 포괄해 어디에서든 김대중(南元)을 비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10일 있으면 6·25지만 (비방·무력시위를) 하지 말고 6·25행사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 남측도 대북 비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 김정일, 南연론 사장단

### 8·15이전에 訪北 초청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5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환송 오찬에서 남측 언론사 사장단을 8·15 이전에 방북토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개인 자격으로 남측 신문·방송 사장단을 초청하겠다"면서 "8·15 전에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0. 6. 16 (금)

# “좋은일 더 있으나 밝힐시기 아니다”

## ■ 김대통령 '6·15선언' 직접해설

### “김위원장이 톡크게 민지 잘하면 장기수문제 국민과 상의해 치리” 전혜 “노인인 나도 왔는데...” 答訪 권유 소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공판에 도착, 인사말을 통해 6·15 공동선언 5개 합의사항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해 직접해설했다.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한 뒤 "그와 여러가지 양대면 좋은 일이었으나 (박지원에) 최남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해 비공개 접의 시정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6·15 선언 각 합의사항에 대한 김대통령의 해설.

#### 자주회 해결

이것은 7·4 공동성명에도 있다.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28년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얘기했는데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주는 화답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민족 자주 통일 평화 이란 듣기 좋은 말만 해서선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도 합의할 만하다.

연말에 밝은 단계의 연방제 2안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 연합이다. 2차례 2정부 2헌법 대

로 5차, 6차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와 장관 각급담 회의, 국회 회의와 각각 구성원으로써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 자주자주 모든 분야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연방제이다.

그에 비해 북한은 1980년 연방제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 정부가 외교관 군대경찰권을 가지자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 정부는 대장관만 가지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하 이렇게 불가능 하거이다. 그러나 근처에 북한은 이 점을 수정했다. '밝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 연방이 갖자고 주장하던 외교 군사권을 지방 정부가 그대로 가

져도 좋다고 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주장한 대목이다. 이는 (남북사이) 상통한 문제가 많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양쪽 대표가 같이 문제점 토론에 참가, 의견들도 오고 전말가들도 와서 한 번 얘기해보자고 제의 했다. 나는 이것이 우리 통일운동사(史)에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선언의 셋째 문항은 남북이 8·15에 즈음해 이산가족 방방단을 교환하며 비전망 장기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문항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알았든, 숨어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왔다.

오늘도 (순안)공방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차를 같이 타고 나오면서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다. 이번 8·15까지 북에서 여러 분이 말려대고 톡크게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같은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길 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6월부터 직접사자가 된 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앞으로 그 범위가 얼마만큼 갈 지 아직 나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이 문제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는 것을,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보고있다.

#### 남북 검협과 교류

김의신 김원선 등이 연방하면 새로운 전년의 실감로도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크게 경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해 나

가기로 김정일위원장과 확실히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정일위원장 답방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합의하는 내 중 임이 있었다. 그러나 김과 김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된 서울 중에 태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김위원장에 얘기했다. 당신이 서울에 와서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김위원장은 동맹에의지국의 예의를 갖 이는 참으로 없고 있는데 김위원장보다도 10여살 위인 노인인 내가 방안까지 왔는데 당신이 한 윤디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도 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남북(정부 공식안)               | 김대중대통령안                  | 북한안                              |
|--------------------------|--------------------------|----------------------------------|
|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국가연합 3단계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
| 자주 평화 민주                 | 남북연합-연방제-통일국가            | 통일국가건설                           |
| 최저합의-남북연합-1민족1국가 통일국가 완성 | 남북연합-연방제-통일국가            | 남북 동포애비회담-연방정당준비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통선거     | 남북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각료회의 | 연석회의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 단일국가           | 연방국가                             |



# 金-金 손잡고 '우리의 소원' 합창

남북정상  
합창  
6·15선언

## 환송행사·오찬 이모저모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은 보내는 이도 떠나고 이도 보낼 땅의 장이 열렸었다. 이치고도 애절한 하루였다.

### ● 순안공항 환송식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떠나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개항장을 나온 순안공항으로 배웅나오는 김대중정부에 대해 끝까지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오후 4시에 삼도 차량이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에 귀환하는 북한 주민들의 열광이 붉은색 조화(蜀花)를 흔들며 "만세! 만수무강! 김대중! 김대중!"의 외성을 일제히 외치며 달려서 나왔다. 김대중은 비행기 10분에 오르기 직전 김 위원장과 3차례 손을 맞대고 직면의 포



김대중대통령이 부인 이희호여사와 함께 2박3일간의 방일방문을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의정대를 사열하고 있다. /서울공항·청와대사진기자단

## 포옹하고 뺨대며 아쉬운 공항의 이별 김정일 "남언론 내술실력 날카롭다고..." 박지원장관에 "노래 한번 해보라" 권유

을음 했고, 김위원장은 김대중원 내외가 떠나고 돌아 전영기 입구에 사자 위패 제단에서 손을 잡고 돌아 인사했다. 오후 4시30분에 김대중원 내외가 전영기 입구에 들어간 뒤에도 김위원장은 조영태(趙英泰)주한미군 총참모장장을 영접과 함께 나간 뒤 사자 간에서 손을 흔들며 전영기가 귀환할 때 마다 때까지 공항에 남아 김대중정부 배웅했다.

### "대통령께 팔걸이 의자분"

#### ● 환송오찬

날 12시20분부터 김위원장 초청으로 배운다. 연방에서 연방 위장 오찬에 사자 위패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 받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훌륭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대중과 사자의 김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연방에서 김대중원, 이희호 여사와 함께 20여분간 따로 식사를 가진 뒤 남북 대표단과 북측 관직자들의 기념비수축에 연방장에 입장했다. 김위원장은 해산 테이블에 앉으며 김대중의 의자에 자신과 똑같은 권리가 있을 것을 보고 뒤에 서

었다. 남북회담의 의정장을 불러 "김대중 원에 권리가 있는 의자를 갖다 드리시오"라고 "요청한 뒤 예초부터 준비하지 않겠나"라며 세 차례나 지적했다.

### "평양도 울고 서울도 울고"

조백태 연방군 총참모장은 오찬사에서 "총비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언에 의하여 김대중원의 평양 방문과 훌륭한 과정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임동원(林東源) 대령의 "북측은 1박2일 7,000만 명의 입장에 평양도 울고, 서울도 울었다"고 소개를 말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 원에 사자에 앉자마자 전영기 사자 방문 때의 "남북회담"을 회담장이 남한 언론인이 와서 김위원장이 김대중의 남가되었다고 허다 구명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에 김대중 원이 "저는 대만에 갈까시 마시고"라고 김대중 원이 "남한"을 준비를 보여 주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에게 "도수가 높은 술 대신 포도주를 권했다."

남한이 사자 회담에게 돌아가지 않

북 대표단은 두 정상에게 인사하며 송환을 권했고, 두 정상은 이에 일일이 응하며 견배했다. 특히 김대중원은 자신의 요연쪽에 앉은 북측의 조영태 총참모장과 조영태 대령을 내리고 북측 인사 조영태(趙英泰) 외교부 제1 부장은 김대중원 내외에게 송환을 위한 뒤 자신의 자리를 찾아 온 박정원(朴正元)문화관광부장관과 서로 손을 잡고 전을 나누는 "만수무강"을 배 박수를 받았다.

남측 기원인들이 김위원장을 "앞으로의 협력과 기원하는 뜻에서 송환을 위한 권해추진사"라고 요청하자 김위원장은 이들에게 송환 한 잔씩 권했고, 김대중원도 김위원장을 "앞으로의 협력과 기원하는 뜻에서 송환을 위한 권해추진사"라고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앞으로의 협력과 기원하는 뜻에서 송환을 위한 권해추진사"라고 말했다.

이해 참석자들은 박지원장관의 제의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합창했고, 두 정장은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합창했다. "노래가 끝나 뒤 박정원은 "노래 한번 해보라"는 김위원장의 권유에 "국외의원은 한 번밖에 못했지만 노래를 두 곡을 하겠다"며 연방이 두 곡의 요청가를 들었다. 박정원은 자라노 동이같이 김위원장을 "시상에 꼭 오시라"고 부탁했고, 김위원장은 "꼭 가서 박정원의 (국외의원) 4천에게 배 주겠다"고 말해 박정원은 "자아한다." /평양=공동취재단



# 한민족 자주적 '원-원의 길' 간다

 남북 새시대 <>

동북아 지각변동 주변국 협조유도  
우리사회 냉전의식 변화 뒤따라야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각이 바뀌고 있다. 민족분단의 당시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4강도 대(對) 한반도 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6·15 공동 선언에는 분단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족 주체적인 입장이 담겨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19세기말, 20세기 초 우리 조상들이 국제질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선언에 21세기 한민족의 갈 길에 관한 양측의 비전이 담겨있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측이 평화의 새 단어가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상회담 및 당국회담 성격화,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한민족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군사적·정치적 긴장관계도 평화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이같은 협의를 이른 남북·국제질서 역학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 확대한 분단비용 지출을 막으려는 남북의 의도와 고립적 자립경제로는 더이상 실질을 찾지 못해 세계로 발돋움하려는 북측의 목적이 맞물린 배경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 양측에 특이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지 단지 민족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가다.

남측은 향후 냉철하고도 치밀한 전략을 수립, 남북 모두에 특이되는 윈윈(Win-Win) 방식의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북한내부를 면밀히

분석,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의 큰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을 적절한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또 한반도정세에 시발적 이해를 함께 하는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어려운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국제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을 고려로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주변 4강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노력이 우선 경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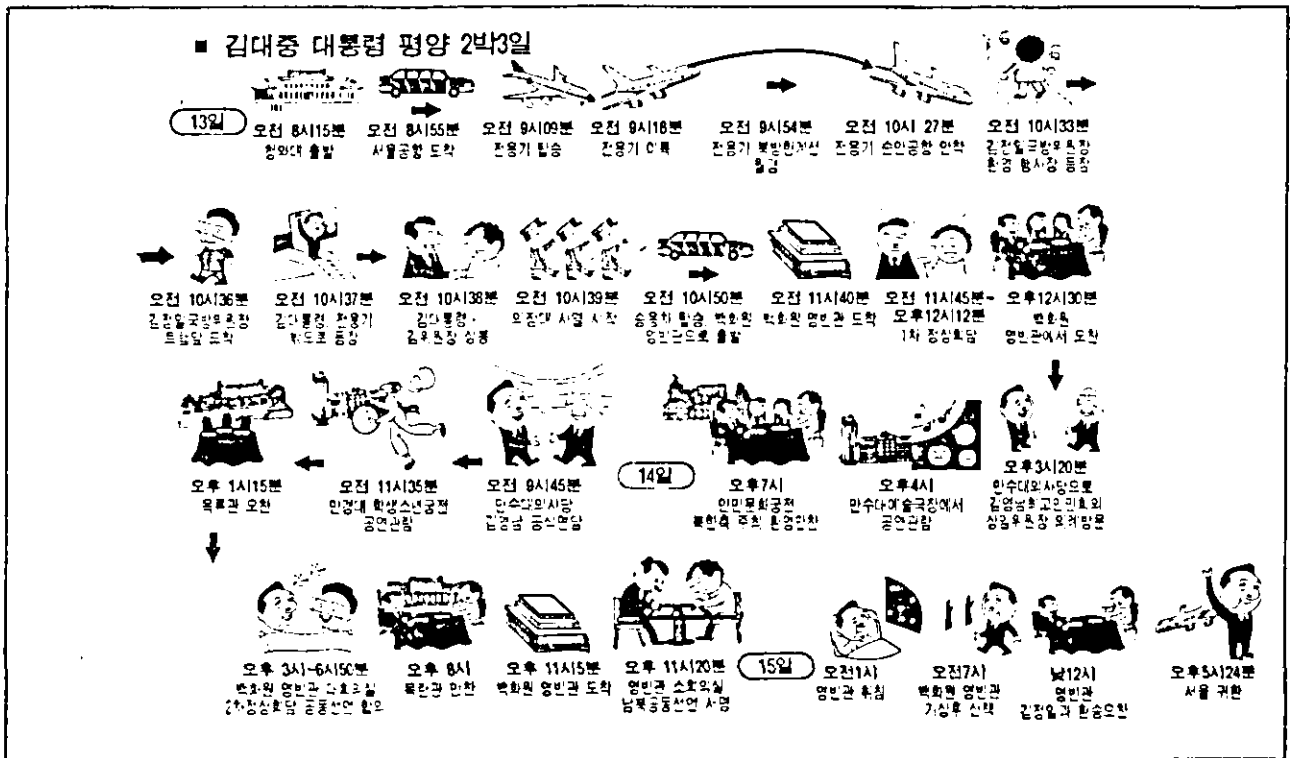
또 주한미군문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미·중 대결구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등 한반도 역학 동인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의 이번 정상회담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북한의 실력을 올바르게

계 파악하는데 기여할 한 만큼 우리사회의 레드콕플레이스나 국민의식속에 지리한 냉전구조등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leeyes@hk.co.kr

**■ 김대중 대통령 평양 2박3일**



**13일**

- 오전 8시15분 청와대 출발
- 오전 8시55분 서울공항 도착
- 오전 9시09분 전용기 탑승
- 오전 9시18분 전용기 이륙
- 오전 9시54분 전용기 북한항공선 전용기 승인공항 도착
- 오전 10시 27분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행사장 등장
- 오전 10시36분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별담화
- 오전 10시37분 김대중 대통령 전용기 전용기 등장
- 오전 10시38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용기 전용기 등장
- 오전 10시39분 오장대 시찰 시작
- 오전 10시50분 승용차 탑승 북한관 박희철 평안남도 도청
- 오전 11시40분 평안남도 특별
- 오전 11시45분 1차 정상회담
- 오후 12시30분 평안남도
- 오후 1시15분 목포관 오전
- 오전 11시35분 인명대 학생소년공연 공연관람
- 오전 9시45분 만수대의사당 김대중 공식연담

**14일**

- 오후 7시 이만희공전 북한측 주한 특명인찬
- 오후 4시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공연관람
- 오후 3시20분 만수대의사당으로 김대중추모공연회와 상공유치장 오거리방문
- 오후 3시~6시50분 평안남도 평안남도특별
- 오후 8시 목포관 반환
- 오후 11시5분 평안남도 평안남도
- 오후 11시20분 평안남도 소포의식 남북공동선언 서명

**15일**

- 오전 1시 평안남도 후퇴
- 오전 7시 평안남도 평안남도 기념후 식전
- 낮 12시 평안남도 김대중과 함승오전
- 오후 5시24분 서울 귀환

## 1세대 남북합의 서명주체 및 주요내용

7-4 공동성명



이후학



김영수

1972.7.4

자주-평화-민족통일 3원칙 등 7개항

남북기본합의서



김정일



김영남

1991.12.13

남북회담 불가침 교류-협력 등 4장 25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김정일



김영남

1992.1.20

북부기 시험 체조 생산-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등 6개항

6-15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2000.6.15

자주-평화, 남북 통일방안 공동성명 인정, 이산가족·비전향 장거수문제 해결, 디엠제 교류, 당국간 대화 등 5개항

## ■ 김대중 대통령 말말

###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가 가득차고 한강과 대동강에 번영의 물결넘칠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부터 2박3일동안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서울에서와 달리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결재한 언어 속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그의 철학과 소신이 잘 드러났다.

▲“그 관계들을 놓고 돌아 이제 왔습니다.”(13일 낮 평양도화 성명에서)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13일 오후 백회원 영빈관,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겁없고 용감한 반박’이라고 말하자)

▲“입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면 이무지가 있을 것이 없다...이제 우리 입술 합쳐 끓여진 열기를 다 시 잊고 뱃길을 열고 하늘길도 열어가지.”(13일 저녁 인민문화궁전,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 담사에서)

▲“외국가지들도 (서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수백명이나 있는데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정면을 보고...”(14일 오후 백회원 영빈관, 2차 정상회담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14일 저녁 평양 목란관, 만찬사에서)

▲“드디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평화가 가득 차고 한강과 대동강에서 번영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14일, 만찬사에서)

▲“우리가 드디어 공동성명에 완전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14일, 만찬도중 김정일 위원장의 손을 잡으며)



공항 환송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인민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공항 환송행사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평양·청위대사진기자단

## ■ 김위원장 말말

### “제가 무슨 큰존재라도 됩니까 너무 경거망동한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3-15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음식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김대통령이 오셔서 (내가)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그 래요”라고 농담을 하는 등 수다스러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과거의 ‘은둔자’ 이미지를 일거에 박식시켰다.

▲(13일 오전 백회원영빈관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의 용감한 반박에 대해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지렁이를 앞세우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하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지도 도덕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 민족입니다.”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한 기록될 날입니다.”

▲(14일 오후 백회원영빈관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어제 남북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남북 인시들도 다 환영하고 특히 실험인, 합복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 기회에 고향 소식이 전달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속을 태웁니다.”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까. 우리파 사람들은 나보고 왜 은둔 생활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중국, 인도네시아도 비공개로 많이 갔다 왔는데. 김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그 래요. (웃음)

▲“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지난번에 중국 갔더니 한국식 김치가 나와서 남북 사람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14일 오후 목란관 인민청 옆 휴게실에서)  
▲“김대통령께서 백두산에 한번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북한에 한번 가보고요.)  
▲“저술과 신문들을 보니까 기자 여러분들이 평양 시내가 한적하다고 썼더라. 한적하다는 말에는 뭐가 없느냐 의미가 아니다.”  
▲“제가 너무 경거망동한 것 같습니다.”

▲(14일 저녁 목란관 인민청에서)  
▲“이산가족이 되면 안된다.”(이희호여사가 허드태이불이 아닌 일반 참석자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촬영을 위해) 연단에 두 번 나가오니 출연료를 받아이 되겠다.”

▲“엄밀한 관영화제에 남측이 충분한 ‘준장면’이 본선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진’지잖 ‘면’지로 잘못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면’이 맞더라.”(만찬이 끝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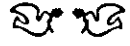
▲(15일 낮 백회원영빈관 환송 오찬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술 실력이 날카롭다고 하더라.”

# 은둔서 해방된 '지도자 동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3일동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단방향계 TV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을 원전 노동시키며 세계의 이목을 한곳에 모았다. 이제 세계인들은 김위원장을 더 이상 '은둔의 지도자'라거나 지도자로 부를 수 없게 됐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의도적 은둔이든, 아니면 김위원장의 지도자적 역할과 인간적 품성이 드러난 것일지, 김위원장은 자신의 말대로 "은둔에서 해방된

쪽에서는 광고를 하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리만 추구하면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김전 총 우라와의 관계에 대해 김위원장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지와 관련, 음미해 볼 대목이다. 항상 자신에 난혔던 김위원장이세도 그의 현실관각을 생각하면 '자격지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한 발언이 있기는 있었다. 김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때 어떤 말끝에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싶었지만 부족한 게 뭐가 있

순 비서'로 부른다던가, 15일 만찬 때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겐 만찬사 당시를 대독시키던가 하는 발언중 행동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임을 과시했다. 15일 만찬때 북한군 장성들로 하여금 김대중에게 술을 따르게 한 것은 그들의 연회문화와 친척에 얽힌만 아니라 김위원장의 평소 동치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 유머를 드러난 인간적 면모 및 예술히향

**남북정상**  
  
**6·15선언**  
 ■ 3일간의 김정일 모습



공향영접·환송·완전노출' 세계 이목집중  
 소탈한 웃음·多辯에 의표씨르는 발언 '번뜩'  
 '용순 비서' 호칭·답사 대독등 '영도자' 과시

있다. 피격속 의표씨르는 언행 13일 김위원장이 김대중을 찾 기 위해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온 이후 김위원장의 행동은 피격 의 연속이었다. 엄청난 디면으로 오히려 김대중이 망망 기회를 찾 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던가, 말 할 때 오글은 웃음으로 제스처를 쓰 기를 즐긴다던가, 소파에 있을 때 오른손에 무릎을 얹어 조금 비스듬 하게 앉는다면가 하는 김위원장의 입거수 입부족이 우리에게는 피격 으로 보였다. 이제까지 몰랐던 진 면모를 보는 충격도 있었을 것이 다. 그의 기실없고 자신에 한 일행, 권위적이라가 보이는 소탈한 보이 는 웃음들이 또 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처럼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피격은 피격 자체 로 끝나지 않았다. 13일 제1차 정상 회담때 김대중에게 "정신도도 동 침에서 힘든 두려운, 부서는 고통을 호칭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한편으 라 동침이 오복의 정도도 의표씨 라는 발언이었다. "순안주의에게 세도 도셔야 있다"고 말한 것도 비 슷한 맥이다. 1차 정상회담때 "남

습니까"라고 말했다. 영도자 이미지 관리 김위원장은 피격의 연속속에서 노 의도적이든, 아니면 북한을 불 치하는 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13일 1 차 정상회담 직전 우리측 대표단과 백과원 영빈관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김대중이 환한이러 우리측 공 식 수행원들에서도 친근감을 나타 내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밤 역사적인 공동선 언에 서명한 후 서명장소를 빠져 나오면서 북에서 김대중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임동원(林東源) 특별보좌에게 무엇인가 자꾸 말 을 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된 연출이라 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15일 환송 오찬식상에서는 우리측 이기호(李基浩)명제수석에게 이남 오찬에 사 람었던 '단과장'에 대한 질문을 던 지 감성적인 답변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공향 직접 영접 에 기술 감사를 표시하는 김대중명 에게 "제가 무슨 큰 존재라도 됩니 까"라고 감송을 보였지만 김용순 (金容淳)노동당대법담당비서를 '용

김위원장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의 유비할 배움을 수 없게 됐다. 1차 회담이 끝난 뒤 우리측 안주삼(安周 贊)경호실장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의표씨르는 농담을 던졌 다. 14일 만찬때 이화순(李華純)여 사에게 "이선가족이 되면 안되지요"라며 김대중 영으로 지리할 용가 준 것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 이다. 또 이 만찬때는 자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느꼈는지 "제가 너무 경거명동한 것 같습니다"라며 반성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언행에서는 후계자로 자라

난 일종의 '귀족 취향'도 간간이 드러났다. "개성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개성도박에게 민금제 했다 니 양이 적더라"는 말도 했고 15 일 환송 오찬때는 와인맛을 시 식한 뒤 "술다"라고 하면서 와인 에 대한 식견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가 우리 영화 '출생년'이 칸 영 회계에 출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에서는 그가 연회공이었 디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 에 그의 예술적 취향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고태성기자 tsago@hkk.co.kr

# 北核·미사일-南보안법은?

남북정상  
6·15선언

●보안법 어떻게  
불고지-찬양-고무죄등  
개정논의 다시 떠올라  
"北도 독소조항 손질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가,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침해조항인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명진과 불탄의 신적인 국가보안법(국보법)의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제정돼 61년 반공법과 80년 공안 국가보안법으로 바뀐 이 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시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 정치 고압 끝에 사정된 상태였다.

개정 논의의 핵심 국보법 개정엔 있어 쟁점은 단연 찬양-고무죄(7조)이다.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엄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할 것임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간첩위장자'를 단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정권 유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즉 처벌대상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민간단체 따르면 6월1일 현재 구독량 4만5천 6백명 중 70%가 넘는 45만 명이 찬양-고무죄 위반자이다. 유엔인권위와 국제사법위원회도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7조 개정 주장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면 주장에 동조해 정부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이 조항만큼은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7조와 함께 인권침해사제가 끊이지 않는 불고지(10조)와 대법원 관례로 기밀의 범위가 추정한 기밀누설(11조) 초월도 개정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논의대상 조항은 지난해 초 박정현(朴正顯) 당시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불매 공개법정을 밝히며에 김정은 11의 민간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정부에 초당 중립안(고무죄와 불고지)을 제시한 것



정부는 15일 주체국대사들에게 6·15선언을 설명했다.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대사(위)와 우디웨이 중국대사가 프레스센터에서 반기문 외교차관을 각각 만났다. /오대근기자

을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폐지에 연루된 법제의 방향도 우회 이같은 내용을 골고리로 대 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법제정은 남북 간 관계진전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남북을 처음으로 규정할 북한 헌법의 수정 등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7의 헌법과 노동법 규정이 헌법도 정언의 사회주의와 수재시정규칙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인민적 생존논의는 결코 미약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변화한 남북한 관계에 비해 현행 국보법 개정 과정에서 독일의 예견만큼 비상위법헌법심판청구도입의 소원이 무기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연도 조항에 북한지역도 우리 권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만이 유일 헌법정당이라고 건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자의의 북한지역을 침범할 경우의 경우에 심과하게 돼 앞으로 늘어날 남북간 경제-인적교류에 있어 법치정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손익민기자 hermes@hk.co.kr  
김익민기자 yuho@hk.co.kr

●北核·미사일 어떻게  
주의제편 회담에 부담  
"주변국 우려" 수준 전달  
논의는 北·美회담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대법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국제적 의미가 있기에 하나의 비공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한반도 전체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 일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김대중에게 이 문제의 의제화를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을 비판했던 김대중원은 김의원과 김만찬 차원에서 이같은 주변국들의 우려와 관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공식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예상치 못한 "김대중은 김의원 장에게 미사일문제의 조기 해결 등 관계국 기회의 한일문제와 초국적 해결,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해법이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의 범위만 들어서는 것임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이 나란히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이 남북대법원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접 핵-미사일 문제가 중점의제가 될 경우 회담 전체의 성과급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이런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결과를 바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 회담의 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차분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단선언과 대미경제제해 해제조치를 맞교환한 베를린 선언의 합의정신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의 유동한 수단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곧 대북경제제해 해제 조처를 공식 발표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중단을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보장해,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김승일기자 ksh1@hk.co.kr



# “말년에 뭔가 큰일할 虎相”

## ■ 관상으로 본 김위원장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호상(虎相).’

역술인들이 TV를 통해 본 김위원장의 관상이다. 역술인들은 “무슨 일을 낼 관상이지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임지를 13일로 예언하기도 했던 전국 역술인협

회 부회장 백운산(白雲山·58)씨는 “TV에 비친 김위원장의 관상은 12지(支) 동물중 범에 해당하는 호상(虎相)으로 앞으로 10년간 운이 좋을 것이며 김위원장의 인광(눈)은 40대 이후 운이 번창상이고 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액운을 몰아낼 상급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관골(骨)은 오형(五行)에 부

족함이 없으며 59세인 김위원장의 음성(音聲)은 올해부터 폐기 시작, 말년에 큰 일을 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룰 운”이라고 덧붙였다. 역술인들은 “화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TV에 비친 김위원장의 현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건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듯 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인정호기자 klian@hk.co.kr

# “복부 비만... 성인병에 주의해야”

## ■ TV에 비친 건강

### 한의학관점선 ‘악한체질’

TV에 비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시진)의 모습은 위달하고 거창이 않다.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전신기들은 앞으로 성인병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눈길을 끄는 곳은 복부. 일반적으로 영남이들에 1급 기준으로 했을 때 허리 둘레가 09~1.0을 넘으면 복부비만으로 진단한다. 김 위원장의 허리는 TV나 사진으로 볼 때 최소한 그 비율이 1.1을 넘는 것으로 분석돼 복부비만 증세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는 키 165㎝, 몸무게 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신체 조건에 중증의 복부비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비만 전문기인 강모박사는 “김위원장의 복부비만은 중·중년 남성 중 상위 5%에 해당한다”며 “2~3개의 성인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14일 저녁 개최된 영남관을 떠나며 복도 앞에서 숨을 붙이신 듯이 보인 것은 비만의 영향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담배를 끊고 음주량을 줄인 것도 주목할 만한데, 그의 손이 유난히 붉었다는 점 역시 비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같은 안의 증상을 예도 비만과 지방간 피부색깔이 더 붉은 게 일반적이다. 비만한 사람은 힘이 많은 편인데,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 열 방산이 어려워 원인이 늘어난다



로 피부가 붉게 보인다는 것이다. 의사인 대한정상의학회 회장 조성태(趙成泰)박사는 김 위원장이 선천적으로도 경건한 체질은 아니라고 말한다. 형상(形象)의학은 얼굴 생김새로 몸의 허약(虛弱)을 판단하는 한의학의 한 분야 조박사는 “남자는 코 모양이 무엇보다 중요인데 김 위원장 치아 고가 굵고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 방광이 위급 사방이 많다”고 말했다. 방광은 배, 신장, 간 등 중요한 장기와 연결돼 있어 역시 주의할 요

하다는 설명이다. 조박사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 파헤칠 한 것도 신장, 방광이 위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당뇨나 유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하고 겉잡하며 지상한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조박사는 “김 위원장의 경우 조반석축(朝飯夕粥)을 꾸준히 하고 신장계통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재희기자 kgonde@hk.co.kr

## 통일방안 첫 접점 남북논의 새 지평

남북 정상이 통일과정과 관련, ‘지방 정부가 외교권·국방권을 갖는 형태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추진하자고 협의함으로써 통일논의에 새 지평을 열었다.

양측은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의 ‘연합 재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으나 연방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 외교권과 국방권을 부여한다는 데 두 통일방안의 접점이 있었다.

이성 민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귀환 보고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김대중원은 남북이 독립국가로서 모든 권위를 보유한 채 남북연합회의(국회)와 연합정부회의, 연합각료회의를 구성해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는 통일 단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연합제안’이 바로 김대중장이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을 지칭하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

북측의 경우 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다 붙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1980년 채택한 ‘고려민주 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은 연방 정부가 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 남북 지방정부는 내정만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金日成)주석이 신년사에서 “1면독 1국가 2제도 2정부”를 언급하면서 완결성의 연방제는 지방 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강정착·단계적 연방제로 바뀌어 왔다.

김대중원은 북한의 이런 흐름을 관해, 방랑장상회담에서 ‘외교·국방권이 중앙정부에 있을 경우 통일로 가는 초기 단계에서 국제기구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김위원장을 설득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을 잡았다.

이로써 남북이 상호체제과 인정제는 도대체에서 합의의 방법론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길군이 바로소 현실성을 갖게 됐다. 북측은 남측은 통일 논의의 진전에 대한 국내 보수층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고려연방제를 언급하는 것이 관공공으로 매도됐던 과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북측의 통일론에 거부감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동안 민족의 통일방안은 각자의 이질적 체제·사상·이념을 통제적으로 봉쇄한 이념을 교묘의 교묘으로서, 상대방 체제와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회담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한 통일전문가는 “양측 통일 논의의 진전의 관건은 협정부가 남북의 대립의 대립적 이념을 갖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m01@hk.co.kr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대변인사단 통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안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릿집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려고 합니다"라고 다짐했다. 2박3일의 평양제휴중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인재를 통해 어린이들은 "대보" 선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정부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평과 행동에서 거의 '오버'하지 않았다. TV로 생중계된 많은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적인 국방정책을 견디고 여지가 있는 신을 알릴 틈이 없었다. 13일 중정3항 영장경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반강제 동선을 밟았으나 포옹은 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북측의 배려에도 알맞지만 김정일(金正日) 주석과 관련된 기념장소 등 3년이나 된 방한 장소나 시설의 방목도 적절히 피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때 남북관계를 크게 경색시켰던 '김정일 초상 박연파장'에 대해 14일 북한관 민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김정일 주석께서 지난 해에 우리 민족 전체의 용기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라고 매우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분함은 김위원장과 의남이나 대화 과정

# DJ '절제와 노련'

## 시종 말 아끼고 침착하게 대응 이산문제 北서 꺼내도록 '인내'

에서 특히 잘 드러났다. 김위원장이 남한과 서방세계에 잘못 알려진 자신의 이미지를 알기에 북식하려는 듯 거침없는 제스처와 호방한 말투로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김위원장의 페이스에 밀려들지 않는 노력을 보였다. 평소 남북관계에 바듯한 다방면에 걸쳐 지식에 대한 다방으로 잘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이처럼 말을 아끼고 대개 박종현(朴正勲)청와대대변인은 "김 국방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가늠할 수 없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대응은 자신감의 발로이자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 내야 할 최우선의 목표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집합민의 눈물"을 언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 조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알맞은 대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이번 정상 회담을 위한 대안책이든 했지만 국민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도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이 급속하고 노련한 협상력으로 직지 않은 성과를 얻어내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이 이 성과가 어떻게 관리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이계성기자 wkslee@kik.co.kr

### 지평선

### 김정일 쇼크

김대중대통령의 2박3일간 평양 방문과 그에 따른 역사적 이벤트는 남북관계의 균형을 뒤집어 놓았다. 이제부터 남과 북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어떻게든 3일만에 이런 변화의 기류가 마련될 것일까. 국민들은 열렬하게 기대한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 온 화해의 기류가 도무지 실감되지 않는다.

■ 그러나 정치 국민들이 놀란 것은 이런 변화가 가능케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에 있다. TV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 김 국방위원장의 언행 하나하나를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때로는 예의 바르게, 때로는 소탈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보이는 그의 언행은 하나의 쇼크였다. 기존 인식의 틀을 일거에 허물어 버리는 이런 쇼크요법을 그는 계산했는지도 모른다. ■ 인식의 혼돈현상은 첫날부터 왔다. 평양 순안공항,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동선을 밟고 한한 일교로 상봉하고, 그 옆에는 안민군 의장대가 총검을 관주 세우고 이날 지켜 보고 있다. 분명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우리측 방송기자가



김노여린 목소리로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하십니다"라고. 그는 또 전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다"라고 그의 멘트는 계속 이상했으나,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식의 혼돈현상 탓이다.

■ 이런 혼돈현상은 장년과 중년, 젊은 세대,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등 세대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다. 특히 6-25를 경험한 세대가 김노여린의 혼돈현상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 김 국방위원장과 그에게 권어를 세습한 아버지 김정일 주석에 대한 인식은 어대까지 동일시상이었다. 김일성주석을 통해 보는 사람은 사회주의 이념관념을 제외하면 남한에 없다. 그러나 인식은 인식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40년간으로 상대해야 할 북한의 최고지도자다. 그렇다고 김 국방위원장의 이미지를 어찌보면 민중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의 혼돈과 정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강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는 우리의 대동맹으로 평가해 두는 것도 좋겠다. /이중근은설위원

### 기자의 눈

### 잔치 재뿌린 '과잉 총성'

"여기가 북한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시·구청 직원들과 주민까지 김거리로 데려와야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 평양행의 기자들은 흥분과 충동이 온 나라를 여진이 휘감고 있던 15일 이간. 한국일보 사회부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직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서울시가 합당식으로 천장과 구청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김대통령 환영연파로 김대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항의전화의 요지. 분명 직원이라고 밝힌 한 독자는 "김거리에서 박수방이라고 역사적인 항의할 것이 아니라 흥분을 감추지 못하다 전화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쪽 사람'들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반도로 '북쪽 사람'들이 보여준 환대에 놀라 '북한' 따리하게에 심취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위원장



정래준 시회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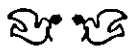
의 방투와 유예, 예일 바를 모습 등은 신선한 충격임에는 틀림없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면 김위원장의 거침없는 말과 제스처가 화제다. 어린이들은 오천송을 들어 울리는 북한 소년단의 인사말 흉내 내는가 하면, 안민군 위병대 김중령이 잘 나가 김대중 내기까지 할 정도로 북측은 친근함이 웃음으로 삼금 다가왔다. 그러나 '군중총원 따리하기는' 남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20세기의 유산이다. 남쪽은 일찌기 버린 유산이다.

통일의 길은 아직 멀다. 3일간의 드라마는 이제 막을 내렸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가슴으로 다시 돌아가지. '버린 유산' 들춰내기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rainj@kik.co.kr

# 유적발굴·관광개발 순풍예상

## 남북정상



## 6·15선언

### ● 문화·관광·여성분야 협력

문화관광부는 100주년대중예술, 관광문화제, 체육공교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남북교류 합의에 따른 조속조치의 미진한 개악이다. 특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했던 문화문화교류합의 공동위원회를 정상 기능자가 당국장관 합의기부로 위임하고 발족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문화예술, 관광, 문화제, 체육, 공교등 5개분야로 구성된 교류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규·金勝圭 차관)의 최근 작성한 남북의 문화교류 방안을 반영해 검토,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의 특성에 따라 장부 추진도 안 것이지, 민간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도 결정한다. 박지원(朴智元) 문화부장관도 소만간 특별 지시를 통해 별도의 문화교류협력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제 분야의 경우 강원 철원에 있는 공예도시 유적을 남북이 공동 조사, 발굴하거나 북한 시화과화원이 번역해 최근 국내 출간한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역지'를 위시처럼 중심으로 한 출판교류도 예상되고 있다. 백두산 보양산 칠보산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5월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모습. 문화 분야는 특히 교류 성과가 가시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인다.

/김민경기자 kimkwny@hk.co.kr

### 위안부문제 해결 공동노력

남북 여성교류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문제 공동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15일 한 국여성단체연합회와 평화당 당국은 여성회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환영논평을 통해 '남북한 여성계가 김정은 12월 도쿄(DJ)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참가 국제법상에서 일본 정부의 공개사죄와 배상금 받아 낼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진기자 dongjinkim@hk.co.kr

## 기상자료 교환·공동연구 제안

### ● 기상분야 협력

기상청은 15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공한 기상정보를 북한측과 교환할 것을 계기로 전면적인 기상자료 교류와 기상 공동연구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이해 기상청은 지난 4월말 세계 기상기구 산하 태풍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측에 기상교류와 제의 해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제

의해왔다.

문승의(文勝義) 청장은 "기상정보 교환이란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좋은 안목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기상관측 공동 연구나 북측에 기상장비 제공 등이 실현되면 호우나 폭설같은 기상재해나 예방, 마중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예방접종·의약품지원 추진

### ● 보건복지분야 협력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건분야 협력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백신 등 어린이를 위한 기초 예방접종사업과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관리에 관한 의약품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 기금에서 50억원 상당의 말라리아 의약품 지원에 지원하기로 국가안전보위회의(NSC)의 결정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지의 협사와 및 빈곤층 의료지원과 15억 원에 달하는 의약품의 구매를 지원할 안건 시의

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한민족복지재단이 북한 내전·성민지역에서 '보편적'이란 이름으로 9억원을 들여 결장종양 완화제 등 기초의약품 생산공정을 비롯해 A의약품 합작공장 신장 A의약품 구입 A의약품 파견 등의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5,000만원에 배정돼 있는 결핵의 지원사업과 두리면역사업(결핵예방)과 보건에 관한 연구에 추진중인 '북한에 의약품 보충에 도움을 미칠 민간 차원의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DMZ생태계 연내 공동조사

### ● 환경분야 협력

환경부는 남북간에 추진 가능한 환경연구 사업으로 북한의 원배하천 신원복구 지원,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남북한 생태계·원배 하천·원배 도입할때 조사 및 사업과 원 원역사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연구가치가 높음에도 양측 모두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생태 공동 조사에 합의할 경우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거쳐 조사를 추진하는 데

관리는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아홉 번 정도 연내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생태계조사 사업에는 백두산과 금강산을 포함한 백두대간도 포함될 수 있다.

또 가장 현실성 있고 북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인 신원복구 지원은 민간단체 주도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법인 '평화의 숲'(이사장 김영춘·金英勳)은 북한 신원복구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북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국외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정희기자 jeongjh@hk.co.kr





# 이산의恨 이번엔 푸나

6·15선언을 목격한 많은 이산가족들은 15년전  
상사됐던 고향방문단 교환 당시의 감동을  
떠올렸다.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서울  
-평양 교환 방문에서 뜨거운 눈물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부둥켜 안던 장면은 이산의 아픔과  
함께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할 새롭게  
인식시키 주었다.

## 극적상봉 울음바다 단발성끝나 아쉬움

### ■ 85년 첫 이산상봉

1985년 9월20일 오전9시 역사적인 남북측 이산가  
족 고향방문단 50명씩이 예술3연단 취재기자 등과  
함께 판문점을 통과했다. 강오제 무리측은 평양 고  
려호텔에, 북측은 시와 해외문화기업호텔에 여장을  
펼쳤다.

지하순(池學鈞)시주교 원주교구장, 김재삼(金在  
鎔)연락처 회장, 이재운(李在潤)변호사 등 우리측  
방문단은 물론 북에서 온 이산가족들도 다음날 반평  
생만에 재회할 가족들의 얘기를 나누며 살레는 마음  
으로 반을 지새웠다. 특히 평양을 방문한 홍성환(洪  
成煥)전 내무부장관은 이날까지도 재회를 믿지못하  
면서 "꼭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는기도를 올려 주위  
를 안타깝게 했다.

2일 친치 상황이 이뤄진 평양의 고려호텔 3층로  
비는 울음바다였다. 우리측 김성업씨가 북한의 누나  
김일보씨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으며 "살아 있었구나"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첫 만남이 이뤄진 이후 고  
려호텔에서는 계속 눈물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  
지키보던 남북의 관계지들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  
다. 시와의 해외문화기업호텔 해바라기홀도 이들을  
안아내지 못해 "흠뻑이 어디있다"고 말하는 어머니부  
녀 그자리에서 낄낄을 울리는 여동생까지 감동적인



1985년 지하순 주교가 평양에서 상봉한 북한의 여동  
생울 애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사진 위) 1972년  
동베를린으로 건너온 서독의 어머니가 눈물이 가득  
고인 사진으로 아들과 재회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백발이 성성한 지하순 주교를 만난 여동생이  
"우리는 살아서 천만에 가는대 오빠는 죽어서 갈라  
고 그러냐"고 말하는 장면은 분단 속에 너무나 날라  
져 버린 남북을 확인케 해주었다.

양측 방문단은 22일 2차 상봉과 인성을 마치고 23  
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현혹을 보내기가 안타까워 차창 유리창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손바닥을 나란히 마주대고 있던 서울방  
사진은 전체적으로 김충태 지구촌의 심금을 울렸다.

/이은호기자iceunho@hk.co.kr

## 경제논리 이용 접근 짊동독에 자금지원

### ■ 뚝 이산가족 해법

분단국가 시절 우리나라처럼 이산의 아픔을 겪었  
던 독일의 이산가족 해법은 합리적인 경제논리와 접근  
적 접근이었다.

독일의 경우 적대적 전쟁을 겪지 않은 덕분에 19  
46년 4개의 분할 정령이후에도 인적교류는 계속 이  
어졌지만 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면서 이  
산의 아픔이 가로일었다. 동독의 빚정을 참수있었던  
것은 서독의 전-건설분리에 의한 끊임없는 교류시도  
였다. 서독은 우선 경제적인 해법을 부기로 접근했  
다. 1회적 경제지원에 대해 동독에 대가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동독의 태도이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왔다.

동독에 남기지 이산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1인당 1  
만1,500~1만3,200마르크(한화 800만~1,350만원)가

건네졌다. 서독인의 동독방문에는 양국회폐할 1:1로  
의무환전포함해 동독에 김회급 안겨졌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에는 서독정부에서 '한경금'명목으로 1인  
당 100마르크(한화)를 안겼다.

또 서독 내'독성(內購省)은 동독의 김철형, 미망경  
찰 등과 협상, 64년 500만마르크의 돈을 지불하고 2  
50명의 아이를 독일로 데려오고 89년에 35억마르크  
를 주고 3만4,000명의 경제민을 서독으로 추방케하  
는 등 경제논리와 인적교류를 천천히 연계했다.

교류대상도 초기에는 65세(어60세)이상 연금수혜  
자 등 노원자 위주에서 친족방문자 등으로 확대했고  
방문기간과 횟수도 초기 연회 총45일에서 90수 재  
한없이 총 60일로 늘려갔다.

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동행조약이 체결되  
면서 동서독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붐보들었다.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은 69년 110여만명이던 것이  
70년 265여만명, 71년 266여만명, 72년 620여만명으  
로 급증했다. 81년에는 이주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  
매년 2만500명 가량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  
고 87년에만 500만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하면  
서 베를린 장벽 붕괴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동훈기자dhlee@hk.co.kr

# “남북 8형제 恨풀게 됐네”

남북정상  
6·15선언

## ■ 실향민 한영백씨 3형제

분단이 갈라놓은 혈육  
“北 5형제 어찌 지내나  
구순 부모 살아게실까”  
고향땅 밟을날 부푼꿈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소식에 감격한 한영출신 실향민 3형제(왼쪽부터 한승우·영중·영백씨)가 15일 이북5도 향 물에 나와 화합통일조각상을 배경으로 오랜만에 활짝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들의 외삼촌. /고영권기자

이후 일도 못한 채 그제지엔 벌써  
근곳으로 지낸 날이었다.  
밖에 고향을 눈 이슬처럼  
사어었다. 여기 있을 때만은 그 지난  
한 세월이 회상으로 바뀐 15일. 실향  
민들은 가슴에 커다란 꽃이 핀 것 같  
고 개성스럽게 꽃이 피어 노랑의 온  
고 감격을 누리고 있다.  
15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65도  
민회를 가진 6남 1남을 출산한 한영  
백(80·전·74·경기 안양시 평안·연  
중(80·전·81·서울 강동구 천호5동)·승  
우(86·58·서울 성동구 성수동)씨  
3형제도 바로 그들이다.  
“같이 세서면 구순(九旬) 근곳을 뒤  
지셨을 부모님과 함께 남은 다섯형  
제. 남의 땅에서 키웠지만 부모 먼저  
세상을 뜬 부모님. 난 하늘의 손에  
맡겨져 있는 날이 없었어.” 저지  
김은 늘 사어어는 노릇의 미안, 수  
감, 한 영백씨는 “이 사람들이 아  
무리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네”  
라며 외아들 두 동생을 끌어안았다.  
이들은 고향 집에서 변호사 사무  
실 직원, 한을 세어어었다. 그러나  
국 건설업사 등으로 각기 일상을 가  
꾸며 나가는 실향민이었다. 그러나  
해방직후(1945)부터(1948) 평안도  
신천면 출신 김복을 지낸 아버지(생

존시 92세)가 사생부모로 한영출부  
소에 감히고, 이듬해 전쟁이 터지던  
사이의 일은 감정이 뒤틀렸다.  
영백씨는 국군 3사단에 지원했고,  
영중씨는 51년 휴남협수 때 임시적  
으로 미군기내에 올랐다. 시집간 누  
이 둘은 남과와 함께, 어머니와 헤어  
진 영백·승우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  
려 각각 38선을 넘었다.  
“그때도 그때는 같이 어 착한이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줄 알았지.” 하  
지만 남에 내리온 5남매가 전부 모  
이는데만 무려 6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헤어진지 1년여만에 전산  
(戰亂)을 입고 군부원에 입원해있던  
영백씨가 병치레를 지고 부산 국제  
시장에 예매된 영중씨는 국적으로  
살아있지만, 막내 승우씨와는 57년  
여야 미보소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영백씨는 온갖 노동일까지  
마니하고 동생들을 보살폈다. “고생  
을 겪긴 했지만 실향민치고는 정도  
고생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 어  
니씩 기운 막내 승우가 대기업 이사까  
지 자랐으니 북의 부모님께 조금은  
보이 시켜줄 것 뿐이지.” 그렇게 제  
일이 있던 영중씨는 국내에서 첫 손  
잡이로 초창기가 됐다.  
군 근무경력에다 다섯 남매가 한

꺼내에 뒀던 사실이 북에 남은 부  
모·형제들에게 흑이 누가 될까 이산  
가족 갖기 신청서치 망설여왔다는 이  
들 삼형제. 이날은 활짝 피 웃음과

“어제 우리 가족의 50년 한영민 공도  
만 이뤄질 것 같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안준현기자 dejuv@hk.co.kr

## “편지라도 자유롭게”

남북 정상은 6·15공동선언  
15일 한결같이 “고향방문의  
꿈을 이루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내세  
로 “방문 횟수와 규모는 다다  
이신(多多益善) 이겠지만 자  
유로운 시선과로부터라도 확  
실히 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민의 부회장 김복  
국(金福國·63·평양 출신)씨  
는 “85년 때처럼 실향민 안  
원에 한해 고향을 방문케 하  
는 생애대까지 교류는 인연  
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한  
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와  
민 고향의 주소지를 모르는  
실향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와 공개, 서신왕래  
부터 자유롭게 해주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사  
신교류가 활성화된 뒤에 이  
산가족들이 편한 시간을 정

## “상봉 다다익선 인원한정 안돼” 실향민들 주문

해 방문할 등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민의 총무부장 이상  
만(李成萬·65·평북 충강진  
출신)씨는 “남북 쌍방이 합의  
한 것이라면 어디에서든 북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방문은 고향자  
식으로 실시해되고 저소득  
실향민의 방북비용에 대해서  
는 이북5도민회의 예산이나  
정부·사회단체 등의 성의가  
보여지면 어떤지 알게 해달  
라”고 말했다.  
남북 양쪽에 처지를 두고  
있는 실향민들은 북의 가족  
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  
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평북 하주 출신의 C(78)씨는  
“이곳 아내한테는 이북의 아  
내와 지위를 이야기할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떻게든 고  
향향을 밟고 싶은데...”라  
고 밝힘을 전했다.  
/김태웅기자  
oneway@hk.co.kr



한 실향민이 15일 이산가족방문단  
센터에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감격에 겨운 듯 눈수건으로 눈  
물을 흘리고 있다. /고영권기자

# “살맛난다”

이산가족센터·직접자사 수백명 상봉신청

“8·15 광복일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민원을 추진한다”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알려지던 15일 서울 종  
로구 구기동 이북5도민회는 온종일  
환기국 가졌다. 각 사·도위원의 사  
부들은 실향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었고 자취도도 열매같이 걸려오는  
문의전례를 만드라 겉거를 비명  
했다.  
한이 건물 1층의 이산가족정보  
센터에는 이날 아침부터 고향방  
문의 부모 집을 안고 이산가족찾기

신청서치 작성하려는 백방의 상  
민과 이산가족 등 500여명이 줄을  
이었다. 이런 환기국 모습은 서울 종  
로구 명동 대한회심지사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이날 두 곳에서는 총 200여명의  
실향민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치  
했다. 북한에 있는 교민차원의 막  
내외통행 사정을 갖고 이날 오전  
정오부터 찾은 위문 처신 출신의  
김정민(金正敏·81)씨는 “그동안 나  
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술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간짜만 두 정상이 굳게 손을 맞잡  
는 모습을 보고 헤어질 이57년  
만날 수 있었더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장모네  
다섯 식은 일부 고령의 실향민은 사  
어이 어렵다 신청서 작성방법을 제  
대로 보지 애타 대우다 지적외의 위  
문제의 도움으로 간신히 신청서치  
제출하기도 했다.  
센터운영을 총괄하는 이북5도최  
강현(金尙顯) 총무부장은 “편소  
두세명에 한사람만 신청한 수가  
신청외한 소식이 전해진 후 10여명  
으로 늘었다 오늘 하루동안 150여명  
이나 보냈다”며 “이곳을 찾는 어  
민들 모두 어제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을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우리도 엄연한 이산가족입니다”

남북정상  
6.15선언



## ■ 남북자 및 국군포로가족

남북자 및 국군포로 가족들은 15일 '6·15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 문제만 언급된데 대해 “우리도 엄연한 이산가족”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앞으로 남북간의 실무협상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우영·崔祐英·시진)은 이날 성명을 발표, “북에 억류돼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남북자 454명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남북정상이 역사적으로 손을 맞잡고 ‘유어진 가족들’과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인사들이 15일 남북 공동선언 기사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홍인기기자

“6·15선언에 한마디도 언급안돼 대단히 유감”  
“방북신청 했는데... 실무협상 기다려 보겠다”

대해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1987년 용어집에 나왔다가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납북된 최종직(崔宗直·55)씨의 딸인 최대표는 “남북간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려면 냉전으로 희생된 양측 국민을 모두 어루만져 주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항해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 10장과 16년전 찍은 가족사진을 ‘보물1호’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최씨는 “어머니는 이번엔 뭔가

이뤄질 것같은 생각에 어제(14일) 방북신청을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한편 재향군인회(회장 이상운·李相運) 관계자도 “회담 진부터 관계요를 통해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분명히 요청했으나 언급이 없어 심히 아쉽다”며 “문제해결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속한 포로송환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i@hk.co.kr

한국일보 2000. 6. 16 (금)

## “남북이 더없이 부러웠다”

### ■ 프레스센터 대안 정상기자

“피는 친하다는 사실을 새삼 뼈속 깊이 느끼고 갑니다.”

15일 서울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또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 TVBS방송 정상상(鄭尙尙)국제부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중격과 감동의 3일이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취재시 지난주 방원한 그는 “쏟아지는 엄청난 뉴스거리에 프레스센터가 문을 연 이후 허무도 참을 재대로 못했었다”면서 “하지만 14일 밤 남북정상의 축에 모습에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첫대면을 지켜보던 1,200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취한 행동을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그날의 환호성과 박수갈채만으로도 생생히 전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도 이산가족이라면서 헤어질 피할 이별 만남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회담기간에 실생민과 이산가족들이 보여준 기쁨 풍만 모습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본토에 유하를 갖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헤어진 삼촌을 30년 뒤인 1979년 대국에서 상봉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밤중에 남북합의문이 발표돼 15일 새벽 대안으로 내용을 긴급 다정해느라 한바탕 ‘남리’를 치른 그는 “공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은 남북의 뜨거운 열애가 부러웠다”며 “중격과 대안



프레스센터에서 대안 본사와 통화하는 정상상씨. /오대근기자

은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북한 김위원장이 회담 내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연기’ 여부를 따지기 전에 배일에 가려졌던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 인민들에게 막강한 카리스마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역량이 신다”고 말했다.

그는 할조량을 줄여내고 영토를 합치는 것만 이 통일요역거렸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도 통일의 한 모습이라는 새로운 접근에 도달한 것을 이번 남북정상 회담의 가장 중격적인 성과물로 꼽았다.

“두 정상은 통일의 완성자가 아니라 문을 열어젖힌 ‘문지기’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쁨을 챙기던 평부장의 마지막 말이다.

/김 용기자 honey@hk.co.kr  
최은선기자 moonson@hk.co.kr

## 두정상 ‘노벨평화상’ 애기술술

동서독 정상회담 성사

브란트前총리 수상 전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등 한반도 두 지도자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상사시킨 빌리 브란트 전 서독총리가 197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례가 있다.

이제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남북의 두 정상이 보여준 민족화해와 통일의 평화메시지는 과거 수상사례나 가까운 장래 지구상의 그 어떤 이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이런 이 없어 보인다.

특히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다 세계 최대 화약고중 하나인 한반도에서 남북 당사자끼리 이같은 평화무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세계적 평가를 받기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만약 노벨평화상을 한반도가 가져오게 되면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의 공동수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평화의 불모는 했지만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문제에 대해 야당 등의 ‘다른 말’들도 있었지만 김위원장과 의 만남을 거두고 성사시킴으로써 이런 말들을 잠재운 채 노벨평화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홍요기자 yehong@hk.co.kr



# 철도연결·임진강治水 우선추진



6.15선언

## ■ 경협 분야

경의선 조기복구 가능  
임진강 치수 사업은  
올여름 수해대비 시급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수방이건과 우리 측 15억을 가한한 실천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경의선 연결 경의선 복구는 분선(남측)~봉동(북측)간 20km 구간만 연결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느 것보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크고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철도 및 인력수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미 82년 남북 가뭄관계에 관한 합동성명서 채택하면서 대



북 시범사업으로 경의선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85년 남북 구간인 문산~장단 12.6km에 대한 실시계획을 마치고 97년에는 삼계노선에 따라 용지매입을 마무리했다. 북측 구간인 장단~봉동 8.0km도 남북이 철도연결에 합의한 해인 조기에 복구 가능해진다. 남북 모두 경협에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재원 마련 등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 있는 철도

만은 철로의 폭이 분단 이전에 사용하던 표준궤도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복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임진강 치수사업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에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임진강 유역이 매년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유역면적(8.17km<sup>2</sup>)의 3분의 2가 북한측에 속해 있어 근본적인 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북측에 ▲강유량과 수위(水位)정보 교환, 인적·기술적 교류 ▲남북공동 수지관조사 ▲홍수에 경호시설 공동관리·운영, 하천정비, 재방축조, 산림복합 등 공동 치수사업과 농업용수 및 수도사업 등 공동 이수(利水)사업 등 3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여름 수해 대비, 이같은 방안을 근간으로 북한측과 공동 수해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기자 seckim@hk.co.kr

## 제조업분야 시너지효과 크다

### ■ 경협 전망

단일경제권엔 경쟁력제고

단기 비용크나 장기 '윈윈'

투자보장협정등이 과제

남과 북의 '단일경제권'을 향한 시동이 걸렸다.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의 원칙은 자구(字句)만으로도 위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총리가 서명한 '기본합의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양측 정상간 합의라는 점, 특히 연방제를 향후 통일방안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점 등 주변 배려를 감안하면 이번 경제협약은 남과 북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북 입장에서 당장은 '비용(Cost)'이다. 경협 확대 초기에는 남과의 일방적, 시혜적 원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대(對北)투자에서 손실을 입는 기업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경협 확대는 북측을 물론, 남측에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Win-Win)'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너지 효과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업, 남과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다.

입북부담으로 남측에서는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는 섬유, 신발, 의복, 방제, 식품가공분야와 컬러TV, 냉장고 등 기간기가 조립분야는 북한으로의 귀환이점이 유리시되는 분야이다.

물론 이같은 성과도출을 위해선 북한내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상당기간, 상당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제방지협정 현안 경제협정 등 투자·교역의 리스크를 거둬 위한 '제도적 인프라'구축도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물자교역이 한단계 높여져 남북간 도로 철로 항로 해로 등의 북원·개항로 이어질 경우, 남북 경협은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간 사회경협과 이질성 해소로까지 급진전될 수도 있다.

### 과기부, 남북협의기구 추진 농업기술·SW등 교류키로

과기기술부는 농업·에너지 등 북한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협의기구를 구성, 남북간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은

갑게 분단된 재정적으로도 남측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당장은 대(對北)지원으로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협력화대로 평화구도가 정착된다면 방위비 감축등을 국민들의 실질부담은 감할 수 도 있으며 여유재원을 생산적 민생분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물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생경제권구성은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대량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북사업은 주변환경개선 속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대량투자보다는 교역 확대, 위탁기공, 소형공단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eckim@hk.co.kr

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금 까지 민간차원에서 교류해왔던 슈퍼옥수수, 인공씨앗, 농약기술 협력 ▲북한 컴퓨터교원 양성 등 소프트웨어분야 협력 ▲기상기상협력, 남북한 지생식물지원조사 및 활용 ▲남측 국가표준·과학기술원이 농업, 과학기술교육 교류 ▲원자력발전 요원 양성 ▲국제 과학협력펀드 조성 및 과학영재 교류 등이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 한국일보

2000. 6. 16 (금)

## 北 SOC 복구 최소10조 소요

### ■ 경협 재원

#### 남한 자원여력 태부족 자금 해외조달 불가피

남북경협에 앞파이자 오며가는 걸국 돈이다. 걸국부터 말하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 북한경제의 재건비용은 정부보다는 민간, 국내(남한)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투자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급한 부분만 복구하는 데도 최소 10조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소는 이와 관련, "강의선 연결과 관련된 시부권(평양-신의주, 평양-개성) 철도복원화, 남포 신의주 등 전용공단 조성 및 인프라와 중 비공영을 개선할 때 SOC 투자비용은 적어도 9조8,000억원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청재단 도입후드가 이미 봉쇄된 북한은 이 자금을 전액 외 부조달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극히 제한돼 있다. 당장 활용가능한 돈은 남북경협기금 2,2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7,000억원 1조원에 못미친다. 내년 예산에 5,000억원 이

를 지출수요가 산적해있는데다 ▲남한국민의 세금을 북한에 직접 이전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 자금은 민간기업의 투자나, 원조금 포함해 해외조달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외 부자금 확보세널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북-일수교와 연계된 대 일(외국)청구권자금 50억~100억 달러. 여기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경우 "최빈국가"로서 적게는 27억달러, 많게는 45억달러의 장기저리차관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정원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정철순 박사는 "남북한 협력에 세계평화와 주변국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상응하는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스니아나 팔레스타인에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 ●북한지원에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 및 평가

| 종도                 | 규모                 | 사용조건                     |
|--------------------|--------------------|--------------------------|
| [한국]               |                    |                          |
| - 대외협력기금 (EDCF)    | 개도국 지원, 총소 7,000억원 | 일 개성 대치 일 시 간변           |
| - 남북협력기금           | 총소기금 2,200억원 (기부)  | 평도 변경                    |
| [일본]               |                    |                          |
| - 북핵의 원상회복         | 전후 보상 50~100억 달러   | 특·일 수교                   |
| [국제기구]             |                    |                          |
| - WHO, AICDI, UNDP | 개도국 공적 차관          | Project Base             |
|                    | 한국원조, UNDP, UNDP   | 대외협력기금, EDCF, UNDP, UNDP |

상할 금액 한도에도 총액은 2조원을 넘지 못한다. 더구나 남한 자체가 ▲직자 재정 상황이 ▲구조 조정과 생산직 복지

## 南국민총소득 北의 25배

### ■ 남북한 경제력 비교

남북한 경제력은 국민총소득(GNI)에서 약 25배, 1인당 총소득에서 약 12배의 차이가 난다. 무역총액은 남한이 156.7배나 많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7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돼오다가 남한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인해 소득이 대폭 축소된 1998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98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3,161억 달러로 북한(126억 달러)의 25.1배에 달한다. 이는 97년의 26.8배 보다 감소한 것이지만 99년 들어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7%나 증가했기 때문에 남북한간 격차가 다시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6,823달러, 북한이 573달러로 격차가 11.9배다. 수출규모는 남한이 1,323억 달러, 북한이 5억6,000만 달러로 남한이 236배나 많으며 국민총소득 대비 무역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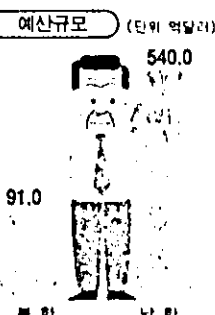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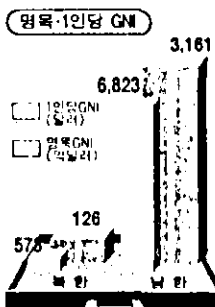
이 71.2%, 북한은 11.4%였다. 쌀 생산량은 남한이 98년 509만 톤, 북한은 146만 톤으로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70년에 148만 톤을 기록한 이후 28년동안 거의 재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 북한 생산량이 8만 톤으로 남한의 24배에 달했다. 석탄과 광물 생산량도 북한이 남한보다 4.6배, 5.9배가 많다.

자동차 생산량은 한국이 98년 412만 대, 북한은 3만3,000대로 남한이 124.8배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남한의 자동차회사들이 독자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겨우 조립·수리 수준인 것도 큰 차이이다.

조선능력도 40.4배, 원유도입량은 221.7배나 남한이 많다. 남한은 1인당 에너지 공급량(5.6배) 전이발전량(12.7배)도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은의 관계자는 "남북한간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사업을 경쟁적으로 펴기 보다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경공업부터 차근 차근 시작해



어떤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제협력을 떠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빙정규기자 jkmark@hk.co.kr

# “투자보장협정 北공정적”



## 남북경협 새시대 <3>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우리측 경제인들은 14일 저녁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정순영회장 등 북측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합성회급 위한 투자보장 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할 요청,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이번에 북측인사들을 만나보니 남해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며 “경협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밝혔다.

### ■ 방북 수행 경제인들 기자회견

## 北 “당국자회담 통해 제도개선 모색” 밝혀 7월또는 8·15 전후 투자사절단 재방북 예정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의 정치혁(張致赫) 고립회장은 15일 “북한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국제기준의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제방지 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 북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며 “북한 당국자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 조만간 일련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희장은 또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을 가속

화하기 위해 이르면 7월, 늦어도 8·15를 전후 하여 재계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재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림(尹鍾龍)심상진자부회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으나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남북 당국의 대화전진과 사업 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두(日本茂)LG회장은 “경협은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상의급 갖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남북공동위원회 같은 기구의 설치 등 법·제도적 장치 보완이 협정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손갑승(孫甲承)SK회장도 “개별기업끼리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어려움이 많아 남북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당국자가 참여해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히 북측의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송병오찬 자리에서 김정일위원장이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병두(孫炳斗)전경련상근부회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 강성모(姜成模)연이코리외회장 등도 “북측인사들에게 ‘지금까지의 경협이 시험단계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경협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조치를 요청,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김위원장은 송병오찬에서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에게 “부친인 정주영 회장은 잘 계시나”며 격백한 관심을 표시하고 “다음에 오실때는 꼭 부친을 모시고 오라. 박경리도 갖고오면 더욱 좋고~”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 옥류관 냉면 대인기... 북측에 시계·화장품등 선물

### ■ 경제인들 방북 맞이

○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재계 인사들은 북측이 컴퓨터센터와 대규모 닭공장인 봉화현농장 등 북한 경제시설을 실사하 보여 주고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정성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전했고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옥류관 냉면 맛은 일품이었다”며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2그릇을 비웠고 일행 중에는 3~5그릇씩 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은 방북

일정과 소감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해와 기업 임직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남다른 감회를 보였다.

### 방북도록 회담성공 축하주

○ 이들은 이번 방북에서 개별 선물을 준비했으나 북측이 “개인 선물은 사양한다”고 말해 마지막날 시계와 화장품, 세제, 비디오패 등 선물을 모두 모아 북측 수행원들에게 전달했다. 재계 인사들은 14일 밤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방북개까지 송파리담 해 구본두 LG회장이 가져간 17년산 빈센타인 안주

2병과 개살에 있던 들복숭 등 북한 술도 모두 비웠다.

### “카스트로때보다 많은 인파”

○ 손 부회장은 북측 수행원들이 “우리는 12일 오는 줄 알고 마중나갔다가 허탕치고 되돌아왔다”며 “김대통령이 늦춰서 안오는 줄로 알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재계인사들이 북측의 환영인파에 놀리자 북측 한 안내원은 “북미 지도자 카스트로가 왔을때 보다 더 많다. 민족통일의 열정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 /김호섭기자 dream@hk.co.kr

# ‘南北분업’ 큰틀... 經協 점진 확대

## 北 제도적 뒷받침 기대속 재계 투자·합작 준비박차

재계는 남북정상의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의로 남북 경협 제도의 정치 미련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중 단기 투자와 합작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남쪽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측이 노동력과 부지합 제공하는 '분업' 형태가 경협의 큰 틀로 자리잡고, 소규모 위탁가공이나 단순교역 위주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및 첨단 건설과 직접투자로 범위도 넓어지는 등 내용도 알차게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기대. 하지만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쟁적 투자보다 안전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뿌리내린 상태다.

### SOC 투자 서두르는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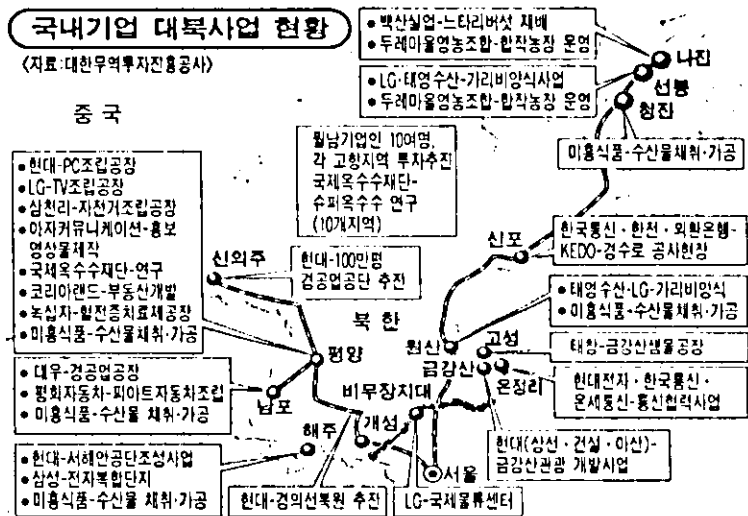
현대는 28일로 예정된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정상회담으로 트인 경협의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고 서해안 공동건설 사업과 철도복원 사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빠른 시간 안에 북측과 협의할 거처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현대는 현대아산과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경의선 미연결구간인 문산-봉동 20km 복원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경원선(청원-평강 31km)과 금강산선(철원-기성 72km), 동해북부선(강릉-온정리 132.5km) 복원도 추진키로 했다.

칼리 TV 생산 등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은 북한 평양 부근에 50만평 규모의 '전자복합공단'을 건설하고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엔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조만간 방북, 북측과 경협 세부사업을 협의할 예정이다.

LG와 SK 등은 북한내 철도와 도로·발전·



공동건설 등 인프라사업과 인터넷 통신사업 등에 관심을 두고 전략담을 구성, 발주예상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진강연 유한수(俞煥洵) 전무는 "지금까지 대북사업은 일부 독점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경쟁체제가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균형잡힌 협력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속도 붙는 중견기업 대북진출

95년 북한 광명신 중회사의 합영, 남포 나진 선봉 평양 등에 의류·봉제·직물사업을 추진해 온 고합은 투자계약사가 2004년까지 유효한 만큼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부터는 투자협 본격화할 계획이다. 94년 현대 북한 나진·선봉지구에서 시멘트 사업을 추진했던 평양도 중단된 대북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실무협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북한 내 의류 입가공사업을 하고있는 고오당도 봉제봉 외에 원사단 기저고 직물을 편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삼유복화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남북경협 전담 창구를 만드는 등 진출 기업들을 위한 지원체제에 들어갔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 정주영씨 28일께 방북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명예회장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이 28일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김교중(金敎中) 부사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예정대로 정 전 명예회장이 28일 전후에 북한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명예회장의 방북에는 정몽헌(鄭夢憲)씨도 포함, 현대 대북사업 관계자 10여명 정도가 수행의 계획이다. 정 명예회장은 이번 방북일정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다. /조재우기자 jrus42@hk.co.kr



# 4強 “東北亞 신질서 급류” 촉각



“美軍철수 없다”  
C.홍구 주미 한국대사가 14일 다자군에  
서 미국기, 자물쇠게 한반도의 상황이 환  
영되어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상한 4.4.7

### 클린턴 “이산 상봉은 커다란 첫 걸음” 모리 “내달 G8회담서 지지성명 채택”

#### 남북정상 회담

#### 6·15선언

#### ■ 4強 시각

미국·일본·중국·러의 4強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한 지역 정국은 14일 남북의 정상회담의 성취에 입각한 합의사항을 검토할 것과 국제 정상회담이 북-성명 채택을 위한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며 “남북한의 두 정상은 사적인 공동적인 면을 포함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의 “이산가족 고을 방문 합의는 ‘커다란 첫 걸음’”이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남침과 다국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모리 요시오(무사시노) 일본 총리도 이날 “내달 모리나와(4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 회담에서 남북의 화해 관련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날 남북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서명될 때 환영과 지지하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 美軍문제 연결 우려



미국

미국은 동맹에서는 대한민국의 과잉 무장력도 과잉이라고, 미국에 미군 파견 비용 부담과 군사력에 관한 차이를 보였다.

반 남북화해 대응으로 15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잉 무장력'을 지적하고 "미국은 50년간의 동맹에 대한 부담과 대과잉을 조기에 양보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리처드 매우처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연방을 통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면을 누스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미국 대외정책의 미진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김 대총리의 대북무장 진압을 개사하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서방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남북화해 이후 전례 없이 다른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을 대비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대륙의 핵 위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핵 위협이 아첨의 수위를 넘어서는 것만으로도 핵 위협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매우처 대변인은 "중립적 관점에서 대북핵 위협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핵 위협 회피가 오히려 이같은 미국의 위협을 유발한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미국은 합의문에 '북한문제에 자주적으로 접근한다'고 한, 중국이 중국이나 중립국에 대한 핵 위협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중국 핵 위협 회피에 대해서도, 중국 핵 위협 회피에 대해서도 '동맹의 다른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 외교관계자는 "북한 핵 위협이 미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서 핵 위협이 미진한 것만으로도 '동맹국'은 '동맹국'으로 간주된다." "워싱턴=홍승용특파원 yshwang@hkcok.kr" data-bbox="127 410 354 508"/>

### 對北수교교섭 기대



일본

일본 정부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계기로 평가하고 나섰다.

일본의 강경 주류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 원칙적인 시각과 더불어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북의 수교교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의 급속한 접근으로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본 노선이었던 '한미일 3국 연대' 등이 거기다,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남북 정상 회담으로 마련된 조건의 타협을 전제로 한 접근이 오히려 이런 우려를 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것 같다.

북의 요사카(高橋洋平)와 고노 요에(河野洋平) 외무장관은 이날 남북 대화의 장래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표했다. 또한 교섭에 적극 영향을 내세우며 "대화가 북의 관계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청 관계자는 대북 교섭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일방적 남북' 의사인 개방 문제가 화해 분위기를 키웠음을 이번 양면의 배경으로 들었다. 5월로 예정됐던 수교교섭의 연기는 이 두 문제가 진전을 조건으로 삼은 일본과 추가 시각 차이를 요청하는 북한이 맞바꾸는 때문이었다. 남북 관계의 막대한 진전은 북핵 문제의 자체 완결을 필요로 하는 여건의 존재를 불리. 그러나 양면의 발전과 함께 있던 일본 정부의 모습을 두 나라의 수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kr" data-bbox="415 383 554 503"/>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15일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사실을 통한 체계를 넘어 1년 여의 기사로 다루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 ■ 각국 언론 반응

각국 언론들은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는 남북간의 분열지 50여년 만에 화해와 통합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NYT "DJ 거대한 역사변화 도출"

○뉴욕타임스는 김 대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핵강을 사이에 둔 남북화해의 대화로 북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김 대총리의 회담으로 북한 현대사에서 거대한 변화의 원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 아닐까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상 회담 주역과 지도자로서 자신있게 행동함으로써 언론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CNN은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김 위원장이 김 대총리의 시종 방향 초점을 받아들였으며 서울에서 또다시 역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CNN은 그러나 두 정상은 4만명의 주한 미군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라는 두 개의 큰 진척 과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도 두 정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북핵을 강제적으로 단호하게 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라는 두 개의 큰 진척 과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르몽드 "술위문장 이미지 변화"

○프랑스의 르몽드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수교교섭의 지도자' 김 위원장의 이미지 변화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소련 김 위원장이 지난 1980년 이후의 시대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평壤에 대한 관심이 북과 시간을 주면 것으로 의정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 젊은 날의 김 위원장이 고지되었다.

### 獨紙 "평화와 통일위한 초석"

○독일의 쾰른도이체 치어프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서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평화를 지속해온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광명 ARD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매우 포괄적이며 남북간의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명시했다. 서울을 강조했다.

### 대만관계 연결 경계



중국

중국은 동북의 긴장사태를 우려하고, 대만과의 연결 경계와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등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며, 단거리 핵무기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사태를 완화하고 지지해줬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지만, 대만 문제나 대북핵 위협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북핵과의 특수관계와 '일대일로' (一帶一路)라는 동아시아의 경제와 문화교류의 북쪽의 실행방안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 체제의 정상회담을 인정해왔고, 남북관계의 발전, 남북통일을 지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남북화해의 비결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북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문제에 대한 공통점을 강조,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지지해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최근 관료 미국 방문의 결과 공산당 내부에서 지지해준 리처드 매우처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남북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를 2+2(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로 시 2+2(중국과 미국)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언론은 북한이 대만에 대해, 대만과 리처드 매우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홍승용특파원 docong@hkcok.kr" data-bbox="127 880 354 913"/>

### 구체언급 자제 신중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한 정상회담 결과에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일방선언대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5개항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방선언대로 아흐메노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남한 모두 지도자가 만난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화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신중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취임한 때 한반도 전쟁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빌리 4차(비밀)에서 초빙되는 등 한반도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가 강경정책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의 방한 결정도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회복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이번 남북 회담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러시아는 오히려 남북의 화해가 미국 영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국의 위태로움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더욱이 남북 화해는 미국의 북핵개발사업(NMID)개발의 추진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레오니드 이바초프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담당관이 14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실제 러시아의 군사 위협은 전혀 없다"며 "북핵정전협정은 미국의 그런 우려를 덜어주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고려의 일면을 보여준다. "한국일보 기자 hkwon@hkcok.kr" data-bbox="375 775 554 913"/>

# “예상 넘어선 대성공”

남북정상  
한미  
6·15선언

## ■ 해외 전문가들 평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대성공을 거둬야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하는데 엄청난 효과와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도쿄=연

### 미국은 이제 한발 물러나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말을  
믿고 싶다. 장기적으로 군사비 삭  
감과 대외교섭부기 병산 중단 등  
이 관건이며 전면적으로 분위기가  
준다.

정상회담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으로 물러야 할 것  
이다.

그는 2년전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진념을 밝혔고 현대  
의 급속한 시연과 기업인 방북을  
이유해: 친선 분위를 조성해  
: 한반도로 지난해 서해교전에

서 모든 안보에는 한치도 양보하  
지 않는 단호하기로 김 위원장의  
변명을 이끌어낸 셈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조심스럽  
겠지만 결국은 서울을 방문하도  
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은  
불편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국  
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려면 개혁  
에 나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미국, 중  
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인구



찰스 켈리 전 주한대사

7,000만의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이 대북 수  
교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며 미국은 이제 한발 물러  
나야 한다.

### 北 점진적 개방정책 추구할듯

김 위원장의 공화 출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  
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과 관련  
해 이번 회담에 앞서 중국과 사전  
협의나 개성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김

재석구 설치와 같은 점진적인 방  
법으로 개방정책을 펼 것으로 보  
인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  
우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겠지만 그 이전에 조려남 회담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park 헤리슨  
서울대학교 수석연구원

### 북한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영웅  
공감까지 내준다는 것은 외교적  
으로 극대 효과이다. 이번 회담  
에 가는 북한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 성공시킬 수 있었다.

두 정상에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는데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  
서 있었다: 힘을 나타낸다는 의

미에서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지  
금까지 북소리가 거의 전해지지  
않아 신비적인 존재였다. 이번 회  
담에서 육상이나 김기장이 전 세  
계에 전해진 것은 국제적 고립상  
대였던 북한의 대외이미지 개  
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일없다.



고토 도시오(鎌藤利雄)  
전 주한대사

### 통일때까진 아직 험로 예상

속적이 빨라 기쁘다. 그러나 한  
편으로 '대만'이라는 그다지 어렵  
지 않은 일에 55년이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남  
북화해, 군사적 긴장의 대폭 완  
화,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길이  
아직 험로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이상한 지도자' 이

미지의 탐파를 도모하는 것은 그  
만큼 위험(謀略)이 동반해져 화  
해부도 조성을 통해 경제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김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독마  
른 태도를 취해 안고 삼은 것을  
얻는 현실주의적 인물이라는 인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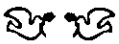


이즈미 하지메(伊藤見元)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단일팀등 남북체육교류 줄이을듯

## 남북정상



### 6·15선언

남북정상회담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유으로 남북체육교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동선언 2차항목의 통일방안 공동성언과 4항목의 문화

체육교류 환경 등 제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 따라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단일팀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월드컵분산 개최와 정상급 가능성도 높다. 14일 남북 실무회담의 장만 사후본이 간담회에서 남북은 실현 가능한 모든 협상을 제안했으며 유 이어 열람 체육교류협력 협의를 도출해 나가게 된다. 남북체육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팀 문제, 그리고 과학 동시대의 체육교류 문제, 정상 동을 세부적으로 논쟁해 본다. 권종지주

## 올림픽 동시입장 가장 먼저 합의가능 경평 축구·월드컵 분산개최도 논의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 남북이 가장 빨리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9월 시드니 올림픽 단일팀구성은 종목별 쿼터와 출전자격 등이 이미 확정돼 시가지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최국인 동시입장은 절차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언제라도 가능하다. 동시입장은 북한이 1972년 뮌헨 하계올림픽에 첫 선을 보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상징성도 크다. 이미 시비라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남북정상에게 단일팀 구성을 서면으로 권유한 바 있어 국제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다. 김윤환대한체육회장은 이 문제를 감안하면서 남북 양측의 국가대신 올림픽기와 각각의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고 입장이고 국기는 이의령을 대신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림픽 동시입장은 남북체육교류의 시발점이 되는 사안으로 타협할 경우 나머지 현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평 축구(또는 통일축구)부활 상황에 따라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11월 아시안컵 구선수권을 위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양국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평양을 모기는 교관경기가 올림픽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99년 분할 축구와 97년 세계청소년 단일팀 구상과 서울과 평양서 남북 청소년축구경기

역린 바 있어 노후에도 충분하다. 또 정부는 8·15 광복일에 친실주경기장에서 통일축구를 10년간에 열겠다는 인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14일 정문준대 한국축구협회가 북측에 2002년 월드컵에 북한팀 참가문제를 재논할 수 있게 5·1경기장에서 분산개최하고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 없다. 분산개최는 국제축구연맹(FIFA) 요건에 맞도록 북측 경기장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장 설치와 개보수기간, 비올부담 등의 문제가 걸이 시급하다. 대회는 관공적의 북한입국과 대회운영 등도 단순하지 않은 않다. 그러나 FIFA가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무르익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

기타 김윤환회장은 2002년 부산아시아안 게임과 북한팀 참가와 단일팀 구성, 평두산에서 상화사화, 한국 축구 등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를 제안했다. 이 역시 남북체육교류의 전진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현대의 주도로 열람 상화사화회를 남북 국가대표팀간 경기로 승격시키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2000년 11월 서울의 코리아컵 유소년대회 북한참가 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승근기자 sk@hkc.co.kr



이 같은 다시 한번 99년 세계탁구선수권 결승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순간 남북 코치진은 부둥켜안고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탁구는 내년 오사카 세계선수권서 다시 한번 단일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축구·탁구부터 성사 가능성

## 단일팀 구성진망

남북체육교류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종목별 단일팀구성이다. 단일팀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에 가장 좋고, 여러 분야의 교류 중 전세계에 통일 한국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상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단일팀은 또 남북이 상호 보완적인 수많은 교류가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해 스포츠발전에도 의미가 크다.

남북은 이미 91년 4월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을 구성, 우승한 바 있다. 이 대회부터 파랑에 한반도기가 남북의 국가대신 사용됐고 아리랑이 국가로 대진했다. 또 난 뒤엔 포도주강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에도 단일팀이 출전, 8강 진출을 이뤄냈다. 남북이 합치면 훨씬 강대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단일팀구성은 병행상 서로 실력이 엇비슷한 종목에서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김운용

회장이 제안한 내년 오사카세계탁구선수권의 단일팀구성은 상호 이견없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

장봉준회장이 제안한 올 10월 아시아축구선수권의 단일팀구상도 무난히 이뤄질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축구실력이 남한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 세계청소년선수권 등 단일팀은 계속 추진해야 할 상징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풀 아시아인접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축구와 탁구를 시작으로 종목마다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강팀인 리명훈(235㎝)이 버티고 있는 농구를 비롯해 복싱, 아이스하키, 여자축구 등 북한 강세종목의 단일팀구성은 완수에 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이후 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구성이다. 올림픽에서 남북의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통일전망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근기자

## ■ 방북수행 김운용회장 인터뷰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배후리안에서 급속하게 진전될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을 수행,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드니올림픽때 남북한 선수단이 동

시입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실무회담의 파드너는 누구였다.  
 “사외, 문화, 체육분야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고 주로 장흥IOC위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다.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과 상호응원, 합동훈련은 불

## “올림픽 동시입장 북측 긍정적 반응

### 김정일, 단일팀 어떻게 센가 질문도”

른 여러 종목에 걸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2001년에 열리는 오사카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2002부산아시안게임 단일팀(혼성팀)구성은 물론, 일부 종목의 분산개최를 제의했다.”

-북한측의 반응은.  
 “북한의 장흥IOC위원은 동시입장은 사마칸치 IOC위원장이 영국정상에게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선언문 배후리안에서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위원은 또 영국정상이 이례는 비탄에서 체육교류업러이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분산개최나 경관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경관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단일팀구성, 국동리고 창립 등에 대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떠나기전 오찬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북이 힘을 합하면 어느 종목이 가장 쉽나’라고 물어 따구 유도 레슬링 등 몇개 종목을 예로 들어 대답했다.”  
 -앞으로 남북교류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을뿐 구체적 준비는 아직 없다. 남북교류는 경기단체 차원이 아니라 당국차원으로 승격시켜 큰 틀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여동은기자 deyuh@hk.co.kr  
 사진=김진경기자

# 56·60·64년 올림픽 단일팀 출전

## 동서독의 체육교류 사례

남북체육교류는 1900년 통일일 이룬 동서독의 체육교류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동서독은 56년 뉘른베르크대회에 처음 올림픽단 단일팀을 구성한 뒤 60년 로마, 64년 도쿄대회까지 3회 연속 같은 국가와 국가를 갖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때까지 동서독은 올림픽을 앞두고 수백차례의 회의와 예선전을 치르며 민족 동질성을 확인했다. 57년에는 각 종목에 걸쳐 1,530회의 교류경기가 열렸고 참가인원은 3만5,800명에 달했다.

그 사이 61년 동독의 배후리안계 정치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 62년부터 4년간 도쿄올림픽참가권을 제외하고 모든 스포츠교류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68년 멕시코올림픽에는 동독이 독자적으로 올림픽에 출전,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연히 스포츠교류도 67년에는 88

회, 68년 46회, 70년 10회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74년 양국이 ‘체육관계규칙’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경기종목과 교류할수할 확대하고 소규모 경기단체의 집적을 늘리며 화해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어 75년 서독체육회장의 동독방문, 77년 동독체육회장의 탐방으로 한 차례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87년 체육교류는 110회로 늘어났고 88년에는 시독 뒤셀도르프시 양국의 육상대회가 열리는 등 139회의 스포츠교류가 있었다.

이때 체육계수장의 만만까지 이르면 남북이 시 교류과정중 어떤 정치적 논쟁 상황으로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56년 뉘른베르크 단일팀이후 34년만에 통일일 이룬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체육교류는 끈질기게 지속적인 노력으로 북문의 방편적임을 해아 한다는 것이 한반도의 비결이다.

/유승근기자

## KOC, 남북교류대책위 내주 소집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5일 2000년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200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경관축구 재개 등 남북체육교류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주 남북교류대책위(위원장 박용성)를 소집, 내부 의견을 조율 하기로 했다.

대책위의 소집은 각 기맹 경기단체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또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씨름, 태권도 등 일부 종목의 교류방안도 검토하고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동시입장의 세부 절차, 공동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 남북 방송교류 “레디 큐”

13일 오전 10시 20분 분단 55년의 단절을 끊는 남북한 두 정상과 첫 만남에서 14일 오후 11시 20분 두 정상의 남북공동선언서 서명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생생한 육성과 거침없는 행동 TV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두 정상의 회동을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방송사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방송사상 최초로 남한 25년의 방송인과 북한의 방송인들이 합동으로 남북간 방송기자 교류를 편입이 시동돼 사실상 남북 방송교류의 물꼬를 튼 셈이다. TV 전송방식 등 안쪽의 기술적 차이에 도 불구하고 생생하고 풍부한 화면을 제공해 의지와 실천노력이 독보적이었다면 남북한 방송의 기술적 교류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초 두 정상과 회동 등 생중계의 경우, 북측에서 촬영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편파적인 화면 구성도 전혀 없어 남북 방송인간적 신뢰도 갖게됐다. KBS 보도기술부 한태 주권은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은 화면구성 등이 매우 근원적이었으며 북측에서 삭제할

## 김정일의 생생한 모습 등 기술차이 불구 완벽중계 남한방송 시청 확인

### “北방송수준 예상밖 높아”

한지상이 풍부한 자료화면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덕분에 TV3사는 정규 프로그램을 대부분 취소할 정도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었다. 방송 시간이 내보낸 생방송 시간은 총 134시간 유제가 없었던 긴 생방송 시간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방송은 북한 방송기술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MBC 영상제작부 조창민부장은 “생중계와 녹화방송을 보면서 북한의 방송기기와 방송인의 수준이 예상외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리 TV 시청시절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쪽 MBC도 보고 서울 것도 봤는데”라는 김동일 후원장의 언급이 이를 증명해 주었다.

또 북한주민들만이 향유하는 유선 라디오방송인 ‘제3방송’의 실행도 확인했다. 방송인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본격적인 방송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진흥원 이우승박사는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제도적 문제와 상이한 방송기술의 차이점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방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임궐성’ 등 북한 영화나 드라마 몇 편을 소개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KBS 드라마 ‘백조왕권의 북한 편

지합성 추진 등 단순한 프로그램 방송이 아닌 제작 차원으로 방송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또 한번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과 중계를 맡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공동제작의 경향은 앞으로 일련 방송프로그램의 합작이나 2002년 월드컵 남북합선 개최가 이뤄질 경우 공동중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국일보기자 kknur@kookje

남북한 방송인들은 TV를 통해 남북한 두 정상과의 일거수 일투족을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했다



## 이말 저말

▶ 정말로 정말로 너무 감시하다 - 평남 평원군 출신 실형인인 김응용(金應龍)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감독,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교류가 합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 정치이념적 체제 비교에 치우친 통일교육으로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 서울 평남고 교사 김성권씨, 통일에 무관심한 세대인 고등학생들도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에 눈시울을 붉히는 만큼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을 바꿔야 한다며,

▶ 아시아 대륙의 마지막 대규모 주둔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북한을 기쁘게 할 것 - 파이낸셜 타임스, 15일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강대국들의 입지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 실향민 김응용 감독 마음은 벌써 북녘에...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장 해태 김응용감독(59·사진)의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남북정상간 합의로 50년동안 기다려왔던 가족상봉의 천금같은 기회가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평안남도 평원군 김산면에서 2남5녀중 넷째로 태어난 김감독은 51년 1·4후퇴 당시 평양까지 가족 모두 피란을 가다 헤어지게 돼 부친과 큰누나와 함께 부산까지 내려온 실향민. 부친마저 망향의 한을 안고 2년전 눈을 감았던 김감독은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다.



도 들어보는 등 북한소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선수단 동시입장이 확실시 돼 올림픽야구팀 감독을 맡은 그는 고향사람들과 손을 잡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어 남북정상 합의문을 대하는 감격은 더욱 진하다. 한국 시리즈를 9차례 결정하는 동안 잘 할때나 못할때나 무표정으로 일관했던 '냉혹한 승부사' 코끼리감독도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시 한번 찾아온 혈육상봉의 기회에 '너무 기쁘다'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뭇 뭇 달듯 애만 태우던 이산가족 상봉이었기에 허탈감에 기대를 완전히 버렸던 김감독이었던 만큼 "더 이상 이산가족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잊지않았다. 비단 가족뿐 아니라 육촌 중국전지훈련 당시에는 북한야구팀과 경기할 몇차례 했다는 중국 감독성 코치로부터 북한야구대표팀의 전력

/정진형기자 jhchung@h.k.co.kr

### ■ 외신 말말말

- ▲ 남북정상회담 이제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아시아, 15일, 사설)
- ▲ 남북, 대화 복원에 성공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은 '근대 한국역사의 거대한 변화의 힘'으로 자리매김될 것이 확실하다. (뉴욕타임스 14일, 1면)
- ▲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미, 일, 중, 러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파이낸셜타임스 14일, 13면)
- ▲ 한국 시민들은 남북화해가 불러 올 비용을 우려하면서도 평화를 위한 금전적 부담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L.A타임스 14일, 1면)

- ▲ 남북한 두 정상은 냉전 정치의 음습한 유물이 드디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시드니 모닝헤럴드, 14일, 10면)
- ▲ 김정일 위원장의 공화영접 및 김대중 대통령과의 예기치

- 높이 평가하고 싶다.(마이니치, 14일, 사설)
- ▲ 성공적인 정상회담은 북한이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USA 투데이, 13일, 1면)
- ▲ 김정일 위원장이 트램을 내려오는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것은 1994년 김일성 전주석 사망에 따른 그의 권력승계 이후 '가장 눈부신 외출'이다.(로딩드, 13일, 1면)
- ▲ 남북정상회담으로 세계 최후의 냉전지대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는 1972년 닉슨-미오쩌 동 회담에 필적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닛케이, 11일, 사설)

“이제 빙산이 녹기 시작했다”

“김정일 가장 눈부신 외출”

“닉슨-毛 회담에 필적할 사건”

- ▲ 많은 자동차 동승은 한국적 유교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연장에 대한 김위원장의 예우였다.(이즈베스티아, 14일, 4면)
- ▲ 남북정상회담 실현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햇볕 정책의 성과이나, 회담을 수락한 김정일 총비서의 결단도

# 교황 곧 北韓간다

## 金대통령 국무회의서 “金正日수락” 밝혀 “남북 통일점점 확인-- 이제 전쟁은 없다”

김대중(金大)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체제를 마련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초청을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이 교황의 나이를 묻는 뒤 “오 시라”며 수락했다고 밝혔다. 박종영(朴宗永) 장관에 대해서는 “교황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교황 방문에 성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침략 및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우리의 연합체와 북측의 조속한 수교의 일환세가 갈라

은 기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을 통일의 징검다리 찾은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등에만 매달려 통일방안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이산이 분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도착 때까지 일정도 의제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갈 모르고 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힘든 외교는 일체에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이 공화에 나오리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확실하 내용 줄은 몰랐다”면서 “모든 게 예상하지 못하고 가서 겪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필·유병권기자>

2면에 계속



김대중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이한동(오른쪽 두번째) 총리서리의 국무위원들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는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관련기사 2·3·4·5·8·11·16·30·31면

기립박수

## “中企투자단 8, 9월께 방북”

### 회담 수행 재계대표단 휴전선근처 공단 제의

김대중(金大)대통령은 수해, 북한을 방문했던 재계 인사들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 조속한 기능과 함께 이종재 방위 및 투자보증, 신변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사급하다고 북한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북미 중소기업은 8~9월중 50여명의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대북투자 조사단에 방북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진흥위원을 북측 휴전선 근처에 초청할 것 등 북측에 제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북 기업이 북한측 대표장군인 민족

경제협력연합회의 산대역을 맡을 우리측 협력기구도 경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분부(北北) I.G 회장, 손길승(孫吉勝) SK 회장, 정봉연(鄭奉淵) 현대산사, 김성모(金成模) 연나이고리아 회장 등 재계 대표와 이원호(李源浩) 중소기업진흥총연합회 부회장을 경제단체대표들은 15일 오후 서울도착 후 본보 기자들과 각각 만나 이같은 방안을 북한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측도 이같은 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SK 손회장은 “남측 경제인 10명이 북한측 7~8명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 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증, 이종재세제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문제는 조만간 남북한 당국간에 모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연나이고리아 김회장은 “대북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남한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보장이라고 북한측을 설득했으며, 투자를 진흥하는 남북공동 창구유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현대산사 장이사는 사해안 공단부지 선정과 관련, “(산의주에 이에 해주와 남포지역에 대해서도 곧 실사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해 부지선정 작업에 조만간 가지를 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I.G 구회장은 “앞으로 컬러TV 임업공장 설립과 비무장지대에 국제 불류센터 건립등을 구제해내고 가족회시키니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과학부 산업팀>

### DJ·클린턴 전회통화 남북회담 성공등 설명

김대중(金大)대통령은 16일 낮 12시30분 방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성공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의 성격과 함께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일 3국간의 공동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을 소개하고 북측의 반응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통령이 이번 방북이 남북간의 평화통일과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필기자>

# 金正日 “공항마중 말렸지만 내가 강행”

6·15선언



‘평양남남’ 새사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2박3일동안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만큼 우려곡절도 많았다. 김대중을 수행한 주요 인사들의 친언을 통해 15, 16일 새로운 사실들이 화되었다.

## 우리측 사전에 전혀 몰라

◆정심회담 하루연기=갑작스런 연기통보가 아니라 회담 며칠전부터 북측에서 하루 늦추시고 요청했으나 우리는 가능한한 약속을 지켜차고 했다고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밝혔다. 이유는 기술적인 것이었다. 도로정체의 대동강의 속은 배워인 영민관 준비문제, 연은이 정상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데 따른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순안 관개에서 한일시대로 들어가며 보수한 도로를 일부는 시멘트가 굳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위원장 공황출연동 의전=김정일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온 점에 대해 우리측은 전혀 몰랐다(영부처장관부처장은 당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가 알았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해서 공표하지 않았다”고 언급, 우리외무 관계기공에서는 김용순대변위원장은 다음 것으로 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당초 평양 순안공항에서 도착장면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는 방문

## 두정상 고별오찬 앞서 30여분간 티타임 가져 김위원장 “남언론 빨라... 내가 술취한것도 보도”

하루전 북측에서 심의를 단속하지 말고 시면으로만 배포해 달라고 해 김정일위원장이 직접 다음 수도 있었다고 추측만 했다. 우리정부 의전장이 평양에 회담준비를 위해 사전답사를 갔으나 김정일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

## “새총으로 빨간불 꺼트리라”

김위원장은 15일 오전에서 여외관인, “내가 공안한 나가는 것은 김용순이사가 말했는데 나갔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변에서 빨간불을 켜다. 내가 새총으로 빨간불을 모두 꺼트리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론문제=김정일위원장이 박지원장관에게 “박장관, 남북연론의 비판의식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 하기 위해서는 호상간에 싸안아 줄 것은 안어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15일 고별오찬에서 “남측연론이 빠트리라. 전날 합에서 사방하던 날 술을 먹었는데 내가 술취한 것까지 보도가 나오더라. 그냥 새벽 3시까지 TV를 켜다”고 말했다.

## 특정인문사 못들어오게

연론제와 관련, 북측이 모연문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개사 문제가 됐다. 출발 하루전인 12일 낮12시 모연문사는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 문제가 터지자 김대통령은 13일 아침 일용안목이 “가서 얘기하지, 우리는 태워서 가겠다”고 친동문을 보냈다. 그랬더니 지국에서는 오연 추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입성이 오산 후 북측에서 반하는 주는데 연장에서 취재는 못한다고 했다. 평양에 도착해 임목보가

“의사직 순간이다. 두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3, 00명의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그중 절반은 외신이다. 이들도 북에서 안받아들이 못은 것이다. 만약 추방하면 이들이 기자를 추방했다고 전세계에 타진할 것이다”고 하니 그제사야 북측이 수복했다.

◆단독회담 시간변경및 장소문제=본래 방북 동행인 14일 단독회담은 오전에, 확대회담은 오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전에 하면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없으니 오후에 하기로 북측에서 제의해 회담 순서가 바뀌게 됐다. 회담장소에 대해 김정일위원장은 “김대통령께서는 다리가 불편하니 전부 내가 가겠습니다. 알아만 계실

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단독회담이 모두 백희원영민관에서 열리게 됐다. 마지막날 고별오찬에 앞서서도 30분간 두정상이 단둘이 티타임을 가졌다. 김정일위원장은 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려 했다. 김위원장이 아차람 피격적으로 나온 것은 권익강 앞에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6·25행사및 비방중단=15일 고별오찬에서 김위원장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6·25가 10일 남았는데 휴전선에서 절대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지시를 받은 군 수뇌부가 남측에서 안하면 안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화를 내며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서로 상대가 하면 나도 하겠다는 자세를 갖게되면 확대강을 갖게 되고

집중 비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예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남측에서도 이렇게 하달라”고 말했다.

◆김의선철도 군민력동원=김정일위원장이 “김의선철도요 것차. 공사에 남북의 유수군민력을 동원하지. 군은 그대로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보면 주적(主敵) 개념을 갖게 된다. 양측이 군을 동원해서 김의선 철도를 놓으면 서로 주적개념을 갖지 못한 것 아니다. 6·25행사도 하지 말자”고 했다.

## “우리 입기 만났습니다”

◆삼체관련 농담=15일 고별오찬 때 김대통령이 “어디김제냐”고 묻자 김위원장이 “진주김제냐”고 했다. 그러자 김대통령이 “나는 김해김제냐” 김위원장이 진짜 진리냐”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앞에 있던 이희호여사가 “나는 진주어제”라고 말하자 김위원장이 “우리 알기 만났습니다”고 해 웃음을 이어갔다. <공영언기자>



15일 오후 서울 시청앞에서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대중대통령의 차행행렬을 맞아 태극기보 흔들며 환영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껍끄러운 얘기’ 어떻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위원(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가장 껍끄러운 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주한미군 문제, 국가보안법 및 미정원장기수 문제등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가늠했을까.

김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일본이 기공제주기수 요망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에 대해 보편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15일 귀국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한미군은 물론,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왔다”며 “대화

## 김대통령 주한미군 필요성 ‘舊蘇사례’ 들며 설득 김위원장 한·미·일 공조 지적-보안법 철폐 주장

는 유익했으며 그중에는 아주 좋은 전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영(朴鍾榮) 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연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북한측의 주한미군수요에 대해선 김대통령이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을 수행한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김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고 소련 붕괴후 나토가 그대로 남아 유럽지역의 안정과 균형의 어긋고 있듯이 북측이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의 주둔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북측이 김형영(金炯榮) 다른 의견은 방하지 않았다고 반박

은 전했다. 또 한·미·일 공조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무력대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혀 예상을 깨버렸다는 후문이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이산가족 삼문문제와 연계해 풀어나갔다. 김대통령은 귀국보고에서 “북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좀 크게 하면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도 국민과 참여해 진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연모(李延模) 씨 송환 이후 북측이 이를 체제선전에 이용한 사례때문에 가문자제를 꺼려왔으나 김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해 국내법방어론도 무마하면서 심리도 연어내는 화상송환 방위안 셈이다. <이민준기자>

# 분단 반세기만에 상호실체 인정 '큰 획'

## 한반도 共榮의 新세기

### (1) 통일방안 공통점과 전망

6·15 남북공동선언에 가장 큰 의미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역정부', '중앙정부' 등 어느 위상에 의한 통일인 이냐고 남북간 합의에 의한 실질적 방식이 통일방안으로 되어 있다는데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은 남북이 지난 55년만에 상대방의 실체와 통일방안을 인정하고 진정한 자제로 통일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 ◀인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이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보면 '연방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대째 통일방안의 첫번째 남북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이 독립국가로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새 공동-교류-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연합회의(국회)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 양측이 모두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의 연방단계는 연방정부가 외교-군사-주요 내각직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돼 있다.

북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통일방안을 현실화 시키는 연방공화국 장년 이전에 양측이 상대방의 실체와 체제를 인정하고 능동하게 참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연방공화국의 중앙정부는 남북 관외교로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가 군사-외교권을 보유한다.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지난 60년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 80년 '교류협력남북공동선언'에 이르러

3대방안'과 91년 '민족통일2대도약선언'에 기초한 연방제'로 변모해왔다. 최근에는 제도통일을 후대에 맡길 것과 외교-군사권을 지역자치정부로 이어나는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다.

#### ◆공통점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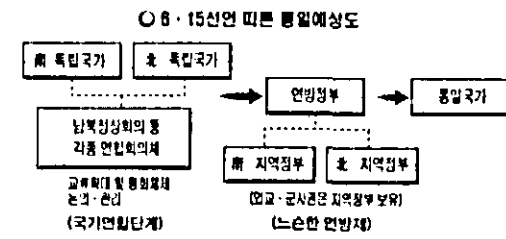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인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가장 큰 공통점을 남북의 지방정부가 외교-군사권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또 두 방안은 남북간 합의에 의한 단계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연방제는 제도통일을 후대에 맡기는 '제도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 논의가 포함된 것은 실제로 통일논의를 하기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방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북측은 '2국가 2체제'인 국가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중(朴源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느슨한 조직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형태는 연방제보다 국가연합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북측도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이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연합' '연방' 南北지방정부 군사-외교권 보유 北 체제보장 성격 강한 '2국가2체제' 선호할지도 전문가 "차이점 확대해석 지양 장기적 접근을"

적 방식의 잠정적 통일방안이며 상대방의 체제를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상당기간까지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무영(李武榮)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과 연방제는 상호 대등적인 성격이 아니라 합의동일 단계에서 각자가 한 입장의 일측적인 과정에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단계는 연방정부가 구성되는 연방에 이전에 남북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과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반면 북한이 "느슨한 연방제"는 남북이 합의한 하면 곧바로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모자"를 위한 연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과도기를 생략하지 않고 있다. 또 연방제안은 평화공존 기간중에도 '제도통일' 할

북측이 통일논의를 위한 선결조건 사항으로 '북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가두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군의 주둔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관입논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지역정부가 보유한 군사-외교권을 어떻게 연방정부로 이관시킬 것인지 ▲연방정부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구성 등은 좀더 장기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통일논의에서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확대해석, 미리부터 평가할 때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의동기자>



두 정상 '뜨거운 포옹'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령의 평양 출발에 앞서 친밀의 포옹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金대통령 '후속구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인 '6·15' 합의의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후속조치 구상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중은 김일성(金日成) 국방위원장과 합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무엇보다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과 하고 있다고 박종원(朴宗源) 청와대대변인이 16일 전했다. 김대중은 16일 평양방문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를 우선으로 강조했다.

## 국민 對北觀 전환 구체작업 착수

### 'TV대화' 서 국민협조 요청·국제공조 강화

이해와 정서는 이날부터 정상회담이 후속조치를 위해 고위급회담 준비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김대중은 또 남북합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지도자간에 학제적·직접한 신뢰관계가 조속히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더해, 특히 북한과의 약속을 충실해야 한다

고 보고 있다고 백대만은 전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대중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반국민주적 협조가 필요하며 국민이 그동안의 대북관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은 방북한 예고했던 '국민과의 TV대화' 등 대국민 직접 접촉기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심화하고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대중은 주민 4명과의 외교관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남북정상간 합의에 대해 주민 4명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이를 위해 16일 원안당(萬壽堂) 청와대(靑瓦臺)로 수석과 미국과 일본에, 반기문(潘基文)의 교섭본부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파견했다.

백대만은 이와 관련, "김대중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 및 국제관계 강화를 돕기 위해서는 4강과의 관계가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간 직접관계 뿐만 아니라 주민 4명에 대한 외교도 앞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연범기자>

# 평양은 단독주택 없는 아파트 도시

6·15선언



崔永範기자 방북취재기

자부심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개를 꺾어 오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려 했다. 어떤 순간에도 기자회견을 망설임이 없었던 연방이라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 갈수록 곳 애시 분야오르려는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난쟁이 치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몇몇 기자들이 면에 도착한 평양에서의 "참고. 참있다" 2박3일은 이처럼 통쾌할 수 없는 격정에 인숙이었다.

12일 오전 전체기자 자담공감할 이유도없어서 공동취재단 내에는 긴장감이 감동기 시작했으나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두 정상 상봉장면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흥취와 함께 "아! 뭔가 낫 것 같다"는 예감이 활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수록 연방의 한맛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문명격차임을 느낄 수 있었다.

### ◆위대활동과 복원안내원

평양도착 직후 처음 접한 북한 주민들은 '안내원'이었다. 공동취재단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진영에게 평양 순안공항에서부터 각각 1명씩의 북측 안내원이 배치되며 이들을 기자들의 숙소인 고려호텔 외부의 행사 때마다 비스에 동승해 행동을 같이했다.

시종종반전 안내원들은 기자들의 일기수 일부족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이 각 기관에서 산발한 '감시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말 그대로 '안내원'에 가까웠다. 남측기자들의 '평범 행동'을 놓치 오하리 기자들의 안내원을 가리키는 진공강이 종종 불만을 표출로 분열해: 시음스러웠다.

특히 안내원들은 남측 기자들에게 동양과 민족문제 등에 대한 공격적인 논쟁을 감지도 않았으며 취재활동을 방해하지 않았고도 노력하는 흔적도 보였다. 특히 이들 안내원은 프레스센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등 남측 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북인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 많이 써달라"는 수준의 타협이 주종이었다. 특히 이들은 남북정상회담과 진행상황에 대해 부지 공극에 행하며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찬양을 반복해 했을 수 있기도 했다. 다만 예외로 김일-남측 회담에 따라 기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안내원을 통해 북한의 심상을 간접적으로 접한다는 점이다.

공동취재단이 평양사담들을 받으면서 가장 신경을 쓴다는 북한 사람들이 자담취재원 감시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감시원 임원들에 대한 호칭문제였다. 방북전 3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및 임축대표단이 15일 오후 백화간 방민관 1호각에서 열린 대표단 환송오찬에서 박지원장관의 제의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리 남북을 방문 뜻도 있지만 취재원은 무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김정일'이란 이름 뒤에 '위원장', 또는 '공공'이란 칭호를 잊지 않았다. 안내원들도 이 점에서서는 마찬가지였다. 남측 취재기자들을 진영과 대었고 취재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배려했다. 특히 이들은 남한의 사회상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으며 김정일위원장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무척 궁금해 했다.

기자들 팀당한 안내원은 김정일총리대하 정치경제학과 출신의 열려드린 박영남(42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 많이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평양 거리, 평양 사람

평양거리는 깨끗하고 넓었지만 교통량과 행인이 적어 한산한 느낌이었다. 이 때문에 평양시내의 전체 분위기를 마치 한적



15일 대동강과 '5·1'경기장(구 능리도 경기장)을 배경으로 선 문화일보 최연범기자.

적하다고 알려져 있다. 좁-되긴 길의 평양거리에는 시내 주요장소 곳곳에서 청소년 학생들로 구성된 연방이 거리연주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안내원은 청소년 연방의 연주에 대해 질문하자 "알심히 일하는 부모 형제들의 찬사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며 "안내원으로 즐겁게 참가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평양시내 도로에는 적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숙소인 고려호텔과 인민문화공원에서 열린 남측 방문단 환영만찬에서 맛본 북한음식은 남한의 그것과 같았다. 남한의 음식이 맵고 짜고 단 차 특적인 맛이라면 평양에서 맛본 북한 음식은 싱거우면서도 담백하고 원재료의 맛을 대도록 원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음식의 종류도 참변조 한구이 쇠고기 굶창등 침취하여 등 남측에서는 별로 보지 못

## 두頂上: 공항상봉 보면서 "아! 뭔가 될것같다" 예감 평양 넓고 깨끗하지만 우리 중소도시의 한산한 풍경 김일성大출신 안내원 "남쪽 생활 어떠냐" 자주 물어

한 남한의 중소도시를 연상케하는 이유도있어 있었으며 대한 건물들의 색깔이 대부분 회색에서 도시전체의 느낌은 가리웠을 느낌이었다.

또 남측 대표단을 의식해서인지 어디 곳의 아파트 배관과 건물 청결에는 꽃이분 이 내건과 있었으며 상하수의 건물이 남아 보이기 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전체가 장장미인 '계회도시'라는 인상을 풍겼다.

한산하다는 느낌은 대부분의 거리가 6-10차선으로 넓적한데 비해 교통량과 행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내에는 무척도 전차인 전기버스와 궤도 전차가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손님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운 거리로 오가는 평양시민들은 주로 도보로 이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숙소에서 비단을 출-되긴 길에 평양거리 표정은 제법 복잡했으며 출-되-때는 좁은데 교통량

교동경량차와 비슷한 '교동단속' 차가 거리 곳곳에 눈에 띄었다.

그러나 교차로마다 있는 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며 대신 우리의 교동경량차와 비슷한 '교동 안내원'이 수선호를 통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북한 안내원은 당시의 무늬를 삼공차가 임입을 한다고 알렸으나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평양거리의 특징중의 하나는 주요 도로 양쪽에 20층정도의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단독주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한 안내원은 "평양시내에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어떤 아파트에는 에어컨으로 보이는 창문이 20층 건 구에 설치돼있기도 했고 다른 아파트는 전체가구중 리소수의 가구에 에어컨 창문이 한 곳도 있어 다량대만의 번화차 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북한 음식과 숙소

한 메뉴가 나왔다. 특히 김치는 남한보다 된 배운 대신 많이 많아 마치 매김처럼 인상적 했다. 특히 북측이 자랑하는 옥류권의 평양냉면은 맵고 달콤한 양념으로 맛을 내는 남측 냉면과는 달리 면과 육수 자체로 맛을 낸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달콤한 맛을 자랑했다.

공동취재단이 무척고 고려호텔은 45층 높이에 2개소, 500객실과 자랑하는 대규모 호텔이었으나 남측 공동취재단을 포함, 모든 지원 수행원, 항공기 승무원 등 600명만이 사용했다. 북측이 기존 투숙객들을 다른 호텔로 옮겼기 때문이다.

객실에는 '창신형' 인턴과 환영인턴이라는 환영영구와 함께 김포수 과자 과일 단품 (사이다) 백주 등이 무료 제공됐다. 호텔 출입원들은 친절했으며 기쁘지만 남측 손님들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최연범기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여부  
등 가능할 수 있게 할 김정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  
문이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  
여 평양 정상회담으로 참모부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급류처럼 타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원장 언제 서울올까

6·15선언



“답사시기 두 정상은 알고 있다”

朴賢元 문화부장관 시사  
8·15전후 조기방문 유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서울  
공판에서 가진 정상회담 대안본 보고  
에서 “김위원장이 무려와 합의한 시  
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  
히 답사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집중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또 대북 방사의를 둘러싼 박지원  
(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도 이날 저녁  
모 방송국 정상회담 특집프로그램에  
출연, 김위원장의 방북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수 있지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여인 김정은(金正恩)은 남북  
공동선언에 “북한은 시가라고 하면 표인,  
주거지인 위치가 필요한 유동적인 산  
악으로 보였던 김위원장의 방북시기  
는 공개만 되지 않았으면 두 정장은  
어느 때든 “개개는 장래의 어느 시  
점으로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기는 광복 55주  
년이자 분단 55주년이 오는 8월15일  
공포했던 진후한 시절, 조기 방북유

으로 기대를 참은만큼 늦어도 연내에  
는 성사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위원장의 방북은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상간의 지  
속적인 대화 채널로 자리를 잡게 된  
다는 “중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金大中)은 회담  
과정에서 “당신이 서울에 와서 민족과 세  
계 사람들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  
전을 바란다. 그것만 없으면 일회성  
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논리로 서울  
방문에 난색을 표한 김위원장을 설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정례화의 “공간”  
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위원장의 방  
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측을 한국  
가운데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선결 과제에 해결되어야 한다  
는 지적이다.

“방북을 성취하거나 국가가 방북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로의 군사 또는  
감금으로 지원중재체계를 갖춘 단체  
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된 국가보안  
법 2조의 개정이 이뤄지려면 정상방  
삼 “반국가단체 추방”인 김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진석기자>

北언론, DJ 근황·공동선언 연일 보도

金대통령·金永南위원장 면담  
중요 TV ‘최고위급 회담’ 규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언론  
매체에서 양방면의 대남 비판방축  
에 기가 사라졌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물론  
중앙TV는 15일 오전 김정일(金正  
日) 국방위원장의 대남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후 대남(對南)비판  
개시를 위한 대지 없었고 있다. 특히  
북한 방송들은 북한에 소식을 전한  
후 일방적으로 전했던 ‘남조선 소식’  
을 생략하고 그 시간에 국제소식을  
전하고 있다.

리더오보용인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은 16일 오전 6시, 7시, 8시 뉴스  
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요한  
및 방북준비 소식을 반복해 다뤘다.

이날 방송은 또 유엔조사위원회의 비  
판선 등을 지적한 6·25전쟁 50주년  
관련 북한정부 비판과 세계 사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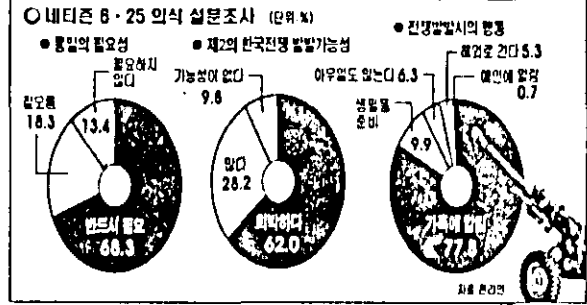
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김위원장의 위대성을 반복  
해 보도했다.

중앙TV는 15일 오후 8시, 10시 뉴  
스시간에 2차 정상회담(북측은 단독회  
담) 및 공동선언 채택과 김대통령이  
방북준비 소식만을 반복해서 전했다.

중앙TV는 “역사적인 방북선봉과  
북한 최고위급 회담을 위하여 왔던  
김대중대통령이 오늘 평양을 출발했  
다”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김대중  
방문 “뜨겁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중앙텔레비전은 어제(15) 이날 오후  
5시 정규 보도시간과 정규 보도시  
간에 아닌 오후 6시, 7시 제로 ‘북한  
공동선언 서면’과 김대통령이 인외를  
방문한 소식을 각각 내보냈다.

연일 중앙텔레비전(17일 오후 8시  
에 김대통령과 김위원장(金永南)장관과의  
회담의 공식명단에 대해 “북한 최고위  
급 회담이 만수무강(滿水無功)에서 있었다”  
고 보도하며 명단을 “최고위급 회담”으  
로 규정했다. <서의동기자>



南 297세대 67% “전쟁재발 희박”

문화일보-천리안 네티즌 공동조사

30.10대 비해 통일 더 적극적

“문화단절이 분단고통증 최고”

신세대 네티즌들은 6·25전쟁을 재하하  
지 않은 세대지만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의미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있  
으며,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90년대 후반, 70년대생으로  
사이버공간의 여론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297세대’ 젊은 남측관계들 다른 연령층보  
다 더 낙관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사항은 문화일보가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PC통신 천리안과 천리안 인  
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1737명을 대  
상으로 한 6·25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능숙한 컴퓨터 활용능력  
과 개인용 PC,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용  
으로 386세대와 뒤를 이어 우리사회의 새  
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297세대는 이번  
조사대상인 만수무강(滿水無功)을  
덜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7세대들은 99%가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답해 6·25  
를 재하하지 않은 세대의 한국전쟁에 대  
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를 잠재웠다.

제2의 한국전쟁 발발가능성에 대해서도  
297세대들은 67.0%가 “가능성이 희박하  
다”고 응답해 “가능성이 많다”는 응답(22.  
3%)을 크게 앞섰다. 30대 응답자의 30.  
5%, 10대 응답자의 57.6%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많다”고 응답했다. 297세대가 다  
른 세대보다 남북관계를 낙관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297  
세대들의 응답은 “그렇다”(68.1%)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  
지 않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이  
와 달리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386세대  
와 10대의 응답은 각각 16.7%와 21.2%로  
나타나 297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미국과 있는데 국내  
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97세대들은 40.  
5%가 “외국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답해  
“강 모르겠다”는 무소심 응답이 다수(38.  
9%)를 차지한 386세대와는 대조를 보였  
다.

그러나 “미국에 갇힌 채였다”는 응답은  
297세대는 21.1%를 차지한 데 비해  
386세대는 30.5%를 기록했다. 386세대는  
“외국에 머물렀다”는 쪽이 27.8%를 차지  
했고, 297세대는 29.0%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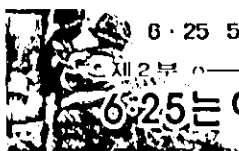
전쟁발발시 가장 먼저 할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97세대는 79.5%가 “가  
족에게 먼저 알린다”고 대답하는 등 응답  
자 대부분이 세대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  
응방식을 보였다. 297세대의 이 항목에 대  
한 응답으로는 “다른 등 생활품을 사러간  
다”(9.0%)와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6.7  
%), “해외로 갈 준비를 한다”(1.3%)는 순  
이었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해외로 갈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무려 15.2%나  
나왔다.

남북분단으로 생긴 가장 큰 문제에 대해  
297세대들은 남북문화 단절(60.5%)을  
 으뜸으로 꼽아 다른 세대들과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념가장 및  
천연자원의 분할(47.0%), 언어소통의 문  
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어지러운 문는 항  
복에서 297세대들은 죽음(46.2%)과 분  
단(20.0%), 이산가족(16.7%) 등을 꼽아  
부정적인 의식을 반영했다. 10대들의 기  
우 죽음(36.7%) 분단(30.3%)에 이어 피  
(12.1%)순으로 꼽고, “스티크(스트리크)  
(9.1%)와 이산가족(9.1%)을 같은 비중으로  
지목해 한국전쟁에 대한 세세(細細) 드  
러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천리안의 관계자는  
“297세대의 한국전쟁관은 이전 세대에 비  
해 현실적이고 수단이 뚜렷하고 10대에 비  
해서는 진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  
성세대 의식과의 한자적 괴리(乖離)는 없지  
만 과거 냉전의식에서 벗어나 통일을 보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단명(斷命) 드러  
났다고 분석했다. <김대현기자>

# “이념보다는 빵” 北20대 통일관 바뀐다



6·25 50주년 특별기획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년을 1세대로 계산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7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을 '4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혁명1,2세대와는 물론 전후 50~60년대 태어난 3세대와도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탈(脫)정치적이고 이지적이며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보다는 실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세대로 '새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북한의 20대는 '취파람' 날보고 눈이 높다. '머슴은 꽃이래네' 등의 애정가사를 즐겨부르고 일본제 전자제품을 선호하며 머스타일이거나 옷패션에서도 남과 다른 개성을 표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 4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탈정치성이다. 이는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또는 체제비판적인 말을 하면 곧바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우려해서부터 많이 목격돼오면서 정치외식을 배제하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을 갖게됐으며 과거처럼 당 간부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장사나 외화벌이 중시자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새세대들이 바라보는 통일의 시각도 과거 세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나 명분 정치논리보다는 실재적인 생활상 등 경제적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홍은넷'에서 최근 식량난으로 북한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의 20대 청년 231명의 통일외식을 면접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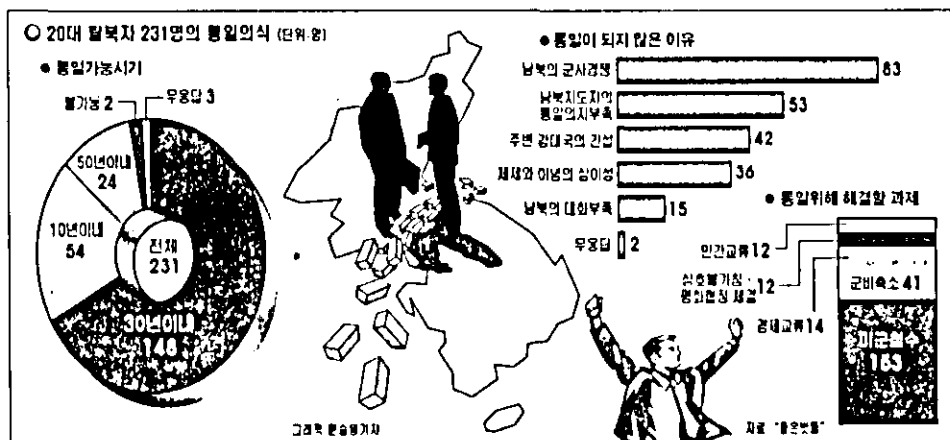
이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20대들은 ▲국기와 민족의 부강발전(52.4%) ▲한반도와 한반도이기 때문(29.0%) ▲인민들의 생활수준 개선(12.1%) ▲전쟁공포감이 없어짐(4.0%) 등을 꼽았다.

특히 한반도, 한반도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0~39세(38.1%) 40~49세(41.4%) 50세 이상(50.8%)에 비해 15.5%

## 탈북 청년 231명 면접조사

###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부강발전' 준비기간 거친뒤 합쳐야 혼란 줄일 것

#### 先決과제 미군철수·군비축소 우선 꼽아



낮았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한반도이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는 답이나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사회가 자신들이 천명하는 중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통일이 되면 사상·의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43.0%)보다는 경제력 차이로 인한 어려움(51.2%)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시기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21.7%인 50명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61.1%는 30년 이내에 또 10.1%는 50

- I.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사람들
- II.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① 보이지 않는 DMZ
  - ② 반세기 南北군비경쟁
  - ③ 레드콜롬버스·미국콜롬버스
  - ④ 화해와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 III. 이제는 6·25를 끝내자

만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경제력과 첨단과학기술을 북한의 지하자원·관광자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갖게되면 저절로 부강해진다고 믿고 있다.

민간조사에 응한 젊은이들도 국가와 민족의 부강발전(88.7%)과 국가정세의 안정(7.8%), 외세의 간섭이나 침략을 받지 않을 것(3.0%)이기 때문에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통일은 생활수준의 개선(43.7%) 전쟁 공포감이 안정된 생활(32.9%) 이념가족의 분단(16.9%) 개인의 능력개발·발휘(6.1%)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군철수(66.2%) ▲군비축소(17.7%) ▲경제교류(6.1%) ▲민간교류(5.2%) ▲상호청가관영회담체제(4.8%) 등을 꼽았는데 북한의 젊은이들도 앞세워 미군기사를 미군철수를 우선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지난 95년 탈북한 이모(32·경외대 천안)와 김씨는 "북한에서는 미군이 남에 주둔해 전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북한 CNT의 가장 많은 부문을 군사력증강에 써야한다고 교육받는다"며 "미군이 철수하

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5년 탈북했던 한양대 최광희(29·기계공학)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들이 주장 하듯 남북 어느 한쪽의 편이 우위에 흡수될 압박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남과 북이 서로 준비를 해서 주체적으로 결합하는 것만이 통합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1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17세부터 30세까지 군복무를 해야 한다. 그 결과 때문에 북한의 4세대는 휴전선일 시기며 13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민간직 생활에 짧은 노동력을 시용할 수 있기를 갈

망 남쪽의 전전가능성이 적어져 그동안 군사력에 쓰였던 부분을 민간 경제로 돌릴 수 있기에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사회방견연구소 김기욱(金琪玉·38)씨는 "북한의 4세대들은 사회주의의 틀속에서 사고하면서도 훨씬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용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 민족이나 통일이 돼야 한다는 막연한 감정적 심득이 아닌 실제 통일이 우리 삶과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심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은넷기자>

# 아직도 벽찬감동... "잘될것 같다"

6·15선언



재계 수행원 방북소감

철도등 SOC 확충  
중소전용공단 제안

李源浩 증기업 부회장

"17일 오전 11시50분,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평양공항은 쾌청한 날씨 속에 수천명의 환영인으로 붐볐다. 순간 우리 모두는 공인자 생시인시 모을 환상에 젖어 가슴이 뭉클해졌을 듯했다."

15일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회(李源浩) 상근부회장은 자신이 방북중에 북한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모택 동국의 생방송 참여토코스를 참석하고 다음 이부회장은 경기도 양양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16일 새벽 1시를 기차와 만났다.

이부회장은 방북기간중 김정일국방위원장실을 모두 3차례 만났다. 그때마다 김위원장은 "수고합니다", "방북 감사하다"는 간단한 말을 건넸다고 한다.

14일 만찬에는 김위원장이 정몽헌(鄭夢憲) 현대건설이사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어머님은 안희태 사님"이 정주영(鄭周永) 전말에 회장의 연봉을 물었다. 장사라도 "어머님이 김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연봉을 전액 내라고 했다"고 말했으며 김위원장은 이에 "모든에 방북할 때는 꼭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고 이부회장은 전했다.

이부회장은 김위원장에 대한 인상 "김군이 남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원만하고 반년이 바뀌어 최초의 방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부회장은 14일 오후 평양 인민공전에서 1시간30분동안 가진 남북 경제 인사들간의 심포지엄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북한의 정몽헌 부총리 겸 재원(在元) 회장과 김재진(金在鎭) 부위원장이 회장에 인사말을 했다.

정회장은 "끊임없는 국지적 도전에 남북이유로 대응력을 키워 민족간 계층 발전시켜"고 말했다. 김회장은 "남북경협을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보완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부회장은 이날 ▲김위원장의 조장 ▲남북한 상호간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철도, 도로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휴식전 부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양수기자>

姜聖模 린나이코리아회장

린나이 코리아 김성모(姜聖模) 회장은 14일(현지시간) 15일차 노동신문을 받드는 손으로 기자에게 펼쳐 보였다. 남북한 정경회담이 역사적 현장에서 5년 2박3일간 북한여정이 복종수거된 지났다.

"임상만 초기와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그대에 흥인이 되는구나. 구와에 가게 됐구나. 장자리에 들었거나도 칭찬을 받고 평양의 밤하늘을 올려나 보고 또 올려나 보았습니다." 이후 평양에서 귀국한 직후인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농교동 린나이 코리아 사옥에서 만난 김회장은 여전히 "평양의 흥분"을 여는지 못했다.

具本茂 LG회장

"갈 5일이 안되었습니까." 구본무(具本茂) LG회장은 15일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향후 남북경협전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회장은 이날 방북수행단 해산이후 서울 사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밤 10시를 넘겨가는 길에 기자와 만났다. 그는 2박3일간의 방북기간중 느꼈던 북한 감흥들이 새 가지지 않은 듯 피로한 개색도 없이 활기에 차 있었다.

구회장은 "개인적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비중에 들었는데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내내 북한이 보여준 열광적 환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鄭夢憲 현대인사 이사

정몽헌(鄭夢憲) 현대인사에서는 15일 오후 청와대 앞 연무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방문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현대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단호하고 침착한 답변으로 일관, 대북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이사는 "이번 방북기간 열정이 너무 폭발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접촉 없이 집단적으로 행동했던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지라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오랜 친분관계

孫吉丞 SK회장

손길승(孫吉丞) SK회장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기업인들이 정부 당국자와 함께 경제인사담을 진행해나가는 한편"면서 "개발기업 차원보다 정부와 체계가 합조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회장은 16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삼호아파트 자택 앞에서 20여분동안 기자와 만나 북한방문의 흥분과 피로가 새 가지지 않은 듯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이같은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남북 경협과 관련, "남북은 서로 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제추진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우선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

투자보장협정체결등 최우선과제

임경도 부장이 고향인 김회장은 자신을 "평범한 선영인 실업가"라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앞으로 고향인 북한에 500만달러를 투자해 가스레인지나 난방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 계획"이라며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 양쪽에 보탬이 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인민회관에서 가진 김재진이 부총리 겸 회장에서 "개발투자 촉진"을 위해서 남의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보장이라고 북한측을 설득했으며 투자금 집행하는 남북공동장부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이같은 제의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회장을 전했다.

김회장은 14일 북한에 있는 사촌누이동생 해수(66세)를 평양 시산호텔에서 만났다. 46년 해방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함께하고 이듬해 어머니와 두 동생도 남북으로 헤어 온 후 고향 친척가는 첫번째 상봉이었다. 56년동안 가졌던 만남은 1시간만에 이렇게 끝났다. 김회장은 시제와 의인물, 회담품을 선물로 건넸다. 딸리움을 주려고 했지만 해주에는 받지 않아 아쉬웠다고 김회장은 전했다.

<이재교기자>

서로 도움되는 분야부터 경험추진

그는 방북기간중 남북 경협사업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수백만 명이 때문에 따로 해줄 얘기가 많았"이라고 겸사(謙辭)했다.

구회장은 그러나 14일 밤 평양에서 남북정상간의 공동합의문 채택 직후 숙소의 주임상 초대소로 돌아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방북단 일행 20명에게 서울에서 갖고 간 명안탄인 17년산 양주 2병으로 진할 동력 정도로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회장이 이러한 분위기를 돌아서 일종류 삼청진자 부회장도 객상에 있던 들국죽, 감채포도주 등 북한순례를 동행 가져와 마시며 주임상

초대소 1층 식당에서 얘기문을 피었다는 것. 구회장은 방북기간중 북한측이 마련해준 별다른 승용차에 용종류 삼청진자부회장과 함께 타고 움직였다고 손발등 정몽헌 부회장은 전했다.

구회장은 이날 서울 도착직후 기자들의 회견요청에 제대로 LG중보심을 통해 "경협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다들 TV로만 보던 삼청진자 부회장은"에 국제통일위원회 간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두기자>

이달말께 다시 방북 對北사업 논의

김 위원장이 있는 조건 아-대방위위원회 관계자들끼리 개별접촉을 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은 단계별 도입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 신민보호장치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제도적 절차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이사는 "금강산개발사업, 남북한 철도복원사업 등 현대에 대북사업 현안들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이사는 그러

나 6월말을 기대해볼라고 말했다. 남측은 회견되지 않았지만 이달말중 정주영(鄭周永) 전말에 회장과 함께 다시 북한을 방문, 친척한 현안들을 해결해달라는 의지가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이사는 최대 현안인 시해연공단 사업 부지선정과 관련, "(신의주에 아이 해주는 남포지역에 대해서도 곧 실시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부지선정사업의 가시성을 조망할 수 있을음을 시사했다. <송길호기자>

경제공동체 설치... 정부가 나서야

지 원정, 신민안진보장, 정산경제 발전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회장은 SK의 에너지-정보통신 분야의 김위원장에 대해 "이번 방문은 그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구체적인 내부 구성은 갖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방북소감에 대해 "김재-식당위에서 담담한 뒤 북한에 직접 감회 회복한 것같은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남북이 주민 국가를 지니게 해줘야 하고 이면에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생각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컴퓨터센터와 뒤공장등을 둘러보았다"면서 "컴퓨터센터는 일정 규모에 오른 것으로 보였고 북한도 컴퓨터분야에는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같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기업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과 기술인력등을 시작으로 문제를 하나씩 차근 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직접적이고 직접간접 대화를 풀어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노성필기자>

# 한반도문제 우리손에 '들러리役'은 끝났다

6·15선언



주변 4강 입김약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이익관계를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단절상태에 있던 남북간 직접대화 라인이 북연재 진전에 동진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평화문제에 대한 논의의 길이 크게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도 대(對)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온 가장 1차적인 결과는 한반도문제가 70년만에 다시 '인민대화'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91년 북한해방기 이후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손을 떠나 국도로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남북 직접 대화가 거의 진무한 상태에서 대(對)외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일본도 김수로 건설비용 1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에 끼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4자회담이라는 틀속에서 자신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대외장대에서 배제돼 있었다. 자신의 대북에서조차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해야 했고 그 길로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들이어야 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 놓았다. 미국을 주변4국은 정상회담 진행기간 내내 거의 매일 한국 외교부를 찾아와 회담결과를 브리핑 받아냈다.

정상회담 결과가 주변 4국에 미칠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내에선 대북

'포용정책'이 강경정책에 비해 더욱 실효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방식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합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국 입장의 상대적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대북수교원상 등에 보다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기대하고, 러시아는 그동안 외화된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일보기자>



외신이 타전한 '국내표장' 서울의 한 상인이 15일 사내 중심기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평화공동선언' 내용 등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집중 보도한 국내 유일석간 종합일간지 '문화일보'를 읽고 있다. <서울=AP통신>

한반도주변 4강에 특사... 6·15합의 설명

## 美엔 '핵-미사일 특별메시지' 가능성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적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정부는 16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주변 4강'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장재룡(張在龍)외교부 차관보가 주한외교사절단원 초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합의된 '남북공동선언' 내용을 북방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미국·일본은 원위대(原威代)장외대 외교관 보수석, 중국·러시아는 반기문(潘基文)외교부차관에게 각각 특사지기로 방문한다.

황수식은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매릴랜드 옹브라이트 국무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비

평을 설명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내외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에는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해 두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만이 15일 귀환 인사말을 통해 "김정일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미국측에 전달할 김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워싱턴 정가 발각에서는 벌써 김대통령과 김위원장에 북한이 미사일에 발 중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황수식은 이어 19일 이들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 등에게 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은 모리 요시로(森田)총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통령에게 친박적 북-일 수교의지를 김위원장에 직접 전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반기문차관은 15일 밤 중국으로 출발. 뒤지위안(杜紫煥)외교부장을 만난 뒤 곧바로 18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 관계진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기자>

풍부한 의미... 빠른 판단력... 동양적 예의...

### 새모습 金正日위원장

그동안 '세계적이고 오묘하고 추동적인 은둔의 지도자'라는 일면적인 평가를 받아온 북한 김정은(金正日·사진)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밝혀졌다.

특히 김위원장은 북한은 물론 남한 주민까지 의식하는 행동이 나타나면서 많은 위인으로 남포교류시대를 앞두고 남북과 주민 모두를 상대로 직접 설교 및 이목 취조작업에 나섰다. 지지도 나오고 있다.

일단 김위원장은 솔직하고 차분하며 유연하고 지도력을 갖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벤트' 연출에도 상당한 능력이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위원장의 행보는 13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안공항에 나와 김대중을 인접하는 모습부터 파격이 연속이었다.

김위원장은 2000년 동안 ▲외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중부단 유미 감각과 각의없는 대화로 최종을 압도하여 ▲동양적 예의가 몸에 배어 있고 ▲빠른 판단력과 타당성에 김치 직감을 갖고 있음을 과시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는 남북사, 참관민, 한국적 김치 등의 표현을 기침없이 쓰는가하면 서운에 있던 평양소년예단이 신화예고를 방문했을때 교실의 대나무를 절기한 사실을 보고 받고 '남측 대표들은 이 평양에 왔을 때 평양의 인공기를 모 두 내려야 하느니라'며 위장된 면 것으로 전해진 솔직하고 유연한 면모를 보였다

### 국제여론-남측언론에 각별 신경 "남북교류시대 주도권 겨냥" 분석

남한과 서방의 평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14일 김위원장은 "우리과 사람들이 아무 나뭇이 뭉치고 말았으면 예 운동생활을 하다. 운동생활하는 사람이 잘 나타냈다.

남 과거에도 중추에 갔었고 인도네시아에도 갔었고 외국에도 비공적으로 많이 갔는데 나보고 운동생활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산주의자도 노획이 있고 우리는 같은 조선민족이다"라는 외부사건과 국제여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신들은 김위원장이 "과거를 잊고 우리에게 집중된 세계의 이목에 대답을 잘해 한다"고 많은 부분을 놀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위원장은 북한에서 급기사하

다. 남북 언론에 대한 시각도 관심 가졌다. 김위원장이 8-15이전에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기로 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위원장은 TV나 신문 등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등 남한 언론을 기꺼이 감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위원장은 남측TV를 통해 지켜보다면서 "심한만 남북지들이 교양소식이 전달될까 눈물을 흘리더라"고 한 것이다. "행동에 좀 보라 (서울)프레스센터가 장바닥 갈라더라"는 등 언론을 화제로 이어가며 많이 이끌어냈다.

한편으로 김위원장에 대한 칭찬의 분석은 좀더 시간을 두고 만들어 해야 한다는 선중론도 있다. <이현중기자>

### '민족사 대전환' 원로에 듣는다 (1)

姜元龍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어려운 것이다. 민족경제에 균형 발전도 잘 생각해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문제가 나오면 부조간 상호주의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은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격스러운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남북 관계자들이 만난 적이 있었다. 1947년 김규와 김규식의 평양 방문이 있었고, 1972년 7-4 공동성명도 나왔다. 그리고 1992년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그 외에도 두번이나 직접 자 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상황과 정반대다. 실제로 남북간의 정상이 처음 만난 건 정말 대단한 일어서서 '민족사적 대전환'이라는 의미부여가 되질만 못했다. 이런 반세기만의 국민친화를 함으로써 김대중대통령께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나 혼자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천당은 남의 나라들이 만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 '통일 지상주의' 경계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

북한과 남한은 경제적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일방적인 배제된 관계이다. 결코 경제는 기업주의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무산 그 기업들에 뭔가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노파심이었지만 또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다.

### 반공 일변도 안될말

이번 합의문의 실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인 것만은 분명한데, 북한처럼 임시불안하지 않은 한국 쪽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인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떠나 대안을 안했으면 좋겠다. 초단적인 합의를 하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와 '민족의 융합성숙'을 우선하자는 것은 차라

### "金대통령 큰일 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험난한 길

했다. 그렇지만 이번 극적인 정상회담과 관련된 4개 강국이 남북간의 평화를 기원해왔다. 과거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55년만 남북간 대결구도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 한계 이렇다. '수수백개 인명' 감정 일국방위원장이 공화국에 나타나 자 동차에 김대중대통령과 동승하는 걸 보고 참 놀랐다. 바로 이런 진정적인 자세야말로 전세계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통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계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말했듯이 이제부터 풀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합의된 다섯항목 중 한반도에서 전쟁, 참사, 위협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광복할 만한 성과다. 물론 미군철수, 휴전선, 핵무기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체제문제도 크다. 우리는 연합제,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나는 수교의 안방'만 남북이 안과 유사한 것이라고 합의했었지만, 참사 국민적 논의와 제재가 필요한 대목이다.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교육과 제도로 심어진 냉전구도의 사고를 뿌리뽑는 의식의 문제도 상당히 크고

리 신상에 속한다.

또 시민단체들은 지나 우, 여와 야의 입장이 아닌 민족의 입장에서 공생과 공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가장 주려해야 할 일은 민족통일 성회복이다. '무장정착'이 중요 한게 아니라 민족통일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참에 시민단체의 힘이 있다고 본다.

나는 항상 남북문제에 대해서 민족논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해왔다. 민족 눈으로는 같은 민족, 다른 민족 눈으로는 우리와 사고가 다른 체제인 김정은이 유념해야 한다. 동포애로만 보는 것은 남반주의이다. 또 우리의 다르니까 함께 살 수 없다는 반공주의도 안된다. 양쪽을 항상 함께 간지려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통일 제1원칙'을 꼽고 싶다. 정교한 개념과 마스터플랜 없이 부조간 통일되면 풀리는 식의 자세는 헌법하지 않다. 북한사람들에게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약속했지만 이 말은 20년이상이 걸릴지 모른다. 그 사이에 할일은 북한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간에서 사람으로 북한을 돕는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남북간의 원동력을 없애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첫걸음이고 다음 걸음은 더 험난 할 것이다. 여차치 못하면을 알고 합의는 길이다. 큰 의미로 김치도독 할 때이다.

“남북정상 선언 현영 한반도의 평화 첫발”

클린턴 성명

[워싱턴=민병두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향후 계획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김대중 연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희망적인 첫 발”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당국이 이 진동유망한 길을 계속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황 곧 북한간다

<1면서 계속>

김대통령은 또 공복일에 즈음해 이뤄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문제와 경제협력에 비롯한 각분야의 교류 협력, 당국간 대화 개최 등 6·15남북공동선언에 담긴 5개항의 실현만 미련을 내리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이 이달 안에 가능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 신청문제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특히 남북 당국간 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전두환(全斗煥)·최규하(崔圭植) 두 전직 대통령과 이만섭(李萬晸) 국회의장, 최룡성(崔龍昇) 대법원장, 이한동(李韓童) 총리서리, 이윤환(李潤煥) 중앙선언위원장을 장안대로 초청,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중국을 방문중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주말에 귀국함에 따라 내주초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역시 중국을 방문중인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도 내주 귀국후 설명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또 17일 현대리얼 이희창(李熙昌) 총장과 단독 또한 회동을 갖고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이산상봉’ 판문점-나진이 유력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이달중 가동 ‘실향민1세대 우선’ 대상자 내달확정

6·15선언

南北새지평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대한적십자사 박기홍(朴基勳) 사무총장은 15일 “남북적십자간 회담은 남과 북에서 각각 실무총장을 포함해 3명씩 참여하는 실무회담이 될 것이며 장소는 판문점에 유력하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관계상 우리측에서 대표단을 구성한 뒤 북한측에 전문을 보내면 수락여부를 통보해 구체적인 회담일정이 결정된다”면서 “이번엔 정상회담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합의된 만큼 이달내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방문 규모에 대해 박총장은 “우리는 최대한 많은 실향민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88년 방문때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고령의 실향민 1세대와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중 직계존속을 찾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밖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상봉대상으로는 우리측이 제외한 판문점에 대해 북한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교환방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과 금강산지역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의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사 확인, 사진교환, 선물교환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산가족 상봉방문이 정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호교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상봉대상 등은 이달중 재차 남북적십자간의 회담에서 결정된다. 남한이 이산가족 방문규모를 크게 늘리는 반면 북한은 정치적 배

담을 감안, 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정상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대규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귀국보고회에서 “김정일위원장에 용크게 하달라고 요청, 화답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회의에서 “남북양측에서 각각 100명씩 상호방문을 하자”고 재의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이산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상봉대상자 선발기준과 절차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분위험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하지 않았던 실향민들의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 상봉대상자 선정을 머무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사, 254개 민주경호동맹지 본회의 시·군·구지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7월말까지 방문 대표단 구



신청서 제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 상봉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실향민들이 16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낙중기자>

모와 상봉대상자 선정기준등의 윤곽을 화상회의 개최이다. 정부는 방문단 상호교환을 계기로 협곡간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지도록 생사확인, 주가지 서신교환, 상봉연회소 설치등들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 지난 88년부터 사형인간부에 관련부서를 마련, 실행을 과감하고 있다. <유병권기자>

# 북한 통신현대화 본격 참여 기대

6·15선언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속도전력 등 협력사업이 가시화함에 따라 대북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부문 협력의 경우 당장 실행에 옮기려는 시화간경기(ISC) 사업이나 제조업 등 분야에 비해 걸림돌이 많아 신속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광중전화망 구축 등 전화보급 사업의 경우 남북 경제협력 기금 지원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경제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업이 골발 것이라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부문 협력사업의 경우 '속도는 빨리하되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정보통신 부문 남북 경제협력은 단기간 정부지원의 통신교류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의 북한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중점 추진을 위한 기업간 통신교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통신 및 위성사업 협력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이는 성과를 올린 정보통신부는 남북 통신 인프라 부문 협력은 향후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

## 정보통신업계 발걸음 분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정보통신 부문 협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은 무국경·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산업의 특성상 남북관계 변화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단, 표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온세통신·SK텔레콤·삼성전자 등 대북 정보통신 사업추진에 의욕을 보이는 국내 업체들은 남북간 이종과제(제조업과 서비스업) 협력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떨치고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 SK 등 일부 기업은 전자 분야 협력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

에 위성통신망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도 손길출 SW정보통신 회장의 정상회담 수행용 계획은 예니지본 이외에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을 준비 중이다.

컴퓨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북한조선컴퓨터센터와 소프트웨어(SW)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미 세부사업에 착수한 상태. 삼성은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에 '삼성조선컴퓨터SW공동개발센터'를 설립, 2년간 7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SW산업협회는 국내 SW업체와 시스텔콤(SI) 업체들의 북한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겨레통신은 북한에 정보기술(IT)분야의 경영 직업훈련센터 설립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남북간 정보

## 현대·SK등 IT분야 교류등 대북진출 잇따라 정부선 통일대비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유도

통신현대화사업 중 정보통신 협력사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담의 성공에 상당한 의미 부여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대북사업을 펼치는 기업은 한국통신과 온세통신. 한국통신은 지난 3월 관계자 5명을 공임으로 파견, 북한의 조선제신회사와 북한통신망 현대화사업 추진 방안을 타진했다.

증권관련법시업으로 교류비용 확보한 온세통신의 경우 4회선 규모의 디지털 유무선 복합 통신장비를 증설하는 한편, 증권사 일부 지역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북한 서해경관지역

통신분야 기술협력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메디슨·KTB·네트웍스·인텔수비어리스연구소·네이버 등 업체들은 중심으로 벤처업체의 대북사업 준비도 활기를 띠고 있다. 메디슨은 최근 경영의료기기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이만희회장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진출을 본격화했다.

KTB 네트웍스는 오는 7월까지 남북 경제협력을 구성해 북한의 경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KTB는 이를 위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임원진이 베이징

과 공영을 차분로 방문할 계획이다. 인텔수비어리스연구소는 최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한에 컴퓨터 배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건별을 북측에 건달한 상태. 네이서는 북한의 검색엔진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타당성 여부의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남북한 IT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북측에 인터넷 교육센터 설립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 이를 협의하고 있다. 이공통신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IT부분 교육"이라며 "강남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인터넷 교육센터 설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순훈 미래전략연구원장은 "남북의 IT협력은 공동언어를 사용하고 불리적으로는 무선통신을 활용하면 단시간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안정하고 대북사업에 체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기자>

## 북한기초서비스 노래방 설치

인터넷방송 전문 업체인 KCC컴퓨터통신(대표 심석구)은 남북간 대중음악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최근 자신의 음악방송국 '핫웨이'인(www.hotwave.net) 노래방 코너를 통해 북한기초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노래방에는 북한에서도 잘 알려진 '희망의 물 비둘기' '여성은 꽃이다' '축제를 들자' '강산' 등 서정적인 북한 대중가요 10곡이 게재돼 있다. (2-31) 1-6123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대표단과 한 관계자(오른쪽)가 14일 오전 평양 조선컴퓨터센터 대회의실에서 북한측 안내원(가운데)과 인터넷교육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TV촬영>



월드라인

'불량국가' 빗장열고 세계속으로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들이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쿠바 등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이들 7개국은 최근 잇단 개방·개혁정책 도입과 함께 세계무대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일부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에 근거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지(紙) 등 미국 언론들조차도 불량국가 위협이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란-쿠바등 개혁정책 가속화 개방외교 국제무대 진입 시도

**북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MO)는 "북한이 잇단 파격적 외교 행보로 불량국가에서 안기를 끄는 존재로 변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를 놀라게한 북한 김장일(金山日)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회담 수용은 북한의 개화·개방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9년 9월 베이징 북-미회담에서 미사일발사 유보를 발표한 이후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외교 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중국을 친각방문,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회동한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북한은 시방 친7개국(G7) 기운대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수교했다. 이어 5월에는 호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이전 필리핀과의 수교도 예상된다.



시리아

반(反)이스라엘 중동 세력의 대부각이던 하레즈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개방적 사고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바사르(바신 가운데)가 권력을 승계, 시리아와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예상된다. 바사르는 부친 아사드의 생전에도 외국 순방 및 외교사절 영접을 대신하는 등 국제무대 김입을 쌓아왔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한 시대의 종언과 새

로운 중동의 단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바사르의 개화·개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리비아** 지난 60년 쿠데기로 집권한 이후 31년동안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는 카다피(사친 아래)는 아프리카의 새 맹주인 줄 자처하면서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카다피는 또한 98년 미국 펜싱 747항공기 폭파사건의 용의자 2명을 대량으로 범정에 넘겨주는 등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라크·쿠바** 이라크의 경우 최근 침공으로 발발된 걸프전 이후 10년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교황청 등 국제사회로 부터 제재를 해제해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셀모 소다노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 9일 유엔의 제재 조치가 사담 후세인 정권보다는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미국의 안건단세들은 최근 쿠바에 대한 40년제재가 피딘 키스트로 정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채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강제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박상주기자>

美발표 테러지원국... 93년 이후 7개국

'불량국가'란

불량국가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테러지원국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테러단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무기판매, 자금제공 등 지원을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수단 쿠바 등 7개국이 90년대

후 '고정팬'로 올라왔다. 북한의 경우 지난 87년 김원희(金元熙)의 대인항공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88년 명단에 오른 이후 13년째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직공과 요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1일 발표한 올해 미국 국무부의 불량국가 보고서는 지난

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국제테러가 302건으로 98년의 274건보다 43% 늘었으나 사망자는 전년의 741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233명이었다며 부상자도 5052명에서 706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가 새로운 테러리스트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파키스탄은 전통적 우방이라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 남북정상회담 국내신문기사집

(정상회담기간)

---

2000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통일부

참여자 김창현, 윤보영

장원규

인쇄처 웃고문화사

(Tel 2267-9795)

---

<비매품>

1